개정
증보

제주어사전

濟州語辭典

제주특별자치도

발 간 사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제주특별자치도는 기나긴 역사와 오랜 전통을 지닌 문화의 섬입니다. 바다로 둘러싸여 있는 제주에는 제주만의 특성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고유하고 풍부한 유·무형 문화유산들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중요무형무화재 제71호인 제주칠머리당영등굿이 세계무형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확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제주어는 끈질긴 생명력으로 보존·전승되고 있는 다양한 문화유산 가운데서도 제주문화의 정수를 읽을 수 있는 원형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국어학계에서 제주어를 귀중한 학술자료로 평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주어는 일상의 말에서부터 굿 사설과 민요, 속담 등에 이르기까지 독특한 음운과 풍부한 어휘를 지니고 있어 제주 사람들의 문화적 상상력을 한층 깊이 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값진 제주어가 새로운 문명의 전개와 개방, 교류라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사라져 가는 안타까운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선조들이 남겨주신 값진 문화유산인 제주어의 보존과 육성을 통하여 지역의 문화와 역사를 계승하고, 전승발전시킴으로써 향토문화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민의 제주어 능력 증진과 교육, 문화관광자원화 등 다양한 시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책의 일환으로 우리 도에서는 1995년의 『제주어사전』에 이어 개정·증보판을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간행된 『개정·증보 제주어사전』이 제주의 문화 정체성을 밝히고, 나아가서 국어학의 연구와 발전에 기여하는 귀중한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09년 12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 태 환**

發 刊 辭

우리 제주도는 한민족의 문화적 상상력을 한층 깊이 접할 수 있을 만큼 유달리 풍부한 전통문화를 전승해 오고 있는 문화의 고향입니다.

제주도의 생명력을 키워온 다양한 문화유산 가운데서도 가장 제주적인 문화의 원형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제주의 언어입니다.

제주어는 국내 어느 지역의 언어보다도 희귀한 존재로 인정되고, 국어학사상 가장 귀중한 학술자료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제주도를 일컬어 언어의 보물창고라고 부르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스런 음운과 풍부한 어휘를 지닌 제주도의 토속어에서 우리는 섬이라는 공간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며 더불어 살아 온 제주인의 정신적 맥박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값진 제주어는 근래에 이르러 표준어의 보급과 매스컴의 발달, 경향 각지와의 빈번한 교류 등으로 말미암아 급격히 사라져가는 안타까운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희귀한 문화유산인 제주어를 후세에 길이 전승시키고, 국어학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학술자료로 널리 제공하고자 『濟州語辭典』을 간행하게 되었습니다. 모처럼 간행된 이 『濟州語辭典』이 위대한 제주시대를 열어가는 정신적 원형을 밝혀내고 나아가서는 우리 나라 국어학 연구와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귀중한 학술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 사전을 펴내기까지 전래의 제주어를 조사·수집·정리하는 데 열성을 다해 주신 제주대학교 박물관과 책임연구원인 玄平孝 박사님을 비롯한 연구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운 뜻을 표합니다.

1995. 11.

濟州道知事 愼 久 範

조사·집필 경위

『제주어사전』 개정·증보 사업은 제주어에 대한 관심과 좋은 사전을 열망하는 사회적 욕구의 결과이다. 이 사업은 "여러 요인으로 전래의 제주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함에 따라 일실되기 전에 이에 대한 체계적 조사와 수집을 통하여 사전으로 발간하여 제주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전승시킴과 동시에 국어학 연구 자료로 보급·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제주도와 제주문화예술재단이 업무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업무 협약의 당초 계획은 2년 동안의 조사·집필과 1년의 발간 계획으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예산 확보의 문제로 사업 첫 해인 2006년도에는 5개월(3월~7월), 2007년도에는 4개월(2월~5월)의 작업으로 그칠 수밖에 없었다. 2007년 9월 '제주어 보전 및 육성 조례'가 제정되면서 전국적인 관심과 함께 예산이 확보되고, 이에 따라 사업도 1년 더 연장되었다. 그 결과 2008년도에는 10개월(1월~10월)에 걸친 조사·집필이 이루어졌다. 특히 2008년 8월 4일부터 8월 8일까지 4박 5일 동안 일본(오사카)을 방문하여 재일 동포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를 벌일 수가 있었다.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7명의 분야별 조사·집필위원이 꾸려졌다.

고재환: 속담 관련 어휘, 일반 어휘
강영봉: 일반 어휘, 사전 검토
고광민: 생산 기술 관련 어휘, 일반 어휘, 사진
문순덕: 일반 어휘
강정식: 무가 관련 어휘, 일반 어휘, 사진
오창명: 마을 이름, 일반 어휘, 사전 검토, 사진
김순자: 일반 어휘, 사전 검토

위원들은 2006년 2월 15일 첫 모임을 시작으로 세 차례의 모임을 갖고 조사 내용, 조사 분량, 원고 작성과 제출, 원고 작성 요령 등을 확정하였다. 세 차례의 모임을 통하여 결정된 주요 사항은, 기존의 『제주어 사전』 검토와 수정, 현지 조사와 조사 지점 제시, 원고 작성 요령 검토, 시각 자료(사진) 구축, 향토지 등 자료 검토, 위원별 매달 새로운 어휘 50개씩 조사, 분기별 조사된 150개 어휘에 대한 원고 작성과 제출, 기존 사전의 '조사 경위'와 '일러두기'를 참고할 것 등이었다.

이와 같은 결정 사항에 따라 위원별로 매달 새로운 어휘 50개 목록을 제출하고, 분기마다 이미 제출한 3개월치 어휘 목록에 대한 원고를 '원고 작성 요령'에 맞게 작성, 제출하면서 어휘 자료를 축적해 나갔다. 이러한 작업은 중간에 끊기긴 했지만 3년 동안 진행되었다.

한편 시각 자료 구축은 고광민·강정식·오창명 등 세 위원이 담당하였으며, 편집 과정에서 사진 작가 서재철과 조사·집필위원인 김순자의 사진 자료도 추가로 활용하였다.

2009년 12월 1일

조사·집필위원을 대표하여 **강 영 봉** 씀

조 사 경 위

제주어는 국내의 어느 지역의 언어보다도 가장 희귀한 언어로 인정되어 왔고, 국어학사상에서도 값어치 있는 자료로 평가되어 온 터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표준어의 보급·매스컴의 발달·경향 각지와의 인문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전래의 제주어는 일실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런 점을 늘 안타깝게 생각해 오던 본인은 본래의 제주어가 사라지기 전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수집은 물론 사전으로 편찬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제주문화 유산을 전승하는 길이라 여겨, 제주도 당국과 여러 번 접촉을 시도했다. 그때마다 예산이라는 현실적 문제에 부딪쳐 마음과 뜻 대로 되지 않아 애 타는 심정을 몇 년 가슴에 지니고 있어야만 했다.

3·4년이 지난 1993년 후반기가 되어서야 비로소 '제주어 조사' 용역을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당초 계획 대로라면 '제주방언연구회'와 용역 체결이 이루어졌어야 했지만 법인체 등록의 미비로 제주대학교 박물관과 용역이 이루어졌다. 1·2차로 나누어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기간은 다음과 같다.

1차 조사 : 1993. 11. 1. ~ 1994. 2. 20.
2차 조사 : 1994. 4. 1. ~ 1994. 12. 20.

조사 요원이 5인이라는 제약 때문에 조사단은 책임연구원에 玄平孝(전 제주대학교 총장·방언학), 연구원에 金鐘喆(산악인)·姜榮峯(제주대학교 교수·방언학), 보조연구원에 高光敏(제주대학교 박물관 연구사·민속학)·吳昌命(제주대학교 강사·국어학)으로 구성하였다. 세부 조사 항목 결정과정에서 민요·해녀를 연구하는 金榮敾(제주도지편찬위원회 상임위원·민속학)이 조사·집필 위원으로 보강되었다.

우선 몇 가지 원칙을 세워 조사에 들어갔는데, 그 원칙은 다음과 같다.

조사 항목 선정
① 제주 특유의 어휘
② 제주에서 예전부터 사용해 오는 어휘
③ 분담된 분야 이외의 어휘(동사·형용사·부사·감탄사·조사·어미 등)
④ 玄平孝의 『濟州島方言硏究』(자료편, 1962·1985)에 수록된 어휘 제외

조사 지점 : 전도에 걸친 8개 지점 이상

제주시 서부·애월읍(1)	성산읍(1)
대정읍(1)	구좌읍(1)
서귀포시 법환·호근동(1)	남원읍(1)
표선면(1)	제주시 동부·조천읍(1)

제보자

① 60~70세 내외
② 다른 지방에 오래 거주한 일이 없는 사람
③ 제보자의 부모도 제주 지역 출신일 것
④ 오랜 공직생활을 한 공직자 제외
⑤ 조사 사항에 따라 직업별·성별로 제보자를 정할 것

표기

① 제주방언연구회의 '제주어 표기법'에 따를 것
② 한글로 전사하되 제보자의 발음을 정확하게 파악할 것
③ 된소리로 발음되는 음은 [ ] 안에 적어 넣을 것
④ 긴소리에 주의할 것

조사·집필 위원의 분담 분야는 다음과 같다

玄平孝: 천문·시후·방위·인륜·인사
金鐘喆: 산악·식물
金榮燉: 의류·해녀·민요
姜榮峯: 신체·질병·행동·동물·무속·관용 표현
高光敏: 어업·세시풍속·공예·도구·수렵
吳昌命: 천문·시후·방위·인륜·인사

이렇게 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한편, 원고작성 요령을 정하고,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에는 조사·집필 위원들이 만나 조사 진척 상황·문제점·보강할 내용 등을 협의하면서 조사에 임했다. 여기서 하나 밝혀둘 일은 金鐘喆 선생이 1994년 8월 모임 이후로는 몸이 불편하여 나오질 못했고, 식물에 따른 어휘가 더 보강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본인도 퍽 미안하게 생각했지만 연구책임자로서는 이 조사 때문에 몸이 더 쇠약해진 것은 아닌지 안타까울 뿐이다.

조사·집필위원 모두가 수고했지만, 컴퓨터 작업을 전적으로 맡아준 吳昌命 군의 노고는 잊을 수가 없어 여기에 그 이름을 적어 답하고자 한다.

1995. 11.

책 임 연 구 원
제주방언연구회장 玄 平 孝

일 러 두 기

1. 이 사전은 현평효(1962·1985재판)의 『제주도방언연구』(자료편, 1962)를 근간으로 삼아 재조사된 어휘와 문법 사항을 추가하여 발간했던 『제주어사전』(1995, 표제어 18,456 항목)을 개정·증보한 것이다.

2. 표제어(25,350 항목)의 표기와 배열, 예문 표기는 부록으로 수록된 '제주어 표기법'(제주방언연구회)에 따랐다.

3. 표제어에 따른 설명 순서는 다음과 같다.

   표제어(한자)·문법 관계·전문 영역·대응 표준어 또는 설명·*예문(표준어 대역)·조사 지점·고어.

   ◦ 표준어와 일치하는 경우.
   보기) 상기-펭 명 사기-병(沙器甁). [전역]

   ◦ 표준어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보기) 올레 명 거릿길 쪽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 *하르방은 올레에 나오란 ᄇᆞ래단, 이상ᄒᆞ다고 생각ᄒᆞ연.(할아버지는 '올레'에 나와서 보다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여서.) [전역] 고 오래.

4. 장음을 비롯한 발음 사항은 따로 밝히지 않았다.

5. 방언형이 여럿인 경우는 대표형 설명 다음에 = 표 아래 가나다 순으로 나열하되 그 각각을 표제어로 삼고 조사 지점 다음에 → 표로 지시하여 대표형으로 찾아가게 하였다.

   보기) 골개비 명 <동> 개구리. [노형 조수 인성] = 가가비, 가개비, 갈가비, 개개비.
   가가비 명 <동> [호근] → 골개비.
   가개비 명 <동> [서홍 수산 가시 김녕] → 골개비.
   갈가비 명 <동> [명월] → 골개비.
   개개비 명 <동> [조수] → 골개비.

6. 관용 표현으로서 단어와 어구는 표제어 위치에 배열하고, 속담은 '(속)'이라 하여 표제어 항목의 예문으로 처리하였다.

보기) 갈치 명 <동> 갈치. *(속) 갈치가 갈치 꼴렝이 그차 먹나.(갈치가 갈치 꼬리 끊어 먹는다.) [전역] ㉮갈티.

7. 표제어가 표준어와 대응되는 경우에는 표준어 어휘만 밝히고, 표제어가 이 고장에서만 쓰인다거나 표준어와 의미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의미를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였다.

보기) 감-돌다 동 감-돌다. [전역]
상-가달 명 밥상을 사람 머리 위로 들어 넘기는 일. [전역]

8. 중세어를 밝힐 필요가 있는 표제어에는 끄트머리에 ㉮라 표시하여 그 어형을 제시하였다.

9. 어깨 번호는 형태 유형별로만 부여하였다.

보기) 단[1](壇) 명 <민> ① 단. 제단(祭壇). …….
단[2] 명 ① 묶음. 다발. …….
단[3] 명 '옷단'의 준말. …….
단[4] 명 숟가락 따위 열 개를 …….
단- 두 단-. [전역]
-단[1] 어미 -다가. …….
-단[2] 어미 -던. …….

10. 조사 지점은 [ ] 속에 넣어 밝혔다.

11. 설명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진(302장)을 수록하였다. 사진은 표제어 아래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나 하였으나 편집상 표제어 위에 배열하기도 하였다.

12. 약호와 기호의 뜻은 다음과 같다.

명 : 명사	관 : 관형사	선어말 : 선어말어미
대 : 대명사	감 : 감탄사	두 : 접두사
수 : 수사	부 : 부사	미 : 접미사 · 첨사
동 : 동사	조 : 조사	구 : 관용 표현
형 : 형용사	어미 : 어미	㉮ : 고어

<건> : 건축・주생활 <민> : 민속・무속 <요> : 민요
<공> : 공업 <병> : 질병 <음> : 음식
<농> : 농업 <설> : 신화・전설・민담 <의> : 의류
<도> : 도구 <식> : 식물 <지> : 지명
<동> : 동물 <어> : 어업・해녀
( ) : 한자, 예문의 표준어 대역. < > : 전문 영역 표시
[ ] : 조사 지점 → : 찾아가 보기
- : 연결 표시 = : 동의어 표시
* : 예문 (속) : 속담
‘ ’ : 문법 사항 설명에서의 강조, 표준어 대역이 불가능한 제주어.

13. 표준어는 『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우리말큰사전』(한글학회), 『국어대사전』(금성출판사)을 참고하였으며, 『표준국어대사전』을 우선하였다.

14. 부록으로 ‘제주어 표기법’을 수록하였다.

15. 기존의 『제주어사전』 교열・교정은 강영봉 오창명 오승훈,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교열・교정은 강영봉 김동윤 오승훈 김순자 등이 담당하였다.

개정 증보 제주어사전

- 발간사
- 조사·집필 경위
- 일러두기
- 본문(ㄱ~ㅎ)
- 부록 : 제주어 표기법

ㄱ

가 조 가. ① 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서 그 말을 주격이 되게 하는 격조사. [전역] ② 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서 그것이 다른 것으로 변하여 감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③ 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서 그 다음에 오는 '아니다'와 호응하여 그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가[1] 어미 -ㄴ가·-이냐. ① 체언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우리 살렴 못 산덴 ᄒᆞ여도 벡 년을 못 살 것가, 천 년을 못 살 것가?(우리 살림 못 산다고 하지만 백 년을 못 살 것이냐, 천 년을 못 살 것이냐?) *너는 어떵 늴도 밧 갈레 갈 것가?(너는 어떻게 내일도 밭을 갈러 갈 것이냐?) [전역] ② '아니다'의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저 빌레왓디 돌아뎅기는 ᄆᆞᆯ 느네 ᄆᆞᆯ 아니가?(저 너럭바위밭에 돌아다니는 말 너희 말 아니냐?) [전역]

-가[2] 어미 -가. 용언 어간에 붙은 '-안-·-언-·-연-·-란-·-던-' 또는 '-암선-·-엄선-·-염선-·-람선-', 그리고 '-아선-·-어선-·-라선-·-여선-' 등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동작을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창호네 아방 봐전가?(창호네 아버지 보이던가?) *그 사름덜 일 헴선가?(그 사람들 일하고 있던가?) [전역]

-가[3] 어미 -까. 용언 어간에 붙은 '-ㅂ데-·-ㅂ디-' 또는 '-암십데-·-엄십데-·-염십데-·-람십데-', 그리고 '-아십데-·-어십데-·-라십데-·-여십데-' 등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동작을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요즘에 노리 ᄯᅳ린 막뎅이 삼년 우려먹는단 말 들어납디가?(요즈음에 노루 때린 막대기를 삼년 우려먹는다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웃드르에 질 빰십데가?('웃드르'에 길 빼고 있었습니까?) [전역]

가가비 명 <동> [호근] → ᄀᆞᆯ개비.

가개비 명 <동> [서홍 수산 가시 김녕] → ᄀᆞᆯ개비.

가격 명 [전역] → 까격.

가-곡(家穀) 명 [구억] → 가옥.

가곡-오곡 부 가고 오고. *펜진 ᄒᆞᆫ동

안 가곡오곡 ᄒᆞ엿주.(편지는 한동안 가고 오고 하였지.) [전역]

가골라비 명 [수산] → 개오리-연.

가근-ᄒᆞ다 형 다정하고 친하다. [전역]

가깝다 형 가깝다. [전역] = 가찹다. 고 갓갑다.

가끄다 동 깎다. [수산] 고 갘다.

가끼다 동 깎-이다. *머리를 가끼다. (머리를 깎이다.) *위신이 가끼다. (위신이 깎이다.) [전역]

가나-오나 부 가나-오나. [전역]

가난 명 가난. [전역]

가난-다리 명 가난한 사람을 낮춰서 일컫는 말. [전역]

가난-방이 명 [전역] → 가난-벵이.

가난-뱅이 명 [전역] → 가난-벵이.

가난-벵이 명 가난-뱅이. [전역] = 가난-방이, 가난-뱅이, 가난-쟁이.

가난-쟁이 명 [전역] → 가난-벵이.

가남[1] 명 [전역] → 가늠[1].

가남[2] 명 [인성 조수] → 가늠[2].

가남-대 명 <도> 논에 나락을 직파할 때 가늠으로 삼는 대(竹). [하모]

가남-세역 명 [조수] → 설칫-세역.

가남에 엇이 구 일 처리 능력이 없이. [전역]

가남-ᄒᆞ다[1] 동 가늠-하다. [전역] = 가늠-ᄒᆞ다.

가남-ᄒᆞ다[2] 동 겨냥-하다. *가마귀 구름 가남ᄒᆞ듯이 ᄒᆞᆫ다.(까마귀 구름 겨냥하듯이 한다.) [전역]

가냐귀 명 <동> [조수 서홍 인성] → 가마귀.

가냥 명 간수. 보관. [전역]

가냥-ᄒᆞ다 동 보관-하다. 간수-하다. [전역]

가늠[1] 명 <어> 뭍의 지형지물을 이용해 가며 어장을 찾는 일. [전역] = 가남[1].

가늠[2] 명 가늠. [전역] = 가남[2], 개남.

가늠-사공 명 <민> 이물에서 뱃길을 가늠하는 사공. [전역] = 이물-사공.

가늠-ᄒᆞ다 동 [전역] → 가남-ᄒᆞ다[1].

가다 동 가다. *(속) 오 리 보앙 천 리 간다.(오 리 보고서 천 리 간다.) *(속) 장개 가는 놈 불 두엉 가듯 ᄒᆞᆫ다.(장가 가는 놈 불을 두고서 가듯 한다.) [전역]

가다가 부 [전역] → 가당.

가다귀-섬 명 사방으로 가두어져서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는 섬. *씨집데레 날 가랭 홈은 물도 낭도 읏인 가다귀섬의 귀양 정베 가렌ᄒᆞ는 거우다.(시집으로 날 가라고 함은 물도 나무도 없는 '가다귀섬'에 귀양 정배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역]

가다리 명 <동> 재-방어. [사계]

가다-오다 부 가다-오다. 어쩌다가 가끔. 지나는 길에 우연히. [전역] = 가당-오당, 오당-가당.

가닥-질 명 가댁-질. [전역] = 과닥, 과닥-질.

가달[1] 명 [전역] → 다리. 고 가ᄅᆞᆯ.

가달[2] 명 방목을 위하여 모은 소떼. [덕천]

가달-머리 명 '다리'의 낮춤말. [전역]

가달-석 명 [서홍 김녕 조수 노형 가시, 덕수 어음] → 마음-석.

가달-질 명 ① 상대방을 걷어차려고 내뻗는 발길질. *웃사름안티 가달질

안 ᄒᆞᆫ다.(윗사람한테 가달질 안 한다.). [전역] ② 짓궂게 뛰노는 것. *이제랑 가달질 그만ᄒᆞ영 집의 가라.(이제는 '가달질' 그만하고 집에 가라.) [전역] = 가달-춤.

가달질-ᄒᆞ다 동 발길질을 하다. 짓궂게 놀다. [전역]

가달-춤 명 야단스럽게 뛰놀며 장난하는 일. [전역] = 가달-질②, 갈레-춤.

가당 부 가다가. [전역] = 가다가.

가당-오당 부 *가당오당 만나도 정들민 그만이다.(가다 오다 만나도 정들면 그만이다.) [전역] → 가다-오다.

가도다 동 가두다. [전역] = 가두다, 가치다. 고 가도다.

가동-가동 부 매달리어 허둥대는 모습. 매달린 것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습. [전역] = 가동강-가동강.

가동강-가동강 부 [전역] → 가동-가동.

가두다 동 [전역] → 가도다.

가드락-가드락 부 [전역] → 가들락-가들락.

가드락-ᄒᆞ다 형 버릇없이 무례하고 거만하다. [전역] = 가지락-ᄒᆞ다.

가들락-가들락 부 ① 위로 치켜 들리거나 매달린 것이 발을 오그렸다 폈다 하는 모양. *애긴 눅지민 가들락가들락 ᄒᆞ멍 논다.(아기는 눕히면 '가들락가들락' 하면서 논다.) [전역] ②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해 다리를 쳐들고 바동거리는 모습. *고랑창에 빠젼 다리만 가들락가들락 ᄒᆞ염서라.(고랑창에 빠져서 다리만 '가들락가들락' 하고 있더라.) [전역] = 가드락-가드락, 가들랑-가들랑, ᄀᆞ들락-ᄀᆞ들락.

가들랑-가들랑 부 [전역] → 가들락-가들락.

가들랑-ᄒᆞ다 형 (옷의) 길이가 짧아서 차림새가 초라해 보이다. [전역]

가뜬-ᄒᆞ다 형 가뜬-하다. [전역]

가라기 명 [전역] → 가레기.

가라-몰 명 <동> [전역] → 가레-몰.

가라쿳-물 명 <지> 제주시 건입동에 있었던 물. [전역]

가락 부 세차게 미는 모양. *경 가락 거려밀리지 말라.(그렇게 힘껏 밀지 마라.) [전역] = 가락-이.

가락-이 부 [전역] → 가락.

가락주 명 [인성 서홍 수산] → 가락지.

가락쥐 명 [노형 조수 김녕] → 가락지.

가락지 명 가락지. 손가락에 끼는 고리. [전역] = 가락주, 가락쥐.

가락지-고사리 명 <식> 섬-꿩고사리. [전역]

가랑-가랑[1] 부 ① 가르랑-가르랑. 목에 가래 따위가 걸려 숨을 쉴 때 자주 가치작거리는 소리. *목에서 게춤 소리가 가랑가랑 들렴저.(목에서 가래침 소리가 '가랑가랑' 들린다.) [전역] ② 기계 따위가 닳아서 나는 소리. *기곙이가 몽글민 가랑가랑 소리난다.(기계가 닳아지면 '가랑가랑' 소리난다.) [전역]

가랑-가랑[2] 부 *게와신 가랑가랑 치저진 옷만 입나.(거지는 갈기갈기 찢어진 옷만 입는다.) [전역] → 그랑-그랑.

가랑-대 명 물건을 얹거나 걸칠 수 있게 세워 놓는 나무. *가랑대도 그자

아무 낭이라도 뒈곡.('가랑대'도 그저 아무 나무라도 되고.) [이호]

가량 명 <지> [이도] → 가령[2].

가량-골 명 <지> [이도] → 가령[2].

가레 명 <도> [조수 김녕] → 갈레-죽.

가레기 명 가락(銓筵子). 물레로 실을 자을 때 실이 감기는 쇠꼬챙이. [전역] = 가라기.

가레기-클 명 [감산 색달] → 나록-클.

가레-몰 명 <동> 가라-말. [전역] = 가라-몰.

가레-춤 명 [전역] → 게춤.

가련-ᄒᆞ다 형 가련-하다. [전역]

가령[1] 명 밭을 잘못 갈아서 이랑 옆에 생긴 이랑. [성산 표선]

가령[2] 명 <지> 제주시 이도1동의 한 자연마을. [이도] = 가량, 가량-골, 가령-골.

가령-골 명 <지> [이도] → 가량[2].

가로-가다 동 가로-가다. 따로따로 갈려서 가다. [전역] = 가르-가다.

가로-각석 부 [전역] → 가르-각석.

가로-각씩 부 *ᄀᆞ찌 가지 말앙 가로각씩 가사 좋나.(같이 가지 말고 제각기 가야 좋다.) [오라 이도] → 가르-각석.

가로-삭산 부 산산-이. ① 이리저리 흩어지는 모양. [전역] ② (정신 따위가) 헝클어지는 모양. [전역]

가르-가다 동 [전역] → 가로-가다.

가르-각석 부 제-각각. *어떵ᄒᆞ연 ᄀᆞ튼 일 ᄒᆞ멍 가르각석인고.(어떻게 해서 같은 일 하면서 제각각인가.) [전역] = 가로-각석, 가로-각씩, 가리-각산.

가르-사다 동 따로따로 서다. [전역]

가름 명 ① 한 마을 안에서 작은 단위로 구분한 동네. [전역] ② 한 마을 안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사는 구역. [전역]

가름-도새기 명 <동> 외따로 갈라서 기를 만큼 자란 돼지. [전역] = 가름-뒈야지.

가름-돌다 동 집에 있지 않고 동네에 나가 돌아다니다. [노형 조수 서홍 수산 김녕]

가름-뒈야지 명 <동> [김녕 조수] → 가름-도새기.

가름-새왓 명 동네 안에 있는 띠밭. [오등]

가름-질 명 마을-길. [전역]

가름-팟 명 [김녕 가시 조수 수산] → 거리-왓.

가리-각산 부 [전역] → 가르-각석.

가리다 동 [전역] → 갈리다. 고 가리다.

가리-쓰다 동 [전역] → 가리-치다.

가리-치다 동 뒤-집다. [전역] = 가리-쓰다.

가린-석 명 밭을 갈 적에 왼편으로 쇠머리에 씌워진 긴 고삐. [전역]

가림 명 실 뭉텅이에서 몇 올을 한 가닥으로 하여 갈라낸 것. [전역]

가마[1] 명 [전역] → 가메[2].

가마[2] 명 [전역] → 가메[3].

가마귀 명 <동> 까마귀. [전역] = 가냐귀, 가막-새[2], 가매기, 가메기. 고 가마귀.

가마귀 놀레 명 <요> 까마귀를 제재로 하여 부르는 동요. 지난날 어린이의 어려운 삶의 실정을 담은 노래임.

[전역]

가마귀-똥 명 <식> 섬엄-나무. [전역]

가마귀똥-낭 명 <식> 돈-나무. [오라]

가마귀-마께 명 <식> 까마귀-베개. [전역] = 가마귀밥-낭, 가마귀-오동낭.

가마귀-뭉게 명 <동> [수산] → 가마귀-방석.

가마귀-ᄆᆞ르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1리에 있었던 자연마을. [남원]

가마귀-바농 명 <식> 도깨비-바늘. [김녕 노형 조수 인성] = 개-바농.

가마귀밥-낭 명 <식> [전역] → 가마귀-마께.

가마귀-방석 명 <동> 불가사리. [인성 조수] = 가마귀-뭉게, 갈라짓-뭉게, 물-방석, 생이-방석[2].

가마귀-보말 명 <동> 다슬기의 일종. [전역]

가마귀-부리 명 <동> 섭-조개. [전역]

가마귀-빈독 명 <식> [성산] → 모람.

가마귀-오동낭 명 <식> [가시] → 가마귀-마께.

가마귀-웨줄 명 <식> 괴승아. 괭이밥. [인성 조수 서홍 김녕] = 생이-웨줄.



가마귀웨줄

가마니 명 가마니. [전역] = ᄀᆞ마니.

가마-밧 명 <지> [아라 봉개 교래] → 가메-왓.

가마-오름 명 <지>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수룡동 남동쪽에 있는 오름. [한경] = 가메-오름.

가마치 명 <동> 가물치. [노형 인성 서홍 조수 수산] 교 가모치.

가막-새[1] 명 <민> 장구의 줄을 걸어 매는 쇠고리. ＊열두 가막새 제와근.(열두 '가막새' 당겨서.) = 가막-쉐. [전역]

가막-새[2] 명 <동> [전역] → 가마귀.

가막-쉐 명 <민> [전역] → 가막-새[1].

가막탈-낭 명 <식> [전역] → 감은탈-낭.

가망-대기 명 까맣게 된 모습을 일컫는 말. ＊가마귀는 가망대기.(까마귀는 '가망대기'.) [전역]

가망-둥이 명 얼굴이 본래 검거나 껌정이 묻어서 까맣게 된 사람. [전역] = 거멍-둥이, 검-둥이.

가망-뒤 명 들-불. [저지 신평]

가망-ᄒᆞ다 형 가맣다. ＊코ᄐᆞ데기는 가망ᄒᆞ영 ᄋᆞ물 더꺼진 것이 기냥 옐룬옐룬ᄒᆞᆫ 거주.('코ᄐᆞ데기'는 검고 알맹이 덮어진 것이 그냥 얇디얇은 것이지.) [이호]

가매[1] 명 [전역] → 가메[1].

가매[2] 명 [전역] → 가메[2].

가매[3] 명 [전역] → 가메[3].

가매기 명 <동> ＊(속) 가매기 똥 케우리듯 ᄒᆞᆫ다.(까마귀 똥 헤집듯 한다.) ＊(속) 가매기 알아구리 털어질 소리 ᄒᆞᆫ다.(까마귀 아래턱 떨어질 소리 한다.) [전역] → 가마귀.

가매기 모른 식게 구 귀신도 모르는

제사를 비유하는 말. [전역]

가멍-오멍 부 가면서 오면서. 가며 오며. *가멍오멍 타먹단 보난 ᄒᆞ나도 엇어라.(가며 오며 따먹다 보니 하나도 없더라.) [전역] = 오멍-가멍.

가메[1] 명 가마(旋毛). [전역] = 가매[1]. 고 가마.

가메[2] 명 가마(釜). [전역] = 가마[1], 가매[2].

가메[3] 명 가마(轎). [전역] = 가마[2], 가매[3].

가메기 명 <동> [수산] → 가마귀.

가메아뜩-ᄒᆞ다 형 어질증(眩氣症)으로 정신이 어지러워 까무러칠 듯하다. [전역]

가메-오름 명 <지> [청수 산양] → 가마-오름.

가메-왓 명 <지> 제주시 아라동 남쪽 한라산 국립공원의 왕관릉 북동쪽에 있는 초원. 구상나무 숲 가운데에 트여 있는 풀밭을 정수리의 '가메'(가마)에 비유하여 일컬음. 표고 약 1040미터. 두 군데가 인접해 있어 물이 있는 쪽을 '물가메왓'(물가마밭), 건조한 쪽을 'ᄆᆞ른가메왓'(마른가마밭)이라고 함. [아라 봉개 교래] = 가마-밧.

가메-창[1] 명 <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닥ᄆᆞᆯ오름' 남서록에 있는 낮은 오름. 솥바닥처럼 생긴 분화구를 일컫던 말이 그대로 산 이름이 되었음. 분화구는 둘레 약 300미터, 깊이 16미터, 표고 146미터. [저지]

가메-창[2] 명 <지> [상모] → 암메-창.

가문(家門) 명 가문. [전역]

가문-공서 명 <민> 점괘의 하나. [전역]

가문-떡 명 <음> [수산] → 고적.

가문-반 명 <민> 잔치 전날 손님들에게 대접하기 위하여 쟁반에 담아내는 돼지고기 따위의 음식. [전역]

가문이-오름 명 <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성불오름 서쪽에 있는 작은 오름. 표고 317미터. [성읍 송당]

가문-잔치 명 혼례를 치르는 전날에 가까운 친척들끼리 잔칫집에 모여 치르는 간편한 잔치. [전역]

가물-가물[1] 부 가물-가물. *가물가물 보염저.(가물가물 보인다.) [전역] = ᄀᆞ물-ᄀᆞ물.

가물-가물[2] 부 색이 거무스름한 상태. [전역] = 가뭇-가뭇, 거물-거물, 거뭇-가뭇.

가물가물-ᄒᆞ다[1] 형 가물가물-하다. [전역]

가물가물-ᄒᆞ다[2] 형 거무스름-하다. [전역] = 거물거물-ᄒᆞ다, 검실검실-ᄒᆞ다.

가물-개 명 <지> ① 제주시 삼양2동의 옛 이름. [삼양] = 감수-동. ② 제주시 이호2동 현사마을의 옛 이름. [이호] = 감물-개, 감은-모살.

가물다 동 가물다. [전역]

가뭇-가뭇 부 *오미ᄌᆞ가 가뭇가뭇 익엄저.(오미자가 '가뭇가뭇' 익고 있다.) [전역] → 가물-가물[2].

가미 명 <민> 매듭. *아끈 가미 한 가미도 감아 못자.(작은 매듭 큰 매듭도 감아 맺자.) [전역]

가벤또롱-ᄒᆞ다 형 손으로 들기에 매우 가볍다. *어떵ᄒᆞ연 영 가벤또롱ᄒᆞ

니?(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볍니?) [전역] = 가벱또롱-ᄒᆞ다, 개벤또롱-ᄒᆞ다.

가볍다 형 가볍다. [전역] = 개벱다, 개붑다. 고 가비얍다.

가벱또롱-ᄒᆞ다 형 [전역] → 가벤또롱-ᄒᆞ다.

가보 명 가보. 놀음판에서 일컫는 아홉 끗. [전역]

가부간 명 가정(家庭). *중은 웨 가부간을 출려서 살라고 ᄒᆞᆫ 법이 없던가?(중(僧)은 왜 가정을 차려서 살라고 한 법이 없던가?) [전역]

가분-새왓 명 띠의 기운이 떨어져 띠를 수확할 수 없는 밭. [하도]

가불다 동 오이 따위가 한물이 지나서 다 되어가다. [전역]

가뿐-ᄒᆞ다 형 가뿐-하다. [전역]

가사끼-오름 명 <지> 제주시 오라동 연미 북서쪽에 있는 작은 오름. 표고 115미터. [오라 연] = 가사-봉[1](加沙峰), 가삭-봉.

가사-봉[1](加沙峰) 명 <지> [오라 연] → 가사끼-오름.

가사-봉[2](袈裟峰) 명 <지> [가시] → 가세-오름[2].

가삭-봉(-峰) 명 <지> [오라 연] → 가사끼-오름.

가세-뽕낭 명 <식> 가새-뽕나무. [애월]

가세-오름[1] 명 <지> [표선] → 가시-오름[3].

가세-오름[2] 명 <지> 서귀포시 표선면 세화1리와 토산1리의 경계에 걸쳐진 오름. 표고 201미터. [전역] = 가사-봉[2](袈裟峰).

가세-촉 명 <식> [전역] → 가세-축.

가세-축 명 <식> 생강-나무. [전역] = 가세-촉.

가셍이 명 가장-자리. *입 가셍이 잘 다끄라.(입 가장자리 잘 닦아라.) [전역]

가소이(可笑-) 부 우습-게. 가소롭-게. *기여도 거 가소이 알앗던ᄀᆞ라 큼직ᄒᆞᆫ 푸댈 ᄒᆞ나 젼 나산.(그래도 그것 우습게 알았던지 큼직한 부대 하나 지고 나섰어.) [전역]

가속(家屬) 명 가속. *놈의 가속 울러르기 만ᄒᆞ리라.(남의 가속 우러르기 많으리라.) [전역]

가수리 명 <민> 도진 제차(祭次)에서 모든 신(神)들을 돌려보낸 뒤, 마지막으로 그 신들을 따라온 잡신(雜神)을 대접하여 보내는 제차. [전역]

가스레기 명 <식> [전역] → 가스레기-낭.

가스레기-낭 명 <식> 섬-쥐똥나무. [전역] = 가스레기, 가시레기, 가시레기-낭.

가스름[1] 명 <지> [동일] → 가시-오름[1].

가스름[2] 명 <지> [가시 성읍 교래] → 가시-오름[2].

가스리 명 <식> [전역] → 가시리.

가스-새 명 <건> 가시-새. [전역] = 가슨-새.

가스승-ᄒᆞ다 형 까칠-하다. *얼굴이 가스승ᄒᆞ연 아파난 모양이여.(얼굴이 까칠한 걸 보니 아팠던 모양이다.) [전역]

가슨-새 명 <건> [전역] → 가스-새.

가슬-논 명 <농> 땅 기운을 북돋을 양으로 쉬고 있는 논. *나록그루엔 보릴 갈주. 보릿그룬 ᄒᆞ썰 부드러와도 가슬논은 쎄어. 가슬논엔 두 불 안 갈아근 안 뒈주.(벼그루에는 보릴 갈지. 보릿그루에는 조금 부드러워도 가을논은 세지. 가을논에는 두 번 안 갈아서는 안 되지.) [대포]

가슬-들이다 동 <농> 경작을 하지 않고 밭을 놀리다. [전역]

가슬락-가슬락[1] 부 *모인조팝은 가슬락가슬락 진기가 엇나.(메조밥은 '가슬락가슬락' 진기가 없다.) [전역] → 게실-게실.

가슬락-가슬락[2] 부 까끌-까끌. *ᄀᆞ시락이 몸에 부턴 가슬락가슬락 못 즌디키여.(까끄라기가 몸에 붙어서 까끌까끌 못 견디겠다.) [전역]

가슬락가슬락-ᄒᆞ다[1] 형 흩어져서 진기가 없다. *모살추록 흩어젼 가슬락가슬락ᄒᆞ다.(모래처럼 흩어져서 진기가 없다.) [전역] = 게삭게삭-ᄒᆞ다.

가슬락가슬락-ᄒᆞ다[2] 형 까끌까끌-하다. *눈에 가시가 들언 가슬락가슬락ᄒᆞ다.(눈에 가시가 들어서 까끌까끌하다.) [전역]

가슬-왓 명 <농> 가을걷이를 한 뒤 뒷해 봄까지 갈지 아니한 밭. [전역] = ᄀᆞ슬-왓, ᄀᆞ슬-팟.

가슬-치기 명 <농> 화전밭 같은 데 봄에 애벌갈이로 일찍 가는 조. [노형 조수 어도 어음] = ᄀᆞ슬-치기.

가슬-ᄑᆞ름 명 [전역] → ᄀᆞ을-ᄇᆞ름.

가슴[1] 명 가슴. [전역] = 가심. 고가숨.

가슴[2] 명 *동지 섣둘 지나긴 밤의 삼은 삼이 발 가슴이여. 발로 붋안 가슴이라냐, 자로 재연 가슴이라라.(동지 섣달 기나긴 밤에 삼은 삼이 발 가웃이네. 발로 밟아 가웃이더냐, 자로 재어 가웃이더라.) [전역] → 가웃.

가슴-걸이 명 가슴-걸이. [전역]

가슴-꽝 명 흉골(胸骨). [전역]

가슴-벵 명 <병> 가슴-앓이. [전역] = 가슴-빙. 고가숨알히.

가슴-빙 명 <병> [전역] → 가슴-벵.

가시 명 ① 가시(荊). [전역] ② 물고기의 잔뼈. *(속) 족은 궤기가 가시 쎈다.(작은 고기가 가시 세다.) [전역] 고가싀.

가시-나물 명 <지> 제주시 영평동의 한 자연마을. [영평] = 가시-동(加時洞).

가시남-오름 명 <지> [모슬포 일과] → 가시낭-오름.

가시-낭[1] 명 <식> 가시-목. [전역]

가시-낭[2] 명 <식> [전역] → 북가시-낭.

가시-낭[3] 명 <식> 종가시-나무. [전역]

가시낭-동고리 명 찔레나무의 새순. [건입]

가시낭-오름 명 <지>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리에 있는 오름. [모슬포 일과] = 가시남-오름, 날웨-오름, 일과-악(日果岳・日課岳).

가시다 동 가시다. [전역] 고가싀다.

가시-덤벌 명 [전역] → 가시-덤불.

가시-덤불 명 가시-덤불. *그 옛날은 질 에염에 가시덤불이 하영 잇엇주.(그 옛날은 길옆에 가시덤불이 많이 있었지.) [전역] = 가시-덤벌. 고가

식덤블.

가시-돔 명 <동> 철갑동어. 주로 밤에 활동하는 바닷물고기. [사계]

가시-동(--洞) 명 <지> [전역] → 가시-나물.

가시레기 명 <식> [전역] → 가스레기-낭.

가시레기-낭 명 <식> [전역] → 가스레기-낭.

가시리 명 <식> 풀-가사리(布海苔). [전역] = 가스리.

가시리-풀 명 풀가사리로 쑨 풀. [전역]

가시-아방 명 장인(丈人). *(속) 보리 곱곡 삼(麻) 거릴 땐 가시아방 봐도 조름으로 절흔다.(보리가 곱고 삼가지 벌어질 때는 장인을 보아도 뒤로 절한다.) [전역] = 처부(妻父).

가시-어멍 명 장모(丈母). *(속) 가시어멍 장 읏인 깐에, 사위 국 실픈 깐에.(장모 장(醬) 없는 터에, 사위 국 싫은 터에.) *(속) 국 하영 먹으민, 가시어멍 눈 멜라진다.(국 많이 먹으면, 장모의 눈이 망가진다. 사위가 국을 많이 먹으면, 국을 끓이는 동안 부엌의 연기(煙氣)로 인해, 장모의 눈이 망가진다는 말.) *(속) 가시어멍 눈 멜를 사위.(장모 눈 망가뜨릴 사위.) [전역] = 처모(妻母). 고 가싀엄.

가시-오름[1] 명 <지> 서귀포시 대정읍 동일리 북쪽에 있는 오름. 가시나무가 많았다고 함. 표고 107미터. [대정] = 가시-악, 가스름[1].

가시-오름[2] 명 <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의 옛 이름. [가시 성읍 교래] = 가스름[2].

가시-오름[3] 명 <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있는 오름. [표선] = 가세-오름[1].

가시오름 강당장 구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살았다는 대부호. 대부호였지만 지나친 물욕(物慾) 탓으로 풍수에 밝은 스님을 박대했다가 온갖 이변이 일어나서 삽시간에 망하게 되었다는 전설의 주인공. *가시오름 강당장 칩의 숭시제외 들이젠 ᄒᆞ난 매인 쉐가 울 넘엄서라, 앚진 솟이 걸음을 걷곡 튿은 ᄃᆞᆨ이 고기약 ᄒᆞᆫ다. 기시린 돗이 ᄃᆞᆯ음을 ᄃᆞᆯ곡 벳긴 개가 웅공공 ᄒᆞ고 보끈 콩이 새 움이 난다.(가시리 강당장 집에 흉사재화 들이려 하니 매인 소가 울 넘고 있더라. 안친 솥이 걸음을 걷고 뜯은 닭이 꼬끼오 한다. 그슬린 돼지가 달음을 닫고 벗긴 개가 멍멍 짖고 볶은 콩에 새 움이 난다.) [전역]

가시-자왈 명 가시 있는 나무와 덩굴 따위가 어수선하게 엉클어진 곳. [전역]

가시탈-낭 명 <식> [전역] → 감티-탈낭②.

가시-하르방 명 가시-할아버지. [전역] = 처-조부(妻祖父).

가시-할망 명 가시-할머니. [전역] = 처-조모(妻祖母).

가심 명 [전역] → 가슴[1].

가-오다 동 오-가다. *(속) 두월이 감산 가오듯 ᄒᆞᆫ다.(두월이 감산 오가듯 한다.) [전역]

가오리 명 <동> 가오리. [전역] = 개오리.

가오리-연 명 [수산 가시] → 개오리-연.
가옥 명 '용인'의 값으로 주고받는 쌀. [장전] = 가곡(家穀), 가호-곡(家戶穀), 공수.
가웃 명 [전역] → 가웃. 고 가웃.
가온딧-도 명 <민> 가운데 좌정(坐定)한 당신(堂神). [전역]
가웃 명 가웃(半). [전역] = 가슴[2], 가웃.
가웨-쟁이 명 과원(果園)을 가꾸는 사람. * 유지 산물 먹구젱 ᄒᆞ경 가웨쟁이 시집을 가라.(유자 '산물' 먹고자 하거든 '가웨쟁이'에게 시집을 가라.) [전역]
가을-하늬 명 가을에 부는 하늬바람. * 가을하늬가 터지민 저리로 밧을 갈아나십주.('가을하늬'가 터지면 겨리로 밭을 갈았었지요.) [하천]
가음 명 [전역] → ᄀᆞ슴.
가의 대 [전역] → 그-아의.
가이-짓 명 <건> 퇴-기둥. [전역]
가재 명 <지> [비양도 한림] → 비양-봉.
가재미 명 <동> 물-가자미. [사계]
가잿-골 명 <지>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의 비양봉에 있는 골짜기. [비양도]
가저-오다 동 가져-오다. [전역] = ᄀᆞ저-오다, 아사-오다, 아저-오다, ᄋᆞ저-오다.
가제 명 <동> 가재. [노형] = 가제-새위, 뿔-새위. 고 가재.
가제미 명 <동> 가자미. [전역]
가제-새위 명 <동> [서홍 수산 노형] → 가제.
가젱이 명 [전역] → 가지[2].
가죽 명 가죽. [전역] 고 가족.
가죽-감테 명 <의> [전역] → 가죽-감티.
가죽-감티 명 <의> 짐승의 털가죽으로 만들어서 추울 때 머리에 쓰는 방한구의 한 가지. [전역] = 가죽-감테.
가죽-보선 명 <의> 가죽-버선. 마소 따위의 가죽으로 만든 버선. [전역]
가죽-신 명 <의> 가죽-신. * (속) 가죽신 시 베 끄치멍 구해 온 메누리 방귀만 시 번 뀐다.(가죽신 세 켤레를 버리면서 구해 온 며느리 방구만 세 번 뀐다.) [전역]
가죽-옷 명 <의> 가죽-옷. [전역]
가지[1] 명 <식> 가지(茄子). * (속) 먹곡 쓰렌 ᄒᆞ민, 가지낭에도 모람 은다.(먹고 쓰라고 하면, 가지나무에도 모람이 열린다.) [전역]
가지[2] 명 가지(枝). [전역] = 가젱이.
가지[3] 명 친척에서 나누어진 한 갈래. * 가지 갈랑 멩질 먹엄저.('가지'를 갈라서 명절을 쇠고 있지.) [전역]
가지깽이 명 [김녕 가시] → 개지.
가지다 동 가지다. [전역] = ᄀᆞ지다[1], 아지다[2], ᄋᆞ지다. 고 긎다.
가지락-ᄒᆞ다 형 [수산 인성 서홍 김녕] → 가드락-ᄒᆞ다.
가지-사돈 명 겹-사돈. [전역] = 부찌-사돈.
가짜 명 가짜. [전역]
가차이 부 가까이. [전역]
가찹다 형 [전역] → 가깝다.
가추다 동 [전역] → ᄀᆞ초다.
가치다 동 [전역] → 가도다.
가-테(加-) 명 <민> 묘에 잔디를 덧붙여 보수함. [전역]

가풀 명 ① 갖풀. [전역] ② 비닐. [전역] 고갓플.
가풀-낭 명 <식> [오라] → 씰거리-낭.
가풀-목 명 <건> 바람벽 아래쪽 두 기둥 사이에 끼운 널판지 위에 가로 건너 지른 나무. [전역]
가프다 동 갚다(報). [전역] 고갚다.
가호-곡(家戶穀) 명 [조수] → 가옥.
각 명 짐승을 잡아 그 고기를 나눌 때 전체를 몇 등분한 것 가운데 한 부분. [성산 수산]
각날 명 공일(空日). *부지런히 서당의 갓다 와서 각날은 어멍 말을 잘 들라. (부지런히 서당에 다녀와서 공일에는 어머니 말을 잘 들어라.) [한림]
각다니 명 [전역] → 각단.
각단 명 굵은 줄을 드리는 데 쓰는 짧은 띠(茅). [전역] = 각다니.
각도-비념 명 <민> 주요 제차를 마친 뒤에 벌이는 여러 가신(家神)에 대한 비념. [전역]
각로-삭산 명 [전역] → 갈산-질산.
각록(角鹿) 명 <동> 사슴. [전역]
각리-각리(各里各里) 부 마을마다. [전역]
각마기 명 [조수] → 각메기.
각메기 명 조 이삭이나 콩꼬투리에서 열매를 털어 버리고 남은 줄기나 깍지 따위. [전역] = 각마기, 곡메기, 콕메기.
각물 명 꼬투리(莢). [전역] = 깍물.
각벨 명 각별(各別). [전역]
각벨-이 부 각별-히. [전역]
각벨-ᄒᆞ다 형 각별-하다. [전역]
각-산받음 명 <민> 굿판에서 점을 하여 개개인의 운수를 알아보는 의례. [전역]
각서-추물 명 <민> 갖가지 음식물. [전역]
각수-암(角秀岩) 명 <지> [전역] → 각시바우-오름.
각시 명 각시(妻). *(속) 각시 아까우민 처가칩 ᄆᆞᆯ팡돌에 절 ᄒᆞᆫ다.(아내 아까우면 처가집 'ᄆᆞᆯ팡돌'에 절 한다.) *(속) 각시 웃인 건 안 섭섭헤도 남통머리 일른 건 더 섭섭ᄒᆞᆫ다. (아내 없는 것은 안 섭섭해도 나무 담배통 잃은 것은 더 섭섭하다.) [전역] 고각시.
각시-바우 명 <지> [전역] → 각시바우-오름.
각시바우-오름 명 <지> 서귀포시 호근동 북쪽에 있는 바위로 이루어진 봉우리. 각시바우(일명 열녀바위) 전설이 있음. 표고 395미터. [전역] = 각수-암(角秀岩), 각시-바우, 학수-암(鶴首岩).
각작-고등에 명 <동> 가라지. [표선]
각제기 명 <동> 전갱이. [전역]
각지[1] 명 깍지. 콩·팥 따위의 꼬투리의 껍질. [전역] 고각디.
각지[2] 명 [전역] → 등-잔.
각짓-불 명 등잔-불. [전역]
각주 명 각자(各自). [전역]
각-트다 동 각-뜨다. 잡은 네 발 짐승의 몸을 다리, 머리 따위의 몇 부분으로 가르다. [전역]
간[1] 명 간. 음식물에 짠 맛을 내는 물질. *촐렌 간이 맞아사 ᄒᆞᆫ다.(반찬은 간이 맞아야 한다.) [전역] = 곤.

간2 명 간(肝). [전역]
간-가르다 동 칸막이-하다. [전역] = 간막이-ᄒᆞ다.
간가름-도리 명 [수산 김녕 가시] → 방가름-도리.
간간(間間) 부 간간-이. 이따금. *간간 놀젠 놈의 첩 드난 어디 간간 내 놀암시니?(간간이 놀려고 남의 첩 드니 어디 간간이 내 놀고 있더냐?) [전역]
간-거리다 동 간이 상할 정도로 속이 타다. *첩 한 놈 간거린다.(첩 많은 놈 '간거린다.') [전역]
간곡-간세 명 게으름. *간곡간세 ᄉᆞ미에 놓앙 제 간곡을 놈 알류더라.(게으름을 소매에 놓아 제 게으름을 남에게 알리더라.) [전역]
간곤(艱困) 명 가난(艱難). [도순]
간교-꾼(奸巧-) 명 간사하고 교활한 사람. [전역] = 갱규-꾼.
간교-부리다 동 간교-부리다. 간사하고 교사스러운 태도를 짓다. [전역] = 갱교-부리다.
간국-다리 명 [전역] → 간세-다리.
간그다 동 헤아리며 살피다. *동지 섣둘 지나진 밤의 밤중 다믈 간그멍 사노라.(동지 섣달 기나긴 밤에 밤중 '다믈' 살피며 사노라.) [전역]
간나의 명 간나위. [전역]
간다락 명 <지> [아라 이도] → 간드락.
간담(肝膽) 명 간담. 간과 쓸개. [전역]
간데망-읏이 부 그렇게 쉽사리. [어도]
간도다 동 널려 있는 것을 한데 모아 들이다. [어도] = 간두다.
간두다 동 [어도] → 간도다.
간드락 명 <지> 제주시 아라2동 간월동(看月洞)의 옛 이름. [아라 이도] = 간다락.
간드레 명 [사계] → 강다리.
간들-간들 부 산들-산들. 시원한 기운을 띤 바람이 연달아 가볍게 부는 모양. *간들간들 부는 ᄇᆞ름에 귀주울이멍 걸어 보게.(산들산들 부는 바람에 귀를 기울이며 걸어 보자.) [전역] = 건들-건들.
간들레기 명 <식> [호근] → 간잘귀.
간-막이(間--) 명 [전역] → 칸-막이.
간막이-ᄒᆞ다 동 [전역] → 간-가르다.
간-밤 명 지난-밤(--夜). [전역] = 지난-밤.
간사-스럽다 형 간사-스럽다. [전역] 고 간새롭다.
간상-부리다 동 간상-부리다(奸狀---). [전역]
간섭(干涉) 명 간섭. [전역]
간섭-ᄒᆞ다 동 간섭-하다. [전역]
간세 명 게으름. 일하기를 싫어함. [전역]
간세-꾸레기 명 [전역] → 간세-다리.
간세-다리 명 일하기를 싫어하는 버릇이 있는 사람. [전역] = 간국-다리, 간세-꾸레기, 간세-둥이.
간세-둥이 명 [전역] → 간세-다리.
간세-터럭 명 솜털. 사람의 머리카락이 돋은 그 둘레로 아주 잘고 보드랍게 난 털. [전역] 고 소옴털.
간세-ᄒᆞ다 동 게으름을 피우다. 일하기를 싫어하다. *(속) 좁쌀만이 간세ᄒᆞ엿당, 담돌만이 움직인다.(좁쌀만큼 게을렀다가, 담돌만큼 움직인다.) [전역]

간수-ᄒᆞ다 동 간수-하다. 잘 가꾸어 보호하다. [전역] 고간슈ᄒᆞ다.
간실-간실 부 간실-간실. *놈안티 둘라부틀 땐 간실간실 보통이 아닌다. (남한테 달라붙을 때는 '간실간실' 보통이 아니다.) [전역] = 갠실-갠실.
간실간실-ᄒᆞ다 동 간실간실-하다. [전역] = 갠실갠실-ᄒᆞ다.
간실-거리다 동 간실-거리다. [전역] = 갠실-거리다.
간-삶 명 횡격-막(橫膈膜). [전역]
간열-악(肝列岳) 명 <지> [연 노형] → 광이-오름.
간잘귀 명 <식> 개똥-참외. [조수 인성 서홍] = 간들레기, 간잘미, 간잴귀, 간절귀[1].


간잘귀

간잘미 명 <식> [김녕] → 간잘귀.
간-장[1](間場) 명 밭과 밭 사이의 방목지. [행원]
간장[2](肝臟) 명 간장. *(속) 놈의 간장 쎄긴 얼굴, 넙은 들에 쓴 간절귀여. (남의 간장 썩힌 얼굴, 넓은 들에 쓴 개똥참외다.) [전역] 고간댱.
간잴귀 명 <식> [노형] → 간잘귀.
간전이 명 <동> 간자-말. [전역]
간절귀[1] 명 <식> [수산] → 간잘귀.
간절귀[2] 명 [서홍 수산 김녕] → 쿳-간절귀.
간절미 명 [서홍] → 쿳-간절귀.
간제비 명 <민> 작은 엽전 모양의 점구. 한쪽은 엽전 모양, 반대쪽은 거울 모양으로 되어 있음. [전역]
간지 명 [서홍 가시 수산 김녕] → 홰[1].
간지-나다 형 요망하고 간사하다. *ᄇᆞ름도사 간지난 ᄇᆞ름, 순풍으로 돌아나 오라.(바람도야 간사한 바람, 순풍으로 돌아나 오라.) [전역]
간지로 부 간대로. [전역]
간직-ᄒᆞ다 동 간직-하다. *경 ᄀᆞᆯ으난 메누린 그걸 잘 간직ᄒᆞ엿다고.(그렇게 이야기하니 며느리는 그것을 잘 간직했다고.) [전역]
간질-레기 명 <식> [호근] → 하늘-레기.
간질-벵 명 <병> 지랄-병. 간질(癎疾). [전역] = 간질-빙.
간질-빙 명 <병> [전역] → 간질-벵.
간치 명 <동> 까치.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까치, 깐치. 고간치.
간-ᄒᆞ다[1] 동 간-하다.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하여 음식물에 간을 치다. [전역]
간-ᄒᆞ다[2](諫--) 동 간-하다. [전역]
갇다 동 걷다. 끼었던 것이 흩어져서 없어지다. [전역] 고갇다.
갈- 두 ① '감즙을 먹인'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 [전역] ② '갈물을 들인'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 [전역]
갈-가리 부 가리-가리. [전역] = 갈리-갈리.
갈가비 명 <동> [명월] → ᄀᆞᆯ개비.
갈갈 부 ① 액체가 흐르는 소리나 모

양. ＊아인 아무디서나 오줌 갈갈 싸 분다.(아이는 아무데서나 오줌을 '갈갈' 싸 버린다.) [전역] ② 곡식 따위가 흘리는 모양. ＊헌 찰리에 담안 져 노난 갈갈 헐지 안 홀 리가 셔?(헌 자루에 담아서 져 놓으니까 '갈갈' 흘리지 않을 리가 있어?) [전역]

갈-게수리 명 <동> [삼양] → 게수리.

갈-고등에 명 <동> 갈-고등어. [전역]

갈고리 명 <도> [노형 조수] → 갈공이.

갈공이 명 <도> 갈고랑-이. [노형 조수 김녕 수산 가시] = 갈고리, 갈콩이. 교 갈공이.

갈기 명 갈기. 말·사자 따위의 목덜미에 난 긴 털. [전역] 교 갈기.

갈기-갈기 부 갈기-갈기. [전역]

갈-낭 명 <식> 떡갈-나무. [전역]

갈다 동 갈다(耕). [전역]

갈-독지 명 <의> 감물(柿汁)을 들인 소매가 아주 짧은 적삼. [전역]

갈-등거리 명 <의> 감물(柿汁)을 들인 등거리. [전역] = 갈-등지게, 감-등거리.

갈-등지게 명 <의> [전역] → 갈-등거리.

갈뛰-다리 명 [하원 서홍] → 갈퉈-다리.

갈라-먹다 동 나누어 먹다. ＊옛날사 큰일 나민 동네 다 갈라먹젠 떡을 멧 말썩 헤낫주.(옛날이야 큰일 나면 동네 이웃들과 나누어 먹으려고 떡을 몇 말씩 했었지.) [전역]

갈라-사다 동 갈라-서다. ① 맺었던 관계를 끊고 따로따로 되다. ＊김씨영 이씨영은 흔디 일ᄒᆞ당 갈라삿덴 ᄒᆞ멍.(김씨와 이씨는 함께 일하다 서로 갈라섰다고 하면서.) [전역] ② (부부가) 이혼하다. ＊영희네 어멍아방은 뜻이 맞지 아녕 갈라삿덴 ᄒᆞ멍.(영희네 어머니 아버지는 뜻이 맞지 않아서 이혼했다고 하더라.) [전역] ③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갈리어 헤어지다. ＊둘이 오당 골목 아피서 갈라삿덴 ᄒᆞ더라.(둘이 오다가 골목 앞에서 따로 갈리어서 왔다더라.) [전역]

갈라-주다 동 나누어 주다. ＊먹을 게 민 날 아니 갈라주랴? (먹을 것이면 날 아니 나누어 주랴?) [전역]

갈라-지다[1] 동 ① 거꾸러-지다. ＊장수라도 벨수 엇이 칼로 찌르난 헤뜩 갈라지언.(장수라도 별수 없이 칼로 찌르니 벌러덩 거꾸러졌어.) [전역] ② 위로 향하여 자빠지다. ＊술 먹엉 들어완 갈라진 게 아직꺼정 일어나지 못헴수다.(술 마시고 들어와서 누운 것이 아직까지 일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역]

갈라지다[2] 동 갈라-지다. ① 쪼개지거나 금이 가다. ＊손 턴 막 갈라졋수게.(손이 터서 막 갈라졌지요.) [전역] ② 벌어져 틈이 생기다. ＊땅 갈라지는 거 보난 감제 드는 모냥이여.(땅이 갈라지는 것을 보니 고구마가 드는 모양이다.) [전역]

갈라짓-뭉게 명 <동> [김녕] → 가마귀-방석.

갈라-폴다 동 조아-팔다. 크거나 많은 물건을 헐어서 조금씩 팔다. [전역]

갈래-갈래 부 갈래-갈래. [전역]

갈레 명 <식> 논밭에 나는 잡초. [대포]
갈레-죽 명 <도> ① 가래. 흙을 파서 헤치거나 떠서 던지는 데 사용했던, 나무로 만든 삽. 보통 혼자 조종하고, 세 사람이 조종할 때만 줄을 묶어 사용함. [전역] ② 삽. [전역] = 가레.
갈레죽-상의 명 <동> 가래-상어. [전역] = 우굼-상의.
갈레죽-질 명 가래-질. [전역]
갈레-춤 명 [수산 표선 세화 조천 노형 서홍 태흥] → 가달-춤.
갈롯 명 <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하여 돼지고기를 조금씩 썰어 대나무 꼬챙이에 꽂은 것. [신흥]
갈르다 동 ① 가르다. [전역] ② 나누다. [전역]
갈리 명 가리. 소·돼지 따위의 갈비. [전역] 고가리.
갈리-갈리 부 [전역] → 갈-가리.
갈-리다 동 ① 헤어-지다. 이혼-하다. [전역] ② 몇 갈래로 가름을 당하다. [전역] = 가리다.
갈매-하르방 명 <민> 풀무 신. [전역]
갈매-할망 명 <민> 풀무 신. [전역]
갈-물 명 갈-물. 떡갈나무의 잎과 뿌리에서 얻은 물감. *옛날엔 갈물로 옷도 물들영 입곡, 주낙도 물들영 썻주.(옛날에는 갈물로 옷도 물들여서 입고, 주낙도 물들여서 썼지.) [월령]
갈-베중이 명 <의> 풋감의 즙으로 염색하여 만든 베로 된 중의. [표선]
갈보 명 갈보(娼妓). [전역]
갈비 명 갈비(筋骨). [전역]
갈비-꽝 명 [전역] → 갈비-뼈.
갈비-뼈 명 갈비-뼈. *그 사름 담 머흐러졍 갈비뼈 부러졋덴 ᄒᆞ여.(그 사람 담이 무너져서 갈비뼈가 부러졌다고 해.) [전역] = 갈비-꽝.
갈빗-대 명 갈빗-대. [전역]
갈-ᄇᆞ름 명 서풍(西風). [화순 가시 수산 노형 조천 조수 어도] = 늣-ᄇᆞ름, 섯-갈, 섯갈-ᄇᆞ름.
갈-산듸 명 <식> 밭벼의 일종. [영평 대흘]
갈산-절산 부 *갈산절산 헤싸 감져.(이리저리 헤쳐 가네.) [전역] → 갈산-질산.
갈산-질산 부 ① 이리저리 되는 대로 아무렇게나 흐트러뜨리는 모양. [전역] ② (정신 따위가) 헝클어지는 모양. [전역] = 각로-삭산, 갈산-절산.
갈아-뎅기다 동 나-다니다. [전역]
갈-옷 명 <의> 감물(柿汁)을 들인 옷을 통틀어 이르는 말. [전역] = 감-옷.
갈-웽이 명 <동> 바닷물고기인 '혹돔'의 일종. [대포]
갈이 명 <농> 갈이(耕). [전역]
갈-적삼 명 <의> 감물(柿汁)을 들인 적삼. [전역]
갈-점방이 명 <의> [전역] → 갈-점벵이.
갈-점벵이 명 <의> 감물(柿汁)을 들인 잠방이. [전역] = 갈-점방이, 갈-정벵이, 갈-즘방이, 갈-즘뱅이.
갈-정벵이 명 <의> [수산 가시] → 갈-점벵이.
갈-중의 명 <의> 감물(柿汁)을 들인 중의. 보통 노동복으로 입음. [전역]
갈-즘방이 명 <의> [조수] → 갈-점

벵이.

갈-좀뱅이 명 <의> [조수] → 갈-점벵이.

갈착-갈착 부 ① 늘어진 모양. [전역] ② 비 따위로 옷이 젖은 모양이나 상태. [전역]

갈착-ᄒᆞ다 형 옷 따위가 물기를 머금어 아래로 축 늘어지다. *비 맞아시냐, 무사 경 옷이 갈착ᄒᆞ니?(비 맞았니? 왜 그리 옷이 '갈착하니'?) [전역] = 갈치락-ᄒᆞ다.

갈치 명 <동> 갈치. *(속) 갈치가 갈치 꼴렝이 그차 먹나.(갈치가 갈치 꼬리 끊어 먹는다.) [전역] 고 갈티.

갈치 나끄는 소리 명 <요> 갈치를 낚으려는 밤바다에 낚싯줄을 드리우고 기다리면서 잠을 쫓기 위하여 흥얼거리는 민요. [온평 삼달 신촌]

갈치락-ᄒᆞ다 형 [전역] → 갈착-ᄒᆞ다.

갈치-마삭 명 <어> 갈치를 낚을 때 쓰는 낚시. *옛날 갈치 나끌 땐 갈치마삭 갈치술 뽕돌이 필요혜.(옛날 갈치 낚을 땐 '갈치마삭', '갈치술', 봉돌이 필요해.) [이호]

갈치-바당 명 <어> 갈치가 많이 잡히는 어장. [전역]

갈치-술 명 <어> 갈치를 낚을 때 쓰는 낚싯줄. [이호]

갈콩이 명 <도> [조수 인성 서홍] → 갈공이.

갈퀴 명 <도> 넓미역을 건져 올리는 도구. [우도]

갈투-다리 명 [표선 조천 세화] → 갈튀-다리.

갈튀-다리 명 뒷다리가 비뚤어져 어긋난 마소(馬牛). [노형 조수 수산 인성 화순 태흥] = 갈뛰-다리, 갈투-다리.

갈튀-지다 동 마소의 다리가 접질리거나 혹은 비틀려서 뻐마디가 어긋나다. [전역] 고 가탈ᄒᆞ다.

감 명 감(柿). [전역]

감-고장 명 [전역] → 감낭-꼿.

감관(監官) 명 <농> 농경지 공동관리 '케매기' 조직에서의 우두머리. [중문]

감기(感氣) 명 <병> 감기. [전역]

감-남 명 <식> [전역] → 감-낭.

감남-골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1리 상위미동(上爲美洞)에 있었던 옛 마을. [남원] = 감남-굴, 감낭-골, 감낭-굴.

감남-굴 명 <지> [남원] → 감남-골.

감남-오름 명 <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북동쪽의 원물오름에 잇닿은 둥그스름한 오름. 표고 440미터. [동광 금악 봉성]

감-낭 명 <식> 감나무(柿--). [전역] = 감-남.

감낭-고장 명 [전역] → 감낭-꼿.

감낭-골 명 <지> [남원] → 감남-골.

감낭-굴 명 <지> [남원] → 감남-골.

감낭-꼿 명 감나무-꽃. [전역] = 감-고장, 감낭-고장.

감다 동 감다. 실 따위를 무엇에 말다. [전역]

감-돌다 동 감-돌다. [전역]

감-등거리 명 [전역] → 갈-등거리.

감-물 명 감-물(柿-). [전역]

감물-개 명 <지> [삼양 이호] → 가물-개②.

감바래 명 <지> [조천] → 감발래.

감발래 명 <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의 옛 자연마을. [조천] = 감바래.

감비역 명 깜부기. [전역] 고감보기.

감-산(柑山) 명 <지> [창천 감산 서광] → 신산-오름.

감상-기 명 <민> 신(神)을 맞아들일 때 무당이 들고 춤추는 깃발. [전역] = 신-감상.

감수-동(甘水洞) 명 <지> [전역] → 가물-개①.

감실-감실 부 감실-감실. [전역]

감아-지다 동 감-기다. [전역]

감-옷 명 <의> [전역] → 갈-옷.

감은-가시낭 명 <식> 돌-가시나무. [인성 서홍 수산 조수] = 돌-가시낭.

감은-개 명 <지>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의 한 포구. [전역]

감은덕-산 명 <지> [노형 금덕] → 검은덕이-오름.

감은-데기 명 <지> [전역] → 검은-데기.

감은-돔 명 <동> 감성-돔. [전역] = 물-톳.



감은돔

감은-모살 명 <지> [이호] → 가물-개②.

감은-베 명 검은 베. *머리라근 쉰 대 자 머리, 비여 내면 감은베 ᄒᆞ난, 감은베도 쉰 대 자여.(머릴랑은 쉰 대 자 머리, 베어 내면 검은 베 하니 검은 베도 쉰 대 자네.) [전역]

감은-유매 명 <동> 털빛이 검고 부유스름한 말. [전역]

감은-코지 명 <지> ① 제주시 애월읍 하귀2리 가문동의 옛 이름. [애월] ② 가문동에 있는 곶. [애월]

감은탈-낭 명 <식> 검은-딸기. [수산 조수 가시 김녕] = 가막탈-낭.

감장 명 <민> ① 매암. [전역] ② 매암할 때의 무악 장단. [전역]

감장-돌다 동 매암-돌다. [전역]

감저(甘藷) 명 <식> 고구마. [전역] = 감ᄌᆞ. 고감져.

감저-구뎅이 명 <농> 고구마를 저장하기 위하여 파 놓은 구덩이. [전역]

감저-꿀 명 [서홍] → 감젓-줄.

감저-눌 명 고구마의 눌. [전역]

감저-밥 명 <음> 고구마와 쌀을 섞어서 지은 밥. [전역] = 감제-밥.

감저-범벅 명 <음> 고구마를 넣어 만든 범벅. [전역] = 감제-범벅.

감저-뺏데기 명 고구마 고지. 고구마를 납작납작하게 썰어서 말린 것. *감저뺏데기 쳥 먹는 게 저실 벨미랏주.(고구마 고지 쪄 먹는 게 겨울철 별미였지.) [전역]

감저-죽 명 <음> 고구마와 좁쌀을 섞어서 만든 죽. [전역] = 감제-죽.

감저-출 명 [가시] → 감젓-줄.

감젓메-놓다 동 고구마 덩굴을 내리고 고구마를 흙 속에 묻다. [전역]

감젓메-왓 명 고구마 모종을 놓는 텃밭. [상가]

감젓-줄 명 고구마 덩굴. [노형 조수 인성] = 감저-꿀, 감저-출.

감제 명 비정상적인 행위나 그러한 마음. 곧 갑자기 평상시와 달리 음주(飮酒)·도박(賭博) 등 나쁜 일을 하여 재산을 탕진하는 행위나 그러한 마음. *감젤 풀어야 살 건디, 감제 버쳔 살지 못ᄒᆞ키여.('감제'를 풀어야 살 것인데, '감제' 벅차서 살지 못하겠다.) [대정]

감제-밥 명 <음> [전역] → 감저-밥.

감제-범벅 명 <음> [전역] → 감저-범벅.

감제-죽 명 <음> [전역] → 감저-죽.

감주(甘酒) 명 <음> 단-술. [전역] = 감쥐. 고 감쥬.

감쥐 명 <음> [전역] → 감주.

감젖-주시 명 감주의 찌꺼기. [전역]

감조 명 <식> [전역] → 감저.

감초(甘草) 명 <식> 감초. [전역]

감추다 동 감추다. [전역] = ᄀᆞ추다[1], ᄀᆞᆷ초다, ᄀᆞᆷ추다. 고 ᄀᆞᆷ추다.

감치다 동 감치다. 바느질감인 두 헝겊의 가장자리를 마주 대고 실올이 풀리지 않게 실로 감아 꿰매다. [전역]

감태 명 <식> 감태. [전역] = 감테.

감태-번난지 명 바람에 밀려온 감태. [우도]

감태-재 명 감태를 태워 만든 재(灰). [법환]

감테 명 <식> [전역] → 감태.

감티 명 <의> 짐승의 가죽이나 천 따위로 만든 방한모의 총칭. 예전에 제주도 산간마을 사람들이 주로 썼음. *잇날 산에 갈 때에는 개가죽 감티에 개가죽 후루메, 또 가죽신에 가죽 보선에 뭐 전부 가죽으로만 맹글아 가지고 갓지.(옛날 산에 갈 때에는 개가죽 '감티'에 개가죽 두루마기에, 또 가죽신에 가죽 버선에 뭐 전부 가죽으로만 만들어서 갔지.) [전역]

감티탈-낭 명 <식> ① 장-딸기. [인성 서홍 수산 김녕] = 보리탈-낭[2]. ② 가시-딸기. [전역] = 가시탈-낭, 보리탈-낭[1].

감팡-우럭 명 <동> [조수] → 검펑-우럭.

갑[1] 명 귤(橘) 따위의 껍데기를 벗겨 버린 열매가 속껍질로 따로따로 싸인 낱개. [전역]

갑[2] 명 <도> ① 물건을 담는 상자인 갑(匣). *삼월 보롬 물찌엔 하우장 각시도 책갑 졍 ᄃᆞ나.(삼월 보름 무수기에는 선비 부인도 책갑 져서 달린다.) [전역] ② 소지품을 담고 다니는 조그마한 갑(匣). 담뱃-갑. 돈-지갑. [전역]

갑[3] 명 <민> ① 천간(天干)의 첫째인 갑(甲). [전역] ② 등급의 첫째인 갑(甲).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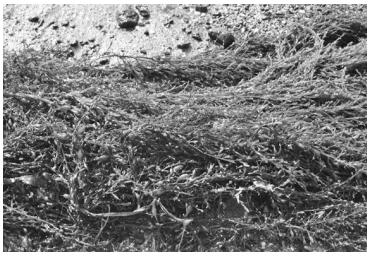
갑선-악(甲旋岳·甲蟬岳) 명 <지> [전역] → 갑선이-오름.

갑선이-오름 명 <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중동 북동쪽에 있는 오름. 표고 188.2미터. 준 갑선이. [전역] = 갑선-악(甲旋岳·甲蟬岳).

갑슬-신 명 <의> [노형 서홍] → 갑실-신.

갑실 명 말의 뱃가죽을 오려 내어 만든 실. [송당]

갑실-듬북 명 <식> 거름용 해조류인 '듬북'의 일종. [김녕 하도]



갑실듬북

갑실-신 명 <의> 마소 따위의 가죽을 실같이 오려 내어, 말려서 그것으로 삼은 신. [전역] = 갑슬-신.

갑-옷(甲-) 명 <의> 갑-옷. [전역] 고 갑.

갑자기 부 갑자기. [전역] = 갑제기.

갑장(甲丈) 명 동갑(同甲). [전역]

갑제기 부 [전역] → 갑자기.

갑풀-낭 명 <식> [오라] → 씰거리-낭.

갓[1] 명 <의> 갓(笠). [전역]

갓[2] 명 골마지. [전역]

갓-골 명 <도> 갓-골(笠-). 갓을 만드는 데 쓰는 골. [전역]

갓그레-오름 명 <지> [서귀포 중문] → 갯거리-오름[1].

갓글-오름 명 <지> [명월] → 갯거리-오름[2].

갓다-왓다 부 오락-가락.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모양. [전역] = 갓닥-왓닥, 왓닥-갓닥.

갓다왓다-ᄒᆞ다 동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다. [전역] = 갓닥왓닥-ᄒᆞ다.

갓닥-왓닥 부 *밥광 돈은 갓닥왓닥 ᄒᆞᆫ다.(밥과 돈은 갔다 왔다 한다.) [전역] → 갓다-왓다.

갓닥왓닥-ᄒᆞ다 동 [전역] → 갓다왓다-ᄒᆞ다.

갓메 명 갈모. [전역] = 갓모.

갓모 명 [태흥 수산 세화 조천 노형] → 갓메.

갓세 명 [조수 인성 어도] → 두-갓.

갓-쓰다 동 된장이나 간장 위에 곰팡이가 생기다. [전역]

갓-자리 명 <동> 자리돔의 일종. *갓자린 이땅 ᄒᆞ나의나 봐저. 자리가 홁고 배떼기가 ᄒᆞ끔 희어.('갓자리'는 가끔 하나씩 보여. 자리돔이 굵고 배때기가 좀 하얘.) [대포]

갓-장이 명 갓-장이. [전역]

갓-쟁이 명 갓-쟁이. [전역]

갓-집[1] 명 <도> 갓-집. 갓(笠)을 넣어 두는 상자. [전역] = 갓-칩[1].

갓-집[2] 명 갓-방. 갓(笠)을 만드는 집. [전역] = 갓-칩[2].

갓-칩[1] 명 <도> [전역] → 갓-집[1].

갓-칩[2] 명 [전역] → 갓-집[2].

강(江) 명 강. [전역]

강강 부 조금 큰 강아지가 짖는 소리. [전역]

강경 명 간. 몹시 짠 맛. [전역] = 갱경.

강기 명 [노형 조수 서홍 인성] → 갱기.

강-나록 명 <식> 밭벼의 일종. [전역]

강낭-대죽 명 <식> 옥-수수.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강낭-대축.

강낭-대축 명 <식> [수산 가시 김녕] → 강낭-대죽.

강낭대축-여물 명 [수산 가시] → 강낭이-부루기.


강낭대죽

강낭-방울 명 옥수수의 알. [노형 오라]
강낭-부루기 명 [노형 오라] → 강낭이-부루기.
강낭이-부루기 명 옥수수 낱알들이 박혀진 길죽하고 부룩한 것.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강낭-부루기, 강넹이-부루기, 강낭대축-여물, 대죽-부레기.
강낭-콩 명 <식> 강낭-콩. [전역]
강냥 명 <건> 처마의 끝부분. [전역]
강넹이-부루기 명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강낭이-부루기.
강다리 명 <도> 배 뒤쪽에 꽂혀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물건을 걸어 두는 Y자 모양의 막대. [전역] = 간드레.
강답 명 <농> 건답(乾畓). [전역] = 건답, ᄆᆞ른-논.
강돌롸리 명 <식> 쌀알이 노랗고 매진 조(粟)의 한 가지. [전역] = 강돌-와리.
강돌-와리 명 <식> [영평] → 강돌롸리.
강베록 명 <동> [화순 하원] → 멘주기[1].
강-베리 명 <병> [전역] → 강-비리.
강-비리 명 <병> 종기(腫氣)의 일종. [전역] = 강-베리.
강살음 명 강-샘. 질투. ＊씨왓님아 강살음 말라, 질에 보겅 벗으로 알라. (시앗님아 강샘 마라, 길에서 보거든 벗으로 알아라.) [전역]
강생이 명 <동> [전역] → 강셍이.
강셍이 명 <동> 강아지. ＊(속) 행실 배우렌 ᄒᆞ난 홀어멍칩 강셍일 뜨린다.(행실 배우라고 하니 과부집 강아지를 때린다.) [전역] = 강생이, 강아지. 고 가희씨.
강아지 명 <동> [전역] → 강셍이.
강알 명 사타구니. [전역]
강알터진-바지 명 <의> 개구멍-바지. [전역]
강알-트멍 명 사타구니의 틈. [전역] 고 다리샅.
강-엿 명 [전역] → 엿.
강-울음 명 <민> 눈물 없이 소리와 표정으로만 그럴듯하게 우는 울음. ＊그 심방은 경도 강울음 잘 ᄒᆞ연.(그 무당은 그렇게도 거짓 울음을 잘 했어.) [전역]
강월-동(江月洞) 명 <지> [한경] → 강터을.
강적-ᄒᆞ다 동 [서홍 수산 김녕] → 강직-ᄒᆞ다.
강정-내(江汀-) 명 <지> 서귀포시 강정동을 흘러서 바다로 들어가는 내(川). [중문] = 강정-천, 더늣-내
강정-동(江汀洞) 명 <지> 서귀포시 신시가지 서남쪽에 형성되어 있는 마을. [서귀포 중문]
강정-천(江汀川) 명 <지> [서귀포 중문] → 강정-내(江汀-).
강직-ᄒᆞ다 동 간직-하다. [전역] = 강

적-ᄒᆞ다.

강쳉이 명 갑자기 이는 폭풍. [대정]

강-추위 명 강-추위. [전역]

강태공-서목공 명 <민> [전역] → 강태공-서목시.

강태공-서목수 명 <민> [전역] → 강태공-서목시.

강태공-서목시 명 <민> 강태공 수목수(姜太公首木手). 굿의 성주풀이에서 청해 들이는 목수(木手)의 신. [전역] = 강태공-서목공, 강태공-서목수, 강태공-수목수.

강태공-수목수 명 <민> [전역] → 강태공-서목시.

강터을 명 <지>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의 한 자연마을. [한경] = 강월-동(江月洞), 강텁.

강텁 명 <지> [한경] → 강터을.

강퍽-ᄒᆞ다 형 강퍅-하다. [전역]

갖다 동 갖다(持). [전역] = 곶다[1], 앚다[1], 옺다.

개[1] 명 <어> [구좌 성산] → 원(垣)[1].

개[2] 명 <어> 개(浦). [전역]

개[3] 명 <동> 개(犬). *(속) 개가 똥을 츰주.(개가 똥을 참지.) *(속) 갠 쳴나무래곡, 췐 갤 나무래곡.(개는 겨를 나무라고, 겨는 개를 나무라고.) *(속) 개도 비치락으로 안 뜨린다.(개도 빗자루로 안 때린다. 개도 빗자루로 안 때리는데 하물며 사람을 빗자루로 때려서야 되겠느냐는 의미.) *(속) 공부ᄒᆞ랜 ᄒᆞ난 개 잡는 걸 뱁나.(공부하라고 하니 개 잡는 것을 배운다.) *(속) 나댕기는 개가 꽝 물어온다.(나다니는 개가 뼈 물어온다.) *(속) 도독맞쟁 ᄒᆞ믄 개도 안 주꾼다.(도둑맞자고 하면 개도 안 짖는다.) *(속) 주끄는 갠 줄곡, 먹는 갠 솔친다.(짖는 개는 마르고, 먹는 개는 살찐다.) *(속) 갠 지 발콥만큼 먹어도 산다.(개는 자기 발톱만큼만 먹어도 산다.) [전역] ㊟가히.

개가죽-보선 명 <의> 개가죽으로 만든 버선. [성산 수산 성읍]

개-값 명 노루 사냥 때 사냥개의 몫으로 주는 값. [광령]

개개비 명 <동> [조수] → 물개비.

개-것 명 개의 먹이. [전역]

개골래기 명 [노형 조수 어도] → 개오리-연.

개골래비 명 [김녕] → 개오리-연.

개광 명 무덤을 쓸 때에 방향을 바로잡아 관(棺)을 넣을 자리를 파는 일. *영장 묻젠 ᄒᆞ민 개광부텀 파사주.(장사를 지내려면 '개광'부터 파야지.) [전역]

개광-자리 명 굿. 무덤을 쓸 때에 방향을 바로잡아 관(棺)이 들어갈 만큼 알맞게 판 구덩이. *술 보멍 개광자리 잡으라.(줄 보면서 굿을 잡아라.) [전역]

개구리-타령 명 <요>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를 중심으로 전해지는 창민요로서, 한반도에서 유입된 민요의 한 가지. [성읍]

개-곳 명 갯-가(浦邊). [전역] = 갯-곳.

개곳-궤기 명 바닷물고기 따위를 얕잡아 일컫는 말. [전역]

개꼬리-오름 명 <지> [전역] → 갯거리-오름[2].

개꽝-낭 명 <식> ① 쥐똥-나무. [전역] ② 왕-쥐똥나무. [전역] = 께꽝-낭.

개나리 명 <식> 개나리. [전역] = 게가비.

개남 명 *본을 ᄒᆞ영 등따리에 창 뎅기당 전복 삐죽 봐지믄 그거 확 빵그레 데껑. 그건 개남으로 경 ᄒᆞ영 놧당 올라왕 숨쉬믄 그거 헤엿케 봐지믄 그디 강 빗창으로 테엉 오곡. ('본'을 등어리에 차서 다니다가 전복 삐죽 보이면 그거 확 빼서 그리로 던져서. 그것은 가늠으로 그렇게 해서 놓았다가 올라와서 숨쉬면 그것 허옇게 보이면 거기 가서 빗창으로 떼어 오고.) [이호] → 가늠[2].

개-낭 명 <식> 누리장-나무. [전역] = 개똥-낭.

개논독-낭 명 <식> 분디-나무. [김녕 가시 수산 인성 노형]

개다 동 ① 이불 따위를 겹치거나 접어서 단정하게 포개다. [전역] ② 비나 눈이 그치고 날이 맑아지다. [전역]

개-당 명 <민> 포구(浦口) 보호신을 모신 당. [전역]

개동(開東) 명 <지> [전역] → 계동.

개동개 명 [조수] → 굴메[1].

개들레기 명 <동> [행원] → 게드레기.

개ᄃᆞ레-낭 명 <식> 개다래-나무. [전역]

개-똥 명 개-똥. *(속) 개똥을 무셩 피ᄒᆞ느냐, 더러왕 피ᄒᆞ주.(개똥을 무서워 피하느냐, 더러워 피하지.) *(속) 개똥도 약 씨쟁 ᄒᆞ민 귀ᄒᆞ다.(개똥도 약에 쓰자고 하면 귀하다.) [전역]

개똥-낭 명 <식> [수산] → 개-낭.

개똥이 명 아기가 허약할 경우에, 개똥처럼 아무렇게나 놓아 두더라도 잘 살라는 뜻으로 어릴 무렵에 붙이는 별명. [전역]

개똥-전(--田) 명 길거리에 있는 개똥 따위가 빗물을 타고 모여들어 비교적 기름진 밭. [도순]

개-먹다 동 사물이 자주 스쳐서 닳아지다. [전역]

개-멍게 명 <동> 멍게의 일종. [신촌]

개-목련 명 <식> 함박꽃-나무. [전역]

개목-밧 명 <지> [전역] → 개미목-밧.

개미 명 토. 간장을 담가서 소금물에 익혀진 메주 또는 그 찌끼. [전역]

개미-등 명 <지> [전역] → 개미-목.

개미-목 명 <지> 제주시 아라동 남쪽 한라산 국립공원에 있는 산마루. 양쪽에 계곡을 끼고 남북으로 긴 경사지를 이루며, 한라산 등산 코스의 하나임. 최고점 표고 1495미터. [전역] = 개미-등.

개미목-도 명 <지> 계곡을 건너 개미목으로 오르는 길목. 표고 약 850미터. [아라]

개미목-밧 명 <지> 개미목에 있는 조릿대밭. 온통 제주조릿대의 떼판이었으나, 솔숲이 크게 잠식해 들어감. [전역] = 개목-밧.

개미-장 명 [전역] → 뒌-장.

개-바농 명 <식> [서홍 가시] → 가마귀-바농.

개-발 명 헛발-질. *개발 놀리지 말라.(헛발질하지 마라.) [전역]

개발-시리 명 <식> 이삭의 끝이 개의 발 같이 세 가닥이고 쌀알이 거무스

름한 차진 조(粟)의 한 가지. [전역]

개-베룩 명 <동> 개-벼룩. [전역]

개벡 명 <건> 외(椳) 위의 흙질. [전역] = 안벡.

개벡질-ᄒᆞ다 동 <건> [전역] → 개벽질-ᄒᆞ다.

개벤또롱-ᄒᆞ다 형 [전역] → 가벤또롱-ᄒᆞ다.

개벨 명 개별(個別). [전역] = 개별.

개벱다 형 [전역] → 가벱다.

개벽질-ᄒᆞ다 동 <건> 외(椳)에 이긴 흙을 바르는 일을 하다. [전역] = 개벡질-ᄒᆞ다.

개벽-ᄒᆞ다 동 <건> 외(椳)에 이긴 흙을 바르다. [전역]

개별(個別) 명 [전역] → 개벨.

개-보말 명 <동> 보말의 일종. *털이 복삭ᄒᆞᆫ 것이 개보말인디 재수 엇다고 잘 안 잡아낫주.(털이 많은 것이 '개보말'인데 재수 없다고 잘 안 잡았었지.) [김녕]

개-부돌 명 <도> 바닷가에서 마련한 부싯돌. [토평]

개불-낭 명 <식> 산-괴불나무. [전역]

개붑다 형 [전역] → 가벱다.

개-비눔 명 <식> 개-비름. [인성 서홍 노형] = 개-비늠.

개-비늠 명 <식> [노형 서홍 인성] → 개-비눔.

개-뽕낭 명 <식> [전역] → 드릇-뽕낭.

개-산쟁이 명 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냥꾼. [봉성]

개-삼동 명 <식> 까마-종이. [노형 조수 인성] = 물-오좀. ㊟가마조ᄉᆡ.

개삼동-개 명 볼품이 없고 실없는 개. *개야 개야 개삼동개야. 밤 사름은 다 도독이냐? 밤 사름 보경 그저 주끄지 말라.(개야 개야 실없는 개야. 밤 사람은 다 도둑이냐? 밤 사람 보거든 그저 짖지 마라.) [전역]

개-술[1] 명 <식> [전역] → 셍게.

개-술[2] 명 <음> 개를 다져 삶아 짠 국물. [전역]

개-싯이 명 <민> 개-씻이. 바다에서 죽은 영혼을 위로하기 위하여 바닷가에서 벌이는 무속 의례. [행원 하도]

개-씸 명 <병> 아랫눈시울에 난 다래끼. [전역]

개-악(蓋岳) 명 <지> [전역] → 개-오름[1].

개애다 동 개다. 덩이진 것에 물을 치어 저으면서 풀어지게 하다. [전역]

개역 명 <음> 미숫-가루. 볶은 보리나 콩 따위를 갈거나 빻아서 만든 가루 음식물. *(속) ᄒᆞᆫ 둘에 개역 시 번, 즈배기 시 번 ᄒᆞ민 집안 망ᄒᆞᆫ다.(한 달에 미숫가루 세 번, 수제비 세 번 하면 집안 망한다.) [전역]

개-엿구 명 <식> [인성 서홍] → 개-엿귀.

개-엿귀 명 <식> 개-여뀌. [노형 서홍 김녕] = 개-엿구, 물-엿귀.

개-오름[1] 명 <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2리 성읍목장 서쪽에 있는 오름. 표고 345미터. [전역] = 개-악(蓋岳).

개-오름[2] 명 <지> [아라 오라] → 민-오름[2].

개-오름[3] 명 <지> [전역] → 믜-오름[1].

개-오름[4] 명 <지> 서귀포시 하원동 서쪽 일주도로변에 있는 오름. 조선 때

봉수대가 있었으며, 북동쪽에 법화사가 있음. 표고 174미터. [전역] = 구산-봉, 굿산-망, 망-동산[1].

개오리 명 <동> [전역] → 가오리.

개오리-연 명 가오리-연. 가오리 모양과 같이 만들어진 연.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가골라비, 가오리-연, 개골래기, 개골래비.

개오리-오름 명 <지> 제주시 봉개동 한라산 횡단도로변에 있는 오름. 모양이 '개오리'(가오리)처럼 생김. 표고 743미터. [전역] = 개월-오름, 견월-악(犬月岳).

개우 명 <건> [김녕] → 개위.

개우김-소리 명 집단 꿩 사냥 때, 그 우두머리인 패장이 여러 사냥꾼들에게 집합을 알리는 소리. [성산 수산]

개-우미 명 <식> [옹포] → 청-우미.

개월-오름 명 <지> [전역] → 개오리-오름.

개위 명 <건> 툇마루의 안쪽 기둥과 바깥쪽 기둥과의 사이에 가로 건너지른 나무. [전역] = 개우.

개윗-지동 명 <건> 툇-기둥(-柱). [전역] = 개윗-짓, 퉷-지동, 퉷-지둥, 퉷-짓.

개윗-짓 명 <건> [노형] → 개윗-지동.

개-유 명 [노형 조수 김녕 수산] → 소-유.

개유지 명 사유-지(私有地). [전역]

개-웃낭 명 <식> 거먕-옻나무. [인성] 서홍 조수 수산]

개자리-쿨 명 <식> 개-자리. [조수 인성 서홍] = 개자리-풀.

개자리-풀 명 <식> [노형 수산 김녕] → 개자리-쿨.

개-장 명 <음> [노형 오라] → 개-장국.

개-장국 명 <음> 개-장국. 개고기에 여러 가지 양념과 채소 등을 넣고 고아 끓인 국. [전역] = 개-장.

개-장테 명 <도> 질흙으로 만든, 작은 항아리 뚜껑으로 사용하는 장태. 설거지통으로도 쓰임. [사계]



개장테

개-좃 명 윗눈시울에 난 다래끼. [김녕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개죽은-산 명 <지> [동복 북촌] → 구사-산(狗死山).

개-쥇피낭 명 <식> 개-산초(-山椒). [전역]

개지 명 바리-뚜껑. [전역] = 가지깽이, 수바끼-두께.

개-차반이 명 [하원 태흥 표선 어도] → 개-차반지.

개-차반지 명 개-차반. [전역] = 개-차반이.

개-탕쉬 명 [인성 조수] → 개-탕주.

개-탕주 명 탱자. [노형 조수] = 개-탕쉬, 개-탕쥐, 개-툥지, 텡기, 텡지, 텡지-으름, 통지[2], 툥쥐, 툥지.

개-탕쥐 명 [조수] → 개-탕주.

개탕쥐-낭 명 <식> [노형 조수] → 텡즈-낭.

개-통지 명 [인성] → 개-탕주.



개탕주

개판[1] 명 개판(盖板). 관(棺) 위를 덧덮는 널빤지. [전역]

개-판[2] 명 개-판. 상태나 행동 따위가 사리에 어긋나 온당치 못하거나 무질서하고 난잡한 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 [전역]

개-퍼레 명 <식> 파래의 일종. 식용할 수 없는 파래. *개퍼레는 먹지 아녀는 거.('개퍼레'는 먹지 않는 거야.) [용수 애월]

개펄 명 개펄. [전역]

개평 명 [노형] → 게펭.

개평-ᄒᆞ다 동 *장ᄉᆞ 지내는디 떡 개평ᄒᆞ여다 먹곡.(장사(葬事)를 지내는데 떡을 얻어다 먹고.) [노형] → 게평-ᄒᆞ다.

개-ᄑᆞ리[1] 명 <동> 개-파리. [전역]

개-ᄑᆞ리[2] 명 <동> 개(犬)에 이는 파리. [성읍]

개-하르방 명 <민> 포구(浦口)의 신. [전역]

개-할망 명 <민> 포구(浦口)의 신. [전역]

개-헤치 명 개-띠. [전역]

개흑-밧 명 <농> 붉은 기운이 감도는 흙으로 이루어진 밭. *개흑밧디선 농ᄉᆞ가 그리 잘 뒈지 안 ᄒᆞ주.('개흑밭'에서는 농사가 그리 잘 되지 않지.) [광령]

객객 부 ① 짓궂게 지르는 소리. *그 자 객객 울르는 게 일인다.(그저 객객 소리치는 것이 일이다.) [전역] ② 개구리가 개굴거리는 소리. *풀 골개비가 객객 울민 비 온다.(청개구리가 '객객' 울면 비 온다.) [전역]

객객-거리다 동 시끄럽게 소리를 지르다. *객객거리지 말라, 놈 욕ᄒᆞᆫ다.('객객거리지' 마라, 남 욕한다.) [전역] = 객객-ᄒᆞ다.

객객-ᄒᆞ다 동 *밤새낭 객객ᄒᆞ멍 토헷저.(밤새도록 '객객하면서' 토했다.) [전역] → 객객-거리다.

갠실-갠실 부 *자인 갠실갠실 눈웃음치는 게 보통이 아니여.(저 아이는 '갠실갠실' 눈웃음치는 것이 보통이 아니다.) [전역] → 간실-간실.

갠실갠실-ᄒᆞ다 동 [전역] → 간실간실-ᄒᆞ다.

갠실-거리다 동 [전역] → 간실-거리다.

갯거리-오름[1] 명 <지> 서귀포시 하원동 산간에 있는 오름. 표고 710미터. [서귀포 중문] = 갓그레-오름.

갯거리-오름[2] 명 <지>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고림동 동쪽에 있는 오름. 표고 254미터. [전역] = 갓글-오름, 개꼬리-오름, 갯걸-오름, 구미-악(狗尾岳).

갯걸-오름 명 <지> [명월 금악] → 갯거리-오름[2].

갯-구두리 명 <식> 바다에서 자라는 홍조식물. 끈적진 점액질이 있어 말

렸다가 방을 바르거나 창을 바를 때 끓여서 풀 대용으로 씀. [전역]

갯-곶 명 [전역] = 개-곶.

갯곶-바위 명 갯가의 바위. [용수]

갯-내 명 갯-내. [전역] = 갯물-내.

갯-누물 명 <식> [전역] → 갯-누물.

갯-누물 명 <식> 갓. [전역] = 갯-누물.

갯-담 명 <어> [구좌 행원 애월 한림] → 원[1](垣).

갯-대추낭 명 <식> 갯-대추나무. [태흥]

갯-맛 명 <어> 바닷물이 드나드는 개(浦)의 뭍(陸) 쪽이 되는 곳. [전역]

갯물-내 명 [하도] → 갯-내.

갯-무슬 명 갯-마을. 해촌(海村). [전역] = 갯-무을.

갯-무을 명 [전역] → 갯-무슬.

갯-바르 명 <동> 어린 전복. [하모]

갯-부름 명 갯-바람. 바닷-바람. [전역]

갱경 명 [서홍 가시 수산 김녕] → 강경.

갱교-부리다 동 [전역] → 간교-부리다.

갱규-꾼 명 [전역] → 간교-꾼.

갱기 명 갱기. 짚신 따위의 총갱기와 뒷갱기를 통틀어 이르는 말. [전역] = 강기.

갱베리 명 <동> [행원] → 장쿨레비.

갱변-밧 명 해안가에 있는 밭. [가파]

갱-엿 명 [전역] → 엿.

갱칠이 명 [가마] → 준-다니.

갱-피 명 <식> 볏과의 한해살이풀. 피의 일종. *갱피는 낭뎅이가 딱딱ᄒᆞ고 또 쏠방울이 홁주.('갱피'는 줄기가 딱딱하고 또 쌀방울이 굵지.) [송당]

거간(居間) 명 거간. [전역]

거간-ᄒᆞ다 동 [전역] → 세-ᄒᆞ다.

거기 대부 [전역] → 그듸.

거꺼-지다 동 꺾-이다. [전역]

거껭이 명 자루가 부러진 숟가락. [전역] = 꺼껭이.

거꾸로 명 거꾸로. [전역] = 거스로.

거끄다 동 꺾다. *소중이 물를 때 쳇 번은 미녕으로 ᄒᆞ영그네 톡 거껑 오그리메.('물옷' 마를 때 첫 번은 무명으로 해서 톡 꺾어서 오그리지.) [전역]

거끌-거끌 부 꺼끌-꺼끌. [전역]

거끔 명 [표선] → 게꿈.

거념-ᄒᆞ다 동 보호하여 돌보다. *늑신네들 오몽 못ᄒᆞ민 그저 집의서 손지덜이나 거념ᄒᆞ곡.(늙은이들 움직이지 못하면 그저 집에서 손자들이나 돌보고.) [전역]

거느리왕상-ᄒᆞ다 동 좋지 않은 일로 남의 입에 오르내리다. *이제 그 부모들 거느리왕상ᄒᆞ고 형제들 다 창피헤서.(이제 그 부모들이 남의 입에 오르내리고 형제들이 모두 창피해서.) [전역]

거느리다[1] 동 거느리다(率). [전역]

거느리다[2] 동 ① 누가 남(他人)을 두고 없는 데서 이야기하다. [전역] ② 잊었던 일을 다시 상기시켜 끄집어내다. *아, 거 잊어불만 ᄒᆞ민, ᄒᆞᆫ 메칠 싯당 술이나 기리우민, 저 사름거 노리 ᄯᅳ린 말 ᄒᆞ민, 또 거느린다 이거우다.(아, 그것을 잊어버릴 만하면, 한 며칠 있다가 술이나 마시고 싶으면, 저 사람 그것 노루 때렸던 말을 하면, 또 상기해서 이야기한다 이겁니다.) [전역]

거니-나다 동 소문이 퍼져 널리 알려

지다. [전역]

거덜-나다 동 거덜-나다. [전역]

거도(鋸刀) 명 거도. 자루를 한쪽에만 박아 잡아당겨 켜는 톱. [전역]

거두다 동 거두다. [전역] 고 거도다.

거두와-가다 동 물건을 그러모아서 가져가다. [전역]

거드락지 명 <동> *거드락지는 자기 집이 엇이니까 소라 껍데기나 이런 아무 껍데기나 놈의 집을 이용ᄒᆞ여 먹는 거라.(집게는 자기 집이 없으니까 소라 껍데기나 아무 껍데기나 남의 집을 이용하여 먹는 것이야.) [애월] → 게드레기.

-거드란 어미 [전역] → -거들랑.

-거드랑 어미 [전역] → -거들랑.

거드럭-거드럭 부 거만스럽게 잘난체하며 자꾸 버릇없이 구는 모양. [전역] = 거들-거들, 거들락-거들락.

거드레기[1] 명 <동> *보말인디 깅이가 영 들어간 게 거드레기주.(고둥인데 게가 이렇게 들어간 게 소라게지.) [하귀] → 게드레기.

거드레기[2] 부 우두커니. *혼자 거드레기 삿저. (혼자 우두커니 섰다.) [전역] = 우드겡이.

-거든 어미 -거든. ① 용언 어간이나 받침 없는 체언 밑에 붙어서, 그 사실이나 행동을 가정(假定)적인 조건(條件)으로 삼아 말할 때 쓰이는 연결어미. *김 아무개 이번도 오라근에 장원ᄒᆞ거든 우리가 멀리 어디 조곰 숨었다 그놈 심어 놔서 죽여 불게.(김 아무개가 이번에도 와서 장원하거든 우리가 멀리 조금 숨어있다가 그놈을 붙잡아 놓고 죽여 버리자.) [전역] ②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행동이나 상태를 사실인 것같이 나타내는 어미. *혼 삼년 션 와 보니, 쉐 잇을 건 사실이고, 어떵어떵ᄒᆞ연 잘뒈가지고 뒈염거든.(한 삼년 있다가 와서 보니, 소가 있는 것은 사실이고, 어떻게 어떻게 하여서 잘 되어서 되고 있거든.) *글로 해서 사름덜 멧이 모여 가지고 난 일롯거든.(그로 인해서 사람들 몇이 모여서 난(亂)을 일으켰거든.) [전역]

거뜬-ᄒᆞ다 형 거뜬-하다. [전역]

거들-거들 부 ① *잘난 쳑 거들거들 여간 아니여. (잘난 체 거드럭거드럭 여간 아니다.) [전역] → 거드럭-거드럭. ② 흔들-흔들. 바람에 흔들거리는 모습. *ᄇᆞ름에 큰 낭가지가 거들거들 움직염저. (바람에 큰 나뭇가지가 흔들흔들 움직이고 있다.) [전역]

거들-거리다 동 거들-거리다. [전역]

거들락 부 우뚝. [전역]

거들락-거들락 부 [전역] → 거드럭-거드럭.

거들락거들락-ᄒᆞ다 동 거드럭거드럭-하다. *심이 쎄뎅 거들락거들락ᄒᆞᆫ다.(힘이 세다고 거드럭거드럭한다.) [전역]

거들락-이 부 버릇없이 경망되게. *머리 그냥 풀어네 허붕치고 ᄒᆞ연 간, 낭 우의 거드락이 앚이니 구신 담거든.(머리 그냥 풀어서 흐뜨러뜨리고 하여서 가서 나무 위에 '거드락이' 앉으니 귀신 닮거든.) [노형]

거들락-ᄒᆞ다 형 우뚝-하다. [전역]
-거들란 어미 [전역] → -거들랑.
-거들랑 어미 -거들랑. 용언 어간에 붙어서, 가정을 조건으로 삼아 말하는 '-거든'에, '은'의 뜻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을랑'이 결합된 어미. ＊그 구실을 주거들랑 그 구실을 물어 가지고 움싹 숨기면서 처음이랑 하늘을 ᄇᆞ래고 두 번째는 따을 ᄇᆞ래고 세 번째란 인간을 봐라.(그 구슬을 주거들랑 그 구슬을 물고 움쩍 삼키면서 처음에는 하늘을 보고 두 번째는 땅을 보고 세 번째는 인간을 봐라.) [전역] = -거드란, -거드랑, -거들란.
거들레기 명 <동> [노형] → 게드레기.
거들버-주다 동 남이 하는 일을 도와주다. [김녕 조수 노형]
거듭 부 거듭. [전역]
거러지 명 거지. [전역]
거러지-질 명 거지-질. [전역]
거렁청-ᄒᆞ다 형 [전역] → 거령청-ᄒᆞ다.
거레 명 거래(去來). [전역]
거려-놓다 동 떠-놓다. [전역]
거려-먹다 동 떠-먹다. ＊밥 ᄒᆞᆫ 적 거려먹엉 밧듸 가게.(밥 한 술 떠먹고 밭에 가자.) [전역]
거려-밀리다 동 ＊경 가락 거려밀리지 말라.(그렇게 힘껏 밀지 마라.) [전역] → 거리-밀다.
거력-ᄒᆞ다 형 물건이 넉넉하고 마음이 후하여 걸게 쓰는 버릇이 있다. [전역]
거령셍-이 부 [어도] → 거령청-이.
거령청-이 부 아무 근거도 표준도 없이 그저 허튼짓이나 말을 하는 모양. [전역] = 거령-셍이.
거령청-ᄒᆞ다 형 하는 말이나 짓이 아무 근거도 표준도 없이 사리에 맞지 않고 허황되다. ＊거 종이만 ᄒᆞᆫ 장 도망갓주, 거령청ᄒᆞ게.(그것 종이만 한 장 없어졌지, '거령청하게'.) [전역] = 거렁청-ᄒᆞ다.
거로 명 <지> [화북 삼양] → 거루.
거로-악(車路岳) 명 <지> [남원] → 거린-오름[1].
거로-촌(居老村 · 巨老村) 명 <지> [전역] → 거루.
거로-치(車路峙) 명 <지> [남원] → 거린-오름[1].
거루 명 <지> 제주시 화북2동의 한 자연마을. [화북] = 거로, 거로-촌.
거르다 동 거르다. ① 찌끼가 있는 액체를 체 같은 데 받쳐 짜내다. [전역] ② 차례를 건너뛰다. [전역] = 걸르다. 고 거르다.
거름 명 <농> [전역] → 걸름.
거름-질 명 [김녕 어도] → 거림-질.
거름-착 명 <도> [전역] → 걸름-착.
거름-체 명 <도> 찌끼나 건더기가 있는 액체를 거르는 데 쓰는 조금 눈이 굵은 체. [전역]


거름체

거리[1] 명 채. 집의 덩이. 집 채의 수를 세는 단위. *돈이 아직도 많이 잇이니까니, 좋은 집으로 가서 집 서너 거리 사라.(돈이 아직 많이 있으니까, 좋은 집으로 가서 집 서너 채를 사라.) [전역] = 채[1], 체[1].

거리[2] 명 길-거리. [전역]

거리다[1] 동 ① 나무 줄기에서 새로이 곁가지가 돋아 벋어 나가다. [전역] ② 외갈래길이 두 갈래로 갈리어 나가다. [전역] 고 거리다.

거리다[2] 동 <어> ① 자질구레한 물고기 따위를 그물로 잡아 올리다. [전역] ② 뜨다. 솥이나 큰 기물 따위에 담겨있는 것을 덜어내거나 퍼내다. [전역] 고 거리다.

거리-밀다 동 밀치어 넘어뜨리다. [전역] = 거려-밀리다, 거-밀리다, 건-밀다.

거리-세움 명 <농> 조밭 첫밭매기에서 모종과 모종 사이의 간격을 이식(移植)하거나 솎아내 버리며 조정해 주는 일. [하원]

거리-왓 명 마을 안에 있는 밭. [노형 조수 서홍 인성 가시] = 가름-팟.

거리-치다 동 누운 자세로 쓰러지게 하다.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거린-사스미 명 <지> [서귀포 중문] → 거린-사슴[2].

거린-사슴[1] 명 <지> [남원] → 거린-오름[4].

거린-사슴[2] 명 <지> 서귀포시 하원동 산간에 있는 오름. 이 오름은 예로부터 두 개의 봉우리가 나뉘어 있음. 표고 743미터. [서귀포 중문]

거린-오름[1]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북서쪽에 있는 오름. 산 위가 두 갈래로 '거리어'(갈리어) 있음. 표고 533미터. [전역] = 거로-악(車路岳), 거로-치(車路峙), 거인-악(巨仁岳), 걸인-악(傑人岳).

거린-오름[2] 명 <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 남서쪽에 있는 오름. '넙게오름' 위쪽에 있으며 두 봉우리로 갈라졌음. 표고 298미터, 314미터. [전역] = 북-오름[2], 아-악(丫岳).

거린-오름[3] 명 <지>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1리 산간에 있는 오름. [성산]

거린-오름[4] 명 <지> [서귀포 중문] → 거린-사슴[2].

거린-작데기 명 <도> [표선 조천] → 작데기.

거림 명 몇 개로 나누어진 것 중 하나 하나의 낱개. [전역]

거림-질 명 갈림-길. [전역] = 거름-질.

거림-패기 명 ① 나뭇가지가 돋아 벋어 나가서 갈려진 곳. [전역] ② 외갈래에서 두 갈래로 갈려진 곳. [전역]

거릿-대장 명 <민> 제청 밖의 군졸을 통솔하는 하위 신(神). [전역]

거릿-댕이 명 <도> [태흥 수산] → 작데기.

거마리 명 <동> [조수] → 거멀[1].

거만-ᄒᆞ다 형 거만-하다. [전역]

거말 명 <동> [노형 조수] → 거멀[1].

거말-장 명 [하원 화순 노형] → 거멀-장.

거머리 명 <동> [조수] → 거멀[1].

거멀[1] 명 <동> 거머리. [인성 서홍 표선 세화 수산 조수 조천 행원] = 거

마리, 거말, 거머리. ㊟거머리.
거멀[2] 명 [전역] → 거멀-장.
거멀-장 명 거멀-장. [인성 서홍 태흥 세화 수산] = 거말-장, 거멀[2].
거멀-창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검은오름의 분화구. 환형(環形)·말굽형의 복합형으로, 정상으로부터의 깊이는 125미터. 한쪽 언덕에 수혈 동굴이 있음. [전역]
거멍-둥이 명 [전역] → 가망-둥이.
거멍-ᄒᆞ다 형 거멓다. [전역]
거무룽-ᄒᆞ다 형 거무스름-하다. [전역]
거무영청대전상-굿 명 <민> 백정의 수호신을 위한 굿. [전역]
거문귀 명 거문고. [북촌]
거물-거물 부 [전역] → 가물-가물[2].
거물거물-ᄒᆞ다 형 [전역] → 가물가물-ᄒᆞ다[2].
거뭇-거뭇 부 [전역] → 가물-가물[2].
거므스름-ᄒᆞ다 형 거무스름-하다. [전역] = 검스름-ᄒᆞ다.
거믜 명 <동> 거미(蜘蛛). [전역] = 거미. ㊟거믜.
거믜-줄 명 거미-줄. [전역]
거미 명 <동> [전역] → 거믜.
거미-오름 명 <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동동(東洞) 남동쪽에 있는 오름. 여러 개의 봉우리와 등성이가 사방으로 뻗고 깔때기형·말굽형 분화구가 병존하며, 주변에 이류구(泥流丘)가 산재함. 중앙 화구의 깊이는 72미터. 표고 340미터. [전역] = 동-검은이.
거-밀다 동 떠밀다. [전역]
거-밀리다 동 *저레 자락 거밀려 불켜.(저쪽으로 '자락' 밀쳐 버리겠다.) [전역] → 거리-밀다.
거반(居半) 명부 거반. ① 거의 절반. [전역] ② 거의 절반 가까이. [전역]
거방-지다 형 가파르다. [전역]
거벙짓-질 명 [어도 김녕] → 거부렝잇-질.
거벱다 형 거볍다. [전역] = 거붑다.
거-봐라 감 거-봐라. [전역]
거부렝잇-질 명 아주 급하게 비탈진 길. [수산] = 거벙짓-질.
거부-춘심 명 <농> 밭 따위를 돌아봄. [전역]
거북 명 <동> 거북. [전역]
거붑다 형 [수산] → 거벱다.
거상-손(拒上-) 명 <민> 차례가 고르지 못한 일. 자식이 먼저 죽는다든지 불효하게 하는 손. [전역]
거세기 감 *아, 힘 쎈 하르방은 거세기, 건 요디 산이, 거욱대우영이라고 흔디 배 임재 말 아인가.(아, 힘 센 할아버지는 거시기, 그것은 요기 산에, 거욱대우영이라고 하는 곳에 배 임자 말 아닌가.) [구좌] → 거시기.
거수에 명 <동> [전역] → 게우리[1].
거수의 명 <동> [서홍 수산] → 게우리[1].
거스다 동 [전역] → 거시다.
거스로 부 [전역] → 거꾸로.
거스름-떡 명 <음> 사돈집에 맨 처음으로 하여 가는 떡. [전역] = 거시림-떡.
거스림-돈 명 거스름-돈. [전역]
거슨-ᄇᆞ름 명 앞-바람. *어디 거슨ᄇᆞ름 불엉 네질ᄒᆞ여지커라?(어디 앞바람 불어서 노를 저을 수 있겠는가?)

[전역]

거슨세미-오름 명 <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송당목장 길 건너 북쪽에 있는 오름. 말굽형으로 벌어진 가스락에 거슨세미라는 샘이 있음. 보통 샘물의 흐름이 바다 쪽으로 향해 있는데 반해, 이 샘은 한라산 쪽을 향해 거슬러 있음. 표고 380미터. [전역] = 세미-오름[3], 역수-산(逆水山).

거슬다 동 거스르다. [전역] = 거실다. 고 거슬다.

거슬르다[1] 동 [전역] → 거실르다.

거슬르다[2] 동 상대방의 마음에 맞지 않게 하다. *도체비는 그대로 모사 들여서 거슬르민 망혼다.(도깨비는 그대로 모셔 들여서 거스르면 망한다.) [노형]

거슴 명 거스러미. [전역] = 거심.

거슴-손 명 아이들이 서로 손으로 건드려 장난하는 짓. [전역]

거시기 감 거시기. 적당한 말이 생각나지 않아서 바로 말하기가 거북할 때 쓰는 군소리. [전역] = 거세기.

거시다 동 건드리다. 가만히 있는 사람이나 동물을 자꾸 성가시게 건드리거나 나무라며 귀찮게 하다. *(속)자는 벌집 거시듯 ᄒᆞᆫ다.(자는 벌집 건드리듯 한다.) *이건 성당 목ᄉᆞ를 딱 등져 노니, 거셔 보질 못ᄒᆞ여.(이것은 성당 목사(牧使)를 딱 등지니, 건드려 보지를 못해.) [전역] = 거스다, 거찌다.

거시름-손 명 남을 화나게 건드리는 짓. *웨 ᄀᆞ만이 이신디 거시름손이냐?(왜 가만히 있는데 '거시름손'이냐?) [전역]

거시리다 동 <농> 농사를 짓기 위하여 애벌갈이를 하다. *테역밧 이긴 딘 거시령 놧당 용시ᄒᆞ메.(잔디밭을 일군 곳은 애벌갈이를 해 놓았다가 농사짓지.) [조수]

거시림-떡 명 <음> [노형 조수 인성] → 거스름-떡.

거시림-조 명 <식> 보리를 경작하고 난 밭에다 휴경하지 않고 이어서 경작하는 조. [덕수]

거시림-팟 명 <농> 파종하기 전에 미리 애벌갈이를 한 밭. *거시림팟듸 조 갈앙 놔두난 조가 어랑어랑 좋아선게.('거시림밭'에 조를 갈아두니 조가 '어랑어랑' 좋았더라.) [전역]

거신-기 명 <민> [노형 삼양] → 거싱-기.

거실다 동 [전역] → 거슬다.

거실르다 동 나무의 발육을 돕기 위하여 나뭇가지를 솎아 베어내다. *나 오라방 서목쉬난 상가지로 거실롸주마.(내 오라범 서목수니 윗가지로 가지 쳐 주마.) [전역] = 거슬르다[1].

거실어-지다 동 거스러-지다. [전역]

거심 명 [전역] → 거슴.

거싱-기 명 <민> 다리 부위를 거칠게 오려 낸 기. 처섯기(差使旗)를 달리 이르는 말. 차사의 위엄을 나타내기 위하여 다리 부위를 거칠게 오려 냄. [용담 오라 건입] = 거신-기.

거쓴 부 [전역] → 얼른.

거쓴-ᄒᆞ다 동 오래 끌지 않고 얼른 하다. [전역]

거씬 부 [전역] → 얼른.

거영 명 [노형 조수] → 겡.

거왕 명 <건> 처마끝 서까래 아래에 이엉을 누르는 줄을 묶기 위한 장대. [전역] = 멩두암, 벵두암.



거왕

거욱대 명 <민> 돌이나 나무 따위를 사람 형상으로 깎아 세운 것. [표선]

거울 명 거울(鏡). [전역] = 섹경.

거울-제비 명 <민> 간제비의 한 면이 거울 모양인 데서 붙인 이름. [전역]

거웃 명 거웃. [전역]

거은-ᄃᆞ리 명 <민> 어긋난 순서. 차례에 어긋난 일. *거은ᄃᆞ리 날 일덜 막아줍서. (차례에 어긋나는 일이 생기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김녕] = 건-ᄃᆞ리.

거은-물 명 거슬러 흐르는 물. 순리에 어긋난 일. *거은물 날 일 막아 줍서.(순리에 어긋난 일이 생기는 것을 막아 주십시오.) [김녕] = 건-물.

거의 부 거의. [전역] = 거자, 거줌, 거진, 건줌.

거인-악(巨仁岳) 명 <지> [전역] → 거린-오름[1].

거자 부 [서홍 수산 김녕] → 거의.

거-자랑 명 실속 없이 과장하여 드러냄. [전역]

거저 부 [전역] → 그자[1].

거적 명 거적. [전역] = 거즉, 예젱이.

거적-문 명 거적-문. [전역] = 예젱이-문, 지직-문.

거적-자리 명 <동> 알을 싸 버린 자리돔. *거적자리엔 흔 건 알 다 싸불민 맛이 엇곡.('거적자리'는 알을 모두 싸 버리면 맛이 없고.) [이호]

거적-테기 명 거적-대기.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거정 명 [세화] → 절벡.

거정-질 명 [노형] → 엉장-질.

거정청-이 부 *ᄀᆞ만이 신 사름안티 거정청이 욕ᄒᆞᆫ다.(가만히 있는 사람한테 엉뚱하게 욕한다.) [전역] → 두렁청-이.

거정청-ᄒᆞ다 형 엉뚱-하다. 터무니-없다. [전역]

거죽 명 거죽. [전역] = 걱적, 걱죽, 꺽죽, 껍죽. 고 거족.

거죽-자리 명 <동> 음력 7월 이후 산란하고 난 후에 가죽만 남은 듯이 살이 쏙 빠진 자리돔. [사계]

거줌 부 [전역] → 거의.

거즉 명 [수산 김녕] → 거적.

거진 부 [조수] → 거의.

거짓 명 거짓(假). [전역]

거짓-갈 명 [전역] → 거짓-말.

거짓갈-젱이 명 [전역] → 거짓말-젱이.

거짓-말 명 거짓-말. [전역] = 거짓-갈, 그짓-갈, 그짓-말, 기짓-말. 고 거즛말.

거짓말-젱이 명 거짓말-쟁이. [전역] = 거짓갈-젱이, 그짓말-젱이.

거짝-거짝 부 거드름을 부리는 모양. [전역]

거찌다 동 [전역] → 거시다.
거치렁-ᄒᆞ다 형 물건이 곱게 다듬어지지 못하여 거친 듯하다. [전역]
거친-오름[1] 명 <지> 제주시 봉개동 개오리오름 북쪽에 있는 오름. 골이 많고 산세가 거칢. 표고 619미터. [전역]
거친-오름[2] 명 <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와 송당리 경계인 체오름 남서쪽에 이웃한 오름. 표고 355미터. [전역]
거칠다 형 거칠다. [전역]
거칠-복 명 <동> 까칠-복. [전역] = 거칠-복젱이.
거칠-복젱이 명 <동> [전역] → 거칠-복.
거펑-우럭 명 <동> [노형 김녕] → 검펑-우럭.
거풀 명 [전역] → 꺼풀.
거피다 동 [전역] → 검피다.
걱-걱 부 꺽-꺽. [노형 조수 인성]
걱대 명 걸때. [노형 조수 인성 수산 가시]
걱대-쉬 명 키-다리. [서홍] = 홧대-쉬.
걱적 명 [수산] → 거죽.
걱정 명 걱정. *(속) 셔도 걱정, 읏어도 걱정.(있어도 걱정, 없어도 걱정.) [전역] 고 걱뎡.
걱죽 명 [수산 김녕] → 거죽.
-건 어미 -건. ① 용언 어간이나 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서, 그 행동이나 사물을 조건 삼아 말할 때 쓰이는 연결어미. *내 강벨장 말을 그 사름에 연(連) 부쩡 ᄒᆞᆫ 번 ᄀᆞᆫ건 들읍서.(내가 강별장 말을 그 사람에 연속하여 붙여서 한번 말하거든 들으십시오.) *경ᄒᆞᆫ디 요 집터는 조심ᄒᆞ영 살다가, 부ᄌᆞ 뒈건 떠나라 ᄒᆞᆫ 거라.(그런데 요 집터는 조심해서 살다가, 부자가 되거든 떠나라고 한 것이야.) [전역] ② 용언 어간이나 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서,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이나 사물을 벌여 놓되, 거기에 구애되거나 또는 그것들을 가리거나 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죽건 살건 내불라.(죽거나 살거나 상관하지 말고 놔두라.) [전역]
건-감 명 곶-감. *건감 먹을 샌 메눌애기 시나 읏이나.(곶감 먹을 땐 며늘아기 있건 없건.) [전역]
건건-ᄒᆞ다 형 바람이 건들건들 불어서 시원하다. [전역]
건너다 동 [전역] → 넘다[1].
건네다 동 건네다. 물건을 남에게 넘겨주다. [인성 화순 하원] 고 걷내다.
건달 명 건달. *사름이 뒈사주, 건달 뒈민 안 뒈주.(사람이 되어야지, 건달이 되면 안 되지.) [전역]
건달로 부 하릴없이 빈둥빈둥. *어제는 건달로 ᄒᆞ를 헤ᄒᆞᆫ 아무 일도 못 혯주.(어제는 하릴없이 빈둥빈둥 하루 종일 아무 일도 못했지.) [전역]
건답(乾畓) 명 [전역] → 강답.
건대(巾帶) 명 건대. [전역] = 건데.
건데 명 [전역] → 건대.
건데기 명 건더기. *건데기 넹기지 말앙 다 먹으라.(건더기 남기지 말고 다 먹어라.) [전역]
건두다 동 거두다. 쓸어서 모아들이다. *ᄀᆞ스락도 다 건두라.(까끄라기도 다 거두어라.) [전역] = 거두다.
건두왁-사다 동 [김녕] → 항곱-사다.

건드럽다 형 바람이 잘 통해서 시원하다. ＊이디가 젤 건드럽다.(여기가 제일 시원하다.) [전역]
건드렁-ᄒᆞ다 형 ① 바람이 불어서 시원하다. [전역] ② 술이 거나하게 취하여 심신이 흐릿하다. [전역]
건드리다 동 건드리다. [전역]
건들-개 명 <지> ① 제주시 건입동(健入洞)의 포구. ② 제주시 건입동의 옛 이름. [전역]
건들-건들 부 [전역] → 간들-간들.
건들-마 명 남쪽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 [전역]
건들-마 명 장마철에 햇볕은 내리지 않고 어두침침한 가운데 습기 많은 바람이 불어대는 상황. ＊장마 땐 '건들마 일뤠'옌 ᄒᆞ주.(장마 때는 '건들마 일뤠'라고 하지.) [중문]
건듯-건듯 부 건듯-건듯. [전역]
-건디 어미 -는지. 이미 행해진 사실에 대하여 그 일을 진술하거나 또는 물으려고 할 때, 앞의 용언 어간에 붙어 쓰이는 연결어미. [전역]
건-ᄃᆞ리 명 <민> [하도] → 거슨-ᄃᆞ리.
-건마는 어미 -건마는. 이미 있는 사실이나 원칙을 말하고, 여기에 합치되지 않는 사실을 말하려 할 때, 앞말에 붙는 연결어미. [전역]
건-물 명 <민> [하도] → 거슨-물.
건-밀다 동 [전역] → 거리-밀다.
건-몹 명 기름기가 많은 모자반. 곧 '실겡이'를 이르는 말. [한림]
건-불리다 동 시원한 바람을 맞다. ＊낭 그늘에 앚앙 건불령 갑주.(나무 그늘에 앉아 '건불려서' 가지요.) [전역] = 검-불리다.
건-삼 명 <민> 무성한 삼(麻). [행원]
건성 명 건성. 어떤 일을 성의없이 대충 겉으로만 함. [전역]
건장 명 <도> 고등어를 낚을 때 쓰는 낚시. ＊고등에는 나끄기도 ᄒᆞ주마는 건장으로 걸리는 게 핫주. 영 ᄃᆞᆼ이믄 그냥 막 탕탕 걸어져.(고등어는 낚기도 하지만 '건장'으로 걸리는 것이 많았지. 이렇게 당기면 그냥 막 탕탕 걸어져.) [이호]
건주왁-사다 동 [노형 어도] → 항곱-사다.
건-줄 명 [성읍] → 진-줄.
건줌 부 [전역] → 거의.
건지[1] 명 [전역] → 튼-머리.
건지[2] 명 건더기. ＊(속) 건지 먹은 놈이나, 국물 먹은 놈이나.(건더기를 먹은 놈이나, 국물을 먹은 놈이나.) [전역] 고 건디.
건지다 동 건지다. [전역]
건지-뿔 명 뒤쪽으로 길게 벋은 소의 뿔. ＊그 쉐 건지뿔 모냥이 좋다.(그 소 '건지뿔' 모양이 좋다.) [전역]
건지-산 명 <민> 딴머리처럼 우뚝한 산. 위는 넓고 아래는 좁은 모양의 산. [전역]
건-트집 명 까닭 없이 일부러 부리는 트집. [전역]
건풍 명 허풍. [전역] = 풍.
건풍-다리 명 허풍선-이. [전역] = 팔풍-이, 허풍-다리, 허풍-쉬.
건풍-ᄒᆞ다 동 허풍을 치다. [전역]
걷다[1] 동 걷다(捲). ① 구름이 벗다. [전역] ② 덮거나 가린 것을 들어

내다. [전역] ③ 펴진 것을 말아 올리다. [전역]

걷다[2] 동 걷다(步). [전역]

걷다[3] 동 '거두다'의 준말. *옛날사 끅 걷어당 골체 멘들곡 헤낫주.(옛날에야 칡 걷어다가 삼태기 만들고 했었지.) [전역]

걷어-치우다 동 걷어-치우다. [전역]

걸[1] 명 <어> [대포] → 걸-바당.

걸[2] 명 <민> 걸. 윷가락 세 짝이 잦혀지고 한 짝이 엎어진 때의 이름.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 낄[2].

걸걸-ᄒᆞ다(傑傑--) 형 걸걸-하다. 성질이 쾌활하고 외모가 훤칠하다. *성격이 참 걸걸ᄒᆞᆫ 사름이라.(성격이 참으로 걸걸한 사람이야.) [전역]

걸궁 명 <민> 걸립(乞粒). 동네에 경비를 쓸 일이 있을 때에 여러 사람들이 중과 무당 등의 복장 차림을 하고서 풍물을 치고 재주를 부려 돌아다니면서 돈 따위를 얻는 행사. [전역]

걸귀[1] 명 <도> [서홍] → 걸리.

걸귀[2](乞鬼) 명 걸귀. 새끼 낳은 뒤에 살찌지 못한 돼지. [전역]

걸-굶 명 <어> [우도] → 닷굶.

걸-낭 명 <도> 말코지. 물건을 걸기 위하여 벽에 달아 두는 나무 갈고리. *이 옷 저 걸낭에 걸어불라.(이 옷 저 말코지에 걸어 버려라.) [삼양]

걸-늬 명 어금니 앞에 난 이(齒). [전역]

걸다[1] 동 걸다(掛). [전역]

걸다[2] 형 걸다. ① 흙에 식물의 양분이 될 성분이 많다. [전역] ② 음식의 수가 대단하다. [전역]

걸다[3] 형 [서홍 수산 김녕] → 질다[1].

걸다[4] 동 남녀 사이에 인연을 맺거나 부부가 되다. *걸랑 지정 양반의 걸지라.(관곌랑 맺거든 양반과 관계 맺어라.) [전역]

-걸랑 어미 -걸랑. '-거들랑'의 준말. *이디서 송아기 ᄒᆞᆫ 열댓 개 ᄆᆞᆯ아지 걸랑 나 ᄒᆞ나 도라.(여기서 송아지 한 열 다섯 마리를 몰아지거들랑 나에게 하나 달라.) [전역]

걸러-아지다 동 [노형 조수] → 걸러-안지다.

걸러-안지다 동 걸어-앉다. [조수 인성 노형] = 걸러-아지다, 걸러-앉다. 고 걸앉다.

걸러-앉다 동 [전역] → 걸러-안지다.

걸러-지다[1] 동 드러-눕다. [전역]

걸러-지다[2] 동 <농> 씨앗을 파종함에 있어 골고루 뿌리지 못하고 성기게 뿌리다. [영평]

걸레[1] 명 [수산 서홍 가시] → 걸렝이.

걸레[2] 명 걸레. [전역]

걸레-삼승 명 <민> 멜빵 신. 아기 업는 멜빵인 '걸레'를 보호하는 신. [전역]

걸렛-배 명 [행원] → 걸렝이.

걸렝이 명 띠. 어린애를 업을 때 둘러 동여매는 멜빵. [전역] = 걸레[1], 걸렛-배.

걸려-가다 동 마소·돼지 따위를 줄로 매어 붙잡아 가다. [전역]

걸려-메다 동 짐승을 달아나지 못하게 줄로 붙잡아 매다. [전역]

걸루다 동 <농> 보리 거름 같은 것을 며칠씩 걸게 두다. *멧날 걸루왕 ᄒᆞᆯ 거난, 이늠의 보리가 워년 하난게.

(며칠을 '걸루어서' 할 것이니, 이 놈의 보리가 워낙 많으니까.) [전역] ㊟걸오다.

걸룰락 명 [수산 김녕 가시] → 예숙-제낄락.

걸릉-쒜 명 <민> 나경(羅經). 패철(佩鐵). [전역]

걸르다 동 [전역] → 거르다.

걸른 관 [전역] → 얼른.

걸름 명 <농> 거름. 땅을 걸게 하기 위하여 흙에 주는 물질. [전역] = 거름.

걸름-내다 동 <농> 거름을 장만하여 내놓다. [전역]

걸름-놓다 동 <농> 거름을 뿌리다. [전역]

걸름-멜 명 <농> 거름용으로 쓰는 멜치. [귀덕]

걸름 볼리는 소리 명 <요> [전역] → 보리걸름 볼리는 소리.

걸름-착 명 <도> 퇴비(堆肥) 따위의 거름을 담고서 나르는 멱둥구미. [전역] = 거름-착.

걸름-콩 명 <농> 거름용 콩. 보리를 파종하기 전에 땅 기운을 북돋기 위하여 휴경전(休耕田)에 갈아 거름으로 쓰는 콩. [하원] = 바령-콩.

걸리 명 <도> 거룻-배. [전역] = 걸귀[1].

걸리다[1] 동 밧줄 한 쪽 끄트머리를 고리처럼 고를 조금 크게 만들어 달아나는 마소나 돼지의 머리 위에 던져서 씌우고 붙잡다. ＊코골래기로 말을 걸릴랴고 ᄒᆞ단도 버쳔 내부러수다.('코골래기'로 말을 걸릴려고 하다가도 부쳐서 내버렸습니다.) [전역]

걸-리다[2] 동 걸-리다. ① 그물·낚시 등에 잡히다. ＊그물에 멜 하영 걸려신게.(그물에 멸치가 많이 걸렸네.) [전역] ② 물건이 매달려 있다. ＊폭낭에 걸린 연 떼영 와시냐.(팽나무에 걸린 연 떼서 왔니?) [전역] ③ 병이 나다. ＊그 하르방 빙 오래 감저.(그 할아버지 병 오래 간다.) [전역] ④ 전화가 오다. ＊어디서 걸려온 전화고?(어디서 걸려 온 전화니?) [전역] ⑤ 날짜와 시간이 소요되다. ＊그 일 ᄒᆞ젠 ᄒᆞ난 얼메나 걸립디가?(그 일 하려니까 얼마나 걸렸습니까?) [전역]

걸리우다 동 걷게 하다. ＊아긴 너미 업어만 주민 버릇나곡 걸리울 땐 걸리와사주.(아기는 너무 업어 주면 버릇 나니 걸릴 때는 걸려야 한다.) [전역]

걸망[1] 명 뱃물질을 하는 동안 따 낸 미역을 임시 담아 두는 그물주머니. [북촌]

걸망[2] 명 망사리. [전역]

걸-머리 명 <지> 제주시 아라2동의 자연마을. [아라 오라] = 걸-ᄆᆞᄅᆞ.

걸머-메다 동 걸머-메다. ① 어깨에 걸어서 메다. ＊그 사름 나록 가멩이 걸머메영 왐서고.(그 사람 벼 가마니 걸머메어 오고 있었어.) [전역] ② 어떤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담당하다. ＊ᄉᆞ삼ᄉᆞ건에 아방 죽어부난 어멍이 집안일 다 걸머메영 살앗쥐.(사삼사건에 아버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집안일 다 책임져서 살았지.) [전역]

걸머-지다 동 걸머-지다. ＊이 멕다리 걸머지엉 글라.(이 멱서리 걸머지고 가자.) [삼양]

걸멩이 명 <도> 멱둥구미 일종. [표선]

걸명 명 <민> 잡귀신을 대접하기 위하여 제(祭)를 지낸 후 음식을 걷어 던지는 일. [전역] = 궵시.

걸목-ᄒᆞ다 동 갓양태를 겯는 대오리를 만들어 갈 때 무릎에서 댓개비를 대칼로 거듭 홅어 다듬어서 종이 두께 정도로 얄팍하게 만들다. [전역]

걸-물궤기 명 <어> 서식처가 일정치 않고 수심 중간으로 떼지어 돌아다니는 이동성 어족(魚族). [대포]

걸-ᄆᆞᄅᆞ 명 <지> [아라 오라] → 걸-머리.

걸-바당 명 <어> 조간대(潮間帶)를 지나 바닷속 저질(低質)이 돌이나 암반 또는 모래로 이루어진 바다. [전역] = 걸[1], 걸-밧, 어덕.

걸바시 명 거지. [전역]

걸-밧 명 <어> [대포] → 걸-바당.

걸-부트다 동 낚시가 바다 속 바위에 걸리다. [전역]

걸삭-걸삭 부 성큼-성큼. [전역]

걸서-악(傑西岳 · 傑瑞岳 · 傑世岳) 명 <지> [연 노형 남원] → 걸세-오름[1], 걸세-오름[2].

걸세-오름[1]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북서쪽에 있는 오름. 위가 '걸세'(걸쇠) 고리처럼 생김. 표고 158미터. [신효 하례] = 걸서-악(傑西岳 · 傑瑞岳 · 傑世岳), 걸쉐-오름[2], 걸시-오름[1].

걸세-오름[2] 명 <지> 제주시 연동 공원묘지 남쪽 산록도로변에 있는 오름. 지형이 '걸세'(걸쇠)처럼 길쭉한 말굽형임. 표고 732미터. [오라 연 해안] = 걸서-악(傑西岳 · 傑瑞岳 · 傑世岳), 걸쉐-오름[1], 걸시-오름[2].

걸쉐-오름[1] 명 <지> [연 노형] → 걸세-오름[2].

걸쉐-오름[2] 명 <지> [토평 하례] → 걸세-오름[1].

걸시-오름[1] 명 <지> [신효 하례] → 걸세-오름[1].

걸시-오름[2] 명 <지> [오라 연 해안] → 걸세-오름[2].

걸-싸다 형 [전역] → 걸-쓰다.

걸-쎄 명 [서홍 수산 김녕] → 걸-쒜.

걸-쒜 명 걸-쇠. [전역] = 걸-쎄.

걸-쓰다 형 걸-싸다. [전역] = 걸-싸다.

걸어지다 동 걸리다. [전역]

걸어-지다 동 버물다. 잘못된 일에 관계되다. ＊그 사름 줴 엇이 잘못뒌 일에 걸어졍 막 고셍헷덴 ᄒᆞ멍양?(그 사람 죄 없이 잘못된 일에 버물어서 아주 고생을 했다고 하면서요?) [전역]

걸음 명 걸음. ＊(속) 벨 걸음 ᄒᆞ당 본 걸음 일른다.(유별난 걸음걸이를 하다가 본디 걸음걸이를 잃는다.) [전역]

걸음-걸이 명 걸음-걸이. [전역]

걸인-악(傑人岳) 명 <지> [전역] → 거린-오름[1].

걸짝-거리다 동 걸쩍-거리다. [전역]

걸짝-지다 형 사람이 걸쩍거리는 태도가 있다. [전역]

걸처-안지다 동 [김녕] → 걸터-안지다.

걸쳐-두다 동 걸쳐-두다. 무슨 일에

관계만 걸어 두고 끝을 내지 아니하다. *무사 경 걸쳐둔 일이 한고?(왜 그리 걸쳐둔 일이 많은가?) [전역]

걸충-거리다 동 촐랑-대다. 우쭐-대다. [전역] = 출삭-거리다.

걸-ᄎᆞ다 형 [김녕 조수 인성 수산 서홍] → 장-차다.

걸-코 명 [인성] → 코끼.

걸터-안지다 동 걸터-앉다. [전역] = 걸처-안지다, 걸터-앉다.

걸터-앉다 동 [전역] → 걸터-안지다.

걸핏-ᄒᆞ민 부 걸핏-하면. [전역]

걸-ᄒᆞ다 형 행동이 재빠르다. [전역] = 글루다.

검뉴울-꼿 명 <민> 시든 꽃. [전역]

검다 형 검다(黑). [전역]

검뎅이 명 검댕. [전역]

검-둥이 명 [전역] → 가망-둥이.

검방-지다 형 건방-지다. [전역]

검부레기 명 검부러기. [조천 노형 조수 어도] = 검부새, 검부셍이.

검부새 명 [수산] → 검부레기.

검부셍이 명 [표선] → 검부레기.

검북-낭 명 <식> ① 푸조-나무. [전역] ② 풍개-나무. [전역] = 검푹-낭.

검불 명 검불. [전역] 고 검줄.

검-불리다 동 [전역] → 건-불리다.

검-붉다 형 검-붉다. [전역]

검숭-ᄒᆞ다 형 검숭-하다. 털이나 살갗이 거무스름하다. [전역]

검스름-ᄒᆞ다 형 [전역] → 거므스름-ᄒᆞ다.

검실-검실 부 검실-검실. 검은 털이 처음으로 나는 모양. [전역]

검실검실-ᄒᆞ다 형 [전역] → 가물가물-ᄒᆞ다[2].

검은-곡듸 명 후두부(後頭部) 연수(延髓)의 바로 윗자리. [김녕 조수 노형]

검은-공ᄌᆞ 명 검은-자위(黑睛).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검은-동ᄌᆞ.

검은-굴 명 진회색 질그릇을 굽는 가마. *검은굴에서 구운 황보다 노린굴에서 구운 황이 더 곱주.('검은굴'에서 구워 낸 항아리보다 '노랑굴'에서 구워 낸 항아리가 더 곱지.) [전역]

검은-꽤 명 검은-깨(黑荏子). [전역] 고 거믄깨.

검은-더기 명 <지> [전역] → 검은-데기.

검은-덕이[1] 명 <지> [노형 금덕] → 검은덕이-오름.

검은-덕이[2] 명 <지> [노형 금덕] → 검은-데기.

검은덕이-오름 명 <지> 제주시 애월읍 검은덕이마을에 있는 오름. 표고 402미터. [전역] = 감은덕-산, 검은-덕이[1], 금덕-봉.

검은-데기 명 <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의 한 자연마을. [전역] = 감은-데기, 검은-더기, 검은-덕이[2].

검은-돗 명 <동> 털빛이 검은 돼지. [전역]

검은-동ᄌᆞ 명 [수산 가시] → 검은-공ᄌᆞ.

검은-볼낙 명 <동> 볼락의 일종. [사계]

검은-쉐 명 <동> 털빛이 검은 소. [전역]

검은-어럭쉐 명 <동> 털빛이 흑백색(黑白色)으로 얼럭덜럭한 소. [전역]

검은-여 명 <지> 제주시 애월읍 하귀

2리 항포동 앞 바다에 있는 여(暗礁). [전역]

검은-오름[1]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와 구좌읍 송당리의 경계인 번영로변에 가로 누운 오름. 표고 457미터. [전역] = 서-검은이.

검은-오름[2] 명 <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남원읍 수망리의 경계에 걸쳐진 오름. 울창한 숲에 둘러싸인 꼭대기의 화구호(火口湖)로 유명함. 분화구의 둘레는 약 1000미터이고, 정상에서 수면까지 57미터. 표고 717미터. [전역] = 물-잣, 물-찻[1].

검은-오름[3] 명 <지> 제주시 연동 1100도로변 천마목장 뒤에 있는 오름. 표고 438.7미터. [전역] = 금-악(琴岳)[2], 금-오름[2].

검은-오름[4]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논고오름 남동쪽 1100도로 연변에 있는 오름. 표고 590미터. [전역] = 흑-악(黑岳).

검은-오름[5] 명 <지> [전역] → 금-오름[1].

검은-오름[6] 명 <지> 서귀포시 서홍동 산간에 있는 오름. [서홍 동홍]

검은-월라몰 명 <동> 털빛이 흑백색(黑白色)으로 얼럭덜럭한 말. [전역] = 검은-월레몰.

검은-월레몰 명 <동> [인성 조수] → 검은월라-몰.

검은이-오름 명 <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경계인 남조로 동쪽에 있는 오름. 표고 496미터. [가시 교래]

검은-제낭[1] 명 <식> 검은-재나무. [전역]

검은-제낭[2] 명 <식> 검-노린재나무. [전역]

검은-조 명 쌀알이 검고 차진 조(粟)의 한 가지. [전역]

검은-지름 명 말의 작은창자. *검은지름에 ᄆᆞ멀ᄀᆞ를 놩 국 끓리민 막 맛 좋아.('검은지름'에 메밀가루 넣어서 국을 끓이면 매우 맛이 있어.) [전역]

검은-콩 명 검은-콩(黑太). [전역]

검은-탈낭 명 <식> 복분자-딸기. [전역]

검은-풋 명 검은-팥. [전역]

검-지기다 형 [수산 김녕] → 검-질기다.

검질 명 김. 밭에 난 잡풀 또는 짚과 같은 것. *검질 짓곡 굴늦인 밧딘 소리로 우경 간다.(김이 우거지고 굽이가 늘어진 밭은 노래로 우기며 간다.) [전역] = 지슴, 지심.

검-질기다 형 검-질기다. [전역] = 검-지기다.

검질-메는 소리 명 <요> 밭 매면서 부르는 민요. 제주도의 주곡이 조·보리 등 잡곡이므로 매어야 할 김이 많아서 이 민요는 종류도 다양하고, 그 가락도 빼어난 편임. 노래로는 사데(사디), 진-사데, 늬굽이진-사데, 싀굽이진-사데, 쯔른-사데, 중간-사데, 아웨기, 홍애기, 상사디야-요, 담불-소리(담벌-소리), 더럼-소리 등이 있음. [전역]

검질-메는 홍애기 명 <요> [성읍 삼달] → 홍애기[1].

검질-메다 동 김-매다. [전역] 고기슴ᄆᆡ다.

검펑-우럭 명 <동> 쏨-뱅이. [수산 가시] = 감팡-우럭, 거펑-우럭, 검푹-우럭.
검푹-낭 명 <식> [수산] → 검북-낭.
검푹-우럭 명 <동> [인성 서홍] → 검펑-우럭.
검피다 동 거피-하다. 녹두·메밀 따위를 애벌 갈다(磨). [전역] = 거피다.
겁 명 실(絲) 따위의 가닥. [전역]
겁- 두 '갑자기'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 [전역]
겁-나다(怯--) 동 겁-나다. [전역]
겁넝 명 [하도] → 겁펑.
겁덕 명 껍데기. [전역] = 겁데기, 겁죽, 껍데기.
겁데기 명 [전역] → 겁덕.
겁똥-싸다 동 겁을 내는 바람에 똥을 깔기다. [전역] = 겁똥-쓰다.
겁똥-쓰다 동 [수산] → 겁똥-싸다.
겁-비 명 갑작스레 내리쏟는 비. [전역]
겁-쉬(怯-) 명 [전역] → 겁-쟁이.
겁-재(怯-) 명 [전역] → 겁-쟁이.
겁-쟁이(怯--) 명 겁-쟁이. [전역] = 겁-쉬, 겁-재.
겁-절(怯-) 명 겁-결. 갑자기 겁이 나서 어쩔 줄 몰라 당황한 서슬. [전역] = 겁-질[2].
겁죽 명 [전역] → 겁덕.
겁질[1] 명 껍질. [전역] = 껍질. 고 겁질.
겁-질[2] 명 [전역] → 겁-절.
겁펑 명 전복 껍데기. *엿날에 엿장시 덜 겁펑 사레 막 뎅겨 나서.(옛날에 엿장수들 전복 껍데기 사러 막 다녔었지.) [이호] = 겁넝.
것 명 가축의 먹이. [전역]


겁펑

것-먹다 동 가축이 음식을 먹다. [전역]
것-주다 동 가축에게 먹이를 주다. [전역]
것-항 명 <도> 돼지의 먹이를 담아 두는 항아리. [행원]
겅 부 *겅 일ᄒᆞ멍 일생을 살앗주.(그렇게 일을 하면서 일생을 살았지.) [전역] → 기영.
겅이 명 <동> [노형] → 깅이.
겅충-거리다 동 껑충-거리다. 거드럭거리며 신이 나게 행동하다. [전역]
겉- 두 '껍질을 벗기지 않은'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접두사. [전역]
겉-곡 명 겉-곡식. [전역] = 겉-곡석, 겉-곡식.
겉-곡석 명 [전역] → 겉-곡.
겉-곡식 명 [전역] → 겉-곡.
겉-눈 명 겉-눈. *(속) 겉눈은 감고 속눈은 튼다.(겉눈은 감고 속눈은 뜬다. 곧 눈을 감아 자는 척하면서 몰래 본다는 말.) [전역]
겉-밧 명 먼바다 가운데 돌이 깔린 바다. *겉밧듸는 먼바당. 돌밧이라.('겉밭'은 먼바다. 돌밭이야.) [이호]
겉-보리 명 겉-보리. [전역]
겉보리-쏠 명 겉보리-쌀. [전역]

겉-자리 명 <동> 씨알이 굵은 자리돔. ＊겉자리라고 헤가지고 또 이제 홁은 자리가 셔.('겉자리'라고 해서 또 이제 굵은 자리돔이 있어.) [이호]

겉-창(-窓) 명 겉-창. [전역]

게 감 그럼. 남의 말을 긍정하여 그렇다는 생각을 나타내는 말. [전역]

-게[1] 어미 -게. ①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나 친구에게 무슨 동작을 시키는 종결어미. ＊느네도 술만 먹을 게 아니라 나 앞의서 씨름이라도 흔 번 ᄒᆞ라 보게. 나 흔번 구경ᄒᆞ게.(너네도 술만 먹을 것이 아니라 내 앞에서 씨름이라도 한번 하게나. 내가 한번 구경하게.) [전역] ②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나 친구에게 함께 하기를 권하는 종결어미. ＊김 아무개 이번도 오라그네 장원ᄒᆞ거들랑 우리가 멀리 어디 조곰 숨엇다 그놈 심어 놔서 죽여불게.(김 아무개가 이번에도 와서 장원하거든 우리가 멀리 숨어 있다가 그놈을 붙잡아 놓고 죽여 버리자.) [전역] ③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그 아래에 오는 용언의 내용이나 정도를 제한하는 뜻을 나타내는 전성어미. ＊내가 이겨 불쟁 ᄒᆞ민 단작 이겨 불게주만은 실구단 그만 자빠져 버려서.(내가 이기려고 하면 단번에 이길 것이지만 실그러지게 하다가 그만 넘어져 버렸다.) ＊양지가 피렁ᄒᆞᆫ 게 곧 죽엄직이.(얼굴이 파리한 게 곧 죽을 듯이.) [전역]

-게[2] 어미 -게·-겠어. ①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화자가 상대자에게 시켜서, 제삼자 또는 화자 자신의 행동을 용허·방임하게 하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 또는 종결어미. ＊내불라. 하영 먹게.(내버려라. 많이 먹게.) [전역] ② 만일 앞의 사실이 그러하다면, 뒤의 사실은 이러하지 않겠느냐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그 동싱만 잘혜 주민 부모님 ᄆᆞ음이 오족 펜안ᄒᆞ게?(그 동생만 잘해 주면 부모님 마음이 오죽 편안하겠어?) [전역]

-게[3] 어미 -데. 용언 어간에 붙은 '-안-·-언-·-연-·-란-' 등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상대방도 긍정하게끔 나타내는 종결어미. ＊아시네 마농은 파리롱혜연 금이나 받아지크란게.(아우네 마늘은 파랗게 되어서 값이나 받을 수 있겠더라.) [전역]

-게[4] 어미 ① 체언에 붙은 존대의 형태소 '-우-'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게끔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② 용언 어간에 붙은 선어말어미 '-암수-·-엄수-·-염수-·-람수-·-앗수-·-엇수-·-엿수-·-랏수-' 등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게끔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게[5] 어미 -겠는가. 부정적인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딱 쏘으니 백록이 맞을 리가 셔게?(딱 쏘니 백록(白鹿)이 맞을 리가 있겠는가?) ＊아, 걸로 ᄒᆞ영 잘뒈지니까, 그 무신 삼십 년이 생각나게?(아, 그걸로 해서 잘되니까, 그 무슨 삼십 년이 생

각나겠는가?) [전역]

게가비 명 <식> [화순] → 개나리.

게건 부 그러면. *게건 집에 올 때 장에 들렁 딕 흔 머리만 사다 줍서.(그러면 집에 돌아올 때 시장에 들러 닭 한 마리만 사다 주세요.) [전역]

-게겐 어미 -자꾸나. 청원을 의미하는 어미 '-게'에 다시 '겐'이 결합하여, 더욱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어멍 아방 살아 생전 흔 번 보게, 흔 번 보게겐.(어머니 아버지 살아 있을 때 한 번 보자, 한 번 보자꾸나.) [전역]

게-고 부 그리고. [전역]

게고-대나 부 그러하든지 저러하든지. *게고대나 뒬낭 우리 밧듸 촐 비어 줍서양.(그러하든지 저러하든지 내일은 우리 밭에 꼴 베어 주세요.) [전역]

게고-제고 부 그러고-저러고. [전역]

-게꾸리 어미 [전역] → -게끄리.

게꿈 명 거품. 입으로 내뿜는 속이 빈 침방울 따위. [전역] = 거끔. 고 거품.

-게끄리 어미 -게. *그냥 픗들픗들ᄒᆞ게끄리 더운 때니.(그냥 파들파들하게 더운 때니.) [전역] = -게꾸리.

-게끔 어미 -도록. *삼춘, 날 살게끔 어떵 헤 줍서.(삼촌, 나를 살도록 어떻게 해 주십시오.) [전역] = -게시리[2].

게나-제나 부 그러나-저러나. [전역]

게난 부 [전역] → 게니.

게니 부 그러니. *게니 우리가 그 일제시대 사름인디.(그러니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 때의 사람인데.) [전역] = 게난.

게더분-ᄒᆞ다 형 깨끗하지 못하다. [전역]

게동-열이(開東--) 명 <민> 동이 틀 무렵. 아침 일찍. [전역]

게드레기 명 <동> 소라-게. 집게. *(속) 게드레기도 집이 싯나.(소라게도 집이 있다.) [하원 서홍 태흥 수산 조수 표선] = 개들레기, 거드락지, 거드레기[1], 거들레기, 게들레기, 기드레기, 깅이-보말, 놈의집-살이.

-게든 어미 -거든. *가서 문을 둑둑ᄒᆞ니 문을 율아 주게든.(가서 문을 두드리니 문을 열어 주거든.) [전역]

게들레기 명 <동> [표선 세화 조천] → 게드레기.

게량 명 개량(改良). [전역]

게-먹다 동 개-먹다. [전역]

게메 부 [전역] → 계메.

게멩 명 [전역] → 게명.

게명 명 개명(改名). [전역] = 게멩.

게무로사 부 [전역] → 계므로.

게므로 부 [전역] → 계므로.

게므로사 부 [전역] → 계므로.

게미 명 <동> [수산] → 게염지.

게미또롱-ᄒᆞ다. 형 [대정 안덕] → 게미용-ᄒᆞ다.

게미용-ᄒᆞ다 형 불빛이 흐려서 약하다. *불빗은 멀리서 보닥지 게미용ᄒᆞᆫ다.(불빛은 멀리서 볼수록 '게미용하다'.) [노형 삼양 이호] = 게미또롱-ᄒᆞ다.

게민 부 그러면. [전역]

게벡 명 개벽(開闢). [전역]

게삭-게삭 부 *흑을 볼라도 게삭게삭 부트질 안 헴저.(흙을 발라도 '게삭게삭' 붙지 않고 있다.) [전역] → 게실-게실.

게삭게삭-ᄒᆞ다 형 *아명 다졍 봐도 게삭게삭ᄒᆞ연 안 뒈켜.(아무리 다져 봐도 가슬락가슬락해서 안 되겠다.) [전역] → 가슬락가슬락-ᄒᆞ다.

게삭-이 부 벙긋-이. *좋안 입이 게삭이 버러졌저.(좋아서 입이 벙긋이 벌어졌다.) [노형 오라]

게살-게살 부 [전역] → 게실-게실.

게석 명 물질하여 장만한 것을 구경하다가 해녀로부터 조금씩 선물로 받는 해산물. *이 구젱기 게석 받은 거우다.(이 소라 선물로 받은 겁니다.) [전역]

게-성군 명 <민> 북두개성파군성군(北斗開聖破軍星君). 수복(壽福)의 신(神) 북두칠원성군(北斗七元星君) 가운데 하나. [전역]

게수리 명 <동> 갯-지렁이. [전역] = 갈-게수리.

게슴-다리 명 [수산 가시] → 게움-다리.

게슴-ᄒᆞ다 동 [김녕 조수] → 게움-ᄒᆞ다.

-게시리[1] 어미 -게. 연결어미 '-게'에 '-시리'가 결합된 어미. *팔각정 지에집에 벵풍 둘르고 기기묘묘ᄒᆞ게시리 ᄒᆞ영 그디 강 놀다 오는 것이 경 시간이 늦입니다.(팔각정(八角亭) 기와집에 병풍 두르고 기기묘묘하게 해서 그곳에 가서 놀다가 오는 것이 그렇게 시간이 늦습니다.) [전역]

-게시리[2] 어미 [전역] → -게끔.

게식다 형 헤식다. [전역] = 헤식다.

게실-게실 부 가루 성분으로 된 것이나 밥이 차진 기는 조금도 없고 아주 메진 모양. [전역] = 가슬락-가슬락[1], 게삭-게삭, 게살-게살, 헤삭-헤삭.

게심[1] 명 [서홍 수산 김녕 가시 조수] → 게움.

게심[2] 명 개심(改心). [전역]

게심-다리 명 질투를 잘 하는 사람. [전역]

게심-ᄒᆞ다 동 [서홍 수산 김녕 조수] → 게움-ᄒᆞ다.

게에미 명 <동> [어도] → 게염지.

게여미 명 <동> [전역] → 게염지.

게여미-탈 명 <식> [김녕 가시] → 게염지-탈.

게염지 명 <동> 개미(蟻). [전역] = 게미, 게에미, 게여미. 고 개야미.

게염지-탈 명 <식> 뱀-딸기. [전역] = 게여미-탈, 게예미-탈, 베염-탈, 아이머리-탈.



게염지탈

게영 명 [전역] → 겡.

게영기 명 [서홍 김녕 가시] → 겡기.

게예미-탈 명 <식> [수산] → 게염지-탈.

게와 명 호-주머니. [전역] = 게와-쏨, 게화, 봉창.

게와기 명 [전역] → 궤애기.

게와시 명 거지. ＊게와시랏단 그영 그뚤 덕분에 잘 살앗주.(거지였다가 그렇게 그 딸 덕분에 잘 살았지.) ＊(속) 젊은 게와시 막보지 말라.(젊은 거지 막보지 마라.) [전역]

게와-삶 명 [수산] → 게와.

게우 명 [전역] → 게웃.

게우다 동 게우다(吐). [전역] = 내치다[2]. 고개오다.

게우리[1] 명 <동> 거위(蛔虫). [전역] = 거수에, 거수의.

게우리[2] 동 <동> 지렁이. [전역]

게우선-야개 명 <지> 조천읍 대흘2리에 있었던 자연마을. [조천] = 아립동.

게우-젓 명 <음> 전복의 내장으로 만든 젓. ＊게우젓은 젓갈 중에 고급이주.('게우젓'은 젓갈 가운데 고급이지.) [전역] = 게웃-젓.

게움 명 게염.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게심[1]. 고게엄.

게움-다리 명 게염 부리기를 잘하는 사람. [노형 인성 조수 서홍 김녕] = 게슴-다리.

게움-ᄒᆞ다 동 게염 부리는 행동을 하다. [조수 어도] = 게슴-ᄒᆞ다, 게심-ᄒᆞ다.

게웃 명 전복의 내장 또는 창자. [전역] = 게우.

게웃-개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1리의 한 포구. [남원]

게웃-젓 명 <음> [전역] → 게우-젓.

게위 명 <동> 거위(鵝). [전역]

게으르다 형 게으르다. [전역] = 게을르다. 고게으르다.

게으름-쟁이 명 게으름-쟁이. [전역]

게을르다 형 [전역] → 게으르다.

게작-거리다 동 [전역] → 게죽-거리다.

게작-게작[1] 부 질척-질척. 질컥-질컥. ＊밥이 틈자지 안 ᄒᆞ난 게작게작 먹기 궂다.(밥이 뜸들지 않아서 질컥질컥 먹기가 궂다.) [전역]

게작-게작[2] 부 깨죽-깨죽. 험담을 민망스럽게 지껄이는 모습. ＊ᄒᆞ는 건 엇이 게작게작 욕만 ᄒᆞᆫ다.(하는 것은 없이 깨죽깨죽 욕만 한다.) [전역]

게작게작-ᄒᆞ다 형 질척질척-하다. 질컥질컥-하다. [전역]

게작-이 부 질척-하게. 질컥-하게. ＊풀은 게작이 불라사 ᄒᆞᆫ다.(풀은 질척하게 발라야 한다.) [전역]

게작-ᄒᆞ다 형 질척-하다. 질컥-하다. ＊비가 와 나난 땅이 게작ᄒᆞ다.(비가 온 후여서 땅이 질척하다.) ＊밥이 게작ᄒᆞᆫ 게 비 오젠 헴신가.(밥이 질어 물기가 많은 것이 비가 오려고 하는가.) [전역] = 귀작-ᄒᆞ다.

게잔-게수 명 <민> 개잔개수(改盞改水). 제상(祭床)에 올린 술과 물을 갈아 올림. [전역]

게죽-거리다 동 깨죽-거리다. [전역] = 게작-거리다.

게철 명 [전역] → 열-쉐.

게철-쉐 명 [노형 조수 인성] → 열-쉐.

게-춤 명 가래-침. [전역] = 가레-춤, 게-침.

게-침 명 [서홍 태흥] → 게-춤.

게탁 명 <민> 연말연시에 벌이는 당굿의 하나. [전역]

게-트라기 명 [노형 조수 어도] → 게-트름.

게-트레기 명 [가시] → 게-트름.

게-트름 명 트림.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게-트라기, 게-트레기, 게-틀레기.

게-틀레기 명 [서홍 수산 가시] → 게-트름.

게-틀우다 동 트림-하다. [전역]

게펭 명 개평. [전역] = 개평.

게펭-ᄒᆞ다 동 개평-하다. 남이 갖고 있는 것 가운데 조금 얻어 가지다. *노름ᄒᆞ영 딴 돈보다 개펭ᄒᆞᆫ 돈이 한게.(노름해서 딴 돈보다 개평한 돈이 많네.) *게펭ᄒᆞᆫ 구젱기로 젓 담앗수다.(개평한 소라로 젓갈을 담았습니다.) [전역] = 개평-ᄒᆞ다.

게피-낭 명 <식> 육계-나무. [전역]

게화 명 [전역] → 게와.

게훼 명 개회(開會). [전역]

겍사-차사 명 <민> 객사(客死)한 사람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일을 맡아 하는 차사(差使). [전역]

겍선 명 객선(客船). [전역]

겍세-부인 명 <민> 객사부인(客舍夫人).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큰당'(본향당)의 신명. [김녕] = 겍세전-부인, 관세전-부인.

겍세전-부인 명 <민> [김녕] → 겍세-부인.

겍주리 명 <동> 쥐-치. [전역]

-겐[1] 어미 -가고. 용언 어간에 붙은 '-암수-·-엄수-·-염수-·-람수-·-앗수-·-엇수-·-엿수-·-랏수-' 등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게끔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겐[2] 어미 -냐고. 체언이나 '아니다'의 어간에 붙는 의문법 어미 '-가'의 변형 '-게'에, '-고'의 뜻으로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의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하다·듣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겐[3] 어미 -자고. '하게' 할 자리나 동년배에게 함께 하기를 권하는 종결어미 '-게'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의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겔혼 명 [전역] → 결혼.

겝지금-ᄒᆞ다 형 감칠맛은 없고 짠 듯하다. [전역]

-겟- 선어말 -겠-. 용언 어간이나 체언에 붙어서, 화자의 '의도·추측' 또는 '가능' 등의 뜻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전역]

-겟수가 어미 -겠습니까. ①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할 의도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②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제삼자의 동작에 대한 추측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③ 동사의 어간이 '-지'로 끝난 말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곧 동작이 가능함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④ 형용사의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상태에 대한 추측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겟수다 어미 -겠습니다. ① 동사 어

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화자의 의도를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가서 노리 잡으민 전각(前脚) ᄒᆞ날 가졍 오겟수다.(가서 노루를 잡으면 앞다리 하나를 가져오겠습니다.) [전역] ②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겡 명 갱(羹). [전역] = 거영, 게영, 겡-국.

-겡[1] 어미 -자고. '하게' 할 자리에서나 동년배에게 함께 하기를 권하는 종결어미 '-게'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겡[2] 어미 -가고. 체언이나 '아니다'의 어간 또는 용언 어간에 붙은 선어말 어미에 연결되는 의문법 어미 '-가'의 변형 '-게'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듣다·묻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겡-국 명 [세화 어도] → 겡.

겡기 명 갱기(羹器). [노형 어도 가시] = 게영기.

겡베리[1] 명 <동> [김녕] → 장쿨레비.

겡베리[2] 명 <동> [수산 세화 조천] → 멘주기[1].

겡이 명 <동> [하원 태흥 수산 표선 서홍] → 깅이.

겡이-죽 명 <음> [서귀포] → 깅이-죽.

겡-제미 명 갱-지미. 놋쇠로 만든 반찬 그릇. [전역] = 겡-지미.

겡-지미 명 [조수] → 겡-제미.

기어-나다 동 밖으로 나가다. *집의서 기어나라.(집에서 나가라). [전역]

겨끄다 동 겪다. [전역] = 저끄다. 고 겪다.

겨우 부 [전역] → 제우.

겨울-내낭 부 [전역] → 저을-내낭.

겨을 명 [전역] → 저을.

견월-악(犬月岳) 명 <지> [전역] → 개오리-오름.

결국(結局) 명 결국. [전역] = 절국.

결단(決斷) 명 결단. [전역] = 절단.

결박 명 [전역] → 절박.

결심-먹다 동 작정한 바를 마음속에 지니다. [전역] = 절심-먹다.

결혼(結婚) 명 결혼. [전역] = 겔혼, 절혼.

겹-담 명 겹으로 쌓아 올린 돌담. [행원]

경[1] 명 [전역] → 정[5].

경[2] 부 *경도 못ᄒᆞ카?(그렇게도 못할까?) [전역] → 기영.

경기 명 [화순 노형] → 정기[1].

경력 명 [전역] → 정력.

경새 명 [화순 서홍 하원 태흥 표선 어도] → 정기[1].

경우 명 [전역] → 정우.

경-정 부 *경정 살암주.(그럭저럭 살고 있지.) [전역] → 기영-저영.

경-ᄒᆞ난 부 그러니까. *경ᄒᆞ난 어떵ᄒᆞᆯ 말이우과?(그러니까 어떻게 할 말입니까?) [전역]

경-ᄒᆞ니 부 그러니. *경ᄒᆞ니 안 들어줄 수도 엇고.(그러니 안 들어줄 수도 없고.) [전역]

경ᄒᆞ니-정ᄒᆞ니 부 [전역] → 기영ᄒᆞ니

-저영ᄒᆞ니.

경-ᄒᆞ다 형 그러-하다. ＊그 일 경ᄒᆞᆫ 일이라.(그 일 그러한 일이야.) ＊경ᄒᆞ당은 큰일난다.(그러다가는 큰일난다.) [전역]

경-ᄒᆞ여도 부 그래도. ＊경ᄒᆞ여도 잘만 살앙게.(그래도 잘만 살더라.) [전역]

경-ᄒᆞ주만 부 [전역] → 경-ᄒᆞ지만.

경-ᄒᆞ지만 부 그렇지만. ＊경ᄒᆞ지만 경ᄒᆞ는 게 아니주.(그렇지만 그러는 게 아니지.) [전역] = 경-ᄒᆞ주만.

계[1](契) 명 [전역] → 접[4].

계[2] 미 강세 첨사. ＊먹칠ᄒᆞ여 내놔 두니계, 이슬 맞곡 비 맞곡 ᄒᆞ여 가민 먹 벗어가민 흴 건 ᄉᆞ실이라.(먹칠해서 내놓아 두니, 이슬 맞고 비 맞고 하여 가면 먹이 벗어지면 흴 것은 사실이야.) [노형] = -곈.

계관-초(鷄冠草) 명 <식> [전역] → 독고달[1].

계도 부 그래도. [전역]

계동(溪洞) 명 <지> 제주시 아라1동의 한 자연마을. [아라] = 개동.

계-따비 명 <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마련한 따비. [감산]

계메 감 그러니까. 글쎄. ＊계메, 제발 다시라그네 가서 보지 말앙 내불라.(글쎄, 제발 다시는 가서 보지 말고 내버려라.) [전역] = 게메.

계멩이-마을 명 <지> 제주시 외도1동의 한 자연마을. [외도]

계므로 부 그런들. 그래도. ＊계므로 형님이 가서 못 죽여 뒨 오십데가?(그래도 형님이 가서 죽이지 못하고 왔습니까?) [전역] = 게무로사, 게므로, 게므로사, 계므로사.

계므로사 부 [전역] → 계므로.

계집 명 [전역] → 제집.

계집-아의 명 [전역] → 지집-아의.

계-틉 명 <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마련한 톱. [감산]

계화-타령 명 <요> 정의현(旌義縣)의 도읍지였던 성읍에서 전해지는 창민요로서, 한반도에서 유입된 민요의 한 가지. [전역] = 김계화.

-곈 미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첨사. [전역] → -계.

-고[1] 어미 -ㄴ고. ① 체언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② 동사의 명사형 전성어미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고[2] 어미 -ㄴ고. ① 용언 어간에 붙은 '-안-·-언-·-연-·-던-' 등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동작을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② 용언 어간에 붙은 '-엄선-·-암선-·-염선-·-람선-' 또는 '-아선-·-어선-·-여선-·-라선-' 등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 경험한 동작을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고[3] 어미 -는가. ① 용언 어간에 붙은 '-암-·-엄-·-염-·-람-' 등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에 대해서 묻는 뜻을 나타

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② 용언 어간에 붙은 '-앗-·-엇-·-엿-·-랏-' 등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에 대해서 묻는 의문법 어미. *거 오랜만일세. 어떵ᄒᆞ연 왓는고?(거 오랜만일세. 어떻게 하여서 왔는가?) [전역]

-고[4] 어미 -고. ① 용언 어간에 붙어서, 두 가지 이상의 사실을 벌여 놓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② 용언 어간에 붙어서 서로 반대되는 사실을 벌여 놓음을 뜻하는 연결어미. [전역]

-고[5] 어미 -고. 체언이나 형용사 '아니다'의 어간 또는 동사의 명사형에 연결되어서,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을 늘어놓아 말하는 연결어미. [전역]

-고[6] 어미 [전역] → -곡.

고개 명 [전역] → 고게.

고개곡 부 꼬끼오. 수탉이 우는 소리. [노형 서홍 김녕] = 고기욕.

고게 명 고개. 목(頸)의 뒤편 위쪽. [전역] = 고개.

고견 명 [남원] → 고렴.

고견-ᄒᆞ다 동 [남원] → 조문-ᄒᆞ다.

고고 감 구구. 닭을 부르는 소리. [전역]

고고리 명 이삭. [전역] 고고고리.

고근-산(孤根山) 명 <지> 서귀포시 신시가지 북동쪽에 있는 오름. 위에, 둘레 약 700미터, 깊이 23미터의 환형 분화구가 있으며, 자철광(磁鐵鑛)이 있어 나침반에 영향을 줌. 남서쪽 숲비탈에 강생이궤라는 수직굴이 있음. 표고 396.2미터. [전역] = 호근-산(好近山).

고글-고글 부 올각-올각. [전역]

고기 명 [전역] → 궤기.

고기약-ᄒᆞ다 동 닭이 울다. *튿은 ᄃᆞᆨ이 고기약ᄒᆞᆫ다.(뜯은 닭이 꼬끼오한다.) [전역]

고기왓-피 명 <식> 피의 일종. *고기왓피는 고고리가 고골고골ᄒᆞ게 뒈와지는 피주.(고기왓피는 이삭이 꼬골꼬골하게 뒤틀리는 피지.) [송당]

고기욕 부 [조수] → 고개곡.

고기-잡이 명 [전역] → 궤기-잡이.

고기-장서 명 [전역] → 궤기-장수.

고기-장시 명 [전역] → 궤기-장시.

고깃-고깃 부 고깃-고깃. *옷이 고깃고깃 구겨졋저.(옷이 고깃고깃 구겨졌다.) [전역] = 고끌-고끌.

고깃-반 명 [전역] → 궤깃-반.

고깃-베 명 [전역] → 궤깃-베.

고깃-점 명 [전역] → 궤깃-점.

고깔 명 고깔. [전역]

고끌-고끌 부 [전역] → 고깃-고깃.

-고나 어미 -구나. ① 동사 어간에 붙은 '-암-·-엄-·-염-·-람-' 등에 연결되어서, 그 동사의 계속에 대하여 감탄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② 동사 어간에 붙은 '-앗-·-엇-·-엿-·-랏-' 등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의 완료에 대해서 감탄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이것덜이 들어서 평양감사 온 사름을 문 죽여 먹엇고나.(이것들이 의기투합하여 평양감사로 온 사람을 모두 죽였구나.) [전역]

고나무상태자-하로산 명 <민>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소재 상창하르방

당의 신명(神名). [감산]

고남-ᄒᆞ다 동 가리다. 눈을 속이다. ＊ᄉᆞ주도 다 고남ᄒᆞ고.(사주(四柱)도 다 눈을 속이고.) [노형]

고낭-귀 명 <식> [노형] → 고네-할미.

고내 명 <지>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高內里). [전역]

고내-봉(高內峰) 명 <지> [전역] → 고내-오름.

고내-오름 명 <지>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일주도로 남쪽에 있는 오름. 조선 때 봉수대가 있었음. 표고 175.3미터. [전역] = 고내-봉(高內峰), 고니-오름, 방에-오름[3].

고냇-개 명 <지>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 포구. [전역]

고냉이 명 <동> [전역] → 고넹이.

고냉이-멀리 명 <식> [전역] → 고넹이-멀리.

고냉이-방서 명 [전역] → 고넹이-방서.

고냉이-방쉬 명 [전역] → 고넹이-방서.

고냉이-쿨 명 <식> [인성] → 고네-할미.

고냉이-풀 명 <식> [노형 조천] → 고네-할미.

고냥 명 [조수 수산] → 고망.

고냥독-새 명 <동> [서홍 태흥] → 고망독-새.

고냥-치기 명 [수산 가시] → 고망-치기[2].

고네-할미 명 <식> 달기-씨깨비. 닭의장-풀. [인성 조수 화순 하원 서홍] = 고낭-귀, 고냉이-쿨, 고냉이-풀, 고넹이-쿨, 고넹이-풀, 고노-쿨, 고노-할미, 고늬-쿨, 고니-세비, 고니-풀.

고네할미-꼿 명 <식> 달기씨깨비-꽃. [어도 조수 인성 화순] = 고노쿨-꼿, 고닛-고장, 고닛-꼿.

고넹이 명 <동> 고양이(猫). [전역] = 고냉이, 궤[3]. 고괴.

고넹이-멀리 명 <식> 개-머루. [전역] = 고냉이-멀리.

고넹이-방서 명 고양이를 이용해서 도둑을 적발해 낸다는 속설에 의한 비법. ＊다들 안 헷고렌 헴주만은 고냉이방서 ᄒᆞ민 다 알아지메.(다들 안 했다고 하고 있지만 '고넹이방서' 하면 다 알 수 있어.) [전역] = 고냉이-방서, 고냉이-방쉬.

고넹이-벙것 명 벙거지. [행원]

고넹이-정당 명 <식> [성산] → 정동[1].

고넹이-쿨 명 <식> [인성] → 고네-할미.

고넹이-풀 명 <식> [노형 조천] → 고네-할미.

고노리 명 <동> [태흥 표선 수산 세화 조천] → 장쿨레비[2].

고노-쿨 명 <식> [인성 서홍 화순 하원] → 고네-할미.

고노쿨-꼿 명 <식> [하원] → 고네할미-꼿.

고노-할미 명 <식> [인성] → 고네-할미.

고놀-개 명 <지> 제주시 화북1동의 한 포구. [전역] = 고늘-개, 곤을-포.

고늘-개 명 <지> [전역] → 고놀-개.

고늬-쿨 명 <식> [화순] → 고네-할미.

고니-세비 명 <식> [수산] → 고네-할미.

고니-오름 명 <지> [고내 상가] → 고

내-오름.

고니-풀 명 <식> [김녕 태흥 표선 수산 가시] → 고네-할미.

고닛-고장 명 <식> [태흥] → 고네할미-꼿.

고닛-꼿 명 <식> [표선] → 고네할미-꼿.

고닥-고닥 감 [전역] → 고댁-고댁.

고단[1] 명 고장. 사람이 많이 사는 지방이나 지역. 어떤 물건이 특히 많이 나거나 생기는 곳. [전역] = 고장[2].

고단[2] 명 곳(處). *(속) 죽은 사름 질 쳐사 조은 고단 간다.(죽은 사람 길을 쳐야 좋은 곳에 간다.) [전역] = 바둑[2].

고단-고단 부 차근-차근. 이것 저것 떨어진 것 없이 모두. *고단고단 다 골앗저.(차근차근 다 말했다.) [전역] = 고단고단-이.

고단고단-이 부 [전역] → 고단-고단.

고단-ᄒᆞ다[1]**(孤單--)** 형 고단-하다. 외롭다. [전역] 고고단ᄒᆞ다.

고단-ᄒᆞ다[2] 형 고단-하다. 몸이 고달프다. [전역] 고고단ᄒᆞ다.

고달 명 볏(鷄冠). [전역]

고달논-떡 명 <음> [서홍 하원 화순] → 징부찐-떡.

고달-떡 명 <음> [태흥 표선] → 징부찐-떡.

고달부찐-떡 명 <음> [조수] → 징부찐-떡.

고달여진-떡 명 <음> [조천] → 징부찐-떡.

고대 명 [전역] → 고데.

-고대고 어미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할지라도'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고대나 어미 [전역] → -고대라.

-고대라 어미 -더라도.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비록 그 동작을 하더라도'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그건 어렵고대라 탈낭 겁죽을 구해서 신을 맨들라.(그것은 어렵더라도 산딸기나무 껍질을 구해서 신을 만들어라.) [전역] = -고대나.

고대장-본풀이 명 <설> 고대정 신화. 제주시 삼도동 고만호댁(高萬戶宅)에서 모시는 조상신 고대정에 대한 본풀이. [삼도]

고댁-고댁 감 암탉이 알을 낳거나 놀란 때에 내는 소리. [전역] = 고닥-고닥.

고데 부 고대. 이제 막. [전역] = 고대.

고뎃-흑 명 <건> [조수] → 고뒷-흑.

고도리 명 <동> 고등어의 새끼. [전역]

고도리-젓 명 <음> 고도리로 담아 만든 젓갈. [행원]

고두리왓-동네 명 <지> [애월] → 고둘왓-동네.

고둔(羔屯) 명 <지> [서귀포 중문] → 염둔.

고둘왓-동네 명 <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한 자연마을. [애월] = 고두리왓-동네.

고-뒈다 형 고되다. 일이 힘에 겨워서 괴롭다. [전역]

고들개 명 <도> 껑거리-막대. [전역] = 고들게[2], 고들겟-낭. 고고들게.

고들개-친 명 <도> 껑거리-끈. [전역] = 고들게-친.

고들게[1] 명 [가시] → 밀추.
고들게[2] 명 <도> [전역] → 고들개.
고들게-친 명 <도> [전역] → 고들개-친.
고들겟-낭 명 <도> [전역] → 고들개.
고들-고들 부 고들-고들. [전역]
고들배 부 [전역] → 고들베.
고들베 부 쉬지 않고 꾸준히. [전역] = 고들배.
고등어 명 <동> [전역] → 고등에.
고등에 명 <동> 고등어. [전역] = 고등어.
고뒷-흑 명 <건> 새우. 산자(橾子) 위에 올려 펴 놓은 흙. [전역] = 고텟-흑, 고톳-흑.
고라 조 더러. 에게. ＊나고라 학부형 대표로 말을 골으랜 ᄒᆞ연.(나더러 학부형 대표로 말을 하라고 해서.) [전역] = ᄀᆞ라.
-고라 어미 동사의 어간이나 동사의 어간에 붙은 '-암-·-엄-·-염-·-람-' 또는 '-앗-·-엇-·-엿-·-랏-', '-던-' 등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화자 자신의 동작을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종결어미. ＊아멩 헤도 그 요왕에다 국법이 섯던고라.(아무리 해도 그 용왕(龍王)에다 국법(國法)이 있었던 게야.) [전역]
고라니 명 <동> 고라니. [교래 광령 성읍]
고라-돌 명 <동> 고라-말(土黃馬). 등에 검은 털이 난 누런 말. [전역]
고랑 명 고랑. 밭이랑 사이에 낮게 파인 곳. [전역] = 고랑[2].
고랑-내 명 고랑으로 흐르는 아주 작은 내(川).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고랑-내 명 [전역] → 고린-내.
고랑진-구름 명 고랑처럼 생긴 구름 ＊비가 오젠 ᄒᆞ민 하늘에 고랑진구름 사곡.(비가 오려고 하면 하늘에 '고랑진구름'이 들어서고.) [마라도]
고랑-창 명 [전역] → 골-챙이.
고랑-챙이 명 [전역] → 골-챙이.
고랑-치 명 [전역] → 골-챙이.
고랑-콩 명 <농> 조 파종과 동시에 밭갈이 후 이랑을 따라서만 파종한 콩. ＊옛날은 조 갈 때 고랑더레 콩씰 놓앗주. 이걸 고랑콩이라고 ᄒᆞ주.(옛날은 조 갈 때 고랑으로 콩 씨를 놓았지. 이것을 '고랑콩'이라고 하지.) [하원]
고래 명 <동> [전역] → 고레.
고량[1] 명 <도> [노형 조수 하원] → 고령②.
고량[2] 명 [조수 노형 어도] → 고랑.
고레 명 <동> 고래(鯨). [전역] = 고래, 고레사니.
고레- 두 '크다'는 뜻으로 쓰이는 말. [전역]
고레-비 명 [조수 인성 서홍 노형] → 고레-장비.
고레사니 명 <동> [전역] → 고레.
고레-장비 명 한정 없이 크게 오는 비. [인성 노형 조수 수산] = 고레-비.
-고렌 어미 동사의 어간 또는 동사의 어간에 붙은 '-암-·-엄-·-염-·-람-' 또는 '-앗-·-엇-·-엿-·-랏-' 등에 연결되어서 화자 자신이 '그 동작을 하였노라'의 뜻을 나타내는 '-고라'의 변형 '-고레'에, 뒤에 오는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의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고렝 어미 동사의 어간 또는 동사의 어간에 붙은 '-암-·-엄-·-염-·-람-' 또는 '-앗-·-엇-·-엿-·-랏-' 등에 연결되어서 화자 자신이 '그 동작을 하였노라'의 뜻을 나타내는 '-고라'의 변형 '-고레'에, 뒤에 오는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고렴 명 조문(弔問). *장ᄒᆞᆫ 후엔 고렴 아니 가마씀?(장례를 치른 후에는 조문을 안 갑니까?) [전역] = 고견, 조문(弔問).

고렴-ᄒᆞ다 동 [전역] → 조문-ᄒᆞ다.

고령 명 <도> ① 대오리나 차풀의 줄기로 엮어서, 채롱보다 통이 아주 얕고 작게 만든 그릇. [서홍 수산] ② 고령 만큼의 분량. *떡 ᄒᆞᆫ 고령 짊어지고 ᄒᆞ연 서월을 올라갓지.(떡 한 채롱을 짊어지고 해서 서울을 올라갔지.) [전역] = 고랑[1], 구령.

고롬 명 고름(膿). [전역] = 고름.

고롬-똥 명 곱-똥. [전역]

고롬-쿨 명 <식> 땅-빈대. [인성 서홍 조수 노형] = 고롬-풀.

고롬-풀 명 <식> [수산 김녕] → 고롬-쿨.

고르다[1] 동 고르다. ① 높낮은 것을 평평하게 만들다. [전역] ② 여럿 가운데서 가리어 뽑다. [전역] = 골르다[2].

고르다[2] 동 곯다. [전역] = 골르다[1]. ㊟곯다.

고르다[3] 형 고르다. 어느 것이 더하고 덜함이 없이 같다. [전역]

고르닥-ᄒᆞ다 형 물건이 크고 작거나 사람이 힘이 세거나 약함이 없이 같다. [전역]

고른-바닥 명 [조수] → 고린-바닥.

고른-배기 명 승부를 내지 못하여 힘이 서로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 [전역] = 고른-베기, 고름-배기, 고름-백, 고름-베기, 골래기, 골레기.

고른-베기 명 [전역] → 고른-배기.

고름 명 [전역] → 고롬.

고름-배기 명 [전역] → 고른-배기.

고름-백 명 [전역] → 고른-배기.

고름-베기 명 [전역] → 고른-배기.

고리 명 <도> 멸치 따위 바닷고기를 운반하는 데 쓰이는 대오리 따위로 엮어서 만든 바구니. *천 고리여 만 고리여 이여싸 소리에 닷 올라온다.(천 '고리'네 만 '고리'네 이여싸 소리에 닻 올라온다.) [전역]

고리다 동 곯다. 속이 물커지어 상(傷)하다. [전역]

고리-동반 명 <민> 댓잎으로 가운데를 꿴 다음 백지로 싼 방울떡. [전역]



고리동반

= 고리-신동벽, 고리-안동벽, 고리-좌동벽.

고리동반-품 명 <민> 굿의 막바지에 고리동반 떡을 풀어내는 의례. [전역]

고리-봉(古里峯) 명 <지> [남원] → 고리-오름.

고리-신동벽 명 <민> [전역] → 고리-동반.

고리-악(古里岳 · 高里岳) 명 <지> [남원] → 고리-오름.

고리-안동벽 명 <민> [전역] → 고리-동반.

고리-오름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2리에 있는 오름. 표고 301미터. [남원] = 고리-봉(古里峯), 고리-악(古里岳), 고이-악(高伊岳), 고이-오름.

고리-좌동벽 명 <민> [전역] → 고리-동반.

고리-짝 명 고리-짝. ＊옛날사 고리짝 소곱에 하간거 다 보관헷주.(옛날에야 고리짝 속에 이런저런 것 다 보관했지.) [전역]

고리차분-ᄒᆞ다 형 고리타분-하다. [노형 조수 인성 김녕]

고린-내 명 고린-내. [전역] = 고랑-내.

고린-바닥 명 발바닥 가운데 우묵하게 들어간 부분. [전역] = 고른-바닥.

고린-장 명 고린 냄새가 나는 장(醬). [전역]

고막-조개 명 <동> 꼬막. [신양]

고말 명 화상(火傷). [전역]

-고 말고 어미 -고 말고. 동사의 어간 또는 동사의 어간에 붙은 '-암-·-엄-·-염-·-람-' 또는 '-앗-·-엇-·-엿-·-랏-' 등에 연결되어서, 남의 물음에 대하여 긍정의 뜻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데 쓰이는 종결어미. [전역]

고말-피다 동 화상을 입다. ＊그 사름 굴묵짇당 고말피엇덴 ᄒᆞ멍?(그 사람 '굴묵'에 불을 때다가 화상 입었다면서요?) [전역]

고맙다 형 고맙다. [전역]

고망 명 구멍. ＊고망이 지만씩이난 산다.(구멍이 제각각이니까 산다.) [전역] = 고냥, 구녁, 구멍, 굼기, 궁기. ㊟구무.

고망-귀 명 아낙-군수. 늘 집안에만 있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전역]

고망-가게 명 구멍-가게. ＊우리 동네 고망가겐 어신 게 어서.(우리 동네 구멍가게에는 없는 게 없어.) [전역]

고망-당장 명 [전역] → 구석-당장.

고망독-새 명 <동> 굴뚝-새. [서홍 태흥 표선 수산 세화 조천 노형] = 고냥독-새, 그스렁독-새, 그시럼닥-새.

고망-물질 명 <어> 초보 해녀들이 얕은 바다에서 하는 물질. [전역]

고망-바르 명 <동> [삼양] → 오분재기.

고망-새 명 바위틈의 구멍에서 마련한 '새'(茅). [선흘]

고망-조개 명 <동> [법환] → 오분재기.

고망-좀녜 명 <어> [전역] → 고망-좀수.

고망-좀수 명 <어> 보통 때에는 작업을 하지 않다가 미역이나 우뭇가사리 채취를 시작하는 한고비에만 바다에 나타나서 작업하는 해녀. 구멍

에 숨었다가 느닷없이 나대는 잠수(潛嫂)라는 뜻. [전역] = 고망-즘네.

고망-치기[1] 명 개구멍으로 들어가기. [전역]

고망-치기[2] 명 구멍에 돈이나 구슬을 던져 넣어 내기하는 놀이의 일종. [전역] = 고냥-치기, 구녁-치기.

고멩이 명 <동> [인성] → 코셍이.

고무-눈 명 <도> 해녀들이 물질할 때에 쓰는, 고무 테두리에 큰 알 하나를 끼운 물안경. [하도]



고무눈

고무-옷 명 <의> 해녀들이 작업할 때 입는 꺼먼 고무로 만든 물옷. [전역]

고물 명 <어> 고물(船尾). [가시 어도 조수 하원] = 고불.

고물-간 명 <어> 고물-간. 거루 따위 배의 맨 뒤쪽 칸(間). [하원 표선 조수] = 고불-방장, 고불-장, 고불-칸.

고물-대 명 <도> 배 고물 쪽에 있는 돛대. [사계]

고물-멍에 명 [가시] → 네좃-멍에.

고물-사공 명 <어> 고물을 담당하는 사공. [전역] = 칫-사공.

고물-장세 명 <어> [가시] → 고불-장세.

고방갈락 고방갈락 구 어린이들이 제사 치르는 시늉의 흙장난을 하며 노래하는 구절. 숨어 있다가 제사 치른 다음에 제수를 나눠 먹자는 뜻. *고방갈락 고방갈락 절ᄒᆞ영 갈라 먹게.('고방갈락 고방갈락' 절을 하여 나눠 먹자.) [전역]

고베기 명 <식> 고비. 양치식물 고빗과의 여러해살이풀. [노형 오라 삼양]

고봄-재기 명 [노형 조수 인성] → 곱을-내기.

고부랑강갱-고부랑강갱 부 개가 매를 맞거나 물려서 도망치며 울부짖는 소리. *막뎅이로 탁탁 패난 고부랑강갱 고부랑강갱.(막대기로 탁탁 패니 '고부랑강갱 고부랑강갱'.) [전역]

고부랑-건지 명 예전에 혼례를 치를 때의 신부 머리 모습의 한 가지. 대체로 장옷을 혼례복으로 입을 때 치장하던 신부의 머리를 일컬음. [전역] = 방애-머리, 코-머리.

고부랑-고부랑 부 고부랑-고부랑. [전역]

고부-치다 동 고붙-치다. [전역] = 고뷔-치다.

고분-고분 부 고분-고분. [전역] = 고불-고불, 고붓-고붓.

고분-동(古分洞) 명 <지> [조천] → 곱은-다리.

고분-양태 명 <의> 가장 품질이 뛰어난 갓양태의 한 가지. 날이 되는 쌀 수효가 500쯤에 이름. [전역]

고분-자귀 명 <도> [조수] → 옥-자귀.

고불 명 [인성 화순 서홍 태흥 표선 수산 세화 조천 노형] → 고물.

고불-고불 부 [조수 어도] → 고분-고분.

고불-멍에 명 <어> [서홍 수산 김녕] → 네좃-멍에.
고불-방장 명 <어> [서홍 어도] → 고물-간.
고불-장 명 <어> [인성 화순 태흥 수산 노형] → 고물-간.
고불-장세 명 <어> 떼의 뒤쪽에 가로질러 박은 나무. [노형 인성 서홍 수산 조수] = 고물-장세, 고불-장시.
고불-장시 명 <어> [김녕] → 고불-장세.
고불-칸 명 <어> [세화 조천 노형] → 고물-간.
고붓-고붓 부 [전역] → 고분-고분.
고뷔-치다 동 [어도] → 고부-치다.
고비 명 고비. 사물의 가장 긴요한 시기나 막다른 절정. [전역] = ᄀᆞ리[1].
고비-지다[1] 동 곱-치다. 반으로 접어 한데 합치다. *물수건은 영 ᄒᆞ영 고비지왕그네 탁 ᄒᆞ게 썽그네 종짓눈 써.(물수건은 이렇게 하여 곱쳐서 탁 쓰고서 '종짓눈'을 써.) *바지 단일랑 잘 고비정 줍서.(바지 단일랑 반으로 접어서 기우십시오.) [이호]
고비-지다[2] 동 구겨-지다. 주름-지다. [전역]
고뿔 명 감기. 고뿔. [전역]
고뿔-들리다 동 감기에 걸리다. 감기가 들다. [전역]
고사리 명 <식> 고사리(薇). [전역] = 고아리-채.
고사리-마 명 봄철에 고사리가 나올 때의 장마. [전역] = 고사리-장마, 고아리-마.
고사리-장마 명 [전역] → 고사리-마.
고사리-오름[1] 명 <지>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북동쪽에 있는 오름. 표고 35미터. [전역] = 궤사리-오름[1].
고사리-오름[2] 명 <지> 서귀포시 도순동 북쪽에 있는 오름. 표고 139미터. [전역] = 궤사름, 궤사리-오름[2].
고사리-지동 명 <건> [조수] → 말코-지동.
고사-풀 명 <식> [조천 수산] → 고세-쿨.
고삭-죽 명 <음> 콩·팥·보리 따위를 볶아서 간 가루를 좁쌀 따위에 섞어서 쑨 죽. *오래 굶어난 사름은 고삭죽을 멕여난 후제 밥을 멕여사 ᄒᆞ주.(오래 굶었던 사람은 '고삭죽'을 먹인 후에 밥을 먹어야 하지.) [노형 조수 인성 서홍 행원]
고삼 명 <식> [전역] → 너삼.
고상-초 명 <식> [전역] → 고장-풀.
고새 명 서리가 몹시 내려 지면(地面)에 얼어 엉킨 것. [전역]
-고서 어미 -으면서. 동사 어간에 붙어서 어떤 동작·상태가 다른 동작·상태를 겸함을 나타낼 때 쓰이는 연결어미. *뚤 자식 ᄒᆞ나가 뒈는 것을 내가 정승으로 잇고서 공부를 못 시켜서야 뒈느냐?(딸자식 하나 있는 것을 내가 정승(政丞)으로 있으면서 공부를 시키지 못해서야 되느냐?) [전역]
-고서랑 어미 [전역] → -고설란.
-고설란 어미 -고서는. *그 날 상주를 잡아다가, 총배로 야가지를 걸어 가지고, 큰 폭낭에 ᄃᆞᆯ아메 가지고설란 죽여 버렷어.(그 날 상주(喪主)를

붙잡아다가, 총배로 모가지를 걸어서, 큰 팽나무에 달아매어서는 죽여 버렸어.) [전역] = -고서랑, -고설랑.

-고설람으란 어미 -고서는. 연결어미 '-고서'와 '-ㄹ람으란'이 결합한 형태. *네가 그까짓 힘을 가지고설람으란, 웨지에 오라서 좌지우지흘려고 ᄒᆞ느냐?(네가 그까짓 힘을 가지고서는, 외지(外地)에 와서 좌지우지하려고 하느냐?) [전역]

-고설랑 어미 [전역] → -고설란.

고세-쿨 명 <식> 큰-벼룩아재비. [인성 서홍] = 고사-풀.

고셍이 명 <동>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코셍이.

고소리 명 <도> 소줏-고리. [전역]



고소리

고소리-술 명 <음> 솥에 오메기술을 넣고 그 위에 소줏고리를 얹어서 증류해서 뽑아낸 제주 전통 소주. *옛날에 고소리술 ᄒᆞ는 누룩은 잘 뒈사 고소리술이 뒈주, 도수가 약ᄒᆞᆫ 거는 안 뒙니께.(옛날에 '고소리술' 만드는 누룩은 잘 되어야 '고소리술'이 되지, 도수가 약한 것은 안 되지요.) [성읍]

고소리-좃 명 소줏고리로 술을 골 때 술이 나오는 소줏고리의 부리. *고소리술 빠는 고망고라 고소리좃이엔 ᄒᆞ메.(고소리술 빼는 구멍을 '고소리좃'이라고 하지.) [성읍]

고소릿-띠 명 [김녕] → 시릿-마개.

고소릿-마게 명 [인성 서홍 수산] → 시릿-마개.

고소에 명 [조수] → 불-쏘시게.

고수락-머리 명 [수산] → 고스락-머리.

고스락-머리 명 고수-머리. [전역] = 고수락-머리, 꼬스락-머리.

고슬-고슬 부 [전역] → 고실-고실.

고슬락-고슬락 부 곱슬-곱슬. *머리까락이 고슬락고슬락.(머리카락이 곱슬곱슬.) [전역] = 고실락-고실락, 꼬글락-꼬글락, 꼬실락-꼬실락.

고실-고실 부 밥이 되지도 아니하고 질지도 아니하여 꼭 알맞은 모양. *고사리 먹으믄 고실고실.(고사리 먹으면 '고실고실'.) [전역] = 고슬-고슬, 꼬실-꼬실[1].

고실락-고실락 부 → 고슬락-고슬락. [전역]

고실락-ᄒᆞ다 형 고들고들-하다. 오들오들-하다. [전역]

고ᄉᆞ 명 [전역] → 코ᄉᆞ.

고솜 명 <식> [서홍 인성] → 너삼.

고아리-마 명 [수산] → 고사리-마.

고아리-채 명 <식> *세 손 벌긴 고아리채.(세 손가락 벌린 고사리.) [함덕] → 고사리.

고암-닥주 명 <음> 탁주(濁酒). [전역]

고애-가다 동 남의 집 상사에 조의를 표하기 위하여 찾아가다. *나 알동네 고애갓당 오키여.(나 아랫동네 조문 다녀오겠네.) [조수 고성]

고약 명 [전역] → 궤약.

고약-ᄒᆞ다 형 고약-하다. [전역] = 궤약-ᄒᆞ다.
고양 부 [서홍] → 궤양.
고영-동(古永洞) 명 <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의 한 자연마을. [조천] = 고영-뒤, 고영-이, 고영잇-골.
고영-뒤 명 <지> [조천] → 고영-동.
고영-이 명 <지> [조천] → 고영-동.
고영잇-골 명 <지> [조천] → 고영-동.
고요-ᄒᆞ다 형 고요-하다. [전역]
고을 명 고을(郡). [전역] = 골[5].
고이-악(高伊岳) 명 <지> [남원] → 고리-오름.
고이-오름 명 <지> [전역] → 고리-오름.
고이-ᄒᆞ다 형 괴이-하다. ＊어치냑 꿈이 고이ᄒᆞ다.(어젯밤 꿈이 괴이하다.) [전역]
고자[1] 명 [전역] → 고제[1].
고자[2] 부 [전역] → 고제[2].
고장[1] 명 꽃. [전역] = 곳, 꼿.
고장[2] 명 [노형 인성 어도 하원 화순] → 고단[1].
-고장 어미 [전역] → -고저.
고장-낭 명 <식> [전역] → 꼿-낭.
고장-듣다 동 [서홍 수산] → 고정-듣다.
고장-떡 명 <음> 절편 모양으로 동그랗게 만들되 둘레를 톱니같이 하고 붉은 물을 칠한 떡. [전역]
고장-밧 명 꽃이 많이 피는 곳. [전역]
고장-중의 명 <의> 고쟁이. [전역]
고장-풀 명 <식> 볏붉은-잎. 해조의 한 가지로, 제주도 내에서는 1980년대 이후에 수요에 따라 캐기 시작함. [전역] = 고상-초.
고쟁이 명 [전역] → 고지[2].
고저 부 [한림] → 고제[2].
-고저 어미 -고자. 동사 어간이나 형용사 어간에 붙어서 앞으로 하고 싶거나 되고 싶은 욕망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 -고정, -구장, -구저, -구정.
-고저라 어미 동사 어간에 붙어서,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 또는 '하고 싶구나'란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또는 종결어미. [전역]
고적 명 <민> 일가에 경조사가 생겼을 적에 친척끼리 만들어 가는 부조떡이나 쌀.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가문-떡.
고-전적(高典籍) 명 <민> 조선 시대의 명풍수. [전역]
고전적따님아기-본풀이 명 <설> 고전적 따님 신화. 제주시 봉개동 고씨 집안에서 모시는 조상신 고전적따님 아기에 대한 본풀이. [삼양 봉개]
-고정 어미 동사 어간에 붙은 후 'ᄒᆞ다'와 결합하여 무엇을 하고 싶거나 되고 싶다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전역] → -고저.
고정-듣다 동 곧이-듣다. 정말로 받아들이다. ＊아방은 그짓말로 경 ᄒᆞ여노니 아덜이 고정들엇어.(아버지가 거짓말로 그렇게 하니 아들이 곧이 들었어.) [전역] = 고장-듣다, 곧이-듣다.
고정-베기(孤貞--) 명 고정-배기. ＊얼마나 고정베기냐 ᄒᆞ믄, 이디 상 시라 ᄒᆞ믄 비가 와도 기냥 상 이선.(얼

마나 고정배기냐 하면, 여기 서 있어라 하면, 비가 내려도 그냥 서 있었어.) [전역]

고정-ᄒᆞ다(孤貞--) 형 고정-하다. [전역]

고제[1] 명 고자(鼓子). [전역] = 고자[1].

고제[2] 부 곧-이. *걸 고제 안 들어요.(그것을 곧이 안 들어요.) [전역] = 고자[2], 고저.

고제기-듬북 명 <식> 듬북의 일종. 주로 밭에 거름으로 사용함. *엿날은 고제기듬북 ᄌᆞ물앙 그거 밧듸 꼴앙 걸름ᄒᆞ연.(옛날은 '고제기듬북' 캐서 그것을 밭에 깔아서 거름하였어.) [이호] = 고제기, 고족-몸, 고지기[1], 고지기-몸, 곡제기.

고젱이 명 [전역] → 고지[2].

고조기 명 *그 고조기 이레 도라.(그 토리 이쪽으로 달라.) [인성 화순] → 멘주기[2].

고족-몸 명 <식> [대포] → 고제기-듬북.

고즐멩이 명 <동> 학꽁치. [인성 조수 수산] = 고질멩이, 꼬줄멩이, 꼬질멩이.

고지[1] 명 *선흘고지 간 남을 비여단 배를 짓엇주.('선흘곶'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배를 만들었지.) [전역] → 곶[2].

고지[2] 명 꼬챙이(串). [전역] = 고쟁이, 고젱이.

고지[3] 명 이랑. 한 두둑과 그에 따른 고랑을 통틀어 일컫는 말. [조수 노형 인성 김녕 화순 하원 어도 덕수] = 밧-파니, 파니[2].

고지[4] 명 버선-코. [대포]

고지[5] 명 봉우리. [전역]

고지기[1] 명 <식> [우도] → 고제기-듬북.

고지기[2] 명 [하원] → 멘주기[2].

고지기-몸 명 <식> *고지기몸은 칠월 낭 ᄌᆞ물앙 보리낭 ᄒᆞᆫ 짐, 고지기 ᄒᆞᆫ 짐 그치록 징징이 놓으멍 막 쎅여근에 구월 나민 펑 밧듸 져 날르는 거라.('고지기모자반'은 칠월이 되어서 캐서 보릿대 한 짐, '고지기' 한 짐 그렇게 층층이 넣으면서 막 썩혀서 구월이 되면 퍼서 밭에 져 나르는 거야.) [하귀] → 고제기-듬북.

고지돌 명 <어> 주로 우도(牛島)에서 전해 내려온, 갈치를 낚는 2.5~2.8 킬로그램 정도의 낚시추. 조금은 휘어지게 만듦. [우도]

고지식-ᄒᆞ다 형 고지식-하다. *고지식ᄒᆞ댕 나무리지 말라.(고지식하다고 나무라지 마라.) [전역]

고질 명 콩이나 팥의 열매를 털어 버리고 남은 줄기와 깍지. [전역]

고질멩이 명 <동> [서홍 수산 김녕 조수] → 고즐멩이.

고집-다리 명 고집을 잘 부리는 사람. [전역]

고집-쟁이(固執--) 명 고집이 센 사람. [전역]

고집-통이(固執--) 명 고집통-이. *우리집 하르방 고집통이라부난 나 말은 영 안 들메.(우리집 주인 고집통이어서 내 말은 전혀 안 들어.) [전역]

고짝 부 [전역] → 구짝.

고쩌-사다 동 섰던 자리에서 딴 위치로 옮겨 서다. [전역] = 고쩌-스다, 고쩌-서다.
고쩌-서다 동 [전역] → 고쩌-사다.
고쩌-스다 동 [전역] → 고쩌-사다.
고쩌-놓다 동 고쳐-놓다. ① 자리를 옮겨 놓다. [전역] ② 잘 되게 고쳐 꾸며 놓다. [전역] = 고처-놓다.
고찌다 동 고치다. *고장 나지 아녀게 잘 고쪄 줍서.(고장 나지 않게 잘 고쳐 주세요.) [전역]
고처-놓다 동 [전역] → 고쩌-놓다.
고첫-당 명 <민>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의 당. [하천]
고초 명 <식> [조수 노형] → 고치[1].
고초-드르다 동 곧추-들다. [전역] = 고초-들르다.
고초-들르다 동 [전역] → 고초-드르다.
고초-아지다 동 [전역] → 고초-안지다.
고초-안지다 동 곧추-앉다. [전역] = 고초-아지다, 고초-앉다, 과짝-안지다, 관작-안지다.
고초-앉다 동 [전역] → 고초-안지다.
고초-적대몰 명 <동> 털빛이 아주 시뻘겋게 붉은 말. [전역] = 고치적다-물, 고치적대-물.
고총 명 [전역] → 골총.
고추 명 <식> [서홍 수산] → 고치[1].
고치[1] 명 <식> 고추. [전역] = 고초, 고추.
고치[2] 명 고치. 누에가 실을 토하여 만든 집. [전역]
고치-낭 명 <식> 고추-나무. [전역]
고치-물자리 명 <동> [수산 가시] → 고치-밥주리.
고치-밤버리 명 <동> [인성] → 고치-밥주리.
고치-밤부리 명 <동> [전역] → 고치-밥주리.
고치-밥주리 명 <동> 고추-잠자리.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고치-물자리, 고치-밤버리, 고치-밤부리, 고치-오쟁이, 고치-잘.
고치-오쟁이 명 <동> [수산] → 고치-밥주리.
고치-잘 명 <동> [김녕] → 고치-밥주리.
고치-장 명 <음> 고추-장. [전역]
고치-적다몰 명 <동> [표선 태흥] → 고초-적대몰.
고치-적대몰 명 <동> [조수 하원 어도] → 고초-적대몰.
고칫대 명 <도> 갓양태를 겯는 연장의 한 가지. 길이 20센티미터쯤의 댓개비로서 빗대를 꽂아갈 때 바늘처럼 쓰임. [전역]
고톳-흑 명 [노형 세화] → 고딧-흑.
고팡 명 고방(庫房). [전역] = 궤팡, 안-방, 안-팡, 암-팡, 앙-팡.
고팡-문 명 [서홍 수산 가시 김녕 인성] → 궤팡-문.
고평-동(古坪洞) 명 <지> 제주시 조천읍 대흘2리의 한 자연마을. [조천] = 궷-드르, 묘-평(猫坪).
고프다 형 고프다. [전역] 고 골프다.
고혼(孤魂) 명 고혼. [전역]
고혼-앚지다(孤魂---) 동 외로운 혼을 위로하기 위해 절에 모시다. [전역]
-곡 어미 -고. ① 장차 할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성질·상태 등을 잇

따라 나타낼 경우, 앞선 용언 어간에 붙여 쓰이는 연결어미. ＊쇠막사리 부렝인 촐 도렌 들럭키곡 ᄒᆞᆫ다.(외양간 부룩소는 꼴을 달라고 날뛰고 한다.) [전역] ② 장차 할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성질 등을 대등하게 말할 경우, 앞선 용언 어간에 붙여 쓰이는 연결어미. ＊말헷당 늬 죽곡 나 죽곡 ᄒᆞᆫ다.(말을 하였다가는 너 죽고 나 죽고 한다.) ＊난 늴도 밧 갈곡 모리도 밧 갈곡 글피도 밧 갈곡, 밧만 영 갈게 뒈는고.(난 내일도 밭 갈고 모레도 밭 갈고 글피도 밭 갈고, 밭만 이렇게 갈게 되는가.) [전역] ③ 장차 할 동일한 동작이나 상태 또는 상이한 동작이나 상태가 반복되어 행해질 경우, 앞선 용언의 어간에 붙여서 쓰이는 연결어미. ＊게매 짓뻘겅ᄒᆞ게 손콥데기영 발콥데기영 물들이곡 머리 보깐 노랑물 들이곡.(글쎄 아주 뻘겋게 손톱과 발톱에 물들이고 머리는 파마하여 노랑물 들이고.) [전역] ④ 장차 올 일에 대한 물음이나 항변 등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이 일 다 ᄒᆞᆫ 다음 저 일도 ᄒᆞ곡?(이 일을 다 마친 다음에 저 일도 하고?) [전역] = -고[6].

곡-감 명 곶감. [전역] = 곶-감.

곡고닥 부 [전역] → 곡고댁.

곡고댁 부 꼬꼬댁. 닭이 놀랐거나 알을 낳은 뒤에 내는 소리. [전역] = 곡고닥.

곡기(穀氣) 명 곡기. 낟알-기. ＊메칠 곡기를 입에 놓지 아니 ᄒᆞ엿다.(며칠 곡기를 입에 넣지 아니 했다.) [전역]

곡뒤 명 꼭뒤. 뒤통수의 한복판. [전역] = 뒷-곡듸. ㊟곡ᄃᆡ.

곡뒤-잽이 명 [인성 서홍] → 곡뒤-치기.

곡뒤-치기 명 씨름할 때 한쪽 팔을 상대자의 등뒤로 넘겨 잡고 하는 재주. [노형 조수 김녕] = 곡뒤-잽이.

곡메기 명 [조천] → 각메기.

곡석 명 곡식(穀食). [전역] = 곡식.

곡석-방울 명 [전역] → 곡식-방울.

곡식 명 [전역] → 곡석.

곡식-방울(穀食--) 명 곡식-알. [전역] = 곡석-방울.

곡심(曲心) 명 곡심. 곱지 아니하고 비뚤어진 마음. ＊원성진 사름안티 품은 곡심은 벤치 안 ᄒᆞᆫ다.(원망스러운 사람한테 품은 곡심은 변치 않는다.) [노형 오라]

곡심-ᄒᆞ다(曲心--) 형 곡심-하다. 마음이 곱지 아니하고 비뚤다. ＊곡심ᄒᆞ민 뒐 것도 잘 안 뒌다.(곡심하면 될 것도 잘 안 된다.) [노형 오라]

곡월-동(曲月洞) 명 <지명> [조천] → 곱은-다리.

곡제기 명 <식> [신촌] → 고제기-듬북.

곡지[1] 명 곡조(曲調). 노래나 이야기를 세는 단위. [구좌] = 꼭지[1].

곡지[2] 명 꼭지. [전역] = 꼭지[2].

곡-ᄒᆞ다(哭--) 동 곡-하다. [전역]

-곤 어미 -ㄴ가고. 체언에 붙어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고'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생각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곤-각시 명 <동> 껍데기를 벗어 버린 달팽이를 의인화한 이름. [노형 오라]
곤데 명 군데. [전역] = 밧듸.
곤데-곤데 부 군데-군데. *곤데곤데 ᄋᆞ라 밧듸 앚아십디다.(군데군데 여러 군데 앉아 있었어요.) [전역]
곤-떡 명 <음> 흰-떡(白餠). [전역]
곤-밥 명 <음> 볍쌀로 지은 밥. 흰-밥(白飯). [전역]
곤-쏠 명 흰-쌀(白米). [전역] = 흰-쏠.
곤을-마을 명 <지> 제주시 화북1동의 한 자연마을. [화북]
곤을-포(坤乙浦) 명 <지> [전역] → 고뇰-개.
곤-자리 명 <동> 금눈-돔. *곤자리는 빨강ᄒᆞᆫ 자린디 하지 아니ᄒᆞ여.(금눈돔은 빨간 자리돔인데 많지 않아.) [전역]
곤저리-풀 명 <식> 싸리. [화순]
곤주왁-사다 동 [서홍 수산 노형 인성] → 항곱-사다.
곤-죽 명 <음> 흰-죽(-粥). [전역] = 흰-죽.
곤지-곤지 부 곤지-곤지. [전역]
곤지-사다 동 [수산] → 항곱-사다.
곤-풀 명 이-풀(米糊). [전역]
곤-ᄒᆞ다(困--) 형 곤-하다. [전역]
곧 부 곧(卽). [전역]
곧다 형 곧다. *곧은 남으로 ᄒᆞ나 줏엉 오라.(곧은 나무로 하나 주워 오너라.) [전역]
곧은-낙시 명 <도> 직선으로 곧게 펴진 낚시. [전역]
곧은-낭 명 곧은 나무. 곧게 자란 나무. [전역]
곧은-ᄆᆞ슴 명 곧은 마음. [전역] = 곧은-ᄆᆞ음, 곧은-ᄆᆞᆷ.
곧은-ᄆᆞ음 명 [전역] → 곧은-ᄆᆞ슴.
곧은-ᄆᆞᆷ 명 [전역] → 곧은-ᄆᆞ슴.
곧은-일 명 올바른 일. [전역]
곧은-질 명 곧은-길. [전역]
곧은-하니 명 바로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전역]
곧이-듣다 동 [전역] → 고정-듣다.
곧이-엇다 형 지각-없다. 분수-없다. *곧이엇은 말랑 ᄒᆞ지 말라.(지각없는 말은 하지 마라.) [전역]
곧이엇-이 부 지각-없이. [전역]
곧작 부 [전역] → 구짝.
곧작-ᄒᆞ다 형 곧다. *아주 곧작ᄒᆞᆫ 낭으로 그차 오라.(아주 곧은 나무로 베어 와라.) [전역]
곧후다 동 곧추다. [전역]
골[1] 명 골(骨髓). [전역]
골[2] 명 <도> 골. 물건을 만들 때 모양을 바로잡는 틀. [전역] ㊟골.
골[3] 명 골. 비위에 거슬리거나 언짢은 일을 당하여 벌컥 내는 화. [전역] ㊟골치.
골[4] 명 [인성 서홍] → 골째기.
골[5] 명 [전역] → 고을.
골[6] 명 엿-기름(麥芽). [전역]
골[7] 명 동네에 장사(葬事)가 났을 때 남정들이 의무적으로 장지에 나가서 뫼 쓰는 역사(役事)를 번갈아 가며 돕는, 동네 사람들로 이루어지는 집단. [전역]
골-감주 명 <음> 엿기름으로 만든 감주. [전역]
골-걸이 명 <도> 갓모자를 결을 때 쓰

는 연장의 한 가지. [전역]



골걸이와 총모자

골골 부 골골. 병이 오래되거나 몸이 약하여 시름시름 앓는 모양. [전역]

골골-거리다 동 골골-거리다. ＊몸이 약헨 늘 골골거린다.(몸이 약해서 늘 골골거린다.) [전역] = 골골-ᄒᆞ다.

골골-ᄒᆞ다 동 ＊그 빙에기 골골ᄒᆞ는 게 죽으키여.(그 병아리 골골하는 것이 죽겠다.) [전역] → 골골-거리다.

골-긋음 명 <농> 메밀을 파종함에 있어 쟁기로 씨앗을 파종할 골을 내는 일. ＊골긋음은 쟁기로 짚으게 안 갈아서 보섭 끗으로 밧 갈아. 골은 막상 ᄒᆞᆫ 조리 너빈 뒈어.('골긋음'은 쟁기로 깊게 안 갈아서 보습 끝으로 밭 갈아. 골은 막상 한 집게 뼘 너비는 돼.) [하원]

골-ᄀᆞ르 명 엿기름-가루. ＊흐린좁쌀 밥 ᄒᆞ영 골ᄀᆞ르 놔그네 삭으믄 물 좁질앙 딸리믄 감주 뒈는 거.(차좁쌀로 밥을 해서 엿기름 가루 넣어서 삭으면 물을 짜서 달이면 감주되는 것.) [성읍]

골끝-고양 명 <공> 용광로 내부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뚫어 놓은 구멍. [덕수]

골다[1] 동 곯다. 달걀 따위가 속이 상해서 썩다. ＊둑새긴 오래 두민 골앙 못 먹나.(달걀은 오래 두면 곯아서 못 먹는다.) [전역]

골다[2] 동 골다. 잠잘 때 콧소리를 크게 내다. [전역]

골다[3] 동 병이나 과도한 노동으로 인하여 몸이 몹시 쇠약하고 기가 떨어지다. 골병이 들다. ＊일에 골안 오래 못 산다.(일에 골병이 들어서 오래 못 산다.) [전역] 고 곯다.

골-다끄다 동 <농> '가슬왓'(休耕田)을 네 개의 거웃으로 하나의 이랑을 만들 때 좌우 양쪽의 두둑을 만들고 나서 가운데 두 개의 거웃을 만들다. [상창]

골-때기 명 골-딱지. [전역]

골래기 명 [전역] → 고른-배기.

골랭이 명 ＊짐숙ᄒᆞ고 움탕ᄒᆞᆫ 골랭이에서 불이 베롱ᄒᆞ고.(깊숙하고 움푹한 골짜기에서 불이 '베롱하고'.) [노형] → 골째기.

골레기 명 [전역] → 고른-배기.

골련 명 궐련(卷煙). [전역]

골로로 부 [수산 서홍 김녕] → 골호로. 고 고로로.

골롬 명 [하원 조천 노형 조수] → 곰[2].

골르다[1] 동 ＊너미 골르난 조곰 더 담으라.(너무 곯으니 조금 더 담아라.) [전역] → 고르다[1].

골르다[2] 동 [전역] → 고르다[1]②.

골-마 명 장기간 계속 지는 장마. [전역]

골-마께 명 <도> 용광로에서 쇳물이 나오는 구멍을 임시로 막는 나무 막

대. [덕수]

골막-ᄒᆞ다 형 [전역] → 곯직-ᄒᆞ다.

골매 명 <도> [조수 어도 인성] → 골메.

골-머리[1] 명 <지> [오라 해안 광령] → 골머리-오름.

골-머리[2] 명 골-머리. 머릿골을 속되게 이르는 말. [전역]

골머리-오름 명 <지> 제주시 해안동과 연동 경계에 걸쳐진, 어승생오름 북동쪽 아흔아홉골의 머리가 되는 곳에 있는 오름. 밑에 석굴암(石窟庵)·천왕사(天王寺)가 있음. 표고 850미터. [오라 해안 광령] = 골머리[1].

골메 명 <도> 골무. [전역] = 골매, 골미. ㊟골무.

골멩이 명 <동> [서홍] → 코셍이.

골목 명 골목. 큰길에서 들어가 동네 안을 이리저리 통하는 좁다란 길. [전역]

골무세 명 <도> 대오리를 가지런하게 다듬는 도구. 날을 V자로 박아 좁은 데서 넓은 쪽으로 잡아당기며 대오리를 가지런하게 함. [전역]



골무세

골미 명 [서홍 노형 김녕] → 골메.

골-밀이 명 <도> 골-변탕(-邊鍚). 재목에 오목한 골을 파는 데 쓰는 대패. [전역]

골-박다[1] 동 골-박다. [전역]

골-박다[2] 동 짚신을 만드는 동안에 신골을 박다. [덕수]

골-박새기 명 두개-골(頭蓋骨). 두개(頭蓋)를 이루는 뼈를 나삐 이르는 말. [전역] = 골-박세기.

골-박세기 명 [전역] → 골-박새기.

골-밥 명 큰일 때 온 고을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 지은 밥. [전역]

골-밧 명 수풀이 우거진 들. *그 당시 하가리 부근은 지금ᄁᆞ지 밧이 웃언 골밧이라낫주.(그 당시 하가리(下加里) 부근은 지금처럼 밭이 없어서 숲이 우거진 들이었지.) [한림]

골-벳 명 <농> 골을 치는 데 쓰이는, 양쪽 날이 같은 볏. *감저 싱경 굿 올릴 때는 골벳을 이용ᄒᆞ주.(고구마를 심어서 구덩이를 올릴 때는 '골벳'을 이용하지.) [조수]

골벵-들다 동 골병-들다. 병이 만성이 되어 깊이 들다. [전역] = 골빙-들다.

골-보리 명 <농> 보리 파종법 중 줄뿌림의 다른 말. [전역]

골빙-들다 동 [전역] → 골벵-들다.

골연곽 명 판지(板紙). [전역] = 골연깍.

골연깍 명 [전역] → 골연곽.

골이 명 [전역] → 골히.

골이-몰 명 <동> [수산] → 골히눈-이.

골짝-ᄒᆞ다 형 [전역] → 골착-ᄒᆞ다.

골째기 명 골짜기(谷). [전역] = 골[4], 골랭이, 골째기, 골항이, 골행이.

골째기 명 [전역] → 골째기.

골찌락-골찌락 부 꼴찌락-꼴찌락. [어도 노형]

골찍-ᄒᆞ다 형 [전역] → 곯직-ᄒᆞ다.
골착-ᄒᆞ다 동 곯다. ① 그릇 따위에 담긴 물건이 가득 차지 아니하여 조금 비다. ＊쏠 거리레 간 보난 두지 소곱이 골착ᄒᆞ여.(쌀 뜨러 가서 보니 뒤주 속이 곯아.) [전역] ② 먹은 것이 양에 모자라 배가 부르지 아니하다. ＊먹은 게 엇으난 베가 골착ᄒᆞ엿저.(먹은 것이 없으니 배가 곯았다.) [전역] = 골짝-ᄒᆞ다.
골-창 명 [전역] → 골챙이.
골-챙이 명 고랑-창. [전역] = 고랑-창, 고랑-챙이, 고랑-치, 골창.
골총 명 고총(古塚). 임자가 없어 벌초를 하지 않거나 후손이 끊겨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방치된 무덤. [전역] = 고총, 골충, 피총.
골충 명 [노형] → 골총.
골충-지기 명 <민> 고총을 지키는 신(神). 고총(古塚) 지기. [전역]
골치 명 골치. [전역]
골침 명 <농> 짐을 운반할 때 짐이 모자란 듯싶어 그 위에 다시 얹혀진 짐. [광령]
골통 명 골통. 머리를 속되게 이르는 말. [전역]
골항이 명 [노형 인성 서홍 김녕 조수] → 골째기.
골행이 명 [서홍 김녕] → 골째기.
골호로 부 골고루. [노형 조수 인성 수산] = 골로로.
골홈 명 [인성 화순 어도] → 곰[2].
골-홈 명 [노형 오라] → 구렁.
골흐다 동 [전역] → 곯다.
골히 명 고리(環). [전역] = 골이.
골히눈-이 명 <동> 고리눈-말(---馬). [전역] = 골이-물, 골히눈이-물, 골히-매. 고 골회눈이.
골히눈이-몰 명 <동> [서홍] → 골히눈-이.
골히-매 명 <동> [화순 하원] → 골히눈-이.
곪다 동 곪다. [전역]
곯다 동 곯다. 그릇에 가득 차지 않고 비다. ＊무사 이 쏠구덕 곯으니?(왜 이 '쌀구덕'이 곯지?) [전역] = 골흐다.
곯작-ᄒᆞ다 형 ① 그릇 따위에 담긴 물건이 가득 차지 아니하여 조금 비어 있다. ＊뒈가 너미 곯작ᄒᆞ연 쏠을 더 놔사 뒈컨게.(되가 너무 곯아서 쌀을 더 넣어야 할 것 같아.) [전역] ② 먹은 것이 양에 모자라 배가 부르지 아니하다. ＊느 베가 곯작ᄒᆞ게 밥 하영 먹어사키여.(너 배가 곯은 게 밥을 많이 먹어야겠어.) [전역]
곯직-ᄒᆞ다 형 골막-하다. [전역] = 골막-ᄒᆞ다, 골찍-ᄒᆞ다.
곰[1] 명 <동> 곰(熊). [전역]
곰[2] 명 고름. '옷고름'의 준말. [전역] = 골롬, 골홈.
곰곰 부 곰곰. ＊가거들랑 곰곰 셍각ᄒᆞ여 보라.(가거든 곰곰 생각하여 보아라.) [전역] = 곰곰-이.
곰곰-이 부 [전역] → 곰곰.
곰곰-ᄒᆞ다 형 뜸-하다. [전역]
곰-널 명 <도> 닻을 세 겹으로 꼴 때 쓰는, 구멍이 세 개 난 널판자. [금릉]
곰-돌 명 <도> 소에게 밭갈이를 훈련시키기 위하여 쟁기 대신에 묶어서 사용하는 돌덩이. [전역]



곰돌

곰-박 명 <도> 국자 모양으로 만들되 우묵한 바닥에 구멍을 숭숭 뚫어서 물에 삶은 떡 따위를 건지는 데 쓰는 조리 기구. [전역] = 곰-팍.



곰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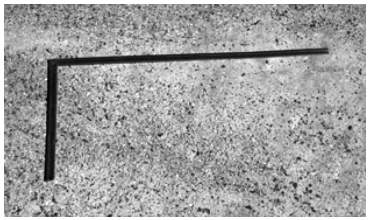
곰박-눈 명 <민> '곰박' 같은 눈. [전역]
곰배 명 <도> [전역] → 곰베.
곰베 명 <도> 곰방-메. [전역] = 곰배.



곰베

곰베-발 명 <민> '곰베' 같은 발. [전역]
곰베-씨 명 <농> 씨앗을 뿌리고 나서 곰방메로만 복토(覆土)하는 파종법. 띠밭이나 꼴밭을 이기고 나서 첫 해에 이루어지는 파종법. [도련]
곰베질 소리 명 <요> 곰방메로 밭의 흙덩이를 깨뜨리면서 부르는 민요. [전역] = 흑벙에 두드리는 소리.
곰생이 명 [전역] → 곰셍이.
곰생이-돋다 동 [전역] → 곰-피다.
곰생이-피다 동 [전역] → 곰-피다.
곰셍이 명 곰팡-이. [전역] = 곰생이, 곰펭이.
곰셍이-돋다 동 [전역] → 곰-피다.
곰셍이-피다 동 [전역] → 곰-피다.
곰수기 명 <동> 돌-고래. [전역]
곰작-곰작 부 곰작-곰작. [전역]
곰-팍 명 <도> [수산] → 곰-박.
곰펭이 명 [인성 조수] → 곰셍이.
곰-피다 동 곰-피다. *곰핀 떡일랑 먹지 말라.(곰핀 떡이랑 먹지 마라.) [전역] = 곰생이-돋다, 곰생이-피다, 곰셍이-돋다, 곰셍이-피다.
곱[1] 명 곱절(倍). [전역] 고 곱.
곱[2] 명 [태흥 표선 수산 세화 조천] → 쉐-콥.
곱[3] 명 겹. *속곳은 강알이 질 헐주기게. 경ᄒᆞ난 두 곱으로 ᄒᆞ영 ᄆᆞᆯ랑그네 멘드는 거라.(속곳은 사타구니가 제일 닳아지지. 그렇게 하니까 두 겹으로 말아서 만드는 거야.) [이호]
곱-갈다 동 <농> 밭을 쉬게 함 없이 계속 이어가다. *비료 나기 전에는 거리왓 안에나 곱갈앗주.(비료가 나오기 전에는 거리밭 안에나 '곱갈았지'.) [중문]
곱-내 명 [수산 가시 김녕] → 콥-내.

곱다[1] 동 꼽다. [전역]
곱다[2] 동 [전역] → 숨다.
곱다[3] 형 곱다. ① 한 쪽으로 휘어져 있다. [전역] ② 신 것이나 찬 것을 먹은 뒤에 이뿌리가 저리다. [전역] ③ 몹시 차서 손가락이나 발가락에 감각이 없고 놀리기가 어렵다. [전역] = 굽다[3]. ㊟곱다.
곱다[4] 형 곱다. 보거나 듣거나 했을 때 아름다운 느낌이 나다. [전역]
곱닥-ᄒᆞ다 형 [전역] → 곱들락-ᄒᆞ다.
곱들락-ᄒᆞ다 형 아주 매끈하고 곱다. [전역] = 곱닥-ᄒᆞ다.
곱사리 명 [전역] → 꼽사리.
곱사리-찌다 동 [전역] → 꼽사리-찌다.
곱-새 명 [전역] → 등-곱새.
곱-새끼 명 해거리 없이 태어난 소의 새끼. [청수]
곱새-전복 명 전복의 암컷을 두고 달리 이르는 말. *늬네 곱새전복 헤연 이번 물찌에 ᄉᆞ망일키여.(너희 '곱새전복'해서 이번 물때에는 이익 많이 얻겠다.) [도두]
곱-소리 명 <동> 위로 우뚝하게 등뼈가 내밀어 고부라진 말(馬). [인성하원 서홍 표선 화순] = 곱-수리.
곱-수리 명 <동> [조천 조수 노형] → 곱-소리.
곱-숨비다 동 <어> 해녀가 무자맥질했다가 해산물을 못 캐고 이내 수면으로 나오자마자 호흡을 조절해서 얼른 해산물을 캐러 다시 무자맥질하다. [전역]
곱실-레기 명 머리카락이 곱슬곱슬한 사람. [노형 오라]
곱은-개 명 <지> 제주시 도두1동에 있는 포구. [전역] = 굽은-개.
곱은-다리 명 <지> 제주시 조천읍 대흘2리 본동의 옛 이름. [조천] = 고분-동, 곡월-동, 곱은-달.
곱은-달 명 <지> [조천] → 곱은-다리.
곱은-도리 명 <건> 양끝이 아래로 휘어진 도리. [전역]
곱은-오몽 명 몸을 자주 움직이는 행동. 부지런한 동작. *경 곱은오몽 안 ᄒᆞ영 살아지크라?(그렇게 몸을 움직이지 않고 살 수 있겠니?) [전역]
곱은오몽-ᄒᆞ다 동 몸을 움직이면서 자잘한 일을 하다. [전역]
곱은-자 명 <도> 곱-자. 직각을 표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ㄱ자 모양의 자. [전역]


곱은자

곱을-내기 명 숨바꼭-질. [전역] = 고봄-재기, 곱을-락, 곱음-재기.
곱을-락 명 [전역] → 곱을-내기.
곱을락-ᄒᆞ다 동 숨바꼭질-하다. [전역]
곱음-재기 명 [노형 조수] → 곱을-내기.
곱이 명 굽이. [전역]
곱이-지다 동 굽이-지다. [전역]
곱작-싸다 동 소가 담을 넘는 것을 막으려고 소의 머리와 앞발을 줄로 묶

다. [대흘]

곱재기 명 [가시 김녕] → 눈-곱제기.

곱절 명 갑절. 배(倍). [전역]

곱-제우다 형 호강에 겹다. ＊곱제우민 가난흔 때 생각 잊어분다.(호강에 겨우면 가난했을 때 생각을 잊어버린다.) [전역] = 곱-젭다, 콥-제우다, 콥-젭다.

곱-젭다 형 [전역] → 곱-제우다.

곱지기 명 [노형 오라 삼양] → 곱질라기.

곱지다 동 [전역] → 숨기다.

곱질라기 명 풍계-묻이. 아이들이 물건을 숨기고 찾아내고 하는 장난. [전역] = 곱지기, 곱질락.

곱질락 명 [전역] → 곱질라기.

곱-좁다 동 겹으로 접다. 배로 겹치다. ＊곱좁앙 주어사 질긴다.(겹쳐서 기워야 질기다.) [전역]

곱-치다 동 곱-치다. [전역]

곳 명 [전역] → 고장[1].

곳곳곳 감 강아지를 부르는 소리. [전역]

곳다 형 곱다. 추위에 손이나 발이 얼어서 감각이 없고 놀리기가 어렵다. ＊인간 백성덜이 낮읜 줏아 죽곡 밤읜 곳아 죽곡.(인간 백성들이 낮에는 뜨거워서 죽고 밤에는 얼어서 죽고.) [전역]

곳-밧 명 [노형] → 곶-밧.

곳-불 명 꽃-불(-火). [전역] = 꼿-불.

공거릿-질 명 <민> 갈림-길. [온평]

공-것 명 공-것. 힘이나 돈을 들이지 않고 얻은 물건. [전역]

공글-공글 부 ① 작은 배 따위가 물 위에 떠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모양. 물건이 상하좌우로 흔들거리는 모양. ＊우럿담이 공글공글.(울담이 흔들흔들.) [전역] = 공끌-공끌, 꽁글-꽁글.

공기 명 공기. 아이들의 놀이의 한 가지. 다섯 개의 밤톨 같은 돌을 땅바닥에 놓고 집고 받는 놀이. [전역] = 꽁기.

공-꺼 명 공짜. ＊(속) 공꺼옌 ᄒᆞ민 눈도 벌경 코도 벌경.(공짜라고 하면 눈도 벌겋고 코도 벌겋고. 지나치게 공짜를 좋아하는 얄궂은 심성을 비꼬는 말.) [전역]

공끌-공끌 부 [전역] → 공글-공글.

공-다리 명 ① 어떤 직권(職權)을 부리거나 하여 백성을 못견디게 구는 관원(官員) 따위를 간접으로 이르는 말. [전역] ② 애를 붙잡아 가거나 무섭게 구는 사람. 어린애가 울 때에 그 울음을 그치게 하기 위하여 빗대어 이르는 말. [전역]

공-닷 명 <도> 상어잡이용 그물에서 그물이 떠 흘러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커다란 돌덩이에 묶어 두는 닻. [전역]

공-들다 동 공-들다. [전역]

공부(工夫) 명 공부. [전역] = 공븨.

공븨 명 [전역] → 공부.

공-사위 명 <동> [김녕] → 늬껍-새위.

공상 명 마소의 키의 높이. [전역]

공선-가선 명 <민> 굿에서 연유를 고하기 전에 하는 상투적인 표현의 사설. [전역] = 공신-가신.

공-세미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2리의 옛 이름. [남원]

공세밋-개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2리 포구의 옛 이름. [남원] = 공천-포.

공손(恭遜) 명 공손. 예의가 바르고 겸손함. [전역]

공손-이 부 공손-히. [전역]

공손-ᄒᆞ다 형 공손-하다. [전역]

공수 명 [광령] → 가옥.

공시-갈림 명 <민> 신굿의 막바지에 나란히 모시던 '안팟공시'를 따로 나누어 놓는 일. [전역]

공시-대풀이 명 <민> [전역] → 공시-풀이.

공시-풀이 명 <민> 모든 굿에서 신(神)들을 청해 축원한 뒤에, 무격(巫覡)의 사령(死灵)들을 청해 들여 대접하는 제차(祭次). [전역] = 공시-대풀이.

공신-가신 명 <민> [전역] → 공선-가선.

공싯-상 명 <민> 굿을 할 때 축원 대상신(對象神)의 제상(祭床) 앞에 무격(巫覡)의 수호신을 위하여 차려 놓은 작은 제상. [전역]

공연-시리 부 공연-스레. [전역]

공일(空日) 명 공일. *우리 클 때사 공일도 엇이 일만 일만 헷주.(우리 자랄 때는 공일도 없이 일만 일만 하였지.) [전역] = 공일-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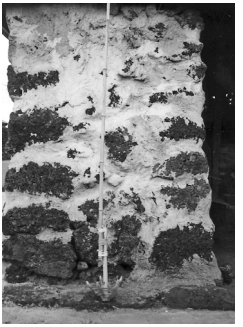
공일-날 명 [전역] → 공일(空日).

공장[1] 명 나뭇가지나 대 등으로 가늘고 끝이 뾰족하게 만들어서 방 안의 벽 같은 데에 박아서 옷이나 물건을 거는 데 쓰는 걸이의 한 가지. *공장에 걸어진 갈점벵이 이레 ᄀᆞ져오라.('공장'에 걸린 '갈점뱅이' 이리로 가져오너라.) [전역]

공장(工場)[2] 명 공장. [전역]

공쟁이[1] 명 ① 걸이. 씨름에서 상대방의 다리를 거는 기술. *공쟁일 걸어부난 넘어졌저.(다리를 걸어 버리니까 넘어졌다.) [전역] ② 생-트집. *ᄀᆞ만이 신 사름 공쟁일 걸엉 못 준디게 ᄒᆞᆫ다.(가만히 있는 사람 생트집을 잡아서 못 견디게 한다.) [전역]

공쟁이[2] 명 <도> 바람에 떠밀려 온 거름용 해초(海草)를 건져 올리는 갈퀴 비슷한 도구. [우도]



공쟁이[2]

공쟁이-걸다 동 ① 다리를 걸다. [전역] ② 생트집-하다. [전역]

공정 명 <음> 장사를 지낼 때 역사(役事)에 특별히 수고한 사람에게 그 대가로 보내는 떡. [전역]

공정-받다 동 장례 때 도와준 공 갚음의 사례를 받다. *관 짜난 목쉰 삼년상 냉길 때마다 공정받나.(관을 짰던 목수는 삼년상을 넘길 때마다 사례를 받는다.) [전역]

공졩이 명 <동> [서홍 남원] → 공중이.

공중이 명 <동> 귀뚜라미(蟋蟀). [전

역] = 공젱이, 공쒱이-말축, 공줭이. ㊟귓돌암.



공중이

공쒱이-말축 명 <동> [표선 수산] → 공중이.

공줭이 명 <동> [전역] → 공중이.

공-짇 명 <건> 벽장 위에 가로 건너지른 나무를 받치는 기둥. [노형 조수] = 공짇-기둥.

공짇-기둥 명 <건> [서홍 김녕] → 공-짇.

공ᄌᆞ 명 자위. 눈알이나 새 따위의 알에서 빛깔에 따라 구분된 부분. *그 사름 눈 공ᄌᆞ가 촘 묽아.(그 사람 눈 자위가 참 맑아.) [전역]

공ᄍᆞ(空-) 명 공짜. [전역]

공-채[1] 명 공-차(空車). 돈을 내지 아니하고 타는 차. [전역]

공-채[2] 명 공-채. 공을 치는 채의 총칭. [전역]

공책(空冊) 명 공책. [전역]

공천-포(貢泉浦) 명 <지> [남원] → 공세밋-개.

공-초새 명 공-치사(功致辭). [전역] = 공-치새.

공초-왓 명 <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ᄃᆞ레오름과 한데오름 사이에 있는 곰취밭. 공초(곰취)가 떼판으로 자라며, 옛날에 작은 마을이 있었음. [봉성 광평]

공초왓-동네 명 <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한 자연마을. [애월]

공-치새 명 [노형 오라] → 공-초새.

공치새-ᄒᆞ다 동 공치사-하다. [노형 오라]

공펭 명 공평(公平). [전역]

공훼-당 명 공회-당(公會堂). [전역]

공-ᄒᆞ다(空--) 형 공-하다. [전역]

곶[1] 명 서리(霜). *쉐터럭에 곶 피어 싱게.(소의 털에 서리가 피어 있네.) [저지]

곶[2] 명 숲. 산 밑의 숲이 우거진 곳. [전역] = 고지[1].

곶-감 명 [전역] → 곡-감.

곶-고사리 명 <식> '곶자왈'이나 음지에서 자라는 고사리. [전역]

곶-멀뤼 명 <식> [조수 인성 김녕 서홍 노형] → 산-멀뤼.

곶-밧 명 자연생 나무가 우거진 밭. *그때에는 기냥 곶밧으로 이신 때주.(그때에는 그냥 '곶밭'으로 있던 때이지.) [대정] = 곳-밧.

곶사비-낭 명 <식> 새비-나무 [전역]

곶-산 명 숲으로 덮인 산. [대정]

곶-쉐 명 ① 깊은 산속에서 방목하는 소. [전역] ② 야생의 소. *이젠 곶쉐 엇주양?(이제는 '곶쉐' 없지요?) [전역]

곶이 명 [노형] → 꼬쟁이.

곶-자왈 명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 *그 곶자왈 순 밀림 속이주만

그딜 가서 동산으로 맹글앗주기.(그 '곶자왈'은 완전히 밀림 속이지만 그곳에 가서 동산으로 만들었지.) [전역]

곶-쟁이 명 '곶'에서 방목(放牧) 중인 마소를 돌보는 일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사람. [구억] = 곶-지기.

곶-지기 명 [신평] → 곶-쟁이.

곶-질 명 산중(山中) 수풀 속으로 통한 길. [전역]

곶피니-오름 명 <지> [조천] → 궤펭이-오름.

과 조 과. [전역] → 광[2].

과글-과글 부 입에 물을 물고 세차게 굴릴 때 나는 소리. [전역]

과납 명 <지>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의 옛 이름. [전역]

과녁 명 과녁. [전역]

과닥 명 [수산 세화 조천 노형 조수 화순] → 가닥-질.

과닥-질 명 [어도] → 가닥-질.

과들랑-ᄒᆞ다 형 채소류 따위가 숨이 죽지 않아 뻣뻣하다. [전역]

과랑-과랑 부 볕이 쨍쨍하게 내리쬐는 모양. [전역]

과르르 부 꽈르르. [전역]

과부(寡婦) 명 과부. [전역]

과상 명 <음> [가시] → 과질.

과상-이 부 물체가 물기 없이 아주 잘 마른 모양. [전역] = 와상-이.

과상-ᄒᆞ다 형 습기가 없이 푸석푸석하다. *짇을컨 과상ᄒᆞ게 잘 몰랏어냐?(땔감은 '과상하게' 잘 말랐더냐?) [전역]

과양 명 <지> [전역] → 광양.

과양-당 명 <민> 광양-당(廣壤堂). 제주시 광양 지역, 지금의 삼성혈 동쪽에 있던 신당. 조선시대 사묘(祠廟)의 하나. [전역]

과양셍이-각시 명 <민> 차사본풀이에 등장하는 악인형 인물. [전역] = 과양셍이-지집년.

과양셍이-지집년 명 <민> [전역] → 과양셍이-각시.

과-오름 명 <지>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와 서귀포시 남원읍 사이에 가로누운 오름. 곽악삼태(郭岳三台)라 하여 세 봉우리로 이루어짐. 표고 155미터. [전역] = 곽-악(郭岳), 곽-오름, 말젯-오름[2].

과질 명 <음> 과줄. 밀가루로 네모지게 얇게 만든 떡을 기름에 튀긴 후 엿물을 발라 그 위에 튀밥 등의 고물을 붙여 만든 음식. *옛날은 소상ᄒᆞ젠 ᄒᆞ민 과질 미는 게 춤 힘들엇주.(옛날은 소상하려고 하면 과줄 미는 것이 참 힘들었지.) [노형 오라 용담] = 과상, 상-떡.

과짝 부 *홈피 대가리광 갈기 과짝 상 들어오는디.(함께 대가리와 갈기가 곧게 서서 들어오는데.) [전역] → 구짝.

과짝-안지다 동 [전역] → 고초-안지다.

과짝-ᄒᆞ다 형 곧다. [전역]

과-ᄒᆞ다(過--) 형 과-하다. [전역]

곽 명 성냥. [전역] = 성냥, 화곽.

곽곽-선성 명 <민> 곽박(郭璞) 선생. 동진(東晋)의 도가(道家). [전역]

곽산-삐 명 [김녕] → 독ᄆᆞ릅-꽝.

곽-살 명 성냥-개비. *체얌 곽살 나올 땐 수정 세영 갈랑 써낫주.(처음

성냥개비 나올 때는 개수로 세면서 갈라서 썼었지.) [전역]

곽-새 명 <동> 왜가리. [전역] = 왁-새.

곽-악(郭岳) 명 <지> [전역] → 과-오름.

곽-오름 명 <지> [전역] → 과-오름.

곽-집 명 [전역] → 성냥-곽.

곽향(藿香) 명 <식> 곽향. [인성 조수노형 가시] = 콱향.

관(棺) 명 관. [전역]

관관-새 명 <민> ① 마르고 마른 띠. [전역] ② 창고를 지키는 신. [전역] = 관관-이, 관광-셍이.

관관-이 명 <민> [전역] → 관관-새.

관광-셍이 명 <민> [전역] → 관관-새.

관-널 명 관판. 관(棺)을 만드는 데 쓰는 넓고 긴 널빤지. *관널은 보통 소낭으로 멘들주.(관판은 보통 소나무로 만들지.) [전역]

관덕정 앞 명 <요> 옛 정의현(旌義縣)의 도읍지였던 성읍에서 주로 전해지는 구성진 가락의 창민요. [성읍] = 신목사 타령.

관데-옷 명 <의> [가시] → 관듸-옷.

관-도(貫島) 명 <지> [서귀포 중문] → 성제-섬.

관-뒈 명 <도> 되. 일정한 규격에 맞게 만들어져서 공적으로 사용되는 되(升). [전역] = 관싕.

관듸-옷 명 <의> 관디. [전역] = 관데-옷.

관문(官門) 명 관문. *남펜네 옷ᄒᆞ연 입전 관문 불리레 가더라.(남편 옷을 만들어 입혀서 관청 나들이 가더라.) [전역]

관세우 명 <민> 굿이 여러 날 행해질 때 아침마다 신(神)들을 일어나게 하고 세수를 시키고 의관(衣冠)을 정제시킨다는 내용의 제차(祭次). [전역]

관세전-부인 명 <민> [김녕] → 객세-부인.

관싕 명 <도> [전역] → 관-뒈.

관-쒜 명 부러지기가 매우 쉬운, 강한 쇠(鐵). [전역]

관장-살이 명 벼슬-살이. [전역] *(속) 놈의 집광 관장살인 궤던 밥도 두엉 간다.(남의 집과 벼슬살이는 끓던 밥도 두고 간다.) [전역]

관장-폐(官長牌) 명 <민> 관장의 부신(符信). '적베지'(赤牌旨)를 달리 이르는 말. [전역]

관전-동네(官田--) 명 <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한 자연마을. [애월] = 중화-동(中和洞).

관전-밧(官田-) 명 관청 소유의 밭. [전역]

관제 명 <도> 넓미역 채취용인 '갈퀴'의 몸통인 '차'에 박힌 살을 단단히 묶는 끈. [우도]

관-죽(-竹) 명 <식> 9년 이상이 된 늙은 대나무. [도련]

관중 명 사람들이 비교적 많이 모여 사는 곳. [전역]

관탈-물질 명 <어> 관탈섬에서 이루어지는 해녀들의 물질. [도두]

관-판 명 관의 뚜껑. *이제란 그 관판 더꺼서 못을 주라.(이제는 그 관판을 덮어서 못을 박아라.) [노형]

괃작-안지다 동 [전역] → 고초-안지다.

괄괄-ᄒᆞ다 형 괄괄-하다. 성질이 세고

급하다. [전역]

괄다[1] 형 <농> 밭이 조금만 가물어도 쉬 말라 버리는 성질이 있다. *여긴 흙발이 괄아.(여기는 흙이 쉬 말라 버려.) [색달]

괄다[2] 형 ① 쇠 따위가 무르지 아니하다. [전역] ② 화력(火力)이 세다. [전역] ③ (목소리가) 크다. 주로 사람의 목소리가 큰 것을 못마땅하게 여길 때 사용된다. *저 사름은 목소리가 너무 괄안 귀 아프다.(저 사람은 목소리가 너무 커서 귀가 아프다.) [전역]

괄락-괄락 부 꿀꺽-꿀꺽. 액체를 삼킬 때 나는 소리. *물을 경 괄락괄락 먹지말라. ᄀᆞ끼켜.(물을 그렇게 꿀꺽꿀꺽 마시지 마라. 목에 갑시겠다.) [전역]

괄쎄 명 괄시. [전역]

광[1] 명 미치광-이. *조캐안티 가며는 문 광만 미쳔 오니 이거 이상ᄒᆞ다.(조카한테 가면 모두 미치광이만 되어 오니 이것 이상하다.) [노형]

광[2] 조 과. ① 받침 있는 명사나 대명사에 붙여서 같은 취지의 말을 여러 개 거듭할 때 쓰이는 열거격 조사. [전역] ② 둘 이상을 비교할 때 쓰이는 비교격 조사. [전역] ③ 함께 함을 나타내는 공동격 조사. *이 ᄀᆞᆺ디 오대현이가 그 사름광 의논홀랴고 들어갓어.(이 가(邊)에 오대현(吳大鉉)이 그 사람과 의논하려고 들어갔어.) [전역] = 콰.

-광 어미 -는지. 부정적인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어디 하영 썰엉 ᄆᆞᆯ릴 감저 이심광.(어디 많이 썰어서 말릴 고구마가 있는지.) [전역]

광난이 명 <병> 곽란. 음식이 체하여 토하고 설사하는 급성 위장병. [표선]

광녕이 명 <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1리의 옛 이름. [전역]

광도 조 과도. 여러 개를 비교할 때 쓰는 비교격 조사. [전역]

광둥이 명 <지> [전역] → 꽝둥이.

광렬-악(廣列岳) 명 <지> [연 노형] → 광이-오름.

광 미치다 구 정신이 이상하다. *이놈의 새끼, 어디 댕기단, 광 미쳤나?(이놈 어디 다니다가 정신이 이상해졌나?) [노형]

광양 명 <지>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 과양.

광어(廣魚) 명 <동> [전역] → 넙치[1].

광이 명 <도> 괭이. [전역] = 괭이[1].

광이랑 조 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서, 둘 이상의 체언을 같은 자리에 서게 함을 나타내는 격조사 '광'에, '은'의 뜻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격조사 '이랑'이 결합된 격조사. [전역]

광이-오름 명 <지> 제주시 연동 남짓은오름 남쪽에 잇닿은 오름. 서반부에 한라수목원이 들어서고 남록에 거슨세미라는 샘이 있음. 표고 267미터. [연 노형] = 간열-악(肝列岳), 광렬-악(廣列岳).

광절(狂-) 명 미치광이 노릇. [전역] *(속) ᄒᆞ던 광절도 돈 주켄 ᄒᆞ민 안ᄒᆞᆫ다.(하던 광질도 돈을 주겠다고 하면 안 한다.) [전역] = 광질.

광절 놀다 구 미치광이 노릇을 하다.

[전역]

광절-다리 명 미치광-이. [전역] = 광질-다리.

광절-들리다 동 광질(狂疾) 들리다. [전역] = 광질-들리다.

광정-당(廣靜堂) 명 <민>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지경에 있던 신당. [전역]

광정-밧 명 <지> 제주시 도두1동 서쪽에 있었던 자연마을. [전역]

광질 명 [전역] → 광절.

광질-다리 명 [전역] → 광절-다리.

광질-들리다 동 [전역] → 광절-들리다.

광청이-오름 명 <지> [서광 동광 구억] → 넙게-오름.

광태-구름 명 장마 뒤에 마파람을 타고 남쪽에서 북쪽으로 넘어가는 구름. ＊광태구름이 걷으민 장마도 걷는 법이주.('광태구름'이 걷히면 장마도 걷히는 법이지.) [성산 수산]

광통 명 <의> 아주 성기게 겯고 바닥이 아주 넓은 갓양태의 한 가지. [전역]

광해-악(廣蟹岳) 명 <지> [전역] → 넙게-오름.

괙괙 부 돼지가 지르는 소리. [전역]

괭이[1] 명 <도> [전역] → 광이.

괭이[2] 명 옹이. ① 나무의 몸에 박힌 가지의 그루터기. ② 굳은살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전역]

교사[1]**(校舍)** 명 교사. 학교의 건물. [전역]

교사[2]**(敎師)** 명 교사. [전역]

구갈-구갈 부 울걱-울걱. 입 안에 물을 머금고 볼을 움직여 내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전역] = 구글-구글.

구-감 명 해묵은 고구마. [전역]

구경 명 구경. [전역] = 귀경.

구경-꾼 명 구경-꾼. [전역]

구구짝 명 꿍꿍-이. 속으로 어림하는 일. ＊이 늙은이 게도 무신 구구짝은 잇어서.(이 늙은이가 그래도 무슨 꿍꿍이는 있어서.) [명월]

구그네 명 [노형] → 불그네.

구그네-오름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상동에 있는 낮은 오름. 모양이 '구그네'(고무래)처럼 생김. 표고 237미터. [전역] = 기시네-오름.

구글-구글 부 [전역] → 구갈-구갈.

구기 명 속으로 이리저리 궁리하는 일. ＊가만히 군수가 구기를 해 보니, 뒷우영에 멧 벡년 묵은 폭낭이 잇는디.(가만히 군수(郡守)가 속으로 궁리를 해 보니, 뒤쪽 텃밭에 몇 백년 묵은 팽나무가 있는데.) [명월]

구기다 동 구기다. 비벼서 구김살이 생기게 하다. [전역]

구기자-낭 명 <식> 구기자-나무. [전역]

구기-ᄒᆞ다 동 ① 구구-하다(九九--). [전역] ② 계략(計略)을 꾸미다. [전역]

-구나 어미 -구나. ＊동펜 하늘이 벌겅ᄒᆞᆫ 게 또 산불 놧구나.(동편 하늘이 벌건 것이 또 산불을 놓았구나.) [전역]

구남-동(九男洞) 명 <지>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구-낭 명 <식> [전역] → 굴-낭.

구녁 명 [조수 수산 김녕] → 고망.

구녁-치기 명 [전역] → 고망-치기[2].

구늉 명 궁흉(窮凶). 성질이 몹시 음침하고 흉악함. ＊그 사름 구늉이 직깍ᄒᆞᆫ 사름이라.(그 사람 궁흉이 가득한

사람이야.) [전역] = 군융, 궁흉.

구늉-다리 명 성질이 음침하고 흉악한 사람. [전역] = 군융-다리, 궁흉-다리.

구늉-부리다 동 음침하고 흉악한 성질을 부리다. *아방 엇덴 구늉부리지 말앙 어멍 말 잘 들엄시라.(아버지 없다고 궁흉부리지 말고 어머니 말 잘 듣고 있어라.) [전역] = 궁흉-부리다.

구덕 명 <도> 바구니. *요즘은 구덕도 잇지만 그땐 멩텡이 줄아 가지고서 동냥을 ᄒᆞ면서 빌어 먹엇어.(요즘은 바구니도 있지만 멱둥구미를 결어 가지고서 동냥을 하면서 빌어 먹었어.) *(속) 구젱기닥살 까먹으나 안 까먹으나 ᄒᆞᆫ 구덕.(소라껍질 까먹으나 안 까먹으나 한 바구니.) [전역]

구덕-삼승 명 <민> 아기구덕을 보호하는 삼신. [전역]

구덕-혼ᄉᆞ 명 유아기 때 부모끼리 약속한 혼사(婚事). [전역]

구덩이 명 [전역] → 구뎅이.

구뎅이 명 구덩이. [전역] = 구덩이.

구두리-악(九斗里岳) 명 <지> [전역] → 구두리-오름.

구두리-오름 명 <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의 경계에 있는 오름. 표고 517미터. [전역] = 구두리-악(九斗里岳), 구두-악(狗頭岳).

구두-악(狗頭岳) 명 <지> [전역] → 구두리-오름.

구두에기 명 <동> 구더기. *영등에 뿔레ᄒᆞ민 구두에기 인덴 ᄒᆞ메.(음력 2월에 빨래하면 구더기 인다고 하지.) [전역]

구둠 명 [전역] → 몬지.

구둠-받이 명 <도> [노형 조수 남원] → 쓰레-박.

구들 명 <건> 구들. ① '방구들'의 준말. [전역] ② 사람이 거처하기 위하여 구들을 놓고 불을 때게 만든 칸(間). [전역]

구들-구들 부 물고기가 잡힌 지 얼마 안 되어 싱싱한 모양. [전역]

구들-놓다 동 방-놓다. [전역]

구들-돌 명 구들-장. [전역]

구들-바닥 명 구들-바닥. 자리를 깔지 아니한 맨구들의 바닥. [전역]

구들-셋문 명 <건> [가시] → 지게-문.

구럼비 명 [성산] → 구룸비.

구럼비-낭 명 <식> [성산] → 구룸비-낭.

구렁 명 구렁. 땅이 움푹하게 팬 곳. [전역] = 골-홈, 구룽, 굴[3], 굴렁, 굴렁지, 굴렝이, 굴헝.

구렁곶-개 명 <지> 제주시 건입동 동대머들 북쪽 '구렁곶' 가까이에 있었던 포구. [전역]

구렁-대 명 [서홍 수산 가시 김녕] → 구리-대.

구렁-몰 명 <동> 구렁-말. [전역]

구렁이 명 <동> [전역] → 구렝이.

구렁-적다몰 명 <동> [태흥 표선 수산 세화 조천] → 구렁-적대몰.

구렁-적대몰 명 <동> 구렁-말. 털 빛깔이 밤색인 말. [조수 인성 화순] = 구렁-적다몰.

구렝이 명 <동> 구렁이. [전역] = 구렁이.

구령 명 [표선] → 고령.
구룸 명 구름(雲). [전역] = 구름[1].
구룸비 명 까마귀쪽나무의 열매. [전역] = 구럼비, 구름비.
구룸비-낭 명 <식> 까마귀-쪽나무. [인성 서홍 태흥 수산 표선 세화] = 구럼비-낭, 구룸폐기, 구룸푸기, 구름비-낭, 구린폐기, 부룸-폐기.
구룸폐기 명 <식> [전역] → 구룸비-낭.
구룸푸기 명 <식> [인성 조수] → 구룸비-낭.
구룽 명 [전역] → 구렁.
구름[1] 명 [전역] → 구룸.
구름[2] 명 <지> [아라] → 구-오름.
구름비 명 [전역] → 구룸비.
구름비-낭 명 <식> [전역] → 구룸비-낭.
구리다[1] 형 구리다. 똥냄새 따위와 같은 냄새가 나다. [전역]
구리다[2] 형 속이 들떠서 비어 있다. [전역]
구리-대 명 구릿-대. [조수 인성 노형] = 구렁-대, 수리-대[2].
구리-쉐 명 [전역] → 구리-쒜.
구리-쒜 명 구리(銅). [전역] = 구리-쉐.
구린-내 명 구린-내. *장 고려신가? 무사 영 구린내 남시니?(장이 고렸나? 왜 이리 구린내가 나니?) [전역] = 꾸렁-내.
구린-질 명 움푹하게 패인 길. [전역]
구린폐기 명 <식> [전역] → 구룸비-낭.
구마리 명 발-목. 다리와 발이 이어지는 관절 부위. *이젠 구마리 아팡 걷지 못ᄒᆞ키여.(이제는 발목이 아파서 걷지 못하겠어.) [전역] = 귀마리.
구마리-꽝 명 복사-뼈. [노형 조수 김녕] = 귀마리-꽝, 장귀-뻬. 고 귀머리.
구머릿-동네 명 <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한 자연마을. [애월] = 구몰니-동, 구몰-동, 구ᄆᆞ릿-동네.
구멍 명 [전역] → 고망.
구멩 명 장마가 진 때에 평지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곳. [인성 서홍 수산] = 구명.
구명 명 [인성 조수 서홍] → 구멩.
구명-논 명 <농> 장마 때에만 물이 솟아오르는 자리에 마련한 논. [건입]
구몰니-동(龜沒泥洞) 명 <지> [애월] → 구머릿-동네.
구몰-동(龜沒洞) 명 <지> [애월] → 구머릿-동네.
구물 명 그물(網). [전역]
구물다 동 ① 그 달의 날짜가 마지막 날에 가까워지다. 그물다(晦). [전역] ② 그 해가 거의 세밑에 가까워지다. [전역] 고 그몰다.
구물-코 명 그물-코(網-). [전역]
구뭄 명 그믐(晦). [전역] 고 그뭄.
구뭄-날 명 그믐-날. [전역]
구뭄-돌 명 그믐-달. [전역]
구믄젱이 명 <동> 능성어. [사계]
구믜 명 별빛이나 불빛이 아주 가리어지지 않고 틈으로 비치는 듯하는 곳. [전역]
구미(口味) 명 구미. [전역] = 귀미.
구미-악(狗尾岳) 명 <지> [전역] → 갯거리-오름[2].
구ᄆᆞ릿-동네 명 <지> [애월] → 구머릿-동네.
구박-구박 부 그저 시키는 대로 고스

란히 순종하는 모양. ＊그 사름 구박구박 시키는 일 잘ᄒᆞ여.(그 사람 구벅구벅 시키는 일 잘해.) [전역]

구박-ᄒᆞ다(驅迫--) 동 구박-하다. [전역]

구불 명 엉덩이의 위쪽 부분.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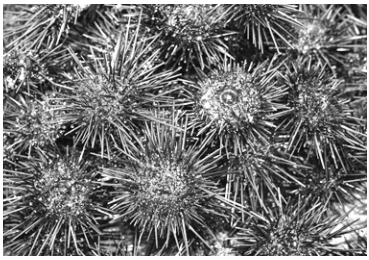
구불법구-체ᄉᆞ 명 <민> 어린아이를 잡아가는 차사(差使). [전역] = 노불업노노-체ᄉᆞ.

구불-짝 명 '구불'의 낮은말. [전역]

구사-산(狗死山) 명 <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와 구좌읍 동복리 경계에 있는 언덕. 표고 104미터. [전역] = 개죽은-산.

구산-봉(狗山峰 · 龜山峰) 명 <지> [전역] → 개-오름[4].

구살 명 <동> 성게. [전역]



구살

구살-골갱이 명 <도> 성게를 캘 때 사용하는 호미. [신도]

구살-보리 명 <식> 대맥(大麥)의 일종. 이삭은 짤막한 편이나 낟알은 빽빽이 박혀 있는 보리. [영평 대포]

구삼승-냄 명 <민> [전역] → 구삼싱-냄.

구-삼싱 명 <민> 저승에서 죽은 아기의 영혼을 관장하는 여신. 구삼생(舊三生). [전역] = 구천낭-할망, 구-할망, 저승-할망.

구삼싱-냄 명 <민> 구삼싱할망의 범접으로, 앓는 아이의 병을 치료하는 의례. [전역] = 구삼승-냄.

구상-낭 명 <식> 구상-나무. [전역]

구석 명 구석. [전역]

구석-당장 명 집안에 들어앉아 별로 밖에 나다니지 아니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전역] = 고망-당장, 구석-바치.

구석-바치 명 [노형 조수 인성] → 구석-당장.

구성-질 명 욕설(辱說)을 하는 일. [전역] = 구셍이-질.

구셍이 명 아가미. 물고기의 머리 양쪽에 몇 쌍으로 붉은 참빗 모양을 한 호흡기. [전역]

구셍이-질 명 [수산 김녕] → 구성-질.

구수 명 말의 나이의 아홉 살. [전역] = 구쉬.

구수-매 명 <동> 나이가 아홉 살이 된 말. [전역] = 구쉬-매.

구숭 명 자기에게 잘해 주지 않는다고 흉잡음. ＊각시가 집의 오란 하도 구숭을 ᄒᆞ니까 남펜이 나가 부럿지.(각시가 집에 와서 아주 '구숭'을 하니까 남편이 나가 버렸지.) ＊(속) 잘ᄒᆞ여도 ᄒᆞᆫ 구숭, 못ᄒᆞ여도 ᄒᆞᆫ 구숭.(잘하여도 한 흉, 못하여도 한 흉.) [전역] 고 구숑.

구숭-ᄒᆞ다 동 자기에게 잘해 주지 않는다고 흉잡다. [전역] = 구싱-ᄒᆞ다.

구쉬 명 [전역] → 구수.

구쉬-매 명 <동> [전역] → 구수-매.

구슬-독 명 <동> 털빛이 흰빛, 검붉은 빛들로 알롱달롱한 닭. [전역]
구슬-리다 동 달래다. [전역] = 구실-리다.
구시 명 <도> 구유(槽). [전역] 고구ㅅ시.



구시

구시다 형 구수-하다. [전역]
구시-베 명 마상이. [조수 인성 서홍 수산 가시]
구신 명 [김녕] → 귀신.
구실 명 구실. ① 온갖 세금. [전역] ② 자기가 하여야 할 의무. [전역]
구실동이-작저구리 명 <의> 구슬 끝동을 단 저고리. [전역]
구실동이-착치매 명 <의> 구슬 끝동을 단 치마. [전역]
구실-듬북 명 <식> 듬북의 일종. *구실듬북은 먼바당에 묾 나는 디 막 하. 구실듬북도 막 걸어.('구실듬북'은 먼바다에 모자반 나는 데에 아주 많아. '구실듬북'도 아주 길어.) [이호] = 구실-묾.
구실-리다 동 [전역] → 구슬-리다.
구실-묾 명 <식> [대포] → 구실-듬북.
구실할망-본풀이 명 <민> 구슬할망 신화. 나주 김씨(羅州金氏) 집안의 조상신인 '구실할망'에 대한 본풀이. [조천]
구실-ᄒᆞ다 동 천연두 치레를 하다. [전역]
구싱-ᄒᆞ다 동 [전역] → 구숭-ᄒᆞ다.
구아랑 명 <지> 제주시 오라3동의 한 자연마을. '중댕이굴' 위쪽(남쪽)에 있었던 마을. [전역]
구억-구억 부 구석-구석. [전역]
구에-무색 명 <민> 굿에 사용하는 물색의 일종. [전역]
구에-문 명 <민> ① 궁(宮)의 문. 여성 생식기. [전역] ② 9대문(九大門). [전역]
구엣-꼿 명 국화-꽃. *전싱 궂언 구월에 나난 구엣꼿이 내 벗이라라.(전생 궂어 구월에 나니 국화꽃이 내 벗이더라.) [전역]
구역징-나다(嘔逆---) 동 구역-나다. [전역]
구-오름 명 <지> 제주시 아라1동의 한 자연마을. [아라] = 구름, 구호름.
구완 명 구완. [전역]
구완-가름 명 <지> 제주시 내도동 '개눈못' 일대에 형성되었던 동네. [전역]
구완-ᄒᆞ다 동 구완-하다. [전역]
구인에-들다 동 귀인성이 있어 마음에 들다. [전역]
구일-하르방 명 <민>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본향당의 신명(神名). [한동]
구일-할망 명 <민>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본향당의 신명(神名). [한동]
구입(購入) 명 구입. 물건을 사들임. [전역]
-구장 어미 [전역] → -고저.
-구저 어미 [전역] → -고저.

-구정 어미 [전역] → -고저.
구젱기 명 <동> 소라(螺). *(속) 구젱기 똥 누레 가불민 게드레기가 츠지 흔다.(소라가 똥을 누러 가 버리면, 소라게가 차지한다.) [전역] = 구젱이.
구젱기-닥살 명 소라-딱지. [전역]
구젱이 명 <동> [전역] → 구젱기.
구중-동(九重洞) 명 <지> [전역] → 구중-동네.
구중-동네 명 <지> 제주시 일도2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 구중-동.
구짝 부 ① 곧장. 옆으로 빠지지 않고 곧바로. *이 길로 구짝 갑서.(이 길로 곧바로 가십시오.) [전역] ② 곧게. 굽거나 비뚤어지지 않고 똑바르게. *구짝 앚이라.(곧게 앉아라.) [전역] = 고짝, 곧작, 과짝, 구짱, 굳작.
구짱 부 *물 탄 가젼 오단 구짱 그 적굴을 떠나니깐.(말 타서 가지고 오다가 곧바로 그 적굴을 떠나니까.) [전역] → 구짝.
구천낭-차롱 명 <민> 구삼싱 신(神)에게 바치는 제물을 넣은 채롱. [전역]
구천낭-할망 명 <민> [전역] → 구-삼싱.
구체 명 창피. [전역]
구체-보다 동 [전역] → 귀체-보다.
구체-스럽다 형 창피-하다. [전역]
구침(灸鍼) 명 뜨거운 것으로 살을 뜨고 침을 주어서 병을 다스림. [전역]
구티여 부 구태여. [전역]
구-할망 명 <민> [전역] → 구-삼싱.
구-호름 명 <지> [아라] → 구-오름.
국 명 <음> 국(羹). [전역]
국-물 명 국-물. [전역]
국수 명 <음> 국수. [전역] = 국쉬, 국시.
국쉬 명 <음> [전역] → 국수.
국쉬-신 명 [서홍 태흥 노형 조수] → 뀀-신.
국시 명 <음> [전역] → 국수.
국-자 명 <도> 국-자. [전역] = 남-자.
국자-사둘 명 <도> 자리돔을 잡는 용도로 사용하는 그물. [애월 이호]
국-죽 명 <음> 국에 밥을 넣어 쑨 죽. [전역]
군-각시 명 [전역] → 굴룬-각시.
군-걸음 명 [전역] → 굴룬-걸음.
군-내 명 [전역] → 굴룬-내.
군데[1] 명 [세화 수산] → 당그네.
군데[2] 명 [수산] → 불그네.
군데-오름 명 <지> [성산] → 궁대-오름.
군-도깨질 명 도리깨로 마당질을 하기 전에 마당을 다지려고 하는 도리깨질. [송당]
군-똥구멍 명 오소리 항문(肛門) 위에 있는 취선(臭腺). [교래]
군랭잇-개 명 <지>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에 있는 포구. [전역] = 한-개[3], 항-개.
군-말 명 [전역] → 굴룬-말.
군-매 명 까닭 없이 맞는 매. [전역] = 굴룬-매.
군-메 명 <지>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와 서귀포시 예래동의 경계인 일주도로 남쪽에 있는 오름. 유사시대(有史時代)에 분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가외로 덧생긴 산이라 하

여 군메, 군산이라 함. 산 위의 암석에 자철광(磁鐵鑛)이 포함되어 있어 나침반에 영향을 줌. 표고 334.5미터. [전역] = 군-산, 굴메-오름.

군-문 명 <민> ① 신역(神域)의 경계에 있는 문. [전역] ② 신칼의 날이 마주 보는 점괘. [전역]

군문-기 명 <민> 굿을 할 때 대문 양쪽에 걸어 놓는, 신체(神體) 형상의 종이 장식. [전역] = 올렛-기.

군문-열림 명 <민> 신이 내리는 문을 여는 제차. [전역]

군-물 명 군-물. 물이나 죽 위에 따로 생기는 물. [전역]

군-ᄆᆞ음 명 군-마음. 쓸데없는 생각을 품은 마음. *너 군ᄆᆞ음 먹지 말앙 잘 모셔 가야 ᄒᆞ느니라.(너 군마음 먹지 말고 잘 모셔 가야 하느니라.) [전역]

군-버즘 명 <병> 마른-버짐(乾癬). [전역] = 군-버짐, 벡-버즘, 벳-버즘.

군-버짐 명 <병> [전역] → 군-버즘.

군벗 명 <동> 군부. 딱지-조개. *군벗은 훼 ᄒᆞ영도 먹어낫주기.(딱지조개는 회를 해서도 먹었었지.) [이호하귀] = 굼벗.



군벗

군-벵(軍兵) 명 <민> 전란에 죽은 잡혼귀. [전역]

군벵-질침(軍兵--) 명 <민> 전란에 죽은 잡혼귀를 대접하고 물리침. [전역]

군-병 명 <민> 상위의 신들을 호위하여 따라와서 집 바깥에서 기다리는 하위의 신. [전역]

군병-지사귐 명 <민> 군병을 대접하는 의례. [전역]

군-산(軍山) 명 <지> [안덕] → 군-메.

군-서방 명 [노형 조수 어도] → 셋-서방.

군-소리 명 [전역] → 굴룬-소리.

군수 명 <동> *군수엔 ᄒᆞᆫ 거 노리룽 ᄒᆞ고 메역 먹어부는 그거주게. 그건 안 먹어.(군소는 노르스름하고 미역을 먹어 버리는 그것이지. 그건 안 먹어.) [이호] → 굴멩이[2].

군-식구 명 [전역] → 굴룬-식귀.

군ᄉᆞ 명 일-꾼. 역-군. *새벨ᄀᆞ찌 군ᄉᆞ랑 앚정.(샛별같이 일꾼일랑 앉혀서.) [전역]

군웅 명 <민> 일가(一家) 내지 씨족의 수호신. [전역] = 군웅-일월, 군웅-제석, 일월, 일월-제석.

군웅-놀다 동 <민> 굿판에서 조상신을 흥겹게 해 주기 위하여 놀리다. *군웅놀 때도 특별히 그 군웅네신 또 더 놀곡.(군웅놀 때도 특별히 그 군웅들신 또 더 놀고.) [대정]

군웅-놀림 명 <민> 굿판에서 흥겨운 노래와 춤으로 조상신을 놀림. [전역]

군웅-만판 명 <민> 굿의 막바지에 흥겨운 노래와 춤으로 떠나는 조상신을 놀림. [전역]

군웅-본판 명 <민> 굿판에서 군웅의 내력을 노래하며 흥겹게 놀림. [전역]
군웅-석시 명 <민> [전역] → 석-살림.
군웅-일월(--日月) 명 <민> [전역] → 군웅.
군웅-제석 명 <민> [전역] → 군웅.
군융 명 [서홍 수산 김녕 가시] → 구늉.
군융-다리 명 [서홍 수산 김녕] → 구늉-다리.
군-음식 명 [전역] → 굴룬-음식.
군-일 명 군-일. *어떵 ᄒᆞ연 경 군일에 신경 썸시?(어째서 그렇게 군일에 신경 쓰고 있냐?) [전역]
군-입 명 군-입정. *군입 너무 놀리민 밥맛 엇인다.(자주 군음식을 먹으면 밥맛이 없어진다.) [전역]
군입-다시다 동 군입정-하다. ① 끼니 밖에 군음식을 먹다. [전역] ②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서 그냥 입을 다시다. *그 아기 군입다시는 거 보난 베 고픈 모냥이여.(그 아기가 군입정하는 걸 보니 배가 고픈 모양이야.) [전역]
군-지침 명 군-기침. *그 하르방이 아덜네 집의 갈 땐 꼭 군지침 ᄒᆞ멍 들어가주.(그 할아버지가 아들네 집에 갈 때는 꼭 군기침을 하면서 들어가지.) [전역]
군-채 명 <민> 북을 칠 때 원래 치지 않아도 되는 부분. [전역]
굳다[1] 동 굳다. [전역]
굳다[2] 형 굳다. [전역]
굳은-것 명 고정되거나 변함이 없는 일. [전역]
굳은-솔 명 굳은-살. *손에 굳은솔 하영 벡인 거 보난 고생 하영 혜신게.(손에 굳은살이 많이 박힌 걸 보니 고생 많이 했네.) [전역]
굳작 부 *이 길로 굳작 가민 어디 나옵니까?(이 길로 곧장 가면 어디가 나옵니까?) [전역] → 구짝.
굳작-ᄒᆞ다 형 ① 끝과 끝이 중간에서 굽지 않고 바르게 잇닿아 있다. *그 대낭 춤 굳작ᄒᆞ다.(그 대나무 참으로 곧다.) *그 숙대낭 위아래가 굳작ᄒᆞᆫ 게 재목감이라.(그 삼나무 위아래가 곧은 게 재목감이야.) [전역] ② 마음이 똑바르다. *그 사름 춤 굳작ᄒᆞᆫ 사름이라.(그 사람 참으로 곧은 사람이야.) [전역]
굳후다 동 재물을 헛되이 쓰지 않고 모으다. [전역]
굳힘 명 <어> 해녀들이 '테왁'을 마련하려고 박을 키우는 동안 종종 박을 주물러 주면서 딴딴하게 굳혀 주는 일. [가파도]
굴[1]**(窟)** 명 굴. [전역]
굴[2] 명 <동> [수산 가시] → 돌-굴.
굴[3] 명 ① 굽-이(曲). *검질 짓곡 굴늦인 밧딘 소리로 우경 간다.(김이 우거지고 굽이가 늘어진 밭은 노래로 우기며 간다.) [전역] ② 구렁. [전역] → 구렁.
굴[4] 명 [도두] → 금-똥.
굴-갓 명 <의> 중들이 쓰던 갓. 보통 대로 만들었고 모자 위가 둥글게 되어 있음. *요늠으 중늠들이 굴갓 쓰고 수백 멩이 ᄂᆞ려완 춤을 추고, 벨 걸 다 ᄒᆞ여.(요놈의 중놈들이 굴갓 쓰고 수백 명이 내려와서 춤을 추고,

별것을 다 해.) [어도]

굴거기-낭 명 <식> [조수] → 굴거리-낭.

굴거리-남 명 <식> [전역] → 굴거리-낭.

굴거리-낭 명 <식> 굴거리-나무. [전역] = 굴거기-낭, 굴거리-남, 굴게-낭, 굴궤-낭.

굴걱-거리다 동 울걱-거리다. [전역]

굴게-낭 명 <식> [인성 서홍] → 굴거리-낭.

굴궤-낭 명 <식> [서홍] → 굴거리-낭.

굴그락-굴그락 부 물 따위가 힘들게 목을 넘어가는 소리. [전역]

굴-낭 명 <식> 굴피-나무. [전역] = 구-낭.

굴다[1] 동 넣어 둔 것이 더러 없어지다. [전역]

굴다[2] 동 [전역] → 줄다[1].

굴뚝 명 [전역] → 굴툭.

굴뚝-부리다 동 [전역] → 굴툭-부리다.

굴랑-굴랑 부 물체가 착 달라붙지 않고 부풀어서 들썩이는 모양. [전역]

굴렁 명 [노형 조수 어도] → 구렁.

굴렁지 명 [서홍 태흥 수산 표선 세화 조천] → 구렁.

굴렁-지다 형 구렁-지다. *이 밧은 굴렁지엉 물 담아지키여.(이 밭은 구렁져서 물 몰려들겠다.) [전역] = 굴헝-지다.

굴레[1] 명 '입안'(口腔)을 조금 나쁘게 이르는 말. *나 물 굴레 ᄀᆞ득 먹엉 죽어나져시민 좋으키여.(나 물을 입안 가득 먹고 죽어졌으면 좋겠어.) [전역] 고 굴에.

굴레[2] 명 굴레(勒). [전역]

굴레-질 명 아주 추하게 말질하는 일. [전역]

굴렝이 명 [전역] → 구렁.

굴루이 부 원래의 것이 아니라 별도로. [전역]

굴룬- 두 군-. '쓸데없는'의 뜻을 표현하는 접두사. '덧붙은'의 뜻을 표현하는 접두사. [전역]

굴룬-각시 명 제 아내를 속여 가며 관계하는 내연의 여자. [전역] = 군-각시.

굴룬-걸음 명 쓸데없는 공연한 걸음. [전역] = 군-걸음.

굴룬-것 명 군-것. [전역]

굴룬-내 명 본래의 맛이 변하여 나는 좋지 아니한 냄새. [전역] = 군-내.

굴룬-말 명 군-말. [전역] = 군-말.

굴룬-매 명 [전역] → 군-매.

굴룬-물 명 군-물. 음식을 먹을 때 이외에 먹는 물. [전역]

굴룬-밥 명 군-밥. [전역]

굴룬-부름씨 명 군-심부름. [전역]

굴룬-불 명 군-불. 필요없이 때는 불. [전역]

굴룬-서방 명 [전역] → 셋-서방.

굴룬서방-질 명 남편이 아닌 남자와 내연의 관계를 맺는 일. [전역]

굴룬-소리 명 군-소리. [전역] = 군-소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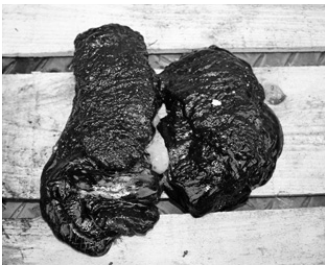
굴룬-손 명 쓸데없이 놀리는 손. [전역]

굴룬-손질 명 군-손질.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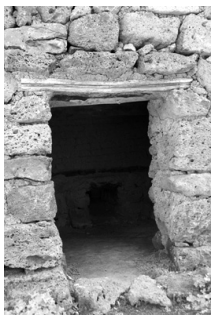
굴룬손질-ᄒᆞ다 동 군손질-하다. [전역]

굴룬-식귀 명 군-식구(-食口). [전역] = 군-식구.

굴룬-솔 명 군-살. [전역]
굴룬-오몽 명 쓸데없이 움직이는 행동. [전역]
굴룬오몽-ᄒᆞ다 동 쓸데없이 움직이거나 행동하다. [전역]
굴룬-욕 명 쓸데없는 욕. [전역]
굴룬-음식 명 군-음식. [전역] = 군-음식.
굴룬-일 명 군-일. [전역]
굴룬일-ᄒᆞ다 동 군일-하다. [전역]
굴른데 명 [가시] → 불그네.
굴메[1] 명 그네(鞦韆). [인성 서홍 가시수산 세화] = 개동개, 굼베, 궁글, 동개, 줄레[2].
굴메[2] 명 그림자(影). [전역] = 그림제. ㊟그르메.
굴메-오름 명 <지> [창천 하예] → 군-메.
굴메-지다 동 그림자가 생기다. [전역]
굴멩-이[1] 명 <도> 멱둥구미의 일종. [전역]
굴멩-이[2] 명 <동> 군소. 군솟과의 연체동물. ＊굴멩이 꺼멍ᄒᆞᆫ 거, 솖앙으네 먹으민 소라 맛이엔 ᄒᆞ여.(군소 꺼먼 것, 삶아서 먹으면 소라 맛이라고 해.) [이호] = 군수, 물-도새기, 물-토새기.


굴멩이[2]

굴명-물 명 <농> 비가 크게 쏟아질 때만 샘을 이룰 만큼 솟구치는 물. ＊으름에 굴명물이 나기 때문에 존 안 뒈어.(여름에 '굴명물'이 나기 때문에 조는 안 돼.) [중문]
굴목 명 <건> [전역] → 굴묵.
굴무기 명 <식> 느티-나무. [전역] = 굴무기-낭, 굴묵-낭, 느끼-낭, 니끼-낭.
굴무기-낭 명 <식> [전역] → 굴무기.
굴무기-발 명 느티나무의 뿌리. ＊굴무기발로도 신을 삼아낫주.(느티나무 뿌리로도 신을 삼았었지.) [봉성]
굴무기발-배 명 쟁기에 딸린 '부림패'나 '가린석'을 하려고 느티나무의 뿌리를 재료로 하여 만든 밧줄. [건입]
굴묵 명 <건> 구들방에 불을 때게 만든 아궁이 및 그 아궁이 바깥 부분. ＊나도 성님이영 ᄯᅳ라강 굴묵이라도 짇엉근에 얻어 먹쿠댄.(나도 형님과 함께 따라가서 '굴묵'이라도 때어서 얻어 먹겠다고.) [전역] = 굴목.


굴묵

굴묵-낭 명 <식> ＊성읍에 막 오래된 굴묵낭 싯주.(성읍리에 막 오래된 느티나무 있지.) [전역] → 굴무기.

굴묵-네 명 방을 땠을 때 방고래에서 나오는 연기. [전역]

굴묵-도 명 <건> 구들방 아궁이의 앞쪽 턱. [전역]

굴묵-어귀 명 <건> 구들방에 불을 때는 곳. [전역]

굴묵-짇다 동 구들방 아궁이에 불을 때다. *옛날사 쉐똥 ᄆᆞᆯ똥을 다 굴묵짇을 땔감으로 썻주.(옛날이야 소똥 말똥을 다 '굴묵짇을' 땔감으로 썼지.) [전역]

굴묵-하님질 명 온돌 아궁이에 불을 때는 하인으로서의 일. *여기서 굴묵하님질이라도 ᄒᆞ멍 살아져시민.(여기서 '굴묵하님질'이라도 하면서 살아졌으면.) [노형] = 굴묵-한님질.

굴묵-한님질 명 [노형] → 굴묵-하님질.

굴미굴-산 명 <민> 깊고 깊은 산 속에 있는 상상의 산. '노조방산', '아야산'과 함께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 [전역]

굴-배 명 [수산] → 부림-패.

굴-산(窟山) 명 <지> [인성 화순] → 산방-산.

굴왓-동네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2리에 있었던 자연마을. [남원] = 굴전-동(窟田洞).

굴전-동(窟田洞) 명 <지> [남원] → 굴왓-동네.

굴-중의 명 <의> 허리편에 주름이 잡히고 보통 중의보다 폭이 넓은 부녀들이 입는 중의. [전역]

굴첩 명 [인성 서홍] → 굴칩.

굴칩 명 허구리. [노형 수산 김녕 어도] = 굴첩.

굴툭 명 심통. 마땅치 않게 여기는 나쁜 마음. *굴툭 부리지 말앙 왕 밥 먹으라.(심통 부리지 말고 와서 밥 먹어라.) [전역] = 굴뚝.

굴툭-부리다 동 고집-부리다. 심술-부리다. [전역] = 굴뚝-부리다.

굴툭-쟁이 명 심술-쟁이. [전역]

굴-트다 동 들-뜨다. 단단한 데에 붙은 얇은 것이 떨어져 틈이 벌어지며 일어나다. *이 장판 굴텅 다시 볼라 사키여.(이 장판 들떠서 다시 발라야 되겠어.) [전역]

굴헝 명 [어도 조수 가시] → 구렁. 고 골헝.

굴헝-지 명 바닷속 바위의 구렁진 곳. *엉덕은 이거 엿등이며는 요 아레 굴헝지가 잇지 아녀?(엉덕은 이거 여의 등이면 요 아래 '굴헝지'가 있지 않은가?) [하도]

굴헝-지다 형 [전역] → 굴렁-지다.

굴흐네 명 [어도] → 불그네.

굴흔데 명 [조천] → 불그네.

굵다 형 [세화 어도] → 홁다.

굶다 동 굶다. [전역]

굶-주리다 동 굶-주리다. [전역]

굶-지다 동 굶-기다. [전역]

굼굼-ᄒᆞ다 형 궁금-하다. [노형 조수 인성] = 궁금-ᄒᆞ다.

굼기 명 [전역] → 고망.

굼-낭 명 <식> 꾸지-나무. [전역]

굼벗 명 <동> [전역] → 굳벗.

굼벙-쒜 명 [노형 수산] → 홍예-쒜.

굼벙이 명 <동> [전역] → 굼벵이.

굼베 명 [태흥] → 굴메[1].

굼벵이 명 <동> 굼벙이(蠐螬). [전역]

= 굼벙이.



굼벵이

굼벵이-쏠 명 알맹이가 실한 쌀. *나도 이처롬 굼벵이쏠 놓안 밥 ᄒᆞ는 거 먹으멍 살앗수다.(나도 이렇게 '굼벵이쌀' 넣어서 밥한 것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전역]

굼-부리 명 산 위에 우묵하게 팬 곳. 분화구(噴火口). [전역] = 움-부리.

굼불레기 명 [서홍] → 부글레기.

굼지락-거리다 동 굼지럭-거리다. *굼지락거리는 저 굼벵이 보라.(굼지럭거리는 저 굼벵이 봐라.) [전역]

굼지락-굼지락 부 굼지럭-굼지럭. *비 와나민 게우리가 굼지락굼지락 기엉 나오주.(비가 오고 나면 지렁이가 굼지럭굼지럭 기어서 나오지.) [전역]

굼틀-굼틀 부 굼틀-굼틀. [전역]

굽[1] 명 굽(蹄). [전역]

굽[2] 명 둥치. 나무의 밑동. [전역] = 굽-동, 굽-둥, 굽-둥이, 굽-둥치.

굽[3] 명 밑. [이호]

굽다[1] 동 굽다(燔). [전역]

굽다[2] 동 굽다. 한쪽으로 휘다. *풀은 안으로 굽나.(팔은 안으로 굽는다.) [전역]

굽다[3] 형 [전역] → 곱다[3].

굽돋은-접시 명 [전역] → 굽돋은-좁시.

굽돋은-좁시 명 굽-달이. [전역] = 굽돋은-접시.

굽-동 명 [전역] → 굽[2].

굽-둥 명 [전역] → 굽[2].

굽-둥이 명 [전역] → 굽[2].

굽-둥치 명 [전역] → 굽[2].

굽-뒈쓰다 동 밑바닥을 뒤집다. [전역]

굽-들이 부 심어진 나무나 세워진 기둥 따위의 밑동 뿌리 쪽까지. [전역]

굽-보다 동 [노형 조수] → 굽-털다.

굽-씨 명 [전역] → 알-씨.

굽억-일억 부 몸을 구부렸다 일으켰다 되풀이하면서. *굽억일억 쌍일이라라. 소리로나 이겨라 ᄒᆞᆫ다.(구부렸다 일으켰다 상일이더라. 소리로나 이겨라 한다.) [전역]

굽은-개 명 <지> [전역] → 곱은-개.

굽은-오름 명 <지>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신성동 북서쪽에 있는 오름. 표고 96미터. [고산 조수]

굽-털다 동 끝장을 보다. 밑천이 다 없어지다. [전역] = 굽-보다.

굽-히다 동 굽-히다. [전역]

굿[1] 명 굿. 무당이 하는 의식. [전역]

굿[2] 명 <농> 북. 속에 오이·호박 따위의 씨를 묻고 그를 중심으로 두두룩하게 흙을 모아 올린 것. [전역]

굿[3] 명 <농> 메밀을 점점이 파종할 때의 파종혈(播種穴). [행원]

굿가시-낭 명 <식> [서홍] → 쿳-낭.

굿거 명 [가시] → 귀신.

굿것 명 ① 잡귀(雜鬼). [명월] ② 제대로 사람 구실을 다할 수 없는 사

람을 낮추어 빗댄 말. ＊두 굿것덜 헤다 놩 어떵홀 말고?(두 '잡것'들 하여 놓고 어떻게 할 말인가?) [명월]

굿게 명 [가시 김녕] → 귀신.

굿-밧 명 <민> 굿-판. ＊인정 아정으네 굿밧듸랑 갑서.(인정 가지고서 굿판에는 가십시오.) [성산]

굿산-망(-山望) 명 <지> [회수 하원] → 개-오름[4].

굿산-봉(-山峰) 명 <지> 서귀포시 하원동에 있는 오름. 표고 170미터. [서귀포 중문]

굿-시리 명 <도> 굿청 제상(祭床)에 올릴 시루떡을 찌는 자그마한 시루. [전역]

굿-올리다 동 <농> 북-올리다. 오이·호박 따위의 밑동에 흙을 모아 올리다. [전역]

굿-ᄒᆞ다[1] 동 <민> 굿-하다. [전역]

굿-ᄒᆞ다[2] 동 부모가 잘못한 자식에게 정신 차리도록 욕을 하거나 때리다. [전역]

궁겡-이 명 <식> 궁궁-이. 산형과의 여러해살이풀. [전역] = 궁경-이, 궁궁-이, 궁궹-이.

궁경-이 명 <식> [조수] → 궁겡-이.

궁궁-이 명 <식> [태흥 표선 수산 조천] → 궁겡-이.

궁궹이 명 <동> [김녕] → 벵댕이.

궁그리다 동 흔들다. ＊정지 바닥드레 발을 퉁퉁 궁그려 가니.(부엌 바닥으로 발을 퉁퉁 흔들며 가니.) [표선]

궁근-팡 명 안정되지 못하고 흔들리는 넓적한 팡. ＊팔제 전싕 궂어랭 몸은 산짓물에도 궁근팡 ᄎᆞ지.(팔자 전생 궂다는 몸은 산지물에도 흔들리는 팡 차지.) [전역]

궁글 명 [조천] → 굴메[1].

궁글-거리다 동 기우뚱-거리다. [전역]

궁글-궁글 부 기우뚱-기우뚱. [전역]

궁글궁글-ᄒᆞ다 동 바닥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이리저리 기우뚱거리며 흔들리다. [전역]

궁글다 동 기우뚱-대다. 물건이 안정되지 못하고 흔들리다. ＊베가 하도 궁글언 수질께나 ᄒᆞ키여.(배가 하도 기우뚱거려서 멀미깨나 하겠다.) [전역]

궁글락-궁글락 부 바닥이 고정되어 있지 않아서 양쪽으로 기우뚱대며 흔들거리는 상태. [전역]

궁글락궁글락-ᄒᆞ다 동 '궁글궁글-ᄒᆞ다'보다 양쪽으로 더 기우뚱거리며 흔들거리다. [전역]

궁글리다 동 궁굴리다. 어떤 사물을 이리저리 굴리다. ＊아인 궁글리멍 키와사 ᄒᆞᆫ다.(아이는 궁굴리면서 키워야 한다.) [전역]

궁금-ᄒᆞ다 형 [서홍 김녕] → 굼굼-ᄒᆞ다.

궁긋-궁긋 부 작은 배 따위가 물 위에 떠서 몹시 흔들리는 모양. [전역] = 궁끌-궁끌.

궁긩-이 명 <식> [세화] → 궁겡-이.

궁기 명 [전역] → 고망.

궁끌-궁끌 부 [전역] → 궁긋-궁긋.

궁대-악(弓大岳 · 弓帶岳) 명 <지> [성산] → 궁대-오름.

궁대-오름 명 <지>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남케오름' 서쪽에 있는 오름. 표고 239미터. [전역] = 군데-오름,

궁대-악(弓大岳・弓帶岳).
궁뎅이 명 [전역] → 궁둥이.
궁둥-방에 명 엉덩-방아. [전역]
궁둥이 명 궁둥이. [전역] = 궁뎅이.
궁리-ᄒᆞ다 동 궁리-하다. [전역]
궁-산(弓山) 명 <지> [서귀포 중문] → 활-오름.
궁상(窮狀) 명 궁상. 어렵고 궁한 상태. [전역]
궁상-떨다 동 궁상-떨다. [전역] = 궁상-털다.
궁상-맞다 형 궁상-맞다. 초라하고 꾀죄죄하다. [전역]
궁상-스럽다 형 궁상-스럽다. [전역]
궁상-털다 동 *저 궁상터는 짓 죽지 전엔 못 고친다.(저 궁상떠는 짓 죽기 전에는 못 고친다.) [전역] → 궁상-떨다.
궁-예 명 <민> 궁녀(宮女). [전역]
궁적-소새 명 <식> 개-솔새. [인성 조수] = 물-지장.
궁전-궁납 명 <민> 무악기(巫樂器) 전체를 일컫는 말. [전역]
궁젓짓-갓 명 <민> 공작(孔雀)깃 갓. 공작의 깃털을 꽂아 장식한 갓으로 남자 심방이 씀. [전역]
궁텡-이 명 [전역] → 궁퉁-이.
궁퉁-이 명 셈. 궁리(窮理). *일홀 궁퉁이가 경 안 나냐?(일할 궁리가 그렇게 안 나더냐?) [전역] = 궁텡-이.
궁흉 명 [전역] → 구늉.
궁흉-다리 명 [노형 조수 인성] → 구늉-다리.
궁흉-부리다 동 [전역] → 구늉-부리다.
궂기다 동 궂기다. 일에 헤살이 들거나 장애가 생기어 잘되지 않다. [전역]
궂다 형 궂다. ① 언짢고 거칠다. [전역] ② 날씨가 나쁘다. [전역] ③ 맛이 달지 않다. [전역] ④ 마음 속이 곱지 못하다. [전역]
궂어-지다 동 등-지다. 서로 사이가 나빠지다. *이녁광은 궂어질 일이 엇인디 무사 영 궂어져신고?(자네와는 등질 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사이가 나빠졌는가?) [전역]
궂인끌-ᄒᆞ다 동 싫은 내색을 하다. [전역] = 궂인체-ᄒᆞ다.
궂인-날 명 궂은-날 [전역]
궂인-내 명 좋지 않은 냄새. *무사 영 궂인내 남신지 강 알아봉 오라.(왜 이렇게 '궂인내'가 나는지 가서 알아보고 오너라.) [전역]
궂인-물 명 ① 구정-물. *그릇 싯어 난 물랑 궂인물 항에 비우라.(그릇 씻었던 물은 구정물 항아리에 부어라.) [전역] ② 고름이 빠진 종기에서 흘러나오는 물. *허물에서 궂인 물이 나왐저.(종기에서 구정물이 나오고 있다.) [전역]
궂인물-통 명 ① 고여 있는 못. [전역] ② 먼지나 때가 섞여 있는 더러운 물. [전역] ③ 식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우물. [전역]
궂인물-항 명 구정물을 담는 항아리. [전역]
궂인-비 명 궂은-비. [전역]
궂인-사발 명 상-사발(常沙鉢). [전역]
궂인-새 명 <민> 사람에게 해로운 사악한 사기(邪氣). [전역]
궂인새-부뜨다 동 <민> 사람에게 잡귀

가 붙다. [전역]
궂인-쏠 명 궂은-쌀. [전역]
궂인-일 명 궂은-일. [전역]
궂인체-ᄒᆞ다 동 [전역] → 궂인꼴-ᄒᆞ다.
궂-지다 동 더럽-히다. [전역]
권메장 명 <민> [전역] → 추물-공연.
권작 명 땅-재주. [전역]
권제 명 권선지(勸善紙). [전역]
권제-삼문 명 중이 민간인 집집을 돌아다니며 부처께 올리기 위해 받는 쌀이나 금전 따위. [전역]
권제-오름 명 <지> [아라] → 곤제-오름.
권-ᄒᆞ다(勸--) 동 권-하다. [전역]
궐(闕) 명 궐. 무슨 일이나 모임에서 빠짐. *궐은 ᄒᆞ민 미움 받나.(궐은 하면 미움을 받는다.) [전역]
궐-깝(闕-) 명 일이나 모임에 빠졌을 때 내는 돈. [전역]
궐-꾼(闕-) 명 무슨 일이나 모임에 빠진 사람. [전역]
궐-나다(闕--) 동 궐-나다. [전역]
궐-역시(闕--) 명 궐역(闕役). 빠진 대가로 맡겨진 몫. *ᄆᆞ을일은 ᄒᆞ당 남으민 궐역시로 메꾼다.(마을일은 하다가 남으면 궐역으로 메운다.) [전역]
궐-ᄒᆞ다(闕--) 동 궐-하다. [전역]
궤[1](櫃) 명 궤. [전역]
궤[2] 명 위로 큰 바위나 절벽 따위로 가리워지고, 땅 속으로 깊숙하게 패어 들어간 굴. [전역]
궤[3] 명 <동> [서홍 수산 김녕] → 고넹이.
궤[4] 명 <민> 신당에 마련된 신의 거처. [전역]


궤[4]

궤기 명 고기(魚·肉). *(속) 털린 궤기가 커 뵌다.(놓친 고기가 커 보인다.) [전역] = 고기. 고 고기.
궤기-구덕 명 <도> 고기를 잡아 임시 보관하는 구덕. [전역]
궤기 나꼬는 소리 명 <요> 고기잡이하러 돛배를 타고 달릴 때 항해에 알맞은 바람이 불면 즐거워서 흥얼거리는 민요. [삼달]
궤기-덩어리 명 고깃-덩어리. [전역]
궤기-슬 명 [전역] → 낙싯-줄.
궤기-슬 명 <지> 제주시 용담1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궤기-잡이 명 고기-잡이. [전역] = 고기-잡이.
궤기-장시 명 고기-장수. [전역] = 고기-장시.
궤기-장ᄉᆞ 명 고기-장사. [전역] = 고기-장서.
궤기-적 명 <음> 고기를 꼬챙이로 꿴 산적(散炙). [전역]
궤깃-반 명 <음> 잔칫집이나 상가(喪家)에서 손님에게 대접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돼지고기와 순대 등을 쟁반 따위에 담아 놓은 음식. [전역] = 고깃-반.

궤깃-베 명 고깃-배. 물고기를 잡으러 타고 다니는 배. [전역] = 고깃-베.

궤깃-점 명 <음> 돼지고기나 쇠고기 따위를 작고 얇게 썰어 놓은 것. [전역] = 고깃-점.

궤농-설랑 명 <민> 무악기인 '대양'(징) 소리의 구음(口音). [전역]

궤눼깃-도 명 <민>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소재 '궤눼깃당'에 좌정한 신. [김녕]

궤다[1] 동 괴다. ① 밑을 받치어 안정시키다. [전역] ② 떡 같은 것을 그릇에 쌓아 올리다. [전역]

궤다[2] 동 괴다. ① 우묵한 곳에 물 따위가 모이다. [전역] ② 술·장 따위가 발효될 때 거품이 솟다. [전역]

궤다[3] 동 괴다. 특별히 귀엽게 사랑하다. *죽엉 가민 썩어질 궤기, 미정궤정 놈이나 궤라.(죽어서 가면 썩어질 고기(육신), 미운정 고운정 남이나 사랑해라.) [명월 어도] = 궤우다[2]. ㊟괴다.

궤다[4] 동 꾀다. 벌레 따위가 생겨서 뒤끓다. [전역]

궤다[5] 동 끓다(沸). 액체가 썩 뜨거워져서 부글부글 솟아오르다. [전역]

궤-뒈다 형 고-되다. [노형 조수 인성 김녕]

궤롭다 형 괴롭다. [전역] ㊟고롭다.

궤-머리 명 <도> 괴-머리. 물레의 왼쪽 가로대 끝 부분에 놓은 받침나무. [전역]

궤메니-동네 명 <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한 자연마을. [애월]

궤멩이 명 <동> [조수] → 코셍이.

궤물-오름 명 <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산간에 있는 오름. [애월] = 궤미-오름.

궤미-오름 명 <지> [애월] → 궤물-오름.

궤-보로미 명 <지> [전역] → 보로미[1].

궤불-낭 명 <식> 괴불-나무. [전역]

궤사름 명 <지> [도순 서귀포 중문] → 고사리-오름[2].

궤사리-오름[1] 명 <지> [고산 용수] → 고사리-오름[1].

궤사리-오름[2] 명 <지> [도순] → 고사리-오름[2].

궤살-미 명 <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의 일주도로 남쪽에 있는 오름. '궤'(고양이)가 사려 누운 모습이라고 함. 표고는 116.3미터. [전역] = 묘산-악(猫山岳), 묘산-오름.

궤-삼봉 명 특별히 귀엽게 사랑하는 일. [전역]

궤수웨 명 [인성] → 불-쏘시게.

궤수치-오름 명 <지>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왕이메 남서쪽에 있는 오름. 표고 559미터. ㊟ 궤수치. [광평]

궤씸-ᄒᆞ다 형 괘씸-하다. [전역]

궤애기 명 바구니에 물기 있는 물건을 넣어 질 때에, 그 바구니 밑에 까는 깔개. [전역] = 게와기.

궤약 명 고약(膏藥). [전역] = 고약.

궤약시 부 공연스레. *궤약시 잘못ᄒᆞ다.(공연스레 잘못하다.) [표선]

궤약-ᄒᆞ다 형 [전역] → 고약-ᄒᆞ다.

궤양 부 고이. [전역] = 고양.

궤양-궤양 부 '궤양'의 힘줌말. [전역]

궤여-오르다 동 괴어-오르다. [전역]

궤-오름 명 <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평화로 동쪽에 있는 오름. 표고 653미터. [전역]

궤우 명 ① 부부. *궤우 깝에도 걸민 궤우곡, ᄌᆞ식 깝에도 나민 ᄌᆞ식이여.(부부 값에도 맺으면 부부이고, 자식 값에도 낳으면 자식이네.) [전역] ② 애인. [전역]

궤우다[1] 동 ① 뜨거워져서 끓기 시작할 정도로 끓이다. [전역] ② 보리밥을 지을 때 보리쌀이 반쯤 익을 정도로 끓이다. [전역]

궤우다[2] 동 *아무 즘승이라도 궤와 두민 주인을 살리는 것도 시어.(아무 짐승이라도 사랑하여 두면 주인을 살리는 것도 있어.) *(속) 궤운 쿨 궤우젠 ᄒᆞ민 미운 쿨도 궤와진다.(좋은 풀 아끼려면 나쁜 풀도 아껴진다.) [전역] → 궤다[3].

궤우-잔잔 부 <민> 몹시 조용한 모양. [전역]

궤팡 명 <건> [노형 조수 인성 서홍 하원 어도 화순] → 고팡.

궤팡-문 명 <건> 고방(庫房)의 문(門).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고팡-문, 안방-문, 앙팡-문.

궤펭이-오름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간 경계에 있는 오름. 한라산 등반로 중 하나인 성판악 휴게소 바로 동쪽에 있는 오름. 표고 837미터. [전역] = 궨펭이-오름, 꼿피니-오름, 병악[2], 화발-악(花發岳).

권걸치아녀다 형 괜찮다. [전역]

권당 명 권당(眷黨). *(속) 권당은 옷우의 ᄇᆞ름.(권당은 옷 위의 바람.) *그 사름은 권당 일 잘 돌아본 덕에 베슬 헷주.(그 사람은 권당 일 잘 돌아본 덕에 벼슬을 했지.) [전역] = 친척(親戚).

권펭이-오름 명 <지> [전역] → 궤펭이-오름.

궵다 동 특별히 귀엽게 여기다. [노형 조수 인성]

궵시 명 [전역] → 걸명.

궷-낭 명 굄-목(-木). [전역]

궷낭-질 명 나무 막대기로 물건 밑을 받쳐서 드는 일. [전역]

궷-드르 명 <지> [조천] → 고평-동.

궷-머리 명 괴머리. [조수 노형]

궷-문[1] 명 <민> 신당에 마련된 신의 거처인 궤의 문. [전역]

궷-문[2] 명 궤의 문짝. [전역]

궷문-열림 명 <민> 당굿을 할 때 궤의 문을 여는 제차. [전역]

궷물-오름 명 <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에 있는 오름. 표고 597미터. [금덕]

궹이[1] 명 못. 사람이나 동물의 살가죽이 많이 스쳐 딴딴하게 된 자리. [전역] = 머-쿠쟁이, 멍-구젱이, 멍-구지, 멍-코지, 멍-쿠젱이.

궹이[2] 명 <도> 괭이.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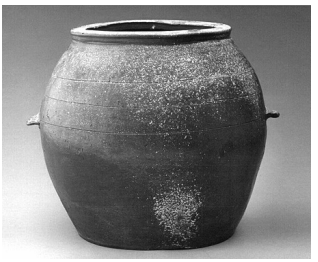
궹이-지다 동 굳은살이 생기다. 손바닥에 생긴 군살이 오래되어서 아주 단단해지다. [전역]

귀[1] 명 귀(耳). [전역]

귀[2] 명 모난 물건의 모서리. 두 직선의 한 끝이 서로 만나는 곳. [전역]

귀-거슬다 형 듣기에 거북하다. [전역]

귀경 명 [수산 인성] → 구경.
귀-곶추다 동 사물이나 현상을 딱 맞게 하다. 구색을 갖추다. *어려울 때난 귀곶추앙 살아져시냐?(어려울 때라서 모든 것을 갖추고 살았겠느냐?) *그 사름넨 부제칩이난 읏인 거 어시 다 귀곶추안 살암선게.(그 사람네는 부잣집이니까 없는 게 없이 다 갖추고 살고 있었어.) [전역]
귀-나다 동 귀-나다. [전역]
귀-낭 명 <식> [토평] → 쿳-낭.
귀넘어-듣다 동 귀넘어-듣다. [전역]
귀-느렝이 명 [노형 조수 인성] → 귀-옥젱이.
귀-뒈 명 모-되(方升). 네 모가 반듯하게 된 되. [전역]
귀-때기 명 [전역] → 귀-야다리.
귀-똥배기 명 [전역] → 귀-야다리.
귀-뚱베기 명 [전역] → 귀-야다리.
귀-뚱이 명 귀-밑. [전역]
귀-마구리[1] 명 [전역] → 귀-막젱이.
귀-마구리[2] 명 <식> 병들어 이삭이 나지 않은 조. [용담 조수]
귀-마리 명 [전역] → 구마리.
귀마리-꽝 명 [전역] → 구마리-꽝.
귀-막다 동 귀-먹다. [전역] = 귀-먹다.
귀-막쉬 명 [전역] → 귀-막젱이.
귀-막젱이 명 귀-머거리. [전역] = 귀-막쉬, 귀-마구리[1]. 고 귀먹어리.
귀-말 명 모-말(方斗). 곡식 따위를 되는 말의 하나. 네 모가 반듯함. [전역]
귀-망데기 명 귀가 달린 망데기. [전역]
귀-먹다 동 [노형 조수 김녕] → 귀-막다. 고 귀먹다.
귀미 명 [전역] → 구미.


귀망데기

귀신 명 귀신. *(속) 귀신도 빌믄 든나.(귀신도 빌면 들어준다.) [전역] = 구신, 굿거, 굿게, 귓것. 고 귓것.
귀-야다리 명 ① 귀퉁이. 귀의 언저리. [전역] ② 뺨. [전역] = 귀-야지[1], 귀-때기, 귀-똥배기, 귀-뚱베기.
귀-야덜 명 귓속에 난 부스럼. [조수]
귀-야지[1] 명 [전역] → 귀-야다리.
귀야지[2] 명 귀퉁이. 물건의 삐죽하게 나온 부분.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 귀예기.
귀약-통 명 화약-통. 화승총(火繩銃)의 화약을 담는 통. [용담]
귀양 명 귀양(謫). [전역]
귀양-내다 동 <민> [전역] → 귀양풀이-ᄒᆞ다.
귀양-다리 명 귀양을 온 사람. [전역]
귀양-풀이 명 <민> 사람이 죽어 장사를 치르고 난 뒤에 치르는 굿. [전역] = 원고양-신풀이.
귀양풀이-ᄒᆞ다 동 <민> 사람이 죽었을 때 저승으로 잘 가게끔 비는 굿을 하다. [전역] = 귀양-내다.
귀연이 명 노루의 목. [봉성] = 귀주연.
귀예기 명 [가시] → 귀야지[2].
귀-오개 명 <도> 귀-이개. [용담]

귀-옥제기 명 [김녕] → 귀-옥젱이.
귀-옥젱이 명 <동> 귀-느래. 귀가 늘어진 말. [전역] = 귀-느렝이, 귀-옥제기.
귀-이(貴-) 부 귀-히. [전역]
귀인(貴人) 명 귀인. [전역]
귀인닥사니-벗어지다 동 [전역] → 귀인-벗어지다.
귀인-데가리 명 '귀인성'의 낮은말. 귀여운 곳. *어찌야 미운지 귀인데가리가 ᄒᆞ나토 읏어.(어찌 미운지 귀여운 데 하나도 없어.) [전역] = 귀인-데강이.
귀인-데강이 명 [전역] → 귀인-데가리.
귀인-벗어지다 동 조금도 귀인성스러운 점이 없어지다. [전역] = 귀인닥사니-벗어지다.
귀인-성(貴人性) 명 귀인-성. 신분이나 지위가 높고 귀하게 될 타고난 바탕이나 성질. [전역] = 귀인닥사니-벗어지다.
귀인성-스럽다 형 귀인성-스럽다. [전역]
귀인-스럽다 형 귀인-스럽다. [전역]
귀인에-들다 동 귀인성이 있어 마음에 들다. [전역]
귀일 명 <지>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와 상귀리를 아울러 이르는 옛 이름. [전역]
귀일-개 명 <지>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포구 일대의 개를 이르는 옛 이름. [전역]
귀-자귀 명 <도> 날이 있는 쪽이 넓적한 자귀. [전역]
귀-자귀질 소리 명 <요> [전역] → 낭까끄는 자귀질 소리.
귀-자울이다 동 [전역] → 귀-지울이다.
귀작-ᄒᆞ다 형 [전역] → 게작-ᄒᆞ다.
귀-주어니 명 귓-바퀴. [노형 서홍 김녕 조수] = 귀-주어리. 고귓바회.
귀-주어리 명 [수산 가시] → 귀-주어니.
귀주연 명 [봉성] → 귀연이.
귀-주을이다 동 [전역] → 귀-지울이다.
귀-중을이다 동 [김녕 어도] → 귀-지울이다.
귀-지울이다 동 귀-기울이다. [전역] = 귀-자울이다, 귀-주을이다, 귀-중을이다.
귀-질기다 형 귀가 질기다. 재촉하거나 요구하는 말을 듣고서도 못 들은 체 끈덕지게 버티다. [전역]
귀찬-ᄒᆞ다 형 귀찮다. *너미 하난 귀찬ᄒᆞ다.(너무 많으니 귀찮다.) [전역]
귀-창 명 귀-청. 고막. [전역] 고귀청.
귀창-터지다 동 고막이 터지다. [전역]
귀천(貴賤) 명 귀천. [전역]
귀천-몰르다 형 [전역] → 귀천-엇다.
귀천-엇다 형 세상살이의 어려움을 모르거나 분수가 없다. *저 사름 저추룩 귀천엇은 중은 몰랏다.(저 사람 저렇게 '귀천없는' 줄은 몰랐다.) [전역] = 귀천-몰르다.
귀체-보다 동 창피-당하다. [전역] = 구체-보다.
귀치-아녀다 형 귀찮다. [전역] = 귀치-아니ᄒᆞ다.
귀치-아니ᄒᆞ다 형 [전역] → 귀치-아녀다.
귀클 명 <건> 귀틀. 마루를 놓기 위해 설치하는 중심되는 나무. *그때는

가시낭으로 마리에 귀클을 놧단 말이여.(그때는 가시나무로 마루에 귀틀을 놓았단 말이야.) [전역] = 귀틀.

귀-타지다 동 ① 바늘귀의 한쪽 끝이 떨어지다. [전역] ② 물건의 한쪽 모서리가 떨어지다. *귀타진 젭실랑 쓰지 말라.('귀타진' 접시는 쓰지 마라.) [전역]

귀-테우다 동 무슨 일을 알듯 말듯 하게 이야기해 주다. [노형 조수 인성 김녕]

귀퉁이 명 귀퉁이. 귀의 언저리. [어도 노형]

귀-트다 동 말을 알아듣고 헤아릴 만큼 되다. [전역]

귀틀 명 <건> [수산 가시] → 귀클.

귀-톤아지다 동 그릇의 테두리가 조금씩 깨져서 떨어지다. [전역] = 코-톤아지다.

귀-ᄒᆞ다(貴--) 형 귀-하다. [전역]

귄닥사니 벗어지다 구 상대방의 언행이 언짢게 느껴지다. [전역]

귓가시-낭 명 <식> [전역] → 쿳-낭.

귓것 명 [전역] → 귀신.

귓-고냥 명 [전역] → 귓-고망.

귓-고망 명 귓-구멍. [전역] = 귓-고냥, 귓-구녁. 고 귓구무.

귓-구녁 명 [전역] → 귓-고망.

귓-밋 명 귀청을 앓거나 할 때 귓구멍 속에서 나오는 즙액(汁液).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어도]

귓-바위 명 귓-전(耳-). [전역] 고 귓뎐.

귓-밥 명 귀-지. [전역] 고 귀여지.

귓-서미역 명 [조천 수산] → 귓-설메.

귓-설 명 [인성 화순 하원 태흥 표선] → 귓-설메.

귓-설메 명 정신이 흐리마리한 때 청각에 어뜩 들리는 듯한 경지. [어도 조수] = 귓-서미역, 귓-설, 귓-설미역.

귓-설미역 명 [서홍 태흥] → 귓-설메.

귓-자락 명 귓-불(耳垂). [전역] 고 귀어엿.

귤-남(橘-) 명 <식> [전역] → 귤-낭.

귤-낭(橘-) 명 <식> 귤-나무. [전역] = 귤-남.

그끄렁-내 명 ① 밥이 솥에 눌어붙어 타는 냄새. [전역] ② 짐승의 털 따위가 타는 냄새. *무시거 영 불 부쳔 콧구망에 찔르난에 하르방이 그끄렁내 남젠 ᄒᆞ여.(무슨 것 이렇게 불을 붙여서 콧구멍에 찌르니까 할아버지가 화독내 난다고 해.) [전역] = 끄렁-내.

그날-저날 부 날짜가 가는 대로 하루하루를 그리저리 적당히. [전역]

그냥 부 그냥. *걸 보난 그냥 속이 상헤라. 늘랑 그냥 이디 시라.(그것을 보니까 그냥 속이 상하더라. 너는 그대로 여기 있어라.) [전역] = 기냥.

그냥-저냥 부 그냥-저냥. [전역]

-그네 어미 -서. *집의서 삭망 지내고 아칙의 ᄌᆞ냑의 상식 올리곡 헤그네 곡ᄒᆞ지.(집에서 삭망을 지내고 아침에 저녁에 상식(上食)을 올리고 하여서 곡(哭)을 하지.) [전역] → -ㅇ근에.

-그넹에 어미 -서. 둘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를 말할 때, 앞에 나오는 용언 어간에 붙은 '-아·-어·-여·-

라'에 연결되어서, 장차 할 그 동작을 나타냄. *큰 방립, 써그넹에 상지ᄒᆞ영 어디 나댕기도 못ᄒᆞ곡.(큰 방립(方笠)을 써서 상(喪)을 지켜서 어디 나다니지도 못하고). *새끼덜을 산에 강 멕이다그넹에 어둑으민 다 몰앙 들어오주.(새끼들을 산에 가서 먹이다가 어두워지면 다 몰아서 들어오지.) [전역]

그눌르다 동 그느르다. 돌보고 보살펴 주다. *덕이 좋고 수덕 좋은 할마님 ᄌᆞ손 그눌롸 줍서.(덕이 좋고 수덕 좋은 할머님 자손 그늘러 주십시오.) [전역] = 그늘우다. 고그늘우다.

그늘 명 그늘(陰). [전역] 고ᄀᆞᄂᆞᆳ.

그늘-대 명 그늘-대. 주로 여름철에 밭일을 할 때, 그늘을 만들기 위하여 임시 간편하게 만든 볕 가리개. [서광] = 그늘-케.

그늘우다 동 [전역] → 그눌르다.

그늘-치다 동 그늘-지다. [전역]

그늘-케 명 [서광] → 그늘-대.

그-다지 부 그-다지. [전역]

그닥-그닥 부 끄덕-끄덕. 고개를 앞으로 꺾어 움직이는 모양. [전역]

그닥-이다 동 끄떡-이다. [전역]

그닷 부 그-다지. [전역] = 그덧.

그덧 부 [전역] → 그닷.

그득-이 부 그득-히. [전역]

그득-ᄒᆞ다 형 그득-하다. [전역]

그듸 대부 거기. ① 그곳. [전역] ② 그곳에. [전역] = 거기.

그뜩-ᄒᆞ다 형 그뜩-하다. [전역]

그랑-그랑 부 옷 따위가 가리가리 해어지거나 헝겊 조각 따위가 여럿 매달린 모양. [전역] = 가랑-가랑[2].

그럭-저럭 부 그럭-저럭. [전역]

그레 부 그리. 그곳으로. 그쪽으로. [전역]

그레기 명 <동> 기러기(雁). [하원 서홍 태흥 표선 수산 조천] = 기레기. 고긔려기.

그레-저레 부 그리-저리. [전역]

그렵다 형 [전역] → 기렵다.

그렁청-ᄒᆞ다 형 터무니-없다. [전역]

그로[1] 조 으로. 주로 '낭'(木) 따위 명사에 붙어서 쓰이는 사용격 조사. [전역]

그로[2] 조 으로. 주로 '박'(外) 따위 명사에 붙어서 쓰이는 방향격 조사. [전역] = 긔로.

그록-크르헤 명 [전역] → 그륵-크르헤.

그르[1] 명 그루(株). [전역]

그르[2] 명 농사를 지었던 자리. *감저는 보통 유월절 들어 보릿 그르에 싱그메.(고구마는 보통 유월절 들어 보리 갈았던 곳에 심지.) [전역]

그르치다 동 그르치다. [전역] = 그리치다. 고그릊다.

그르-팟 명 <농> 곡식을 거둔 뒤 한 번도 갈지 아니한 밭. [전역]

그르-헤 명 그러께(再昨年). [전역]

그르후제 명 뒷날의 어느 때. [전역] = 그지후제, 글지후제.

그륵-크르헤 명 그-끄러께. 재-재작년. 3년 전의 해. [전역] = 그록-크르헤.

그릇 명 그릇(器). [전역]

그릇-뒈다 동 그릇-되다. [전역]

그릇-밀다 동 유기(鍮器) 따위를 닦아

서 곱게 하다. [전역]

그리다[1] 동 그리다(慕). [전역] = 기리다. 고그리다.

그리다[2] 동 그리다(畵). [전역]

그리치다 동 [전역] → 그르치다.

그린-촐 명 일부러 씨앗을 뿌려 마련한 꼴. [하천]

그림 명 그림(畵). [전역] = 기림.

그림제 명 [전역] → 굴메[2].

그립다 형 [전역] → 기렵다.

그릿-그릿 부 군데군데 얼룩이 진 모양. [전역]

그만 부 그만. [전역]

그만이 부 그-만큼. *게난 그만이 골으난에, 따시 장항 벌러서?(그러니까 그만큼 말하니까, 다시 장독 깨뜨렸어?) [전역]

그만-이다 형 그만-이다. [전역]

그-메예 부 그만한 연령의 때에. [전역]

그물-막 명 <건> 바닷가에 자그마하게 지어 후릿그물을 쌓아 보관하던 초가. *멜 후릴 때 접원 수가 그물막 ᄒᆞ나에 이삼십 명 뒈주.(멸치 후릴 때 접원 수가 '그물막' 하나에 이삼십 명 되지.) [이호] = 그물-살랑, 그물-살레.

그물-살랑 명 <건> [하도] → 그물-막.

그물-살레 명 <건> [행원] → 그물-막.

그물-수대 명 <도> 망사리 안에 넣고 다니다가 오분자기, 전복 따위를 따로 넣어 두는 주머니. [전역]

그물-코ᄉᆞ 명 그물계에서 그 해의 풍어를 비는 제. [전역]

그뭇 명 [전역] → 금[2].

그뭇-긋다 동 [전역] → 금-긋다.

그뭇-나다 동 [전역] → 금-가다.

그발롸 부 바로. [전역]

그-세 명 그-새. '그사이'의 준말. [전역]

그스렁 명 [수산 어도] → 그슬먹.

그스렁독-새 명 <동> [노형 어도 조수 인성 하원 화순] → 고망독-새.

그스-리다 동 그슬-리다. [전역] = 그슬리다, 그시리다, 긔시리다, 기시리다. 고그스리다.

그스린-돗 명 <동> 도살하려고 털을 불에 그슬린 돼지. [전역] = 긔시린-돗.

그슨-대 명 <민> 컴컴한 밤에 지상(地上)에 한없이 큰 형상으로 나타나서 사람을 해친다는 혹독한 사귀. [어도 노형] = 그슨-새[2], 기신-새[2].

그슨-새[1] 명 지붕을 덮었던 묵은 띠(茅). [전역] = 그신-새[1], 기신-새[1].

그슨-새[2] 명 <민> [전역] → 그슨-대.

그슬귀 명 [김녕] → 그슬퀴.

그슬다 동 그슬다. [전역] = 기실다.

그슬-리다 동 [전역] → 그스-리다.

그슬먹 명 그을음(煙煤). [노형 조수 인성] = 그스렁, 그시렁, 그시렝이. 고그스름.

그슬퀴 명 <도> 끙게.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끄슬귀.

그시럼닥-새 명 <동> [노형 조수] → 고망독-새.

그시렁 명 [인성 서홍 김녕 가시] → 그슬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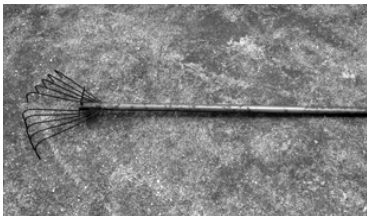
그시렁-내 명 [전역] → 끄시렁-내.

그시렝이 명 [조수 인성 서홍 노형] → 그슬먹.

그시-리다 동 [전역] → 그스-리다.

그신 명 기운. [전역] = 기신, 기실, 기운.
그신-새[1] 명 [전역] → 그슨-새[1].
그신-새[2] 명 [성읍 금성] → 그슨-대.
그-ᄉᆞ이 명 그-사이. [전역]
그-아의 명 그-아이. [전역] = 가의, 글미, 금미.
그영ᄒᆞ니 부 그러니. [전역]
그자[1] 부 거저. 공-으로. [전역] = 거저, 기자.
그자[2] 부 그저. ① 별로 다름없이. [전역] ② 그대로 줄곧. [전역] ③ 어쨌든지 무조건하고. [전역] = 긔자.
그자락 부 그렇게까지. 그 정도로. *게난 그자락 놀래언?(그러니까 그렇게까지 놀랐어?) [전역]
그자먹-기 명 거저먹-기. [전역]
그자-먹다 동 거저-먹다. [전역]
그자-촘 감 너무나 어이없을 적에 내는 소리. [전역]
그저께 명 [전역] → 그지게.
그적 명 [노형 조수] → 기적.
그전 명 그전. [전역] = 글진.
그정 명 [하원 서홍 노형] → 절벡.
그정-질 명 [인성 서홍] → 엉장-질.
그제-사 부 그제야. [전역]
그지게 명 그저께. [전역] = 그저끼, 긔지게. 고 고젓긔.
그지후제 명 [전역] → 그르후제.
그직-아시날 명 그-끄저께. [전역] 고 긋그적싀.
그직아시날-또아시날 명 '그끄저께'의 전날. [전역]
그짓-갈 명 [전역] → 거짓-말.
그짓-말 명 *(속) 그짓말도 웨삼춘보다 낫다.(거짓말도 외삼촌보다 낫다.) [전역] → 거짓-말.
그짓말-젱이 명 [전역] → 거짓말-젱이.
그차-가다 동 어떤 물체를 동강나게 가로 잘라서 가져가다. [전역]
그차-먹다 동 조금씩 끊어서 먹다. *그 애기 떡 그차먹는 거 보난 '곤쏠' 난 모냥이여.(그 아기 떡을 끊어 먹는 거 보니 젖니가 난 모양이다.) [전역]
그차-불다 동 끊어-버리다. [전역] = 끈어-불다.
그차-오다 동 어떤 물체를 끊어서 가져오다. [전역]
그차-지다 동 끊어-지다. *옷은 경 재게 그차지지 아녀는 거난.(옷은 그렇게 빨리 끊어지지 않는 것이니.) [전역]
그척 명 기척. [전역]
그치다[1] 동 그치다(止). [전역] = 끄치다[1].
그치다[2] 동 끊다(斷). [전역] = 끄치다[2], 끈다, 끈치다. 고 그치다.
극근-내 명 화독-내(火毒-). *정지 강 보라. 극근내 나는 거 보난 밥이 탄 셍이여.(부엌에 가 봐라. 화독내 나는 것을 보니 밥이 탄 모양이다.) [전역]
극락-산(極樂山) 명 <지> [전역] → 극락-오름.
극락-오름(極樂--) 명 <지>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와 금덕리의 경계에 있는 오름. 표고 314미터. [전역] = 극락-산(極樂山).
극베-잘리 명 <민> 마포(麻布) 자루. 삼베 자루. 중이 재미(齋米)를 얻어

넣는 자루. [전역] = 극보-잘리.
극보-잘리 명 <민> [전역] → 극베-잘리.
근 조 은. 주로 '낭'(木) 따위의 명사에 붙어서 쓰이는 목적격 조사. [전역]
근근-ᄒᆞ다 형 근근-하다. 연못 따위에 괸 물이 가득하다. [전역]
근다 동 ① 닭이 발톱으로 땅이나 널어 놓은 물건을 긁어 당기다. [전역] ② 갈퀴 따위로 널어진 검불을 긁어모으다. [전역]
근당-ᄒᆞ다 동 정해진 목표나 목적지에 가까이 이르다. *춧아가는 ᄆᆞ을이 근당ᄒᆞ여시난 쉬엇당 가게.(찾아가는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으니 쉬었다 가자.) [전역]
근대 명 <도> 두 개의 나무막대 틈에 벼 이삭을 끼워 탈곡하는 도구. [월평]
근데[1] 명 [표선] → 당그네.
근데[2] 명 [표선] → 불그네.
근메-알다 동 무슨 일이 어떻게 되어 가는가를 알다. [전역]
근수에-웃다 형 [노형 조수] → 근수-웃다.
근수-웃다 형 사람의 행동이 경솔하여 무게가 없다. [인성 수산 김녕 조수] = 근수에-웃다, 근쉬-웃다.
근쉬-웃다 형 [조수 인성] → 근수-웃다.
근심 명 근심. [전역]
근어-내다 동 그러-내다. [전역]
근어-담다 동 그러-담다. [전역]
근어-모도다 동 그러-모으다. [전역]
근지럽다 형 근지럽다. [전역]
근질-근질 부 근질-근질. [전역]
근처(近處) 명 근처. [전역] = 근체.
근체 명 [전역] → 근처.
글[1] 명 글. [전역]
글[2] 조 을. 주로 '낭'(木) 따위의 명사에 붙어서 쓰이는 목적격 조사. [전역]
글강-거리다 동 긁적긁적하는 소리를 내다. [전역] = 글그랑-거리다.
글강-글강 부 쥐가 이로 딴딴한 물건을 쏘는 소리. [전역]
글겡이[1] 명 <도> 글겅-이. 마소의 털을 빗기는 기구. [전역]
글겡이[2] 명 갈퀴. [전역]



글겡이[2]

글-궁긔 명 글-구멍. 글이 들어가는 머리 구멍이라는 뜻으로, 글을 잘 이해하는 지혜를 이르는 말. [전역]
글그랑-거리다 동 [전역] → 글강-거리다.
글근-글근 부 갉작-갉작. 날카롭고 뾰족한 끝으로 바닥이나 거죽을 자꾸 긁어 뜯는 모양. [전역]
글근-대다 동 근대다. ① 몹시 성가시게 하다. [전역] ② 남을 비웃고 놀리다. [전역] = 긁어-대다.
글-눈 명 글-눈. *글눈 어둑으민 지 이름제도 못 쓴다.(글눈 어두우면 제 이름자도 못 쓴다.) [전역]
-글랑 어미 -거든.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 조건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서월 올라가글랑 항상 멩심ᄒᆞ고 펜지도 ᄌᆞ주 ᄒᆞ라.(서울 올라가거든 항상 명심하고 편지도 자주 해라.) [전역]

글루다 형 [온평] → 걸-ᄒᆞ다.

글리역 명 <식> 수크령. 볏과의 여러해살이풀. *글리역으로 멕도 줄곡, 신도 삼곡 ᄒᆞ주.('글리역'으로 멱을 짜고, 짚신도 삼고 하지.) [건입] = 글히역.



글리역

글미 대 [수산 세화 조천] → 그-아의.

글-발 명 글-발. *핀지 쓴 거 보민 그 사름 글발 안다.(편지 쓴 거 보면 그 사람 글발 안다.) [전역]

글-방 명 [전역] → 글-청.

글-빙신 명 글을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을 속되게 일컫는 말. [전역]

글월-ᄒᆞ다 동 매매(賣買), 대차(貸借) 등을 성립시키는 문서를 작성하다. [전역]

글작 명 글을 쓴 종잇조각. *돗껭이 주제가 훅 ᄒᆞ더니 무슨 글작이 불려 오거든.(회오리바람이 일더니 무슨 '글작'이 불리어 오거든.) [노형]

글-전 명 그-전. [전역]

글제 명 [전역] → 글ᄌᆞ.

글-줄 명 글자가 배열된 줄. 학문이나 문자 해득의 정도를 평하는 말. *보긴 우수와 베도 글줄께나 아는 사름 닮아라.(보기는 우스워 보여도 글줄깨나 아는 사람 같더라.) [전역]

글지후제 명 [전역] → 그루후제.

글진 명 [전역] → 그전.

글ᄌᆞ 명 글자(字). [전역] = 글제.

글-청 명 글-방. 서당(書堂). *큰 아들이 머리 좋고 ᄒᆞ니까 멧 헤를 글청엘 보내엿지.(큰 아들이 머리가 좋고 하니까 몇 해를 서당에를 보냈지.) [전역] = 글-방.

글-체 명 본보기가 되는 글씨체. *처음 붓글 쓸 땐 글체 받앙 그대로 쓰는 연습을 ᄒᆞᆫ다.(처음 붓글씨를 쓸 때는 글체를 받아서 그대로 쓰는 연습을 한다.) [전역]

글투다 동 곁다. 암탉이 알을 낳으려고 그 자리를 찾으면서 골골 소리를 내다. [인성 서홍 조수]

글피 명 글피. [전역]

글히역 명 <식> [전역] → 글리역.

긁다 동 긁다(搔). [전역] 고 긁다.

긁어-대다 동 [수산 김녕 조수] → 글근-대다.

긁어-먹다 동 긁어-먹다. [전역]

긁어-모두다 동 긁어-모으다. [전역]

긁작-긁작 부 긁적-긁적. [전역] = 긁적-긁적.

긁적-긁적 부 [전역] → 긁작-긁작.

금[1] 명 금. 물건의 값. [전역] = 금지, 금세.

금[2] 명 금. ① 벌어지지는 않고 터지기

만 한 흔적. [전역] ② 줄을 친 자국. [전역] = 그믓.

금-가다 동 [전역] → 그믓-나다.

금강머들-솔정미 명 <민> 쌀을 빗대는 말. [전역]

금-긋다 동 금-긋다. [전역] = 그믓-긋다.

금기(禁忌) 명 금기. 꺼려서 금하는 것. [전역]

금기-ᄒᆞ다 동 금기-하다. 꺼려서 금하다. [전역]

금-깝 명 금-값. [전역]

금-나다 동 값-나다. [전역] → 금지-나다.

금-내다 동 금나게 하다. *금낸 사기그릇 깝 안 준다.(금을 낸 사기그릇은 값을 안 쳐 준다.) [전역]

금년(今年) 명 금년. [전역]

금년-내낭(今年--) 명 금년-내내. [전역]

금-대(禁-) 명 청명(淸明) 안팎에 꼴밭이나 띠밭의 돌담을 정비하고 나서 마소의 출입을 금하려고 밭 여기저기에 꽂아 놓은 대나무. [성산 수산]

금덕-봉(今德峰) 명 <지> [전역] → 검은덕이-오름.

금-덩어리 명 금-덩어리. [전역] = 금-뗑이.

금돗-막 명 [전역] → 순-막.

금등-막 명 [전역] → 순-막.

금-뗑이 명 [전역] → 금-덩어리.

금-똥 명 도두봉(道頭峰)에서 나는 구리. [도두] = 굴[4].

금마-벌석 명 <민> [전역] → 신-자리.

금미 대 [수산 세화 조천] → 그-아의.

금방(今方) 부 금방. [전역]

금-벡주 명 <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본향당의 신명. [전역] = 벡줏-도.

금-봉(金峰) 명 <지> [오라 노형 광령] → 족은드레-오름.

금-봉채 명 <민> 금-부채(金扇). [전역]

금-산[1](琴山) 명 <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와 대정읍 상모리의 경계, 바굼지오름 남서쪽에 잇닿은 오름. 표고 64미터. [상모 사계]

금-산[2](錦山) 명 <지> 제주시 애월읍 납읍리 남쪽에 있는 바위 언덕. 난대림이 우거져 예로부터 금산(禁山)으로 보호되어 왔으며, 금산 공원(公園)은 천연기념물 제182-4호로 지정되어 있음. 표고 95미터. [전역]

금새-진 명 <민> [전역] → 팔만금세-질.

금세 명 [전역] → 금[1].

금세-ᄒᆞ다 동 평가를 내리다. *어떵 초담이난 사름 금세ᄒᆞ여사 뒐 거 아니?(어떻게 처음이니 사람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니니?) [전역]

금승 명 하릅. 마소의 한 살. [전역]

금승-노리 명 한 살의 노루. *금승노리는 수컷이라도 뿔이 안 나주.(하릅노루는 수컷이라도 뿔이 안 나지.) [교래]

금승-몽생이 명 <동> [전역] → 금승-ᄆᆞᆼ셍이.

금승-몽셍이 명 <동> 하릅-망아지. 금년에 낳아서 한 살이 된 망아지. [전역] = 금승-ᄆᆞᆼ생이, 금승-ᄆᆞᆼ아지.

금승-몽아지 명 <동> [전역] → 금승-ᄆᆞᆼ셍이.

금승-송아지 명 <동> 하릅-송아지. 금년에 낳아서 한 살이 된 송아지. [전역] = 금승-송애기, 금싱-송애기.

금승-송애기 명 <동> [전역] → 금승-송아지.

금싱-송애기 명 <동> [전역] → 금승-송아지.

금-악[1](今岳) 명 <지> [전역] → 금-오름[1].

금-악[2](琴岳) 명 <지> [전역] → 검은-오름[3].

금악-담(今岳潭) 명 <지> 금오름의 화구호(火口湖). 화구의 둘레 약 1000미터, 깊이 58미터. [한림 금악]

금-오름[1] 명 <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중동 동쪽에 있는 오름. 위에 화구호가 있음. 표고 428미터. [전역] = 검은-오름[5], 금-악(今岳)[1].

금-오름[2] 명 <지> [전역] → 검은-오름[3].

금정-옥술발 명 <민> 요령(搖鈴). [전역] → 천앙낙훼-금정옥술발.

금-제비 명 <민> 제비. 제의(祭儀)는 집행하지 못하고 심부름만 하는 무격(巫覡). 복수는 금제비청. [전역]

금-조개 명 금처럼 귀중한 조개. *이 섬의도 금조개고 저 섬의는 은점복이라.(이 섬에도 '금조개'요 저 섬에는 '은전복'이라.) [전역]

금-죽(-竹) 명 1년생의 어린 대나무. 구덕의 테두리를 두르는 '바윗대'의 재료로 쓰임. [도련]

금-줄(禁-) 명 금-줄. 부정을 막기 위하여 대문 위쪽에 건너질러 매는 줄. [전역]

금지(禁止) 명 금지. [전역]

금지 명 [전역] → 금[1].

금지-나다 동 값-나다. [전역] = 금-나다, 금지-터지다.

금지-조르다 동 금새를 헐하게 하도록 보채다. [전역]

금지-치다 동 금새를 부르다. [전역] ㊟금치다.

금지-터지다 동 [전역] → 금지-나다.

금지-ᄒᆞ다(禁止--) 동 [전역] → 금-ᄒᆞ다.[2]

금착 부 덜컥. 깜짝. 갑자기 놀라거나 겁에 질려 가슴이 내려앉는 모양. *석돌 열흘 무쉐 불밀 불어도 금착 아녀.(석 달 열흘 무쇠 풀무를 불어도 덜컥 않아.) [전역]

금착-금착 부 깜짝-깜짝. 소마-소마. 자주 몹시 놀라는 모양. [전역] = 금칠락-금칠락.

금착-ᄒᆞ다 동 끔쩍-하다. 뜻밖의 일을 당하여 깜짝 놀라다. *무사 경 금착 헴시니?(왜 그리 깜짝 놀라니?) [전역] = 금칠락-ᄒᆞ다.

금천-동(錦泉洞) 명 <지> [애월] → 연리왓-동네.

금칠락-금칠락 부 *금칠락금칠락 놀래는 걸 보난 넉들여 줘사켜.(소마소마 놀라는 걸 보니 넋을 찾아 주어야겠어.) [전역] → 금착-금착.

금칠락-ᄒᆞ다 동 [전역] → 금착-ᄒᆞ다.

금-ᄒᆞ다[1] 동 금-하다. 가격을 정하다. [전역]

금-ᄒᆞ다[2](禁--) 동 금-하다. [전역] = 금지-ᄒᆞ다.

급박-ᄒᆞ다(急迫--) 형 급박-하다. [전역]

급벵 명 <병> 급병(急病). [전역] = 급빙.
급빙 명 <병> [전역] → 급벵.
급살(急煞) 명 급살. 갑자기 닥치는 재액. [전역]
급살-맞다 동 <민> 급살(急煞)을 맞다. *급살맞앙 죽엇젱 흔다.(급살을 맞아서 죽었다고 한다.) [전역]
급자기(急--) 부 급자기. [전역]
급작-시럽다 형 급작-스럽다. [전역]
급작-시리 부 급작-스레. [전역]
급전(急錢) 명 급전. 급하게 쓸 돈. [전역]
급절에 부 몹시 급한 김에. [전역]
급질(急疾) 명 <병> 급질. [전역]
급징 명 <병> 급증(急症). [전역]
급-히(急-) 부 급-히. [전역]
급-ᄒᆞ다(急--) 형 급-하다. *선싱 혼차 뎅기당 급ᄒᆞᆫ 빙이라도 걸리믄 누가 알아마씸?(선생 혼자 다니다가 급한 병이라도 걸리면 누가 압니까?) [전역]
긋 명 *뭐렝 골아도 긋이 좋아사 ᄒᆞ여.(뭐라 말해도 끝이 좋아야 해.) [전역] → 끗[2].
긋갱이 명 [전역] → 끄땡이.
긋다 동 긋다. 금이나 줄을 치다. [전역]
긍이 명 <동> [애월] → 깅이.
긍-파다 동 닭이나 꿩이 발톱으로 땅을 긁어 파다. [전역]
긔 조 에. '낭'(木), '박'(外) 등 명사에 붙어서 쓰이는 처소격 또는 향진격 조사. [전역]
긔로 조 으로. [전역] → 그로[2].
긔시리다 동 [전역] → 그스리다.
긔시린-돗 명 [전역] → 그스린-돗.
긔자 부 [전역] → 그자[2].
긔지게 명 [전역] → 그지게.
긘 조 엔. '낭'(木), '박'(外) 등 명사에 붙어서 쓰이는 처소격 또는 향진격 '긔'에, '-는'의 축약형 '-ㄴ'이 결합된 격조사. [전역]
기[1] 명 기(旗). [전역]
기[2] 명 기(氣). 기력·원기. [전역]
기[3] 명 <동> [조수] → 깅이.
기[4] 조 이. '낭'(木) 따위 명사에 붙어서 쓰이는 주격 조사. [전역]
-기 어미 -기.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그 말을 동작적인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 [전역] = -지[3].
기각-기각 부 문을 여닫을 때에 나는 소리. [전역]
기냥 부 [전역] → 그냥.
-기는 어미 -기는. 용언어간에 붙어서, 동사의 명사형을 만드는 어미 '-기'에, 무엇을 시정하여 제시하는 뜻을 나타내는 '-는'이 결합된 어미. [전역]
기다 동 기다. 엎드려 앞으로 나가다. [전역]
기동철리적송-베우기 명 <민> 닭. 약으로 쓰는 좋은 닭으로 가슴은 붉고 몸은 흰 닭. [전역] = 적송-비야기.
기드레기 명 <동> [인성 화순] → 게드레기.
기레기 명 <동> [인성 화순 세화 어도 노형] → 그레기.
기렵다 형 그립다. ① 보고 싶거나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죽언 저싱 강 물 기려우카부덴 물만 츳암수가?(죽어 저승 가서 물 그리울까

봐 물만 찾고 있습니까?) [전역] ② 어떤 것이 매우 필요하거나 아쉽다. *죽어 분 큰아덜만 기려완 못 살키여.(죽어 버린 큰아들만 그리워서 못 살겠다.) [전역] ③ 음식 따위를 먹고 싶다. *게난 맛 좋은 거 기려완 그거꽈?(그러니까 맛 좋은 것 그리워서 그렇습니까?) [전역] = 그럽다, 그립다, 기룹다.

-기로 어미 -기로. 결과로서 나타난 사실을 말하려 할 때, 그리된 까닭이나 조건을 말함에 쓰이는 연결어미. [전역]

-기로만 어미 -기로만. 결과로서 나타난 사실을 말하려 할 때, 그렇게 된 까닭이나 조건을 말함에 쓰는 어미 '-기로'에, 어떤 일에 한하여 함을 나타내는 조사 '만'이 결합된 어미. [전역]

기룡-천리매 명 <민> 닭. [전역]

기룹다 형 [전역] → 기럽다.

-기를[1] 어미 -기를. 동사 어간에 붙어서 뒷이야기의 근거·출처 등을 밝히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전역]

-기를[2] 어미 -기를.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말을 동작적인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기'에, 목적격 조사 '를'이 결합된 어미. [전역]

기름 명 [전역] → 지름.

기름-펭 명 [전역] → 지름-펭.

기리다 동 [전역] → 그리다[1].

기리여-기 명 <민> 큰대를 고정시킨 줄에 달아맨 작은 종이 깃발. [전역]

기림 명 [전역] → 그림.

기릿-기릿 부 음식을 몹시 먹고 싶어하는 모습. *기릿기릿 기려운 물은 손으로 먹은들 베가 불랴.('기릿기릿' 그리운 물은 손으로 먹은들 배가 부르랴.) [전역]

기-맥히다 형 [전역] → 기-멕히다.

기메 명 <민> 굿할 때 종이로 사람 모양 비슷이 오려 댓가지에 기(旗)처럼 매단 것. [전역]

기메-코수 명 <민> 굿을 하기에 앞서 종이 장식인 기메를 만들어 두고 그 도구를 두고 벌이는 의례. [전역]

기-멕히다(氣---) 형 기-막히다. [전역] = 기-맥히다.

기멩 명 기명(器皿). 살림살이에 쓰는 그릇을 통틀어 이르는 말. [전역]

기미-기철관 명 <민> 기찰(譏察). 마을의 방범에 관한 사항을 맡은 소임(所任). [북촌]

기벨 명 기별(奇別). 소식을 전함. *도체비 모산 경 삽시에 소문 기벨 읏이 부제가 뒈엇덴 흡네께.(도깨비 모시어 그렇게 삽시간에 소문 기별 없이 부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전역] = 기별(奇別).

기벨-ᄒᆞ다 동 기별-하다(寄別--). [전역] = 기별-ᄒᆞ다.

기별(奇別) 명 *잘 갓젠 기별 왓어라.(잘 갔다고 기별이 왔더라.) [전역] → 기벨.

기별-ᄒᆞ다 동 [전역] → 기벨-ᄒᆞ다.

기뻐-ᄒᆞ다 동 [전역] → 지뻐-ᄒᆞ다.

기생(妓生) 명 기생. [전역]

기성-군(紀星君) 명 <민> 수복(壽福)의 신(神)인 북두칠원성군(北斗七元星君) 가운데 하나. 북두기성무곡성군(北斗

紀聖武曲星君). [전역]
기슬다 동 [전역] → 그슬다.
기시네-오름 명 <지> [전역] → 구그네-오름.
기시리다 동 [전역] → 그스리다.
기신 명 [전역] → 그신.
기신-새[1] 명 [전역] → 그슨-새[1].
기신-새[2] 명 <민> [성읍 금성] → 그슨-대.
기신-쎄다(氣神--) 형 기신이 세다. [전역]
기신-웃다(氣神--) 형 기신-없다. 기력이 없고 정신이 흐리다. [전역]
기실 명 [전역] → 그신.
기실다 동 [전역] → 그슬다.
기십 명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덤비는 담기(膽氣). ＊이놈이 ᄒᆞᆫ 십여 세 뒈니 기십이 발딱발딱혜 가지고서 씨름 선수로 빙빙 돌아댕기는디.(이놈이 한 열 살 되니 '기십'이 팔팔해서 씨름 선수로 빙빙 돌아다니는데.) [전역]
기십-엇다 형 원기가 없다. 당차고 씩씩한 활력이 없다. ＊소나인 기십엇으민 죽은 목숨인다.(사나이는 원기가 없으면 죽은 목숨이다.) [전역]
기십-좋다 형 어떤 경우에든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덤비는 담기가 있다. [전역]
기십-죽다 동 어떤 경우에든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덤비는 담기가 없어지다. [전역]
기십-차다 형 [전역] → 기십-ᄎᆞ다.
기십-ᄎᆞ다 형 어떤 경우에든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고 덤비는 담기가 많다. [전역] = 기십-차다.
기-악(箕岳) 명 <지> [전역] → 체-오름.
기얄-체ᄉᆞ 명 <민> 기아차사(飢餓差使). [전역]
기여 감 그래. [전역]
기여-나다 동 좋지 않은 일로 집을 떠나다. ＊경 ᄒᆞ커들랑 ᄒᆞᆫ저 기여나라.(그렇게 하려거든 어서 '기여나라'. [전역]
기여난 부 그러니까. [전역]
기여도 부 그래도. [노형]
기여-들다[1] 동 엎드려서 안으로 들어가다. [전역]
기여-들다[2] 형 편편하지 못하고 우묵하다. [전역]
기여-이 부 기어-이(期於-). [전역]
기영 부 그렇게. [전역] = 경, 경[2].
기영-아녜도 부 그러-잖아도. [전역]
기영-저영 부 그럭-저럭. 그렁-저렁. ＊기영저영 살암수다.(그럭저럭 살고 있습니다.) [전역] = 경-정.
기영ᄒᆞ니 부 그러니. [전역]
기영ᄒᆞ니-저영ᄒᆞ니 부 그러니-저러니. [전역] = 경ᄒᆞ니-정ᄒᆞ니.
기영-ᄒᆞ다 형 그러-하다. [전역]
기영-ᄒᆞ영 부 그래서. [전역]
기영-ᄒᆞ지 감 그렇지. [전역]
기영-ᄒᆞ지만 부 그렇지-만. [전역]
기영-ᄒᆞᆫ대로 부 그런-대로. [전역]
기영-ᄒᆞᆫ디 부 그런데. [전역]
기우-제(祈雨祭) 명 기우-제. [전역] = 비우-제.
기운 명 [전역] → 그신.
기운-ᄎᆞ다 형 기운-차다. [전역]

기울다 동 기울다. [전역]
기울-이다 동 [전역] → 주울-이다.
기웃-ᄒᆞ다 동 [전역] → 지웃-ᄒᆞ다.
기자 부 [전역] → 그자[1].
기적 명 기척. [전역] = 그적.
기정 명 [화순 하원 인성 태흥 어도 호근] → 절벡.
기정-질 명 [서홍 노형] → 엉장-질.
기정-펜 명 <음> [전역] → 기쥐-떡.
기주 명 [노형 인성 서홍 수산] → 기쥐.
기쥐 명 증편 같은 것을 만들 때에 술 따위를 쳐서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 [전역] = 기주.
기쥐-떡 명 <음> 기주-떡. 술 따위를 쳐서 부풀어 오르게 하여 만든 떡. [전역] = 기정-편, 기증-펜, 기징-펜.
기증-펜 명 <음> [전역] → 기징-펜.
기집 명 [전역] → 제집.
기집-아의 명 [전역] → 지집-아의.
기짓-말 명 [전역] → 거짓-말.
기징-펜 명 <음> [김녕 조수 노형] = 기쥐-떡, 기증-펜.
기척 명 기척. 누가 있는 줄을 짐작하여 내는 알 만한 소리나 기색. [전역]
기침 명 [전역] → 지침.
기-페다 동 기를 펴다. [전역]
기훼 명 기회(機會). [전역]
-긴 어미 -긴. '-기는'의 준말. [전역]
긴가-민가 부 긴가-민가. 그런지 그렇지 않은지 분명하지 않은 모양. [전역]
길[1] 명 [전역] → 질[1].
길[2] 명 [전역] → 질[3].
-길 어미 -길. '-기를'의 준말. [전역]
길-ᄀᆞ 명 [전역] → 질-ᄀᆞ.
길다 형 [전역] → 질다[1].
길둥이 명 [전역] → 질둥이.
길-들다 동 [전역] → 질-들다.
길들-이다 동 [전역] → 질들-이다.
길-목 명 [전역] → 질-목[1].
길영-동(吉永洞) 명 <지> [조천] → 길영잇-골.
길영잇-골 명 <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의 한 자연마을이자 그 지역의 고유 이름. [조천] = 길영-동.
길-짐승 명 [전역] → 질-짐승.
김계화 명 <요> [성읍] → 계화-타령.
김장 명 [전역] → 짐치[1].
김장-돔다 동 [전역] → 짐치-돔다.
김치-ᄒᆞ다 동 김장-하다. [전역]
깅이 명 <동> 게(蟹). *(속) 놈 싼 훼에 깅이 잡나.(남이 켠 횃불에 게 잡는다.) [김녕 노형 조수 인성] = 겡이, 겡이, 긍이, 기[3].


깅이

깅이-국 명 <음> 겟-국. 게로 끓인 국. [전역]
깅이-보말 명 <동> [노형 이호 삼양] → 게드레기.
깅이-장 명 <음> 게로 담근 젓갈. [건입]
깅이-죽 명 <음> 게로 쑨 죽. [전역] = 겡이-죽.
깅이-지 명 <음> 게-장아찌. 게로 담

근 장아찌. [전역]

깅이-ᄑᆞ레 명 <식> 파래의 일종. 게가 먹는 파래란 뜻에서 붙여진 이름. [노형 이호 삼양]

ᄀᆞ[1] 명 [전역] → 곳[1].

ᄀᆞ[2] 감 그렇지. ＊ᄀᆞ, 경 ᄒᆞ여사 뒈는 거여.(그렇지, 그렇게 하여야 되는 거야.) [전역]

ᄀᆞ기약 부 암평아리가 우는 소리. [전역]

ᄀᆞ기옥 부 수평아리가 우는 소리. [전역]

ᄀᆞ꼬다 동 [수산 노형 인성 서홍] → ᄀᆞ꾸다[2].

ᄀᆞ꼬댁-ᄀᆞ꼬댁 부 닭이 놀랠 때 입을 크게 벌리면서 내는 소리. 또는 암탉이 알을 낳은 뒤에 울부짖는 소리. [전역] = 꼬꼬댁-꼬꼬댁.

ᄀᆞ꾸다[1] 동 가꾸다. [전역]

ᄀᆞ꾸다[2] 동 ① 동정(動靜)을 살피다. [전역] ② 소나 말을 들에 놓아 살피면서 먹이다. [전역] = ᄀᆞ꼬다, ᄀᆞ끼다[1].

ᄀᆞ끄레기-오름 명 <지> [교래 성읍] → 까끄래기-오름.

ᄀᆞ끼다[1] 동 [수산] → ᄀᆞ꾸다[2].

ᄀᆞ끼다[2] 동 갑시다. 물 같은 것을 급하게 마시다가 목에 막혀 잘 내려가지 아니하다. [전역] 고 곶기다, 곶기다.

ᄀᆞᆫ시리 부 [조수] → ᄀᆞᆫ이.

ᄀᆞᆫ이 부 갑갑-이. [전역] = ᄀᆞᆫ-시리.

ᄀᆞᆫ-ᄒᆞ다 형 갑갑-하다. [전역]

ᄀᆞᆺ 부 ＊ᄀᆞᆺ 그듸 사선게.(아까 거기 섰던데.) [전역] → 곳사.

ᄀᆞᆺ듸 명 가장-자리. ＊엉장 ᄀᆞᆺ듸랑 가지 말라.(절벽 가장자리에는 가지 마라.) [전역]

ᄀᆞ노롱-ᄒᆞ다 형 [전역] → ᄀᆞ느롱-ᄒᆞ다.

ᄀᆞ느락 명 <식> [덕수] → 송악[2].

ᄀᆞ느롱-ᄒᆞ다 형 가느-다랗다. ＊ᄀᆞ느롱ᄒᆞᆫ ᄉᆞ끼로 졸라메라.(가느다란 새끼를 졸라매어라.) [전역] = ᄀᆞ노롱-ᄒᆞ다, ᄀᆞ느릉-ᄒᆞ다, 곤시롱-ᄒᆞ다.

ᄀᆞ느릉-ᄒᆞ다 형 [전역] → ᄀᆞ느롱-ᄒᆞ다.

ᄀᆞ느삭다 형 발육이 잘되지 못하여 배리배리하다. [전역]

ᄀᆞ느스롱-ᄒᆞ다 형 가느스름-하다. [전역]

ᄀᆞ는귀-막다 동 가는귀가 먹다. [전역]

ᄀᆞ는ᄀᆞ는-ᄒᆞ다 형 가늘디-가늘다. ＊ᄑᆞᆯ다시가 ᄀᆞ는ᄀᆞ는ᄒᆞ다.(팔목이 가늘디가늘다.) [전역]

ᄀᆞ는-내 명 <지> [남원] → 곤내.

ᄀᆞ는냇-골 명 <지> [남원] → 곤냇-골.

ᄀᆞ는-대 명 아주 가늘게 쪼갠 대오리. [전역]

ᄀᆞ는대-구덕 명 아주 가늘고 긴 대(竹) 오리로 엮어 만든 큰 바구니. 적은 양의 물건을 넣어 여자들이 허리에 끼고 운반해 다님. ＊그 옛날은 ᄀᆞ는대구덕을 새각시덜이 들럿거든.(그 옛날은 'ᄀᆞ는대구덕'을 새색시들이 들었거든.) [전역] = 곤대구덕, 서대-구덕.



ᄀᆞ는대구덕

ᄀᆞ는대-질구덕 명 가는 대오리로 결은 바구니. 등에 지고 다닐 수 있게 만듦. [도련]
ᄀᆞ는-비 명 가랑-비. [전역]
ᄀᆞ는-세 명 <지> [회천] → 서-회천.
ᄀᆞ는-세미 명 <지> [회천] → 서-회천.
ᄀᆞ는-쉐줄 명 아주 가느다란 쇠줄. [전역]
ᄀᆞ는-씰 명 아주 가느다란 실(絲). [전역] = 줌진-씰.
ᄀᆞ는-질 명 <민> 숨을 헐떡거리는 증세. [전역]
ᄀᆞ는-체 명 <도> 가는-체. 중체와 그 형태는 물론 쓰임도 비슷한 것이나 중체보다는 쳇불 구멍의 크기가 작은 체. [전역] 고 ᄀᆞ는체.
ᄀᆞ늘다 형 가늘다(細). [전역] = 깨늘다. 고 ᄀᆞᄂᆞᆯ다.
ᄀᆞ다듬다 동 가다듬다. [전역]
ᄀᆞ다시 명 <지> 제주시 오등동의 한 자연마을. [아라 오라]
ᄀᆞ닥-거리다 동 까닥-거리다. [전역]
ᄀᆞ닥-ᄀᆞ닥 부 까닥-까닥. 머리를 자꾸 앞뒤로 가볍게 흔드는 모양. [전역]
ᄀᆞ닥ᄀᆞ닥-ᄒᆞ다 동 까닥까닥-하다. ＊분시엇이 ᄀᆞ닥ᄀᆞ닥ᄒᆞ당 경친다.(분수 없이 까닥까닥하다가 경친다.) [전역]
ᄀᆞ닥-이다 동 까닥-이다. 고개 따위를 아래위로 가볍게 움직이다. [전역]
ᄀᆞ-대[1] 명 <식> 갈-대. [노형 조수 인성 서홍 하원] = ᄀᆞᆯ-대. 고 ᄀᆞᆴ대.
ᄀᆞ-대[2] 명 <식> 제주-조릿대. [전역]
ᄀᆞ대-쏠 명 제주조릿대의 열매. [한남]
ᄀᆞ대쏠-밥 명 <음> 제주조릿대의 열매로 지은 밥. [봉성]
ᄀᆞ드락-ᄀᆞ드락 부 가드락-가드락. ① 조금 거만스럽게 잘난 체하며 자꾸 버릇없이 구는 모양. [전역] ② 어떤 물건이 좀 위로 들리어진 모양. [전역]
ᄀᆞ득 부 가득. [전역]
ᄀᆞ득다 형 가득-하다. ＊이 그릇에 ᄀᆞ득게 담으라.(이 그릇에 가득하게 담아라.) [전역] = ᄀᆞ득-ᄒᆞ다.
ᄀᆞ득-이 부 가득-히. [전역]
ᄀᆞ득-이다 동 가득 채우다. [전역]
ᄀᆞ득-차다 동 가득히 차다. [전역]
ᄀᆞ득-ᄒᆞ다 형 [전역] → ᄀᆞ득다.
ᄀᆞ들-ᄀᆞ들 부 천천히 하는 모양. 힘 안 들이고 여유있게 걸어가는 모양. ＊이젠 기냥 ᄀᆞ들ᄀᆞ들 뭐, 조캐신디가 보도 아니ᄒᆞ고, 기냥 돌아오라서.(이제는 그대로 천천히 걸어서 뭐, 조카한테 가 보지도 아니하고 그대로 돌아왔어.) [전역]
ᄀᆞ들락-거리다 동 가드락-거리다. 경망스럽게 잘난 체하다. ＊지만 잘난 체 ᄀᆞ들락거린다.(자기만 잘난 체 가드락거린다.) [전역]
ᄀᆞ들락-ᄀᆞ들락 부 ＊ᄇᆞ름에 어욱이 ᄀᆞ들락ᄀᆞ들락ᄒᆞ염서라.(바람에 억새가 가들가들하고 있더라.) ＊어룬신디 버릇엇이 ᄀᆞ들락ᄀᆞ들락ᄒᆞ당 붕메 맞나.(어른한테 버릇없이 가들가들하다가는 된매 맞는다.) [전역] → 가들달-가들락.
ᄀᆞ딱 부 까딱. ＊손가락만 ᄀᆞ딱 움직염서.(손가락만 까딱 움직이고 있다.) [전역] = ᄁᆞ딱[1].
ᄀᆞ딱-거리다 동 까딱-거리다. [전역]
ᄀᆞ딱-ᄀᆞ딱 부 까딱-까딱. [전역]

ᄀᆞ딱ᄀᆞ딱-ᄒᆞ다 동 까딱까딱-하다. [전역] = ᄭᅡ딱ᄭᅡ딱-ᄒᆞ다.
ᄀᆞ딱-ᄒᆞ다 동 까딱-하다. [전역]
ᄀᆞ딱-ᄒᆞ민[1] 부 까딱-하면. ＊전장판이선 ᄀᆞ딱ᄒᆞ민 죽나.(전쟁판에서는 까딱하면 죽는다.) [전역]
ᄀᆞ딱-ᄒᆞ민[2] 부 걸핏-하면. ＊ᄀᆞ딱ᄒᆞ민 숭잡앙 나무린다.(걸핏하면 흉잡고 나무란다.) [전역]
ᄀᆞ뜨다 형 같다. [전역]
ᄀᆞ뜩 부 가뜩. [전역]
ᄀᆞ뜩-ᄒᆞ다 형 가뜩-하다. [전역]
ᄀᆞ뜬-깝에 부 [전역] → ᄀᆞ튼-깝에.
ᄀᆞ띠 부 [전역] → ᄒᆞᆫ듸.
ᄀᆞ띠-ᄒᆞ다 동 [전역] → ᄀᆞ티-ᄒᆞ다.
ᄀᆞ라 조 더러. 인칭대명사나 인명에 주로 붙어서 쓰이는 상대격 조사. ＊이렇게 그 아시 뭰 사름ᄀᆞ라 믄단 말이여.(이렇게 그 아우 된 사람더러 독촉한다는 말이야.) [전역] = ᄀᆞ라.
ᄀᆞ라만 조 더러만. 인칭대명사나 인명에 주로 붙어서 쓰이는 상대격 조사 'ᄀᆞ라'에 사물을 단독으로 일컫는 특수격 조사 '만'이 결합된 격조사. [전역]
ᄀᆞ라-조 명 <식> [서홍 수산] → ᄀᆞ라지.
ᄀᆞ라지 명 <식> 가라지. [전역] = ᄀᆞ라-조, ᄀᆞ랏. 고 ᄀᆞ랏.
ᄀᆞ란 조 더러는. 인칭대명사나 인명에 주로 붙어서 쓰이는 상대격 조사 'ᄀᆞ라'를 좀더 세게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ᄀᆞ랍다 형 [전역] → ᄀᆞ렵다.
ᄀᆞ랏 명 <식> [인성 조수] → ᄀᆞ라지.
ᄀᆞ랑-늬 명 <동> 가랑-니(-蝨). [전역]
ᄀᆞ랑-비 명 가랑-비(--雨). [전역] = ᄀᆞ렝이. 고 ᄀᆞᄅᆞ뷔.
ᄀᆞ랑-조 명 <식> 조의 일종. [세화]
ᄀᆞ랑 좁쏠 구 자잘한 좁쌀. ＊ᄀᆞ랑 좁쏠 늬 읏이 먹엉 놈의 어멍 말 읏이 살라.(자잘한 좁쌀 뉘 없이 먹고 남의 어머니 말 없이 살아라.) [전역]
ᄀᆞ랑-쥉이 명 <동> [서홍 수산] → ᄀᆞ랑-쥉이.
ᄀᆞ랑-쥐 명 <동> [조수 서홍] → ᄀᆞ랑-쥉이.
ᄀᆞ랑-쥉이 명 <동> 아주 작은 쥐(鼠). [노형 조수 인성] = ᄀᆞ랑-쥉이, ᄀᆞ랑-쥐.
ᄀᆞ랫-도고리 명 <도> [전역] → ᄀᆞ렛-도고리.
ᄀᆞ레 명 <도> 맷-돌(磨石). [전역] = ᄀᆞ렛-돌.



ᄀᆞ레

ᄀᆞ레 ᄀᆞ는 소리 명 <요> [전역] → ᄀᆞ레 놀레.
ᄀᆞ레-감 명 열매 모양이 맷돌같이 생긴 감의 한 가지. [전역]
ᄀᆞ레-골다 동 맷돌질-하다. [전역]
ᄀᆞ레-굼 명 맷돌-질. [전역]
ᄀᆞ레 놀레 명 <요> 맷돌로 곡식을 갈거나 쪼갤 때에 부르는 민요. [전역]

= ᄀᆞ레 ᄀᆞ는 소리.

ᄀᆞ레-방에 명 사람의 손으로 돌려서 곡식을 가루로 만드는 기구. 또는 마소로 끌어 돌리게 하여 곡식을 찧는 큰 매. [전역]

ᄀᆞ레수기 명 <식> 전-나무. [전역]

ᄀᆞ레수기-낭 명 <식> 고로쇠-나무. [건입]

ᄀᆞ레-씹 명 [행원] → 중수리-고망.

ᄀᆞ레-알착 명 맷돌의 아래짝. [전역]

ᄀᆞ레-우착 명 맷돌의 위짝. [전역]

ᄀᆞ레-좃 명 [전역] → ᄀᆞ렛-장귀.

ᄀᆞ레-좃다 동 매-조이다. 매통, 맷돌을 정으로 쪼아 날카롭게 하다. [전역]

ᄀᆞ레-ᄌᆞ럭 명 <도> 맷-손. [전역] = ᄀᆞ렛-ᄌᆞ록, ᄀᆞ렛-줄리, ᄀᆞ렛-ᄎᆞ록.

ᄀᆞ레-체경 명 <도> 맷손 두 갑절쯤 길이의 방망이를 맷손에 가로질러서 멀찍이 앉고, 그 한쪽 끄트머리를 밀리고 당겨 가는 대로 맷돌이 가볍게 돌아가도록 하는 보조 맷손. [전역] = 장멸.

ᄀᆞ렛-덕석 명 [인성 서홍 수산 가시] → ᄀᆞ렛-방석.

ᄀᆞ렛-도고리 명 <도> 맷돌을 들여앉히고 갈 때 밑에 받쳐 쓰는 큰 함지박. *구젱기를 ᄒᆞ영 늬 집이 숧아놘 ᄀᆞ렛도고리에 퍼 놘 들러먹엇주.(소라를 해서 네 집이 삶아 놓아서 '고랫도고리'에 퍼 넣고 들이먹었지.) [전역] = ᄀᆞ랫-도고리.

ᄀᆞ렛-독석 명 [인성] → ᄀᆞ렛-방석.

ᄀᆞ렛-돌 명 <도> [전역] → ᄀᆞ레.

ᄀᆞ렛-방석 명 맷-방석. [전역] = ᄀᆞ렛-덕석, ᄀᆞ렛-독석, 쳇-덕석.

ᄀᆞ렛-장구 명 [노형] → ᄀᆞ렛-장귀.

ᄀᆞ렛-장귀 명 맷-수쇠. [노형 서홍 수산 가시] = ᄀᆞ렛-장구, ᄀᆞ렛-좃, ᄀᆞ렛-좃둥이, ᄀᆞ렛-중수리.

ᄀᆞ렛-좃 명 [김녕] → ᄀᆞ렛-장귀.

ᄀᆞ렛-좃둥이 명 [조수] → ᄀᆞ렛-장귀.

ᄀᆞ렛-중수리 명 [노형 조수 조수] → ᄀᆞ렛-장귀.

ᄀᆞ렛-ᄌᆞ록 명 [전역] → ᄀᆞ레-ᄌᆞ럭.

ᄀᆞ렛-줄리 명 [전역] → ᄀᆞ렛-ᄌᆞ럭.

ᄀᆞ렛-착 명 맷돌-짝. *(속) 비바리 늙어 가민, ᄀᆞ렛착 지고 산으로 오른다.(처녀가 늙어 가면, 맷돌짝 지고 산으로 오른다.) [전역]

ᄀᆞ렛-ᄎᆞ록 명 <도> [전역] → ᄀᆞ렛-ᄌᆞ럭.

ᄀᆞ렝이 명 [중문] → ᄀᆞ랑-비.

ᄀᆞ려-가다 동 옆에서 앞질러 바삐 가다. [김녕 조수 어도]

ᄀᆞ려-들다 동 옆에서 앞질러 바삐 들다. [전역]

ᄀᆞ렵다 형 가렵다. [전역] = ᄀᆞ랍다, ᄀᆞᄅᆞᆸ다, ᄀᆞᄅᆞᆸ다. 고 ᄀᆞ랍다.

ᄀᆞ로[1] 명 [서홍 수산 김녕 가시] → ᄀᆞ를.

ᄀᆞ로[2] 부 가로. [전역]

ᄀᆞ로-마트다 동 가로-맡다. [전역]

ᄀᆞ로-막다 동 가로-막다. [전역] 고 ᄀᆞᄅᆞ막다.

ᄀᆞ로-쓰기 명 가로-쓰기. [전역]

ᄀᆞ로-지다 형 가로 놓인 모양으로 되어 있다. [전역]

ᄀᆞ로-지르다 동 가로-지르다. [전역] = ᄀᆞ로-질르다. 고 ᄀᆞᄅᆞ디ᄅᆞ다.

ᄀᆞ로-지스로 부 가로-세로(縱橫)로.

[노형 조수 서홍 인성] = ᄀᆞ로-질스로.

ᄀᆞ로-질르다 동 [전역] → ᄀᆞ로-지르다.

ᄀᆞ로-질스로 부 [수산 김녕] → ᄀᆞ로-지스로.

ᄀᆞ로-체다 동 가로-차다. [서홍 수산]

ᄀᆞ로-퍼지다 동 가로-퍼지다. [전역]

ᄀᆞ루 명 [남원] → ᄀᆞ를.

ᄀᆞ르 명 [조수 인성 가시] → ᄀᆞ를.

ᄀᆞ르치다 동 가르치다. [전역]

ᄀᆞ른-놀 명 죽제품의 가로의 대오리. [도련]

ᄀᆞ른-물 명 고인 물. [종달]

ᄀᆞ른-새 명 <건> 가로로 보내지는 외. [전역]

ᄀᆞ른-세 명 [조수 서홍] → ᄀᆞ른-틀목.

ᄀᆞ른여-메역 명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ᄀᆞ른여'에서만 나는 미역. *ᄀᆞ른여메역은 종ᄌᆞ가 틀려. 이파리는 널르곡 귓다리는 줄곡 지레기는 흔 발이나 뒈주.('ᄀᆞ른여메역'은 종자가 달라. 이파리는 넓고 귀는 잘고 길이는 한 발이나 되지.) [신양]

ᄀᆞ른-웨 명 <건> [가시] → ᄀᆞ른-훼.

ᄀᆞ른-질 명 <공> 나무를 손질하는 연장으로 나뭇결 측면으로만 다듬는 일. [전역]

ᄀᆞ른-코[1] 명 <도> 오름의 좌우 쪽으로 설치하는 노루의 올가미. [봉성]

ᄀᆞ른-코[2] 명 우장(雨裝)의 가로로 맺어 놓은 코. [송당]

ᄀᆞ른-틀목 명 연자매에서 맷돌을 돌리기 위하여 짜 메운 틀의 앞뒤로 가로 박은 나무. [인성 가시 수산 어도] = ᄀᆞ른-세, 모-매기.

ᄀᆞ른-훼 명 <건> 누울-외(-椳). [전역] = ᄀᆞ른-웨.

ᄀᆞ를 명 가루. [전역] = ᄀᆞ로[1], ᄀᆞ루, ᄀᆞ르.

ᄀᆞ를-눈 명 가루-눈. [전역]

ᄀᆞ를-사탕 명 [김녕 가시 어도] → 사탕-ᄀᆞ를.

ᄀᆞ를-약 명 가루-약. [전역]

ᄀᆞ를-음식 명 <음> 가루로 만든 음식. [전역]

ᄀᆞ를-체 명 가루-체. 가루를 치는 데 쓰는 체. [전역]

ᄀᆞ리[1] 명 [전역] → 고비.

ᄀᆞ리[2] 명 기회. [전역]

ᄀᆞ리다[1] 동 *들통 나민 옛날은 목을 ᄀᆞ립주게.(들통 나면 옛날은 목을 치지요.) [전역] → 골기다[1]. 고 ᄀᆞ리다.

ᄀᆞ리다[2] 동 [전역] → 골기다[2].

ᄀᆞ리다[3] 동 가리다. 보이지 않게 막다. [전역]

ᄀᆞ리-메 명 <민> 백지나 창호지 따위로 당클이나 제상을 가린 것. [용담]



ᄀᆞ리메

ᄀᆞ리-보다 동 어떤 기회가 오기를 엿보다. [전역]

ᄀᆞ리치다[1] 동 가르치다. [전역] 고 ᄀᆞᄅᆞ티다.

ᄀᆞ리치다[2] 동 가리키다. [전역]
ᄀᆞ림-질 명 <농> 도리깨질을 함에 있어 도리깨로만 빗겨 두들겨 가며 탈곡을 진행함과 동시에 덜 탈곡된 짚 더미를 뒤엎는 일. [영평]
ᄀᆞᄅᆞᆸ다 형 [태흥 서홍 표선 수산 김녕] → ᄀᆞ렵다.
ᄀᆞᄅᆞᆸ다 형 [조수 어도 노형] → ᄀᆞ렵다.
ᄀᆞ만-ᄀᆞ만 부 가만-가만. [전역]
ᄀᆞ만-서방 명 [노형 어도] → 속잇-서방.
ᄀᆞ만-이 부 가만-히. [전역]
ᄀᆞ만-잇다 동 가만-있다. [전역]
ᄀᆞ만-ᄒᆞ다 형 가만-하다. [전역]
ᄀᆞ맹이 명 아지랑이. [대정]
ᄀᆞ메기 명 <동> [인성 서홍 수산 가시] → ᄀᆞ메기-보말.
ᄀᆞ메기-보말 명 <동> 남방울타리-고둥. [노형 인성 조수 김녕] = ᄀᆞ메기, ᄀᆞᆷ세기[2], ᄀᆞᆷ셍이.
ᄀᆞ멧-서방 명 [조수] → 속잇-서방.
ᄀᆞ무꼬다 동 회목 관절이 무엇과 마주쳐 제 정도에 지나게 접해서 삔 지경에 이르다. [전역] 고 ᄀᆞ믓다.
ᄀᆞ물-ᄀᆞ물 부 [노형 조수 인성] → 가물-가물[1].
ᄀᆞ물ᄀᆞ물-ᄒᆞ다 형 가물가물-하다. [전역]
ᄀᆞ물다 동 가물다. [전역] = ᄀᆞ믈다. 고 ᄀᆞ믈다.
ᄀᆞ물락-ᄀᆞ물락 부 구무럭-구무럭. * 폴다리만 ᄀᆞ물락ᄀᆞ물락 놀린다.(팔다리만 구무럭구무럭 놀린다.) [전역]
ᄀᆞ물락ᄀᆞ물락-ᄒᆞ다 동 구무럭구무럭-ᄒᆞ다. [전역]
ᄀᆞ뭄 명 가뭄. [전역] = ᄀᆞ믐.
ᄀᆞ뭄-들다 동 가뭄이 들다. [전역] = ᄀᆞ믐-들다.
ᄀᆞ뭄-타다 동 가뭄을 타다. [전역] = ᄀᆞ믈-타다, ᄀᆞ믐-타다.
ᄀᆞ믈다 동 *(속) 삼년 ᄀᆞ믈아도 ᄒᆞᆯ 일 다 못ᄒᆞᆫ다.(삼년 가물어도 할 일 다 못한다.) [전역] → ᄀᆞ물다.
ᄀᆞ믈-타다 동 [노형 인성 서홍 수산 김녕 가시] → ᄀᆞ뭄-타다.
ᄀᆞ믐 명 [전역] → ᄀᆞ뭄.
ᄀᆞ믐-들다 동 [전역] → ᄀᆞ뭄-들다.
ᄀᆞ믐-타다 동 [전역] → ᄀᆞ뭄-타다.
ᄀᆞ믓 명 [어도] → ᄀᆞᆷ[2].
ᄀᆞ쁘다 형 가쁘다. [전역] 고 ᄀᆞᆺᄇᆞ다.
ᄀᆞ새 명 <도> 가위. 옷감, 종이, 머리털 따위를 자르는 기구. [전역] = ᄀᆞ세. 고 ᄀᆞᆺ애.
ᄀᆞ세 명 <도> [전역] → ᄀᆞ새.
ᄀᆞ세-ᄂᆞ물 명 <식> [대포] → ᄀᆞ세-ᄂᆞᄆᆞᆯ.
ᄀᆞ세-ᄂᆞᄆᆞᆯ 명 <식> 씀바귀. 잎은 피침형인데 호생하며 맛이 쓴 재래 야생종 나물. [전역] = ᄀᆞ세-ᄂᆞ물.
ᄀᆞ세-뿌리 명 풍선 따위의 배 맨 앞 끝에 양쪽 바깥으로 뾰족이 나온 물건. [이호] = 칼치.
ᄀᆞ스락 명 까끄라기. * 산듸 고고리에 ᄀᆞ스락이 십주게. 경ᄒᆞ민 마께로 독독 두드립네다. 두드리민 그 ᄀᆞ스락이 거꺼집주게.(밭벼 이삭에 까끄라기가 있지요. 그러면 방망이로 독독 두드리지요. 두드리면 그 까끄라기가 꺾어지지요.) [전역] = ᄀᆞ시락.
ᄀᆞ스락-꽃 명 원추리-꽃. [전역]
ᄀᆞ스락-막 명 <건> 까끄라기를 보관하

는 작은 막(幕). [전역] = ᄀᆞ시락-막.
ᄀᆞ스락-쿨 명 <식> 원추리. 백합과의 여러해살이풀. [전역] = ᄀᆞ스락-풀.
ᄀᆞ스락-풀 명 <식> [수산 가시 세화 표선 태흥 조천] → ᄀᆞ스락-쿨.
ᄀᆞ슬 명 [전역] → ᄀᆞ을.
ᄀᆞ슬-그르 명 <농> 곡식-그루. [전역] = ᄀᆞ슬-크르, ᄀᆞ실-그르, ᄀᆞ실-크르. [전역]
ᄀᆞ슬-날 명 가을-날. [전역]
ᄀᆞ슬-내낭 부 가으-내. [전역] = ᄀᆞ을-내낭.
ᄀᆞ슬-농서 명 <농> [전역] → ᄀᆞ슬-농ᄉᆞ.
ᄀᆞ슬-농ᄉᆞ 명 <농> 가을-농사. [전역] = ᄀᆞ슬-농서, ᄀᆞ슬-용시, ᄀᆞ실-농서, ᄀᆞ실-농ᄉᆞ, ᄀᆞ실-용시, ᄀᆞ을-농서, ᄀᆞ을-농ᄉᆞ, ᄀᆞ을-용시.
ᄀᆞ슬-눌 명 <농> 곡식을 베어 낸 것을 모아서 쌓은 가리. [전역]
ᄀᆞ슬-들이다 동 [전역] → ᄀᆞ슬-틀이다.
ᄀᆞ슬-벳 명 [전역] → ᄀᆞ을-벳.
ᄀᆞ슬-비 명 가을-비. [전역]
ᄀᆞ슬-왓 명 [전역] → 가슬-왓.
ᄀᆞ슬-용시 명 <농> [전역] → ᄀᆞ슬-농ᄉᆞ.
ᄀᆞ슬-창마 명 [전역] → ᄀᆞ을-장마.
ᄀᆞ슬-치기 명 [전역] → 가슬-치기.
ᄀᆞ슬-커 명 [전역] → ᄀᆞ슬-컷.
ᄀᆞ슬-컷 명 <농> 가을에 거두어들이는 곡식 따위. [전역] = ᄀᆞ슬-커.
ᄀᆞ슬-크르 명 <농> [전역] → ᄀᆞ슬-그르.
ᄀᆞ슬-틀이다 동 <농> 가을 곡식 따위를 거두어들이다. [전역] = ᄀᆞ슬-들이다.
ᄀᆞ슬-팟 명 <농> [전역] → 가슬-왓.
ᄀᆞ슬-ᄑᆞ름 명 [전역] → ᄀᆞ을-ᄇᆞ름.
ᄀᆞ슬-ᄒᆞ다 동 [전역] → ᄀᆞ을-ᄒᆞ다.
ᄀᆞ슴 명 감. 물건을 만드는 밑바탕이 되는 물질. [전역] = 가음, ᄀᆞ심, ᄀᆞ음. 고 ᄀᆞᄉᆞᆷ.
ᄀᆞ시락 명 [전역] → ᄀᆞ스락.
ᄀᆞ시락-겎음 명 <농> 이삭에서 까끄라기를 떼어냄. [하원]
ᄀᆞ시락-막 명 <건> [전역] → ᄀᆞ스락-막.
ᄀᆞ실 명 [전역] → ᄀᆞ을.
ᄀᆞ실-그르 명 [전역] → ᄀᆞ슬-그르.
ᄀᆞ실-농서 명 <농> [전역] → ᄀᆞ슬-농ᄉᆞ.
ᄀᆞ실-농ᄉᆞ 명 [전역] → ᄀᆞ슬-농ᄉᆞ.
ᄀᆞ실-바령 명 <농> 처서에서부터 상강 사이에 이루어지는 '바령'. [덕천]
ᄀᆞ실-방둔 명 <농> 추수 이후부터 서리가 내릴 때까지 이루어지는 '방둔(放屯)'. [송당]
ᄀᆞ실-쉐 명 가을 꼴 수확이 끝난 꼴밭에서 먹이는 소. [하도]
ᄀᆞ실-용시 명 <농> [전역] → ᄀᆞ슬-농ᄉᆞ.
ᄀᆞ실-코 명 가을에 노루를 잡기 위한 올가미. *웅장(雄獐)이 뿔 벗기 전에 놓는 코ᄀᆞ라 'ᄀᆞ실코'라고 ᄒᆞ주. (수노루가 뿔 벗기 전에 놓는 올가미보고 'ᄀᆞ실코'라고 하지.) [봉성]
ᄀᆞ실-크르 명 <농> [전역] → ᄀᆞ슬-그르.
ᄀᆞ심 명 [전역] → ᄀᆞ슴.
ᄀᆞ쎄 부 조금 전. 방금. *여기 ᄀᆞ쎄

오랏단 그 어멍이 힘이 장ᄉᆞᆫ디.(여기 아까 왔었던 그 어머니가 힘이 장사(壯士)인데.) [한림] → ᄀᆞᆺ사.

ᄀᆞ웃-ᄀᆞ웃 뿌 숨이 막힐 정도로 더워 못견뎌 하는 모양. [전역]

ᄀᆞ을 명 가을. [전역] = ᄀᆞ슬, ᄀᆞ실. 고 ᄀᆞᇫ.

ᄀᆞ을-갈치 명 가을에 잡히는 갈치. * 칠팔월 넘어나믄 갈치 나 가지고 ᄀᆞ을갈치라고 쭉 어장이 계속 뒈엇는디 지금은 거 동짓ᄃᆞᆯ에 나는 것도 엇고 ᄀᆞ을에 나는 것도 뭐 히지부지ᄒᆞ고.(칠, 팔월 넘으면 갈치가 나서 가을갈치라고 쭉 어장이 계속되었는데 지금은 거 동짓달에 나오는 것도 없고 가을에 나오는 것도 뭐 흐지부지하고.) [이호]

ᄀᆞ을-내낭 뿌 [전역] → ᄀᆞ슬-내낭.

ᄀᆞ을-농서 명 <농> [전역] → ᄀᆞ슬-농ᄉᆞ.

ᄀᆞ을-농ᄉᆞ 명 <농> [전역] → ᄀᆞ슬-농ᄉᆞ.

ᄀᆞ을-벳 명 가을-볕. [전역] = ᄀᆞ슬-벳.

ᄀᆞ을-ᄇᆞ름 명 가을-바람. [전역] = ᄀᆞ슬-ᄑᆞ름, ᄀᆞ슬-ᄑᆞ름.

ᄀᆞ을-용시 명 <농> [전역] → ᄀᆞ슬-농ᄉᆞ.

ᄀᆞ을-장마 명 가을-장마. [전역] = ᄀᆞ슬-창마, ᄀᆞ을-창마.

ᄀᆞ을-창마 명 [전역] → ᄀᆞ을-장마.

ᄀᆞ을-ᄒᆞ다 동 <농> 가을-하다. [전역] = ᄀᆞ슬-ᄒᆞ다.

ᄀᆞ믐 명 [전역] → ᄀᆞ뭄.

ᄀᆞ음 명 [전역] → ᄀᆞ슴.

ᄀᆞ웃-ᄀᆞ웃 뿌 ① 숨이 몹시 가쁜 상태. * ᄃᆞᆯ음박질ᄒᆞ영 숨 ᄀᆞ웃ᄀᆞ웃 안 ᄒᆞᆯ 사름 엇나.(뜀박질하여서 숨이 가쁘지 않을 사람 없다.) [전역] ② 무엇을 몹시 먹고 싶어 애타는 상태. * 물이 ᄀᆞ웃ᄀᆞ웃 그리와도 잇어사 먹주.(물이 ᄀᆞ웃ᄀᆞ웃 그리워도 있어야 먹지.) [전역]

ᄀᆞ웃ᄀᆞ웃-ᄒᆞ다 형 ① 몹시 숨이 차서 가쁘다. [전역] ② 몹시 먹고 싶어 안달이 나 있다. [전역]

ᄀᆞ의 명 우도에서 이르는, 제주도(濟州島)의 다른 이름. [우도]

ᄀᆞ자 뿌 여태까지. * ᄀᆞ자 나를 생각ᄒᆞ고 눈을 아이 ᄀᆞᆷ앗다.(여태까지 나를 생각하고 눈을 아니 감았다.) [전역] = ᄀᆞ재, ᄀᆞ제.

ᄀᆞ장 뿌 가장. [전역]

ᄀᆞ재 뿌 [노형 조수] → ᄀᆞ자.

ᄀᆞ저-오다 동 [노형 어도 조수 하원 화순] → 가저-오다.

ᄀᆞ제 뿌 [노형 조수] → ᄀᆞ자.

ᄀᆞ지다[1] 동 [어도 조수 인성 하원 화순] → 가지다.

ᄀᆞ지다[2] 형 흠이 없이 고루 갖추어서 말짱하다. * ᄀᆞ진 올히 장개 가난 헌 올히 나도 나도.(말짱한 오리 장가가니 헌 오리 나도 나도.)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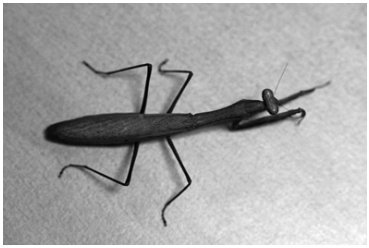
ᄀᆞ진-상 명 잔치 때 의식에 맞게 잘 갖추어진 상. [전역]

ᄀᆞ찌[1] 뿌 [전역] → ᄒᆞᆫ듸.

ᄀᆞ찌[2] 조 * 자네ᄀᆞ찌 대학원 졸업ᄒᆞᆫ 사름이 탁 앚아노니.(자네같이 대학원 졸업한 사람이 앉아 있으니.) [전역] → ᄀᆞ치[1].

ᄀᆞ차이 뿌 가까이. [전역]

ᄀᆞ초다 동 갖추다. [전역] = 가추다, ᄀᆞ추다[2].
ᄀᆞ추다[1] 동 [전역] → 감추다.
ᄀᆞ추다[2] 동 [전역] → ᄀᆞ초다.
ᄀᆞ치[1] 부 [전역] → ᄒᆞᆫ듸.
ᄀᆞ치[2] 조 같이. ＊게난 대패질ᄒᆞᆫ 모냥 ᄀᆞ치 잘 까끄곡.(그러니까 대패질한 모양같이 잘 깎고.) [전역] = ᄀᆞ찌.
ᄀᆞ트다 형 같다. [전역] 고 ᄀᆞᆮ다.
ᄀᆞ튼-값에 부 [전역] → ᄀᆞ튼-깝에.
ᄀᆞ튼-깝에 부 같은-값에. [전역] = ᄀᆞ뜬-깝에, ᄀᆞ튼-값에.
ᄀᆞ티 부 [전역] → ᄒᆞᆫ듸.
ᄀᆞ티-ᄒᆞ다 동 같이-하다. [전역] = ᄀᆞ띠-ᄒᆞ다.
ᄀᆞᆨ고닥 부 꼬꼬댁. [전역] = ᄀᆞᆨ고댁.
ᄀᆞᆨ고댁 부 [전역] → ᄀᆞᆨ고닥.
ᄀᆞᆨ기다 동 가루와 같은 음식을 먹을 때 목구멍에 걸려서 잘 내려가지 않아 기침이나 재채기를 하다. ＊개역 먹당 ᄀᆞᆨ겻져.(미숫가루 먹다가 갑셨다.) [전역]
ᄀᆞᆨᄀᆞᆨ 부 암탉이 알을 낳으려고 보채는 소리나 모습. ＊암톡은 새끼 나젱 ᄒᆞ민 ᄀᆞᆨᄀᆞᆨ 소리ᄒᆞᆫ다.(암탉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ᄀᆞᆨᄀᆞᆨ 소리한다.) [전역]
ᄀᆞᆨᄀᆞᆨ-ᄒᆞ다 동 암탉이 알을 낳으려고 보채는 소리를 하다. [전역]
ᄀᆞᆨ다귀 명 각다귀. [전역]
ᄀᆞᆨ-쒜 명 <도> 호비-칼. [전역]
ᄀᆞᆨ저-베기 명 [수산 가시] → ᄀᆞᆨ주-와기.
ᄀᆞᆨ주다 동 할퀴다. [전역]
ᄀᆞᆨ주-와기 명 손톱으로 할퀴기를 잘하는 사람. [전역] = ᄀᆞᆨ저-베기, ᄀᆞᆨ쥐[2], ᄀᆞᆨ쥐-왜기, ᄀᆞᆨ쥐-웨기, ᄀᆞᆨᄌᆞ-배기.
ᄀᆞᆨ쥐기[1] 명 <동> 사마귀. [전역]



ᄀᆞᆨ쥐기[1]

ᄀᆞᆨ쥐기[2] 명 [인성 조수] → ᄀᆞᆨ주-와기.
ᄀᆞᆨ-쥐다 동 단단하게 힘주어 쥐다. [노형 조수 인성]
ᄀᆞᆨ쥐-애기 명 <동> 버마재비. [전역] = 당의엥이.
ᄀᆞᆨ쥐-왜기 명 [전역] → ᄀᆞᆨ주-와기.
ᄀᆞᆨᄌᆞ-배기 명 [가시] → ᄀᆞᆨ주-와기.
ᄀᆞᆫ 명 [전역] → 간[1].
ᄀᆞᆫ-갈치 명 <음> 자반-갈치. 늦가을 추울 무렵에 사들여서 곱게 손본 다음 도막도막 썰어서 항아리에 넣으면서 소금을 뿌려 차곡차곡 절여 둔 갈치. [전역]
ᄀᆞᆫ-고등에 명 <음> 자반-고등어. 늦가을 추울 무렵에 사들여서 곱게 손본 다음 항아리에 넣으면서 소금을 뿌려 차곡차곡 절여 둔 고등어. [전역]
ᄀᆞᆫ-궤기 명 <음> 간한 고기. 절인 고기. [전역]
ᄀᆞᆫᄀᆞᆫ 부 물 따위가 넘칠 정도로 가득 고인 모양. [전역] = ᄀᆞᆫᄀᆞᆫ-이.
ᄀᆞᆫᄀᆞᆫ-이 부 [전역] → ᄀᆞᆫᄀᆞᆫ.
ᄀᆞᆫᄀᆞᆫ-ᄒᆞ다 형 일정한 둘레 안에 물 따위가 가득히 차 있다. [전역]

ᄀᆞᆫ-내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2리 포구로 흘러드는 내(川). [남원] = ᄀᆞ는-내, 세-천.

ᄀᆞᆫ냇-개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2리의 한 포구. [남원]

ᄀᆞᆫ냇-골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2리의 한 동네. [남원] = ᄀᆞ는냇-골.

ᄀᆞᆫ대-구덕 명 [전역] → ᄀᆞ는대-구덕.

ᄀᆞᆫ-물 명 간-물. 소금기가 섞인 물. [전역]

ᄀᆞᆫ시롱-ᄒᆞ다 형 [전역] → ᄀᆞ느롱-ᄒᆞ다.

ᄀᆞᆫ장 명 [전역] → 물-장. 고ᄀᆞᆫ장.

ᄀᆞᆫ-절이다 동 소금 기운이 속속들이 배어들게 하다. [전역]

ᄀᆞᆫ제-수까락 명 [전역] → ᄀᆞᆫ제-술.

ᄀᆞᆫ제-술 명 간자-숟가락. [전역] = ᄀᆞᆫ제-수까락.

ᄀᆞᆫ제-오름 명 <지> 제주시 아라1동 제주대학교 교내에 숲으로 덮여 있는 낮은 오름. 표고 298미터. [아라] = 권제-오름.

ᄀᆞᆫ-지르다 동 소금 기운이 속속들이 배어들게끔 하다. ＊소금 ᄀᆞ져 오니 그냥 ᄀᆞᆫ지러 불엇주.(소금 가져 오니 그냥 간하여 버렸지요.) [전역] = ᄀᆞᆫ-질르다.

ᄀᆞᆫ질-ᄀᆞᆫ질 부 간질-간질. ＊목이 ᄀᆞᆫ질ᄀᆞᆫ질 ᄀᆞ렵다.(목이 간질간질 가렵다.) [전역]

ᄀᆞᆫ질ᄀᆞᆫ질-ᄒᆞ다 형 간질간질-하다. ＊똠두드레기가 나민 ᄀᆞᆫ질ᄀᆞᆫ질ᄒᆞ영 ᄀᆞ렵나.(땀띠가 나면 간질간질해서 가렵다.) [전역]

ᄀᆞᆫ-질르다 동 [전역] → ᄀᆞᆫ-지르다.

ᄀᆞᆫ-피다 동 미역이나 톳 따위의 해초류를 말릴 때 하얀 가루가 생기다. [하도]

ᄀᆞᆫ-ᄒᆞ다 동 소금 기운이 배어들게 간간이 소금을 흩뿌리다. [전역]

ᄀᆞᆫ다 동 말-하다. ＊(속) 밤새낭 ᄀᆞᆫ단 보난 어느 마누라 죽어시넨 ᄒᆞᆫ다.(밤새도록 말하다 보니 어느 부인 죽었느냐고 한다.) [전역] = ᄀᆞᆯ다[4].

ᄀᆞᆯ각지 명 <도> [표선 수산] → ᄀᆞᆯ갱이.

ᄀᆞᆯ강-ᄀᆞᆯ강 부 쥐가 이로 단단한 물건을 긁어 뜯는 소리. [전역]

ᄀᆞᆯ강-쉐 명 <도> ＊밧뒨 들민 ᄀᆞᆯ강쉐 소리.(밭엔 들면 호미 소리.) [전역] → ᄀᆞᆯ갱이.

ᄀᆞᆯ개기 명 <도> [표선 수산] → ᄀᆞᆯ갱이.

ᄀᆞᆯ개비 명 <동> 개구리. [노형 조수인성] = 가가비, 가개비, 갈가비, 개개비. 고개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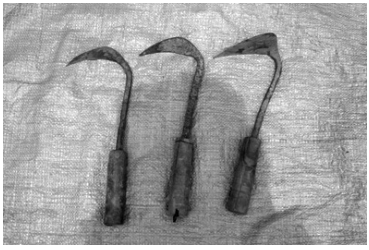


ᄀᆞᆯ개비

ᄀᆞᆯ개비-힘 명 개구리-헤엄. 개구리처럼 두 발을 함께 오므렸다가 뻗쳤다 하면서 치는 헤엄. ＊쳇 번은 영영히지 못ᄒᆞ주게. 영영 ᄒᆞ믄 이거 ᄀᆞᆯ개비힘이엔 ᄒᆞ주게.(첫 번은 이렇게 이렇게 하지 못하지.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것 개구리헤엄이라고 하지.) [이호]

ᄀᆞᆯ갱 명 <도> ＊ᄀᆞᆯ갱 심엉 집으로 가게.(호미 잡고 집으로 가자.) [전역] → ᄀᆞᆯ갱이.

ᄀᆞᆯ갱이 명 <도> 호미(鋤). ＊검질매단 모다들언, ᄀᆞᆯ갱이로 막 좃아 가는 거라.(김을 매다가 모여들어서 호미로 막 쪼아 가는 것이라.)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ᄀᆞᆯ각지, ᄀᆞᆯ강-쉐, ᄀᆞᆯ개기, ᄀᆞᆯ갱, ᄀᆞᆯ게, 쉐-ᄀᆞᆯ갱이, 호맹이, 호멩이.



ᄀᆞᆯ갱이

ᄀᆞᆯ게 명 <도> [서귀포] → ᄀᆞᆯ갱이.

ᄀᆞᆯ겡이-농ᄉᆞ 명 <농> 밭을 갈 쟁기도 없어서 호미로 땅을 파고 씨를 뿌려서 짓는 농사. [전역]

ᄀᆞᆯ겨-가다 동 앞질러 나가다. [전역]

ᄀᆞᆯ기다[1] 동 갈기다(剪). [전역] = ᄀᆞ리다[1]. 고 ᄀᆞᆯ기다.

ᄀᆞᆯ기다[2] 동 깔기다(刮). [전역] = ᄀᆞ리다[2]. 고 ᄀᆞᆯ기다.

ᄀᆞᆯ기야기 명 닭이 우는 소리. ＊펭풍에 그린 황계 양 놀개 뚝딱 치고 ᄌᆞ른 야개 질게 빼영 ᄀᆞᆯ기야기 울어.(병풍에 그린 황계 양 날개 뚝딱 치고 짧은 목을 길게 빼어 꼬끼오 울어.) [전역]

ᄀᆞᆯ다[1] 동 갈다(替). [전역]

ᄀᆞᆯ다[2] 동 갈다(磨). [전역]

ᄀᆞᆯ다[3] 동 차에 치이다. [전역]

ᄀᆞᆯ다[4] 동 [전역] → ᄀᆞᆫ다.

ᄀᆞᆯ라-아지다 동 [전역] → ᄀᆞᆯ라-안지다.

ᄀᆞᆯ라-안지다 동 가라-앉다. [전역] = ᄀᆞᆯ라-아지다, ᄀᆞᆯ라-앉다. 고 ᄀᆞ라앉다.

ᄀᆞᆯ라-앉다 동 [전역] → ᄀᆞᆯ라-안지다

ᄀᆞᆯ레기[1] 명 바구니 받침대. 물기가 있는 물건을 운반하는 바구니 밑에 붙여서 물이 등에 흐르는 것을 방지하는 물건. [전역] = 바데.

ᄀᆞᆯ레기[2] 명 쌍둥이. [전역] = ᄀᆞᆯ로기, ᄀᆞᆯ루기, ᄀᆞᆯ에기, ᄀᆞᆯ오기, 쌍-동이, 쌍-둥이.

ᄀᆞᆯ로기 명 [인성 조수 노형 화순 하원 조천] → ᄀᆞᆯ레기[2].

ᄀᆞᆯ론-오름 명 <지> [안덕] → ᄀᆞᆯ른-오름.

ᄀᆞᆯ뢍-ᄒᆞ다 형 물건이 서로 크고 작음이 없이 가지런하다. [전역]

ᄀᆞᆯ뢔다 동 어떤 행동을 하려고 마구 움직이다. [전역] = ᄀᆞᆯ뤠다.

ᄀᆞᆯ루기 명 [노형 조수 인성 조천 화순 하원] → ᄀᆞᆯ레기[2].

ᄀᆞᆯ뤠다 동 [전역] → ᄀᆞᆯ뢔다.

ᄀᆞᆯ르다 동 괴다. ＊비만 오민 마당에 물 ᄀᆞᆯ른다.(비만 오면 마당에 물이 괸다.) [전역]

ᄀᆞᆯ른-오름 명 <지>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북쪽, 동광 육거리 동쪽에 두 봉우리가 쌍둥이처럼 나란한 두 오름, [전역] = ᄀᆞᆯ론-오름, 병-악[1](並岳), 엿인머리-오름.

ᄀᆞᆯ리 명 ① 가루가 되게 짓빻아 놓은 물건. [전역] ② 사기나 유리 따위를

짓빻아 놓은 가루. [전역]

ᄀᆞᆯ리-나다 동 눈의 가시가 되다. [전역]

ᄀᆞᆯ리다 동 [전역] *(속) 글 못ᄒᆞ는 놈 붓 ᄀᆞᆯ린다.(글 못하는 놈이 붓 고른다.) *(속) ᄀᆞᆯ리당 눈 먼 사위 ᄒᆞᆫ다.(고르다가 눈 먼 사위를 맞는다.) *(속) 나 ᄯᆞᆯ이 고와사 사윌 ᄀᆞᆯ린다.(내 딸이 고와야 사위를 고른다.) *(속) 눈 까진 ᄯᆞᆯ 가졍 사위 ᄀᆞᆯ린다.(애꾸눈이 딸 가지고 사위 고른다.) [전역] → ᄀᆞᆯ희다.

ᄀᆞᆯ매 명 <동> [화순 서홍 표선 태흥] → ᄀᆞᆯ메기.

ᄀᆞᆯ매-올림 명 <농> [영평] → 쉬돌림.

ᄀᆞᆯ메 명 <동> [세화] → ᄀᆞᆯ메기.

ᄀᆞᆯ메기 명 <동> 갈매기. [인성 태흥 표선 세화 조천 노형 어도 조수] = ᄀᆞᆯ매, ᄀᆞᆯ메, ᄀᆞᆯ멩이, ᄀᆞᆯ미[1].

ᄀᆞᆯ메-들다 동 갈마-들다. [전역] → ᄀᆞᆯ메-들이다.

ᄀᆞᆯ메들-이다 동 갈마들-이다. [전역] = ᄀᆞᆯ메-들다, 어나-들이다.

ᄀᆞᆯ멩이 명 <동> [하원] → ᄀᆞᆯ메기.

ᄀᆞᆯ미[1] 명 <동> [수산] → ᄀᆞᆯ메기.

ᄀᆞᆯ미[2] 명 <어> 조간대(潮間帶) 층위마다의 경계점. [대포]

ᄀᆞᆯ아-내다 동 갈아-내다. 이미 있는 사람이나 물건을 새로운 사람이나 물건으로 바꾸어 내다. [전역]

ᄀᆞᆯ아-대다 동 갈아-대다. [전역]

ᄀᆞᆯ아-세우다 동 갈아-세우다. [전역]

ᄀᆞᆯ아-입다 동 갈아-입다. [전역]

ᄀᆞᆯ아-ᄐᆞ다 동 갈아-타다. [전역]

ᄀᆞᆯ양ᄀᆞᆯ양-ᄒᆞ다 형 몸매가 몹시 가늘고 약하다. *몸이 ᄀᆞᆯ양ᄀᆞᆯ양ᄒᆞ다.(몸이 가늘고 약하다.) [전역]

ᄀᆞᆯ양-ᄒᆞ다 형 몸매가 가늘고 약하다. *자인 식구 중에서 몸메가 질 ᄀᆞᆯ양ᄒᆞ여.(저 아이는 식구 중에서 몸매가 제일 가늘고 약해.) [전역]

ᄀᆞᆯ에기 명 [서홍 태흥 표선] → ᄀᆞᆯ레기[2].

ᄀᆞᆯ에기-섬 명 <지> [서귀포 중문] → 성제-섬.

ᄀᆞᆯ-오기 명 [전역] → ᄀᆞᆯ레기[2]. 고 ᄀᆞᆯ오기.

ᄀᆞᆯ-왓 명 <지> 제주시 이호1동의 한 자연마을. [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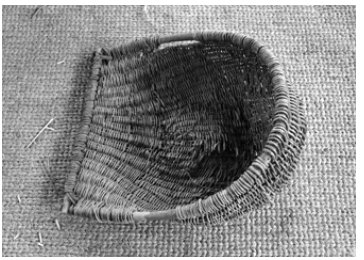
ᄀᆞᆯ왕-ᄒᆞ다 형 물건이 크고 작음이 없이 서로 고르고 가지런하다. [전역] = ᄀᆞᆯ황-ᄒᆞ다.

ᄀᆞᆯ왜다 동 어떤 행동을 하려고 자꾸만 움직이다. [전역]

ᄀᆞᆯ이 명 개미. 연(鳶) 싸움에서 이길 목적으로 연줄을 질기고 날카롭게 하기 위하여 연줄에 먹인 유리의 고운 가루. [전역]

ᄀᆞᆯ이다 동 [전역] → ᄀᆞᆯ희다.

ᄀᆞᆯ체 명 삼태기. *(속) ᄀᆞᆯ체 부지런은 하늘도 못 막나.(삼태기 부지런은 하늘도 못 막는다.) [전역]



ᄀᆞᆯ체

ᄀᆞᆯ체-사둘 명 <도> 우도(牛島)에서만 전승되는 자리돔 잡이용 그물. [전역]
ᄀᆞᆯ체-산담 명 삼태기 모양으로 에둘린 산담. [고내]
ᄀᆞᆯ체-오름[1] 명 <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북서쪽 '돗ᄂᆞ리오름'의 딴 이름. 말굽형으로 벌어진 분화구의 형태가 마치 삼태기처럼 생겼음. [한림 금악 협재]
ᄀᆞᆯ체-오름[2] 명 <지> [성읍 송당 선흘] → 체-오름.
ᄀᆞᆯ체-오름[3] 명 <지> [금악 협재 명월] → 돗ᄂᆞ리-오름.
ᄀᆞᆯ-테 명 좀처럼 닦아지지 않게 붙은 때(垢). [전역]
ᄀᆞᆯ팜 부 거푸. [전역] = ᄀᆞᆯ포.
ᄀᆞᆯ포 부 [전역] → ᄀᆞᆯ팜.
ᄀᆞᆯ황-ᄒᆞ다 형 [서홍] → ᄀᆞᆯ왕-ᄒᆞ다.
ᄀᆞᆯ희다 동 가리다. 여럿 가운데 하나를 구별하여 고르다. [전역] = ᄀᆞᆯ리다, 골이다. 고 ᄀᆞᆯ히다.
ᄀᆞᆱ작-ᄀᆞᆱ작 부 갉작-갉작. [전역]
ᄀᆞᆲ 명 겹(疊). *이젠 하늘과 땅이 ᄀᆞᆲ이 나난.(이제는 하늘과 땅이 겹이 지니.) [전역] → ᄀᆞᆸ[1]. 고 ᄀᆞᆲ.
ᄀᆞᆲ다 동 우묵한 곳에 물이 모여 괴다. [전역]
ᄀᆞᆷ[1] 명 감. 재료. 'ᄀᆞ슴·ᄀᆞ심·ᄀᆞ음'의 준말. [전역]
ᄀᆞᆷ[2] 명 경계가 되는 줄을 친 자국. [전역] = ᄀᆞ믓.
ᄀᆞᆷ-긋다 동 경계가 되는 줄을 치다. [전역]
ᄀᆞᆷᄀᆞᆷ-ᄒᆞ다 형 감감-하다. [전역]
ᄀᆞᆷ다 동 감다. ① 위아래 눈시울을 합치다. [전역] ② 몸이나 머리 따위를 물에 씻다. [전역] 고 ᄀᆞᆷ다.
ᄀᆞᆷ상-거리다 동 가물-거리다. [전역]
ᄀᆞᆷ상-ᄀᆞᆷ상 부 눈에 가물거리면서 밝히는 모양. *자꾸 ᄀᆞᆷ상ᄀᆞᆷ상 눈에 비친다.(자꾸 'ᄀᆞᆷ상ᄀᆞᆷ상' 눈에 비친다.) [전역]
ᄀᆞᆷ상ᄀᆞᆷ상-ᄒᆞ다 동 눈을 실눈으로 떴다 감았다 하다. [전역]
ᄀᆞᆷ새기 명 <동> [전역] → ᄀᆞᆷ세기[1].
ᄀᆞᆷ새-눈 명 실-눈. [전역] = ᄀᆞᆷ생이-눈.
ᄀᆞᆷ생이-눈 명 [노형 조수] → ᄀᆞᆷ새-눈.
ᄀᆞᆷ세기[1] 명 <동> 돌-고래. [우도] = ᄀᆞᆷ새기, ᄀᆞᆷ수기.
ᄀᆞᆷ세기[2] 명 <동> [김녕] → ᄀᆞ메기-보말.
ᄀᆞᆷ셍이 명 <동> [조수] → ᄀᆞ메기-보말.
ᄀᆞᆷ수기 명 <동> [구좌] → ᄀᆞᆷ세기[1].
ᄀᆞᆷ실-ᄀᆞᆷ실 부 감실-감실. [전역]
ᄀᆞᆷ작-ᄀᆞᆷ작 부 깜작-깜작. [전역]
ᄀᆞᆷ작이다 동 깜작-이다. 눈을 감았다 떴다 하다. [전역]
ᄀᆞᆷ지다 동 감-기다. 물로 씻기다. *뜨슨 물로 머리를 ᄀᆞᆷ지라.(따뜻한 물로 머리를 감겨라.) [전역]
ᄀᆞᆷ초다 동 [전역] → 감추다.
ᄀᆞᆷ추다 동 [전역] → 감추다.
ᄀᆞᆷ추와-가다 동 물건을 남몰래 감추어 가져가다. [노형 김녕 수산 서홍]
ᄀᆞᆸ[1] 명 겹. 나눈 몫. *뗏밥을 먹어도 톡 ᄒᆞ게 서로 ᄀᆞᆸ을 갈랑 먹나.(뗏밥을 먹어도 톡 하게 서로 몫을 나누어 먹는다.) [전역] → ᄀᆞᆲ.
ᄀᆞᆸ[2] 명 사리를 분별함. [노형 어도]
ᄀᆞᆸ-갈르다 동 사리를 분별하여 한계를

짓다. [전역]

ᄀᆞᆸᄀᆞᆸ-ᄒᆞ다 형 갑갑-하다. [전역]

ᄀᆞᆸ-데가리 명 사리 또는 분별력을 낮추어 이르는 말. [전역]

ᄀᆞᆸ-쏠 명 <농> 두 조각으로 으깨진 보리쌀. ＊두 개로 벌러진 건 ᄀᆞᆸ쏠.(두 조각으로 으깨진 건 보리쌀.) [행원]

ᄀᆞᆸ-엇다 형 ① 사물에 대한 분별 능력이 모자라다. ＊말ᄒᆞ는 거 보아도 그 사름은 ᄀᆞᆸ엇은 사름이여.(말하는 것 보아도 그 사람은 능력이 모자란 사람이네.) ＊저 사름 말은 ᄀᆞᆸ엇나.(저 사람 말은 종잡을 수 없다.) [전역] ② 금, 경계가 없다. ＊엿날은 하늘광 땅이 ᄀᆞᆸ엇엇수다.(옛적에는 하늘과 땅이 경계가 없었습니다.) [전역] ③ 한-없다. 끝-없다. ＊일은 시작ᄒᆞ민 ᄀᆞᆸ엇나.(일은 시작하면 한없다.) [전역] = ᄀᆞᆸ-읏다.

ᄀᆞᆸ-엇이[1] 부 한-없이. ＊손 부치민 ᄀᆞᆸ엇이 ᄒᆞᆫ다.(어떤 일을 시작하면 한없이 한다.) [전역] = ᄀᆞᆸ-읏이[1].

ᄀᆞᆸ-엇이[2] 부 사물에 대한 분별 능력이 모자란 채로. 분별없-이. ＊게난 ᄀᆞᆸ엇이 나상 ᄂᆞᆸ드지 말렌 ᄒᆞ난에.(그러니 분별없이 나서서 나대지 말라고 하니까.) ＊ᄀᆞᆸ엇이 ᄒᆞ는 말은 아무도 안 듣나.(분별없이 하는 말은 아무도 안 듣는다.) [전역] = ᄀᆞᆸ-읏이[2].

ᄀᆞᆸ-읏다 형 [전역] → ᄀᆞᆸ-엇다.

ᄀᆞᆸ-읏이[1] 부 [전역] → ᄀᆞᆸ-엇이[1].

ᄀᆞᆸ-읏이[2] 부 ＊ᄀᆞᆸ읏이 말 ᄀᆞᆯ앗당 손해만 보앗주.(분별없이 말했다가 손해만 봤지.) [전역] → ᄀᆞᆸ-엇이[2].

ᄀᆞᆸ-치지다 동 ① 사리를 분별하여 한계를 짓다. ＊어떵 잘 ᄀᆞᆸ치지라. 보게.(어떻게 잘 구분해 봐라. 보자.) [전역] ② 얽히고 섞갈린 사물을 분간해 내다. ＊씰 ᄒᆞᆫ 겁 ᄒᆞᆫ 겁 ᄀᆞᆸ치지당 보난 더 범벅만 져라.(실 한 가닥 한 가닥 구분하다 보니 더 섞갈리더라.) [전역]

ᄀᆞᆺ[1] 명 가(邊). ＊엉장 ᄀᆞᆺ듸서 놀지 말라.(절벽 가에서 놀지 마라.) [전역] = ᄀᆞ[1].

ᄀᆞᆺ[2] 부 이제 금방. [전역]

ᄀᆞᆺ-궤기 명 뭍-고기. 날짐승·길짐승 등 뭍짐승 고기의 총칭. ＊바당궤기 ᄀᆞᆺ궤기 중에 아니 먹을 장ᄃᆞᆨ의 궤기, 이내몸이 벵중인 때에 ᄃᆞᆨ의 소리 벗이로고나.(바닷고기와 뭍짐승 고기 중에 아니 먹을 수탉의 고기, 이 내 몸이 병중인 때에 닭의 소리 벗이로구나.) [전역]

ᄀᆞᆺ난-아기 명 [전역] → ᄀᆞᆺ난-아의.

ᄀᆞᆺ난-아의 명 갓난-아이. [전역] = ᄀᆞᆺ난-아기.

ᄀᆞᆺ-내 부 가(邊) 쪽으로 나오게. [노형조수 서홍 수산]

ᄀᆞᆺ다 동 가위로 잘라 베다. [전역] 고 ᄀᆞᆫ다.

ᄀᆞᆺ-몸 명 <식> 해변에 나는 모자반. [월정]

ᄀᆞᆺ-바당 명 뭍 가까이에 있는 바다. [전역]

ᄀᆞᆺ-바위 명 바닷가 주변의 바위. [전역]

ᄀᆞᆺ-볽긔 명 이제 막 밝을 무렵. [전역]

ᄀᆞᆺ사 부 아까. 금방. 금세. [전역] = ᄀᆞᆺᄁᆞᆺ, ᄀᆞᄊᆡ, ᄀᆞᆺ세.

ᄀᆞᆺ세 부 [전역] → ᄀᆞᆺ사.

곳-지다 형 한편 가(邊)에 위치해 있다. [전역]
곳-질 명 갓-길. [전역]
곳-좀수 명 <어> 비교적 가까운 바닷가에서 해산물을 따는 해녀. [시흥]
곶다[1] 동 [인성 어도 조수 하원 화순] → 갖다.
곶다[2] 형 온전-하다. [전역]
곶-몰 명 ① 깊은 산속에 방목하는 말. [전역] ② 야생의 말. * 옛날은 할락산에 곶몰들이 하낫주.(예전에는 한라산에 '곶몰'들이 많았었지.) [전역]
곶인-상[1](床) 명 <도> 헐뜯어지지 않는 상. [전역]
곶인-상[2] 명 <민> 혼인 잔칫날 신랑, 신부를 맞을 때 차리는 음식상. 맛있는 음식을 빠뜨리지 않고 다 갖추어 올려놓은 상. [전역]
-까 어미 -까. ① 용언 어간에 붙는 '-ㅂ네-·-ㅂ니-'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제삼자의 행동을 지정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② 동사 어간에 붙은 '-암시크-·-엄시크-·-염시크-·-람시크-·-아시크-·-어시크-·-여시크-·-라시크-' 등에 연결되어서, 그 행동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③ 체언이나 동사의 명사형에 붙은 '-우-' 또는 동사에 붙은 '-쿠-'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사실이나 행동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까격 명 가격(價格). [전역] = 가격, 깨격.
까꾸리 명 <도> 해녀들이 물질을 하면서 소라, 성게 등을 따는 데 쓰는 도구. 호미와 비슷함. * 잠녀덜 까꾸리덜 ᄒᆞ영근에 소라덜 잡듯 메역호미도 ᄯᅡ나게 헤.(잠녀들 '까꾸리'들 해서 소라들 잡듯 '미역낫'도 다르게 해.) [이호]


까꾸리

까끄레기-오름 명 <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굼부리 동쪽에 이웃한 오름. 위에 둘레 500미터의 얕은 환형 화구가 있음. 표고 429미터. [전역] = ᄀᆞ끄레기-오름.
까다 동 까다. ① 껍질을 벗기다. [전역] ② 속을 들추어내다. [전역] = ᄭᅡ다.
까다롭다 형 [전역] → 까드랍다.
까닥 명 까닭. [전역] = 까닭.
까닭 명 [전역] → 까닥.
까도리 명 <동> 까투리. [전역]
까드랍다 형 까다롭다. [전역] = 까다롭다.
까마귀-산듸 명 <식> 밭벼의 일종. [송당]
까-먹다 동 까-먹다. [전역]
까부리 명 <의> [하도] → 끼부리.

까불다 동 까불다. 가볍고 방정맞게 행동하다. [전역] = 까불리다.
까불리다 동 건방지고 주제넘게 행동하다. *잘난 쳑 까불리지 말라.(잘난 척 까불지 마라.) [전역] = 까불다.
까불-이[1] 명 까부는 사람. 건방지고 주제넘은 짓을 하는 사람을 얕잡아서 일컫는 말. *저런 까불이영은 놀지 말라.(저런 '까불이'랑은 놀지 마라.)
까불이[2] 명 <의> *그 까불이 쓴 사름 ᄒᆞᆫ 마흔 안이라.(그 까불이를 착용한 사람은 한 마흔 살 안이다). [전역] → 끼부리.
까옥-까옥 부 까마귀가 우는 소리. [전역] = 깍-깍[1].
까-주다[1] 동 닭의 알이나 항아리 따위를 깨다. [전역]
까-주다[2] 동 부스럼 따위의 겉껍질을 째서 고름을 내다. [전역] = 꺼-주다, 터-주다[2].
까지 조 [전역] → ᄭᅡ지.
까지다[1] 동 꺼지다. 속이 곯아서 겉이나 가운데가 우묵하게 들어가다. [전역] = 꺼지다[1].
까지다[2] 동 닭의 알이나 항아리 같은 것이 깨어지다. [전역]
까지도 조 까지도. [전역] → ᄭᅡ지도.
까치 명 <동> [노형 서홍] → 간치.
깍[1] 명 총. 짚신의 운두를 이루는 낱낱의 울. [전역]
깍[2] 명 밑. 끄트머리. *그 물은 알 깍이 더 지픈다.(그 물은 아래쪽 끄트머리가 더 깊다.) [전역]
깍[3] 명 가장-자리. [전역]
깍[4] 명 꼴찌. [전역] = 꼴찌, 꼴치.
깍[5] 부 [전역] → 꽉[1].
깍-강개 명 [전역] → 깍-갱기.
깍-갱기 명 앞-갱기. [전역] = 깍-강개.
깍-깍[1] 부 까마귀의 소리. [전역] = 까옥-까옥.
깍-깍[2] 부 침 따위로 찌르거나 튀어나온 물체가 닿아서 배기는 상태. *울민 침을 깍깍 놔 불키어.(울면 침을 '깍깍' 놓아 버리겠다.) *등꽝 깍깍 누르떤 못 자키어.(등뼈가 '깍깍' 눌려서 못 자겠다.) [전역]
깍-깍[3] 부 [전역] → 꽉-꽉.
깍깍-귀 명 몹시 먹은 귀. *늙은 놈의 깍깍귀야.(늙은 놈의 막막한 귀야.) [전역]
깍-꼴렝이 명 '꼴찌'의 낮춤말. [전역] = 똥-꼴렝이.
깍-내다 동 총을 드리다. 총을 꼬다. *신 삼젱 ᄒᆞ민 깍내어사 ᄒᆞᆫ다.(신을 삼으려면 총을 드려야 한다.) [전역]
깍녹 명 <동> [노형] → 사슴.
깍놀일-대 명 [서홍] → 쥐총.
깍-대 명 [수산 가시] → 쥐총.
깍-등(-等) 명 꼴-등. [전역]
깍물 명 [수산 서홍] → 각물.
깍-보리 명 <농> 탈곡을 끝낸 보리의 쭉정이 따위를 바람에 불릴 때 덜 여물어 가장 바깥쪽으로 밀려난 보리. [봉성]
깍쟁이 명 깍쟁이. [전역]
깍-조녜 명 <어> [전역] → 하군.
깍-조수 명 <어> [전역] → 하군.
깍-치마 명 <의> [전역] → 깍-치메.
깍-치메 명 <의> 풀-치마(-裙). [전역] = 깍-치마.

깍-ᄒᆞ게 부 바늘, 침 등 끝이 뾰족한 물건으로 찌르는 모양. *말 안 들민 깍ᄒᆞ게 침 주렌 ᄒᆞ크라이.(말 듣지 않으면 '깍ᄒᆞ게' 침 주라고 하겠어.) [전역]

깐치 명 <동> [수산] → 간치.

깔깔-ᄒᆞ다 형 깔깔-하다. 성격이 바르고 맑다. [전역]

깜짝 부 깜짝. 갑자기 놀라는 모양. [전역]

깝 명 값(價). *(속) 자랑ᄒᆞ민 자랑ᄒᆞᆫ 깝이 싯나.(자랑하면 자랑한 값이 있다.) *(속) 재민 잰 깝이 싯나.(재빠르면 재빠른 값이 있다.) [전역]

깝-나가다 동 값-나가다. [전역]

깝-ᄂᆞ리다 동 물건 값이 떨어지다. *올힌 너미 깝ᄂᆞ런 손해 본 사름이 하.(올해는 너무 값이 떨어져서 손해 본 사람이 많아.) [전역]

깝-ᄊᆞ다 형 값-싸다. [전역]

깡똥-ᄒᆞ다 형 깡똥-하다. [전역]

깡-보리 명 <식> 보리의 일종. [송당]

깡악-깡악 부 깨갱-깨갱. 개가 아프거나 무서워서 자주 지르는 소리. [전역]

깨 부 꽤. 어지간-히. [전역] = 꽤[2].

깨격 명 [전역] → 까격.

깨늘다 형 [전역] → ᄀᆞ늘다.

깨다 동 ① 깨다. 무슨 일을 도중에서 어그러뜨리다. *약조를 깨다.(약속을 깨다.) [전역] ② 장작 따위를 쪼개다. *도치로 낭 깨는 ᄌᆞ꼿듸랑 가지 말라.(도끼로 나무를 쪼개는 옆에는 가지 마라.) [전역]

깨-물다 동 깨-물다. [전역]

깰랑-ᄒᆞ다 형 가느-다랗다. [전역]

꺼깽이 명 <도> [전역] → 거껭이.

꺼꾸러-지다 동 꺼꾸러-지다. [전역]

꺼꿀로 명 거꾸로 분만했을 때에 동네 사람들이 그 애에게 어렸을 때 붙이는 이름. [전역]

꺼끄먹 명 <동> 어린 전복. [표선 온평]

꺼딱-꺼딱 부 까닥-까닥. 분수없이 잘난 체하며 경망하게 자꾸 행동하는 모양. [전역]

꺼떱 명 껍데기. *전북 꺼떱.(전복 껍데기). [보목]

꺼러러 감 물고기가 미끼를 물었을 때 기뻐서 낚싯대를 들어 올리며 지르는 소리. [노형 이호 삼양]

꺼럭 명 [전역] → 터럭.

꺼럽다 형 껄끄럽다. [전역] 고 써럽다.

꺼름-ᄒᆞ다 형 [전역] → 꺼림-ᄒᆞ다.

꺼리다 동 꺼리다. 피하거나 싫어하다. [전역] = 끄리다[2].

꺼림-ᄒᆞ다 형 꺼림-하다. [전역] = 꺼름-ᄒᆞ다, 끄림-ᄒᆞ다.

꺼멍-물 명 염색에 사용하는 검은 물. *속곳은 하양 광목 ᄒᆞ민 때 잘 묻으니까, 바당에 갈 때 입으는 거난 그 꺼멍물 들여 가지고 만들아.(속곳은 하얀 광목으로 하면 때가 잘 묻으니까, 바다에 갈 때 입는 것이니 그 검은 물 들여서 만들어.) [하도]

꺼정 조 까지. [전역] → ᄁᆞ지.

꺼-주다 동 [전역] → 까-주다[2].

꺼지다[1] 동 [전역] → 까지다[1].

꺼지다[2] 동 꺼지다. ① 불 같은 것이 사라져 없어지다. [전역] ② 거품이 사라져 없어지다. [전역]

꺼풀 명 꺼풀. [전역] = 거풀. 고 거피.

꺽검은-조 명 <식> 이삭에 털 같은 것이 돋는 검고 차진 조(粟)의 한 가지. [인성 노형 조수]

꺽-버렝이 명 <동> 털이 북슬북슬하게 돋은 벌레. [서홍 표선 수산 세화 조천 조수 어도] = 꺽-버리, 꺽장-버렝이.

꺽-버리 명 <동> [수산 조천 태흥] → 꺽-버렝이.

꺽장-버렝이 명 <동> [노형] → 꺽-버렝이.

꺽죽 명 [전역] → 거죽.

껄[1] 명 [전역] → 터럭.

껄[2] 명 [김녕 가시 어도] → 걸[2].

껄랑-거리다 동 껄렁-거리다. 경망스럽게 행동하다. *저 껄랑거리는 지세 보라.(저 껄렁거리는 꼬락서니 보라.) [전역]

껄랑-껄랑 부 껄렁-껄렁. [전역]

껄랑껄랑-ᄒᆞ다 형 껄렁껄렁-하다. [전역]

껄랑-패 명 껄렁껄렁한 사람의 무리. [전역]

껄랭-이 명 껄렁-이. 껄렁껄렁한 사람. [전역]

껄랭이-짓 명 껄렁거리는 짓거리. *제발 껄랭이짓이랑 ᄒᆞ지 말라.(제발 껄렁이짓은 하지 마라.) [전역]

껄랭이짓-거리 명 껄렁거리는 행동거지. *자인 맨날 껄랭이짓거리만 ᄒᆞ멍 뎅긴다.(저 아이는 만날 껄렁이짓거리만 하면서 다닌다.) [전역]

껄랭이짓-ᄒᆞ다 동 껄렁이짓-하다. [전역]

껍데기 명 [전역] → 겁덕.

껍데기신-홍애 명 <동> 목탁-가오리. *껍데기신홍애는 껍데기가 살강살강ᄒᆞᆫ 거주.(목탁가오리는 껍질이 꺼칠꺼칠한 게지.) [사계]

껍죽 명 [전역] → 거죽.

껍질 명 [전역] → 겁질[1].

께[1] 명 <도> [노형 조수 인성] → 물렛-줄.

께[2] 명 <도> [수산 가시 김녕] → 무생이.

께[3] 조 께. 여격 조사 '에게'의 높임말. [전역]

께금-낭 명 <식> ① 난티잎-개암나무. [전역] ② 참-개암나무. [전역]

께꽝-낭 명 <식> [전역] → 개꽝-낭.

께끄라-지다 형 까다롭고 야속하다. *이만저만 께끄라진 사름이 아니라라.(이만저만 까다롭고 야속한 사람이 아니더라.) [전역] = 께끄랍다, 께드라-지다, 께드락-지다.

께끄랍다 형 [전역] → 께끄라-지다.

께다[1] 동 깨다(醒). [전역]

께다[2] 동 깨다. 단단한 물체를 쳐서 조각나게 하다. [전역]

께독-ᄒᆞ다 동 ① 독촉-하다. *꼭 나오렌 께독ᄒᆞ단 봐도 안 나왓어라.(꼭 나오라고 독촉하다가 봐도 안 나왔더라.) [전역] ② 깨우치다. *글 께독ᄒᆞᆫ 놈 대밭으로 먼저 절ᄒᆞᆫ다.(글 깨우친 놈 대밭으로 먼저 절한다.) [전역]

께드라-지다 형 [전역] → 께끄라-지다.

께드락-지다 형 [전역] → 께끄라-지다.

께돋다 동 깨닫다. [전역]

께미[1] 명 된장 따위의 덩어리에서 떼어낸 부분, 또는 그 부스러기. *개안티 물린 땐 그 집 장께미 처메민

좋나.(개한테 물린 때는 그 집 된장 덩어리 처매면 좋다.) [전역]

께미[2] 명 [수산 인성 서홍 가시] → 꿰미.

께여-나다 동 깨-나다. [전역]

께우다[1] 동 알을 까게 하다. [전역]

께우다[2] 동 깨-우다. 자는 이를 잠에서 깨게 하다. [전역]

께우치다 동 깨우치다. [전역]

-껜 어미 -까고. 체언에 붙은 '-우-' 또는 용언 어간에 붙은 '-ㅂ네-·-ㅂ니-' 등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지정하여 묻는 의문법 어미 '-까'의 변형 '-께'에, 이미 지난 동작을 표시하는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 -꽨.

껨-신 명 [인성 화순 하원 서홍 표선] → 꿤-신.

-껭 어미 -까고. 체언에 붙은 '-우-' 또는 용언 어간에 붙은 '-ㅂ네-·-ㅂ니-' 등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지정하여 묻는 의문법 어미 '-까'의 변형 '-께'에, 장차 할 동작을 표시하는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깨여-지다 동 깨-지다. [전역]

꼬그라-지다 동 구부러-지다. *어린 때 꼬그라진 낭 쉐 질멧가지 뒌다. (어린 때 구부러진 나무 소 길맛가지 된다.) [전역]

꼬글-꼬글 부 ① 꼬불-꼬불. *꼬글꼬글 오고라진 올렛질.(꼬불꼬불 오그라진 '올렛길'.) [전역] ② 꼬깃-꼬깃. *꼬글꼬끌 구겨진 핀지 봉투.(꼬깃꼬깃 구겨진 편지 봉투.) [전역] = 꼬불-꼬불.

꼬글락-꼬글락 부 ① 꼬부랑-꼬부랑. *꼬글락꼬글락 트라진 소롯질.(꼬부랑꼬부랑 비틀어진 오솔길.) [전역] ② 꼬깃-꼬깃. *막 ᄆᆞ르뀌어 놓으난 꼬글락꼬글락 구겨젼 말이 아녀.(마구 주물러 놓으니 꼬깃꼬깃 구겨져서 말이 아니다.) [전역] = 꼬글랑-꼬글랑, 꼬불랑-꼬불랑.

꼬글랑-꼬글랑 부 [전역] → 꼬글락-꼬글락.

꼬꼬댁-꼬꼬댁 부 닭이 꼬꼬댁거리는 소리. [전역]

꼬녀 명 고누. [서홍 노형 어도 조수] = 꼬니, 꼰, 꼰저, 꼰즈.

꼬-놓다 동 꼲다(評). 평가-하다. 채점-하다. *시관 멧이 앚아서 그 글을 다 꼬놓아 가는디.(시관(試官) 몇이 앉아서 그 글을 평가하여 가는데.) [전역]

꼬니 명 <도> [가시 태흥 수산 화순 하원] → 꼬녀.

꼬다 동 꼬다. [전역]

꼬득-꼬득 부 꼬들-꼬들. [전역]

꼬라-지다 동 꺼꾸러-지다. *질ᄀᆞ에 꼬라젼 죽엇저.(길가에 꺼꾸러져서 죽었다.) [전역]

꼬락사니 명 꼬락서니. [전역] = 꼬락지, 꼴-딱지.

꼬락지 명 [전역] → 꼬락사니.

꼬랑지 명 [전역] → 꼴랑지.

꼬렝이 명 [전역] → 꼴렝이.
꼬리[1] 명 [전역] → 꼴리.
꼬리[2] 명 [전역] → 씰-꼬리.
꼬리-시리 명 <식> 조의 일종. [영평]
꼬릿-꼬릿 부 말을 또릿또릿하게 하는 모양. [전역]
꼬릿-박 명 북(紡錘). 베틀에서 날실의 틈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씨실을 푸는 기구.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비[3].
꼬박 부 꼬박. 어떤 상태를 고스란히 그대로. ＊꼬박 ᄒᆞ룻밤 새엇저.(꼬박 하룻밤을 새웠다.) [전역]
꼬박-거리다 동 꼬박-거리다. [전역]
꼬박-꼬박[1] 부 꼬박-꼬박. 꼬박거리는 모양. ＊늘 꼬박꼬박 졸기만 ᄒᆞᆫ다.(늘 꼬박꼬박 졸기만 한다.) [전역]
꼬박-꼬박[2] 부 꼬박-꼬박. 어김없이 고대로 계속하는 상태. ＊벨일이 셔도 밥은 꼬박꼬박 츳아 먹나.(별일이 있어도 밥은 꼬박꼬박 찾아서 먹는다.) [전역]
꼬박꼬박-ᄒᆞ다[1] 동 꼬박꼬박-하다. 머리나 몸을 앞으로 자꾸 조금씩 숙였다가 들다. [전역]
꼬박꼬박-ᄒᆞ다[2] 동 거르지 않고 어김없이 고대로 계속하다. [전역]
꼬부리다 동 꼬부리다. [전역]
꼬불-꼬불 부 [전역] → 꼬글-꼬글.
꼬불랑-꼬불랑 부 [전역] → 꼬글락-꼬글락.
꼬스락-머리 명 [가시] → 고스락-머리.
꼬슬르다 동 [전역] → 꼬시다.
꼬슬오다 동 그럴듯한 말로 남을 꾀어 마음이 움직이게 하다. [어도]
꼬시다 동 꾀다. 유혹-하다. 구슬리다. ＊ᄀᆞ만이 신 사름 꼬시지 말라.(가만히 있는 사람 꾀지 마라.) [전역] = 꼬슬르다, 꼬실리다, 꽁동이다.
꼬실-꼬실[1] 부 [전역] → 고실-고실.
꼬실-꼬실[2] 부 곱슬-곱슬. [전역]
꼬실꼬실-ᄒᆞ다 형 곱슬곱슬-하다. [전역]
꼬실리다 동 [전역] → 꼬시다.
꼬이다 동 꼬이다. ① 꼼을 당하다. [전역] ② 하는 일 따위가 순순히 잘 되지 않고 얽히거나 뒤틀리다. [전역]
꼬줄멩이 명 <동> [노형] → 고즐멩이.
꼬질멩이 명 <동> [노형 조수] → 고즐멩이.
꼬챙이 명 가늘고 끝이 뾰족한 쇠나 나뭇가지. [전역] = 곶이.
꼭[1] 부 ＊바농으로 꼭 찔르민 피 난다.(바늘로 꼭 찌르면 피가 난다.) ＊쎄게 꼭 심으라.(세게 꼭 잡아라.) [전역] → 꽉[1].
꼭[2] 부 ＊요번 올 때랑 꼭 ᄀᆞ졍 오라.(요번 올 때는 꼭 가지고 와라.) [전역] → 똑[1].
꼭-꼭 부 ① 침이나 뾰족한 끝으로 찌르거나 누르는 상태. ＊침으로 꼭꼭 찔른다.(침으로 꼭꼭 찌른다.) [전역] ② 힘을 주어 잡거나, 치아로 잘 깨무는 상태. ＊밥은 꼭꼭 잘 씹엉 먹어사 ᄒᆞᆫ다.(밥은 꼭꼭 잘 씹어서 먹어야 한다.) [전역]
꼭대기 명 [전역] → 꼭데기.
꼭데기 명 꼭대기. [전역] = 꼭대기.
꼭지[1] 명 [전역] → 곡지[1].
꼭지[2] 명 [전역] → 곡지[2].
꼭-ᄒᆞ게 부 바늘, 침 등 끝이 뾰족한

물건으로 찌르는 모양. [전역]

꼰 명 [인성 서홍 수산 화순 하원] → 꼬녀.

꼰저 명 <도> [인성 화순 하원 어도 노형] → 꼬녀.

꼰주 명 <도> [세화 노형 어도 조수] → 꼬녀.

꼴 명 꼴. 생김새나 됨됨이. [전역]

꼴깍-꼴깍 부 꿀꺽-꿀꺽의 작은말. 물 따위를 마실 때 꿀꺽거리는 소리, 또는 모양. *물 들이싸는 소리가 꼴깍꼴깍 들렴저.(물 들이켜는 소리가 꼴깍꼴깍 들리고 있다.) [전역]

꼴-딱지 명 [전역] → 꼬락사니.

꼴랑지 명 [전역] = 꼬랑지.

꼴랭이 명 [전역] → 꼴렝이.

꼴렝이 명 꼬랑이. [전역] = 꼬렝이, 꼴랭이, 꽁당지, 꽁댕이.

꼴리 명 꼬리(尾). [전역] = 꼬리[1], 출리, 총지.

꼴-불견 명 꼴-불견. 모양이나 행동이 볼품없는 것. [전역]

꼴-성그리다 동 [김녕 조수 수산] → 꼴-싱으리다.

꼴-성으리다 동 [조수 김녕 인성 서홍 수산] → 꼴-싱으리다.

꼴-싱그리다 동 [노형 조수 인성] → 꼴-싱으리다.

꼴-싱으리다 동 얼굴을 찡그리다. [조수 노형 인성] = 꼴-성그리다, 꼴-성으리다, 꼴-싱그리다, 꼴-싱크리다, 꼴-징으리다.

꼴-싱크리다 동 [전역] → 꼴-싱으리다.

꼴-아깝다 형 아니꼽다. *ᄒᆞ는 짓이 꼴아깝다.(하는 짓이 아니꼽다.) [전역]

꼴-좋다 형 꼴-좋다. [전역]

꼴-징으리다 동 [조수] → 꼴-싱으리다.

꼴찌 명 [전역] → 깍[4].

꼴치 명 [전역] → 깍[4].

꼼꼼-ᄒᆞ다 형 찬찬하고 빈틈이 없다. [전역] = 콤콤-ᄒᆞ다.

꼼냥이 명 꼼바리. [전역] = 꼼넹이.

꼼넹이 명 [수산] → 꼼냥이.

꼼-생이 명 좀-생이. 꼼꼼-쟁이. 꼼꼼한 사람. [전역] = 콤-생이.

꼼질락-꼼질락 부 꼼지락-꼼지락. [전역]

꼼짝-꼼짝 부 꼼짝-꼼짝. [전역]

꼼짝-돌삭 부 꼼짝-달싹. [전역]

꼼치 명 <식> 머위. [전역]

꼽다[1] 동 꼽다. [전역]

꼽다[2] 동 꽂다. [전역] = 꼿다, 꽂다, 꽂우다.

꼽사리 명 ① 꼽사리. [전역] ② 무슨 일에 끼어들어 아니꼽게 만드는 행위. *가는 듸마다 꼽사리 안 찔 때가 엇나.(가는 데마다 꼽사리를 안 낄 때가 없다.) [전역] = 곱사리.

꼽사리-찌다 동 꼽사리를 끼다. *지ᄎᆞ레도 아닌듸 무사 꼽사리찌젱 헴시니?(제 차례도 아닌데 왜 꼽사리를 끼려고 하느냐?) [전역] = 곱사리-찌다.

꼽재기 명 [수산] → 눈-곱제기.

꼿 명 [전역] → 고장[1].

꼿-감관(-監官) 명 <민> 서천꽃밭을 관리하는 신. [전역]

꼿-곡지 명 꽃-꼭지. 꽃-자루. 꽃이 붙어 있는 밑줄기. [전역]

꼿꼿-이 부 비틀어짐이 없이 올곧은 상태나 모양. [전역]

꼿꼿-ᄒᆞ다 형 비틀어지지 않고 올곧다. ＊그 사름은 숭잡을 듸 엇이 꼿꼿ᄒᆞ여.(그 사람은 흉잡을 데 없이 꼿꼿해.) [전역]
꼿-남 명 <식> [전역] → 꼿-낭.
꼿-낭 명 <식> 꽃-나무. [전역] = 고장-낭, 꼿-남.
꼿-놀이 명 <민> 제주시 용담동 궁당에서 행하던 당굿. [용담]
꼿다 동 [전역] → 꼽다[2].
꼿-대 명 꽃-대(花軸). [전역]
꼿-댕이 명 <민> 꽃-당혜(←唐鞋). [용담]
꼿-맞이 명 <민> 영등굿의 별칭. [전역]
꼿-멍게 명 <동> [신촌] = 꼿-멍기.
꼿-멍기 명 <동> 멍게의 일종. 멍게 모양이 꽃처럼 예쁘다는 데서 붙여진 이름. [이호] = 꼿-멍게, 꼿-멍지.
꼿-멍지 명 [용담] → 꼿-멍기.
꼿-몽우리 명 [전역] → 꼿-봉오리.
꼿-밧 명 꽃-밭. [전역]
꼿-봉 명 [전역] → 꼿-봉오리.
꼿-봉오리 명 꽃-봉오리. [전역] = 꼿-몽우리, 꼿-봉, 꼿-봉오지.
꼿-봉오지 명 [조수 어도] → 꼿-봉오리.
꼿-불 명 [수산 김녕 조수 어도 노형] → 곳-불.
꼿-상게 명 <민> 꽃 가꾸기 내기. [전역] = 꼿-상기.
꼿-상기 명 <민> [전역] → 꼿-상게.
꼿-섭 명 [전역] → 꼿-입.
꼿-술 명 꽃-술(花鬚). [전역]
꼿-시리 명 <민> 꽃-시루. 불도맞이에서 놀리는 시루떡. [도순]
꼿-씨 명 꽃-씨. [전역]
꼿-염불 명 <요> [전역] → 염불 소리.
꼿-이파리 명 [전역] → 꼿-입.
꼿-입 명 꽃-잎. [전역] = 꼿-섭, 꼿-이파리, 꼿-입사귀, 꼿-입생기.
꼿-입사귀 명 [전역] → 꼿-입.
꼿-입생기 명 [전역] → 꼿-입.
꼿-점 명 <민> [전역] → 꼿-풀이.
꼿질-침 명 <민> 불도맞이의 질침. [전역]
꼿타러-듬 명 <민> 불도맞이에서 서천꽃밭에 들어가 아기를 잉태시키는 꽃을 따는 의례. [전역]
꼿-풀이 명 <민> 불도맞이에서 동백나무 가지로 풀이하는 점괘. [전역] = 꼿-점.
꼿피니-오름 명 <지> [조천 남원] → 궤펭이-오름.
꽁글-꽁글 부 [전역] → 공글-공글.
꽁기 명 [전역] → 공기.
꽁꽁 부 ① 물체가 단단한 모양. ＊물이 꽁꽁 얼엇저.(물이 꽁꽁 얼었다.) [전역] ② 단단하게 묶은 모습. ＊풀어지지 말게 꽁꽁 무끄라.(풀어지지 않게 꽁꽁 묶어라.) [전역]
꽁당지 명 [어도] → 꼴렝이.
꽁댕이 명 [전역] → 꼴렝이.
꽁댕-이다 동 아주 부리가 좁은 물동이에 물을 길어 이고서 걸음을 걸을 적에 흔들리어 소리가 나다. [전역]
꽁동 명 충동. 어떤 일을 하도록 남을 부추기거나 심하게 마음을 흔듦. [전역]
꽁동-이다 동 [전역] → 꼬시다.
꽁동-ᄒᆞ다 동 충동-하다. 어떤 일을 하도록 남을 부추기거나 심하게 마음을 흔들어 놓다. [전역]

꽁무니 명 꽁무니. [전역]
꽁무니-꽝 명 꽁무니-뼈(尾椎骨). [전역]
꽁-생완 명 꽁-생원. 성질이 꽁한 사람을 조롱하는 말. [전역] = 꽁-쉬, 꽁쉬-다리.
꽁-수 명 꼼-수. 쩨쩨한 수단이나 방법. *꽁수에 넘어나지 말라.(꼼수에 넘어가지 마라.) [전역]
꽁-쉬 명 [전역] → 꽁-생완.
꽁쉬-다리 명 [전역] → 꽁-생완.
꽁지 명 꽁지. [전역]
꽁치 명 <동> 꽁치. [전역]
꽁-ᄒᆞ다 형 꽁-하다. 말이 없고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다. *ᄒᆞᄉᆞᆯᄒᆞᆫ 일에도 꽁ᄒᆞ영 잘 토라진다.(조금마한 일에도 꽁해서 잘 토라진다.) [전역] = 꿍-ᄒᆞ다.
꽂다 동 [전역] → 꼽다[2].
꽂우다 동 [전역] → 꼽다[2].
꽉[1] 부 꽉. ① 힘을 주는 모양. *꽉 쥐라.(꽉 잡아라.) [전역] ② 가득 차거나 막힌 모양. *꽉 차 부난 못 들어간다.(꽉 차 버려서 못 들어간다.) [전역] ③ 참고 견디는 모양. *아파도 꽉 츰아사 ᄒᆞᆫ다.(아파도 꽉 참아야 한다.) [전역] = 깍[5], 꼭[1].
꽉[2] 감 남을 놀라게 할 때 지르는 소리. [전역]
꽉-꽉 부 ① 꽉-꽉. 힘을 주어 담는 모양. *꽉꽉 누르뜨멍 담으라.(꽉꽉 누르면서 담아라.) [전역] ② 가득 찬 모양. *사름이 꽉꽉 차서라.(사람들이 꽉꽉 찼더라.) [전역] = 깍-깍[3].
꽉-쥐다 동 꽉-쥐다. 매우 딴딴하게 힘주어 쥐다. [김녕 어도]
꽉-차다 동 꽉-차다. 가득 차다. [전역]
꽝[1] 명 심. 무·배추 따위의 뿌리 속에 들어 있는 질긴 줄기. *넘피 늙엉 이파리 엇어불믄 꽝 나오믄 패라.(넓패 늙어서 잎이 없어지면 심 나오면 패야.) [전역]
꽝[2] 명 뼈(骨). [전역] = 뻬.
꽝- 두 '단단한'의 뜻으로 쓰이는 말. [전역]
꽝-꽝 부 딴딴하게 굳어진 상태. *꽝꽝 ᄆᆞᆯ라 부난 못 먹켜.(딴딴하게 말라 버려서 못 먹겠다.) [전역]
꽝꽝-ᄒᆞ다 형 딴딴-하다. *ᄆᆞᆯ랑지지 안 ᄒᆞ연 너미 꽝꽝ᄒᆞ다.(말랑하지 않아서 너무 딴딴하다.) [전역]
꽝-낭 명 <식> 꽝꽝-나무. [전역]
꽝둥이 명 <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3리의 한 자연마을. [광령] = 광둥이.
꽝-들다 동 무의 살 속에 거뭇거뭇하고 딴딴한 질긴 심이 박히다. [전역]
꽝메기 명 <도> 꽹과리. [전역]
꽝-ᄆᆞ디 명 [전역] → 꽝-ᄆᆞ작.
꽝-ᄆᆞ작 명 뼈-마디(骨--). [전역] = 꽝-ᄆᆞ디.
꽝-베 명 [서홍 수산 김녕] → 돌-베.
꽝베-낭 명 <식> [서홍 수산 김녕] → 돌페-낭.
꽝ᄇᆞ른-궤기 명 생선의 가시나 육류의 뼈를 발라낸 고기. [전역]
꽝-뿔 명 '꽝'처럼 딱딱한 노루의 뿔. *노린 겨울에는 털뿔, 여름에는 꽝뿔.(노루는 겨울에는 '털뿔', 여름에는 '꽝뿔'.) [봉성]
꽝질-오리 명 <식> 대맥(大麥)의 일종.

이삭과 까끄라기가 긴 보리. [영평 대포]

꽤[1] 명 <식> 참-깨(眞荏子). [전역]

꽤[2] 부 [수산 김녕] → 깨.

꽤-떡 명 *꽤떡도 누엉 먹젱 ᄒᆞ민 눈에 가시 든다.(깻묵도 누워서 먹으려고 하면 눈에 티끌 든다.) [전역] → 꽷-주시.

꽤-왓 명 참깨-밭. [전역]

꽤-죽 명 <음> 깨-죽. [전역]

꽤-지름 명 <음> [전역] → 춤-지름.

-꽨 어미 -까고. [전역] → -껜.

꽷-ᄀᆞ르 명 깻-가루. [전역]

꽷-주셍이 명 [전역] → 꽷-주시.

꽷-주시 명 깻-묵. [전역] = 꽤-떡, 꽷-주셍이.

꾸다[1] 동 꾸다. 뒤에 도로 갚기로 하고 남의 것을 얼마 동안 빌려 쓰다. *(속) 꾼 깝은 말 닷 뒈.(꾼 값은 말(斗) 닷 되.) [전역]

꾸다[2] 동 꾸다. 꿈을 보다. [전역]

꾸렁-내 명 [전역] → 구린-내.

꾸려-아지다 동 [전역] → 꿀려-앉다.

꾸물락-거리다 동 ① 꾸무럭-거리다. *꾸물락거리는 거 보난 죽진 안 헷저.(꾸무럭거리는 것을 보니 죽지는 않았다.) [전역] ② 동작을 굼뜨게 하다. *꾸물락거리당 보민 ᄒᆞ루 해다 간다.(꾸무럭거리다가 보면 하루 해 다 지나간다.) [전역]

꾸물락-꾸물락 부 꾸무럭-꾸무럭. *버렝이가 꾸물락꾸물락 기어감저.(벌레가 꾸무럭꾸무럭 기어가고 있다.) [전역]

꾸물락-ᄒᆞ다 동 꾸무럭-대다. *건디리민 꾸물락ᄒᆞᆫ다.(건드리면 꾸무럭댄다.) [전역] = 꿈질락-ᄒᆞ다.

꾸박-거리다 동 꾸벅-거리다. [전역]

꾸박-꾸박 부 꾸벅-꾸벅. [전역]

꾸슬리다 동 구슬리다. 그럴 듯한 말로 남을 꾀어서 마음이 움직이게 하다. [전역] = 꾸실리다.

꾸실리다 동 [조수 수산 김녕] → 꾸슬리다.

꾸지럼 명 [조수 어도] → 꾸질먹.

꾸질먹 명 꾸지람. [전역] = 꾸지럼.

꾼 명 꾼. 어떤 일에 능숙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장날엔 베라벨 꾼들이 다 모다든다.(장날에는 별의별 꾼들이 다 모여든다.) [전역]

-꾼 미 -꾼. ① '어떤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잘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전역] ② '어던 일을 습관적으로 하는 사람' 또는 '어떤 일을 즐겨 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전역] ③ '어떤 일 때문에 모인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전역]

꿀[1] 명 <동> [인성 서홍 김녕] → 돌-굴.

꿀[2] 명 <음> [전역] → 청[1].

꿀 명 덩굴. [전역]

꿀깍-꿀깍 부 꿀꺽-꿀꺽.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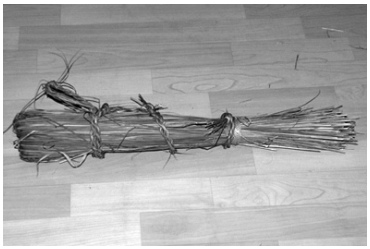
꿀려-앉다 동 꿇어-앉다. *웃어룬 앞이선 꿀려앚아사 ᄒᆞᆫ다.(웃어른 앞에서는 꿇어앉아야 한다.) [전역] = 꾸려-아지다.

꿀-리다 동 꿇-리다. *그만ᄒᆞᆫ 으름장에 꿀리믄 거 ᄉᆞ나이가 아닙주.(그만한 으름장에 꿇리면 거 사나이가 아니지요.) [전역]

꿀-벌 명 <동> [전역] → 청-벌.
꿀-통 명 <도> [전역] → 청-통.
꿈[1] 명 [전역] → 춤[1].
꿈[2] 명 꿈(夢). [전역]
꿈-나다 동 구미가 당기다. 먹고 싶어 입에 군침이 돌다. *놈 먹는 거 보민 꿈난다.(남 먹는 것을 보면 군침이 돈다.) [전역]
꿈-보다 동 꿈-꾸다. *밤이 꿈본 말 안 흔다.(밤에 '꿈본' 말 안 한다.) [전역]
꿈-사리 명 [전역] → 꿈-자리.
꿈-자리 명 꿈-자리. 꿈에 나타난 일이나 내용. *언치냑 꿈자리가 안 좋안게.(어젯밤 꿈자리가 좋지 않았어.) [전역] = 꿈-사리.
꿈-절 명 꿈-결. [전역]
꿈직-꿈직 부 꿈적-꿈적. *꿈직꿈직 움직이지 말라.(꿈적꿈적 움직이지 마라.) [전역]
꿈질락-ᄒᆞ다 동 [전역] → 꾸물락-ᄒᆞ다.
꿍-ᄒᆞ다 형 *꿍ᄒᆞ영 펜와질 때가 엇나.(꽁해서 표정이 펴질 때가 없다.) [전역] → 꽁-ᄒᆞ다.
꿩 명 <동> 꿩(雉) [전역]
꿩-놀레 명 <요> 꿩을 제재로 한 동요. [전역]
꿩-독새기 명 꿩-알. [전역]
꿩-마농 명 <식> 달래. [전역] = 꿩-발[1], 드르-마농, 드릇-마농.
꿩-매 명 <도> 둥지에 알을 품고 앉아 있는 암꿩을 때려잡는 회초리. [성읍]
꿩-바치 명 꿩을 사냥하는 사람. [전역]
꿩-발[1] 명 <식> [성읍] → 꿩-마농.
꿩-발[2] 명 <식> 파드득-나물. [전역]
꿩-밥 명 <식> [수산] → 꿩-조.
꿩-비 명 <도> 꿩의 꼬리로 만든 빗자루. [건입]
꿩-비애기 명 <동> 꺼병이. 꿩-병아리. [전역] = 꿩-빙애기.
꿩-빙애기 명 <동> [전역] → 꿩-비애기
꿩-살통 명 <도> 꿩을 몰아 담아 잡으려고 나뭇가지로 만든 터널 모양의 통. [봉성]
꿩-수룩 명 이른 봄에 떼를 이루어 다니는 꿩 무리. [성읍]
꿩-엿 명 <음> 꿩고기를 넣어서 고아 낸 엿. *우리 집의선 가마솟 걸엉 꿩엿도 하영 헤낫주.(우리 집에서는 가마솥 걸어서 꿩엿도 많이 했었지.) [전역]
꿩-조 명 <식> 꿩의-밥. [노형 서홍] = 꿩-밥.
꿩-조개 명 <동> 바지락-조개. *꿩ᄀᆞ찌 얼룩얼룩ᄒᆞ난 꿩조개라고 ᄒᆞ지.(꿩처럼 얼룩얼룩하니까 '꿩조개'라고 하지.) [한동]
꿩-코 명 <도> 꿩을 잡기 위한 올가미. [전역]
꿩-탈 명 <식> ① 자금-우. [전역] ② 산호-수. [전역]
꿰 명 꾀(謀). [전역]
꿰꼬리 명 <동> 꾀꼬리(鶯). [전역]
꿰꼬리-오름 명 <지>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의 보문사 뒤쪽에 있는 오름. 북동록에 샘이 있음. 표고 428미터. [전역] = 원-오름(院--).
꿰-꼿 명 <식> 참깨-꽃. [전역]
꿰다[1] 동 꿰다(貫). [전역]

꿰다[2] 동 끓다. *솟듸 물 꿰건 골으라.(솥에 물이 끓으면 말해라.) [전역] = 끌르다[1].
꿰-다리 명 꾀-보. [전역] = 꿰-둥이, 꿰-쉬, 꿰-쟁이.
꿰-둥이 명 [전역] → 꿰-다리.
꿰미 명 꿰미. [전역] = 께미[2].
꿰-빠다 동 남의 속마음을 떠보다. [전역]
꿰-수다 동 하늘 높이 솟다. [전역]
꿰-쉬 명 [전역] → 꿰-다리.
꿰-우다 동 ① 물을 와글와글 끓게 하다. [전역] ② 벌레 따위가 알을 까게 하다. [전역] = 쒜-우다②.
꿰-쟁이 명 [전역] → 꿰-다리.
꿰-ᄒᆞ다 동 잔꾀를 피우다. [전역]
꿱-꿱 부 소리를 내어 지르는 모양. *꿱꿱 울르지 말라.(꿱꿱 우르지 마라.) [전역]
뀀-신 명 <의> 가죽을 잘게 오려 끊어서 날에 꿰어 창으로 삼아 만든 신. [전역] = 국쉬-신, 껨-신.
뀃-벵 명 [전역] → 뀃-빙.
뀃-빙 명 꾀-병. [전역] = 뀃-벵.
뀅이-수리 명 <지> [전역] → 뀅이-술.
뀅이-술 명 <지> 제주시 노형동 월산마을 동북쪽에 형성되었던 동네. [전역] = 뀅이-수리.
뀌다[1] 동 반죽-하다. 가루나 흙 따위에 물을 넣어서 이리저리 뒤적이며 이기다. [전역]
뀌다[2] 동 (방귀를) 뀌다. *똥 뀐 놈이 성낸다.(방귀 뀐 놈이 화낸다.) [전역]
뀌와-주다 동 꾸어-주다. 남에게 돈 따위를 빌려 주다. [전역]
뀌-우다 동 빌리다. [전역]
뀌작-뀌작 부 가루나 흙 따위에 물을 넣고 끈적끈적 주무르는 모양. [전역]
끄깨기 명 [법환] → 끄넷기.
끄넷기 명 끈. [하도] = 끄깨기.
끄다 동 끄다(滅). [전역]
끄딱-끄딱 부 끄떡-끄떡. [전역] = 끄떡-끄떡.
끄딱-엇다 형 [전역] → ᄁᆞ딱-읏다.
끄땡이 명 물건의 맨 끝 부분. [전역] = 긋갱이.
끄떡-끄떡 부 [전역] → 끄딱-끄딱.
끄떡-읏다 형 [전역] → ᄁᆞ딱-읏다.
끄렁-내 명 [전역] → 그끄렁-내.
끄리다[1] 동 꾸리다. [전역]
끄리다[2] 동 [어도] → 꺼리다.
끄림-ᄒᆞ다 형 [전역] → 꺼림-ᄒᆞ다.
끄막 부 끔벅. [전역] = 끔박.
끄막-끄막 부 끄먹-끄먹. [전역] = 끄먹-끄먹.
끄막이다 동 깜박-이다. [전역]
끄먹-끄먹 부 [전역] → 끄막-끄막.
끄서귀[1] 명 [수산 가시] → 끄슬귀.
끄서귀[2] 명 [수산] → 섬피.
끄슬귀 명 끌-개. 무명을 날 때에 무명실을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는 기구. [전역] = 그슬퀴, 끄서귀[1].
끄슬퀴 명 [가시 김녕] → 섬피.
끄슬피 명 [김녕] → 섬피.
끄시렁-내 명 화독-내. 오래된 새(茅) 따위를 태웠을 때 나는 연기 냄새. *ᄒᆞ끔 전의 굴묵 짇은 모냥이여. 끄시렁내 나는 게.(좀 전에 '굴묵 짇은' 모양이네. 화독내 나는 것이.) [전역] = 그시렁-내.

끄짐-바리 명 <어> 끌-낚시. [우도]
끄집어-내다 동 끄집어-내다. [전역]
끄치다[1] 동 [전역] → 그치다[1].
끄치다[2] 동 [전역] → 그치다[2].
끄트머리 명 끄트머리. [전역]
끅 명 <식> *(속) 끅 걷으레 간 놈이 정당벌립 망 돌른다.(칡 걷으러 간 놈이 정당벌립 테 엮는다.) [전역] → 칙.
끅-껍 명 칡-넌출. *끅껍 걷언 대렴ᄒᆞ곡.(칡넌출 걷어 대렴하고.) [전역]
끅-꿀 명 [전역] → 칙-줄.
끅-줄 명 [전역] → 칙-줄.
끈 명 끈(纓). [전역]
끈-끈 부 ① 끙-끙. *배가 끈끈 아프다.(배가 끙끙 아프다.) [전역] ② 남몰래 끙끙거리는 상태. *지 혼자 속으로 끈끈 ᄌᆞ든다.(자기 혼자 속으로 끙끙 걱정한다.) [전역]
끈끈-이 부 심하지는 않으나 은근히. *바싹 안 아판 끈끈이 아프우다.(와싹 아프지 않고 은근히 아픕니다.) [전역]
끈끈-저들다 동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속으로 매우 근심하다. [전역] = 끈끈-ᄌᆞ들다.
끈끈-ᄌᆞ들다 동 [김녕 수산 인성 노형 조수] → 끈끈-저들다.
끈다 동 [전역] → 그치다[2].
끈닥-끈닥 부 준득-준득. [전역]
끈어-불다 동 [전역] → 그차-불다.
끈작-끈작[1] 부 끈적-끈적. [전역]
끈작-끈작[2] 부 준득-준득. [전역]
끈치다 동 [전역] → 그치다[2].
끌 명 <도> 끌(鑿). [전역]
끌다 동 시간이나 일을 늦추거나 미루다.[전역]
끌럭지 명 [가시] → 끌레기[1], 끌레기[2].
끌레기[1] 명 <민> 띠, 짚 등을 한 줌 정도 해서 그 양쪽 끝을 묶고 그 속에 고기 따위를 싸 넣는 꾸러미. [전역] = 끌럭지, 끌르기.



끌레기[1]

끌레기[2] 명 꾸러미.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끌럭지, 끌르기.
끌레기-치송 명 <민> 띠, 짚 등에 고기 따위를 싼 끌레기를 들에 버림으로써 신(神)을 치송(致送)하는 의례. [전역]
끌르기 명 [수산] → 끌레기[1], 끌레기[2].
끌르다[1] 동 *팔팔 끌르는 물에 ᄃᆞᆼ그라.(팔팔 끓는 물에 담가라.) [전역] → 꿰다[2].
끌르다[2] 동 끄르다(解). [전역] = 크르다, 클르다.
끌리다 동 끓-이다. '끌르다'의 사동사. *물을 팔팔 끌리라.(물을 팔팔 끓여라.) [전역]
끌-마깨 명 <도> [전역] → 끌-마께.
끌-마께 명 <도> 끌-방망이. 끌질을 할 때 끌의 머리를 때리는 망치. [전역] = 끌-마깨, 끌-망치, 둥글-망치.

끌-망치 명 <도> [함덕] → 끌-마께.
끌-오름 명 <지> 서귀포시 영천동에 있는 오름. 표고 271미터. [토평 하례]
끔 명 틈. *나무 돌 끔 사름이 사는디 이내 몸은 의지홀 곳 읏구나.(나무 돌 틈 사람이 사는데 이내 몸은 의지할 곳 없구나.) [전역]
끔끔-ᄒᆞ다 형 뜸-하다. 소식이나 인적이 멈추다. *요샌 소식이 끔끔ᄒᆞ다.(요새는 소식이 뜸하다.) [전역]
끔막-끔막 부 깜박-깜박. [전역]
끔막-이다 동 [전역] → 끔박-이다.
끔박 부 [전역] → 끄막.
끔박-이다 동 끔벅-이다. 눈을 잠깐 감았다 떴다 하다. [전역] = 끔막-이다.
끔작-끔작 부 끔적-끔적. [전역]
끔찍-ᄒᆞ다 형 끔찍-하다. ① 정도가 지나쳐 놀랍다. [전역] ② 진저리가 날 정도로 참혹하다. [전역] ③정성이나 성의가 몹시 대단하고 극진하다. [전역]
끔짝-ᄒᆞ다 동 끔쩍-하다. 큰 눈을 세게 잠깐 감았다가 뜨다. [전역]
끗[1] 명 끗. 성적(成績)의 결과, 곧 잘되고 못됨을 나타내는 점수(點數). [전역]
끗[2] 명 끝(末). [전역] = 긋, 끗갱이, 끝.
끗갱이 명 [전역] → 끗[2].
끗끗-내 부 끝끝-내. [전역]
끗-나다 동 끝-나다. [전역]
끗내 부 끝-내. [전역]
끗내다 동 '끝나다'의 사동사. *일을 끗내다.(일을 끝내다.) [전역]
끗다[1] 동 끌다. 잡아당겨 자리를 옮기다. *안 오젱 ᄒᆞ건 끗엉이라도 오라.(안 오려고 하거든 끌어서라도 와라.) [전역]
끗다[2] 동 떠-내려가다. *물에 끗어 부난 아무것도 엇다.(물에 떠내려가 버리니 아무것도 없다.) [전역]
끗-댕이 명 끄트머리. *맨 끗댕이에 앚이라.(맨 끄트머리에 앉아라.) [전역]
끗-동 명 끝-동. 재목을 다듬을 때 그 대가리를 잘라낸 나무토막. [전역]
끗들이 부 무엇을 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끝내. [전역]
끗-ᄆᆞ끄다 동 [전역] → 끗-ᄆᆞ치다.
끗-ᄆᆞ치다 동 끝-마치다. *일 끗ᄆᆞ치민 곧 오라.(일 끝마치면 곧 와라.) [전역] = 끗-ᄆᆞ끄다.
끗-ᄆᆞ침 명 일을 마지막으로 끝냄. [전역]
끗-뿔다 형 끝-빨다. 끝이 차차 가늘어져 뾰족하다. [전역]
끗어-내다 동 꺼-내다. [전역]
끗어-둥기다 동 꺼-당기다. 앞으로 끌어당기다. [전역]
끗-자락 명 끝. [전역]
끝 명 [전역] → 끗[2].
끙-끙 부 끙-끙. 앓거나 힘든 일에 부대끼어 내는 소리. [전역]
끼각-거리다 동 찌걱-거리다. [전역]
끼각-끼각 부 찌걱-찌걱. [전역]
끼다[1] 동 [전역] → 찌다[1].
끼다[2] 동 끼다. ① 그 축에 들다. [전역] ② 틈에 박다. [전역]
끼리-끼리 부 끼리-끼리. [전역]
끼부리 명 <의> 해녀가 작업할 때 쓰는 모자의 한 가지. 머리와 뒷목덜미와 양뺨을 덮을 수 있게 꾸며짐. 양

쪽 귀 높이에 구멍이 뚫어져 무자맥질했을 때 여기로 물이 빠져 나오게 되어 있음. 1960년대 이후 일부 지방에서 해녀들 스스로 만들어 썼지만, 고무 모자가 나오면서 사라졌음. [전역] = 까부리, 까불이[2], 풍뎅이[1].



끼부리

끼와-입다 동 [전역] → 주겨-입다.
끼우다[1] 동 끼우다. [전역]
끼우다[2] 동 불을 끄다. [전역]
끼움-골 명 <도> 갓모자를 결은 다음 먹칠을 하거나 정리 작업을 할 때 쓰는 나무로 만들어진 틀. [전역]
낑낑-대다 동 못 견디거나 배가 불러서 낑낑거리다. [전역] = 낑낑-ᄒᆞ다.
낑낑-ᄒᆞ다 동 [전역] → 낑낑-대다.
ㄲ늘다 형 가늘다 [전역]
ㄲ다 동 [전역] → 까다.
ㄲ닥-ㄲ닥 부 까닥-까닥. [전역]
ㄲ닥ㄲ닥-ᄒᆞ다 동 까닥까닥-하다. [전역]
ㄲ닥-웃다 형 [전역] → ㄲ딱-웃다.
ㄲ딱[1] 부 까딱. [전역]
ㄲ딱[2] 부 자칫. *ㄲ딱 잘못ᄒᆞ민 큰일 난다.(자칫 잘못하면 큰일 난다.) [전역]
ㄲ딱-ㄲ딱 부 까딱-까딱. [전역]
ㄲ딱ㄲ딱-ᄒᆞ다 동 [전역] → ㄱ딱ㄱ딱-ᄒᆞ다.
ㄲ딱-웃다 형 끄떡-없다. [전역] = 끄딱-엇다, 끄떡-웃다, ㄲ닥-웃다.
ㄲ딱-ᄒᆞ민 부 까딱-하면. [전역]
ㄲ마기-눈 명 꺼벅-눈. 잇따라 까막까막하는 눈. [김녕 조수 인성] = ㄲ막이-눈.
ㄲ막 부 깜박. [전역]
ㄲ막-ㄲ막 부 까막-까막. 깜박-깜박. [전역]
ㄲ막이-눈 명 [전역] → ㄲ마기-눈.
ㄲ막-이다 동 눈을 감았다 떴다 하다. [전역]
ㄲ장 조 까지. [전역] → ㄲ지.
ㄲ지 조 까지. ①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되어 미치는 지점을 나타내는 격조사. *ㄱ만이 그 솔남 밑의 그 솔남ㄲ지 갓거든게.(가만히 그 소나무 밑의 그 소나무까지 갔거든.) [전역] ② 시각의 한도를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③ '다시 그 위에 첨가하여'의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 *만약 부모님네 돌아가 불민, 이 아시덜ㄲ지 못준디게 굴어질 거 아닌가?(만약 부모님네가 돌아가시면, 이 동생들까지 못견디게 굴 것이 아닌가?) [전역] = 까지, 꺼정, ㄲ장.
ㄲ지는 조 까지는. ①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되어 어느 지점에 미침을 지정하여 제시하는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② 시각의 한도를 지정하여 제시하는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ㄲ지도 조 까지도. ①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되어 미침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② 시각의 한도를 강

조하여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 까지도.

꼰꼰 부 표현하지 못하고 속으로만 근심하는 모양. [전역]

꼰꼰-ᄌᆞ들다 동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속으로 매우 근심하다. [노형 조수인성 김녕 수산]

꼴-대 명 <식> [태흥 표선 수산 세화 조천] → ᄀᆞ-대[1].

꼴다 동 깔다. 밑에 펴 놓다. [전역]

꼴레-옷 명 <의> 누비-옷. 거죽과 안 사이에 솜을 넣어 조금 거칠게 누벼 지은 옷. [전역]

꼴레-이불 명 [전역] → 누비-이불.

꼴레-저고리 명 <의> 누비-저고리. [전역]

꼼막 부 깜박. [전역]

꼼막-꼼막 부 깜박-깜박.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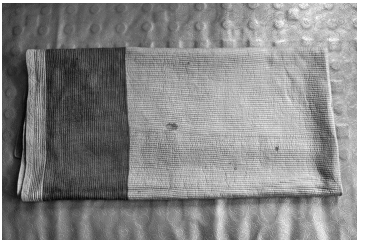
꼼막-이지다 동 깜박-잊다. [전역] = 낌막-이치다.

꼼막-이치다 동 [전역] → 꼼막-이지다.

꼼작-꼼작 부 깜작-깜작. 눈을 감았다 떴다 하는 모양. [전역]

꼼작-놀레다 동 깜작 놀라다. 별안간 놀라다. [전역]

꽁꼼-ᄒᆞ다 형 꼼꼼-하다. [어도 노형]



꼴레-이불

ㄴ

ㄴ 조 ㄴ. ① 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서 그것을 지정하여 제시하거나 그것이 다른 것과 같지 않다거나 하는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② '이제·뿔리' 등의 부사에 붙어서 그 부사의 의미를 세게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ㄴ[1] 어미 -ㄴ. ① 동사의 어간에 붙어서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전역] ② 형용사 어간에 붙어서 현재의 사실을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전역]

-ㄴ[2] 어미 -서. 둘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를 말할 때, 앞에 나오는 용언 어간에 붙은 '-아-·-어-·-여-·-라-'에 연결되어서 이미 지난 동작을 나타내는 어미. 어간 말음이 '-아'인 경우에는 어간에 붙는 '-아'가 줄어듦. [전역]

-ㄴ[3] 어미 -고. 종결어미 '-다·-라·-자·-저·-여·-게·-냐·-니·-디·-고' 등의 변형 '-데·-레·-제·-예·-게·-네·-니·-디·-고' 등에 붙어서, 이미 지난 동작을 표시하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생각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어미. [전역]

-ㄴ가[1] 어미 -ㄴ가. 체언이나 형용사의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사실이나 상태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모르긴 ᄒᆞ되, 그 먼먼ᄒᆞᆫ 디 큰ᄯᆞᆯ만 물 질레 보내부난 엉둥이가 넙시근ᄒᆞᆯ 수밧긔 읏지 아년가?(모르긴 하지만, 그 멀고 먼 곳에 큰딸만 물을 길러 보내니 엉덩이가 넓을 수밖에 없지 아니한가?) [전역]

-ㄴ가[2] 어미 -는가. ① 용언 어간에 붙은 '-암시-·-엄시-·-염시-·-람시-' 등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이거 누게 아명ᄒᆞ여도 우리 아ᄃᆞᆯ이 어느 거 하나 뒈염신가?(이것 누가 아무래도 우리 아들이 어느 것 하나 되고 있는가?) [전역] ② 용언 어간에 붙은 '-아시-·-어시-·-여시-·-라시-' 등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서푼 짜리 과거라도 ᄒᆞ여 나신가?(서푼 짜리 과거(科擧)라도 했었는가?) [전역]

-ㄴ가푸댕 어미 -ㄴ가 싶어. 물음이나 추측을 나타내는 어미. *ᄒᆞᆫ 백 발 짚이 준 술에 궤기 물어신가푸댕 올려오며는 눈도 코도 엇고 먹돌만 자

꾸 낚시에 걸어젼 올라오고.(한 백 발 깊이에 던진 낚싯줄에 고기가 물었는가 해서 올리면 눈도 코도 없고 먹돌만 자꾸 낚시에 걸리어서 올라오고.) [전역]

-ㄴ게 어미 -ㄴ데. ① 체언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쓰여서 상대자도 그 사실을 인정하게끔 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② 용언의 어간에 붙은 '-암시-·-엄시-·-염시-·-람시-' 등에 연결되거나, 또는 '-아시-·-어시-·-여시-·-라시-' 등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행동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ㄴ고 어미 -ㄴ고. ① 체언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쉐막사리 부렝인 촐 도렌 들락 퀴곡, 돗통읫 도새긴 것 도렌 보채어 대곡, 밧거리 씨어멍은 무사 저영 준다닌고?(외양간의 부룩소는 꼴 달라고 날뛰고, 돼지우리의 돼지는 먹이 달라고 보채고, 바깥채 시어머니는 왜 저렇게 잔소리인가?) [전역] ② 용언 어간에 붙은 '-암시-·-엄시-·-염시-·-람시-' 또는 '-아시-·-어시-' 등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행동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저기 누게가 오람신고?(저기 누구가 오고 있는가?) [전역]

-ㄴ고라 어미 ① 용언 어간에 붙은 '-아-·-어-·-여-·-라-·-더-' 또는 '-암시-·-엄시-·-염시-·-람시-' 또는 '-아시-·-어시-·-여시-·-라시-' 등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을 한 게지'란 뜻으로 쓰이는 연결어미. [전역] ② 형용사의 어간에 붙어 '상태에 있는 게지'란 뜻으로 쓰이는 연결어미. [전역] ③ 체언이나 용언에 붙은 '-앗(엇)더-'에 연결되어서, '과거 그 사실' 또는 '과거 그 상태에 있던 게지'란 뜻으로 쓰이는 연결어미. [전역]

-ㄴ다 어미 -ㄴ다.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행동을 직접 지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콩닙 싸젠 ᄒᆞ민 멜쳇은 맵지근ᄒᆞ여사 ᄒᆞᆫ다.(콩잎 싸자면 멸치젓은 매옴해야 한다.) *송악 타레 울담에 올르지 말라, 담 멀어진다.(송악 따러 울타리에 오르지 마라, 담 무너진다.) [전역]

ㄴ덜 조 ㄴ들. 받침 없는 말에 붙어서, 양보와 반문을 겸하여 '-라 할지라도 어찌'의 뜻으로 쓰이는 격조사. [전역] = ㄴ들.

-ㄴ덜 어미 -ㄴ들. [전역] = -ㄴ들.

-ㄴ덜사 어미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다고 할지라도 어찌'의 뜻으로, 반문을 겸하여 쓰이는 어미 '-ㄴ덜'에,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사'가 결합된 어미. [전역]

-ㄴ덴¹ 어미 -ㄴ다고.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행동을 직접 지정하여 나타내는 '-ㄴ다'의 변형 '-ㄴ데'에 '-ㄴ'이 결합되어서, 반문하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전역]

-ㄴ덴² 어미 -ㄴ다는. 받침 없는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행동을 직접 지정

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ㄴ다'의 변형 '-ㄴ데'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그것이 도깨비가 뒈여가지고 해지기 전의 나타나 가지고 막 돌아뎅긴댄 말이여.(그것이 도깨비가 되어서 해지기 전에 나타나서 마구 돌아다닌다는 말이라.) [전역]

-ㄴ뎅 어미 -ㄴ다고. 받침 없는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행동을 직접 지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ㄴ다'의 변형 '-ㄴ데'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ㄴ들 조 [전역] → ㄴ덜.

-ㄴ들 어미 -ㄴ들. 받침 없는 어간에 붙어서, 양보하는 태도로 인정하면서 '-다고 할지라도 어찌'의 뜻으로 반문을 겸하여 쓰이는 연결어미. *동더레 각 서러레 각, 암만 불러본들 뒈여?(동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아무리 불러본들 되겠는가?) [전역]

-ㄴ디[1] 어미 -ㄴ데. 체언이나 형용사 어간에 붙어서, 그 말이 나타내는 바가 당연한 사실로서 다음 말로 넘겨주는 연결어미. *내가 집의 상젠디 내가 가야 그 집의 상제ᄒᆞ고 영장을 ᄒᆞᆫ다.(내가 집에 상제인데 내가 가야 그 집에 상제를 맡고 장사를 치른다.) [전역]

-ㄴ디[2] 어미 -ㄴ데. ① 체언이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말과 상관될 만한 어떤 말을 끌어내기 위하여 쓰이는 연결어미. *제주도 인원 할당을 ᄒᆞ였는디, 오십 명 할당을 헷다고 ᄒᆞ여.(제주도에 인원 할당을 하였는데, 오십 명 할당을 했다고 하더라.) *이제는 머 말ᄒᆞᆯ 것 읎이 이렇게 사는디, 그게 오래 살아가니 세속 사름이 알앗지.(이제는 뭐 말할 것이 없이 사는데, 그게 오래 살아가니 세속 사람이 알았지.) [전역] ②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남의 의견도 듣고자 하는 태도로 다소 감탄의 뜻을 나타낼 때 쓰이는 종결어미. [전역] ③ 용언의 어간에 붙은 '-아시-·-어시-··-여시-··-라시-··-암시-··-엄시-··-염시-··-람시-' 등에 연결되어서, 동작의 계속이나 완료를 표시하면서 남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종결어미. *아방이 멀리서 모시랜 ᄒᆞ여신디 거 큰일납네다.(아버지가 멀리서 모시라고 했는데, 그것 큰일납니다.) [전역]

-ㄴ디[3] 어미 -ㄴ지.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또는 연결어미. [전역]

-ㄴ디[4] 어미 -는지. ① 형용사 '잇다(有)·읏다(無)'의 어간에 붙어서, 막연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② 용언 어간에 붙은 '-암시-··-엄시-··-염시-··-람시-' 등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의 계속에 대해서 막연한 의문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또는 연결어미. [전역] ③ 용언 어간에 붙은 '-아시-··-어시-·

-여시-·-라시-'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의 완료에 대해서 막연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또는 연결어미. [전역]

-ㄴ디[5] 어미 받침 없는 동사 어간에 붙어서, '무엇을 하였는데'의 '-였는데'란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ㄴ지 어미 -ㄴ지. 받침 없는 체언이나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막연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또는 종결어미. [전역]

나[1] 명 나(我). [전역]

나[2] 명 [전역] → 나이.

나[3] 조 나. ① 여럿이 있는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뜻으로 받침 없는 체언에 붙여 쓰는 격조사. *이거나 저거나 아무거나 ᄀᆞ져가라.(이거나 저거나 아무거나 가져가라.) *아무거나 ᄆᆞ음대로 ᄀᆞ지라.(아무거나 마음대로 가져라.) [전역] ② 수량이나 정도를 나타내는, 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 수량이 크거나 많음, 또는 정도가 높음을 강조하는 격조사. *그걸 열 개나 상 뭣 ᄒᆞ젠?(그걸 열 개나 사서 무엇을 하려고?) [전역] ③ 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서 강조하거나 양보하는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 *친구나 된 듯이 지뻐ᄒᆞᆫ다.(친구나 된 듯이 기뻐한다.) [전역]

-나[1] 어미 -나. ① 받침 없는 어간에 붙어서, 뒷말의 내용이 앞말의 내용에 따르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어미. [전역] ② 어떤 동작·상태를 특히 가리어 말할 때 어간에 붙어서 쓰이는 연결어미. [전역] ③ '-나…-ㄴ'으로 쓰이어 되풀이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형용사에서 쓰임. [전역]

-나[2] 어미 -다·-는다. 받침이 있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하게'나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를 직접 지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놈이 곱진 건 쉐도 못 춧나.(남이 숨긴 것은 소도 못 찾는다.) *자린 물훼로도 좋지만 구웡 먹어도 좋나.(자리돔은 물회로도 좋지만 구워 먹어도 좋다.) *저 백중제라고 ᄒᆞᆫ 것이 유교ᄒᆞ고 불교가 ᄯᅳ나.(저 백중제라고 하는 것이 유교와 불교가 달라.) [전역]

-나[3] 어미 용언의 어간 또는 어간에 붙은 '-암시-·-엄시-·-염시-·-람시-·-아시-·-어시-·-여시-·-라시-' 등에 연결되어서, 상대자에게 그 동작을 행하기를 넌지시 종용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나[4] 어미 ① 용언 어간에 붙은 '-암-·-엄-·-염-·-람-' 또는 '-앗-·-엇-·-엿-·-랏-' 등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의 계속이나 완료에 대한 의문이나 화자 스스로의 의심을, '하게' 할 자리에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이것은 최근에 쓰여지기 시작한 어미임. *경 빨리 어디 감나?(그렇게 서두르며 어디 가고 있니?) [전역] ②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행동·상태에 대한 의문이나 화자 스스로의 의심을, '하게' 할 자리에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나경-판 명 <민> 나침-반. [전역]
나그네[1] 명 나그네(旅). ＊(속) 주인 보탤 나그네 읏나.(주인에게 도움이 될 나그네 없다.) [전역] 고나ᄀᆞ내.
나그네[2] 명 <민> 무당. ＊집에 나그네 와나서.(집에 무당이 왔었어.) [전역]
나기 명 [서홍 인성] → 내기[2].
나기-ᄒᆞ다 동 [노형 조수 인성] → 내기-ᄒᆞ다.
나까도전-침 명 <민> 굿판에서 시루떡을 놀리고 나서 여러 조각으로 나누는 일. [전역] = 도전-침.
나까-시리 명 <민> 굿의 '나까시리놀림' 제차에서 높이 던져 올리며 놀리는 시루떡. [전역] = 나깟-시리, 도전-시리.



나까시리

나까시리-놀림 명 <민> 시루떡을 던지며 놀리는 굿의 한 제차(祭次). [제주 함덕 김녕 행원] = 나깟-도전.
나깟-도전 명 <민> [노형 이호 삼양] → 나까시리-놀림.
나깟-방석 명 <민> 시왕맞이 때 사자상(使者床)에 통째로 올리는 시루떡. 강림차사가 이 시루떡(방석) 위에 하강하여 앉는다고 함. [노형 이호 삼양]
나깟-시리 명 <민> [전역] → 나까-시리.
나끄다 동 낚다(釣). [전역] 고낛다.
나-냥으로 부 나 자신의 힘으로. [전역]
나-눕다 동 ① 방 밖으로 나와 눕다. [전역] ② 방바닥 아랫목 쪽에서 윗목 쪽으로 옮아 눕다. [전역]
나는-물 명 [전역] → 셍수.
나다[1] 동 나다. [전역]
나다[2] 형 잘-나다. 뛰어-나다. [전역]
나단-짝 명 [전역] → ᄂᆞ단-착.
나대 명 <도> [가시 수산] → 메-호미.
나-댕기다 동 [전역] → 나-뎅기다.
나-뎅기다 동 나-다니다. [전역] = 나-댕기다, 나-ᄃᆞ니다.
나-두다 동 [전역] → 놓아-두다.
나-들다 동 나-들다. [전역]
나듸-읎다 형 [전역] → 나듸-읏다.
나듸-읏다 형 체질적으로 약하고 기운이 없다. [전역] = 나듸-읎다.
나-ᄃᆞ니다 동 [전역] → 나-뎅기다.
나-돋다 동 내-닫다. 있던 곳에 있지 않고 달아나다. ＊요 놈의 것덜이 나돋는 게 어들로 가는고?(요 놈의 것들이 내닫는 것이 어디로 가는고?) [전역] = 나-돌다. 고내돋다.
나돌-놈 명 '나의 아들놈'이란 뜻으로, 정답게 또는 욕설(辱說)로 이르는 말. [전역] = 내아돌-놈.
나-돌다 동 ＊호통을 질르니, 이젠 기냥 나돌아.(호통을 치니, 이제는 그대로 내달아.) [전역] → 나-돋다.
나따나 조 나마. 체언에 붙어서, '나마'의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나따나 어미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용언의 뜻하는 동작을 '하

더라도・하지마는'의 뜻으로 양보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나떠나 어미 [전역] → -나따나.

나력(瘰癧) 명 <병> 나력. [전역]

나록 명 <식> 벼(稻). [전역]

나록-고고리 명 벼-이삭(稻蠶). [전역]

나록-ᄀᆞ스락 명 볏-가락. 볏의 까끄라기. [전역] = 나록-ᄀᆞ시락.

나록-ᄀᆞ시락 명 [전역] → 나록-ᄀᆞ스락.

나록-눌 명 볏-가리(-積). [전역]

나록-단 명 [서흥 수산] → 나록-뭇.

나록-메 명 볏-모(稻苗). [전역] = 나록-모, 나록-모종.

나록-모 명 [김녕] → 나록-메.

나록-모종 명 [노형] → 나록-메.

나록-뭇 명 볏-단(-束). [노형 조수 김녕 인성] = 나록-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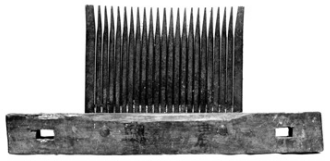
나록-졸레 명 벼-쭉정이. 알맹이가 들지 않은 벼이삭. [전역]

나록-찍 명 [전역] → 나록-찝.

나록-찝 명 볏-짚. [김녕 노형 조수 수산 가시] = 나록-찍, 마록-찍.

나록-체 명 왕-겨. 벼의 겉겨. [전역]

나록-클 명 <도> 벼를 훑는 기구. [전역] = 가레기-클.



나록클

나록 홀트는 소리 명 <요> 벼를 훑으며 부르는 민요. [법환]

나롭 명 [조천] → 나릅.

나르다 동 [전역] → 날르다.

나름 명 ① 나름. 그 됨됨이나 하기에 달림을 나타내는 말. *일은 지만씩 ᄒᆞ기 나름인다.(일은 자기만큼씩 하기 나름이다.) [전역] ② 각기 가지고 있는 방식이나 깜냥. *다 지 나름대로 살아간다.(다 제 나름대로 살아간다.) [전역]

나릅 명 나릅. 소의 나이 네 살. [전역] = 나롭.

나릅-노리 명 네 살 된 노루. *수컷 나릅노리는 뿔이 세 가달이 뒈주.(수컷 나릅노루는 뿔이 세 갈래가 되지.) [교래]

나릅-부룽이 명 <동> 네 살 먹은 부룩소. [전역]

나리 명 나리. 백성이 관리를 높이어 부르는 말. [전역]

-나 마나 어미 -나 마나. ①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하거나 말거나'의 뜻으로 쓰이는 연결어미. [전역] ② 형용사의 어간에 붙어서, 그 성질・상태가 '되거나 말거나'의 뜻으로 쓰이는 연결어미. [전역]

나막-신 명 [노형 조수 인성 김녕 가시] → 남-신.

나-먹다 동 타향으로 돌아다니면서 얻어먹고 지내다. [전역]

나모 명 [전역] → 낭[2].

나무 명 [전역] → 낭[2].

나무-동토 명 <민> 나무에 따른 동티. [전역]

나무라다 동 나무라다. 남을 업신여겨 낮추어 보거나 얕잡아 말하다. [전역] = 나무레다, 나무리다, 낭그레다, 낭그리다, 내무리다. 고 나ᄆᆞ라다.

나무람 명 [전역] → 나무렘.
나무레다 동 [전역] → 나무라다.
나무렘 명 나무람. 남을 업신여겨 낮추어 보거나 얕잡아 말함. [노형 조수 인성 김녕 가시] = 나무람, 나무림, 낭그렘, 낭그림.
나무리다 동 [전역] → 나무라다.
나무림 명 [전역] → 나무렘.
나무-막뎅이 명 나무-막대기. 나무로 만든 막대기. [전역]
나박-듬북 명 <식> 바다풀의 한 가지. [이호]
나박-짐치 명 <음> 나박-김치. [인성 조수 서홍 노형] = 나베기-짐치. 고 나박짐츼.


나박짐치

나발 명 <도> [전역] → 바레기[1].
나베기-짐치 명 <음> [가시] → 나박-짐치.
나부기 명 <지> 제주시 삼양동 동쪽에 있는 원당오름의 서쪽 봉우리. 위가 나부죽함. 표고 91미터. [삼양 신촌]
나부ᄃᆞ리-놓기 명 <민> 시왕맞이 따위에서 차사나 영혼이 내리는 길에 나비를 날려 다리를 놓는 의미로 종이 조각을 뿌리는 의례. [전역]
나부작-이 부 나부죽-이. [전역]
나분데 명 벼 이삭이나 콩 따위의 꼬투리에 알이 여물게 들어 익지 못한 낟알. [전역]
나불-나불 부 나불-나불. [전역]
나비 명 <동> 나비(蝶). [전역] 고 나ᄇᆡ.
나비-개오리 명 <동> 나비-가오리. 나비가오릿과의 바닷물고기. [표선]
나비-좀 명 겉-잠. *돌아누억 돌아누억 ᄒᆞ는 걸로 보민 나비좀 자는 게 분멩ᄒᆞ다.(돌아눕고 돌아눕고 하는 것으로 보면 겉잠 자는 것이 분명하다.) [전역]
나뿌이-네기다 동 [서홍 수산 김녕] → 나삐-네기다.
나쁘다[1] 형 나쁘다. 좋지 아니하다. 옳지 아니하다. 건강 따위에 해롭다. [전역] = ᄂᆞᆺ다.
나쁘다[2] 형 먹은 것이 양에 차지 아니하다. *밥이 나쁘민 일 잘 못ᄒᆞ느네.(밥이 부족하면 일을 잘 못한다.) [전역]
나삐 부 나삐. [전역]
나삐-네기다 동 나삐-여기다. [전역] = 나뿌이-네기다.
나-사다 동 나-서다. [전역] = 나-ᄉᆞ다.
나사-못 명 <도> [인성] → 나세-못.
나산걸음-에 부 나서서 걷고 있던 차에. [전역] = 나산짐-에, 나ᄉᆞᆫ걸음-에.
나산짐-에 부 [전역] → 나산걸음-에.
나세-못 명 <도> 나사-못(螺絲-). [전역] = 나사-못.
나세-송곳 명 <도> 나사-송곳. [노형 조수 서홍] = 돌-비비.
나수다 동 나수다. ① 앞으로 나아가게 하다. [전역] ② 나오게 하다. 생기게 하다. [전역]

나스리-오름 명 <지>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 모구리오름 북동쪽에 있는 오름. 표고 164미터. [성산] = 나시리-오름

나스승-ᄒᆞ다 형 농작물이나 풀 따위가 일매지게 짧고 가늘다. [전역]

나시[1] 명 *나간 놈 나신 셔도, 자는 놈 나신 엇나.(나간 사람 몫은 있어도, 잠자는 사람 몫은 없다.) [전역] → 직시[1].

나시[2] 명 <식> [서홍 태흥 가시 표선 수산 세화 조천] → 난생이.

나시리-오름 명 <지> [성산] → 나스리-오름.

나시세 명 각종 조세(租稅)를 일컫는 말. [전역]

나-ᄉᆞ다 동 [전역] → 나-사다.

나손걸음-에 부 [조수 노형] → 나산걸음-에.

나-아지다 동 [전역] → 나-앚다.

나-앚다 동 나-앉다. 앞으로 나아가서 앉다. *조곰만 앞더레 나앚이라.(조금만 앞으로 나앉아라.) [전역] = 나-아지다, 내-앚다, 내-앚지다.

나-앚지다 동 '나-앉다'의 사역형. 내-앉히다. *더 앞드레 내앚지라.(더 앞으로 내앉혀라.) [전역] = 내-앚지다.

나야더리 감 젠장. 제기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하는 말. [전역] = 네야더리.

나-오다 동 나-오다. [전역]

나우 명 *싀상 볼 나우 읏은 늠으 동냥바칠 불러와시니.(세상 볼 나위 없는 놈의 거지를 불러왔으니.) [어음] → 나위.

나울-나울 부 나울-나울. [전역]

나위 명 나위. ① 더할 수 있는 여유. [전역] ②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보이는 체질. [전역] = 나우.

나위-사가리 명 무슨 일을 감당할 수 있어 보이는 체질. [노형 어도 인성] = 나위-사리.

나위-사리 명 [조수] → 나위-사가리.

나을-날 명 나흗-날. [전역] = 나흘-날.

나이 명 나이(年齡). [전역] = 나[2]. 고낳.

나이롱-테왁 명 <어>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진 해녀 연장의 한 가지인 테왁. [전역] = 스폰지-테왁.

나종 명 [전역] → 내중.

나주기민창조상-본풀이 명 <민> 조천읍 선흘리 안씨댁(安氏宅) 조상신(祖上神)에 대한 본풀이. [선흘]

나중 명 [전역] → 내중.

나직-이 부 [전역] → ᄂᆞ지겡-이.

나-차다 형 나이가 어지간히 많다. [전역]

나풀-나풀 부 납작-납작. 물체가 얇고 납작한 모양. *ᄂᆞᆷ삘 얍게 나풀나풀 잘 썰엇어라.(무를 얇게 납작납작 잘 썰었더라.)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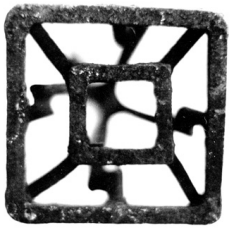
나풀나풀-ᄒᆞ다 형 납작납작-하다. *너미 얇앙 나풀나풀ᄒᆞ여도 안 좋나.(너무 얇아서 납작납작하여도 안 좋다.) [전역]

나흘-날 명 [전역] → 나을-날.

낙방(落榜) 명 낙방. [전역]

낙방-ᄒᆞ다(落榜--) 동 낙방-하다. *과거시엄에 낙방ᄒᆞ엿젠 ᄀᆞᆯ아라.(과거시험에 낙방하였다고 말하더라.) [전역]

낙시 명 [전역] → 낚시.
낙시-공젱이 명 <어> [노형 조수 인성] → 미늘.
낙싯-줄 명 <어> 낚싯-줄. [전역] = 궤기-술, 정술[2].
낙인(烙印) 명 낙인. 불에 달구어 마소에 찍는 불도장. 낙인은 주로 금승 때 하며, 낙인 확인을 위해서는 짚신에 썩은 오줌을 묻혀 닦으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함. [전역] = 낵인.



낙인

낙인-주다 동 [전역] → 낙인-찍다.
낙인-지르다 동 [전역] → 낙인-찍다.
낙인-찍다 동 낙인-찍다. [전역] = 낙인-주다, 낙인-지르다, 낵인-찍다.
낙지 명 <동> 낙지. [전역]
낙점 명 낙점(落點). 여러 후보가 있을 때 그 중에서 마땅한 대상을 고름. [전역]
낙점-되다 동 낙점-되다(落點--). [전역]
낙점-ᄒᆞ다 동 낙점-하다(落點--). [전역]
낙타 명 <동> [전역] → 낙태.
낙태 명 <동> 낙타(駱駝). [전역] = 낙타.
낚-베 명 <어> [어도 조수] → 낚숫-베.
낚-선 명 <어> [인성 표선 수산] → 낚숫-베.
낚수-질 명 <어> [노형 조수] → 낚시-질.
낚숫-베 명 <어> 낚싯-거루. [노형 노형] = 낚-베, 낚-선.
낚시 명 <어> 낚시(釣鉤). [전역] = 낙시.
낚시-공젱이 명 <어> [인성 서홍] → 호미-공젱이.
낚시-아리 명 <어> 낚시와 낚싯줄 사이에 매는 끈. [전역] = 수-자리, 아리.
낚시-질 명 <어> 낚시-질. [전역] = 낚수-질.
낚싯-대 명 <도> [노형] → 춤-대.
난 조 니까. 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서 근거·조건이 됨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난[1] 어미 -니까. ①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앞으로 하려는 말에 대하여 원인이 되는 사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도새기 새끼훼 먹어 보난 너미 콰ᄒᆞ다.(돼지 새끼회를 먹어 보니 너무 콱하고 쏜다.) [전역] ②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뒤의 동작이나 상태가 있기에 앞서서 행하여진 행동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③ 용언의 어간에 붙은 '-암시-·-엄시-·-염시-·-람시-' 또는 '-아시-·-어시-·-여시-·-라시-' 등에 연결되어서, 앞으로 하려는 말에 대하여 원인이 되는 사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난[2] 어미 용언 어간에 붙어서 방임하는 태도로 그 동작이나 상태를 인정

하면서 '-다고 할지라도 그대로'의 뜻으로 쓰이는 연결어미. [전역]

난- 두 '멀리 떨어져 나간'의 뜻으로 쓰이는 말. [전역]

난간 명 <건> 대청방이나 구들방 바깥 옆으로 좁다랗게 마루같이 죽 널을 깔아 놓은 곳. 툇마루. [전역] = 낭간.

난데-없다 형 난데-없다. [전역] = 난듸-읏다.

난-드르 명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들(野). [전역]

난듸-읏다 형 [전역] → 난데-없다.

난디-엇이 부 난데-없이. [전역]

난리(亂離) 명 난리. [전역]

난-미 명 <동> 먹을 수 없는 해삼. [보목]

난-바르 명 <어> 해녀 동아리가 여러 날 동안 배 위에서 먹고 자면서 자그마한 섬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하는 물질. [전역] = 난-바리.

난-바리 명 <어> [신양] → 난-바르.

난-사름 명 난-사람. 뛰어나게 잘난 사람. *경 어려운 일도 ᄒᆞ여내는 걸 보민 역시 난사름이여.(그렇게 어려운 일도 해내는 것을 보면 역시 난 사람이야.) [전역]

난산-국 명 <민> 태어난 곳 혹은 그 내력. 본풀이. [전역]

난상이 명 <식> [가시] → 난생이.

난색(難色) 명 난색. 곤란해하는 기색. *어렵댄 난색을 ᄒᆞ는 걸 보난 안 뒈켜.(어렵다고 난색을 하는 것을 보니 안 되겠다.) [전역]

난생이 명 <식> 냉이(薺). [서홍 수산 김녕 가시] = 나시[2], 난상이, 난시, 난젱이, 난지. 고 나ㅅ이.



난생이

난-소셍 명 <민> 태어난 내력. 본풀이. [전역]

난시 명 <식> [전역] → 난생이.

난시-고장 명 [노형 오라 삼양] → 난시-꼿.

난시-꼿 명 냉이-꽃. [노형 오라 삼양] = 난시-고장.

난-악[1](卵岳) 명 <지> [전역] → 알-오름[1].

난-악[2](卵岳) 명 <지> [전역] → 알-오름[2].

난-악[3](卵岳) 명 <지> [금덕] → 알-오름[3].

-난에 어미 -니까는·-니. ①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앞으로 하려는 말에 대하여 원인이 되는 사유를 나타내는 '-난'에,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에'가 결합된 연결어미. *산듸(旱稻) 비여 놔두난에 누게 오란 져 가부려십쥐.(밭벼 베어 놓아두니까 누구가 와서 져 가버렸습니다.) [전역] ② 용언에 붙은 '-아시-·-어시-·-여시-·-라시-' 또는 '-암시-·-엄시-·-람시-·-럼시-' 등에 연결되어서, 앞으로 하려는 말에

대하여 원인이 되는 사유를 나타내는 '-난'에,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에'가 결합된 연결어미. ＊몬저 둘 아오람시난에, 가시어멍ᄒᆞ고 각신 이젠 기다리고 이서.(먼저 뛰어오고 있으니까 장모와 각시가 이제는 기다리고 있어.) ＊이제는 그디 간 영 사시난에 ᄎᆞ례가 돌아와.(이제는 그 곳에 가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차례가 돌아와.) [전역]

난-장[1] 명 가을에 들판에서 오소리를 잡는 개사냥. [교래]

난-장[2] 명 마을 바깥에 있는 방목지. [함덕]

난쟁이 명 [전역] → 난생이.

난-전 명 [덕수] → 난전-밧.

난전-밧 명 마을에서 조금 멀리 떨어진 들녘에 있는 밭. [전역] = 난-전.

난젱이 명 <식> [인성 조수] → 난생이.

난죽-거리다 동 일 처리가 시원치 않고 무디게 움직이다. ＊자이신디 일 시켱 놔두민 난죽거령 안 뒌다.(저 아이한테 일을 시켜서 두면 시원치 않고 무디어서 안 된다.) [노형 오라 삼양]

난죽-난죽 부 무슨 일을 처리하거나 먹는 모습이 시원치 않은 모양. [노형 오라 삼양]

난지 명 <식> [인성] → 난생이.

난-케 명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 [어도]

날-거리 명 <병> 하루-거리. 하루씩 걸러서 앓는 학질. [전역] = 날-걸리.

날-걸리 명 <병> [전역] → 날-거리.

날과국-섬김 명 <민> 굿하는 날과 장소를 고하는 의례. [전역]

날-굼 명 오소리 굴에서 오소리가 나오는 구멍. [교래]

날굼-들굼 명 '나갈 구멍과 들어갈 구멍'이란 뜻으로, 몸을 숨길 만한 곳. [전역]

날-궂다 형 ① 날씨가 좋지 않다. [전역] ② 일진이 좋지 않다. [전역]

날날-이 부 나날-이. [전역]

날-다간 명 새해가 되면 '다간'이 되는 소. 곧 '금승'을 일컫는 말. [영평]

날-드르다 동 날-들다. 비나 눈이 그치고 날이 개다. [전역] = 날-들르다.

날-들르다 동 [전역] → 날-드르다.

날래 명 [전역] → 날레.

날레 명 볕을 쐬기 위하여 멍석에 널어 놓은 곡식. ＊겐디 아들이 장성ᄒᆞ엿는디, 날레에 독이 들민 독을 안 내몰아.(그런데 아들이 장성(長成)하였는데, '날레'에 닭이 들면 닭을 안 내몰아.) [전역] = 날래.

날레-군데 명 <도> [행원] → 날레-근데.

날레-근데 명 <도> 고무래. 곡식을 긁어 모으거나 펴는 데 쓰는 T자 모양의 연장. [전역] = 날레-군데.

날레-널다 동 곡식을 햇볕에 말리려고 밖에 내놓다. [전역]

날레-망테 명 <도> [전역] → 날렛-멩텡이.

날레 치대기다 구 멍석에 널어 놓은 곡식을 한쪽으로 모으기 위하여 멍석 귀퉁이를 탁탁 흔들다. [전역]

날렛-망텡이 명 <도> [전역] → 날렛-멩텡이.

날렛-멕 명 <도> 열 말들이 멱서리. [대포]
날렛-멩텡이 명 <도> 곡식을 멍석에 널기 위하여 말릴 곡식을 담아 두는 망태기. [전역] = 날레-망테, 날렛-망텡이.
날르다 동 나르다. [전역] = 나르다.
날-물 명 썰-물. [전역] = 쏠-물.
날-받다 동 경사(慶事), 역사(役事)에 좋은 날짜를 택하여 정하다. [전역]
날-발루다 동 큰일을 바로 앞두다. [전역]
날-볼다 형 날씨가 좋다. [전역]
날-사릅 명 새해가 되면 '사릅'이 되는 소. 곧 '다간'을 일컫는 말. [영평]
날-섬김 명 <민> 큰굿의 첫 단계인 '초감제'에서 굿하는 날짜를 무당이 신에게 고하는 것을 이르는 말. [전역]
날씨 명 날씨. [전역]
날-액 명 어느 날의 모질고 사나운 운수. [전역]
날-우치다 동 [전역] → 우치다.
날웨-오름 명 <지> [모슬포 일과] → 가시낭-오름.
날짜 명 날짜. [전역]
남[1] 명 [전역] → 놈[1].
남[2]**(南)** 명 남. [전역]
남[3] 명 [전역] → 낭[2].
남거-봉(南擧峰) 명 <지> [전역] → 남케-오름.
남곶-오름 명 <지> [성산] → 남케-오름.
남기다 동 남기다. [전역]
남남 부 냠냠. [조수 인성 서홍 김녕 노형] = 냠냠.
남녀(男女) 명 [전역] → 남녜.
남녜 명 남녀(男女). [전역] = 남녀.
남-놀개 명 <도> 남-날개. 사냥꾼이 가지고 다니는 화약이나 탄약을 넣는 그릇을 통틀어 이르는 말. [용담]
남-당(-堂) 명 <민> 뱃사람을 보호하는 당. [전역]
남당-담배 명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의 '남당'이라는 지경에서 재배한 담배. [감산]
남당중-놀이 명 <민>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 남당의 당굿에서 벌이던 놀이굿. [행원]
남-대 명 <민> 나무로 만든 긴 막대. [전역]
남뎅이 명 [전역] → 대[1].
남-도고리 명 함지-박. * 옛날 오메기떡 반죽할 때 장탱이나 남도고리에 하영 혯주.(옛날 오메기떡 반죽할 때 장태나 함지박에 많이 했지.) [성읍]


남도고리

남도로기-새 명 <동> 딱따구리. [전역]
남-도리 명 <건> 부춘-돌. [전역]
남-동(南洞) 명 <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중심에서 남쪽에 있는 동네. [한경]
남-동이 명 <민> 나무 동이. 나무로

만든 동이의 일종. [전역]

남뚜리-개 명 [전역] <지> → 남뚜리-개.

남뚜리-개 명 <지> 제주시 애월읍 고내리에 있는 한 포구. [전역] = 남뚜리-개.

남문-골 명 <지> 제주시 삼도1동의 제주성 남문 일대에 형성되었던 동네. [전역]

남-박 명 <도> 나무를 파서 만든 바가지. [전역] = 남-박세기.

남-박세기 명 <도> [전역] → 남-박.

남박-신 명 [서홍 수산] → 남-신.

남-밧 명 나무-밭. [전역] = 낭-밧.

남방-ᄉᆞ주(藍紡絲紬) 명 <민> 천의 한 종류. [전역]

남-방에 명 <도> 큰 통나무를 파서 만든 절구. [전역] = 남-방이.



남방에

남방에 짛는 소리 명 <요> [전역] → 방에 놀레.

남-방이 명 <도> [전역] → 남-방에.

남-베 명 <어> 나무-배. [전역] = 낭-베.

남복-악(南福岳) 명 <지> [전역] → 마복이.

남-부끄럽다 형 [전역] → 놈-부끄럽다.

남-부치럽다 형 [전역] → 놈-부끄럽다.

남비 명 [전역] → 냄비.

남-산(南山) 명 <지>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북서쪽에 있는 오름. 표고 179미터. [전역] = 남산-봉(南山峰), 남산-오름, 망-오름[1].

남산-봉(南山峰) 명 <지> [성산] → 남-산.

남산-오름 명 <지> [성산] → 남-산.

남새-마을 명 <지> 제주시 오라1동의 한 자연마을. 지금 제주종합경기장이 들어선 곳에 있었음. [오라]

남-선비 명 <민> 정살신. 문전신의 아버지로 죽어서 정살신이 됨. [전역]

남-소로기 명 <지> [저지 서광] → 남송이-오름.

남소릿-질 명 들녘으로 나가는 길. [조수 인성 어도]

남송-악[1](南松岳) 명 <지> [전역] → 남송이-오름.

남-송악[2] 명 <식> [전역] → 줄사발-꼿.

남-송애기 명 <도> 끌. [전역]

남송이-오름 명 <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사수동 북쪽에 있는 오름. 중턱에 깔때기형 분화구가 있음. 표고 339미터. [전역] = 남-소로기, 남송-악[1](南松岳).

남수-와지 명 <민> 남수화주(藍水禾紬). 천의 한 종류. [전역]

남-술 명 <도> [김녕] → 남-죽.

남술-질 명 [김녕] → 남죽-질.

남-신 명 나막-신. [전역] = 나막-신, 남박-신. 고 나모격지.

남썬-돌 명 나무를 베어 버린 그루터기가 얽힌 돌무더기. [전역]

남양-박세기 명 야자수 열매의 껍질로



남신

만든 그릇. [하도]

남인-가장(男人家長) 명 <민> 남자 가장. [전역]

남-자 명 <도>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국자.

남자-보말 명 <동> [대평] → 문다드리.

남저 명 [전역] → 남ᄌᆞ.

남저기 명 [어도 수산] → 남제기.

남정(男丁) 명 남정. 열다섯 살이 넘은 사내. [전역]

남정-네(男丁-) 명 남정-네. [전역]

남제 명 [전역] → 남ᄌᆞ.

남제기 명 나머지. [전역] = 남저기, 남지기, 남체기.

남조-봉(南朝峰) 명 <지> [전역] → 남짓은-오름.

남좃은-오름 명 <지> [오라 연] → 남짓은-오름.

남-죽 명 <도> 죽-젓개. *(속) 영등ᄃᆞᆯ 초ᄒᆞ루 사을 불민 종달릿년 남죽 들렁 춤춘다.(2월 초하루 삼일 날씨 좋으면 종달리 여인 죽젓개 들고 춤춘다.) [서홍 수산 가시 김녕] = 남-술, 베수기, 베술기, 베술지, 베슬기, 저수게.

남죽-질 명 죽젓개-질. [서홍 수산 가시 김녕] = 남술-질, 베수기-질, 베술기-질, 저수에-질, 저수웨-질, 저수의-질.

남중-보살 명 <민> 남자 아기. [전역]

남지기 명 [수산] → 남제기.

남짓은-오름 명 <지> 제주시 연동 신제주 로터리 남쪽에 있는 오름. 서쪽 기슭에 한라수목원이 조성됨. 표고 297미터. [오라 연] = 남조-봉(南朝峰), 남좃은-오름, 목밀-악(木密岳).

남ᄌᆞ 명 남자(男子). *(속) 나서 화목은 남ᄌᆞ가 ᄒᆞ곡, 들어 화목은 여ᄌᆞ가 ᄒᆞᆫ다.(나가서 화목(和睦)은 남자가 하고, 들어서 화목은 여자가 한다.) [전역] = 남저, 남제.

남-천문 명 <민> 나무로 만든 천문(天文). [노형 오라 삼양 김녕 행원]

남체기 명 [노형 조수 인성] → 남제기.

남총-낭 명 <식> 종려-나무(棕櫚--). [색달]

남총-배 명 <도> '남총낭'(종려나무)을 감싸고 있는 섬유질의 껍질로 줄을 꼬아 세 가닥을 지어 굵다랗게 드린 참바. [건입] = 남총-베.

남총-베 명 [행원] → 남총-배.

남케-오름 명 <지>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서쪽에 있는 오름. 표고 185미터. [전역] = 남거-봉(南擧峰), 남곶-오름, 남ᄀᆞᆺ-오름, 낭끼-오름, 낭곶-오름, 목변-악(木邊岳).

남-테 명 <농> 둥근 나무토막에 굵은 나뭇가지를 돌아가며 수없이 박아 붙여서 만들고는 굴려서 밭을 눌러 다지는 농기구. [노형 김녕 수산 서홍] = 낭-테.

남-통 명 <도> 나무를 파서 짤막하게 만든 담뱃대. [전역] = 남통-머리.



남테

남통-머리 명 *(속) 각씨 웃인 건 안 섭섭혜도, 남통머리 일른 건 더 섭섭ᄒᆞᆫ다.(아내가 없는 것은 안 섭섭해도 나무담뱃대를 잃은 것은 더 섭섭하다.) [전역] → 남-통.

남편 명 남편(男便). [전역] = 냄펜, 소나의[2].

남펭-날 명 납평(臘). 동지(冬至) 뒤의 셋째 술일(戌日). [전역] = 납펭-날.

납 명 납(鉛). [전역]

납-뎅이 명 납-덩이. [전역]

납-때임 명 납-땜. [전역]

납삭-ᄒᆞ다 형 *이딜 ᄒᆞᆫ 끗겡이로 망치로 ᄒᆞ영 납삭ᄒᆞ게 멘들아 놩 줄로 문딱 뽄을 멘들아.(여길 한 끝으로 망치로 해서 납작하게 만들어 놓아서 줄로 몽땅 본을 만들어.) [이호] → 납작-ᄒᆞ다.

납세미 명 <동> 가자미. [하귀]

납수룩-ᄒᆞ다 형 [이호] → 납시근-ᄒᆞ다.

납시근-ᄒᆞ다 형 납작스름-하다. [전역] = 납수룩-ᄒᆞ다.

납쑥이 명 <도> 항아리의 일종. [대정]

납작 부 납작. 바닥이나 물건 표면에 바짝 달라붙은 모양. *구들바닥에 납작 업더젼 죽어서라.(방바닥에 납작 엎드려서 죽었더라.) [전역]

납작-납작 부 납작-납작. 납작한 모양. *튀어나지 말게 납작납작 눌르라.(튀어나오지 않게 납작납작 눌러라.) [전역]

납작납작-ᄒᆞ다 형 납작납작-하다. *동클동클ᄒᆞᆫ 걸랑 말앙, 납작납작ᄒᆞᆫ 걸로 골령 날라 오라.(동글동글한 것은 말고, 납작납작한 걸로 골라서 날라 와라.) [전역]

납작-보리 명 납작하게 누른 보리쌀. [전역] = 납작보리-쏠.

납작보리-쏠 명 [전역] → 납작-보리.

납작-이 부 납작-이. [전역]

납작-톨 명 <식> 공기주머니가 없이 납작한 모양의 잎을 가진 톳. [표선]

납작-ᄒᆞ다 형 납작-하다. *좀더 두터워사 ᄒᆞᆯ 걸, 그건 너미 납작ᄒᆞ다.(좀 더 두꺼워야 할 걸, 그것은 너무 납작하다.) [전역] = 납삭-ᄒᆞ다. 고 납죡ᄒᆞ다.

납젝-이 명 납작-이. 얼굴 생김새가 납작한 사람. [전역]

납펭-날 명 [전역] → 남펭-날.

납-헤치 명 원숭이-띠. [전역]

낫 명 <도> 꼴 같은 것을 베는 자루가 긴 연장. [가시 수산 서홍]

낫낫-이 부 낱낱-이. [전역]

낫다[1] 동 낫다(癒). [전역]

낫다[2] 형 낫다(優). [전역]

낭[1] 명 건조한 미역을 세는 단위. [전역]

낭[2] 명 나무(木). *(속) 곧은 낭은 가운디 산다.(곧은 나무는 가운데 선다.) *(속) 나무랜 낭에 눈 걸린다.(나무란 나무에 눈 걸린다.) *(속) 눈 낭에 ᄋᆞ름 ᄋᆞ느냐?(누운 나무에

열매 열리는가?) [전역] = 나모, 나무, 남[3]. ㊟나모.

낭-가레 명 <도> *낭으로 만드난 낭가레. 이건 걸름 낼 때 걸름 모이곡 걸름 담을 때 쓰곡 ᄒᆞ는 거.(나무로 만드니까 '낭가레'. 이건 거름 낼 때 거름을 모으고 거름을 담을 때 쓰고 하는 거야.) [조수] → 낭-갈레죽.

낭-가젱이 명 [전역] → 낭-가지.

낭-가지 명 나뭇-가지(枝). [전역] = 낭-가젱이.

낭간 명 [전역] → 난간.

낭-갈레죽 명 <도> 흙을 파서 헤치고 던지는 용도의 나무로 만든 가래. [전역] = 낭-가레, 낭-삽.

낭-거림 명 가장귀. 나뭇가지의 아귀. [전역]

낭-거죽 명 나무-껍질. [전역] = 낭-걱죽, 낭-겁죽.

낭거죽-페렝이 명 대팻밥이나 나무껍질로 엮어서 만든 농립(農笠)의 한 가지. [전역]

낭-걱죽 명 [서홍 수산 김녕] → 낭-거죽.

낭-겁죽 명 [인성 서홍 수산 조수] → 낭-거죽.

낭게-일몽 명 <민> '남가일몽'(南柯一夢)의 와음(訛音). [전역] = 낭에-일몽.

낭-공젱이 명 말-코지. [전역]

낭곶-오름 명 <지> [성산] → 남케-오름.

낭-궹이 명 나무-옹이. [전역]

낭그레다 동 [노형 김녕 수산] → 나무라다.

낭그렘 명 [수산] → 나무렘.

낭그리다 동 [전역] → 나무라다.

낭그림 명 [조수] → 나무렘.

낭-꼴개비 명 <동> 청-개구리. [전역]

낭 까끄는 자귀질 소리 명 <요> 자귀로 나무를 깎고 다듬으면서 부르는 민요. [전역] = 귀자귀질 소리.

낭-깨기 명 [전역] → 낭-께기.

낭 깨는 도치질 소리 명 <요> [전역] → 낭 깨는 소리.

낭 깨는 소리 명 <요> 도끼로 통나무를 패고 쪼개어 장작을 만들면서 부르는 민요. [전역] = 낭 깨는 도치질 소리.

낭-깽이 명 *어떨 땐 낭깽이 봉강 간 사름들은 막 착ᄒᆞ덴 ᄒᆞᆫ다.(어떨 때는 나뭇개비 주워서 간 사람들은 아주 착하다고 한다). [전역] → 낭-께기.

낭-꺼플 명 나무의 꺼풀. [전역]

낭-께기 명 나뭇-개비. [전역] = 낭-깨기, 낭-깽이.

낭 끈치는 나대질 소리 명 <요> [덕수] → 낭 끈치는 소리.

낭 끈치는 도치질 소리 명 <요> [전역] → 낭 끈치는 소리.

낭 끈치는 소리 명 <요> 도끼나 톱 등으로 나무를 베면서 부르는 민요. [전역] = 낭 끈치는 나대질 소리, 낭 끈치는 도치질 소리, 낭 끈치는 톱질 소리.

낭 끈치는 톱질 소리 명 <요> [전역] → 낭 끈치는 소리.

낭 끗어내리는 소리 명 <요> 집을 짓거나 배를 만들기 위해 산에서 나무를 베어 끌어내리면서 부르는 민요.

[장전 고성 곽지 보목 상천]

낭끼-오름 명 <지> [전역] → 남캐-오름.

낭-눌 명 나무를 쌓은 가리. *낭눌 잘못 눌어부난 헤싸지키어.(나뭇가리 잘못 쌓아버렸으니 허물어지겠다.) [전역]

낭-덩치 명 [전역] → 낭-덩체기.

낭-덩체기 명 나무의 둥치. [전역] = 낭-덩치, 낭-둥채기, 낭-둥체기, 낭-둥치, 낭-둥케기.

낭-뎅이 명 [전역] → 대[1].

낭-둥채기 명 [전역] → 낭-덩체기.

낭-둥체기 명 [전역] → 낭-덩체기.

낭-둥치 명 [전역] → 낭-덩체기.

낭-둥케기 명 [전역] → 낭-덩체기.

낭-마께 명 <도> 나무-망치. [이호] = 낭-망치.

낭-망치 명 <도> [이호] → 낭-마께.

낭-못 명 나무-못. [전역]

낭-뭇 명 나무를 묶은 다발. [전역]

낭-ᄆᆞ작 명 나무의 마디. [전역]

낭-바리 명 마소에 싣는 나무의 짐바리. 장작 한 바리는 30개임. *꽝 복싹 딸이젱 ᄒᆞ민 낭바리나께나 들어사 ᄒᆞᆫ다.(뼈를 푹 달이려고 하면 나무바리깨나 들어야 한다.) [전역]

낭-밧 명 [전역] → 남-밧.

낭-베 명 <어> [전역] → 남-베.

낭-베설 명 나뭇-고갱이. [전역] = 낭-베솔.

낭-베솔 명 [전역] → 낭-베설.

낭-불 명 나무로 때는 불. [전역]

낭-불희 명 나무-뿌리. [전역] = 낭-뿔리.

낭-뿔리 명 [전역] → 낭-불희.

낭-삽 명 <도> [전역] → 낭-갈레죽.

낭-서부젱이 명 섶-나무.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낭-설피.

낭-설피 명 [수산 김녕 가시] → 낭-서부젱이.

낭-섭 명 [전역] → 낭-썹.

낭-세역 명 <도> 나무로 만든 쐐기. [전역]

낭-쉐 명 <민> 나무로 만든 소. 입춘날 풍년을 기원하는 민속놀이용으로 끌고 다니도록 나무로 만든 소. [전역]

낭 싸는 소리 명 <요> 대톱을 밀고 당기면서 톳나무를 켤 때 부르는 민요. 아주 느린 가락으로 부름. [전역] = 낭 오리는 소리, 톱질-소리.

낭-썹 명 나뭇-잎. [전역] = 낭-섭, 낭-잎.

낭에-일몽 명 <민> [전역] → 낭게-일몽.

낭 오리는 소리 명 <요> [전역] → 낭 싸는 소리.

낭웨 명 <음> [하도 동복] → 빗-상웨.

낭-잎 명 [전역] → 낭-썹.

낭-장시 명 나무-장수. [전역]

낭-절 명 나뭇-결. [전역]

낭제 명 [어도 조수 인성 서홍] → 낭즈.

낭-주적 명 나무-지저귀. 나무를 깎을 때 생기는 부스러기. [전역] = 낭-주죽.

낭-주죽 명 [인성 조수] → 낭-주적.

낭중 명 [전역] → 내중.

낭-짐 명 나뭇-짐. *낭짐 질 땐 등텔 두터운 걸로 데사 ᄒᆞᆫ다.(나뭇짐을 질 때는 등받이를 두꺼운 것으로 대어

야 한다.) [전역]
낭ᄌᆞ 명 낭자. 땋아 뭉쳐 쪽진 부녀의 머리. [전역] = 낭제.
낭-ᄌᆞ봄 명 나무-젓가락. [전역]
낭ᄌᆞ-조지다 동 [어도] → 낭ᄌᆞ-ᄎᆞ다.
낭ᄌᆞ-ᄎᆞ다 동 낭자-쪽찌다. [전역] = 낭ᄌᆞ-조지다.
낭-테 명 <도> [신촌] → 남-테.
낭-토막 명 나무-토막. [전역]
낭푼이 명 <도> 양푼. [전역]
낭-해치 명 나무 허채(許採). 벌채를 금하였던 마을 공동의 나무 밭에서 일정한 날을 정하여 나무 채취를 허락하는 일. [덕수]
낭-ᄒᆞ다 동 나무-하다. [전역]
낮 명 낮(晝). [전역] = 해낮.
낮-거리[1] 명 낮의 일거리. [전역]
낮-거리[2] 명 낮의 길거리. ＊오뉴월 낮거리엔 사름 잘 안 댕긴다.(오뉴월 낮거리에는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다.) [전역]
낮-도체비 명 낮-도깨비. [전역]
낮-전 명 오전. [전역]
낮전-ᄌᆞ치 명 봄에 많은 알을 몸에 지니고 있어 멀리 날지 못하는 암꿩(雌雉). [성산 수산]
낮-줌 명 낮-잠. [전역]
낮줌-꾸레기 명 [전역] → 낮줌-다리.
낮줌-다리 명 낮잠-꾸러기. [전역] = 낮줌-꾸레기, 낮줌-쟁이.
낮줌-자다 동 낮잠-자다. [전역]
낮줌-쟁이 명 [전역] → 낮줌-다리.
낮-후제 명 오후. [전역]
낱 명 낱-개. ＊이거 낱으로 폴암수과?(이것 낱개로 팝니까?) [전역]
낱낱-속다 동 당하면 당할 때마다 속다. [전역]
내[1] 명 내(我). [전역]
내[2] 명 내(川). [전역]
내[3] 명 [전역] → 냄새.
내-걷다 동 ① 내-걷다. 앞으로 향하여 걷다. ＊뒤로만 가젱 말앙 앞으로 내걸으라.(뒤로만 가려 말고 앞으로 내걸어라.) [전역] ② 활약-하다. 일이 되게끔 행동하다. ＊무신 일이나 내걷지 안ᄒᆞ민 뭘 것도 안 뒈메.(무슨 일이든 내걷지 않으면 될 것도 안 된다.) [전역] = 내-컫다[2].
내-걸다 동 내-걸다. 밖에 내어 걸다. ＊젖인 옷 바꼇드레 내걸라.(젖은 옷 바깥으로 내걸어라.) [전역]
내-긋다[1] 동 밖으로 나오게 끌어내거나 당기다. ＊안엣 것부떠 내긋으라.(안의 것부터 끌어내라.) [전역]
내-긋다[2] 동 금(선)을 나오게 긋다. ＊그믓이랑 더 앞드레 내긋으라.(금은 더 앞으로 내그어라.) [전역]
내기[1] 명 방법. 도리. ＊ᄒᆞ여 볼 내기가 엇다.(해 볼 방법이 없다.) [전역]
내기[2] 명 내기. 일정한 조건 밑에서 승부를 다투어 이기는 이가 돈이나 물건을 차지하는 일. [전역] = 나기. ㊟난겻기.
내기다 동 여기다.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다. ＊ᄒᆞ다 섭섭이 내기지 말라.(너무 섭섭히 여기지 마라.) [전역] = 네기다.
내기-ᄒᆞ다 동 내기-하다. [전역] = 나기-ᄒᆞ다.
내-ᄀᆞ리다 동 내-깔기다. [전역] = 내

-ᄀᆞᆯ기다.

내-ᄀᆞᆫ다 동 속에 있는 말을 하다. ＊속엣말 내ᄀᆞᆫ지 못ᄒᆞ민 빙난다.(속엣말 못하면 병난다.) [전역] = 내-ᄀᆞᆯ다.

내-ᄀᆞᆯ기다 동 [전역] → 내-ᄀᆞ리다.

내-ᄀᆞᆺ 명 냇-가. [전역] = 냇-ᄀᆞ, 냇-ᄀᆞᆷ, 냇-ᄀᆞᆺ.

내-꼿 명 <민> [전역] → 네-꼿.

내남-어시 부 내남-없이. 나와 다른 사람이나 모두 마찬가지로. [전역]

내-낭 부 내내. 처음부터 끝까지 이르도록. [전역] = 내-내.

내-내 부 [전역] → 내-낭.

내-널다 동 빨래나 곡식 따위를 볕에 말리기 위하여 집안에서 내어 빨랫줄이나 멍석에 널다. [전역]

내넘다 동 넘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공중이나 물건의 위를 지나다. ＊물도 산도 내넘지 말앙, 요 방상을 지넘엉 가라.(물도 산도 넘지를 말고, 요 친척을 넘어서 가라.) [전역]

내-놓다 동 ① 내-놓다. 밖으로 꺼내어 놓다. ＊이불 구둘 밧긔 내놓으라.(이불을 방 밖으로 내놓아라.) [전역] ② 밖으로 노출시키다. ＊홀목이랑 소메로 ᄀᆞᆷ촤지게 말앙 내놓으라.(팔목은 소매로 감춰지게 하지 말고 내놓아라.) [전역] ③ 직위 따위를 내놓다. ＊어제부떠 반장 안 홀 걸로 내놓아서.(어제부터 반장을 안 할 것으로 내놓았네.) [전역]

내-ᄂᆞ리다 동 내(川)에서 물이 흘러내리다. [전역]

내다 동 내다. 제출-하다. [전역]

내담-지신 명 <민> 울담을 지키는 신. [전역]

내-던지다 동 내-던지다. [전역]

내-동댕이치다 동 내-동댕이치다. 힘껏 내던지다. ＊줘도 내동댕이치멍 안 받안게.(줘도 내동댕이치면서 안 받더라.) [전역]

내-두르다 동 내-두르다. [전역] = 내-훈들다.

내-돋다 동 내-닫다. [전역] = 내-톧다.

내릴-톱 명 <도> 나무의 결을 따라 세로로 켤 수 있게 날을 세운 톱. [감산]

내머리-왓 명 <지> 제주시 오라1동의 한 자연마을. [오라]

내-몰다 동 내-몰다. 밖으로 쫓아내다. ＊일ᄒᆞ렌 어거지로 내몰암신게.(일하라고 억지로 내몰고 있어.) [전역]

내무리다 동 [전역] → 나무라다.

내-물다 동 ＊창 바꼇디로 손을 내물라.(창 바깥으로 손을 내밀어라.) [전역] → 내-밀다.

내-밀다 동 내-밀다. [전역] = 내-물다.

내-바끄다 동 내-뱉다. 침을 입 밖으로 뱉다. ＊자인 자꾸 춤을 내바끈다.(저 아이는 자꾸 침을 내뱉는다.) [전역] = 내-바트다, 내-베트다.

내-바트다 동 [전역] → 내-바끄다.

내-박다 동 ① 내-박다. 앞이나 옆으로 내어서 박다. ＊말툭을 ᄒᆞ썰 앞드레 내박으라.(말뚝을 조금 앞으로 내박아라.) [전역] ② 쥐어박다. 주먹따위로 때리다. ＊주먹으로 내박아 부난 아팟일 테주.(주먹으로 내박아 버리니 아팠을 테지.) [전역]

내-벋다 동 무슨 일의 혐의자로 몰림을 당할 적에 그런 사실이 없음을

끝끝내 주장하여 나가다. [전역]

내-베트다 동 [전역] → 내-바끄다.

내-부찌다 동 냅다 잡아던지다. 내-동댕이치다. 내-팽개치다. *구덕 문 내부쩌 불언.(구덕을 모두 내동댕이쳐 버렸어.) *ᄉᆞ정 엇이 심언 내부쩌 부난 울엇주기게.(사정 없이 잡아서 내동댕이쳐 버리니 울었지.) [전역] = 내-부치다.

내-부치다 동 [전역] → 내-부찌다.

내-불다 동 내-버리다. [전역] = 내-비다.

내-비다 동 [전역] → 내-불다.

내-비추다 동 [전역] → 내-비치다.

내-비치다 동 ① 내-비치다. 빛이 어느 쪽을 향해서 비치다. *햇빗이 너미 쎄게 내비치는 듸랑 놓지 말라.(햇빛이 너무 세게 비치는 데는 놓지 마라.) [전역] ② 감정이나 생각, 의도 따위를 밖으로 나타내다. *그 말은 속 내비치는 소리밧긔 안 뒈메.(그 말은 속을 내비치는 소리밖에 안 된다.) [전역] = 내-비추다.

내-뿜다 동 내-뿜다. 밖으로 세게 뿜어내다. *고랜 머리 우로 물 내뿜나.(고래는 머리 위로 물을 내뿜는다.) [전역]

내-삐다 동 내-닫다. [전역]

내생이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의 한 자연마을. [조천]

내-석악(內石岳) 명 <지> [전역] → 안-돌오름.

내-쓰다 동 [조수] → 내-쓱다.

내씩-내씩 부 삐쳐서 드러내는 토라진 모습. *자인 무사 저영 내씩내씩 ᄐᆞ라젼 홈이라.(저 아이는 왜 저렇게 내씩내씩 토라져서 하는 거야.) [전역]

내씩내씩-ᄒᆞ다 형 마음이 언짢다. *지 비위에 ᄒᆞ쏠만 거슬려도 내식내씩ᄒᆞᆫ다.(제 비위에 조금만 거슬려도 내씩내씩한다.) [전역]

내-쑷다 동 물레에서 솜이나 털로 실을 자아내다.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내-쓰다.

내아돌-놈 명 [전역] → 나ᄃᆞᆯ-놈.

내-앚다 동 *조곰만 더 앞드레 내앚이민 좋으켜.(조금만 앞으로 내앉으면 좋겠다.) [전역] → 나-앚다.

내-앚지다 동 [전역] → 나-앚지다.

내여-가다 동 내-가다. [전역]

내여다-보다 동 내다-보다. [전역]

내왇다[1] 동 무엇을 손에 들고 남에게 건네다. [전역]

내왇다[2] 형 뾰족하게 나와 있다. [전역]

내왓-당 명 <민> 제주시 용담동 한내(漢川)에 있던 신당. 이형상(李衡祥) 목사가 신당 철폐를 단행하던 1702년경에 없어짐. [전역] = 천외-사(川外祠).

내-우다 동 나오게 하다. 사물이나 사람을 밖으로 나오게 하다. *잇날은 동네마다 애기 내우는 할망이 이서낫저.(옛날에는 동네마다 아기를 '내우는' 할머니가 있었지.) [전역]

내-울리다 동 ① 소리를 내어 널리 퍼지게 하다. *주먹 내둘르멍 소리 내울리멍.(주먹을 내두르며 소리를 내울리며.) [전역] ② 세력이나 명성을 드날리게 하다. [전역]

내움살 명 [전역] → 냄새.

내움새 명 [전역] → 냄새.
내음살 명 [전역] → 냄새.
내음새 명 [전역] → 냄새.
내-젓다 동 ① 내-젓다. 손을 좌우로 또는 위 아래로 흔들다. *이디 오민 안 뒌뎅 손을 내젓엇주.(여기 오면 안 된다고 손을 내저었지.) [전역] ② 불잉걸 따위를 휘갈다. *화리에 불 담아 논 거 내젓지 말라.(화로에 불 담아 놓은 것 내젓지 마라.) [전역]
내-조치다 동 내-쫓다. [전역]
내종 명 [전역] → 내중.
내중 명 나중(乃終). [전역] = 나종, 나중, 낭중, 내종, 냉중.
내-치다[1] 동 내(川)에서 물이 크게 흘러내리다. [인성 서홍 수산 김녕] = 내-터지다.
내치다[2] 동 [전역] → 게우다.
내치다[3] 동 내키다. ① 하고 싶은 마음이 솟아오르다. [전역] ②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던지거나 나가게 하다. [노형 조수]
내-컫다[1] 동 일이 되어 가는 형편을 미리 알려주다. [전역]
내-컫다[2] 동 [전역] → 내-걷다.
내-콛다 동 [전역] → 내-곧다.
내-터지다 동 [전역] → 내-치다[1].
내ᄐᆞ락-들이ᄃᆞ락 부 들락-날락. 닫는 걸음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양. [전역]
내-톧다 동 [전역] → 내-돋다.
내팟-골 명 <지> 제주시 일도2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 내팟-굴.
내팟-굴 명 <지> [전역] → 내팟-골.
내팟-동네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와흘1리의 옛 자연마을. [조천]
내-풀리다 동 걱정이나 근심스런 속마음이 풀리다. [전역]
내-풍치다 동 집안의 세간 같은 것을 꺼내 흐트러뜨리다. [전역]
내-후리다 동 내-후리다. *막뎅이로 몰록 내후리멍 물 어드레 내불어동 왕 자느냐 야단ᄒᆞ니.(막대로 '몰록' 내후리며 말을 어디 내버려 두고 와서 자느냐고 야단하니.) [전역]
내-훈들다 동 [전역] → 내-두르다.
내-ᄒᆞ다 동 냄새를 맡다. [전역]
낵인 명 [전역] → 낙인(烙印).
낵인-찍다 동 [전역] → 낙인-찍다.
냄비 명 냄비. [전역] = 남비.
냄살 명 [전역] → 냄새.
냄새 명 냄새. 코로 맡을 수 있는 모든 기운. [전역] = 내[3], 내움살, 내움새, 내음살, 내음새, 냄살.
냄펜 명 [전역] → 남펜.
냅-뜨다 동 냅-뜨다. [전역]
냅작-ᄒᆞ다 형 납작-하다. *점복 냅작ᄒᆞᆫ 거 암컬로만 알아서.(전복 납작한 것 암컷으로만 알았어.) [하귀]
냇-거분드렝이 명 [조수] → 냇-건데기.
냇-건데기 명 내(川)가 흐를 적에 물에 떠 내려온 검부러기. [인성 화순 하원 서홍 태흥] = 냇-거분드렝이, 냇-건두럭, 냇-건둑, 냇-건드레기, 냇-겐독, 냇-겐둑, 냇-께, 물-메[4], 물-멧.
냇-건두럭 명 [표선] → 냇-건데기.
냇-건둑 명 [서홍 태흥 표선] → 냇-건데기.
냇-건드레기 명 [노형 수산] → 냇-건데기.

냇-겐독 명 [노형 조수] → 냇-건데기.
냇-겐둑 명 [노형 어도] → 냇-건데기.
냇-겡이 명 <동> [중문] → 냇-깅이.
냇-고랑챙이 명 [전역] → 냇-고랑치.
냇-고랑치 명 내(川)에 우묵하게 패인 고랑창. [전역] = 냇-고랑챙이, 냇-골챙이.
냇-골챙이 명 [전역] → 냇-고랑치.
냇-깅이 명 <동> 냇물에 사는 게. 참-게(-蟹). [노형 인성 서홍] = 냇-겡이.
냇-ᄀᆞ 명 [전역] → 내-ᄀᆞᆺ.
냇-ᄀᆞᆷ 명 [전역] → 내-ᄀᆞᆺ.
냇-ᄀᆞᆺ 명 [전역] → 내-ᄀᆞᆺ.
냇-께 명 [조천 어도] → 냇-건데기.
냇-물 명 냇-물. [전역]
냇-바위 명 내(川)의 가장자리. *냇바위에랑 가지 말라. 털어진다.(냇가에는 가지 마라. 떨어진다.) [전역]
냇-홈 명 내(川)에 오목하게 팬 곳. [전역]
냉-국(冷-) 명 <음> 냉-국. 냉수에 오이나 해조류 따위를 썰어 놓고 간을 맞춰 만든 국. [전역] = 냉-쿡.
냉국-거리 명 냉국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재료. [전역] = 냉국-ᄀᆞ슴, 냉국-ᄀᆞ심.
냉국-ᄀᆞ슴 명 [전역] → 냉국-거리.
냉국-ᄀᆞ심 명 [전역] → 냉국-거리.
냉기다[1] 동 이익을 챙기다. 남기다. [전역]
냉기다[2] 동 지내다. 제사 따위를 지내다. *언치냑은 우리 집이 식게 냉겻저.(어젯밤은 우리 집에 제사를 지냈어.) [전역]
냉기리다 동 나무라다. [표선]
냉끼-낭 명 <식> ① 호자-나무(虎刺--). [전역] ② 수정-목(壽庭木). [서홍 중문 토평]
냉냉-ᄒᆞ다(冷冷--) 형 ① 냉냉-하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쌀쌀맞다. *그 사름은 너미 냉냉ᄒᆞ연 정이 안 부튼다.(그 사람은 너무 냉냉해서 정이 안 붙는다.) [전역] ② 방 따위가 따습지 못해 싸늘하다. *구둘이 냉냉ᄒᆞ연 즘 못 자키어.(방이 냉냉해서 잠을 못 자겠다.) [전역] = 넹넹-ᄒᆞ다.
냉대-ᄒᆞ다(冷待--) 동 냉대-하다. 푸대접-하다. *집이 온 소님 냉대ᄒᆞ민 안 뒌다.(집에 온 손님을 냉대하면 안 된다.) [전역]
냉-바리 명 [전역] → 넹-바리.
냉수(冷水) 명 냉수. [전역] → 넹수.
냉중 명 [전역] → 내중.
냉-쿡 명 [전역] → 냉-국.
냉-ᄒᆞ다(冷--) 형 냉-하다. 찬 기운이 있다. *몸이 냉ᄒᆞ다.(몸이 냉하다.) [전역]
-냐 어미 -냐. ① 용언 어간에 붙거나 또는 선어말어미에 붙은 '-느-·-더-'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당신 뭘 헤서 이렇게 매일 노동ᄒᆞ느냐?(당신 뭘 해서 이렇게 매일 노동을 하느냐?) [전역] ② 용언 어간에 붙은 '-아-·-어-·-여-' 등에 연결되어서 과거의 어떤 동작·상태를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③ 용언의 어간에 붙은 '-암시-·-엄시-·-염시-·-람시-' 또는 '-아시-·-어시-·-여

시-·-라시-' 등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의 계속이나 완료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④ 체언이나 형용사의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⑤ 용언의 어간에 붙은 '-암-·-엄-·-염-·-람-' 등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⑥ 용언 어간에 붙은 '-앗-·-엇-·-였-·-랏-' 등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끝나 있는가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냠냠 부 [가시 수산] → 남남.

너 대 [전역] → 느.

너그럽다 형 너그럽다. [전역]

너나-엇이 부 너나-없이. [전역]

너냥-나냥 명 <요> [전역] → 느냥-나냥.

너네-덜 대 [전역] → 너의-들.

너네-들 대 [전역] → 너의-들.

너녕-나녕 명 <요> [전역] → 느냥-나냥.

너-닷쉐 명 [전역] → 너-댓쉐.

너-댓 명 네-댓(四五). [전역]

너-댓쉐 명 네댓-새. [전역] = 너-닷쉐.

너던-구덕 명 <도> [하도] → 너덩-구덕.

너덜-거리다 동 너덜-거리다. [노형 서홍 수산 김녕]

너덩 명 <식> [전역] → 존곙잇-줄.

너덩-구덕 명 <도> 으름덩굴 따위로 결은 바구니. [전역] = 너던-구덕.

너-도령 명 <민> [전역] → 너사메-



너덩구덕

너도령.

너러기 명 [전역] → 너베기.

너레기 명 [전역] → 너베기.

너르다 형 너르다(廣). [전역]

너무 부 [전역] → 너믜.

너-물[1] 명 [노형 어도 조수 인성 화순 하원] → 다솟-물[2].

너-물[2] 명 음력 열이틀과 스무이렛 날의 조수(潮水). [서홍 태흥 표선 수산 가시 세화 조천 노형] = 늬-물, 서-물[1].

너믜 부 너무. [전역] = 너무.

너뱅이 명 <동> 광어(廣魚)의 다른 이름. [종달]

너버기 명 [전역] → 너베기.

너벅지[1] 명 <도> 항아리의 일종. [대정]

너벅지[2] 명 [전역] → 너베기.

너벅-지시 명 <병> 넓적하게 퍼지는 부스럼. [전역]

너베기 명 넓이. [전역] = 너러기, 너레기, 너버기, 너벅지[2], 너부기, 넙이, 넓이.

너부기 명 [전역] → 너베기.

너부작-이 부 너부죽-이. 넓적하게 엎드리는 모양. *땅에 너부작이 업더지다.(땅에 너부죽이 엎드리다.) [전역] = 너부잭-이.

너부작작-ᄒᆞ다 형 [전역] → 너부작-ᄒᆞ다.
너부작-ᄒᆞ다 형 표면이 편편해서 넙죽하다. ＊양지가 너부작ᄒᆞ다.(얼굴이 너부죽하다.) [전역] = 너부작작-ᄒᆞ다.
너부잭-이 부 [전역] → 너부작-이.
너불너불-ᄒᆞ다 형 넓적넓적-하다. [이호]
너붕-옷 명 <의> 어린아이가 입는 두루마기. [전역]
너사메-너도령 명 <민> 무악기(巫樂器)의 신. [전역] = 너-도령, 너사무-너도령, 너사무-삼형제.
너사무-너도령 명 <민> [전역] → 너사메-너도령.
너사무-삼형제 명 <민> [전역] → 너사메-너도령.
너삼 명 <식> 쓴-너삼. [전역] = 고삼, 고솜, 너솜.
너솜 명 <식> [서홍 수산] → 너삼.
너솜-대 명 고삼(苦蔘) 대. 고삼의 줄기가 되는 대. [전역]
너솜-뿌리 명 고삼(苦蔘) 뿌리. 한방의 약재로 씀. [전역]
너솜-욜메 명 고삼(苦蔘) 열매. [전역]
너영-나영 명 <요> [전역] → 느냥-나냥.
너울[1] 명 [전역] → 누.
너울[2] 명 <의> 너울. [전역] = 너월, 포[3].
너울[3] 명 <의> 우장(雨裝)의 겉. [송당]
너울-너울 부 너울-너울. [전역]
너월 명 <의> [수산 조수] → 너울[2].
너을다 동 [전역] → 너흘다.
너의-덜 대 [전역] → 너의-들.
너의-들 대 너희-들. [전역] = 너네-덜, 너네-들, 너의-덜, 느네-덜, 느네-들, 느으-덜, 느으-들.
너출 명 넌출.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넌출[1].
너팡-징 명 <민> 눈-병. [전역]
너패 명 <식> 넓-패. [행원] = 넘패, 넘피.
너풀-너풀 부 넓적-넓적. ＊잔칫궤기는 넙풀넙풀 잘 썰어서라.(잔칫고기는 넓적넓적 잘 썰었더라.) [전역]
너풀너풀-ᄒᆞ다 형 넓적넓적-하다. [전역]
너흐 명 여유. ＊하늘 바릴 너흐도 엇고 땅 바릴 너흐도 엇고.(하늘을 볼 여유도 없고 땅을 볼 여유도 없고.) [명월]
너흘다 동 질긴 물건을 입에 물어서 이로 질겅질겅 씹다. [전역] = 너을다.
넉 명 넋. [전역]
넉-나다 동 몹시 놀라서 넋이 나가다. ＊가이 개신디 물련 넉낫저.(그 애 개에게 물려서 넋이 나갔다.) [전역]
넉넉-이 부 넉넉-히. [전역]
넉넉-ᄒᆞ다 형 넉넉-하다. [전역]
넉-더리 명 넋-두리. [전역] = 넉-두리.
넉동-메 명 <민> 윷놀이를 할 때 네 번째 마지막 말. [전역] = 넉-지.
넉동-베기 명 <민> 넉동-내기. 넉동이 다 나야 이기는 윷놀이. [전역] = 넉둑-베기.
넉동-사니 명 <민> 윷판에서 네 개의 말을 한데 어울러서 가는 말. [전역]
넉-두리 명 [전역] → 넉-더리.
넉두리-ᄒᆞ다 동 넋두리-하다. ＊그 사름은 만나민 앚앙 넉두리ᄒᆞ기에 바쁜다.(그 사람은 만나면 앉아서 넋두

리하기에 바쁘다.) [전역]

넉둑-베기 명 <민> [전역] → 넉동-베기.

넉-들다 동 몸에서 빠져나간 넋을 제자리로 들어오다. 보통 '넉들라' 형태로 사용된다. [전역]

넉-들이다 동 <민> 넋을 들이다. 주로 무속에서, 무당을 빌려 환자의 몸에서 빠져나간 넋을 제자리로 돌아오게 빌어주다. *놀래엉 넉난 아인 그냥 내불지 말앙 넉들이라.(놀라서 넋이 나간 아이는 그냥 내버리지 말고 넋을 들여라.) [전역]

넉-들임 명 <민> 육체 속의 넋이 일부 빠져나감으로 해서 앓는 병을 고치는 굿의 이름. [전역]

넉매-무섹 명 <민> 물색 천. [전역] = 넝매-무섹.

넉-산 명 <민> '넉들임'을 하는 무덤이란 뜻으로,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 '존나니므르일뤳당', '한영할망당' 등을 일컬음. [함덕]

넉-상 명 <민> 넋들임을 위해 차린 제상(祭床). [김녕]

넉새-ᄃᆞ림 명 <민> 환자의 넋을 나가게 만든 사기(邪氣)를 쫓는 제차. [전역]

넉시-오름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의귀초등학교 남쪽, 내 건너에 있는 오름. 표고 146.2미터. [전역]

넉신-몸주 명 <민> 한 집안의 수호신. 일월 조상을 일컫는 말. [전역]

넉-울다 형 바라던 것이 수포로 돌아가서 마음이 몹시 섭섭하다. *시엄에 털어져 부난 오직이나 넉울어시카?(시험에 떨어져 버리니까 오죽이나 서운해서 실망했을까?) [전역]

넉-지 명 [전역] → 넉동-메.

넌출[1] 명 [태흥 표선 수산 세화 조천] → 너출.

넌출[2] 명 <식> [서홍] → 분지-쿨.

넌출-낭 명 <식> 바위-수국. [전역]

넌출-상낭 명 <식> [애월] → 츰-상낭.

널 명 널. 널-빤지. [전역]

널개-오름 명 <지>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남동쪽에 있는 오름. 표고 93.2미터. [전역] = 판포-악(板浦岳).

널다 동 널다. 볕을 쬐거나 또는 드러내 보이려고 펼쳐 놓다. [전역]

널러-지다 동 '죽다'의 낮춤말. [전역] = 뒈싸-지다[2], 뒤여-지다.

널르다 형 넓다. *밧이 널르다.(밭이 넓다.) [전역]

널르닥-ᄒᆞ다 형 널-따랗다. 면적이 꽤 넓다. [전역]

널리다 동 [전역] → 던지다.

널-마리 명 <건> 널-마루. [전역]

널-문 명 <건> 나무를 도끼로 짜개서 이를 자귀로 다듬은 후 이 판을 그대로 사용하는 문. [전역]

널-빤지 명 [전역] → 널-판지.

널-손지 명 넛-손자. [전역] = 넛-손지.

널-저립 명 <동> 재방어의 일종. [사계]

널-짝 명 널-쪽. [전역] = 널-착.

널찍-널찍 부 널찍-널찍. [전역]

널찍-이 부 널찍-이. [전역]

널찍-ᄒᆞ다 형 [전역] → 넙찍-ᄒᆞ다.

널-착 명 [전역] → 널-짝.

널-판 명 [전역] → 널-판지.

널-판대기 명 널-판때기. [전역]

널-판지 명 널-빤지. [전역] = 널-빤지, 널판.
널-판짝 명 널-판자. [전역]
널-하르방 명 [조수] → 넛-하르방.
널-할망 명 [김녕] → 넛-할망.
넓-곽(-藿) 명 <식> [상모] → 넓-메역.
넓다 형 [전역] → 넙다.
넓-메역 명 <식> 넓-미역. 우도(牛島)가 주산지인 길이가 2~3미터에 이르는 크고 넓은 미역. [전역] = 넓-곽(-藿).
넓메역-쌀 명 넓미역 채취용인 '갈퀴'에 달린 여러 개의 살. [우도]
넓메역-작지 명 넓미역과 공생 관계인 자잘한 자갈. [우도]
넓이 명 [전역] → 너베기.
넓작-ᄒᆞ다 형 넓적-하다. [전역]
넘기다 동 [전역] → 넹기다[1].
넘다[1] 동 건너다. [전역] = 건너다.
넘다[2] 동 넘다. ① 정도에 벗어나 지나치다. [전역] ② 때가 지나가다. [전역] ③ 낮은 데서 공간이나 물건의 위를 지나 다른 낮은 데로 가다. [전역]
넘어가는-비 명 지나가는 비(雨). [전역]
넘어-가다 동 건너-가다. *그 사름 우리 밧으로 넘어가라.(그 사람 우리 밭으로 건너가더라.) [전역]
넘어-사다 동 넘어-서다. [전역]
넘어-지다 동 [전역] → ᄂᆞ려-지다.
넘은-겨을 명 [전역] → 지난-저슬.
넘은-돌 명 지난-달. [전역] = 지난-둘.
넘은-밤 명 지난-밤. [전역]
넘은-여름 명 지난-여름(--夏). [전역] = 지난-여름.
넘은-일 명 지난 일(過去事). [전역]
넘은-저슬 명 [전역] → 지난-저슬.
넘은-저을 명 [전역] → 지난-저슬.
넘은-헤 명 지난-해(去年). [전역] = 지난-해, 지난-이.
넘패 명 <식> [전역] → 너패.
넘피 명 <식> [하귀] → 너패.
넙거리[1] 명 <지> [교래] → 넙거리-오름[1].
넙거리[2] 명 <지> [남원] → 넙거리-오름[2].
넙거리-오름[1] 명 <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남서쪽 궤펜이오름 북서쪽에 있는 오름. 표고 810미터. [교래 아라] = 넙거리[1].
넙거리-오름[2]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머체오름 남서쪽에 있는 오름. 표고 437미터. [한남 위미] = 넙거리[2].
넙게-오름 명 <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와 서광리 사이에 있는 오름. 표고 246.5미터. [전역] = 광쳉이-오름, 광해-악(廣蟹岳).
넙다 형 넓다(廣). [전역] = 넓다.
넙시근-ᄒᆞ다 형 넓적스름-하다. [전역]
넙으못-동네 명 <지> [남원] → 넙은-못②.
넙은-개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1리와 위미2리 경계에 있는 포구. [남원]
넙은-드르 명 <지> 제주시 노형동 광평(廣坪)마을의 옛 이름. [노형]
넙은-못 명 <지> ①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1리에 있는 못. [남원] ②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1리 '넙은못' 일대

에 형성된 자연마을. [남원] = 넙으못-동네, 넙은못-동네.

넙은못-동네 명 <지> [남원] → 넙은-못②.

넙은-오름 명 <지> 제주시 애월읍 고내오름의 남서쪽 봉우리. 위가 넓고 편편함. 표고 115미터. [고내 상가]

넙이 명 [전역] → 너베기.

넙작-꽝 명 넓적다리의 뼈. 대퇴-골(大腿骨), 비골(髀骨). [전역] = 넙작-뻬, 넙적-꽝.

넙작-넙작 부 [전역] → 넙적-넙적.

넙작-다리 명 넓적-다리. 무릎 관절 위의 부분. [전역] = 넙적-다리.

넙작-뻬 명 [전역] → 넙작-꽝.

넙작-이 부 납작하-게. *땅에 넙작이 업드려서라.(땅에 납작하게 엎드렸더라.) [전역]

넙작-ᄒᆞ다 형 넓죽-하다. *너미 양지가 넙작ᄒᆞ다.(너무 얼굴이 넓적하다.) [전역] = 넙적-ᄒᆞ다.

넙적-꽝 명 [전역] → 넙작-꽝.

넙적-넙적 부 넓적-넓적. [전역] = 넙작-넙작.

넙적-다리 명 [전역] → 넙작-다리.

넙적-뻬 명 [전역] → 넙작-꽝.

넙적-ᄒᆞ다 형 [전역] → 넙작-ᄒᆞ다.

넙주룩-ᄒᆞ다 형 편편하고 넓죽하다. *그보단 저게 더 넙주룩ᄒᆞ다.(그것보다 저것이 더 넓적하다.) [전역]

넙죽-넙죽 부 ① 넙죽-넙죽. 넙죽거리는 모양. *누게신디 넙죽넙죽 말대답고?(누구한테 넙죽넙죽 말대답이냐?) [전역] ② 넓적넓적한 모양. *줄게 말앙 넙죽넙죽 썰라.(잘게 말고 넓적넓적 썰어라.) [전역]

넙죽-이[1] 명 넓죽-이. 얼굴이 넓죽한 사람을 두고 놀림조로 이르는 말. [전역]

넙죽-이[2] 명 <식> 쪽동백-나무. [전역]

넙죽-이[3] 부 넓죽-이. 넓죽하게. [전역]

넙죽-ᄒᆞ다 형 넓죽-하다. 물건의 생김새가 길쭉하고 넓다. [전역]

넙찍-ᄒᆞ다 형 널찍-하다. 장소의 면적이 넓다. *ᄒᆞ교 운동장이 넙찍ᄒᆞ다.(학교 운동장이 널찍하다.) [전역] = 널찍-ᄒᆞ다.

넙치[1] 명 <동> 넙치. [전역] = 광어(廣魚).

넙치[2] 명 채반같이 둥글넓적하게 생긴 얼굴이나 얼굴이 그러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전역]

넙파리-깅이 명 <동> 게의 일종. *넙파리깅인 바당에서 나도 좀 커.('넙파리깅이'는 바다에서 나도 좀 커.) [하도]

넛-손지 명 [하원] → 널-손지.

넛-하르방 명 넛-할아버지. [전역] = 널-하르방, 늣-하르방.

넛-할망 명 넛-할머니. [전역] = 널-할망.

넝매-무섹 명 <민> [전역] → 넉매-무섹.

넝-줄 명 <식> [노형 오라 삼양] → 존곙잇-줄.

넝쿨 명 덩굴. [전역]

네[1] 명 내(煙). [전역]

네[2] 명 노(櫓). [전역] = 노[1].

네[3] 관 네. 그 수량이 넷임을 나타내는 말. [전역] = 늬[5].

-네- 선어말 -니-. 평서법 어미 '-다' 또는 의문법 어미 '-까' 바로 앞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를 직접 지정하여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전역]

-네[1] 어미 -는다.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행동이나 상태를 직접 지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네[2] 어미 -네. 용언 어간에 붙은 '-앗--·-엇-·-엿-·-랏-' 또는 '-암-·-엄-·-염-·-람-' 따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 또는 계속을 직접 지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네감-내 명 <민> 연기 냄새. [전역]

네기 감 네기. [전역]

네기다 동 [전역] → 내기다.

네꼴-스럽다 형 뇌꼴-스럽다. 보기에 아니꼽고 얄미우며 못마땅한 데가 있다. [전역]

네-꼿 명 <민> 피어오르는 연기. [전역] = 내-꼿.

네끼다 동 [전역] → 던지다.

네낄락 명 [전역] → 데낄락.

네난-가위 명 <민> 연기가 나는 가호(家戶). [전역]

네-도리 명 [전역] → 문곳-도리.

네-두 명 [이호] → 네-뒤.

네-뒤 명 풍선(風船) 따위의 배에서 왼쪽 노가 있는 방향. 선두(船頭)를 향하고 섰을 적에 배의 왼편. [전역] = 네-두.

네려-보다 동 내려다-보다. [전역]

네려-사다 동 내려-서다. [전역]

네미 명 '너의 어미'를 나삐 일컫는 말. [전역]

네벳-떼기 명 <농> 좌우 두 이랑씩 네 개의 이랑으로 한 두둑을 계속적으로 만들어 나가는 밭갈이법. [전역]

네복 명 내복(內腹). [전역] = 안첩.

네비 명 '너의 아비'를 나쁘게 일컫는 말. [전역]

네씩-ᄒᆞ다 형 시뜻-하다. [전역]

네-썹 명 노-잎. 노의 아래 부분으로 노를 저을 때 물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 *요레는 네짝이엔 ᄒᆞ고 요건 네썹이라고 ᄒᆞ여.(요리는 노착이라고 하고 요것은 노잎이라고 하지.) [이호]

네-앞 명 풍선 따위의 배에서 오른쪽 노가 있는 방향. [이호 인성 하원 태흥 표선 세화 조천 노형 어도 조수]

네야더리 감 [전역] → 나야더리.

네에기 명 <민> 떡 선생으로 일컬어지는 이. [전역]

네웨-ᄒᆞ다 동 내외-하다(內外--). [전역]

네위-질 명 [하원] → 네-질.

네 젓는 소리 명 <요> 어부들이 고기를 낚으러 먼 바다를 드나들 때 탄 배의 노를 저으며 부르는 민요. 주로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해녀노래'의 가락과 비슷하고 사설도 일부 넘나들지만, '해녀노래'에 비하면 드물게 전승되는 편임. [전역] = 베 젓는 소리.

네좃-멍에 명 떼(筏)의 뒤쪽에 가로 박아 메운 나무.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고물-멍에, 고불-멍에.

네종 명 퉁퉁-증(--症). [전역]

네-줄벡이 명 <농> 보리 알이 네 줄에 박힌 보리. [대포]
네-질 명 노-질(櫓-). [표선 수산 조천] = 네위-질, 노-질.
네-차락 명 노(櫓). 노의 아래 쪽 넓은 부분. *요 네차락 벗어지게 젓곡 젓엉 흔저 가게.(요 노 벗어지게 젓고 저어 어서 가자.) [전역]
네-착 명 노-착. 노(櫓)의 위쪽 자루 부분. *정든 님이사 놈을 준덜 요 네착사 놈 주랴.(정든 임이야 남을 준들 요 노착이야 남을 주랴.) [전역]
네-커리 명 [전역] → 늬-커리.
네콜-방애 명 [전역] → 네콜-방에.
네콜-방에 명 네 사람이 둘러서서 서로 절굿공이가 부딪치지 않게 간격 맞추어 찧어 넣으면서 방아를 찧는 일. [구좌] = 네콜-방애, 늬콜-방에.
네큰-ᄒᆞ다 형 심신(心身)이 몹시 고달파 느른하다. [전역]
네팔-꼬녀 명 우물-고누. [김녕 서홍] = 네팔-꼬니, 네팔-꼰, ᄉᆞ-꼰.
네팔-꼬니 명 [수산 김녕] → 네팔-꼬녀.
네팔-꼰 명 [가시] → 네팔-꼬녀.
-넨[1] 어미 -는다고.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성질·상태를 직접 지정하여 나타내는 '-네'에,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반문하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전역]
-넨[2] 어미 -는다고.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성질·상태를 직접 지정하여 나타내는 '-나'의 변형 '-네'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말ᄒᆞ다·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넬 명 [전역] → 늴.
넷 수 넷(四). [전역] = 늿.
넷-내 명 냇-내(煙臭). 연기 냄새. *궤기 군 거 넷내 난 못 먹키어.(고기 구운 거 연기 냄새 나서 못 먹겠다.) [전역] = 넷-내움살.
넷-내움살 명 [전역] → 넷-내.
-넹 어미 -는다고. 받침이 있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성질·상태를 직접 지정하여 나타내는 '-나'의 변형 '-네'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붙어서, 다음에 오는 '하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넹-가리 명 [조수 하원] → 넹-바리.
넹기 명 [전역] → 우-전.
넹기다[1] 동 넘기다. [전역] = 넘기다.
넹기다[2] 동 사람을 어떤 문제나 사태에 대하여 모르고 지나가게 하다. [전역]
넹넹-ᄒᆞ다 형 [전역] → 냉냉-ᄒᆞ다.
넹-바리 명 냉-과리. 잘 구워지지 않아서 불을 붙이면 연기와 냄새가 나는 숯. [전역] = 냉-바리, 넹-가리. 고 닝과리.
넹수 명 냉수(冷水). [전역] = 냉수.
녀석 명 녀석. [전역] = 년석.
년 명 년. 여성을 낮잡아 일컫는 말. *(속) 고운 년 잡아들이렌 ᄒᆞ난, 술

친 년 잡아들인다.(예쁜 여자 잡아들이라고 하니, 살찐 여자 잡아들인다.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것을 비유하는 말.) [전역]

년석 명 *정짓문을 올안 보난 부짓댕이 놈이 장단을 치곡 소도깽이 녀석이 춤을 추엄저.(부엌문을 열어 보니 부지깽이 놈이 장단을 치고 소댕 녀석이 춤을 추네.) [전역] → 녀석.

-녜 어미 -네. 용언의 어간에 붙은 '-아-·-어-·-여-·-라-' 또는 '-암시-·-엄시-·-염시-·-람시-', '-아시-·-어시-·-여시-·-라시-' 등에 연결되어서, 화자가 그 사실을 지정하되 그 사실은 연하(年下)의 상대자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녠 어미 -냐고. ① 체언에 붙어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냐'의 변형 '-녜'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듣다·묻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② 용언의 어간에 붙은 '-아-·-어-·-여-·-라-·-크-·-커-' 또는 '-암시-·-엄시-·-염시-·-람시-', '-아시-·-어시-·-여시-·-라시-' 등에 연결되어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냐'의 변형 '-녜'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듣다·묻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녱 어미 -냐고. ① 체언에 붙어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냐'의 변형 '-녜'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듣다·묻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② 용언의 어간에 붙은 '-아-·-어-·-여-·-라-·-크-·-커-' 또는 '-암시-·-엄시-·-염시-·-람시-', '-아시-·-어시-·-여시-·-라시-' 등에 연결되어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냐'의 변형 '-녜'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듣다·묻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노[1] 명 [노형 어도] → 네[2].

노[2] 명 노(繩). *노 허끈 하르방은 앚앙 울곡, 실 허끈 할망은 앚앙 푼다.(노 헝큰 할아버지는 앉아서 울고, 실 헝큰 할머니는 앉아서 푼다.) [전역]

노가리-낭 명 <식> 주목(朱木). [전역]

노각-뿔 명 희읍스름하고 파르스름한 빛깔의 뿔(角). [전역]

노각성-ᄌᆞ부줄 명 <민> ① (신이) 하늘에 오르내리는 길. [노형 오라 삼양] ② 하늘 옥황에 오르내리는 넝쿨 줄. [노형 오라 삼양]

노고록-이 부 노긋-이. [전역]

노고록-ᄒᆞ다 형 사람의 성질이나 물건 따위가 여유롭다. [전역] = 누구륵-ᄒᆞ다.

노곱 명 날삯으로 일을 시키는 일꾼. *남선비 아덜 일곱 성제 난 노곱

치레 간 연 삼년을 뒈여도 안 오란. (남선비가 아들 일곱 형제를 나서 일꾼으로 가서 연 삼년이 되어도 아니 와.) [용수]

노기당산-메 명 <민> [전역] → 노기-메.

노기-메 명 <민> 놋그릇에 물과 쌀을 넣어 김으로만 찐 메. = 노기당산-메.

노꼬메-족은오름 명 <지> 제주시 애월읍 금덕리에 나란히 있는 두 오름의 작은 쪽 오름. 표고 775미터. [전역] = 족은-오름[3].

노꼬메-큰오름 명 <지> '노꼬메족은오름' 남서쪽에 이웃한 오름. 표고 834미터. [전역] = 큰-오름[3].

노꼬물-오름 명 <지>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서쪽 바닷가에 있는 오름. 바다쪽 벼랑에서 노꼬물이라는 샘물이 흘러나오며 위에 전망대 수월정(水月亭)이 있음. 표고 78미터. [고산신도] = 물ᄂᆞ리-오름, 수월-봉(水月峰).

노끄다 형 *노끈 산에 아침 안개, 으남이 끄려 잇져.(높은 산에 아침 안개, 안개가 끼어 있네.) *요 바당에 은광 금이 번질번질 끌려서도 노끈 낭긔 올매로다.(요 바다에 은과 금이 번질번질 깔렸어도 높은 나무의 열매로다.) [전역] → 노프다.

노-끈 명 노-꼰. 노로 된 끈. [전역]

노끼 부 높-이. *돌아 돌아 밝은 돌아, 노끼 들렁 청멩이 베라.(달아 달아 맑은 달아, 높이 들어 청명히 뵈라.) [전역]

노나리-판 명 놀음놀이-판. [전역]

노내기-손가락 명 [김녕] → 노니왜기-손가락.

노널왜기-손가락 명 [가시] → 노니왜기-손가락.

노녀-와기 명 일을 아니하고 한가히 놀며 다니는 사람. [전역]

노념-놀이 명 놀음-놀이. [애월 수산]

노념-ᄒᆞ다 동 놀이-하다. 어린 아이들이 장난으로 놀음놀이하다. *한라산에 간 보난 아돌 아긴 장기 두곡 똘 아긴 노념ᄒᆞ염더라.(한라산에 가보니 아들 아긴 장기 두고 딸 아긴 놀이하고 있더라.) [전역]

노뉴애기 명 일을 부리거나 생산 활동을 할 수 없는 어린 마소(馬牛). [가시 법환]

노는-패 명 놀음놀이를 하는 동아리. [전역]

노는-땅 명 농사를 지을 수 있는데도 아무것도 심지 않고 놀리는 땅. [전역]

노니에기-손가락 명 [인성 서홍 수산] → 노니왜기-손가락.

노니왜기-손가락 명 약-손가락. [노형 조수] = 노내기-손가락, 노널왜기-손가락, 노니에기-손가락.

노-다스리다 동 되뇌다. 했던 말을 자꾸 다시 하다. *앚이민 헷단 말만 노다스린다.(앉으면 했던 말만 되뇐다.) [전역] = 노-다싀리다, 노-다시리다.

노-다싀리다 동 [전역] → 노-다스리다.

노-다시리다 동 [전역] → 노-다시리다.

노닥-거리다 동 노닥-거리다. 이야기를 자꾸 노닥이다. *쓸디엇은 말만 경 노닥거렴시니?(쓸데없는 말만 그

렇게 노닥거리고 있니?) [전역]

노대 명 [대정] → 놀[1].

노ᄃᆞ리 명 다리(橋). ＊어멍이랑 오시는 질랑 물멩지로 노ᄃᆞ리 놓경 그 질흐로 오소서 ᄒᆞᆫ다.(어머닐랑 오시는 길은 물명주로 다리 놓거든 그 길로 오소서 한다.) [전역]

-노라 어미 -노라. 동사의 어간 또는 어간에 붙은 '-암-·-엄-·-염-·-람-·-앗-·-엇-·-엿-·-랏-' 등에 연결되어서, 화자 자신의 행동을 '해라' 할 자리에서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노랍다 형 [노형 조수 김녕] → 놀랍다.

노랑-강생이 명 <동> 노랑-강아지. [전역]

노랑-개[1] 명 <동> 털빛이 노란 개(犬). [전역] = 노린-개[1].

노랑-개[2] 명 비유적으로, 제주4·3사건 당시의 군인을 일컫는 말. [전역] = 노린-개[2].

노랑-곰펭이 명 노란 색을 띠는 곰팡이. 누룩을 띄울 때 생기는 곰팡이의 한 가지. [성읍]

노랑-굴 명 황토색 질그릇을 굽는 가마. ＊노랑굴에서 구운 허벅은 유약 불르지 아녀도 그릇이 춤 고와.('노랑굴'에서 구운 허벅은 유약을 바르지 않아도 그릇이 참 곱지.) [전역]

노랑-내[1] 명 [전역] → 노령-내.

노랑-내[2] 명 오소리의 취선(臭腺)에서 나는 냄새. [교래]

노랑내-나다 동 짐승의 고기에서 나는 기름기 냄새나, 고기 또는 털 따위의 단백질이 타는 냄새처럼 역겨운 냄새가 나다. [전역]

노랑-도채비 명 낮에 나타나는 도깨비. [전역]

노랑-머리 명 노랑-머리. [전역]

노랑-몸 명 <식> ＊노랑몸은 오월 장마 질 때 쳐 밀리는 거.(광생이모자반은 오월 장마가 질 때 쳐 밀려오는 거.) [하귀 애월 용수 이호] → 노랑-쟁이[1].

노랑-쉐 명 <동> 털빛이 노란 소(牛). [전역] = 노린-쉐, 누린-쇄.

노랑-쟁이[1] 명 <식> 괭생이-모자반. 거름용 해초(海草)의 일종. [우도 성산 하도] = 노랑-몸.

노랑-쟁이[2] 명 추위로 노랗게 변하여 버린 메밀. ＊솔도 지경은 일찍 상강이 지는 디라 놓으난 노랑쟁이가 항 모물 농ᄉᆞ 못ᄒᆞ주.('솔도' 지경은 일찍 서리가 내리는 데여서 '노랑쟁이'가 많아서 메밀 농사를 못하지.) [봉성]

노랑-ᄒᆞ다 형 노랗다. [전역]

노래-와치 명 <민> 노래를 잘 하는 이. [북촌]

노랫-가락 명 <요> 노랫-가락. 노래의 곡조. [전역]

노랫-소리 명 <요> 노래를 부르는 소리. [전역] = 놀랫-소리.

노략질-ᄒᆞ다 동 노략질-하다. ＊해벤엔 웨적이 들언 노략질ᄒᆞ여낫주.(해변에는 왜적이 들어서 노략질하였었지.) [전역]

-노렌 어미 -노라고. 동사의 어간 또는 어간에 붙은 '-암-·-엄-·-염-·-람-·-앗-·-엇-·-엿-·-랏-' 등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

서 화자 자신의 행동을 나타내는 '-노라'의 변형 '-노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노렝 어미 -노라고. 동사의 어간 또는 어간에 붙은 '-암-·-엄-·-염-·-람-·-앗-·-엇-·-엿-·-랏-' 등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화자 자신의 행동을 나타내는 '-노라'의 변형 '-노레'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노렴-타다 동 [노형 서홍 인성] → 노염-타다.

노령-내 명 노린-내(羶臭). [전역] = 노랑-내[1], 노린-내, 누렁-내, 누령-내.

노로 명 <동> [전역] → 노리.

노로셍이 명 [전역] → 노릇.

노로-오름 명 <지> 제주시 애월읍 금덕리 남동쪽, 붉은오름 남서쪽에 있는 오름. 노루가 많이 살았다고 함. 표고 1069.9미터. [전역]

노로젱이 명 [전역] → 노릇.

노롬-쟁이 명 투전(鬪錢)이나 화투(花鬪) 놀음을 일삼아 잘하는 사람. [전역] = 노름-쟁이.

노롬-패 명 투전(鬪錢)이나 화투(花鬪)의 놀음을 하는 동아리. [전역] = 노름-패.

노름-쟁이 명 *(속) 노름쟁이 뒤랑 대곡, 먹는 놈 뒤랑 대지 말라.(노름쟁이 뒤는 대고, 먹는 놈 뒤는 대지 마라.) [전역] → 노롬-쟁이.

노름-패 명 [전역] → 노롬-패.

노릇 명 노릇(戱). [전역] = 노로셍이, 노로젱이.

노릇-노릇[1] 부 노긋-노긋. [전역]

노릇-노릇[2] 부 [전역] → 노릿-노릿.

노리 명 <동> 노루(獐). *(속) 노리 궤기 ᄒᆞᆫ 점 먹젠 ᄒᆞ당, 지 궤기 열 점 일른다.(노루 고기 한 점 먹으려고 하다가, 자기 고기 열 점 잃는다.) *(속) 노리도 셔난 바닥에 들민 죽나.(노루도 있었던 곳에 들면 죽는다.) *(속) 노리도 제 자국에 들민 죽나.(노루도 제 자국에 들면 죽는다.) *(속) 노리 ᄯᅳ린 막댕이 삼년 울거먹는다.(노루 때린 막대기 삼년 우려먹는다.) *(속) 눈 우의 노리궤기, ᄇᆞ름 우의 바릇궤기.(눈 위의 노루고기, 바람 위의 바닷고기.) [전역] = 노로. 고 노ᄅᆞ.

노리-개 명 [전역] → 놀음-놀이.

노리개-ᄀᆞ음 명 놀이에 필요한 기구. [전역]

노리궤기-젓 명 오래 저장하려고 간장에 담가 절여 둔 노루 고기. [어음]

노리-그물 명 <도> 노루를 잡는 그물. [성산 수산]

노리다[1] 동 노리다. 눈독을 들여 겨누다. [전역]

노리다[2] 형 노르다. [전역]

노리룽-ᄒᆞ다 형 노르무레-하다. *보릿고고리가 노리룽 ᄒᆞ여서라.(보리이삭이 노르스름했더라.) [전역] = 노리룽-ᄒᆞ다.

노리룽-ᄒᆞ다 형 *군수엔 ᄒᆞᆫ 거 노리

룽ᄒᆞ고 메역 먹어 부는 그거주게. 그건 안 먹어.(군소라고 하는 것 노르무레하고 미역을 먹어 버리는 그것이지. 그것은 안 먹어.) [이호] → 노리롱-ᄒᆞ다.

노리-손이[1] 명 <지> [전역] → 노리-오름[1].

노리-손이[2] 명 <지> [봉개 와흘] → 노리-오름[2].

노리스롱-ᄒᆞ다 형 ＊황달 걸리민 온몸이 노리스롱ᄒᆞᆫ다.(황달에 걸리면 온몸이 노르스름한다.) [전역] → 노리스름-ᄒᆞ다.

노리스름-ᄒᆞ다 형 노르스름-하다. [전역] = 노리스롱-ᄒᆞ다.

노리-오름[1] 명 <지> 제주시 연동 공원묘지 북서쪽 가까이에 있는 오름. 노루가 많아서 활로 쏜, 곧 옛적에 노루 사냥을 하던 곳이라고 하여 '노리손이'라고도 부름. 표고 616미터. [연 노형] = 노리-손이[1].

노리-오름[2] 명 <지> 제주시 봉개동 거친오름 북쪽에 있는 오름. 표고 427미터. [봉개 와흘] = 노리-손이[2].

노리-코 명 <도> 노루를 잡기 위한 올가미. [전역]

노린-개[1] 명 <동> [전역] → 노랑-개[1].

노린-개[2] 명 [전역] → 노랑-개[2].

노린-게여미 명 <동> [인성 서홍 수산] → 붉은-게염지.

노린-게염지 명 <동> [인성 서홍 수산 김녕] → 붉은-게염지.

노린-내 명 [수산 김녕 어도] → 노령-내.

노린-쉐 명 <동> [전역] → 노랑-쉐.

노린-알 명 노른-자위. [전역]

노린-어럭쉐 명 <동> 털빛이 황백색(黃白色)으로 얼럭덜럭한 소. [전역]

노린-월라몰 명 <동> 털빛이 황백색(黃白色)으로 얼럭덜럭한 말. [인성 노형 조수 수산 서홍] = 노린-월레몰.

노린-월레몰 명 <동> [노형 조수 인성] → 노린-월라몰.

노립스롱-ᄒᆞ다 형 노르께-하다. [전역]

노립조고롱-ᄒᆞ다 형 곱지는 못하고 조금 짙게 노랗다. [전역]

노릿-노릿 부 노릇-노릇. [전역] = 노릇-노릇[2].

노릿노릿-ᄒᆞ다 형 노릇노릇-하다. ＊ᄀᆞ슬 들민 낭썹덜이 노릿노릿ᄒᆞᆫ다.(가을이 들면 나뭇잎이 노릇노릇한다.) [전역]

노망(老妄) 명 노망. 늙어서 부리는 망령. [전역]

노망-ᄒᆞ다(老妄--) 동 노망-하다. ＊늙어 가민 다 노망ᄒᆞᆫ다.(늙어 가면 다 노망한다.) [전역] = 노실-ᄒᆞ다.

노-뭉치 명 노-뭉치. [전역]

노불업노-체ᄉᆞ 명 <민> [전역] → 구불법구-체ᄉᆞ.

노비다 동 [전역] → 누비다.

노비-이불 명 [전역] → 누비-이불.

노-사리(繩--) 명 새끼 따위를 둥그렇게 포개어 놓은 것. [노형 가시 조수 인성 서홍 김녕]

노실[1](老失) 명 늙어서 제 정신을 잃어버리는 노망을 점잖게 이르는 말. ＊아은이 넘어도 노실도 안 ᄒᆞᆫ다.(아흔이 넘어도 노망도 안 한다.) [전역]

노실[2] 명 찬 기운. [전역]

노실-ᄒᆞ다 동 *늙어 가민 노실ᄒᆞᆫ다. (늙어 가면 노망한다.) [전역] → 노망-ᄒᆞ다.

노애다[1] 동 뇌다. 한 말을 자꾸 되풀이하다. *말 노애영 말 곤 듸 엇나. (말을 뇌어서 말 고운 데 없다.) [노형 오라 삼양 조수]

노애다[2] 동 되-거르다. 체 따위로 가루를 여러 차례 거르다. *ᄀᆞ를 노애어사 떡 곱나.(가루를 되걸러야 떡이 곱다.) [오라 용담]

노염-타다 동 걸핏하면 노여워하다. [전역] = 노렴-타다.

노을 명 [대정] → 놀[1].

노이다[1] 동 [조수] → 노히다.

노이다[2] 동 누이다. 피륙을 잿물에 담갔다가 솥에 찌다. *ᄇᆞ름 불엉 절일 중 알민 노인 멩지 뿔라 ᄒᆞᆫ다.(바람 불어 물결 일 줄 알면 누인 명주 빨라 한다.) [전역]

노인-미취(老人--) 명 보잘것없는 노인. [노형]

노인-성(老人星) 명 노인-성. [전역]

노일저데귀일이-똘 명 <민> 측간신. 문전본풀이에 등장하는 악인형 계모로 측간신이 됨. [전역]

노적-걸름 명 <농> 썩히려고 쌓아 둔 소의 거름. [상가]

노조방-산 명 <민> 깊고 깊은 산 속에 있는 상상의 산. '굴미굴산'과 함께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 [전역]

노-질 명 [노형 조수] → 네-질.

노-ᄌᆞ치 명 <동> 늙은 암꿩. [건입]

노태웃-도 명 <민>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큰당의 신명. [월정]

노토매 명 일은 아니하고 놀기만 하는 아이. [전역] = 노토메.

노토메 명 [전역] → 노토매.

노프다 형 높다. [전역] = 노끄다.

노형-마을 명 <지> 제주시 노형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 원-노형(元老衡)

노히다 동 같은 음식만 자꾸 먹어서 그 음식이 싫어지다. *하도 먹어 노난 노히연 못 먹키여.(하도 먹어 놓으니까 물려서 못 먹겠다.) [어도 조수] = 노이다[1], 누이다, 눼다.

노-ᄒᆞ다(怒--) 동 노-하다. 노여워-하다. *시긴 말 안 들어부난 노ᄒᆞ엿저.(시킨 말 안 들어 버리니까 노하였다.) [전역]

녹[1] 명 [전역] → 삼-록.

녹[2]**(祿)** 명 녹. 녹봉(祿俸). [전역]

녹근 관 높은. [전역]

녹기 부 높이. [전역]

녹-나다(錄--) 동 [전역] → 녹-피다.

녹남-오름 명 <지>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리에 있는 오름. 표고는 100.4미터. [전역] = 농남-봉(農南峰), 장목-악(樟木岳).

녹-낭 명 <식> 녹-나무. [전역]

녹다 동 녹다. [전역]

녹대 명 굴레. [조천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무제미.

녹대-쉬염 명 구레-나룻. [전역]

녹듸 명 <식> 녹두(綠豆). [전역]

녹듸-쉬 명 녹두로 만든 소. 또는 고물. [전역]

녹듸-주름 명 <음> 숙주를 양념에 무친 반찬. [노형 조수 김녕] = 녹디-

지름, 녹디-질름.

녹듸-죽 명 <음> 녹두-죽. [전역]

녹디-셍인 명 <민> 일문전신. 가신(家神)의 기원을 설명한 문전본풀이의 주인공. [전역]

녹디-지름 명 <음> [수산 서홍 가시] → 녹듸-주름.

녹디-질름 명 <음> [인성] → 녹듸-주름.

녹디-할망 명 <민> 제주시 용담동 궁당의 신명. [용담]

녹멩-걸리 명 <민> 녹(祿)과 명(命)을 가리는 쌀. 제비점하는 쌀. [전역]

녹-산(綠山) 명 초록색 산. 청산(靑山)에 대비하느라 일부러 꾸민 산 이름. *청산에랑 어멍을 묻곡 녹산에랑 아방을 묻곡, 청산 녹산 서녹산 새에 불리는 건 눈물이라라.(청산엘랑 어머닐 묻고 녹산엘랑 아버질 묻고, 청산 녹산 서녹산 새에 불리는 건 눈물이더라.) [전역]

녹-산듸 명 <식> 밭벼의 일종. [송당]

녹-쓸다 동 녹-슬다. [전역] = 삼록-오르다.

녹촉-낭 명 <식> 쪽동백-나무. [전역]

녹-피다(綠--) 동 녹-나다. 쇠붙이에 녹이 생기다. [전역] = 녹-나다.

녹하지(鹿下旨) 명 <지> 서귀포시 회수동 산간에 있는 오름. 표고 620.5미터. [전역] = 녹하지-오름.

녹하지-동네 명 <지> 서귀포시 중문동 녹하지 남동쪽에 형성되었던 자연마을. [서귀포 중문]

녹하지-오름 명 <지> [서귀포 중문] → 녹하지(鹿下旨).

논 명 논(畓). [전역] = 논-밧.

논고-오름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한라산 횡단도로 논고교 북서쪽에 있는 오름. 위에 깊이 53미터의 환형(環形) 분화구가 있음. 표고 843미터. [전역]

논-골 명 논-도랑. [전역]

논-달름 명 <농> 걸기-질. 논바닥을 평평하게 고르는 일. [전역]

논-두둑 명 논-두렁.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가시 김녕]

논-물 명 <농> 논-물. 논밭에 있는 물. [정역]

논-밧 명 [전역] → 논.

논-시둑 명 <농> 논(畓) 가운데 물을 받아 괴게 하기 위하여 돌 따위를 박아 놓은 두둑. [김녕 어도 수산 가시] = 논-시둘.

논-시둘 명 <농> [인성 수산 서홍 어도 가시 노형] → 논-시둑.

논-오름[1] 명 <지>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과 서광 간 도로변에 있는 오름. 표고 186미터. [감산 서광]

논-오름[2] 명 <지> [전역] → 눈-오름[2].

논젱이 명 <동> 아홉-동가리. *논젱인 이 ᄀᆞ타도 건 우럭.(아홉동가리는 이 같아도 그것은 우럭.) [전역]

논조시 명 <도> 구멍을 뚫는 데 쓰는 아주 작은 끌. [전역]

논-하니 명 <농> [대포] → 답-하니(畓--).

놀[1] 명 파도. *바당물은 들망들망ᄒᆞ나 ᄒᆞ뒈 놀은 불어도 금새예 물은 아니 들어.(바닷물은 오르락내리락하나 해도 파도는 일어도 금세 물은 아니

들어.) [전역] = 노대, 노을.
놀[2] 명 '노을'의 준말. [전역]
놀-감태 명 <식> '놀'(파도)에 밀려온 거름용 해조류인 감태. [동복 신양]
놀-거리 명 장난감. 노는 데 필요한 재료. *놀거리가 셔사 ᄌᆞ미지게 논다.(장난감이 있어야 재미있게 논다.) [전역]
놀다[1] 동 놀다(遊). [전역]
놀다[2] 동 놀다. ① 윷 따위를 던지다. [전역] ② 박힌 것이 헐거워 흔들리다. [전역]
놀-듬북 명 <식> '놀'(파도)에 밀려온 거름용 해조류인 '듬북'. [신양]
놀라기 명 <동> [조수] → 놀레미.
놀랍다 형 놀랍다. [전역] = 노랍다.
놀레 명 노래(歌). [전역]
놀레다 동 놀라다(驚). [전역]
놀레미 명 <동> 노래미. [노형 인성 서홍 수산 김녕] = 놀라기.
놀리다[1] 동 놀리다. 빨래를 물에 주물러 헹구다. [전역]
놀-리다[2] 동 놀-리다. ① 놀게 하다. [전역] ② 남을 조롱하다. [전역] ③ 박힌 것이 헐거워 흔들리다. [전역] ㉠놀이다.
놀멍-놀멍 부 쉬엄-쉬엄. [전역]
놀메-타다 동 노는 데 정신이 팔리다. *야윈 놀메타난 밥 먹는 것도 잊어불엇저.(이 아이는 노는 데 정신이 팔려서 밥을 먹는 것도 잊어버렸다.) [전역]
놀부 명 <동> 먹-장어. [사계 가마]
놀-불다 동 ① 모진 바람이 일어나 불다. [전역] ② 파도가 일다. [전역]
놀-씨 명 <농> [대포] → 웃씨.
놀음-놀이 명 놀음-놀이. [전역] = 노리-개.
놀이 명 굿의 의식에서 기본 의례 형식에다 신의 신화 내용을 행동으로 연출하는 일종의 극적인 의례. *영감놀이(영감놀이). [전역]
놀판-놀이 명 <민> [전역] = 석-살림.
놂-소리 명 아기들이 오순도순 노는 소리. *우리 애기 노는 건 놂소리여.(우리 아기 노는 건 '놂소리'다.) [전역]
놈[1] 명 남(他人). [전역] = 남[1], 남.
놈[2] 명 놈. '사내'의 낮춤말. *(속) 잰 놈 시 불 얻어먹나.(빠른 놈은 세 번 얻어먹는다.) *(속) ᄯᅳ린 놈은 에염으로 가곡, 맞인 놈은 가운디로 간다.(때린 놈은 가(邊)로 가고, 맞은 놈은 가운데로 간다.) *(속) 급ᄒᆞᆯ 놈은 배 속에서부터 안다.(급할 놈은 뱃속에서부터 알 수 있다.) *(속) 두린 놈 휏간 들러 먹듯 ᄒᆞᆫ다.(미친 놈 날간(生肝) 휩쓸어 먹듯 한다.) *(속) 늙은 놈이 젊은 첩ᄒᆞ민 불 본 나비 ᄂᆞᆸ뜨듯 ᄒᆞᆫ다.(늙은 놈이 젊은 첩(妾)하면, 불 본 나비 날뛰듯 한다.) *(속) 미운 놈 보컨 술장시ᄒᆞ라.(미운 놈 보려면 술장사해라.) *(속) 서포리왓디 들어난 쉐광 지집년 방에 들어난 놈은 ᄒᆞᆫ 번 가나민 주으릇ᄒᆞᆫ다.(물보리밭에 들었던 소와 계집 방에 들었던 놈은 한 번 가고 나면 솔깃한다.) [전역] = 늠.
놈-부끄럽다 형 남-부끄럽다. [전역] = 남-부끄럽다, 남-부치럽다, 놈-부

치럽다.

놈-부치럽다 형 [전역] → 놈-부끄럽다.

놈-우세 명 남-우세. [전역]

놈우세-ᄒᆞ다 동 남우세-하다. [전역]

놈 웃지다 구 ① 비웃음을 당하다. *이상ᄒᆞᆫ 옷 입엉 놈 웃지지 말라.(이상한 옷을 입어서 남의 비웃음을 사지 마라.) [전역] ② 남에게 욕을 먹다. [전역] ③ 창피한 일을 당하다. [전역]

놈의-눈 명 남의-눈. *놈의눈이 아니믄 벗엉 살주.(남의눈이 아니면 벗고 살지.) [전역]

놈의-역 명 남의 품팔이. 품삯을 받고 남의 일을 하여 주는 일. *놈의역을 사름이 들랴.(남의 품팔이를 사람이 들랴.) [전역]

놈의-우 명 [인성 가시 어도] → 놈의-우이.

놈의-우이 명 여자가 임신한 것을 점잖게 일컫는 말. [조수 서홍 수산 김녕] = 놈의-우.

놈의일-ᄒᆞ다 동 [전역] → 품-팔다.

놈의집-살다 동 남의집-살다. *놈의집살젠 ᄒᆞ민 속 석나.(남의집살려면 속 썩지.) [전역]

놈의집-살이 명 <동> [곽지] → 게드레기.

놉 명 놉. *ᄒᆞ루는 할머니가 목장에 목초를 빌랴고 놉덜을 ᄒᆞᆫ 이십 멩 빌려서 목초밧을 보냇는디.(하루는 할머니가 목장에 목초를 베려고 놉들을 한 이십 명을 빌려서 목초밭에 보냈는데.) [전역]

놉-ᄇᆞ름 명 [대정] → 놉샛-ᄇᆞ름.

놉새 명 [대정] → 놉샛-ᄇᆞ름.

놉샛-ᄇᆞ름 명 동북-풍(東北風). [노형 인성 하원 화순 태흥 표선 수산 조천 어도] = 놉-ᄇᆞ름, 놉새, 놉-하니, 놉하니-ᄇᆞ름.

놉-하니[1] 명 [이호] → 놉샛-ᄇᆞ름.

놉-하니[2] 명 [세화] → 서북-풍.

놉하니-ᄇᆞ름 명 [조수] → 놉샛-ᄇᆞ름.

놋-그릇 명 놋-그릇(鍮器). [전역] = 놋-기, 행기.

놋-기 명 [전역] → 놋-그릇.

놋-낭푼 명 놋쇠로 만든 양푼. [전역]

놋-대야 명 놋-대야. 놋쇠로 만든 대야. [전역] = 놋-대양.

놋-대양 명 [전역] → 놋-대야.

놋-대접 명 놋-대접.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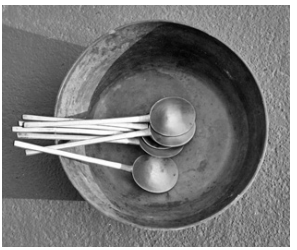
놋-방에 명 놋쇠로 만든 절구. [명월]

놋-사발 명 놋쇠로 만든 사발(沙鉢). [전역]

놋-상돌 명 놋쇠로 만든 향로(香爐). [전역]

놋-소까락 명 [전역] → 놋-수까락.

놋-수까락 명 놋-숟가락. [전역] = 놋-수깔, 놋-소까락.



놋수까락

놋-수깔 명 [전역] → 놋-수까락.

놋-쉐 명 놋-쇠(鍮-). [전역]

놋-요강 명 <공> 놋-요강. 놋쇠로 만든 요강. [전역]
놋-잔 명 놋쇠로 만든 잔(盞). [전역]
놋-제 명 [전역] → 놋-제까락.
놋-제까락 명 놋-젓가락. [전역] = 놋-제, 놋-ᄌᆞ봄.
놋-ᄌᆞ봄 명 [전역] → 놋-제까락.
놋-헷대 명 놋쇠로 만든 촛대. [전역]
놋-화리 명 놋-화로. [전역] = 정동-화리.
농(膿) 명 <병> 고름. [전역]
농-구릿 명 <동> 벵에돔의 일종. *농구릿은 비늘이 즘질즘질ᄒᆞᆫ 거. 이게 맛이 존 거.('농구릿'은 비늘이 자잘한 것. 이것이 맛이 좋은 것.) [사계]
농국 명 농곡(農穀). 농사 지은 곡식. *요 농국을 지어다근 우리 나라 바칠 농ᄉᆞ.(요 농곡을 지어다간 우리 나라 바칠 농사.) [전역]
농기(農器) 명 <도> 농기. [전역]
농남-봉(農南峰) 명 <지> [전역] → 녹남-오름.
농담(弄談) 명 농담. [전역]
농부-와니 명 [전역] → 농부-한이.
농부-한이 명 농부-한(農夫漢). 농사-꾼. [전역] = 농부-와니.
농서 명 [전역] → 농ᄉᆞ.
농서-ᄒᆞ다 동 [전역] → 농ᄉᆞ-ᄒᆞ다.
농시 명 [전역] → 농ᄉᆞ.
농시-짓다 동 [전역] → 농ᄉᆞ-짓다.
농ᄉᆞ 명 농사(農事). [전역] = 농서, 농시, 용시.
농ᄉᆞ-짓다 동 농사-짓다. [전역] = 농시-짓다, 용시-짓다.
농ᄉᆞ-철 명 농사-철. [전역]
농ᄉᆞ-ᄒᆞ다 동 농사-하다. [전역] = 농서-ᄒᆞ다.
농-앉다 명 [전역] → 농-앚다.
농-앚다 동 종기 따위에 고름이 고이다. *허물에 농앚아서라.(종기에 고름이 고였더라.) [전역] = 농-앉다.
농어 명 <동> 농어. [전역]
높은-오름 명 <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남동쪽 건영목장에 있는 오름. 위에 둘레 550미터, 깊이 31미터의 환형 분화구가 있음. 표고 405.3미터. [전역]
높직-이 부 높직-이. [전역]
놓다 동 놓다. *이거 저듸 잘 놓으라.(이것 저기에 잘 놓아라.) *여제라 놓으난 갈 수가 읏주게.(여자라서 갈 수가 없지요.) [전역]
놓아-두다 동 놓아-두다. [전역] = 놔-두다.
놓-치다 동 놓-치다. [전역] = 눼치다.
놔-두다 동 *놈 곱정 놔둔 건 쉐도 못 춧아.(남이 숨겨 놓아둔 것은 소도 못 찾아.) [전역] → 놓아-두다.
놔-먹이다 동 놓아-먹이다. [전역]
놔-주다 동 놓아-주다. [전역]
누 명 놀. 바다의 사나운 큰 물결. [화순 하원 서홍 세화 조천 노형 어도 조수 가시] = 너울[1], 누대, 누에[2], 누의[2], 누팔.
누게 대 누구(誰). [전역] = 누구, 누긔.
누구 대 [전역] → 누게.
누구륵-ᄒᆞ다 형 [전역] → 노고록-ᄒᆞ다.
누긔 대 [전역] → 누게.
누기(漏氣) 명 누기. 눅눅하고 축축한 기운. [전역]

누기다 동 눅다. 아픈 것이 조금 가라앉다. [전역]
누기-찌다 형 습-하다. *장마엔 집안이 누기찐다.(장마에는 집안이 습한다.) [전역] = 누기-차다.
누기-차다 형 [전역] → 누기-찌다.
누넝-밥 명 <음> [조수 인성] → 누렝이.
누넹이 명 <음> [조수 인성] → 누렝이.
누넹이-물 명 [조수 인성 서홍] → 누렝이-물, 밥솟딧-물.
누님 명 누님(姊). [전역]
누다 동 누다. [전역]
누대 명 [조수] → 누.
누뜰다 동 [전역] → 누르-뜨다.
누렁-내 명 [전역] → 노령-내.
누렁-밥 명 <음> [전역] → 누렝이.
누렁-쉐 명 <동> 황-소. [노형]
누렁쉬-볼락 명 <동> [가시] → 누루시-볼락.
누렁-ᄒᆞ다 형 누렇다. [전역]
누레기-총 명 [남원] → 늘이-개.
누렝이 명 <음> 누룽지. [전역] = 누넝-밥, 누넹이, 누렁-밥, 누룽이, 밥-누넹이, 밥-누렝이.
누렝이-물 명 숭늉. [전역] = 누넹이-물, 밥솟딧-물, 숭눙, 숭눙-물.
누령-내 명 [가시] → 노령-내.
누루시 명 <동> [김녕 조수 수산] → 누루시-볼락.
누루시-볼락 명 <동> 누루시-볼락. [김녕 조수 노형 인성] = 누렁쉬-볼락, 누루시, 누룽시.
누룩 명 누룩. [전역]
누룩-낭 명 <식> 느릅-나무. [전역] = 무니난-섭.


누룩

누룩-돌 명 땅속에 깔린 넓적하고 검누른 빛을 한 토질성(土質性)이 많은 돌. [전역]
누룩-빌레 명 땅속으로 검누른 빛의 푸석푸석하고 넙죽하게 깔린 돌. [노형 조수 하원]
누룽시 명 <동> [비양도] → 누루시-볼락.
누룽이 명 <음> [수산] → 누렝이.
누르-뜨다 동 아주 힘을 주어 누르다. [전역] = 누뜰다, 눌-뜨다.
누리다[1] 동 누리다. *조상 대대로 권세를 누려낫저.(조상 대대로 권세를 누렸었지.)
누리다[2] 형 누르다. [전역]
누리룽-ᄒᆞ다 형 누르무레-하다. *먼바당에 군벗은 멘지락ᄒᆞ고 색깔도 누리룽ᄒᆞ곡.(먼바다의 군부는 만질하고 색깔은 누르무레하고.) [이호]
누리스름-ᄒᆞ다 형 누르스름-하다. [전역]
누린-내 명 누린-내. [전역]
누린-물 명 누렁-물. [전역]
누린-쉐 명 <동> [전역] → 노랑-쉐.

누멩 명 [전역] → 누명.
누명(陋名) 명 누명. [전역] = 누멩.
누병-대천 명 <민> 무변대천(無邊大川). 끝이 없이 큰 내. [전역]
누비다 동 누비다. [전역] = 노비다, 뉘비다.
누비-바지 명 <의> 누비-바지. [전역] = 뉘비-바지.
누비-보선 명 <의> 누비-버선. [전역]
누비-옷 명 <의> 누비-옷. [전역] = 뉘비-옷.
누비-이불 명 누비-이불. [전역] = 끌레-이불, 노비-이불, 뉘비-이불.
누비-저고리 명 <의> 누비-저고리. [전역] = 뉘비-저고리.
누비-질 명 누비-질. [전역]
누비질-ᄒᆞ다 동 누비질-하다. [전역]
누엉-둥글다 동 나-뒹굴다. [전역]
누에[1] 명 <동> 누에(蠶). [전역] = 누웨. 고 누에, 누웨.
누에[2] 명 [태흥] → 누.
누에-고치 명 고치. 누에가 실을 입 밖으로 뽑아내어서 만든 타원형의 둥근 집. [전역]
누에-똥 명 누에-똥. [전역]
누엣-실 명 누에고치에서 뽑아낸 명주실. [전역]
누울리다 동 누르다(壓). [전역]
누웨 명 <동> [전역] → 누에[1].
누의[1] 명 누이(妹). [전역] 고 누위.
누의[2] 명 [표선 수산 가시 수산] → 누.
누이다 동 [인성] → 노히다.
누팔 명 [서흥] → 누.
눅눅-ᄒᆞ다 형 눅눅-하다. *구둘바닥이 잘 안 ᄆᆞᆯ란 눅눅ᄒᆞ다.(방바닥이 잘 안 말라서 눅눅하다.) [전역]
눅다[1] 동 눕다(臥). [전역] = 눕다.
눅다[2] 형 느슨-하다. 졸라맨 것이 단단하지 못하다. [전역]
눅이다 동 ① 누그러-지다. 아픈 것이 좀 풀리다. *늬 알린 게 이젠 좀 눅이엇저.(이 아린 것이 이제는 좀 누그러졌다.) [전역] ② 조여 있는 것을 좀 느슨하게 늦추다. *친이 너무 ᄇᆞ뜨난 ᄒᆞᆯ 눅이라.(끈이 너무 밭으니 조금 늦추라.) [전역] → 늦추다.
눅지근-ᄒᆞ다 형 습기가 차서 눅눅한 기가 있다. *옷이 덜 말라 부난 눅지근ᄒᆞ다.(옷이 덜 말라 버리니 눅눅하다.) [전역]
눅지다 동 눕-히다. [전역]
눈[1] 명 눈(眼). [전역]
눈[2] 명 물-안경. 해녀가 물질할 때 쓰는 물안경. [전역]
눈[3] 명 눈(雪). [전역]
눈[4] 명 눈-금. *싀 눈에 ᄒᆞᆫ 눈.(세 눈금에 한 눈금.) [전역]
눈-곱 명 눈-곱. [전역] = 눈-꼽, 눈-콥.
눈-곱재기 명 [전역] → 눈-곱제기.
눈-곱제기 명 눈-곱자기. '눈곱'을 속되게 이르는 말. [전역] = 꼽재기, 눈-곱재기, 눈-꼽제기, 눈-콥제기, 콥재기, 콥제기.
눈-공ᄌᆞ 명 [전역] → 눈-동ᄌᆞ.
눈-곽 명 [전역] → 눈-두께.
눈곽이 야리다 구 눈꺼풀이 얇다. 눈꺼풀이 얇아서 눈물이 많은 사람을 비유할 때 쓰는 표현. [전역]
눈-구녁 명 눈-구멍(眼孔). [전역]
눈-구석 명 눈-구석(眼-). [전역]

눈-곰다 동 눈-감다(眼-). [전역]
눈-곰새 명 [수산] → 눈-곰생이.
눈-곰생이 명 눈이 실눈같이 조금 감겨 있는 사람. [노형 조수 인성] = 눈-곰새.
눈-까지다 동 ① 눈이 움푹하게 들어가다. [전역] ② 비유적으로, 사람을 보는 안목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다. [전역]
눈-깍 명 눈-초리. [전역]
눈깍-돌라지다 형 할끔-하다. [전역]
눈-깔이 명 눈-깔. [전역] = 눈-께알이.
눈-깝 명 조그마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분량. [전역]
눈-께알이 명 [노형 조수 김녕 가시조수] → 눈-깔이.
눈-꼽 명 [전역] → 눈-곱.
눈-꼽제기 명 [전역] → 눈-곱제기.
눈-꿀 명 눈-질. 눈으로 흘끔 보는 짓. [전역]
눈꿀-ᄒᆞ다 동 눈-흘기다. 못마땅하여 눈동자를 모로 돌려 쳐다보다. [전역]
눈녹은-물 명 눈이 녹은 물. [전역]
눈-대 명 대나무의 곁가지가 돋아났던 자국이 있는 대나무. [도련 서호]
눈-독 명 눈-독. [전역]
눈-동ᄌᆞ 명 눈-동자(-瞳子). [전역] = 눈-공ᄌᆞ. 고 눈ᄌᆞᄉᆡ.
눈-두께 명 눈-꺼풀(眼瞼). [전역] = 눈-곽, 눈-두에, 눈-망둥이. 고 눈두에.
눈-두세 명 두 눈의 사이. [전역]
눈-두에 명 [조수] → 눈-두께.
눈-딱지 명 눈-딱지. 보기에 험상궂은 눈. [전역]
눈-뜨다 동 눈-뜨다. [전역] = 눈-트다.
눈-망둥이 명 [전역] → 눈-두께.
눈-망울 명 눈-망울(眼球). [어도]
눈맞인-꼴리짓 명 장끼의 울긋불긋한 꽁무니 깃털에 무늬가 나란히 박혀 있는 모양. [성읍]
눈맞인-새 명 눈(雪)을 맞은 띠. *눈맞인새로 우장 멘들민 질기지 안 ᄒᆞ주.(눈 맞은 띠로 도롱이 만들면 질기지 않지.) [송당]
눈-멀다 동 눈-멀다. [전역]
눈-메 명 눈-매. [전역]
눈-물[1] 명 눈-물. [전역]
눈-물[2] 명 눈석임-물. [전역]
눈물-소 명 너무 서러워서 늪이 이루어질 만큼 많이 흘린 눈물. *눈물소에 베 세와 두곡 한숨이랑 지으멍 살라.('눈물소'에 배 세워 두고 한숨일랑 지으며 살아라.) [전역]
눈물-수건 명 <민> 굿판에서 눈물을 닦을 때 쓰는 수건. [전역]
눈-바위 명 눈꺼풀의 가장자리. [전역]
눈-방울[1] 명 눈-방울(眼--). [전역]
눈-방울[2] 명 빗방울이 찬 바람을 만나 얼어서 떨어지는 알갱이. [전역]
눈-벨레기[1] 명 눈이 크게 벌어진 사람. [전역]
눈-벨레기[2] 명 <식> 담쟁이-덩굴. [전역]



눈벨레기[2]

눈벨레기-낭 명 <식> [조수] → 눈비애기-쿨.
눈-벨르다 동 눈을 뒤집다. [전역]
눈-벵 명 <병> [전역] → 눈-빙.
눈-보로미 명 <지> [호근 서귀포] → 보로미[1].
눈-비 명 눈-비(雪雨). [전역]
눈비애기-쿨 명 <식> 암-눈비앗. 익모-초. [서홍 인성 노형 수산] = 눈벨레기-낭, 암-놈바시.
눈-비양 명 눈-비음. [전역]
눈-빙 명 <병> 눈-병(眼疾). [전역] = 눈-벵.
눈-뻘룽이 명 왕-눈이. [전역] = 눈-뻘룽이.
눈-뻘렝이 명 <동> 어린 전복. [행원]
눈-뻘룽이 명 [전역] → 눈-뻘룽이.
눈-사농 명 눈 위에서 이루어지는 노루 사냥. [광령]
눈-살 명 눈-살. [전역]
눈-서미역 명 [수산 가시] → 눈-설메.
눈-설메 명 눈정기가 흐리마리한 때 어뜩 시야에 보이는 잠깐 동안.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눈-서미역, 눈-설미역.
눈-설미역 명 [서홍] → 눈-설메.
눈-섭 명 [전역] → 눈-썹.
눈-실림 명 여인이 예쁘게 차려 입고 잘 단장하여 눈웃음을 치면서 이성을 홀리는 일. *비단 치메 앞에 둘러 입엉 살림ᄒᆞ당 말앙 간 임 눈실림 가게.(비단 치마 앞에 둘러 입고 살림하다가 말고 간 임 홀리러 가자.) [전역]
눈-썹 명 눈-썹(眼-). *(속) 눈썹에 불 붙어도 끌 저를 웃나.(눈썹에 불이 붙어도 끌 겨를이 없다.) [전역] = 눈-섭.
눈 알로 보다 구 상대방을 얕잡아 보다. [전역]
눈에-눈이 명 <동> 하루-살이(蜉蝣).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가시] = 눈이-눈이. 고누네노리.
눈에-들다 동 대상을 보자마자 마음에 들어 그것을 차지하고 싶어지다. [전역]
눈에 훼싸다 구 어떤 일에 집착하여 관심을 기울이다. [전역]
눈-열[1] 명 눈-썰미. *삯쉐 보는 이는 눈열이 좋아사 ᄒᆞᆫ다.('삯쉐'를 보는 이는 눈썰미가 좋아야 한다.) [대흘]
눈-열[2] 명 눈-힘. 바라보는 눈길의 힘. [전역]
눈열-읏다 형 눈에 정기가 부족하여 광채가 없다. [전역]
눈-오름[1] 명 <지> 제주시 노형동 해안마을 도근천(都近川) 중류 냇가에 있는 오름. 표고 204미터. [노형]
눈-오름[2] 명 <지> 제주시 애월읍 서쪽에 낮게 가로누운 오름. 표고 128미터. [장전] = 논-오름[2].
눈-오름[3] 명 <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이시돌목장 북동쪽에 누워 있는 오름. 표고 407미터. [금악]
눈-오름[4] 명 <지> 한라산 국립공원 웃세오름의 가운데 오름. 표고 1711미터. [전역] = 망-오름[2](望--).
눈-웃음 명 눈-웃음. [전역]
눈이-눈이 명 <동> [수산 김녕] → 눈에-눈이.

눈-쟁기리 명 물건을 볼 때 한쪽 눈을 감아 가며 보는 사람. [전역]
눈-저굽다 형 [수산] → 눈-ᄌᆞ곱다.
눈-저급다 형 [조수] → 눈-ᄌᆞ곱다.
눈-정기(-精氣) 명 눈-정기. [전역]
눈-제겹다 형 [서홍] → 눈-ᄌᆞ곱다.
눈젱이 명 <동> 송사리. [수산]
눈-주멩기 명 물안경을 넣어 두는 주머니. [전역]
눈-질 명 눈-길. [전역]
눈-짐벵이 명 진눈-깨비. [태흥 수산 노형 어도 조수]
눈-짐작 명 눈-짐작. [전역]
눈-짓 명 눈-짓. [전역]
눈짓-ᄒᆞ다 동 눈짓-하다. [전역] = 눈칫-ᄒᆞ다.
눈-ᄌᆞ골롭다 형 눈이 간지럽다. [전역]
눈-ᄌᆞ곱다 형 눈-부시다. [노형 조수] = 눈-저굽다, 눈-저급다, 눈-제겹다, 눈-ᄌᆞ굽다, 눈-ᄌᆞᄀᆞᆸ다.
눈-ᄌᆞ굽다 형 [김녕] → 눈-ᄌᆞ곱다.
눈-ᄌᆞᄀᆞᆸ다 형 [인성] → 눈-ᄌᆞ곱다.
눈-ᄌᆞ솔 명 눈-자위(眼眶). [조수 서홍 수산 가시 김녕] ㊟눈ᄍᆞᄉᆞ.
눈-치 명 눈-치. [전역]
눈치-출리다 동 눈치-채다. [전역]
눈칫-밥 명 눈칫-밥. [전역]
눈칫-ᄒᆞ다 동 [전역] → 눈짓-ᄒᆞ다.
눈-콥 명 [전역] → 눈-곱.
눈-콥제기 명 [전역] → 눈-곱제기.
눈-톡 명 눈-독(-毒). [전역]
눈톡-들다 동 눈독이 들다. 눈독이 오르다. [전역]
눈-퉁이[1] 명 눈-퉁이. [전역]
눈퉁이[2] 명 <동> 눈퉁-멸. *눈퉁이는 늬껍 헤도 궤기도 잘 안 물곡, 맛도 엇곡.(눈퉁멸은 미끼 해도 고기도 잘 안 물고, 맛도 없고.) [사계] = 눈퉁이-멜.
눈퉁이-멜 명 <동> [인성 노형 조수] → 눈퉁이[2].
눈-트다 동 [전역] → 눈-뜨다.
눈-펄룽이 명 눈-딱부리. 크고 툭 불거진 눈. 또는 그런 눈을 가진 사람. [전역]
눈-푸끄다 동 눈이 앞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어지럽게 내리다. [전역]
눈-풋 명 <식> 팥의 일종. *눈풋은 죽도 쑤는디 맛이 경 안 좋아.('눈풋'은 죽도 쑤는데 맛이 그리 안 좋아.) [하원]
눈-흘기다 동 눈질-하다. 못마땅하거나 원망하는 뜻으로, 눈동자를 모로 돌려 쳐다보다. [전역]
눋다 동 눋다. 밥알이 타서 솥 따위에 붙다. [전역] = 눌다[1]. ㊟눋다.
눌 명 가리. 짚이나 마소의 꼴 따위를 차곡차곡 둥그렇게 쌓아 올린 더미. *그디 보니까 큰 돌이 ᄒᆞ나 가운디 잇는디, 눌 모양으로 생긴 빌레엿어.(그곳에 보니까 큰 돌이 하나 가운데 있는데, 낟가리 모양으로 생긴



빌레였어.) [전역]

눌-굽 명 짚이나 꼴 따위를 둥그렇게 쌓은 자리의 밑바닥. [전역]

눌굽-지시 명 <민> 무속에서, 집의 낟가리를 관장하는 신. [전역] = 눌굽-지신.

눌굽-지신 명 <민> [전역] → 눌굽-지시.

눌다[1] 동 [전역] → 눋다.

눌다[2] 동 짚이나 꼴 따위를 차곡차곡 쌓아서 둥그런 더미를 지어 올리다. *사위, 미안ᄒᆞ주만 저 촐 안티레 어떵 눌어 줘.(사위, 미안하지만 저 꼴 안쪽으로 어떻게 쌓아 줘.) [전역]

눌-뜨다 동 [전역] → 누르-뜨다.

눌레기-땅 명 점토질(粘土質)로 이루어진 땅. *고산 ᄆᆞ을 지경은 눌레기땅이 하주.(고산 마을 지경에는 '눌레기땅'이 많지.) [두모 고산]

눌르다 동 누르다. *나 이디 눌러시난 그듸랑 내불라.(나 여기 눌렀으니까 거기랑 내버려라.) [전역]

눌-트멍 명 가리와 다른 물체 사이의 틈. [전역]

눕다 동 [노형] → 눅다[1].

눗-고개 명 바다의 사나운 큰 물결. 너울 고개. *눗고개랑 어멍을 삼앙.(너울 고갤랑 어머니를 삼아.) [전역]

눗뎅이 명 [전역] → 눗둥이.

눗둥이 명 바다의 사나운 큰 물결 덩이. 너울 덩이. *요 눗둥이 무싱거 먹언 술쳐싱고.(요 너울덩이 무엇 먹어서 살쪘는가.) [전역] = 눗뎅이.

눗-소리 명 바다의 사나운 큰 물결 소리. 너울 소리. *대천바당 눗소리는 산지축항만 울리는디.(대천바다 너울 소리는 산지항만 울리는데.) [전역]

능강이-ᄑᆞᆺ 명 <식> 봄에 심는, 열매가 기름하고 빛이 붉은 팥. [노형 조수 인성]

눙그리다 동 키 따위에 곡식을 널고 사래질을 하여서 굵고 잔 것을 각각 따로 가르다. [전역]

눼곤-ᄒᆞ다 형 노곤-하다(勞困--). [김녕 조수 노형 인성]

눼다 동 *궤기도 맨날 먹으민 뒌다.(고기도 만날 먹으면 싫증이 난다.) [서홍 수산 김녕] → 노히다.

눼치다 동 [전역] → 놓치다.

뉘엿-뉘엿 부 늬엿-늬엿. 토해질 듯이 속이 매슥매슥하는 모양이나 상태. [서홍 어도]

느 대 너(汝). [전역] = 늬[4], 너.

-느- 선어말 -느-. 의문법 어미 '-니·-냐'의 바로 앞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직접 지정하여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사금파릴 놀려 보라. 멧 번이나 튀느니?(사금파리를 던져 보아라. 몇 번이나 튈까?) *우는 사름 입이 고우멍 용심 난 사름 말 곱느냐?(우는 사람 입이 고우며 성난 사람 말 곱겠느냐?) [전역]

느귀-나귀 부 <민> 피륙의 양쪽 귀퉁이가 일정하지 못한 모양. [전역]

느긋-느긋 부 아주 느긋하게. *일ᄒᆞ는 게 언제나 느긋느긋 와릴 때가 엇나.(일하는 것이 언제나 느긋느긋 서두를 때가 없다.) [전역]

느긋-이 부 느긋-하게. ＊ᄆᆞ슴을 느긋이 가지라.(마음을 느긋하게 가져라.) [전역]

느긋-ᄒᆞ다 형 느긋-하다. 마음에 흡족하여 여유가 있고 넉넉하다. ＊자인 성질이 느긋ᄒᆞᆫ다.(저애는 성질이 느긋하다.) [전역]

느껍 명 [전역] → 늬껍.

느껍-새위 명 <동> [서홍 수산] → 늬껍-새위.

느꽝-나꽝 부 <민> 무악기 설쉐 소리의 구음(口音). [전역]

느끔-이 부 마음을 놓고. 긴장을 풀고. ＊당분간은 느끔이 지내도 뒈키어.(당분간은 맘 놓고 지내도 되겠다.) [전역]

느끔-ᄒᆞ다[1] 형 누꿈-하다. 전염병·해충 따위의 퍼지는 기세가 매우 심하다가 누그러지다. [전역]

느끔-ᄒᆞ다[2] 형 마음이 놓이다. 긴장이 풀리다. ＊ᄒᆞᆯ 일 다ᄒᆞ난 느끔ᄒᆞᆫ 생이어.(할 일 다하니 마음이 놓인 모양이다.) [전역]

느끼-낭 명 <식> [전역] → 굴무기.

느끼리다 동 [전역] → 닝끼리다.

-느냐 어미 -느냐. 용언의 어간 또는 어간에 붙은 '-암-·-엄-·-염-·-람-·-앗-·-엇-·-엿-·-랏-' 등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행동을 직접 지정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느냥-나냥 명 <요> 제주도 전역에 널리 번진 구성진 창민요의 한 가지. 한반도 지역에도 널리 전승되며, 사설 역시 잡가의 영향이 짙은 점으로 보아 제주 고유의 민요라고 볼 수는 없음. [전역] = 너냥-나냥, 너녕-나녕, 너영-나영, 느영-나영.

느-냥으로 부 너 자신의 힘으로. [전역]

느네 대 너희. ＊느네 집의 강 그 말 ᄀᆞᆯ을탸?(너희 집에 가서 그 말 하겠니?) [전역]

느네-덜 대 [전역] → 너의-들.

느네-들 대 [전역] → 너의-들.

-느니[1] 어미 -느니.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진리나 어떤 사실을 지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느니[2] 어미 -니. 용언의 어간에 붙고, 의문사를 반드시 전치시켜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행동·상태를 지정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느니[3] 어미 -느니. ① 동사의 어간에 붙어서, 차라리 뒤에 오는 행동이 낫다고 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② 동사 어간에 붙어서 '-느니·-느니'로 쓰이어 '이렇게 한다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한다 하기도 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느랏-느랏 부 ① 힘이 빠져서 나른히 늘어진 모양. ＊다덜 지쳔 느랏느랏 드러눠어라.(다들 지쳐서 느랏느랏 드러누웠더라.) [전역] ② 늘쩡-늘쩡. 동작이나 걸음걸이 따위가 느린 모양. ＊저디 느랏느랏 걸어감저.(저기 늘쩡늘쩡 걸어가고 있다.) [전역]

느랏느랏-ᄒᆞ다[1] 동 늘쩡늘쩡-하다. 느른한 태도로 느리게 행동하다. ＊느랏느랏ᄒᆞ지 말앙 재기 ᄒᆞ라.(늘쩡늘

쩡하지 말고 빨리 해라.) [전역]

느랏느랏-ᄒᆞ다[2] 형 힘이 빠져서 나른하다. *심 빠젼 몸이 느랏느랏ᄒᆞ엿저.(힘이 빠져서 몸이 늘어져서 나른했다.) [전역]

느랏-이 부 느른-히. *지쳔 느랏이 드러누엇어라.(지쳐서 느른히 드러누웠더라.) [전역]

느랏-ᄒᆞ다 형 느른-하다. [전역]

느랑 부 [전역] → 늘.

느량 부 [전역] → 늘.

느렁-대죽 명 <식> 이삭이 길게 아래로 휘늘어지는 수수의 한 가지. [노형 조수 서홍] = 느렁-대축, 살레-대죽, 살레-대축, 살예-대축.



느렁대죽

느렁-대축 명 <식> [수산 가시 김녕] → 느렁-대죽.

느렁-장이 명 느리-광이. 느릿느릿 거동하는 사람. *느렁장이 첩으로 말앙 산에 목ᄌᆞ 밋으로 가라.(느리광이 첩으로 말고 산의 목자(牧者) 본처로 가라.) [전역] = 느렁-쟁이.

느렁-쟁이 명 [전역] → 느렁-장이.

느렁-태 명 느리-광이. [전역] = 느렁-테, 느렁-텡이.

느렁-테 명 [전역] → 느렁-태.

느렁-텡이 명 [전역] → 느렁-태.

느레기-총 명 [전역] → 늘이-개.

느릇 명 내리-받이. 비탈진 곳의 내려가는 방향. 또는 그런 방향에 있는 부분. [전역] = ᄂᆞ롯[2], ᄂᆞ릇[1].

느릇-질 명 비탈진 곳으로 내려가게 된 길. [전역] = ᄂᆞ롯-질, ᄂᆞ릇-질.

느릇-ᄒᆞ다 형 ① 맥이 풀리거나 고단하여 몹시 기운이 없다. [전역] ② 물건의 한 쪽 끝이 아래로 늘어지다. [전역]

느리 부 늘. *느리 뎅겨난 질이라도 오널은 어떵 더터졈저.(늘 다니던 길이라도 오늘은 어찌 머뭇거리게 되네.) [전역]

느리-내낭 부 언제까지나. 내-내. [전역]

느리다 형 느리다. [전역]

느리-좀 명 늦-잠. *좀도 자경 여시좀 자라, 무신 좀을 느리좀 자리.(잠도 자려거든 여윈잠 자라, 무슨 잠을 늦잠을 자리.) [전역]

느영-나영 명 <요> [전역] → 느냥-나냥.

느으-덜 대 [전역] → 너의-들.

느으-들 대 *느으들 그거 무신 노래ᄒᆞ느냐?(너희들 그것 무슨 노래를 하느냐?) [어음] → 너의-들.

느쟁이 명 [서홍 수산 김녕] → 는젱이.

느쟁이-떡 명 <음> [김녕] → 는쟁이-떡.

느저왕-나저왕 명 <민> 무악기 설쉐소리의 구음(口音). [전역]

느지감치 부 느지감치. 꽤 늦게. [전역] = 느지겡이.

느지겡이 부 [전역] → 느지감치.

느지리-오름 명 <지> 제주시 한림읍 '느지리'(상명리의 옛이름) 북서쪽에 있는 오름. 위에 쌍분화구가 나란히 있으며, 조선 때 봉수대가 있었음. 표고 225미터. [전역] = 만조-봉(晩早峰), 망-오름[1].

느지막-이 부 느지막-이. *느지막이 아들 ᄒᆞ나 봉갓주.(느지막이 아들 하나 얻었지.) [전역] = 느직-이.

느지막-ᄒᆞ다 형 느지막-하다. *밧듸서 일ᄒᆞ단 집이 느지막ᄒᆞ게 돌아왓다.(밭에서 일하다가 집에 느지막하게 돌아왔다.) [전역] = 느직-ᄒᆞ다.

느직-이 부 ① [전역] → 느지막-이. ② 느슨-히. 무엇을 묶은 끈이 느슨하게 된 상태로. *짐 질 땐 끈을 느직이 매민 굿나.(짐을 질 때는 끈을 느슨히 매면 좋지 않다.) [전역]

느직-ᄒᆞ다 형 ① 느직-하다. 시간이 좀 늦다. *시간이랑 좀 느직ᄒᆞ게 정ᄒᆞ라.(시간은 좀 느직하게 정해라.) [전역] ② 느슨-하다. *촐 뭇 너미 느직ᄒᆞ게 무껌저.(꼴 뭇 너무 느슨하게 묶고 있다.) [전역]

늑신-네 명 [전역] → 늙신-네.

는 조 는. ① 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서 그것을 지정하여 제시하거나 그것이 다른 것과 같지 않다거나 하는 따위의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② '이제·ᄇᆞᆯ리' 등의 부사에 붙어서 그 부사의 의미를 세게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는 어미 -는. 동사 어간이나 '잇다'(有), '웃다'(無) 등의 어간에 붙어서, 동작이나 작용이 현재 진행 중임을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전역]

-는가 어미 -는가.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행동이나 상태를 직접 지정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는게 어미 -는데.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그 습성적인 사실을 인정하면서 의아스럽게 생각될 때 쓰이는 연결 또는 종결어미. [전역]

-는고 어미 -는가. 받침이 있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현재의 사실에 대한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이 놈의 아이덜이 어떻게 ᄒᆞ여서 그 신부ᄀᆞ슴을 ᄒᆞᆫ 번 내 얼굴을 대면시키젠 ᄒᆞ염는고?(이 놈의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그 신부감을 한 번 내 얼굴을 대면(對面)시키려 하고 있는가?) *요 놈의 것덜이 나ᄃᆞᆫ는 게 어들로 가는고?(요 놈들이 내닫는 것이 어디로 가는가?) [전역]

-는다 어미 -는다. 받침이 있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그 행동을 직접 지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제주어 재래의 어미활용으로서는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 '-나'가 쓰임. 이 '-는다'형은 최근에 표준어의 영향으로서 점차 쓰이기 시작함. [전역]

는닥-는닥 부 [전역] → 는작-는작.

는닥는닥-ᄒᆞ다 형 [전역] → 는작는작-ᄒᆞ다.

는달-는달 부 [전역] → 는작-는작.

는달는달-ᄒᆞ다 형 [전역] → 는작는작-ᄒᆞ다.

-는디 어미 -는데. ① 용언의 어간에

붙은 '-암-·-엄-·-염-·-람-·-앗-·-엇-·-엿-·-랏-' 등에 연결되어서, 다음 말을 끌어내기 위하여 미리 관계될 만한 사실을 말할 때 쓰이는 연결어미. *나도 그건 몰랏는디, 여기 완 알앗주.(나도 그것은 몰랐는데, 여기 와서 알았지.) [전역] ② 동사 어간에 연결되는 연결어미. *우침 직ᄒᆞ연 아방 어멍은 눈이 벌겅ᄒᆞ게 밧디로 돋는디, 걸러져 둠서 일어나사 말이주.(비가 올 것 같아 아버지 어머니는 황급하게 밭으로 내닫는데, 드러누워 있으면서 일어나야 말이지.) [전역] ③ 동사의 어간 또는 어간에 붙은 '-암-·-엄-·-염-·-람-·-앗-·-엇-·-엿-·-랏-' 등에 연결되어서,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듣고자 하는 태도를 스스로 느낄 때에 쓰이는 종결어미. [전역]

는돌-오름 명 <지> [시흥 종달] → 은돌-오름.

는작 부 본디의 모양이 없어지게 아주 잘 빻아지거나 납작하게 눌린 모양. [전역]

는작-는작 부 는적-는적. [전역] = 는닥-는닥, 는달-는달, 문달-문달.

는작는작-ᄒᆞ다 동 는적는적-하다. [전역] = 는닥는닥-ᄒᆞ다, 는달는달-ᄒᆞ다, 문달문달-ᄒᆞ다.

는쟁이 명 나깨. 메밀을 갈아 가루를 체에 쳐내고 남은 속껍질. [전역] = 느쟁이, 는젱이.

는쟁이-떡 명 <음> 나깨-떡.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가시 수산] = 느쟁이-떡.

는쟁이-범벅 명 <음> 나깨로 만든 범벅. *먹을 거 엇일 땐 는쟁이범벅도 먹언 살아서.(먹을 것이 없을 때는 나깨로 만든 범벅도 먹고 살았어.) [전역]

는젱이 명 [전역] → 는쟁이. 고 느정이.

는착 부 ① 땅이 질고 반드러워 밟으면 밀려 나가는 모양. [전역] ② 갑작스레 놀라거나 겁에 질려 가슴이 철렁하여 내려앉는 듯한 모양. [전역] = 뉜착.

는착-는착 부 땅이 질고 반드러워 밟으면 자꾸 밀려 나가는 모양. '는착'의 힘줌말. [전역]

는착-ᄒᆞ다[1] 동 질척한 곳을 잘못 디디어 미끌하다. *옛날사 무신 신을 신어? 기냥 망아리 졍 ᄑᆞ레 는착ᄒᆞᆫ 디 걸어가당 자르륵 ᄒᆞ곡.(옛날에는 어떻게 신발을 신고 다녀? 그냥 망사리 지고 파래 '는착ᄒᆞᆫ' 곳을 걸어가다가 주르르 미끌어지기도 하고.) [이호] = 는탁-ᄒᆞ다, 닌착-ᄒᆞ다.

는착-ᄒᆞ다[2] 형 ① 어떤 일에 놀라거나 실망하여 가슴이 허전하다. *그 말 들으난 가슴이 는착ᄒᆞ다.(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덜컹 내려앉는다.) [전역] ② 느끼-하다. *솔진 돗궤기 하영 먹으민 속이 는착ᄒᆞᆫ다.(살진 돼지고기 많이 먹으면 속이 느끼하다.) [전역]

는칠락-는칠락 부 매끈-매끈. 미끈-미끈. *늣 돋은 땅은 는칠락는칠락 걷지 궂나.(이끼 돋은 땅은 미끈미끈 걷기 나쁘다.) [전역]

는칠락는칠락-ᄒᆞ다 형 매끈매끈-하다.

미끈미끈-하다. ＊맨손으론 는칠락는칠락ᄒᆞ연 못 심으키어.(맨손으로는 매끈매끈해서 못 잡겠다.) [전역]

는탁-ᄒᆞ다 동 [전역] → 는착-ᄒᆞ다[1].

는태다 동 달라고 하여 얻다. ＊돈은 는탤 대로 는태여 아젼 돌아갓는디.(돈은 달라고 하여 얻을 대로 얻어서 돌아갔는데.) [전역]

늘 부 늘(恒常). [전역] = 느랑, 느량, 늘량, 늬량, 늬향.

늘걱-바리 명 [전역] → 늙정이.

늘-내 명 [어도 서홍 수산 김녕] → 늘렛-내.

늘다 동 늘다. [전역] 고 늘다.

늘람-있게 부 늘어날 가능성이 있도록. [노형 조수 인성]

늘량 부 [전역] → 늘.

늘렛-내 명 바닷고기 따위에서 나는 냄새. [전역] = 늘-내.

늘리다 동 맛이 짠 국이나 찌개 따위에 물을 더 넣어 간을 맞추다. [전역]

늘싹-늘싹 부 [전역] → 늘짝-늘짝.

늘싹늘싹-ᄒᆞ다 동 행동을 느릿느릿하게 하다. [전역]

늘싹-ᄒᆞ다 동 늘쩡-거리다. [전역]

늘어-사다 동 늘어-서다. [전역]

늘어-지다 동 늘어-지다. [전역]

늘-우다 동 늘-이다. 본디보다 더 길게 하다. [전역]

늘이-개 명 <도> 새-총. [전역] = 누레기-총, 느레기-총.

늘짝-늘짝 부 늘쩡-늘쩡. [전역] = 늘싹-늘싹.

늘침-ᄒᆞ다 형 훨씬 늘다. ＊내가 너의 덜보담 늘침ᄒᆞ게 놀단 사름이여.(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늘게 놀던 사람이야.) [노형]

늘크랑-ᄒᆞ다 형 [전역] → 널크랑-ᄒᆞ다.

늙신-네 명 늙으신-네. [전역] = 늑신-네, 늙신-이.

늙신-이 명 ＊(속) 늙신이 몽동인 방구석에 세와 둬 간다.(늙은이 몽둥이는 방구석에 세워 두고 간다.) [전역] → 늙신-네.

늙은-호박 명 <식> 청둥-호박. [전역]

늙정-이 명 늙정-이. [전역] = 늘걱-바리, 늙-젱이.

늙젱-이 명 [전역] → 늙정-이.

늠 명 [전역] → 놈[2].

늠삭-ᄒᆞ다 형 기름기가 많은 음식을 먹어서 입안이 기름지게 느껴지다. [전역]

늡서리-오름 명 <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하동 북서쪽 남조로변에 있는 낮은 오름. 표고 489미터. [교래 봉개]

늣[1] 명 <식> 싱경이. 갈파랫과에 딸린 바다 이끼. [전역]

늣[2] 명 <식> 이끼. [전역]

늣-ᄇᆞ름 명 [전역] → 갈-ᄇᆞ름.

늣-하르방 명 [조수 김녕] → 넛-하르방.

능 명 능(陵). 임금이나 왕후의 무덤. [전역]

능-구렝이 명 <동> ① 능-구렁이. 파충류의 일종. [전역] ② 음흉하고 능청스러운 사람을 빗대는 말. ＊가윈 능구렝이 다 뒈서라.(그 애는 능구렁이 다 됐더라.) [전역] = 능-그리.

능그다 동 능그다. 방아에서 찧은 쌀을

아주 곱게 쓿다. [전역]

능-그리 명 [수산 가시] → 능-구렝이.

능글-능글 부 능글-능글. ＊말은 안ᄒᆞ멍도 능글능글 웃진 잘ᄒᆞᆫ다.(말은 안하면서도 능글능글 웃기는 잘한다.) [전역]

능글-맞다 형 능글-맞다. ＊자인 능글맞인 짓만 ᄒᆞᆫ다.(저 아이는 능글맞은 짓만 한다.) [전역]

능금 명 능금(林檎). [전역]

능금-낭 명 <식> 능금-나무(林檎--). [전역]

능락-거리다 동 비아냥-거리다. [전역]

능살-능살 부 늘썽-늘썽. 짜이거나 엮인 것의 사이가 뜨게. ＊능살능살 다운 나 머리 씨집살이 좋은디 궂은디 곱이곱이 다 믜여 부렷저.(늘썽늘썽 땋은 내 머리 시집살이 좋은지 궂은지 곱이곱이 다 미어 버렸네.) [전역]

능셍이 명 <도> 항아리의 일종. [대정]

능청-맞다 형 능청-맞다. 마음은 엉큼하면서도 겉으로는 천연스럽다. ＊잘못ᄒᆞ여 둠서 능청맞게 웨뚠 소리 ᄒᆞᆫ다.(잘못하여 두고서 능청맞게 외딴 소리 한다.) [전역]

능청-엇다 형 [전역] → 능청-웃다.

능청-웃다 형 남에게 심한 욕을 당하거나 했을 때 낯을 들 면목이 없다. [전역] = 능청-엇다.

능하-오름 명 <지> [오라 노형] → 능화-오름.

능화-오름 명 <지> 제주시 오라동 탐라교육원 남동쪽 한라산 국립공원에 있는 오름. 밑에 능화동(菱花洞)이란 화전마을이 있었음. 표고 976미터. [오라 노형] = 능하-오름.

능화-지 명 능화-지(菱花紙). 마름꽃의 무늬가 있는 종이. [전역]

능활-낭활 부 몸을 흔들흔들하면서 걷는 모양. [전역]

능-ᄒᆞ다(能--) 형 능-하다. 익숙하게 잘하다. ＊그인 손재주가 능ᄒᆞᆫ 사람이여.(그이는 손재주가 능한 사람이다.) [전역]

늦- 두 '늦은', '늦게'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전역]

늦-걸다 동 비가 추적추적 내리다. ＊아칙부떠 늦걸언게 저물아도 날 안 개엄신게.(아침부터 비가 내리더니만 저물어도 날씨가 개지 않고 있다.) [전역]

늦-곡석 명 [전역] → 늦-곡ᄉᆞᆨ.

늦-곡식 명 [전역] → 늦-곡ᄉᆞᆨ.

늦-곡ᄉᆞᆨ 명 늦-곡식. 늦게 여무는 곡식. [전역] = 늦-곡석, 늦-곡식, 늦-ᄀᆞ슬②.

늦-ᄀᆞ슬 명 ① 늦-가을. ＊늦ᄀᆞ슬 뒈민 하니ᄇᆞ름이 불기 시작ᄒᆞᆫ다.(늦가을이 되면 하늬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전역] ② <농> 늦-곡식. ＊넘은핸 늦ᄀᆞ슬이 좋아낫저.(작년에는 늦곡식이 좋았었다.) [전역] = 늦-ᄀᆞ실, 늦-ᄀᆞ을.

늦-ᄀᆞ실 명 [전역] → 늦-ᄀᆞ슬.

늦-ᄀᆞ을 명 [전역] → 늦-ᄀᆞ슬.

늦-농서 명 [전역] → 늦-농ᄉᆞ.

늦-농시 명 [전역] → 늦-농ᄉᆞ.

늦-농ᄉᆞ 명 늦게 지은 농사. ＊늦농ᄉᆞ보단 이른 농ᄉᆞ가 잘 뒌다.(늦은 농사보다는 이른 농사가 잘 된다.) [전

역] = 늦-농서, 늦-농시, 늦-용시.
늦다 형 늦다(晩). [전역]
늦-더위 명 늦-더위. *올린 늦더위가 심흔 해여.(올해는 늦더위가 심한 해다.) [전역]
늦-둥이 명 ① 늦-둥이. *절미 아이가 쉰 술 나던 해 난 늦둥이라.(저 아이가 쉰 살 나던 해에 낳은 늦둥이야.) [전역] ② 늦게 자라는 아이. *낫술은 우라도 늦둥이라부난 ᄒᆞ는 짓이 두리메.(나잇살은 위라도 늦둥이여서 하는 짓이 어리다.) [전역]
늦-뒈다 동 늦-되다. [전역]
늦-마 명 늦-장마. [전역] = 늦인-마.
늦-봄 명 늦-봄. [전역]
늦-ᄇᆞ름[1] 명 늦-바람. ① 저녁에 늦게 부는 바람. 만풍(晩風). [전역] ② 나이가 들어서 뒤늦게 난 난봉. *노년기 늦ᄇᆞ름이 더 무섭나.(노년기의 늦바람이 더 무섭다.) [전역]
늦-ᄇᆞ름[2] 명 [세화 조천] → 서남-풍.
늦-용시 명 [전역] → 늦-농ᄉᆞ.
늦은덕-정하님 명 <민> 본풀이에 흔히 등장하는 여자 종 이름. [전역]
늦인-마 명 [전역] → 늦-마.
늦인-석 명 <민> 늦은 무악 장단. [전역]
늦인-송애기 명 음력 2월에서부터 5월 사이에 낳은 송아지. [상도 성산 수산]
늦-으름 명 늦-여름. [전역]
늦-저슬 명 늦-겨울. [전역]
늦-좀 명 늦-잠. [전역]
늦좀-꾸레기 명 늦잠-꾸러기. [전역] = 늦좀-둥이, 늦좀-젱이, 늦좀-푸데.
늦좀-둥이 명 [전역] → 늦좀-꾸레기.
늦좀-젱이 명 [전역] → 늦좀-꾸레기.
늦좀-푸데 명 [전역] → 늦좀-꾸레기.
늦-추다 동 늦-추다. [전역] = 눅이다.
늦-추위 명 늦-추위. [전역]
늦하니-ᄇᆞ름 명 [수산] → 서북-풍.
늬[1] 명 이(齒). [전역]
늬[2] 명 <동> 이(蝨). [전역]
늬[3] 명 뉘. 쓿은 쌀에 섞인 등겨가 벗겨지지 않은 벼 알갱이 따위. [전역]
늬[4] 대 [전역] → 느.
늬[5] 관 [전역] → 네[3].
늬-굽 명 치근(齒根). [전역]
늬굽이진-사데 명 <요> 네 굽이로 꺾어서 느리게 부르는 밭매는 노래의 한 가지. [금덕 광령 장전 고성]
늬-글르다 형 사이가 어긋나다. 짝이 맞지 않다. [전역]
늬-ᄀᆞᆯ다[1] 동 이를 갈다(替). [전역]
늬-ᄀᆞᆯ다[2] 동 이를 갈다(磨). [전역]
늬껍 명 미끼. [전역] = 느껍, 이껍.
늬껍-사위 명 <동> [조수 인성] → 늬껍-새위.
늬껍-새위 명 <동> 물고기를 낚을 때에 미끼로 쓰는 새우. [인성 조수 가시] = 공-사위, 느껍-새위, 늬껍-사위, 이껍-새위.
늬-께미 명 [인성 서홍] → 늬-께염.
늬-께염 명 이(齒) 틈에 끼는 곱 모양의 버캐. [전역] = 늬-께미, 늬-께예미, 늬-끼염.
늬-께예미 명 [노형 조수 김녕] → 늬-께염.
늬-끼염 명 [가시 수산] → 늬-께염.
늬-나다 동 이-나다(齒--). [전역]
늬-돋다 동 이(齒)가 조금 솟아오르다.

[전역]
늬-똥 명 이-똥(齒石). [전역]
늬량 부 [전역] → 늘.
늬-맞추다 동 짝을 잘 맞게 하다. 두 사물이 잘 물리게 하다. [전역]
늬-물 명 [서홍 태흥 표선 가시 수산 세화 조천 노형] → 너-물[2].
늬-바디 명 [전역] → 닛-바디.
늬비다 동 [전역] → 누비다.
늬비-바지 명 <의> [인성 노형 조수] → 누비-바지.
늬비-옷 명 <의> [전역] → 누비-옷.
늬비-이불 명 [노형 조수] → 누비-이불.
늬비-저고리 명 <의> [노형 조수] → 누비-저고리.
늬-빠다 동 이-빼다(齒--). [전역]
늬빨 명 이빨. [전역]
늬-알림 명 <병> 이-앓이(齒痛). [전역]
늬-염 명 잇-몸(齒肉). [전역] = 닛-몸.
늬울-거리다 동 뉘엿-거리다. 속이 매스꺼워 자꾸 토할 듯하다. [전역]
늬울-늬울 부 뉘엿-뉘엿. 속이 매스꺼워 토할 듯이 매슥매슥하는 모양. [전역] = 늬웃-늬웃.
늬웃늬웃 부 [전역] → 늬울-늬울.
늬-ᄌᆞ골롭다 형 이가 간지럽다. [전역]
늬-치럼 명 [김녕 어도] → 늬-치름.
늬치럼-쟁이 명 침-흘리개. [전역]
늬-치름 명 어린 아이나 소가 입에서 질질 흘리는 침. [전역] = 늬-치럼.
늬-커리 명 네-거리. [전역] = 네-커리, 늬-커림.
늬-커림 명 [전역] → 늬-커리.
늬커림-질 명 네거리의 길. [전역] = 늬커릿-질.
늬커릿-질 명 [전역] → 늬커림-질.
늬콜-방에 명 [애월] → 네콜-방에.
늬큰-ᄒᆞ다 형 느끼-하다. [전역] = 늴큰-ᄒᆞ다.
늬-트멍 명 이-틈(齒-). [전역] = 늬-틈.
늬-틈 명 [전역] → 늬-트멍.
늬향 부 [노형] → 늘.
늑늑-ᄒᆞ다 형 고기 따위를 먹었을 때 다시 먹을 생각이 없이 속이 좋지 않거나 몹시 느끼한 맛이 있다. *너미 늑늑ᄒᆞ연 못 먹키어.(너무 느끼해서 못 먹겠다.) [전역] = 닉닉-ᄒᆞ다.
늰착 부 [전역] → 는착.
늴 명 내일(來日). [전역] = 낼, 닐. 고 닉실.
늴크랑-ᄒᆞ다 형 조금 느끼한 맛이 있다. [전역] = 늘크랑-ᄒᆞ다.
늴큰-ᄒᆞ다 형 [전역] → 늬큰-ᄒᆞ다.
닛 수 [전역] → 넷.
닛-굽 명 이가 박혀 있는 밑부분. [전역]
닛-몸 명 잇-몸. [전역] = 늬염.
닛-바듸 명 잇-바디(齒列). 이가 죽 박힌 열(列)의 생김새. *웃을 때 보민 닛바듸가 곱나.(웃을 때 보면 잇바디가 곱다.) [전역] = 늬-바디, 닛-바디.
닛-바디 명 [전역] → 닛-바듸.
닛-자국 명 잇-자국. [전역]
닝끼리다 동 미끄러-지다. 미끄러운 곳에서 밀려 나가거나 넘어지다. [전역] = 느끼리다, 닝끼리다.
-니- 선어말 -니-. [전역] → -네-.
-니[1] 어미 -네. ① 동사의 어간에 붙은 '-느-'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

에서 그 사실을 직접 지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사금파릴 놀려 보라. 멧 번이나 튀느니?(사금파리를 던져 보아라. 몇 번이나 튀는가?) [전역] ② 용언의 어간에 붙은 '-느-'에 연결되어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 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③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이나 사실을 말할 경우에 앞에 나오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그 태도나 사실이 나중에 하게 되는 행동이나 사실의 연유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계, 여호가 피를 짜 먹어 부니 얼굴이 그렇게 푸른 것이 아닌가?(그래, 여우가 피를 짜서 먹어 버리니 얼굴이 그렇게 푸른 것이 아닌가?) [전역] ④ 두 가지 이상의 행동이나 사실을 말할 경우에 앞서 나오는 용언에 붙은 '-암시-·-엄시-·-염시-·-람시-·-아시-·-어시-·-여시-·-라시-' 등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 또는 사실이 나중에 하게 되는 동작이나 사실의 연유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니[2] 어미 -네. 형용사의 어간이나 체언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사실이나 상태를 말할 때에 쓰이는 종결어미. [전역]

-니[3] 어미 -냐. ① 용언의 어간에 붙은 '-느-·-더-'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② 용언 어간에 붙은 '-아-·-어-·-여-' 등에 연결되어서 과거의 그 동작·상태를 회상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③ 용언의 어간에 붙은 '-암-·-엄-·-염-·-람-' 또는 '-앗-·-엇-·-엿-·-랏-' 등에 연결되어서, 의문사를 전치시키고, 어떤 동작의 계속이나 완료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④ 동사의 어간에 붙어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⑤ 의문대명사에 붙거나 의문사를 전치시킨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⑥ 용언의 어간에 붙은 '-암시-·-엄시-·-염시-·-람시-' 등에 연결되어서, 의문사를 전치시키고,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는가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⑦ 용언의 어간에 붙은 '-아시-·-어시-·-여시-·-라시-' 등에 연결되어서, 의문사를 전치시키고, 그 동작이 끝나 있는가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⑧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행동이나 상태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니까 어미 -니까.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뒤에 하는 말에 대하여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뜻을 힘주어 나타낼 때에 쓰이는 연결어미. [전역]

-니까니[1] 어미 -니까.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뒤에 하는 말에 대하여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뜻을 힘주어 나타낼 때에 쓰이는 연결어미. *좋은 기운에 ᄆᆞᆯ을 그 채로 두어 번 후리니까니 ᄆᆞᆯ이 바로 ᄂᆞ는 게라.(좋

은 기운에 말을 그 채로 두어 번 후리니까 말이 바로 나는 것이야.) [전역]

-니까니[2] 어미 -니. 받침 없는 동사 어간에 붙어서, '-고 하니'의 뜻을 특히 강조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뒤에는 대개 앞의 명령을 거역하는 말이 옴. [전역]

니깡-나깡 명 <민> 무악기인 설쒜 소리의 구음(口音). [전역] = 니껑-나껑, 지껑-지껑.

니껑-나껑 명 <민> [전역] → 니깡-나깡.

니끼-낭 명 <식> [전역] → 굴무기.

니물 명 [전역] → 이물.

니물-장 명 [인성 화순 하원] → 이물-칸.

니물-장세 명 [인성 서홍 노형] → 이물-멍에.

닉닉-ᄒᆞ다 형 [전역] → 늑늑-ᄒᆞ다.

-닌 어미 -냐고. 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듣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닌착-ᄒᆞ다 형 [전역] → 는착-ᄒᆞ다[1].

닐 명 [전역] → 늴.

님금 명 임금(王). [전역]

님금-님 명 임금-님. [전역]

닝끼리다 동 [전역] → 닝끼리다.

ᄂᆞ노다 동 [전역] → ᄂᆞ누다. 고 ᄂᆞᆫ호다.

ᄂᆞ놔-먹다 동 나눠-먹다. [전역] = ᄂᆞᆫ놔-먹다.

ᄂᆞ누다 동 나누다. 분배-하다. * ᄒᆞᆫ쏠씩이라도 골로로 ᄂᆞ누아사 ᄒᆞᆫ다.(조금씩이라도 골고루 나누어야 한다.) [전역] = ᄂᆞ노다, ᄂᆞᆫ누다.

ᄂᆞᆫ-궤기 명 방어 등의 회유성(回游性) 물고기. [월정]

ᄂᆞᆫ-놈 명 남보다 낫게 날고 뛰어 올라 앉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전역]

ᄂᆞ다 부 바로. [전역]

ᄂᆞ단- 두 '오른'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전역]

ᄂᆞ단-손 명 오른-손. [전역] = 오른-손. 고 올ᄒᆞᆫ손.

ᄂᆞ단-ᄌᆞ부 명 <민> [전역] → ᄂᆞ단ᄌᆞ부-ᄃᆞ리.

ᄂᆞ단ᄌᆞ부-ᄃᆞ리 명 <민> 신칼의 날이 오른쪽으로 나란히 놓인 점괘. [전역] = 노단-ᄌᆞ부.

ᄂᆞ단-쪽 명 오른-쪽. [전역] = 오른-쪽.

ᄂᆞ단-착 명 오른-짝. [전역] = ᄂᆞ단-짝, 오른-짝, 오른-착. 고 올ᄒᆞᆫ녁.

ᄂᆞ단-펜 명 오른-편. [전역] = 오른-펜.

ᄂᆞ-뒈쓰다 동 원래 상태로 뒤집다. [전역]

ᄂᆞ라미 명 <도> [전역] → ᄂᆞ래미.

ᄂᆞ람쥐 명 <도> [전역] → ᄂᆞ래미.

ᄂᆞ람지 명 [전역] → ᄂᆞ래미.

ᄂᆞ람지-새 명 이엉을 엮을 수 있을 만큼 길쭉하고 좋은 띠. [덕수]

ᄂᆞ래미 명 이엉과 비슷한 것으로 낟가리 위에 덮는 물건. [전역] = ᄂᆞ라미, ᄂᆞ람쥐, ᄂᆞ람지, ᄂᆞ레, 놀래. 고 놀애.

ᄂᆞ레 명 [전역] → ᄂᆞ래미.

ᄂᆞ려-가다 동 내려-가다. * 이영 ᄂᆞ려

가당 손 웬짝으로 돌아갑서.(이리로 내려가다가 손 왼쪽으로 돌아가십시오.) [전역]

ᄂᆞ려다-보다 동 내려다-보다. [전역]

ᄂᆞ려-사다 동 내려-서다. *경 말앙 이 알러레 ᄂᆞ려삽서.(그렇게 하지 말고 이 아래로 내려서십시오.) [전역]

ᄂᆞ려-안지다 동 내려-앉다. *암만 성님이주만은 이레 ᄂᆞ려안집서.(아무리 형님이지만은 이리 내려앉으십시오.) [전역] = ᄂᆞ려-앉다.

ᄂᆞ려-앉다 동 [전역] → ᄂᆞ려-안지다.

ᄂᆞ려오다 동 내려-오다. *사름이걸랑 ᄂᆞ려오곡 구신이걸랑 올라가십서.(사람이거든 내려오고 귀신이거든 올라가십시오.)

ᄂᆞ려-지다 동 넘어-지다. [전역] = 넘어-지다, 부더-지다, 푸더-지다.

ᄂᆞ롯[1] 명 맑고 바람 없는 밤이나 새벽 때에 대기의 몹시 추운 기운. [전역]

ᄂᆞ롯[2] 명 [전역] → ᄂᆞ릇.

ᄂᆞ롯-ᄂᆞ롯 부 생기가 없이 나른해진 모양. *약 먹은 쥉이가 ᄂᆞ롯ᄂᆞ롯 죽엄서라.(약 먹은 쥐가 나른히 죽고 있더라.) [전역] = ᄂᆞ릇-ᄂᆞ릇[1].

ᄂᆞ롯-질 명 [조수 인성 수산] → ᄂᆞ릇-질.

ᄂᆞ롯-ᄒᆞ다 형 ① 성질이 거세지 않고 유순하다. [전역] ② 물체가 위로 거스러지지 않고 아래로 늘어지다. [전역] ③ 휘주근-하다. 몹시 고단하여 기운이 없다. [전역] = ᄂᆞ릇-ᄒᆞ다.

ᄂᆞ릇[1] 명 [인성 가시 김녕] → ᄂᆞ릇.

ᄂᆞ릇[2] 명 뱃사람들이 가을에 산에서 바다 쪽으로 부는 시원한 바람을 일컫는 말. *ᄂᆞ릇이엔 ᄒᆞᆫ 건 육연풍이라고 밤에 가을에 그냥 살ᄒᆞ게 부는 거.('ᄂᆞ릇'이라고 하는 것은 육연풍이라고 가을밤에 그냥 살살 부는 것.) [이호]

ᄂᆞ릇-ᄂᆞ릇[1] 부 [전역] → ᄂᆞ롯-ᄂᆞ롯.

ᄂᆞ릇-ᄂᆞ릇[2] 부 노긋-노긋. [전역]

ᄂᆞ릇-ᄂᆞ리다 동 산꼬대-하다. [전역]

ᄂᆞ릇-질 명 [인성] → ᄂᆞ릇-질.

ᄂᆞ릇-ᄒᆞ다 형 [전역] → ᄂᆞ롯-ᄒᆞ다.

ᄂᆞ리- 두 '위에서 아래로'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전역]

ᄂᆞ리-긋다 동 내리-긋다. [전역]

ᄂᆞ리-곧다 동 상대방이 듣기 좋게 말하다. [전역]

ᄂᆞ리다 동 내리다(降). [전역] 고 ᄂᆞ리다.

ᄂᆞ리-밀다 동 내리-밀다. [전역]

ᄂᆞ리-선 명 <어> 나룻-배. [전역] = ᄂᆞ릿-베.

ᄂᆞ리-ᄉᆞ랑 명 내리-사랑. 부모가 그 자식을 아끼고 위하는 따뜻한 마음. [전역]

ᄂᆞ리-씰다 동 내리-쓸다. [전역]

ᄂᆞ리-우다 동 내리-우다. *이 닷이랑 돌에 다데기지 말게 술술 잘 ᄂᆞ리우라.(이 닻이랑 돌에 부딪지 않게 살살 잘 내리워라). [전역]

ᄂᆞ리-치다[1] 동 ① 떨어-뜨리다. *선반 우이 논 거 알더레 ᄂᆞ리치라.(선반 위에 놓은 거 아래로 떨어뜨려라.) [전역] ② 넘어-뜨리다. *걷는 애기 ᄂᆞ리치지 말라.(걷는 아기 넘어뜨리지 마라.) [전역]

ᄂᆞ리-치다[2] 동 내리-치다. [전역]

ᄂᆞ릿-베 명 <어> [전역] → ᄂᆞ리-선.

ᄂᆞ믈 명 [서홍 가시] → ᄂᆞᄆᆞᆯ.
ᄂᆞᄆᆞᆯ 명 나물(菜). [전역] = ᄂᆞ믈. 고 ᄂᆞᄆᆞᆭ.
ᄂᆞᄆᆞᆯ-고장 명 나물-꽃. [전역] = ᄂᆞᄆᆞᆯ-꼿.
ᄂᆞᄆᆞᆯ-국 명 <음> 나물-국. 채소를 넣어서 끓인 국. [전역] = ᄂᆞᄆᆞᆯ-쿡.
ᄂᆞᄆᆞᆯ-꼿 명 <식> 나물의 꽃. [전역]
ᄂᆞᄆᆞᆯ-동 명 [수산 가시] → ᄂᆞᄆᆞᆯ-동지.
ᄂᆞᄆᆞᆯ-동지 명 나물의 아주 연한 장다리. [노형 인성 조수 서홍 김녕] = ᄂᆞᄆᆞᆯ-동.
ᄂᆞᄆᆞᆯ-불이 명 [전역] → ᄂᆞᄆᆞᆯ-불휘.
ᄂᆞᄆᆞᆯ-불휘 명 배추 따위의 뿌리. [전역]. = ᄂᆞᄆᆞᆯ-불이, ᄂᆞᄆᆞᆯ-뿔리.
ᄂᆞᄆᆞᆯ-뿔리 명 [전역] → ᄂᆞᄆᆞᆯ-불휘.
ᄂᆞᄆᆞᆯ-씨 명 나물-씨. [전역]
ᄂᆞᄆᆞᆯ-유으레기 명 나물(菜)의 누렇게 시든 잎. [전역] = ᄂᆞᄆᆞᆯ-유흐레기.
ᄂᆞᄆᆞᆯ-유흐레기 명 [조수] → ᄂᆞᄆᆞᆯ-유으레기.
ᄂᆞᄆᆞᆯ-짐치 명 <음> 나물로 만든 김치. 주로 배추김치를 일컬음. [전역]
ᄂᆞᄆᆞᆯ-치름 명 나물-기름. 배추 등 나물의 씨에서 짜낸 기름. [전역]
ᄂᆞᄆᆞᆯ-쿡 명 <음> [전역] → ᄂᆞᄆᆞᆯ-국.
ᄂᆞᄆᆞᆯ-팟 명 남새-밭. 무·배추를 심어서 가꾸는 밭. [전역]
ᄂᆞ슬다 동 [전역] → ᄂᆞ실다.
ᄂᆞ시 부 도저히. ① 남이 말려도 듣지 않고 기어이. *그 선주가 밤읜 꿈을 꾸니까니 처녀를 그디 내불어 뒁 와야지 그 전의는 ᄂᆞ시 못 간다고.(그 선주(船主)가 밤에 꿈을 꾸니까 처녀를 그곳에 내버려 놓고 와야지 그 전에는 도저히 못 간다고.) [전역] ② 끝내. [전역]
ᄂᆞ실다 형 날카롭다. 칼과 같은 도구나 사람의 성격이 날카롭다. [전역] = ᄂᆞ슬다, ᄂᆞᆯ쓰다.
ᄂᆞ잡다 형 낮다(低). *문지방은 ᄂᆞ자와사 좋나.(문지방은 낮아야 좋다.) [전역] = ᄂᆞ찹다, ᄂᆞᆺ다[1].
ᄂᆞ지건-이 부 [수산] → ᄂᆞ지겡-이.
ᄂᆞ지겡-이 부 나직-이. [전역] = 나직-이, ᄂᆞ지건-이, ᄂᆞ직-이. 고 ᄂᆞᄌᆞ기.
ᄂᆞ지냑-ᄒᆞ다 형 나지막-하다. *ᄌᆞ기는 나쁜 걸로 이렇게 헤서 ᄂᆞ지냑ᄒᆞ게 헨 분짓을 ᄒᆞ니깐.(자기(自己)는 나쁜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나지막하게 해 분깃을 하니까는.) [명월] = ᄂᆞ짐칙-ᄒᆞ다.
ᄂᆞ직-ᄂᆞ직 부 나직-나직. *눌은 ᄂᆞ직ᄂᆞ직 눌어사 좋나.(가리는 나직나직 쌓아야 좋다.) [전역]
ᄂᆞ직ᄂᆞ직-ᄒᆞ다 형 나직나직-하다. *산덜이 ᄂᆞ직ᄂᆞ직ᄒᆞ다.(산들이 나직나직하다.) [전역]
ᄂᆞ직-이 부 나직-이. [전역]
ᄂᆞ직-ᄒᆞ다 형 나직-하다. [전역]
ᄂᆞ짐칙-ᄒᆞ다 형 [전역] → ᄂᆞ지냑-ᄒᆞ다.
ᄂᆞ찹다 형 [전역] → ᄂᆞ잡다.
ᄂᆞ초다 동 [전역] → ᄂᆞ추다.
ᄂᆞ추다 동 낮-추다. [전역] = ᄂᆞ초다.
ᄂᆞᆫ놔-먹다 동 [전역] → ᄂᆞ놔-먹다.
ᄂᆞᆫ누다 동 [전역] → ᄂᆞ누다.
ᄂᆞᆫ-다리[1] 명 <지> 제주시 연동의 한 자연마을. [노형 연]
ᄂᆞᆫ-다리[2] 명 <지> 제주시 오라3동의 한 자연마을. [오라]

ᄂᆞᆫ독-낭 명 <식> 좀머귀-나무. [전역]
ᄂᆞᆫ지락-ᄒᆞ다 형 행동이 아주 느리다. [전역]
ᄂᆞᆫ짝 부 본디의 모양이 없어지게 아주 잘 빵아지거나 납작하게 눌려진 모양. [전역]
ᄂᆞᆯ[1] 명 날(緯). [전역]
ᄂᆞᆯ[2] 명 날(刀). [전역] 고 ᄂᆞᆳ.
ᄂᆞᆯ[3] 명 짚신을 만들 때에 짚신의 바닥에다 신의 근간을 이루도록 길게 놓는 굵은 줄. *신을 삼을랴며는 ᄂᆞᆯ이 씬 ᄂᆞᆯ이 잇어야 ᄃᆞᆼ임도 ᄒᆞ곡.(짚신을 삼으려면 날이 센 날이 있어야 당김도 하고.) [어음]
ᄂᆞᆯ- 두 날-. [전역]
ᄂᆞᆯ가기[1] 명 [전역] → ᄂᆞᆯ개[1].
ᄂᆞᆯ가기[2] 명 [전역] → ᄂᆞᆯ개기[1].
ᄂᆞᆯ-가죽 명 날-가죽. 말리지 않은 가죽. [전역] = 생-가죽.
ᄂᆞᆯ-간 명 날-간. 익히지 않은 간(肝). [전역] = 생-간.
ᄂᆞᆯ-감상 명 <민> 성주풀이에서 도끼의 날이 얼마나 잘 갈렸는지 확인함. [전역]
ᄂᆞᆯ감상-굿 명 <민> 성주풀이에서 도끼의 날이 얼마나 잘 갈렸는지 확인하는 의례. [전역]
ᄂᆞᆯ-감저 명 날-고구마. 익히지 않은 고구마. [전역] = ᄂᆞᆯ-감ᄌᆞ, 생-감저, 생-감ᄌᆞ.
ᄂᆞᆯ-감ᄌᆞ 명 [전역] → ᄂᆞᆯ-감저.
ᄂᆞᆯ-강도 명 날-강도(-强盜). 아주 악독한 강도. [전역]
ᄂᆞᆯ강도-질 명 날강도-질. 아주 악독한 강도질. *손에 심은 거 빼앗아 가는 건 ᄂᆞᆯ강도질이나 다름엇나.(손에 잡은 거 빼앗아 가는 건 날강도질이나 다름없다.) [전역] = ᄂᆞᆯ강도-짓.
ᄂᆞᆯ강도-짓 명 [전역] → ᄂᆞᆯ강도-질.
ᄂᆞᆯ개[1] 명 날개(翼). [전역] = ᄂᆞᆯ가기[1], ᄂᆞᆯ개기[2].
ᄂᆞᆯ개[2] 명 [전역] → ᄂᆞᆯ개기[1].
ᄂᆞᆯ개[3] 명 <어> 후릿그물 중 가장 바깥쪽 그물. [조천 신흥]
ᄂᆞᆯ개기[1] 명 지느러미. [전역] = ᄂᆞᆯ가기[2], ᄂᆞᆯ개[2], ᄂᆞᆯ게, ᄂᆞᆯ게기.
ᄂᆞᆯ개기[2] 명 [전역] → ᄂᆞᆯ개[1].
ᄂᆞᆯ-것 명 날-것(生-). [전역]
ᄂᆞᆯ게 명 [전역] → ᄂᆞᆯ개기[1].
ᄂᆞᆯ게기 명 [전역] → ᄂᆞᆯ개기[2].
ᄂᆞᆯ-고기 명 [전역] → ᄂᆞᆯ-궤기.
ᄂᆞᆯ-고치 명 날-고추. [전역] = 생-고치.
ᄂᆞᆯ-곡석 명 [전역] → ᄂᆞᆯ-곡ᄉᆞᆨ.
ᄂᆞᆯ-곡식 명 [전역] → ᄂᆞᆯ-곡ᄉᆞᆨ.
ᄂᆞᆯ-곡ᄉᆞᆨ 명 날-곡식. 익지 않거나 덜 마른 곡식. [전역] = ᄂᆞᆯ-곡석, ᄂᆞᆯ-곡식, 생-곡석, 생-곡식, 생-곡ᄉᆞᆨ.
ᄂᆞᆯ-구쟁이 명 <동> [전역] → ᄂᆞᆯ-구젱기.
ᄂᆞᆯ-구젱기 명 <동> 익히지 않은 소라. [전역] = ᄂᆞᆯ-구쟁이.
ᄂᆞᆯ-궤기 명 날-고기(生肉). [전역] = ᄂᆞᆯ-고기.
ᄂᆞᆯ-귀양 명 <민> 장례를 치른 날 저녁에 벌이는 귀양풀이. [전역]
ᄂᆞᆯ-ᄀᆞ루 명 날-가루. [전역]
ᄂᆞᆯ-나다[1] 동 날-나다. 짚신 창이 닳아서 날이 보이다. [전역]
ᄂᆞᆯ-나다[2] 동 연장의 날이 날카롭게 되다. [전역]

놀-낭 명 날-나무. 생-나무. 금방 자른 나무. ＊저 놀낭 ᄀᆞ졍 오라.(저 날나무 가져와라.) ＊놀낭 ᄒᆞᆫ 짐은 ᄆᆞ른낭 두어 짐과 맞먹주.(생나무 한 짐은 마른나무 두어 짐과 맞먹지.) [전역] = 생-낭.

놀-내 명 날-내. 익지 않은 식품이나 물질 등에서 나는 냄새. ＊선떡은 놀내 낭 못 먹나.(선떡은 날내 나서 못 먹는다.) ＊아적 익지 아년 놀내 남저.(아직 익지 않아서 날내 난다.) [전역] = 생-내.

놀다[1] 동 날다(紝). [전역]

놀다[2] 동 날다(飛). ＊(속) 기도 못ᄒᆞ는 게 놀쟁 ᄒᆞᆫ다.(기지도 못하는 것이 날려고 한다.) [전역] 고 놀다.

놀-대 명 날-대(-竹). 바구니를 결을 때 날대로 쓰이는 대오리. [전역]

놀대-칼 명 <도> 날줄의 대오리를 다듬는 칼. [도련]

놀도독-놈 명 날도둑-놈. 남의 것을 빼앗아가는 도둑놈. [전역]

놀도독-질 명 날도둑-질. 남의 것을 훔쳐가는 짓. [전역]

놀도독질-ᄒᆞ다 동 몹시 악독하게 남의 것을 훔치거나 빼앗는 짓을 하다. ＊굶엉 죽어도 놀도독질ᄒᆞ지 말라.(굶어서 죽어도 날도둑질하지 마라.) [전역]

놀뒌장-국 명 날된장으로 만들어 먹는 국. ＊술 취ᄒᆞᆫ 디 놀뒌장국 먹어도 좋나.(술 취한 데는 날된장국을 먹어도 좋지.) [전역]

놀-독새기 명 날-달걀. 익히지 않은 달걀. [전역]

놀-땅 명 물기가 있어 축축한 땅. [전역]

놀-뛰다 동 날-뛰다. [전역]

놀라다 형 [전역] → 놀레다.

놀래 명 [전역] → ᄂᆞ래미.

놀랜-다리 명 아주 날쌔고 특별한 기술을 갖춘 사람. ＊그 첩객 온 양반은 ᄎᆞᆷ 순전이 놀랜다리, 이거 머 보통 아인 양반이라.(그 첩객(捷客) 온 양반은 참 순전히 날쌘 사람, 이것 뭐 보통이 아닌 양반이야.) [명월]

놀레 명 [수산] → ᄂᆞ래미.

놀레다 형 날래다(勇). [전역] = 놀라다.

놀려-들다 동 날아-들다. ＊밥 먹노렌 ᄒᆞ난 놀려들언 막 두드려.(밥 먹고 있노라니까 날아들어 마구 때려.) ＊싀 사름이 놀려들어 두드리난 살아질거라게.(세 사람이 날아들어 두드리니 살 수 있겠어.) [전역]

놀려-불다 동 [전역] → 던저-불다.

놀리다[1] 동 날-리다. ① 공중으로 날게 하다. [전역] ② 공중으로 던지다. [전역] ③ 힘들이지 않고 대강대강 하다. [전역] 고 놀이다.

놀리다[2] 동 [전역] → 던지다.

놀림-질 명 <민> 심한 설사. [전역]

놀-메역 명 날-미역. 데치거나 익히지 않은 미역. [전역] = 생-메역.

놀-베락 명 날-벼락. 뜻밖의 재앙. ＊그런 놀베락 맞을 말랑 ᄒᆞ지도 말라.(그런 날벼락 맞을 말은 하지도 마라.) [전역]

놀-보리 명 날-보리. 갓 베어 내어서 아직 마르지 아니한 보리. ＊숭년엔 호미 아정 놀보리 비어당 먹기도 헤낫저.(흉년에는 낫 가지고 날보리를

베어다 먹기도 했었어.) [전역] = 생-보리.

놀-사다 동 연장의 날이 서다. [전역]

놀-세우다 동 날-세우다. 연장의 날을 날카롭게 하다. [전역]

놀-신왕 명 <민> 막 죽은 영혼을 관장하는 신. [전역]

놀싸다 형 민첩-하다. 날쌔다. *그 사름은 아메도 춤 상당이 놀싸난 모냥이여.(그 사람은 아마도 참 상당히 민첩했던 모양이야.) [노형]

놀싹-놀싹 부 힘이 빠진 모습. *다덜 지쳔 놀싹놀싹 들어앚앗저.(다들 지쳐서 맥없이 주저앉았다.) [전역]

놀싹놀싹-ᄒᆞ다 형 기운이 빠져서 나른하다. '놀싹ᄒᆞ다'의 센말. *몸이 놀싹놀싹ᄒᆞ연 더 못 걸으키어.(몸이 나른해서 더 못 걷겠다.) [전역]

놀싹-이 부 나른-히. *놀싹이 앚안 ᄂᆞ물 다듬암서라.(나른히 주저앉아서 나물을 다듬고 있더라.) [전역] = 놀쌕-이.

놀싹-ᄒᆞ다[1] 형 나른-하다. 맥이 풀리다. *뒐 게 안 뒈어 부난 몸이 놀싹ᄒᆞ다.(될 것이 안 되어 버리니 몸에 맥이 풀려 나른하다.)

놀싹-ᄒᆞ다[2] 형 바람 한 점 없이 무덥기만 하다. [전역]

놀쌕-이 부 [전역] → 놀싹-이.

놀-쎄다 형 날-쌔다. [전역]

놀쓰다 동 [서홍 표선 수산 세화] → ᄂᆞ실다.

놀-쏠 명 날-쌀. 익히지 않은 쌀. [전역] = 생-쏠.

놀아-가다 동 날아-가다. 새 따위가 공중을 날면서 가다. *생이가 놀아감저.(새가 날아간다.) [전역]

놀아-나다 동 재산 따위가 없어져 버리다. *빗에 집이영 밧이영 다 놀아나 불엇저.(빚에 집이랑 밭이랑 다 날아가 버렸다.) [전역]

놀아-다니다 동 [전역] → 놀아-뎅기다[1], 놀아-뎅기다[2].

놀아-뎅기다[1] 동 날아-다니다. *벌이 웡웡 놀아뎅기는 디랑 가지 말라.(벌이 웡웡 날아다니는 데는 가지 마라.) [전역] = 놀아-다니다, 놀아-ᄃᆞ니다.

놀아-뎅기다[2] 동 뛰어-다니다. 바삐 돌아다니다. *경 놀아뎅기당 다리 거꺼 먹는 거사 여상입주.(그렇게 뛰어다니다가 다리 부러지는 거야 늘 있는 일입니다.) [전역] = 놀아-다니다, 놀앙-뎅기다.

놀아-들다 동 ① 날아-들다. 새 따위가 날아 들어오다. *금년이도 제비생이가 놀아들 건가?(금년에도 제비가 날아들 것인가?) [전역] ② 소식이 날아들다. *세금 통지서가 놀아들엇어라.(세금 통지서가 날아들었더라.) [전역] ③ 쳐들어-오다. 달려들어오다. *웬 잡놈이 놀아들언 집안을 왈칵 뒤집엄저.(웬 잡놈이 쳐들어와서 집안을 왈칵 뒤집고 있다.) [전역] = 놀아-오다.

놀아-ᄃᆞ니다 동 [전역] = 놀아-뎅기다[1].

놀아-오다 동 날아-오다. [전역]

놀앙-뎅기다 동 [전역] → 놀아-뎅기다[2].

놀-짐승 명 날-짐승. [전역]

놀짝-거리다 동 날짱-거리다. 늘쩡-거

리다. 동작이 굼떠서 느리게 행동하다. *놀짝거리당 보민 ᄒᆞ를 핸 다 간다.(늘쩡거리다 보면 하루 해는 다 간다.) [전역]

놀짝-놀짝 부 날짱-날짱. 늘쩡-늘쩡. 동작이 느린 모양. *놀짝놀짝 걸엄서라.(늘쩡늘쩡 걷고 있더라.) [전역] = 놀찌락-놀찌락.

놀찌락-놀찌락 부 *놀찌락놀찌락 ᄆᆞᆼ케당 보민 일은 반도 못ᄒᆞ키어.(늘쩡늘쩡 꾸물거리다가 보면 일은 반도 못하겠다.) [전역] → 놀짝-놀짝.

놀찌락-ᄒᆞ다 형 차분하고 온순하다. *가인 ᄒᆞ여도 놀찌락ᄒᆞ다.(그 아이는 하도 차분하고 온순하다.) [전역]

놀-체 부 삶아 익히지 않고 날것 그대로. [전역]

놀총 명 갓모자를 결을 때 날줄로 쓰는 말총이나 쇠꼬리털. 비교적 굵은 말총을 씀. [전역]

놀치 명 <동> 날치. [전역]

놀-치기 명 ① 날-치기. 남의 것을 가로 잽싸게 채어가는 짓. *놀치기랑 ᄒᆞ지 말라.(날치기는 하지 마라.) [전역] ② 엉터리. 무리한 짓. *일 처린 놀치기론 안 뒌다.(일 처리는 날치기로는 안 된다.) [전역]

놀치기-꾼 명 날치기-꾼. 날치기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전역]

놀치기짓-ᄒᆞ다 동 날치기짓을 하다. *욕심쟁이가 놀치기짓ᄒᆞᆫ다.(욕심쟁이가 날치기짓을 한다.) [전역]

놀치기-ᄒᆞ다 동 ① 날치기-하다. *저 놈은 놀치기ᄒᆞ는 것벳긔 몰른다.(저 놈은 날치기하는 것밖에 모른다.) [전역] ② 엉터리로 하다. *순리대로 ᄒᆞ민 안 뒈난 놀치기ᄒᆞ젱만 ᄒᆞᆫ다.(순리대로 하면 안 되니 날치기하려고만 한다.) [전역]

놀치다 동 날치다. 기세를 떨치다. *심이 쎄언 일름을 놀쳐낫주.(힘이 세어서 이름을 날쳤었지.) [전역]

놀-켕이 명 <동> [수산 가시 김녕] → 놀-킹이.

놀-콩 명 날-콩. 익히지 않은 콩. [전역] = 생-콩.

놀-킹이 명 <동> 꽃-게. [노형 조수인성 서홍] = 놀-켕이.

놀파리-좁녜 명 기량(技倆)이 뛰어나지 못한 잠녀. [강정]

놀-풀 명 생-풀. 베어서 말리지 않은 싱싱한 풀. [전역]

놀-피 명 생-피. 살아 있는 동물의 몸에서 갓 빼낸 피. *ᄃᆞᆺᄃᆞᆺᄒᆞᆫ 놀피메 ᄒᆞᆫ 사발 들이쌉서.(따듯한 생피니 한 사발 들이켜십시오.) [전역]

놀-혼 명 <민> 생-혼(生魂). 죽은 지 오래지 않아 아직 상례(喪禮)를 다 마치지 않은 영혼.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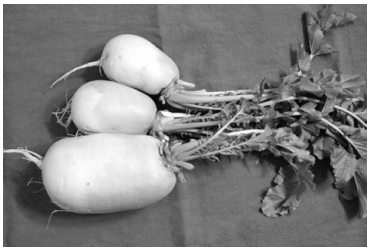
놀-흑 명 마르지 않고 축축한 기가 있는 흙. [전역]

놈 명 *놈 논 건 쉐도 못 춪나.(남이 놓은 것은 소도 못 찾는다.) *놈의 우로 내 넘나.(남의 위로 내가 넘는다.) [전역] → 놈[1].

놈삐 명 <식> ① 무(菁根). [전역] ② 무의 뿌리만을 일컫는 말. [전역] = 무수.

놈삐-지 명 <음> [가시] → 놈삐-지의.

놈삐-지시 명 <음> [수산 김녕] → 놈



놈삐

삐-지의.

놈삐-지의 명 <음> 무-장아찌. [조수] = 놈삐-지, 놈삐-지시, 놈삐-지이, 놈삐-지히.

놈삐-지이 명 <음> [서홍 인성] → 놈삐-지의.

놈삐-지히 명 <음> [서홍 인성] → 놈삐-지의.

놈삐-짐끼 명 <음> [인성 서홍 조수가시] → 놈삐-짐치.

놈삐-짐치 명 <음> 무-김치. [전역] = 놈삐-짐끼, 놈삐-징뀌.

놈삐-징뀌 명 <음> [수산 김녕] → 놈삐-짐치.

놉뜨다 동 ① 무슨 일에 앞질러 잘 참견하다. [전역] ② 날-뛰다. 깝신거리며 나대다. *늙은 놈이 젊은 첩ᄒᆞ민 불 본 나비 놉뜨듯 ᄒᆞᆫ다.(늙은 놈이 젊은 첩하면, 불을 본 나비가 날뛰듯 한다.) [전역] 고 놉드다.

눗 명 낯(顔). 얼굴. *(속) 눗 싯을 때 물 하영 쓰민, 죽엉 가민 다 먹어사 ᄒᆞᆫ다.(낯 씻을 때 물 많이 쓰면, 죽어서 가면 다 먹어야 한다. 물이 귀한 시대의 세태를 반영한 속담.) [전역] = 양지, 얼굴[1]. 고 눛.

눗-가리다 동 [전역] → 눗-골리다.

눗-가죽 명 낯-가죽. [전역]

눗-골리다 동 낯-가리다. 어린애가 낯선 사람을 대하기를 싫어하다. *가인 눗골리지 안 ᄒᆞᆫ다.(그 아이는 낯가리지 아니 한다.) [전역] = 눗-가리다.

눗-깝 명 체면-치레. *참옌 ᄒᆞ엿이난 눗깝은 ᄒᆞ엿저.(참여는 하였으니 체면치레는 하였다.) [전역]

눗-꼴 명 얼굴 모습을 비속하게 일컫는 말. *그놈 눗꼴이 말이 아니라라.(그놈 낯 모습이 말이 아니더라.) [전역]

눗-나다 동 낯-나다. 생색-나다. *사름은 다 눗나는 일 ᄒᆞ고정 ᄒᆞᆫ다.(사람은 다 생색나는 일을 하고자 한다.) [전역]

눗다 형 [전역] → 나쁘다[1].

눗-뚜껍다 형 낯-두껍다. 염치가 없고 뻔뻔스럽다. *저놈은 눗뚜꺼운 짓만 ᄒᆞᆫ다.(저놈은 낯두꺼운 짓만 한다.) [전역]

눗-뜨겁다 형 낯-뜨겁다. *ᄒᆞᆫ 푼도 못 내부난 눗뜨거와라.(한 푼도 못 내니 낯뜨겁더라.) [전역]

눗멘 명 안면(顔面). *저인 눗멘 잇저.(저이는 아는 사람이다.) [전역]

눗-바닥 명 [전역] → 눗-짝.

눗-부끄럽다 형 낯-부끄럽다. [전역] = 눗-부치럽다.

눗-부치럽다 형 [전역] → 눗-부끄럽다.

눗-붉다 형 낯이 붉다. *눗붉은 예펜 스주 센다.(낯붉은 여자 사주 세다.) [전역]

ᄂᆞᆺ-붉히다 동 낯-붉히다. 부끄럽거나 뒤틀려서 얼굴빛을 붉게 하다. *용심나민 ᄂᆞᆺ붉히멍 말ᄒᆞᆫ다.(화나면 낯 붉히면서 말한다.) [전역]

ᄂᆞᆺ-빗 명 낯-빛. 얼굴-빛. [전역] = ᄂᆞᆺ-색.

ᄂᆞᆺ-색 명 [전역] = ᄂᆞᆺ-빗.

ᄂᆞᆺ-서툴다 형 [전역] → ᄂᆞᆺ-설다.

ᄂᆞᆺ-설다 형 낯-설다. [전역] = ᄂᆞᆺ-서툴다. 고ᄂᆞᆺ설다.

ᄂᆞᆺ-ᄉᆞ레 명 [서홍 수산] → 세숫-대양.

ᄂᆞᆺ-솔 명 낯-살. 얼굴의 살. *자인 ᄂᆞᆺ솔이 뽕뽕ᄒᆞ다.(저 애는 낯살이 빵빵하다.) [전역]

ᄂᆞᆺ-싸움 명 여드름. [전역]

ᄂᆞᆺ-알다 동 낯-알다. 얼굴을 기억하고 알아보다. [전역]

ᄂᆞᆺ-알름 명 <민> 낯 알림. 신에게 인사를 드리는 행위. [김녕]

ᄂᆞᆺ알림-녜 명 <민> 얼굴 알림으로 주는 예물. 저승에 갔을 때 먼저 저승에 가 있는 친지, 친족들에게 저승에 왔음을 알리면서 드리는 예물(禮物). [전역]

ᄂᆞᆺ-익다 형 낯-익다. [전역]

ᄂᆞᆺ-익숙다 형 [전역] → ᄂᆞᆺ-잇다.

ᄂᆞᆺ-잇다 형 안면이 좀 있다. *간 보난 ᄂᆞᆺ잇인 사름은 아무도 엇어라.(가서 보니 안면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 [전역] = ᄂᆞᆺ-익숙다.

ᄂᆞᆺ-짝 명 '낯'을 속되게 이르는 말. [전역] = ᄂᆞᆺ-바닥, ᄂᆞᆺ-판, ᄂᆞᆺ-판데기.

ᄂᆞᆺ-판 명 [전역] → ᄂᆞᆺ-짝.

ᄂᆞᆺ-판데기 명 [전역] → ᄂᆞᆺ-짝.

ᄂᆞᆺ게-네기다 동 [전역] → ᄂᆞᆺ이-네기다.

ᄂᆞᆺ다[1] 형 *저딘 노프고, 이딘 ᄂᆞᆺ다.(저곳은 높고, 이곳은 낮다.) [전역] → ᄂᆞ잡다.

ᄂᆞᆺ다[2] 형 나쁘다. *ᄂᆞᆺ인 일랑 ᄒᆞ지 말라.(나쁜 일은 하지 마라.) [전역]

ᄂᆞᆺ-이[1] 부 높이가 낮게. *제비생이 ᄂᆞᆺ이 뜨민 우친다.(제비가 낮게 뜨면 비 온다.) [전역]

ᄂᆞᆺ-이[2] 부 나쁘고 언짢게. *아이나 어룬이나 ᄂᆞᆺ이 구는 딘 안 간다.(아이나 어른이나 나쁘게 구는 데는 안 간다.) [전역]

ᄂᆞᆺ이-네기다 동 나지리-여기다. 남을 자기보다 훨씬 낮은 양으로 업신여기다. [전역] = ᄂᆞᆺ게-네기다.

ᄂᆞᆺ-이다 형 나쁘다. 좋지 않다. [전역]

ᄂᆞᆺ이-보다 동 낮추-보다. [전역]

ᄂᆞᆺ-추다 동 낮-추다. 낮게 하다. *물건 깝을 너무 ᄂᆞᆺ추지랑 말라.(물건값을 너무 낮추지는 마라.) [전역]

ㄷ

-다[1] 어미 -다. ① 체언이나 형용사의 어간에 붙어서 화자가 그 사실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② 용언의 어간에 붙은 '-앗-·-엇-·-였-·-랐-' 등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를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③ 용언의 어간에 붙은 '-ㅂ데-·-ㅂ디-·-ㅂ네-·-ㅂ니-' 등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사실을 회상하거나 직접 지시·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④ 용언의 어간에 붙은 '-암십데-·-엄십데-·-염십데-·-람십데-' 등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과거 경험한 동작이나 상태의 계속을 회상하면서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⑤ 용언의 어간에 붙은 '-아십데-·-어십데-·-여십데-·-라십데-' 등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과거 경험한 그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를 회상하면서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⑥ 용언의 어간에 붙은 '-암수-·-엄수-·-염수-·-람수-' 등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를 계속하고 있음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⑦ 용언의 어간에 붙은 '-앗수-·-엇수-·-였수-·-랐수-' 등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끝나 있음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⑧ 형용사의 어간이나 체언에 붙은 '-우-'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사실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⑨ 용언의 어간에 붙은 '-리우-'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사실에 대한 추측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⑩ 용언의 어간에 붙은 '-쿠-'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화자의 의도를, 또는 그 사태에 대한 추측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⑪ 동사의 어간에 붙은 '-암시쿠-·-엄시쿠-·-염시쿠-·-람시쿠-' 등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상태의 계속에 대한 의도 또는 추측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⑫ 동사의 어간에 붙은 '-아시쿠-·-어시쿠-·-여시쿠-·-라시쿠-' 등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상태의 완료에 대한 의도 또는 추측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다[2] 어미 -나. ① 동사의 어간에 붙은 '-안-·-언-·-연-·-란-' 등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상대방의 동작의 완료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② 동사의 어간에 붙은 '-암-·-엄-·-염-·-람-' 등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상대방의 동작의 계속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다가-사다 동 다가-서다. *너미 가찹게 다가사지 말라.(너무 가깝게 다가서지 마라.) [전역]

-다가설란 어미 연결어미 '-다가'에 특수조사인 '-ㄹ란'이 결합한 형태의 연결어미. *보내연 ᄒᆞᆫ 삼 년 잇다가설란 그 거북이 ᄉᆞ제신디 말ᄒᆞ는디.(보내어서 한 삼 년 있다가는 그 거북이 사자(使者)에게 말을 하는데.) [전역]

다가-앚다 동 다가-앉다. *더 앞더레 다가앚이라.(더 앞으로 다가앉아라.) [전역]

다가-오다 동 다가-오다. *식것날이 다가왐저.(제삿날이 다가온다.) [전역]

다간 명 두습. 소(牛)의 나이 두 살. [전역]

-다간 어미 -다간. 앞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면 뒤에 좋지 못한 결과가 따르게 된다는 뜻으로, 앞 동작을 경계하는 연결어미. [전역]

다간-노리 명 <동> 두 살짜리 노루. *수컷 다간노리는 뿔도 절반만 나오주.(수컷 두 살 된 노루는 뿔도 절반만 나오지.) [교래]

다간-돌음 명 두 살짜리 소를 돌보는 윤번(輪番). [신양]

다간-부릉이 명 <동> 두 살짜리 부룩송아지. [전역]

다간-송아지 명 <동> [전역] → 다간-송애기.

다간-송애기 명 <동> 나이가 두 살이 된 부룩송아지. *하르방이 다간송애기로 대왓을 갈아낫젱 ᄒᆞ여.(할아버지가 두습 송아지로 대밭을 갈았었다고 해.) [전역] = 다간-송아지.

다간죽 명 <식> [전역] → 다근죽-낭.

다간죽-낭 명 <식> [화순] → 다근죽-낭.

다게 명 [노형 조수 인성] → 마게.

다구-지다 형 다기-지다. *그 사름 족아도 춤 다구지게 일ᄒᆞ메.(그 사람 작아도 참으로 다기지게 일을 하지.) [전역] = 다귀-지다, 다귀-차다, 다기-지다.

다구-치다 동 다그-치다. 몰아-붙이다. *좀 쉬멍도 ᄒᆞ게 너미 다구치지 말라게.(좀 쉬면서도 하게 너무 다그치지 마라.) [전역]

다굼-바리 명 <동> 다금-바리. [전역] = 다금-바리.

다귀-지다 형 [전역] → 다구-지다.

다귀-차다 형 [전역] → 다구-지다.

-다근 어미 -다가. [전역] = -다근, -당근, -당은.

-다근에 어미 -다가는. 앞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면 뒤에 좋지 못한 결과가 따르게 된다는 뜻으로, 앞의 행동을 더욱 세게 경계하는 연결어미. *어려운 일도 나민

잇다근에 헤결ᄒᆞ곡 ᄒᆞ는 관논디.(어려운 일도 생기면 있다가는 해결하고 하는 관노(官奴)인데.) [전역] = -다네, -당근에, -당은에.

다근죽-낭 명 <식> 예덕-나무.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다간죽, 다간죽-낭, 닥-낭, 복닥-낭, 쉐-닥낭.



다근죽낭

다글-다글 부 ① 곧 걷기 시작한 어린 아이가 서툴고 재게 걸어가는 모양. ＊제법 다글다글 걷기 시작헴서라.(제법 다글다글 걷기 시작하고 있더라.) [전역] = ᄃᆞ글-ᄃᆞ글. ② 물건이 굴러가는 모습. ＊상방에서 다글다글 둥그렴서라.(마루에서 다글다글 굴리고 있더라.) [전역] ③ 물건이 서로 부딪쳐서 나는 소리. ＊그릇은 잘못 놩 지민 다글다글 소리 난다.(그릇은 잘못 넣어서 지면 '다글다글' 소리 난다.) [전역] = 다글락-다글락.

다글락-다글락 부 ＊사발 다댁이는 소리가 다글락다글락 남저.(사발 부딪치는 소리가 '다글락다글락' 나고 있다.) [전역] → 다글-다글③.

다금-바리 명 <동> [전역] → 다굼-바리.

다급-ᄒᆞ다 형 다급-하다. 몹시 급하다. [전역]

다기-지다 형 [전역] → 다구-지다.

다김 명 [전역] → 다짐.

다김-받다 동 [노형 조수 인성] → 다짐-받다.

다끄-내 명 <지> ① 제주시 용담3동의 한 포구. [용담] = 다끈-개. ② 제주시 용담3동의 한 자연마을. [용담] = 수근동(修根洞).

다끄다[1] 동 고다. 술 따위를 얻기 위하여 김을 내어 증류시키다. ＊느네 집의 술 다깜시냐?(너희 집에 술 고고 있니?) [전역]

다끄다[2] 동 닦다. [전역]

다끈-개 명 <지> [용담] → 다끄-내.

-다네 어미 -다가는. ＊그 물에 틔운 배를 오곳오곳 혼자 들러다네 숨부기왓에 놔 부렷어.(그 물에 띄운 배를 차근차근 혼자 들어다 순비기나무밭에 놓아 버렸어.) [전역] → -다근에.

-다는디 어미 -다던데. ＊그래도 뭐 실물ᄒᆞᆫ 일이 있다는디.(그래도 뭐 실물(失物)한 일이 있다던데.) [전역]

다님 명 <의> 대님. [서홍 수산 가시김녕] = 다림, 뎅김. 고다님.

다님-치다 동 대님을 매다. [서홍 수산] = 다림-치다.

다닥-다닥 부 다닥-다닥. ① 자그마한 것들이 한곳에 많이 붙어 있는 모양. ＊바당에 간 보난 돌에 군벗이 다닥다닥 붙어십디다.(바다에 가 보니 돌에 군부가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전역] ② 보기 흉할 정도로 지저분하게 여기저기 기운 모양. ＊옛

날사 사름마다 믄 옷을 다닥다닥 주우멍 입엇주.(옛날이야 사람마다 모두 옷을 다닥다닥 기우면서 입었지.) [전역] = 대닥-대닥, 대작-대작.

다닥-이다 동 다닥-치다. [전역] = 다댁-이다.

다댁-이다 동 [전역] → 다닥-이다.

다데 명 <민> 당에 갈 때 제물로 바치는 동글납작한 떡. [애월 봉성] = 다데-떡, 당-다데.

다데-떡 명 <민> [애월 봉성] → 다데.

다도왁-다도왁 부 다달-다달. *ᄋᆞ망진 체 다ᄒᆞ멍 어른 아피 가난 다도왁다도왁 헴신게.(똑똑한 척 다하면서 어른 앞에 가니까 다달다달 하네.) [전역]

다도-테기 명 <도> 용적(容積)이 두 되(升) 드는 크기의 솥.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닷뒈-들이, 닷뒈-테기.

다독-거리다 동 다달-거리다. [전역]

다두-아리 명 [노형 조수 인성] → 더두-아리.

다둘리다 동 [노형 조수 인성] → 다울리다.

다-뒈다 형 다-되다. 무슨 일이 완전히 그릇되거나 끝난 상태에 있다. *대가 끈어젼 그 집안도 다뒛서.(대가 끊겨서 그 집안도 다됐다.) [전역]

다듬다 동 다듬다. [전역]

다돋다 동 다다르다. [전역]

다라-미 명 <지> [전역] → ᄃᆞ라-미[2].

다라-콧 명 <지> [월평] → 다라-쿳.

다라-쿳 명 <지> 제주시 월평동(月坪洞)의 옛 이름. [월평] = 다라-콧, ᄃᆞ라-쿳, ᄃᆞ락-못.

다락[1] 명 <건> 다락(樓). [전역] = ᄃᆞ락.

다락[2] 부 힘차게 힘을 가하여 맞게 하는 모양. 또는 그 소리. *발로 다락 차불카?(발로 '다락' 차버릴까?) [전역]

다락-다락 부 ① 힘을 내서 던지는 모양. *담돌로 다락다락 마쳐 불라.(돌멩이로 다락다락 쏘아 버려라.) [전역] ② 주렁-주렁. 열매 따위가 많이 열어 빽빽하게 달린 모양. *감이 다락다락 올앗어라.(감이 다락다락 열었더라.) [전역] = 지랑-지랑①. ③ 열매 따위가 마구 떨어지는 모양. *ᄇᆞ름 불민 낭 올매가 다락다락 털어진다.(바람 불면 나무열매가 다락다락 떨어진다.) [전역] = 다륵-다륵.

다랑-곳 명 <지> [노형] → ᄃᆞ랑-곳.

다랑-굿 명 <지> [노형] → ᄃᆞ랑-곳.

다랑-다랑 부 식구가 많이 딸려 있어 북적거리는 모양. *애기도 다랑다랑 이신디 어딜 가?(아기도 '다랑다랑' 있는데 어디를 가?) [전역]

다랑-쉬 명 <지> [전역] → ᄃᆞ랑-쉬.

다래-오름 명 <지> [전역] → ᄃᆞ레-오름[1].

다루다[1] 동 용도에 맞게 잘 처리하다. *난 기겡일 잘 다룬다.(난 기계를 잘 다룬다.) [전역] = 달루다[3].

다루다[2] 동 *대껍풀을 얇게 다룬다.(대껍질을 얇게 다룬다.) [전역] → 달루다[2].

다르다 형 *(속) ᄒᆞ영 다르곡, 안 ᄒᆞ영 다르다.(해서 다르고, 안 해서 다르다.) [전역] → ᄐᆞ나다. 고 다ᄅᆞ다.

다르륵기 부 동그란 물건들이 단단한 바닥에 떨어지면서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전역]

다르륵-다르륵 부 *꿰뭇을 거꾸로 들렁 털어사 다드륵다르륵 잘 털어진다.(참깨 묶음은 거꾸로 들어서 떨어야 '다르륵다르륵' 잘 떨어진다.) [전역] → 다륵-다륵.

다륵-다륵 부 물방울 따위가 떨어지는 모양. *눈물을 다륵다륵 흘렴저.(눈물을 '다륵다륵' 흘리고 있다.) [전역] = 다르륵-다르륵.

다리 명 다리(脚). [전역] = 가달[1].

다리다[1] 동 다리다. [전역]

다리다[2] 동 다지다. 누르거나 밟아서 단단하게 하다. *집을 짓젠ᄒᆞ민 바닥부텀 잘 다려야 ᄒᆞ주.(집을 지으려고 하면 바닥부터 잘 다져야 하지.) [전역]

다리-뼈 명 다리-뼈(腿骨). [전역]

다리-웨 명 <도> 다리미(熨). [전역]

다리웨-질 명 다림-질. [전역] = 다림-질.

다림 명 <의> [조수 노형 인성] → 다님.

다림-질 명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다리웨-질.

다림-치다 동 [인성 노형 조수] → 다님-치다.

다멀 명 *옛날엔 다멀 보멍 시간 가늠해낫주.(옛날에는 '다멀' 보면서 시간 가늠했었지.) [행원] → 다ᄆᆞᆯ.

다물다 동 다물다. *무사 경 입 꽉 다물앙 시니?(왜 그렇게 입을 꼭 다물어 있느냐?) [전역]

다믄 부 다만. [전역] = 달믄. 고 다문.

-다민 어미 -다면. '-다고 하면'의 준말. [전역] = -데민.

다ᄆᆞᆯ 명 밤에 한군데 여럿이 총총히 모여서 반짝이는 별(星). 제주도 농어촌에서는 이 별자리의 위치에 따라 시각을 짐작하고 함. [전역] = 다멀.

다박-주 명 <음> 탁주(濁酒). [전역]

다발 명 다발. 꽃이나 푸성귀, 베어낸 곡식 따위의 묶음. *이 미내기 ᄒᆞᆫ 다발 깝이 얼메꽈?(이 미나리 한 다발 값이 얼마입니까?) [전역] = 다불, 단.

다보새 명 [어음] → 자부세.

다복(多福) 명 다복. 복이 많음. [전역]

다복-다복 부 다복-다복. 풀이나 나무 따위가 여기저기 아주 탐스럽게 소복한 모양. [전역]

다복-ᄒᆞ다(多福--) 형 다복-하다. 복이 많다. *ᄌᆞ식 용시 잘뒈난 다복ᄒᆞ다.(자식 농사 잘되니 다복하다.) [전역]

다불 명 [전역] → 다발.

다불리다 동 [노형 인성] → 다울리다.

-다서 어미 -다가. *그렇게 던져 놓고 산듸를 무끄들 않고 그자 언주와다서 말이여.(그렇게 던져 놓고 밭벼를 묶지 않고 그저 그러모아서 말이야.) *안아다서 그레 놓고 놓고 헤서 눌을 눌어.(안아다가 그리 놓고 놓고 해서 가리를 만들어.) *일ᄒᆞ는 사름이 육지 가서 쏠을 날라다서 ᄑᆞ는디.(일하는 사람이 육지에 가서 쌀을 날라다가 파는데.) [전역] → -당.

다서-용궁(--龍宮) 명 <민> 다섯 용궁. 오방(五方)의 용궁(龍宮). [전역]

다서-ᄒᆞ다 형 [전역] → 다ᄉᆞ-ᄒᆞ다.

다섯 수 [전역] → 다ᄉᆞᆺ.

다섯-차 수관 다섯-째. [전역] = 다섯-채.
다섯-채 수관 [전역] → 다섯-차.
다섯콜-방에 명 다섯 사람이 둘러서서 서로 절굿공이가 부딪치지 않게 간격을 맞추어 찧는 방아. *그 메누리 간 후에는 방에를 짛는 디도 다섯콜 방에도 새만 맞아가거든.(그 며느리 가고 난 후에는 방아를 찧는 곳도 '다섯콜방아'도 새만 맞아가거든. 방아 찧는 일이 능숙하여 일을 잘했다는 뜻임.) [구좌]
다솝 명 [태흥 조천] → 다습.
다스리다[1] 동 다스리다. [전역]
다스리다[2] 동 먹글씨 같은 것에 한번 삐침한 데를 여러 번 다듬어 긋다. [전역]
다슴- 두 '대를 잇는' 또는 '데리고 들어온'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 [전역]
다슴-똘 명 의붓-딸. 개가(改嫁)하여 온 집의 전처(前妻)의 딸 또는 후처(後妻)가 데리고 온 전남편의 딸. [전역] = 다심-똘.
다슴-아돌 명 의붓-아들. 개가(改嫁)하여 온 집의 전처(前妻)의 아들 또는 후처(後妻)가 데리고 온 전남편의 아들. [전역] = 다심-아돌.
다슴-아방 명 의붓-아비(繼父). [전역] = 다심-아방. 고다슴아비.
다슴-애기 명 개가(改嫁)하여 온 집의 전처(前妻)의 자식이나 또는 후실(後室)이 데리고 온 전남편의 자식을 귀엽게 이르는 말. *잇날 다슴애기 똘 ᄒᆞ나 ᄃᆞᆯ안. 큰어멍 죽어 부난 큰어멍에도 똘이 ᄒᆞ나 싯고, 족은어멍에도 똘을 ᄒᆞ나 ᄃᆞᆯ안 와신디.(옛날 '다슴애기' 딸 하나 데렸어. 큰어머니 죽어 버리니 큰어머니에게도 딸이 하나 있고, 작은어머니에게도 딸을 하나 데리고 왔는데.) [전역]
다슴-어멍 명 의붓-어미(繼母). [전역] = 다심-어멍. 고다슴어미.
다슴-ᄌᆞ식 명 의붓-자식. 개가(改嫁)하여 온 집의 전처(前妻)의 자식 혹은 후실(後室)이 데리고 온 전남편의 자식. [전역] = 다심-ᄌᆞ식.
다슴-태 명 의붓자식을 차별해서 학대하는 태도. *지 속으로 안 낫젱 다슴태 말라.(제 속으로 안 났다고 '다슴태' 마라.) [전역]
다슴태-ᄒᆞ다 동 의붓자식을 차별하고 학대하다. *옛날은 무사 경 다슴태 ᄒᆞ엿인고? (옛날은 왜 그렇게 의붓자식을 차별하고 학대하였을까?) [전역] = 다심태-ᄒᆞ다.
다습 명 다습. 소(牛) 나이의 다섯 살. [전역] = 다솝.
다습-부룽이 명 <동> 나이가 다섯 살 된 부룩소. [전역]
다숫 수 [서홍 수산 김녕] → 다섯.
다숫-물 명 [서홍 태흥] → 다섯-물[2].
다시 부 다시(復). [전역] = 따시.
다시다 동 다시다. [전역]
다시-엇다 형 다시-없다. 그 이상 나은 것이 없다. *그추룩 어진 사름은 다시엇나.(그처럼 어진 사람은 다시 없다.) [전역] = 다시-웃다.
다시-웃다 형 [전역] → 다시-엇다.
다심-똘 명 [김녕 조수] → 다슴-똘.
다심-아돌 명 [김녕 조수] → 다슴-아돌.

다심-아방 명 *(속) 다심아방 돗궤기 써는 디랑 가곡, 원아방 낭 깨는 디랑 가지 말라.(의붓아버지 돼지고기 써는 데는 가고, 친아버지 나무 깨는 데는 가지 마라.) [전역] → 다슴-아방.

다심-어멍 명 *다심어멍 묻은 딘 소왕이가 소왕소왕, 놀을 들런 케젠 ᄒᆞ난 웃음 제완 못 케곡, 원어멍 묻은 딘 반짓ᄂᆞ물이 반질반질 고와도 놀을 들런 케젠 ᄒᆞ난, 눈물제완 못 켄다.(의붓어미 묻은 데는 엉겅퀴가 꺼끌꺼끌, 날을 들고서 캐려고 하니 웃음 겨워서 못 캐고, 낳은 어머니 묻은 곳은 '반짓나물'이 반질반질 고와도 날을 들고서 캐려고 하니 눈물겨워 못 캔다.) *(속) 어려와 가민 다심어멍 꿰 ᄑᆞ는 디 간다.(어려워 가면 의붓어미 깨 파는 곳에 간다.) *(속) ᄒᆞᆫ 방울 두 방울 털어지는 빈 다심어멍 죽은 디 눈물 닮나.(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는 비는 의붓어미 죽은 곳의 눈물 같다.) [전역] → 다슴-어멍.

다심-ᄌᆞ식 명 [전역] → 다슴-ᄌᆞ식.

다심태-ᄒᆞ다 동 [전역] → 다슴태-ᄒᆞ다.

다ᄉᆞ-ᄒᆞ다 형 다사-스럽다(多事---). 일이 많다. 일이 바쁘다. *그 사름은 늘 다ᄉᆞᄒᆞᆫ다.(그 사람은 늘 다사하다.) [전역] = 다서-ᄒᆞ다.

다섯 수 다섯(五). [전역] = 다섯, 다슷.

다섯-물[1] 명 [인성 화순 하원 노형 어도 조수] → ᄋᆞ섯-물[2].

다섯-물[2] 명 음력 열사흘과 스무여드렛날의 조수(潮水). [표선 세화 조천 노형] = 너-물, 다슷-물.

-다여 어미 -다고 하여. *경ᄒᆞ니까 그 사름이 짚세기를 삼아서 어디 베낏디 지둥 공장에 간 걸언 놔뒷다여.(그러니까 그 사람이 짚신을 삼아서 어디 바깥에 기둥 걸이에 가서 걸어서 놓아두었다고 하여.) [전역]

다울리다 동 급히 몰아서 쫓다. *이놈 오지 못ᄒᆞ게 다울련 놔두난, 아, 우리 셍명을 살린 개라.(이놈 오지 말라고 내쫓아서 놔두었는데, 아, 우리 생명을 살린 개야.) [전역] = 다둘리다, 다불리다.

다웨 명 <지> [도두] → 다위-마을.

다위 명 <지> [도두] → 다위-마을.

다위-마을 명 <지> 제주시 도두2동의 한 자연마을. [도두] = 다웨, 다위, 다호.

다으다 동 [전역] → 닿다[2].

다음 명 다음. 어떤 차례의 바로 뒤. [전역]

다음-날 명 다음-날. 다음에 오는 날. *멩질 다음날랑 오라.(명절 다음날에 와라.) [전역]

다음-돌 명 다음-달. [전역] = 버금-돌.

다음-해 명 다음-해. 어떤 해의 다음에 오는 해. *올희 못ᄒᆞ민 다음해도 못ᄒᆞᆫ다.(올해 못하면 다음해도 못한다.) [전역] = 버금-해.

다웃 명 용암으로 이루어진, 바다와 갯벌로 이루어진 바다의 경계 지점. [대포]

다이다[1] 동 닳다. [전역]

다이다[2] 동 [전역] → 대다[2].

다정(多情) 명 다정. 정이 많음. *다정

도 벵이여.(다정도 병이다.) [전역]

다정-ᄒᆞ다(多情--) 형 다정-하다. * 다정ᄒᆞᆫ 사름일수록 눈물이 하주.(다정한 사람일수록 눈물이 많지.) [전역]

다조치다 동 뒤에서 바싹 쫓다. [전역]

다지다 동 ① 다지다. 무엇을 밟거나 두드려서 굳게 하다. * 진흑땅을 잘 다지라.(진흙땅을 잘 다져라.) [전역] ② 칼질해서 잘게 만들다. * 질긴 쉐궤긴 잘 다졍 구어사 보드랍나.(질긴 쇠고기는 잘 다져서 구워야 부드럽다.) [전역]

다짐 명 다짐. [노형 서홍 가시 수산] = 다김, 대김.

다짐-받다 동 단단히 다져서 확실한 대답을 받다. [서홍 조수 노형 인성] = 다김-받다, 대김-받다.

다찌 명 <동> 독-가시치. [하도]

다치다 동 다치다. [전역]

다행(多幸) 명 다행. [전역]

다행-이 부 다행-히. [전역]

다행-ᄒᆞ다(多幸--) 형 다행-하다. * 죽지 안 ᄒᆞ난 다행ᄒᆞᆫ 일이여.(죽지 않으니 다행한 일이야.) [전역]

다호 명 <지> [도두] → 다위-마을.

다히다 동 닳다. 물건이 오래 쓰이어 모지라지다. [전역]

다-ᄒᆞ다 동 다-하다(盡). [전역]

닥 명 <식> ① 닥-나무. [전역] ② 닥나무 껍질의 준말. [전역]

닥-낭 명 <식> ① 닥-나무. [전역] ② 꾸지-나무. [전역] ③ 예덕-나무. [전역]

닥닥[1] 부 ① 물체가 서로 부딪칠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막뎅이로 닥닥 두드리멍 털라.(막대기로 닥닥 두들기면서 떨어라.) [전역] ② 추위에 떨거나 이가 위아래로 맞부딪쳐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 하도 얼어노난 아귈 닥닥 좃암저.(하도 추우니까 입아귀를 닥닥 찧고 있다.) [전역]

닥닥[2] 부 덜덜. 춥거나 무서워서 몸을 몹시 떠는 모양. * 베꼇듸서 박박 털지 말앙 ᄒᆞᆫ저 구들에 들어글라.(바깥에서 덜덜 떨지 말고 어서 방에 들어가자.) [전역]

닥닥[3] 부 뚝뚝. 물이 연이어 떨어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전역]

닥-돔 명 <동> 독-돔. [인성 서홍 김녕 조수] = 듹-돔.

닥-ᄆᆞ르 명 [한경] <지> → 당-ᄆᆞ를.

닥-ᄆᆞ를 명 [한경] <지> → 당-ᄆᆞ를.

닥-몰 명 <지> [한경] → 당-ᄆᆞ를.

닥몰-오름 명 <지> 제주시 한경면 '닥몰'(저지리의 옛이름) 저청초중학교 북쪽에 있는 오름. 위에 둘레 약 850미터, 깊이 72미터의 깔때기형 분화구가 있음. 표고 239미터. [전역] = 당몰-오름, 새-오름, 생이-오름[2], 시-오름[1], 저지-악(楮旨岳).

닥살 명 [조수] → 작살[1].

닥지 명 딱지. [전역] = 딱지.

닥지-벗다 동 상한 자리에 있는 피나 진물이 말라붙은 조각이 떨어지다. [전역]

닥지-입다 동 딱지가 생기다. [전역]

닥치다 동 닥치다. 무슨 일이나 물건 따위가 가까이 바싹 다다르다. * 미리 서둘지 안 ᄒᆞ엿당 앞이 닥쳐사

훼걸음 ᄒᆞᆫ다.(미리 서둘지 않았다가 앞에 닥쳐야 빠른 걸음 한다.) [전역]

닦달-ᄒᆞ다 동 닦달-하다. 남을 단단히 윽박질러서 혼을 내다. [전역]

단[1](壇) 명 <민> ① 제단(祭壇). 제사를 지내기 위해 지면보다 높게 만든 단(壇). ＊제물을 단에 올려놓으라.(제물을 단에 올려놓아라.) [전역] ② 평지보다 높게 만든 강단이나 교단 따위. ＊연설은 단에 올랑 ᄒᆞ는 게 좋나.(연설은 단에 올라서 하는 것이 좋다.) [전역]

단[2] 명 ① 묶음. 다발. ＊빨리 왕 보릿단 날르라.(빨리 와서 보릿단 날라라.) [전역] ② 짚·채소·장작 따위의 묶음을 세는 단위. ＊ᄂᆞᄆᆞᆯ 두 단만 상 오라.(나물 두 단만 사 와라.) [전역] = 다발, 다불.

단[3] 명 '옷단'의 준말. 옷의 끝자락을 안쪽으로 접어 붙이거나 감친 부분. ＊옷단은 풀어지민 지랑ᄒᆞ영 보기 궂나.(옷단은 풀어지면 늘어져서 보기 싫다.) [전역]

단[4] 명 숟가락 따위 열 개를 한 단위로 하여 세는 말. [전역]

단- 두 단-. [전역]

-단[1] 어미 -다가. ① 이미 지난 두 동작에 있어서, 앞의 동작이 그치고 다음 동작에 중심을 두어 말할 때, 그 앞의 동작을 표시하는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그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ᄒᆞᆫ 번은 어디 드르 뎅기단 보난 누게가 밧디서 앚안 똥을 쌈서.(한 번은 어디 들에 다니다가 보니까 누군가가 밭에 앉아서 똥을 누고 있어.) [전역] ② 이미 지난 두 동작에 있어서, 앞 뒤의 동작이 관련성 있게 행해짐을 말할 때, 앞에 나오는 용언 어간에 붙는 '-아-·-어-·-여-·-라-' 또는 '-앗-·-엇-·-엿-·-랏-' 등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 다음 동작에 내용상 연속되어 나감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궤기 잡으레 갓단 아방도 잃으고 배 넘어젼 나도 큰 고생을 ᄒᆞ난 따시 배 탈 셍각이 엇우다.(고기 잡으러 갔다가 아버지도 잃고 배가 엎어져서 나도 큰 고생을 하니, 다시는 배를 탈 생각이 없습니다.) [전역]

-단[2] 어미 -던. ① 용언 어간에 붙어서 지난 일을 회상하여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ᄒᆞ단 일이랑 마저 ᄒᆞ라.(하던 일은 마저 해라.) [전역] ② 용언 어간에 붙은 '-앗-·-엇-·-랏-·-엿-' 등에 연결되어서, 지난 일을 회상하여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장실 ᄒᆞᆫ 번 헤 보젠 ᄆᆞᆯ ᄒᆞᆫ두 ᄆᆞ리 삿단 거 풀안 돈을 마련ᄒᆞ고.(장사를 한 번 해 보려고 말 한두 마리 샀던 것을 팔아서 돈을 마련하고.) [전역] = -던.

단골 명 <민> 한 무당에 딸린 신앙민(信仰民)들. 상(上)단골·중(中)단골·하(下)단골로 나뉨. [전역]

단-내 명 단-내. 몸 속이 달아 입이나 코에서 나는 냄새. ＊입안이서 단내 남저.(입안에서 단내 난다.) [전역]

단념(斷念) 명 단념. 품었던 생각을 아주 끊어버림. [전역]

단념-ᄒᆞ다 동 단념-하다. ＊안 뭴 건

미리 단념ᄒᆞ여사 좋나.(안 될 것은 미리 단념하여야 좋다.) [전역]

단닥-뿔 명 소대가리에 뾰족이 짧게 나온 뿔. [전역]

단단-의복(單單衣服) 명 <민> 단 한 벌밖에 없는 옷. '단'이 겹친 것은 조율(調律)을 위한 것. [전역] = 단단-입성.

단단-입성 명 <민> [전역] → 단단-의복.

-단도 어미 -다가도. ① 두 동작에 있어서, 앞의 동작이 그치고 다음 동작으로 옮겨서 말할 때, 그 앞의 동작을 표시하는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그침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② 이미 지난 두 동작에 있어서, 앞뒤의 동작이 관련성 있게 행해짐을 말할 때, 앞에 나오는 용언 어간에 붙은 '-아-·-어-·-여-·-라-' 또는 '-앗-·-엇-·-엿-·-랏-' 등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 다음 동작에 내용상 연결되어 나감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단-돈 명 아주 적은 돈의 액수를 강조하는 말. *단돈 ᄒᆞᆫ 푼이 어렵나.(단돈 한 푼이 어렵다.) [전역]

단-둘 명 단-둘. 단 두 사람. *단둘만 살암서라.(단둘만 살고 있더라.) *그 일은 단둘이 ᄒᆞ여도 뒌다.(그 일은 단둘이 하여도 된다.) [전역]

단-들이다 동 누구에게 어떤 지시에 어긋나지 말도록 잘 타이르다. [전역]

단-똘 명 [전역] → 웨-뚤.

단-메 명 <민> 제물로 올리는 메의 미칭. [전역]

단멩 명 단명(短命). 수명이 짧음. [전역]

단멩-ᄒᆞ다 형 단명-하다. *그 집안은 단멩ᄒᆞᆫ다.(그 집안은 단명한다.)

단박 명 단박. [전역]

단번(單番) 명 단번. 단 한 번. *으라 번 말앙 단번으로 끗내라.(여러 번 말고 단번으로 끝내라.) [전역]

단번-에 부 *웬만ᄒᆞᆫ 밧담쯤은 단번에 튀어넘나.(웬만한 밭담쯤은 단번에 뛰어넘는다.) [전역] = 단작[2].

단-불[1] 명 오직 한 벌의 옷. *옷도 단불이라라.(옷도 단벌이더라.) [전역] = 웨-불.

단-불[2] 명 단-불. 불이나 잉걸이 피어오르는 강한 열기. *놀궤긴 단불에 궈사 맛좋나.(날고기는 단불에 구워야 맛좋다.) [전역]

단불-치기 명 <농> 보리그루에 그대로 좁씨를 뿌리고 밭을 갈아 엎어 마소의 발로 밟아 줌으로써 파종을 마감하는 조 파종법의 하나. [어음]

단-산(簞山) 명 <지> [전역] → 바굼지-오름[1].

단서(端緖) 명 단서. 어떤 일의 실마리. *도독놈도 단서가 셔사 문책ᄒᆞᆫ다.(도둑놈도 단서가 있어야 문책한다.) [전역]

단-속옷 명 <의> 단-속곳. 맨 속에 입는 여인네의 속옷. [전역]

단수(段數) 명 단수. 수단이나 술수를 쓰는 재간의 정도. *그 사름 말ᄒᆞ는 단수가 보통이 아닌다.(그 사람 말하는 단수가 보통이 아니다.) [전역]

단숨-에 부 단숨-에. 쉬지 않고 곧장.

*싀 참 질을 단숨에 둘려 왓어라.(시오리 길을 단숨에 달려 왔더라.) [전역] = 흔숨-에.

단-아돌 명 [전역] → 웨-아돌.

-단에[1] 어미 -다가. 하던 동작이 그치고 다른 동작으로 옮기거나 다른 일이 생김을 말할 때, 앞에 나오는 용언의 어미 '-앗-·-엇-·-엿-·-랏-'에 붙어서 그 동작의 그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단에[2] 어미 -다가. 어떤 계속적인 두 동작을 말할 때 앞의 동사의 어미 '-아-·-어-·-여-'에 붙어서, 그 전제되는 동작을 더 세게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단웃-날(端午-) 명 단옷-날. [전역]

단작[1](單酌) 명 *헌관이 엇으민 단작으로 제 지낸다.(헌관이 없으면 단작으로 제사 지낸다.) [전역] → 단잔.

단작[2] 부 단박. 당장. *ᄒᆞ고파시민 단작 헤실 거여.(하고팠으면 단박 했을 것이다.) [전역] = 단번에, 단작에, 담박, 담박에.

단작-에 부 단결-에. [전역]

단잔(單盞) 명 단잔. 외잔. 한잔. 제사 때 올리는 단 한잔의 술. *단잔 술에 눈물나곡, 두 잔 술에 웃음난다.(단잔 술에 눈물나고, 두 잔 술에 웃음난다.) [전역] = 단작, 웨잔, 흔잔.

단절(斷絶) 명 단절. 연락이나 유대 관계가 끊김. *요샌 소식이 단절이 주.(요새는 소식이 끊겼지.)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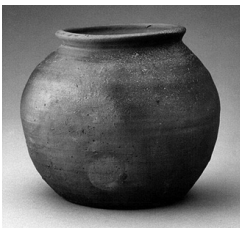
단절-ᄒᆞ다 동 단절-하다. 연락이나 유대를 끊다. *어디 강 살아도 소식이랑 단절ᄒᆞ지 말라.(어디 가서 살더라도 소식은 단절하지 마라.) [전역]

단정(斷定) 명 단정.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함. *섣불른 단정은 금물인다.(섣부른 단정은 금물이다.) [전역]

단정-ᄒᆞ다 동 단정-하다. *지 멋대로 단정ᄒᆞ지 말라.(자기 멋대로 단정(斷定)하지 마라.) [전역]

단주(短珠) 명 <민> 손목에 차는 짧은 염주. 합장주(合掌珠). [전역]

단지 명 <도> 단지. 아주 조그마한 항아리. [전역]



단지

단지다 동 막-히다. 걸-리다. *구시월 수가지도 어멍 셍각ᄒᆞ민 목 단지엉 못 먹나.(구, 시월 수가지(물기가 많은 가지)도 어머니 생각하면 목 막혀서 못 먹는다.) [전역] = 걸-리다, 막-히다, 멕-히다.

단짝 명 매우 친해서 잘 어울리는 사이. *우리 아이광 그네 아인 단짝이여.(우리 아이와 너의 아이는 단짝이다.) [전역]

단초 명 [전역] → 단추.

단추 명 단추. 옷고름 대신으로 쓰는 제구. [전역] = 단초.

단침-에 부 단 한 번의 침으로. *그 의원은 단침에 고친덴 ᄀᆞᆯ아라.(그 의원은 단 한 번 침으로 고친다고 말

하더라.) [전역]

단-칸 명 단-칸(單間). 단 한 칸. *집은 단칸이라도 돈은 핫저.(집은 단칸이라도 돈은 많다.) [전역] = 흔-칸.

단칸-방 명 단칸-방. 단칸짜리 방. *난 단칸방 빌언 살암저.(나는 단칸방 빌려서 살고 있다.) [전역] = 흔칸-방.

단칸-살렴 명 단칸-살림. [전역]

단칸-집 명 <건> 단칸-집. 방이 단 한 칸인 작은 집. *단칸집 신셀 못 멘흔다.(단칸집 신세를 못 면한다.) [전역] = 웨칸-집, 흔칸-집.

단칼-에 부 단칼-에. 단 한 번의 칼질로. *단칼에 베어 불어라.(단칼에 베어 버리더라.) [전역]

단-판(單-) 명 단-판. 단 한 번에 승패를 가르는 판. *풀씨름 단판으로 결판내게.(팔씨름 단판으로 결판내자.) [전역] = 흔-판.

단풍(丹楓) 명 단풍. 기후 변화로 식물의 잎이 붉은 빛이나 누런 빛으로 변하는 현상. 또는 그렇게 변한 잎. *ᄀᆞ을엔 단풍이 곱닥ᄒᆞ게 든다.(가을에는 단풍이 곱게 든다.) [전역]

단풍-낭 명 <식> 단풍-나무. [전역]

단풍-입 명 단풍-잎. 단풍이 든 잎사귀. [전역]

닫다 동 닫다(閉). [전역] = 더끄다[1].

닫-히다 동 닫-히다. '닫다'의 피동형. *이문이 ᄇᆞ름에 닫혓저.(대문이 바람에 닫혔다.) [전역]

달각-거리다 동 '달그락거리다'의 준말. [전역]

달각-달각 부 '달가닥달가닥'의 준말. [전역]

달강-달강 부 '달가당달가당'의 준말. [전역]

달강달강-ᄒᆞ다 동 '달그랑달그랑하다'의 준말. [전역]

달개비 명 <식> 닭의장-풀. [전역]



달개비

달구 소리[1] 명 <요> 장사를 치를 때 봉분을 만들고 달굿대로 다지면서 부르는 민요. [전역] = 달구짛는 소리, 달귀 소리, 달귀짛는 소리.

달구 소리[2] 명 <요> 집터를 단단히 다지면서 부르는 민요. [전역] = 달구짛는 소리, 달귀 소리, 달귀짛는 소리, 원달귀 소리.

달구짛는 소리 명 <요> [전역] → 달구 소리[1], 달구 소리[2].

달귀 명 <도> 달구. 평로(平路)를 단단히 다지는 데 쓰는 기구. [전역]

달귀 소리 명 <요> [전역] → 달구 소리[1], 달구 소리[2].

달귀짛는 소리 명 <요> [전역] → 달구 소리[1], 달구 소리[2].

달귀-짛다 동 달구-찧다. [전역]

달그락 부 물건이 맞부딪쳐서 흔들리면서 맞닿는 소리. *사기그릇은 포게영 놓을 땐 달그락 소리 난다.(사기그릇은 포개어서 놓을 때는 달그

락 소리가 난다.) [전역]

달그락-거리다 동 달그락-거리다. 물건이 맞부딪쳐서 흔들리면서 맞닿는 소리가 자꾸 나다. 또는 그런 소리를 자꾸 내다. *그릇덜은 싯젱 ᄒᆞ민 달그락거린다.(그릇들은 씻으려고 하면 달그락거린다.) [전역] = 달그락-대다.

달그락-달그락 부 달그락-달그락. 물건이 맞부딪쳐서 흔들리면서 맞닿는 소리. *문착이 ᄇᆞ름에 흔들언 달그락달그락 소리 남저.(문짝이 바람에 흔들려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고 있다.) [전역] = 돌그락-돌그락.

달그락달그락-ᄒᆞ다 동 달그락달그락-하다.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다. *그릇은 다대기민 달그락달그락ᄒᆞᆫ다.(그릇은 부딪치면 달락달그락한다.) [전역]

달그락-대다 동 *그릇 문직으멍 달그락대지 말라.(그릇 만지면서 달그락대지 마라.) [전역] → 달그락-거리다.

달그락-ᄒᆞ다 동 달그락-하다. 달그락 소리가 나다. *좁신 다대기민 달그락ᄒᆞᆫ다.(접시는 부딪치면 달그락한다.)

달그랑-거리다 동 달그랑-거리다. 얇고 작은 쇠붙이 따위가 맞부딪치거나 스쳐 울리는 소리가 자꾸 나다. 또는 그런 소리를 자꾸 내다. *방울이 달그랑거린다.(방울이 달그랑거린다.) [전역] = 달그랑-대다.

달그랑-달그랑 부 ① 달그랑-달그랑. 바퀴 따위가 굴러갈 때 나는 소리. *질 궂은 딘 ᄌᆞ동차도 달그랑달그랑 소리 난다.(길 나쁜 데는 자동차도 달그랑달그랑 소리 난다.) [전역] ② 물건이 서로 부딪쳐서 나는 소리. *그 통 안에 달그랑달그랑 소리나는 건 뭣고?(그 통 안에 달그랑달그랑 소리 나는 것은 뭐냐?) [전역]

달그랑달그랑-ᄒᆞ다 동 달그랑달그랑-하다. 얇고 작은 쇠붙이 따위가 자꾸 맞부딪치거나 스쳐 울리는 소리가 나다. 또는 자꾸 그런 소리를 내다. *문 잘 안 더끄민 달그랑달그랑ᄒᆞᆫ다.(문 잘 안 닫으면 달그랑달그랑한다.) [전역]

달그랑-대다 동 *솟두께 더끄멍 달그랑대지 말라.(솥뚜껑 덮으면서 달그랑대지 마라.) [전역] → 달그랑-거리다.

달다 동 달다. ① 버썩 뜨거워지다. [전역] ② 몸이 화끈거리다. [전역]

달달[1] 부 오들-오들. 춥거나 무서워서 떠는 모양. *너미 얼어 부난 달달 떨어졈저.(너무 추워 버리니 달달 떨어지네.) [전역] = 돌돌[1], 들들.

달달[2] 부 곡식 알갱이나 물 따위가 흘려서 떨어지는 모양. *밥 달달 흘치지 말앙 먹으라.(밥 달달 흘리지 말고 먹어라.) [전역]

달달[3] 부 괴롭게 졸라대는 모습. *무사 영 못 준디게 달달 보깜시니게?(왜 이렇게 못 견디게 달달 볶고 있느냐?) [전역] = 들들.

달달-거리다[1] 동 달달-거리다. 오들오들 떨다. *실련 달달거렴저.(시려서 오들오들 떨고 있다.) [전역] = 달달-대다.

달달-거리다[2] 동 못 견디게 졸라대다. *짓궂이 달달거리지 말라.(짓궂게

졸라대지 마라.) [전역] = 달달-대다.

달달-대다 동 [전역] → 달달-거리다[1], 달달-거리다[2].

달라-지다 동 달라-지다. *나 어듸가경 달라져시니?(나 어디가 그렇게 달라졌니?) [전역]

달레다 동 달래다. [전역]

달루다[1] 동 반죽이 되게 잘 되도록 이리저리 섞으며 다지다. [전역]

달루다[2] 동 다루다. 물건을 매만져서 부드럽게 만들다. [어도] = 다루다[2].

달루다[3] 동 [전역] → 다루다[1].

달르다 형 [전역] → ᄐᆞ나다.

달그랑-달그랑 부 달그랑-달그랑. [전역]

달므다 동 [전역] → 닮다.

달믄 부 [수산 어도] → 다믄.

달-ᄆᆞ루 명 <지>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1리 월지동에 있는 작은 오름. 표고 128미터. [표선] = 월지-봉(月旨峰), 탈-ᄆᆞ루.

달-산(達山) 명 <지>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중동 서쪽에 있는 오름. 조선 때 봉수대가 있었음. 표고 136.5미터. [표선] = 달산-봉(達山峰).

달산-봉(達山峰) 명 <지> [표선] → 달-산(達山).

닮다 동 닮다. 생김새가 같다. *모냥이 똑 닮다.(모양이 꼭 닮다.) [전역] = 달므다.

닮암직-ᄒᆞ다 형 그럴싸-하다. [전역]

담[1] 명 <병> [전역] → 담벵.

담[2] 명 담(墻). [전역]

담-걸리다 동 <병> 담병에 걸리다. *허리에 담걸리믄 ᄀᆞ딱 못ᄒᆞᆫ다.(허리에 담병 들면 까딱 못한다.) [전역] = 담-부트다.

담-고냥 명 담-구멍. 담에 난 구멍. *담고냥이 비룽비룽ᄒᆞ여사 ᄇᆞ름이 지나갈 거 아니가?(담구멍이 숭숭해야 바람이 지나갈 것 아닌가?) [전역] = 담-고망, 담-구녁.

담-고망 명 [전역] → 담-고냥.

담-고비 명 담(墻) 쌓은 것이 곧지 않고 한쪽으로 모지게 휘어들어 굽이진 곳. [전역]

담-구녁 명 [전역] → 담-고냥.

담-굽 명 ① 담장의 밑바닥. *담굽 옴프지 말라.(담 밑바닥 오비지 마라.) [전역] ② 담장을 쌓을 때 땅바닥에 까는 돌. *담굽을 ᄃᆞᆫᄃᆞᆫᄒᆞ게 놓아사 안 물러진다.(담장 바닥을 단단하게 놓아야 안 무너진다.) [전역]

담-금 명 담장 경계선. 담장을 경계로 하는 곳. *밧듸 담금 엇으믄 싸움난다.(밭에 담장 경계선이 없으면 싸움난다.) [전역]

담-ᄀᆞᆺ 명 담의 가장자리. [전역] = 담-어염, 담-에염, 담-엠, 담-의엄, 담-의염, 담-이엄.

담-너러지다 동 [인성 화순 하원] → 담-ᄆᆞᆯ아지다.

담-네려지다 동 [인성 서홍 수산] → 담-ᄆᆞᆯ아지다.

담다 동 담다. 그릇이나 자루 따위에 무엇을 넣다. *펭에 담아둔 술 엇어졋저.(병에 담아 둔 술이 없어졌다.) [전역]

담-답다 동 <건> 담-쌓다. 담을 만들다. *돌일 서툴믄 담답당 손 ᄆᆞᆺ나.

(돌일 서투르면 담 쌓다가 손 찍힌다.) [전역]

담-돌 명 ① 돌. 돌멩이. *축벡은 담돌로 다와사 든든흔다.(벽체는 돌로 쌓아야 단단하다.) [전역] ② 담을 쌓는 돌. 또는 담을 쌓은 돌. *성님네 밧디 담돌 머흐러져십디다.(형님네 밭에 담이 무너져 있습디다.) [전역]

담돌-생기 명 돌-멩이. 자갈. 작은 돌. [전역] = 담돌-생이, 돌-멩이, 돌-새기, 돌-생기, 돌-생이, 자갈. 작지.

담돌-생이 명 [전역] → 담돌-생기.

담력(膽力) 명 담력. 겁이 없고 용감한 기운. [전역]

담-머으러지다 동 [표선 수산 세화 조천] → 담-물아지다.

담-멀어지다 동 [구좌 남원] → 담-물아지다.

담-무너지다 동 [조천 어도] → 담-물아지다.

담-물러지다 동 [노형 조수] → 담-물아지다.

담-물리다 동 담 허물다. 담 무너뜨리다. *오멍가멍 담물리지 말라.(오가며 담 허물지 마라.) [전역]

담-물아지다 동 쌓아 올린 담이 허물어지다. [인성 노형 어도 조수 하원] = 담-너러지다, 담-네려지다, 담-머으러지다, 담-멀어지다, 담-무너지다, 담-물러지다, 담-커지다, 담-크러지다.

담바귀 명 담배의 딴 이름. [전역] = 담방귀.

담바귀-타령 명 <요> 담배 타령. *귀야 귀야 담방귀야, 동래 울산에 담방귀야.(귀야 귀야 담방귀야, 동래 울산에 담방귀야.) [전역] = 담방귀-타령.

담박 부 [전역] → 단작[2].

담박-에 부 *담박에 절판 내라.(단박에 결판을 내라.) [전역] → 단작[2].

담-발다 동 울타리 등 돌담 위를 걸어 다니다. [전역]

담-밧 명 <농> 마소들이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게 하려고 담을 쌓은 밭. [중문]

담방귀 명 [전역] → 담바귀.

담방귀-타령 명 <요> [전역] → 담바귀-타령.

담벌-소리 명 <요> [삼달] → 담불-소리.

담베 명 담배. [전역]

담베-꽁치 명 담배-꽁초. [전역]

담베-낭 명 <식> 담배-나무. [전역]

담베-씨 명 담배-씨. [전역]

담베-쏨지 명 담배-쌈지. [전역] = 담베-참.

담베-참 명 *두 골 메고 돌아보난 담베참이 다 비엇고나.(두 골 매고 돌아보니 담배쌈지가 다 비었구나.) [전역] → 담베-쏨지.

담베-초관 명 [가시 어도] → 담베-푹세기.

담베-통 명 <도> 담배-통. 담뱃대의 끝에 담배를 담는 둥근 통. [전역]

담베-푹세기 명 용-고뚜리. 지나치게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담베-초관.

담벳-갑 명 <도> [전역] → 담벳-곽.
담벳-곽 명 <도> 담배를 담는 곽. [전역] = 담벳-갑, 담벳-깝.
담벳-ᄀᆞ르 명 담뱃-가루. [전역] = 담벳-ᄀᆞ를.
담벳-ᄀᆞ를 명 [전역] → 담벳-ᄀᆞ르
담벳-깝 명 [전역] → 담벳-곽
담벳-내[1] 명 담배-연기. [전역]
담벳-내[2] 명 담배-냄새. [전역] = 담벳-네.
담벳-네 명 [전역] → 담벳-내[2].
담벳-대 명 담뱃-대. [전역]
담벳-맛 명 담배를 피울 때 느끼는 맛. [전역]
담벳-봉지 명 담배를 넣는 봉지. [전역]
담벳-불 명 담뱃-불. 담배에 붙은 불. 담배를 붙이는 불. [전역]
담벳-섭 명 [전역] → 담벳-입.
담벳-순 명 담뱃-순. [전역]
담벳-입 명 담뱃-잎. [전역] = 담벳-섭.
담벳-제 명 담뱃-재(--灰). [전역]
담벳제-따리 명 <도> 담뱃재-떨이. [전역] = 담벳제-타리.
담벳제-타리 명 <도> [전역] → 담벳제-따리.
담벳-진 명 담뱃-진. 담배에서 우러난 진. [전역]
담벳-집 명 담배를 파는 가게. [전역]
담벵 명 <병> 담병(痰病). 몸에 분비액이 뭉쳐서 생긴 병. [서귀포] = 담[1], 담빙, 담징.
담-부트다 동 <병> *둑지에 담부턴 아프다.(어깨에 담병이 붙어서 아프다.) [전역] → 담-걸리다.
담불 명 <민> 석살림할 때 한 집안 내지 씨족 수호신을 즐겁게 놀리는 대목의 노래 이름. [전역]
담불-소리 명 <요> 경쾌하고 빠른 가락의 밭매는 노래의 한 가지. [삼달] = 담벌-소리.
담빙 명 <병> [노형 오라] → 담벵.
담뿌-물질 명 <어> 일본 해녀들이 작업하는 방법의 한 가지. 제주 해녀들의 '테왁'처럼 일본 해녀들이 어장으로 나갈 때에 가슴에 얹는 연장인 단보(タンポ)를 이용하여 치르는 물질. 일본에 물질을 나간 제주 해녀들도 일부 이 작업 방법을 활용했음. [전역]
담상-꾼 명 [전역] → 헹상-꾼.
담아-들다 동 여럿이 한 곳에 몰려들다. [전역]
담-어염 명 [전역] → 담-ᄀᆞᆺ.
담-에염 명 [전역] → 담-ᄀᆞᆺ.
담-엠 명 [표선] → 담-ᄀᆞᆺ.
담-역시 명 <건> 돌을 쌓거나 나르는 일. [전역] = 담-일.
담역시-꾼 명 돌 일(담역시)을 하는 사람. [전역]
담요 명 담요(毯). [전역]
담-의염 명 [전역] → 담-ᄀᆞᆺ.
담-이엄 명 [전역] → 담-ᄀᆞᆺ.
담-일 명 <건> [전역] → 담-역시.
담-장 명 돌을 쌓아 올려 두른 울타리. [전역]
담-제(禫祭) 명 담제. 대상(大祥)을 치른 다음다음 달 하순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에 지내는 제사. [전역]
담젱이 명 <식> 담쟁이-덩굴. [전역] = 담젱이-꿀, 담젱이-줄.

담젱이-꿀 명 <식> [서홍 수산] → 담젱이.
담젱이-줄 명 <식> [김녕 조수 어도] → 담젱이.
담-질 명 담을 뛰어넘는 일. [전역] = 담-칠.
담질-ᄒᆞ다 동 담을 뛰어넘는 짓을 하다. *놈의 집 담질ᄒᆞ민 도둑놈이엥 ᄒᆞᆫ다.(남의 집 울타리를 뛰어넘으면 도둑놈이라고 한다.) [전역]
담징 명 <병> [전역] → 담벵.
담-치다 동 쌓아 올린 담을 허물어뜨리다. *밧듸 촐을 날라가젠 ᄒᆞ민 담 쳐사 ᄒᆞ쿠다.(밭에 꼴을 날라 가려고 하면 담을 허물어야 하겠습니다.) [조수]
담-칠 명 [전역] → 담-질.
담-커지다 동 [인성 서홍 표선 수산 김녕] → 담-ᄆᆞᆯ아지다.
담-크러지다 동 [서귀포] → 담-ᄆᆞᆯ아지다.
담-터지다 동 쌓아 올린 담이 밑바닥까지 허물어지다. [전역] = 담-허여지다.
담-트망 명 돌-틈. [전역] = 담-트멍, 담-틈.
담-트멍 명 [전역] → 담-트망.
담-틈 명 [전역] → 담-트망.
담-헤다 동 쌓아 올린 담을 허물어뜨리다. [전역]
담-히여지다 동 [조수 어도] → 담-터지다.
답[1](答) 명 답. 물음에 응해서 어떤 말을 함. 또는 그 말. [전역]
답[2](畓) 명 답. 논. [전역]
답[3] 명 큰 돌들로 좀 너르고 둥그렇게 탑처럼 높이 쌓아 올린 담.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답단이.



답[3]

답다 동 돌담 등을 쌓다. *바당ᄀᆞ이에 성담을 노피 다운디 ᄆᆞᆯ을 몰아다가 물을 멕여.(바닷가에 성담(城墻)을 높이 쌓은 곳에 말을 몰아다 물을 먹여.) [전역] = 닿다[1].
답단이 명 [전역] → 답[3].
답달 명 닦달. ① 혐의자를 붙잡아 어떤 일을 하고 안 했음을 다그쳐 캐물음. *저 놈을 심어당 ᄄᆞ리멍 답달을 ᄒᆞ십서.(저 놈을 잡아다가 때리며 닦달을 하십시오.) [전역] ② 욱대겨 우김. [전역]
답달-ᄒᆞ다 동 닦달-하다 [전역]
답답-ᄒᆞ다 형 답답-하다. [전역]
답도리 명 잡도리. [전역]
답도리-ᄒᆞ다 동 ① 혐의자 등을 붙잡아 어떤 일을 하고 안 했음을 따지다. *인제 정시집의 가서 정시아덜 그건 멍청ᄒᆞᆫ 것이니까 뭐 물어보나 마난디 강 답도리ᄒᆞ여 보자.(이제는 지관댁에 가서 지관 아들 그것은 멍청하니까 뭐 물어보나 마나한데 가서 따져나 보자.) [전역] ② 잡도리-

하다. [전역] = 답ᄃᆞ리-ᄒᆞ다.

답장(答狀) 명 답장. 회답하는 글이나 편지. [전역]

답지다 형 먹은 것이 잘 삭지 아니하여 가슴속이 깐깐하게 괴로워 못 견디다. [전역]

답-하니(畓--) 명 <농> 논 공동관리 조직에서 선임되어 논을 관리하는 사람. ＊답하니 삯은 펭수에 의ᄒᆞ여. ᄒᆞᆫ 벡 말은 매와 주주.('답하니'의 삯은 평수(坪數)에 의하지. 한 백 말은 모아 주지.) [대포] = 논-하니.

답훼(畓會) 명 <농> [중문] → 물-매기.

답-ᄒᆞ다 동 답-하다. 물음에 응해서 대답하다. ＊묻는 말에 답ᄒᆞ라.(묻는 말에 답해라.) [전역]

닷[1] 명 닻(碇). [전역]

닷[2] 관 '다섯'의 준말. ＊그건 닷 뒈 들이 그릇이여.(그것은 닷 되 들이 그릇이다.) [전역]

닷-가지 명 닻-가지(碇--). [전역]

닷-감다 동 닻-감다. [전역]

닷-공젱이 명 닻줄을 매는 때(筏)의 뒤쪽에 박아진 꼬챙이. [조수 어도] = 못-고지.

닷-굷 명 <어> 바닷속 바닥이 돌이나 암반으로만 깔려 있는 바다인 '걸바당'과 조금 더 멀리 나아가 그 바닥이 펄로만 깔려 있는 바다인 '펄바당'의 경계를 이루는 바다. [중문] = 걸-굷.

닷-끈 명 <도> [전역] → 닷-친.

닷-돌[1] 명 닻-돌(碇-). [전역]

닷-돌[2] 명 <어> 닻-돌. 해녀 연장의 한 가지인 망시리에 끈으로 매달아서 바닷속에 내려뜨리고 닻처럼 쓰는 돌멩이. '닷돌'은 망시리가 달린 테왁을 수면에 띄워 둔 채 무자맥질해서 해녀 작업하는 동안 테왁이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도록 고정시키는 돌멩이를 말함. [전역]

닷뒈-들이 명 <도> [전역] → 다도-테기.

닷뒈-테기 명 <도> [서홍 가시] → 다도-테기.

닷-배 명 <어> 멸치를 잡을 때 그물을 둥글게 흘려 쳐 놓고 그 그물에 멸치가 잡히도록 조종하는 배. ＊닷배 바당 중간ᄁᆞ지 올 때 마ᄇᆞ름이 쳐노니 그물을 치질 못ᄒᆞ엿어.(닻배가 바다 중간까지 올 때 마파람이 치니까 그물을 치지를 못하였어.) [구좌]

닷세 명 닷새. [전역] = 닷쉐.

닷쉐 명 [전역] → 닷세.

닷쉣-날 명 닷샛-날. 다섯째 날. ＊잔친 정월 초닷샛날이난 잊지 말라.(잔치는 정월 초닷샛날이니 잊지 마라.) [전역]

닷-주다 동 닻-주다. [전역]

닷-주목 명 <도> 닻줄을 매다는 나무 기둥. [이호]

닷-줄 명 <도> [전역] → 닷-친.

닷-친 명 <도> 닻-줄. 닻을 매는 줄. 또는 끈. [전역] = 닷-끈, 닷-줄.

당(堂) 명 <민> ① 마을 사람들의 여러 가지 일을 수호해 주는 신(神)이 항상 거처하는 장소. [전역] ② 당신(堂神)에 대하여 제차(祭次)를 드리는 장소. [전역]

-당 어미 -다가. ① 아직 시작되지 않



당(堂)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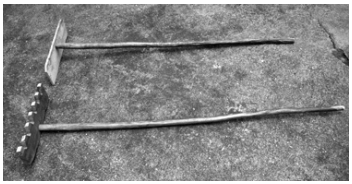
거나 또는 계속 중인 두 동작에 있어서, 앞의 동작이 그치고 다음 동작으로 옮겨서 다음 동작에 중심을 두어 말할 때, 그 말의 동작을 표시하는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그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우리 어린 때는 궤기 나끄레 가멍도 그디 강 절ᄒᆞ영그넹에 그 돈 봉가당 사탕도 사 먹곡.(우리 어렸을 적에는 고기 낚으러 가면서도 거기에 가서 절해서 그 돈 주워다가 사탕도 사 먹고.) [전역] ② 아직 시작되지 않거나 또는 끝나지 않은 두 동작에 있어서, 앞뒤의 동작이 관련성 있게 행해짐을 말할 때, 앞에 나오는 용언 어간에 붙은 '-아-·-어-·-여-·-라-' 또는 '-앗-·-엇-·-엿-·-랏-' 등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 다음 동작에 내용상 연속되어 진행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그걸랑 네끼지 말앙 오고셍이 들러당 놓으라.(그것은 던지지 말고 온전하게 들어다가 놓아라.) ＊물 ᄌᆞ물앗당 삼 년만 잇당 따시 땅으로 맨들앙 내노민, 그 나쁜 것덜은 씨가 질 거니까.(물에 잠갔다가 삼 년만 있다가 다시 땅으로 만들어서 내놓으면, 그 나쁜 것들은 씨가 질 거니까.) [전역] = -다서.

당-걸이 명 <민> 당의 신목 따위에 걸어 두는 물색이나 백지 따위를 일컬음. [전역]

당공-소원 명 <민> 당에 소속된 무(巫). 당공원(堂公員). [전역]

당귀(當歸) 명 <식> 당귀. 승검초의 뿌리. 강장제와 진정제를 만드는 한약재. [전역]

당그네 명 <도> 고무래. 곡식을 긁어모으거나 펴는 데 쓰는 T자형의 연장. [인성 서홍 하원 태흥 조수 조천 노형 화순] = 군데[1], 근데[1]. 고 고미래.



당그네

-당근 어미 [전역] → -다근.

-당근에 어미 -다가는. [전역]→ -다근에.

당글랑-당글랑 부 댕그랑-댕그랑. 작은 쇠붙이, 방울, 종, 풍경, 워낭 따위가 흔들리거나 부딪칠 때 나는 소리. ＊당글랑당글랑 소리 나는 게 어디 굿ᄒᆞ는 셍이여.(댕그랑댕그랑 소리 나는 것을 보니 어디 굿하는 모양이다.) [전역]

당기 명 <의> [인성 조수 노형] → 댕기.

당-다데 명 <음> [애월] → 다데.

-당도 어미 -다가도. ① 아직 시작되지 않거나 또는 계속 중인 두 동작

에 있어서, 앞의 동작이 그치고 다음 동작으로 옮겨서 이 다음 동작에 중심을 두어 말할 때, 그 앞의 동작을 표시하는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그침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② 아직 시작하지 않거나 또는 끝나지 않은 두 동작에 있어서, 앞뒤의 동작이 관련성 있게 행해짐을 말할 때, 앞에 나오는 용언 어간에 붙는 '-아-·-어-·-여-·-라-' 또는 '-앗-·-엇-·-였-·-랏-' 등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 다음 동작에 내용상 연결되어 진행됨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당-똘 명 친-딸. 자기가 낳은 딸. [전역] = 친-뚤.

당멘 명 당면(唐麵). 감자나 고구마 따위에 들어 있는 녹말가루로 만든 국수. [전역]

당멘-심방 명 <민> 당의 관리를 담당하는 심방. [전역]

당-ᄆᆞ르 명 <지> [한경] → 당-ᄆᆞ를.

당-ᄆᆞ를 명 <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큰동네'의 이름. [한경] = 닥-ᄆᆞ르, 닥-ᄆᆞ를, 닥-ᄆᆞᆯ, 당-ᄆᆞ르, 당-ᄆᆞᆯ.

당-몰 명 <지> [한경] → 당-ᄆᆞ를.

당몰-오름 명 <지> [한경] → 닥ᄆᆞᆯ-오름.

당-반 명 <민> [전역] → 당-클.

당-반지 명 <민> 탁상이나 '당클' 위쪽에 걸어 놓는 기메의 일종. 신이 당반지를 타고 '당클'을 오르내린다고 함. [전역]

당-밧 명 당-밭. 신당(神堂)이 있는 밭. [전역]

당-베추 명 <식> 중국종의 배추. [전역]

당-부모 명 자기를 낳은 부모. [전역] = 친-부모.

당산-봉(堂山峰) 명 <지> [전역] → 당-오름[1].

당선 명 <어> 어장의 어황과 그 날의 미세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맨 먼저 나서는 배. [전역]

당-소미 명 <민> 당(堂)을 관리하는 소무(小巫). [전역]

당-손지 명 자기 아들의 아들. [전역] = 친-손지.

당숙(堂叔) 명 당숙. 종숙(從叔). 오촌-아저씨. [전역]

당-숙모 명 당숙의 아내. 종-숙모. 오촌-숙모. [전역]

당신 대 ① 이인칭 대명사. [전역] ② 앞에서 이미 말하였거나 나온 바 있는 사람을 도로 가리키는 삼인칭 대명사의 아주 높임말. [전역]

당ᄉᆞ-자 명 당사-자(當事者). [전역] = 당ᄉᆞ-제.

당ᄉᆞ-제 명 [전역] → 당ᄉᆞ-자.

당-아돌 명 자기가 낳은 아들. [전역] = 친-아돌.

당-아방 명 자기를 낳은 아버지. [전역] = 친-아방.

당-아시 명 친-동생. 같은 부모가 낳은 동생. [전역] = 친-아시.

당악-동(堂岳洞)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1리에 있는 한 자연마을. [선흘]

당-어멍 명 자기를 낳은 어머니. 생-모. 친-어머니. [전역] = 친-어멍.

당연-이 부 당연-히. [전역]

당연-ᄒᆞ다 형 당연-하다. 이치적으로 마땅하다. *잘못ᄒᆞ영 벌 받는 건 당연ᄒᆞ다.(잘못해서 벌 받는 것은 당연하다.) [전역]

당-오름[1](堂--) 명 <지>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북서쪽 바닷가와 용수리와 경계에 걸쳐진 오름. 남동록에 차귀당(遮歸堂)이 있고, 절부암 전설의 고씨 표절비(表節碑)가 서 있음. 조선 때 봉수대가 있었음. 표고 148미터. [한경] = 당산-봉(堂山峰), 차귀-악(遮歸岳).

당-오름[2](堂--) 명 <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중동 남서쪽에 있는 오름. 기슭에 송당 본향당(本鄕堂)이 있음. 표고 274미터. [송당]

당-오름[3](堂--)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 번영로 북쪽에 있는 오름. 북쪽 기슭에 당이 있음. 특히 아이를 원하는 여인들이 많이 찾음. 표고 306미터. [조천]

당-오름[4](堂--) 명 <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북쪽, 금악리로 가는 길 동쪽에 있는 오름. 당이 있었으며, 위에 둘레 약 800미터, 깊이 42미터의 환형(環形) 분화구가 있음. 표고 473미터. [동광]

당오름-골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의 한 자연마을. [선흘]

당-유지 명 [전역] → 댕-유지.

-당은 어미 [전역] → -다근.

-당은에 어미 [전역] → -다근에.

당의엥이 명 <동> [노형 조수] → 꼭쥐-애기.

당일(當日) 명 당일. 즉일(卽日). 무슨 일이 생긴 바로 그 날. [전역]

당일-바리(當日--) 명 <어> ① 배를 타고 바다로 나아가 하루 동안만 낚시질을 하는 일. [전역] ② 바다에서 그 날 잡아올린 물고기. *횟감은 당일바리라사 ᄒᆞᆫ다.(횟감은 당일 잡은 물고기라야 한다.) [전역]

당일-치기(當日--) 명 <어> 아침 일찍 출어했다가 그날 되돌아와 버리는 펄바다에서의 어로 활동. [대포]

당장[1](堂長) 명 당장. 서원에 딸린 하인. [전역]

당장[2](當場) 부 당장. 일이 생긴 바로 이(그) 자리에서. [전역]

당-주(堂主) 명 <민> ① 심방의 조상. [전역] ② 심방의 조상을 모신 곳. [전역]



당주

당주-ᄃᆞ리(堂主--) 명 <민> 당주 조상이 내리는 길. 심방을 위한 신굿은 당주 조상의 신 길을 치는 굿이기 때문에 당주다리를 놓고, 사갓집 굿에서는 '영신다리'를 놓음. [전역]

당주-제(堂主祭) 명 <민> 무조(巫祖) '삼멩두'의 제일에 심방집에서 벌이는 굿. [전역]

당-줄 명 망건-당줄. [전역]

당줏-궤 명 <민> 심방집에서 무구를

조상으로 모셔두는 궤. [전역]

당줏-문(堂主門) 명 <민> 심방 수호신을 모시는 당주의 문. [전역]

당줏-ᄉᆞ록 명 <민> 당주 사기. 무업(巫業)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사기(邪氣). [전역]

당줏-하님 명 <민> 당주 하인. 당주(堂主)를 관리하는 사람. [전역]

당체 부 당최. ＊저 사름 뭣엔사 ᄀᆞᆯ암신디 당체 몰르커라.(저 사람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당최 모르겠어.) ＊아이 앞에서 당체 그런 말 ᄀᆞᆫ지 맙서.(아이 앞에서 절대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전역]

당-클(堂-) 명 <민> 굿할 때 집안의 중심이 되는 마루의 상단에 고위(高位)의 신(神)을 모시기 위한, 신(神)의 자리. [전역] = 당-반.



당클

당-하르방 명 친-할아버지. 아버지를 낳은 아버지. [전역] = 친-하르방.

당-할망 명 친-할머니. 아버지를 낳은 어머니. [전역] = 친-할망.

당-ᄒᆞ다[1] 동 ① 무슨 일을 맞다. ＊늴은 식게 당ᄒᆞ여 부난 못 가키어.(내일은 제사 당하여 버려서 못 가겠다.) [전역] ② 피해 따위를 받다. ＊그놈안틴 뒈게 당ᄒᆞᆫ다.(그놈한테는 되게 당한다.) [전역]

당-ᄒᆞ다[2] 동 금품 따위를 맡아서 대다. ＊게믄 종이영 책이영 붓이영은 나가 당ᄒᆞ마.(그러면 종이와 책과 붓은 내가 맡아서 대마.) [전역]

당-ᄒᆞ다[3] 동 [전역] → 선당-ᄒᆞ다.

닿다[1] 동 [전역] → 답다.

닿다[2] 동 땋다(編). [전역] = 다으다.

닿다[3] 동 ① 닿다. 물건에 맞붙다. ＊지레가 천장에 닿앗저.(키가 천장에 닿았다.) [전역] ② 목적지에 다다르다. ＊ᄒᆞᆫ 시간 후민 그듸 닿을 거여.(한 시간 후면 그곳에 닿을 것이다.) [전역] ③ 서로 관련이 맺어지다. ＊인연이 닿앗이민 좋키어마는.(인연이 닿았으면 좋겠다마는.) [전역]

대[1] 명 대. ① 식물의 줄기. [전역] ② 막대가 가늘고 길며 속이 빈 물건 등의 총칭. [전역] = 남뎅이, 낭뎅이.

대[2] 명 <식> 대(竹). [전역]

대강(大綱) 부 대강. [전역] = 대걸룽.

대개[1](大槪) 명 대개. 대부분. [전역]

대개[2](大蓋) 부 대개.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전역]

대-거름체 명 <도> 쳇불을 가는 댓개비로 조금 눈이 굵게 짜서 메운 체. 쌀 따위를 쳐내거나 액체를 받아내는 도구. [전역]

대걸룽 부 [전역] → 대강.

대-공쟁이 명 <도> 대-못. 대를 깎아서 만든 못. [전역] = 대-못.

대구(大口) 명 <동> 대구.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가시]

대-구덕 명 <도> 대-바구니. 대오리로

엮은 바구니. [전역] = 대-바구리.

대-구리 명 <민> 대망(大蟒). 큰 뱀. [전역]

대국(大國) 명 대국. 예전에 중국을 일컫던 말. [전역]

대국-놈 명 예전에 중국 사람을 비하해서 이르던 말. [전역]

대군-거리다 동 자근자근 말대꾸하다. *말마다 대군거리는 버릇은 고쳐사 ᄒᆞᆫ다.(말마다 자근거리며 대꾸하는 버릇은 고쳐야 한다.) [전역]

대군-대군 부 자근-자근. 말하는 족족 대꾸하는 모습. *어룬신딘 대둔대군 말대답 ᄒᆞ지 말라.(어른한테는 자근자근 말대꾸하지 마라.) [전역]

대군대군-ᄒᆞ다 동 말마다 자근자근 대꾸를 늘어놓다. *아무안티나 경 대군대군ᄒᆞ지 말라.(아무한테나 그렇게 말대꾸를 늘어놓지 마라.) [전역]

대-그릇 명 <도> 대-그릇. 대로 만든 그릇. [전역]

대기(大朞) 명 [전역] → 대상(大祥).

대기다 동 풀 또는 풀과 같이 묽은 물건을 무엇에 칠하다. [전역]

대김 명 [노형 조수 인성 수산 가시김녕] → 다짐.

대김-받다 동 [노형] → 다짐-받다.

대김-받음 명 <민> 잡귀(雜鬼)로부터 환자의 몸에서 떠나겠다는 다짐을 받음. [전역]

대-껍질 명 대-껍질. 대나무-껍질. [전역]

대나-오름 명 <지> [봉개 교래] → 절물-오름.

대-낮 명 대-낮(-晝). [전역]

대다[1] 동 ① 대다. 맞닿게 하다. *손을 대영 부비라.(손을 대어서 비벼라.) [전역] ② 뒤를 대다. *돈 대어 줄 사름 시카? (돈 대어 줄 사람 있을까?) [전역] = 다이다, 대이다. ③ 딴 것을 붙여서 대다. *헌옷은 험벅 대엉 주민 뒌다.(헌옷은 헝겊을 대어서 기우면 된다.) [전역]

대다[2] 동 대다. 어떤 곳에 물을 끌어들이다. [전역] = 다이다[2].

대닥-대닥 부 [전역] → 다닥-다닥.

대-달피 명 <건> [명월] → 대-들포.

대담(大膽) 명 대담. [전역]

대-덜포 명 <건> [조수 노형 인성 서홍] → 대-들포.

대독판세미금-시리 명 <민> 큰 시루떡. [전역]

대-돗 명 <동> [전역] → 산-톳.

대동-마을 명 <지> 제주시 이호2동에 있는 자연마을. [전역]

대두리-봉(大斗里峰) 명 <지> [오라 노형 광령] → 큰드레-오름.

대-들포(大--) 명 <건> 대-들보. [전역] = 대-달피, 대-덜포.

대뜸 명 <도> [전역] → 대받훔.

대렴(大殮) 명 <민> 대렴. [전역]

대로 조 대로. 주로 대명사나 인명에 붙어서, '누구의 조력을 빌리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나 '그 모양과 같이'의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대로-동(大路洞) 명 <지> [전역] → 한짓-골.

대록-산(大鹿山) 명 <지> [전역] → 큰-사슴이.

대롱-가시리 명 <식> 해조류인 가사리

의 일종. [표선]

대롱-제완지 명 <식> [가시] → 북덕-제환지.

대-마께 명 대나무를 때려서 부드럽게 만드는 나무 방망이. [도련]

대-막뎅이 명 대-막대기(竹---). [전역]

대망이 명 [전역] → 데가리.

대명왕체서-본풀이 명 <민> 시왕맞이에서 구연하는 대명왕차사의 내력으로 내용은 차사본풀이와 같음. [전역]

대목[1] 명 대목. 부분. *즈미난 대목만 다시 도시려 보라.(재미난 대목만 다시 떠올려 말해 봐라.) [전역]

대목[2] 명 가장 긴요한 시기. [전역]

대-못 명 <도> [전역] → 대-공젱이.

대문 명 <건> 대청(大廳) 정면에 단 문. [전역]

대문-간 명 <건> 대문 안에 있는 빈 칸. [전역]

대문-둥 명 <건> 대청(大廳)으로 드나드는 정면에 단 문 바깥 근처. [전역]

대문-착 명 <건> 대문-짝. 대문의 문짝. [전역]

대-물리다 동 대-물리다. 뒷자손에게 대를 잇게 하다. *그 밧은 조상 적부떠 대물려 왓저.(그 밭은 조상 때부터 대물려 왔다.)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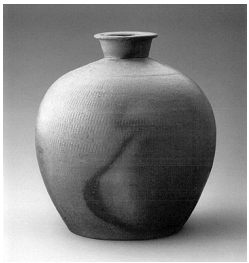
대-ᄆᆞ디 명 [전역] → 대-ᄆᆞ작

대-ᄆᆞ작 명 대-마디. [전역] = 대-ᄆᆞ디.

대-몰 명 대-말(竹馬). [전역]

대-바구리 명 <도> [전역] → 대-구덕.

대바지 명 <도> 모양이 둥그스름하여서 가운데 배는 불룩하고 위아래는 졸아지되 위의 아가리는 아주 좁게 된, 물을 길어 나르는 작은 동이. [전역] = 대배기, 대베기.



대바지

대-반 명 [전역] → 데-반.

대받침 명 <도> 갓양태를 겯는 연장의 한 가지. 갓양태를 결을 가느다란 대오리를 만들기 위하여 훑어 다듬은 대에 칼금을 잘게 낼 때에 칼날 끄트머리를 받치는 데 쓰임. 널빤지 위에 나뭇가지를 수직으로 세우고, 위쪽에는 턱이 지도록 꾸며짐. [전역] = 대뜸, 뜸[1].

대배기 명 <도> [조수 인성] → 대바지.

대베기 명 <도> [중문] → 대바지.

대벤 명 대변(大便). [전역]

대병-악(大並岳) 명 <지> [전역] → 큰-오름[2].

대-보롬 명 대-보름. '대보름날'의 준말. [전역]

대-보름돌 명 대-보름달. [전역]

대-비 명 <도> [전역] → 대-비차락.

대-비차락 명 <도> 대로 만든 빗자루. [전역] = 대-비.

대-뿌룩 명 죽순(竹筍). [전역] = 댓-순.

대-뿌리 명 대나무의 뿌리. [전역] = 대-뿔리[1].

대-뿔리[1] 명 [전역] → 대-뿌리.

대-뿔리[2](大--) 명 쇠대가리에 옆으로


대뿌룩

위쪽을 향하여 길게 나온 뿔. [전역]

대사니 명 <식> [노형 수산 가시 조수] → 좁-대사니.

대-산봉 명 <지> [성산] → 큰-물메.

대산잇-대 명 [노형 조수 수산 가시] → 좁대사닛-대.

대-샛갓 명 <의> 대-샛갓. [전역]

대상(大祥) 명 대상. [전역] = 대기(大朞).

대-상군(大上軍) 명 <어> 작업하는 기량이 월등하게 뛰어난 해녀. 기량이 뛰어난 해녀 상군(上軍) 가운데도 특출한 해녀. [전역]

대-상지 명 <도> 대-상자(-箱子). 대오리로 결어 만든 상자. [전역] = 대-상ᄌᆞ.

대-상ᄌᆞ 명 <도> [전역] → 대-상지.

대상-칩 명 사람이 죽은 지 두 돌이 되어 술, 고기 등 음식물을 차려 문상 오는 손님들에게 대접하며 제를 지내는 집. [전역]

대설-멍에 명 <어> [인성] → 대섯-멍에.

대-섬[1]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와 조천리 경계에 있는 섬. [전역]

대-섬[2] 명 <지> 제주시 한림읍 한수리에 있는 섬. [전역]

대섯-멍에 명 <어> 떼(筏)의 위에 살평상 같이 된 대(臺) 한가운데에 가로막아 있는 나무. [노형 조수] = 대설-멍에, 한장-멍에.

대성-동(大成洞)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2리 중산간에 있는 자연마을. [남원]

대수-동(大水洞)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의 한 자연마을. [조천]

대-수산(大水山) 명 <지> [성산] → 큰-물메.

대수산-봉(大水山峰) 명 <지> [전역] → 큰-물메.

대수왈 명 <동> [행원] → 베체기[1].

대-술름 명 <민> 정기적으로 벌이던 당굿의 하나. [전역]

대신[1](代身) 명 대신. 남을 대리하는 것. [전역]

대신[2](大臣) 명 대신. 정승(政丞). 옛날 장관급 이상의 높은 벼슬아치를 이르는 말. [전역]

대신-맞이 명 <민> 시왕-맞이. [전역]

대ᄉᆞ 명 대사(大事). [전역]

대-썹 명 댓-잎(竹葉). [전역]

대야 명 <도> 대야. 물을 담아서 얼굴이나 손발 따위를 씻을 때 쓰는 그릇. [전역]

대양 명 <도> [전역] → 증.

대여-들다 동 대-들다. [전역]

대엽 명 <동> 대합(大蛤). [전역] = 대엽-조게, 대-조게, 대합, 대합-조개, 보리-대엽.

대엽-조게 명 <동> [전역] → 대엽.

대엽-조겡이 명 대합의 껍데기. [전역]

대오리 명 <식> 귀리(燕麥). [전역] =

대우리.

대오살 명 <동> [하도 동복] → 베체기[1].

대왈 명 <도> 대접보다 아래가 넓적하고 전체가 더 큰 그릇. [전역]

대-왓 명 대-밭(竹田). [전역]

대왕-산(大王山 · 大旺山) 명 <지> [성산 구좌] → 왕-메(王-).

대우리 명 <식> [전역] → 대오리.

대우살 명 [보목] → 베체기[1].

대운(大運) 명 대운. 큰 운수. [전역] = 왕운.

대움-ᄒᆞ다 동 명심(銘心)하지 아니하다. [전역] = 데움-ᄒᆞ다.

대이다 동 [전역] → 대다[1]②.

대-으숫 수 대-여섯. 다섯 여섯. ＊대으숫이 걸어감서라.(대여섯이 걸어가고 있더라.) [전역]

대읏 수 대엿. 다섯 여섯의 준말. ＊대읏 멩이 잇어라.(대엿 명이 있더라.) [전역]

대-자 명 <도> 대-자. 대나무로 만든 자. [전역]

대작-대작 부 ① 닥지-닥지. 덕지-덕지. ＊태가 대작대작 부튼 옷 입엇어라.(때가 덕지덕지 붙은 옷을 입었더라.) [전역] = 다닥-다닥. ② 풀이나 액체 따위가 심하게 칠해져 있는 모습. ＊종이에 풀을 너미 대작대작 불랏저.(종이에 풀을 너무 '대작대작' 발랐다.) [전역] ③ 열매 따위가 주렁주렁 달려 있는 모습. ＊낭가쟁이가 거꺼지게 대작대작 올앗어라.(나무가지가 꺾어지게 주렁주렁 열었더라.) [전역] = 자락-자락, 지락-지락.

대작대작-이 부 닥지닥지 하게. [전역] = 대작-이.

대작대작-ᄒᆞ다 형 닥지닥지-하다. 빽빽이 달리거나 붙어 있다. ＊고고리마다 방울이 대작대작ᄒᆞ게 돌아졋어라.(이삭마다 방울이 닥지닥지하게 달렸더라.) [전역]

대작-이 부 [전역] → 대작대작-이.

대작-ᄒᆞ다 형 풀 따위가 너무 많이 칠해져 있다. '대작대작-ᄒᆞ다'의 약한 말. ＊두터운 종이엔 풀을 대작ᄒᆞ게 칠ᄒᆞ여사 잘 부튼다.(두꺼운 종이에는 풀을 많이 칠하여야 잘 붙는다.) [전역]

대-적꼬쟁이 명 <도> [전역] → 대-적꼬지.

대-적꼬지 명 <도> 대-적꼬치. 대로 만들어 적을 꿰는 꼬챙이. [전역] = 대-적꼬쟁이.

대전-상(--床) 명 <민> [전역] → 데령-상.

대-전에 명 <동> 대-전어. [전역]

대접 명 [전역] → 데접.

대-정 명 [수산 김녕] → 대-청.

대-제김 명 <민> 북(鼓), 장구(杖鼓), 징을 일컫는 말. [전역]

대-조게 명 <동> [수산] → 대엽.

대-주 명 <민> [전역] → 동안-대주.

대-주랑 명 <도> 대-지팡이(竹杖). [전역]

대죽[1] 명 <식> 수수(高粱).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대축[2].

대죽[2] 명 <식> [전역] → 사당-대죽.

대죽-낭 명 수수-깡(高粱-). [인성 노형 조수 서홍 어도] = 대축-낭.

대죽-미 명 <동> 수수처럼 붉은 해삼.

[보목 하귀]

대죽-범벅 명 <음> 수수쌀 가루로 만든 범벅. [전역]

대죽-부레기 명 [전역] → 강낭이-부루기.

대-ᄌᆞ문 명 <어> 해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채취를 금하였다가 합의된 날짜에 그 금지를 풀고 해산물을 캐기 시작하는 일. [전역] = 허채.

대-짜 명 큰 것. 해당 물건 중 가장 큰 것을 가리키는 말. [전역] = 대짝.

대-짝 명 [전역] → 대-짜.

대쪽 명 대쪽. 대를 쪼갠 조각. [전역]

대-차롱 명 <도> 대오리로 결어서 만든 채롱. [전역]



대차롱

대-창[1](-槍) 명 <도> 대-창. 대로 만든 창. [전역] = 죽창(竹槍).

대창[2] 명 대창. 소·돼지 따위의 대장(大腸). *오널랑 대창 먹으레 가게.(오늘이랑 대장 먹으러 가자.) [전역]

대책(對策) 명 대책. 어떤 일에 대한 방책. [전역]

대-천(大川) 명 <지> [삼도 용담] → 한-내.

대천-바당 명 넓디넓은 바다. *대천바당도 건너봐사 안다.(넓디넓은 바다도 건너봐야 안다.) [전역]

대천이 명 <지> [선흘 교래 봉개] → 대천이-오름.

대천이-오름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우진동 남서쪽 냇가에 있는 오름. 표고 447미터. [전역] = 대천-악(大川岳), 대천이.

대-청 명 대-청(竹-). 대나무의 줄기 속 안벽에 붙은 아주 작은 흰 꺼풀. [인성 서홍 노형 조수] = 대-정.

대-체[1] 명 <도> 가는 댓개비로 쳇불을 짜서 메운, 액체를 받아내거나 쌀 따위를 쳐내는 도구. [전역]

대-체[2](大-) 명 <도> 구멍이 가장 큰 편에 속하는 체. 조나 보리 따위를 타작하고 난 후에 어레미 다음으로 뉘를 쳐내 버릴 때 쓰는 체. [전역]

대초 명 [전역] → 대추.

대초-낭 명 <식> [노형 수산 김녕 가시] → 대추-낭.

대추 명 대추. [전역] = 대초.

대추남이꼬까머귀-저울 명 <민> 대추나무 저울. 대추나무로 만든 옛 저울로, 까마귀 주둥이 같은 갈퀴에 달아매게 되어 있음. [전역]

대추-낭 명 <식> 대추-나무. [전역] = 대초-낭.

대축[1](大祝) 명 대축. 종묘나 대제 때 축문을 읽는 사람. [전역] = 축관.

대축[2] 명 <식> [수산 가시 김녕] → 대죽[1].

대축-낭 명 [수산 가시] → 대죽-낭.

대-칡 명 <식> 칡의 일종. [교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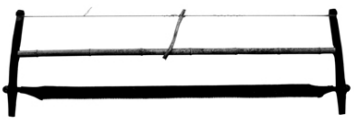
대칩 명 <식> 벼의 일종. *제주도 순수 종은 대칩이라. 이 놈이 밥맛이 좋아. 흔디 수확이 족아.(제주도 순

수 종은 '대칩'이야. 이 놈이 밥맛이 좋아. 그런데 수확이 적어.) [회수]

대-칼 명 <도> 갓양태를 결을 때 쓰는, 대오리를 만드는 칼. 식칼보다 너부죽함. [전역]

대토(代土) 명 대토. [전역]

대톱 명 <도> 큰-톱. 톱날의 길이가 여섯 자로 가장 큰 톱. [전역]



대톱

대통[1](大通) 명 대통. 일이나 운수가 크게 트임. *운수가 대통이여.(운수가 대통이다.) [전역]

대-통[2] 명 <도> 죽통(竹筒). 대마디를 잘라서 만든 통. [전역]

대통-기(--旗) 명 <민> 큰굿을 할 때, 마당에 세우는 큰 대에 달아매는 기(旗). [전역]

대판[1] 명 대판. '대판-거리'의 준말. 크게 벌린 판. *잔칠 대판으로 벌렷주.(잔치를 대판으로 벌였지.) [전역] = 큰-판.

대판[2](大板) 명 대판. 넓고 큰 널판. [전역]

대패 명 <도> [전역] → 데페.

대팻-목 명 <도> 상여 양편 아래에 매어진 앞뒤로 깊게 나온 채. [전역] = 챗-대.

대포-동(大浦洞) 명 <지>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법정마을. [서귀포 중문]

대한(大寒) 명 대한. 일년 24절기 중의 하나로 1월 20일께를 이르는 말. [전역]

대합 명 <동> [전역] → 대엽.

대합-조게 명 <동> [전역] → 대엽.

댓-가지 명 댓-가지(竹--). [전역]

댓-개비 명 댓-개비(竹--). [전역]

댓-ᄃᆞ리 명 <민> 큰 대에서 제상(祭床)까지 연결해 놓은 무명다리. [전역]

댓-ᄃᆞᆨ 명 <동> 댓-닭(-鷄). 닭의 한 품종. 몸이 크고 뼈대가 튼튼하여 근육이 매우 발달함. [전역]

댓-ᄆᆞ디 명 [전역] → 댓-ᄆᆞ작.

댓-ᄆᆞ작 명 대-마디. 대나무에 나 있는 마디. [전역] = 댓-ᄆᆞ디.

댓-순 명 [전역] → 대-뿌룩.

댕그랑-댕그랑 부 댕그랑-댕그랑. [전역]

댕그르르 부 쇠로 된 그릇 따위가 굴러가며 나는 소리. [전역]

댕기 명 <의> 댕기. [전역] = 당기.

댕-유지 명 귤 비슷하되 거죽이 우툴두툴한 아주 큰 유자(柚子)의 한 가지. [전역] = 당-유지, 댕-유ᄌᆞ, 뎅-유지.

댕-유ᄌᆞ 명 [전역] → 댕-유지.

-다 어미 -냐. [전역] → -다[2].

-더- 선어말 -더-. [전역] → -데-.

더꺼-지다 동 덮어-지다. [전역]

더꺽-눈 명 [서홍] → 더께-눈.

더껑-종그다 동 닫아-걸다. 문이나 창을 닫고 빗장을 지르거나 고리를 걸다. [전역]

더께-눈 명 거적-눈. 윗눈시울이 축처진 눈. [전역] = 더꺽-눈, 풍체-눈.

더껫-돌 명 [서홍] → 어귓-돌.

더끄다[1] 동 [전역] → 닫다.
더끄다[2] 동 [전역] → 더프다.
더냇-동네 명 <지> [서귀포 중문] → 더늣-동네.
-더냐 어미 -더냐. ①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를, '해라' 할 자리에서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계지만 어떻게 기상이 뒈더냐?(그렇지만 어떻게 기상이 되더냐?) [전역] ② 용언 어간에 붙은 '-암-·-엄-·-람-·-염-' 또는 '-앗-·-엇-·-엿-·-랏-' 등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계속 또는 완료를, '해라' 할 자리에서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더늣-내 명 <지> [서귀포 중문] → 강정-내.
더늣-동네 명 <지>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었던 옛 자연마을. [서귀포 중문] = 더냇-동네.
-더니[1] 어미 -더니.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를, '해라' 할 자리에서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대개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더니[2] 어미 -더니·-었는데. 용언 어간 또는 선어말어미 '-앗-·-엇-·-엿-·-랏-' 등에 연결되어서 그 경험한 행동·상태가 다른 행동·상태의 근거·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밤의는 스또가 누엇더니, 그 여즈가 왓어.(밤에는 사또가 누워 있었는데, 그 여자가 왔어.) [전역]
더더귀-지게 명 [전역] → 던덕-지게.
더덕-거리다 동 더덜-거리다. 분명하지 않은 목소리로 말을 자꾸 더듬다. [전역] = 더둑-거리다.
더데-오름 명 <지> 서귀포시 상예동 북서쪽 더데오름동네(加加岳洞)에 있는 작은 오름. 주변에 언덕이 겹겹이 이어짐. 표고 228미터. [창천 상예]
더두-아리 명 더더리. 말을 더듬는 사람. [노형 조수 인성] = 다두-아리.
더둑-거리다 동 [전역] → 더덕-거리다.
더듬다[1] 동 더듬다. 말이 자꾸 막히어 순순히 나오지 아니하다. [전역]
더듬다[2] 동 더듬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손으로 이리저리 만지며 찾다. [전역]
더듸다 형 더디다. [전역] = 더디다.
더디다 형 [전역] → 더듸다.
-더라 어미 -더라. 용언 어간이나 어간에 붙은 '-암-·-엄-·-염-·-람-' 또는 '-앗-·-엇-·-랏-·-엿-' 등에 연결되어서 과거에 경험한 동작·상태를 회상하여, '해라' 할 자리에서 나타내는 종결어미. *ᄀᆞ찌 오란 보니, ᄌᆞ기 아방 오는 새예다 그냥 목을 놓안 울엄더라 흡니다.(같이 와서 보니, 자기 아버지 오는 사이에다 그냥 목을 놓아서 울고 있더라고 합니다.) [전역] = -드라.
더러 부 더러. 얼마-간. [전역]
더럭 명 <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와 하가리를 아울러 이르는 옛 이름. [전역]
더럼-소리 명 <요> 밭매는 노래의 한 가지. 가락이 아주 느리고 유장한 특징을 지님. [하례]
더럽다 형 더럽다. [전역] = 데럽다.

더레 조 으로.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행동이 향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격조사. *그 산 쓴 디다가 개미목(蟻項)밧더레 간, 산을 판 일롼 보난 쉐 뒈서렌 ᄒᆞ여.(그 뫼를 쓴 곳에다가 개미목밭으로 가서 묘를 파서 보니 소가 되었더라고 해.) [전역] = 데레, 드레, 듸레.

더렌 조 으로는. 방향격 '더레'와 특수조사 '는'이 결합한 형태. *저승더렌 붉은 짓, 이승더렌 흰 짓 들런 딱 곱을 지우난.(저승으로는 붉은 것, 이승으로는 흰 것을 들고서 딱 층을 가르니.) [전역]

더리다 동 더럽게 여기다. [어도]

더망세기 명 [전역] → 데가리.

더멩이 명 [전역] → 데가리.

더미 명 [전역] → 데미.

더운-밥 명 더운-밥. [전역]

더운 사돈 구 신랑의 부모와 신부의 부모 사이를 빗대는 말. [전역]

더움-불 명 [조수] → 몬독-불.

더월 명 [서홍 김녕 조수] → 덤불.

더위 명 더위(暑). [전역]

더위-먹다 동 더위-먹다. [전역]

더위-타다 동 더위-타다. [전역] = 더위-ᄐᆞ다.

더위-ᄐᆞ다 동 [서홍 수산 김녕] → 더위-타다.

더을-ᄒᆞ다 동 심신상(心身上)에 큰 고통을 받아서 회복이 안 되고 시달리다. [전역]

더의다 동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더-ᄒᆞ다.

더저-불다 동 [전역] → 던저-불다.

더지다 동 [전역] → 던지다.

더트다 동 어루-찾다. 손과 발로 여기저기 더듬어 찾다. *물으멍 더트멍 간 보난 아무 것도 엇어.(물으며 어루찾으며 가 보니 아무 것도 없어.) [전역]

더퍼-놓고 부 아무 생각없이. *더퍼놓고 일어사젠 ᄒᆞ난 줄이 발에 걸련.(아무 생각없이 일어서려고 하니까 줄이 발에 걸렸어.) *암만 베고파도 아무거나 더퍼놓고 먹지 아녀.(아무리 배고파도 아무 것이나 생각없이 먹지 않아.) [이호]

더퍼-더퍼 부 더펄-더펄. *더퍼더퍼 ᄂᆞᆯ개라근 씨아바님 드리고저.(더펄더펄 날개는 시아버님 드리고자.) [전역]

더펄-개 명 <동> 더퍼리. 털이 다복다복 길게 나서 더펄거리는 개.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김녕] = 더풀-개. 고 더펄가히.

더풀-개 명 <동> [조수] → 더펄-개.

더프다 동 덮다(盖). [전역] = 더끄다[2].

더-ᄒᆞ다 동 더-하다(加). [전역] = 더의다.

덕[1] 명 바닷가나 바다 속의 큰 바위. [전역] = 엉덕[1].

덕[2] 명 [가시] → 엉덕[2].

덕-담 명 <민> 석살림굿에서 부르는 창(唱)의 하나. '오널오널 오널이라'로 시작함. [전역]

덕-돌 명 <건> 부엌 아궁이의 봇돌과 나란히 하여 옆에 세워진 돌. [전역]

덕돌-개 명 <지> [남원] → 덕둘-개.

덕둑-개 명 <지> [남원] → 덕둘-개.

덕둘-개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태

흥3리의 포구. [남원] = 덕돌-개, 덕둑-개.

덕-물질 명 <어> 잠녀들이 바닷가 가까이에서 헤엄쳐 나가 치르는 물질. [전역]

덕분(德分) 명 덕분. [전역]

덕석 명 <도> [전역] → 멍석.

덕신이 명 <민> [전역] → 덕진이.

덕자리-사둘 명 <어>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 그물질함이 없이 해안가에서 자리돔만을 잡는 그물의 일종. [전역]

덕지-물 명 <지> 제주시 이호1동의 한 자연마을. [이호 도두 외도] = 덕지물-마을.

덕지물-마을 명 <지> [전역] → 덕지-물.

덕진이 명 <민> 상잔(床盞) 선생으로 일컬어지는 이. [전역] = 덕신이.

덕-좀녜 명 <어> ① 바닷물이 얕은 곳에서만 해산물을 채취하는 잠녀. [전역] ② 해산물을 채취하는 기량이 초보 수준인 잠녀. [전역]

덕판-배 명 <어> 바닷가 바위에 배를 대어 우마 따위를 싣고 내리기에 적합하게 선수를 넓고 평평하게 만든 제주도 고유의 배. [전역]

덕판-선왕 명 <민> 덕판배를 지키는 선왕(船王). [전역]

덕환이 명 <민> 천문(天文) 선생으로 일컬어지는 이. [전역]

-던 어미 -던. [전역] → -단[2].

-던가 어미 -던가. ①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② 서술어로 쓰인 의문대명사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던고 어미 -던고. ①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회상시켜 물을 경우에 쓰이는 의문법 어미. 앞에 대개 의문사가 옴. [전역] ② 서술어로 쓰인 의문대명사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상시켜 물을 경우에 쓰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던덕 명 <식> 더덕. [전역]

던덕-지게 부 나무 열매 따위가 가지에 덩어리지게 많이 붙은 모양. [전역] = 더더귀-지게.

던데 명 짝짜꿍. [전역]

-던데 어미 -던데. 용언 어간이나 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스스로 감탄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던데-떡 명 <민> 아기를 짝짜꿍하며 잘 키워 달라고 빌며 올린 떡. [토산]

던드렁 명 <도> [수산 가시] → 덩드렁.

던드렁-마께 명 <도> [수산 가시] → 덩드렁-마께.

던저-불다 동 던져 버리다. [전역] = 놀려-불다, 더저-불다, 데껴-불다.

던적-스럽다 형 던적-스럽다. [전역] = 덴적-스럽다.

던지다 동 던지다(投). [전역] = 널리다, 네끼다, 놀리다[2], 더지다, 데끼다.

덜 부 덜. 다 차지 못함을 나타내는 말. [전역] = 두루.
덜- 두 설-. [전역]
-덜 미 셀 수 있는 명사나 대명사 뒤에 붙어 복수(複數)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저듸 느네 아시덜이 왐저.(저기 너희 동생들이 오고 있어.) [전역] = -들[2].
덜그랑-거리다 동 덜그렁-거리다. [전역]
덜그랭이 부 생각지도 않았는데. 뜻밖에. *어떵 영 덜그랭이 와저니?(어떻게 이렇게 뜻밖에 올 수 있었니?) [전역]
덜-내다 동 있는 상태에서 줄어들게 하거나 또는 작게 하다. *오라바님 왕 도웨주난 일 하영 덜냇수다.(오라버님이 와서 도와주니 일 많이 덜었습니다.) [전역]
덜다 동 덜다(減). [전역]
덜도 조 들도. [전역] → 덜토.
덜-뒈다 동 덜-되다. [전역]
덜랑 조 들랑. '여럿' 또는 '여럿이 제각기'의 뜻을 나타내는 '덜'에, '은'의 뜻을 나타내는 '랑'이 결합된 격조사. [전역] = 들랑.
덜랑-덜랑 부 덜렁-덜렁. [전역]
덜럽다 형 더럽다. [전역] = 더럽다, 데럽다.
덜렁쉬 명 덜렁-쇠. 침착하지 못하고 몹시 덤벙거리는 사람. [전역]
덜-머리 명 [전역] → 덧-머리.
덜-솖다 동 데-삶다. [전역]
덜싹 부 털썩. [전역]
덜싹-덜싹 부 ① 덜썩-덜썩. [전역] ② 들썩-들썩 [전역]
덜싹-ᄒᆞ다 동 털썩-하다. [전역]
덜은 조 들은. '여럿' 또는 '여럿이 제각기'의 뜻을 나타내는 '덜'과 '은'이 결합된 격조사. [전역] = 들은.
덜을 조 들을. [전역] → 들을.
덜-익다 동 데-익다(-熟). [전역] = 두루-익다.
덜토 조 들도. 아무 말의 끝에나 붙어서, '여러' 또는 '여럿이 제각기'의 뜻을 나타내는 '덜'에, '마저, 까지, 도'의 뜻을 나타내는 '도'가 결합된 격조사. [전역] = 덜도, 들도, 들토.
덤 명 [전역] → 데미.
덤발치 명 <동> [삼양] → 덤불치.
덤방-ᄒᆞ다 형 ① 풀 따위가 무성하다. [전역] ② 이슬 따위가 많이 맺히다. [전역] = 덤벙-ᄒᆞ다.
덤벌 명 [전역] → 덤불.
덤벙-ᄒᆞ다 형 [전역] → 덤방-ᄒᆞ다②.
덤베다 동 [전역] → 덤비다.
덤벼-들다 동 덤벼-들다. [전역]
덤불 명 덤불. [전역] = 더월, 덤벌. 고덤블.
덤불치 명 <동> 별-망둑. [전역]
덤비다 동 덤비다. [전역] = 덤베다.
덤장 명 <어> 덤장. [전역]
덥다 형 덥다(暑). [전역]
덥달 명 친족. [전역] = 덥덜.
덥덜 명 [전역] → 덥달.
덥박 부 덥석. *훅 ᄒᆞ게 개 앞더레 데껴난 덥박 물언 저레 가.(훅 하고 개 앞에 던지니 덥석 물어서 저리로 가.) [전역]
덧 명 <도> 덫. 짐승을 꾀어 잡는 기

구. [전역]

덧-낭[1] 명 <식> 덧-나무. [전역]

덧-낭[2] 명 물건을 위로 누르는 나무. [전역]

덧-놓다 동 덮-놓다. ① 짐승을 꾀어 잡는 덫을 걸어 놓다. [전역] ② 아주 크고 무거운 물건으로 위쪽을 누르다. [전역]

덧-니 명 덧-니(-齒). [전역] = 덧-발이. 고덧니.

덧니-나다 동 덧니-나다. [노형 조수]

덧니-돋다 동 덧니가 솟아 오르다. [조수 서홍 수산]

덧-돋다 동 이(齒)가 제자리에 나지 않고 포개져서 나다. [전역]

덧-머리 명 밭-걸이. [전역] = 켓-머리, 덜-머리, 밧-공젱이.

덧-발이 명 [전역] → 덧-니.

덧방-줄 명 <건> 지붕이기를 거르는 해에 지붕을 띄엄띄엄 묶어 놓은 '집줄'. [아라]

덧부지 명 <농> 벼의 일종. [중문 월평]

덧-부트다 동 덧-붙다. [전역]

덧-줄 명 <건> 지붕 위에 듬성듬성 다시 얹혀 묶은 줄. [광령]

덩강-덩강 부 뎅겅-뎅겅. [전역]



덩드렁

덩드렁 명 <도> 딴딴하고 미끄닥하며 둥글넓적한, 짚 따위를 두드리는 돌판.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김녕] = 던드렁, 벌덩.

덩드렁-마께 명 <도> 짚이나 대 따위를 두드리는 방망이.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김녕] = 던드렁-마께.



덩드렁마께

덩삭이 부 소리 없이 입을 벌리고 부드럽게 웃는 모양. [전역]

덩설멕 명 큰 나무의 밑동. 둥치. *요 놈 저 놈 골리단 보난 덩설멕이 남앗고나.(요 놈 저 놈 가리다 보니 둥치가 남았구나.) [전역]

덩싹-덩싹 부 즐거워서 다리를 높이 들면서 춤을 추는 모양. [전역]

덩어리 명 덩어리(塊). [전역]

덩이 명 덩이. [전역] = 뎅이[2].

덩체기 명 둥치. [전역] = 덩치, 덩케기, 둥체기, 둥치, 둥케기.

덩치 명 [전역] → 덩체기.

덩케기 명 [전역] → 덩체기.

-데- 선어말 -더-. 용언의 종결어미 '-다, -가' 바로 앞에 연결되어서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상하여 말하거나 물을 때 쓰이는 선어말어미. [전역]

-데 어미 -데. ① 체언이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지난 일을 회상하여 말할 때 쓰이는 종결

어미. [전역] ② 동사 어간에 붙은 '-암-·-엄-·-염-·-람-' 등에 연결되어서, 과거 동작의 계속을 회상하여 '하게' 할 자리에서 말할 때 쓰이는 종결어미. [전역] ③ 동사 어간에 붙은 '-앗-·-엇-·-랏-·-엿-' 등에 연결되어서, 과거 동작의 완료를 회상하여 '하게' 할 자리에서 말할 때 쓰이는 종결어미. [전역] = -디[3].

데가리 명 대가리(頭). [전역] = 대망이, 더망세기, 더멩이, 데강이, 데구리, 데망세기, 데망이, 데멩이, 도가리, ᄃᆞ가리, ᄃᆞ멩이. 고 ᄃᆡ골.

데갈-통 명 대갈-통. [전역]

데강이 명 [전역] → 데가리.

데구리 명 [전역] → 데가리.

데구빡 명 머리-빡. [전역]

데군-데군 부 연이어 말대꾸하는 모양. [전역]

데금 명 대금(代金). [전역]

데깍 부 짜인 물체나 담겨진 물건이 딴딴하여 좀처럼 허물어지지 않는 모양. [전역]

데껴-불다 동 [전역] → 던저-불다.

데끼다 동 [전역] → 던지다.

데낄락 명 팔매-질. [전역] = 네낄락.

데다 동 데다. 뜨거운 기운으로 살이 상하다. [전역] = 데이다. 고 데다.

데닥-데닥 부 [전역] → 데작-데작.

데답 명 대답(對答). [전역] 고 ᄃᆡ답.

데데 명 대대(代代). [전역]

데럽다 형 [전역] → 더럽다.

데레 조 *아무 거옝 말도 아니 곧고 그자 수리 배꼇데레 손만 영 내밀 안.(아무 것이라고 말도 아니하고 수레 바깥으로 손만 이렇게 내밀었어.) [전역] → 더레.

데려-가다 동 [전역] → ᄃᆞ려-가다.

데려-들다 동 [전역] → ᄃᆞ려-들다.

데려-오다 동 [전역] → ᄃᆞ려-오다.

데령 명 대령(待令). [전역]

데령-상(--床) 명 <민> 굿을 할 때 신(神)을 청하여 맞아들이기 위해 문 앞에 내어놓은 제상(祭床). [전역] = 대전-상, 삼도리-데전상.



데령상

데리 명 대리(代理). [전역]

데리다 동 [전역] → ᄃᆞ리다[2].

데림-사위 명 데릴-사위.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ᄃᆞ림-사위.

데망세기 명 [전역] → 데가리.

데망이 명 [전역] → 데가리.

데멩이 명 [전역] → 데가리.

데미 명 더미. [전역] = 더미, 덤.

데미다 동 쌓다. 쟁이다. 물건을 차곡차곡 포개어 가리거나 쌓다. *옛날엔 메역도 하영 데명 놔둬낫저.(옛날에는 미역도 많이 쌓아 놔뒀었다.) [전역]

-데민 어미 -다면. [전역] → -다민.

데박-걸이 명 <민> 걸명을 위하여 됫박에 모아 놓은 제물. [전역]

데반 명 대반(對盤). 전통 혼례에서, 신랑이나 신부 또는 위요 온 사람 곁에서 접대하는 일. 또는 그 일을 맡은 사람. [전역] = 대반.
데반-안지다 동 [전역] → 데반-앉다.
데반-앉다 동 혼인 때 신랑 또는 신부를 위요(圍繞)하여 앉아 접대하는 상을 받고 앉다. [전역] = 데반-안지다, 데반-앚다.
데반-앚다 동 [전역] → 데반-앉다.
데번 부 [전역] → 데번-에.
데번-에 부 대번-에. [전역] = 데번.
데서 명 대서(代書). [전역]
데쉬 명 반기를 돌리기 전에 내놓는 돼지고기적 따위. 공동 술안주로 쓰이며, 순서에 따라 한 사람이 한 번만 집어야 함. [전역]
데시-걸이 명 <민> 잡귀를 풀어먹이기 위하여 제물로 올렸던 것들을 조금씩 모은 것. [전역] = 데-식.
데-식 명 <민> [하도] → 데시-걸이.
데신 명 대신(代身). [전역]
데실-데실 부 겉이 잘게 잇따라 벌어지거나 째어진 모양. [전역]
데실데실-ᄒᆞ다 형 피부가 거칠어져서 도돌도돌하다. [전역]
데양-ᄒᆞ다 동 [전역] → 데항-ᄒᆞ다.
데와-지다 동 반대 쪽으로 돌려져 비비 꾀다. [전역] = 뒈와-지다.
데우 명 [전역] → 데위.
데우다[1] 동 데우다. [전역]
데우다[2] 동 [전역] → 틀다.
데우치다 동 데치다. [전역]
데움-ᄒᆞ다 동 [전역] → 대움-ᄒᆞ다.
데위 명 대우(待遇). [전역] = 데우.
데이다 동 [전역] → 데다.
데작-데작 부 다닥-다닥. [전역] = 데닥-데닥.
데작지-게 부 나무 열매 따위가 가지에 많이 붙은 모양. [전역]
데작-지다 형 이리-하다. [전역]
데접 명 대접(待接). [전역] = 대접.
데지 명 대지(垈地). [전역]
데취 명 마소가 먹다가 남은 꼴의 찌꺼기 따위. [인성 노형 조수 김녕]
데패 명 <도> 대패(鉋). [전역] = 대패.



데패

데펫-밥 명 대팻-밥. [전역]
데펫-집 명 대팻-집. [전역]
데표 명 대표(代表). [전역]
데항-ᄒᆞ다 동 대항-하다(對抗--). [전역] = 데양-ᄒᆞ다.
데-ᄒᆞ다 동 대-하다(對--). [전역]
-덴 어미 -다고. ① 용언 어간에 붙은 '-앗-·-엇-·-엿-·-랏-·-안-·-언-·-연-·-란-·-앗수-·-엇수-·-랏수-·-엿수-' 또는 '-암-·-엄-·-염-·-람-·-암수-·-엄수-·-염수-·-람수-·-우-' 등에 연결되는 '-다'의 변형 '-데'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어미. *간 보니 다 ᄒᆞ나이나 도와준 사름이 엇어서 그디 벨로 경 거시기홀

땅이 못돼우덴 ᄒᆞ니.(가서 보니까 모두 한 사람이나 도와준 사람이 없어서 그곳이 별로 그렇게 거시기할 땅이 못됩니다고 하니.) [전역] ②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는 '-ㄴ'에 연결된 '-데-'에, 뒤의 동작이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 다음에 오는 '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어미. [전역] = -댄.

덴-그르 명 뜨거운 기운에 덴 자리. [전역] = 뒌-그르, 뒨-그루.

덴적-스럽다 형 [전역] → 던적-스럽다.

뎁-히다 동 덥-히다. [전역]

-뎅 어미 -다고. 용언 어간에 붙은 '-앗-·-엇-·-엿-·-랏-·-앗수-·-랏수-·-엿수-' 또는 '-암-·-엄-·-염-·-람-·-암수-·-엄수-·-염수-·-람수-·-우-' 등에 연결되는 '-다'의 변형 '-데'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 -댕.

뎅가리 명 줄거리. 채소의 뿌리에서 줄기를 자른 후 그 밑동 부분. [전역] = 둥가리.

뎅강-뎅강 부 뎅겅-뎅겅. [전역]

뎅겡이 명 <동> 조간대(潮間帶) 상층(上層)에 서식하는 패류의 한 종류. [대포]

뎅겨-가다 동 다녀-가다. [전역]

뎅그랑 부 덩그렁. ① 텅 비어 있는 모양. [전역] ② 썰렁한 모양. [전역]

뎅기다 동 [전역] → 듸니다.

뎅김 명 [노형] → 다님.

뎅-유지 명 [전역] → 댕-유지.

뎅이[1] 명 <공> 무쇠를 녹인 쇳물을 부어 솥·볏·보습 등을 만드는 주형(鑄型). [덕수]

뎅이[2] 명 [전역] → 덩이.

뎅이[3] 명 건조한 담배 백 잎. [한동]

뎅이다 동 *머리에 이엉 뎅이멍 풀앗주.(머리에 이어 다니며 팔았지.) [전역] → 듸니다.

뎅잇-멜 명 무리를 지어 다니는 멸치의 떼. [하도]

뎅침-박다 동 박음질-하다. 실을 곱걸어서 꿰매다. [전역]

도[1] 명 어떤 장소의 입구(入口). *(속)도 터진 밧디 ᄆᆞ쉬 든다.(담장 무너진 밭에 마소(馬牛) 들어온다.) [전역]

도[2] 명 <민> 신(神). 신령을 가리키는 말. 벡줏도, 천줏도 등의 '-도'가 이것임. [전역]

도[3] 조 도. ① 주격, 호격, 여격, 목적격 등으로 쓰이는 격조사. [전역] ②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③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을 아우를 때 쓰이는 격조사. [전역] ④ 다른 것에 어느 것이나 포함시킴을 뜻하는 격조사. [전역] ⑤ 양보하는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⑥ '마저·까지도'의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⑦ 강조의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도 어미 -도. 용언의 뜻을 부정하려 할 때, 그 용언의 어간 또는 어간에 붙은 '-지'에 연결되어서 쓰이는 어미. 그 다음에는 대개 부정어가 옴. [전역]

도- 두 '다시'의 뜻으로 쓰이는 접두사. [전역]

도가리 명 *도가리도 막 아프고.(대가리도 마구 아프고.) [전역] → 데가리.

도가지 명 <도> 아주 작은 독(瓮). [인성 노형 조수]

도갓-몰리 명 [노형] → 독-ᄆᆞ릅.

도갓-칩 명 도가(都家). 마을에 공의사(公議事)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모일 장소(場所)로 하는 집. [전역]

도고리 명 <도> 함지-박. [전역]

도곰 명 <도> [전역] → 안장-도금.

도곰-수견 명 <의> 해녀가 바다에 들 때 입는, 음부(陰部)를 가리는 옷. [전역]

도-공원 명 <민> 도공원(都公員). 무격(巫覡) 조직 신방청(神房廳) 우두머리인 도황수의 보좌역. [전역]

도그-내 명 <지> 제주시 해안동과 도평동을 지나 외도동으로 흐르는 내. [전역]

도그냇-마을 명 <지> 제주시 외도동 '도그내' 하류와 '도근냇ᄃᆞ리' 일대에 형성된 마을. [전역]

도글락-ᄒᆞ다 동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나다. [전역]

도금 명 <도> [감산] → 안장-도금.

도깨 명 <도> [전역] → 도께.

도깨비 명 [서홍 조천] → 도체비.

도깨질 소리 명 <요> [전역] → 마당질 소리.

도깽이 명 [대정] → 돗궹이.

도께 명 <도> 도리깨(鞭棍). [전역] = 도깨.

도께-아돌 명 도리깻-열. 도리깨채의 끝에 달려 곡식의 이삭을 후려치는 곧고 가느다란 나뭇가지. [전역]



도께

도께-어시 명 도리깻-장부. 도리깨의 자루로 쓰는 긴 막대기. [전역]

도께-톨레 명 도리깨-꼭지. [전역]

도깽이 명 [대정] → 돗궹이.

도꼬리 명 [전역] → 독고리.

도꼬리-낭 명 <식> [전역] → 새비-낭.

도꾸마리 명 <도> 도투마리. [전역]

도끼 명 <도> [전역] → 도치.

도-나다 동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끝에 씨가 떨어져 저절로 나다. [전역]

도난-모돌 명 <농> 메밀씨가 밭에 떨어져 저절로 난 메밀. [전역]

도난-조 명 <농> 조씨가 밭에 떨어져 저절로 난 조(粟). [전역]

도남 명 <지>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도내-산(道內山) 명 <지> [봉성] → 어도-오름.

도너리-오름 명 <지> [동광 봉성 광평 상창] → 돗ᄂᆞ리-오름.

도노-미[1] 명 <지> [봉성 어도] → 어도-오름.

도노-미[2] 명 <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옛 이름. [애월]

도노-미[3] 명 <지> 제주시 정실마을의 옛 이름. [전역] = 동-도노미.

도-놀다 동 도-닐다. 제자리에서 맴돌며 지내다. *물도 산도 지넘지 말앙 이듸서 도놀당 가라.(물도 산도 넘지를 말고 여기서 도닐다 가라.) [전역]

도다 동 주다. 물건 따위를 남에게 건네어 가지거나 누리게 하다. *그거나 도라.(그것 나 줘라.) [전역] 고 도다.

도당-쿼다 동 어린애가 두 발을 연속해 구르며 소리를 내다. [김녕 서홍 수산 조수]

도덕-새 명 남의 띠밭에서 도둑질하여 마련한 띠. [수원]

도데 명 등대(燈臺). 현대식 등대와 구별하여, 주로 재래식 등대를 일컬음. 일본어 'とうだい'(도다이)에서 온 말. [전역]



도데

도도-리 명 <지> [전역] → 도두-리.

도도 쓰러 먹다 구 주변의 것을 가운데로 모아 가며 말끔히 먹다. [전역]

도독 명 도둑. *(속) 좁음 도독으로 집안 망흔다.(젓가락 도둑으로 집안 망한다.) [전역] = 도적.

도독-고넹이 명 도둑-고양이. [전역]

도독-놈 명 도둑-놈. *(속) 도독놈 텐 벗곡, ᄌᆞ식 텐 못 벗나.(도둑놈 티는 벗고, 자식 티는 못 벗는다.) *(속) 도독놈광 샛뭇은 무끄민 담나.(도둑놈과 띳뭇은 묶으면 닮는다.) [전역]

도독-물질 명 <어> 해산물을 캐어서는 안 되는 금채 기간에 몰래 해녀작업을 하는 일. [전역]

도독-질 명 도둑-질. *아멩ᄒᆞ므로 가의가 도독질을 ᄒᆞ카이?(아무려니 그 애가 도둑질을 할까?) [전역]

도동-베기 명 <동> 부시리 새끼. [사계]

도두-리(道頭里) 명 <지> 제주시 도두동(道頭洞)의 옛 이름. [전역] = 도도-리.

도두-봉(道頭峰) 명 <지> [전역] → 도들-오름.

도들 명 <건> 대청 복판의 마룻대 아래 시설된 시렁의 일종. [전역]

도들다 동 ① 본디 있었던 자리로 되돌아가다. [전역] ② 부부가 헤어졌다가 다시 결합하다. *말찻 살렴 도들은 살렴 다운 머리가 곱이로 민다.(헤어질 살림 되들은 살림 땋은 머리가 곱으로 민다.) [전역]

도들-오름 명 <지> 제주시 도두1동 바닷가에 있는 오름. 위가 동긋이 도드라진 원정구(圓頂丘)임. 표고 65.3미터. [전역] = 도두-봉(道頭峰).

도라 동 달라. '해라' 할 자리에서 직접 대하여 무엇을 주라고 요구하다. [전역] 고 도라.

도라지 명 <식> 도라지. [전역]

도랑-춤 명 <민> 매우 격렬하게 뱅뱅 돌며 추는 춤. 마구 뒹굴며 법석거리

는 모습. *그 가시어멍 뒈는 이가 막 도랑춤을 ᄒᆞ염서.(그 장모 되는 이가 마구 '도랑춤'을 추고 있어.) [구좌]

도래기 명 [전역] → 퀭이.

도래-물 명 <지> [서귀포 중문] → 회수-동.

도량 명 지경(地境). [전역] = 도리[1], 도레.

도레 명 [전역] → 도량.

도레기 명 [전역] → 도로기[2].

도레들러-붬 명 <민> '새ᄃᆞ림'에 이어 '도레채롱'이라는 떡 채롱을 들고 춤을 추어 인정받는 의례. [전역]

도렝이[1] 명 <동> 괭이-상어. [전역]

도렝이[2] 명 <병> [전역] → 도롱이[1].

도렝-이[3] 명 보푸라기. [전역] = 도롱-이[2].

도렝이-올르다 동 [수산 서홍] → 도롱이-올르다.

도련-동(道連洞) 명 <지> [전역] → 도련-드르.

도련-드르 명 <지> 제주시 삼양동(三陽洞)의 한 자연마을. [전역] = 도련-동(道連洞)

도련-ᄒᆞ다 형 [어도] → 도렷-ᄒᆞ다.

도렷-ᄒᆞ다 형 도렷-하다. [인성 노형 조수 김녕] = 도련-ᄒᆞ다.

도령-ᄆᆞ르 명 <지> 제주시 용담2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도로 부 도로. [전역]

도로기[1] 명 <식> 마늘의 화경(花莖). *음력 삼월둘 뒈민 나왕 사월 초쯤에 뽑아. 게야 뿌리가 굵어진다고. 그걸 도로기라고 ᄒᆞ주. 그걸로 지도 담곡.(음력 삼월달이 되면 나와서 사월 초쯤에 뽑아. 그래야 뿌리가 굵어진다고. 그것을 '도로기'라고 하지. 그것으로 장아찌도 담그고.) [어음]

도로기[2] 명 바퀴(輪). 돌게 하려고 테 모양으로 만든 물건. [전역] = 도레기, 바퀴.

도로록기 부 아주 작고 단단하고도 동그란 물건이 좁은 틈으로 미끄러져 떨어지는 모양. [전역]

-도록 어미 -도록. ① 용언 어간에 붙어서, '-ㄹ 수 있게·-게 하기 위하여·-ㄹ 때까지'의 뜻으로 쓰이는 연결어미. [전역] ② 용언 어간에 붙어서, '-게끔·-게시리'의 뜻으로 쓰이는 어미. [전역]

도록-도록 부 물방울 따위가 이따금씩 연이어 떨어지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전역]

도롱-깅이 명 <동> [노형] → 심방-겡이.

도롱-마 명 <식> [인성 조수] → 오롱-마.

도롱이[1] 명 <병> 비루. 개나 말 따위의 털이 빠지는 병. [전역] = 도렝이[2].

도롱-이[2] 명 [전역] → 도렝-이[3].

도롱이-올르다 동 비루-먹다.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도렝이-올르다.

도르다[1] 동 도리다. 둥글게 빙 돌려서 베거나 파다. [전역] = 돌르다[1].

도르다[2] 동 바꾼 물건이나 산 물건을 도로 주고 그 물건이나 값을 찾다. [전역] = 돌르다[2].

도리[1] 명 [전역] → 도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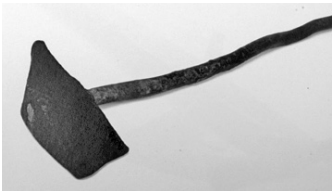
도리[2] 명 <건> 도리. 기둥과 기둥 위에 건너 얹는 나무. [전역]
도리[3] 명 갓양태를 결어 갈 때 겯는 바퀴 수효를 셀 때의 단위. [전역]
도리-미 명 <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비치미 북동쪽에 잇닿은 오름. 등성이가 말굽형으로 돌아 있음. 표고 312미터. [성읍 송당 선흘]
도리-방석 명 [가시 수산 김녕] → 돌레-방석.
도리-버짐 명 <병> 타원형의 반점이 생기는 버짐의 한 종류. [전역]
도리-암메 명 <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북서쪽 '돗ᄂᆞ리오름'의 둥그런 산정 화구(山頂火口). 둘레 약 400미터, 깊이 49미터의 깔때기형임. [동광 금악]
도리여 무 도리어. [전역]
도-마트다 동 도-맡다. [전역]
도막 명 도막. [전역] = 동[3].
도막-낭 명 짤막하게 동강이 난 나무. [전역]
도문-뇌 명 <도> [사계] → 하노.
도미 명 <동> [조수] → 돔.
도베 명 [수산] → 도비.
도복 명 <의> 도포(道袍). 예전에 통상 예복으로 입던 남자의 겉옷. [전역] = 도폭.
도봇-짐 명 [화순 수산 조천 어도] → 도빗-짐.
도비 명 도배(塗褙). [전역] = 도베.
도비-상귀 명 도붓-장수(到付商人). 방물을 지고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사람. [전역] = 도비-상기.
도비-상기 명 [표선] → 도비-상귀.
도빗-짐 명 도붓-짐(到付-). [전역] = 도봇-짐.
도사려-앚다 동 책상다리-하다. [전역]
도사리 명 [전역] → ᄃᆞ사리.
도사리-보내다 동 [전역] → ᄃᆞ사리-보내다.
도-산받음 명 <민> 굿판에서 점을 하여 마을 전체의 운수를 알아보는 의례. [전역]
도살아-지장본 명 <민> 백정의 수호신을 위한 굿인 거무영청대전상굿에서 지장본풀이 끝에 부르는 노래. [전역]
도새기 명 <동> *(속) 둘아멘 도새기가 기시린 도새기 타령ᄒᆞᆫ다.(달아맨 돼지가 그슬린 돼지 타령한다.) *(속) 둘아멘 도새기나, 기시린 도새기나.(달아맨 돼지나, 그슬린 돼지나.) *(속) 퀴어나난 도새긴 또 퀴어난다.(뛰쳐나갔던 돼지는 또 뛰쳐나간다.) [전역] → 돗[2].
도새기-불알 명 돼지의 고환. [전역]
도새기-새끼 명 <동> 새끼 돼지. [전역] = 도야지-새끼, 돗-새끼, 뒈야지-새끼, 뒈지-새끼.
도순-동(道順洞) 명 <지> 서귀포시 대천동에 속한 법정마을. [서귀포 중문] = 돌-숭이.
도스리다 동 남이 한 말을 제삼자에게 그대로 전하여 이야기하다. [전역] = 도시리다, ᄃᆞ스리다, ᄃᆞ시리다.
도슬기 명 <도> 노끈 따위로 그물처럼 맺어 둘레에 고를 내고 긴 끈을 달아서 지고 다니는 그물 주머니. [전역]
도시리다 동 [전역] → 도스리다.

도실금-똘(桃實金-) 명 복숭아처럼 예쁘고 금같이 귀한 딸. *은똘 금똘 도실금똘.(은딸 금딸 '도실금똘'.) [전역]
도실-낭(桃實-) 명 <식> 복숭아-나무. *질깃 집의 도실낭 싱건 씨냐 ᄃᆞ냐 맛볼 인 하도, 벤 일 ᄒᆞ꼼 도웰 인 읏다.(길갓 집에 복숭아나무 심어 쓰냐 다냐 맛볼 인 많아도, 무거운 일 조금 도울 인 없다.) [전역] = 도아-낭, 도애-낭.
도ᄉᆞ 명 도사(島司). [전역]
도아-낭 명 <식> [전역] → 도실-낭.
도-액막음 명 <민> 굿판에서 마을 전체의 액을 막는 의례. [전역] = 마을-도액막음.
도야지 명 <동> [전역] → 돗[2].
도야지-새끼 명 <동> [전역] → 도새기-새끼.
도애-낭 명 <식> *방엔 보난 굴묵낭 방에, 절귄 보난 도애낭 절귀.(방아는 보니 느티나무 방아, 절굿공이는 보니 복숭아나무 절굿공이.) [전역] → 도실-낭.
도왜다 동 남을 도와서 어떤 일을 하다. [조수 수산]
도욕 명 <도> 고동. 물렛가락의 윗몸에 끼워 고정시킨 두 개의 구슬 같은 물건. [노형 인성 조수 서홍]
도장-남 명 <식> ① 섬-회양목. [전역] ② 회양-목. [전역]
도장-밥 명 인주(印朱). [전역] = 인주(印朱).
도쟁이(屠--) 명 백정. 소, 돼지 따위를 죽여 잡는 사람. [수산 어도]
도적(盜賊) 명 [전역] → 도독.
도전 명 <민> 시루떡을 옆쪽으로 도려낸 조각. [전역] = 밧-도전.
도전-시리 명 <민> [전역] → 나까-시리.
도전-침 명 <민> [전역] = 나까도전-침.
도전-풀이[1] 명 <민> 나까시리놀림, 지장본풀이 등을 이름. [전역]
도전-풀이[2] 명 <민> 시루떡을 놀린 뒤 조각내어 신에게 바치고 하위 잡신을 달래는 의례. [전역]
도-절귀 명 <도> [하원 표선] → 돌-철귀.
도지[1] 명 늦가을 음산한 날 서북(西北)쪽의 산에서 불어 오는 바람. [어도 대정]
도지[2] 명 <민> 매듭. [전역]
도지다 동 도지다. 나았던 병이 다시 덧나다. [전역]
도지마을-굿 명 <민> 큰굿의 보세감상 제차에서 매듭을 가지고 문답하는 의례. [전역]
도-지ᄉᆞ 명 도-지사(道知事). [전역]
도지-주제 명 초겨울에 갑자기 부는 서북풍(西北風). [대정]
도진 명 <민> 신(神)을 보내는 제차(祭次)의 이름. [전역] = 막-도진.
도체비 명 도깨비. [전역] = 도깨비.
도체비-고장 명 <식> [전역] → 도체비-낭.
도체비-꼿[1] 명 <식> 참-나리. [전역]
도체비-꼿[2] 명 <식> [전역] → 도체비-낭.
도체비-낭 명 <식> 산-수국. [전역] = 도체비-고장, 도체비-꼿[2], 물-파리.
도체비-방쉬 명 <민> 정월 대보름날

짚으로 사람 모양의 허수아비를 만들어 바닷가나 들녘에 버리고 사신(邪神)을 쫓는 일. [전역]

도체비-불 명 도깨비-불(鬼燐). [전역]

도치 명 <도> 도끼(斧). [전역] = 도끼.



도치

도-치다 동 찬밥 따위를 도로 찌거나 데우다. [전역]

도-클다 동 어떤 곳으로 드나드는 목에 쌓은 돌담 따위를 허물다. [전역] = 도-헤다, 도-히다.

도톨-도톨 부 도톨-도톨. [전역]

도판-몰다 동 독장-치다(獨場--). 어떠한 판을 혼자서 휩쓸다. [노형 조수 인성 수산] = 독판-몰다.

도폭 명 <의> [전역] → 도복.

도-헤다 동 [전역] → 도-클다.

도-황수 명 <민> 도행수(都行首). 일제강점기까지 존재하던 무격(巫覡) 조직 신방청(神房廳)의 전도(全島) 우두머리. [전역]

도-히다 동 [전역] → 도-클다.

독 명 [어도 수산] → 독-ᄆᆞᆸ.

독고리 명 찔레나무의 어린 순. [서귀포 조천 조수] = 도꼬리, 동꼬리, 똥꼬리.

독고리-낭 명 <식> [서귀포 조천] → 새비-낭.

독-꽝 명 [전역] → 독ᄆᆞᆸ-꽝.

독다구리 명 <동> [화순 하원 인성] → 독다귀.

독다귀 명 <동> 도마-뱀. [조수 인성 노형] = 독다구리, 둑다귀, 장칼레비[1], 장쿨레기, 장쿨레비[1], 장콜레비.

독-다님 명 <의> [서홍 수산] → 독-다림.

독-다림 명 <의> 중-대님. 무릎 바로 밑에 매는 대님. [인성 노형 조수] = 독-다님, 정강-다님.

독닥-선(--船) 명 <어> 똑딱-선. [전역]

독-머리 명 [조수 어도] → 독-ᄆᆞᆸ.

독-멩이 명 [전역] → 돌-멩이.

독-무럽 명 [조수 노형 수산] → 독-ᄆᆞᆸ.

독물-오름 명 <지> 애월읍 봉성리 산간에 있는 오름. 민간에서는 '동물오름'이라고도 함. [애월]

독-ᄆᆞᆸ 명 [노형 인성] → 독-ᄆᆞᆸ.

독-ᄆᆞ리 명 [노형 조수 수산] → 독-ᄆᆞᆸ.

독ᄆᆞ리-꽝 명 [어도 화순 서홍] → 독ᄆᆞᆸ-꽝.

독-ᄆᆞ립 명 [노형 인성] → 독-ᄆᆞᆸ.

독-ᄆᆞᆺ 명 무릎(膝). [전역] = 도갓-몰리, 독, 독-머리, 독-무럽, 독-ᄆᆞᆸ, 독-ᄆᆞ리, 독-ᄆᆞ립, 독-몰리, 무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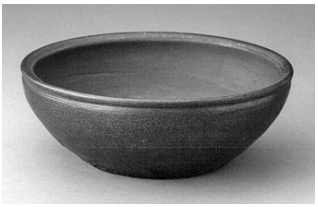
독ᄆᆞᆺ-꽝 명 종지-뼈. [전역] = 곽산-뻬, 독-꽝, 둑ᄆᆞ리-꽝, 둑새기-꽝, 절벤-꽝, 학사니-뻬, 학산-꽝, 학설-뻬, 학슬-뻬.

독-몰리 명 [노형 어도] → 독-ᄆᆞᆸ.

독-바령 명 <지> [선흘] → 돗-바령.

독-부족 명 독부조(篤扶助). 힘 기울여 도움. [전역]

독-사발 명 <도> 뚝배기. 작은 오지그릇. [사계]



독사발

독상귀 명 [표선] → 돌새기.

독새기 명 [전역] → 돌새기.

독-오르다(毒---) 동 독-오르다. [전역]

독자-봉(獨子峰) 명 <지> [성산] → 독주-오름.

독자-악(獨子岳) 명 <지> [성산] → 독주-오름.

독장-거리다 동 독장-치다. 그 장소에서 자기 위는 없는 것 같이 출썩거리다. [전역]

독재-악(獨才岳) 명 <지> [성산] → 독주-오름.

독제-오름 명 <지> [성산] → 독주-오름.

독-제우다 동 독기(毒氣)를 이기지 못하다. [전역]

독-지다 형 물건이 굵직하다. [전역]

독지몰-ᄐᆞ다 동 [노형] → 엇게몰-ᄐᆞ다.

독지-오름 명 <지> [성산] → 독주-오름.

독-집[1](獨-) 명 <건> 독-채. [전역]

독-집[2] 명 <민> '영ᄀᆞ루' 위에 집 모양으로 덮어 두는 백지. [전역] = 영-집.

독짓-골 명 <지>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 독짓-굴.



독집[2]

독짓-굴 명 <지> [전역] → 독짓-골.

독주-오름 명 <지>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에 있는 표고 159미터의 오름. [성산] = 독자-봉, 독자-악, 독재-악, 독제-오름, 독지-오름, 사지-봉, 오름삿기-오름.

독판-몰다 동 [서홍 수산 김녕] → 도판-몰다.

독-ᄒᆞ다(毒--) 형 독-하다. [전역]

돈 명 돈. [전역]

돈-놀리다 동 돈놀이-하다. [전역] = 돈-벨리내다.

돈대-머들 명 <지> [전역] → 동대-머들[1].

돈돌-오름 명 <지> [전역] → 돈두미-오름.

돈두미-오름 명 <지> 서귀포시 대정읍 영락리 바닷가에 있는 낮은 오름. 표고 41.9미터. [전역] = 돈돌-오름.

돈-드르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2리의 옛 이름. [남원] = 전-야(錢野).

돈-벨리내다 동 [전역] → 돈-놀리다.

돈-제비 명 <민> '간제비'의 한 면이 엽전 모양인 데서 돈제비라고 함. [전역]

돈지 명 <민> 매듭. *팔만신전에 올리다 남은 걸랑 아끈 돈지 한 돈지 감아 맞자.(팔만신전에 올리다 남은 것이랑 작은 매듭 한 매듭 감아서 맞자.) [전역]

돈지-당(--堂) 명 <민> [건입 용담] → 돈짓-당.

돈지-선앙 명 <민> 해변(海邊)의 신. [전역]

돈짓-당 명 <민> 해녀, 어로 등을 관장하는 해변신(海邊神)을 모시는 당. [우도]

돈-치기 명 돈-치기. [전역]

돈-푼 명 돈-푼. [전역]

돋-구다 동 돋-우다. [전역] = 돋-후다.

돋다 동 돋다. [전역]

돋아-오다 동 ① 해나 달 따위가 솟아오르다. [전역] ② 새싹이 또렷이 나오다. [전역]

돋-지다 동 돋-치다. *뿔을 돋지다.(뿔을 돋치다.) [전역]

돋-후다 동 [전역] → 돋-구다.

돌 명 돌(石). *(속) 돌을 차민 지 발 뿌리만 아픈다.(돌을 차면 제 발부리만 아프다.) [전역]

돌- 두 돌-. '품질이 떨어지는' 또는 '야생으로 자라는'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전역]

돌-가사리 명 <식> 돌-가사리. [전역] = 돌-가시리.

돌-가시낭 명 <식> [노형] → 감은-가시낭.

돌-가시리 명 <식> [표선] → 돌-가사리.

돌-겡이 명 <동> [수산 김녕] → 돌-킹이.

돌-구시 명 <도> 돌-구유. 돌로 파서 만든 구유. [전역]

돌-군벗 명 <동> 조간대(潮間帶) 중간층(中間層)에 서식하는 군부의 일종. [대포] = 돌-쿰벗, 쉐-군벗, 쒜-군벗.

돌-굴 명 <동> 굴-조개. [노형 조수] = 굴[2], 꿀[1].

돌ᄀᆞ를-내 명 새로 만들어낸 'ᄀᆞ레'(맷돌)에서 나는 돌가루 냄새. [행원]

돌껭이 명 [대정] → 돗궹이.

돌-늣 명 <식> 돌-김. [행원]

돌-담 명 돌-담. [전역] = 돌-탐.

돌-닷 명 돌로 된 닻. [전역]

돌-뎅이 명 돌-덩이. [전역]

돌-도고리 명 <도> 돌로 함지박 모양으로 만든 그릇. [전역]

돌-도치 명 <도> 돌-도끼. [전역]

돌돌[1] 부 [전역] → 달달[1].

돌돌[2] 부 돌돌. ① 물건을 여러 겹으로 마는 모양. [전역] ② 괴이하게 여겨서 놀라는 모양. [전역]

돌-등데 명 '돌로 쌓은 등대'라는 뜻으로, 어촌에서 포구에 돌을 탑 모양으로 높이 쌓아 올리고 그 위에 사방으로 구멍이 나게 만들어서 속에 남포등을 켜 놓는 대(臺). [전역]

돌-ᄃᆞ리 명 돌-다리. [전역]

돌레 명 멍석·멱 따위의 가로 건너짜는 실. 위(緯). [어음]

돌레- 두 도래-. '둥근'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전역]

돌레-떡 명 <음> 메밀이나 좁쌀가루 따위로 쟁반만큼 크고 둥그렇게 만든 떡. [전역]



돌레떡

돌레-방석 명 <도> 도래-방석. 짚으로 둥글게 짠 방석. [전역] = 도리-방석, 동고랑-방석.

돌려-쉬다 동 숨이 끊어질 듯하다가 한 고비를 넘겨 다시 숨을 들이마시었다 내보내었다 하다. [전역]

돌려-주다 동 돌려-주다. [전역]

돌르다[1] 동 [전역] → 도르다[1].

돌르다[2] 동 [전역] → 도르다[2].

돌리다 동 돌리다. 병이 위험한 지경을 넘게 되다. [전역]

돌리-미 명 <지>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2리에 있는 표고 186미터의 오름. '선돌'이라고도 부름. [성산]

돌림 명 [전역] → 돌림-병.

돌림-마누라 명 <병> 홍역. [전역]

돌림-병 명 돌림-병. [전역] = 돌림.

돌-멍기 명 <동> 멍게의 일종. 멍게 모양이 돌멩이처럼 생긴 데서 붙여진 이름. [이호] = 돌-멍지.

돌-멍지 명 <동> [용담] → 돌-멍기.

돌-메역 명 <식> 바다 속 바위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미역. 양식 미역인 '줄메역'에 대비해서 이르는 말. [전역]

돌-멩이 명 돌-멩이. [전역] = 독멩이.

돌-미[1] 명 <동> 해삼의 일종. [도두]

돌-미[2] 명 <지>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남케오름 북서쪽에 있는 오름. 표고 186미터. [수산 성읍] = 돌-산(乭山).

돌박 명 돌이나 암반이 박혀 있는 지대. [표선 세화]

돌-밧 명 돌-밭. [전역]

돌-버르다 동 큰 돌을 메로 패어 쪼개다. [전역] = 돌-벌르다.

돌-벌르다 동 [전역] → 돌-버르다.

돌-베 명 똘-배(-梨). [노형 조수 인성] = 꽝-베, 돌-페.

돌베-낭 명 <식> [인성 조수] → 돌페-낭.

돌-보말 명 <동> [전역] → 문다드리.

돌-비비 명 <도> [인성] → 나세-송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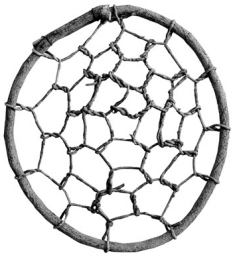
돌-빌레 명 [전역] → 빌레.

돌-빵구 명 아기가 허약할 경우에 돌덩이처럼 탄탄하게 자라라는 뜻으로 어릴 무렵에 붙이는 별명. [전역]

돌-사위 명 <동> [인성 조수 김녕] → 돌-새위.

돌-산(乭山) 명 <지> [수산 성읍] → 돌-미[2].

돌-산태 명 <도> 돌을 나르는 데만 쓰는 들것 비슷한 도구. [전역]



돌산태

돌-새기 명 자잘한 돌. [전역] = 독-

상귀, 독-새기, 돌-생기, 돌-생이.

돌-새위 명 <동> 보리-새우. [노형 인성 서홍 수산] = 돌-사위.

돌-생기 명 [노형 수산 세화 조천 조수] → 돌-새기.

돌-생이 명 [조천 어도] → 돌-새기.

돌-소곰 명 굵은 소금. [전역]

돌-숭이 명 <지> [서귀포 중문] → 도순-동.

돌아-가다 동 돌아-가다. [전역]

돌아-눅다 동 돌아-눕다. [전역]

돌아-뎅기다 동 돌아-다니다. *어떤 시님이 쏠을 빌레 독닥독닥 ᄒᆞ멍 돌아뎅기다가 어떤 집의 들어간 보난. (어떤 스님이 쌀을 빌리러 딱딱 하며 돌아다니다가 어떤 집에 들어가 보니.) [전역]

돌아-들다 동 돌아-들다. [전역]

돌아-보다 동 돌아-보다. *쉐도 목장의 올리믄 돌아보는디 사름이사 ᄀᆞᆯ을 말 셔마씀?(소도 목장에 올리면 돌아보는데 사람이야 말할 말 있습니까?) *경ᄒᆞ여도 지네 밧인고라 잘 돌아보긴 ᄒᆞᆫ다.(그래도 자기네 밭인지 잘 돌아보기는 한다.) [전역]

돌아-사다 동 돌아-서다. [전역] = 돌아-서다.

돌아-서다 동 [전역] → 돌아-사다.

돌아-섬 명 사방이 바다로 둘러싸인 섬. *뱅뱅 돌아섬에 삼시 굶으멍 물질ᄒᆞ연.(뱅뱅 두른 섬에서 삼시 굶으며 물질하여.) [전역]

돌아-앚다 동 돌아-앉다. [전역]

돌아-오다 동 돌아-오다. *그 사름 돌아왓덴 ᄀᆞᆯ아라.(그 사람 돌아왔다고 말하더라.) [전역]

돌-안반 명 <도> 다듬잇-돌. [전역]

돌-엉덩 명 굴처럼 생긴 바위. *소임이랑 아무 이애기도 말앙 이 돌엉덩 아래 이시라.(소임(所任)은 아무 이야기도 하지 말고 이 '돌엉덩' 아래에 있어라.) [구좌]

돌-오름[1] 명 <지> 제주시 아라동과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의 경계, 한라산 국립공원의 흑붉은오름 동쪽에 이웃한 오름. 표고 1279미터. [아라 교래] = 신선-오름.

돌-오름[2] 명 <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영아리오름 북동쪽, 제주시 애월읍과의 경계에 걸쳐진 오름. 표고 866미터. [안덕 애월]

돌-오름[3] 명 <지> [동광 금악] → 돗ᄂᆞ리-오름.

돌오름-물 명 <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밧돌오름 위에 있는 샘. 흔하지 않은 산상천(山上泉)의 하나임. [송당 덕천]

돌-웃 명 <식> 이끼. [전역]

돌-우미 명 <식> 우뭇가사리의 한 가지. 바닷가 바위 위에 자라나는 자잘한 우뭇가사리. 작업 솜씨가 서툰 하군해녀나 노파 해녀들이 무자맥질하지 않고 옷을 입은 채 캐기도 함. [전역]

돌음 명 <어> 여러 사람이 바람에 떠밀려온 해조류를 공동으로 채취하고 분배할 때 여러 개로 나누어 놓은 모양. [성산]

돌음-쉐 명 여럿이 돌아가며 돌보는 소. [신양]

돌-정각 명 <식> 청각채의 일종. [하도]
돌-질 명 [전역] → 돌-칠.
돌챙이 명 돌-장이. [전역]
돌-철귀 명 <도> 돌-쩌귀. [전역] = 도-절귀.
돌-칠 명 돌-질. [전역] = 돌-질.
돌캄-낭 명 <식> 돌감-나무. [전역]
돌-켕이 명 <동> [가시] → 돌-킹이.
돌-쿰벗 명 <동> *굼벗도 돌쿰벗 잇고게 해르비굼벗 잇주.(굼부도 '돌군부' 있고 털군부 있지.) [하도] → 돌-군벗.
돌-킹이 명 <동> 등과 배의 딱지가 매우 딴딴한 게(蟹). [노형 인성 서홍] = 돌-겡이, 돌-켕이.
돌-ᄏᆞ르 명 돌-가루. [전역] = 돌-ᄏᆞ를.
돌-ᄏᆞ를 명 [전역] → 돌-ᄏᆞ르.
돌-탐 명 [인성 서홍] → 돌-담.
돌-태 명 <도> 씨 뿌린 밭을 다지는 데 쓰는, 돌로 둥그렇게 만든 농기구. [전역]



돌태

돌-텡이 명 ①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거나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는 사람. [전역] ② 몸이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부은 상태를 비유하는 말. [전역] ③ 아둔하고 어리석은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전역]
돌-톰 명 <동> 돌-돔. [노형 김녕 서홍 수산]
돌-파리 명 <어> [전역] → 하군(下軍).
돌패기 명 아기가 허약할 경우에 돌덩이처럼 탄탄하게 자라라는 뜻으로 어릴 무렵에 붙이는 별명. [전역]
돌-페 명 [노형 수산 서홍 김녕] → 돌-베.
돌페-낭 명 <식> 똘배-나무. [김녕 서홍 수산 노형] = 꽝베-낭, 돌베-낭.
돌-포말 명 <동> [전역] → 문다드리.
돌폭-조기 명 <동> 부세. 민어과의 바닷물고기. [노형 수산]
돌-ᄑᆞ레 명 <어> *물질 못ᄒᆞ는 사름은 돌ᄑᆞ레엔 ᄒᆞ여.(물질 못하는 사람은 '돌ᄑᆞ레'라고 해.) [하도] → 하군.
돌-하르방 명 <민> 약 500년 동안(1416~1914) 제주도의 행정구역이 제주목(濟州牧)·대정현(大靜縣)·정의현(旌義縣)으로 나누어졌을 때에 각 고을의 성문 앞에 세워졌던 독특한 형상의 석상(石像). 세 고을의 석상의 모습이 각기 다르며, 현재 47기가 확인되고 수호신적·주술적·위치표지적 기능을 지녔던 것으로 보아 한반도의 장승과 상통됨. 무석목, 벅수머리, 우석목 등으로 불렸음. [전역]



돌하르방

돌호로-마을 명 <지> [전역] → 돌호리-마을.
돌호리-마을 명 <지> 제주시 연동의 한 자연마을. [연] = 돌호로-마을.
돌-혹 명 <도> 돌-확. 큰 통나무를 파서 만든 절구 가운데에 박아 놓은 돌로 된 확. [전역]


돌혹

돌-화리 명 <도> 돌을 파서 만든 화로(火爐). *이거 돌화리레 놩 구우라. (이것 돌화로에 놓아서 구워라.) [전역]


돌화리

돔 명 <동> 돔. [전역] = 도미.
돔바름 명 <지> [전역] → 돔베-오름.
돔바리 명 <동> [전역] → 돔발이.
돔바리-상의 명 <동> [전역] → 돔발이.
돔박-고장 명 동백-꽃. [전역] = 돔박-꼿.
돔박-골위 명 [전역] → 돔박-씨.
돔박-골이 명 [전역] → 돔박-씨.
돔박-꼿 명 [전역] → 돔박-고장.
돔박-낭 명 <식> 동백-나무. [전역]
돔박-생이 명 <동> 동박-새(白眼雀). [하원 서홍 태흥 표선 수산 세화 조천]
돔박-씨 명 동백나무의 열매. [전역] = 돔박-골위, 돔박-골이.
돔박이-오름 명 <지>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평화로변에 있는 오름. '돔박생이'(동박새)가 많았다고 함. 표고 521미터. [봉성 광평]
돔박-지름 명 동백-기름. [전역]
돔발이 명 <동> 돔발-상어. *등뎅이에 가시 시민 돔발이라. 봄 낭 옥돔 주낙홀 때 잡아 오주, 알 칠라고 펄바당에 들어오민.(등어리에 가시 있으면 '돔발이'야. 봄 되어서 옥돔 주낙할 때 잡아 오지. 알을 까려고 펄바다에 들어오면.) [사계 대포 조천 신흥] = 돔바리, 돔바리-상의.
돔베 명 <도> 도마(俎). [전역]


돔베와 돔베칼

돔베-오름 명 <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상동 북서쪽에 있는 오름. 산등성이가 '돔베'(도마)처럼 낮고 평평함. 표고 466미터. [교래] = 돔바름.
돔베-칼 명 [어도 호근 서홍] → 숭키-칼.
돔비 명 <식> 동부. 콩과의 한해살이 덩굴성 식물. [전역]
돗[1] 명 돛(帆). [전역]
돗[2] 명 <동> 돼지. [전역] = 도새기,

도야지, 뒈야지. ㊟돗, 돋, 돝.

돗[3] 명 돌. 태어난 뒤에 한 해씩 차서 해마다 돌아오는 그 날. [전역]

돗- 두 '빛깔이 검은'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 [전역]

돗-가래 명 <농> [하천 가시] → 돗-걸름.

돗가래-막음 명 <농> 돼지거름을 보리밭에 뿌리고 복토(覆土)를 한 후에 밭 위로 드러난 돼지거름을 곰방메로 주변의 흙덩이를 부숴주며 다시 묻어주는 일. [하천]

돗가래-착 명 [하천] → 돗걸름-착.

돗-가죽 명 ① 돼지-가죽. [전역] ② 성질이 다랍고 질긴 사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전역]

돗-갈래 명 [광령] → 돗-걸름.

돗-거미 명 <동> 왕-거미. [전역]

돗-걸름 명 돼지-거름. 돼지우리에서 파낸 거름. [전역] = 돗-가래, 돗-갈래.

돗걸름-착 명 <도> 돼지거름을 담아 나르는 멱서리. [대포] = 돗가래-착, 착부지.

돗-것 명 돼지의 먹이. [전역]

돗-고기 명 [전역] → 돗-궤기.

돗공이 명 [인성 화순 서홍 어도] → 돗궹이.

돗공잇-주제 명 [화순 서홍 어도] → 돗쳉잇-주제.

돗-궤기 명 돼지-고기. [전역] = 돗-고기, 뒈야지-궤기.

돗궹이 명 회오리-바람(旋風). *돗궹이주제가 홍ᄒᆞ더니 무슨 글작이 불려 오거든.(회오리바람이 한 번 휭하고 불더니 무슨 종이조각이 불리어 오거든.) [하원 서홍 수산 태흥 표선 세화 조천 노형 조수] = 도깽이, 도껭이, 돌껭이, 돗공이, 돗껭이, 뭬오리.

돗껭이 명 [노형] → 돗궹이.

돗-날 명 돼지-날(亥日). [전역]

돗ᄂᆞ리-오름 명 <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북서쪽,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와의 경계에 걸쳐진 오름. 멧돼지가 내려온 일이 있었던 데서 연유하는 이름이라고 함. 표고 439.6미터. [전역] = 골체-오름[3], 도너리-오름, 돌-오름[3].

돗-당 명 <민> 돼지를 잡아 제물로 올리고 제를 지내는 당. [납읍 외도 구좌]

돗-대 명 <도> 돛-대(檣竿). [전역]

돗-도고리 명 <도> 돼지에게 먹이를 넣어 주기 위해서 돌을 둥글넓적하게 파서 만든 돌그릇. [전역]



돗도고리

돗-돔 명 <동> 돗-돔. [전역]

돗돈-배 명 <어> 돛단-배(帆船). [전역]

돗-막 명 <건> [수산 어도] → 돗-집.

돗-바령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 1리의 한 자연마을. [선흘] = 독-바령.

돗-발톱 명 돼지의 발톱. [전역]

돗-보리 명 <동> 바구미. 보리쌀 등 곡식에 생기는 벌레. [전역] = 돗-부리.

돗-부리 명 <동> [전역] → 돗-보리.

돗-새끼 명 <동> [전역] → 도새기-새끼.

돗-솔 명 [전역] → 돗-술.

돗수에 명 <식> 방가지-똥.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가시]

돗-술 명 돼지의 털. [전역] = 돗-솔.

돗술-머리 명 돼지 털처럼 곧고 빳빳한 머리카락. [전역]

돗-오름 명 <지> 제주시 구좌읍 평대리와 송당리의 경계에 걸쳐진 오름. 돼지 모양을 닮았다고 함. 인근에 비자림(榧子林)이 있음. 표고 284미터. [전역] = 비지-오름.

돗-잠 명 쓸데없는 잠. [전역]

돗-제 명 <민> 돼지고기를 받아먹는 본향신을 청하여 돼지고기를 바쳐 기원하는 의례. [김녕 동복 월정 한동 평대 세화]

돗-줄 명 <도> 돛을 매다는 데 쓰는 줄. [전역]

돗-줄레 명 <동> 율모기. [가시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김녕] = 돗-줄리, 돗-줄워리.

돗-줄리 명 <동> [인성 서홍]→ 돗-줄레.

돗-줄워리 명 <동> [수산 조수] → 돗-줄레.

돗-지름 명 돼지고기에서 짜낸 기름. [전역]

돗-집 명 <건> 동그랗고 자그마하게 삼면(三面)으로 담을 쌓아 올려서 위에 검불을 덮고 한쪽 면을 터서 돼지가 드나들게 한 막. [전역] = 돗-막.

돗챙잇-주제 명 한바탕 부는 회오리바람. [하원 태흥 수산 표선 조천 노형 어도 조수] = 돗공잇-주제.

돗-초석 명 ① 초석(草席)으로 단 돛(帆). [전역] ② 돛. [전역]

돗-추렴(-出斂) 명 각기 돈을 얼마씩 내어 돼지를 잡아먹는 일. [전역]

돗-통 명 <건> [전역] → 돗-통시.

돗통-목 명 돼지우리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길목. [전역]

돗-통시 명 <건> 돼지-우리. [전역] = 돗-통, 통시, 통지[1].



돗통시

돗-헤치 명 돼지-띠. [전역]

동[1] 명 금방 맺기 시작한 열매. *고치 동 뭇앗저.(고추에 열매가 맺혔다.) [전역]

동[2] 명 필. *멩지 흔 동.(명주 한 필.) [전역]

동[3] 명 *그 중도막으로 동을 내여 불라.(그 중동으로 도막을 내어 버려라.) [노형] → 도막.

동-가름 명 [전역] → 동-카름.

동가리-톱 명 <도> 나무토막을 가로로 자를 수 있게 날을 세운 톱. [감산]

동갑(同甲) 명 동갑. [전역]
동개 명 [화순] → 굴메[1].
동개-동(東開洞) 명 <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한 자연마을. [애월]
동-검은이(東---) 명 <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거미오름의 딴 이름. 이에 대해 '검은오름[1]'을 '서(西)검은이'라고 하며, 각각 송당리의 동·서 변두리에 위치함. [전역] → 거미-오름.
동겨-메다 동 동여-매다. [전역]
동-고개 명 뚱뚱하게 살진 뒷덜미. [전역]
동고랑-곤떡 명 <음> [노형 조수] → 절벤.



동고랑곤떡

동고랑-방석 명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돌레-방석.
동-고량 명 대오리로 네모나게 엮은 도시락. [노형 조수 인성] = 동-고령, 밥-당석, 밥-장석, 밥-차반이.
동고렝이 부 빠짐없이 채비하여. *동고렝이 출령 앚아시라.(빠짐없이 채비를 차려서 앉아 있어라.) [전역]
동-고령 명 [서홍] → 동-고량.
동고리[1] 명 [수산 김녕] → ᄎᆞ낭-ᄋᆞ름.
동고리[2] 명 찔레나무의 어린 순. [전역]
동고-시리 명 <식> 조의 일종. [영평]



동고량

동-골 명 [전역] → 동-카름.
동곳[1] 명 고드름. [전역]
동곳[2] 명 동곳. 상투를 튼 뒤에 그것이 다시 풀어지지 아니하도록 꽂는 물건. [전역] = 동긋.
동공- 두 '귀엽게 모시어'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 [전역]
동공-똘 명 귀엽게 모셔 키운 딸. [전역]
동공-아돌 명 귀엽게 모셔 키운 아들. [전역]
동-귀일(東貴日) 명 <지> 제주시 하귀 1리의 옛 이름. [전역]
동-귀클 명 <건> 동-퀴틀. 마루의 장귀틀과 장귀틀 사이에 가로로 걸쳐서 마루널을 끼는 짧은 귀틀. [전역] = 동-귀틀.
동-귀틀 명 <건> [서홍 수산 가시 김녕] → 동-귀클.
동그랑-ᄒᆞ다 형 동그랗다. [전역]
동그레미 명 동그라미. [전역] = 동글레기.
동그리다 동 오리다. ① 칼이나 가위 따위로 베어 내다. [전역] ② 톱으로 좁고 길게 켜다. [전역]
동그스름-ᄒᆞ다 형 동그스름-하다.

[전역]

동글-납작 부 동글-납작. [전역]

동글-동글 부 ① 자그만하고 동그스름한 물건들이 공중에 매달려 있는 모양. [전역] ② 자그마하고 동그스름한 물건들이 물 위에 떠 있는 모양. [전역] ③ 여럿이 모두 동근 모양. [전역]

동글락-ᄒᆞ다 형 동그랗다. 둥글다. [전역]

동글레기 명 [전역] → 동그레미.

동긋 명 [인성 서홍] → 동곳[2].

동꼬리 명 <식> [전역] → 독고리.

동-나다[1] 동 동강-나다. [전역]

동-나다[2] 동 동-나다. [전역]

동냥-바치 명 [어음] → 동녕-바치.

동네 명 동네. [전역]

동녁 명 동녘. [전역]

동녁-거리 명 한 집안 여러 채의 집에서 동쪽에 있는 채. [노형 조수 인성 김녕]

동녁-집 명 동쪽 울타리 밖에 있는 남의 집. [노형 조수 인성 김녕]

동녕 명 동냥(洞糧). 먹을 것이나 돈푼을 얻기 위하여 동네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일. [전역]

동녕-글 명 서당에서 띄엄띄엄 공부하는 글.

동녕-바치 명 동냥-아치(洞糧--). 거지. [전역] = 동냥-바치.

동녕-질 명 동냥-질(洞糧-). [전역]

동녕-ᄒᆞ다 동 동냥-하다(洞糧--). [전역]

동대 명 <음> [김녕] → 동제.

동-대동(東大洞) 명 <지>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한 자연마을. 예전 '동대머를' 일대에 형성된 동네. [전역] = 동대-머들[2], 동대-머를.

동대-머들[1] 명 <지> 제주시 건입동 동쪽에 있는 '머들'(돌담불). [건입]

동대-머들[2] 명 <지> [건입] = 동-대동(東大洞).

동대-머를 명 <지> [건입] → 동-대동(東大洞).

동대-먹다 동 [김녕] → 동제-먹다.

동-도노미 명 <지> 제주시 정실마을의 옛 이름. [오라 노형] → 도노미[3].

동-도래물 명 <지> [서귀포 중문] → 동-회수.

동돌-미륵 명 [전역] → 동복신-미륵.

동동 부 간절히 기다리는 모양. *늴 모리 동동, 호박 사레 가는 날.(내일 모레 '동동', 호박 사러 가는 날.) [전역]

동-동네 명 [전역] → 동-카름.

동동-지드리다 동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리다. [노형 인성 어도]

동-뜨다 동 ① 월등 낫다. [전역] ② 예상 외로 뛰어나다. [전역]

동마-ᄇᆞ름 명 동남-풍(東南風). [화순 하원 서홍 수산 세화 조천 노형 조수 어도 대정] = 든샛-ᄇᆞ름.

동-멍에 명 동쪽 밭머리. *셍 송아지를 막 패연 연장 들런 동멍에로 서멍에 갓닥.(생 송아지를 마구 패서 연장을 들고서 동쪽 밭머리에서 서쪽 밭머리로 갔다가.) [대정]

동-메다 동 꽃이 떨어지고 난 뒤 자그마한 열매가 맺다.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동-묻다, 동재기-묻다.

동멘-것 명 꽃-맺이. [전역]
동모 명 동무. 친구(親舊). [전역]
동모레기 명 [조수 서홍] → 동코레기.
동물-오름 명 <지> [애월] → 독물-오름.
동미륵-부처 명 [전역] → 동복신-미륵.
동-못다 동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동-메다.
동방-내 명 <지> 제주시 삼양3동의 한 자연마을. 또는 내(川) 이름. [삼양] = 동벵이-내.
동-벵듸(東--) 명 <지> [평대] → 벵듸[2].
동벵이-내 명 <지> [삼양] → 동방-내.
동복신-미륵(東福神彌勒) 명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돌로 된 미륵. 치성하면 아들을 얻게 되고 질병을 낫게 하는 효험이 있다고 전해짐. [전역] = 동돌-미륵, 동미륵-부처, 동자복-미륵(東資福彌勒).
동-사다 동 입구를 지키다. 어떤 일이 끝나기를 기다리다. [전역]
동산 명 동산. 가운데는 지면이 높고 주위로는 비탈진 곳. [전역]
동산-마을 명 <지> 제주시 연동의 한 자연마을. [연]
동산-물 명 <지> 제주시 오라1동의 한 자연마을. [오라]
동산-질 명 고개(峴) 위로 통한 길. [전역]
동-새벡 명 꼭두-새벽. 아주 이른 새벽. *이 동새벡의 어디 감시?(이 꼭두새벽에 어디 가고 있니?) [전역]
동세 명 동서(同壻). [전역]
동-세미(東--) 명 <지> 제주시 영평동(寧坪洞)의 한 자연마을. [영평]
동셍 명 동생. [전역] = 동승, 동싱. ㉤동싱.
동-솟 명 <도> 솥 중에서 가장 작은 솥. [전역]
동수-동(東水洞)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의 한 자연마을. [조천] = 종시-동(種時洞).
동수-ᄃᆞ로 명 <지> [조천] → 동시-ᄃᆞ로.
동-수악(東水岳)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한라산 횡단도로를 끼고 논고오름과 마주보는 오름. 위에 야트막한 화구호(火口湖)가 있음. 표고 700미터. [전역]
동승 명 [전역] → 동셍.
동시-ᄃᆞ로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 동수동(洞水洞)의 옛 이름. 또는 그 지역의 고유 이름. [조천] = 동수-ᄃᆞ로, 동시-ᄃᆞ리.
동시-ᄃᆞ리 명 <지> [조천] → 동시-ᄃᆞ로.
동심-절 명 동심-결(同心結). [전역]
동싱 명 [전역] → 동셍.
동아리 명 동아리. [전역]
동아리-장ᄉᆞ 명 여럿이 패가 되어서 같이 하는 장사. [전역]
동아리-ᄒᆞ다 동 같은 목적으로 한 패를 짜다. [전역]
동안-대주 명 <민> 동헌-대주(東軒大主). 굿하는 집안의 남자 주인. [전역] = 대주.
동-알오름(東---) 명 <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절울이'의 북쪽 기슭에 있는 자그마한 오름. 표고 45미

터. [상모]

동-앞개 명 <지> [남원] → 앞-개.

동여-메다 동 동여-매다. [전역]

동의 명 <도> 동이. 질그릇의 하나. [전역]

동이다 동 [전역] → 뒝이다.

동이-바당 명 동해 바다. [전역]

동이-본향 명 <민> [중문 안덕] → 정이-본향.

동이-풀이 명 <민> 놋동이에 치마저고리를 입혀 고전적따님아기로 꾸미고 제장 안으로 모셔 들여 그 원한을 풀어내는 굿. [용담 건입 신촌]

동자복-미륵(東資福彌勒) 명 [전역] → 동복신-미륵.

동자-석(童子石) 명 무덤의 묘 앞 양쪽에 마주 보게 세워진 사람 모양의 돌. 무덤의 수호신. [전역]



동자석

동재기-못다 동 [수산 서홍] → 동-메다.

동전 명 동정. 옷깃 위에 조붓하게 덧붙인 흰 헝겊 오리. [전역]

동제 명 <음> 온 식구 중에서 혼자만 먹기 위해 따로 지은 맛있는 음식. [전역] = 동대, 동즈.

동제-먹다 동 맛있는 음식을 따로 지어 온 식구 중에서 혼자만 먹다. [전역] = 동대-먹다, 동즈-먹다.

동제-밥 명 <음> 가족 중에서 혼자만 먹도록 특별히 지은 맛있는 밥. [상가]

동제-원[1](東濟院) 명 <지> 제주시 화북1동에 있었던 원(院) 이름. 고려시대 때 이문경(李文京)이 진병(陳兵)했던 유지(遺址)에 세웠던 원임. [전역]

동제-원[2](東濟院) 명 <지> 제주시 화북1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 동주-원(東酒園).

동주-원(東酒園) 명 <지> [전역] → 동제-원[2](東濟院).

동지[1](冬至) 명 동지. *(속) 동지(冬至) 넘으민, 푸새도 새 ᄆᆞ음 ᄒᆞᆫ다.(동지가 넘으면, 풀잎도 새 마음 한다.) [전역]

동지[2] 명 배추 따위에서 돋아난 아주 연(軟)한 장다리. [전역]

동지-사다 동 배추 등에 여린 장다리가 생기다. [전역]

동지-섣돌 명 동지-섣달. 동짓달과 섣달을 아울러 이르는 말. [전역]

동지-웨 명 갓 열린 오이. *싱글 때랑 수박을 싱건 율앙 보난 동지웨로고나.(심을 땔랑 수박을 심어 열어서 보니 '동지웨'로구나.) [전역]

동지-짐치 명 <음> 배추 따위에서 돋아난 연한 장다리로 담근 김치. [전역]

동짓-돌 명 동짓-달. [전역]

동즈 명 <음> [전역] → 동제.

동-즈르다 동 동-자르다. [전역]

동즈-먹다 동 [조수] → 동제-먹다.

동춘이 명 <도> 항아리의 일종. [대정]

동치 명 <동> 물고기인 돔의 일종.

[행원]

동침 명 <의> 갓양태를 겯기 시작할 때에 날이 되는 대오리를 실로 한 바퀴 엮어 놓은 다음, 양태판이라는 둥그런 널빤지로 된 갓양태를 겯는 연장 한가운데 네모지게 뚫린 곳으로 내려뜨리는 실의 끄트머리. *나 동침아 돌아가라. 서월 사름 술잔 돌듯.(내 동침아 돌아가라. 서울 사람 술잔 돌 듯.) [전역]

동-카름 명 마을의 동쪽에 있는 동네. [전역] = 동-가름, 동-골, 동-동네.

동코레기 명 오이, 호박 따위의 끝물이 되어 크지 못한 열매. [노형 조수 인성 김녕 서홍] = 동모레기, 막-동메기.

동탁-시리 명 <식> 조의 일종. [영평]

동-트다 동 동-트다. [전역]

동티 명 <민> 동티(動土). 건드려서는 안 될 땅을 파거나 돌을 치우거나 나무를 베었을 때, 이것을 관장하는 지신(地神)의 성냄을 입어 받는 재앙. [전역]

동티-나다 동 동티-나다. [전역]

동풍-가 명 <요> 예전의 도읍이나 관문에서 전해지는 경쾌한 창민요. 한반도에서 유입, 전승되는 민요의 한 가지. [성읍 조천]

동-하늬 명 뱃사람들이 동북풍을 일컫는 말. [이호] = 동-하니.

동-하니 명 [전역] → 동-하늬.

동-한데기 명 <지> 제주시 용담1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 동-한두기.

동-한두기 명 <지> [전역] → 동-한데기.

동-회수(東廻水) 명 <지> 서귀포시 회수동 동쪽에 있었던 자연마을. [서귀포 중문] = 동-도래물.

동-회천(東回泉) 명 <지> 제주시 회천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두-가슬 명 <농> 땅을 개간하여 3년 경작하고 난 밭에 다시 경작하는 일. [성산 수산]

두갑-씰 명 이겹-실(二合絲). [전역] = 이갑-씰.

두-갓 명 남편과 아내. 부부. *(속) 두갓 싸움 개 싸움.(부부 싸움 개 싸움.) [전역] = 갓세, 두-갓세.

두-갓세 명 *이젠 두갓세가 출련 가기로 막 ᄒᆞ여가난 노일저대가 말렷어.(이제는 부부가 차려 가기로 막 하여가니 '노일저대'가 말렸어.) [전역] → 두-갓.

두거름-작살 명 <도> 두 가달로 이루어진 작살. *고무작살 나기 전의 두거름작살로 궤기 쏘아낫우다.(고무작살 나기 전에 '두거름작살'로 고기를 쏘았었지요.) [우도]

두건(頭巾) 명 두건. [전역]

두건-둥이 명 유복-자. 특히 남자아이에게만 해당되는 말임. [전역]

두건이-오름 명 <지> 제주시 한경면 조수리 서쪽에 있는 둥글넓적한 오름. 표고 52미터. [조수] = 두경이-오름, 두겡이-오름, 둑세기-오름.

두경이-오름 명 <지> [한경] → 두건이-오름.

두겡이-오름 명 <지> [한경] → 두건이-오름.

두굼치 명 등의 위쪽 부분. [전역] = 두둥치.

두근-거리다 동 두근-거리다. [전역]
두꺼비-집 명 두꺼비-집. [전역]
두껍다 형 두껍다(厚). [전역] = 두텁다, 두텁다.
두껑 명 [조수 서홍 노형] → 두께.
두께 명 뚜껑. [전역] = 두껑, 두껭이, 두엉, 두엥이.
두께비 명 <동> [조수] → 두테비.
두껭이 명 [전역] → 두께.
두끼 명 두께. [전역] = 두티. 고 두틔.
두더니 명 불두덩·씹두덩을 통틀어 일컫는 말. [전역]
두더지 명 <동> 두더지. [전역]
두덥다 형 [전역] → 두껍다.
두독-악(頭禿岳) 명 <지> 한라산(漢拏山)의 옛 이름 중 하나. [전역] → 한라-산.
두두룩-ᄒᆞ다 형 두두룩-하다. [전역]
두둑-ᄒᆞ다 형 두둑-하다. [전역]
두둥치 명 [수산 서홍] → 두굼치.
두뒈-들이 명 <도> 소줏고리에서 술을 빚을 때 쓰는 두 되들이 병. *ᄒᆞᆫ 번 술ᄀᆞᆷ을 솟에 놓앙 안졍 고소릴 올려 노민 술이 ᄒᆞᆫ 뒈는 넘고 두 뒈는 안 뒈게 나오난 두뒈들일 쓰는 거라.(한 번 술감을 솥에 놓고 안쳐서 고소리를 올려 놓으면 술이 한 되는 넘고 두 되는 안 되게 나오니 '두뒈들이'를 쓰는 거야.) [어음]
두드레기 명 <병> 두드러기(癮). [전역]
두드리다 동 두드리다. *오글랑 막뎅이로 와싹 두드리난 깡깡 ᄒᆞ멍 도망가.(굽은 막대기로 와싹 두드리니 깽깽하면서 도망가.) [전역] = 두들기다.
두득 명 두둑(丘). [전역]
두들기다 동 [전역] → 두드리다.
두러귀-ᄂᆞᆯ 명 [수산] → 들머귀-ᄂᆞᆯ.
두렁-지다 형 [어음] → 뒈양-지다.
두렁청-이 부 *이 사름은 두렁청이 종늠덜이 ᄌᆞ기 죽이라 ᄒᆞ니 어이가 읎거든게.(이 사람은 '두렁청이' 종놈들이 자기 죽이라 하니까 어이가 없거든.) [전역] → 두령청-이.
두레 명 *겁이 나고 해서 두레 뒈어 불엇어.(겁이 나고 해서 '두레' 되어 버렸어.) [전역] → 두루웨.
두레기 명 <식> [전역] → 두루웨기.
두레기-ᄂᆞᆯ 명 [김녕] → 들머귀-ᄂᆞᆯ.
두레기-청 명 '두레기'의 뿌리를 갈아 물에 담가 두었다가 마련한 전분(澱粉). [성읍]
두레-박 명 <도> 두레-박. [조수 표선 조천] = 두루-박, 둘레-박, 둘레-왁, 드레-박.
두려운-ᄃᆞᆯ 명 [수산] → 둥근-ᄃᆞᆯ.
두려워-ᄒᆞ다 동 [전역] → 저어-ᄒᆞ다.
두렵다 형 두렵다. [전역]
두령성-이 부 [노형 어도 인성] → 두령청-이.
두령성-ᄒᆞ다 형 [노형 어도 인성] → 두령청-ᄒᆞ다.
두령청-이 부 ① 정신이 얼떨하여 어리둥절한 모양. [전역] ② 아무 헤아림도 분간함도 없이 거저 홀연히. [전역] = 거정청-이, 두렁청-이, 두령성-이.
두령청-ᄒᆞ다 형 정신이 얼떨하여 어리둥절하다. [전역] = 두령성-ᄒᆞ다.
두루 부 [전역] → 덜.
두루-마기 명 <의> 두루-마기. [전역]

= 두루-막, 후리메.
두루-막 명 <의> [전역] → 두루-마기.
두루-머리 명 [인성] → 두룽-머리[1].
두루-멍청이 명 사고력이 모자라서 어리석고 정신이 흐릿한 사람. [전역]
두루멍청-ᄒᆞ다 형 사고력이 모자라서 어리석고 정신이 흐릿하다. [전역] = 두리멍청-ᄒᆞ다.
두루-박 명 <도> [태흥] → 두레-박.
두루-붕이 명 조금도 슬기가 없고 어리숭한 짓만을 하는 사람. [전역]
두루-서끄다 동 적당히 섞다. [전역]
두루셍이 부 어지간-히. ＊얘야. 이제랑 두루셍이 먹으라게.(얘야. 이제는 어지간히 먹어라.) [전역]
두루-싸다 동 적당히 싸다. [전역]
두루웨 명 ① 정신 이상 증세가 있어 정상적인 행세를 못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 [전역] ② 바보스러운 짓을 잘하는 사람을 나삐 일컫는 말. [전역] = 두레, 두루훼, 두리웨, 두리훼.
두루웨기 명 <식> 하눌타리의 일종. ＊하늘레기는 둥글락ᄒᆞᆫ 거, 두루웨기는 소랑ᄒᆞᆫ 거.(하눌타리는 둥근 것이고, '두루웨기'는 길쭉한 것). [전역] = 두레기.
두루-익다 동 [전역] → 덜-익다.
두루젱이 부 어지간-히. [전역]
두루훼 명 [노형 조수 인성] → 두루웨.
두룩-두룩 부 조금 높은 데서 아래로 굵은 물방울 따위가 떨어지는 소리. [전역]
두룸-쉬 명 두름-성(--性). 일을 주선하거나 변통하는 솜씨. [노형 조수 김녕] = 둘름-성, 뚜름-쉬.
두룽-건지 명 모두-머리. 여자의 머리털을 외가닥으로 땋아서 쪽을 찐 머리. [서홍 수산 김녕 가시] = 둘룽-건지.
두룽-머리[1] 명 용두-머리. 베틀 앞다리의 위 끄트머리에 얹는 나무. [노형 서홍 조수 가시] = 두루-머리.
두룽-머리[2] 명 바보처럼 행동하는 사람(白痴). ＊두룽머리 멍청ᄒᆞᆫ 걸 낳아 노난 부치르왕.('두룽머리' 멍청한 것을 낳아 놓으니 부끄러워서.) [어음]
두룽-박 명 <어> [전역] → 테왁.
두룽-배 명 임신하여 불룩하게 부른 배. [전역]
두룽-싸움 명 여러 사람이 얽혀서 싸우는 짓. ＊동녁 집의선 두룽싸움이 남서.(동쪽 집에서는 '두룽싸움'이 나고 있어.) [노형]
두르다 동 두르다. [전역] = 둘르다.
두르-싸다 동 둘러-싸다. [전역]
두름-띠 명 돌-띠. [전역]
두름-줄 명 <건> 가리 위를 덮기 위하여 빙 돌아가며 가로로 두른 줄. [전역] = 둘-줄.
두릅 명 생선을 세는 단위. 한 두릅은 생선 10마리에 해당함. [전역]
두리다[1] 동 미치다(狂). [전역]
두리다[2] 형 [전역] → 어리다.
두리-두리 부 두리번-두리번. [전역] = 두릿-두릿[2].
두리멍청-ᄒᆞ다 형 [전역] → 두루멍청-ᄒᆞ다.
두리웨 명 [전역] → 두루웨.
두리훼 명 [전역] → 두루웨.
두린-굿 명 <민> 정신 이상자의 병을

치료하는 굿. [전역]

두린-때 명 나이가 어리고 생각이 아직 모자란 시기(時期). [전역] = 두린-제.

두린-아기 명 [전역] → 어린-아기.

두린-아의 명 어린-아이. [전역]

두린-애기 명 [전역] → 어린-아기.

두린-제 명 [전역] → 두린-때.

두릅 명 <도> 굵다란 통나무 속이 저절로 썩어서 휑 비어 버린 것을 주워다 잘 다듬어 낸 후 밑으로 나무 조각을 깎아 끼워 고정시켜 밑판을 만들고 솥뚜껑 모양으로 뚜껑을 만들어 씌워 만든 뒤주. [성산]

두릿-두릿[1] 부 언행을 조금 미친 듯이 하는 모양. [전역]

두릿-두릿[2] 부 [전역] → 두리-두리.

두말-떼기 명 <도> [노형 조수 인성] → 두말-띄기.

두말-뜨기 명 <도> [한림] → 두말-띄기.

두말-띄기 명 <도> 용적(容積)이 두 말 드는 크기의 솥. *밥을 먹으며는 보통 두말띄기는 먹엇주기.(밥을 먹으면 보통 '두말띄기'는 먹었지.) [전역] = 두말-떼기, 두말-뜨기, 두말-띠기, 두말-치.

두말-띠기 명 <도> [전역] → 두말-띄기.

두말-치 명 <도> [김녕 가시] → 두말-띄기.

두망-두망 부 듬성-듬성. *두망두망 얽으난 얼굴이 더 좋아 불엇어.(듬성듬성 얽으니까 얼굴이 더 좋아 버렸어.) [전역]

두메기 명 <동>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 두미에기.

두모-악(頭毛岳) 명 <지> [전역] → 한라-산(漢拏山).

두무-악(頭無岳) 명 <지> [전역] → 한라-산(漢拏山).

두무-역 명 <동> [전역] → 두미에기.

두물[1] 명 [노형 인성 가시] → 두물-낭.

두-물[2] 명 음력 열흘과 스무닷새 날의 조수(潮水). [서홍 태흥 표선 수산 가시 세화 조천 노형] = 흔-물.

두-물[3] 명 [서홍 태흥 표선 수산 가시 세화 조천] → 서-물[2].

두물-낭 명 둥어리-막대. 길마의 둥근 막대 아래서 수수잎처럼 틀어막아선 나무. [노형 조수] = 두물[1], 두물레, 둥을, 둥을레.

두물다 형 드물다(稀). [전역]

두물레 명 [조수] → 두물-낭.

두믜-오름 명 <지> [전역] → 한라-산.

두미에기 명 <동> 풍뎅이. [전역] = 두메기, 두무역.

두벳-떼기 명 <농> [전역] → 양벳-떼기.

두벳-새끼 명 [서홍 수산 김녕] → 두벳쳇-새끼.

두벳쳇-새끼 명 두 번째로 낳은 짐승의 새끼. [전역] = 두벳-새끼.

두-불 명 두-벌. [전역]

두불-갈다 동 두벌갈이-하다. [전역]

두불-갈이 명 두벌-갈이. [전역]

두불-검질 명 두벌-매기. 두벌-김. [전역]

두불-낵인 명 자기네 둔에서 빠져나온 소가 다른 둔에 붙어 버렸을 때 다

른 둔의 소 주인이 자기 소유로 만들려고 원래의 낙인 위에 자기 소유의 징표(徵標)로 다시 찍은 낙인(烙印). [상창]

두불-잔치 명 결혼식이 끝난 다음날 사돈끼리 하는 잔치. [전역]

두불-장개 명 결혼했던 남자가 다시 하는 결혼. [전역]

두불-콩 명 <식> 두불-콩. 한 해에 두 번 심어 거두는 콩의 한 가지.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가시]

두불-허채(--許採) 명 <어> 첫 번째 미역을 채취하도록 하고 나서 미역 채취를 금하였다가 두 번째 채취를 허가하는 일. [상모]

두-산(斗山) 명 <지> [성산] → 말미-오름.

두산-봉(斗山峰) 명 <지> [성산] → 말미-오름.

두산-악(斗山岳) 명 <지> [성산] → 말미-오름.

두세 명 하늬-바람. *음력 팔월 중순이민 두세가 터지주.(음력 팔월 중순이면 하늬바람이 터지지.) [저지]

두세-칸 명 [이호] → 밥-간.

두수-오름 명 <지> [전역] → 뒤수-오름.

두수할(頭數割) 명 공동목장의 방목 비용으로 마소 1마리당 할당한 금액. [서광]

두-씨앗 명 한 남자의 처(妻)와 첩(妾)을 함께 일컫는 말. [전역]

두엄-불 명 [노형 수산 조수] → 몬독-불.

두엉 명 [조수] → 두께.

두엥이 명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 두께.

두융 명 <도> [노형 조수 인성 김녕 서홍] → 두융-박.

두융-박 명 <도> 뒤웅-박.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두융, 둥-박, 뒤융, 뒤융-박.

두의다 동 무엇을 찾기 위하여 집안의 물건을 들추며 뒤지다. [전역] = 두히다.

두이 명 뒤. [이호]

두-일뤠 명 두-이레(二七日). 열 나흘이 되는 날. [전역]

두일뤠열나흘-굿 명 <민> 두 이레 열나흘 굿. 밤낮으로 7일간 하는 큰 굿. [전역]

두작-거리다 동 뒤적-거리다. [전역] = 두적-거리다.

두작-두작 부 뒤적-뒤적. [전역]

두적-거리다 동 [전역] → 두작-거리다.

두지 명 <도> 뒤주. 쌀 따위를 담아 두는 세간의 하나. [전역]

두체비 명 <동> [서홍 수산 가시] → 두테비.

두콜-방에 명 두 사람이 마주 서서 서로 번갈아가며 절구 공이로 방아를 찧는 일. [구좌]

두태 명 [수산 가시] → 태두.

두텁다 형 [전역] → 두껍다.

두테비 명 <동> 두꺼비(蟾). [전역] = 두께비, 두체비. 고 두터비.

두티 명 [전역] → 두끼.

두풍-낭 명 <식> [조수] → 피풍-낭[1].

두히다 동 [전역] → 두의다.

둑 명 <공> 풀무의 용광로. [덕수]



두테비

둑-대장 명 풀무마당 조직에서 용광로인 둑의 축조에서부터 무쇠를 녹이기까지의 일을 담당하는 사람. [덕수]

둑지 명 죽지. 팔과 어깨가 이어진 관절의 부분. [전역]

둑지-꽝 명 죽지-뼈. [전역]

둑지-몰 명 목-말. 남의 어깨 위에 두 다리를 벌리고 올라타는 일. [전역]

둔(屯) 명 둔. 떼를 지어 모이는 일. 또는 모인 곳. [전역]

둔-주(屯主) 명 소 방목 공동조직의 우두머리. [하천]

둔지-봉(屯地峰) 명 <지> [전역] → 둔지-오름.

둔지-오름 명 <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남서쪽, 비자림(榧子林) 북서쪽에 있는 오름. 표고 282미터. [전역] = 둔지-봉(屯地峰).

둔-짓다 동 마소가 많이 모여 떼를 이루다. [전역]

둔충-다리 명 아주 둔해서 영리하지 못한 사람. [노형 조수]

둔-ᄒᆞ다 형 둔-하다. [전역]

둘 수 둘(二). [전역]

둘러-메다 동 둘러-메다. [전역] = 뚜러-메다.

둘러-박다 동 ① 물건을 다른 물건의 속으로 빙 둘러서 들어가게 하다. [전역] ② 바느질할 때 실을 곱 걸어서 치마 끝 같은 데를 둘러서 꿰매다. [전역]

둘러-보다 동 둘러-보다. [전역]

둘러-사다 동 둘러-서다. [전역]

둘러-쓰다 동 [전역] → 둘러-씨다.

둘러-씨다 동 둘러-쓰다. [전역] = 둘러-쓰다.

둘러-앉다 동 둘러-앉다. [전역] = 둘러-앚다.

둘러-앚다 동 [전역] → 둘러-앉다.

둘러-타다 동 말이나 가마를 바꿔 가며 타다. [전역]

둘레-박 명 <도> [노형] → 두레-박.

둘레-왁 명 <도> [세화] → 두레-박.

둘룽-건지 명 [김녕] → 두룽-건지.

둘뭣 명 <병> [서홍 수산] → 들윗.

둘르다 동 [전역] → 두르다.

둘름-성 명 [수산] → 두룸-쉬.

둘윗 명 <병> 다래끼. 속눈썹에 생기는 부스럼. [전역] = 둘뭣, 들뭣, 들윗.

둘펀-남박 명 <도> 나무바가지를 파다가 완성시키지 않고 중도에 내버린 바가지. 또는 그런 모양으로 얼굴이 못생긴 사람을 일컫는 말. *신부를 내세운 걸 보니 박세기 중에도 그런 둘펀남박이 읎어.(신부(新婦)를 내세운 것을 보니 바가지 중에서도 그러한 '둘펀남박'이 없어.) [노형]

둠벵이 명 웅덩이. [전역]

둠북-겡이 명 <동> [가시 김녕] → 둠북-깅이.

둠북-긍이 명 <동> [조수] → 둠북-깅이.

둠북-깅이 명 <동> 털다리물맞이-게. [노형 서홍] = 둠북-겡이, 둠북-긍이.
둠비 명 <음> 두부(豆腐). *큰일 땐 둠비 헤여사 ᄒᆞ여.(큰일 때는 두부 해야 해.) [전역]
둠빗-물 명 두붓-물. *(속) 둠빗물에 손 덴 메누리.(두붓물에 손을 데인 며느리. [전역]
둠빗-주시 명 [전역] → 비제기.
둥게-둥게[1] 부 둥개-둥개. ① 아기를 안거나 쳐들고 어를 때 내는 소리. [전역] ② 일을 않고 그냥 시간만 허비하는 모양. [전역]
둥게-둥게[2] 부 우둥-우둥. [전역]
둥굴리다 동 [전역] → 둥그리다.
둥그러-가다 동 사람이 재빨리 걸어가지 못하고 그렁저렁 저쪽으로 나아가다. [전역]
둥그러오다 동 사람이 재빨리 걸어오지 못하고 그렁저렁 이쪽으로 다가오다. *가의 저디 둥그러오람저.(그애 저기 '둥그러오고' 있다.) [전역]
둥그렁-ᄒᆞ다 형 둥그렇다. [전역] = 둥글락-ᄒᆞ다.
둥그리다 동 굴리다. [전역] = 둥굴리다, 둥글리다, 둥으리다.
둥근-돌 명 아주 둥근 달(月). [전역] = 두려운-돌.
둥글다[1] 동 뒹굴다. [전역] = 둥을다[1].
둥글다[2] 동 걷다. *족은아돌이 그 모양 ᄒᆞ연 둥글어 오람서.(작은아들이 그 모양을 해서 걸어 오고 있어.) [전역]
둥글다[3] 형 둥글다. [전역] = 둥을다[2].
둥글락-ᄒᆞ다 형 [전역] → 둥그렁-ᄒᆞ다.
둥글리다 동 [전역] → 둥그리다.
둥글-망치 명 <도> [함덕] → 끌-마께.
둥글어-가다 동 ① 굴러-가다. [전역] ② 공 따위가 굴러가다. [전역]
둥글어-뎅기다 동 굴러-다니다. [전역]
둥-박 명 <도> [수산] → 두융-박.
둥시렁-ᄒᆞ다 형 둥그스름-하다. [전역]
둥으리다 동 [전역] → 둥그리다.
둥을 명 [서홍 수산] → 두물-낭.
둥을다[1] 동 [전역] → 둥글다[1].
둥을다[2] 형 [전역] → 둥글다[3].
둥을레 명 [김녕 조수] → 두물-낭.
둥체기 명 [전역] → 덩체기.
둥치 명 [전역] → 덩체기.
둥케기 명 [전역] → 덩체기.
둥클락-ᄒᆞ다 형 '둥글락ᄒᆞ다'의 센 말. [전역]
뒈 명 <도> 되(升). *(속) 뒈 속영 풀 앗당 죽엉 가민, 대코쟁이로 눈 찔렁 쳰다.(되를 속여서 팔았다가 죽어서 가면, 대꼬챙이로 눈을 찔러서 쩬다.) *(속) 뒈로 주엇당 말로 받나.(되로 주었다가 말로 받는다.) [전역]
-뒈 어미 -되. 앞말의 동작을 인정하면서 뒷말로 조건을 붙이려고 할 때나 뒷말의 동작이 앞말의 동작에 구속되지 아니함을 보일 때, 용언 어간에 붙어서 쓰이는 연결어미.
뒈- 두 되-. [전역]
뒈-갈라지다 동 나-자빠지다. [전역]
뒈게 부 [전역] → 뒈우.
뒈기 명 욕심이 많아서 체면도 생각지 아니하고 재물을 다랍게 아낌. *그 놈 뒈기는 제일이쥐.(그 놈 인색하기는 제일이지.) [전역]

뒈-놈 명 되-놈(胡-). [전역]
뒈다[1] 동 되다. ① 물건이 만들어지다. [전역] ② 어떠한 때가 돌아오다. [전역] ③ 말이나 되 따위로 곡식이나 액체의 분량을 헤아리다. [전역]
뒈다[2] 형 되다. 물기가 적어서 딱딱하다. [전역]
뒈다[3] 형 마음이 몹시 굳고 인색하다. [어도]
뒈-동그라지다 동 [수산] → 뒈-종그라지다.
뒈-벨라지다 동 되-바라지다. [전역]
뒈사려-앉다 동 도사려-앉다.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뒈사려-앚다, 복쉬뒈와-앉다, 복쉬퉤와-앉다.
뒈사려-앚다 동 [전역] → 뒈사려-앉다.
뒈-사리다 동 도사리다. [인성 노형 조수 김녕] = 복쉬-뒈우다, 복쉬-테우다.
뒈-살다 동 되-살다. ① 비가 올 듯하다가 날이 개다. [전역] ② 식물(植物) 따위가 말라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나다. [전역]
뒈시리 명 <식> 밭벼의 일종. [영평]
뒈싸복닥-ᄒᆞ다 동 뒤적-거리다. ＊아무리 뒈싸복딱ᄒᆞ여도 없다 말이여.(아무리 뒤적거려도 없다 말이야.) [표선]
뒈싸-지다[1] 동 ① 뒤집어지다. [전역] ② 뒤로 자빠지다. [전역]
뒈싸-지다[2] 동 [전역] → 널러-지다.
뒈싹-복닥 부 물건을 뒤집고 또 뒤집고 하기를 반복하는 모양. [전역]
뒈-쓰다 동 [전역] → 뒤-집다.
뒈씀-질 명 뒤집개-질. [전역]
뒈악-질 명 되-질. 곡식을 되로 되어서 헤아리는 일. ＊쏠 장실 ᄒᆞ랴마는 뒈악질을 못ᄒᆞ는 걸.(쌀 장사를 하랴마는 되질을 못하는 걸.) [전역]
뒈야지 명 <동> [전역] → 돗[2].
뒈야지-궤기 명 [전역] → 돗-궤기.
뒈야지-새끼 명 <동> [전역] → 도새기-새끼.
뒈약세기 명 <도> 식-되. [전역] = 밥-뒈, 옥제기, 짐재기.
뒈얄-지다 형 [전역] → 뒈양-지다.
뒈양-지다 형 되알-지다. 사람이 영리하고 야무지다. [전역] = 두렁-지다, 뒈얄-지다, 뒤영-지다.
뒈와-지다 동 [전역] → 데와-지다.
뒈-우 부 되-우. [전역] = 뒈게.
뒈-우다 동 ① 비틀다. ＊홀목을 뒈우다.(손목을 비틀다.) [전역] ② 반대쪽으로 돌리다. [전역]
뒈-종그라지다 동 뒤-둥그러지다.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뒈-동그라지다.
뒈-지기 명 <민> 되(升) 지기. 창고의 곡식을 되(升)로 지키는 신. [전역]
뒈지-새끼 명 <동> [김녕 조수] → 도새기-새끼.
뒈직-ᄒᆞ다 형 되직-하다. [전역]
뒈-질 명 되-질. [전역]
뒈-집다 동 [전역] → 뒤-집다.
뒈집어-놓다 동 뒤집어 놓다. [전역]
뒉계 명 <도> 독교(獨轎). [전역]
뒌-그르 명 [서홍 인성] → 덴-그르.
뒌-놈 명 마음이 굳고 몹시 인색한 사람을 나삐 일컫는 말. [전역]
뒌-땅 명 차지거나 끈끈한 성질의 흙으로 이루어진 땅. [전역]

뒌밧-동네 명 <지> 제주시 한경면 산양리 '여뀌못' 동남쪽, '새신오름' 남쪽에 형성되었던 동네. [한경] = 쉣뻬뒌밧-동네.
뒌-서리 명 된-서리(-霜). [전역]
뒌장 명 <음> 된-장(土醬). [전역] = 개미-장.
뒐상-부르다 형 [전역] → 뒐성-부르다.
뒐상-시프다 형 [전역] → 뒐성-부르다.
뒐성-부르다 형 될성-부르다. 무슨 일이 이루어질 가망성이 있어 보이다. [전역] = 뒐상-부르다, 뒐상-시프다, 뒐성-시프다.
뒐성-시프다 형 [전역] → 뒐성-부르다.
뒛-머리 명 밭-걸이. [전역]
뒛-박 명 <도> 되. 5홉 이상을 재는 데 사용함. [전역]
뒝이다 동 동이다. [전역] = 동이다.
뒤[1] 명 뒤(後). [전역]
뒤[2] 명 뒤. 사람의 똥을 점잖게 이르는 말. [전역]
뒤곱은이-오름 명 <지> [성산] → 뒤굽은이-오름[2].
뒤굽은이-오름[1] 명 <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상동 북쪽에 있는 오름. '뒤'(북쪽)가 말굽형으로 구부러졌음. 표고 252미터. 준 뒤굽은이. [구좌]
뒤굽은이-오름[2] 명 <지>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남케오름' 서남쪽에 있는 오름. '뒤'(북쪽) 등성이가 구부러졌음. 표고 206미터. [성산] = 뒤곱은이-오름, 후곡-악(後曲岳).
뒤-끗 명 뒤-끝. [전역]
뒤-내다 동 흔히 재가(再嫁)하여 온 부인이 남편 몰래 재물을 훔쳐 내다. [어도]
뒤-다이다 동 [전역] → 뒤-대다.
뒤-대다 동 뒤-대다. 뒷돈을 마련하여 주다. [전역] = 뒤-다이다, 뒤-대이다.
뒤-대이다 동 [전역] → 뒤-대다.
뒤범범-뒈다 동 뒤범벅-되다. [전역]
뒤-데끼다 동 눈이 바람에 휘몰아쳐서 뒤덮이다. *ᄉᆞ락눈이 뒤데낀 날에. (싸락눈이 뒤덮인 날에.) [전역]
뒤-들다 동 뒤-꽂다. [전역]
뒤-둥기다 동 뒤-두다. [어도]
뒤-맞이 명 <민> 큰굿이 끝난 뒤 1주일 만에 굿을 할 때 대접 못 받은 신들이나 하위신(下位神)을 대접하는 취지로 하는 굿. [전역]
뒤-받다 동 뒤에서 돈이나 물건을 이어 주어서 뒷받침을 하다. [전역]
뒤-보다[1] 동 뒤-보다. 뒤를 보아 주다. [전역]
뒤-보다[2] 동 뒤-보다. 똥을 누다. [전역]
뒤-붓다 동 짐승 암컷의 음부가 퉁퉁하게 부풀어 오르다. [전역]
뒤-서끄다 동 뒤-섞다. *쳇 육지 가오란 셈 뒤서끠지언 알아지크냐게? (첫 육지 다녀왔더니 셈 뒤섞여서 알 수 있겠느냐?) [전역] = 뒤-허끄다.
뒤수-오름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2리에 있는 나지막하고 조그마한 오름. 표고 212미터. [하례] = 두수-오름, 뒷술-오름.
뒤안-ᄒᆞ다 동 ① 집이나 밭, 마소 따위를 새로이 다른 것으로 바꾸다. [전역] = 뒤완-ᄒᆞ다. ② 음식물을 다른 그릇으로 옮기다. *냄비에 이신 국 뒤안ᄒᆞ라.(냄비에 있는 국을

다른 그릇에 옮겨라.) [전역]
뒤여-지다 동 [전역] → 널러-지다.
뒤영-지다 형 [전역] → 뒈양-지다.
뒤완-ᄒᆞ다 동 [전역] → 뒤안-ᄒᆞ다①.
뒤융 명 <도> [수산 가시 김녕] → 두융-박.
뒤융-박 명 <도> [가시] → 두융-박.
뒤이다 동 뒤지다. [전역]
뒤-자리 명 *옛날엔 요 대신 뒤자리 꼴앙 살아낫주.(옛날엔 요 대신 초석을 깔아서 살았었지.) [행원] → 초석[1](草席).
뒤적-거리다 동 뒤적-거리다. [전역] = 뒤적-걸다.
뒤적-걸다 동 [전역] → 뒤적-거리다.
뒤적-뒤적 부 뒤적-뒤적. [전역]
뒤져-내다 동 뒤져-내다. [전역]
뒤-지다[1] 동 뒤-지다(後--). [전역]
뒤지다[2] 동 뒤지다. 이리저리 뒤적이며 찾다. [전역]
뒤-집다 동 뒤-집다. [전역] = 뒈-쓰다, 뒈-집다. ㊟두위혀다.
뒤집어-쓰다 동 뒤집어-쓰다. [전역]
뒤출-집다 동 마소의 고삐줄을 등 위로 얹고 뒤에 서서 몰다. [노형 조수 인성 수산 김녕] = 뒤치-잡다.
뒤치 명 열매를 빼 버리고 난 곡식의 줄기나 깍지 따위. *으물 먹곡 뒤치 먹는 늬영 나로구나.(여물 먹고 '뒤치' 먹는 너와 나로구나.) [전역]
뒤-치기[1] 명 뒤-축. [전역]
뒤치기[2] 명 두 가닥의 집줄을 하나로 만들 때, 뒤에서 돌리는 기구. [전역]
뒤-치다 동 집이나 밭, 마소 따위를 새로이 다른 것으로 바꾸다. [전역]


뒤치기[2]

뒤치-잡다 동 [서홍] → 뒤출-집다.
뒤-컬음 명 뒷-걸음. [전역]
뒤컬음-ᄒᆞ다 동 위급(危急)한 일에 앞질러 나서지 못하고 뒤로 물러서다. [전역]
뒤-틀움 명 <병> [전역] → 이질.
뒤-풍치다 동 집안의 세간 같은 것을 들추어 흐트러뜨리다. [전역]
뒤-허끄다 동 *머리가 뒤허꺼지언 압이 왁왁ᄒᆞ우다.(머리가 뒤섞여서 앞이 캄캄합니다.) [전역] → 뒤-서끄다.
뒤-흔들다 동 뒤-흔들다. [전역]
뒷-가지 명 길마의 뒤쪽 나뭇가지. [전역]
뒷-개 명 <지> 제주시 애월읍 하귀1리의 한 포구. [하귀]
뒷-갱이 명 뒷-갱기. 칡 껍질이나 헝겊 따위로 짚신이나 미투리의 도갱이를 감아서 쌈. 또는 그 재료. [전역]
뒷-고개 명 목-덜미. [전역]
뒷-고망듸 명 [서홍] → 뒷-고방듸.
뒷-고방듸 명 뒤-통수. [노형 조수 어도 인성] = 뒷-고망듸.
뒷-곡뒤 명 [전역] → 곡뒤.
뒷-공론(-公論) 명 뒷-공론. [전역]

뒷-광 명 뒷-집. [김녕]
뒷-군 명 ① 거추-꾼. 일을 보살펴 주거나 거들어 주는 사람. [전역] ② [전역] → 마중-꾼.
뒷-날 명 뒷-날(後日). [전역] = 뒷녁-날.
뒷녁-날 명 [전역] → 뒷-날.
뒷-다가리 명 [전역] → 뒷-데가리.
뒷-다리 명 후각(後脚). ① 돼지를 잡았을 때의 뒷다리. [전역] ② 짐승의 뒷다리. [전역]
뒷-담 명 뒷-담. [전역]
뒷-대구리 명 [전역] → 뒷-데가리.
뒷-데가리 명 뒷-대가리. [전역] = 뒷-다가리, 뒷-대구리, 뒷-데망, 뒷-데멩이, 뒷-데위.
뒷-데망 명 [전역] → 뒷-데가리.
뒷-데멩이 명 [전역] → 뒷-데가리.
뒷-데위 명 [인성 서홍 수산 김녕] → 뒷-데가리.
뒷-동산[1] 명 <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묵굴'(水洞) 바로 동남쪽에 있는 오름. [한경]
뒷-동산[2] 명 뒷-동산. [전역]
뒷-마당 명 뒷-마당. [전역]
뒷-맛 명 뒷-맛. [전역] = 뒷-입맛.
뒷-멍에 명 뒤쪽에 있는 밭머리. *뒷멍에랑 멀어나 지라.('뒷멍에'랑 멀어나 져라.) [전역]
뒷-목 명 버선의 '애퉉'에서부터 목까지 이어지는 선. [대포]
뒷-문 명 뒷-문(後門). [전역]
뒷-무뚱 명 뒷문 바깥 근처. [전역]
뒷-문전(-門前) 명 <민> 뒤뜰에 면한 마루의 출입문. 또는 그 신. [전역]
뒷발-질 명 뒷발-질. [전역]
뒷-밧 명 뒷-밭. [전역]
뒷-배 명 보습 뒤편의 볼룩한 부분. [덕수]
뒷-손[1] 명 뒷-손. [전역]
뒷-손[2] 명 뒷-짐. [전역] = 뒷-정.
뒷손-벌리다 동 뒷손-벌리다. 겉으로는 사양하는 체하며 뒤로 슬며시 손을 내밀어 받다. [전역]
뒷손-웃다 형 뒷손-없다. 일의 뒤를 마무리하는 성질이 없다. [전역]
뒷손-지다 동 뒷짐-지다. [전역] = 뒷정-지다.
뒷술-오름 명 <지> [하례] → 뒤수-오름.
뒷-쉐 명 <농> 겨리질을 할 때 뒤에서 끄는 소. [전역] = 뒷장-쉐.
뒷-야게 명 뒷-덜미. [전역] = 뒷-야게기.
뒷-야게기 명 [전역] → 뒷-야게.
뒷-우영 명 뒤-꼍. [전역]
뒷-입맛 명 [전역] → 뒷-맛.
뒷-자락 명 뒷-자락. [전역]
뒷장-쉐 명 <농> [영평] → 뒷-쉐.
뒷-정 명 [서홍] → 뒷-손[2].
뒷정-지다 동 [서홍 김녕] → 뒷손-지다.
뒷-질 명 뒷-길. [전역]
뒷-집 명 [전역] → 뒷-칩.
뒷-채 명 <도> 집줄을 엮는 도구의 하나. [어음]
뒷-칠성 명 <민> [전역] → 뒷-할망.
뒷-칩 명 뒷-집. [전역] = 뒷-집.
뒷컬음질-ᄒᆞ다 동 뒷걸음질-하다. [전역]

뒷컬음-치다 동 뒷걸음-치다. [전역]
뒷-할마님 명 <민> [전역] → 뒷-할망.
뒷-할망 명 <민> 칠성신(七星神) 중 집 뒤에 모시는 신. [전역] = 뒷-칠성, 뒷-할마님, 밧-칠성.


뒷할망

-드- 선어말 -더-. [전역]
드끈 부 가득. *밥도 싸가지고 가는 것도 큰 차롱에 드끈 싸 줬어.(밥도 싸서 가는 것도 큰 채롱에 가득 싸 줬어.) [전역]
드끈-ᄒᆞ다 형 무게나 부피가 찰 만큼 넉넉하다. *거 ᄒᆞᆫ 짐은 드끈ᄒᆞᆫ 돈인디, 그걸 가져가단 오꼿 빙들어 불엇주기.(그것 한 짐은 '드끈한' 돈인데, 그것을 가져가다가 그만 병들어 버렸지.) [전역]
드내기-장ᄉᆞ 명 뜨내기-장사. [전역]
드는-물 명 [전역] → 들-물.
드들-팡 명 부춘-돌. [조수 수산 서홍] = 드딜-팡, 듸딜-팡, 디들-팡.
드들-펭 명 질흙으로 만든 두 되들이의 병. *고소리술 드들펭으로 ᄒᆞ나 빠젠 ᄒᆞ민 말치솟으로 밥을 ᄒᆞ나 ᄀᆞ득 혜사.(고소리술을 '드들펭'으로 하나 빼려 하면 '말치솟'으로 밥을 하나 가득 해야.) [성읍] = 등들-펭.
드듸다 동 디디다. [전역] = 디디다.
드딜-팡 명 [김녕 가시 어도] → 드들-팡.
-드라 어미 -더라. [전역] → -더라.
드랑-드랑 부 굵직한 나무 열매 같은 것이 많이 매달려 있는 모양. [전역] = ᄃᆞ랑-ᄃᆞ랑.
드러 부 매우. 마구. 자주. 계속. *자원 밥을 드러 먹엄저.(저 아인 밥을 계속 먹는다.) [전역] = 들구.
드러-눅다 동 드러-눕다. [전역] = 드러-눕다.
드러-눕다 동 [전역] → 드러-눅다.
드러-먹다 동 마구 먹다. [전역]
드러-앚다[1] 동 다가-앉다. [전역]
드러-앚다[2] 동 주저-앉다. [전역]
드러-제기다 동 마구 쌓다. [전역]
드럭낙-드럭낙 부 연방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양. [전역]
드럭쉬 명 장마 때 소나기가 마구 내려치는 모양. *장마 땐 '드럭쉬 일 뤠'옌 ᄒᆞ주.(장마 때는 '드럭쉬 이레'라고 하지.) [중문]
드레 조 [전역] → 더레.
드레-박 명 <도> [인성 화순 하원] → 두레-박.
드로 조 으로. 향진격 '더레'의 변이형태로, '밧'(田) 등의 말에 연결되어서 쓰이는 격조사. *주지 말랜 ᄒᆞ민 양끗테 앚이민 이펜 끗드로 멕여 강 아이 주곡.(주지 말라고 하면 양끝에 앉으면 이편 끝으로 먹여 가서 아니 주고.) [전역] = 듸로.
드르 명 들(野). [전역]

드르다 동 들다. ① 손에 지니다. [전역] ② 내리던 비가 개다. [전역] = 들르다.
드르-마농 명 <식> [봉성] → 뀡-마농.
드르-세미[1] 명 <지> 제주시 회천동에 있었던 자연마을. [회천] = 드르-셍이.
드르-세미[2] 명 <지> 제주시 회천동에 있는 한 샘. [회천] = 드르-셍이.
드르-셍이 명 <지> [조천] → 드르-세미[1], 드르-세미[2].
드르-신다 동 들이-차다. [전역]
드르-쓰다 동 들이-켜다. [전역] = 들이-쓰다, 들이-씨다.
드르-팟 명 들-밭. [전역]
드름-돌 명 [서홍 수산 가시 김녕] → 등-돌.
드릇-국화 명 <식> 쑥-부쟁이. [전역]
드릇-녁 명 들-녘(野-). [전역]
드릇-누ᄆᆞᆯ 명 들(野)에서 저절로 난 나물. [전역]
드릇-마농 명 <식> [전역] → 뀡-마농.
드릇-버들 명 <식> ① 들-버들. [전역] ② 갯-버들. [전역]
드릇-버듸낭 명 <식> [전역] → 드릇-버들.
드릇-비돌기 명 <동> [서홍 수산 김녕] → 산-비돌기.
드릇-뽕낭 명 <식> 산-뽕나무. [전역] = 개-뽕낭.
드릇-쉐 명 <동> 들에 방목하여 키우는 소. [전역]
드릇-일 명 들-일(野-). [전역]
드릇-짐승 명 들-짐승. [전역]
드리-넘넘 부 넘치는 모양. [전역]
드리다[1] 동 [전역] → 듸리다.
드리다[2] 동 드리다. 웃어른에게 물건을 건네다. [전역]
드린-배 명 <도> [전역] → 듸린-배.
드망-드망 부 듬성-듬성. *비 오라나 난 조팟디 조가 드망드망 남서라.(비가 온 후라서 조팥에 조가 듬성듬성 나고 있더라.) [전역]
드물 명 궁글-막대. 길마의 앞쪽에 있는 '앞가지'와 뒤쪽에 있는 '뒷가지'를 고정시키는 나뭇조각. [감산]
드물러지 명 <식> 들나물의 일종. [대포]
든- 두 '멀리 떨어지지 않은' 또는 '들어온'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접두사. [전역]
든마-ᄇᆞ름 명 [가시] → 서남-풍.
든마-ᄑᆞ름 명 [태흥 표선] → 서남-풍.
든샛-ᄇᆞ름 명 [태흥 표선] → 동마-ᄇᆞ름.
든지 조 든지. 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서, 무엇이나 가리지 않고 그것들을 열거하는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든직-ᄒᆞ다 형 든직-하다. [전역] = 둗직-ᄒᆞ다[1].
든-케 명 마을에서 그다지 멀지 않은 지경(地境). [어도 조수]
듣다 동 듣다(聞). [전역]
-들[1] 어미 -지를. 용언의 뜻을 부정하려 할 때, 그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쓰이는 어미. 그 다음에 대개 부정어가 옴. [전역]
-들[2] 미 [전역] → -덜.
들강-들강 부 불겅-불겅. [전역]
들게-음식 명 한 번에 염치 없이 많이

먹은 음식. [전역]

들게-읏다 형 염치가 없어서 음식 따위의 분량을 헤아려 먹거나 물자(物資)를 절약하여 쓸 줄을 모르다. [전역]

들겟머리-읏다 형 '들게읏다'의 낮춤말. [전역]

들곰-날곰 명 물품이 들어가고 나가고 할 구멍. 곧 재물 따위가 소용될 곳을 가리키는 말. [전역]

들굽-낭 명 <식> [조수] → 들굽-낭.

들구 부 *옛날이사 술락불 쌍 이런디 걸엉 내부리민 들구 그슬주기.(옛날이야 솔불 켜서 이런 곳에 내버리면 계속 그을지.) [전역] → 드러.

들-굼 명 오소리 굴에서 오소리가 들어가는 구멍. [교래]

들굽 명 두릅. [전역]

들굽-낭 명 <식> 두릅-나무. [전역] = 들곱-낭.

들그락-거리다 동 덜그럭-거리다. [전역]

들그락-들그락 부 덜그럭-덜그럭. [전역]

들그랑-거리다 동 덜그렁-거리다. [전역]

들그레기 부 생각지도 않았는데. 뜻밖에. [전역]

들깍 부 꿀꺽. [전역]

들꽤-죽 명 <음> 들깨-죽. [전역]

들꽤-지름 명 <음> 들-기름. [전역]

들다[1] 동 들다. ① 칼날 따위가 물건을 잘 먹다. [전역] ② 절기나 흉·풍년이 돌아오다. [전역] ③ 물감 빛이 물건에 스며 오르다. [전역]

들다[2] 동 들다. ① 마음에 아주 맞다. [전역] ② 무슨 일에 어떤 물건이 쓰이다. [전역]

들다[3] 동 한데 어울리다. *게나저나 ᄒᆞᆫ 번 ᄀᆞ찌 ᄒᆞᆫ 갑에 들어가지고 ᄒᆞ는디.(그러나저러나 한 번 같이 한 갑에 들어서 하는데.) [전역]

들도 조 들도. [전역]

들들 부 [전역] → 달달[3].

들라-퀴다 동 [전역] → 들러-퀴다.

들락-날락 부 들락-날락. [전역]

들락-ᄒᆞ다 형 들썩-하다. 붙어 있던 물건이 조금 떠들려 있다. *지둘른 게 들락ᄒᆞ여시난 들런 보난 펀찍이라.(지지른 게 떠들려 있으니 들어 보니 '펀찍'이야.) [전역]

들랑 조 들랑. [전역] → 덜랑.

들랑-들랑 부 덜렁-덜렁. [전역]

들랑-창 명 <어> 바다 밑에 너부죽하고 커다란 바위가 깔린 바다. 대체로 바닷가와 멀리 떨어져 있는 바다임. [전역]

들러-가다 동 임자 모르게 물건을 가져가다. [전역]

들러귀-ᄂᆞᄆᆞᆯ 명 <식> [가시] → 들머귀-ᄂᆞᄆᆞᆯ.

들러-던지다 동 [전역] → 들어-싸다.

들러-데끼다 동 들어 던지다. *아무거나 막 들러데끼는디사 남아날 게 엇주.(아무것이나 마구 들어 던지는 데야 남아날 게 없지.) [전역]

들러-먹다 동 ① 음식을 한꺼번에 한 입 가득 집어넣다. *굴에서 나오랑 처녈 들러먹나 ᄒᆞ는 소문이 난.(굴에서 나와서 처녀를 들어먹는다는 소문이 났어.) [전역] ② 남의 금품이나 재물을 알게 모르게 자기 것으로 하다. *동아리ᄒᆞ단 ᄆᆞᆫ 들러먹언 도

망가 부럿덴 ᄒᆞ여라.(동아리하다 전부 들어먹고 도망가 버렸다고 하더라.) [전역]

들러-싸다 동 내-팽개치다. [전역] = 들러-쏘다, 들어-데끼다, 들어-쏘다.

들러-쏘다 동 [전역] → 들러-싸다.

들러-오다 동 임자 모르게 물건을 가져오다. [전역]

들러-지다 동 들-뜨다. 단단한 데 붙은 얇은 물건이 안쪽으로 멀어져 들고 일어나다. *어떵 방바닥 들러졋저.(어째 방바닥이 들떴다.) [전역]

들러-퀴다 동 날-뛰다. *잡아먹젠 ᄒᆞ단 파들랑파들랑 들러퀴난 홀 수 엇이 내부렀덴 ᄒᆞ여.(잡아먹으려고 하다가 파들랑파들랑 날뛰어 가니 할 수 없이 내버렸다고 해.) [전역] = 들라-퀴다, 들럭-퀴다, 들럭-히다.

들럭-퀴다 동 *아멩 들럭퀴어도 빠질 게 뭐여.(아무리 날뛰어도 빼질 게 뭐야.) [전역] = 들러-퀴다.

들럭-히다 동 [전역] → 들러-퀴다.

들렁-궤 명 <지> [오라] → 들렁-귀.

들렁-귀 명 <지> 제주시 오라동(吾羅洞)의 한 지명. [오라 아라] = 들렁-궤, 등영구.

들레-오름 명 <지> 제주시 아라동 월평 남동쪽, 제주대학교 동쪽에 있는 오름. 표고 348미터. [월평 봉개] = 월평-봉(月坪峰), 월하-악(月下岳).

들뒷 명 <병> [노형 김녕 조수 인성 가시] → 둘윗.

들르다 동 [전역] → 드르다.

들리다[1] 동 들키다. [전역] = 들키다.

들리다[2] 동 빙의-하다(憑依--). [전역]

들리-오름 명 <지> 제주시 아라동 탐라교육원 동쪽 내(川) 건너에 있는 오름. 표고 540미터. [아라]

들막-들막 부 자그마한 물건이 쳐들렸다 가라앉았다 하는 모양. [전역]

들머귀-ᄂᆞ몰 명 <식> 잎이 작고 검푸르며 털 같은 것이 돋은, 품질이 좋지 못한 나물. [노형 조수 인성] = 두러귀-ᄂᆞ몰, 두레기-ᄂᆞ몰, 들러귀-ᄂᆞ몰, 들허귀-ᄂᆞ몰.

들먹-들먹 부 들먹-들먹. [전역]

들-물 명 밀-물(-潮). [전역] = 드는-물.

들물-첫 명 밀물 때 물속의 바위로 말미암아 물결이 이는 곳. [상모]

들물-팟 명 <어> 주로 밀물 때에만 형성되는 자리돔 어장. [전역]

들뱅이-뿔 명 쟁깃성에 끄트머리에 꿰어진 나무깽이. [전역]

들삭-들삭 부 들먹-들먹. [전역]

들셍이-웃다 형 염치가 없어서 물재(物財)의 분량을 헤아려 쓸 줄을 모르다. [전역]

들싹 부 들썩. [전역]

들싹-거리다 동 들썩-거리다. [전역]

들싹-들싹 부 어깨 따위가 가볍게 아래 위로 움직이는 모양. *들굽을 먹으믄 들싹들싹.(두릅을 먹으면 들썩들썩.) [전역]

들싹-이다 동 들싹-이다. [전역]

들싹-ᄒᆞ다 동 들썩-하다. *말 맙서, 귀도 들싹홀 수가 엇어수다.(말 마십시오, 귀도 들썩할 수 없었습니다.) [전역]

들썩-들썩 부 들썩-들썩. [전역]

들어-데끼다 동 [전역] → 들러-싸다.

들어-사다 동 ① 들어-서다. [전역] ② 임신-하다. [전역] = 들어-ᄉᆞ다.
들어-ᄉᆞ다 동 [전역] → 들어-사다.
들어-쏘다 동 [전역] → 들러-싸다.
들여-가다 동 들여-가다. [전역]
들여-놓다 동 들여-놓다. [전역]
들여-세우다 동 들여-세우다. [전역]
들여-오다 동 들여-오다. [전역]
들웟 명 <병> [전역] → 둘웟.
들은 조 들은. [전역] → 덜은.
들은-돌[1] 명 고인-돌. [전역]
들은-돌[2] 명 <지> 제주시 삼양2동의 자연마을 중 하나. [삼양]
들을 조 들을. 아무 말의 끝에 붙어서, '여러', '여럿이 제각기'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 '-들'에, 목적격 '을'이 결합된 격조사. [전역] = 덜을.
들읍더 부 들입다. [전역] = 들입더.
들이 조 아무 말의 끝에나 붙어서, '여럿' 또는 '여럿이 제각기'의 뜻을 나타내는 접미사 '-들'에, 주격 '이'가 결합된 격조사. [전역]
들이ᄃᆞ락-내ᄐᆞ락 부 닫는 걸음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모양. [전역]
들이-돋다 동 들이-닫다. [전역]
들이-밀다 동 들이-밀다. [전역]
들이-몰다 동 들이-몰다. 마소 따위를 어느 장소의 경계선 가까이 바싹 다가가게 하다. ＊ᄆᆞᆯ은 성 안으로 들이몰앙 심어사 심어진다.(말은 성 안으로 들이몰아서 붙잡아야 잡을 수 있다.) [전역]
들이-박다 동 들이-박다. [전역]
들이-삐다 동 들이-치다. 비, 눈 같은 것이 바람에 의해서 안으로 세차게 뿌리다. ＊비 들이삐염져, 문 더끄라.(비가 들이친다, 문 닫아라.) [전역]
들이-쓰다 동 [전역] → 드르-쓰다.
들이-씨다 동 [전역] → 드르-쓰다.
들이쳑-내쳑 부 무엇을 일정한 공간 안으로 집어넣었다 밖으로 잡아당겼다 하는 모양. ＊말 안 들으민 이 물더레 들이쳑내쳑 ᄒᆞ려.(말 안 들으면 이 물에 '들이쳑내쳑' 하겠어.) [전역]
들이-치다[1] 동 안쪽으로 아무렇게나 막 집어넣다. [전역]
들이-치다[2] 동 들이-뜨리다. 물 따위의 액체 속에 집어넣다. ＊국 끓일 때 ᄂᆞ물 잘 들이치라.(국 끓일 때 나물을 잘 넣어라.) ＊두갓이 들렁 간 물더레 들이쳐불 양으로 가단 술이 기르우난 질 구석에 내부러뒁 가부런.(부부가 들고 가 물에 들이뜨릴 양으로 가다가 술이 그리우니 길 구석에 내버리고 가버렸어.) [전역]
들이-치다[3] 동 들이-치다. 마구 치다. [전역]
들입더 부 [노형 조수] → 들읍더.
들적-날적 부 들어가고 나오고 할 때. [전역]
들-지름 명 <음> 들-기름. [전역]
들짝-거리다 동 들썩-거리다. [전역]
들-친 명 자리 그물의 벼릿줄. [신양]
들칵[1] 부 꿀꺽. [전역]
들칵[2] 부 덜컥. [전역]
들크름-ᄒᆞ다 형 달콤-하다. [전역]
들키다 동 [전역] → 들리다[1].
들토 조 [전역] → 덜토.
들허귀-ᄂᆞ물 명 <식> [수산] → 들머귀-ᄂᆞ물.

듬-돌 명 <도> [전역] → 등-돌.
듬박-ᄒᆞ다 형 [전역] → 듬삭-ᄒᆞ다.
듬북 명 <식> ① 뜸부기. [전역] ② 듬북. [전역]
듬북-개 명 <지> 제주시 애월읍 하귀 1리의 한 포구. [애월]
듬북-게 명 <동> [대포] → 듬북-겡이.
듬북-겡이 명 <동> 주로 듬북에 사는 게. [전역] = 듬북-게, 듬북-깅이.
듬북-깅이 명 <동> [전역] → 듬북-겡이.
듬삭-ᄒᆞ다 형 기름기가 많은 국(羹) 같은 것을 먹을 때 입 안에 맛이 돌아 푸짐하게 느껴지다. [전역] = 듬박-ᄒᆞ다, 등삭-ᄒᆞ다.
듬쑥 부 듬뿍. [전역]
-듯 어미 -듯.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어간이 뜻하는 내용과 거의 같게'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듯기 명 듯이. [전역] = 듯이.
듯이 명 [전역] → 듯기.
등 명 등(背). [전역]
등갈-등갈[1] 부 기름기가 둥둥 떠 있는 모양. [전역]
등갈-등갈[2] 부 디룽-디룽. 큼직한 물건이 매달려 잇따라 가볍게 흔들리는 모양. [전역]
등갈등갈-ᄒᆞ다 형 기름기가 둥둥 떠 있다. [전역]
등개 명 정미소에서 보리를 도정할 때 나오는 찌꺼기. [전역] = 등게.
등-거리 명 등-지게. [전역] = 등-지게.
등겁다 형 고기를 끓인 국물 따위가 입안에서 맛이 돌아 아주 구수하거나 기름지다. *노리 뜨려난 그 막뎅이가 어떻게 등거왓던지, 삼 년을 딸려 먹엇다 이 말이우다.(노루를 때렸던 그 막대기가 얼마나 등거웠던지, 삼 년을 달여 먹었다 이 말입니다). [전역]
등-게 명 [조수] → 등개.
등경(燈檠) 명 등경. 등잔-걸이. [전역] = 징경.
등경-돌 명 <도> 관솔불을 올려놓는 돌기둥. [전역]


등경돌

등-골 명 등-골(脊髓). [전역] 고 등쏠.
등-곱다 형 등이 곧지 아니하고 앞쪽으로 휘어져 있다. [전역] = 등-굽다.
등-곱새 명 곱사등-이. [전역] = 곱-새, 등-곱생이, 등-곱쟁이, 등-굽새.
등-곱생이 명 [전역] → 등-곱새.
등-곱쟁이 명 [전역] → 등-곱새.
등-굽다 형 [전역] → 등-곱다.
등-굽새 명 [전역] → 등-곱새.
등긔다 동 [전역] → 등기다.
등기다 동 늘이다. 땅에 물건이 닿을 정도로 늘어뜨리다. *소살 고무줄 망아리 어움에 무껑 알러레 드렝이 등경 멩기곡.(작살 고무줄 망사리 에 음에 묶어서 아래로 느런히 늘여서 다니고.) [전역] = 등긔다, 등의다.
등-꽝 명 등골-뼈(脊椎骨). [전역] = 등ᄆᆞ로-꽝, 등ᄆᆞ르-꽝, 등ᄆᆞ를-꽝,

등-퉤. ㉤등ᄆᆞᄅᆞ쎠.

등내미 명 <동> 오징어의 일종. [사계]

등-다데 명 [전역] → 등-바데.

등데 명 등대(燈臺). [전역]

등-돌 명 <도> 들-돌(-石).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드름-돌, 듬-돌.



등돌

등들-펭 명 <도> [행원] → 드들-펭.

등듸-쿨 명 <식> [서홍 조수 인성 가시] → 등듸-풀.

등듸-풀 명 <식> 등대-풀. [가시 김녕] = 등듸-쿨, 등지-풀.

등따리 명 등-때기. [전역] = 등-땡이, 등-뗑이.

등-땡이 명 [전역] → 등-따리.

등-뗑이 명 [전역] → 등-따리.

등-물 명 목-물. [전역]

등-ᄆᆞ로 명 [서홍] → 등-ᄆᆞᆯ리.

등ᄆᆞ로-꽝 명 [서홍] → 등-꽝.

등-ᄆᆞ르 명 [인성 가시 수산] → 등-ᄆᆞᆯ리.

등ᄆᆞ르-꽝 명 [수산] → 등-꽝.

등-ᄆᆞ를 명 [김녕 조수] → 등-ᄆᆞᆯ리.

등ᄆᆞ를-꽝 명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등-꽝.

등-몰리 명 등-마루(脊). [노형 조수] = 등-ᄆᆞ로, 등-ᄆᆞ르, 등-ᄆᆞ를.

등-바데 명 등-바대(衽). [전역] = 등-다데, 짓-바데.

등-벙것 명 <도> [서홍] → 등핏-벙것.

등부튼-갈리 명 소, 돼지의 등골뼈가 붙게 짜개어 낸 식용(食用) 갈비. [전역] = 등부튼-갈비.

등부튼-갈비 명 [전역] → 등부튼-갈리.

등-불 명 등-불. [전역]

등삭-ᄒᆞ다 형 [전역] → 듬삭-ᄒᆞ다.

등신[1] 명 인체에서 머리와 팔, 다리를 제외한 부분을 전체로 일컫는 말. ＊아마 거 열늬 술이라도 등신은 든직헷던 모냥이라.(아마 거 열네 살이라도 '등신'은 든직했던 모양이야.) [전역]

등신[2]**(等神)** 명 등신. 몹시 어리석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이 등신아.(이 '등신'아.) [전역]

등심 명 등심. 소의 등골뼈에서 발라낸 고기. [인성 서홍 수산]

등쌀 명 등쌀. [전역]

등-어리 명 [전역] → 등-따리.

등영구(登瀛丘) 명 <지> [오라] → 들렁-귀.

등의다 동 [전역] → 등기다.

등입진-떡 명 <음> [인성] → 징부찐-떡.

등-잔(燈盞) 명 등-잔. [전역] = 각지[2].



등잔

등절미 명 <음> [화순 하원] → 등절비.

등절비 명 <음> 흰쌀로 반달 모양으로 만들어 찌거나 삶아낸 후에 팥고물을 묻힌 떡. [서홍 태흥 표선 수산 세화 조천 노형] = 등절미.



등절비

등지 명 등자(鐙子). [전역] = 등ᄌᆞ.

등지-거리 명 <민> [용담 건입] → 등진-거리.

등-지게 명 <도> [전역] → 등-거리.

등지-친 명 등자(鐙子)의 끈. [전역] = 등ᄌᆞ-친.

등지-풀 명 <식> [수산] → 등듸-풀.

등진-거리 명 <민> 큰 대 윗부분에 도포(道袍)로 요령을 달아맨 것. [전역] = 등지-거리, 등짓-거리.

등진-ᄃᆞ리 명 <민> 신칼(神刀)로 점을 칠 때 칼들이 마주 향하여진 상태. [전역]

등-짐 명 등-짐. [전역]

등짐-장시 명 등짐-장수(負商人). [전역]

등짐-장ᄉᆞ 명 등짐-장사(負商). [전역]

등짓-거리 명 <민> [노형 오라 삼양] → 등진-거리.

등ᄌᆞ 명 [인성 조수 화순 하원 조천 노형] → 등지.

등ᄌᆞ-친 명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등지-친.

등체기 명 나무 밑동이나 콩나물 꼬리 부분 등 식물의 끝 부분. [전역] = 등케기.

등케 명 한태. 봇줄이 아래로 축 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소의 등 위로 둘러 감아 봇줄 양쪽으로 맨 줄. [전역] = 등쾌.

등케기 명 [전역] → 등체기.

등쾌 명 [전역] → 등케.

등쾟-줄 명 한 끝은 소의 멍에에 매어지고 또 한 끝은 소의 등 위의 한태 줄에 매어지는 끈. [김녕 조수 수산 인성 서홍] = 등쾟-친.

등쾟-친 명 [조수] → 등쾟-줄.

등-태 명 겉-언치. 짐을 잔뜩 실었을 때 압박을 덜 가게 하려고 소 등에 얹혀 씌운 헝겊 조각. [감산] = 등-테.

등-테 명 [전역] → 등-태.

등-퉤 명 [전역] → 등-꽝.

등피 명 남포-등. [전역]

등핏-각지 명 호롱. [전역]

등핏-갓 명 [노형 인성] → 등핏-벙것.

등핏-벌립 명 [김녕 가시 어도] → 등핏-벙것.

등핏-벙것 명 남포등 위쪽에 씌워진 벙거지 모양의 물건. [노형 조수 인성 김녕 가시 수산] = 등-벙것, 등핏-갓, 등핏-벌립.

듸 조 에. 주로 '밧(田)·바깟(外)·ᄀᆞᆺ(邊)' 등 명사에 붙는 처소격 조사. *이 놈은 솔남 밧듸 가서 턱 누언 자 불엇어.(이놈은 소나무 밭에 가서 턱 누워서 자 버렸어.) [전역] = 디.

듸다 동 어떤 일이 생기는 수가 좀처

럼 없다. [노형 조수]

듸딜-팡 명 [전역] → 드들-팡.

듸랑 조 에는. 주로 '밧(田)·바깟(外)·ᄀᆞᆺ(邊)' 등의 명사에 붙는 처소격 조사 '듸'에, '는'의 뜻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랑'이 결합된 격조사. [전역]

듸레 조 으로. [전역] → 더레.

듸로 조 으로. [전역] → 드로.

듸리다 동 드리다. 두 가닥 이상으로 꼬다. [전역] = 드리다[1].

듸린-배 명 두 가닥 이상으로 어울려 꼰 참바. [전역] = 드린-배.

듸-몰다 동 들이-밀다. *이거 그 속데레 듸몰라.(이것 그 속으로 들이밀어라.) [전역]

듸사 조 에야. 주로 '밧(田)·바깟(外)·ᄀᆞᆺ(邊)' 등의 명사에 붙는 처소격 조사 '듸'에,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사'가 결합된 격조사. [전역]

듸서 조 에서. 주로 '밧(田)·바깟(外)·ᄀᆞᆺ(邊)' 등 명사에 붙는 처소격 조사 '듸'에, 존재의 뜻을 나타내는 '서'가 결합된 격조사. [전역]

듼-그루 명 [전역] → 덴-그르.

-디[1] 어미 -니. 용언 어간에 붙은 '-암-·-엄-·-염-·-람-·-안-·-언-·-연-·-란-' 등에 연결되어서, 의문사를 전치시키고, 그 동작의 계속이나 완료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디[2] 어미 -는지. 용언 어간에 붙은 '-암-·-엄-·-염-·-람-·-안-·-언-·-연-·-란-' 등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의 완료에 대한 막연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디[3] 어미 -디. [전역] → -데

디 조 *당신이 사는 디, 아무디 아무 돌끗디 강 집을 짓이라.(당신이 사는 곳, 아무데 아무 돌부리에 가서 집을 지어라.) [전역] → 듸.

디깍 부 [전역] → 지깍.

디깍-ᄒᆞ다 형 [전역] → 지깍-ᄒᆞ다.

디나 조 처격 '디'와 보조사 '나'가 결합한 형태. *대가리 스 밧디나 까지 멍 대가리 까젼 죽언.(대가리 세 군데나 터지면서 대가리 터져서 죽었어.) [전역]

디들-팡 명 [대정] → 드들-팡.

디디다 동 [전역] → 드듸다.

디딤-불미 명 <공> [덕수] → 청탁-불미.

디딤불미 놀레 명 <요> 여러 사람이 발로 디디며 치르는 골풀무로 바람을 일으키며 부르는 민요. 이 풀무질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루어지며 풀무질에 따른 민요 가운데 가장 힘차고 빠른 가락의 집단노동요임. [덕수] = 발판불미 놀레.

디-물다 동 집어-넣다. 찔러 넣다. *이제는 죽을 따흐로 그 웨삼춘네 ᄒᆞ곡 웨하르방네가 디물앗는디.(이제는 죽을 땅으로 그 외삼촌네 하고 외할아버지네가 집어넣었는데.) [노형]

디-밀다 동 들이-밀다. *안으로 더 디밀라.(안으로 더 들이밀어라.) [전역]

-디야 어미 -냐. [전역]

ᄃᆞ가리 명 [전역] → 데가리.

ᄃᆞ근-ᄒᆞ다 형 차근-하다. [전역]

ᄃᆞ글-ᄃᆞ글 부 [전역] → 다글-다글①.

ᄃᆞ끈-ᄒᆞ다 형 묵직-하다. [전역] = ᄄᆞ

근-ᄒᆞ다.

ᄃᆞ녀-가다 동 다녀-가다. [전역]

ᄃᆞ니다 동 다니다(行). [전역] = 뎅기다, 뎅이다. 고 ᄃᆞ니다, ᄃᆞ니다.

ᄃᆞ들[1] 명 '애기구덕' 중간으로 얽어 묶은 줄. [전역]

ᄃᆞ들[2] 명 <도> [수산] → 떡-징[1].

ᄃᆞ라-가다 동 [전역] → ᄃᆞ려-가다.

ᄃᆞ라-들다 동 [전역] → ᄃᆞ려-들다.

ᄃᆞ라미[1] 명 <동> [전역] = ᄃᆞ람지[1].

ᄃᆞ라-미[2] 명 <지> 서귀포시 신효동과 상효동의 경계에 걸쳐진 오름. 'ᄃᆞ라미'(박쥐) 모양을 닮았다고 함. 표고 118미터. [효돈] = 다라-미, 월라-산(月羅山).

ᄃᆞ라-오다 동 [전역] → ᄃᆞ려-오다.

ᄃᆞ라-쿳 명 <지> [노형] → 다라-쿳.

ᄃᆞ락 명 <건> [인성 어도] → 다락[1].

ᄃᆞ락-못 명 <지> [노형] → 다라-쿳.

ᄃᆞ람쥐 명 <동> [조천 세화 노형 어도] → ᄃᆞ람지[1].

ᄃᆞ람지[1] 명 <동> 박쥐(蝙蝠). [전역] = ᄃᆞ라미[1], ᄃᆞ람쥐. 고 ᄃᆞ라미, ᄃᆞᄅᆞᆷ쥐.

ᄃᆞ람지[2] 명 <동> 다람쥐. [전역]

ᄃᆞ랑-곳 명 <지> 제주시 노형동의 한 자연마을. [노형] = 다랑-곳, 다랑-굿, ᄃᆞ랑-굿.

ᄃᆞ랑굴-마을 명 <지> 제주시 오라3동에 있었던 자연마을. [전역]

ᄃᆞ랑-굿 명 <지> [노형] → ᄃᆞ랑-곳.

ᄃᆞ랑-ᄃᆞ랑 부 [전역] → 드랑-드랑.

ᄃᆞ랑-쉐 명 <동> [조수] → 떠렁-쉐.

ᄃᆞ랑-쉬 명 <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남서쪽, 비자림 동쪽에 있는 오름. 산 위에 둘레 약 1500미터, 깊이 115미터의 깔때기형 분화구가 움쑥함. 표고 382미터. [전역] = 다랑-쉬, 월랑-봉(月朗峰).

ᄃᆞ레 명 다래. 다래나무의 열매. [전역]

ᄃᆞ레-낭 명 <식> 다래-나무. [전역] = ᄃᆞ레-출, ᄃᆞ레-쿨, ᄃᆞ렛-줄.

ᄃᆞ레-오름[1] 명 <지>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 바닷가에 있는 오름. 'ᄃᆞ레'(다래) 나무가 많았다고 함. 안덕계곡(安德溪谷)을 끼고, 서쪽에 화순해수욕장이 있음. 조선 때 봉수대가 있었음. 표고 201미터. [안덕] = 다래-오름, 월라-봉(月羅峰).

ᄃᆞ레-오름[2] 명 <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궤오름 동쪽에 있는 오름. 표고 697미터. [애월]

ᄃᆞ레-오름[3] 명 <지> 서귀포시 하원동, 1100도로의 영실(靈室) 입구 북쪽에 있는 오름. 'ᄃᆞ레낭'(다래나무)이 많았음. 표고 984미터. [조수 하원]

ᄃᆞ레-출 명 <식> [가시] → ᄃᆞ레-낭.

ᄃᆞ레-쿨 명 <식> [전역] → ᄃᆞ레-낭.

ᄃᆞ렛-발 명 다래나무의 뿌리. *ᄃᆞ렛발로도 신 삼아낫주.(다래나무 뿌리로도 신 삼았었지.) [봉성]

ᄃᆞ렛-줄 명 <식> *고지 뎅이는 사름 안티 부탁ᄒᆞ민 ᄃᆞ렛줄 어움 ᄒᆞ기 좋은 걸로 ᄒᆞ여다 주주게.(숲에 다니는 사람한테 부탁하면 다래나무 테두리 하기 좋은 것으로 해다 주지.) [이호] → ᄃᆞ레-낭.

ᄃᆞ려-가다 동 데려-가다. [전역] = 데려-가다, ᄃᆞ라-가다, 들아-가다, 들앙-가다.

ᄃᆞ려-들다 동 데려-들다. [전역] = 데

려-들다, ᄃᆞ라-들다.

ᄃᆞ려-오다 동 데려-오다. [전역] = 데려-오다, ᄃᆞ라-오다, ᄃᆞᆯ아-오다[1].

ᄃᆞ로 명 [노형 어도 조수] → ᄃᆞ로갱이.

ᄃᆞ로갱이 명 아주 자그마한 밭. 집 주위에 있는 작은 밭. [인성 화순 노형 어도 조수] = ᄃᆞ로, ᄃᆞᄅᆞ겡이, ᄃᆞᆯ렝이[2], ᄃᆞᆯ뤵이, 토강지, 토갱이.

ᄃᆞ리[1] 명 다리(橋). *(속) ᄒᆞᆫ 놈 논 ᄃᆞ리 열 놈은 걷곡, 열 놈 논 ᄃᆞ리 ᄒᆞᆫ 놈도 못 걷나.(한 놈 놓은 다리는 열 놈이 건너고, 열 놈이 놓은 다리는 한 놈도 못 건넌다.) [전역] ㊞ᄃᆞ리.

ᄃᆞ리[2] 명 <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의 옛 이름. [전역]

ᄃᆞ리다[1] 동 닭, 새 따위를 쫓아 버리다. [전역]

ᄃᆞ리다[2] 동 데리다(率). [전역] = 데리다, ᄃᆞᆯ다[2]. ㊞ᄃᆞ리다.

ᄃᆞ리-안상계 명 <민> [전역] = 초-상계.

ᄃᆞ림-사위 명 [수산 가시 김녕] → 데림-사위.

ᄃᆞᄅᆞ겡이 명 [하원 서홍] → ᄃᆞ로갱이.

ᄃᆞ멩이 명 <민> [온평] → 데가리.

ᄃᆞ사리 명 남의 집에 살면서 일을 해주는 사람. [전역] = 도사리.

ᄃᆞ사리-보내다 동 가난해서 자식을 남의집살이로 보내다. [전역] = 도사리-보내다.

ᄃᆞ스다 형 따뜻-하다. 다습다. [전역] = ᄃᆞ시다, ᄃᆞᆺ다.

ᄃᆞ스리다 동 [전역] → 도스르다.

ᄃᆞ시다 형 다습다. *옷 입엉 등 ᄃᆞ시민 나 날인가?(옷 입어 등 다스우면 내 날인가?) [전역]

ᄃᆞ시리다 동 [전역] → 도스르다.

ᄃᆞ투다 동 다투다(爭). [전역]

ᄃᆞᆨ 명 <동> 닭(鷄). *(속) 검은 ᄃᆞᆨ도 힌 ᄃᆞᆨ새기 난다.(검은 닭도 흰 달걀 낳는다.) *(속) ᄃᆞᆨ도 지 압씩 근어 먹나.(닭도 제 앞씩 헤집어 먹는다.) [전역] ㊞돍.

ᄃᆞᆨ-가심 명 새-가슴. [전역]

ᄃᆞᆨ-게 명 <동> 닭-새우. [김녕]

ᄃᆞᆨ고날-풀 명 <식> [김녕] → ᄃᆞᆨ-쿨.

ᄃᆞᆨ-고달[1] 명 <식> 갈래-곰보. [전역] = 계관-초(鷄冠草).

ᄃᆞᆨ-고달[2] 명 닭의-볏(鷄冠). [김녕 노형 서홍 조수 인성] = ᄃᆞᆨ-베설.

ᄃᆞᆨ-국 명 <음> 닭-국. [전역]

ᄃᆞᆨ-궤기 명 닭-고기. [전역]

ᄃᆞᆨ다귀 명 [노형 인성] → 독다귀.

ᄃᆞᆨ-돔 명 <동> [조수 인성] → 닥-돔.

ᄃᆞᆨ-두점 명 <민> [전역] → ᄃᆞᆨ-주전.

ᄃᆞᆨ-둥수리 명 <도> [인성] → ᄃᆞᆨ-수룽이.

ᄃᆞᆨ-망 명 <건>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ᄃᆞᆨ-집.

ᄃᆞᆨ-발 명 <동> [김녕] → 삼천-발.

ᄃᆞᆨ-베설 명 [서홍 수산 김녕] → ᄃᆞᆨ-고달[2].

ᄃᆞᆨ-새기 명 달걀(鷄卵). *(속) 둥그린 ᄃᆞᆨ새긴 빙애기 뒈곡, 둥그린 사름은 쓸메 난다.(굴린 달걀은 병아리 되고, 굴린 사람은 쓸모가 있다.) [전역] = 돍의-알.

ᄃᆞᆨ새기-꽝 명 [조수] → 독ᄆᆞᄅᆞᆸ-꽝.

ᄃᆞᆨ-서렁 명 <도> [인성 조수] → ᄃᆞᆨ-수룽이.

ᄃᆞᆨ세기-오름 명 <지> [한경] → 두건

이-오름.

독-수렝이 명 <도> [노형 김녕] → 독-수룽이.

독-수룽이 명 <도> 닭의-어리. [노형 서홍 수산 가시 김녕] = 독-둥수리, 독-서렁, 독-수렝이.



독수룽이

독-솔 명 닭-살. [전역]

독솔-사다 동 살갗에 도톨도톨하게 소름이 돋아나다. [전역]

독-우리 명 달-구리. 이른 새벽 닭이 울 때. [전역]

독-장서 명 [전역] → 독-장ᄉᆞ.

독-장시 명 닭-장수(-商人). [전역]

독-장ᄉᆞ 명 닭-장사(-商). [전역] = 독-장서.

독-전(-煎) 명 <음> 달걀 지짐. [성읍]

독-주전 명 <민> 닭-고기. [전역] = 독-두점, 독-주점.

독-주점 명 <민> [전역] → 독-주전.

독-죽 명 <음> 닭-죽. [전역]

독-지시 명 <병> [삼양] → 독-짓[2].

독-집 명 닭-장. [전역] = 독-망.

독-짓[1] 명 닭의 날개에 난 긴 털. [전역]

독짓[2] 명 <병> 독창. 머리에 생기는 습진 비슷한 피부병. 종기가 생기고 진물이 남. [이호 산양] = 독-지시.

독쿠리-동산 명 <지> ① 제주시 애월읍 어음1리에 있는 동산. [어음] ② '독쿠리동산' 일대에 형성된 동네. [어음]

독-쿨 명 <식> 여우-구슬. [인성 조수 서홍] = 독고날-풀, 독-풀.

독-텅에 명 ① 닭이 들어앉아 있으면서 알을 낳는 곳. [전역] ② 닭집. [전역] = 텅에[2].



독텅에

독-풀 명 <식> [가시] → 독-쿨.

독-헤치 명 닭-띠. [전역]

돈돈이-보다 동 틀림없는가를 확실하게 주의하며 보다. [전역]

돈돈-ᄒᆞ다[1] 동 거의 되다. *그 도복 띠는 서 발이 돈돈ᄒᆞ엿주.(그 도포(道袍) 띠는 세 발이 거의 되었지.) [전역]

돈돈-ᄒᆞ다[2] 형 단단-하다. [전역]

돈-맛 명 단-맛. [전역]

돈-물 명 [전역] → 민-물.

돈물-장의 명 <동> [전역] → 민물-장의.

돈물-체ᄉᆞ 명 <민> 민물차사(淡水差使). 민물에서 죽은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차사.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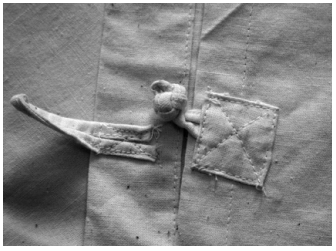
돈-밥 명 단-밥. [전역]

돈직-ᄒᆞ다[1] 형 [전역] → 든직-ᄒᆞ다.

돈직-ᄒᆞ다[2] 형 묵직-하다. *어떵 이 짐은 영 돈직ᄒᆞ니?(왜 이 짐은 이렇

게 묵직하지?) [전역]
둔-좀 명 단-잠. [전역]
둗는-연 명 잘못 만들어서 얼레를 쥐고 달려야만 조금 뜨는 연. [전역]
돋다 동 닫다(走). [전역]
돌[1] 명 <의> 들메-끈. [전역]
돌[2] 명 달(月). [전역] 고 돌.
돌각-돌각 부 달각-달각. [전역]
돌-갓 명 달-무리(月暈). [전역] = 돌-머리, 돌-모리.
돌갓-쓰다 동 달무리가 지다. [전역] = 돌머리-ᄒᆞ다, 돌모리-ᄒᆞ다.
돌-개들러먹다 동 [전역] → 월식-ᄒᆞ다.
돌-개먹다 동 [전역] → 월식-ᄒᆞ다.
돌게-네기다 동 달게-여기다. 달갑게 생각하다. [전역]
돌게-받다 동 달게 받다. 기꺼이 받다. [전역]
돌그락 부 달그락. [전역]
돌그락-돌그락 부 [전역] → 달그락-달그락.
돌깍 부 갑자기 사라지거나 삼키는 모양. ＊저 해 돌깍 지내영 가라.(저 해 슬쩍 지내어서 가거라.) [전역]
돌님 명 달님. [대정]
돌다[1] 동 달다. ① 높이 걸어 늘어뜨리다. [전역] ② 저울로 무게를 헤아리다. [전역]
돌다[2] 동 [전역] → ᄃᆞ리다[2].
돌다[3] 형 달다(甘). [전역]
돌돌 부 [전역] → 달달[1].
돌돌-이 부 다달-이. [전역]
돌-뜨다 동 달(月)이 뜨다. [전역] = 돌-트다.
돌라-내다 동 도려-내다. [전역]
돌라-부트다 동 달라-붙다. [전역]
돌락-돌락 부 들먹-들먹. [전역]
돌랑지 명 <도> 아주 자그마한 바구니. [조수] = 돌렝이[1].
돌랑-ᄒᆞ다 형 깡똥-하다. 입은 옷이 아랫도리나 속옷이 드러날 정도로 짧다. [전역]
돌레 명 <도> ＊ᄆᆞᆯ 돌릴 때 펄 튀는 거 돌레에서 받아지거든. 양안엔 돌레가 엇주.(말 달릴 때 펄 튀는 것을 '돌레'에서 받아지거든. 양안(洋鞍)에는 '돌레'가 없지.) [전역] → ᄆᆞᆯ-돌레.
돌레-입 명 [노형 조수] → 떡-입.
돌레-지 명 <민> 댓가지로 군문을 세워 질을 칠 때 군문 양쪽에 매다는 작은 종이 장식. [전역]
돌렝이[1] 명 <도>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돌랑지.
돌렝이[2] 명 [태흥 수산 세화 조천 어도] → ᄃᆞ로갱이.
돌려-가다 동 달려-가다. [전역]
돌려-들다 동 달려-들다. [전역] = 돌펴-들다.
돌려-오다 동 달려-오다. [전역]
돌로다 동 [전역] → ᄯᆞ르다[2].
돌루다 동 [전역] → ᄯᆞ르다[2].
돌뤵이 명 [가시] → ᄃᆞ로갱이.
돌뤼 명 다리(髢). 쪽지는 머리 속에 넣는 다른 머리털. [전역] 고 돌외.
돌뤼-장 명 다리 장수. 여자의 머리털의 숱을 많아 보이게 하려고 덧넣는 딴머리를 장사하는 사람. ＊돌뤼장아, 돌뤼물 도라.(다리 장수야, 물들일 '돌뤼물' 달라.) [전역]
돌리다[1] 동 달리다(走). [전역]

돌리다[2] 동 달리다. 어떤 것이 걸려서 아래로 처지게 되다. [전역]
돌림-검질 명 <농> 사람이 달려가듯이 듬성듬성 이루어지는 김매기. [남원]
돌마기 명 매듭-단추. 개씹-단추. [전역] = 돌매기, 벌-ᄆᆞ작.


돌마기

돌막-거리다 동 달막-거리다. [전역]
돌막-돌막 부 달막-달막. [전역]
돌막-이다 동 달막-이다. [전역]
돌막-ᄒᆞ다 형 무거운 물체가 내려앉지 않고 조금 들려 있다. [전역]
돌매기 명 [전역] → 돌마기.
돌-머리 명 [전역] → 돌-갓.
돌머리-ᄒᆞ다 동 [전역] → 돌갓-쓰다.
돌-메다 동 들메다. [전역] = 신돌-메다.
돌멘-목숨 명 매인-목숨. [전역]
돌멩이 명 들메-끈. [전역]
돌-모리 명 [가시] → 돌-갓.
돌-밤 명 달-밤(月夜). [전역]
돌뱅이 명 <동> 달팽이(蝸牛). [조수 인성 서홍 수산] = 돌벵이, 돌봉이, 돌펭이. 고 돌팡이.
돌벵이 명 <동> [전역] → 돌뱅이.
돌벵이-뿔 명 <도> 까막-머리. 봇줄을 매기 위하여 성에 끝에 박은 비녀


돌뱅이

모양의 나무. [전역]
돌봉이 명 <동> [조천 노형 조수 어도] → 돌뱅이.
돌싹-거리다 동 달싹-거리다. [전역]
돌싹-돌싹 부 달싹-달싹. [전역]
돌싹-이다 동 달싹-이다. [전역]
돌싹-ᄒᆞ다 동 달싹-하다. [전역]
돌아-가다 동 [전역] → ᄃᆞ려-가다.
돌아-나다 동 달아-나다(走). [전역]
돌아-뎅기다 동 돌아-다니다. [전역]
돌아-메다 동 달아-매다(懸). [전역]
돌아-보다 동 달아-보다. 저울로 무게를 떠보다. [전역]
돌아-오다[1] 동 [전역] → ᄃᆞ려-오다.
돌아-오다[2] 동 뛰어-오다. [전역]
돌아-지다[1] 동 매-달리다. [전역]
돌아-지다[2] 동 이름 따위가 문서 등에 기록되어 올라 있다. *강 보난 돌아젼 신 걸 안 돌아졋덴 박박 우기믄 뭘 말아우꽈?(가 보니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록되지 않았다고 벅벅 우기면 될 말입니까?) [전역]
돌앙-가다 동 [전역] → ᄃᆞ려-가다.
돌-역 명 달-품. *쿰은 돌역으로 주어시믄 좋키여.(품삯은 달품으로 주었으면 좋겠다.) [전역]
돌-연 명 [서홍 가시] → 쟁-연(-鳶).

돌-오다 동 [전역] → 뜨르다[2].
돌모리-ᄒᆞ다 동 [수산 가시] → 돌갓-쓰다.
돌음검질-매다 동 <농> 김이 깃지 않은 경우 빠른 속도로 대강대강 김을 매어 가다. [전역]
돌음박-질 명 [전역] → 돌음제기.
돌음제기 명 달리-기. *우리 저 웨정 시대 돌음제기 ᄒᆞ레 저 국민학교 가오고, 굴 파레 가오곡.(우리 저 왜정 때 달리기하러 저 초등학교 다녀오고, 굴 파러 다녀오고.) [하귀] = 돌음박-질.
돌-줄 명 <건> [전역] → 두름-줄.
돌-지게 명 <도> 지게의 일종. [대정]
돌진-밧 명 달이 떨어진 밭. 넓고 기름진 밭을 뜻함. [전역]
돌착지근-ᄒᆞ다 형 달착지근-하다. [전역]
돌-채 명 <도> [전역] → 돌-체.
돌-체 명 <도> 들-것. [전역] = 돌-채.
돌치 명 <동> 달-고기. *돌치는 주낙에 조기 물어시민 조길 들러먹어그네 걸령 올라오주. 걸바당에도 살곡, 펄바당에도 살곡.(달고기는 주낙에 조기 물었으면 조기를 입에 집어넣어서 걸려 올라오지. 돌바다에도 살고, 펄바다에도 살고.) [전역]
돌칵 부 꼴깍. [전역]
돌코롬-ᄒᆞ다 형 맛이 알맞게 달콤하다. [전역] = 돌코름-ᄒᆞ다.
돌코름-ᄒᆞ다 형 [하도] → 돌코롬-ᄒᆞ다.
돌콤-ᄒᆞ다 형 달큼-하다. [전역] = 돌쿵-ᄒᆞ다.
돌쿵-ᄒᆞ다 형 [수산] → 돌콤-ᄒᆞ다.
돌-트다 동 [전역] → 돌-뜨다.
돌펭이 명 <동> [저지] → 돌뱅이.
돌펴-들다 동 [조수 김녕] → 들려-들다.
돌-ᄒᆞ다 형 달콤-하다. *그 수박 먹엉 보난 막 돌홉디다.(그 수박 먹어 보니까 아주 달콤하던데요.) [전역]
돍의-알 명 [전역] → 독-새기.
돔다 동 담그다. [전역]
돔쑥 부 담뿍. *눈이 질끙장 돔쑥 묻으난 걸을 수가 시어?(눈이 길까지 담뿍 묻으니 걸을 수가 있어?) [전역]
돔쑥-ᄒᆞ다 형 하늘이 금방이라도 비가 올 듯이 구름이 낮게 떠서 흐리다. [전역]
돔풀어-놓다 동 술을 담가 놓은 것에 다시 두 번 술밑을 하여 놓다. [노형 수산 조수]
돗다 형 [전역] → ᄃᆞ스다.
돗돗-ᄒᆞ다 형 따뜻-하다. [전역]
돗은-물 명 끓여져 따끈한 기가 있는 물. [전역]
둥가리 명 [표선] → 뎅가리.
둥그다[1] 동 담그다. 다시 끄집어 내기로 하고 액체 속에 넣다. [전역]
둥그다[2] 동 잠그다. 물 속에 물건을 넣거나 가라앉게 하다. [전역]
둥그랭이 부 줄곧. *나오는 날은 둥그랭이 기둘렷단 다시 모사 왓저.(나오는 날은 줄곧 기다렸다가 다시 모셔 왔다.) [표선]
둥글-대축 명 <식> [가시] → 오동-대죽.
둥글-둥글 부 위에 매달려져 조금 움직이는 듯한 모양. [전역]
둥기다[1] 동 결리다. 숨을 크게 쉬거나

몸을 움직일 때에 몸의 어떤 부위가 당기어서 아프다. [전역]

ᄃᆞᆼ기다[2] 동 당기다. [전역] = ᄃᆞᆼ이다. ㊟ᄃᆞᆼ기다.

ᄃᆞᆼ대기 명 <식> 조의 일종. [중문 색달]

ᄃᆞᆼ들-대축 명 <식> [수산] → 오동-대죽.

ᄃᆞᆼ듸-대죽 명 <식> [노형] → 오동-대죽.

ᄃᆞᆼ디에기 명 <동> [조수] → ᄇᆞᆭ댕이.

ᄃᆞᆼ-사다 동 곁에 지키어 서다. [전역]

ᄃᆞᆼ이다 동 [어음] → ᄃᆞᆼ기다[2].

ᄃᆞᆼ지-대죽 명 <식> [서홍] → 오동-대죽.

ᄃᆞᆼ지-대축 명 <식> [수산] → 오동-대죽.

ᄃᆞᆼ-차다 형 무슨 일에나 앞질러 잘 덤비는 성미가 있다. [전역]

따 명 땅(地). [전역] = 땅.

따개비 명 <동> 무늬애기-배말. [행원] = 땅개비.

따다 동 [전역] → 타다[7].

따따-부따 부 가타-부타. [전역]

따라-비 명 <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제동목장 남동쪽에 있는 오름. 기슭에 이류구(泥流丘)가 산재하여 아기자기한 산세(山勢)를 이룸. 표고 342미터. [전역]

따리왓-동네 명 <지> 제주시 한경면 산양리 '여뀌못' 남쪽에 형성되었던 동네. [한경]

따문 명 때문. [하귀]

따물다 동 남에게 무엇을 해 내라고 재촉하다. [전역] = 따ᄆᆞᆯ다.

따ᄆᆞᆯ다 동 [전역] → 따물다.

따비 명 <도> 따비(耒). 척박한 농지를 개간할 때 쓰는 농기구. 웨따비와 쌍따비가 있음. [전역] = 땅비, 때비.



따비

따비질 소리 명 <요> 따비질을 하면서 부르는 민요. [전역]

따시 부 [전역] → 다시.

따주다 동 따지다. [전역] = 따지다.

따지다 동 [전역] → 따주다.

따치 명 <동> 독-가시치. [전역]

딱딱-ᄒᆞ다 형 딱딱-하다. [전역]

딱지 명 [전역] → 닥지.

딸리다 동 달이다. 끓여서 진하게 만들다. [전역]

땅 명 [전역] → 따.

땅- 두 '키가 작은'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접두사. [전역]

땅-강셍이 명 <동> [수산] → 하늘-강셍이.

땅-개 명 <동> 몸이 작고 다리가 몹시 짧은 개. [전역]

땅개비 명 [행원] → 따개비.

땅-거믜 명 <동> 땅-거미. [전역]

땅-꼿 명 <식> 채송-화. [노형 조수 서홍 수산 김녕]

땅딸-귀 명 [조수 인성] → 땅딸-보.

땅딸-보 명 땅딸-보(矮小者). [노형 어

도] = 땅딸-귀.
땅땅-ᄒᆞ다 형 딴딴-하다. [전역]
땅-문세 명 땅-문서. [전역]
땅-바닥 명 땅-바닥. [전역]
땅비 명 <도> [하례] → 따비.
땅-심 명 땅이 식물을 기르는 힘. [전역]
땅-콩 명 <식> 땅-콩. [전역]
때 명 ① 때(時). [전역] ② 끼니. ＊(속) 양 첩 ᄒᆞᆫ 놈 때 굶나.(양 첩(妾) 한 놈 끼니 굶는다.) ＊때라도 얻어 먹엉 가쿠댄 ᄒᆞ니.(때라도 얻어먹어서 가겠다고 하니.) [전역]
때다 동 아궁이 따위에 불을 지피어 타게 하다. [전역]
때먹을-때 명 끼니-때(食事時). [전역]
때비 명 <도> [대정 표선] → 따비.
땍땍-ᄒᆞ다 형 딱딱-하다. ＊문다드린 우의 껍데기가 파랑ᄒᆞ게 땍땍ᄒᆞ고 껍데기가 구젱이 닥살ᄀᆞ찌 뚜꺼운 거 더꺼진 거라.(눈알고둥은 위에 껍데기가 파랗게 딱딱하고 껍데기가 소라딱지처럼 두꺼운 것이 덮어진 것이야.) [이호]
땔-ᄀᆞ음 명 땔-감. [하도]
떠-가다 동 떠-가다. [전역]
떠-ᄂᆞ려가다 동 떠-내려가다. [전역]
떠-댕기다 동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떠-ᄃᆞ니다.
떠덕-거리다 동 자기만이 제일인 척하며 으스대고 떠들어대다. [전역]
떠등-걸다 동 떠죽-거리다. 젠체하고 지껄이다. [전역]
떠-ᄃᆞ니다 동 정처(定處) 없이 여기저기 나다니다. [인성 노형 조수 서홍] = 떠-댕기다, 터-뎅기다, 터-ᄃᆞ니다.
떠렁-쉐 명 <동> 투구-풍뎅이. [노형 인성 조수 서홍] = ᄃᆞ랑-쉐, 하늘-쉐.
떠-밀다 동 떠-밀다. [전역]
떠바 감 ① 어린애가 불(火) 따위가 가까이 올 적에 뜨거움을 경계하여 내는 소리. [전역] ② 어린아이에게 사물이 뜨겁다는 것을 알려 주는 말. [전역] = 떠봐, 떠불라, 또봐.
떠-벌리다 동 떠-벌리다. [전역]
떠봐 감 [전역] → 떠바.
떠불라 감 [전역] → 떠바.
떡 명 <음> 떡(餠). ＊(속) 떡 진 사름 춤추난, ᄆᆞᆯ똥 진 사름도 ᄀᆞ찌 춘다.(떡 진 사람 춤추니, 말똥 진 사람도 같이 춘다.) ＊(속) 떡 간 디 떡 떼여 먹곡, 말 간 디 말 부튼다.(떡 간 곳에 떡 떼어 먹고, 말(言) 간 곳에 말 덧붙는다.) ＊(속) 떡 본 짐에 식게 ᄒᆞᆫ다.(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 ＊(속) 보기 좋은 떡이 먹지 좋나.(보기 좋은 떡이 먹기가 좋다.) ＊(속) 선떡 먹은 간.(선떡 먹은 듯.) [전역] 고 썩.
떡-구덕 명 <도> 주로 떡을 담아 다니는 대오리로 결은 바구니. [조수 도련]
떡-꼿 명 <식> [조수] → 선인-장.
떡ᄃᆞ리-놓기 명 <민> [전역] = 무파지ᄃᆞ리-놓기.
떡-바드렝이 명 <도> [전역] → 떡-징[1].
떡-본 명 <도> 떡-살. [전역] = 떡-살.
떡-살 명 <도> [전역] → 떡-본.
떡-사먹다 동 떡을 사 먹다. 손해를 본다는 뜻으로 쓰인다. [전역]
떡-상지 명 <도> 떡-상자(-箱子). [전역] = 떡-상ᄌᆞ.

떡-상ᄌᆞ 명 <도>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떡-상지.
떡-쉬 명 ① 떡-소. [전역] ② 떡-고물. [전역]
떡-심 명 떡-심. [전역]
떡-입 명 떡-잎. [전역] = 둘레-입.
떡-정당 명 <식> [노형 서홍 수산 김녕 가시] → 떡-정등.
떡-정등 명 <식> 잎이나 줄기나 아주 부드럽고 연(軟)한 댕댕이덩굴. [전역] = 떡-정당.
떡-조갱이 명 <동> [용담] → 오분-재기.
떡-징[1] 명 <도> 경그레. 떡 같은 것을 찔 때 떡이 솥에 넣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받치는 물건. [노형 김녕 조수] = ᄃᆞ들[2], 떡-바드렝이, 바드렝이, 징[2].
떡-징[2] 명 켜. 시루에 떡을 찔 때 소를 넣어 뗄 수 있게 한 층. *영 딱 떡징ᄀᆞ찌 ᄀᆞᆲ을 나네.(이렇게 딱 떡켜 같이 겹이 나서.) [명월]
떡-차롱 명 <도> 주로 기제사(忌祭祀) 때 떡을 만들어 보관해 두는 채롱. 형태나 크기가 밥채롱과 엇비슷하나 그에 비하여 운두가 조금 얕음. [전역] = 떡-채롱.
떡-채롱 명 <도> [도련] → 떡-차롱.
떡-체시 명 떡-보. [전역]
떨다[1] 동 떨다. 춥거나 무섭거나 분하여 몸이 흔들리다. [전역] = 털다[1].
떨다[2] 동 [전역] → 털다[2].
떨어-지다[1] 동 빠-뜨리다. *떨어진 사름 적시도 탕 놔두라.(빠진 사람 것도 타서 놔둬라.) [조수]
떨어-지다[2] 동 [전역] → 털어-지다.
떼 명 *(속) 도독 뗀 벗곡, ᄌᆞ식 뗀 못 벗나.(도둑 때는 벗고, 자식 때는 못 벗는다.) [전역] → 테[5].
떼거지 명 떼. 부당한 말이나 행동으로 제 의견을 억지로 주장하는 짓. [전역]
떼다[1] 동 떼다. 소매상인이 도매상에서 물건을 사다. [전역]
떼다[2] 동 떼다. 붙었던 것을 떨어지게 하다. [전역] = 테다.
떼리다 동 [전역] → 뜨리다.
떼-묻다 동 때-묻다. [전역] = 테-묻다.
떼-사오기 명 <식> [서홍] → 쒜-사오기.
떼어-오다 동 떼어-오다. 소매상인이 도매상에서 물건을 사오다. [전역]
떼여-먹다 동 떼어-먹다. [전역]
떼-죽 명 떼-거리. 떼. *작년 조 갈앙 놔두난 생이가 떼죽으로 몰려왕 다 먹어부런.(작년에 조 갈아서 놔두니까 새가 떼거리로 몰려와서 다 먹어 버렸어.) [성읍]
뗏-도독 명 [전역] → 텟-도독.
뗑강이 명 [수산] → 정갱이[2].
또 부 또(亦). [전역] = 또시.
또가-또가 부 긴장하여 가슴이나 심장 따위가 심하게 뛰는 모습. [전역]
또가또가-ᄒᆞ다 동 긴장하여 가슴이나 심장 따위가 심하게 뛰다. [전역]
또-고망 명 [전역] → 똥-고망.
또렷-이 부 또렷-이. [전역]
또리우다 동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뚤르다[2].
또봐 감 [전역] → 떠바.
또시 부 [전역] → 또.

똑[1] 부 똑. 틀림없-이. [전역] = 꼭[2].
똑[2] 감 참새 따위를 쫓는 소리. [노형 조수] = 쪽.
똑-기 부 [전역] → 똑[1].
똑딱-불미 명 <공> [덕수] → 손-불미.
똑딱불미 놀레 명 <요> 혼자 지고 다닐 수 있을 만큼 자그만 손풀무로써 혼자 바람을 일으키며 부르는 민요. [전역]
똘똘-몰다 동 똘똘-말다. 물건을 여러 겹으로 딴딴하게 말다. [전역] = 똘똘-몰다.
똘라-불다 동 [전역] → 똘-르다[2].
똘-르다 동 [전역] → 똘르다[2].
똘-리다 동 [전역] → 똘르다[2].
똥[1] 명 똥(糞). *(속) 개가 똥을 츰주. (개가 똥을 참지.) [전역] 고 똥.
똥[2] 명 [전역] → 방귀.
똥- 두 '먹을 수 없는'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접두사. [전역]
똥-강셍이 명 <동> 품종이 썩 좋지 않은 강아지. [전역]
똥-겡이 명 <동> [남원 서귀포] → 똥-깅이.
똥고냥-꽝 명 [전역] → 똥고망-꽝.
똥-고망 명 똥-구멍. [전역] = 또-고망, 똥-구녁.
똥고망-꽝 명 꽁무니-뼈. [전역] = 똥고냥-꽝, 밋구녁-꽝, 밋이-꽝, 조롬-꽝.
똥-구녁 명 [전역] → 똥-고망.
똥-구릿 명 <동> 벵에돔의 일종. *똥구릿은 검드릇ᄒᆞ여도 비늘이 아주 홁고 또 궤기도 크고.('똥구릿'은 거무스레해도 비늘이 아주 굵고 또 고기도 크고.) [사계]
똥-군 명 <어> [전역] → 하-군(下軍).
똥-깅이 명 <동> 먹을 수 없는 게. [전역] = 똥-겡이.
똥꼬리 명 [전역] → 독고리.
똥꼬리-낭 명 <식> [노형 구좌] → 새비-낭.
똥-꼴렝이 명 [전역] → 깍-꼴렝이.
똥-뀌다 동 *(속) 똥뀐 놈이 성 낸다.(방귀뀐 놈이 성낸다.) [전역] → 방귀-뀌다.
똥-낭 명 <식> ① 돈-나무. [전역] ② 개-낭. [전역]
똥-내 명 똥-냄새. *(속) 소리 엇인 똥내.(소리 없는 똥냄새.) [전역] = 똥-내움살, 똥-네.
똥-내움살 명 [전역] → 똥-내.
똥-네 명 [전역] → 똥-내.
똥-누다 동 똥-누다(糞--). [전역] = 똥-눅다.
똥-눅다 동 [수산 김녕 조수] → 똥-누다.
똥-더웨기 명 <동> [서홍 태흥 수산] → 똥-소로기.
똥-버렝이 명 <동> 똥에 슬어 놓은 파리알에서 깬 구더기. [전역]
똥-벙뎅이 명 똥의 덩어리. [전역]
똥-복새기 명 [인성] → 똥-복재기.
똥-복자귀 명 [가시] → 똥-복재기.
똥-복재기 명 방귀-쟁이. [노형 조수 수산] = 똥-복새기, 똥-복자귀, 똥-복쟁이, 똥-푸기, 똥-풀레기, 똥-픽새기.
똥-복쟁이 명 [조수 서홍 김녕] → 똥-복재기.
똥-싸기 명 [전역] → 똥-쌔기.

똥-소레기 명 <동> [세화] → 똥-소로기.

똥-소로기 명 <동> 솔개. [전역] = 똥-더웨기, 똥-소레기, 똥-수로기, 소레기, 소로기, 수리[2]. 고 쇠록이, 쇼록이.

똥-수로기 명 <동> [수산 김녕 조천 어도] → 똥-소로기.

똥-싸다 동 똥-싸다. [전역]

똥-쌔기 명 똥-싸개. [전역] = 똥-싸기, 똥-쎄기.

똥-쎄기 명 [전역] → 똥-쌔기.

똥-터 명 오소리가 똥을 싸 놓은 곳. [교래]

똥-푸기 명 [인성 조수] → 똥-북재기.

똥-풀레기 명 [전역] → 똥-북재기.

똥-피다 동 똥독이 퍼지다. [전역]

똥-픽새기 명 [노형 조수 어도 수산] → 똥-북재기.

똥-ᄑᆞ리 명 <동> 똥-파리(-蠅). [전역]

뚜데기 명 <의> 해녀들이 간편한 이불로 삼거나 추위를 막기 위하여 어깨에 걸치는, 누비어 만든 자그만 이불 비슷한 것. 어린 아기를 등에 업을 때 둘러쳐 처네로 대용하기도 함. [전역]

뚜데-옷 명 <의> 거죽과 안 사이에 솜이나 보무라지 따위를 넣어서 거칠게 누비어 짓고는 누덕누덕 기우면서 입는 농부나 어부들의 옷. * 세베루 양복 입단 몸에 뚜데옷이 무신 말고?('세베루' 양복 입던 몸에 '뚜데옷'이 무슨 말인고?) [전역]

뚜러-메다 동 [전역] → 둘러-메다.

뚜럼 명 행동이 굼뜨고 약간 모자란 듯한 사람을 이르는 말. [전역]

뚜름-쉬 명 [인성] → 두룸-쉬.

뛔미 명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의 옛 이름. [남원]

뛔밋-개 명 <지> 서귀포시 위미1리와 위미2리 앞개 일대의 개를 이르는 옛 이름. [남원] = 우미-포(又尾浦·又美浦), 위미-포(爲美浦).

뛰 명 <식> 띠(茅). [전역] = 새[2].

뛰-넹기다 동 시기가 지나가 버리다. [김녕 조수] = 띠-넹기다.

뛰다 동 [전역] → 튀다[2].

뛰여-들다 동 뛰어-들다. [전역] = 튀여-들다.

뛰여-오다 동 뛰어-오다. [전역] = 튀여-오다.

뛰-왓 명 [인성 화순 하원 수산 노형 조수] → 새-왓.

뛰-자리 명 [수산 김녕] → 초석[1].

뛰-초석 명 [전역] → 초석[1].

뛸락 명 뜀박-질. 뛰뛰는 짓. [전역] = 뜀-재기.

뜀-재기 명 [전역] → 뛸락.

뜻껍 명 띠-줄기. * 뜻껍에 불 솔라서 제주도 일주ᄒᆞ지.(띠줄기에 불을 지펴서 제주도를 일주하지.) [명월]

뜨끌 명 [조수] → 몬독.

뜨다[1] 동 뜨다. ① 많은 것에서 덜어내다. [전역] ② 그릇에 담긴 물건을 퍼내다. [전역]

뜨다[2] 동 뜨다. 사이가 좀 벌어지다. [전역]

뜨다[3] 동 뜨다. ① 가라앉지 않다. [전역] ② 해나 달이 높이 돋아 오르다. [전역] ③ 눈을 벌리다. [전역]

뜨다[4] 형 뜨다. ① 느낌이 둔하다. [전역] ② 쇠(錢) 따위가 무르다. [전역] ③ 뜨거워지는 맛이 없다. [전역]
뜨다[5] 형 느리다. 동작이 느리다. 굼뜨다. [전역]
뜨뜻-이 부 뜨뜻-이. [전역]
뜨집 명 ① 마음-속. [전역] ② 트집. [전역]
뜬- 두 '행동이 느린' 또는 '차진 기가 없는'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 [전역]
뜬-그물 명 <어> 상어잡이용 그물을 치는 방법의 하나. 그물이 해저면(海底面)에 닿지 않고 늘 물 위에 떠 있게 장치하는 그물. [전역]
뜬-밧 명 차지거나 끈끈한 기가 조금도 없는 부슬부슬한 흙이 깔려 있는 밭(田). [전역]
뜬밧갈-쉐 명 주로 밭을 가는 일에 부리는 동작이 아주 느린 소(牛). [전역]
뜬-쉐 명 동작이 아주 느린 소(牛). *(속) 잰 쉐 감시믄 뜬쉐도 가주.(잰 소 가고 있으면 뜬 소도 가지.) [전역]
뜬-쉐 명 아주 물러서 좀처럼 부러지지 않는 유연한 쇠(鐵). [전역]
뜬-흑 명 차진 기가 조금도 없고 부슬부슬한 흙(土). [전역]
뜰다 동 뜯다. ① 여러 조각으로 떼어 내다. [전역] ② 남에게서 금품을 억지로 얻어 오다. [전역]
뜰리다 동 [전역] → 틀리다.
뜰림-엇다 형 틀림-없다. [전역]
뜰-항굿 명 <병> [인성] → 족은-마누라[2].
뜸[1] 명 <도> [전역] → 대받훔.
뜸[2] 명 <도> 쟁기의 성에와 한마루 사이에 놓여지면서 경심폭(耕深幅)을 조절하는 장치. [중문 애월]
뜸[3] 명 뜸(灸). 뜨거운 것으로 살을 떠서 병을 다스리는 법. [전역]
뜸-뜨다 동 뜸-뜨다. [전역]
뜸질-ᄒᆞ다 동 뜸질-하다. [전역]
뜽끌 명 [수산] → 몬독.
띄우다 동 띄우다. [전역] = 틔우다.
띙띙-ᄒᆞ다 형 ① 생긴 바탕이 튼튼하다. [전역] ② 무르지 않다. [전역] ③ 사람의 마음이 튼튼하여 인색하다. [전역]
띠 명 띠(帶). [전역]
띠끌 명 [노형 어도] → 몬독.
띠-넹기다 동 [인성 서홍 수산] → 뛰-넹기다.
띠다 동 [전역] → 찌다[2].
띵띵-이 명 구두-쇠. [전역]
ᄠᅳ근-ᄒᆞ다 형 [전역] → ᄃᆞ끈-ᄒᆞ다.
ᄠᅳ나다 형 [전역] → ᄐᆞ나다.
ᄠᅳ-님 명 [전역] → 똘-님.
ᄠᅳ다[1] 동 [전역] → 타다[7].
ᄠᅳ다[2] 형 [서홍 수산 김녕] → ᄐᆞ나다.
ᄠᅳ뜻-ᄒᆞ다 형 따뜻-하다. [전역] = ᄠᅳ뜻-ᄒᆞ다.
ᄠᅳ뜻-ᄒᆞ다 형 [전역] → ᄠᅳ뜻-ᄒᆞ다.
ᄠᅳ라-오다 동 따라-오다. [전역]
ᄠᅳ락-지다 형 야무-지다. [전역]
ᄠᅳ로 부 따로. [전역] = ᄠᅳ루, ᄐᆞ로.
ᄠᅳ루 부 [전역] → ᄠᅳ로.
ᄠᅳ르다[1] 동 따르다(注). [전역] = 똘로다, 똘르다.
ᄠᅳ르다[2] 동 따르다(隨). [전역] = 돌로다, 돌루다, 돌오다. ㊎똘오다.
ᄠᅳ리다 동 때리다. *아일 경 ᄠᅳ령 뒈

느냐?(아이를 그렇게 때려서 되느냐?) [전역] = 떼리다.

ᄠᄉ다 형 [전역] → ᄯᆺ다.

ᄠᆨ-ᄒᆞ다 형 딱-하다. [전역]

ᄠᅳᆫ-ᄆᆞ슬 명 [전역] → ᄠᅳᆫ-ᄆᆞ을.

ᄠᅳᆫ-ᄆᆞ슴 명 딴-마음(-心). [전역] = ᄠᅳᆫ-ᄆᆞ음, ᄐᆞᆫ-ᄆᆞ슴, ᄐᆞᆫ-ᄆᆞ음.

ᄠᅳᆫ-ᄆᆞ을 명 딴-마을. [전역] = ᄠᅳᆫ-ᄆᆞ슬, ᄐᆞᆫ-ᄆᆞ슬, ᄐᆞᆫ-ᄆᆞ을.

ᄠᅳᆫ-ᄆᆞ음 명 [전역] → ᄠᅳᆫ-ᄆᆞ슴.

ᄠᅳᆫ-사념 명 [전역] → ᄠᅳᆫ-살렴.

ᄠᅳᆫ-살렴 명 딴-살림. [전역] = ᄠᅳᆫ-사념, ᄠᅳᆫ-살림, ᄐᆞᆫ-사념, ᄐᆞᆫ-살렴, ᄐᆞᆫ-살림.

ᄠᅳᆫ-살림 명 [전역] → ᄠᅳᆫ-살렴.

ᄯᆞᆯ 명 딸(女息). ＊(속) ᄯᆞᆯ은 ᄂᆞᆷ의 집 산천(山川)으로 난다.(딸은 남의 집 운수로 난다.) ＊(속) ᄯᆞᆯ은 어멍 피 물엉 난다.(딸은 어머니 피 물고 난다.) ＊(속) 미운 놈 보컨 ᄯᆞᆯ 하영 나라.(미운 놈 보려면 딸을 많이 낳아라.) ＊(속) 불 읏인 화리, ᄯᆞᆯ 읏인 사위.(불 없는 화로, 딸 없는 사위.) ＊(속) 아ᄃᆞᆯ 못난 것 이녁 집만 망ᄒᆞ여도, ᄯᆞᆯ 못난 건 양 사둔이 다 망ᄒᆞᆫ다.(아들 못난 것은 자기 집안만 망해도, 딸 못난 것은 양 사돈이 다 망한다.) [전역] ㉤ᄯᆞᆯ.

ᄯᆞᆯ-님 명 따-님. [전역] = ᄯᆞ-님.

ᄯᆞᆯᄯᆞᆯ-몰다 동 [전역] → ᄯᆞᆯᄯᆞᆯ-ᄆᆞᆯ다.

ᄯᆞᆯ로다 동 [전역] → ᄯᆞ르다[1].

ᄯᆞᆯ르다[1] 동 ＊궂인 물일랑 ᄯᆞᆯ라불라. (궂은 물은 따라 버려라.) [전역] → ᄯᆞ르다[1].

ᄯᆞᆯ르다[2] 동 따-돌리다. ＊가의만 경 ᄯᆞᆯ라불지 말라게.(그 애만 그렇게 따돌리지 마라.) [전역] = ᄯᅩ리우다, ᄯᆞᆯ라-불다, ᄯᆞᆯ-르다, ᄯᆞᆯ-리다.

ᄯᆞᆯ르다[3] 동 [전역] → ᄯᆞᆲ다.

ᄯᆞᆯ-아기 명 자기 또는 남의 딸을 귀엽게 일컫는 말. [전역] = ᄯᆞᆯ-애기.

ᄯᆞᆯ-애기 명 [전역] → ᄯᆞᆯ-아기.

ᄯᆞᆯ우다 동 [전역] → ᄯᆞᆲ다.

ᄯᆞᆯ-자식 명 딸-자식(女息). [전역]

ᄯᆞᆯ-풀다 동 딸을 시집보내다. [전역]

ᄯᆞᆲ다 동 뚫다(穿). 구멍을 내다. [전역] = ᄯᆞᆯ르다[3], ᄯᆞᆯ우다. ㉤ᄃᆞᆲ다.

ᄯᆞᆷ 명 땀(汗). [전역] ㉤ᄯᆞᆷ.

ᄯᆞᆷ-나다 동 땀-나다. [전역]

ᄯᆞᆷ-두드레기 명 <병> [노형 조수 어도] → ᄯᆞᆷ-떼기.

ᄯᆞᆷ든-단궐 명 <민> 땀 밴 단골. 오랫동안 정든 신앙민(信仰民). [전역]

ᄯᆞᆷ-떼기 명 <병> 땀-띠(發疹). [전역] = ᄯᆞᆷ-두드레기, ᄯᆞᆷ-뚜기.

ᄯᆞᆷ-뚜기 명 <병> [노형 조수 어도 인성] → ᄯᆞᆷ-떼기.

ᄯᆞᆷ-바데 명 땀-받이. [전역]

ᄯᆞᆷ-적삼 명 <의> 땀받이-적삼. 죽은 사람의 혼을 부를 때 'ᄯᆞᆷ적삼'을 들고 부름. [전역]

ᄯᆞᆸ다 동 따르다. ＊나는 저 놈 조름에 ᄯᆞᆸ당 죽겟다.(나는 저 놈 꽁무니를 따르다가 죽겠다.) [노형]

ᄯᆞᆺ다 형 따습다. [전역] = ᄠᄉ다.

ㄹ

-ㄹ 어미 -ㄹ.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말의 일반적 사실 또는 장차 할 동작에 대해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전역]

-ㄹ- 선어말 -ㄹ-··-겠-.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거나 또는 용언 어간과 종결어미 '-다··-디··-걸' 등의 사이에 연결되어서, 화자의 추측이나 상대방의 의도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전역]

ㄹ[1] 조 를. 받침 없는 체언에 붙는 목적격 조사 '를'의 준말. *ᄆᆞᆯ을 툭 탄 오단 임잴 만나 노난 ᄆᆞ슴이 금착ᄒᆞ는 거라.(말을 툭 타서 오다가 임자를 만나니 마음이 움찔하는 것이야.) [전역]

ㄹ[2] 조 받침 없는 체언에 붙는 향진격 조사. [전역]

ㄹ[3] 조 에게. 받침 없는 명사나 인칭대명사에 붙는 여격 조사. [전역]

-ㄹ 거우다 어미 -ㄹ 겁니다. 용언 어간에 연결되는 종결어미. *ᄒᆞᆫ 점만 먹어도 등삭할 거우다.(한 점만 먹어도 '등삭할' 겁니다.) [전역]

-ㄹ걸 어미 -ㄹ걸. 받침 없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화자의 추측을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ㄹ까 어미 -ㄹ까. *이놈을 어디 져당 데껴 불까?(이놈을 어디 지어다가 던져 버릴까?) [전역] = -ㄹ카, -카[2].

-ㄹ나 어미 -겠나. ① 받침 없는 동사의 어간에 붙어서, '해라' 또는 '하게' 할 자리에서 그 의사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② 동사 어간에 붙은 '-암시-··-엄시-··-염시-··-람시-' 등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겠느냐고 그 의사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③ 동사 어간에 붙은 '-아시-··-어시-··-여시-··-라시-' 등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끝내 있겠느냐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ㄹ다 어미 -겠느냐. ①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의사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② 동사 어간에 붙은 '-암시-··-엄시-··-염시-··-람시-' 등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겠느냐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③ 용언 어간에 붙은 '-아시-·-어시-·-여시-·-라시-' 등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끝내 있겠느냐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 -ㄹ댜, -ㄹ땨, -ㄹ탸.

-ㄹ댜 어미 -겠느냐. [전역] → -ㄹ다.

ㄹ도 조 에게도. 주로 인칭대명사에 붙어서, '에게'의 뜻으로 쓰이는 'ㄹ'에, 다른 것에 그것도 포함시킴을 뜻하는 '도'가 결합된 격조사. [전역]

-ㄹ디[1] 어미 -겠니. ①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의사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앞에 반드시 의문사가 옴. [전역] ② 용언 어간에 붙은 '-암시-·-엄시-·-염시-·-람시-' 등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겠느냐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③ 용언 어간에 붙은 '-아시-·-어시-·-라시-·-여시-' 등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끝내 있겠느냐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 -ㄹ티[1].

-ㄹ디[2] 어미 -ㄹ지.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의심의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ㄹ디사 어미 -ㄹ지.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의심의 뜻을 나타내는 '-ㄹ디'를 더 강조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ㄹ디야 어미 -겠느냐. [전역] → -ㄹ다.

-ㄹ땨 어미 -겠느냐.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의사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경 말앙 나 곧는 냥 말들어 볼땨?(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는 말을 들어 보겠느냐?) [전역]

-ㄹ라 어미 -겠냐. ①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청년층 이하의 동년배 또는 연하자 사이에서 쓰여짐. [전역] ② 동사 어간에 붙은 '-암시-·-엄시-·-염시-·-람시-' 등에 연결되어서, 청년층 이하의 동년배 또는 연하자에게 동작을 계속할 의사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③ 용언 어간에 붙은 '-아시-·-어시-·-라시-·-여시-' 등에 연결되어서, 청년층 이하의 동년배 또는 연하자에게 그 동작을 완료하여 있을 의도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 -ㄹ레.

ㄹ라근에 조 ㄹ랑은. 'ㄹ랑'을 더 힘있게 강조하여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ㄹ락 -ㄹ락 어미 -ㄹ락 -ㄹ락. *눈은 팡팡 오뒈 뜸 씰면서 ᄉᆞ뭇 죽을락 살락 지언 가서.(눈(雪)은 펄펄 오는데, 땀(汗)을 쓸면서 사뭇 죽을락 살락 지어서 갔어.) [전역]

-ㄹ락 -말락 어미 -ㄹ락 -말락.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거의 되려다가 말고 되려다가 말고 함을 나타내는 어미. [전역]

ㄹ란 조 ㄹ랑. [전역] → ㄹ랑.

ㄹ랑 조 ㄹ랑. 1·2인칭의 대명사 '나

·느' 에 주로 붙어서, '는'의 뜻을 특히 강조하여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 ㄹ란.

ㄹ랑근 조 ㄹ랑은. [전역] → 라근.

-ㄹ랴고 어미 -려고.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장차 하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 -ㄹ려고.

-ㄹ레 어미 -겠냐. [전역] → -ㄹ라.

-ㄹ려고 어미 -려고. [전역] → -ㄹ랴고.

ㄹ로[1] 조 주로 인칭대명사에 붙어서, '누구의 조력을 빌리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라는 뜻으로 쓰이는 격조사. [전역]

ㄹ로[2] 조 로. 받침 없는 처소대명사에 붙어서 통행의 방향·경로를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ㄹ로[3] 조 를. [전역]

-ㄹ로고 어미 -겠네.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화자의 의도를 확정하거나 또는 어떤 사태를 추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ㄹ로고나 어미 -겠구나. 받침이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나 또는 혼자 스스로 새삼스러운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ㄹ리 어미 -겠니. ①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상대방의 의사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청년층 이하의 동년배 또는 연하자(年下者) 사이에 쓰여짐. [전역] ② 용언 어간에 붙은 '-암시-·-엄시-·-염시-·-람시-' 등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을 계속할 의사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청년층 이하의 동년배 또는 연하자 사이에서 쓰임. [전역] ③ 용언 어간에 붙은 '-아시-·-어시-·-여시-·-라시-' 등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을 끝내 있겠냐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청년층 이하의 동년배 또는 연하자에게 쓰임. [전역]

-ㄹ소록 어미 -ㄹ수록. [전역] → -ㄹ수록.

-ㄹ수록 어미 -ㄹ수록. [전역] = -ㄹ소록.

-ㄹ지라도 어미 -ㄹ지라도. [전역]

-ㄹ카 어미 [전역] → -ㄹ까.

-ㄹ코 어미 -ㄹ까. 받침 없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에 붙어서, 장래나 현재의 일을 추측할 때, 의문이나 의심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ㄹ탸 어미 -겠느냐. [전역] → -ㄹ다.

-ㄹ 테주 어미 -ㄹ 테지. *춘삼월 제비 놀곡 보리 빌 때나 녹을 테주.(춘삼월 제비 날고 보리 벨 때나 녹을 테지.) *저영도 살곡 영도 살암시민 살아질 테주.(저렇게도 살고 이렇게도 살고 있으면 살 수 있을 테지.) [전역]

-ㄹ티[1] 어미 -겠니. [전역] → -ㄹ디[1].

-ㄹ티[2] 어미 -ㄹ는지.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앞으로의 일에 대한 추측을 의문스럽게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ㄹ티사 어미 -ㄹ는지.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앞으로의 일에 대한 추측을 의문스럽게 나타내는 '-ㄹ티'를 더 세게 나타내는 어미. [전역]

-라- 선어말 ① 동사 '오다'의 어간에 붙어서, 과거의 동작을 회상하여 말하는 데 쓰이는 선어말어미. [전역] ② 체언이나 형용사 '아니다'의 어간에 붙어서, 과거의 사실을 회상하여 말하는 데 쓰이는 선어말어미. [전역]

라[1] 조 가. 받침 없는 명사나 의존명사에 붙는 격조사. [전역]

라[2] 조 '여럿이 제각기'의 뜻인 '-들'과 주격조사 '이'의 두 뜻을 겸하여 나타내는 조사. [전역]

-라[1] 어미 -다. 받침 없는 체언이나 '아니다'의 어간에 붙어서, 어떤 사실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평교간(平交間) 이하에서 쓰임. [전역]

-라[2] 어미 -ㄴ다. '오르다·므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라[3] 어미 -라. 선어말어미 '-아-·-어-·-여-·-라-' 등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를 회상하여 베풀어 말할 때에 쓰이는 종결어미. [전역]

-라[4] 어미 -아(어)라. 받침 없는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어떤 행동을 하기를 명령하는 하대(下待) 명령을 나타내는 어미. ＊영 ᄒᆞ건 그 때라근에 영 ᄒᆞ여 보는 체ᄒᆞ당 거짓 우리 아덜안티 ᄒᆞᆫ 번 져 도라.(이렇게 하면 그 때에는 이렇게 해 보는 체하다가 거짓으로 우리 아들에게 한 번 져 달라.) ＊이거라도 어서 신고 걸라.(이것이라도 어서 신고 걸어라.) [전역]

-라[5] 어미 -ㄴ가. 받침 없는 체언이나 '아니다'의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사실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갓다근에 무슨 욕이나 들어질 게라?(갔다가 무슨 욕이나 듣게 될 것인가?) [전역]

-라[6] 어미 -라. 받침 없는 체언이나 '아니다'의 어간에 붙어서, 전제적 사실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라게 어미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게난 무신 마당을 치울 거라게?(그러니 무슨 마당을 치울 것인가?) [전역]

라고 조 라고. [전역] → 란[1].

-라고만 어미 명령형 어미 '-라'에 연결어미 '-고만'이 결합한 형태. ＊날 찾아오란 걸라고만 바짝 모는데, ᄀᆞ만 시민, ᄌᆞ물아 강 가겟노라고 ᄒᆞ연.(나를 찾아와서 걸으라고만 자꾸 보채는데, 가만 있으면, 어두워질 때 가겠노라고 하여서.) [전역]

라근 조 ㄹ랑은. 에는. 받침 없는 체언에 붙는 격조사 '는'의 뜻을 더 힘있게 강조하며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 ㄹ랑근, 라근에.

라근에 조 ㄹ랑은. 에는. ＊그 구슬을 처녀 입에 물엇당 느 입에 물 때라근에 하늘 바리고 땅 바리고 사름을 바려 그 구슬 ᄉᆞᆷ져라.(그 구슬을 처녀 입에 물었다가 네 입에 물 때엘랑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사람을 보고 그 구슬을 삼켜라.) [전역] → 라근.

-라냐[1] 어미 -더냐. 제1음절이 양성모

음인 '오르다·ᄆᆞ르다' 등의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상시켜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라냐[2] 어미 -더냐. ① 받침 없는 체언이나 '아니다'의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② '오다' 동사의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라녜 어미 -던데.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화자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회상하여 말하되 상대방도 그 사실을 인정한다고 치고서 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라노니까 어미 계사 '이' 뒤에 붙는 종결어미 '-라'와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노니까'가 결합한 연결어미. * 지집아이라노니까 ᄀᆞ찌 부쩌가지고 글공부를 그렇게 시키는데.(계집아이라서 같이 붙여서 글공부를 그렇게 시키는데.) [전역]

-라니[1] 어미 -더니.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인데, 대개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라니[2] 어미 -더냐.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대개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라니[3] 어미 -더니. 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라도 조 라도. ① 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서, 어떤 사물을 구별하여 가리지 않음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② 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서, '~지마는'의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라도[1] 어미 -라도. ① 용언의 부사형 어미에 붙어서, 어떤 행동일지라도 그 행동을 구별하여 가리지 않고 하길 바라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② 형용사 '아니다'의 어간에 붙어서, 설사 어떤 사실이 아니라 하여도 상관 없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라도[2] 어미 -아도.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설사 온다고 하여도 상관없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라도[3] 어미 -라도.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설사 그 동작을 한다고 하여도 상관이 없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라라[1] 어미 -더라. ①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회상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②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회상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라라[2] 어미 -더라. ① 용언 어간에 붙

은 '-크-'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회상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② 체언이나 형용사 '아니다'의 어간에 붙어서,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회상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라샤[1] 어미 -랐냐.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라샤[2] 어미 -았냐.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라서[1] 어미 -랐어.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라서[2] 어미 -았어.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라서[3] 어미 -이어서. 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서, 다음 말의 전제적 사실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라서도 어미 -었어도. 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서, '그 사실이 되어 있어도'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 아래에는 불가능이나 어긋나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 옴. [전역]

-라서라[1] 어미 -랐더라.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있음을 베풀어 말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라서라[2] 어미 -았더라. '오다' 등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있음을 베풀어 말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라서렌[1] 어미 -랐더라고.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있음을 회상하여 말하는 '-라서라'의 변형 '-라서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라서렌[2] 어미 -았더라고. '오다' 등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있음을 회상하여 말하는 '-라서라'의 변형 '-라서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라시난[1] 어미 -랐으니까.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라시-'에, 앞으로 하려는 말에 대하여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난'이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라시난[2] 어미 -았으니깐.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라시-'에, 앞으로 하려는 말에 대하여 원인이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난'이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라시냐[1] 어미 -랐냐.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

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전역]

-라시냐[2] 어미 -았냐.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전역]

-라시녜[1] 어미 -아 있네.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이루어진 사실을 화자가 지정하되 연하의 상대자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치고서 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라시녜[2] 어미 -라 있네.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이루어진 사실을 화자가 지정하되 연하의 상대자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치고서 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라시녠[1] 어미 -랐냐고.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완료된 사실을 화자가 지정하되 연하의 상대자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치고서 나타내는 종결어미 '-라시녜'에, 뒤의 동작이 이미 끝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연결되어서, 다음에 오는 '듣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라시녠[2] 어미 -았냐고.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완료된 사실을 화자가 지정하되 연하의 상대자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치고서 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라시녜'에, 뒤의 동작이 이미 끝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연결되어서, 다음에 오는 '듣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라시녱 어미 -랐냐고.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완료된 사실을 화자가 지정하되 연하의 상대자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치고서 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라시녜'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연결되어서, 다음에 오는 '듣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라시니[1] 어미 -았니.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 -라시이[1].

-라시니[2] 어미 -랐니. '오르다·ᄆᆞ르다' '르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 -라시이[2].

-라시니까[1] 어미 -랐으니까.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으므로'란 뜻으로, 뒤에 오는 말에 대하여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라시니까[2] 어미 -았으니까.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으므로'란 뜻으로, 뒤에 오는 말에 대하여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라시라[1] 어미 -아 있어라.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끝내 있으라는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라시라[2] 어미 -라 있어라. '오르다' 등의 '르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끝내 있으라는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라시렌[1] 어미 -아 있으라고.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끝내 있으라는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라시라'의 변형 '-라시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라시렌[2] 어미 -라 있으라고. '오르다' 등의 '르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끝내 있으라는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라시라'의 변형 '-라시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라시렝[1] 어미 -아 있으라고.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끝내 있으라는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라시라'의 변형 '-라시레'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라시렝[2] 어미 -라 있으라고.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끝내 있으라는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라시라'의 변형 '-라시레'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라시메[1] 어미 -았으매.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뒤에 오는 말의 원인이나 근거로 삼아서 전제적으로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라시메[2] 어미 -랐으매.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를, 뒤에 오는 말의 원인이나 근거로 삼아서 전제적으로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라시민[1] 어미 -았(었)으면. ① 받침 없는 체언이나 '아니다'의 어간에 붙어서, 그 사실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기를 가정적으로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②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가정적으로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라시민[2] 어미 -랐으면.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가정적으로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라시이[1] 어미 -았니. [전역] → -라시니[1].

-라시이[2] 어미 -랐니. [전역] → -라시니[2].

-라시컨데 어미 -았기에. [전역]

-라시쿠가[1] 어미 -랐겠습니까. ① 'ᄆᆞ

르다·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완료하여 있을 의도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② 'ㅁ르다·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제삼자가 그 동작을 완료하여 있음을 화자가 추측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라시쿠가[2] 어미 -았겠습니까.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완료하여 있을 의도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라시쿠다[1] 어미 -랐겠습니다. ① 'ㅁ르다·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화자 자신이 그 동작을 완료하여 있을 의도임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② 'ㅁ르다·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제삼자가 그 동작을 완료하여 있을 것임을 화자가 추측하여 '합쇼' 할 자리에서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라시쿠다[2] 어미 -았겠습니다. ①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화자 자신이 그 동작을 완료하여 있을 의도임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②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제삼자가 그 동작을 완료하여 있을 것임을 화자가 추측하여 '합쇼' 할 자리에서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라시키여 어미 -았겠다. [전역]

-라신가[1] 어미 -랐는가. '오르다·ㅁ르다' 등 '르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제삼자가 그 동작을 완료하여 있는가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라신가[2] 어미 -아 있는가.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제삼자가 그 동작을 완료하여 있는가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라신고[1] 어미 -랐을까. '오르다·ㅁ르다' 등 '르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제삼자가 그 동작을 완료하여 있는가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라신고[2] 어미 -았을까.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제삼자가 그 동작을 완료하여 있는가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라신고라 어미 -랐는 겐지·-ㄴ 겐지. '오르다·ㅁ르다' 등 '르변칙' 동사의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상태가 완료되어 있음을 추측하면서, 나중에 하는 동작·상태의 원인·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라신디[1] 어미 -랐는지. '오르다·ㅁ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그 동작·상태가 완료되어 있는지를 어렴풋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라신디[2] 어미 -았는지. '오다' 동사 어간에, 그 동작·상태가 완료되어 있는지를 어렴풋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라져시니[1] 어미 -라졌니. '오르다·다르다' 등 '르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해라' 할 자리에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라져시니[2] 어미 -았니.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이루어져 있음을, '해라' 할 자리에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라져시민[1] 어미 -랐으면.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의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 이루어져 존속할 것을 가정적으로 조건 삼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라져시민[2] 어미 -았으면.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이루어져 존속할 것을 가정적으로 조건 삼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라졈수가 어미 -를 수 있습니까·-르고 있습니까.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라졈수다[1] 어미 -르고 있습니다·-를 수 있습니다. '오르다·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라졈수다[2] 어미 -아 가고 있습니다.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라졈시니[1] 어미 -라지고 있니. '오르다·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대개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라졈시니[2] 어미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라졋수가 어미 -라졌습니까. '오르다·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라졋수다[1] 어미 -라졌습니다. '오르다·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이루어졌음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라졋수다[2] 어미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이루어졌음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라지고말고 어미 -라지고말고.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남의 물음에 대하여 그 동작이나 상태가 이루어짐을 긍정하는 뜻으로 강조하여 나타내는 어미. [전역]

-라지메 어미 -라지니까. '다르다' 등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이루어짐을 나타내는 '-라지-'에, 앞으로 하려는 말에 대하여 이유가 되는 뜻을 나타내는 '-메'가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라지민[1] 어미 -라지면. '오르다·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이루어지기를 가정으로 조건 삼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라지민[2] 어미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이루어지기를 가정적으로 조건 삼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라지컨테[1] 어미 -라지기에. '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이루어지는 일이, 그 뒤에 하는 동작의 원인·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라지컨테[2] 어미 '오다' 동사의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이루어지는 일이, 그 뒤에 하는 동작의 원인이나 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라지키여 어미 -라지겠다. 'ㅂ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하기가 가능함을 추정적으로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라질디[1] 어미 -라질지. 'ㅂ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이루어질지 막연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라질디[2] 어미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이루어질지 막연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라코 어미 *먹으라코 쓰라콧 ᄒᆞ민. (먹으려고 쓰려고 하면.) [전역] → -라콧.

-라콧 어미 -려고. 받침 없는 동사 어간에 붙어서 장차 하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 -라코.

란[1] 조 라고. 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서 그 체언이 표시하는 내용을 가리켜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 라고.

란[2] 조 란. 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서, '라고 하는 것은'의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란[3] 조 ㄹ랑. [전역] → 랑[1].

-란-[1] 선어말 -았-. ①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끝남을, '해라' 할 자리에서 묻는 데 쓰이는 선어말어미. [전역] ②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과거에 경험한 동작을 회상시켜, '하게' 할 자리에서 묻는 데 쓰이는 선어말어미. [전역]

-란-[2] 선어말 -랐-·-더-. ①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동작의 끝남을, '해라' 할 자리에서 묻는 데 쓰이는 선어말어미. [전역] ② '오르다·다르다' 등 '르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제삼자의 동작을 결정할 것을 회상시켜 묻는 데 쓰이는 선어말어미. [전역]

-란[1] 어미 -라서. 'ᄆᆞ르다·오르다' 등 제1음절이 양성모음으로 된 '르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나중의 행동보다 먼저 한 행동임을 나타내거나 혹은 이유·원인·근거 따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란[2] 어미 -이어서. 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서, 그 사실을 확정적으로 나타

내되, 나중에 하는 동작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란[3] 어미 -았어. '오다' 동사의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란[4] 어미 -랐어.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동사의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란가 어미 -던가. ① '오다' 등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② '오르다·다르다' 등 '르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란걸 어미 -더군. ① '오다' 등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상하여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어미. [전역] ② '오르다·다르다' 등 '르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상하여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어미. [전역]

-란게 어미 -던데. ① '오다' 등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동작을 회상하여 그 상대방도 긍정하게끔 나타내는 어미. [전역] ② '오르다·다르다' 등 '르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상하여 그 상대방도 긍정하게끔 나타내는 어미. [전역]

-란고 어미 -던가. ① '오다' 또는 '오르다·다르다' 등의 '르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동작·상태를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② 서술어로 쓰인 의문대명사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란다[1] 어미 -았느냐. '오다' 등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란다[2] 어미 -랐느냐. 'ᄇᆞ르다·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란덴[1] 어미 -랐느냐고.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란다'의 변형 '-란데'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듣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란덴[2] 어미 -았느냐고.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란다'의 변형 '-란데'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듣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란디[1] 어미 -랐니.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란디[2] 어미 -았니.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에 대하여 ‘해라’ 할 자리에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란디[3] 어미 -았니.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에 대하여 어렴풋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란디[4] 어미 -랐는지.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에 대하여 어렴풋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란디사[1] 어미 -랐는지.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에 대하여 어렴풋한 의문의 뜻을 특히 세게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란디사[2] 어미 -았는지.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에 대하여 어렴풋한 의문의 뜻을 특히 세게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란디야[1] 어미 -았느냐.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란디야[2] 어미 -랐느냐.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란디옌[1] 어미 -랐느냐고.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란디야’의 변형 ‘-란디에’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듣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란디옌[2] 어미 -았느냐고.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란디야’의 변형 ‘-란디에’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듣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란딘[1] 어미 -랐냐고.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란디’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듣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란딘[2] 어미 -았냐고.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란디’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듣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란마란 조 는커녕. [전역] → 랑마랑.

란에 조 라고. 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서, 그 체언이 표시하는 내용을 가리키는 조사 ‘란’의 뜻을 더 세게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란에[1] 어미 -라서. 어떤 두 동작을 말할 때, 앞에 나오는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고, 나중에 하

는 동작의 '근거·이유·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란에[2] 어미 -아서. 어떤 두 동작을 말할 때, 앞에 나오는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고, 나중에 하는 동작의 근거·이유·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람- 선어말 -고 있-. '오다' 동사 또는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전역]

-람거든[1] 어미 -고 있거든.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람-'에, 가정을 조건으로 삼아 말할 때 쓰이는 '-거든'이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람거든[2] 어미 -고 있거든.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람-'에, 가정을 조건으로 말할 때 쓰이는 '-거든'이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람거들랑[1] 어미 -고 있거들랑.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람-'에, '-거든'과 '-을랑'이 결합되어서 가정적 조건을 더 강조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람거들랑[2] 어미 -고 있거들랑.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람-'에, '-거든'과 '-을랑'이 결합되어서, 가정적 조건을 더 강조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람건[1] 어미 -고 있건.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람-'에, 가정적 조건을 뜻하는 '-거든'이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람건[2] 어미 -고 있건.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람-'에, 가정적 조건을 뜻하는 '-거든'의 축약형 '-건'이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람고[1] 어미 -고 있나. '오르다·므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제삼자의 동작의 계속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람고[2] 어미 -고 있나.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제삼자의 동작의 계속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람고나[1] 어미 -고 있구나.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람-'에, '해라' 할 자리나 혼자 스스로 감탄을 나타내는 '-고나'가 결합된 종결어미. [전역]

-람고나[2] 어미 -고 있구나.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람-'에, '해라' 할 자리나 혼자 스스로 감탄을 나타내는 '-고나'가 결합된 종결어미. [전역]

-람고라[1] 어미 -고 있노라.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화자 자신의 동작의 계속을 강조하여서 확정적으로 나타나는 종결어미. [전역]

-람고라[2] 어미 -고 있노라. '오다' 동

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화자 자신의 동작의 계속을 강조하여서 확정적으로 나타나는 종결어미. [전역]

-람고렌[1] 어미 -고 있노라고.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화자 자신의 동작의 계속을 강조하여서 확정적으로 나타나는 '-람고라'의 변형 '-람고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람고렌[2] 어미 -고 있노라고.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화자 자신의 동작의 계속을 강조하여서 확정적으로 나타나는 '-람고라'의 변형 '-람고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하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람나[1] 어미 -고 있나. 'ᄇᆞ르다·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을 묻거나 화자 스스로의 의심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람나[2] 어미 -고 있나.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을 묻거나 화자 스스로의 의심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람니[1] 어미 -고 있니. 'ᄆᆞ르다·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때로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람니[2] 어미 -고 있니.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때로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람다[1] 어미 -고 있다. 'ᄆᆞ르다·오르다' 등 제1음절이 양성모음으로 된 '르변칙' 용언이나 '오다' 동사에 붙어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전역]

-람다[2] 어미 -고 있나. '오다' 동사 또는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람디[1] 어미 -고 있니.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람디[2] 어미 -고 있니.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대개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람디[3] 어미 -고 있는지.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에 대하여 어렴풋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람디사[1] 어미 -고 있는지.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에 대하여 어렴풋한 의문의 뜻을 특히 강조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람디사[2] 어미 -고 있는지. '오다' 등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어렴풋한 의문의 뜻을 특히 강조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람디야[1] 어미 -고 있냐.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람디야[2] 어미 -고 있냐.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람ㅅ- 선어말 -고 있-. [전역] → -람시-.

-람샤[1] 어미 -고 있냐. 'ᄆᆞ르다·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느냐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람샤[2] 어미 -고 있냐.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느냐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람서[1] 어미 -고 있어.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어미. [전역]

-람서[2] 어미 -고 있어.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어미. [전역]

-람서[3] 어미 -고 있어.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람서[4] 어미 -고 있어.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람서고나[1] 어미 -고 있더구나.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람서고나[2] 어미 -고 있더구나.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람서라[1] 어미 -고 있더라.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회상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람서라[2] 어미 -고 있더라.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회상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람서렌[1] 어미 -고 있더라고.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회상하여 나타내는 '-람서라'의 변형 '-람서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람서렌[2] 어미 -고 있더라고. '오다' 동사의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

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회상하여 나타내는 '-람서라'의 변형 '-람서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람선게 어미 -고 있던데. '오다' 동사 또는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던데'라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람선고 어미 -고 있던가. '오다' 동사 또는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 경험한 제삼자의 동작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람수가[1] 어미 -고 있습니까·--고 계십니까.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 -람수과, -람수광.

-람수가[2] 어미 -고 있습니까.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람수게[1] 어미 -고 있는데요.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합쇼' 할 자리에서 긍정하게끔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람수게[2] 어미 -고 있는데요.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합쇼' 할 자리에서 긍정하게끔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람수겐[1] 어미 -고 있습니까고.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합쇼' 할 자리에서 묻는 의문법 어미 '-람수가'의 변형 '-람수게'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듣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람수겐[2] 어미 -고 있습니까고.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합쇼' 할 자리에서 묻는 의문법 어미 '-람수가'의 변형 '-람수게'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듣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람수과 어미 -고 있습니까. [전역] → -람수가[1], -람수가[2].

-람수광 어미 -고 있습니까. [전역] → -람수가[1], -람수가[2].

-람수다[1] 어미 -고 있습니다.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합쇼' 할 자리에서 단정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람수다[2] 어미 -고 있습니다.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합쇼' 할 자리에서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람시- 선어말 -고 있-. '오다' 동사 또는 '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는'이란 뜻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전역] = -람ㅅ-.

-람시난[1] 어미 -고 있으니깐. '오르다·ㅁ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람시-'에, 앞으로 할 일에 대하여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뜻을 나타내는 '-난'이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람시난[2] 어미 -고 있으니깐.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람시-'에, 앞으로 할 일에 대하여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뜻을 나타내는 '-난'이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람시냐[1] 어미 -고 있냐. '오르다·ㅁ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람시냐[2] 어미 -고 있냐.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람시녜[1] 어미 -고 있네. '오르다·ㅁ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 중임을 화자가 지정하되 연하의 상대자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치고서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람시녜[2] 어미 -고 있네. '오다' 등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 중임을 화자가 지정하되 연하의 상대자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치고서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람시녠 어미 -고 있냐고. '오다' 동사 또는 '오르다·ㅁ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는가고 묻는 '-람시냐'의 변형 '-람시녜'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듣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람시녱 어미 -고 있냐고. '오다' 동사 또는 '오르다·ㅁ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는가고 묻는 '-람시냐'의 변형 '-람시녜'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듣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람시니[1] 어미 -고 있니. 'ㅁ르다·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음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 -람시이[1].

-람시니[2] 어미 -고 있니.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 -람시이[2].

-람시니까[1] 어미 -고 있으니까.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람시-'로써 그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고, '-니까'로써 뒤에 하는 말에 대하여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뜻을 힘주어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람시니까[2] 어미 -고 있으니까.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람시-'로써 그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고, '-니까'

로써 뒤에 하는 말에 대하여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뜻을 힘주어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람시라 어미 -고 있어라. '오다' 동사 또는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으라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람시렌[1] 어미 -고 있으라고.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으라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람시라'의 변형 '-람시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연결되어서, 다음에 오는 '말ᄒᆞ다·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람시렌[2] 어미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으라는 뜻을 나타내는 '-람시라'의 변형 '-람시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연결되어서, 다음에 오는 '말ᄒᆞ다·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람시렝[1] 어미 -고 있으라고.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으라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람시라'의 변형 '-람시레'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연결되어서, 다음에 오는 '말ᄒᆞ다·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람시렝[2] 어미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으라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람시라'의 변형 '-람시레'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연결되어서, 다음에 오는 '말ᄒᆞ다·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람시마 어미 -고 있으마.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을 것을 약속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평교간에 쓰임. [전역]

-람시메[1] 어미 -고 있네.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람시메[2] 어미 -고 있네. '오다' 동사의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람시메[3] 어미 -고 있으매.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뒤에 오는 말의 원인·근거로 삼아서 전제적으로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람시메[4] 어미 -고 있으매.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뒤에 오는 말의 원인·근거로 삼아서 전제적으로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람시민[1] 어미 -고 있으면.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가정적으로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람시민[2] 어미 -고 있으면.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가정적으로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람시이[1] 어미 -고 있니. [전역] → -람시니[1].

-람시이[2] 어미 -고 있니. [전역] → -람시니[2].

-람시쿠가[1] 어미 -고 있겠습니까·-고 계시겠습니까.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을 의도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람시쿠가[2] 어미 -고 있겠습니까.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을 의도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람시쿠다[1] 어미 -고 있겠습니다. ①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화자 자신이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을 의도임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②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제삼자가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을 것임을 화자가 추측하여 말하는 종결어미. [전역]

-람시쿠다[2] 어미 -고 있겠습니다. ① '오다' 동사의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화자 자신이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을 의도임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② '오다' 동사의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제삼자가 그 동작을 계속하여 있을 것임을 화자가 추측하여 말하는 종결어미. [전역]

-람시크라 어미 -고 있겠네. '오다' 동사 또는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전역]

-람시크메 어미 -고 있겠어. 'ᄇᆞ르다·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겠어'란 뜻을 나타내는 어미. [전역]

-람시키여 어미 -고 있겠다. '오다' 동사 또는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전역]

-람신가[1] 어미 -고 있는가.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는가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람신가[2] 어미 -고 있는가.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는가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람신게 어미 -고 있네. '오다' 동사 또는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긍정하게끔 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람신고[1] 어미 -고 있나.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

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는가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람신고[2] 어미 -고 있나. '오다' 등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는가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람신고라[1] 어미 -고 있는 겐지.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추측하면서, 나중에 하는 동작·상태의 원인·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어미. [전역]

-람신고라[2] 어미 -고 있는 겐지.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추측하면서, 나중에 하는 동작·상태의 원인·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람신디 어미 -고 있는지. 'ᄆᆞ르다·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는지'란 어렴풋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람실 거여 어미 -고 있을 게다. '오다' 동사 또는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라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전역]

-람십데가 어미 -고 있었습니까. '오다' 동사 또는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하고 있습니까'란 뜻을 나타내는 어미. [전역]

-람십데다 어미 -고 있었습니다. '오다' 동사 또는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하고 있었습니다'란 뜻을 나타내는 어미. [전역]

-람십서 어미 -고 계십시오. '오다' 동사 또는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하고 계십시오'란 뜻을 나타내는 존대 명령법 어미. [전역]

-람십쥐 어미 -고 있습시다. '오다' 동사 또는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오'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하고 있습시다'란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람저 어미 -고 있다. '오다' 동사 또는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람젠 어미 -고 있다고. '오다' 동사 또는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람저'의 변형 '-람제'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람젱 어미 -고 있다고. '오다' 동사 또는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람저'의 변형 '-람제'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람주 어미 -고 있겠지. '오다' 동사 또는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겠지'란 추측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 -람쥐.

-람쥐 어미 -고 있겠지. [전역] → -람주.

-랏- 선어말 ① '오다' 동사 또는 제1음절이 양성모음으로 된 '오르다·모르다·ᄆᆞ르다·ᄇ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동작의 끝남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전역] ② 체언이나 형용사 '아니다'의 어간에 붙어서,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회상하여 말할 때 쓰이는 선어말어미. [전역]

-랏거든[1] 어미 -랐거든.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랏-'에, 가정을 조건으로 삼아 말할 때 쓰이는 '-거든'이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랏거든[2] 어미 -았거든.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랏-'에, 가정을 조건으로 삼아 말할 때 쓰이는 '-거든'이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랏거들란[1] 어미 -랐거들랑.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랏-'에, '-거든'과 '-을랑'이 결합되어서, 가정적 조건을 더 강조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랏거들란[2] 어미 -았거들랑.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랏-'에, '-거든'과 '-을랑'이 결합되어서, 가정적 조건을 더 강조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랏건[1] 어미 -았건.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랏-'에, 가정적 조건을 뜻하는 '-거든'의 축약형 '-건'이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랏건[2] 어미 -았건.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랏-'에, 가정적 조건을 뜻하는 '-거든'의 축약형 '-건'이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랏고[1] 어미 -랐는가. 'ᄆᆞ르다·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제삼자의 동작의 완료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랏고[2] 어미 -았는가.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제삼자의 동작의 완료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랏고나[1] 어미 -랐구나.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랏-'에, '해라' 할 자리나 혼자 스스로 감탄을 나타내는 '-고나'가 결합된 종결어미. [전역]

-랏고나[2] 어미 -았구나.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랏-'에, '해라' 할 자리에서나 혼자 스스로 감탄을 나타내는 '-고나'가 결합된 종결어미. [전역]

-랏고라[1] 어미 -랐노라.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화자 자신의 동작의 완

료를 강조하여서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랏고라[2] 어미 -았노라.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화자 자신의 동작의 완료를 강조하여서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랏고렌[1] 어미 -랐노라고. 'ㅁ르다·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화자 자신의 동작의 완료를 확정적으로 강조하여 말하는 '-랏고라'의 변형 '-랏고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랏고렌[2] 어미 -았노라고.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화자 자신의 동작의 완료를 확정적으로 강조하여 말하는 '-랏고라'의 변형 '-랏고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랏나[1] 어미 -랐나. '오르다·ㅁ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뜻을 나타내거나 화자 스스로의 의심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랏나[2] 어미 -았나.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뜻을 나타내거나 화자 스스로의 의심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랏네[1] 어미 -랐네. '오르다·ㅁ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있음을 지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랏네[2] 어미 -았네.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지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랏니[1] 어미 -랐니. '오르다·ㅁ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를 확정적으로 강조하여 말하는 '-랏고라'의 변형 '-랏고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랏니[2] 어미 -았니.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때로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랏다[1] 어미 -랐다. '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랏다[2] 어미 -았다.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에 대하여 단정적으로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랏수가[1] 어미 -랐습니까. '오르다·ㅁ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의문법 어미. [전역]

-랏수가[2] 어미 -았(었)습니까. ① 체언이나 형용사 '아니다'의 어간에 붙어서, 과거의 사실을 회상시켜 '합쇼' 할 자리에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

문법 어미. [전역] ② 동사 '오다'의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합쇼' 할 자리에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 -랏수과, -랏수광.

-랏수게[1] 어미 -랐는데요.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었음을 '합쇼' 할 자리에서 긍정하게끔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랏수게[2] 어미 -았는데요.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합쇼' 할 자리에서 긍정하게끔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랏수겐[1] 어미 -랐습니까고.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었음을 '합쇼' 할 자리에서 묻는 의문법 어미 '-랏수가'의 변형 '-랏수게'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랏수겐[2] 어미 -았습니까고.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합쇼' 할 자리에서 묻는 의문법 어미 '-랏수가'의 변형 '-랏수게'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랏수겡[1] 어미 -랐습니까고.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었음을 '합쇼' 할 자리에서 묻는 의문법 어미 '-랏수가'의 변형 '-랏수게'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랏수겡[2] 어미 -았습니까고.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존대할 자리에서 묻는 의문법 어미 '-랏수가'의 변형 '-랏수게'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랏수과 어미 -았(었)습니까. [전역] → -랏수가[2].

-랏수광 어미 -았(었)습니까. [전역] → -랏수가[2].

-랏수다[1] 어미 -랐습니다.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랏수다[2] 어미 -았습니다.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랏수다[3] 어미 -었습니다. 체언이나 형용사 '아니다'의 어간에 붙어서, 과거의 사실을 회상하여 '합쇼' 할 자리에서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랏수덴[1] 어미 -랐습니다고.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랏수다'의 변형 '-랏수데'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듣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랏수덴[2] 어미 -았습니다고.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랏수다'의 변형 '-랏수데'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듣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랏수뎅[1] 어미 -랐습니다고.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랏수다'의 변형 '-랏수데'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랏수뎅[2] 어미 -았습니다고.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랏수다'의 변형 '-랏수데'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랏어 어미 -랐어·-았지. *어떠난 이리 오랏어?(어찌하여 이리로 왔어?). [전역]

-랏저[1] 어미 -랐다.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었음을 화자가 단정하여 말하는 종결어미. [전역]

-랏저[2] 어미 -았다.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화자가 단정하여 말하는 종결어미. [전역]

-랏젠[1] 어미 -랐다고.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었음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랏저'의 변형 '-랏제'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랏젠[2] 어미 -았다고.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랏저'의 변형 '-랏제'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랏젱[1] 어미 -랐다고. '오르다·ᄆᆞ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었음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랏저'의 변형 '-랏제'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랏젱[2] 어미 -았다고.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랏저'의 변형 '-랏제'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랏주[1] 어미 -랐지·-랐겠지. ① 'ᄆᆞ르

다·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② 'ᄆᆞ르다·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추측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 -랏쥐[1].

-랏주[2] 어미 -았지·-았겠지. ①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②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추측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 -랏쥐[2].

-랏쥐[1] 어미 -랐지·-랐겠지. [전역] → -랏주[1].

-랏쥐[2] 어미 -았지·-았겠지. [전역] → -랏주[2].

-랏지 어미 -았지. *그래서 강셍이 조름에 ᄯᅳ란 나오랏지.(그래서 강아지 뒤에 따라서 나왔지.) [전역]

랑[1] 조 ㄹ랑. 받침 없는 체언이나 'ㄹ' 받침의 체언에 붙어서, '는'의 뜻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 란[3].

랑[2] 조 에는. 받침이 없거나 'ㄹ'받침이 있는 시간상의 명사 '때·혜·날·ᄃᆞᆯ' 등에 붙어서, '에는'의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랑 어미 -라서. 'ᄆᆞ르다·오르다' 등 제1음절이 양성모음으로 된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뒤에 하는 동작의 까닭이나 전제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랑근에 조 ㄹ랑은. 받침이 없거나 'ㄹ' 받침이 있는 체언에 붙어서, '는'의 뜻을 보다 더 강조하여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랑근에 어미 -라서. 'ᄆᆞ르다·오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뒤에 하는 동작의 까닭이나 전제가 됨을 나타내는 '-랑'의 뜻을 보다 세게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랑마랑 조 는커녕. ① 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서, '는커녕'의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 *나 그디 강 거짓말헤여 그네 놈 웃질 셍각이랑마랑.(나 그곳에 가서 거짓말해서 남 웃길 생각은 커녕.) [전역] ② 동사의 명사형 '-기'에 붙어서, '~는 고사하고 ~조차 아니하다'란 뜻으로 쓰이는 격조사. [전역] = 란마란.

-랭 어미 [전역] → -렝.

-랴 어미 -겠나. ①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동작이나 상태에 대한 화자 스스로의 추측을 감탄적으로 나타내는 종결어미. *고치가 멥뎅 ᄒᆞ덜 씨집살이보단 더 메우랴.(고추가 맵다고 한들 시집살이보다 더 맵겠느냐.) [전역] ② 용언 어간에 붙은 '-아시-·-어시-·-여시-·-라시-' 등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있음에 대한 화자 스스로의 추측을 감탄적으로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③ 용언 어간에 붙은 '-암시-·-엄시-·-염시-·-람시-' 등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에 대한 화자 스스로의 추측을 감탄적으로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러냐 어미 -더냐. 제1음절이 양성모음인 '흐르다' 등의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러니 어미 -더냐. 제1음절이 음성모음인 '부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대개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러도 어미 -러도. 제1음절이 음성모음인 '흐르다·부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설사 어떤 사실이 된다고 하여도 상관 없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러라 어미 -더라. 제1음절이 음성모음인 '흐르다·부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회상하여 말하는 데 쓰이는 종결어미. [전역]

러레 조 로. 향진격 조사인 '더레'의 변이형태로, 받침 없는 체언 또는 'ㄹ'받침의 체언에 연결되어 쓰이는 격조사. *당신네 경 서월러레 진상 바찌곡 ᄒᆞ지 말라.(당신네 그렇게 서울로 진상(進上) 바치고 하지 마라.) *강셍이가 물러레 팡ᄒᆞ게 기어드니 사름도 ᄀᆞ찌 팡ᄒᆞ게 기어들언.(강아지가 물에 '팡하게' 기어드니 사람도 같이 '팡하게' 기어들었어.) [전역] = 레레, 르레.

-러서[1] 어미 -랐어. '흐르다·부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끝나 있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러서[2] 어미 -렀어. '흐르다·부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러서[3] 어미 -러서. [전역] → -런[1].

-러서렌 어미 -렀더라고. '흐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있음을 회상하여 말하는 '-러서라'의 변형 '-러서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러시난 어미 -렀으니깐. '누르다·흐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러시-'에, 앞으로 하려는 말에 대하여 원인이나 근거됨을 나타내는 '-난'이 결합된 어미. [전역]

-러시녜 어미 -렀네. '누르다·흐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이루어진 사실을 화자가 지정하되 연하의 상대자도 그 사실을 인정하도록 말하는 데 쓰이는 종결어미. [전역]

-러시녠 어미 -렀냐고. '흐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있음을 묻는 '-러시냐'의 변형 '-러시녜'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연결되어서, 다음의 '듣다·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러시넹 어미 -렀냐고. '흐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있음을 묻는 '-러시냐'의 변형 '-러시녜'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연결되어서, 다음의 '듣다·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러시니 어미 -렀니. '흐르다·부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음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 -러시이.

-러시니까 어미 -렀으니까. '흐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러시-'로써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니까'로써 뒤에 하는 말에 대하여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러시라 어미 -러 있어라. '누르다·머무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끝나 있음을 뜻하는 '-러시-'에, 명령법 어미 '-라'가 결합되어서, 그 동작을 끝내 있으라는 뜻을 나타내는 명령법 어미. [전역]

-러시렌 어미 -러 있으라고. '누르다·머무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끝나 있음을 뜻하는 명령법 어미 '-러시라'의 변형 '-러시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듣다·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러시렝 어미 -러 있으라고. '누르다·머무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끝나 있음을 뜻하는 명령법 어미 '-러시라'의 변형 '-러시레'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듣다·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러시메 어미 -렀으매. '누르다·흐르다' 등 '르변칙'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상태의 완료를 뒤에 오는 말의 원인·근거로 삼아서 전제적으로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러시민 어미 -렀으면. '흐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러시이 어미 -렀니. [전역] → -러시니.

-러시쿠가 어미 -러 있겠습니까. '머무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완료하여 있을 의도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러시쿠다 어미 -러 있겠습니다. '머무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화자 자신이 그 동작을 완료하여 있을 의도임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러신가 어미 -렀는가. '무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완료하여 있는가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러신게 어미 -렀네. '흐르다·누르다

·무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음을 긍정하도록 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러신고 어미 -렀나. '누르다·무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있는가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러신고라 어미 -렀는 겐지. '흐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 나중하는 동작의 원인·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러신디 어미 -렀는지. '흐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상태가 완료되어 있는지'란 어렴풋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러져시니 어미 -러졌니. '무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가 이루어졌음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러져시민 어미 -러졌으면. '흐르다·무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가 이루어짐을 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러졈수가 어미 -러집니까. '부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러졈수다 어미 -러집니다. '부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단정해서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러졈시니 어미 -러지니. '무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러졋수가 어미 -러졌습니까. '무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있음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러졋수다 어미 -러졌습니다. '무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있음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러지민 어미 -러지면. '무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이루어질 것을 가정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러지키여 어미 -러지겠다. '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하기가 가능함을 추가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러질디 어미 -러질지. '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이루어질지 막연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런-[1] 선어말 -던-. ① 제1음절이 양

성모음인 '부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고, 의문법 어미 '-가' 앞에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제삼자의 동작을 회상시켜서 물을 경우에 쓰이는 선어말어미. [전역] ② 제1음절이 음성모음인 '부르다' 등의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고, 의문법 어미 '-고' 앞에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제삼자의 동작을 회상시켜서 물을 경우에 쓰이는 선어말어미. [전역]

-런-[2] 선어말 -던-. 제1음절이 음성모음인 '부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제삼자의 동작을 회상하여 말하는 경우에 쓰이는 선어말어미. [전역]

-런-[3] 선어말 -렀-. 제1음절이 음성모음인 '부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고, 의문법 어미 '-다' 앞에서, '해라'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런[1] 어미 -러서. 어떤 두 동작이나 상태를 말할 때, 앞에 나오는 '흐르다·부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근거·이유·원인이나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 -러서[3].

-런[2] 어미 -렀어. '흐르다·부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런가 어미 -던가. 제1음절이 음성모음인 '부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런걸 어미 -더군. 제1음절이 음성모음인 '부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상하여 확정적으로 말하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전역]

-런게 어미 -던데. 제1음절이 음성모음인 '부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제삼자의 동작을 회상하여 상대자도 긍정하게끔 말하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전역]

-런고 어미 -던가. '부르다·흐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제삼자의 동작을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대개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런다 어미 -렀느냐. 제1음절이 음성모음인 '부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런덴 어미 -렀느냐고. '무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런다'의 변형 '-런데'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ㅎ다·말ㅎ다·듣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런디[1] 어미 -렀니. 제1음절이 음성모음인 '부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

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의문법 어미. 대개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런디[2] 어미 -렀는지. '무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에 대하여 어렴풋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런디사 어미 -렀는지. '무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에 대하여 어렴풋한 의문의 뜻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런디야 어미 -렀느냐. '무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런디옌 어미 -렀느냐고. '무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런디야'의 변형 '-런디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듣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런딘 어미 -렀냐고. '무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런디'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듣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런에 어미 -러서. 어떤 두 동작을 말할 때 앞에 나오는 동사의 제1음절이 음성모음인 '부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고, 나중에 하는 동작의 근거·이유·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럼- 선어말 -고 있-. 제1음절이 음성모음인 '부르다·흐르다' 등의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전역]

-럼거든 어미 -고 있거든. '무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가정적으로 삼아 말할 때 쓰이는 연결어미. [전역]

-럼거들랑 어미 -고 있거들랑. '흐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럼-'에, '-거든'과 '-을랑'이 결합되어서, 가정적 조건을 더 강조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럼건 어미 -고 있건. '흐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럼-'에, 가정적 조건을 뜻하는 '-거든'의 축약형인 '-건'이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럼고 어미 -고 있나. '흐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하게' 할 자리에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럼고나 어미 -고 있구나. '누르다·두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럼-'에, '해라' 할 자리에서 나 혼자 스스로 감탄을 나타내는 '-고나'가 결합된 종결어미. [전역]

-럼고라 어미 -고 있노라. '누르다·두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화자 자신의 동작의 계속을 강조하여서 확정적으로 말하는 데 쓰이는 종결어미. [전역]

-럼고렌 어미 -고 있노라고. '부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화자 자신의 동작의 계속을 확정적으로 말하는 '-럼고라'의 변형 '-럼고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럼나 어미 -고 있나. '누르다·흐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을 묻거나 화자 스스로의 의심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럼니 어미 -고 있니. '누르다·무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대개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럼다[1] 어미 -고 있다. '흐르다' 등 제1음절이 음성모음으로 된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다는 뜻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럼다[2] 어미 -고 있냐. '부르다·무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럼디[1] 어미 -고 있니. '부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의문사가 앞에 옴. [전역]

-럼디[2] 어미 -고 있는지. '부르다·누르다·무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에 대하여 어렴풋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럼디사 어미 -고 있는지. '흐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에 대하여 어렴풋한 의문의 뜻을 특히 강조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럼디야 어미 -고 있냐. '흐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럼샤 어미 -고 있냐. '흐르다·누르다·무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느냐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럼서[1] 어미 -고 있어. '흐르다·부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말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럼서[2] 어미 -고 있어. '부르다·흐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제삼자의 동작의 계속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럼서라 어미 -고 있더라. '흐르다·부

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화자가 과거에 경험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었음을 회상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럼서렌 어미 -고 있더라고. '흐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었음을 회상하여 나타내는 '-럼서라'의 변형 '-럼서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럼수가 어미 -고 있습니까. '흐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럼수게 어미 -고 있네요. '흐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상대자도 긍정하게끔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럼수겐 어미 -고 있습니까고. '흐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묻는 의문법 어미 '-람수가'의 변형 '-람수게'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듣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럼수다 어미 -고 있습니다. '흐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럼시난 어미 -고 있으니까는. '흐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럼시-'에, 앞으로 하려는 말에 대하여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뜻을 나타내는 '-난'이 결합된 연결어미인데,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으니까'란 뜻을 나타냄. [전역]

-럼시냐 어미 -고 있냐. '흐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전역]

-럼시녜 어미 -고 있네. '흐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화자가 지정하되 연하의 상대자도 그 사실을 인정하게끔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럼시녠[1] 어미 -고 있냐고. '흐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음을 묻는 '-럼시냐'의 변형 '-럼시녜'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듣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럼시녠[2] 어미 -고 있네 하고. '흐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는 사실을 화자가 지정하되 연하의 상대자도 그 사실을 인정하게끔 나타내는 '-럼시녜'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

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듣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럼시녱 어미 -고 있냐고. '흐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음을 묻는 '-럼시냐'의 변형 '-럼시녜'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듣다·말ᄒᆞ다'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럼시니 어미 -고 있니. '흐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음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 -럼시이.

-럼시니까 어미 -고 있으니까. '흐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니까'로써 뒤에 하는 말에 대하여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뜻을 힘주어 나타내는 연결어미.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으므로'란 뜻을 나타냄. [전역]

-럼시라 어미 -고 있어라. '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럼시'에, 명령법 어미 '-라'가 연결되어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어라'고 하는 뜻을 나타내는 명령법 어미. [전역]

-럼시렌 어미 -고 있으라고. '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 명령을 나타내는 '-럼시라'의 변형 '-럼시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럼시렝 어미 -고 있으라고. '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 명령을 나타내는 '-럼시라'의 변형 '-럼시레'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럼시메[1] 어미 -고 있네. '흐르다·무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럼시메[2] 어미 -고 있으매. '흐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뒤에 오는 말의 원인·근거로 삼아서 전제적으로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럼시민 어미 -고 있으면. '흐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럼시이 어미 -고 있니. [전역] → -럼시니.

-럼시쿠가 어미 -고 있겠습니까·-고 계시겠습니까. '흐르다·부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을 의도를, 또는 객관적인 어떤 사태가 계속되고 있음에 대한 추측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럼시쿠다 어미 -고 있겠습니다. ① '흐르다·부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화자 자신이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을 의도임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② '흐르다·부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을 것임을 화자가 추측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럼신가 어미 -고 있는가. '흐르다·무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럼신게 어미 -고 있네. '흐르다·무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긍정하도록 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럼신고 어미 -고 있나. '무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는가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럼신고라 어미 -고 있는 겐지. '흐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이 확실한데, 그것이 나중에 하는 동작의 원인·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럼신디 어미 -고 있는지. '흐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는지'란 어렴풋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럼저 어미 -고 있다. '흐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럼젠 어미 -고 있다고. '흐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다'란 뜻을 나타내는 '-럼저'의 변형 '-럼제'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럼젱 어미 -고 있다고. '흐르다·무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다'란 뜻을 나타내는 '-럼저'의 변형 '-럼제'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럿거든 어미 -렀거든. '흐르다·무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럿-'에, 가정으로 조건 삼아 말할 때 쓰이는 '-거든'이 결합된 연결어미. 동작의 완료를 가정적 조건으로 삼아 나타냄. [전역]

-럿거들랑 어미 -렀거들랑. '흐르다·누르다·무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럿-'에, '-거든'과 '-을랑'이 결합되어서, 동작의 완료에 대한

가정적 조건으로 더 강조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럿건 어미 -렀건. '흐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럿-'에, 가정으로 조건 삼아 나타내는 '-거든'의 축약형 '-건'이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럿고 어미 -렀나. '흐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럿고나 어미 -렀구나. '흐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나 혼자 스스로 그 동작의 완료를 감탄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럿고라 어미 -렀노라. '무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화자 자신의 동작의 완료를 강조하여서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럿고렌 어미 -렀노라고. '부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화자 자신의 동작의 완료를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럿고라'의 변형 '-럿고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럿나 어미 -렀나. '흐르다·누르다·무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거나 화자 스스로의 의심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럿네 어미 -렀네. '흐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 붙어서, 그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지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럿니 어미 -렀니. '흐르다·무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럿다 어미 -렀다. '흐르다·무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주로 연소층에서 쓰임. [전역]

-럿수가 어미 -렀습니까. '흐르다·무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럿수게 어미 -렀네요. '흐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 붙어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있음을 긍정하게끔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럿수겐 어미 -렀습니까고. '흐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묻는 의문법 어미 '-럿수가'의 변형 '-럿수게'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

미. [전역]

-럿수겡 어미 -렀습니까고. '흐르다·무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묻는 의문법 어미 '-럿수가'의 변형 '-럿수게'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럿수다 어미 -렀습니다. '무르다·부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 붙어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있음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럿수덴 어미 -렀습니다고. '누르다·무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럿수다'의 변형 '-럿수데'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럿수뎅 어미 -렀습니다. '누르다·무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럿수다'의 변형 '-럿수데'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럿저 어미 -렀다. '무르다·누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 붙어서, 그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럿젠 어미 -렀다고. '누르다·무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럿저'의 변형 '-럿제'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럿젱 어미 -렀다고. '누르다·무르다' 등 '르변칙'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럿저'의 변형 '-럿제'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레 조 로. 향진격 조사 '더레'의 변이형태로, 받침 없는 체언 '바다·내(川)·제주(濟州)' 등에 연결되어서 쓰이는 격조사. [전역]

-레[1] 어미 -러.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오거나 가거나 하는 동작의 직접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 그레가지고 ᄒᆞᆫ 번은 밧을 갈레 갓는디.(그래서 한 번은 밭을 갈러 갔는데.) [전역]

-레[2] 어미 -려고.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장차 하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레레 조 로. [전역] → 러레.

레서 조 에서. 처소격 '에'와 특수조사 '서'의 결합형인 '에서'의 변이형태. * 우리가 이제 질레서 만나도 영 잘사난 우리 걸인 잔치나 ᄒᆞᆫ번 ᄒᆞ여 보자.(우리가 이제 길에서 만나도 이렇게 잘사니까 우리 걸인(乞人) 잔치나 한번 해 보자.) [전역]

-렌 어미 -라고. 동사 어간에 붙은 명령법 어미 '-라'의 변형 '-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경 그 순력 가멍 아울라 관기 ᄯᅡ라 뎅기렌 안 헤십주게.(그렇게 그 순력(巡歷)가면서 아울러 관기(官妓)를 따라다니라고 안 했지요.) [전역] = -랜.

-렝 어미 -라고. 동사 어간에 붙은 명령법 어미 '-라'의 변형 '-레'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저 동복더레 가노렝 ᄒᆞ며는 질 남쪽에 큰 엉 잇지 아니ᄒᆞᆫ가?(저 동복(東福)으로 가노라고 하면 길 남쪽에 큰 낭떠러지가 있지 아니한가?) [전역] = -랭.

-려 어미 -ㄹ라.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주로 '해라' 할 자리에서 '행여 잘못되는 일이 있을까 염려가 됨'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로[1] 조 로. ① 받침이 없거나 또는 'ㄹ' 받침이 있는 체언에 붙어서, '수단·방법·방침·이유·자격·재료·기구' 등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② 받침이 없거나 'ㄹ'받침이 있는 체언에 붙어서, 행동의 방향·경로를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로[2] 조 에서. 받침이 없거나 'ㄹ'받침이 있는 체언에 붙어서, 행동·상태의 기점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로고 어미 -로군. ① 체언이나 동사의 명사형 어미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사실에 대하여 좀 감탄적으로 나타내는 종결어미. *동녁칩 사름이 이상ᄒᆞᆫ 모양이로고.(동녘 집 사람이 이상한 모양이로군.) [전역] ② '아니다'의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어떠한 사실이 아님을 좀 감탄적으로 나타내는 종결어미. *이녁 건 중 뻔이 알멍 '거 나 거 아니로고.' ᄒᆞ는 거라.(자기 것인 줄 뻔히 알면서도 '그거 내 것 아니로군.' 하는 거야.) [전역]

-로고나 어미 -로구나. 받침 없는 체언이나 형용사 '아니다'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나 또는 자기 스스로 새삼스런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 -로고낭.

-로고낭 어미 -로구나. [전역] → -로고나.

로나 조 로나. 받침 없는 체언이나 또는 'ㄹ'받침 체언에 붙어서, 방향·경로의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 '로'에, 선택의 뜻을 나타내는 '나'가 결합된 격조사. [전역]

로는 조 로는. 받침이 없거나 또는 'ㄹ' 받침 체언에 붙어서, 수단·방법·이유, 또는 자격·기구 등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로다 조 로다. '기구'를 나타내는 격조사 '로'가 어떤 행동의 작용을 하는 대상을 뜻할 때, 이 '로'에 격조사 '다가'의 준말 '다'가 붙어서, 그 의미를 더욱 뚜렷하게 하여 주는 격조사. [전역]

로랑 조 로는. 받침이 없거나 또는 'ㄹ'

받침 체언에 붙어서, 수단·방법·이유, 또는 자격·기구·재료 등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로만 조 로만. 받침이 없거나 또는 'ㄹ' 받침 체언에 붙어서, 수단·방법·이유, 또는 자격·기구·재료 등을 제한하여 내는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론 조 론. '로는'의 준말. *이제 ᄆᆞᆫ 개벽을 시기젠 ᄒᆞ난 하늘론 ᄆᆞᆰ은 이슬이 떨어지곡.(이제 모두 개벽(開闢)을 시키려고 하니 하늘로는 맑은 이슬이 떨어지고.) *견디 거 표준말론 뭣산디.(그런데 그게 표준말로는 뭣인지.) [전역]

르레 조 로. [전역] → 러레.

를 조 를. 받침 없는 체언에 붙는 목적격 조사. [전역]

-리- 선어말 -리-. 어간의 끝 음절이 'ㄹ, ᄅᆞᆷ' 또는 '르'인 동사를 사역 또는 피동으로 만드는 선어말어미. [전역]

-리[1] 어미 -리요·--리.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화자 스스로의 자문(自問)이나 반의적(反意的)인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리[2] 어미 -리. 'ᄒᆞ다'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그 말을 동작적인 명사 구실을 하게 하는 어미. 대개 '탓'이란 말 앞에 놓임. [전역]

-린 어미 -리 하고.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화자 스스로의 자문(自問)이나 반의적(反意的)인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 '-리'에, '-고'의 뜻을 지닌 '-ㄴ'이 결합된 어미. [전역]

ㅁ

-ㅁ광 어미 -ㄴ지. *ᄂᆞᆺ은 박박 얽으곡 콘 무사 경 크곡, 눈방울은 무사 경 큼광, 홀목은 무사 경 술친디.(얼굴은 박박 얽고 코는 왜 그렇게 크고, 눈방울은 왜 그렇게 큰지, 손목은 왜 그렇게 살찐지.) [전역]

마[1] 명 [전역] → 장마. 고 맣.

마[2] 명 <식> 마(薯). [전역] 고 마.

마[3] 명 매기(霉氣). 장마 때 축축한 물건에 돋는 검푸른 곰팡이. [전역]

마[4] 명 안개. *이제 마 걷엄저.(이제 안개가 걷히고 있다.) [전역]

마[5] 감 손아랫사람에게 물건을 주면서 하는 소리. *마, 이거 느 가지라.('마', 이것 너 가져라.) [전역]

마가지 명 <건> [전역] → 막-살이.

마-갇다 동 [노형 조수 인성 수산 김녕 어도] → 마-걷다.

마-갇이 명 장마 시기가 지난 뒤에 파종하는 조(粟) 농사 따위. [노형 김녕 조수] = 마-걷이.

마개 명 [전역] → 마게.

마-걷다 동 장마 시기가 지나다. [전역] = 마-갇다.

마-걷이 명 [인성 수산 가시 서홍] → 마-갇이.

마게 명 마개. [전역] = 다게, 마개.

마고지 명 <의> 마고자. [전역]

마구-장장 명 사람이나 동물이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두 팔을 벌리어 막아섬. [전역]

마구장장-ᄒᆞ다 동 사람이나 동물이 앞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두 팔을 벌리어 막아서다. [전역]

마구-지기 명 <민> [함덕] → 마뒤-지기.

마굴치 명 <동> 아귀. *아귀찜은 마굴치 놩 멘들주.(아귀찜은 아귀를 놓아서 만들지.) [전역]

마귓-제 명 <민> 마구간에서 지내는 제. [조수 인성 노형 김녕 어도] = 마둣-제.

마그-못 명 <지> [전역] → 막은못-마을.

마그못-마을 명 <지> [전역] → 막은못-마을.

마기 명 [전역] → 매기.

마께 명 <도> 방망이. *ᄏᆞᆯᄒᆞ게 마께로 두드리멍 걸레 ᄲᆞᆯ라.(깨끗하게 방망이로 두드리면서 걸레를 빨아라.) [전역]

마께-낭[1] 명 <식> 층층-나무. [전역] = ᄆᆞ디-목.

마께-낭[2] 명 <식> 마가-목. [전역]

마께볼레-낭 명 <식> 보리장-나무. [전역] = 먹-볼레, 밋-볼레.

마께-웽이 명 <동> 혹-도미. [노형 인성 서홍] = 즉술-웽이.

마께-포 명 <민> '마께'처럼 작은 보자기 혹은 '마께'처럼 단단하게 된 보자기. 심방들이 단골집에 굿하러 갔다가 얻은 쌀을 보자기에 담는데, 그것이 가득 차서 단단하게 된 상태를 뜻함. [전역]

마끼다 동 맡-기다. [전역] = 매끼다. 고 맛기다.

마-내 명 곰팡-냄새. 장마철에 나는 매캐하고 쾨쾨한 냄새. *비 들이싼 게마는 마내 제완 못살키여.(비가 들이치더니만 곰팡냄새 겨워서 못살겠다.) [전역] = 마-냄살.

마-냄살 명 [전역] → 마-내.

마냥 조 처럼. *골개비마냥 풀짝 뛰어라.(개구리처럼 펄쩍 뛰더라.) [전역]

마농[1] 명 <식> 마늘. [전역]

마농[2] 명 <식> [전역] → 패-마농. 고 마눌.

마농-꼿 명 <식> 흰꽃-나도사프란. [전역]



마농꼿

마농-데가리 명 [전역] → 마농-뎅가리.

마농-뎅가리 명 파의 밑동. *마농뎅가리로 지이 둠강 먹어도 좋아.(파밑동으로 장아찌 담가서 먹어도 좋아.) [노형 조수 인성 수산 가시] = 마농-데가리.

마농-적 명 <음> 파-산적(-散炙). [전역]

마농-지 명 <음> [전역] → 마농-지시.

마농-지시 명 <음> 마늘-장아찌. *옛날사 반찬이 어디 셔? 마농지시 흐나로 그냥 살앗쥐.(옛날이야 반찬이 어디 있어? 마늘장아찌 하나로 그냥 살았지.) [전역] = 마농-지, 마농-지이, 마농-지히.



마농지시

마농-지이 명 <음> [전역] → 마농-지시.

마농-지히 명 <음> [전역] → 마농-지시.

마누라[1] 명 ① '천연두'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 [전역] ② <민> 호구-별성(戶口別星).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천연두를 앓게 한다는 여신(女神). [전역] = 큰-마누라, 큰-한집, 한-집[2], 항-것, 항-굿.

마누라[2] 명 마누라. [전역]

마누라-베송 명 <민> 마마를 앓았을 때 마마신(媽媽神)을 청하여 후하게

대접하고 치송(致送)하는 의례. [전역]

마눈제기 명 <동> [전역] → 망멩이.

마느레-동녱 명 <민> 마을의 '심방'이 가을걷이가 끝나고 나서 마을의 여러 집을 돌아다니며 걷어 가는 곡식. [행원]

마늘-쫑 명 마늘-종. *마늘쫑을 짤라 줘사 마농이 훍주.(마늘종을 잘라 주어야 마늘이 굵지.) [전역]

마니 부 고개를 좌우로 돌리면서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동작. *거니 늙은 영감이 ᄒᆞ나 잇다가 마니 쓱쓱ᄒᆞ더니, 'ᄀᆞ만 이시라.'라고.(그러니 늙은 영감이 한 사람 있다가 마니 쓱쓱하더니, '가만 있어라.'라고.) [전역]

마니-고개 명 도리-질. *그 아기 마니고개 ᄒᆞ는 거 보라.(그 아기 도리질하는 거 봐라.) [전역]

마니-마니 감 도리-도리. [전역]

마니-질 명 도리-질. [전역]

마니-털다 동 머리를 좌우로 흔들며 응하지 않는다는 뜻을 나타내다. *구경ᄒᆞ게 뒈니, 개가 돌려들어 가지고 그 중이 모가지 잇는디 간 팍 물어가지곤 마니 털엇단 말여.(구경하게 되니, 개가 달려들어서 그 쥐(鼠)의 목 있는 데를 가서 팍 물어서는 '마니털었다'는 말이야.) [전역]

마당 명 마당(場). [전역]

마당-굿 명 <민> 큰굿을 할 때 마당에서 벌이는 시왕맞이의 별칭. [도순]

마당-비치락 명 <도> 마당-비. *마당비치락으로 구들 씰지 말라.(마당비로 방을 쓸지 마라.) [전역]

마당-질 명 <농> 마당-질(打作). [전역]



마당질

마당질 소리 명 <요> 곡식을 타작하면서 부르는 민요. 주로 마당에서 보리를 타작하며 부르는 경우가 흔함. 단순 경쾌한 특징을 지님. [전역] = 도깨질 소리.

마당질-ᄒᆞ다 동 <농> 곡식 등을 타작(打作)하다. [전역]

마두 명 <건> [전역] → 마뒤.

마두-지기 명 <민> [전역] → 마뒤-지기.

마뒷-기 명 <민> [전역] → 마뒷-기.

마뒷-제 명 <민> [수산 가시 서홍 조수] → 마궛-제.

마뒤 명 <건> 마구-간. [전역] = 마두.

마뒤-지기 명 <민> 외양간을 지키는 신. [전역] = 마구-지기, 마두-지기.

마뒷-기 명 <민> 마구간의 기. 굿을 할 때 외양간 출입구 위쪽에 걸어 두는 종이 장식. [전역] = 마뒷-기.

마드레 명 <동> 전복의 한 가지. 전복의 암컷과 비슷하면서도 좀 길쭉하고 껍질이 울퉁불퉁한 모양임. [전역]

마디목 명 <식> 층층-나무. [전역]

마록-찍 명 [인성 서홍 조수] → 나록-찝.

마루-방 명 <건> [노형 조수 인성] → 마리-왕.
마름 명 <지> [전역] → ᄆᆞ름.
마리 명 <건> 마루(抹樓). [전역] 고 ᄆᆞᄅᆞ.
마리-방 명 <건> [전역] → 마리-왕.
마리-알 명 마루-아래. [전역]
마리-왕 명 <건> 마루-방(--房). [전역] = 마루-방, 마리-방.
마릿-귀클 명 <건> 마룻-귀틀. [전역] = 마릿-귀틀.
마릿-귀틀 명 <건> [가시 서홍 수산] → 마릿-귀클.
마릿-널 명 마루-청. [전역]
마릿-문 명 마루-문. [전역] = 상방-문.
마릿-바닥 명 마룻-바닥. [전역]
마마 명 <식> 메-꽃. [전역]
마망제기 명 [어도 서홍] → 망멩이.
마-메역 명 장마 때 나는 미역. [대평]
마무제기 명 <동> [조수] → 망멩이.
마문제기 명 <동> [인성] → 망멩이.
마-묻다 동 장마 때 물건에 곰팡이가 많이 나서 붙다. [전역]
마미제기 명 <동> [조수] → 망멩이.
마ᄆᆞ른-밧 명 큰비가 와도 물이 고이지 않는 밭. [노형]
마몬제기 명 <동> [인성] → 망멩이.
마보 명 마부(馬夫). [어도]
마-복이 명 <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영아리오름 남서쪽 산록도로 가까이에 있는 오름. 마파람을 많이 받음. 표고 560미터. [광평 상천 회수] = 남복-악.
마분-지(馬糞紙) 명 마분-지. [전역]
마-불림제(霖--祭) 명 <민> 음력 7월에 행해지는 당굿의 이름. 대부분 음력 7월 14일, 15일에 행하며 백중제라 일컫기도 함. [전역]
마-ᄇᆞ름 명 마-파람(南風). [전역] = 마-ᄑᆞ름.
마사기-총 명 [전역] → 마세-총.
마삭 명 <식> [전역] → 마삭-쿨.
마삭-쿨 명 <식> 마삭-줄. [전역] = 마삭.
마세-총 명 마상-총(馬上銃). 사냥-총. [전역] = 마사기-총.
마슴 미 [전역] → 마씀.
마시 미 [전역] → 마씀.
마시다 동 마시다(飮). [전역]
마-시리 명 <식> 조의 일종. [영평]
마심 미 [전역] → 마씀.
마씀 미 서술어미 뒤에 덧붙여 존대를 나타내는 첨사. *따신 궤기 나깡 밥벌이홀 생각이 엇어마씀.(다시는 고기 낚아서 밥벌이할 생각이 없어요.) [전역] = 마슴, 마시, 마심, 마씨, 마씸.
마씨 미 [전역] → 마씀.
마씸 미 *아멩헤도 ᄒᆞ썰 자파리헤 분거라마씸.(아무래도 좀 장난쳐 버린 것이지요.) [전역] → 마씀.
마-오르다 동 [전역] → 마-피다.
마-오름 명 <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수동 위쪽에 있는 작은 오름. 표고 122미터. [저지 조수]
마은 수 마흔(四十). [전역] = 마흔. 고마슨.
마을-도액막음 명 <민> [전역] → 도-액막음.
마을에-청 명 <민> 동네 영혼들. '마

을'은 동리의 사령(死靈)을 뜻하고 '청'은 여럿을 의미함. [전역]

마음 명 <도> 마함(馬銜). 재갈. [전역] = 마흠.

마음-석 명 <도> 가운데로 꼬부려 접고 양끝을 마함(馬銜)에 집어 매고서 말 위에 타 앉은 때 말머리를 이리저리 돌리고 하는 고삐줄.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가달-석, 마음-줄, ᄆᆞ음-석, 자갈-코.

마음-줄 명 <도> [인성] → 마음-석.

마의정당 명 <식> 댕댕이덩굴의 한 가지. *마의정당 쒜정당 줄에 발을 걸련 유울엄서라.('마의정당', '쒜정당' 줄기에 발을 걸려 이울고 있더라.) [전역]

마작-시리 명 <식> 조의 일종. [영평]

마전-동(馬田洞) 명 <지> [애월] → 물팟-동네.

마종-오름 명 <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중동 동쪽에 있는 오름. 표고 169미터. 준 마종이. [금악 저지 서광] = 마중-오름, 머정-오름, 머종-오름.

마주-목 명 <식> 멀구슬-나무. [표선]

마주-사다 동 마주-서다. [전역]

마주-치다 동 마주-치다. [전역]

마줌 명 마중. [전역]

마중 명 <어> [하도] → 풍중.

마중-꾼 명 <어> 해녀들이 채취한 미역이나 우뭇가사리 등을 져 나르기 위해 마중을 가는 사람. *요즘 천초 할 때는 사름 사가지고 동네 남ᄌᆞ덜 빌엉 ᄒᆞ며는 일당 줘 가지고 혜. 그 사름덜을 마중꾼덜이렌 혜.(요즘 우뭇가사리할 때는 사람을 사서 동네 남자들 빌려서 하면 일당을 줘서 해. 그 사람들을 '마중꾼'이라고들 해.) [하도] = 풍중-꾼.

마중-물 명 마중-물. [전역]

마중-오름 명 <지> [금악 저지 서광] → 마종-오름.

마-지기 명 경작지 면적 단위. 보통 한 마지기는 120~150평 정도의 경작지를 가리킴. 두락(斗落). [전역] = 말-지기[1].

마-지다 동 [전역] → 장마-지다.

마직-이 부 알맞게. [전역]

마직-ᄒᆞ다 형 알-맞다. 적당-하다. *딱 마직ᄒᆞ게시리 아기가 ᄒᆞᆫ 해 ᄒᆞᆫ 해 잘 컷저.(딱 알맞게 아기가 한 해 한 해 잘 컸다.) *밥 하영 먹지 마랑 마직ᄒᆞ게 먹으라.(밥 많이 먹지 말고 알맞게 먹어라.) *옷 마직ᄒᆞ연 좋다.(옷이 알맞아서 좋다.) [전역]

마차 명 [전역] → 마채.

마찻-군 명 마차-꾼(馬車-). [전역] = 마챗-군.

마채 명 마차(馬車). [전역] = 마차.

마챗-군 명 [전역] → 마찻-군.

마체-동(馬體洞) 명 [남원] → 머쳇-골.

마체-악(馬體岳) 명 <지> [전역] → 머체-오름.

마-치다[1] 동 [전역] → 장마-지다.

마치다[2] 동 목표물에 맞도록 겨냥해서 던지다. [전역] 고 마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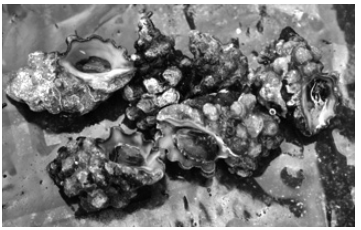
마침 부 마침. [전역] 고 마춤.

마-카시리 명 <식> 비교적 장마에 많이 나는 해조류의 하나인 가사리의 일종. [표선]

마-쿠데기 명 장마 전후에 난 송아지가 벌레 등에 물려 살이 부어 터지는 바람에 여기저기에 털이 빠져 볼썽사나움. *오뉴월에 난 송아진 비 맞아낭 진독이나 물어나도 뿔룩뿔룩 튀어나. 그게 술이 너미 연ᄒᆞ기 따문에 털이 불긋불긋 막 빠져, 모양엇이. 이걸 마쿠데기라고. 송애기 마쿠데기 일어나민 막 축져부러. 어린 때 축져나민 펭성 당돌차지 못ᄒᆞ여.(오뉴월에 난 송아지는 비 맞아나서 진드기나 물어도 뿔룩뿔룩 살이 튀어나. 그게 살이 너무 연하기 때문에 털이 불긋불긋 막 빠지지, 모양없이. 이것을 '마쿠데기'라고. 송아지 '마쿠데기' 일어나면 막 축져 버려. 어린 때 축지면 평생 당돌차지 못해.) [어도]

마타-나다 동 일을 맡아서 처리하다. [전역]

마-타슬 명 <동> 두드럭-고둥. 조간대(潮間帶) 중간층(中間層)에 서식하는 패류의 일종. [대포] = 마-타실.



마타슬

마-타실 명 <동> *메옹인 마엔 ᄒᆞᆫ군데 수북수북 모아지거든. 그러니까 마타실이야.(두드럭고둥은 장마에는 한군데 수북수북 모아지거든. 그러니까 '마타실'이야.) [애월] → 마-타슬.

마통-전(馬桶田)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산간의 옛 자연마을. [조천] = 물통난-밧, 물통남-밧.

마트다[1] 동 맡다(任). [전역] 고맡다.

마트다[2] 동 맡다(臭). 코로 냄새를 느끼다. [전역]

마폐 명 마포(麻布). 삼베. [전역]

마-피다 동 장마 때 검푸른 곰팡이가 생기다. [전역] = 마-오르다.

마-ᄑᆞ름 명 [표선 조천] → 마-ᄇᆞ름.

마흐레 명 <도> 탕건을 결을 때 탕건골을 고정시키는 연장의 한 가지. 헌 중절모자를 거꾸로 '쳇대기' 위에 얹힘. [전역]

마흔 주 [전역] → 마은.

마흠 명 <도> [전역] → 마음.

막[1] 부 매우. 아주. [전역]

막[2] 부 마구. [전역]

막개 명 <동> [사계] → 베기[1].

막-끗 명 맨 마지막. *막끗디 오는 사름일랑 문단속 잘 ᄒᆞ영 오라.(맨 나중에 오는 사람일랑 문단속 잘 하고 오너라.) [전역] = 막-끝.

막-끝 명 [전역] → 막-끗.

막-날 명 마지막 날. 맨 끝의 날. [전역]

막냉이 명 막내. [어도] = 막-둥이.

막다 동 막다(防). [전역]

막-다들다 형 [전역] → 막-다돌다.

막-다돌다 형 막-다르다. [전역] = 막-다들다.

막당이 명 막대기. [전역] = 막뎅이.

막뎅이 명 [전역] → 막당이.

막-도진 명 <민> [함덕] → 도진.

막동메기 명 [서홍] → 동코레기.

막-둥이 명 [전역] → 막냉이.

막둥이-아덜 명 막내-아들. [전역] = 막-아돌.

막-떡 명 <음> 떡을 만들 때 맨 마지막으로 만든 떡. *아이덜은 막떡 먹는 게 아니여.(아이들은 '막떡'을 먹는 게 아니다.) [전역]

막-똘 명 막내-딸. [전역]

막-말 명 막-말. [전역]

막-물[1] 명 <어> 음력 엿새와 스무하룻날의 조수(潮水). [서홍 태흥 표선 수산 세화 조천 노형] = 열두-물[1].

막-물[2] 명 <농> 맨 마지막에 따는 밀감 등의 농산물을 일컫는 말. [전역]

막바지-사데 명 <요> 날이 저물어서 밭매기를 서두를 때 재빠른 가락으로 부르는 밭매는 노래. [삼달]

막-방광 명 <민> [전역] → 방광.

막-살이 명 <건> 오막-살이. [전역] = 마가지.

막-아돌 명 [전역] → 막둥이-아덜.

막아-사다 동 막아-서다. [전역]

막아-지다 동 막-히다. 어려운 대목에서 일이 잘 풀리지 않다. *그 사름은 너미 막아젼 ᄀᆞ찌 일 못ᄒᆞ키여.(그 사람은 너무 막혀서 같이 일을 못하겠다.) *야윈 창지 막아진 소리헴저.(이 아인 속이 꽉 막힌 말을 한다.) [전역]

막은-내 명 <지> 제주시 일도동과 이도동을 흐르는 내. [전역]

막은-못 명 <지> [전역] → 막은못-마을.

막은못-마을 명 <지> 제주시 한림읍 귀덕1리에 있었던 자연마을. [전역] = 마그-못, 마그못-마을, 막은-못.

막은-창[1] 명 막다른 골목. [전역]

막은-창[2] 명 맹장(盲腸). 돼지의 맹장을 일컫는 말. [전역]

막-일 명 관혼상제에서 마지막으로 치르는 일. [전역]

막-잡다 형 막-되다. [전역]

막잡은 놈 구 뒷일을 헤아리지 않고 불량한 행세를 마구하는 사람. [전역]

막줄-탕건 명 <의> [전역] → 줄살린-탕건.

막지 명 막-동. 윷놀이에서, 넷째로 쓴 말. *이젠 막지도 부쪄게.(이제는 막동도 붙여.) [전역]

막-집 명 <건> 막(幕). 비·바람을 가릴 정도로 임시로 아무렇게나 지은 집. *막집의도 ᄆᆞᆯ이 싯나.(막집에도 마루가 있다.) [전역]

막-펜지 명 <민> 혼인하기 전에 신랑 쪽에서 정식으로 신부의 집을 찾아갈 때에 가지고 가는 의례적인 문서. [전역]

막-히다 동 막-히다. [전역]

만[1]**(萬)** 수 만. [전역]

만[2] 조 만. ① 어떤 사물을 단독으로 일컫는 특수조사. [전역] ② 무엇에 비교하여 같은 정도임을 나타내는 비교격 조사. [전역]

만고-동(萬古洞) 명 <지> [한경] → 만고ᄆᆞ를-동네.

만고ᄆᆞ를-동네 명 <지> 제주시 한경면 '머종오름' 남쪽에 있는 '만고ᄆᆞ를'과 '만고ᄆᆞ를물'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던 동네. [한경] = 만고-동(萬古洞), 망고-동(望故洞).

만곽-우미(晩藿--) 명 <식> 늦은 우

뭇가사리. [우도]

만당-가득임 명 <민> 큰굿의 보세감상에서 본주에게 인정을 받아 각 당클에 올리는 의례. [전역]

만도레기 명 <식> 맨드라미. [전역] = 만두레기.

만도레기-고장 명 [전역] → 만도레기-꼿.

만도레기-꼿 명 맨드라미-꽃. [조수 인성 화순 하원 서홍] = 만도레기-고장, 만두레기-꼿.

만두레기 명 <식> [전역] → 만도레기.

만두레기-꼿 명 [태흥 수산 표선 조천 노형] → 만도레기-꼿.

만뒤-떡 명 <음> 메밀가루로 둥그렇게 만든 후 안에 팥소를 넣고 가운데로 접어서 만들어 삶거나 쪄낸 후에 팥고물을 묻힌 떡. [가시 수산 세화 태흥 서홍]



만뒤떡

만들다 동 만들다. [전역] = 멘들다, 멩글다, 밍글다. 고 밍글다.

만리향 명 <식> 백-서향. [전역]

만-발 명 <동> [서홍] → 삼천-발.

만부기 명 <동> 만새기. 만새깃과의 바닷물고기. [사계]

만서 명 만사(輓詞). [전역] = 만스.

만수-동산 명 <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남쪽, 한라산 국립공원의 윗세오름 북서쪽에 있는 작은 오름. 표고 1606미터. [전역] = 망-동산[2].

만스 명 [전역] → 만서.

만예-둥둥 명 <민> 고관(高官)이 가교(駕驕)를 타고 행차할 때 울리는 악기 소리. [전역]

만제미 명 <동> 노란색 뱀. [애월]

만조-봉(晩早峰) 명 <지> [전역] → 느지리-오름.

만주에미가닫-석 명 <민> 가죽으로 된 긴 줄. [전역]

만지세미-오름 명 <지> [중문 색달] → 베릿내-오름.

만-지장 명 <민> 지장본풀이. 굿의 마지막에 부르는 지장본풀이의 다른 말. [전역]

만축[1] 명 <병> [전역] → 말축[1].

만축[2] 명 <동> [조수 인성 어도] → 말축[2].

만히 부 [전역] → 하영.

만ᄒᆞ다 형 [전역] → 하다[1].

말[1] 명 말(斗). [전역]

말[2] 명 말(言語). *(속) 말 고우민 비제기 사레 갓당 둠비 상 온다.(말이 고우면 비지 사러 갔다가 두부 사서 온다.) *(속) 말은 ᄀᆞᆯ앙 맛, 궤긴 씹어사 맛.(말은 해야 맛, 고기는 씹어야 맛.) *(속) 말은 옥우리, 똥은 싸구리.(말은 영리하고, 똥은 똥싸개.) *(속) 말이 아니민 대답을 말곡, 질이 아니민 가지 말라.(말이 아니면 대답을 말고, 길이 아니면 가지 마라.) [전역]

말-가웃 명 말-가웃. 한 말 반 정도. [전역] = 말-가웃.
말-가웃 명 [전역] → 말-가웃.
말가웃-테기 명 <도> 밥 분량이 쌀 한 말 반 정도 드는 솥. *오메기술도 하영 ᄒᆞ젠 ᄒᆞ민 말가웃테기 큰솟에 떡 숨고.(오메기술도 많이 하려고 하면 '말가웃테기' 큰솥에 떡을 삶고.) [조수]
말-곡지 명 말-꼭지. 회화에서의 말도막. 또는 그 말의 의미. *기영도 말곡질 알아먹지 못ᄒᆞ카?(그렇게도 말꼭지를 알아듣지 못할까?) [전역]
말-귀 명 말-귀. *말귀가 왁왁, 어둑어도 너미 어둑어.(말귀가 캄캄, 어두워도 너무 어두워.) [전역]
말ᄀᆞ렛-접 명 <민> [전역] → 물방엣-제.
말-ᄀᆞᆫ다 동 말을 하다. 이야기를 하다. [전역]
말깡-ᄒᆞ다 형 말끔-하다. [노형 오라삼양] = 말끔-ᄒᆞ다.
말끔-ᄒᆞ다 형 [전역] → 말깡-ᄒᆞ다.
말다[1] 동 말다. 넓적한 물건을 돌돌 감아 원통형으로 겹치게 하다. [전역] = 물다[1].
말다[2] 동 말다. 어떤 행동을 하지 않거나 그만두다. [전역]
말-데뀌 명 말-대꾸. [전역]
말-ᄃᆞ툼 명 말-다툼. [전역]
말뚝-ᄒᆞ다 형 말쑥-하다. [전역]
말롱-말롱 부 말똥-말똥. [전역]
말리다 동 말리다. 하는 일을 못하게끔 하다. [전역] = 멀리다. 교말이다.
말릿-줄 명 <도> [전역] → ᄆᆞ릇-줄.
말-말 명 말-말. 이런 말 저런 말. [전역]
말-머리 명 말-씨. *얼골은 고와도 말머리 미완 난 싫고나.(얼굴은 고와도 말씨가 미워서 난 싫구나.) [전역]
말메-오름 명 <지> [성산] → 말미-오름.
말명 명 <민> [전역] → 말미.
말-모래기 명 *할망을 침 줘가지고 아주 말모래기 맨들아 불엇다 ᄒᆞ여.(할머니를 침(針)을 놓아서 아주 벙어리를 만들어 버렸다고 해.) [전역] → 말-모로기.
말-모로기 명 벙어리. 말을 조금도 하지 못하는 사람. [전역] = 말-모래기, 말-몰레기, 모래기, 모로기.
말-몰레기 명 [김녕 가시] → 말-모로기.
말미 명 <민> 무당이 기원하는 말. *그 심방 말미로 무당놈의 말로 비두 웻소리가 날 듯 말 듯 ᄒᆞ여.(그 심방 '말미'로 무당놈의 말로 기원하는 소리가 날 듯 말 듯 하여.) [노형] = 말명.
말미-오름 명 <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와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의 경계에 있는 오름. 천해 지역에서 분출한 뒤 육상 환경에서 분화구 내부에 작은 분석구(噴石丘)가 새로 솟아나온 이중식(二重式) 화산임. 표고 145.9미터. [전역] = 두-산(斗山), 두산-봉(斗山峰), 두산-악(斗山岳), 말메-오름, 멀미-오름, 물미-오름.
말-버렁거지 명 [전역] → 말-버르쟁이.
말-버르쟁이 명 [전역] → 말-버르쟁이.

말-버르젱이 명 '말버릇'의 낮은말. [전역] = 말-버렁거지, 말-버르쟁이.
말-버릇 명 말-버릇. [전역]
말-벗 명 말-벗. [전역]
말-베삽다 형 말(語)이 재고 거볍다.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말-사깝다.
말-빠다 동 여러 말을 하게 하여 속마음을 알아보다. [전역]
말-사깝다 형 [김녕 서홍 수산] → 말-베삽다.
말-수 명 말-수(-數). 사람이 입으로 하는 말의 수효. [전역]
말-쏨씨 명 말-솜씨. [전역]
말쑥-ᄒᆞ다 형 말쑥-하다. [전역]
말씀 명 말씀. [전역] = 말씀. 고 말씀.
말-씨 명 말-씨. [전역]
말씀 명 [노형 김녕] → 말씀.
말-왓 명 자잘한 돌멩이로 가득 채워진 밭. [광령]
말잣- 두 '셋째'의 뜻으로 쓰이는 말. [전역] = 말젯-.
말잣-년 명 [전역] → 말잣-뚤.
말잣-놈 명 [전역] → 말잣-아덜.
말잣-뚤 명 셋째 딸. [전역] = 말잣-년, 말잣-지집아의, 말젯-뚤, 말젯뚤-애기.
말잣-상제 명 셋째 상제(喪制). [전역] = 말젯-상제.
말잣-아방 명 아버지의 셋째 형이나 아우. [전역]
말잣-아덜 명 셋째 아들. [전역] = 말잣-놈, 말젯-놈, 말젯-아덜.
말잣-어멍 명 아버지의 셋째 형이나 아우의 아내. [전역]
말잣-지집아의 명 [전역] → 말잣-뚤.
말-장시 명 말-쟁이. 이야기-꾼. [전역]
말-제끼다 동 무슨 일이 있어서 서로 말대꾸하다. [전역]
말젯- 두 *경ᄒᆞ난 우리 말젯 건 지냥으로 고등ᄒᆞ교 어떵어떵ᄒᆞ연 ᄆᆞ치고.(그렇게 하니까 우리 셋째 그것은 자기대로 고등학교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마치고.) [이호] → 말잣-.
말젯-놈 명 [전역] → 말잣-아덜.
말젯-뚤 명 [전역] → 말잣-뚤.
말젯뚤-애기 명 *대감의 말젯뚤애기 사위를 삼앗단 말여.(대감의 셋째 딸 사위를 삼았다는 말이야.) [전역] → 말잣-뚤.
말젯-상제 명 [전역] → 말잣-상제.
말젯-아덜 명 [전역] → 말잣-아덜.
말젯-오름[1] 명 <지> 1100도로의 제주시 애월읍과 서귀포시 경계인 세오름(삼형제오름)의 제일 서쪽 작은 오름. 삼형제 중 '말젯'(셋째)이 됨. 표고 1075미터. [광령 장전]
말젯-오름[2] 명 <지>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과오름의 세 봉우리 중 북서쪽의 제일 작은 봉우리. 표고 100미터. [곽지 귀덕] → 과-오름.
말-지기[1] 명 [전역] → 마-지기.
말-지기[2] 명 <민> 말(斗) 지기. 창고의 곡식을 말(斗)로 지키는 신. [전역]
말질-ᄒᆞ다 동 말질-하다. 이러니저러니 하고 말로 다투거나 쓸데없이 말을 옮기다. [전역]
말짜 명 [전역] → 말째.
말짱 부 말짱. [전역]
말째 명 말째(末-). [전역] = 말짜. 고 말자.

말-참견 명 말-참견. [전역] = 말-참예.
말-참예 명 [전역] → 말-참견.
말찻 명 <지> [전역] → 물찻.
말찻-살렴 명 헤어지게 될 부부의 살림. [전역] = 말챗-살렴.
말찻-오름 명 <지> [전역] → 물찻.
말챗-살렴 명 [전역] → 말찻-살렴.
말촉[1] 명 <동> [서홍 가시] → 말축[2].
말촉[2] 명 [전역] → 말축[1].
말축[1] 명 <병> 무-사마귀. 살가죽에 밥알 만하게 돋은 군살. [전역] = 만축[1], 말촉[2], 물축.
말축[2] 명 <동> 메뚜기. [서홍 수산 노형 인성] = 만축[2], 말촉[1].



말축[2]

말-치 명 [전역] → 웨말-띄기.
말치-데가리 명 솥(釜)같이 크고 넓적한 사람 머리를 낮춰 일컫는 말. [전역] = 말치-데구리, 말치-데멩이.
말치-데구리 명 [전역] → 말치-데가리.
말치-데멩이 명 [전역] → 말치-데가리.
말치-지동 명 <건> [태흥 표선 수산 세화 가시] → 말코-지동.
말-코지 명 무명을 날 때에 도투마리를 버티는 땅에 박는 조금 굵은 꼬챙이. [전역]
말코-지동 명 <건> 상투-기둥. [인성 화순 하원 노형 어도] = 고사리-지동, 말치-지동, 말퀴-지동.
말퀴-지동 명 <건> [서홍] → 말코-지동.
말톡 명 말뚝. [전역] = 말툭.
말툭 명 [전역] → 말톡.
말-톨래기 명 말놀음-질. [전역] = 물-탈락, 물-틀락.
말피막-ᄒᆞ다 동 난처한 경우에 말로써 막아 내다. [전역]
말-ᄒᆞ다 동 말-하다. [전역]
맘마 명 맘마. 어린애가 먹을 것을 가리키는 말. [전역]
맛 명 맛(味). [전역]
맛-나다 형 맛-나다(味--). [전역]
맛데강이-웃다 형 '맛없다'의 낮은말. [전역]
맛-들다 동 맛이 들다. [전역]
맛-보다 동 맛-보다. [전역]
맛시리 명 <식> 흔히 박토(薄土)에 가는 쌀알이 잘고 메진 조의 한 가지. [전역]
맛-싯다 형 맛-있다. [전역] = 맛-잇다.
맛-없다 형 [전역] → 맛-웃다.
맛-웃다 형 맛-없다. [전역] = 맛-없다.
맛-잇다 형 [전역] → 맛-싯다.
망[1] 명 집단으로 이루어지는 꿩 사냥 때 높은 오름이나 동산에서 꿩이 날아가 숨은 곳을 여러 사냥꾼에게 알리는 일을 하는 사냥꾼. [성산 수산] = 망-꾼.
망[2] 명 미사리. 삿갓 따위의 밑에 붙이어 머리에 쓰이게 된 둥근 테두리. * 망만 부뜬 탕건을 씨곡 망만 부뜬 갓을 씨곡.(테만 붙은 탕건을 쓰고

테만 붙은 갓을 쓰고.) [전역]

망건 명 [전역] → 망근.

망고-동(望故洞) 명 <지> [한경] → 만고ᄆᆞ를-동네.

망근 명 망건(網巾). [전역] = 망건, 망긴, 맹긴.

망긴 명 [전역] → 망근.

망긴 놀레 명 <요> [조천 삼도] → 맹긴 줃는 소리.

망긴 몾는 소리 명 <요> [조천 삼도] → 맹긴 줃는 소리.

망긴 줃는 소리 명 <요> [조천 삼도] → 맹긴 줃는 소리.

망-꾼 명 [삼달] → 망[1].

망나니 명 망나니. [전역]

망다기 명 [노형 조수] → 망데기.

망-대(望臺) 명 '곶'에 소를 풀어놓아 먹이는 소를 확인하려고 돌멩이를 높이 쌓아 올려 만든 탑. [구억]

망대기 명 <동> 방어. [가파]

망데기 명 중두리 정도 크기의 중배가 부르지 않은 옹기. [전역] = 망다기.

망-동산[1](望--) 명 <지> [회수 하원] → 개-오름[4].

망-동산[2] 명 <지> [광령] → 만수-동산.

망-동산[3] 명 <지> 제주시 애월읍 소길마을 서쪽에 있는 높은 언덕. 표고 212.8미터. [소길 용흥]

망-동산[4] 명 <지> 제주시 선흘리 부대오름 북서쪽에 있는 오름. 표고 395미터. [선흘 대흘]

망멩이 명 <동> 봄철에 새비나무 같은 데 여럿이 덩어리가 되어서 모여 있는 작은 누에만 한 털 있는 벌레. [김녕 노형 수산 가시] = 마눈제기, 마망제기, 마무제기, 마문제기, 마미제기, 마믄제기.

망-보다 동 저편의 동정을 살피다. [전역]

망-불 명 저편의 동정을 살피기 위하여 켜 놓은 불. [전역]

망사리 명 <도> 바다에서 해녀가 해산물을 채취하고서 담아 넣는, 그물로 엮어 만든 물건. *딴 사름덜은 거길 강 못 잡아 오는디, 송댁인 ᄒᆞᆫ 망사리씩 막 잡아 와.(다른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잡아 오지 못하는데, 송댁이는 한 망사리씩 마구 잡아 오지.) [대정 수산 가시 김녕] = 망시리, 망아리.

망생이 명 <동> [조수] → 망치[1].

망선 명 멸치잡이를 할 그물을 싣고 다니는 배를 이르는 말. [전역]

망시리 명 <도>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망사리.

망아리 명 *엿날은 메역이 그렇게 많이 나나서. 강근에 망아리 크게 허영 하나 숨뿍ᄒᆞ게 ᄒᆞ영 그거 밀령 원담에 오랑 펑 ᄒᆞᆫ 번에 져오지 못ᄒᆞ믄 두 번에 져 오주기.(옛날은 미역이 그렇게 많이 났었지. 가서 망사리 크게 해서 하나 가득히 해서 그것 밀려서 '원담'에 와서 퍼서 한 번에 져오지 못하면 두 번에 지어 오지.) [이호 상모] → 망사리.

망-아피(望--) 명 <지> [남원] → 망-앞.

망-앞(望-) 명 <지> 제주도 여러 지역에서 부르는 지명 중 하나. 조선시대에 설치했던 봉수(烽燧)나 연대

(烟臺)의 앞이라는 데서 붙인 것임. 서귀포시 호근동과 서호동의 바닷가 경계에 있는 '속골연대'(淵洞烟臺) 앞과 남원읍 위미2리 'ᄌᆞ베오름'(雌輩峰) 앞 등이 있음. [전역] = 망-아피(望--).

망-오름[1](望--) 명 <지> 조선 때 봉수대가 있어 외침(外侵)에 대한 망을 보고 통신망 구실을 하던 스물 다섯 군데의 오름은 모두 본명 외에 망오름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한자 이름에 망(望)자 또는 봉(峰)자를 달아 표시하였음. 25개의 이름은 다음과 같음. 사라-오름[1], 도들-오름, 물-메[2], 고내-오름, 도노-미[1], 느지리-오름, 당-오름[1](堂--), 모슬개-오름, 절울이, ᄃᆞ레-오름[1], 개-오름[4], 삼매-봉(三梅峰), 예촌-망(禮村望), ᄌᆞ베-오름, 토산-봉(兎山峰), 달-산(達山), 남-산(南山), 독자-봉(獨子峰), 성-산(成山), 큰-물메, 땅-끗, 왕가-봉(往可峰), 삿갓-오름, 서-모, 원당-오름. [전역]

망-오름[2](望--) 명 <지> 한라산 국립공원 웃세오름의 눈오름을 달리 부르는 이름. 방목하는 마소의 망을 보았음. [오라 서홍 광령 하원] → 눈-오름[4].

망올 명 <도> [전역] → 부리-망.

망이-질 명 도리-질. [전역]

망장-동(望場洞)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1리 '망젱잇개' 일대에 형성된 자연마을. [남원] = 망젱이.

망장-포(望場浦) 명 <지> [남원] → 망젱잇-개.

망젱이 명 <지> [남원] → 망장-동(望場洞).

망젱잇-개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1리 바닷가의 포구. [남원] = 망장-포(望場浦).

망직이 명 망대에 올라 적의 동정을 살피는 사람. [전역]

망챙이 명 <동> [조수] → 망치[1].

망치[1] 명 <동> 망상어. [전역] = 망생이, 망챙이.

망치[2] 명 <도> 망치. [전역]

망텡이[1] 명 <도> [전역] → 멩텡이.

망텡이[2] 명 <도> [호근] → 멜-망텡이.

망-하님(望--) 명 망(望)을 보는 하인. [전역]

망-ᄒᆞ다(亡--) 동 망-하다. [전역]

맞-걷다 동 중간에서 만나기 위하여 마주 걷다. [전역] = 맞-컫다.

맞-걸다 동 엇-걸다. [전역]

맞-돈 명 맞-돈. [전역] = 맞-전.

맞-ᄆᆞ작 명 옭-매듭. 고를 내지 않고 마구 옭아맨 매듭. [전역]

맞ᄆᆞ작-치다 동 옭-매다. [전역]

맞-부뜨다 동 맞-붙다. 서로 마주 닿다. [전역] = 맞-부트다.

맞-부트다 동 [전역] → 맞-부뜨다.

맞-상(-床) 명 [전역] → 접-상.

맞-ᄉᆞ다[1] 동 맞-서다. [전역]

맞-ᄉᆞ다[2] 동 정도에 못 미치거나 부족함이 없이 그만큼 하다. [전역]

맞-전(-錢) 명 [전역] → 맞-돈.

맞-절[1] 명 <어> 조류 방향과 반대 방향에서 부는 바람에 의해 생기는 거센 파도. *들물에 서풍이 부난 맞절 일엄싱게.(밀물에 서풍이 부니까 '맞

절'이 일고 있네.) [전역]

맞-절[2] 명 맞-절. 서로 동등한 예를 갖추어 마주 하는 절. [전역]

맞추다 동 맞추다. ① 서로 맞도록 하다. [전역] ② 약혼-하다(約婚--). [전역] 고 마초다.

맞-컫다 동 [전역] → 맞-걷다.

맞-텍일 명 혼례할 날짜를 신랑·신부 양쪽에서 함께 택일(擇日)하여 합의하는 일. [전역]

매[1] 명 <동> 매(鷹). [전역]

매[2] 명 매. 사람이나 짐승을 때리는 일. *(속) 매는 먼저 맞는 게 낫다. (매는 먼저 맞는 것이 낫다.) [전역]

매[3] 명 <도> 메(椎). 묵직하고 둥그스름한 나무토막이나 쇠토막에 자루를 박아 무엇을 치거나 박을 때 쓰는 물건. [전역]

매기 명 물건이 다되어 없음. [전역] = 마기, 매미.

매기-독닥 감 빈 그릇 따위를 보이면서 아무것도 없음을 알릴 때 쓰는 말. [전역]

매끼다 동 [전역] → 마끼다.

매매-빈쭉 감 '아무것도 아니다' 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을 가진 어린이 말로, 다른 아이를 놀릴 때 쓰는 말. [전역]

매미 명 [인성 서홍 수산] → 매기.

매상이 명 <어> 마상이. 거룻배처럼 노를 젓게 된 작은 배. [전역]

매실-낭 명 <식> [세화] → 메화-낭.

매-오름 명 <지>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와 세화2리 사이의 일주도로 북쪽에 있는 오름. 바위 봉우리의 모양이 매부리를 닮았음. 표고 136.7미터. [전역] = 응암-산(鷹岩山).

매옹 감 [전역] → 아옹.

매옹이 명 <동> [전역] → 메홍이.

매와-가다 동 물건을 한 곳으로 모아 가다. [전역]

매우 부 매우. [전역]

매우릉-ᄒᆞ다 형 [전역] → 맵지롱-ᄒᆞ다.

매운-대 명 굳은-대. *소살 댄 막 매운대로 ᄒᆞ영그네 ᄒᆞ곡.(작살 대는 막 굳은대로 해서 하고.) [전역]

매웁다 형 맵다. [전역]

매인 단지 구 깨어져서 철사 따위로 얽어매고 임시로 쓸 수 있도록 만든 단지. *매인 단질 풀레 가게. 객객.('매인 단지'를 팔러 가자. 객객.) [전역]

매인 사발 구 깨어져서 철사 따위로 얽어매어 임시로 쓸 수 있도록 만든 사발. *매인 사발 풀레 가게. 객객.('매인 사발'을 팔러 가자. 객객.) [전역]

매장(埋葬) 명 매장. [전역] = 메장[1].

매정-ᄒᆞ다 형 매정-하다. [전역]

매-조제기 명 <민> 마을에서 허(虛)하다고 하는 위치에, 큰 돌로 조금 너르고 둥그렇게 탑같이 높이 쌓아 올린 담. [용수]

매죽-이 부 삐죽-이. [전역]

매쥐-낭 명 <식> [노형 조수 인성 하원 화순] → 메화-낭.

매-질 명 매-질. [전역]

매-촌(梅村) 명 <지> [전역] → 멘돈지-마을.

매-친 명 [전역] → 매-큰.

매-큰 명 광목으로 만든 물옷의 어깨끈. ＊젤 체얌에는 물적삼도 안 입엇어. 속곳헤그네 영 매큰만 매곡 뭐헷지.(제일 처음에는 물적삼도 안 입었어. 속곳해서 이렇게 어깨끈만 매고 무엇했지.) [하도] = 매-친, 미-친.

매호리 명 돌개-바람. [하도]

매화-타령 명 <요> 정의현(旌義縣)의 도읍지였던 성읍에서 전해지는 창민요. 한반도에서 유입된 민요의 한 가지. [성읍]

매홍이 명 <동> [전역] → 메홍이.

매훈이 명 <동> [중문] → 메홍이.

맥-ᄂᆞ리다 동 몸의 모든 기운이나 힘이 발로 내려오다. ＊아이고 맥ᄂᆞ련 더 이상 걷지 못ᄒᆞ쿠다.(아이고 맥이 내려서 더 이상 걷지 못하겠습니다.) [전역] = 멕-내리다.

맥-쉬 명 <동> 어렝-놀래기. [사계] = 맥진-다리.

맥진-다리 명 <동> [삼양] → 맥-쉬.

맨대가릿-바람 명 '맨머릿바람'의 낮은말.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아니한 차림새. [전역] = 멘데강잇-바랑, 멘데구릿-바랑.

맨도롱-ᄒᆞ다 형 매지근-하다. [전역]

맨-돈지 명 <지> [전역] → 멘돈지-마을.

맨-몸 명 알-몸. [전역]

맨-조팝 명 <음> 강-조밥. [전역]

맨-촌(-村) 명 <지> [전역] → 멘돈지-마을.

맬싸-불다 동 짜인 물건을 아주 망그러뜨려 납죽하게 만들어 버리다. [전역]

맴-쉐 명 배냇-소. 주인과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기르는 소. [전역]

맵다 형 맵다. [전역]

맵주랑-ᄒᆞ다 형 [전역] → 맵지롱-ᄒᆞ다.

맵지근-ᄒᆞ다 형 [전역] → 맵지롱-ᄒᆞ다.

맵지롱-ᄒᆞ다 형 매옴-하다. [전역] = 매우릉-ᄒᆞ다, 맵주랑-ᄒᆞ다, 맵지근-ᄒᆞ다, 메우롱-ᄒᆞ다, 메음-ᄒᆞ다, 멥주랑-ᄒᆞ다, 멥지근-ᄒᆞ다, 멥지랑-ᄒᆞ다, 멥지롱-ᄒᆞ다.

맷-꾸래기 명 매-꾸러기. [전역] = 맷-복젱이, 맷-주시.

맷-복젱이 명 [전역] → 맷-꾸래기.

맷-주시 명 [전역] → 맷-꾸래기.

맹긴 명 <의> [전역] → 망근.

맹긴 놀레 명 <요> [조천 삼도] → 맹긴 줃는 소리.

맹긴 몾는 소리 명 <요> [조천 삼도] → 맹긴 줃는 소리.

맹긴 줃는 소리 명 <요> 망건을 결으면서 부르는 민요. [조천 삼도] = 망긴 놀레, 망긴 몾는 소리, 망긴 줃는 소리, 맹긴 놀레, 맹긴 몾는 소리.

맹꽁 명 <동> [신촌] → 메홍이.

맹꽁-맹꽁 부 [노형 조수 인성 수산 김녕] → 멩꽁-멩꽁.

맹맹 부 송아지 따위가 우는 소리. [전역]

맹텡이 명 [남원 삼양 중문 애월 한림] → 멩텡이.

머굴-챙이 명 지혜가 좀처럼 열리지 않는 사람. [전역] = 무굴-챙이.

머귀-남 명 <식> 머귀-나무. [전역] = 머귀-낭.

머귀-낭 명 <식> [전역] → 머귀-남.

머귀낭-고장 명 머귀나무의 꽃. [전역] = 머귀낭-꼿.
머귀낭-꼿 명 [전역] → 머귀낭-고장.
머금 명 모금(含). [전역] = 적[3].
머긋 명 먹-새. [전역]
머뎅이왓-동네 명 <지> [애월] → 머등이왓-동네.
머돌 명 [인성 어도 화순] → 머들.
머둘 명 [전역] → 머들.
머둘-콩 명 <농> [서홍 수산] → 머드레-콩.
머드레 명 <농> 주된 작물과 함께 혼작(混作)하는 파종법(播種法). *산듸 밧딘 꾀를 가는디, 그 중간중간의 삐는 것ᄀᆞ라 머드레엔 ᄒᆞ주.(밭벼밭에는 깨를 가는데, 그 중간중간에 뿌리는 것보고 '머드레'라고 하지.) [어도 노형 조수 인성 김녕]
머드레-콩 명 <농> 곡식 밭의 고랑에 듬성듬성 심는 콩.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머둘-콩.
머드레-풋 명 <농> 곡식 밭의 고랑에 듬성듬성 심는 팥. [노형 조수 인성 김녕]
머들 명 돌-무더기. [하원 서홍 태흥 세화 조천 노형] = 머돌, 머둘.
머등이왓-동네 명 <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한 자연마을. [애월] = 머뎅이왓-동네.
머럭 명 <도> 갓양태를 겯는 연장의 한 가지. 길이 40센티미터쯤의 대오리로서 빗대를 꽂아갈 때 바늘처럼 쓰는 도구. [전역]
머리[1] 명 머리. ① 동물의 몸에서 목 위의 부분. *(속) 머리 큰 양반, 발 큰 도둑놈.(머리 큰 양반, 발 큰 도둑놈.) [전역] ② 물건의 꼭대기. [전역] ③ 일의 처음. [전역] ④ 지위가 가장 높은 사람. [전역] 고머리.
머리[2] 명 마리. 사람 이외의 동물의 수효를 셀 때 쓰는 말. [전역]
머리 검은 중이 구 도둑을 비유한 말. *밤의 머리 검은 중이 다녀갓저.(밤에 도둑이 다녀갔다.) [전역] = 머리 검은 쉥이.
머리 검은 쉥이 구 [서귀포 남원] → 머리 검은 중이.
머리-곰다 동 머리를 감다(沐). [전역] 고머리곰다.
머리-까락 명 [어도 조수 노형] → 머리-털②.
머리-꺼럭 명 [전역] → 머리-털.
머리-껄 명 [전역] → 머리-털.
머리-꼬멩이 명 [어도] → 머리-꼬벵이.
머리-꼬벵이 명 머리-끄덩이. 머리카락을 한데 뭉친 끝. [서홍 표선 조천 어도] = 머리-꼬멩이, 머리-꼬분지, 머리-꾸베기, 머리-꾸벵이.
머리-꼬분지 명 [인성 하원] → 머리-꼬벵이.
머리-꾸베기 명 [태흥 세화 노형] → 머리-꼬벵이.
머리-꾸벵이 명 [표선 수산] → 머리-꼬벵이.
머리-다으다 동 [전역] → 머리-닿다.
머리-닿다 동 머리를 땋다. 머리털을 엇결어 짜다. [전역] = 머리-다으다.
머리-맛 명 머리-맡. [전역]
머리-메다 동 머리털을 뽑다. [전역]
머리-믜다 동 살이 드러날 만큼 머리

털이 빠지다. [전역]

머리-빡 명 머리-빡. [전역]

머리-여지다 동 [전역] → 머리-엿다.

머리-엿다 동 머리를 얹다. [전역] = 머리-여지다, 머리-읏지다, 머리-옺다.

머리-읏지다 동 [전역] → 머리-엿다.

머리-옺다 동 [전역] → 머리-엿다.

머리-장 명 머리 장수. 여자의 머리를 땋고 위로 둥글게 땋아서 얹은 머리 등을 꾸밀 때 필요한, 남의 머리를 장사하는 사람. *머리장아, 머릿물 도라.(머리 장수야, 머릿물을 달라.) [전역]

머리-짐 명 <병> 어지럼-증. [전역]

머리짐-돌다 동 정신이 어찔하여 어지러워지다. [전역]

머리-창 명 부모나 시부모상이 났을 때 부녀자들이 머리에 넣어 땋는 긴 헝겊오리. [전역]

머리-터럭 명 [전역] → 머리-털①. ㊟머리터럭.

머리-털 명 ① 머리-털(頭髮). [전역] = 머리-터럭. ② 머리-카락. [전역] = 머리-까락, 머리-꺼럭, 머리-껄. ㊟마리털.

머림-쉐 명 소의 우두머리. [서광] = 선상-쉐.

머릿-골 명 머릿-골. [전역]

머릿대 명 <도> 구덕이나 채롱 바닥 사면(四面) 끝 지점에 끼우는 가느다란 대오리. [도련]

머릿-바농 명 <도> 부녀자의 머리에 찌르는 가는 쇠줄을 두 가닥으로 휘어서 만든 물건. [전역]

머릿-발 명 머리털의 살 속에 박힌 부분. [전역]

머마 명 <식> [인성 화순 하원] → 머마-줄.

머마-줄 명 <식> 메-꽃. *조 남뎅이에 얽어지멍 올라가는 머마줄, 멜 뿌리민 죽낸 헤낫주.(조 줄기에 얽어지면서 올라가는 메꽃, 멸치 뿌리면 죽는다고 했었지.) [대포] = 머마, 메마, 메마-줄, 미마.

머물다 동 머무르다. [전역] = 머지다[1]. ㊟머믈다.

머세 명 서덜. 돌이 엉기정기 쌓이고 잡목이 우거진 곳. [전역] → 머셍이[1], 머체, 멋시.

머셍이[1] 명 [전역] → 머세.

머셍이[2] 명 [인성 조수] → 머의.

머셍이-좋다 형 [어도 조수] → 머의-좋다.

머슴 명 머슴. [전역] = 장남[2]②.

머식 부 소(牛)를 모는 소리. [전역] = 머식-게.

머식-게 부 [전역] → 머식.

머역 명 <식> [인성 조수] → 메역.

머을 명 [전역] → 머흘.

머을-밧 명 [가시] → 머흘-왓[2].

머을-왓 명 [노형 조수] → 머흘-왓[2].

머을-팟 명 <어> 바다 밑에 자갈들이 수북이 깔린 바다. [전역]

머의 명 무슨 일에 있어서의 재수. [전역] = 머셍이[2], 머정[2], 머젱이.

머의-좋다 형 무슨 일에 있어서 재수가 좋다. [전역] = 머셍이-좋다, 머젱이-좋다, 머희-좋다.

머정[1] 명 <어> 먼 바다로 출어(出漁)하여 며칠 동안 어로 활동을 펼치는

일. [대포] = 머정-바릇.
머정[2] 명 [전역] → 머의.
머정-바릇 명 <어> [대포] → 머정[1].
머정-오름 명 <지> [금악 저지 서광] → 마종-오름.
머젱이 명 [전역] → 머의.
머젱이-좋다 형 [수산 김녕 어도] → 머의-좋다.
머종-오름 명 <지> [한경] → 마종-오름.
머지다[1] 동 [전역] → 머물다.
머지다[2] 동 물건을 맡겨 두다. [전역] = 머치다. 고 머믈우다.
머체 명 [전역] → 머세.
머체-오름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산간에 있는 오름. 넙거리오름 동쪽, 거린오름 아래쪽에 있음. [남원] = 마체-악(馬體岳).
머쳇-골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머체오름 앞에 있었던 자연마을. [남원] = 마체-동, 머쳇-굴.
머쳇-굴 명 [남원] → 머쳇-골.
머치다 동 [전역] → 머지다[2].
머쿠슬 명 멀구슬나무의 열매. [노형 조수] = 멀쿠실, 멀쿠슬, 멀쿠지.
머쿠슬-낭 명 <식> 멀구슬-나무. [노형 조수] = 멀쿠슬-낭, 멀쿠실-낭, 멀쿠지-낭.
머쿠쟁이 명 [전역] → 궹이.
머흐럭-밧 명 [인성 조수] → 머흘-왓[2].
머흐레기 명 [조수 수산] → 머흘-왓[2].
머흔-밧 명 [서홍] → 머흘-왓[2].
머흘 명 ① 밭 등을 가는 데 장애가 되는, 지면에 박아진 돌 따위. [전역] ② 바다 밑에 깔린 돌멩이. [전역] = 머을.
머흘다 형 자갈이 많고 험하거나 거칠다. [전역]
머흘-왓[1] 명 <지> ① 제주시 한림읍 신흥리의 한 지명. [한림] ② 제주시 한림읍 신흥리 '머흘왓' 일대에 형성된 자연마을. [한림]
머흘-왓[2] 명 지면에 돌 따위가 박아지고 흙에 자갈이 많이 섞여진 밭. [노형 조수 수산] = 머을-밧, 머을-왓, 머흐럭-밧, 머흐레기, 머흔-밧.
머흘-전복(--全鰒) 명 <동> '머흘'에 있는 전복. [가파도]
머희-좋다 형 [전역] → 머의-좋다.
먹- 두 '검은 색을 하고 있는'의 뜻으로 쓰이는 말. [전역]
먹-가라 명 <동> [노형] → 먹가레-몰.
먹가라-몰 명 <동> [태흥 표선 수산 세화 조천 노형] → 먹가레-몰.
먹가레-몰 명 <동> 털빛이 새까만 말. [노형 조수 어도 인성 서홍 화순 하원] = 먹-가라, 먹가라-몰, 진가라-몰.
먹는-몰망 명 <식> 식용 모자반. [온평] = 먹는-몸.
먹는-몸 명 <식> [대포] → 먹는-몰망.
먹는-버짐 명 <병> 진-버짐. [전역] = 춘-버짐.
먹다[1] 동 먹다(食). [전역]
먹다[2] 동 들다. 칼날 따위가 물건을 깎거나 자르거나 갈거나 하는 작용을 하다. *이 톱 오널은 잘 먹엄저.(이 톱 오늘은 잘 들고 있다.) [전역]
먹대 명 [전역] → 먹데.
먹데 명 목대. [전역] = 먹대.

먹-돌 명 아주 딴딴하고 광택이 나는 돌. *(속) 먹돌도 똘람시민 궁기 난다.('먹돌'도 뚫고 있으면 구멍이 난다.) [전역]

먹돌-메역 명 <식> '먹돌'에 나는 미역. [하귀]

먹돌-세기 명 <지> 제주시 용담2동에 있는 한 자연마을. '먹돌'(墨石)이 많은 곳이라는 데서 붙인 지명. [용담] = 먹돌-셍이, 먹돌-송이, 먹돌-숭이.

먹돌-셍이 명 <지> [용담] → 먹돌-세기.

먹돌-송이 명 <지> [용담] → 먹돌-세기.

먹돌-숭이 명 <지> [용담] → 먹돌-세기.

먹돌-판 명 빛깔이 검고 단단한 석질(石質)의 반석(盤石). *그디 강 이젠 먹돌판에 앉앙 바독도 두곡 ᄒᆞ는디. (거기 가서 이제는 '먹돌판'에 앉아서 바둑도 두고 하는데.) [구좌]

먹-보말 명 <동> 밤-고둥. [전역]



먹보말

먹-볼레 명 <식> [전역] → 마께볼레-낭.

먹-사오기 명 <식> [전역] → 사오기④.

먹성 명 먹성. [전역]

먹-술 명 <도> 먹-줄(墨-). [전역] = 먹통-술.



먹술과 먹통

먹술-놓다 동 먹-놓다. [전역]

먹실-일 명 [전역] → 먹씰-일.

먹쓸-일 명 [전역] → 먹씰-일.

먹씰-일 명 먹고 쓰고 할 일, 곧 상사(喪事)·혼사(婚事) 따위 비용이 들 일. [전역] = 먹실-일, 먹쓸-일, 먹을-일.

먹억-먹억 부 음식물 따위를 연이어 먹고 또 먹고 하는 모양. *그 아이 먹억먹억 ᄒᆞ는 모냥이 흔 메틀 굶은 셍이여.(그 아이 먹고 또 먹고 하는 모양이 한 며칠은 굶은 모양이네.) [전역]

먹언 동 말안 동 구 먹은 둥 만 둥. 무엇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분간할 수 없는 상태. [전역]

먹엄직-ᄒᆞ다 형 [전역] → 먹음직-ᄒᆞ다.

먹은-금 명 먹은-금. 물건을 살 때에 든 돈. [전역]

먹을-일 명 *ㄱ을 들민 먹을일 제왕 못 살키여.(가을 들면 '먹을일' 겨워 못 살겠어.) [전역] → 먹씰-일.

먹음직-ᄒᆞ다 형 먹음직-하다. [전역] = 먹엄직-ᄒᆞ다.

먹-칼 명 <도> 먹으로 금을 긋거나 표시를 할 때 쓰는 연장. [전역]

먹-통 명 <도> 먹-통(墨-). [전역]
먹통-술 명 <도>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가시 수산] → 먹-술.
먼-낭 명 <식> 먼-나무. [전역]
먼먼-ᄒᆞ다 형 머나-멀다. [전역]
먼-발 명 먼-발치. [전역] = 먼-발치.
먼-발치 명 [전역] → 먼-발.
먼-올레 명 큰길 가까이에 있는 골목길. ＊지금이믄 먼올레에 들어사실 거여.(지금쯤이면 골목길로 들어섰을 거야.) ＊떡이영 밥이영 빌언에 먼올레ᄁᆞ지 완 보난.(떡하고 밥하고 빌어서 '먼올레'까지 오고 보니.) [전역]
먼-웨권당 명 촌수가 먼 외가 친척. [전역]
먼저 부 [전역] → 몬저.
먼지 명 [전역] → 몬지.
멀구랑-ᄒᆞ다 형 뭉클-하다. 먹은 음식이 잘 삭지 않아 가슴에 몹시 뭉쳐 있는 듯하다. [전역]
멀껭이 부 공연-히. ＊잘 노는 아이 멀껭이 거셔 놔그네 어떵ᄒᆞ젠 ᄒᆞ염서?(잘 노는 아이 공연히 건드려서 어떻게 하려고 해?) [전역]
멀다 형 멀다(遠). [전역]
멀룽-멀룽 부 멀뚱-멀뚱. [전역]
멀뤼 명 <식> 머루(山葡萄). [전역] = 멀리. 고 머르.
멀리 명 <식> [수산 가시 김녕] → 멀뤼.
멀리다 동 [전역] → 말리다.
멀미 명 멀미. [전역]
멀미-오름 명 <지> [시흥 종달] → 말미-오름.
멀쩡-ᄒᆞ다 형 멀쩡-하다. [전역]


멀뤼

멀찌겡-이 부 [전역] → 멀찍-이.
멀찍-이 부 멀찍-이. [전역] = 멀찌겡-이.
멀터거니 명 [서홍 조천 노형 어도] → 멀터거리.
멀터거리 명 모래-주머니. 닭·꿩 따위의 모래주머니(筋胃). [전역] = 멀터거니, 멀터겡이, 멀턱, 몰터거니.
멀터겡이 명 [화순] → 멀터거리.
멀턱 명 [태흥 표선 수산] → 멀터거리.
멋-싯다 형 멋-있다. [전역]
멋-지다 형 멋-지다. [전역]
멍 명 멀꿀의 열매. [전역]
-멍 어미 -면서. 두 가지 동작을 겸하여 나타낼 때 앞 동사 어간에 붙는 어미. ＊사농캐 두 머리가 있단 확확 클런 내부난 그자 ᄃᆞᆯ려들멍 물어 자치난 여우라.(사냥개 두 마리가 있다가 확확 풀어 내버리니 그냥 달려들면서 물어 젖히니 여우야.) ＊이제는 소더레 기냥 쏠덜을 막 시끄멍 가.(이제는 소에 그냥 쌀들을 마구 실으면서 가.) [전역]
멍-구젱이 명 [태흥 가시] → 궹이[1].
멍구젱이-지다 동 못이 박이다. [전역]
멍-구지 명 [수산 김녕 조수] → 궹이[1].
멍꿀 명 <식> [전역] → 멍줄.

멍덕 명 <농> 마늘의 자방(子房). [영평]
멍동-소천국 명 <민> 구좌읍 평대리 멍둥이의 당신(堂神) 이름. [전역]
멍-들다 동 멍-들다. 살가죽이 무엇에 많이 부딪치고 스치고 하여 그 자리가 아주 딴딴하게 되다. [전역]
멍석 명 멍석(網席). [전역] = 덕석.
멍석-거리 명 멍석-말이. 멍석에 눕혀 돌돌 말아서 거꾸로 세워 벌을 주는 일. [구좌]
멍석이 덕석 구 멍석이 덕석. 그게 그거라는 뜻. [전역]
멍어리 명 <동> [김녕] → 멍치.
멍얼 명 <병> 멍울. 림프선이나 몸 안의 조직에 병적으로 생기는 둥글둥글한 덩이. [전역]
멍얼-사다 동 멍울-서다(淋巴腺腫--). [전역] = 멍얼-ᄉᆞ다.
멍얼-ᄉᆞ다 동 [조수] → 멍얼-사다.
멍에[1] 명 <도> 멍에. [전역] 교 머에.



멍에[1]

멍에[2] 명 밭-머리. [전역] = 멍에-질.
멍에어신-밧 명 밭머리가 없는 밭. 곧 돌담으로 에둘러 있지 않은 밭. [영평]
멍에-질 명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김녕] → 멍에[2].
멍에-툭 명 <농> 소의 목에 멍에가 잘 얹혀지도록 길들여진 턱. *쉐 멍에툭 내울랴고 질 굿인 디 역불 드리ᄆᆞᆫ다 말이여.(소 '멍에턱' 내려고 길 굿은 데로 일부러 들이몬다 말이야.) [대포]
멍엣-낭 명 멍에를 만드는 데 사용된 나무. [전역]
멍줄 명 <식> 멀꿀. [전역] = 멍꿀, 멍쿨.
멍청 명 *(속) 돌 멍청은 담이나 답곡, 낭 멍청은 불이나 솜곡, 쉐 멍청은 잡아나 먹나. 사름 멍청은 무엇에 쓰리?(돌 멍청이는 담(墻)이나 쌓고, 나무 멍청이는 불이나 때고, 소 멍청이는 잡아서라도 먹는다. 사람 멍청이는 무엇에 쓰랴?) [전역] → 멍쳉이.
멍청구리 명 [전역] → 멍쳉이.
멍텅-ᄒᆞ다 형 멍청-하다. [전역]
멍쳉-이 명 멍청-이. 멍텅구리. [전역] = 멍청, 멍청구리, 멍텅구리.
멍치 명 <동> 가다랭이. [노형 조수 인성] = 멍어리.
멍-코지 명 [노형 인성 서홍] → 궹이[1].
멍쿠랑-ᄒᆞ다 형 먹은 음식이 잘 삭지 않고 가슴에 복바쳐 걸려 있는 듯하다. [수산] = 멍크락-ᄒᆞ다, 무크랑-ᄒᆞ다, 뭉크락-ᄒᆞ다, 뭉크랑-ᄒᆞ다.
멍-쿠젱이 명 [서홍 수산 조수] → 궹이[1].
멍쿨 명 <식> [전역] → 멍줄.
멍크락-ᄒᆞ다 형 [서홍] → 멍쿠랑-ᄒᆞ다.
멍텅구리 명 [노형 조수] → 멍쳉-이.
멎다[1] 동 남의 집에서 묵다. *그 집의서 멎언 갓주.(그 집에서 묵고 갔지.) [전역]
멎다[2] 동 내리던 비나 눈 따위가 그치다. [전역]
멎이다 동 ① 손님을 유숙시키다. *이

디서 주인 멎이서 장ᄉᆞ 뎅이게 ᄒᆞ크매 밥도 먹고 ᄒᆞᆸ서.(여기서 유숙시켜서 장사 다니게 하겠으니 밥도 먹고 하십시오.) [전역] ② 물건을 맡겨 두다. [전역] = 멎히다.

멎히다 동 [전역] → 멎이다②.

메[1] 명 메. 제사(祭祀) 때에 지어 신위(神位) 앞에 올리는 밥. [전역] = 멧-밥.

메[2] 명 모(苗). [전역] = 묘.

-메[1] 어미 -네·-요·-ㄴ다. ① 체언이나 용언 어간에 붙어서 어떤 사실이나 동작·상태를 같은 연배나 손아랫사람에게 말할 때에 쓰이는 종결어미. ＊반찬 잘 출리곡 술도 잘 출령 이 사름덜 잘 멕여사 날 괴양 ᄃᆞ랑 가메.(반찬을 잘 차리고 술도 잘 차려서 이 사람들을 잘 먹여야 나를 곱게 데리고 가지.) ＊놈의 집 고팡을 뒤여난 후젠 모든 걸 제자리에 잘 놓아야 ᄒᆞ메.(남의 집 고방을 뒤진 후에는 모든 것을 제자리에 잘 놓아야 하지.) ＊강 봐사 알메.(가서 보아야 아네.) [전역] ② 용언 어간에 붙은 '-암시-·-엄시-·-염시-·-람시-' 또는 '-아시-·-어시-·-여시-·-라시-' 등에 연결되어서, 같은 연배나 손아랫사람에게 말할 때에 쓰이는 종결어미. ＊가의 저듸서 놀암시메.(그 아이 저기서 놀고 있네.) ＊철순 공부 하영 ᄒᆞ여시메.(철수는 공부 많이 하였네.) [전역]

-메[2] 어미 -매. 용언 어간에 붙은 '-암시-·-엄시-·-염시-·-람시-' 또는 '-아시-·-어시-·-여시-·-라시-' 등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의 계속 또는 완료를 전제적으로 인정하여 뒤에 오는 동작의 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메구-월일석 명 <민> 섣달 그믐 동헌 앞에서 하던 굿. [전역]

메기다[1] 동 매기다. 값이나 등수를 따져 정하다. [전역]

메기다[2] 동 [전역] → 칠-ᄒᆞ다.

메-께 감 남이 하는 짓이나 말이 너무도 기가 막힐 적에 내는 소리. [전역] = 메-께라.

메-께라 감 [전역] → 메-께.

메-날 명 만-날. [전역] = 멘-날.

메-낭 명 <건> 소의 외양간에 옆의 기둥과 가운데 기둥과의 사이에 가로지른 나무. [전역] = ᄆᆞ-낭, 행경-낭, 횡경.

메누리 명 며느리(婦). ＊(속) 조는 집에 자는 메누리 들어온다.(조는 집에 자는 며느리 들어온다.) [전역]

메누리-발콥 명 며느리-발톱. 새끼 발톱 뒤에 덧달린 작은 발톱. [전역] = 메누리-발톱.

메누리-발톱 명 [수산 가시] → 메누리-발콥.

메다[1] 동 메다. 물건을 어깨에 얹다. [전역]

메다[2] 동 매다. 밭의 풀을 뽑다. [전역]

메다-부찌다 동 [전역] → 메다-치다.

메다-치다 동 메어-붙이다. 잡아서 내리치다. 어깨에 올려놓아서 내동댕이치다. ＊메다쳐도 요상스럽게 나 머리빡은 살아서.(메어붙여도 이상스럽게 내 머리는 살았다.) [전역] = 메

다-부찌다.

메-돌 명 매-달(每月). [전역]

메록 부 날름. [전역]

메마 명 <식> [서홍 수산 김녕 조수] → 머마-줄.

메마-줄 명 <식> [전역] → 머마-줄.

메마구리-오징에 명 <동> [전역] → 믿마구리-오징어.

메맞다 동 만나다. *어느 제민 먼 팃 궨당 메맞아 보랴.(어느 때면 먼 뎃 친척 만나 보랴.) [전역]

메-ᄇᆞ쯔다 형 [노형 조수] → 메-ᄌᆞ르다.

메슬-낭 명 <식> [서홍] → 메화-낭.

메시근-ᄒᆞ다 형 매작지근-하다. 조금 더운 기운이 있는 듯하다. [전역] = 메지근-ᄒᆞ다.

메-시리 명 <민> 메를 찌는 시루. [전역]

메실 명 매실. 매실나무의 열매. [전역]

메실-낭 명 <식> [전역] → 메화-낭.

메-싱그다 동 모종을 옮겨 심다. [전역] = 메종-심다, 묘종-싱그다.

메-쏠 명 제사(祭祀) 때 신위(神位) 앞에 올릴 밥을 지을 쌀. [전역]

메역 명 <식> 미역(甘藿). [전역] = 머역.

메역-구두리 명 <식> 도박. [금능]

메역-국 명 <음> 미역-국. [전역] = 미역-국.

메역-귀 명 미역-귀(藿耳). [전역]

메역-무레 명 <어> 미역 철에 미역만을 캐는 물질. [전역]

메역-바당 명 <어> 미역이 잘 자라서 해녀들이 즐겨 캐는 어장. [전역] = 미역-바당.



메역귀

메역-번난지 명 <어> 파도에 밀려온 미역. [우도]

메역-새 명 <식> 바다의 돌에 짤막하게 돋은, 미역과 비슷한 해초. [전역] = 메역-쉬, 미역-새.



메역새

메역-쉬 명 <식> [하모] → 메역-새.

메역-체 명 <음> 미역-무침. 미역에 갖은 양념을 넣고 무친 반찬. [전역]

메역-치 명 <동> *메역치는 ᄀᆞ이 잇는 거. 먹는 사름은 먹어도 잘 안 먹어. 가시가 무서우는디, 이거 질르면 은 솔치나 다름없다고 ᄒᆞ주.(미역치는 가(邊)에 있는 거. 먹는 사람은 먹어도 잘 안 먹어. 가시가 무서운데, 이거 찌르면 쑤기미나 다름없다고 하지.) [사계] → 미역-치.

메역-호미 명 잠녀들이 바다에서 미역

을 캘 때 사용하는 낫. *메역호미는 호미ᄀᆞ치 ᄒᆞ여도, 호미ᄌᆞ록은 낭 소곱으로 박주마는 이것은 경 아녕 욮으로 고젱이 영 멘들앙 ᄒᆞ믄 셍전 빠지는 짓이 엇주게.(미역 캐는 낫은 낫처럼 해도, 낫자루는 나무 속으로 박지만 이것은 그렇게 않아서 옆으로 고리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생전 빠지는 법이 없지.) [이호]

메옹 감 [전역] → 아옹.

메옹이 명 <동> [전역] → 메홍이.

메와-가다 동 [전역] → 모도와-가다.

메와 들다 동 한쪽으로 모여들다. *좁은 목엔 와려 가멍 메와 들멍 소리 ᄒᆞ영.(좁은 목엔 서둘러 가며 모여 들며 소리해서.) [전역]

메우다[1] 동 모이게 하다. *사흘 상뒤 메울 뚤아.(사흘 향도 모을 딸아.) [전역]

메우다[2] 동 메우다. ① 빈 곳에 무엇을 넣어 채우다. [전역] ② 쳇바퀴에 쳇불을 끼워 맞추다. [전역]

메우다[3] 동 메우다. ① 북통을 가죽을 씌워서 북을 만들다. [전역] ② 마소의 목에 멍에를 얹어서 매다. [전역]

메우다[4] 동 [전역] → 모도다.

메우롱-ᄒᆞ다 형 [전역] → 맵지롱-ᄒᆞ다.

메음-ᄒᆞ다 형 [전역] → 맵지롱-ᄒᆞ다.

메장[1] 명 [전역] → 매장(埋葬).

메장[2] 명 매장(每場). [전역]

메종 명 [수산 노형] → 모종.

메종-심다 동 [전역] → 메-싱그다.

메죽-메죽 부 삐주룩-삐주룩. [전역]

메죽-이 부 뾰죽하게 나온 모양. [전역] = 믜죽-이.

메쥐 명 메주. [전역] 고 며주.

메쥐-낭 명 <식> [전역] → 메화-낭.

메쥐-솝다 동 메주-삶다. [전역]

메지근-ᄒᆞ다 형 [조수 노형 인성 수산 김녕] → 메시근-ᄒᆞ다.

메-질 명 메-질(椎-). 메로 무엇을 치는 일. [전역]

메-질다 형 ① 모종의 성장이 좋아 기름하다. [전역] ② 토양이 비옥하여 초목의 성장이 좋다. *동산엣 풀은 메ᄌᆞ르고 굴렁엣 풀은 메진다.(동산의 풀은 모가 짧고 구렁의 풀은 모가 기름하다.) [전역]

메-ᄌᆞ르다 형 모종이 크지 않고 짧다. [전역] = 메-ᄇᆞ뜨다.

메ᄌᆞ추-ᄒᆞ다 형 [수산] → 메줄추-ᄒᆞ다.

메줄추-ᄒᆞ다 형 농작물 따위가 잘 발육되지 못하여 자잘하다. [노형 조수 인성] = 메ᄌᆞ추-ᄒᆞ다, 메줄츰-ᄒᆞ다.

메줄츰-ᄒᆞ다 형 [노형 김녕] → 메줄추-ᄒᆞ다.

메초레기 명 <동> [노형 어도 조수] → 순작.

메치 명 맵시. *치메 입은 메치를 보라.(치마 입은 맵시를 봐라.) [전역]

메치-기상 명 <민> 죽은 뱀의 모습을 그린 것. [전역]

메-치다 동 굿을 할 때 신위 앞에 올리기 위하여 흰쌀을 주로 놋그릇 같은 데 담아서 밥을 찌다.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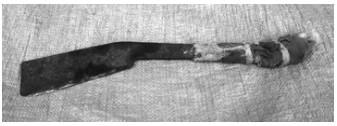
메치-메장 명 <민> 익사하여 찾지 못하는 시체를 짚으로 꾸민 것. [전역]

메칠 명 며칠. [전역] = 메틀.

메틀 명 [전역] → 메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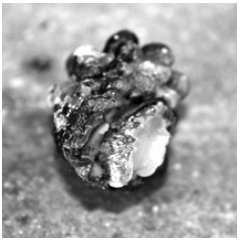
메프다 형 마음이 매우 아프다. [전역]

메-호미 명 <도> 찍어서 나무 따위를 자르는 낫 비슷한 연장. [서흥 하원 태흥 표선 수산 세화 조천 노형 어도] = 나대, 미-호미.



메호미

메홍이 명 <동> 두드럭-고둥. [전역] = 매옹이, 매홍이, 매훈이, 맹꽁, 메옹이.



메홍이

메화-낭 명 <식> 매화-나무. [전역] = 매실-낭, 매쥐-낭, 메슬-낭, 메실-낭, 메쥐-낭.

멕[1] 명 맥(脈). [전역] 고 믹.

멕[2] 명 멱-서리. [전역]

멕-내리다 동 [전역] → 맥-ᄂᆞ리다.

멕-다리 명 '멱서리'의 낮은말. [전역]

멕-문동 명 <식> 맥-문동(麥門冬). [전역]

멕-바농 명 <도> 멱둥구미가 떨어질 적에 귀에 가는 새끼(細繩) 따위를 꿰어서 얽어매는 쇠로 만든 물건. [전역]

멕-사가리 명 '맥'(기운)의 낮은말. [노형 조수 인성] = 멕-사리.

멕-사리 명 [어도] → 멕-사가리.

멕사리-심다 동 [전역] → 모감지-심다.

멕-쓰다 동 맥을 쓰다. 힘을 주다. 힘을 쓰다. [전역]

멕-웃다 형 맥-없다. [전역]

멕-이다 동 먹-이다. [전역]

멕-지프다 동 진맥-하다. [전역]

멕-히다 동 막-히다. * 울단 목이라서 첫수까락에 목이 멕히는구나.(울던 목이라서 첫술에 목이 막히는구나.) [전역]

멘 명 면(麵). [전역]

멘- 두 맨-. [전역]

-멘 어미 -마고. 받침 없는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자기가 하겠다는 약속의 뜻을 나타내는 '-마'의 변형 '-메'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멘경 명 면경(面鏡). [전역]

멘-공원 명 <민> 면공원(面公員). 무격(巫覡) 조직 신방청(神房廳) 면 지역 책임자인 면황수의 보좌역. [전역]

멘-끗 명 맨 끝. [전역]

멘-날 명 [전역] → 메-날.

멘네 명 <식> 면화(棉花). 목화(木花). [전역] = 멘헤.

멘넷-ᄃᆞ래 명 목화-다래. 목화(木花)의 열매. [전역]

멘넷-정 명 솜을 가늘게 말아서 두 뼘 가량의 길이로 끊어 낸 물건.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정[2].

멘데강잇-바랑 명 [노형 조수 인성 표

선 수산 김녕] → 맨대가릿-바람.

멘데구릿-바랑 명 [노형 조수 인성 수산 김녕] → 맨대가릿-바람.

멘도롱-ᄒᆞ다 형 물이나 방바닥 따위가 조금 따뜻한 느낌이 있다. [전역]

멘-돈지 명 <지> [전역] → 멘돈지-마을.

멘돈지-마을 명 <지> 제주시 도련2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 매-촌(梅村), 맨-돈지, 맨-촌, 멘-돈지.

멘들다 동 [전역] → 만들다.

멘들락[1] 부 자그마한 물체가 턱지거나 울퉁불퉁한 데가 없고 아주 동그스름하고 매끈한 모양. [전역]

멘들락[2] 부 홀딱. 남김없이 벗거나 벗어진 모양. [전역]

멘들락-ᄒᆞ다 명 매끈-하다. 흠이나 거친 데가 없이 부드럽고 반들하다. ＊먹보말은 멘들락ᄒᆞ고 새까망ᄒᆞ메.(밤고둥은 매끈하고 새까맣지.) [전역] = 문들락-ᄒᆞ다.

멘들-멘들 부 거칠지 아니하고 반드러운 모양. 매끈-매끈. ＊나 머린 멘들멘들.(내 머리는 매끈매끈.) [전역]

멘딱 부 [전역] → 문딱.

멘딱-ᄒᆞ다 형 반드럽다. [전역]

멘목 명 면목(面目). [전역]

멘-물 명 맹-물. 아무 것도 타지 아니한 물. [전역] = 빈-물.

멘-발 명 맨-발. [전역]

맨-벡이 명 <동> 대성-마. [전역]

멘보선-창 명 발에 버선밖에 아무 것도 신지 않은 차림새. [전역]

멘-빠다 동 [전역] → 멘-ᄲᅳ다.

멘-ᄲᅳ다 동 메밀가루나 밀가루를 반죽하여서 내리눌러 구멍으로 가는 국수를 흘러내리게 하다. [전역] = 멘-빠다.

멘-산 명 김을 맨 곳이라는 뜻으로, 그 앞에 '태산'이 나올 때에 짝을 맞추기 위하여 일부러 꾸민 말. ＊앞엔 보니 태산이네, 뒤엔 보니 멘산이네.(앞에를 보니 '태산'이네, 뒤에를 보니 '멘산'이네.) [전역]

멘-손 명 맨-손. 아무 것도 갖지 않은 손. [전역] = 빈-손[2].

멘-순 명 <식> [봉성] → 멜-순.

멘숭-멘숭 부 맨송-맨송. [전역]

멘작-멘작 부 물건이 조금만 건드려도 뚝뚝 끊어지는 모양. [전역] = 뮌작-뮌작.

멘작-ᄒᆞ다 형 물건이 아주 부드럽고 연(軟)하여 만질만질하다. [전역]

멘장 명 면장(面長). [전역] = 면장.

멘주기[1] 명 <동> 올챙이. [조수 어도 인성 화순 하원] = 강베록, 겡베리[2].

멘주기[2] 명 토리. 물레의 가락에서 기름하고 둥글게 감긴 실몽당이. [노형 어도 조수] = 고조기, 고지기[2], 씰-가레기.

멘주기-촐리 명 <지> 제주시 아라동 남쪽 한라산 국립공원 개미목 등성이의 말단부를 이름. 지형이 '멘주기 촐리'(올챙이 꼬리)처럼 가늘어지다가 없어져서, 양쪽에서 내려오는 두 갈래 내(川)의 합수머리를 이룸. [아라 노형 어도]

멘-주먹 명 맨-주먹. [전역] = 빈-주먹.

멘지락-ᄒᆞ다 형 ＊먼바당에 군벗은 멘지락ᄒᆞ고 색깔도 누리룽ᄒᆞ곡.(먼바다

의 군부는 반드럽고 색깔도 누르스름하고.) [이호] → 멘질락-ᄒᆞ다.

멘질락-ᄒᆞ다 형 거칠지 아니하고 반드럽다. [전역] = 멘지락-ᄒᆞ다.

멘질-멘질 부 거칠지 아니하고 반드러운 모양. ＊멜순 먹으믄 멘질멘질. (밀나물은 먹으면 매끈매끈.) [전역]

멘질멘질-ᄒᆞ다 형 만질만질-하다. ① 물건이 아주 부드럽고 연하여 보드랍다. [전역] ② 기운이 떨어지고 성질이 가라앉아 있다. [전역]

멘짝[1] 부 사물의 수효나 양을 한데 어울러. [전역]

멘짝[2] 부 반드러운 모양. ＊새각시 머리 멘짝.(새색시 머리 매끈.) [전역]

멘짝-ᄒᆞ다 형 평평-하다. ＊점복 암컨영 넙석ᄒᆞ영 안에 멘짝ᄒᆞᆫ 거.(전복 암컷은 이렇게 납작하여서 안에 평평한 것.) [이호]

멘테 명 <동> 명태(明太). [전역] = 멩테.

멘헤 명 <식> [전역] → 멘네.

멘-황수 명 <민> 면-행수(面行首). 일제강점기까지 존재하던 무격(巫覡) 조직 신방청(神房廳)의 면(面) 지역 우두머리. [전역]

멜 명 <동> 멸치. ＊(속) 멜도 베설 싯나.(멸치도 창자가 있다.) [전역] 고 멸티.

멜-거리다 동 그물을 던져 멸치를 한꺼번에 많이 잡아 올리다. [전역] = 멜-뜨다.

멜-국 명 <음> [전역] → 멜-쿡.

멜-깔치 명 <동> 자잘한 갈치. ＊즌 것덜은 '멜깔치'렌 ᄒᆞ곡.(잔 것들은 '멜깔치'라고 하고.) [이호]

멜-들다 동 멸치가 떼를 지어 바닷가 가까이로 몰려오다. [전역]

멜-뜨다 동 [전역] → 멜-거리다.

멜라-지다 동 ① 무너-지다. [전역] ② 허물어-지다. [전역] ③ 찌그러-지다. [전역] = 멜싸-지다.

멜락 부 털썩. 갑자기 힘없이 주저앉는 모양. [전역] = 멜싹.

멜락-ᄒᆞ다 형 말랑말랑하게 연하다. [전역]

멜랑-멜랑 부 말랑-말랑. [전역]

멜레기 명 [수산 김녕] → 멩게.

멜레기-낭 명 <식> [수산] → 멩게-낭.

멜록[1] 부 날름. [전역]

멜록[2] 감 메롱. [전역]

멜록-멜록 부 혀 같은 것을 자꾸 내밀고 들이밀고 하는 모양. [전역] = 멜룩-멜룩.

멜룩-멜룩 부 [전역] → 멜록-멜록.

멜르다 동 [전역] → 멜쓰다.

멜-망텡이 명 <도> 어깨에 메고 다니게 만든 두서 말들이의 망태기. [전역] = 망텡이[2], 밀-망태, 밀-망텡이.


멜망텡이

멜-발 명 <어> 멸치 떼. [대포]

멜-순 명 <식> 밀-나물. [전역] = 멘

-순, 멩-쑨, 밀-순.

멜싸-지다 동 [전역] → 멜라-지다.

멜싹 부 [전역] → 멜락.

멜싹-앚다 동 엉덩이를 땅바닥에 대고 앉다. [전역]

멜싹-ᄒᆞ다 형 짜인 물건이 아주 망그러져 납죽하게 되다. [전역]

멜쓰다 동 ① 짜인 물건을 아주 망그러뜨려 납죽하게 만들다. [전역] ② 기를 죽이다. [전역] = 멜르다.

멜위 명 <동> 며루. 자방충(子蚌蟲). 각다귀의 애벌레. 벼, 조, 보리 따위의 뿌리와 싹을 잘라 먹어서 그 곡식을 말라죽게 하는 해로운 벌레. [전역]

멜젓-동이 명 <도> 멸치 젓갈을 운반할 때 쓰는 질그릇. [사계]

멜-첫 명 <음> 멸치-젓. [전역]

멜-춤대 명 <도> '원' 안에 든 멸치를 모는 '춤대'(낚싯대). [외도]

멜-컬름 명 밭을 기름지게 하기 위하여 거름으로 쓰는 멸치. *우린 멜컬름을다가 ᄒᆞᆫ 쓰무남으 섬썩 ᄒᆞ여.(우린 '멜컬름'을 한 스무남은 섬씩 해.) [전역]

멜-코 명 물고기를 잡으려고 설치한 돌그물이나 다름없는 '원'(垣)에서 '멜'(멸치)이 가장 잘 잡히는 목. [하도]

멜쿠랑-ᄒᆞ다 형 트릿-하다. 먹은 음식이 잘 소화되지 아니하여 가슴이 거북하다. [전역]

멜-쿡 명 <음> 나물과 날멸치를 넣어 끓인 국. [전역] = 멜-국.

멜-팟 명 <어> 멸치가 잘 잡히는 어장. [전역]

멜 후리는 소리 명 <요> 멸치를 후리는 집단 작업을 하며 부르는 민요. 그물을 당기면서 멸치잡이할 때 부르는 노래로, 민속예술로서도 널리 알려짐. [김녕 행원 곽지 표선] = 멜 후림 소리.

멜 후리다 구 후릿그물로 멸치를 채어서 잡다. [전역]

멜 후림 소리 명 <요> [김녕 행원 곽지 표선] → 멜 후리는 소리.

멤-쉐 명 <동> 배냇-소(--牛). 번식된 후에 임자와 기른이가 나누기로 하여 기르는 소. [노형 조수 인성] = 벵작-쉐.

멥다 형 맵다(辛). [전역] 고 맵다.

멥시 명 맵시. [전역]

멥주랑-ᄒᆞ다 형 [전역] → 맵지롱-ᄒᆞ다.

멥지근-ᄒᆞ다 형 [전역] → 맵지롱-ᄒᆞ다.

멥지랑-ᄒᆞ다 형 [전역] → 맵지롱-ᄒᆞ다.

멥지롱-ᄒᆞ다 형 [전역] → 맵지롱-ᄒᆞ다.

멧[1] 명 쥐가 앉았던 고방이나 부엌의 솥어귀 같은 곳에 파 올려 쌓인 흙 따위. *새 놀단 뒨 짓이나 둔다, 중이 놀단 뒨 멧이나 둔다, 이 내 몸 놀단 뒨 짓도 멧도 읏구나.(새 놀던 덴 깃이나 둔다, 쥐 놀던 덴 '멧'이나 둔다, 이 내 몸 놀던 덴 깃도 '멧'도 없구나.) [전역]

멧[2] 관 몇. [전역]

멧-기 명 <도> 제삿밥을 퍼 담는 그릇. [전역]

멧멧 부 매매. 몹시 심하게 자꾸. *멧멧 ᄀᆞᆯ안 범벅 ᄒᆞ난.(매매 갈아서 범벅 하니.) [전역]

멧-밥 명 [전역] → 메[1].

멧-자리 명 <농> 못-자리(苗床). [전역] = 모종-터, 묘종-터, 묫-자리.

멧-질 명 <민> 갑자기 화를 낸다든가 도둑질, 싸움, 살인 등을 일으키게 하여 손해를 주는 사기(邪氣).

멩 명 명(命). *(속) 멩 쯔른 무덤은 셔도, 설완 죽은 무덤은 읏나.(명이 짧은 무덤은 있어도, 설워서 죽은 무덤은 없다.) [전역] = 밍.

멩감[1] 명 <민> 명관(冥官). 저승에서 영혼의 죄를 다스리는 신. [전역] = 멩감-ᄌ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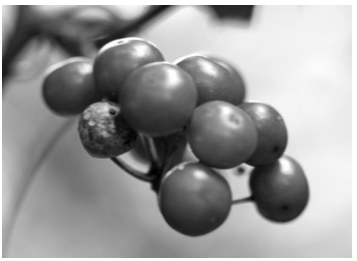
멩감[2] 명 <민> 정월달에 행해지는, 한 해의 행운을 비는 굿. [전역]

멩감-본풀이 명 <민> [전역] = ᄉᆞ만이-본풀이.

멩감-ᄌᆞ 명 <민> [전역] → 멩감[1].

멩-걸리 명 <민> 명(命)을 가리는 쌀. 제비점하는 쌀. [행원]

멩게 명 청미래덩굴의 열매. [노형 조수 인성 가시 어도] = 멜레기, 멩겟-벨레기, 멩과, 멩궤, 멩기, 벨랑귀, 벨레기.



멩게

멩게-낭 명 <식> 청미래-덩굴.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가시] = 멜레기-낭, 멩과-낭, 멩궤-낭, 멩기-낭, 벨랑귀-낭, 벨레기-낭.

멩게-순 명 <식> 청미래덩굴의 싹. [전역] = 멩겟낭-동고리, 멩기-순.

멩겟낭-동고리 명 [건입] → 멩게-순.

멩겟-벨레기 명 [인성 노형] → 멩게.

멩과 명 [수산] → 멩게.

멩과-낭 명 <식> [수산] → 멩게-낭.

멩궤 명 [김녕] → 멩게.

멩궤-낭 명 <식> [김녕] → 멩게-낭.

멩글다 동 [전역] → 만들다. 고 밍ᄀᆞᆯ다.

멩기 명 [남원] → 멩게.

멩기-낭 명 <식> [남원] → 멩게-낭.

멩기-순 명 [전역] → 멩게-순.

멩꽁-멩꽁 부 맹꽁-맹꽁. 맹꽁이의 울음소리. [김녕 노형 조수 인성 수산] = 맹꽁-맹꽁, 멩막-멩막.

멩꽁이 명 <동> [조수 김녕] → 멩마구리[2].

멩넥이 명 <동> 두툽-상어. [사계]

멩년 명 명년(明年). [전역]

멩녕 명 명령(命令). [노형]

멩당 명 명당(明堂). [전역]

멩당-자리 명 명당-자리. [전역]

멩도 명 <민> [전역] → 멩두.

멩도-멩감 명 <민> 이승에서 심방이었던 영혼의 죄를 다스리는 저승의 신. [전역]

멩도-암 명 <지> [전역] → 명도암(明道岩).

멩도-오름 명 <지> [전역] → 안-세미오름.

멩두 명 <민> 무당이 굿할 때 사용하는 기본 무구(巫具)로, 신칼·산판·요령을 총칭하는 말. [전역] = 멩도,

멩뒤.



멩두

멩두-갈림 명 <민> 신굿의 막바지에 나란히 모시던 본주심방의 '멩두'와 굿 맡은 심방의 '멩두'를 따로 나누어 놓는 일. [전역]

멩두멩감삼-처ᄉᆞ(明刀冥官三差使) 명 <민> 심방을 잡아가는 차사(差使). [전역]

멩두-빨 명 <민> 본격적인 무당이 되지 못하여 숨어 다니며 몰래 굿을 치르는 심방. [전역]

멩두암 명 <건> [서홍 가시] → 거왕.

멩두-칼 명 <민> 무당이 굿할 적에 가지고 춤을 추며 잡귀를 쫓으려고 환자를 가볍게 치는 칼. [전역] = 멩뒤-칼, 신-칼.

멩뒤 명 [전역] → 멩두.

멩뒤-칼 명 <민> [가시 서홍] → 멩두-칼.

멩마구리[1] 명 <동> [김녕 가시] → 밑마구리-오징어.

멩마구리[2] 명 <동> 맹꽁이. [전역] = 멩꽁이. ㊟머구리, 머굴, 앙마고리.

멩마구리-오징어 명 <동> [김녕 인성] → 밑마구리-오징어.

멩막-멩막 부 [서홍] → 멩꽁-멩꽁.

멩멩멩멩 부 아기가 보채면서 잇따라 우는 소리. *뒷칩 아긴 고치 먹언 멩멩멩멩 잘도 운다.(뒷집 아기는 고추를 먹어서 '멩멩멩멩' 잘도 운다.) [전역]

멩-세 명 <민> [온평] → 멩-쉐.

멩-쉐 명 <민> 명전(命錢). 굿할 때 제상(祭床)에 올리는 돈. *나 굿 흔 석 헤도 멩쉐도 안 받으쿠다.(나 굿 한 석 해도 명전도 받지 않겠습니다.) [대정] = 멩-세.

멩심 명 명심(銘心). *(속) 멩심ᄒᆞ민 멩심 덕이 싯나.(명심하면 명심 덕이 있다.) [전역]

멩쑨 명 <식> [전역] → 멜-순.

멩-씰 명 명-실(命-). 발원하는 사람의 밥그릇에 쌀을 담고 거기에 꽂은 숟가락에 잡아매는 실. [전역]



멩씰

멩이눈-동네 명 <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마종오름' 남쪽에 있는 동네. [한경]

멩-장수 명 <민> 명-장수(命長壽). [전역]

멩전 명 명정(銘旌). [전역]

멩절 명 [전역] → 멩질.

멩절-광대 명 <민> 장구(長鼓) 선생으

로 일컬어지는 이. [전역]

멩-줄 명 명-줄. 목숨. [전역]

멩지 명 명주(明紬). [전역] 고 명디.

멩지-ᄀᆞ매기 명 <동> 조간대(潮間帶) 상층(上層)에 서식하는 패류(貝類)의 일종. [대포]

멩지-바당 명 <어> [전역] → 멩지-와당.

멩지-와당 명 <어> '명주바다'라는 뜻으로 명주결처럼 잔잔한 바다. *멩지와당 실ᄇᆞ름 불라.(명주바다 실바람 불어라.) [전역] = 멩지-바당.

멩지-옷 명 <의> 명주-옷. [전역]

멩진국-할망 명 <민> 해산(解産)을 관장하는 신(神). [전역]

멩질 명 명절(名節). [전역] = 멩절, 명절.

멩질-퉤물 명 <음> 명절을 지내고 남은 음식. [전역]

멩질-ᄒᆞ다 동 [전역] → 명질-ᄒᆞ다.

멩치[1] 명 <동> [인성] → 미역-치.

멩치[2] 명 명치. 사람의 가슴뼈 아래 한가운데의 오목하게 들어간 곳. [전역]

멩털 명 정수리에 난 털. 아기의 머리털을 처음으로 깎을 때에 모두 깎지 않고 남겨 두는 정수리의 털. [전역]

멩테 명 <동> [전역] → 멘테.

멩텡이 명 <도> 망태기. [전역] = 망텡이[1], 맹텡이.

멩호-부인 명 <민> 명호-부인.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본향당신. [온평]

며 조 며.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을 늘어놓아 말할 때, 받침 없는 말에 붙어 쓰이는 열거격 조사. [전역]

-며 어미 -면서. [전역] → -멍.

면 조 면. [전역] → 민.

-면 어미 -면. [전역] → -민.

면장(面長) 명 [전역] → 멘장.

명도-악(明道岳) 명 <지> [전역] → 안-세미오름.

명도암(明道岩) 명 <지> 제주시 봉개동의 한 법정마을. [전역] = 멩도-암.

명-소지 명 <민> 명-소지(命所志). 수명 장수를 기원하는 소지. [전역]

명신-마을(明新--) 명 <지> 제주시 용담3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명월-오름 명 <지> [명월 동명] → 붉은-오름[3].

명절 명 [전역] → 멩질.

명질-ᄒᆞ다 동 명절날 차례를 지내다. [전역] = 멩질-ᄒᆞ다.

명-채 명 <민> '복채'에 운을 맞추기 위해 만든 말. [전역]

모[1] 명 모. 윷가락 네 개가 다 엎어진 때의 이름. [전역]

모[2] 명 젓가락 한 쌍을 단위로 하여 셀 때 쓰는 말. [전역]

모[3] 명 ① 두부나 묵을 네모지게 썰어 놓은 것. [전역] ② 두부나 묵 따위를 세는 단위. [전역]

모가지 명 모가지(項). '목'의 낮은말. [전역]

모가지-심다 동 [노형 조수] → 모감지-심다.

모감지 명 멱(頸). 목의 앞쪽. [전역] = 목-고디, 목-다리[1], 목-설메, 질목-다리. 고 멱.

모감지-심다 동 멱살-잡다. [전역] = 멕사리-심다, 모가지-심다.

모개 명 모개. 죄다 한데 묶은 수효.

＊그 사름덜 ᄆᆞ을 일에 모개로 나상 일ᄒᆞᆫ다.(그 사람들 마을 일에 모개로 나서서 일한다.) [전역]

모개-낭 명 <식> [조수] → 모과-낭.

모고리-오름 명 <지>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에 있는 표고 232미터의 오름. [성산] = 모고-악(毛古岳), 모구리-오름, 모구-악(母狗岳).

모고-악(毛古岳) 명 <지> [성산] → 모고리-오름.

모과-낭 명 <식> ① 무환자-나무. [노형 인성 서홍] = 모개-낭, 모괘-낭. ② 모과-나무. [전역]

모관 명 목안(牧內). 제주목의 안. [전역]

모관-새 명 '모관'(牧內) 지역에서 나는 띠. [봉성] = 목안-새.

모괘-낭 명 <식> [수산 김녕] → 모과-낭.

모구리-오름 명 <지> [성산] → 모고리-오름.

모구-악(母狗岳) 명 <지> [성산] → 모고리-오름.

모기 명 <동> 모기(蚊). [전역] 고모기.

모깃-네 명 [조수 가시] → 모깃-불.

모깃-불 명 모깃-불(--火). [전역] = 모깃-네.

모꺼지 명 모꼬지. [전역]

모-나다 동 모-나다. [전역]

모냥 명 [전역] → 모양.

모냥-놋다 형 모양-사납다. 꼴이 보기에 흉하다. [전역] = 모양-사납다, 뽄-놋다.

모냥-다가리 명 '모양새'의 낮은말. [전역] = 모냥-데가리, 모냥-사가리, 모냥-상아리, 모양-데가리, 모양-사가리, 모양-상아리.

모냥-데가리 명 [전역] → 모냥-다가리.

모냥-사가리 명 [전역] → 모냥-다가리.

모냥-상아리 명 [전역] → 모냥-다가리.

모냥-읏다 형 생긴 꼴이 모양새가 조금도 없다. [전역] = 모양-읏다, 뽄-읏다.

모녀 부 [전역] → 몬저.

모녜 부 ＊그렇게 숨져서 엉겁지절에 보는 것이 사름만 모녜 봐집디다.(그렇게 삼켜서 엉겁결에 보는 것은 사람만 먼저 보게 됩디다.) [어음] → 몬저.

모다-뎅기다 동 [전역] → 모여-뎅기다.

모다-들다 동 모이다. 모여-들다. [전역] = 모다-지다, 모여-들다.

모다-지다 동 [전역] → 모다-들다.

모도 부 [전역] → 몬딱.

모도다 동 모으다. [전역] = 메우다[4], 모두다, 모이다, 몯다, 뭬우다.

모도록-이 부 모도록-이. 물건이 한곳에 소복하게 쌓여 있는 모양. [전역]

모도록-ᄒᆞ다 형 모도록-하다. 물건이 한곳에 소복하게 쌓여 있다. [전역] = 모드락-ᄒᆞ다.

모도리 명 <동> 돌-묵상어. [전역]

모도와-가다 동 물건을 한곳으로 모아 가다. [전역] = 메와-가다.

모도-치다 동 흩어진 물건 따위를 한곳으로 모으다. [전역]

모돈 관 모든. [전역]

모돔-치기 명 모다기-령. 뭇 사람의 공격. [전역] = 모둠-치기, 모듬-치기.

모동이 명 몽당-이. 공 모양으로 감은 실몽당이. [전역] = 모뒹이.

모두 부 [전역] → 문딱.
모두다 동 [전역] → 모도다.
모둠-벌초 명 친족들이 모여서 같이하는 벌초. [전역]
모둠-치기 명 [전역] → 모돔-치기.
모드락-ᄒᆞ다 형 [전역] → 모도록-ᄒᆞ다.
모듬-새끼 명 여러 마리의 까투리가 하나의 둥지에 낳아 놓은 알. [봉성 성읍]
모듬-쉐 명 방목하기 위하여 모은 소. [종달 월정]
모듬-촐 명 꼴밭이 없는 이가 들판 여기저기에서 주워 모은 꼴. [시흥]
모듬-치기 명 [전역] → 모돔-치기.
모딩이 명 [서홍 수산] → 모동이.
모라이 명 <지> 서귀포시 색달동 산록도로 북쪽, 녹하지 서남쪽에 있는 오름. 표고 511미터. [전역]
모람 명 모람. 또는 왕모람의 열매. [전역] = 가마귀-빈독.
모람-낭 명 <식> [전역] → 모람-줄.
모람-장 명 <민> 모란 무늬 살창. [전역]
모람-줄 명 <식> ① 모람. [전역] ② 왕-모람. [전역] = 모람-낭.
모래기 명 *침으로 할망 모래기 맨들아 불엇어.(침(針)으로 할머니를 벙어리로 만들어 버렸어.) [전역] → 말-모로기.
모로기 명 [전역] → 말-모로기.
모로냇-가름 명 <지> 제주시 오라1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모록-모록 부 ① 곤장 따위로 사람의 볼기와 같은 살찐 데를 세게 치는 모양. [전역] ② 밥그릇 따위에 밥을 넘칠 정도로 떠 놓은 모양. [전역] ③ 몸의 여기저기가 포동포동하게 살찐 모양. [전역]
모록이 부 ① 그릇에 밥 따위가 넘칠 만큼 담아 놓은 모양. [전역] ② 몸이 포동포동하게 살찐 모양. [전역]
모롱 명 모롱이. 모퉁이의 휘어 둘린 곳. [전역] = 모롱이.
모롱이 명 [전역] → 모롱.
모르다 동 [전역] → 몰르다.
모리 명 모레. [전역] = 모릿-날. 고 모뢰.
모릿-날 명 [표선] → 모리.
모릿-돌 명 <공> 모루. 대장간에서 불린 쇠를 올려놓고 두드릴 때 받침으로 쓰는 쇳덩이. [전역]
모-막이 명 [노형 조수] → 모-맥이.
모-매기 명 [김녕] → ᄀᆞ른-틀목.
모-맥이 명 모-막이. 직육면체로 된 기구의 위와 아래를 막는 널조각. [서홍 수산 김녕 가시 노형 조수] = 모-막이.
모멀 명 <식> 메밀. [김녕 노형 조수 인성] = 모물, 모믈, 모밀, 모ᄆᆞᆯ, ᄆᆞ멀, ᄆᆞ물. 고 모밀.
모멀-ᄀᆞ르 명 메밀-가루. [전역]
모멀-는젱이 명 메밀-나깨.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모믈-는젱이, 모ᄆᆞᆯ-느젱이, 모ᄆᆞᆯ-는젱이, 모ᄆᆞᆯ-늣게미.
모멀-늣 명 메밀 열매가 맺어 올 적에 열매 꼭지에 붙었다가 나중에 저절로 떨어지는 물건. [전역] = 모믈-늣, 모ᄆᆞᆯ-늣.
모멀-돌레 명 <음> 메밀가루를 반죽해서 둥그렇게 만든 후 찌거나 삶아낸

떡. [전역] = 모밀-똘레.

모멀-묵 명 <음> 메밀-묵. [전역]

모멀-범벅 명 <음> 메밀가루에 호박이나 고구마를 썰어서 섞어 만든 범벅. [전역]

모멀-졸래 명 메밀-쭉정이. [노형 조수 수산] = 모물-졸래.

모멀-죽 명 <음> 메밀-죽. *(속) 모멀죽에 야게 건다.(메밀죽에 목을 건다.) [전역]

모멀-체 명 메밀의 겉껍질. [전역] = 모믈-체, 모물-체.

모멀-츠바기 명 <음> 메밀-수제비. [전역] = 모물-츠바기, 모물-츠베기.

모멀-팟 명 메밀-밭. 메밀을 심어 가꾸는 밭. [전역] = 모믈-팟, 모물-팟.

모물 명 <식> [전역] → 모멀.

모물-구름 명 한라산 정상에 떠 있으면서 메밀처럼 흩어진 구름. *모물구름이 걷어사 장마가 끝난덴 ᄒᆞ주.('메밀구름'이 걷혀야 장마가 끝난다고 하지.) [영평]

모믈 명 [태흥 서홍 표선 수산 세화 조천] → 모멀.

모믈-는젱이 명 [김녕] → 모멀-는젱이.

모믈-늣 명 [김녕] → 모멀-늣.

모믈-졸래 명 [김녕] → 모멀-졸래.

모믈-체 명 [김녕] → 모멀-체.

모믈-팟 명 [전역] → 모멀-팟.

모밀 명 <식> [전역] → 모멀.

모밀-똘레 명 *모밀똘레나 ᄒᆞᆫ 개 헤 주면은 가 가지고 케우려뒁 오겟다.(메밀 도래떡이나 한 개 해 주면 가서 던져 주고 오겠다.) [표선] → 모멀-돌레.

모몰 명 <식> [하원 노형 조수 어도] → 모멀.

모몰-느젱이 명 [수산] → 모멀-는젱이.

모몰-는젱이 명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모멀-는젱이.

모몰-늣 명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가시] → 모멀-늣.

모몰-늣게미 명 [수산] → 모멀-는젱이.

모몰-졸래 명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가시] → 모멀-졸래.

모몰-체 명 [전역] → 모멀-체.

모몰-츠바기 명 <음> [전역] → 모멀-츠바기.

모몰-츠베기 명 <음> [전역] → 모멀-츠바기.

모몰-팟 명 [전역] = 모멀-팟.

모사-가다 동 웃어른이나 귀한 손님을 잘 모시어 가다. [전역]

모사-오다 동 웃어른인 귀한 손님을 잘 모시어 오다. [전역]

모살 명 [전역] → 몰레.

모살-개 명 <지> [전역] → 모슬개①, ②

모살-농ᄉᆞ 명 <농> 모래로 이루어진 밭에서 하는 농사. [행원 하도]

모살-뜸 명 [전역] → 몰레-뜸.

모살-바당 명 <어> 수심이 얕고 모래가 깔린 바다. [전역] = 몰레-바당.

모살-밧 명 [전역] → 몰레-왓.

모살-아에리 명 <동> 황-매퉁이. [사계]

모살-알드르 명 <지> 제주시 오라1동의 한 자연마을. [오라]

모살-왓 명 [전역] → 몰레-왓.

모살왓-가름 명 <지> 제주시 오라2동의 한 자연마을. [오라]

모살-조개 명 <동> 무명-조개. [전역]

㉮모시죠개.

모새 명 모사(茅沙). [전역] = 모세.

모새-남 명 <식> [전역] → 모세-낭.

모새-낭 명 <식> [전역] → 모세-낭.

모샛-좁시 명 모삿-그릇(茅沙--). [전역] = 모셋-접시.



모샛좁시

모-서리 명 <건> 모진 서까래. [노형 조수 수산]

모세 명 [전역] → 모새.

모세-낭 명 <식> 새우-나무. 모새-나무. [전역] = 모새-남, 모새-낭.

모셋-접시 명 [전역] → 모샛-좁시.

모스다 동 [수산 서홍] → 모시다.

모슬-개[1] 명 <지> ①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 포구. [애월] ② 제주시 애월읍 금성리의 옛 이름. [애월]

모슬-개[2] 명 <지> ①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 포구. [대정] ②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리의 옛 이름. [전역]

모슬개-오름 명 <지> [상모] → 모슬-봉(摹瑟峰).

모슬-봉(摹瑟峰) 명 <지> 서귀포시 대정읍 '모슬개'(모슬포의 옛 이름)에 있는 오름. 조선 때 봉수대가 있었음. 표고 180.5미터. [전역] = 모슬개-오름.

모시 명 <식> 모시-풀. [전역] = 모시-쿨, 모시-풀.

모시-갈기 명 갈색에 흰빛을 띤 갈기. [전역]

모시다 동 모시다. [전역] = 모스다, 뭬시다.

모시-총 명 갈색에 흰 빛을 띤 말총. [전역]

모시-쿨 명 <식>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모시.

모시-풀 명 <식> [수산 가시 김녕] → 모시.

모신딱이 부 *문을 싹 올안 ᄒᆞ난 ᄋᆞ름 때민 모신딱이 나오는 거고.(문을 싹 여니, 여름철이면 모두 나오는 것이고.) [어도] → 문딱.

모아-가다 동 몰려-가다. [전역] = 모여-가다.

모아-오다 동 몰려-오다. [전역]

모양 명 모양. [전역] = 모냥.

모양-데가리 명 [노형 조수 인성] → 모냥-다가리.

모양-사가리 명 [노형 조수] → 모냥-다가리.

모양-사납다 형 [전역] → 모냥-궂다.

모양-상아리 명 [조수 인성] → 모냥-다가리.

모양-읏다 형 [전역] → 모냥-읏다.

모여-가다 동 [전역] → 모아-가다.

모여-다니다 동 몰려-다니다. [전역]

모여-뎅기다 동 모여-다니다. [전역] = 모다-뎅기다.

모여-들다 동 [전역] → 모다-들다.

모욕 명 목욕(沐浴). [전역] = 목간.

모욕-상잔(沐浴床盞) 명 <민> [전역]

→ 상잔.

모욕-ᄒᆞ다 동 목욕-하다(沐浴--). [전역]

모으롱-ᄒᆞ다 형 약간 따스한 느낌이 있다.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모은-침떡 명 <음> 멥쌀·메좁쌀가루에 팥 따위의 소를 넣으며 켜를 지어서 찐 시루떡. [화순 수산 하원] = 모읜-침떡, 모힌-침떡, 무은-침떡.

모의다 형 메-지다. [전역] = 모히다.

모읜- 두 [전역] → 모힌-.

모읜-조 명 [전역] → 모힌-조.

모읜-침떡 명 <음> [전역] → 모은-침떡.

모이다 동 [전역] → 모도다.

모인-돌와리 명 <식> 메조의 일종. [하원]

모인-쏠 명 [수산] → 모힌-쏠.

모인-흰덕리 명 <식> 조의 일종. [영평]

모자레다 동 [전역] → 모지레다.

모저 명 <의> [전역] → 모ᄌᆞ[1].

모-전(牟田) 명 <농> 주로 보리가 잘 되는 밭. *여기가 모전에 비추운 디 주만은 경 잘뒈진 안 ᄒᆞ여.(여기가 '모전'에 비춘 데지만 그렇게 잘되진 않아.) [중문]

모제 명 <의> [전역] → 모ᄌᆞ[2].

모종 명 모종(苗種). [전역] = 메종, 묘종.

모종-내우다 동 <농> [전역] → 묘종-내우다.

모종-터 명 <농> [가시 수산] → 멧-자리.

모지라-지다 동 모지라-지다. 물건의 끝이 닳아서 없어지다. [전역]

모지락-비 명 모지랑-비. 끝이 다 닳은 비. [전역]

모지레기 명 [김녕 조수] → 몽그레기.

모지레다 동 모자라다. [전역] = 모자레다, 모ᄌᆞ라다. 고 모ᄌᆞ라다.

모지리 명 성격이 모진 사람. [용담 함덕]

모지리다 동 무지르다. 여린 물건을 손으로 직접 잘라 끊다. [전역]

모지-알오름 명 <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2리 번영로 남쪽의 '모지오름'의 말굽형 분화구 안에 있는 새알 모양의 작은 오름. 표고 268미터. [성읍]

모지-오름 명 <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2리 번영로 남쪽에 있는 오름. 표고 306미터. [전역] = 무찌-오름.

모지직-ᄒᆞ다 형 한번 먹은 마음이나 뜻을 굳게 다잡는 성질이 있다. [전역]

모질다 형 모질다. [전역] 고 모딜다.

모ᄌᆞ[1] 명 <의> 모자(帽子). [전역] = 모저.

모ᄌᆞ[2] 명 <의> 갓-모자. 갓양태 위의 우뚝 솟은 부분. [전역] = 모제.



모ᄌᆞ[2]

모ᄌᆞ-꼴 명 <도> *나 열싀 설에 친구덜이영 모ᄌᆞ꼴 내부러뒁 바당에 간 힘 베완 즘녀 뒀주.(내가 열세 살에 친구들이랑 '모ᄌᆞ꼴'을 내버려 두고

바다에 가서 수영을 배워서 해녀가 되었지.) [이호] → 모ᄌᆞ-골.
모ᄌᆞ라다 동 [전역] → 모지레다.
모ᄌᆞ-천 명 모자(帽子)의 전. [전역]
모ᄌᆞ-골 명 <도> 갓모자를 결을 때 쓰는 연장의 한 가지. 갓모자의 모양을 잡는 나무로 만들어진 틀. 유리컵 모양인데, 높이 13센티미터쯤이며, 트인 면의 직경은 14센티미터쯤임. [전역] = 모ᄌᆞ-꼴.
모-커리 명 <건> 곁-채. [전역]
모탕 명 <도> [수산 가시] → 몽탕.
모퉁이 명 모퉁이(隅). [전역]
모-필 명 붓. [전역]
모흐로 부 ① 사람이 눈을 바르지 않고 모나게 뜨는 모양. [전역] ② 모자 따위를 바르지 않고 삐뚤어지게 옆으로 쓰는 모양. [전역]
모히다 형 [전역] → 모의다.
모힌- 두 메-. [전역] = 모읜-.
모힌-것 명 쌀이나 좁쌀 따위가 차진 기가 없고 아주 메진 것. [전역]
모힌-쏠 명 차진 기가 없고 아주 메진 쌀. [전역] = 모인-쏠.
모힌-조 명 <식> 메-조. [전역] = 모읜-조.
모힌-좁쏠 명 메-좁쌀. *고소리술은 모힌좁쏠로 고두밥 쪙 누룩 서껑 놧당 고소리에 술 다끄는 거라.(고소리술은 메좁쌀로 고두밥 쪄서 누룩 섞어서 두었다가 술을 고는 것이야.) [전역]
모힌-침떡 명 <음> [어도 조수] → 모은-침떡.
목[1] 명 목(項). [전역]
목[2] 명 [전역] → 목다리[2].
목간 명 [전역] → 모욕.
목간-칩 명 목욕-간(沐浴-). [전역]
목감(牧監) 명 목장 감독. [전역]
목-걸다 동 목-메다. [전역] = 야게-걸다.
목-고냥 명 [전역] → 목-고망.
목-고대기 명 고대. 깃-고대. *목고대기 기냥 ᄆᆞᆯ랑 오그라불믄 헤싸져불거난 굴룬조각으로 안엔 부쪈 영 어퍼네 이거 또 바우로 준 거라.(고대 그냥 마름질해서 오그려 버리면 벌어질 것이니까 굳조각으로 안에는 붙여서 이렇게 엎어서 이것 가장자리로 기운 거야.) [이호]
목-고디 명 [수산 표선 어도] → 모감지.
목고디-꽝 명 [어도] → 목구레-꽝.
목-고망 명 목-구멍. [전역] = 목-고냥, 목-구녁. ㊟목구무, 목쑤무.
목-곧다 형 목-곧다. 어거지가 세어 남에게 호락호락하게 굽히지 아니하다. [전역]
목-구녁 명 [전역] → 목-고망.
목구레-꽝 명 갑상-연골(甲狀軟骨). [전역] = 목고디-꽝.
목그래 명 [광령] → 항정[2].
목-남 명 <식> 목련. [전역]
목-다리[1] 명 [서홍 태흥 조천] → 모감지.
목-다리[2] 명 목. ① 시간적으로 대단히 긴요한 고비. [전역] ② 다른 곳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길의 좁은 곳. [전역] = 목[2], 목자리, 목재기.
목-도레기 명 [노형 오라 삼양] → 목-도로기.

목-도로기 명 돼지를 잡아서 베어 낸 목 부분. [전역] = 목-도레기.
목-도리 명 목-도리. [전역]
목-돈 명 목-돈. [전역]
목동이 명 [전역] → 몽동이.
목두 명 목도. ① 두 사람 이상이 짝이 되어, 무거운 물건이나 돌덩이를 얽어맨 밧줄에 몽둥이를 꿰어 어깨에 메고 나르는 일. [전역] ② 목도할 때 쓰는 둥근 나무 몽둥이. [전역]
목두-질 명 목도-질. [전역]
목-돌아지다 동 목-매달다. [전역]
목말-타다 동 어린아이가 어른의 어깨 위에 올라 목 뒤로 걸터타다. [전역]
목맥이-그물 명 <어> 두 개의 나뭇가지에 매달아 만든 그물. 두 사람이 그물의 나뭇가지를 마주 잡아 갯가 물웅덩이에 가두어진 물고기를 잡는 그물. [삼양]
목맥잇-대 명 '목맥이그물'의 양쪽에 있는 나뭇가지. *새쉐 이끄는 각시광 목맥잇대 잡은 각시안티 잘헴덴 ᄒᆞ는 사름 읏나.('새쉐' 이끄는 각시와 '목맥잇대' 잡은 각시한테 잘한다고 하는 사람 없다.) [삼양]
목-ᄆᆞ르다 형 목-마르다. *(속) 목ᄆᆞ른 놈이 물통 판다.(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 [전역] = 여이다.
목변-악(木邊岳) 명 <지> [성산] → 남케-오름.
목-설메 명 [하원] → 모감지.
목-성군(繆星君) 명 <민> 무성군(繆星君). 수복(壽福)의 신(神)인 북두칠원성군(北斗七元星君)의 하나. 북두무성문곡성군(北斗繆聖文曲星君)의 축약인 '무성군'(繆星君)이 와전(訛傳)된 것. [전역]
목세-낭 명 <식> 팥배-나무. [애월]
목-솜 명 [전역] → 목-숨.
목-수건 명 목-도리. 추위를 막기 위하여 목에 두르는 수건 따위. [전역]
목-숨 명 목-숨. [전역] = 목-솜, 목-슴.
목숨-끈어지다 동 숨-넘어가다. [전역] = 목숨-타지다, 숨-끈어지다.
목숨-타지다 동 [전역] → 목숨-끈어지다.
목쉬 명 목수(木手). [전역]
목-쉬다 동 목-쉬다. [전역]
목쉿-걸이 명 <민> 성주풀이 할 때 강태공 서목수의 목을 걸어 제청으로 끌어들이는 데 쓰는 무명천. [함덕]
목슴 명 [전역] → 목숨.
목ᄉᆞ[1] 명 목사(牧師). [전역]
목ᄉᆞ[2] 명 목사(牧使). [전역]
목-쓸다 형 *저 동네 사름덜이 질 까다롭곡 목쓸어.(저 동네 사람들이 제일 까다롭고 사나워.) [어도] → 목-씰다.
목-씰다 형 하는 짓이 사납고 악하다. *지금이 풀모기 막 목씰 때우다.(지금이 '풀모기'가 마구 사납고 악할 때입니다.) [전역] = 목-쓸다.
목안-새 명 *목안새는 ᄒᆞᆫ 바리가 ᄋᆞ섯 뭇이주.('모관'(牧內) 띠는 한 바리가 여섯 뭇이지.) [봉성] → 모관-새.
목-안지다 동 [전역] → 목-앉다.
목-앉다 동 사람이나 짐승을 붙잡기 위하여 길목에 앉다. [전역] = 목-안지다.

목자리 명 [태흥] → 목다리[2].
목장-밧(牧場-) 명 <농> 마소를 놓아 먹여 기르기도 하고 경작(耕作)하기도 하는 밭. [전역]
목재기 명 [세화 조천] → 목다리[2].
목-줄 명 뜸과 망사리의 테두리를 조금 느슨하게 맨 줄. [전역]
목지기 명 집단 꿩 사냥 때 날아가 숨어 있거나 지친 꿩을 찾아내어 잡는 일을 하는 사냥꾼. [성산 수산]
목-ᄌᆞ르다 동 목을 자르다. [전역] = 목-줄르다.
목-줄르다 동 [전역] → 목-ᄌᆞ르다.
목-차다 형 힘에 부치다. 버겁다. [전역]
목-청 명 목-청. [전역]
목침(木枕) 명 목침. [전역] = 목필[2].
목탕 명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 몽탕.
목필[1](木筆) 명 목필. 연필 [전역]
목필[2] 명 [전역] → 목침.
몬독 명 진애(塵埃). [전역] = 뜨끌, 뜽끌, 띠끌, 티끌.
몬독-불 명 검부러기 따위를 모아 태우는 불. [전역] = 더움-불, 두엄-불.
몬지 명 먼지. [전역] = 구둠, 먼지, 몬지락.
몬지락 명 [전역] → 몬지.
몬착-ᄒᆞ다 형 [태흥 수산 조천] → 몰착-ᄒᆞ다.
몬첨 부 [전역] → 문저.
몯다 동 [전역] → 모도다.
몯-ᄒᆞ다[1] 동 ＊벗 몯ᄒᆞᆯ 사름이여.(벗 못할 사람이다.) [전역] → 못-ᄒᆞ다[1].
몯-ᄒᆞ다[2] 형 [전역] → 못-ᄒᆞ다[2].
몰고사니 명 '몰골'의 낮은말. [인성 서홍 노형 조수] = 몰고생이.
몰고생이 명 [조수 인성 서홍] → 몰고사니.
몰골 명 몰골. [노형 조수 수산 서홍 김녕 가시]
몰그리 명 식물의 줄기. ＊메역도 메역귀 잇고, 가운디 몰그리 잇고, 메역썹 잇고.(미역도 미역귀 있고, 가운데 줄기 있고, 미역잎 있고.) [하도 동복]
몰다 동 [전역] → ᄆᆞᆯ다[2].
몰래 명 [전역] → 몰레.
몰래-물 명 <지> [용담] → 몰레-물②.
몰래물-마을 명 <지> [전역] → 몰레-물②.
몰레 명 모래(沙). [전역] = 모살, 몰래.
몰레-뜸 명 모래-찜. [전역] = 모살-뜸.


몰레뜸

몰레-물 명 <지> ① 제주시 도두2동 바닷가에 있는 물. [전역] ② 제주시 도두2동 바닷가에 있었던 자연마을. [도두] = 몰래-물, 몰래물-마을, 사수-동(沙水洞).
몰레-바당 명 <어> ＊바당에 몰레가 잇는 디를 몰레바당이렌 ᄒᆞ주.(바다에 모래가 있는 데를 모래바다라고 하지.) [하도] → 모살-바당.

몰레-얼리 명 바닷속 모래 사이에 돌이나 암반이 깔려 있는 곳. [사계] = 얼룽이.

몰레-왓 명 모래-밭(沙田). [전역] = 모살-밧, 모살-왓.

몰록-몰록 부 ① 곤장 따위로 사람의 볼기와 같은 살찐 데를 여러 번 힘껏 치는 모양. [전역] ② 몸의 여기저기가 포동포동하게 아주 살찐 모양. [전역]

몰르다 동 모르다. *(속) 드는 중은 알곡, 나는 중은 몰른다.(들어오는 줄은 알고, 나가는 줄은 모른다.) [전역] = 모르다.

몰멩-다리 명 용렬하여 다기지지 못한 사람. [전역]

몰멩-스럽다 형 사람이 용렬하여 다기지지 못해 보이다. [전역]

몰멩-지다 형 [전역] → 몰멩-ᄒᆞ다.

몰멩-ᄒᆞ다 형 사람이 용렬하여 야무지지 못하고 시원찮다. *이번에는 몰멩ᄒᆞᆫ ᄆᆞᆼ생이나 ᄒᆞ나 사겟다.(이번에는 '몰멩ᄒᆞᆫ' 망아지나 하나 사겠다.) *(속) 몰멩ᄒᆞᆫ ᄌᆞ순 조상 지킨다.(미련한 자손이 조상 지킨다.) [전역] = 몰멩-지다, 몰명-지다, 몰명-ᄒᆞ다.

몰명-지다 형 [전역] → 몰멩-ᄒᆞ다.

몰명-ᄒᆞ다 형 [전역] → 몰멩-ᄒᆞ다.

몰싹-몰싹 부 몰씬-몰씬. [전역]

몰싹-ᄒᆞ다 형 몰씬-하다. [전역]

몰아-가다 동 *그 ᄆᆞᆯ덜을 어떵 몰아가코?(그 말들을 어떻게 몰아갈까?) [전역] → ᄆᆞᆯ아-가다.

몰아-대다 동 [전역] → ᄆᆞᆯ아-대다.

몰아-오다 동 *그 아이ᄀᆞ라 몰아오렌 ᄒᆞᆸ서.(그 아이보고 몰아오라고 하십시오.) [전역] → ᄆᆞᆯ아-오다.

몰착-몰착 부 뭉뚝-뭉뚝. [전역]

몰착-ᄒᆞ다 형 뭉뚝-하다. [서홍 노형어도 조수] = 몬착-ᄒᆞ다, 믄착-ᄒᆞ다.

몸 명 몸(體). [전역]

몸-가르다 동 해산-하다(解産--). [전역] = 몸-풀다.

몸-기 명 <민> 위는 삼각형 모양으로 접고 아래는 가운데를 둥글게 도려낸 모양의 종이 깃발. [전역]

몸-곱다 동 미역-감다. [전역]

몸-떵어리 명 [전역] → 몸-뚱아리.

몸-뗑이 명 몸-뚱이. [전역]

몸-뚱아리 명 몸-뚱어리. [전역] = 몸-떵어리.

몸-메 명 몸-매. [전역]

몸-받다 동 <민> 신(神)으로부터 수호의 권능을 전수받다. [전역]

몸살 명 몸살. [전역]

몸-상(-床) 명 <민> 의례(儀禮)의 주신(主神)에게 차려 놓은 제상(祭床). 벽장 위에 따로 차리는 삼승할망상 따위를 이르는 말. [전역]

몸-서리 명 몸-서리. [전역]

몸서리-일다 동 몸서리-치다. [전역]

몸엣-것 명 몸엣-것. 월경으로 나오는 피. [전역]

몸-지 명 <민> 해녀들이 바다의 신인 용왕에게 자신의 안녕과 해산물의 풍성함을 기원하기 위해 바다에 던져 넣을 밥과 계란 등의 제물을 백지에 싼 물건. *지는 집의 수정대로 두 개씩 다 싸. 자기 몸지ᄒᆞ고 요왕지ᄒᆞ고. 펜안ᄒᆞ게 헤도렌게.('지'는

집 식구 수대로 두 개씩 다 싸. 자기 '몸지'하고 '요왕지'하고. 편안하게 해 달라고.) [하도] = 몸-찌.

몸지여-눅다 동 몸져-눕다. [전역] = 몸지여-눕다.

몸지여-눕다 동 [노형 조수 인성 수산 김녕] → 몸지여-눅다.

몸-질 명 잠을 자면서 저도 모르게 몸을 이리저리 뒤집는 행위. [전역]

몸질-치다 동 잠을 자면서 저도 모르게 몸을 이리저리 뒤집다. [전역] = 몸질-ᄒᆞ다.

몸질-ᄒᆞ다 동 [전역] → 몸질-치다.

몸짐-ᄃᆞ스다 형 체온이 따습다. [전역]

몸-집 명 몸-집. [전역]

몸-찌 명 <민> [전역] → 몸-지.

몸천 명 온전한 몸으로서의 육체. *나 들어가난 몸천 무거왕 못 걸어.(나이 들어가니 몸이 무거워서 못 걸어.) [전역]

몸-풀다 동 [전역] → 몸-가르다.

몸-피 명 몸-피. [전역]

몹쓸-놈 명 못되고 고약한 놈. [전역]

몹쓸다 형 하는 짓이나 성미가 사납고 악하다. [전역] = 몹씰다.

몹쓸-짓 명 못되고 고약한 짓. [전역] = 못홀-짓.

몹씰다 형 [조수] → 몹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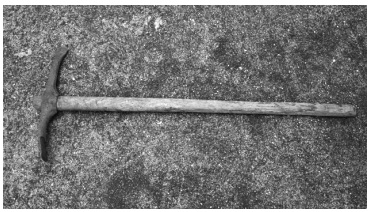
못[1] 명 못(池). [전역]

못[2] 명 못(釘). [전역]

못[3] 명 <농> 조(粟)를 파종하고 나서 일주일 후쯤 못(釘)만큼 조금 자란 조. [소길]

못-고지 명 [인성 서홍 가시] → 닷-공젱이.

못-광이 명 <도> 곡-괭이. [전역] = 못-괭이.



못광이

못-괭이 명 <도> [전역] → 못-광이.

못난-것 명 [전역] → 못난-이.

못난-이 명 못난-이. [전역] = 못난-것.

못뒌-놈 명 '못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전역]

못-빠기 명 <도> 노루발-장도리. [전역] = 못-빼기.

못-빼기 명 <도> [인성 노형 조수] → 못-빠기.

못-장도리 명 <도> 송곳 비슷한, 구멍 뚫는 데 쓰는 연장. [전역]

못-주다 동 못-주다. 벌어진 것을 튼튼하게 고정하려고 못을 박다. [전역]

못질-ᄒᆞ다 동 못질-하다. [전역]

못-ᄒᆞ다[1] 동 어떤 일을 일정한 수준에 못 미치게 하거나, 그 일을 할 능력이 없다. *그 사름 노랜 못ᄒᆞ여.(그 사람 노래는 못해.) [전역] = 몯-ᄒᆞ다[1].

못-ᄒᆞ다[2] 형 비교 대상에 미치지 아니하다. *몸이 옛날만 못ᄒᆞ주.(몸이 옛날만 못하지.) [전역] = 몯-ᄒᆞ다[2].

못홀-짓 명 [전역] → 몹쓸-짓.

몽고지 명 노-손. 노의 손잡이. *요 몽고지 부러지민 한라산에 가시낭이

엇일 말가?(요 노손 부러지면 한라산에 가시나무가 없을 말인가?) [전역] = 몽ᄀᆞ지.

몽그락-붓 명 몽당-붓(--筆). 많이 닳아서 쓰기 어려울 정도로 된 붓. [전역] = 몽근-붓.

몽그레기 명 모지랑이. 오래 써서 끝이 닳아진 물건. [전역] = 모지레기.

몽그리다 동 몽글리다. ① 여러 번 괴로운 일을 당하게 하여 경험을 얻게 하다. *어떵ᄒᆞ든 사름은 몽그려사 ᄒᆞᆫ다.(어떻든 사람은 몽글려야 한다.) [전역] ② 곡식의 까끄라기나 허섭스레기를 떨어지게 하다. [전역]

몽근-놈 명 여러 가지 일을 겪고 많이 나다니며 놀아먹어서 더 될 수 없이 다된 사람을 나삐 일컫는 말. [전역]

몽근-붓 명 [전역] → 몽그락-붓.

몽근-비 명 [전역] → 몽근-비치락.

몽근-비치락 명 몽당-비. [전역] = 몽근-비.

몽글다 동 물건이 너무 쓰이어 다 닳아지고 모지라지다. [전역]

몽ᄀᆞ지 명 *가시낭 몽ᄀᆞ지에 손 터지우젠 날 나싱가.(가시나무 노손에 손 터뜨리려 날 낳았는가.) [전역] → 몽고지.

몽니 명 몽니. [전역]

몽동이 명 몽둥이. [전역] = 목동이.

몽똥-그리다 동 몽똥-그리다. 되는 대로 대강 뭉쳐 싸다. [수산 어도]

몽상-몽상 부 궁싯-궁싯. 잠이 오지 아니하여 누워서 몸을 연신 이리저리 뒤척이는 모양. [전역]

몽창-몽창 부 뭉떵-뭉떵. [전역]

몽케다 동 [전역] → 뭉케다.

몽클 명 <도> 쟁깃-술(犁). 쟁기의 몸 아래로 비스듬히 뻗어 나간 나무. [구좌] = 무클, 묵흔, 뭉콜, 쟁깃-몽클, 쟁깃-무클.

몽클락-ᄒᆞ다 형 몽톡-하다. *부제 밧듸 나는 거 몽클락ᄒᆞᆫ 거 셔.(부자(附子)라고, 밭에 나는 것 몽톡한 거 있어.) [전역]

몽탕 명 <도> 모탕. [김녕 조수 노형 서홍 인성] = 모탕, 목탕.



몽탕

묘 명 [전역] → 메[2].

묘산-악(猫山岳) 명 <지> [전역] → 궤살-미.

묘산-오름 명 <지> [전역] → 궤살-미.

묘제(墓祭) 명 묘제. [전역]

묘종 명 <농> [전역] → 모종.

묘종-내우다 동 <농> 못자리에 모종이 나게 하다. [전역] = 모종-내우다.

묘종-싱그다 동 <농> [전역] → 메-싱그다.

묘종-터 명 <농> [김녕] → 멧-자리.

묘-평(猫坪) 명 <지> [조천] → 고평-동(古坪洞).

못-자리 명 <농> [조수] → 멧-자리.

무-거레 명 무-거래(無去來). 대차(貸借)한 돈이나 주고 받을 물건 값 따

위가 없음. [전역] = 무-거리.
무-거리 명 [전역] → 무-거레.
무걱지 명 [전역] → 무게기.
무겁다 형 무겁다(重). [전역] 고 므겁다.
무게 명 [전역] → 무기[1].
무게기 명 무거리. 곡식 따위를 빻아서 가루를 내고 남은 찌끼. [전역] = 무걱지.
무굴-챙이 명 [가시] → 머굴-챙이.
무글 명 서로 주고받을 물건이나 일 따위를 비겨 없앰. [남원] = 어글, 어기데기, 에글, 에기데기.
무근-성 명 <지> [전역] → 묵은-성.
무기[1] 명 무게(重量). [전역] = 무게.
무기[2] 명 <농> 보리 따위를 심지 아니하고 겨울 동안 놀린 밭에, 봄에 일찍 심는 조(粟). [노형 조수 인성 서홍]
무기[3] 명 <식> 피의 일종. *무기는 고고리가 수룸수룸.('무기'는 이삭이 기름기름.) [송당]
무기-차다 형 [전역] → 무기-ᄎ다.
무기-ᄎ다 형 들거나 저울질하기에 무거울만큼 무게가 있다. [전역] = 무기-차다.
무꾸럭 명 <동> [조수] → 물꾸럭.
무꿍 명 묶-음. [전역]
무꼬다 동 묶다. [전역] 고 뭇다.
무끼다 형 무디다. [전역]
무끼-상어 명 <동> [전역] → 무끼-상의.
무끼-상의 명 <동> 귀-상어. [전역] = 무끼-상어.
무남-제 명 <민> 향나무 가지를 짤따랗게 깨어 두 개씩 메 위에 꽂아 놓은 물건. [전역]
무-낭 명 <동> ① 흑-산호(黑珊瑚). [전역] ② 산호. [전역] = 무누-낭, 무우-낭, 무의-낭, 무히-낭.
무너-나다 동 ① 물러-나다. 꼭 짜인 물건이 벌어지다. [전역] ② 있던 자리에서 뒤나 옆으로 몸을 옮기다. [전역]
무너-사다 동 물러-서다. *경 용기가 어신ᄀ라 앞더레 나사진 못ᄒ고 무너사기만 ᄒ여.(그렇게 용기가 없는지 앞으로 나서지 못하고 물러서기만 해.) [전역]
무너-지다 동 무너-지다. [전역]
무녜-오름 명 <지> [봉개 와흘] → 민-오름[1].
무누-낭 명 <동> [전역] → 무-낭.
무-눈 명 수증기가 딴딴하게 응결하지 아니하여 내리자마자 곧 녹아 버리는 눈. [조수 노형 인성 화순 하원 서홍 대정 광령]
무-놀 명 칼·낫 따위를 옥간 때에 서는 날.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무당 명 무당(巫). [전역]
무더기로 부 [전역] → 무데기로.
무던-ᄒ다 형 무던-하다. [전역]
무데기 명 무더기. [전역]
무데기로 부 무더기로. [전역] = 무더기로.
무두-내 명 <지> [오라 삼양 용강] → 무드-내.
무둥-내기 명 <민> 무동-아기(舞童--). [북촌]
무드-내 명 <지> 제주시 용강동(龍崗洞)과 영평동(寧坪洞)의 옛 이름. 용강동은 '웃무드내'라 하고, 영평동은

'알무드내'라 함. [용강] = 무두-내.

무등-여기 명 장가들어 보지 못한 종. [용담]

무듸-무듸 부 무리-무리. [전역]

무뚱 명 <건> 처마 밑에 신발 따위를 벗어 둘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 보통 마당보다 조금 높게 되어 있음. ＊우리, 무뚱에라도 앚이쿠다.(우리, '무뚱'에라도 앉겠습니다.) [전역] = 문-두, 문-둥.

무라 명 <지> [남원] → 물-우라.

무랏 명 <지> [남원] → 물-우라.

무랏-당 명 <지> [남원] → 물우랏-당.

무러-짱 명 <민> 돼지 허리 부분의 고기. [북촌] = 일룬.

무럽 명 [전역] → 독-ᄆᆞ릅.

무럽장 명 <도> 갓양태를 겯는 대오리를 만들 때 쓰는 연장의 한 가지. 무릎에서 대를 훑어서 다듬을 때 밑에 받치는 가죽으로 만든 무릎받이. [전역]



무럽장

무레-질 명 [수산 김녕] → 물-질[1].

무룩-ᄒᆞ다[1] 형 뭉뚝-하다. [전역]

무룩-ᄒᆞ다[2] 형 수북-하다. ① 살이 찌거나 부어 불룩하게 도드라져 있다. [전역] ② 쌓이거나 담긴 물건이 불룩하게 많다. [전역]

무르-꿔다 동 짓-이기다. [전역]

무르다[1] 동 무르다. 산 물건을 도로 주고 그 값을 찾다. [전역] = 물르다.

무르다[2] 형 무르다. ① 푹 익어 녹실녹실하다. [전역] ② 마음이나 힘이 여리다. [전역]

무르다[3] 형 묽다. [전역]

무르다[4] 형 발정기 암소의 생식기가 물기가 많아서 단단하지 않다. ＊저 쉐 흘레 물렀구나.(저 소 흘레 '물렀구나'.) [하도]

무르레[1] 명 <도> [세화 수산 노형] → 물레[1].

무르레[2] 명 <도> [노형 조수] → ᄇᆞ르는-물레.

무르렛-귀 명 [수산 가시 김녕 노형] → 물렛-귀.

무르렛-바탕 명 [노형 가시 김녕] → 물렛-바탕.

무르렛-살 명 [수산 가시 김녕 노형] → 물렛-살.

무르렛-줄 명 [수산] → 물렛-줄.

무르렛-지동 명 [노형 김녕 가시 수산] → 물렛-지동.

무르렛-ᄌᆞ록[1] 명 [노형 조수] → 물렛-ᄌᆞ록[1].

무르렛-ᄌᆞ록[2] 명 [수산 김녕 노형] → 물렛-ᄌᆞ록[2].

무르에[1] 명 <도> [조수] → 물레[1].

무르에[2] 명 <도> [조수] → ᄇᆞ르는-물레.

무르-쥐다 동 짓무르게 주무르다. 꽉 쥐다. [전역] = 무르-쥐다.

무르-쥐다 동 [전역] → 무르-쥐다.

무륵-ᄒᆞ다 형 무지근-하다. [전역]

무리다 동 생선 따위가 습기나 열로 인하여 떠서 상하다.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물다[3]. 고 므르다.

무린-내 명 생선 따위가 상해서 나는 냄새. [전역]

무변-대웨(無邊大野) 명 <민> 끝이 없는 너른 벌판. [전역]

무사 부 왜. [전역] = 웨[3].

무삼자 명 무산-자(無産者). * 우리 ᄀᆞ뜬 무삼자는 무신 날에 태여난에.(우리 같은 무산자는 무슨 날에 태어나서.) [전역]

무생이 명 <도> 매끼. 뭇이나 단 따위를 묶는 데 쓰는 줄.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께[2], 무세, 무셍이.

무석목 명 <민> 대정현(大靜縣)의 도읍지였던 보성·인성·안성과 정의현(旌義縣)의 도읍지였던 성읍의 성문 앞에 세워졌던 돌하르방으로 알려진 석상. [보성 인성 안성 성읍]



무석목

무석은-땅 명 <농> 띠나 잔디의 삭은 뿌리가 많이 박혀 있어 따비갈이하기에 알맞은 땅. [송당]

무섭다 형 [전역] → ᄆᆞ습다. 고 므싀엽다.

무세 명 <도> [노형 조수] → 무생이.

무셍이 명 [대포 어도] → 무생이.

무수 명 <식> [전역] → 놈삐.

무수-내[1] 명 <지> 제주시 해안동과 도평동을 흘러 외도동으로 흘러가는 내(川). [전역] = 무쉐-내.

무수-내[2] 명 <지> 제주시 해안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무수-체 명 <음> 무-채. [전역]

무쉐 명 무쇠. [전역]

무쉐-내 명 <지> [전역] → 무수-내[1].

무쉐-솟 명 <도> 무쇠로 만든 큰솥. [전역]

무스-거 대 [전역] → 무스-것.

무스-것 대 무엇. [전역] = 무스-거, 무슨-것, 무싱-거, 무엇, 믜신-것.

무슨-것 대 [전역] → 무스-것.

무시다 동 무섭게 여기다. [전역]

무싱-거 대 [전역] → 무스-것.

무ᄉᆞ-ᄒᆞ다 형 무사-하다(無事--). [전역]

무엇 대 [전역] → 무스-것.

무에게 명 [전역] → 무와게.

무에게-낭 명 <식> [전역] → 무와게-낭.

무에다 동 매다. 뿌리째 뽑아내다. * 스무나문 설나문 적읜 입산낭도 무에레 간다.(스무남은 서른남은 적엔 잎이 산 나무도 매러 간다.) [전역]

무에여-지다 동 무너-지다. * 태산이 무에여지영 펭지가 뒌덜 보아나지랴.(태산이 무너지어 평지가 된들 보아나지랴.) [전역]

무-오름[1] 명 <지> [아라 오라] → 민-오름[2].

무-오름[2] 명 <지> [전역] → 믜-오름[1].

무와게 명 무화과나무의 열매. 무화-과(無花果). [전역] = 무에게, 무화.
무와게-낭 명 <식> 무화과-나무. [전역]
무우-낭 명 <동> [전역] → 무-낭.
무-으뜨다 동 ① 붇다. 물에 젖어서 부피가 커지다. [전역] = 물-우뜨다. ② 불리다. 물에 붇게 하다. *쏠 그만 무으떠도 뭰직ᄒᆞ다.(쌀 그만 불려도 됨직하다.) [전역] = 무-으찌다.
무으레 명 [수산] → ᄇᆞ르는-물레.
무-으찌다 동 *지름떡 ᄒᆞᆯ 춥쏠 무으찌라.(기름떡 할 찹쌀을 불려라.) [전역] → 무-으뜨다②.
무은-침떡 명 <음> [인성 서홍 태흥 표선 노형] → 모은-침떡.
무의-낭 명 <동> [가시] → 무-낭.
무장[1] 명 무작정. [전역]
무장[2] 부 무장. 갈수록 더. [전역]
무장-전(無墻田) 명 <농> 주로 들에 있는 밭들로, 담을 둘러 놓지 않은 밭. [중문]
무적-피 명 <식> 피의 일종. [영평]
무정-눈 명 정기가 없는 눈. [전역]
무정-ᄒᆞ다 형 ① 별 탈이 없거나 병이 없다. [전역] ② 남의 사정에 아랑곳하지 않다. [전역]
무제미 명 <도> 마소의 굴레에 딸려서 마소의 아가리 밑에 대어지며 한 끝은 고삐에 연이어 매어지는 짤막한 물건. [노형 조수 인성] = 졸레-석.
무주-에 명 아이의 아비가 누구인지 몰라서 성명을 지어 주지 못하는 아이. [노형 조수 인성 화순 하원 표선 세화] = 무주-의.
무주-의 명 [서홍 태흥 수산 조천] → 무주-에.
무지게 명 <도> 허벅에다 물을 담아 지어 나를 때 어깨에 걸치는 등받이. [전역] = 손-물체.
무지근-ᄒᆞ다 형 무지근-하다. [전역]
무지려-지다 동 무지러-지다. *손으로 영 건드리난 뿔은 그만 무지려지언.(손으로 이렇게 건드리니 뿔은 그만 무지러졌어.) [전역]
무지리다 동 무지르다. [전역]
무짝 부 깨끗-이. 모두. *출 비렌 ᄒᆞ난 자왈이고 뭣이고 그자 간 ᄒᆞ난 무짝 비연.(꼴을 베라고 하니 '자왈'이고 무엇이고 그저 가서 하니 모두 베어서.) [전역]
무찌-오름 명 <지> [성읍] → 모지-오름.
무추룸-ᄒᆞ다 형 [전역] → 물투룸-ᄒᆞ다.
무충-다리 명 총명하지 못한 사람. [전역] = 뭉충-다리.
무충-ᄒᆞ다 형 둔-하다. 무디다. *야원 비오는디 무충ᄒᆞ게 잘도 잠저.(이 아인 비가 오는데 무디게 잘도 잔다.) [전역]
무치다[1] 동 무치다. [전역]
무치다[2] 형 사람이 별로 나다니지 아니하여 물정(物情)에 어둡다. [어도]
무쿰 명 동물이나 사람의 발자국으로 생긴 눈(雪) 고랑. *사농개는 무쿰으로만 내돋주.(사냥개는 '무쿰'으로만 내닫지.) [광령]
무크랑-ᄒᆞ다 형 [김녕] → 멍쿠랑-ᄒᆞ다.
무큰-무큰[1] 부 푹푹 찌는 듯이 무더운 모양. [전역]
무큰-무큰[2] 부 문덕-문덕. *애가 무

큰무큰 그차점저.(애가 문덕문덕 끊어진다.) [전역]

무큰-ᄒᆞ다 형 푹푹 찌는 듯하다. [전역]

무클 명 <도> *보섭 무클에 부친 거라.(보습은 쟁깃술에 붙인 거야.) [조수 영평] → 몽클.

무트로 부 무트로. 한꺼번에 많이. [인성 노형 조수]

무파지ᄃᆞ리-놓기 명 <민> 시왕맞이 따위에서 차사나 영혼이 내리는 길에 떡으로 다리를 놓는 의례. [전역] = 떡ᄃᆞ리-놓기.

무판(貿販) 명 무판. 쇠고기나 돼지고기를 파는 행위. [전역]

무판-쟁이(貿販--) 명 고기 장수. 쇠고기·돼지고기 따위를 파는 사람. [전역]

무판-칩(貿販-) 명 쇠고기·돼지고기 따위를 파는 집. [전역]

무화(無花) 명 [전역] → 무와게.

무화-낭(無花-) 명 <식> [전역] → 무와게-낭.

무히-낭 명 <동> [서홍 수산] → 무-낭.

묵 명 <음> 묵. 도토리, 메밀, 녹두 따위의 앙금을 되게 쑤어 굳힌 음식. [전역]

묵-굴 명 <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닥물오름' 서쪽에 형성되어 있는 동네. [한경]

묵다 동 묵다. [전역]

묵은-귀양 명 <민>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 한참 있다가 벌이는 귀양풀이. [전역]

묵은-날 명 새로 동터 오는 날을 맞이하여 지나가는 날을 일컫는 말. [전역]

묵은-성 명 <지> 제주시 삼도2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 무근-성.

묵은-장 명 묵은-장. 해가 지나서 오래 된 장. [전역]

묵은-장물 명 오래된 간장. *쒜 벌겅케 궝 따시 물에 ᄃᆞᆼ그믄 이것이 막 쎄여. 쎄지 아녀믄 묵은장물 ᄒᆞ영 ᄃᆞᆼ그멍 혜나서.(쇠를 벌겋게 구워서 다시 물에 담그면 이것이 막 세어. 세지 않으면 묵은 간장을 해서 담그면서 했었어.) [이호]

묵은-줄 명 <건> 초가지붕에 묶어 두었던 묵은 줄. [성읍]

묵은-터 명 <지> 제주시 용담3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묵은-해 명 묵은-해(舊年). [전역]

묵이다 동 묵-히다. [전역]

묵-적(-炙) 명 묵을 도막도막 네모지게 썰어서 만든 적. [전역]

묵혼 명 <도> [송당] → 몽클.

문-걸쎄 명 <건> [서홍 수산 가시 김녕 조수] → 문-걸쒜.

문-걸쒜 명 <건> 문-고리. [노형 조수 인성] = 문-걸쎄.

문-걸장(門--) 명 <건> [서홍 인성] → 문-절귀(門--).

문게 명 <동> [전역] → 물꾸럭.

문-골 명 <건> [인성 서홍 수산 가시 김녕] → 문-곳.

문골-도리 명 <건> [인성 서홍 김녕] → 문곳-도리.

문-곳 명 <건> 어리. 문을 다는 곳. [노형 조수] = 문-골.

문곳-도리 명 <건> 문을 다는 곳의 바로 위에 얹혀진 도리. [노형 조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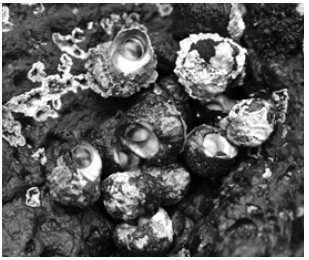
= 네-도리, 문골-도리.

문네 명 문내(門內). 같은 성, 같은 본의 가까운 집안. [전역]

문니난-섭 명 <식> [구좌] → 누룩-낭.

문다닥지 명 <동> [전역] → 문다드리.

문다드리 명 <동> 눈알-고둥. 조간대(潮間帶) 중간층(中間層)에 서식하는 패류의 일종. [전역] = 남자-보말, 돌-보말, 돌-포말, 문다닥지, 문데기, 쒜-보말, 쒼데기.



문다드리

문닥-문닥 부 문덕-문덕. [전역]

문달-문달 부 [전역] → 는작-는작.

문답(問答) 명 문답. [전역]

문-대 명 <민> [전역] = 질-대.

문대다 동 문대다. [전역] = 문데다, 문태다.

문데기 명 <동> [신창 판포] → 문다드리.

문데다 동 [전역] → 문대다.

문-데빙(門--) 명 <건> 윗문지방이 붙게 되는 두 문설주 사이에 가로 끼워 있는 나무. [전역]

문-도(門-) 명 ① 집채에 딸린 문 바깥 처마밑 근처. [전역] ② 방으로 드나들게 된 곳. [전역]

문도지-오름 명 <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남쪽에 있는 오름. 표고 260미터. [상명 저지]

문-두(門-) 명 <건> [노형 조수 인성] → 무뚱.

문-둥(門-) 명 [전역] → 무뚱.

문둥-구제기 명 <동> 껍질의 돌기가 닳아 없어진 성숙한 소라. [하도 이호] = 문둥-구젱이, 민둥-구제기, 민둥-구젱이.



문둥구제기

문둥-구젱이 명 <동> [애월 판포 태흥 이호] → 문둥-구제기.

문둥-누 명 <어> [비양도] → 문둥-절.

문둥-데가리 명 [노형 조수 인성] → 민둥-데가리.

문둥-절 명 <어> 덩어리를 지어 밀려오는 큰 물결. *절로 문둥절 오람저.(저기로 덩어리진 물결이 온다.) [전역] = 문둥-누.

문드럽다 형 매끄럽다. [전역]

문드리다 동 가지고 있던 물건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떨어뜨리거나 잃어버리다. *마당 구석에 콩 서너 방울 문드려시난 걸 봉간 먹엄서.(마당 구석에 콩이 서너 알 떨어져 있으니 그것을 주워 먹고 있어.) [전역]

문들라시 명 <병> 고름을 뺄 입구가 없는 종기. [전역]

문들락-문들락 부 물건이 반드러워 거침없이 자꾸 빠져 나가는 모양. [전역]
문뜩 부 문뜩. [전역] 고 문득.
문-부출(門--) 명 <건> 문-얼굴(門顔). 문-틀. [전역] = 문-푸출(門--).
문석이-오름 명 <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거미오름 서쪽에 있는 낮은 오름. 표고 292미터. [송당 성읍]
문세 명 문서(文書). [전역]
문세-다끄다 동 글월로써 매매 계약이나 소유 관계를 밝히어 기록하다. [전역]
문-악(文岳) 명 <지> [아라 오라] → 민-오름[2].
문어 명 <동> [전역] → 물꾸럭.
문에 명 <동> [전역] → 물꾸럭.
문-입쟁이(門---) 명 <건> 문-설주. [전역] = 문-입젱이(門---).
문-입젱이(門---) 명 <건> [전역] → 문-입쟁이(門---).
문작-문작 부 문적-문적. [전역]
문작-ᄒᆞ다 형 반드럽다. 촉감이 부드럽거나 음식이 잘 삶아져서 으깨어질 정도로 아주 부드럽고 연하다. [전역] = 믄작-ᄒᆞ다.
문장(門-) 명 <건> 문이나 창 따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 [전역]
문전(門前) 명 <민> 마루방의 문(門)을 관장하는 신(神). [전역]
문전-고시(門前告祀) 명 <민> 혼례를 치르는 날 신랑이 신부집에 이르렀을 때에 상방 문앞에서 예장이 든 '홍세함'(납폐함)을 상 위에 올리고 신부측에서 예장을 검토하는 의례. [전역]
문전-비념(門前--) 명 <민> 문전신에 대한 비념. [전역]
문전-시리(門前--) 명 <민> 문전신(門前神)에게 올리는 시루떡. [전역]
문전-제(門前祭) 명 <민> 제사 때 문전에서 지내는 제. [전역] = 문-제(門祭).
문-절귀(門--) 명 <건> 문-빗장(門--).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문-걸장(門--), 문-헹경(門--), 문-휑경(門--).
문-제(門祭) 명 <민> [전역] → 문전-제(門前祭).
문주긋-문주긋 부 뭉그적-뭉그적. [노형 조수 서홍 수산]
문-주두리(門---) 명 <건> [노형 인성 조수 수산 김녕 표선] → 문-지도리(門---).
문죽-문죽 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느리게 움직이는 모양. [조수 인성]
문중(門中) 명 문중. [전역]
문-지기(門--) 명 문-지기. [전역]
문-지도리(門---) 명 <건> 문-지도리. [전역] = 문-주두리(門---), 문-지두리(門---), 주도리, 쥐도리, 지도리, 지두리.
문-지두리(門---) 명 [전역] → 문-지도리.
문지-럽다 형 번드럽다. [전역]
문-지방(門地枋) 명 <건> 문-지방. [전역] = 문-지팡(門地-), 지방[2], 지팡.
문-지팡(門地-) 명 <건> [수산 가시] → 문-지방(門地枋).
문-짝[1](門-) 명 [전역] → 문-착[2](門-).

문짝[2] 부 *메역 ᄒᆞ영으네 놔 뒷당 밤의 가멩이 페왕 문짝 널엉.(미역 해서 놔두었다가 밤에 가마니 펴서 몽땅 널어서.) [전역] → 문딱.
문착[1] 부 문덕. 물건을 싹둑 자르는 모양. *발 심언 ᄃᆞ기난에 데가리가 문착 끊어지어.(발을 잡아서 당기니 대가리가 문덕 끊어져.) [전역] = 물착.
문-착[2](門-) 명 문-짝. [전역] = 문-짝[1](門-).
문착-문착 부 문덕-문덕. [전역]
문척-ᄒᆞ다 형 매끈-하다. *ᄆᆞᆯ정각이렌 ᄒᆞ는 건 문척헤가지고 먹을 것 같질 아녀.('ᄆᆞᆯ정각'이라고 하는 것은 매끈해서 먹을 것 같질 않아.) [하도]
문칠-문칠 부 바닥이 반드러워서 거침없이 자꾸 나가는 모양. *지름떡을 먹어시냐? 문칠문칠 잘혼다.(기름떡을 먹었느냐? 미끈미끈 잘한다.) [전역]
문태다 동 [김녕 어도] → 문대다.
문패(門牌) 명 문패. [전역]
문-푸출(門--) 명 <건> [조천 노형] → 문-부출(門--).
문필-봉(文筆峰) 명 <지> 서귀포시 보목동 앞바다 숲섬에 있는 붓 모양으로 생긴 바위 봉우리. [보목]
문-헹경(門--) 명 <건> [인성 서홍 수산 가시 수산] → 문-절귀.
문-휑경(門--) 명 <건> [김녕] → 문-절귀.
묻다[1] 동 묻다(埋). [전역]
묻다[2] 동 묻다(問). *(속) 묻지 말라 갑ᄌᆞ생.(묻지 마라 갑자생.) [전역]
묻음-사둘 명 <어> 돛대를 이용하여 자리그물을 드리우거나 들어올리는 사둘. [외도]
물 명 물(水). *(속) 물 아레 삼년, 물 우이 삼년.(물 아래 삼년, 물 위에 삼년. 해녀가 해산물을 채취하기 위해서 바다에서 오랜 시간을 바쳐야 하는 괴로운 삶을 표현하는 속담.) [전역] 고 믈.
물- 두 '물기가 많은' 또는 '물렁물렁한'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 [전역]
물가는-바당 명 물살의 영향을 크게 입어 사리 때 물살이 드센 바다. [대포 삼양]
물-감상 명 <민> 새ᄃᆞ림 제차에서 제청의 부정을 정화하기 위하여 준비한 물이 깨끗한지를 보이는 의례. [전역]
물-개 명 <동> 물-개(水狗). [전역]
물-개벡 명 <건> 초벌 위에 마감으로 바르는 새벽. [전역]
물-거꿈 명 [수산] → 물-부글레기. 고 믈거품.
물-것 명 물-것. 사람의 살을 무는 벌레 따위. [전역]
물-게꿈 명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물-부글레기.
물-결 명 [전역] → 절[1]. 고 믌결.
물-고기 명 [전역] → 물-궤기.
물-고랑챙이 명 물-고랑창. [전역] = 물-고랑치, 물-골챙이.
물-고랑치 명 [전역] → 물-고랑챙이.
물-골 명 [전역] → 물-홈.
물-골름 명 <농> 보리 파종을 위하여 어느 정도 땅을 보드랍게 하려고 메마른 논밭에 물을 대어 촉촉히 땅을 적시는 일. [월평]

물-골챙이 명 [전역] → 물-고랑챙이.

물-구덕 명 <도> 물동이를 넣고 지어 다니게 된 대로 만든 조금 큰 바구니. [전역]



물구덕

물구덕-바드렝이 명 <도> 식수를 운반하는 '물구덕' 바닥에 받쳐 얽어 묶어 둔 나뭇가지. [전역]

물-구름 명 비를 몰고 오는 검은 구름. [구억]

물-군벗 명 <동> 조간대(潮間帶)의 상층(上層)에 서식하는 군부의 일종. *물군벗은 솖앙 먹기도 ᄒᆞ곡.('물군벗'은 삶아서 먹기도 하고.) [대포중문]

물-궤기 명 물-고기. [전역] = 물-고기, 물-코기, 물-퀘기.

물-ᄀᆞ 명 [전역] → 물-ᄀᆞᆺ.

물-ᄀᆞ음 명 물-감(染料). [전역] = 물-ᄀᆞᆷ, 물레[3], 물뤠, 물헤.

물-ᄀᆞᆯ다 동 [수산 조수] → 물-ᄀᆞᆯ르다.

물-ᄀᆞᆯ르다 동 우묵한 곳에 물이 고이다. [전역] = 물-ᄀᆞᆯ다.

물-ᄀᆞᆷ 명 [노형 조수] → 물-ᄀᆞ음.

물-ᄀᆞᆺ 명 물-가(水邊). [전역] = 물-ᄀᆞ.

물꾸럭 명 <동> 문어(文魚). [전역] = 무꾸럭, 문게, 문어, 문에, 뭉게.

물꾸럭-ᄀᆞᆯ갱이 명 <도> 문어를 잡을 때 사용하는 호미. [신도] = 뭉게-까꾸리, 뭉게-호맹이.

물꾸루미 부 [조수] → 물끄러미.

물꾸룸-ᄒᆞ다 형 [전역] → 물투룸-ᄒᆞ다.

물-꾼 명 집을 지을 때 토벽(土壁)을 쌓기 위한 흙질에 쓸 물을 지어 나르는 일꾼. [행원]

물끄러미 부 물끄러미. [인성 노형] = 물꾸루미.

물끼 명 [수산 가시] → 물찌①.

물ᄂᆞ리-오름 명 <지> [고산 신도] → 노꼬물-오름.

물다[1] 동 물다. ① 재물을 내어 손해를 갚다. [전역] ② 남을 대신하여 재물을 내다. [전역]

물다[2] 동 물다(咬). [전역] 고 믈다.

물다[3] 동 [수산 김녕] → 무리다.

물-도새기 명 [함덕] → 굴멩이[2].

물-돌다 동 풀이나 죽 따위에 군물이 생기다. [전역]

물-둠비 명 순-두부(-豆腐). [전역]

물-들다 동 <어> 물-밀다. *(속) 물 들어사 곰바리 잡나.(물 들어야 '곰바리' 잡는다. 일이 닥쳐야 실행함을 비난하는 표현.) [전역]

물-독 명 <동> 갈매기. [용수]

물ᄃᆞᆺ은-못 명 <지> [남원] → 순물[1].

물-때 명 <어> 물-때. 아침저녁으로 밀물과 썰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때. [전역]

물-떡 명 <음> 메밀가루 따위로 반달 모양으로 빚어 그 안에 팥소나 무채를 넣어 삶아낸 떡. [노형 어도 인성 송당 서홍 가시]

물뜬-바당 명 조류가 어진 바다. [삼양]
물락-물락 부 ① 물건이 딴딴하지 못하여 물렁물렁한 모양. [전역] ② 물렁물렁한 음식물을 입에 넣고 되씹는 모양. [전역]
물락-ᄒᆞ다[1] 형 물렁-하다. [전역] = 물랑-ᄒᆞ다.
물락-ᄒᆞ다[2] 형 후텁지근-하다. [전역]
물랍-퉤송 명 <민> 문전신에 대한 비념을 한 끝에 물그릇에 각종 제물을 말아 올레에서 숟가락으로 떠 던지며 신을 뒤따르는 잡신을 대접하는 의례. [전역]
물랑-물랑 부 물렁-물렁. [전역]
물랑-ᄒᆞ다 형 [전역] → 물락-ᄒᆞ다.
물러-사다 동 물러-서다. [전역] = 물러-ᄉᆞ다.
물러-ᄉᆞ다 동 [전역] → 물러-사다.
물러-안지다 동 물러-앉다. [전역]
물레[1] 명 <도> 물레(紡車). [전역] = 무르레[1], 무르에[1], 쓰는-물레, 짓는-무르레, 짓는-물레.
물레[2] 명 <도> [인성 김녕 조수] → ᄇᆞ르는-물레.
물레[3] 명 [노형 조수 인성] → 물-ᄀᆞ음.
물렛-귀 명 씨아손에 꿰어져 도는 나무 가락의 양쪽 끝의 휘어진 부분.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무르렛-귀, 씨아싯-귀.
물렛-바탕 명 물레 또는 씨아의 제일 밑으로 깔려져 밑바닥이 된 나무. [서홍 조수 인성] = 무르렛-바탕.
물렛-살 명 씨아손에 꿰어져 돌며 목화씨가 따지게 하는 두 개의 나무.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무르렛-살.
물렛-줄 명 물렛-줄. [서홍] = 께[1], 무르렛-줄.
물렛-지동 명 물레에 도는 바퀴가 앞뒤로 건너질러지게 된 세워진 두 개의 나무. [인성 서홍 조수] = 무르렛-지동.
물렛-ᄌᆞ록[1] 명 물레의 손잡이. [전역] = 무르렛-ᄌᆞ록[1], 물렛-줄리, 물르렛-ᄌᆞ록.
물렛-ᄌᆞ록[2] 명 씨아-손.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무르렛-ᄌᆞ록[2].
물렛-줄리 명 [인성] → 물렛-ᄌᆞ록[1].
물렛-헤ᄌᆞ시 명 물렛손을 물레의 몸에 잇닿게 하는 새에 꿰어진 나무. [인성 서홍]
물려-주다 동 물려-주다. [전역]
물롯 명 <식> [하원 서홍] → 물룻[2].
물-루라 명 <지> [남원] → 물-우라.
물룻[1] 명 <동> 해파리. [애월] = 물-쒜기, 물-어음, 물-우슬, 물-이슬, 물-이시랭이, 물-이실, 물-이실멩이, 미-우설.
물룻[2] 명 <식> 무릇. [전역] = 물롯, 뭇[2]. 고 믈읫.
물뤠 명 [서홍 수산 가시 김녕] → 물-ᄀᆞ음.
물르다 동 [전역] → 무르다[1].
물르렛-ᄌᆞ록 명 [김녕] → 물렛-ᄌᆞ록[1].
물른-대 명 무른-대. *소살대는 막 매운대로 ᄒᆞ엿주. ᄒᆞ꼼 물른대 ᄒᆞ믄 오그라지고 거꺼졍 고기도 못 쏘앙 기냥 들어오곡 ᄒᆞ여나서.(작살대 막 굳은대로 했었지. 조금 무른대로 하면 오그라지고 꺾어져서 고기도 못 쏴서 그냥 들어오고 했었어.) [이호]

물-리다[1] 동 물-리다. * 입에 돈 물리멍 빌믄 좋은 일 신덴 ᄒᆞ여.(입에 돈을 물리면서 빌면 좋은 일이 있다고 해.) [전역]

물리다[2] 동 물리다. ① 정한 날짜를 뒤로 미루다. [전역] ② 재물 따위를 자손들에게 내려 주다. [전역]

물-마갇이 명 <농> 마갇이 파종한 후에 예상 못했던 비가 내림으로써 김이 많이 솟아나 조 농사를 망치게 되는 일. [어도] = 비-마갇이.

물-마께 명 <도> [전역] → 서답-마께.

물마께-낭 명 <식> 물참-나무. [전역]

물마릿-징 명 <농> 농작물에 생기는 병의 이름. 팥이나 녹두 따위가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하나 아무리 삶아도 딱딱 굳은 채로 있는 병. [용담]

물-만촉 명 <동> [인성 어도] → 물-말축.

물-만축 명 <동> [인성 어도] → 물-말축.

물-말축 명 <동> 띠무늬-메뚜기. [노형 김녕 서홍 수산] = 물-만촉, 물-만축.

물맛-시리 명 <식> 조의 일종. [영평]

물-맞다 동 물-맞다. 신경통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높은 데서 떨어지는 물을 맞다. [전역]

물맞-이 명 물맞-이. 신경통 등을 치료하기 위하여 높은 데서 떨어지는 물을 맞는 일. [전역]

물매[1] 명 <건> 지붕에서 비가 쉬 흘러내리게 하기 위한 경사각. [전역]

물-매[2] 명 물-매.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덤벼들어 때리는 매. [전역] = 뭇-매.

물-매기 명 <농> 논밭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조직. [중문] = 답훼.

물-메[1] 명 <도> 돌 따위를 두들겨 쪼개고 하는 쇠로 된 큰 방망이. [전역]

물-메[2] 명 <지> ①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 북서쪽 일주도로변에 있는 오름. 조선 때 봉수대가 있었음. 크게 가물었을 때 기우제(祈雨祭)를 지내던 곳임. 표고 121.5미터. [전역] = 물메-오름, 물미[1], 수산-봉(水山峰). ② 제주시 애월읍 수산리의 옛 이름. [애월 수산 하귀]

물-메[3] 명 <지>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 1리의 옛 이름. [수산 성산 표선] = 물-미[2].

물-메[4] 명 [세화] → 냇-건데기.

물메-오름 명 <지> [전역] → 물-메[2].

물-멧 명 [노형] → 냇-건데기.

물-멩지 명 <민> 좋은 명주. 수아-주(水禾紬). [전역]

물-미[1] 명 <지> [전역] → 물-메[2].

물-미[2] 명 <지> [전역] → 물-메[3].

물-바당 명 물-바다. [전역]

물-바르 명 <동> 전복의 새끼. [신촌 삼양]

물-박 명 <도> 물-바가지. [전역] = 물-박세기.

물-박세기 명 <도> [전역] → 물-박.

물박-퉤송 명 <민> 물바가지에 집안의 온갖 먹을거리를 담아 잡신이 물러나기를 기원하는 작은 의례. [전역]

물-방석 명 <동> [서홍 가시] → 가마귀-방석.

물-배 명 <도> 물동이를 등에 지는 데

쓰는 참바 따위. [전역]

물-벌룽이 명 <어> 밤에 고기가 노닐 때 충격을 주어 고기들이 일시에 달아나려고 할 때 빛을 받아 생기는, 벌겋게 벌룽거리는 물결. *바닷물은 여름에 보믄 벌룽벌룽 막 ᄒᆞ여. 벳바닥 퉁 치믄 멜이 시믄 바당이 뻘겅ᄒᆞ여. 것ᄀᆞ라 물부살이라고, 물벌룽이라고 헤서.(바닷물은 여름에 보면 벌룽벌룽 막 해. 배의 바닥 퉁 치면 멸치가 있으면 바다가 뻘개. 그것보고 '물부살'이라고, '물벌룽이'라고 했어.) [이호] = 물-부살.

물-베록 명 <동> 파래나 미역 따위에 붙어 사는 해충. 숭어의 먹이로 쓰임. [하도 행원 보목]

물-베염 명 <동> 물-뱀. [전역]

물-보리 명 물-보리. 아직 충분히 여물지 않아 물기가 많은 보리. *물보리 열 말썩은 짊으쿠다.(물보리 열 말씩은 찧겠어요.) [전역]

물-부글레기 명 물-거품(水泡). [전역] = 물-거꿈, 물-게꿈.

물-부리 명 물-부리. [전역] = 물-졸리, 물-초리, 물-촐리, 뿔-족, 뿔-치.

물-부살 명 <어> [이호] → 물-벌룽이.

물-부주 명 <민> 물-부조. 제주도에서 상수도 시설이 되기 전에 있었던 풍속으로, 이웃에 경조사가 생기면 부조의 개념으로 물동이를 이용해서 물을 길어다 주던 품앗이의 일종. [전역] = 물-부지.

물-부지 명 <민> [전역] → 물-부주.

물-붓 명 <도> 대나무로 만든 자루를 여러 갈래로 쪼개고, 그 사이에 돼지 털로 만든 붓털을 끼워 실로 단단하게 묶어 만든 붓. [전역] = 춤-붓.

물-비리 명 <병> 옴. [전역]

물-ᄇᆞ라 명 <지> [남원] → 물-우라.

물-살 명 물-살(水-). [전역]

물색 명 <민> 당에 내거는 색깔 있는 천이나 백지 따위. [전역]



물색

물색-옷 명 <의> 색깔-옷. *상젠 물색옷 안 입나.(상주는 색깔이 있는 옷을 입지 않는다.) [전역]

물-수건 명 <의> 해녀가 무자맥질해서 작업할 때 쓰는 하얀 수건. 무자맥질할 때 머리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고 따스하게 감싸주며, 집과 바닷가 사이를 드나들 때에는 햇볕을 가려 줌. 무명이나 광목으로 만들어지며, 대체로 폭 30센티미터, 길이 80센티미터임. [전역] = 수건[2].



물수건

물-숨 명 <어> 해녀들이 깊은 바닷물 속으로 무자맥질해서 해산물을 캐는 동안에 참는 숨. [전역]
물-쉐 명 <동> 물-소. [전역]
물-싸다 동 물-써다(退潮). [전역]
물싹-물싹 부 물씬-물씬. [전역]
물싹-ᄒᆞ다 형 물씬-하다. [전역]
물-쎄다 동 몹시 목이 말라서 물을 많이 마시다. [전역]
물-쏘곱 명 물-속. [전역]
물-쒜기 명 <동> *바당에 가믄 물쒜기 쏜다. 조심ᄒᆞ라.(바다에 가면 해파리가 쏜다. 조심해라.) [전역] = 물룻[1].
물-아기 명 낳은 지 얼마 안 되어 몸이 굳지 않은 아이. [전역] = 물-애기.
물-알 명 바닷-속. [전역]
물알-듬북 명 <식> 썰물에도 물 아래에 있는 '듬북'. [행원]
물-암지 명 조류의 영향에서 벗어나 몸을 의지할 수 있는 곳. [마라도]
물-애기 명 [전역] → 물-아기.
물어-내다 동 물어-내다. 마땅히 치러야 할 물건이나 돈을 내놓다. [전역]
물어-놓다 동 물어-넣다. [전역]
물-어음 명 <동> [가시] → 물룻[1].
물어-주다 동 물어-주다. 남의 물건에 입힌 손해에 대하여, 그만한 돈이나 물건으로 갚아 주다. [전역]
물어-튿다 동 물어-뜯다. [전역]
물에 들다 구 <어> 해녀들이 해산물을 캐기 위하여 바다에서 무자맥질하다. [전역]
물에-질 명 [전역] → 물-질[1].
물엣-거 명 해산-물. [전역]
물-여물 명 물-알. 덜 여문 곡식의 알. [전역] = 물-으물.
물-영아리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북서쪽 남조로(南朝路) 연변에 '옵은영아리'와 이웃한 오름. 표고 508미터. [전역] = 수령-산(水靈山).
물-오르다 동 물-오르다. 봄철이 되어 나무에 물기가 오르다. [노형 조수 인성 서홍]
물-오름[1] 명 <지> 한라산 동쪽 횡단도로의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의 경계에 있는 오름. 표고 839미터. [전역]
물-오름[2]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한라산 횡단도로 동쪽에 있는 오름. 표고 474미터. [전역] = 수-악(水岳).
물-올랭이 명 <동> 바다-오리. [전역]
물-옷 명 <의> 물-옷. [전역]
물-왓 명 비가 조금만 와도 물이 잘 괴는 밭. [전역]
물-우뜨다 동 [전역] → 무-으뜨다①.
물-우라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의 옛 이름. [남원] = 무라, 무랏, 물-루라, 물-ᄇᆞ라.
물우랏-당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 있는 당. [남원] = 무랏-당.
물-우미 명 캐내어서 아직 말리지 않은 우뭇가사리. [전역] = 수-초.
물-우슬 명 <동> [노형] → 물룻[1].
물-웨 명 <식> 물-외. [전역]
물-이슬 명 <동> [조수 수산] → 물룻[1].
물-이시랭이 명 <동> [행원] → 물룻[1].
물-이실 명 <동> [인성 서홍 수산] → 물룻[1].



물웨

물-이실멩이 명 <동> [김녕] → 물룻[1].

물-우물 명 [전역] → 물-여물.

물자리 명 <동> [태흥 표선 수산] → 밥주리[3].

물-잣 명 <지> [전역] → 검은-오름[2].

물-장 명 <음> 간장(-醬). [전역] = 군장.

물-장오리 명 <지> 제주시 봉개동 한라산 횡단도로의 수장교(水長橋) 서남쪽 국립공원에 있는 오름. 울창한 천연림에 둘러싸인 둘레 약 1500미터의 산정 화구(山頂火口) 안에 호수가 있음. 예로부터 신앙상의 성소(聖所)로서 치성을 드리던 곳으로, 가뭄이 심했을 때의 기우처(祈雨處)이기도 함. 표고 937미터. [전역] = 물-장우리, 수-장올(水長兀).

물-장우리 명 <지> [전역] → 물-장오리.

물잴 명 <동> [조천] → 밥주리[3].

물-졸리 명 [수산 김녕] → 물-부리.

물죽은-바당 명 <어> 물살의 영향을 덜 받아 사리 때에도 물살이 드세지 않은 바다. [대포]

물지 명 *삼월 보름 물지엔 물 잘 싸난 동네 사름덜이 문딱 반찬ᄒᆞ레 바릇 ᄂᆞ려가 부난.(삼월 보름 무수기엔 물이 잘 써니 동네 사람들이 모두 반찬하려고 바다에 내려가 버리니.) [대정] → 물찌①②.

물-진섭 명 <식> 좀깨잎-나무. [전역]

물-질[1] 명 <어> 해녀가 바다 속에 들어가서 해산물을 채취하는 일. *그 ᄌᆞ손이 ᄀᆞᆫ 난 땐디 어린 애기 때라, 멧 ᄃᆞᆯ쯤 퉨 때 구덕에 눅전 놔 두면 어머니가 물질이나 어디 갓당 오며는 자주 돌앙 눠.(그 자손이 방금 태어난 때인데 어린 아기 때야, 몇 달 쯤 된 때 '애기구덕'에 눕혀 놓아 두면 어머니가 물질이나 어디 갔다가 오며는 자주 돌아누워.) [전역] = 무레-질, 물에-질.

물-질[2] 명 물-길(水路). [전역]

물찌 명 ① 무수기. 날짜에 따른 조수(潮水)의 간만(干滿)을 일컬음. *(속) 삼월 보름 물찌에 도독질 생각나민 집에 든다.(삼월 보름 무수기에 도둑질 생각나면 집에 든다.) *(속) 삼월 보름 물찌엔 하우장 각시 책갑 경 나산다.(삼월 보름 무수기에는 하우장 각시 책갑 지어 나선다.) [전역] = 물끼, 물지. ② 조수 간만(潮水干滿)의 차가 큰 물때. [전역] = 물지.

물착 부 [전역] → 문착[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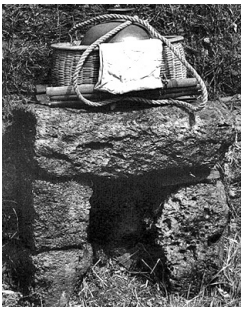
물-찻 명 <지> [가시 교래 아라] → 검은-오름[2].

물-창 명 물-밑(水底). [전역]

물-초리 명 [노형 조수 인성] → 물-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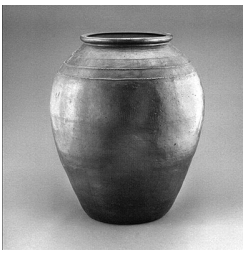
물-출리 명 [서홍] → 물-부리.

물-춤 명 <어> 만조(滿潮) 때의 잔잔한 물살. [우도]
물캉 부 물컹. [전역]
물케 명 <동> *송애기 물케 제우민 죽주.(송아지는 '물케' 겨우면 죽지.) [행원] → 부구리.
물-코 명 물-꼬. [전역]
물-코기 명 [전역] → 물-궤기.
물-쿼기 명 [전역] → 물-궤기.
물탁-ᄒᆞ다 형 [전역] → 물트락-ᄒᆞ다.
물터진-골 명 <지> [조천] → 물터진-굴.
물터진-굴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와흘1리의 옛 자연마을. [조천] = 물터진-골, 수기-동(水基洞).
물-토새기 명 <동> *물토새기 엿날 일름이 굴멩이라.(군소의 옛날 이름이 '굴멩이'야.) [전역] → 굴멩이[2].
물-톳 명 <동> *물톳은 영 꺼문 것에 흰 줄 이신 궤기라.(감성돔은 이렇게 검은 것에 흰 줄이 있는 고기야.) [하도] → 감은-돔.
물-통 명 물-통. 우물. [전역]
물투룩-ᄒᆞ다 형 [전역] → 물투룸-ᄒᆞ다.
물투룸-ᄒᆞ다 형 찌무룩-하다. 마음이 시무룩하여 유쾌하지 아니하다. [전역] = 무추룸-ᄒᆞ다, 물꾸룸-ᄒᆞ다, 물투룩-ᄒᆞ다.
물트락-ᄒᆞ다 형 살찌다. 통통-하다. [전역] = 물탁-ᄒᆞ다.
물-파다 동 우물을 파다. [도두]
물-파리 명 <식> [서홍] → 도체비-낭.
물-판 명 <도> 물붓으로 글자를 익히던 널빤지. [전역]
물-팡 명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를 올려 넣어 두는 대(臺). [전역]



물팡과 물허벅

물팡-돌 명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를 올려 넣어 두는 대(臺)가 되게끔 놓은 돌. [전역]
물페기 명 <동> ① 살무사(殺母蛇). [전역] ② 남을 잘 물어뜯는 사람에게 붙이는 별명. [전역]
물-펜 명 <음> 물에 삶은 도래떡. [용담]
물푸레-낭 명 <식> [수산 가시] → 물ᄑᆞ레-낭.
물ᄑᆞ레-낭 명 <식> 물푸레-나무. [전역] = 물푸레-낭.
물-하님 명 물-어미. 물 긷는 일을 맡아 하는 여자 하인. [전역]
물하레비-낭 명 <식> 중대가리-나무. [토평]
물-항 명 <도> 물-독(-瓮). [전역]



물항

물항-굽 명 물독이 놓여 있는 그 밑바닥. [전역]
물항-뒤 명 물독이 놓여 있는 자리의 뒤쪽. [전역]
물-허벅 명 물을 긷는 데 쓰는 허벅. [전역]
물헤 명 [조수] → 물-ᄀᆞ음.
물-홈 명 물-곬. 물이 흘러 빠져나가는 작은 도랑. [전역] = 물-골.
물홈-치다 동 물이 흘러 나갈 길을 내어 파다. [전역]
뭇[1] 명 ① 생선 따위 열 마리를 한 단위로 세는 데 쓰는 말. [전역] ② 건조한 미역을 세는 최소 단위인 '낭' 12개를 하나로 묶은 것. [행원]
뭇[2] 명 <식> [하도 동복 행원] → 물뭇[2].
뭇다[1] 동 단체나 동아리를 꾸미다. [전역]
뭇다[2] 동 맺다(結). [표선]
뭇-매 명 [수산 김녕] → 물-매[2].
뭉 명 의뭉. [전역]
뭉갈-뭉갈 부 살이 찌고 통통한 사물이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양. [전역]
뭉갈뭉갈-ᄒᆞ다 동 살쪄서 통통한 사물이 이리저리 움직이다. [전역]
뭉개다 동 다른 물체에 물건을 대고 이리저리 문대다. [전역] = 뭉게다.
뭉게 명 <동> [수산 세화 남원] → 물꾸럭.
뭉게-까꾸리 명 <도> [성산 고성] → 물꾸럭-굴갱이.
뭉게다 동 [전역] → 뭉개다.
뭉게-삼봉 명 <도> 문어를 잡을 때 쓰이는 낚시. [우도]
뭉게-호맹이 명 <도> [함덕] → 물꾸럭-굴갱이.
뭉그-지르다 동 뭉그-지르다. [전역]
뭉뚱-그리다 동 [전역] → 뭉퉁-그리다.
뭉-부리다 동 이치에 어긋난 일인데도 억지를 쓰며 버티다. [전역] = 뭉-쓰다.
뭉-쓰다 동 [전역] → 뭉-부리다.
뭉충-다리 명 [수산] → 무충-다리.
뭉케다 동 구무럭거려 천천히 움직이다. [어도 조수 인성 화순 하원] = 몽케다, 뭉케다.
뭉크락-ᄒᆞ다 형 [노형 조수 인성] → 멍쿠랑-ᄒᆞ다.
뭉크랑-ᄒᆞ다 형 [어도] → 멍쿠랑-ᄒᆞ다.
뭉탕-뭉탕 부 뭉텅-뭉텅. 채소 따위가 토막토막 잘리거나 끊어지는 모양. [전역]
뭉텡-이 명 뭉텅-이. [전역] = 뭉퉁-이.
뭉퉁-그리다 동 뭉뚱-그리다. [전역] = 뭉뚱-그리다.
뭉퉁-이 명 [서홍 수산] → 뭉텡-이.
뭍 명 뭍(陸). [전역]
뭬시다 동 [노형 조수 김녕] → 모시다.
뭬오리 명 [대정] → 돗궹이.
뭬우다 동 [전역] → 모도다.
-므로 어미 -므로.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까닭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전역]
-믄 어미 -면. ＊히당 버치믄 갈라졍 하늘 보멍 쉬당 또시 히영 오믄 뒈주기.(헤엄치다 부치면 드러누워 하늘을 보며 쉬다가 또다시 헤엄쳐 오면 되지.) ＊처녀 늙어가믄 ᄀᆞ래착지엉 산더레 오른다.(처녀가 늙어가면 맷돌짝을 지고 산으로 오른다.)

[전역]

믜다 동 미다(禿). [전역]

믜신-것 대 [전역] → 무스-것.

믜-오름[1] 명 <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 있는 오름. 표고 496미터. [전역] = 개-오름[3], 무-오름[2], 미-오름, 술-악(戌岳).

믜-오름[2] 명 <지> [아라 오라] → 민-오름[2].

믜죽-이 부 [전역] → 메죽-이.

믠작-믠작 부 [전역] → 멘작-멘작.

미[1] 명 무. 웃옷의 좌우에 대는 딴 폭. [전역]

미[2] 명 참억새의 꽃이 채 나오기 전에 그것을 싸고 있는 껍질. [전역]

미[3] 명 <동> [전역] → 해숨. 고 믜.

미국-나팔꽃 명 <식> 능소-화(凌宵花). 능소화-나무(凌宵花--) [오라]

미꼬라지 명 <동> 미꾸라지. [전역] = 미꼬레기.

미꼬레기 명 <동> [인성 하원 화순] → 미꼬라지.

미-꾸셍이 명 [노형] → 미-삐쟁이.

미끄럽다 형 미끄럽다. [전역] = 민지럽다, 민치럽다. 고 밋그럽다.

미끈-미끈 부 미끈-미끈. [전역]

미나기 명 <식> [노형 조수] → 미내기.

미나리 명 <식> [전역] → 미내기.

미내기 명 <식> 미나리(芹). [전역] = 미나기, 미나리, 미네기. 고 미나리.

미네기 명 <식> [서홍 김녕 조수] → 미내기.

미녕 명 무명(木棉布). [전역] = 미명.

미녕-똥 명 <동> 일곱동갈-망둑. 망둑엇과에 딸린 바닷물고기. [사계]

미녕-소중의 명 <의> 무명으로 만든, 여자가 속에 입는 고쟁이. [전역] = 미명-소중이.

미녕-씰 명 무명-실(木棉絲). [전역]

미늘 명 미늘(鉤距). [전역] = 낙시-공젱이, 비늘[2]. 고 미늘.

미다 동 미다. 따돌리고 멀리하여 업신여기다. [전역]

미더-ᄒᆞ다 동 마음에 믿음성 있게 여겨져 안심하다. [전역] = 미두-ᄒᆞ다.

미덥다 형 미덥다. [전역]

미두-ᄒᆞ다 동 [조수 수산 김녕] → 미더-ᄒᆞ다.

미-똥 명 해삼의 똥. [신창]

미-똥쟁이 명 <동> 어린 해삼. [표선]

미랑-ᄒᆞ다 형 물기가 많아서 아주 물렁하다. [전역]

미러 부 한꺼번에. 모두. [전역]

미럭-돌 명 <민> 미륵(彌勒) 모양의 돌. [전역]

미럽다 형 물건의 겉이 울퉁불퉁하지 않고 미끈하다. [전역]

미레깃-대 명 <도> 밀-대. 떡을 할 때 반죽을 밀어 납작하게 하는 막대기. [전역]

미련-ᄒᆞ다 형 미련-하다. [전역]

미르세 부 [전역] → 미리[2].

미릇 부 [전역] → 미리[2].

미리[1] 명 [전역] → 용.

미리[2] 부 미리(豫). [전역] = 미르세, 미릇.

미리-내 명 은하-수(銀河水). [전역] = 미릿-내, 은하-수.

미리에기-삼성제 명 <민> 파도의 신. [전역]

미리-헤치 명 용-띠. [전역]
미릿-내 명 [대정] → 미리-내.
미마 명 [노형] → 머마-줄.
미명 명 [태흥 인성] → 미녕.
미명-소중이 명 <의> ＊질삼밧 늙은인 죽언 보난 미명소중이가 아옵이고, 줌녀(潛女) 늙은인 죽언 보난 일곱 애비아덜이 들르는 도곰수견이 ᄒᆞ나인다.(길삼밭 늙은이는 죽어서 보니 '무명소중이'가 아홉이고, 해녀 늙은이는 죽어서 보니 일곱 아버지, 아들이 드는 '도곰수견'이 하나이다.) [전역] = 미녕-소중의.
미미-ᄒᆞ다 형 미미-하다. [전역]
미-삐쟁이 명 참억새의 줄기 끝에 이삭 모양으로 핀 기다란 꽃. [전역] = 미-꾸셍이, 미-우젱이.



미삐쟁이

미수련-ᄒᆞ다 형 형상(形狀)이 턱지거나 울룩불룩하지 않고 밋밋하다. [전역]
미슥-거리다 형 메스껍다. [전역]
미시근-ᄒᆞ다 형 [서홍 수산 김녕] → 미지근-ᄒᆞ다.
미아돌-놈 명 '이놈의 아들놈'이란 말이 줄어서 된 말. [전역]
미악-산(米岳山) 명 <지> [전역] → 술-오름.
미여-불다 동 버리다. 지연-되다. ＊오꼿 ᄒᆞ루 일은 미여불지 안헤수꽈?(그만 하루 일은 버리지 않았습니까?) [전역]
미여이-ᄒᆞ다 동 [전역] → 미워-ᄒᆞ다.
미여지-금대죽 명 <민> 수수. [전역]
미여지-벵뒤 명 아무 거침없이 트인 널따란 벌판. [가시 김녕 조수]
미역-국 명 <음> [전역] → 메역-국.
미역-바당 명 <어> [전역] → 메역-바당.
미역-새 명 <식> [화순] → 메역-새.
미역-치 명 <동> 미역-치. [서홍 수산 김녕 조수] = 메역-치, 멩치[1].
미-오름 명 <지> [동광 광평 봉성 안덕] → 믜-오름[1].
미-왑 명 <음> 쌀-밥. ＊청감주에 미왑을 줌안 웃인 부뮈 셍각을 ᄒᆞ난.(청감주에 쌀밥을 말아서 없는 부모 생각을 하니). [전역]
미-우설 명 <동> [조수] → 물룻[1].
미-우젱이 명 [태흥 노형 조수 어도] → 미-삐쟁이.
미운-놈 명 특별히 밉게 여겨지는 사람. [전역]
미워-ᄒᆞ다 동 미워-하다. [전역] = 미여이-ᄒᆞ다.
미위 명 <도> [조수] → 밀추.
미음 명 <음> 미음(米飮). [전역]
미-쟁이 명 [조수 어도] → 앙토-쟁이.
미-죽다 형 ① 사람이 숫기가 없다. ＊자원 너미 미죽언 걱정뒈신게.(저 아이는 너무 숫기가 없어서 걱정되는군.) [전역] ② 사람이 똑똑하지 못하다. 미련-하다. [전역]

미지[1] 명 [서홍 수산] → 밀추.

미지[2] 명 삶은 닭의 꽁무니 부분. ＊신랑상에 특별히 올라가는 것이 독 미지라고. 저 조름에 이신 거.(신랑상에 특별히 올라가는 것이 닭 '미지'라고. 저 꽁무니에 있는 것.) [이호 조수]

미지근-ᄒᆞ다 형 미지근-하다.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미시근-ᄒᆞ다.

미취 명 물건 가운데 제격에 들지 못하는 보잘것없는 것. [노형]

미치광-이 명 미치광-이. [전역] = 미치-팽이.

미치괭-이 명 [전역] → 미치광-이.

미치다[1] 동 미치다(狂). [전역]

미치다[2] 동 미치다(及). ① 목표한 지점에 이르다. [전역] ② 뒤쫓아 그의 위치에 이르다. [전역]

미-친 명 [전역] → 매-큰.

미투리 명 미투리. 밭벼나 벼의 열매가 달렸던 줄기만으로 신울을 따로 비벼 끼워 곱게 만든 짚신. [건입 노형 조수] = 승매-신, 싱매-신.

미-호미 명 [어도 수산 인성 화순] → 메-호미.

민 조 면. 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서, 가정적인 사실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민 어미 -면.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나 말 ᄀᆞᆯ으민 거짓말이옌 ᄒᆞᆯ 거우다.(내가 말을 하면 거짓말이라 할 겁니다.) ＊반 테우젠 ᄒᆞ민 재우지랑ᄒᆞᆫ 사름이라사 ᄒᆞ여.(반기를 나누려면 좀 잽싼 사람이라야 해.) [전역] = -면.

민-걸 명 <어> 바다 속에 있는 편평한 바위. [대포]

민게 명 [조수] → 핑게.

민데가리-동산 명 <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남쪽 한라산 국립공원의 웃세오름 북쪽 등성마루에 있는 작은 오름. 표고 1601미터. [전역]

민둥-구제기 명 <동> [고산 용당] → 문둥-구제기.

민둥-구젱이 명 <동> [하귀 이호] → 문둥-구제기.

민둥-데가리 명 '민머리'의 낮은말. [전역] = 문둥-데가리, 호박-데가리.

민둥장-멸 명 <농> 크기가 큰 자갈돌. [영평]

민-물 명 민-물(淡水). [전역] = 든-물.

민물-사위 명 <동> [인성 김녕 조수] → 민물-새위.

민물-새위 명 <동> 민물에 사는 새우. [전역] = 민물-사위.

민물-장의 명 <동> 뱀-장어. [전역] = 든물-장의.

민악-산(敏岳山) 명 <지> [전역] → 민-오름[5].

민어 명 <동> [전역] → 민에.

민에 명 <동> 민어(民魚). [전역] = 민어.

민-오름[1] 명 <지> 제주시 봉개동 절물오름 북동쪽에 이웃한 오름. 표고 651미터. [전역] = 무녜-오름.

민-오름[2] 명 <지> 제주시 오라동 연미 남쪽에 있는 오름. 북록에 십이지사(十二志士)가 비밀결사를 맺어 항일 광복 투쟁을 다짐하던 조설대(朝雪

臺)가 있음. 표고 252미터. [전역] = 개-오름[2], 무-오름[1], 문-악(文岳), 믜-오름[2].

민-오름[3]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와 교래리의 경계, 산굼부리 북쪽에 있는 오름. 표고 518미터. [전역]

민-오름[4] 명 <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송당목장 남동쪽에 있는 오름. 표고 362미터. [전역]

민-오름[5]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남조로변의 충혼묘지 서쪽에 있는 오름. 표고 447미터. [전역] = 민악-산.

민오름-알봉 명 <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민오름 남동록에 딸린 새알 모양의 작은 봉우리. 표고 272미터. [성읍 송당]

민옥 명 면옥(面玉). 관옥(冠玉). [전역]

민지럽다 형 [전역] → 미끄럽다.

민질-민질 부 매끈-매끈. [이호]

민질민질-ᄒᆞ다 형 매끈매끈-하다. * 돔박낭이 씨기도 ᄒᆞ지만 다일수록 민질민질 ᄒᆞ니까.(동백나무가 강하기도 하지만 닳아질수록 매끈매끈하니까.) [전역]

민짝-ᄒᆞ다 형 미끈하고 평평하다. * 아주 민짝ᄒᆞ고 곧작 올라간 오름이여.(아주 평평하고 곧게 올라간 오름이다). [전역]

민치럽다 형 [전역] → 미끄럽다.

믿마구리 명 <동>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 믿마구리-오징어.

믿마구리-오징어 명 <동> 갑-오징어.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가시] = 메마구리-오징에, 멩마구리[1], 멩마구리-오징어, 믿마구리.

믿음-성 명 믿음-성. [전역]

믿음직-ᄒᆞ다 형 믿음직-하다. [전역]

밀[1] 명 <어> 밀랍(蜜蠟). 해녀들이 작업할 때 바닷물이 귀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귀를 막는, 꿀찌끼를 끓여 짜낸 기름. 밀을 구하기 어렵게 되자 근래에는 껌과 약솜을 섞어서 만들어 대용으로 쓰기도 함. [전역]

밀[2] 명 <식> 참-밀(小麥). [전역]

밀-개오리 명 <동> 싯근-가오리. [전역]

밀고(密告) 명 밀고. [전역]

밀-ᄀᆞ루 명 [전역] → 밀-ᄏᆞ를.

밀-ᄀᆞ를 명 [전역] → 밀-ᄏᆞ를.

밀꾸루시 부 정신없이 한곳만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는 모양. [수산 김녕 서홍]

밀-남뎅이 명 '밀짚'의 낮은말. [전역] = 밀-낭깨기, 밀-낭뎅이.

밀낭[1] 명 <식> 파래보다 조금 큰 해조류의 일종. [보목]

밀-낭[2] 명 밀-짚. [전역] = 밀-찍, 밀-찝.

밀-낭깨기 명 [전역] → 밀-남뎅이.

밀-낭뎅이 명 [노형 조수] → 밀-남뎅이.

밀낭-페렝이 명 밀짚의 속대로 엮어서 만든 농립(農笠)의 한 가지. [전역] = 밀찝-페렝이.

밀다[1] 동 ① 지우다. [전역] ② 깎다. * 동산 밀어 불엇저.(동산을 깎아 버렸어.) [전역]

밀다[2] 동 밀다. ① 뒤에서 힘을 주어 앞으로 나가게 하다. [전역] ② 빤빤하게 닦다. [전역]

밀-떡 명 <음> 밀가루로 만든 떡. [전역]
밀레 명 <도> 논바닥을 고르는 도구. [중문]
밀레-질 명 <농> 논바닥을 고르는 일. [중문]
밀레질 놀레 명 <요> 갈아 놓은 논의 바닥을 '밀레'라는 연장으로 고르면서 부르는 민요. [대포 월평 도순 강정 법환] = 밀레질 소리.
밀레질 소리 명 <요> [월평 도순 강정 법환] → 밀레질 놀레.
밀리다 동 밀다. *흔저 밀리라.(어서 밀어라.) [전역]
밀-망테 명 <도> [조수] → 멜-망텡이.
밀-망텡이 명 <도> [전역] → 멜-망텡이.
밀-메역 명 미역을 베어 냈던 뿌리에서 덧나는 미역. [신촌]
밀-문 명 <건> 미-닫이. [전역] = 밀-창.
밀-복젱이 명 <동> 밀-복. 참복과에 딸린 바닷물고기. [전역] = 밀-폭다리, 밀-폭젱이.
밀세 명 남의 비밀사(秘密事)를 사법기관 같은 데 몰래 알려 바치는 일. [전역]
밀세-다리 명 남의 비밀한 일을 사법기관 같은 데 알려 바침을 잘 하는 사람. [전역]
밀-순 명 <식> [화순] → 멜-순.
밀어-먹다 동 긁-히다. 흠집이 나다. 상처가 나다. [전역]
밀어-제끼다 동 밀어-젖히다. [전역]
밀-찍 명 [수산 가시] → 밀-낭[2].
밀-찝 명 [수산 김녕] → 밀-낭[2].
밀찝-페렝이 명 [수산] → 밀낭-페렝이.
밀-창 명 <건> [전역] → 밀-문.
밀창-홈박이 명 <건> [전역] → 밀창-홈백이.
밀창-홈백이 명 <건> 미닫이의 문지방에 파인 고랑의 줄. [전역] = 밀창-홈박이.
밀-체 명 참밀의 겉껍질. [전역]
밀추 명 말에 안장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말 꽁무니를 휘감아 안장 양쪽에 묶은 줄. [덕수 어도] = 고들게[1], 미위, 미지[1], 밀취.
밀취 명 [전역] → 밀추.
밀-츠바기 명 <음> 밀-수제비. 밀가루로 만든 수제비. [전역] = 밀-츠베기.
밀-츠베기 명 <음> [전역] → 밀-츠바기.
밀-ᄀᆞ를 명 밀-가루. [전역] = 밀-ᄀᆞ루, 밀-ᄀᆞ를.
밀-팟 명 밀-밭(-田). 참밀을 심어서 가꾸는 밭. [전역]
밀-폭다리 명 <동> [서홍 수산] → 밀-복젱이.
밀-폭젱이 명 <동> [노형 김녕 조수 수산 서홍] → 밀-복젱이.
밀-푸께 명 <식> 땅-꽈리. [전역] = 밀-푼철귀.
밀-푼철귀 명 <식> [노형 조수] → 밀-푸께.
밀-헙게미 명 밀-기울. [김녕 노형 조수]
밉다 형 밉다(憎). [전역] 고 뮙다.
밉성-버르다 형 얄밉다. [전역]
밉직-ᄒᆞ다 형 아주 밉다. [전역]
밋[1] 명 밑(底). [전역] = 밑. 고 밑.

밋[2] 명 본처(本妻). ＊이향좌쉬 첩으로 말앙 산메목제 밋으로 가라.(유향좌수 첩으로 말고 산마목자 본처로 가라.) [전역] 고 믿겨집.
밋-구녁 명 밑-구멍. [전역] 고 밋구무.
밋구녁-광 명 [전역] → 똥고망-꽝.
밋-동 명 밑-동. [전역] 고 밋동.
밋밋 부 ① 물이나 기름이 그릇 위로 흘러넘치는 모양. [전역] ② 거침새 없이 줄곧 넘어가는 모양. [전역]
밋-바닥 명 밑-바닥. [전역]
밋-볼레 명 <식> [건입] → 마께볼레-낭.
밋붉은-절와니 명 <식> [인성 서홍] → 밋붉은-제와니.
밋붉은-절완지 명 <식> [인성 서홍] → 밋붉은-제와니.
밋붉은-제와니 명 <식> 민-바랭이. [노형 조수] = 밋붉은-절와니, 밋붉은-절완지, 밋붉은-제완지, 밋붉은-제환지.
밋붉은-제완지 명 <식> [노형 조수] → 밋붉은-제와니.
밋붉은-제환지 명 <식> [수산 김녕 조수] → 밋붉은-제와니.
밋-씨 명 <농> [대포] → 알-씨.
밋-알 명 밑-알. 암탉이 알을 낳을 자리를 바로 찾아들도록 둥지에 넣어 두는 달걀. [전역]
밋이-꽝 명 [전역] → 똥고망-꽝.
밋-지다 동 밑-지다. [전역] 고 믿디다.
밋-창 명 밑-바닥. ＊오메기떡 숢을 땐 대쎱이나 새나 솟 밋창에 끌앙근에 그 떡을 놧주기. 떡 부트지 말렌.(오메기떡 삶을 때는 댓잎이나 띠나 솥 밑바닥에 깔아서 그 떡을 넣었지. 떡이 붙지 말라고.) [조수]
밋-천 명 밑-천. [전역] 고 믿쳔.
밍 명 ＊(속) 밍 쯔른 산은 셔도 설롼 죽은 산은 읏나.(명이 짧은 무덤은 있어도 서러워 죽은 무덤은 없다.) [전역] → 멩.
밍그랑-ᄒᆞ다 형 음식 따위가 물기가 많아서 너무 묽다. [전역]
밑 명 [전역] → 밋[1].
ᄆᆞ끄다 동 마치다. ＊이제 일 ᄆᆞ깡 가게.(이제 일 마치고 가자.) [전역]
ᄆᆞ-낭 명 <건> [인성 조수] → 메-낭.
ᄆᆞ디 명 [전역] → ᄆᆞ작.
ᄆᆞ디다 형 마디다. 쉽게 닳거나 없어지지 아니하다. [수산 김녕] = ᄆᆞ티다.
ᄆᆞ디-목 명 <식> [토평] → 마께-낭[1].
ᄆᆞ렵다 형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ᄆᆞ릅다.
ᄆᆞ루 명 [전역] → ᄆᆞᆯ렝이.
ᄆᆞ룻-줄[1] 명 <건> 지붕마루를 중심으로 지붕의 가로로 마루에 깔아 놓은 띠를 묶는 세 개의 긴 줄. [성읍]
ᄆᆞ룻-줄[2] 명 <도> [사계] → ᄆᆞ릇-줄.
ᄆᆞ르 명 [전역] → ᄆᆞᆯ렝이.
ᄆᆞ르다[1] 동 마르다. 물기가 다 날아가서 없어지다. [전역] 고 ᄆᆞᄅᆞ다.
ᄆᆞ르다[2] 동 마르다. 옷감이나 재목 따위의 재료를 치수에 맞게 자르다. [전역] 고 ᄆᆞᄅᆞ다.
ᄆᆞ르레기 명 [세화 조천 조수] → ᄆᆞᆯ흐레기.
ᄆᆞ른-가메왓 명 <지> 한라산 국립공원 왕관릉 북동쪽에 있는 초원. [전역]
ᄆᆞ른-궤기 명 마른-고기. [전역]

ᄆᆞ른-낭 명 물기가 조금도 없이 마른 나무. [전역]
ᄆᆞ른-논 명 <농> [중문] → 강-답.
ᄆᆞ른-질침 명 <민> 익사자를 위한 굿에서 요왕질침을 한 뒤에 집으로 옮겨 다시 질을 침. [전역]
ᄆᆞ를 명 [노형] → ᄆᆞᆯ렝이.
ᄆᆞ름 명 <지> 제주시 노형동 월산 남쪽에 있는 자연마을. [전역] = 마름.
ᄆᆞ름-질 명 마름-질. [전역] = ᄆᆞᆯ름-질.
ᄆᆞ릇-줄 명 <도> 마룻-줄. 돛을 내리거나 올리려고 돛대에 매어 놓은 줄. [전역] = 말릿-줄, ᄆᆞ룻-줄[2], ᄆᆞ릿-줄, ᄆᆞᆯ릿-줄.
ᄆᆞ롭다 형 마렵다. [서홍 수산 가시 어도] = ᄆᆞ렵다.
ᄆᆞ릿-줄 명 <도> [인성] → ᄆᆞ릇-줄.
ᄆᆞ망 명 <식> [서홍 수산 김녕] → ᄆᆞᆷ.
ᄆᆞ멀 명 [전역] → 모멀.
ᄆᆞ물 명 [전역] → 모멀.
ᄆᆞ숨 명 무서움. [전역]
ᄆᆞ쉬 명 마소(馬牛). *(속) 담 터진 밧디 ᄆᆞ쉬 안 들랴.(담 허물어진 밭에 마소(馬牛)가 안 들어갈까.) [전역]
ᄆᆞ쉬 ᄆᆞ는 소리 명 <요> 밭일이나 들일하러 드나들 때 마소를 앞세우고 몰면서 부르는 민요. 좁씨를 뿌린 다음 밭을 단단히 밟으면서 부르는 '밧볼리는 소리'와 비슷함. [전역]
ᄆᆞ쉬-보다 동 마소를 먹이러 들판에 다니다. *나난 이것 영리홀 뿐더러 커 가니 ᄆᆞ쉬보레 뎅기는디.(태어나니까 이것은 영리할 뿐만 아니라 커 가니 마소를 몰고 다니는데.) [노형]
ᄆᆞ스다 동 ① 유리 조각 같은 것을 깨다. [전역] ② 물건을 부수다. [전역] ③ 손이나 발 등 신체의 일부를 다치게 하다. *돌멩이로 손 ᄆᆞ슨다.(돌멩이로 손 다치게 한다). [전역] = ᄆᆞ시다[2].
ᄆᆞ슬 명 [전역] → ᄆᆞ을.
ᄆᆞ슬-들다 동 마을-가다. [전역] = ᄆᆞ슬-카다, ᄆᆞ슬-틀다, ᄆᆞ실-카다.
ᄆᆞ슬-카다 동 [전역] → ᄆᆞ슬-들다.
ᄆᆞ슬-틀다 동 [전역] → ᄆᆞ슬-들다.
ᄆᆞ슴 명 [전역] → ᄆᆞ음.
ᄆᆞ슴-세 명 [전역] → ᄆᆞ음-세.
ᄆᆞ슴-타다 동 무섬-타다. 무서움을 느끼다. [어도]
ᄆᆞ습다 형 [인성 하원 서홍] → ᄆᆞ섭다.
ᄆᆞ시 명 [이호] → 머세.
ᄆᆞ시다[1] 동 매섭게 여기다. [전역]
ᄆᆞ시다[2] 동 [전역] → ᄆᆞ스다.
ᄆᆞ실 명 [조천 어도 노형 조수] → ᄆᆞ을. 고 ᄆᆞᄉᆞᆯ.
ᄆᆞ실-카다 동 [전역] → ᄆᆞ슬-들다.
ᄆᆞ섭다 형 마음에 두려운 느낌이 있다. [전역] = 무섭다, ᄆᆞ습다.
ᄆᆞ으레기 명 [수산] → ᄆᆞᆯ흐레기.
ᄆᆞ을 명 마을. [전역] = ᄆᆞ슬, ᄆᆞ실.
ᄆᆞ음 명 마음. *(속) ᄆᆞ음이 풀어지민 ᄒᆞ는 일이 개벱다.(마음이 풀어지면 하는 일이 가볍다.) *(속) 사름 ᄆᆞ음은 ᄒᆞ를에도 열두 번.(사람 마음은 하루에도 열두 번.) [전역] = ᄆᆞ슴. 고 ᄆᆞᄉᆞᆷ.
ᄆᆞ음-석 명 <도> [송당 영평] → 마음-석.
ᄆᆞ음-세 명 마음-씨. *(속) ᄆᆞ음세 고우민 옷 앞섭이 아믄다.(마음씨 고우

면 옷 앞섶이 여민다.) [전역] = ᄆᆞ슴-세.

ᄆᆞ음-졸이다 동 마음-졸이다. [전역]

ᄆᆞ작 명 마디(節). [전역] = ᄆᆞ디. 고 ᄆᆞᄃᆡ.

ᄆᆞ작-단추 명 매듭-단추. 오려 낸 헝겊 따위로 매듭을 맺어서 만든 단추. *우린 속곳에 ᄆᆞ작단추만 ᄃᆞᆯ아나서.(우리는 속곳에 매듭단추만 달았었어.) [전역] = ᄆᆞ진-단추.

ᄆᆞ작-ᄆᆞᆺ다 동 매듭-맺다. [전역]

ᄆᆞ작-지다 동 실(絲) 따위가 여러 가닥이 서로 이리저리 얽혀지고 매듭이 맺어지다. [전역]

ᄆᆞ작-쿨 명 <식> 마디-풀. [노형 조수인성 서홍 수산 가시] = ᄆᆞ작-풀.

ᄆᆞ작-풀 명 <식> [김녕] → ᄆᆞ작-쿨.

ᄆᆞ진-단추 명 [전역] → ᄆᆞ작-단추.

ᄆᆞ치다 동 마치다(終). [전역] 고 ᄆᆞᆺ다.

ᄆᆞ티다 형 [인성 서홍] → ᄆᆞ디다.

ᄆᆞᆫ 부 [전역] → ᄆᆞᆫ딱.

ᄆᆞᆫ들락-ᄒᆞ다 형 [전역] → 멘들락-ᄒᆞ다.

ᄆᆞᆫ딱 부 모두. [전역] = 멘딱, 모도, 모두, 모신딱이, 문짝[2], ᄆᆞᆫ, ᄆᆞᆫ짝.

ᄆᆞᆫᄄᆞᆯ락-ᄒᆞ다 형 형상이 턱지거나 울퉁불퉁하지 않고 아주 둥글고 매끈하다. [전역]

ᄆᆞᆫᄆᆞᆫ-ᄒᆞ다 형 만만-하다. [전역] 고 ᄆᆞᆫᄆᆞᆫᄒᆞ다.

ᄆᆞᆫ작-ᄒᆞ다 형 *오래도 녹씰지 아녕 쒜가 ᄆᆞᆫ작ᄒᆞ영.(오래돼도 녹슬지 않아서 쇠가 반드러워서.) [이호] → 문작-ᄒᆞ다.

ᄆᆞᆫ저 부 먼저(先). [전역] = 먼저, 모녀, 모네, 몬첨, ᄆᆞᆫ즈. 고 몬져.

ᄆᆞᆫ저-보다 동 만져-보다. [전역] = ᄆᆞᆫ직아-보다, ᄆᆞᆫ처-보다, ᄆᆞᆼ직아-보다.

ᄆᆞᆫ주긋-ᄆᆞᆫ주긋 부 몽그작-몽그작. [전역]

ᄆᆞᆫ주끼다 동 나아가지 아니하고 제자리에 앉아서 뭉개다. [김녕 조수 노형 수산]

ᄆᆞᆫ죽-거리다 동 만작-거리다. 자꾸 만지다. [전역]

ᄆᆞᆫ지다 동 만지다. [전역] = ᄆᆞᆫ직다, ᄆᆞᆼ직다. 고 ᄆᆞᆫ지다.

ᄆᆞᆫ직다 동 [전역] → ᄆᆞᆫ지다.

ᄆᆞᆫ직아-보다 동 [전역] → ᄆᆞᆫ저-보다.

ᄆᆞᆫ질-ᄆᆞᆫ질 부 만질-만질. [전역]

ᄆᆞᆫᄌᆞ 부 [전역] → ᄆᆞᆫ저.

ᄆᆞᆫ짝 부 [전역] → ᄆᆞᆫ딱.

ᄆᆞᆫ착-ᄆᆞᆫ착 부 몽톡-몽톡. *패듬북은 그 물에 나도 먼바당엔 안 나곡 요만큼에 ᄆᆞᆫ착ᄆᆞᆫ착 ᄒᆞ니까 패듬북이렌.('패듬북'은 그 물에 나도 먼바다에는 안 나고 요만치에 몽톡몽톡 하니까 '패듬북'이라고.) [하도]

ᄆᆞᆫ착-ᄒᆞ다 형 [표선 세화] → 몰착-ᄒᆞ다.

ᄆᆞᆫ처-보다 동 [전역] → ᄆᆞᆫ저-보다.

ᄆᆞᆯ이[1] 명 터울. *두 살 ᄆᆞᆯ이.(두 살 터울.) [전역]

ᄆᆞᆯ이[2] 명 맨 먼저 낳은 아들이나 딸. [전역]

ᄆᆞᆯ 명 <동> 말(馬). *(속) ᄆᆞᆯ 한 디서 ᄆᆞᆯ 못 ᄀᆞᆯ린다.(말 많은 데서 말 못 고른다.) *(속) 나 한 ᄆᆞᆯ 콩 말댕 ᄒᆞ느냐?(나이 많은 말 콩 말다고 하느냐?) *(속) ᄆᆞᆯ도 칠팔춘 ᄀᆞᆯ린다.(말도 칠, 팔촌 가린다.) *(속) ᄆᆞᆯ 타민 구중 생각난다.(말을 타면 말구

종이 생각난다.) [전역] ㊎몰.

몰-가죽 명 말-가죽. [전역]

몰-갈기 명 말-갈기(馬--). [전역]

몰강-꽝 명 여린-뼈(軟骨). [전역] = 몰광-꽝.

몰-걸낭 명 말을 탈 때에 그 안장에 걸고 다니는 큰 주머니. [수산 김녕 가시 조수] = 몰-재피.

몰-걸름 명 '통시' 바깥에 말똥과 보릿짚을 번갈아 쌓아 두면서 썩혀 만든 거름. [상도]

몰-게여미 명 <동> [인성 서홍 가시 수산] → 몰-게염지.

몰-게염지 명 <동> 왕-개미(馬蟻). [전역] = 몰-게여미, 왕-게미, 왕-게여미, 왕-게염지. ㊎몰가얌이.

몰-고랑 명 <건> 마구-간(馬廐間). [전역]

몰광-꽝 명 [김녕] → 몰강-꽝.

몰-구종 명 말-구종(-驅從). 말을 타고 갈 때 고삐를 잡고 앞에서 끌거나 뒤에서 따르는 하인. [전역]

몰-궤기 명 말-고기. [전역]

몰그레기 명 [서홍] → 몰흐레기.

몰-ᄀᆞ레[1] 명 <도> [전역] → 몰-방에[1].

몰-ᄀᆞ레[2] 명 연자맷-간. [전역] = 몰ᄀᆞ레-왕, 몰ᄀᆞ레-황, 몰방이-왕, 몰-방에[2], 몰뱅이-왕.



몰ᄀᆞ레[2]

몰ᄀᆞ레 짛는 소리 명 <요> [전역] → 몰방에 짛는 소리.

몰ᄀᆞ레-왕 명 [가시 애월 어도] → 몰-ᄀᆞ레[2].

몰ᄀᆞ레-황 명 [수산 애월 가시] → 몰-ᄀᆞ레[2].

몰ᄀᆞ렛-접 명 [전역] → 몰방엣-제.

몰-꼴렝이 명 말의 꼬리. *(속) 몰꼴렝이 잡앙 이시민 집의 못 춪앙가도 쉐꼴렝이 잡앙 이시민 집의 찾앙가진댄 ᄒᆞᆫ다.(말의 꼬리를 잡고 있으면 집을 못 찾아가지만 소꼬리에 매달려 있으면 집을 찾아갈 수 있다고 한다.) [전역]

몰-너울 명 <식> [성산] → 쉽싸리.

몰-녹대 명 [수산 가시 온평] → 몰-석.

몰-놀이 명 <민> 큰굿의 막바지에 신들이 타고 갈 말을 준비하는 의미의 의례. [전역]

몰다[1] 동 말다. 피륙·종이 따위를 계속 몸을 싸고 돌아가게 하다. [전역] = 말다[1]. ㊎몰다.

몰다[2] 동 몰다(驅). [전역] = 몰다. ㊎몰다.

몰다[3] 동 반죽-하다. *옛날 집의서 소상ᄒᆞᆯ 때 모멀ᄏᆞ를 몰아서 기계에다가 빠서 그거 헤영 멕연.(옛날 집에서 소상할 때 메밀가루를 반죽해서 기계에서 빻아서 그것 해서 먹였어.) [성읍]

몰-돌레 명 <도> 말-다래. 말을 탄 사람의 옷에 흙이 튀지 아니하도록 가죽 같은 것을 말의 안장 양쪽에 늘어뜨려 놓은 기구. [전역] = 돌레.

ᄆᆞᆯ-똥 명 말-똥. *(속) ᄆᆞᆯ똥을 놓아도 손맛이여.(말똥을 놓아도 손맛이야.) [전역] 고 ᄆᆞᆯ똥.

ᄆᆞᆯ똥-버섭 명 <식> [수산 김녕] → ᄆᆞᆯ똥-버섯.

ᄆᆞᆯ똥-버섯 명 <식> 말똥-버섯(--菌蕈). 마분(馬糞)이 있던 음산한 자리에서 나는 버섯. [전역] = ᄆᆞᆯ똥-버섭, ᄆᆞᆯ똥-버슷, ᄆᆞᆯ똥-초기. 고 ᄆᆞᆯ똥버슷.

ᄆᆞᆯ똥-버슷 명 <식> [가시] → ᄆᆞᆯ똥-버섯.

ᄆᆞᆯ똥-조락 명 <도> 말똥을 담아 나를 용도로 만든 작은 바구니. [한남]

ᄆᆞᆯ똥-초기 명 <식> [남원] → ᄆᆞᆯ똥-버섯.

ᄆᆞᆯ똥-코 명 <민> 둥글게 망가진 코. [전역]

ᄆᆞᆯ랑ᄆᆞᆯ랑-ᄒᆞ다 형 말랑말랑-하다. [전역]

ᄆᆞᆯ랭이 명 [전역] → ᄆᆞᆯ렝이.

ᄆᆞᆯ렝이 명 마루. 지붕이나 산 따위의 길게 등성이가 진 곳. [전역] = ᄆᆞ루, ᄆᆞ르, ᄆᆞ를, ᄆᆞᆯ랭이, ᄆᆞᆯ리. 고 ᄆᆞᄅᆞ.

ᄆᆞᆯ르다 동 ① 기다림 또는 초조함 때문에 마음이 바싹 타서 마르다. 조바심으로 애태우다. [전역] ② 세월을 허송하다. *그날 저날 ᄒᆞ는 것이 ᄒᆞᆫ 달포가 그냥 거기 ᄆᆞᆯ랏어.(그날 저날 하는 것이 한 달포를 그냥 거기서 세월을 허송했어.) [전역] 고 ᄆᆞᆯ오다.

ᄆᆞᆯ르레기 명 [세화 조천] → ᄆᆞᆯ흐레기.

ᄆᆞᆯ름-질 명 [전역] → ᄆᆞ름-질.

ᄆᆞᆯ리 명 [조수 인성] → ᄆᆞᆯ렝이.

ᄆᆞᆯ리다[1] 동 몰-리다. 경쟁을 하는 데 열세가 되어 몰아냄을 당하다. [전역]

ᄆᆞᆯ리다[2] 동 말리다. 빨래 따위를 마르게 하다. [전역]

ᄆᆞᆯ리우다 동 마르게 하다. [전역]

ᄆᆞᆯ릿-줄 명 <도> [전역] → ᄆᆞ릇-줄.

ᄆᆞᆯ-마귀 명 <건> [전역] → ᄆᆞᆯ-막.

ᄆᆞᆯ마께-낭 명 <식> ① 말채-나무. [전역] ② 곰의말채-나무. [전역] = ᄆᆞᆯ막게-낭.

ᄆᆞᆯ-마농 명 <식> 상사-화(相思花). [전역]

ᄆᆞᆯ-마타슬 명 <동> 조간대(潮間帶) 상층에 서식하는 패류의 일종. [대포]

ᄆᆞᆯ-막 명 <건> 마구-간(馬廐間). [전역] = ᄆᆞᆯ-마귀, ᄆᆞᆯ-방.

ᄆᆞᆯ막게-낭 명 <식> [전역] → ᄆᆞᆯ마께-낭.

ᄆᆞᆯ망 명 <식> [호근 남원] → ᄆᆞᆷ.

ᄆᆞᆯ망쉬 명 <식> 마름.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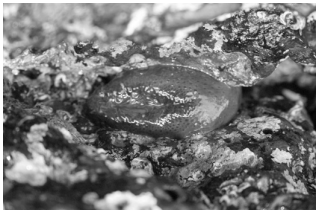
ᄆᆞᆯ머리-수건 명 <민> 말머리-수건. 귀인(貴人)이 탄 말 머리에 굴레와 같이 묶어 매어 이끄는 피륙. [용담]

ᄆᆞᆯ머리-코ᄉᆞ 명 <민> 혼례를 치를 때 신랑이 탈 말에게 지내는 고사(告祀). [전역]

ᄆᆞᆯ몬조리 명 <동> [노형] → ᄆᆞᆯ문주리.

ᄆᆞᆯ무제미-심다 동 경마-잡다. 남이 탄 말의 고삐를 붙잡고서 이끌고 다니다.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ᄆᆞᆯ문주리 명 <동> 말미잘. [서홍 수산



ᄆᆞᆯ문주리

가시 김녕] = ᄆᆞᆯ몬조리, ᄆᆞᆯ미주리, ᄆᆞᆯ미줄, ᄆᆞᆯ민주리.

ᄆᆞᆯ미-오름 명 <지> [시흥 종달] → 말미-오름.

ᄆᆞᆯ미주리 명 <동> [조수] → ᄆᆞᆯ문주리.

ᄆᆞᆯ미줄 명 <동> *ᄆᆞᆯ미줄은 손까락으로 짝ᄒᆞ민 오물라지는 거.(말미잘은 손가락으로 짝하면 오무라지는 것.) [이호] → ᄆᆞᆯ문주리.

ᄆᆞᆯ민주리 명 <동> [인성] → ᄆᆞᆯ문주리.

ᄆᆞᆯᄆᆞ작-쿨 명 <식> 쇠-무릎.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가시] = ᄆᆞᆯᄆᆞ작-풀.

ᄆᆞᆯᄆᆞ작-풀 명 <식> [김녕] → ᄆᆞᆯᄆᆞ작-쿨.

ᄆᆞᆯ-발콥 명 말-굽(馬蹄). [전역]

ᄆᆞᆯ-방 명 <건> [가시] → ᄆᆞᆯ-막.

ᄆᆞᆯ-방애 명 <도> [전역] → ᄆᆞᆯ-방에[1].

ᄆᆞᆯ-방에[1] 명 <도> 연자-매(硏子磨). [전역] = ᄆᆞᆯ-ᄀᆞ레[1], ᄆᆞᆯ-방애, ᄆᆞᆯ-방이, 쉐-방에.

ᄆᆞᆯ-방에[2] 명 [전역] → ᄆᆞᆯ-ᄀᆞ레[2].

ᄆᆞᆯ방에 짛는 소리 명 <요> 제주도의 연자매인 'ᄆᆞᆯ방에'를 찧으면서 부르는 민요. [전역] = ᄆᆞᆯᄀᆞ레 짛는 소리.

ᄆᆞᆯ방엣돌 끗어내리는 소리 명 <요> 'ᄆᆞᆯᄀᆞ레'·'ᄆᆞᆯ방애'·'ᄆᆞᆯ방에'라 일컫는 연자매의 '웃돌'과 '알돌'을 마을과 멀리 떨어진 냇가 같은 곳에서 만들어 마을 사람들이 동네로 굴려 오면서 부르는 민요. 대규모의 집단적 운반노동요임. [덕수 예례 귀덕 성읍 어도]

ᄆᆞᆯ방엣-접 명 [전역] → ᄆᆞᆯ방엣-제.

ᄆᆞᆯ방엣-제 명 동네 사람들끼리 함께 쓰는 연자매를 운용하고 큰일이 있을 때에 서로 필요한 물자를 돕기 위하여 꾸민 계 조직. [전역] = ᄆᆞᆯᄀᆞ렛-제, ᄆᆞᆯᄀᆞ렛-접, ᄆᆞᆯ방잇-접, ᄆᆞᆯ방잇-제.

ᄆᆞᆯ-방울 명 말-방울. [전역]

ᄆᆞᆯ-방이 명 <도> [전역] → ᄆᆞᆯ-방에[1].

ᄆᆞᆯ방이-왕 명 [어도] → ᄆᆞᆯ-ᄀᆞ레[2].

ᄆᆞᆯ방잇-접 명 [전역] → ᄆᆞᆯ방엣-제.

ᄆᆞᆯ방잇-제 명 [전역] → ᄆᆞᆯ방엣-제.

ᄆᆞᆯ뱅이-왕 명 [수산] → ᄆᆞᆯ-ᄀᆞ레[2].

ᄆᆞᆯ생갯잎 명 초소루쟁이의 잎. *ᄆᆞᆯ생갯잎으로 눈 닦아사 개지름이 안 피주.(초소루쟁이의 잎으로 물안경을 닦아야 개기름이 안 피지.) [신촌]

ᄆᆞᆯ-석 명 <도> 말-고삐. 말의 재갈에 잡아매어 끄는 줄. *부즈 양반이난 ᄆᆞᆯ석을 노끈으로 ᄒᆞ지 안ᄒᆞ고 미녕으로 ᄒᆞ엿주.(부자 양반이니까 말고삐를 노끈으로 하지 않고 무명으로 하였지.)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ᄆᆞᆯ-녹대. 고 ᄆᆞᆯ셕.

ᄆᆞᆯ-수룩 명 말떼. 말(馬)들이 서로 떼를 이루어 다니는 모양. [성산 수산 성읍]

ᄆᆞᆯ싸움-고장 명 <식> 제비-꽃. 오랑캐-꽃.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ᄊᆞᆯ궤-곳, ᄊᆞᆯ궤-풀, 아진배기-고장.



ᄆᆞᆯ싸움고장

물싹-ᄒᆞ다 형 물씬-하다. [전역]
물아-가다 동 몰아-가다. [전역] = 몰아-가다.
물아-대다 동 몰아-대다. [전역] = 몰아-대다.
물아-먹다[1] 동 말아-먹다. [전역] = 줌아-먹다.
물아-먹다[2] 동 말아-먹다. 재물 따위를 송두리째 날려버리다. [전역]
물아-지다 동 곤드라-지다. 몹시 피곤하거나 술에 취하여 정신없이 쓰러져 자다. [전역]
물아-오다 동 몰아-오다. [전역] = 몰아-오다.
물-안장 명 [전역] → 안장.
물-엿귀 명 <식> [조수] → 개-엿귀.
물오동-낭 명 <식> [김녕] → 물오좀-낭.
물-오좀 명 <식> [서홍 가시] → 개-삼동.
물오좀-낭 명 <식> 말오줌-나무. [전역] = 물오동-낭.
물-잣 명 <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의 물잣(검은오름) 북동쪽에 잇닿은 오름. 표고 653미터. [교래 봉개 가시] = 말-찻, 말찻-오름, 물-찻.
물-장시 명 말-장수(馬--). *(속) 뭬장시 물장시 먹어사 먹엇젠 ᄒᆞᆫ다.(깨장사 말장사 먹어야 먹었다고 한다.) [전역]
물-재피 명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물-걸낭.
물-정각 명 <식> 청각채의 일종. 식용으로는 쓰이지 않으며 길이가 긺. * 물정각은 진진ᄒᆞᆫ 건디 먹지 아녀. ('물정각'은 기다란 것인데 먹지 않아.) [하도 함덕 표선] = 물-청각.
물좃-조개 명 <동> 조개의 일종. [대포]
물-지장 명 <식> [김녕 서홍 수산] → 궁적-소새.
물-질메 명 <도> 말-길마(馬鞍). 말에 짐을 실을 때 등에 얹는 길마. [전역]
물착-물착 부 쌈빡-쌈빡. 문덕-문덕. 잘 드는 칼에 쉽게 깊이 베어지는 모양. *비소금 ᄀᆞ뜬 내 호미 들라, 물착물착 잘 끊어진다.(비수검 같은 내 낫 들어라, 쌈빡쌈빡 잘 끊어진다.) [전역]
물-찻 명 <지> [교래 봉개 가시] → 물-잣.
물-채 명 <도> 말-채찍(馬鞭). [전역] 고 물채.
물-청각 명 <식> *정각도 물청각, 조청각. 조청각은 준준ᄒᆞᆫ 거고, 물청각은 안 먹는 거.(청각채도 '물청각', '조청각'. '조청각'은 자잘한 것이고, '물청각'은 안 먹는 것.) [하귀] → 물-정각.
물-촐 명 말-꼴(馬草). [전역]
물-총 명 말-총(馬-). [전역] 고 물총.



물총

물축 명 <동> [수산] → 말축[1].

몰캣-남 명 [전역] → 몰켓-낭
몰캣-낭 명 [전역] → 몰켓-낭.
몰케 명 말-코. [전역]
몰켓-낭 명 상여(喪輿)의 양편 아래로 각각 매어진 긴 채에 양끝을 걸치고서 동여 묶은 나무. [전역] = 몰캣-남, 몰캣-낭.
몰콥-조개 명 <동> 말씹-조개. 돌조갯과의 큰 조개. [전역] = 몰쿱-조개.
몰쿠슬 명 [인성] → 머쿠슬.
몰쿠슬-낭 명 <식> [인성] → 머쿠슬-낭.
몰쿠실 명 [서홍 수산 김녕 가시] → 머쿠슬.
몰쿠실-낭 명 <식> [인성 서홍 수산 김녕 가시] → 머쿠슬-낭.
몰쿠지 명 [수산] → 머쿠슬.
몰쿠지-낭 명 <식> [수산] → 머쿠슬-낭.
몰쿱-조개 명 <동> [시흥] → 몰콥-조개.
몰-탈락 명 [전역] → 말-툴래기.
몰터거니 명 [노형 어도] → 멀터거리.
몰-테우리 명 말떼를 돌보거나 키우는 사람. [전역]
몰-통 명 공동목장 중에서 말만을 가두어 기르는 통. [애월 고성]
몰통난-밧 명 <지> [조천] → 마통-전(馬桶田).
몰통남-밧 명 <지> [조천] → 마통-전(馬桶田).
몰-툴락 명 [전역] → 말-툴래기.
몰팟-동네 명 <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한 자연마을. [애월] = 마전-동(馬田洞).
몰팡-돌 명 연자맷간의 한 구석에 짐을 지고 내리고 하는 데에 대(臺)가 되게끔 놓은 돌. [전역]
몰-피 명 <식> 논밭에 나는 잡초. [대포]
몰-푸리 명 <동> 말-파리(馬蠅). [전역]
몰-헤치 명 말-띠. [전역]
몰호라기 명 [노형 인성 어도] → 몰흐레기.
몰흐레기 명 나부랭이. [인성 화순 서홍 하원 조수] = 믈르레기, 믈으레기, 몰그레기, 몰르레기, 몰호라기.
몱다 형 맑다(淸). [전역] 고 묽다.
몸 명 <식> 모자반(馬尾藻). [전역] = 믈망, 몰망.
몸-국 명 <음> 돼지고기를 삶은 육수에 불린 모자반을 넣어 끓인 국. [전역]



몸국

몸-돈 명 <어> 마을 해변에 떠오른 거름용 해조류인 모자반의 채취권을 얻으려고 집집마다 마을에 내는 돈. [강정]
몸-무덤 명 <어> 공동으로 채취한 거름용 해조류인 모자반을 사람의 수에 맞게 나누려고 만들어 놓은 무더기. [월평 사계 강정]
몸-지 명 <음> [가시] → 몸-치의.

ᄆᆞᆷ-지시 명 <음> [수산 김녕] → ᄆᆞᆷ-치의.

ᄆᆞᆷ짱 명 모자반 덩이. *ᄆᆞᆷ짱으랑 집을 삼앙.(모자반 덩일랑 집을 삼아.) [전역]

ᄆᆞᆷ-치 명 <음> [인성] → ᄆᆞᆷ-치의.

ᄆᆞᆷ-치의 명 <음> 모자반-장아찌. 마른 모자반을 간장이나 된장에 담가서 짠맛이 든 후에 먹는 반찬. [노형 조수] = ᄆᆞᆷ-지, ᄆᆞᆷ-지시, ᄆᆞᆷ-치, ᄆᆞᆷ-치이.

ᄆᆞᆷ-치이 명 <음> [인성 서홍] → ᄆᆞᆷ-치의.

ᄆᆞᆷ-킹이 명 <동> 게의 일종. [판포]

ᄆᆞᆷ-통 명 <어> 파도를 타고 떠밀려온 거름용 해조류(海藻類)가 몰려드는 곳. [사계]

ᄆᆞᆷ-팟 명 <어> 모자반이 많이 나는 어장. [행원]

ᄆᆞᆷ-패 명 <어> 'ᄆᆞᆷ통'에서 거름용 해조류인 모자반을 채취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구성원. [사계]

ᄆᆞᆷ-푸끌레기 명 모자반의 공기주머니. [용수]

ᄆᆞᆷ-해경(-解警) 명 <어> 일정 기간 모자반의 채취를 금하였다가 허가하는 일. [협재]

ᄆᆞᆺ다 동 무수다. ① 돌이나 도리깨 따위로 찧어 부수다. *마당에 보리를 ᄀᆞᆺ다가 놩 그자 ᄆᆞᆺ아부런.(마당에 보리를 가져다 놓아서 그저 찧어 부수어 버렸어.) [전역] ② 두드려 패다. *하도 촐삭거리난 ᄒᆞᆫ번 ᄆᆞᆺ아부럿젠 ᄀᆞᆯ아라.(하도 촐랑대기에 한번 두드려 팼다고 말하더라.) [전역]

ᄆᆞᆺ아-대다 동 도리깨 따위로 보리 등을 찧어 부수다. [전역]

ᄆᆞᆺ아-지다 동 곡식 같은 것을 방아에서 거피할 적에 쌀알이 부서지다. [전역]

ᄆᆞᆼ그-지르다 동 망그-지르다. 잘 짜인 물건을 찌그러뜨리거나 부수어 못쓰게 하다. [전역] = ᄆᆞᆼ그-질르다.

ᄆᆞᆼ그-질르다 동 [전역] → ᄆᆞᆼ그-지르다.

ᄆᆞᆼ근-년 명 '만들어 버린 년'이란 뜻으로, 상대방 여자에 대한 욕설로 하는 말. *그 ᄆᆞᆼ근년덜, 가는 거 밥 줄 걸랑마랑 나 먹을 것도 엇어그네.(그 막된 년들, 가는 것 밥을 줄 것이랑 마랑 나 먹을 것도 없어서.) [전역]

ᄆᆞᆼ근-놈 명 '만들어 버린 놈'이란 뜻으로 상대방 남자에 대한 욕설로 하는 말. *경ᄒᆞ난 ᄆᆞᆼ근놈이렌 욕 들어도 싸주.(그러니까 'ᄆᆞᆼ근놈'이라고 욕을 들어도 싸지.) [전역]

ᄆᆞᆼ글다 동 [노형 조수 김녕] → 만들다.

ᄆᆞᆼ생이 명 <동> [전역] → ᄆᆞᆼ아지.

ᄆᆞᆼ셍이 명 <동> [전역] → ᄆᆞᆼ아지.

ᄆᆞᆼ아지 명 <동> 망아지. [전역] = ᄆᆞᆼ생이, ᄆᆞᆼ셍이. 고 ᄆᆞ야지, ᄆᆞᆼ아지, ᄆᆡ야지.

ᄆᆞᆼ직다 동 만지다. *다른 사람은 촐을 ᄆᆞᆼ직젠 ᄒᆞ민 가시덤불이고 뭐고 막 헤노니.(다른 사람은 꼴을 만지려고 하면 가시덤불이고 뭐고 마구 해 놓으니.) [조수 인성] → ᄆᆞᆫ지다.

ᄆᆞᆼ직아-보다 동 [전역] → ᄆᆞᆫ저-보다.

ᄆᆞᆼ케다 동 *그 사름은 경 촛일 듸만 배레연 ᄆᆞᆼ케염시니.(그 사람은 그렇게 찾을 때만 바라며 뭉그적거리고

있네.) [전역] → 뭉케다.

ᄆᆞᆼ콜 명 *쟁기 성에ᄒᆞ고 ᄆᆞᆼ콜ᄒᆞ고, 잘 단장ᄒᆞ엿지.(쟁기 성에하고 쟁깃술하고, 잘 단장(丹粧)을 했지.) [전역] → 몽클.

ᄆᆞᆼ크락-ᄒᆞ다 형 먹은 음식이 잘 삭지 않고 가슴에 복받쳐 걸려 있다. *먹지 말렌 ᄀᆞᆯ안게 술째기 먹엄젠 눈꿀할 셍이여. 가슴이 ᄆᆞᆼ클락ᄒᆞᆫ게.(먹지 말라고 말하는데 몰래 먹고 있다고 눈총을 하는 모양이야. 가슴이 '멍클락한'게.) [서홍 수산 김녕]

ᄆᆞᆼ클락-ᄒᆞ다 형 손에 쥘 수 있을 만큼 자그마한 물건이 겉은 보드랍고 매끄러우면서도 속은 단단하다. [전역]

ᄆᆞᆺ다 동 맺다(結). [전역] 고 ᄆᆡᆺ다.

ㅂ

-ㅂ네가 어미 -ㅂ니까.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지정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본상이라고 ᄒᆞ민 중놈ᄀᆞ라 본상, 본상 ᄒᆞ지 아녑네가?('본상'이라고 하면 중놈더러 '본상', '본상' 하지 아니합니까?) [전역]

-ㅂ네까 어미 -ㅂ니까.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지정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그거 어떵 홉네까?(그것 어떻게 합니까?) *내이디 오라서 즘 자건디가 인간에선 멧 해가 됌엿습네까?(내가 여기에 와서 잠을 잔 지가 인간 세상에서는 몇 해가 되었습니까?) [전역]

-ㅂ네깡 어미 -ㅂ니까. *어떵 ᄒᆞ연 저 아기 어멍을 몰라집네깡?(어떻게 해서 저 아기 어머니를 모를 수 있습니까?) [전역] → -ㅂ네까.

-ㅂ네다 어미 -ㅂ니다.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지정하여 직접 말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나도 원 보통 사름덜광 장난ᄒᆞ민 내 못 이기는 사름이 어십네다.(나도 원 보통 사람들과 장난하면 내가 못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역] = -ㅂ니다.

-ㅂ늬까 어미 -ㅂ니까. [전역] → -ㅂ네까.

-ㅂ늬깡 어미 -ㅂ니까. [전역] → -ㅂ네까.

-ㅂ늬다 어미 -ㅂ니다. [전역] → -ㅂ네다.

-ㅂ니까 어미 -ㅂ니까. *봉화옌 ᄒᆞᆫ 거 알아집니까?(봉화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기 월계 진좌수댁 어딜로 가민 찾앙 갑니까?(여기 월계 진좌수댁은 어디로 가면 찾아갈 수 있습니까?) [전역] → -ㅂ네까.

-ㅂ니까게 어미 -ㅂ니까게. '-ㅂ니까'에 반어적 물음을 나타내는 '-게'가 연결된 종결어미. *뜸돌로 ᄆᆞᆯ방이 맷돌사 상대해 집니까게?(들돌로 연자매 맷돌이야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전역]

-ㅂ니다 어미 -ㅂ니다. *화제를 내레 찾앙 갑니다.(처방을 내리러 찾아서 갑니다.) [전역] → -ㅂ네다.

-ㅂ데가 어미 -ㅂ디까. ①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동작이나 상태를 회상시

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오널 궤기 사레 옵데가?(오늘 고기 사러 오셨습니까?) *교군(轎軍)덜 가메 매영 어디 가는 거 봐집데가?(가마꾼들이 가마를 매어서 어디 가는 것이 보이던가요?) [전역] ② 용언 어간에 붙은 '-암시-·-엄시-·-염시-·-람시-' 또는 '-아시-·-어시-·-여시-·-라시-' 등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동작이나 상태를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삼춘님은 오면은 저한테 오라서 ᄒᆞ여얍주, 오는 도중에 난잡ᄒᆞ게 무사 노십데가?(삼촌은 오면 저한테 와서 해야지, 오는 도중에 난잡하게 왜 노셨습니까?) [전역]

-ㅂ데가게 어미 -ㅂ디까게. '-ㅂ데가'에 반어적 물음을 나타내는 '-게'가 연결된 종결어미. *그 저 무시거 ᄒᆞ여네 멘들아 주지 안 ᄒᆞᆸ데가게?(그저 무엇을 하여서 만들어 주지 아니했습니까?) [전역]

-ㅂ데다 어미 -ㅂ디다. ①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동작이나 상태를 회상하여 말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사름이다 ᄒᆞ니 사름을 몬저 봐집데다.(사람이다 하니 사람을 먼저 보아집디다.) *그 영감은 절로 백마 타아전 나갑데다.(그 영감은 저리로 백마를 타서 나갑디다.) [전역] ② 용언 어간에 붙은 '-암시-·-엄시-·-염시-·-람시-' 또는 '-아시-·-어시-·-여시-·-라시-' 등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동작의 완료나 계속을 회상하여 말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앞 우영엣 앵두 빨강ᄒᆞ게 잘도 익어십데다.(앞 텃밭에 앵두가 빨갛게 잘도 익었습디다.) [전역]

-ㅂ듸가 어미 -ㅂ디까. *아바님, 거무사 가죽 보선착을 썬 앚입듸가?(아버님, 거 왜 가죽 버선짝을 쓰고 앉았습니까?) [전역] → -ㅂ데가.

-ㅂ듸다 어미 -ㅂ디다. [전역] → -ㅂ데다.

-ㅂ디가 어미 -ㅂ디까. *무사 이리 옵디가?(왜 이리로 왔습니까?) [전역] → -ㅂ데가.

-ㅂ디강 어미 -ㅂ디까. *경 어려운디 산디쏠이라도 ᄒᆞᆫ 되 사집디강?(그렇게 어려운데 밭벼쌀이라도 한 되 살 수 있습디까?) [전역] → -ㅂ데까.

-ㅂ디다 어미 -ㅂ디다. *강 ᄃᆞᆯ앙 오랜 ᄒᆞᆸ디다.(가서 데려 오라고 합디다.) [전역] → -ㅂ데다.

-ㅂ서 어미 -ㅂ쇼. ① 받침 없는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행동하기를 바라는 대자존대(對者尊待)의 명령법 어미. *삼춘 어떵 날 살게끔 어떵 해 줍서.(삼촌 어떻게 나를 살게 어떻게 해 주십시오.) *이 복치매 곶당 안넵서.(이 복치마 갖다 드리십시오.) [전역] ② 동사 어간에 붙은 '-암시-·-엄시-·-염시-·-람시-' 등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계속적으로 행동하기를 명령하는 대자존대(對者尊待)의 명령법 어미. [전역] ③ 동사 어

간에 붙은 '-아시-·-어시-·-여시-·-라시-' 등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행동을 끝내 있기를 명령하는 대자존대(對者尊待)의 명령법 어미. [전역]

-ㅂ서게 어미 -ㅂ쇼예. 명령법 어미 '-ㅂ서'에 그 행동을 촉구하는 뜻을 나타내는 '-게'가 결합된 어미. *무시거 헴수과? 이레 확 옵서게.(무얼 하십니까? 이리로 빨리 오세요.) [전역]

-ㅂ센 어미 -ㅂ쇼라고.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행동하기를 명령하는 상대존대의 명령법 어미 '-ㅂ서'의 변형 '-ㅂ세'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요놈의게 아니 오줌 ᄆᆞ려우니 부려 줍센 ᄒᆞ는 거라.(요놈이 아니 오줌 마려우니 내려 달라고 하는 거야.) [전역]

-ㅂ셍 어미 -ㅂ쇼라고.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행동하기를 명령하는 상대존대의 명령법 어미 '-ㅂ서'의 변형 '-ㅂ세'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ㅂ주 어미 -ㅂ지요. ① 체언이나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노리 ᄯᅳ린 막댕이를 삼 년 우려먹는다 이 말입주.(노루 때린 막대기를 삼년 우려먹는다 이 말입지요.) *침떡은 ᄃᆞᆺᄃᆞᆺ할 때 먹어사 제 맛이 납주.(시루떡은 따뜻할 때 먹어야 제 맛이 납지요.) [전역] ② 동사 어간에 붙은 '-암시-·-엄시-·-염시-·-람시-' 등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계속적인 행동을 말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그 집은 강서방이 살암십주.(그 집에는 강서방이 살고 있지요.) [전역] ③ 동사 어간에 붙은 '-아시-·-어시-·-여시-·-라시-' 등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에 대하여 말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거기에 잇날은 궤기 하영 이서십주.(거기에 옛날은 고기가 많이 있었지요.) [전역] ④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약속하여 말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그 일이랑 나가 ᄒᆞᆸ주.(그 일은 내가 하지요.) [전역]

-ㅂ주게 어미 -ㅂ지요. 체언이나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잇날은 무신 거 ᄯᅳ려 죽이는 살상을 영 못ᄒᆞ여십주게.(옛날은 어떤 것을 때려 죽이는 살상을 전혀 못하였습지요.) [전역]

-ㅂ주겐 어미 -ㅂ지요. *계니 ᄆᆞᆫ딱 모다들언 ᄒᆞᆫ 겝주겐.(그러니 모두 모여들어서 한 것이지요.) [전역]

-ㅂ주기 어미 -ㅂ지요. 체언이나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어떤 사실을 말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게난 그게 의미가 잇는

말입주기.(그러니까 그것이 의미가 있는 말입지요.) [전역]

-ㅂ쥐 어미 -지요. ① 동사의 어간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함께 하기를 청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술 ᄒᆞᆫ 잔 더 먹엉 갑쥐. (술 한 잔 더 먹고 가지요.) [전역] ② 동사 어간에 붙은 '-암시-·-엄시-·-염시-·-람시-' 등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계속적인 행동을 함께 하기를 청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③ 동사 어간에 붙은 '-아시-·-어시-·-여시-·-라시-' 등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함께 완료하여 있기를 청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바가지 명 [전역] → 박세기.

바각-바각 부 바글-바글. *술이 바각바각 궤염신게.(술이 바글바글 괴고 있네.) [전역]

바각-ᄒᆞ다 동 부글-거리다. 술 따위가 발효하여 거품이 생기어 솟아오르다. *술이 바각ᄒᆞ게 궤염수다.(술이 '바각하게' 괴고 있습니다.) [전역]

바곰지 명 [전역] → 바구리.

바구리 명 바구니. [전역] = 바굼지, 바곰지. 고 바고니.

바굼지 명 [전역] → 바구리.

바굼지-오름[1] 명 <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북서쪽, 대정읍 인성리와의 경계에 걸쳐진 오름. 오름 모양이 날개를 편 박쥐의 모습을 닮음. 표고 158미터. [전역] = 단-산.

바굼지-오름[2] 명 <지> 제주시 애월읍 하귀리 귀일중학교 동쪽에 있는 오름. 1273년 여몽(麗蒙) 연합군이 삼별초(三別抄)를 무찔렀던 옛 싸움터임. 표고 85미터. [전역] = 파군-봉(破軍峰).

바글-바글 부 바글-바글. [전역]

바깃-대 명 [노형] → 홍깃-대.

바까-불다 동 뱉어 버리다. *게춤 빨리 바까불라.(가래침 빨리 뱉어 버려라.) [전역] = 바타-불다.

바깟 명 *그 집인 안보담 바깟을 치장혜선게.(그 집은 안보다는 바깥을 치장했더라고.) [전역] → 바꼇.

바껏 명 [수산 서홍 가시] → 바꼇.

바께몽 명 둔갑한 놈(化物). *애길 나민 그것이 그 국가를 망혜와 먹을 그런 바께몽이라.(아기를 낳으면 그것이 그 국가를 망쳐 먹을 그런 '바께몽'이야.) [구좌]

바꼇 명 바깥. [김녕 조수 노형 인성 서홍] = 바깟, 바껏. 고 밖.

바꾸다 동 [전역] → 바뀌다.

바꿈-질 명 바꿈-질. [전역] = 바뀜-질.

바뀌다 동 바꾸다. [전역] = 바꾸다. 고 밧고다.

바뀜-질 명 [전역] → 바꿈-질.

바끄다 동 뱉다. [전역] = 바트다. 고 밭다.

바나리 명 마을의 용인(傭人)이 부잣집의 추수(秋收) 중인 밭으로 가 막걸리나 떡을 대접하고 곡식 단을 얻어 오는 일. [애월 고성]

바농 명 <도> 바늘(針). [전역] = 바늘. 고 바놀.

바농-귀 명 바늘-귀. *바농귀 뀌는

거 보민 그 사름 춤 눈 붉아.(바늘귀 꿰는 거 보면 그 사람 참 눈이 밝아.) [전역]

바농-대 명 <도> 갓양태를 결을 때 쓰는 바늘. 길이는 18센티미터 쯤이며, 끄트머리는 낚시처럼 좀 꾸부러졌음. [전역]

바농-상지 명 바느질-고리. [전역]

바농-삶 명 바늘-쌈. [전역]

바농-오름 명 <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와 와흘리의 경계, '바농벵듸' 남쪽에 있는 오름. 위에 둘레 600미터, 깊이 25미터의 환형(環形) 분화구, 사면(斜面)에는 말굽형 분화구가 벌어짐. 표고는 552.1미터임. [전역] = 침-악(針岳).

바농-질 명 [전역] → 바느-질.

바농질-와치 명 [전역] → 바느질-와치.

바농-줄레 명 [어도 조수] → 줄레[2].

바느-질 명 바느-질. [전역] = 바농-질, 바늘-질, 침ᄌᆞ-질.

바느질-와치 명 바느질-아치. [전역] = 바농질-와치.

바늘 명 [전역] → 바농.

바늘-질 명 [수산 가시 조수] → 바느-질.

바다 명 [전역] → 바당.

바닥 명 바닥. [전역] ㊟바당.

바닥-탕건 명 <의> 탕건의 한 가지. [전역]

바당 명 바다(海). [전역] = 바다, 바르[2]. ㊟바룰.

바당 고개 구 바다 고개. 고개를 이루는 바다. ＊이디로도 바당 고개, 저디로도 먹돌 고개.(여기로도 바다 고개, 저기로도 '먹돌' 고개.) [전역]

바당-고기 명 [전역] → 바릇-궤기.

바당-궤기 명 [전역] → 바릇-궤기.

바당-깅이 명 닭-새우. [동복]

바당-물 명 바닷-물(海水). [전역]

바당물-사위 명 <동> [김녕] → 바당물-새위.

바당물-새위 명 <동> 바다에 사는 새우를 통틀어 일컫는 말. [조수 인성 서홍 노형 수산] = 바당물-사위, 바당-사위, 바당-새위.

바당-ᄇᆞ름 명 바닷-바람. [전역]

바당-사위 명 <동> [김녕 조수] → 바당물-새위.

바당-새위 명 <동> [노형 인성 서홍 가시 수산] → 바당물-새위.

바당 절 구 먼 바다에서 이는 물결. ＊바당 절이 울어도 근심.(바다 물결이 울어도 근심.) [전역]

바당-풀 명 바다-풀. 바닷물 속에서 자라는 불필요하고 잡스런 풀. [전역]

바당풀-캐기 명 바닷가에 난 쓸모없는 바다풀을 제거하는 일. [전역]

바데 명 바대. [전역]

바독 명 바둑(奕棊). [전역] = 바돌, 바둑[1].

바돌 명 [수산] → 바독.

바둑[1] 명 [김녕 조수 가시] → 바독.

바둑[2] 명 곳. 공간적인 또는 추상적인 일정한 자리나 지역. [전역] = 고단[2].

바드득-바드득 부 바드득-바드득. [전역]

바드렝이 명 [전역] → 떡-징[1].

바득-바득 부 ① 이(齒) 따위를 가는 소리. [전역] ② 딴딴한 물건을 비틀 때에 나는 소리. [전역]

바득바득-ᄒᆞ다 동 무엇을 내어놓지 않

으려고 하거나 재물을 아끼려고 이를 깨물다. *그 사름 보라. 재산 늘리젠 바득바득ᄒᆞ는 거.(그 사람을 보아라. 재산을 늘이려고 '바득바득하는' 거.) [전역]

바들랑-바들랑 부 손과 발 따위를 되는 대로 내흔드는 모양. 절규하거나 안간힘을 다하여 어떤 구속된 힘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동작의 모양. *요늠으 신랑이 바들랑바들랑 죽어가는 거라.(요놈의 신랑이 바들랑바들랑 죽어가는 거야.) [전역]

바라-뎅기다 동 [전역] → 바라-ᄃᆞ니다.

바라-ᄃᆞ니다 동 담(墻) 위 같은 데를 걸어 다니다. [전역] = 바라-뎅기다. ㉥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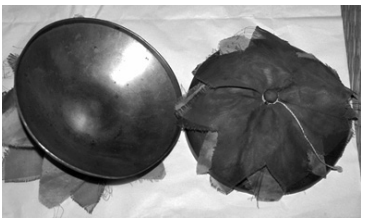
바라-지다 형 바라-지다. ① 그릇 따위의 속이 얕고 위가 납작하다. [전역] ② 하는 행동이 야무지다. [전역]

바락[1] 부 [전역] → 자락[2].

바락[2] 부 바락. 성이 나거나 하여 갑자기 기를 쓰는 모양. [전역] = 바락-이.

바락-이 부 [전역] → 바락[2].

바랑[1] 명 <민> 바라. [전역]



바랑[1]

바랑[2] 명 [인성 김녕] → 바랭이.

바랑[3] 명 바람. (주로 의복을 나타내는 명사 뒤에서) 그 옷차림의 뜻을 나타내는 말. 주로 몸에 차려야 할 것을 차리지 않고 나서는 차림을 이를 때 씀. *속옷 바랑에 어디 나감시니?(속옷 바람에 어디 나가고 있니?) [전역]

바랑-탐 명 <민> 바라를 부딪히며 춤을 추고 바라를 던져 점을 보는 석살림의 무속 의례. [전역]

바랭이 명 버렁. 물건이 차지한 그 둘레. [전역] = 바랑[2], 바렝이.

바량-밧 명 <농> 보리를 벤 다음 농사를 한 철 쉬고 거름 대신으로 밤마다 마소떼를 가두어 놀리는 밭. 또는 조 파종을 마친 다음 여름철에 품삯을 받고 목장으로 올려놓아 먹이는, 마소떼를 밤에 가둬 놀리는 밭. *너무사 우리 바량밧듸 담 치와 부런디?(너 왜 우리 '바량밧'에 담 헐어 버렸니?) [전역] = 바렁-밧.

바레기[1] 명 깔때기. 액체를 병 따위에 부을 때에, 꽂아 놓고 붓는 나팔 모양의 기구. *펭에 츰기름 지를 땐 바레기 썻주.(병에 참기름 길을 때는 깔때기 썼지.) [전역] = 나발.

바레기[2] 부 아주 많이. *밥을 바레기 퍼 주난 다 못 먹엇저.(밥을 많이 떠 줘서 다 먹지 못했어.) [전역]

바레기-궂다 형 꼴 사나워 보기에 흉하다. [어도 태흥 표선 세화] = 배래기-궂다, 베레기-궂다, ᄇᆞ레기-궂다.

바레다 동 바래다. 볕에 쬐어 빛이 변하게 되다.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발다[2], 발레다.

바레-보다 동 바라-보다. [전역] = ᄇᆞ레-보다.

바레여-보다 동 바라-보다. *영 바레여보단에 ᄂᆞᆺ을 확 ᄒᆞ게 돌려부러. 볼 침엇다는 거지.(이렇게 바라보다가 낯을 확 하게 돌려 버려. 볼품없다는 것이지.) [전역]

바렝이 명 [서홍 수산] → 바랭이.

바령-밧 명 *(속) 바령밧디서도 동녕 줄 곡석이 나온다.('바령밧'에서도 동냥 줄 곡식이 나온다.) [대포] → 바랑-밧.

바령-쉐 명 <동> 똥과 오줌을 받아 지력을 회복하려고 밭에 담아 놓은 소. 또는 '바령'(牧田)을 목적으로 가꾸는 소. [교래 동광 송당]

바령-콩 명 <식> *보통 콩은 유월절 전의 갈곡, 바령콩은 그보단 일찍 ᄉᆞ월에 갈주.(보통 콩은 유월절 전에 갈고, 거름콩은 그보다 일찍 사월에 갈지.) [하원] → 걸름-콩.

바령-테 명 '바령'을 목적으로 먹이는 마소. [김녕 상도]

바로 명 소작(小作)을 하고 나서 밭의 임자와 소작인 사이에 곡식을 절반씩 나누는 일. [광령]

바로-들르다 동 반듯하게 들다. [전역] = 바르-드르다.

바롱-바롱 부 숭숭. 조금 큰 구멍이 많이 나 있는 모양. *고망이 바롱바롱 ᄇᆞ름이 막 들어왐수다.(구멍이 숭숭 뚫려서 바람이 막 안으로 들어옵니다.) [전역]

바르[1] 명 <동> [중문 대정 고산 색달 대포] → 오분재기.

바르[2] 명 [서홍 태흥 수산] → 바당. 고 바ᄅᆞ.

바르-골겡이 명 <도> 해녀들이 잠수하여 '오분재기' 따위를 딸 때 사용하는 호미. [대포]

바르다 동 [전역] → ᄇᆞ르다.

바르-드르다 동 [전역] → 바로-들르다.

바르-조갱이 명 <동> 어린 전복. [월령]

바르-찹다 동 [전역] → 바릇-찹다.

바르-칠 명 바다에서 해산물(海産物) 따위를 잡는 일. 주로 고기를 잡는 일. [전역] = 바ᄅᆞ-칠.

바르-카다 동 [전역] → 바릇-가다.

바르-코기 명 [전역] → 바릇-궤기.

바르-퀘기 명 [전역] → 바릇-궤기.

바른-듸 명 ① 정면으로 볕이나 바람이 잘 받는 곳. *벳 바른듸 널라.(볕 잘 받는 곳에 널어라.) [전역] ② 맞은-쪽. *그 바른듸 춪아보라.(그 맞은쪽을 찾아보아라.) [전역]

바른-질 명 바른-길(-路). [전역]

바른-하늬 명 뱃사람들이 북풍을 일컫는 말. *바로 친북으로 오는 건 바른하늬라.(바로 북쪽으로 오는 것은 북풍이야.) [이호]

바릇-가다 동 해산물을 채취하거나 고기를 낚으러 가다. 바다 또는 바닷가에 가다. *어머닌 바릇갓다가 날레 담으레 집더레 ᄃᆞᆯ려와.(어머니는 바다에 갔다가 '날레'를 담으러 집으로 뛰어와서.) [대정] = 바르-카다.

바릇-구덕 명 <도> 어부들이 고기잡이 갈 때 어깨에 메고 다니는 바구니. [이호]

바릇-궤기 명 바닷-고기. [전역] = 바당-고기, 바당-궤기, 바르-코기, 바르-퀘기.

바릇-베(-船) 명 바다에서 고기잡이할 때 타고 다니는 배. [전역] = 바릇-베.
바릇-잡다 동 [전역] → 바릇-찹다.
바릇-찹다 동 바닷가 돌밭에서 소라, 성게 따위를 잡다. *바당 속에 들어가지 안 헤영 갯ᄀᆞ듸서 돌 일렁 구살이영 구젱이 잡는 것ᄀᆞ라 바릇찹는 거렌 ᄀᆞᆫ주.(바닷속에 들어가지 않고 갯가에서 돌 들추어서 성게랑 소라를 잡는 것을 두고 '바릇찹는' 거라고 말하지.) [전역] = 바르-찹다, 바릇-잡다.
바리[1] 명 ① 바리(駄). 마소에 실을 수 있는, 곧 마소 한 마리가 등에 실어 나를 만한 무게의 분량. [전역] ② 묶음이나 단을 나타내는 수량 단위. 한 바리는 보통 20단에서 30단 정도를 가리킴. *마당에 보리 ᄒᆞᆫ 멧 백 바리 ᄀᆞᆺ다가 놩 그자 ᄆᆞᆺ아 대영.(마당에 보리 한 몇 백 바리를 갖다가 놓아서 그저 무수어 대어서.) [전역]
바리[2] 명 바리. 마소(馬牛)의 수효를 셀 때 쓰는 단위. *이제라그네 ᄆᆞᆯ이나 ᄒᆞᆫ 바리 사그네 장시나 헤영 살아 보잰.(이제는 말이나 한 바리 사서 장사나 해서 살아 보려고.) [전역]
바리[3] 명 <도> 바리. 놋쇠로 만든 여자의 밥그릇. [전역]
바리개 명 타작(打作)할 때에 사방으로 둘러치는 물건. [노형 조수 인성 김녕]
바리-메 명 <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 평화로변에 있는 오름. 바리때를 엎어 놓은 형태임. 표고 763미터. [전역] = 바리-오름, 발-산(鉢山).
바리-오름 명 <지> [전역] → 바리-메.
바리-차롱 명 <도> 집안에 큰일이 있을 때 돼지고기나 떡을 담아두는 대나무로 만든 직사각형의 채롱. [성산 남원 호근]
바ᄅᆞ-칠 명 [인성 화순 서홍 태흥 표선] → 바르-칠.
바릇-베 명 [수산] → 바릇-베.
바보록-ᄒᆞ다 형 다보록-하다. [전역]
바쁘다 형 바쁘다. [전역] 고 밧ᄇᆞ다.
바삭 부 바삭. [전역]
바삭-바삭 부 [전역] → 와삭-바삭.
바수다 동 바수다. [전역] 고 ᄇᆞᄉᆞ다.
바스-지르다 동 [전역] → ᄇᆞ스-치다.
바슬-바슬 부 [전역] → ᄇᆞ슬-ᄇᆞ슬.
바슴[1] 명 찧은 곡식. *정성ᄒᆞ영 바수왐시라, 바슴 먹으레 오마.(정성을 들여서 찧고 있어라, 찧은 것 먹으러 오마.) [전역] = 바심.
바슴[2] 명 풀무마당에서 솥이나 보습 따위의 틀. [전역]
바슴-대장 명 <공> 솥을 만드는 풀무마당에서의 우두머리. [덕수]
바슴-질 명 콩, 팥 따위를 맷돌에 갈아서 알알이 쪼개는 일. [전역]
바심 명 [전역] → 바슴[1].
바싹 부 바싹. [전역]
바-오름 명 <지> [오조 성산] → 바우-오름.
바우-오름 명 <지> 서귀포시 성산읍 오조리 바닷가에 있는 오름. 표고 60미터. [전역] = 바-오름, 밥-오름, 식산, 식산-봉(食山峰), 식산-악(食山岳).
바웨다 동 어떤 일이 기회가 맞지 않아 그르치다. [전역]

바위 명 바위(岩). [전역] ㊟바회.
바위다 동 [노형 조수] → 바회다.
바위-도르다 동 멍석, 멱둥구미, 바구니 따위의 가장자리를 짚이나 대오리로 꾸며 감다. [전역] = 바위-돌르다.
바위-돌르다 동 [전역] → 바위-도르다.
바위-콜다 동 [수산 서홍 김녕] → 옥-콜다.
바윗-낭 명 바구니의 테두리 속에 넣는 나뭇가지. [도련]
바윗대-칼 명 <도> 죽제품의 테두리를 감는 얇은 대오리를 다듬는 칼. [도련]
바의다 동 [인성] → 바회다.
바작 명 <도> 발채. 짐을 싣기 위하여 지게에 얹는 소쿠리 모양의 물건. [전역]
바주-펭 명 <도> [가시 김녕] → 받이-펭.
바지 명 <의> 바지(袴). [전역]
바-지게 명 <도> 바-지게. 발채를 얹은 지게. [전역]
바지란-ᄒᆞ다 형 바지런-하다. [전역]
바지지 부 바지직. [전역] = 바지직.
바지직 부 [전역] → 바지지.
바짓-가달 명 바짓-가랑이. [전역]
바짓-굴 명 다리를 꿰는 바짓가랑이의 안쪽 속의 늘어진 부분. [전역]
바짓-허리 명 바지-허리. [전역]
바짝 부 바짝. [전역] = ᄇᆞ짝.
바짝-ᄒᆞ다 형 노끈 따위를 잡아 묶어 잔뜩 동여지거나 옷이 몸에 꼭 끼이다. [전역]
바찌다[1] 동 [전역] → 바투다[1].
바찌다[2] 동 [전역] → 바치다[2].
-바치 미 -아치.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전역] = -아치, -와치.
바치다[1] 동 [전역] → 바투다[1].
바치다[2] 동 바치다. 웃어른께 올리다. [전역] = 바찌다[2]. ㊟바티다.
바퀴 명 [전역] → 도로기[2]. ㊟박회.
바퀴-동산 명 <지> 제주시 영평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 바퀴동산-마을.
바퀴동산-마을 명 <지> [전역] → 바퀴-동산.
바타-불다 동 [전역] → 바까-불다.
바투다[1] 동 받치다. [전역] = 바찌다[1], 바치다[1], 바튀다, 받치다.
바투다[2] 동 버티다. ① 쓰러지지 않게 가누다. [전역] ② 의지하게 하다. (타동사로서) [전역]
바투리 명 바탕. *축어시 아방 바투리 닮지 아녀?(영락없이 아버지 바탕 같지 않은가?) [전역]
바툼-낭 명 [김녕 어도] → 바튐-낭.
바튀다 동 [전역] → 바투다[1].
바튐-낭 명 버팀-목. [노형 조수 인성 어도 가시] = 바툼-낭.
바트다 동 [전역] → 바끄다.
바회다 동 칼을 질그릇에 슬쩍 갈아서 날이 서게 하다. [서홍 조수] = 바위다, 바의다.
박 명 밖. [전역]
박다 동 박다. [전역]
박달-남 명 <식> [전역] → 박달-낭.
박달-낭 명 <식> ① 박달-나무. [전역] ② 산-딸나무. [전역] = 박달-남.
박데-ᄒᆞ다 동 박대-하다(薄待--). [전역]
박박[1] 부 [전역] → 북북[1].

박박[2] 부 박박. ① 단단한 물건의 두드러진 면을 연해 갉거나 긁는 소리. [전역] ② 단단하고 얇은 물건을 연해 찢는 소리. [전역] = 북북[2].
박박[3] 부 벌벌. 추위, 두려움, 흥분 따위로 몸이나 몸의 일부분을 자꾸 떠는 모양. [전역]
박박-긁다 동 박박-긁다. [전역]
박박-떨다 동 [전역] → 박박-털다.
박박-털다 동 춥거나 두려워서 몸을 연해 떨다. *가읜 질에서 박박털엄서라.(그 애는 길에서 벌벌 떨고 있더라.) [전역] = 박박-떨다.
박-비 명 소나기. *박비 뜨려부난 조 녹아부런.(소나기 때리니 조(粟)가 녹아 버렸어.) [서광] = 우렁-비.
박삭 부 풀이나 모종(苗種)이 빽빽이 난 모양. [전역] = 박삭-이.
박삭-이 부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박삭.
박세기 명 바가지. [전역] = 바가지.
박-쉐 명 족쇄(足鎖). [전역]
박-자귀 명 <도> 바가지를 팔 때 쓰는 자귀. 날이 가늘고 휨폭이 커서 좁고 깊게 팔 수 있음. [전역]
박작-박작 부 박작-박작. 가려운 곳을 손가락으로 계속해서 빨리 긁는 모양. [전역]
박접-이 부 박정-스레. 아무렇게나 대접하면서. 푸대접하면서. *날 박접이 네기는 님은 황구렝이 몸에나 가라.(나를 박정스럽게 여기는 임은 황구렁이 몸에나 가거라.) [전역]
박접-ᄒᆞ다 동 박대-하다. 박정스럽게 대하다. [전역]
박정-탕건 명 <의> 탕건의 한 가지. [전역]
박주-산 명 박쥐-우산. [전역]
박-죽 명 <도> 탕건을 결을 때 탕건골의 윗부분을 고정시키는 연장의 한 가지. 박을 직경 11센티미터 내외의 반월형으로 잘라냄. [전역]
박하(薄荷) 명 <식> 박하. [전역] = 박화. 고박하.
박화 명 <식> [전역] → 박하.
박-ᄒᆞ다 형 박정-하다(薄情--). [전역]
밖-거리 명 바깥-채. [전역] = 밧-거리.
밖긔 명 [노형 어도] → 밧긔.
반 명 반기. 잔치나 제사 후에 여러 군데에 나누어 주려고 목판이나 그릇에 몫몫이 담아 놓은 음식. [전역] 고반.
반갑다 형 반갑다. [전역]
반-공일(半空日) 명 반-공일. [전역]
반기다 동 [전역] → 반지다.
반-ᄀᆞ실 명 농작물을 반쯤 거두어들임. *겨울 농ᄉᆞ는 망종, 여름 농ᄉᆞ는 상강에 반ᄀᆞ실 ᄒᆞ덴 ᄒᆞ다.(겨울 농사는 망종(芒種), 여름 농사는 상강(霜降)에 반쯤 추수한다고 한다.) [도순]
반-놓다 동 ① 잔치나 제사 때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려고 목판이나 그릇에 몫몫이 음식을 담아 놓다. [전역] ② [전역] → 반-테우다.
반-ᄂᆞ누다 동 [전역] → 반-테우다.
반돔 명 물건을 져서 나를 때, 등과 짐 새에 깔아 받치는 데 쓰이는, 띠로 성기게 엮어서 만든 물건. [전역]
반두어리 명 <식> 후박-나무. [전역] = 후박-낭.

반뒈-들이 명 <도> 작은 되. 되의 절반 정도의 분량을 담을 수 있는 나무 그릇. [전역] = 반-싱.
반득-ᄒᆞ다 형 [전역] → 반듯-ᄒᆞ다.
반-들물 명 <어> 중반의 밀물. [사계]
반듯-ᄒᆞ다 형 반듯-하다. [전역] = 반득-ᄒᆞ다. 고 반득ᄒᆞ다.
반-돌[1] 명 반-달(半朔). [전역]
반-돌[2] 명 반-달(半月). 절반만 둥근 달. [전역]
반반 부 반반-히. 구김살이 없이 반듯하게. 생김생김이 예쁘장하게. *아방 시민 신 반반 신으컬, 어멍 시민 옷 반반 입으컬.(아버지 있으면 신 반반히 신을걸, 어머니 있으면 옷 반반히 입을걸.) [전역]
반-버버리 명 반-벙어리. [전역] = 반-벙어리.
반-벙어리 명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반-버버리.
반-벵신 명 반-병신(半病身). [전역] = 반-빙신.
반-빙신 명 [전역] → 반-벵신.
반숭-반절 명 <민> 반흉-반길(半凶半吉). 한편으로는 흉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길하기도 함. 또는 그런 일. [전역] = 반절-반숭.
반-싱 명 <도> [전역] → 반뒈-들이.
반-쏠물 명 <어> 중반의 썰물. [사계]
반작 명 반작(半作). [전역]
반장-바당 명 <어> 반장 바다. 반장의 수고에 대한 사례로 그에게 배정해서 해산물을 캐는 해녀 어장. [마라도]
반절-반숭 명 [전역] → 반숭-반절.
반지기 명 반지기. [전역]
반지기-밥 명 <음> 보리쌀과 쌀을 반씩 섞어서 지은 밥. [전역] = 반직이-밥.
반지다 동 반기다. [전역] = 반기다.
반지롱-ᄒᆞ다 형 *반지롱ᄒᆞ게 퍼부난 물은 엇지.(깨끗하게 퍼 버리니 물은 없지.) [전역] → 반찌롱-ᄒᆞ다②.
반직이-밥 명 <음> *장남덜 빌고 ᄒᆞ난 반직이밥에 술도 ᄒᆞ고 셍선 궈 놓고 ᄒᆞ연 내놓안.(일꾼들을 빌리고 하니 '반직이밥'에 술도 하고 생선 구워 놓고 해서 내놓았어.) [대정] → 반지기-밥.
반-질왓 명 푸석한 기운이 감도는 진흙밭. [상가]
반짐-척구 명 <민> (짝사랑 따위) 반한 원한이 있는 척귀(隻鬼). [전역]
반찌롱-ᄒᆞ다 형 ① 구김살이나 울퉁불퉁한 데가 없고 반반하다. *양지가 반찌롱ᄒᆞᆫ 게 젊어신게.(얼굴이 반반한 게 젊었네.) [전역] ② 먼지나 어지러운 것이 없이 깨끗하다. [전역] = 반지롱-ᄒᆞ다.
반-착 명 반-쪽. [전역]
반찬 명 반찬(飯饌). [전역]
반초 명 <식>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반치.
반추 명 <식> [김녕 조수] → 반치.
반치 명 <식> 파초. [전역] = 반초, 반추.
반-태작 명 반작(半作). 곡식의 양이 평년작에 비해 반만 됨. [전역]
반-테우다 동 잔치나 제사 때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 몫으로 음식물 따위를 나눠 주다. [전역] = 반-놓다, 반

-ᄂᆞ누다, 반-페우다, 반-ᄒᆞ다.

반-펄기 명 [인성] → 반-포기.

반-페기 명 [노형 어도] → 반-포기.

반-페우다 동 [노형 조수 인성] → 반-테우다.

반-포기 명 푸성귀, 풀 따위의 한 포기의 절반. [전역] = 반-펄기, 반-페기, 반-푸기.

반-푸기 명 [전역] → 반-포기.

반하(半夏) 명 <식> 끼-무릇. [전역]

반-ᄒᆞ다 동 [전역] → 반-테우다.

받다 동 받다. [전역]

받-들다 동 받-들다. [전역]

받이-펭 명 <도> 술을 고아 낼 적에 소줏고리의 귓대에 대는 병(甁).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 바주-펭.



받이펭

받제 명 받자. ① 남이 괴로움을 끼치거나 여러 가지 요구를 하여도 너그럽게 잘 받아 줌. ② 관아에서 환곡이나 조세 따위를 받아들이던 일. [전역]

받주다 동 ① 웃어른께 무엇을 바쳐 올리다. [전역] ② 어른네가 음식 같은 것을 잡수려고 들다. [전역]

받치다 동 [전역] → 바투다[1].

발[1] 명 발(足). [전역] 고 발.

발[2] 명 발치. [전역]

발[3] 명 발(簾). [전역] 고 발.

발[4] 명 발. 두 팔을 펴서 벌린 길이. [전역] 고 발.

발-가락 명 발-가락. [전역] 고 밬가락.

발가락-트멍 명 발-샅(足-). [전역] = 발-거림.

발-가옷 명 두 팔을 펴서 벌린 길이에 또 그 반 길이. [전역]

발-거림 명 [전역] → 발가락-트멍.

발겨-가다 동 두 사이를 널리 벌리며 가다. [전역]

발괄 명 <민> 억울함을 하소연함. [전역]

발광-양 명 미친 것과 같은 짓을 하는 모양. [전역]

발-굽 명 발-굽. [전역]

발-그믓 명 발-금(足-). 발바닥에 줄이 그어진 자국. [전역]

발기다 동 발기다. [전역]

발-꼽데기 명 '발'의 낮은말. [전역]

발-너르다 형 발이 넓다. [전역]

발다[1] 동 밟다. 팔을 펴서 길이를 재다. [전역] 고 밟다.

발다[2] 동 [전역] → 바레다.

발다[3] 동 담장이나 나무 위 따위 발붙이기 어려운 곳을 기어가거나 걸어가다. [전역]

발-뒤주 명 <도> 뒤주의 문이 바로 궷문처럼 앞면 상단에 달려 있는 반닫이 모양의 뒤주. [전역]

발-뒤치기 명 [전역] → 발-치기.

발-등 명 발-등(跗). *(속) 우트로 ᄂᆞ리는 물 발등에 진다.(위로 내리는 물 발등에 진다.) [전역]

발-등뗑이 명 [전역] → 발-등어리.

발-등어리 명 발-등어리. [전역] = 발-등뗑이.
발딱-발딱 부 팔딱-팔딱. [전역]
발딱발딱-ᄒᆞ다 동 팔딱팔딱-하다. [전역]
발라 명 [전역] → 발레[1].
발라-제 명 <민> [전역] → 발라-지.
발라-지 명 <민> 기원자(祈願者)의 발(두 팔을 벌린 길이)로 그 연령만큼 잰 길이의 피륙. [전역] = 발라-제.
발락 부 흠뻑. *습기 차 가믄 산듸찝도 발락 젖을 거 아니우꽈게.(습기 차 가면 밭볏짚도 흠뻑 젖을 것 아닙니까?) [성읍]
발레[1] 명 방향이나 쪽. *문 발레 안지믄 욕 듣나.(문 방향으로 앉으면 욕 듣는다.) [전역] = 발라.
발레[2] 명 <도> 방한(防寒)하기 위하여 개가죽으로 각반처럼 만든 물건. [전역]
발레다 동 [수산 김녕] → 바레다.
발롱-발롱 부 눈매가 초롱초롱한 모양. [전역]
발루다 동 바루다. 바르게 하다. [전역] = 발뤼다, 발우다. 고바루다.
발뤼다 동 [전역] → 발루다.
발르다 동 [전역] → ᄇᆞ르다.
발막아-눕다 동 한 이부자리에 서로 발을 마주하여 눕다. [전역]
발-모가기 명 [전역] → 발-모가지.
발-모가지 명 발-모가지. [전역] = 발-모가기, 발-모게기.
발-모게기 명 [전역] → 발-모가지.
발-모돔 명 [전역] → 발-모둠치기.
발-모둠치기 명 뭇발길-질. 여럿이 모아들어 사람을 발로 차는 일. [전역] = 발-모돔.
발-목 명 발-목. [전역]
발-밋 명 발-치. 발-밑. 누웠을 때 발을 뻗는 곳. [전역] = 발-치.
발-바닥 명 [전역] → 발-창. 고밟바당.
발발-떨다 동 발발-떨다. 춥거나 무서워서 연해 몸을 떨다. [전역] = 발발-털다.
발발-털다 동 [전역] → 발발-떨다.
발-버둥 명 발-버둥. [전역]
발버둥-치다 동 발버둥질-하다. [서홍 어도] = 발부둥-치다.
발-벋다 동 ① 나무뿌리 같은 것이 옆쪽으로 향해 길게 자라 나가다. [전역] ② 다리를 곧게 펴다. [전역]
발-벵 명 발-병(-病). [전역] = 발-빙.
발-봉오지 명 [서홍 수산 가시 김녕 어도] → 발-부리.
발부둥-치다 동 [수산] → 발버둥-치다.
발-부리 명 발-부리(足尖). 발가락 끝의 뾰족한 부분. [노형 조수 인성] = 발-봉오지.
발-비 명 빗방울이 줄이 지어 보이게 내리는 비. [노형 어도]
발-빙 명 [전역] → 발-벵.
발-산(鉢山) 명 <지> [전역] → 바리-메.
발아-가다 동 담 위나 높고 좁은 데를 발로 걸어 지나가다. [전역]
발아-뎅기다 동 담장이나 나무 위 따위 발붙이기 어려운 곳을 기어 다니거나 걸어 다니다. *경 발아뎅기당 낭 우의서 털어진다.(그렇게 나무를 타다가 나무 위에서 떨어진다.) [전역] = 발아-ᄃᆞ니다.
발아-ᄃᆞ니다 동 [전역] → 발아-뎅기다.

발아-오다 동 담장이나 나무 위 따위 발붙이기 어려운 곳을 기어 오거나 걸어오다. [전역]

발어름 소리 구 발걸음 소리. *반춧 입희 물 지는 소린 읏인 부뮈 발어름 소리.(파초 잎에 물 듣는 소리는 없는 부모 발걸음 소리.) [전역]

발우다 동 [전역] → 발루다.

발-자곡 명 발-자국(足迹). [전역] = 발-자국. 고 발자곡.

발-자국 명 [전역] → 발-자곡.

발-자취 명 발-자취. [전역] 고 발자최.

발지게 명 <도> 따비의 발판. [어음]

발-질 명 발-질. [전역]

발질-ᄒᆞ다 동 발질-하다. [전역]

발착-발착 부 질퍽-질퍽. [전역]

발착-ᄒᆞ다 형 물건에 물기가 있어 아주 축축하다. [전역]

발-창 명 발-바닥. *(속) 유월 발창사을 지저우민, ᄀᆞ만이 누웡 먹나.(유월(六月) 발바닥 사흘 뜨거우면, 가만히 누워서 먹는다. 한여름 뙤약볕에서 열심히 일하면 편히 지낼 수 있다는 말.) [전역] = 발-바닥.

발-촐레기 명 절뚝발-이. [전역]

발-치 명 [전역] → 발-밋.

발-치기 명 발-뒤축(跟). [전역] = 발-뒤치기. 고 밬뒤축.

발-콥 명 발-톱. [전역] = 발-톱. 고 밬톱.

발탕-발탕 부 ① 솥에 넣은 물건과 함께 물이 펄펄 끓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전역] ② 물 속에 들어가 물장구치는 소리. [전역]

발-톱 명 [전역] → 발-콥.

발-통 명 발-굽. *이 ᄆᆞ을 쉐는 발통이 쎄주. 경 ᄒᆞ난 밧도 잘 갈아.(이 마을 소는 발굽이 세지. 그러니까 밭도 잘 갈아.) [저지]

발-ᄐᆞ레기 명 다리에 장애가 있어 두 발의 길이가 다른 사람. [온평]

발-판 명 발-판. [전역]

발판불미 놀레 명 <요> [덕수] → 디딤불미 놀레.

발판-불미 명 <공> [덕수] → 청탁-불미.

발-풍채 명 <건> 헛간 등 곁채의 출입구를 가려서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기 위해 들고 다닐 수 있도록 만든 이동식 가리개. [전역]

발-허리 명 발-허리. [전역]

발-훼목 명 발-회목. [전역]

발ᄒᆞ다 동 색깔 따위를 내려고 볕에 말리다. *감물 들영 발ᄒᆞ여사 벌겅ᄒᆞ곡 버짝혜영 좋아.(감물 들여서 볕에 말려야 벌겋고 바짝해서 좋아.)

밤[1] 명 밤(夜). [전역]

밤[2] 명 밤(栗). [전역]

밤-낫 명 밤-낮(晝夜). [전역] = 밤-낮.

밤-낭 명 <식> 밤-나무. [전역]

밤낭-골 명 <지> [봉개] → 밤낭-굴.

밤낭-굴 명 <지> 제주시 봉개동 서회천의 옛 자연마을. [봉개] = 밤낭-골.

밤-낮 명 [전역] → 밤-낫.

밤-눈 명 밤-눈. 밤에 무엇을 보는 눈의 힘. *난 밤눈 어둑어부난 밤의 안 나댕기주.(난 밤눈이 어두워서 밤에는 안 나다니지.) [전역]

밤-들다 동 밤-들다. [전역]

밤부리 명 <동> [인성 노형] → 밥주리[3].

밤-새낭 부 밤이 새기에 이르기까지 연하여. ＊밤새낭 어디서 무스거 ᄒᆞ멍 놀당 이제사 왐시니?(밤새도록 어디서 무엇 하면서 놀다가 이제야 오니?) [전역] = 밤의새-낭.
밤-새다 동 밤-새다. [전역]
밤-새도록 부 밤-새도록. [전역]
밤-새우다 동 밤-새우다. [전역]
밤-세 명 [전역] → 밤-ᄉᆞ이.
밤-ᄉᆞ이 명 밤-사이. 밤-새. [전역] = 밤-세.
밤-역시 명 아기가 밤이면 울기만 하는 일. [전역]
밤의새-낭 부 [조수] → 밤-새낭.
밤-일 명 밤-일(夜業). [전역]
밤-자다 동 밤-자다. [전역]
밤잔-바르 명 하룻밤을 바다에서 자면서 고기잡이를 하는 일. [하천]
밤-재우다 동 밤-재우다. [전역]
밤-중 명 밤-중(夜中). [전역]
밤-질 명 밤-길. [전역]
밤-줌 명 밤-잠. [전역]
밥 명 <음> 밥(飯). ＊(속) 놈의 집광 관장살인 궤던 밥도 두엉 간다.(남의 집과 벼슬살이는 끓던 밥도 두고 간다.) ＊(속) 밥이 분이여.(밥이 분(紛)이다.) ＊(속) 밥이 비느냐? 사름이 빌주.(밥이 비느냐? 사람이 빌지.) ＊(속) 밥 빌어당 죽 쑤엉 먹을 놈.(밥 빌어다가 죽 끓여 먹을 놈.) ＊(속) 밥도 쉬민 못 먹나.(밥도 쉬면 못 먹는다.) ＊(속) 밥이 일흔다.(밥이 일한다.) [전역]
밥-간 명 돛단배 등의 배에서 밥을 해 먹을 수 있게 꾸민 공간. [이호] = 두세-간.
밥게 명 <동> 갯-강구. ＊저 바퀴벌레 닮은 것이 밥게라. 바닷가엔 우글우글혜.(저 바퀴벌레 닮은 거 갯강구야. 바닷가에는 우글우글해.) [전역] = 밥주리[1].
밥-궤다 동 밥-끓다. [전역]
밥-께 명 [전역] → 밥-방울.
밥-누넹이 명 <음> [조수] → 누렝이.
밥-누렝이 명 <음> [전역] → 누렝이.
밥-당석 명 <도> [태흥 표선 조천 수산 세화] → 동-고랑.
밥-도고리 명 <도> 밥을 퍼 담는 함지박. [전역]
밥-뒈 명 <도> [전역] → 뒈약세기.
밥-물 명 밥-물. [전역]
밥-몰다 동 밥-말다. [전역] = 밥-줌다.
밥-박세기 명 <도> 밥을 퍼 담는, 나무를 파서 만든 조금 작은 바가지. [전역]
밥-방올 명 [전역] → 밥-방울.
밥-방울 명 밥-알. [전역] = 밥-께, 밥-방올.
밥-부끄다 동 밥 짓는 물이 끓어서 소댕이 들뜨게 부글부글 솟아 오르다. [전역]
밥-뿔루다 동 밥이 끓은 뒤에 불을 물렸다가 다시 불을 조금 때서 물기가 없어지게 하다. [전역]
밥-사발 명 <도> 밥그릇으로 쓰이는 사발(沙鉢). [행원]
밥새 명 <동> 참새의 일종. 식용함. ＊이 밥새는 집에 둥지를 튼다.(이 '밥새'는 집에 둥지를 튼다.) [애월]
밥-솟 명 <도> 밥-솥(-鼎). [전역]

밥솟딧-물 명 [전역] → 누넹이-물.
밥-오곰 명 <도> [태흥] → 밥-자.
밥-오름 명 <지> [성산] → 바우-오름.
밥-우굼[1] 명 [노형 조수 인성 서홍]→ 밥-자.
밥-우굼[2] 명 홍어(鱝魚)를 밥자에 빗대서 부르는 말. [용수]
밥-자 명 <도> 밥-주걱. [전역] = 밥-오곰, 밥-우굼[1], 밥-주걱, 우굼, 울-굼.



밥자

밥-장석 명 <도> *촐 비레 다닐 때 밥장석 가졍 다녀낫주.(꼴을 베러 다닐 때 '밥장석'을 가지고 다녔었지.) [남원 구좌 수산] → 동-고랑.
밥-적 명 밥-술. [전역]
밥-조개 명 <동> 가리비. [김녕 가시]
밥-주걱 명 <도> [가시 수산 세화] → 밥-자.
밥주리[1] 명 <동> [전역] → 밥게.
밥주리[2] 명 <동> *밥주리 역은 깐에도 아이 모진 그물코에 걸린다.(참새 역은 깐에도 아이의 모진 그물코에 걸린다.) [하도] → 춤새.
밥주리[3] 명 <동> 잠자리(蜻蛉). [인성 화순 하원 서홍 세화 노형 어도 조수] = 물자리, 물잴, 밤부리. 고 존자리.
밥주리-생이 명 <동> [표선 조천 노형



밥주리[3]

세화] → 춤-새.
밥-직 명 밥-술. [전역]
밥-질다 형 밥-질다. 밥에 물기가 많다. [전역]
밥-짓다 동 [전역] → 밥-ᄒᆞ다.
밥-좀다 동 [전역] → 밥-ᄆᆞᆯ다.
밥-차롱 명 <도> 농번기에 여럿이 밭으로 일하러 갈 때 밥을 담아 가는 대오리로 만든 채롱. [전역] = 밥-차반이, 밥-차반지.
밥-차반이 명 <도> [가시] → 밥-차롱.
밥-차반지 명 [전역] → 밥-차롱.
밥-체시 명 밥을 감쪽같이 많이 먹어치우기를 잘 하는 사람. [전역]
밥-푸데 명 일은 못하고 밥만 많이 먹는 사람을 놀리는 말. *저 집 아덜은 밥푸데라.(저 집의 아들은 일은 못하고 밥만 많이 먹는 사람이야.) [전역]
밥-하님 명 밥 짓는 일을 맡아보는 하녀. [전역]
밥-ᄒᆞ다 동 밥-짓다. [전역] = 밥-짓다.
밧 명 밭(田). *(속) 담 터진 밧디 ᄆᆞ쉬 안 들랴.(담 무너진 밭에 마소 안 들까.) *(속) 도 터진 밧디 ᄆᆞ쉬 들듯 ᄒᆞᆫ다.(입구가 트인 밭에 마소가

들듯 한다.) *(속) 밧을 사컨 에염을 보라.(밭을 사려거든 가장자리를 보라.) *(속) 집치레 말앙 밧치레 ᄒᆞ라.(집치레 말고 밭치레 해라.) [전역] ㊟밭.

밧 가는 소리 명 <요> 밭을 갈면서 부르는 민요. [전역]

밧갈-쉐 명 <농> 밭을 가는 데 부리는 소(牛). [전역]

밧-갈이 명 <농> 밭-갈이(耕田). [전역]

밧-감상 명 <민> 신굿을 할 때 당주를 제외한 나머지 신에 따른 감상기. [전역]

밧-거리 명 <건> [조수 수산 하원 서홍] → 밖-거리.

밧-고랑 명 밭-고랑. [전역] = 밧-고량.

밧-고량 명 [조수] → 밧-고랑.

밧-고지 명 밭-이랑. [김녕 노형 조수 인성]

밧-공시 명 <민> 신굿을 할 때 굿을 맡은 수심방의 '멩두' 조상. [전역]

밧-공젱이 명 밭-걸이. [김녕 수산]

밧긔 명 제주도(濟州島)에서 제주도 외(濟州島外)의 다른 지역을 가리키는 말. [전역] = 밖긔.

밧-나록 명 <농> 밭-벼. [전역]

밧-담 명 밭-담. 마소의 출입을 막고 밭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하여 밭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둘러쌓은 담. [전역]

밧데 명 <도> 쟁기. *밧데 들렁 밧 잘 갈기 농부아비 놀음이곡.(쟁기 들고 밭 잘 갈기 농부아비 놀음이고.) [전역]

밧-도 명 쌓은 담(墻)을 허물고서 밭 안으로 드나드는 목. [전역]

밧-도그내 명 <지> 제주시 외도동(外都洞)의 옛 이름. [제주]

밧-도전 명 <민> [전역] → 도전.

밧-돌오름 명 <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상동 남서쪽에 있는 오름. 표고 353미터. [전역] = 웨석-악.

밧-두기다 동 <농> 밭을 두 번 갈아 뒤집다. [전역]

밧-두둑 명 밭-두둑. [전역] = 밧-두듥.

밧-두듥 명 [전역] → 밧-두둑.

밧듸 명 [전역] → 곤데.

밧-막은다리 명 <지> 한라산 국립공원의 개미목과 장구목이 이어지는 잘록한 안부(鞍部). 표고 약 1485미터. [아라 노형 광령]

밧막은다리-골째기 명 <지> 한라산 국립공원의 '밧막은다리'를 머리로 하는 골짜기. 흔히 서탐라골이라고 부름. [아라 노형 광령]

밧-문세 명 밭-문서. [전역]

밧-버실다 동 남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다. [전역]

밧-벙뎅이 명 볏-밥. *서을레 끗엉 밧벙뎅이 풀엉 밧 골르는 거.(써레를 끌고 볏밥을 풀어서 밭을 고르는 것.) [전역] = 밧-벙에, 벙에.

밧-벙에 명 [전역] → 밧-벙뎅이.

밧 볼리는 소리 명 <요> 조를 파종할 때 마소떼를 앞세우고 밭을 단단히 밟으면서 부르는 노동요. [전역]

밧-볼리다 동 <농> 조(粟)를 파종할 적에 갈아 놓은 밭을 딴딴하게 마소의 발로 밟게 하다. [전역]

밧-사돈 명 밭-사돈. [전역] = 소나의-사돈, ᄉᆞ나의-사돈.

밧-상제(-喪制) 명 밭-상제. [노형 인성 서홍 수산 조수] = 소나의-상제, 스나의-상제.

밧-섬 구 바깥 쪽에 있는 섬. *진도 밧섬 한골로 가난.(진도 바깥 섬 깊은 골로 가니.) [전역]

밧-세미오름 명 <지>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 남서쪽에 있는 오름. 표고 392미터. [봉개 아라 와흘]

밧-시둑 명 [조수 김녕 인성 서홍 하원 화순] → 밧-시들.

밧-시들 명 밭에 조금 높은 지대의 흙이 물에 씻기지 않도록 돌을 박아 놓은 둑. [전역] = 밧-시둑.

밧-에염 명 밭의 경계를 짓기 위하여 삥 돌아가며 둘러쌓은 밭담의 언저리. [전역] = 밧-의염.

밧-여전이 명 [어도] → 밧-예전이.

밧-여점 명 [용당] → 밧-예전이.

밧-예전이 명 돌담으로 에둘린 경작하지 못하는 밭의 구석. [전역] = 밧-여전이, 밧-여점.

밧-의염 명 [전역] → 밧-에염.

밧-이기다 동 <농> 부대밭 따위를 일구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다. [전역] = 밧-익이다.

밧-이럼 명 [인성] → 밧-이렁.

밧-이렁 명 밭을 두 벼 마주 갈아 두두룩하게 된 곳. [전역] = 밧-이럼.

밧-익이다 동 <농> [전역] → 밧-이기다.

밧-자리 명 웃-목. [전역]

밧-잠지 명 허벅다리 위의 바깥쪽 부분. [전역]

밧-주인 명 바깥-양반. [전역]

밧-짓 명 옷깃의 바른 쪽에 있는 자락. [대포]

밧-치다 동 화전을 일구려고 가시넝쿨과 잡초 따위를 쳐내다. [청수]

밧-칠성 명 <민> *그 할망은 배낏디 밧칠성으로 모상 ᄒᆞ민.(그 할머니는 밖에 '바깥칠성'으로 모셔서 하면.) [전역] → 뒷-할망.

밧-틀목 명 연자매에서 맷돌 바깥 쪽에 메워진 나무. [전역]

밧-파니 명 밭의 흙을 서너 벼 마주 갈아 올려서 두두룩하게 한 곳. [서홍 수산 가시 김녕] = 고지[3].

방[1] 명 <농> 메밀을 점파(点播)할 때 씨앗이 들어가는 자리. [하원]

방[2] 명 시집간 여자에게 그 출생지나 시집간 곳의 지명 아래에 붙여 조금 점잖게 부르는 말. [전역] = 방서, 방세, 방의서, 방의세.

방[3] 명 방(房). [전역]

방가름-도리 명 큰 칸살을 나누기 위하여 칸막이로 질러 막은 도리.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간가름-도리.

방골름-검질 명 <농> [전역] → 초불-검질.

방광 명 <민> 징을 쳐 영혼을 달래는 의례. [전역] = 막-방광, 방광-침.

방광-침 명 <민> [전역] → 방광.

방구-동(房求洞) 명 <지> [남원] → 방구령.

방구령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 2리의 한 동네. [남원] = 방구-동(房求洞).

방구-삼체(放鼓三次) 명 <민> (출항할 때 배가 뜬다는 신호로) 북을 세 번

치는 일. [전역]

방귀 명 방귀. [전역] = 방기, 똥[2]. 고 방귀.

방귀-뀌다 동 방귀-뀌다. [전역] = 방기-뀌다, 똥-뀌다. 고방긔ᄒᆞ다.

방긋-이 부 방긋-이. [전역] = 방읏-이.

방기 명 [전역] → 방귀.

방기-뀌다 동 [전역] → 방귀-뀌다.

방깃-대 명 [화순] → 홍깃-대.

방-낮 명 한-낮. 낮 열두 시를 전후한 때. [전역] = 해왕-낮, 헤왕-낮.

방답 명 [전역] → 방상.

방돌래기 명 [수산] → 펭이.

방돌-배기 명 [노형 조수] → 장돌-뱅이.

방-둔(放屯) 명 소를 가두지 않고 풀어 놓아 먹이는 일. [송당]

방둥이 명 [조천 노형 조수 화순 하원] → 방뒤.

방뒤 명 장난-감. [전역] = 방둥이, 장난-ᄀᆞ음.

방듸-코지 명 <지> [성산] → 섭지-코지.

방립(方笠) 명 <의> 방립. [전역] = 상립.

방망이 명 <도> [전역] → 방멩이.

방멩이 명 <도> 방망이. 무엇을 쳐서 두드리는 데 쓰는 도구. [전역] = 방망이. 고방마치.

방법 명 <민>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사악함을 물리치는 일. [이호] = 방세[2], 방쉬.

방법-ᄒᆞ다 동 <민> 액막이를 하거나 비밀스러운 방법으로 사악함을 물리치다. [이호] = 방쉬-ᄒᆞ다.

방부찜-녜 명 <민> [전역] → 방부찜-예.

방부찜-예 명 <민> 저승에 들어왔음을 알리는 방문을 내붙여준 데 대해 드리는 예물. [전역] = 방부찜-녜.

방-비 명 [전역] → 집안-비.

방삭-방삭 부 방실-방실. [전역]

방상 명 일가붙이의 집안. [전역] = 방답.

방서 명 [화순 하원 노형 서홍] → 방[2].

방석(方席) 명 방석. [전역]

방세[1] 명 [하원 서홍] → 방[2].

방세[2] 명 <민> [송당] → 방법.

방쉬 명 <민> *지붕 일어 뒁 내려올 때 지붕에 비 들지 말렌 방쉬로 오줌을 싸나 물을 뿌리나 ᄒᆞ여낫주.(지붕 이어 두고 내려올 때 지붕에 비 들지 말라고 '방쉬'로 오줌을 싸거나 물을 뿌리거나 했었지.) [전역] → 방법.

방쉬-ᄒᆞ다 동 <민> [전역] → 방법-ᄒᆞ다.

방아-짛다 동 [전역] → 방에-짛다.

방앗-귀 명 [화순 인성 김녕] → 방에-귀.

방애[1] 명 [전역] → 방에[2].

방애[2] 명 <도> [전역] → 방에[3].

방애-공장 명 정미소. [전역]

방애-머리 명 [전역] → 고부랑-건지.

방애쌀-불 명 밤에 절구방아에 훤히 켜진 불로 보이는 일종의 도깨비불. [전역]

방앳-귀 명 <도> [노형] → 방에-귀.

방앳-불 명 [전역] → 방엣-불.

방앳-혹 명 <도> [전역] → 방엣-혹.

방어 명 <동> [전역] → 방에[1].

방에[1] 명 <동> 방어(魴魚). [전역] =

방어.

방에[2] 명 <도> 방아. '절구'와 '연자매'를 통틀어 일컫는 말. [전역] = 방애[1], 방이. 고 방하.

방에[3] 명 방화(放火). 진드기를 구제하려고 들판이나 오름에 불을 지르는 일. [전역] = 방애[2], 방혜, 방화, 방훼.

방에-귀 명 <도> 절굿-공이. [전역] = 방앗-귀, 방앳-귀, 방엣-귀, 방잇-귀, 뱅엣-귀, 뱅잇-귀. 고 방핫고.



방에귀

방에 놀레 명 <요> 제주 특유의 절구인 '남방에'에서 곡식을 찧거나 가루를 빻을 때에 부르는 노동요. [전역] = 방이 놀레, 남방에 짛는 소리.

방에-부트다 동 이른 봄에 들판이나 목장 지대의 마른 풀이나 가시덤불을 태워 해충 따위를 없애기 위하여 놓은 불이 붙어 타다. [전역]

방에-알오름 명 <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방에오름'의 중앙 화구구(火口丘). 표고 427미터. [교래 대흘]

방에-오름[1] 명 <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하동 북동쪽에 있는 낮은 오름. '방에'(절구) 모양으로 둥글넓적하고 우묵함. 표고는 453미터. [전역]

방에-오름[2] 명 <지> 서귀포시 동홍동, 한라산 백록담의 남벽(南壁) 등산로 변에 있는 오름. 위쪽으로 '웃방에오름', 아래쪽으로 '알방에오름'이 잇닿아 하나의 산릉(山稜)을 이룸. 표고 1699미터. [전역]

방에-오름[3] 명 <지> [고내 상가] → 고내-오름.

방에-오름[4] 명 <지> 서귀포시 하원동 중산간에 있는 나지막한 오름. 표고 93미터. [서귀포 중문] = 방이-오름.

방에-짛다 동 방아-찧다. [전역] = 방아-짛다, 방이-짛다.

방에-천 명 커다란 통나무로 만든 제주 고유의 절구인 '남방에'의 확 옆으로 주욱 바라진 부분. *이 방에천 헤싸나 보아라, 울단 가심 헤씽 간ᄒᆞ다.(이 '방에천' 헤쳐나 보아라, 울던 가슴 헤친 듯하다.) [전역] = 방엣-첫, 천[1], 첫.

방엣-귀 명 <도> [전역] → 방에-귀.

방엣-불 명 들에 방화(放火)로 놓은 불. [전역] = 방앳-불.

방엣-비 명 <도> 방앗간에서 방아를 찧을 때에 쓰는 비. [전역] = 방잇-비, 뱅잇-비.

방엣-첫 명 <민> [전역] → 방에-천.

방엣-혹 명 <도> ① 절구의 가운데에 박아 놓은 돌을 우묵하게 파서 만든 물건. [전역] ② 연자방아의 맷돌이 도는 판 가운데에 수쇠가 세워진 곳의 둘레. [전역] = 방앳-혹, 방엣-혹, 방잇-혹, 뱅잇-혹. 고 방핫확.

방엣-혹 명 <도> [전역] → 방엣-혹.

방올[1] 명 [전역] → 방울[1].

방올[2] 명 [전역] → 방울[2].

방울[1] 명 방울(鈴). [전역] = 방올[1].
방울[2] 명 알. 곡식이나 쌀알 따위의 낱개. [전역] = 방올[2]. 고 바올.
방울-방울 부 노래를 연달아 느리지도 잦지도 않게 경쾌하게 부르는 모양. [전역]
방울-사탕 명 눈깔-사탕. [전역]
방울-조 명 <식> 낟알이 여문 조. [용담]
방울-친 명 <민> 23자의 무명천을 네 개의 고가 되게 묶어놓은 것. [전역]
방울-풂 명 <민> 토산알당본풀이에 근거하여 무명에 맨 고를 풀어내며 벌이는 의례. [전역]
방웃-이 부 [전역] → 방긋-이.
방의서 명 [인성 화순 서홍 태흥 표선 수산] → 방[2].
방의세 명 [인성 화순] → 방[2].
방이 명 [전역] → 방에[2].
방이 놀레 명 <요> [전역] → 방에 놀레.
방이-오름 명 <지> [서귀포 중문] → 방에-오름[4].
방이-왕 명 <건> 절구를 놓아 두고서 방아를 찧는 헛간. [전역]
방이-짛다 동 [전역] → 방에-짛다.
방일-봉(方日峰) 명 <지>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낮은 오름. 표고 113미터. [노형]
방일이-마을 명 <지> 제주시 노형동에 형성되어 있었던 자연마을. [전역]
방잇-귀 명 <도> [전역] → 방에-귀.
방잇-비 명 <도> [전역] → 방엣-비.
방잇-전 명 ① 연자매에 맷돌이 도는 바닥의 바깥편에 돌아가며 댄 바라진 부분. [서홍 수산 가시 김녕] ② '남방에' 가운데에 박아 놓은 확 바깥 둘레의 바닥 위의 죽 바라진 부분. [서홍 수산 가시 김녕] = 방잇-천.
방잇-천 명 [노형 조수 인성] → 방잇-전.
방잇-혹 명 <도> [전역] → 방엣-혹.
방장-대 명 <도> 상장(喪杖). [노형 조수 수산 서홍 김녕 가시] = 방장-대기, 상죽-대.
방장-대기 명 <도> [전역] → 방장-대.
방장-맞다 형 방정-맞다. 아주 요망스럽게 굴어서 상서롭지 못하다. [전역]
방제-오름 명 <지>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고림동 북서쪽에 있는 작은 오름. 표고 163미터. [명월 동명] = 방주-오름.
방주-오름 명 <지> [동명] → 방제-오름.
방진-망 명 <어> 멸치떼를 포위하는 그물. [전역]
방풍 명 <식> 갯-기름나물. [전역]
방헤 명 [전역] → 방에[3]
방화 명 [전역] → 방에[3]
방훼 명 [조수] → 방에[3]
배[1] 명 바. 다른 말 아래에 와서 '방법' 또는 '일'이란 뜻으로 쓰이는 말. * 가시 웨엔 걸릴 배 읏다.(가시 외에 걸릴 일이 없다.) [전역] = 패[2].
배[2] 명 [전역] → 베[5].
배[3] 명 참-바. [전역]
배-곯다 동 배-곯다. [전역]
배-ᄀᆞ리다 동 <농> 경작하지 않은 밭을 네 개의 거웃으로 하나의 이랑을 만들 때 좌우 양쪽의 두둑을 만드는 밭갈이를 하다. 이때의 밭갈이는 수소(牡牛)로 하는 경우가 많다. [상창]

배떼기-붉은자리 명 <동> 자리돔의 일종. *배떼기붉은자리는 알아주지 안ᄒᆞ주.('배떼기붉은자리'는 알아주지 않지.) [사계]

배-뛸락 명 줄-넘기. [전역]

배래기-궂다 형 [서홍 수산 조천] → 바레기-궂다.

배-매기 명 <어> 해녀들이 물 속을 걸어 다니며 해조류를 베어 내는 대로 바(索)에 걸어 묶으며 채취하는 일. [비양도]

배면-ᄒᆞ다 형 오죽-하다. [표선]

배수기 명 <도> 밥을 짓거나 먹을 것을 볶거나 할 때에, 음식이 밑바닥에 눌어붙지 않도록 젓는, 나무로 된 젓개. *콩 보끄단, 그 배수기 확 치와 둬근에 딱 간 어멍을 눌럿어.(콩 볶다가 그 죽젓개를 얼른 치워 버리고 가서 어머니를 눌렀어.) [어음]

배염 명 <동> [전역] → 베염.

배-질 명 <농> 밧줄을 던져 마소의 목을 걸리는 일. [색달]

백록-담(白鹿潭) 명 <지>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 화구호(火口湖). 분화구는 동서 약 600미터, 남북 500미터의 타원형으로 깊이 115미터. 최고봉인 서봉(西峰)은 표고 1959.1미터, 동봉(東峰)은 1928.5미터임. 화구벽의 동·서반부가 서로 암질을 달리함은 화산 구조상 특기할 점임. 즉 서벽(西壁)은 고기(古期) 분출에 속하는 조면암의 잔류산괴(殘留山塊)로서 심한 풍화로 인해 아름다운 주상절리(柱狀節理)의 기암 절벽을 이루는 데 반해, 동벽(東壁)은 신기(新期) 분출의 현무암으로 됨. [전역]

백맷-대 명 <민> 굿을 할 때 하늘에 있는 신을 청해 내려오도록 하기 위해서 집 밖에다 세워 놓은 큰 대나무. *백맷대라 흔건 굿ᄒᆞ젠 ᄒᆞ민 그 대 세와 가지고 옥황상제가 하강(下降)ᄒᆞ는 질을 ᄎᆞ지흔, 아마 대행ᄒᆞ는 곳인 모양이라.('백맷대'라 하는 건 굿을 하려고 하면 대(竹)를 세워서 옥황상제가 내려오는 길을 차지한, 아마 대행하는 곳인 모양이야.) [어음]

백-쉐 명 <동> 흰 소(白牛). [전역]

백-씨 명 <농> 백씨. 밭에 돼지거름을 뒤섞음이 없이 그대로 씨앗만 파종할 때의 씨앗. [중문]

백약-산(百藥山) 명 <지> [전역] → 백약이-오름.

백약이-오름 명 <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성읍목장 북동쪽,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와의 접경에 있는 오름. 온갖 약초가 많음. 표고 357미터. [전역] = 백약-산(百藥山).

백태-오리 명 <식> 이삭은 짧은 듯하나 가시랭이가 긴 보리. 대맥(大麥)의 일종. [대포] = 백테-오리.

백테-오리 명 <식> [영평] → 백태-오리.

뱃-대 명 <도> 돛-대. [행원]

뱃-좀수 명 <어> 비교적 먼 바다에서 해산물을 따는 잠수. [시흥]

뱅깃-대 명 <도> [서홍] → 홍짓-대.

뱅엣-귀 명 <도> [전역] → 방에-귀.

뱅잇-귀 명 <도> [전역] → 방에-귀.

뱅잇-비 명 <도> [전역] → 방엣-비.

뱅잇-혹 명 <도> [전역] → 방엣-혹.

버국 명 지저-깨비. ＊버국이랑 놀고 가라, 천리만리 놀고 가라.(지저깨빌랑 날아가라, 천리만리 날아가라.) [전역]
버굴레기 명 [태흥] → 부글레기.
버금-돌 명 [전역] → 다음-돌.
버금-해 명 [전역] → 다음-해.
버꾸기 명 <동> [수산 가시] → 버꾹-새.
버꾹-새 명 <동> 뻐꾸기.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버꾸기, 버꿍-새.
버꿀레기 명 [전역] → 부글레기.
버꿀레기-트다(泡沫--) 동 빗방울이 물 가운데 떨어질 적에 큰 거품이 일어나다. [김녕 노형 어도] = 벙굴레기-트다, 부굴레기-트다, 중-트다, 함불레기-트다.
버꿍-새 명 <동> [서홍 수산] → 버꾹-새.
버덕[1] 명 버덩. 농사를 짓지 않고 노는 땅이나 자갈밭, 풀밭 등의 넓은 지역. [전역] = 버데기.
버덕[2] 명 <도> 따비의 발판. [구좌 성산]
버데-가다 동 벗(朋)과 더불어 함께 가다. [전역]
버데기 명 [전역] → 버덕[1].
버둥-쿼다 동 버둥-거리다. ＊영 안안 올리난 버둥쿼는디, 이젠 ᄉᆞ나이 다 뒈어서라.(이렇게 안아서 올리니 버둥거리는데, 이제는 사나이 다 되었더라.) [전역] = 부둥-쿼다.
버들-못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궷드르' 동쪽에 있는 못. [조천]
버듸-낭 명 <식> 버드-나무. [전역] = 버디-낭.
버디-낭 명 <식> [전역] → 버듸-낭.
버락 부 버럭. 기를 쓰는 모양. [노형 조수 인성]
버러리 명 <지> [용담] → 부러리.
버러지 명 버렝이. [전역]
버럭지 명 <도> 항아리의 일종. [대정]
버렁[1] 명 <지> 제주시 용담1동의 한 자연마을. [용담]
버렁[2] 명 <지> 제주시 화북1동의 한 자연마을. [화북]
버렁[3] 명 <지> 제주시 삼양3동의 한 자연마을. [삼양]
버렁[4] 명 볕이 내리쬐이고 바람이 부는 일. [대정]
버렁-개 명 <지> 제주시 삼양3동에 있는 한 포구. [전역]
버레-낭 명 <식> 종-가시나무. [인성 조수 노형 수산] = 소리가시-낭.
버레-등 명 <민> [북촌] → 비피.
버렝이[1] 명 <동> 구더기. ＊무사 버렝이 ᄆᆞᄉᆞ왕 장 ᄃᆞᆷ지 못ᄒᆞ느냐?(왜 구더기 무서워 장 담그지 못하느냐?) [전역]
버렝이[2] 명 벌레(蟲). ＊임뎅이가 벌겅ᄒᆞᆫ 게 버렝이가 물엇구나게.(이마가 벌겐 것이 벌레가 물었구나.) [전역] = 베렝이. 고 벌에.
버력 명 버럭. 사람의 죄악이나 잘못을 징계하느라고 내린다는 벌. [전역]
버련-ᄒᆞ다 형 부산-하다. 아이들이 조금 못된 짓을 하거나, 장난이 심하다. ＊어떵 버련ᄒᆞ게 키와신디사 어디 가나 ᄀᆞ만이 앚지 아녀.(어떻게 난잡하게 키웠는지 어디 가난 가만히 앉지 않아.) [위미] = 버른-ᄒᆞ다.

버루기 부 무슨 일을 알고서 즉시로 빠르게 달려가거나 달려오는 모양.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버르다 동 ① 장작 같은 것을 쪼개다. [전역] ② 단단한 물건을 깨다. [전역] = 벌르다.
버르장-머리 명 버르장-머리. [전역]
버르-젱이 명 버르-장이. [전역]
버른-ᄒᆞ다 형 *자원 잘도 버른ᄒᆞ여. (저 아이는 매우 부산해.) [서귀포] → 버런-ᄒᆞ다.
버릅-뜨다 동 [수산] → 부릅-뜨다.
버릇[1] 명 뻘. [전역]
버릇[2] 명 버릇. [전역]
버리다 동 [전역] = ᄇᆞ리다. 고 ᄇᆞ리다.
버무려-먹다 동 버무려-먹다.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 부비여-먹다.
버무리다 동 버무리다. [전역]
버문-옷 명 더러운-옷. [전역]
버물다 동 버물다. [전역] 고 버믈다.
버버리 명 벙어리. [전역] = 벙어리.
버버-작작 부 제 말만 말이라고 우기는 모양. [전역] = 버버-직직, 버부-작작.
버버-직직 부 [전역] → 버버-작작.
버벅-거리다 동 분명하지 못한 발음(發音)으로 떠벌리다. [전역]
버부-와리 명 말을 할 때 발음을 분간하여 똑똑히 하지 못하는 사람. [노형 조수 서홍]
버부-작작 부 [전역] → 버버-작작.
버섭 명 [수산 김녕 가시] → 버섯.
버섯 명 <식> 버섯(菌蕈). [전역] = 버섭, 버슷, 초기.
버스다 동 *그 머 무신 듬직ᄒᆞᆫ 큰 감티나 ᄒᆞ나 버스렌 ᄒᆞᆫ가?(그 뭐 무슨 듬직한 큰 감투나 하나 벌라고 하던가?) [전역] → 버을다.
버슬다 동 [전역] → 버을다.
버슷 명 [하원 서홍 인성 가시] → 버섯.
버실다 동 [전역] → 버을다.
버염 명 <동> [전역] → 베염.
버영그랑-ᄒᆞ다 형 동물 등이 밝은 색을 띠고 듬직하다. *그 개가 여시 수커, 버영그랑ᄒᆞᆫ 거 바싹 물어 죽여 불언.(그 개가 여우 수컷, '버영그랑한' 것 바싹 물어 죽여 버렸어.) [어음]
버영-대 명 [노형 조수] → 베영-대.
버우싸-지다 동 벌어-지다. [하도]
버위다 동 [수산] → 베다[5].
버을다 동 벌다. 일을 하여 돈을 얻거나 모으다. [전역] = 버스다, 버슬다, 버실다. 고 버을다.
버을-이 명 벌-이. 살기 위하여 일을 하고 돈을 버는 노릇. [전역]
버이다 동 [전역] → 비다[1].
버작-지다 형 ① 물건의 바탕이 강하여 좀처럼 휘어지지 않다. [전역] ② 사람의 성행(性行)이 유순하지 아니하다. [전역]
버젓-ᄒᆞ다 형 버젓-하다. [전역]
버좀 명 [가시] → 버짐.
버즘 명 [전역] → 버짐.
버짐 명 버짐(癬瘡). [전역] = 버좀, 버즘. 고 버즘.
버짝 부 버쩍. [전역]
버짝-ᄒᆞ다 형 뻣뻣-하다. *ᄒᆞᆷ마 나 죽을 뻔. 이 다리가 버짝ᄒᆞ여 부런. (하마트면 나 죽을 뻔. 이 다리가 뻣뻣해 버렸어.) [이호]

버찍 부 ＊이놈 버찍 거짓말이지.(이놈 정말 거짓말이지.) [전역] → 번찍①.
버찔르다 동 어지럽-히다. [전역]
버치다 동 부치다. 힘이 모자라다. ＊이젠 버쳔 못ᄒᆞ키여.(이젠 힘에 부쳐서 못하겠다.) [전역] 고벗치다.
버-텅 명 <민> 형-틀. [전역]
버티다 동 버티다. [노형 조수 인성] 고바퇴다.
벅수-머리 명 <민> 정의현(旌義縣)의 도읍지였던 성읍의 성문 앞에 세워졌던, 돌하르방으로 알려진 석상. [성읍]


벅수머리

벅차다 형 벅차다. [전역]
번게 명 [전역] → 펀개. 고번게.
번경-ᄒᆞ다 동 번경-하다(反耕--). [인성 서홍] = 번달룸-ᄒᆞ다.
번-구름 명 뭉게-구름. [용담]
번-기 명 <민> 큰굿을 할 때 큰대에 달아매어 길게 늘어뜨리는 깃발. [전역]
번난지 명 <어> 해류를 타고 해변으로 밀려든 미역, 우뭇가사리 등의 해조류. [행원]
번널-오름 명 <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제동목장 남동쪽에 있는 오름. 표고 272미터. [가시 교래]
번달룸-ᄒᆞ다 동 [수산] → 번경-ᄒᆞ다.
번데기 명 펀더기. [전역]
번들-구름 명 구름의 일종. [남원]
번번-ᄒᆞ다 형 번번-하다. 울퉁불퉁하거나 막히지 않아 편편하고 번듯하다. [전역]
번-사다 동 동정을 살피다. 보초를 서다. [전역] = 번-서다.
번-서다 동 [전역] → 번-사다.
번성-꼿(蕃盛-) 명 <민> 사람살이를 번성하게 만든다는 상상적인 꽃. ＊오라버님 잡으신 잔은 번성꼿도 피여난다.(오라버님 잡으신 잔은 번성꽃도 피어난다.) [전역]
번-쉐 명 이웃끼리 여러 마리의 소를 모아 놓고 한 사람씩 번갈아가며 돌보는 소. [전역] = 팻-쉐.
번-자귀 명 <도> 목제품을 만들 때 깎아 내는 가로날의 연장. 서서 깎는 '선자귀'보다 작음. 재떨이·함박·나막신 등 비교적 크기가 작은 목제품을 만들 때 사용함. 손잡이와 번자귀의 머리가 한 몸으로 이뤄진 꾸지뽕나무에 자귀의 날을 박아 만듦. [전역]
번지 명 노루를 잡았을 때 한 사람 몫의 노루 고기. ＊산에서 통노리를 지엉 뎅기당 사름안티 들키민 무조건 번지를 주어사 ᄒᆞ주.(산에서 노루를 온통 지어서 다니다가 사람한테 들키면 무조건 '번지'를 주어야 하지.) [광령 교래]
번지르르 부 번지르르. [전역]
번직-ᄒᆞ다 형 아무 것도 없다. [전역]

= 번찌릉-ᄒᆞ다, 번찍-ᄒᆞ다.
번쩍 부 번쩍. [전역]
번찌릉-ᄒᆞ다 형 [전역] → 번직-ᄒᆞ다.
번찍 부 ① 아주 의심할 것 없이 말갛게. [전역] = 버찍. ② 빛이 잠깐 비치는 모양. [전역]
번찍-ᄒᆞ다 형 [전역] → 번직-ᄒᆞ다.
번-ᄒᆞ다 동 <농> 밭의 곡식을 거둔 후 애벌갈이를 하다. [전역]
번다 동 번다. 나뭇가지 따위가 바깥쪽으로 향하여 길게 자라 나가다. [전역]
번-드듸다 동 번-디디다. [전역]
벌[1] 명 <동> 벌(蜂). [전역] 고 벌.
벌[2] 명 벌판. [전역]
벌겅-ᄒᆞ다 형 벌겋다. [전역] = 뻘겅-ᄒᆞ다.
벌겨-지다 동 틈이 나서 사이가 벌어지다. [전역]
벌굴레기 명 [수산] → 부글레기
벌기다 동 벌기다. [전역] 고 벌기다.
벌덩 명 [수산 가시] → 덩드렁.
벌락 부 풀썩 주저앉는 모양. [전역]
벌러-지다[1] 동 깨지다. [전역]
벌러-지다[2] 동 벌어-지다. ＊빌레에 가이 영 벌러진 디 영 부떠그네 물 들며는 버우싸지고 물싸면은 영 좁아진 거 잇어.('빌레' 가에 이렇게 벌어진 데 이렇게 붙어서 물밀면 벌어지고 물써면 이렇게 좁아진 것 있어.) [하도]
벌레[1] 명 <도> 물추리-막대. [전역]
벌레[2] 명 비경이. 베틀에 딸린 제구의 하나. [노형 조수 인성 수산 서홍 김녕] = 베리[2].
벌레[3] 명 비겨미. 양 봇줄 끝에 꿰어진 나무때기. [전역]
벌레기 명 ① 밭을 갈 적에 일어나는 엉클어진 풀포기. [전역] ② 한 번 매어졌다가 다시 엉켜 붙은 풀포기. [표선 수산 세화 조수 하원 서홍 태흥 조천] = 벌헤기.
벌레기-검질 명 조(粟)를 파종한 밭에서 하는 첫 밭매기. [행원]
벌렛-낭 명 비경이. 베틀에 딸린 제구의 하나. 잉아의 뒤와 사침대 앞 사이에 날실을 걸치도록, 가는 나무 세 개를 얼레 비슷하게 벌려서 만듦. [전역]
벌르다 동 [전역] → 버르다.
벌리다 동 벌리다. 둘 사이를 떼어서 넓히다. [전역]
벌립 명 [전역] → 벙것.
벌목-동토 명 <민> 벌목(伐木)에 따른 동티. [전역]
벌-물 명 벌-물(罰-). [전역]
벌-ᄆᆞ작 명 매듭-단추. [하도] → 돌마기.
벌벌-떨다 동 [전역] → 벌벌-털다.
벌벌-털다 동 벌벌-떨다. 무섭거나 두려워서 자꾸 크게 떨다. [전역] = 벌벌-떨다.
벌불-나다 동 벌불이 번지다. [전역]
벌-사다 동 벌-서다. [전역]
벌석-자치 명 <민> 사기를 쫓아내는 의례인 '새ᄃᆞ림'에서 기주 가족이 둘러쓰는 흰 천. [전역]
벌써 부 [전역] → 불써.
벌-쓰다 동 벌-쓰다(罰--). [전역]
벌어-지다 동 벌어-지다. [전역]

벌이 명 [인성 어도] → 벌이-줄.
벌이다 동 벌이다. ① 일을 계획하여 시작하거나 펼쳐 놓다. [전역] ② 물건을 늘어놓다. [전역]
벌이-영작 명 <민> 벌이와 영작(營作). [전역]
벌이-줄 명 벌이-줄. [전역] = 벌이.
벌작-치다 동 *설운 소리 ᄒᆞ여 가난대신들이 벌작치멍 울지 아녀는 사람이 하나토 없어.(서러운 노래를 불러가니 대신(大臣)들이 '벌작치면서' 울지 아니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전역] → 벌적-치다.
벌적-치다 동 아이가 몸부림하며 마구 큰 소리로 울면서 법석거리다. *돌아난 집의 가멍 먼올레로부떠 벌적치멍 들어가가니.(달아나서 집에 가면서 '먼올레'로부터 벌적치면서 들어가니.) [전역] = 벌작-치다.
벌-집 명 벌-집(蜂巢). [전역]
벌테 명 성격이 차분하지 못하고 들떠서 돌아다니거나 장난을 잘 치는 어린아이를 이르는 말. [전역]
벌-통[1] 명 <민> 형-틀. [전역]
벌-통[2] 명 <동> 벌-통(-桶). [전역]
벌통-헹경 명 <민> 행전(行纏)의 한 가지. 통행전(筒行纏). '벌-'은 뒤의 '-통'과 연결지은 조율음(調律音). [전역]
벌-푸다시 명 <민> 벌풀이와 푸다시를 겸한 의례. [전역]
벌-풀이 명 <민> 벌을 풀어 달라고 기원하는 작은 의례. [전역]
벌헤기 명 [노형] → 벌레기.
범 명 <동> 범(虎). [전역]
범방 명 범방(犯房). [전역]
범벅 명 <음> 범벅. [전역]
범벅-장시 명 상황이 몹시 어지러운 상태. *이거 비 와 노니 범벅장시라.(이것 비가 오니 '범벅장시'야.) [대정]
범불레 명 <식> 진득-찰. 국화과의 한해살이풀. [노형 인성 서홍 수산 김녕]
범ᄉᆞ 명 범사(凡事). [전역]
범엇-일 명 범어사(凡於事). 세상의 모든 일. [전역]
범주리-가시 명 <식> [평대] → 씰거리-낭.
범주리-낭 명 <식> [김녕] → 씰거리-낭.
범-헤치 명 범-띠. [전역]
법전-촌(法田村) 명 <지> [조천] → 법호-촌(法護村).
법정-동(法井洞) 명 <지> 서귀포시 하원동 산간에 있었던 자연마을. [서귀포 중문]
법정이-오름(法井---) 명 <지> 서귀포시 중문동 천백도로변의 거린사슴 북동쪽에 있는 오름. 남동록에 법정사(法井寺)가 있었으며, 샘이 있고 계곡이 아름다움. 산록 일대에 삼림욕(森林浴) 등을 위한 휴양 단지가 들어섬. 표고 760미터. ㊟ 법정이. [전역] = 법젱이-오름.
법젱이-오름 명 <지> [서귀포 중문] → 법정이-오름(法井---).
법호-촌(法護村) 명 <지> 한국전쟁 이후에 난민들이 국유지(國有地)를 분할 받아 개간하여 자활하도록 마련된 마을. 제주도 여러 곳에 있었는데

폐동된 곳이 대부분임.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와 서귀포시 상효동 등에 있었는데, 지금은 서귀포시 상효동에만 사람들이 살고 있음. [서귀포] = 법전-촌(法田村).

벗 명 벗(朋). *(속) 양식 싸지 말앙 벗을 멀리 두라.(양식(糧食) 싸지 말고 벗을 멀리 두어라.) [전역] *(속) 상뒷술에 벗 사귄다.('상뒷술'에 벗 사귄다.) [전역]

벗다 동 벗다(脫). [전역] 고 벗다.

벗-부찌다 동 ① 벗을 붙이다. [전역] ② 자식을 여럿 낳다. [전역]

벗짝-쟁기 명 <도> 쟁기의 일종으로, 쟁깃술(몽클)의 오므라짐이 심하지 않은 쟁기. [중문] = 옥-쟁기.

벗-ᄒᆞ다 동 벗-하다(朋--). [전역]

벙것 명 <의> 벙거지. [전역] = 벌립.

벙게 명 조금 어수룩한 사람을 조롱하여 이르는 말. [전역]

벙굴레기-트다 동 [수산] → 버꿀레기-트다.

벙긋-이 부 벙긋-이. [전역] = 벙읏-이.

벙긋-ᄒᆞ다 형 벙긋-하다. 사이가 조금 벌어져 있다. [전역] = 벙읏-ᄒᆞ다.

벙뎅이 명 가루(粉)로 된 물건이 엉키어 붙은 자그마한 덩어리. [전역]

벙어리 명 [전역] → 버버리.

벙에 명 [전역] → 밧-벙뎅이.

벙읏-이 부 [전역] → 벙긋-이.

벙읏-ᄒᆞ다 형 [노형 인성 김녕 조수] → 벙긋-ᄒᆞ다.

베[1] 명 배(船). *(속) 집은 상 살곡, 벤 지성 타라.(집은 사서 살고, 배는 지어서 타라.) *(속) 논좃으로 베 젓는다.('논좃'으로 배를 젓는다. 재력(財力)도 없으면서 허황한 일을 함을 비유해서 일컫는 말.) [전역]

베[2] 명 배(梨). [전역]

베[3] 명 배(腹). [전역] = 부애[1].

베[4] 명 베(布). [전역]

베[5] 명 켤레. [전역] = 배[2], 커리.

베 젓는 소리 명 <요> [전역] → 네 젓는 소리.

베게 명 베개(枕). [전역]

베게-맡 명 [전역] → 베겟-머리.

베게-밋 명 베갯-밑. 누운 자리에서 베개가 놓인 곳. [전역]

베겟-거죽 명 베갯-잇.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수산] = 베겟-걱죽, 베겟-걱적, 베겟-잇.

베겟-걱적 명 [인성 서홍 수산 김녕] → 베겟-거죽.

베겟-걱죽 명 [가시] → 베겟-거죽.

베겟-머리 명 베갯-머리. 베개를 베고 누웠을 때에 머리가 향한 위쪽의 가까운 곳. [전역] = 베게-맡.

베겟-메기 명 [인성 화순 하원] → 베겟-모마기.

베겟-모마기 명 베갯-모(枕-). [노형 조수] = 베겟-메기, 베겟-모매기, 베겟-오메기.

베겟-모매기 명 [서홍 수산 김녕 노형 조수 표선] → 베겟-모마기.

베겟-오메기 명 [태흥 세화] → 베겟-모마기.

베겟-잇 명 [조수 노형] → 베겟-거죽.

베-고프다 형 배-고프다. [전역]

베구-우다 동 [김녕] → 베기-우다.

베기[1] 명 <동> 점-다랭이. [전역] =

막개, 베이기.

베기[2] 명 <동> 부시리. [사계]

베기-우다 동 자기의 말만을 고집하여 우기다. [전역] = 베구-우다.

베-끄다 형 배-부르다. *얼멜 먹엉 나 베끌 밥을 손을 받앙 빌어라 ᄒᆞ여.(얼마를 먹어 내 배부를 밥을 손을 받아 빌더라 하네.) [전역]

베-낭 명 <식> 배-나무(梨--). [전역]

베다[1] 동 보이다. 눈에 띄다. *절 삼베도 마타 베고 술 석 잔도 받아 베고.(절 삼배도 받아 보이고 술 석잔도 받아 보이고.) [전역]

베다[2] 동 베다. 베개 위에 머리를 얹다. [전역] 고 벼다.

베다[3] 동 [전역] → 비다[1]. 고 바히다.

베다[4] 동 배다(姙). *베믄 ᄒᆞᆫ 시름, 나믄 열 시름.(배면 한 시름, 낳으면 열 시름.) [전역]

베다[5] 동 멱둥구미 따위를 곡식 같은 것을 담기 위하여 벌리다.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버위다.

베다[6] 형 가볍지 않다. *(속) 메역짐광 애기짐은 베여도 안 내분다.(미역짐과 아기짐은 무거워도 안 내버린다.) [전역]

베-다르다 형 배-다르다(異腹). [전역]

베두리-마을 명 <지> 제주시 연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베두리-오름 명 <지> 제주시 연동 삼무공원이 들어선 작은 오름. 표고 85미터. [연 노형]

베드레기 명 <동> 베도라치. [노형 인성 서홍 수산 김녕] = 베들레기, ᄇᆞ드레기, ᄇᆞ들라기, ᄇᆞ들락.

베들레기 명 <동> [김녕 조수] → 베드레기.

베-떼기 명 배-때기. [전역] = 베-야뎅이, 베-야지.

베-또롱 명 [하원 서홍 태흥 세화 표선 수산 조천] → 베-똥.

베또롱-줄 명 [서홍 수산 가시 김녕] → 베똥-줄.

베또롱줄-그치다 동 [수산 김녕] → 베똥줄-끈다.

베-똥 명 배-꼽. [인성 화순 노형 조수 어도] = 베-또롱. 고 빗복.

베똥-줄 명 탯-줄. [인성 노형 조수] = 베또롱-줄.

베똥줄-끈다 동 아이를 낳은 뒤에 탯줄을 끊다. [전역] = 베또롱줄-그치다.

베-뛸락 명 줄-넘기. [전역]

베락 명 벼락(霹靂). [전역] 고 벼락.

베락-맞다 동 벼락-맞다. *(속) 애무ᄒᆞᆫ 말ᄒᆞ민 벳난 날에 베락 맞나.(공연한 말하면 볕 난 날에 벼락 맞는다.) [전역]

베락-치다 동 벼락-치다(霹靂--). [전역]

베랑 부 별로. [전역]

베레기-궂다 형 [인성 화순 서홍 하원] → 바레기-궂다.

베레다 동 [전역] → 베리다[2].

베렝이 명 [전역] → 버렝이[2].

베록-좀 명 노루-잠. [전역]

베롱개-클 명 <식> 논에 나는 김의 일종. [대포]

베롱-베롱 부 여러 가지 색이 알락달락한 모양. 불빛이 반짝이는 모양. [전역]

베롱-ᄒᆞ다[1] 동 ① 생활이 옹색한 지경

에서 벗어나 조금 편하여지다. [전역] ② 눈이 약간 트이다. *아이덜이고 뭣이고 눈 베롱ᄒᆞᆫ 사름은 다 봐서.(아이들이고 무엇이고 눈이 약간 트인 사람은 모두 보았어.) [전역]

베롱-ᄒᆞ다[2] 형 틈으로 빛이 들어 비치어 약간 밝다. 불빛이 희미하다. *짚숙ᄒᆞᆫ 움탕ᄒᆞᆫ 골랭이에서 불이 베롱ᄒᆞ고.(깊숙하고 움푹한 골짜기에서 불이 '베롱하고'.) [전역]

베룩 명 벼룩(蚤). [전역] 고 벼록.

베르다 동 벼르다. 뜻한 일을 이루려고 꾸준히 꾀하다. [전역]

베르-싸다 동 ① 생선의 배를 가르다.(따다) [전역] = 베-ᄇᆞ르다, 베-카다, 베-ᄏᆞ다, 베-타다, 페싸다, 페쓰다. ② 밀봉된 물건을 열다. [전역] = 베르-쓰다, 베리-싸다.

베르-쓰다 동 [전역] → 베르-싸다②.

베리[1] 명 벼루(硯). [전역] 고 벼로.

베리[2] 명 [가시] → 벌레[2].

베리다[1] 동 벼리다. [전역]

베리다[2] 동 보다. *올레예 강 베려 보라, 아방 왐시냐.(골목에 가서 봐라, 아버지 오고 있는지.) [전역] = 베레다.

베리-싸다 동 [전역] = 베르-싸다②.

베리-오름 명 <지> 제주시 화북1동 바닷가, 오현고등학교 뒤에 있는 오름. 표고 136미터. [전역] = 벨도-오름, 별도-봉(別刀峰), 별도-악(別刀岳), 화북-봉(禾北峰).

베리-왓 명 <지> 제주시 아라2동의 한 자연마을. [아라]

베리-창 명 <지>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에 있는 왕이메의 분화구. [봉성광평]

베릿-내[1] 명 <지> 제주시 화북2동에서 화북1동으로 흘러가는 내(川). [전역]

베릿-내[2] 명 <지> 제주시 화북1동의 한 자연마을. [제주]

베릿-내[3] 명 <지> 서귀포시 중문동 서쪽을 흘러 바다로 들어가는 내(川). [중문] = 중문-천(中文川).

베릿내-개 명 <지> 서귀포시 중문동 포구의 옛 이름. [서귀포 중문] = 성천-포(星川浦).

베릿내-마을 명 <지> 서귀포시 중문동 포구인 '베릿내개' 바로 동쪽에 형성되었던 자연마을. [서귀포 중문]

베릿내-오름 명 <지> 서귀포시 중문동 바닷가, 베릿내 동안(東岸)에 있는 오름. 표고 101미터. [중문 색달] = 만지세미-오름, 성천-봉(星川峰).

베릿-배 명 벼리. 그물의 위쪽 코를 꿰어 잡아당기게 된 밧줄. [전역]

베말 명 [전역] → 비말.

베망 명 <동> [대포] → 비말.

베-못 명 배-못. [전역]

베미 명 <동> [전역] → 베염.

베-방선 명 <민> 배 놓음. 굿을 마치면서 도깨비신을 위하여 자그마한 짚배에 제물을 싣고 바다에 띄워 보내는 의례. [전역]

베-봉탕이 명 배-불뚝이. 배가 불뚝하게 나온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전역] = 베-붕텡이.

베-부루기 명 어린애의 배만 가리는 간소한 옷. [전역]

베-부르다 형 [전역] → 베-불르다.

베-불다 형 [전역] → 베-불르다.
베-불르다 형 배-부르다. [전역] = 베-부르다, 베-불다.
베붉은-가개비 명 <동> [서홍 김녕] → 하막.
베붉은-개개비 명 <동> [조수] → 하막.
베붉은-골개비 명 <동> [노형 어도 인성] → 하막.
베-붕텡이 명 [전역] → 베-봉탕이.
베-ᄇᆞ르다 동 [전역] → 베르-싸다①.
베석-자리 명 제사 때 배례(拜禮)하는 데 쓰는 자리. [전역]
베선이 명 임신부가 배를 타고 해녀작업하러 나갔을 때에 그 배 위에서 계집애를 분만했을 경우 그 애에게 붙여지는 별명. [중문]
베설 명 [전역] → 창지. 고 비술.
베설-창아리 명 [전역] → 베술-창지.
베설-창지 명 [전역] → 베술-창지.
베소롬-ᄒᆞ다 형 한쪽으로 약간 기울거나 쏠려서 비뚤어져 있다. [전역] = 베스름-ᄒᆞ다.
베송-뒷게 명 <민> 마마신을 배송할 때 제물을 놓아서 멀리 내다 버리는 채롱. [전역] = 베송-차롱.
베송-차롱 명 <민> [전역] → 베송-뒷게.
베수기 명 <도> [노형 조수] → 남-죽.
베수기-질 명 [노형 조수] → 남죽-질.
베수룸-ᄒᆞ다 형 배뚜름-하다. [전역]
베술기 명 <도> [인성] → 남-죽.
베술기-질 명 [인성] → 남죽-질.
베술지 명 <도> [화순] → 남-죽.
베스름-ᄒᆞ다 형 [전역] → 베소롬-ᄒᆞ다.
베슬 명 벼슬(官職). [전역] = 베실.
베슬기 명 <도> [덕수] → 남죽.
베슬-와치 명 벼슬-아치. [전역]
베슬-ᄒᆞ다 동 벼슬-하다. [전역] = 베실-ᄒᆞ다.
베실 명 [전역] → 베슬.
베실-베실 부 베슬-베슬. [전역] = 베질-베질.
베실-ᄒᆞ다 동 [전역] → 베슬-ᄒᆞ다.
베솔 명 [전역] → 창지.
베솔-궂다 형 성격이 못되다. 성질이 나쁘다. [전역]
베솔-ᄀᆞ무끄다 동 창자가 꼬이다. [전역]
베솔-창아리 명 [전역] → 베술-창지.
베솔-창지 명 배알. [전역] = 베설-창아리, 베설-창지, 베술-창아리.
베솔-토메기 명 [전역] → 베술-ᄐᆞ메기.
베솔-ᄐᆞ메기 명 ① 창자 토막. [전역] ② 고집쟁이 따위를 얕잡거나 비꼬아서 하는 말. [전역] = 베술-토메기.
베쏙엣-머리 명 [서홍 수산] → 베안엣-머리.
베-아레기 명 <동> [전역] → 베-어러기.
베-아프다 형 배-아프다. [전역]
베-아피 명 배-앓이(腹痛). [전역]
베안엣-머리 명 배냇-머리. 출생한 후 한 번도 깎지 않은 갓난아이의 머리털.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베쏙엣-머리.
베안엣-빙신 명 [전역] → 베안읫-벵신.
베안읫-벵신 명 배냇-병신. [하원 표선] = 베안읫-숭물, 베안엣-빙신, 본-숭물.
베안읫-숭물 명 [전역] → 베안읫-벵신.
베-알흐다 동 배-앓다.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猜忌)하고서 스스로 괴로워하다. [전역]

베-야뎅이 명 [전역] → 베-떼기.

베-야지 명 [전역] → 베-떼기.

베-어러기 명 <동> 배의 털빛이 얼럭덜럭한 소. [전역] = 베-아레기.

베염 명 <동> 뱀(蛇). ＊베염 뜨려난 막뎅인 거찌지도 말라.(뱀을 때렸던 막대기는 건드리지도 마라.) [전역] = 배염, 버염, 베미. 고 ᄇᆞ얌.

베염-고사리 명 <식> 뱀-고사리. [전역]



베염고사리

베염-고장 명 <식> 봉숭아. [전역]

베염-부기 명 <식> 비목-나무. [노형 조수 서홍 인성] = 베염-페기, 베염-포기, 베염-푸기, 벤페기.

베염-웃 명 [인성] → 베염-흘.

베염-탈 명 <식> [전역] → 게염지-탈.

베염-페기 명 <식> [김녕 가시] → 베염-부기.

베염-포기 명 <식> [전역] → 베염-부기.

베염-푸기 명 <식> [수산] → 베염-부기.

베염-헤치 명 뱀-띠. [전역]

베염-흘 명 뱀의 허물. [노형 조수 김녕 가시] = 베염-웃.

베영-대 명 <도> 뱁-댕이. 베를 짤 때에 날이 서로 붙지 않도록 사이사이에 지르는 막대.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버영-대, 베옷-대.

베옥-이다 동 닫히거나 덮인 것을 약간 틈나게 열다. [전역]

베옥-ᄒᆞ다 형 버름-하다. [전역]

베-웃 명 <의> 베-옷(布衣). [전역]

베웃-대 명 <도> [가시 수산 세화] → 베영-대.

베와-주다 동 가르쳐 주다. ＊그거 ᄒᆞ쏠 베와줍서.(그것 좀 가르쳐 주십시오.) [전역]

베우다 동 배우다. [전역]

베이기 명 <동> [노형 인성] → 베기[1].

베작 부 바닥이 거의 드러나거나 마른 상태. [전역]

베작-베작 부 물이 거의 잦아 바닥이 드러날 정도가 되거나 마른 상태의 모습. [전역]

베작베작-ᄒᆞ다 형 물이 거의 잦아 바닥이 드러날 정도가 되거나 마른 상태에 있다. [전역]

베 젓는 소리 명 [전역] → 네 젓는 소리.

베-조개 명 <동> 바지락-조개. [시흥]

베지근-ᄒᆞ다 형 고기 따위를 끓인 국물 같은 것이 맛이 있다. ＊무슨 베지근ᄒᆞᆫ 것덜 내 마치니 ᄉᆞ방 개덜이 와 가지고 움상움상 뎅길 판이라.(무슨 비지근한 것들 냄새 맡으니 사방(四方) 개들이 와서 어수선하게 다닐 판이라.) [전역]

베질-베질 부 [전역] → 베실-베실.

베질베질-ᄒᆞ다 형 물이 거의 잦아 바

닥이 드러날 정도가 되거나 마른 상태가 되다. [전역]

베ᄌᆞ 명 <의> 배자(褙子). [전역]

베짝-ᄒᆞ다 형 속이 다 드러날 정도로 밖으로 드러나 있다. ＊암첨복은 베짝ᄒᆞ곡 수컨 좀팍 모냥으로 움탕ᄒᆞ주기.(암전복은 '베짝하고' 수컷은 '좀팍' 모양으로 움푹하지.) [하귀]

베차기 명 <식> [조수] → 베체기[2].

베창-옷 명 <의> [전역] → 봇뒤-창옷.

베체기[1] 명 <동> 거북-손. ＊베체기 바당 돌바위에 딱딱 박아지는 거.(거북손은 바다의 돌바위에 딱딱 박아지는 것.) [하귀 애월 이호 행원 보목] = 대수왈, 대오살, 대우살.



베체기[1]

베체기[2] 명 <식> 질경이. [전역] = 베차기.



베체기[2]

베체기-고장 명 질경이-꽃. [전역] = 베체기-꼿.

베체기-꼿 명 [전역] → 베체기-고장.

베-체우다 동 남의 비위를 건드려 성나게 하다. [전역]

베치 명 <식> 배추(白菜). [전역] 고 비칙.

베-치메 명 <의> 베-치마. [전역]

베-카다 동 [서홍 수산 조수] → 베르-싸다①.

베코 명 배코. [전역] = 베콧-자리, 상통-자리, 상퉁-자리.

베콧-자리 명 [전역] → 베코.

베-클 명 베-틀. [전역] = 베-틀.

베클 소리 명 <요> 베틀에서 피륙을 짜는 과정을 노래하는 민요. 베틀의 여러 부분의 기능이 자상하게 묘사됨. [전역]

베-ᄏᆞ다 동 [노형 어도] → 베르-싸다①.

베-타다 동 [전역] → 베르-싸다①.

베-토막이 명 [전역] → 베-통이.

베-통이 명 배-퉁이. [전역] = 베-토막이, 베-퉁잇.

베-퉁잇 명 [전역] → 베-통이.

베-틀 명 [전역] → 베-클.

베포도업-침 명 <민> 초감제의 첫 제차로 우주 자연의 생성을 노래하는 대목. [전역]

벡 명 백(百). [전역]

벡갑이-꼿 명 <식> [서홍 인성] → 벡합쵀-꼿.

벡갑초-꼿 명 <식> [가시] → 벡합쵀-꼿.

벡-개 명 <지> ① 제주시 이호1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② 제주시 이호1동의 포구. [전역]

벡년-초 명 <식> [서홍 김녕 조수] →

선인-장.

벡-담 명 돌멩이로 벽을 쌓듯이 에둘러 놓은 밭담. *바령팟은 벡담이라사 ᄒᆞ주.('바령밭'은 '벡담'이라야 하지.) [성읍]

벡도-방낮 명 [인성 조수] → 벡주-방낮.

벡-돔박낭 명 <식> 백-동백나무. [전역]

벡랍 명 <동> [수산 인성 김녕 조수] → 벡레.

벡레 명 <동> 백랍(白蠟). [전역] = 벡랍.

벡마 명 <동> [전역] → 벡메.

벡메 명 <동> 백마(白馬). [전역] = 벡마.

벡-모살 명 흰-모래. [전역] = 벡-몰레.

벡-몰레 명 [전역] → 벡-모살.

벡미 명 백미(白米). [전역]

벡-버즘 명 [김녕 인성] → 군-버즘.

벡-베 명 백-배(百倍). [전역]

벡-보지 명 밴대-보지. [전역]

벡-ᄇᆞ름 명 <건> 바람-벽(-壁). *(속) 벡ᄇᆞ름도 귀가 싯져.(바람벽도 귀가 있다.) [전역] = 벽-ᄇᆞ롬.

벡사리 명 <동> [노형 조수 인성] → 빈데[1].

벡-사우 명 <동> [조수] → 벡-새위.

벡-상어 명 <동> 별-상어. [사계]

벡-새위 명 <동> 개-상어. [인성 노형 서홍 수산] = 벡-사우, 벡-세우, 벡-시위.

벡-설기 명 <음> 백-설기. [전역]

벡성 명 백성(百姓). [전역]

벡-세우 명 <동> [노형 인성] → 벡-새위.

벡-시위 명 <동> [김녕 조수] → 벡-새위.

벡양-목 명 <식> 백양(白楊). [전역] = 벡영-목.

벡영-목 명 <식> [전역] → 벡양-목.

벡영봉-낭 명 <식> 양-버들. [전역] = 전봇대-낭.

벡일-헤 명 <병> 백일-해(百日咳). [전역]

벡일-홍 명 <식> 배롱-나무. [전역]

벡장 명 <건> 벽장(壁欌). [전역] = 스렁, 시렁.

벡장-귀클 명 <건> 벽장 앞으로 가로로 짜 놓은 나무. [김녕] = 벡장-틀, 시렁-귀틀.

벡장-동티 명 <민> 벽장 동티. 성관계로 일어난 동티. [전역]

벡장-틀 명 [노형] → 벡장-귀클.

벡정-놈 명 백정(白丁). [전역]

벡종-날 명 백중-날(百中-). [전역]

벡주 명 백주(白晝). [전역]

벡주-방낮 명 환히 밝은 한낮. [가시] = 벡도-방낮.

벡줏-도 명 <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송당본향당의 신. [전역] = 금-벡주.

벡지알-대김 명 <민> 백지 다짐. 굿을 하기 전에 간단한 축원을 하고 소지(燒紙)를 살라 굿을 하겠다는 것을 신에게 알리는 의례. [용담]

벡-케 명 큰 돌들이 절벽같이 쌓여진 곳. [화순 하원 태흥 수산 조천 노형]

벡파-염주 명 <민> 백팔-염주. [전역]

벡합-꼿 명 <식> [수산 김녕] → 벡합쵀-꼿.

벡합초-꼿 명 <식> [조수] → 벡합쵀

-꼿.

벡합쳬-꼿 명 <식> 나리-꽃. [노형] = 벡갑이-꼿, 벡갑초-꼿, 벡합-꼿, 벡합초-꼿.

벤데 명 <식> [노형 조수 인성] → 빈데-쿨.

벤-돈 명 변-돈(邊-). [전역] = 벤릿-돈.

벤드레 명 <도> 낚싯거루의 노를 저을 수 있도록 배 멍에와 노손을 묶어 놓은 밧줄. *헤벤 놈은 벤드레 코, 웃드르 놈은 씨 망텡이.(해변 놈은 '벤드레' 코, 산간 놈은 씨 멱둥구미.) [전역]

벤리 명 변리(邊利). [전역]

벤릿-돈 명 [전역] → 벤-돈.

벤-밧 명 물이 흘러들어 모이는 기름진 밭. [송당]

벤벤-ᄒᆞ다[1] 형 무겁디-무겁다. [전역]

벤벤-ᄒᆞ다[2] 형 변변-하다. 생김새가 남에 비해 떨어지지 않게 상당하다. [전역]

벤자리 명 <동> 벤자리. [전역]

벤-줄 명 <식> [인성 서홍 김녕] → 벵-귤.

벤줄레 명 <도> 땅 속의 돌 같은 것을 파 일으키는 데 쓰는 끝이 뾰족하게 만들어진 연장. [전역]

벤페기 명 <식> [토평] → 베염부기.

벤-ᄒᆞ다 동 변-하다(變--). [전역]

벨 명 별(星). [전역] = 빌[1].

벨-나다 형 [전역] → 벨-ᄒᆞ다.

벨도 명 <지> 제주시 화북1동의 옛 이름. [화북]

벨도-오름 명 <지> [전역] → 베리-오름.

벨딱-ᄒᆞ다 동 무슨 일에 노하여 성을 왈칵 내다. [전역] = 벨착-ᄒᆞ다.

벨떼기-꾼 명 무슨 일에 노하여 성을 왈칵 잘 내는 사람. [수산 가시 김녕 조수]

벨떼기-부리다 동 무슨 일에 노하여 걸핏하면 왈칵 성내다. [전역]

벨라-먹다 동 핥아-먹다. ① 옳지 못한 수단으로 남의 재물을 빼앗아 가지다. [전역] ② 음식 따위를 억지로 떼써서 얻어먹다. *성 안네 사는 사름덜은 타리에서 오는 사름 술 벨라 먹는 버릇이 잇엇어.(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타리에서 오는 사람에게 술 핥아먹는 버릇이 있었어.) [성읍]

벨라-지다 형 ① 겉이 걷혀지거나 까져 속이 드러나다. [전역] ② 바라-지다. 나이에 비하여 지나치게 야무지다. *자원 너믜 벨라져.(저 아이는 지나치게 야무져.) [전역]

벨랑귀 명 <식> [조수 인성] → 멩게.

벨랑귀-낭 명 <식> [조수] → 멩게-낭.

벨량 명 [인성 화순 하원 노형 조수 어도] → 벨호.

벨레기 명 [서홍] → 멩게.

벨레기-낭 명 <식> [서홍] → 멩게-낭.

벨련 명 [태흥 표선 수산] → 벨호.

벨로 부 별로(別-). [전역] = 벨로-이.

벨로-이 부 [전역] → 벨로.

벨롱젱이 명 <민> 1년간 집안의 행운을 비는 굿의 이름. [전역]

벨롱-벨롱 부 불빛이 멀리서 번쩍이는 모양. [전역]

벨뤼 명 [어도 조수] → 벨호.

벨뤼-에 부 남과 아주 다르고 표나게.

[전역]

벨르다 동 발리다. 껍질 따위를 벗겨 속의 것을 드러내다. *영 벨란 보난 으물이 꽉 차선게 놈 보기 전의 얼른 입안터레 들여놔부럿주.(이렇게 발라 보니 여물이 꽉 차 있기에 남 보기 전에 얼른 입안으로 집어넣어 버렸지.) [전역]

벨리 명 [표선] → 벨호.

벨-말 명 별-말(別-). [전역]

벨망 명 <동> [전역] → 비말.

벨명 명 [전역] → 벨멩.

벨멩 명 별명(別名). [전역] = 벨명.

벨미 명 별미(別味). [전역] = 별미.

벨-상의 명 <동> [조수] → 저울-도리.

벨-소리 명 별-소리(別--). *살당 보믄 벨소리 다 들엇진다. 경ᄒᆞ여도 춤으멍 살아사 ᄒᆞᆫ다.(살다가 보면 별소리 다 듣게 된다. 그래도 참으며 살아야 한다.) [전역]

벨-수 명 별-수(別數). [전역] = 벨-쉬.

벨-쉬 명 [전역] → 벨-수.

벨-일 명 별-일(別-). [전역]

벨-장게 명 별-똥(隕星). [전역]

벨진-밧 명 '별이 떨어진 밭'이란 뜻으로, 넓고 기름진 밭. *벨진밧도 버치는듸 ᄃᆞᆯ진밧이사 내 어떵ᄒᆞ리.('별진밭'도 부치는데 '달진밭'이야 내 어찌하리.) [전역]

벨착-벨착 부 벌끈-벌끈. 걸핏하면 성을 왈칵 잘 내는 모양.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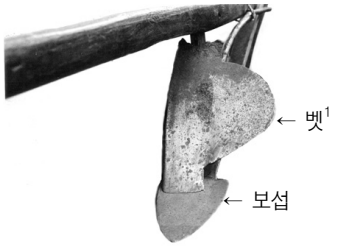
벨착-ᄒᆞ다 동 [전역] → 벨딱-ᄒᆞ다.

벨-치락 부 걸핏하면 성을 왈칵 내는 모양. *그 사름, 그만썩 ᄒᆞᆫ 일에도 벨치락. 경ᄒᆞ는 사름인 중 이제사 알암디야.(그 사람 그만큼 한 일에도 왈칵. 그런 사람인 줄 이제야 알고 있니.) [전역]

벨호 명 별호(別號). [전역] = 벨량, 벨련, 벨뤼, 벨리.

벨-ᄒᆞ다 형 별-나다. 별-하다. [전역] = 벨-나다.

벳[1] 명 <공> 볏. 쟁기의 보습 위에 대는 조각. [전역]



벳[1]과 보섭

벳[2] 명 볕(陽). [전역]

벳-가죽 명 뱃-가죽. [전역]

벳-고사리 명 <식> 햇볕을 많이 받아 키가 크지 못한 고사리. [전역]

벳-공젱이 명 <도> [전역] → 벳-바드렝이.

벳-ᄀᆞ렝이 명 아지랑이. [인성 화순 하원 서홍 태흥 세화 조수] = 벳-ᄀᆞ멩이, 벳-도체비.

벳-ᄀᆞ멩이 명 [태흥 수산 노형 조천] → 벳-ᄀᆞ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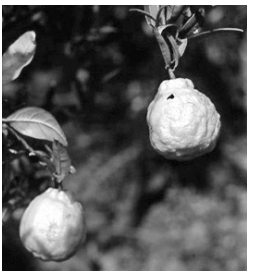
벳-덩이 명 <공> 볏을 주조(鑄造)할 때의 주형(鑄型). [덕수]

벳도 명 <지> 제주시 화북1동의 옛 이름 중 하나. [화북] = 벳뒤.

벳-도체비 명 [노형] → 벳-ᄀᆞ렝이.

벳뒤 명 <지> [화북] → 벳도.

벳-마추다 동 볕을 맞히다. [전역]
벳-머리 명 <지> 제주시 오라1동의 옛 이름. [오라]
벳-멀미 명 뱃-멀미. [전역]
벳-물질 명 <어> 해녀 한 동아리가 배를 함께 타고 정해진 어장까지 나가서 치르는 작업. [전역]
벳-바드렝이 명 <도> 보습 위에 댄 볏을 받치는, 한 마루에 꿰어진 나무깽이. [전역] = 벳-공젱이, 벳-받이.
벳-바령 명 경작하지 않은 밭에 바령을 들이고 나서 소의 똥을 햇볕에 말리는 일. [성산 수산]
벳-바르다 형 볕-바르다. [전역]
벳-바위 명 뱃-전(船緣). [전역]
벳-받이 명 [전역] → 벳-바드렝이.
벳-방귀 명 뱃-고동. *베엔 가민 벳방귀 소리.(배엔 가면 뱃고동 소리.) [전역]
벳-버즘 명 <병> [가시] → 군-버즘.
벳-보기 명 배(腹)의 겉면(外面). [수산 김녕 조수] = 벳-복, 벳-복지, 벳-부기.
벳-복 명 [인성 서홍] → 벳-보기.
벳-복지 명 [서홍 김녕] → 벳-보기.
벳-부기 명 [조수 어도] → 벳-보기.
벳-살 명 볕-살(陽-). [전역]
벳-소곱 명 뱃-속. *게난 입바위가 달달달달 터는 거라. 아기도 벳소곱에서 얼언.(그러니까 입술이 덜덜덜덜 떠는 거야. 아기도 뱃속에서 얼었어.) [이호 하귀]
벳-쒜우다 동 볕-쐬다. [전역]
벳제기 명 <동> 어린 암전복. [신촌]
벳-줄 명 쟁기 몸체에 볏을 고정시킬 때 묶는 줄. [전역]
벳-지 명 <민> 배의 무사를 비는 뜻으로 제물을 조금씩 놓아 백지로 싼 뭉치. [전역]
벳-칼 명 <도> 쟁기의 볏에 묻은 흙을 긁어 내리우는 나뭇조각. [전역]
벳-톡 명 볏-자리. 쟁기에 볏대가리가 의지하게 한 곳. [전역]
벳-톨레 명 <도> 쟁기에 볏을 단단히 틀어 주는 나무 막대. [전역]
벵[1] 명 [전역] → 펭.
벵[2] 명 병(病). [전역] = 병, 빙[2].
벵갯-대 명 <도> 북에 넣는 실꾸리가 감겨진 대. [인성 조수] = 벵-고레, 벵-고리.
벵-고레 명 <도> [서홍] → 벵갯-대.
벵-고리 명 <도> [수산 가시] → 벵갯-대.
벵-고완 명 [전역] → 벵-구완.
벵곳-오름 명 <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안좌동 북서쪽, 번널오름과 나란히 있는 오름. 표고 288.1미터. [가시 교래] = 병곳-오름, 안좌악.
벵-구완 명 병-구완(病--). [전역] = 벵-고완, 빙-고완, 빙-구완.
벵-귤 명 <식> 병귤(甁橘). 밀감보다는 조금 작은 병 모가지 모양의 꼭


벵귤

지가 달린 귤. [조수 노형 가시] = 벤-줄, 펭-귤.

벵-나다 동 병-나다(病--). [전역] = 빙-나다.

벵두암 명 <건> [수산] → 거왕.

벵뒤 명 널따란 벌판. 평대(坪垈). *그저 벵뒤에서 혼자 고사리 똑똑 꺼껌시니.(그저 벌판에서 혼자 고사리를 똑똑 꺾고 있으니.) [전역] = 벵듸[3].

벵-들다 동 병-들다(病--). [전역] = 병-들다, 빙-들다.

벵듸[1] 명 <지> 제주시 외도동 도평 마을의 옛 이름. [외도]

벵듸[2] 명 <지> 구좌읍 평대리의 옛 이름. [구좌] = 동-벵듸, 벵디.

벵듸[3] 명 [전역] → 벵뒤.

벵듸왓-마을 명 <지> 제주시 오라2동의 한 자연마을. [오라]

벵디 명 <지> [구좌] → 벵듸[2].

벵맷-기 명 <민> 병마기(兵馬旗). 당굿을 할 때 높은 대에 달아매는 기. [전역] = 삼천벵맷-기.

벵맷-대 명 <민> 당굿을 할 때 높은 기를 높이 달아맨 대. [전역] = 삼천벵맷-대.

벵문-내 명 <지> 제주시 오라1동을 흘러 삼도1동을 거쳐 바다로 흘러가는 내(川). [전역]

벵삭-벵삭 부 [전역] → 빙삭-빙삭.

벵삭-이 부 [전역] → 빙삭-이.

벵신 명 병신(病身). [전역] = 빙신.

벵어 명 <동> 병어. [전역] = 벵에.

벵에 명 <동> [전역] → 벵어.

벵완 명 병원(病院). [전역] = 빙원.

벵자 명 병자(病者). [전역] = 벵제, 빙자.

벵작 명 병작(竝作). [전역]

벵작-쉐 명 <동> [서홍 수산 김녕 가시] → 멤-쉐.

벵제 명 [전역] → 벵자.

벵-좋다(病--) 동 병이 아주 낫다. [전역]

벵-주시 명 병-추기(病--). [전역] = 병-주시, 빙-주시.

벵-집 명 병-집(病-). [전역] = 벵-칩.

벵-칩 명 [전역] → 벵-집.

벵풍 명 병풍(屛風). [전역] = 펭풍.

벽-ᄇᆞ롬 명 <건> [전역] → 벡-ᄇᆞ름.

별도-봉(別刀峰) 명 <지> → 베리-오름.

별도-악(別刀岳) 명 <지> [전역] → 베리-오름.

별미(別味) 명 [전역] → 벨미.

볏다리 명 <식> 벚나무의 한 종류. [봉성]

병 명 [전역] → 벵[2].

병곳-오름 명 <지> [가시 성읍 교래] → 벵곳-오름.

병-들다 동 [전역] → 벵-들다.

병-악[1](竝岳) 명 <지> [전역] → 굴른-오름.

병-악[2](竝岳) 명 <지> [전역] → 궤펭이-오름.

병-주시 명 [전역] → 벵-주시.

보 명 <공> 점흙을 이겨 만든 강낭콩만큼 한 흙덩이로 알과 보습 상형(上型) 주물(鑄物) 사이의 틈을 유지시켜 쇳물의 두께가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들어가도록 받쳐주는 하나의 기둥과 같은 물건. [덕수] = 알[3].

보고 조 보고. 받침 없는 인명이나 인

칭대명사에 붙어서 '~에게·~더러'의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 *이늠의 남ᄌᆞ보고 탁 혹해 불엇어.(이놈의 남자에게 탁 혹해 버렸어). [전역]

보고다 조 보고서. 여격 조사 '보고'에 특수 조사 '다'가 결합한 형태. *그 거북이 ᄉᆞ제 보고다, 제주도 가거든 살암시냐 안헴시냐 봐 보렌ᄒᆞ여.(그 거북이 사자(使者)보고서, 제주도 가거든 살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보라고 해.) *훤ᄒᆞᆫ 낮이다 놀래 간 오란 각시보고다, 배가 아판 살질 못ᄒᆞ겟다고 ᄒᆞ니.(환한 낮에 놀러 갔다 와서 각시보고서, 배가 아파서 살지를 못하겠다고 하니.) [전역]

보곰지 명 [김녕 어도] → 지갑.

보권 명 집단 꿩 사냥 때 숨어 있는 꿩을 찾아 날리는 일을 하는 사냥꾼. [성산 수산]

보글락-보글락 부 ① 물속에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는 모양. [전역] ② 이불 속에서 사람이 꼬물꼬물 움직이는 모양. [전역] ③ 물이 끓는 모양 등을 나타내는 말. [전역]

보글-보글 부 보글-보글. [전역]

보께다 동 보채다. [전역]

보끄다 동 볶다(炒). [전역]

보네다 동 보내다(送). [전역]

보다 조 보다. 체언에 붙어서 두 가지를 비교하는 데 쓰는 격조사. [전역]

보다는 조 보다는. [전역]

보단 조 보단. '보다는'의 준말. 체언에 붙어서 두 가지를 비교하는 데 쓰이는 격조사인 '보다'를 더 세게 나타내는 격조사. *배질 ᄒᆞᆫ 번 헤영 죽고 살고, 정승, 판서보단 낫은 대울 받는댄 ᄒᆞ니까, 내 이제는 ᄒᆞᆫ 번 헤 봐그네 죽어지건 말주.(배질 한 번 해서 죽고 살고, 정승, 판서보다는 나은 대우를 받는다고 하니까, 내 이제는 한 번 해 봐서 죽어지면 말지.) [전역]

보단도 조 보다도. 체언에 붙어서 두 가지를 비교하는 데 쓰이는 격조사 '보다'를 더 강조하여 나타내는 격조사. *어느 밧보단도 좋은 밧을 전부 아시 줄 걸로 ᄒᆞ고.(어느 밭보다도 좋은 밭을 전부 동생 줄 걸로 하고.) [전역]

보답 명 <민> 폐백(幣帛). 주로 무명, 명주 등을 씀. [전역]

보뎅이 명 여성의 보지를 일컫는 말. [전역]

보드랍다 형 보드랍다. [전역] 고 보ᄃᆞ랍다.

보들락-보들락 부 바둥-바둥. [전역]

보람 명 보람. ① 한 일이나 말에 대하여 돌아오는 좋은 결과. [전역] ②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나 딴 물건과 구별하기 위해서 해 두는 표(標). [전역]

보로-미[1] 명 <지> 서귀포시 서홍동 하논 안에 있는 작은 봉우리들을 이르는 말. 보로미(표고 85.4미터), 눈보로미(표고 75.4미터), 궤보로미(표고 83미터) 등이 있음. [서홍 호근]

보로-미[2] 명 <지>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에 있는 111.5미터의 오름. [애월]

보로-미[3] 명 <지> 서귀포시 대정읍 무릉리에 있는 표고 49미터의 오름.

[대정]

보롬 명 보름(望). [전역] = 보름. 고 보롬.

보롬-날 명 보름-날(望日). [전역] = 보름-날.

보롬-돌 명 보름-달(望月). [전역] = 보름-돌.

보름 명 [전역] → 보롬.

보름-날 명 [전역] → 보롬-날.

보름-돌 명 [전역] → 보롬-돌.

보리 명 <식> 보리(麥). [전역]

보리걸름 볼리는 소리 명 <요> 보리를 파종하기 직전에 재래식 변소에서 거름을 퍼내고 널찍한 곳에 늘어놓은 다음 보리씨를 거기에 뿌리고 마소를 앞세워 밟게 하면서 부르는 민요. [전역] = 걸름 볼리는 소리.

보리ᄀᆞ시락-동골름 명 <농> 보리를 타작함에 있어 도리깨로 두들겨 떨어낸 이삭 더미를 불림질해 가며 낟알과 까끄라기를 구분하는 일. [영평]

보리-대엽 명 <동> [귀덕] → 대엽.

보리-돔 명 <동> 황-돔. [신양]

보리-등개 명 <농> 보리를 찧을 때 나오는 가루. [전역]

보리-메역 명 <식> 음력 5월 안팎에 나는 미역. [북촌 우도 대포 일과]

보리-밥 명 <음> 보리-밥. [전역]

보리-쏠 명 보리-쌀(麥-). [전역]

보리-악(保狸岳) 명 <지> [신례 한남 상효] → 보리-오름.

보리-오름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논고오름 남서쪽에 있는 오름. 표고 740미터. [신례 한남 상효] = 보리-악(保狸岳).

보리-저구리 명 보리를 장만할 때 갑자기 추워지면 걸쳐 입는 겉옷. 즉 계절에 어울리지 않게 옷을 입은 사람을 비유함. [전역]

보리-찍 명 [서홍 가시] → 보릿-낭.

보리-찝 명 [수산 가시 김녕] → 보릿-낭.

보리찝-눌 명 [수산 가시 김녕]→ 보릿낭-눌.

보리-체 명 보리쌀의 겉껍질. [전역]

보리칩-방석 명 [수산 가시 김녕] → 보릿낭-방석.

보리-콕메기 명 보리알을 빼낸 껍질. [전역]

보리-콩 명 <식> 완두. [전역]

보리-클 명 <도> 보리를 떠는 농기구. [전역]

보리-탈 명 <식> 산딸기의 일종. [전역]

보리탈-낭[1] 명 <식> [노형 조수] → 감티탈-낭.

보리탈-낭[2] 명 <식> 장-딸기. [전역]

보리 훌트는 소리 명 <요> 보리를 훑으며 부르는 민요. [전역]

보릿-그르 명 보리를 베어 버리고 난 밑동 또는 그 밭. [전역]

보릿-남뎅이 명 '보릿짚'의 낮은말. [전역] = 보릿-낭뎅이, 보릿-낭께기.

보릿-낭 명 보릿-짚. [전역] = 보리-찍, 보리-찝.

보릿-낭께기 명 [노형 조수 서홍] → 보릿-남뎅이.

보릿낭-눌 명 보릿짚-가리.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보리찝-눌.

보릿-낭뎅이 명 [인성] → 보릿-남뎅이.

보릿낭-방석 명 보릿짚-방석.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보리칩-방석.

보릿-ᄉᆞ레기 명 맷돌에서 간 자잘한 보리쌀. [전역]

보릿-졸레 명 보리-쭉정이. [전역]

보말 명 <동> 고둥. *(속) 보말도 궤기여.(고둥도 고기야.) [전역]

보말-개 명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 바닷가에 있는 개(浦). 바닷개의 작은 돌들이 '보말'(남방고둥울타리)과 같다는 데서 붙인 것. [남원]

보말-국 명 <음> 고둥으로 끓인 국. [전역]

보말-담 명 자잘한 돌로 쌓아 올린 담. [조천 노형 조수 행원]

보말-동(--洞)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의 옛 이름. [남원]

보미 명 쌀-겨. [전역]

보미다 동 쇠붙이가 공기 중에서 천천히 산화(酸化)하다. [전역] 고 보믹다.

보비다 동 물건을 서로 맞대어 문지르다. [전역]

보빔-질 명 물건을 서로 맞대고 문지르는 일. [전역]

보선 명 <의> 버선. *(속) 보선이랑 뒈싸 보느냐?(버선이랑 뒤집어 보느냐?) [전역] 고 보션.

보선-본 명 버선-본. [전역] = 보선-볼.

보선-볼 명 [전역] → 보선-본.

보섭 명 <도> 보습(犁). [전역] = 보습. 고 보십.

보섭-뎅이 명 <공> 보습을 주조(鑄造)할 때의 주형(鑄型). [덕수]

보섭-따비 명 <도> 보섭 모양의 외날로만 이루어진 따비. 서귀포시 남원읍 일대의 사람들이 대정읍 일대의 따비를 두고 이르는 말. [남원]

보세-감상 명 <민> 큰굿에서 차려 놓은 제물과 준비한 정성이 어떠한가를 검증하는 제차. [전역] = 보세-신감상.

보세기 명 [수산] → 보시.

보세다 동 부시다. 그릇 따위를 대강 씻다. [전역] 고 보쇠다.

보세-신감상 명 <민> [전역] → 보세-감상.

보시 명 <도> 보시기. [전역] = 보세기, 보시기.

보시기 명 <도> [인성 서홍 노형 김녕] → 보시.

보시-떡 명 <음> 보시기에 쪄 낸 떡. [전역]

보시-메 명 <민> 신에게 제물로 올리기 위하여 보시기에 담은 밥. [전역]

보시-시리 명 <민> 보시기 모양으로 자그마하게 찐 시루떡. [전역]

보십-쌀 명 <민> 보시기에 가득 담아 놓은 쌀. [전역]



보십쌀

보습 명 <도> [조천 노형 조수] → 보섭.

보유스롱-ᄒᆞ다 형 [전역] → 보유스름-ᄒᆞ다.

보유스름-ᄒᆞ다 형 보유스름-하다. [전

역] = 보유스롱-ᄒᆞ다.

보재기 명 <어> [하원 서홍 태흥 표선 수산] → 보제기.

보재기-질 명 <어> [전역] → 보제기-질.

보제기 명 <어> 어부. 바다에서 해물(海物), 주로 고기잡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전역] = 보재기, ᄇᆞ재기, ᄇᆞ제기, 어제기.

보제기-질 명 <어> 바다에서 주로 고기잡이에 종사하는 일. [전역] = 보재기-질, ᄇᆞ재기-질, ᄇᆞ제기-질, 어제기-질.

보지 명 보지. 여성 생식기의 바깥 부분. [전역]

보질-보질 부 보슬-보슬. 물기가 적어지면서 마르는 모양. [전역]

보징 명 보증(保證). [전역]

보찌 명 <음> 두부나 묵 따위를 직사각형 모양으로 작게 썰어서 지진 음식. ＊보찔 만들엉게 두 가지로 놩. 고사리에는 짧은 거 놓고, 콩나물에는 긴 거를 놔예.('보찌'를 만들어서 두 가지로 놓아서. 고사리에는 짧은 것을 놓고, 콩나물에는 긴 것을 놓아요). [전역]

보찻-보리밥 명 <음> 보리를 미처 장만하지 못했을 때 보리의 거죽을 벗겨내지 않고 'ᄀᆞ레'(맷돌)에서 으깨기만 하여 지은 보리밥. ＊날씨 우쳔 보리 ᄀᆞᆯ지 못ᄒᆞ난 보찻보리밥이라.(날씨가 궂어서 보리를 갈지 못하니까 '보찻보리밥'이야.) [행원]

보체다 동 보채다. [전역] 고 보차다.

보포레미 명 <병> 뾰루지. [전역]

복(福) 명 복. ＊(속) 이른 이도 복, 늦인 이도 복.(이른 사람도 복, 늦은 사람도 복. 이른 농사(農事)든 늦은 농사든 천운(天運)에 달려 있다는 말.) [전역]

복-걸리 명 <민> 복(福)을 가리는 쌀. 제비점하는 쌀. [행원]

복닥 명 물건에 씌워진 껍질. [전역]

복닥-낭 명 <식> [태흥 표선 수산 세화 조천] → 다근죽-낭.

복-두께 명 조금 오목한 꼭지가 없는 바리뚜껑. [수산] = 복-지께.

복력(福力) 명 복력. [전역]

복-먹다 동 물 속에 빠져서 물을 먹다. [전역] = 복물-먹다.

복물-먹다 동 [수산 김녕] → 복-먹다.

복삭-거리다 동 마음이 설레어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슨 짓을 하려고 자꾸 움직이다. [노형 조수 인성 수산 김녕] = 복속-거리다, 복속-대다, 복시-대다.

복삭-ᄒᆞ다[1] 형 [전역] → 북삭-ᄒᆞ다.

복삭-ᄒᆞ다[2] 형 으깨어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다. [전역]

복삭-ᄒᆞ다[3] 형 몸이 노곤하다. [전역]

복-소지(福所志) 명 <민> 복을 기원하는 소지. [전역]

복속-거리다 동 [서홍] → 복삭-거리다.

복속-대다 동 [서홍] → 복삭-거리다.

복송 명 복숭아(桃實). ＊어디 복송 싱거 두난.(어디 복숭아 심어 두니.) [전역] = 복송게, 복숭게.

복송게 명 [전역] → 복송.

복송게-낭 명 <식> 복숭아-나무. [전역] = 복숭게-낭.

복수-다리 명 <동> [조천 조수] → 복쉬-다리.
복숭게 명 [전역] → 복송.
복숭게-낭 명 <식> [전역] → 복송게-낭.
복쉬-다리 명 <동> 엉치뼈가 부서져 상한 말이나 소. [인성 하원 화순 태흥 세화] = 복수-다리, 복시-다리.
복쉬뒈와-앉다 동 [서홍] → 뒈사려-앉다.
복쉬-뒈우다 동 [서홍] → 뒈-사리다.
복쉬-테우다 동 [수산] → 뒈-사리다.
복쉬퉤와-앉다 동 [수산]→ 뒈사려-앉다.
복시-다리 명 <동> [수산 표선 노형] → 복쉬-다리.
복시-대다 동 [수산 김녕 어도] → 복삭-거리다.
복아지 명 <동> [수원] → 복-젱이.
복-옷 명 <의> 상제의 옷. [전역] 교 복옷.
복-입다(服--) 동 복-입다. 기년(朞年) 이하의 복제(服制)를 입다. [전역]
복장[1] 명 속으로 품고 있는 생각. [전역]
복장[2]**(服裝)** 명 옷-차림. [전역]
복-장수(福長壽) 명 <민> 명장수(命長壽)에 운을 맞추기 위하여 만든 말. [전역]
복-젱이 명 <동> 복어. *(속) 복젱이 똥물 먹듯 ᄒᆞᆫ다.(복어 똥물 먹듯 한다.) [전역] = 복아지.
복-좋다(福--) 형 운수가 아주 길하다. [전역]
복-지께 명 [가시] → 복-두께.
복짝-나다 동 모종 따위가 빽빽이 나다. [전역]
복짝-썰다 동 잘고 가느다랗게 짓이겨 썰다. [전역]
복-치메(服--) 명 <의> 복-치마. [전역]
복-친 명 상가(喪家)에서 두건을 쓰거나 상복을 입은 친척. [전역]
복-쿨 명 <식> 깨-풀. [전역] = 복-풀.
복-풀 명 <식> [김녕] → 복-쿨
본 명 <어> 잠녀들이 물에 들어 전복 따위를 발견했지만 숨이 짧아 따지 못할 때, 다시 찾기 쉽게 그 위치를 표시해 두는 물건. 주로 전복 껍데기를 이용함. *본을 영 ᄒᆞ영 등따리에 창 뎅기당 전복 삐죽 봐지믄 그거 확 빵 그레 데껑. 그건 개남으로. ('본'을 이렇게 해서 등에 차서 다니다가 전복 삐죽 보게 되면 그저 확 빼서 그리로 던져서. 그것 가늠으로.) [이호]
본가-심방(本家--) 명 <민> 신굿을 하는 집의 주인 되는 심방. [전역] = 본주-심방.
본-금(本金) 명 [전역] → 본-금세.
본-금세 명 본-금새(本--). [전역] = 본-금(本金), 본-금지.
본-금지 명 [전역] → 본-금세.
본-남펜 명 본-남편(本男便). [전역] = 본-냄펜.
본-냄펜 명 [전역] → 본-남펜.
본데-없다 형 본듸-읏다. [전역]
본디 명부 본디(本-). [전역] = 본칫.
본디 본산국 구 <민> 본디 태어난 출생지. [전역]
본-뜨다 동 본-뜨다. [전역] = 본-트다.
본메 명 <민> [전역] → 본메 본짱.

본메 본짱 구 <민> 신(神)의 명함(名銜). [전역] = 본메.
본-받다 동 본-받다. [전역]
본-벵[1] 명 본-병(本病). [전역] = 본-빙.
본벵[2] 명 오래 지속되는 병. [전역]
본-보다 동 본-보다. [전역]
본-빙 명 [전역] → 본-벵[1].
본산-국 명 <민> 태어난 곳 혹은 그 내력. 본풀이. [전역]
본-속 명 <식> [전역] → 본-숙.
본-숙 명 <식> 떡-쑥. [전역] = 본-속.
본-숭물 명 [전역] → 베안읫-벵신.
본에-나다 형 보람-되다. [전역]
본전(本錢) 명 본전. [전역]
본주-심방(本主--) 명 <민> [전역] → 본가-심방.
본지-낭 명 <식> 노박-덩굴. [전역]
본지-오름 명 <지>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 남서쪽, 남산봉 동쪽 도로변에 있는 오름. 표고 151.9미터. [삼달 신풍 성읍 성산]
본치 명 상처 또는 부스럼 따위가 아문 뒤의 그 흔적. [전역]
본칫 명부 [명월] → 본디.
본-트다 동 [인성 노형 조수 어도] → 본-뜨다.
본풀이(本--) 명 <민> ① 신(神)의 내력담(來歷譚). [전역] ② 신의 내력담을 부르고 축원하는 제차(祭次). [전역]
본향(本鄕) 명 <민> 마을의 여러 가지 일을 관장하는 신(神). [전역]
본향-당(本鄕堂) 명 <민> 본향(本鄕)을 모신 당(堂). [전역]
본향-ᄃᆞ리(本鄕--) 명 <민> 큰굿에서 본향신을 위하여 따로 마련한 제차. [전역]
본향-토지관(本鄕土地官) 명 <민> 마을의 수호신. [전역]
본향-풀찌 명 <민> [전역] = 풀찌-거리.
본향-할망 명 <민> 마을을 지킨다는 여신(女神). [전역]
볼[1] 명 버선의 바닥. [대포]
볼[2] 명 볼. 좁고 기름한 물건의 넓이. [전역]
볼기 명 [전역] → 잠지.
볼기-떼리다 동 [전역] → 잠지-ᄯᅳ리다.
볼기-짝 명 볼기-짝. [전역]
볼나우-엇다 형 볼품-없다. [전역] = 볼춤-엇다.
볼레 명 보리수나무의 열매. [전역]
볼레-낭 명 <식> 보리수-나무. [전역]
볼레낭-숫 명 보리수나무로 만든 숯. *볼레낭숫은 ᄆᆞ디엉 오래가주.(보리수나무로 만든 숯은 마디어서 오래 가지.) [봉성]
볼레-오름 명 <지> 서귀포시 하원동 북쪽 국립공원의 영실(靈室) 서쪽에 있는 오름. 표고 1374미터. [전역] = 불래-산(佛來山).
볼-망데기 명 [전역] → 볼-태기.
볼-받다 동 볼-받다. 버선의 해진 곳을 헝겊 조각을 덧대서 깁다. [전역]
볼-뻬 명 광대-뼈. [전역]
볼-쌍 명 볼-썽. [전역]
볼쌍-궂다 형 볼썽-사납다. [전역]
볼쌍-그르다 형 체면이나 예모가 없어서 보기에 딱하다. [전역]
볼춤-엇다 형 [전역] → 볼나우-엇다.
볼-치 명 [전역] → 볼-태기.

볼-타구니 명 [전역] → 볼-태기.
볼-탁서니 명 [전역] → 볼-태기.
볼-태기 명 볼-때기. [전역] = 볼-망데기, 볼-치, 볼-타구니, 볼-탁서니, 볼-ᄐᆞ가리.
볼-ᄐᆞ가리 명 [전역] → 볼-태기.
봄 명 봄(春). [전역]
봄-갈이 명 <농> 겨울 농사를 짓지 않았던 밭에 이듬해 음력 6월 1일 안팎에 여름 농사를 짓기에 앞서 봄에 밭을 갈아 두는 일. [삼달]
봄-갈치 명 <동> 봄에 잡히는 갈치. *봄갈치 나끌 때는 고등에가 엇고.(봄갈치 낚을 때는 고등어가 없고.) [이호]
봄-내낭 부 봄-내(春-). [전역]
봄-듬북 명 <식> 봄에 나는 거름용 해조류인 '듬북'을 이르는 말. [표선 성산]
봄-방둔 명 청명(淸明)에서부터 음력 6월 1일 전후 여름농사 파종 때까지 이루어지는 '방둔'(放屯). [송당]
봄-사농 명 봄에 하는 사냥. 봄에 꿩을 잡으려고 여러 사람이 어우러져서 하는 사냥. [성산 수산]
봄-조 명 <식> 음력 6월 1일 이전에 파종하는 조(粟). [삼양] = 여름-조.
봄-ᄑᆞᆺ 명 <식> 이른 봄에 심는 팥. [전역]
봇 명 [전역] → 테[4].
봇뎃-옷 명 <의> [서홍 수산] → 봇뒤-창옷.
봇뎃-창옷 명 <의> [서홍 수산 가시] → 봇딧-창옷.
봇뒤-옷 명 <의> [전역] → 봇뒤-창옷.
봇뒤-적삼 명 <의> [전역] → 봇뒤-창옷.
봇뒤-창옷 명 <의> 아기가 태어나서 사흘 만에 입히는, 간편하게 지은 베옷. [전역] = 베창-옷, 봇뎃-옷, 봇뎃-창옷, 봇뒤-옷, 봇뒤-적삼, 봇딧-옷, 봇딧-창옷, 붓딧-적삼, 붓딧-창옷.



봇뒤창옷

봇딧-옷 명 <의> [전역] → 봇뒤-창옷.
봇딧-창옷 명 <의> [노형 조수 인성] → 봇뒤-창옷.
봉개-시리 명 조(粟)의 일종. [색달]
봉개-오름 명 <지> 제주시 봉개동의 북쪽에 위치한 오름. 표고 162.9미터. [봉개] = 봉아-오름, 붉은-오름[3].
봉그다 동 비용이나 노력을 들임이 없이 뜻하지 않은 물건을 거저 줍다. *우리 남펜이 사농ᄒᆞ레 나가서 꿩을 ᄒᆞ나 봉갓다.(우리 남편이 사냥하러 나가서 꿩을 하나 주웠다.) [전역]
봉그릇-ᄒᆞ다 형 봉긋-하다. *소살 손잡이 똑 요ᄁᆡ지 나이롱씰로 ᄒᆞ믄 이딘 ᄁᆡ늘게 ᄒᆞ곡 이딘 ᄒᆞ꼼 봉그릇ᄒᆞ지 아녀?(작살 손잡이 똑 여기까지 나이론실로 하면 여기는 가늘게 하고 여기는 조금 봉긋하지 않은가?) [이호]
봉깃-대 명 <민> 큰대. '봉기'는 큰대의 맨 위쪽에 매다는 기. [전역]
봉덕[1] 명 [한림 대정] → 불턱.

봉덕[2] 명 [인성 화순 하원 서홍 태흥 표선 수산 세화] → 부섭.

봉덕-불 명 마루 바닥에 설치된 돌화로의 불. 겨울에 난로 역할을 함. * 아희 구덕 속에 논 거 봉덕불에 밀어 두곤 오라십쥐.('애기구덕' 속에 놓은 것을 '봉덕불'에 밀어 두고는 왔습죠.) [명월]

봉데기 명 산봉우리 같이 물건이 솟거나 내민 부분. [전역]

봉둥이 명 <동> [인성] → 봉댕이.

봉래-천(蓬萊泉) 명 <지> 한라산 국립공원 용진굴에 있는 샘. [전역] → 용진굴-물.

봉봉 명 바닷물이 밀려와 만조가 된 모양. * 성창에 바당물이 봉봉 들어신게.(선창에 바닷물이 '봉봉' 들어와 있네.) [전역]

봉-불 명 [노형 조수 서홍 가시] → 봉화.

봉소-동(鳳巢洞)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의 한 자연마을. [조천]

봉소 명 봉사(盲人). [전역]

봉-아름 명 <지> 제주시 봉개동의 옛 이름. [봉개 삼앙]

봉아리 명 봉우리. [한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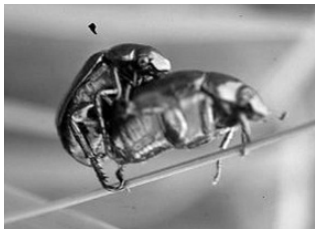
봉아-오름 명 <지> [봉개 아라] → 봉개-오름.

봉애기 명 <동> 풍뎅이. [조천]

봉엥이 명 <동> 등에. [전역]

봉오지 명 <지> 서귀포시 보목동 앞바다에 있는 숲섬의 맨 위 봉우리. 표고 159.5미터. [보목]

봉지-가 명 <요> 정의현(旌義縣)의 도읍지였던 성읍 등에서 전해지는 구



봉애기

성진 창민요. [전역]

봉창 명 [인성] → 게와.

봉창-질 명 봉창-질. [노형 김녕 조수]

봉토 명 봉투(封套). [전역] = 봉토지, 봉투.

봉토지 명 [전역] → 봉토.

봉통 명 <도> 부싯깃을 보관하는 대나무통. [사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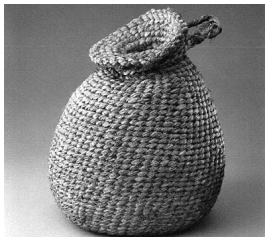
봉투(封套) 명 [전역] → 봉토.

봉화(烽火) 명 봉화. [전역] = 봉-불.

부(符) 명 부적(符籍). [전역]

부각-ᄒᆞ다 형 보각-하다. * 입바우에 게끔이 부각ᄒᆞ엿저.(입술에 거품이 보각했다.) [전역]

부게 명 <도> 짚으로 날을 촘촘히 속에 넣고 둥그스름하게 엮어 올리되 아가리를 주먹이 드나들 정도로 졸이고 목이 있게 만든 아주 작은 멱둥구미. [전역] = 부게기, 씻-부게,



부게

씻-부게기.

부게기 명 <도> [노형 조수] → 부게.

부고(訃告) 명 부고. [전역]

부구리 명 <동> 진드기가 성장하여 된 벌레. [전역] = 물케.

부굴레기-트다 동 [노형 어도] → 버꿀레기-트다.

부그럭-속담 명 가정 불화. [전역]

부근데 명 부검지. 짚의 잔 부스러기. [전역]

부글레기 명 ① 거품(泡沫). [조수 인성 화순] ② 해초의 공기주머니. [전역] = 굼불레기, 버굴레기, 버꿀레기, 벌굴레기, 부글-에기, 부끌레기, 함불레기.

부글-부글 부 부글-부글. [전역]

부글-에기 명 [이호] → 부글레기.

부끄다 동 끓어 넘치다. [전역]

부끄럼-ᄐᆞ다 동 [인성 서홍] → 부치럼-ᄐᆞ다.

부끄럽다 형 부끄럽다. [전역] = 부치럽다.

부끄림-ᄐᆞ다 동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부치럼-ᄐᆞ다.

부끌레기 명 [표선 세화 조천 노형 남원] → 부글레기.

부대끼다 동 부대끼다.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부대-오름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검은오름 남서쪽에 있는 오름. 표고 468.8미터. [전역]

부더-지다 동 [전역] → ᄂᆞ려-지다.

부-돌 명 부싯-돌. [전역] = 부-둘.

부두둥-베 명 임신하여 불룩한 배. [전역]

부두왜다 동 [인성] → 부두의다.

부두의다 동 가만히 있지 못하고 부스대다. [전역] = 부두왜다.

부둘 명 [어음] → 부돌.

부둥-퀴다 동 [전역] → 버둥-퀴다.

부드럽다 형 부드럽다. [전역]

부등개 명 <지> [남원] → 부등개-ᄆᆞ을.

부등개-ᄆᆞ을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의 옛 이름. [남원] = 부등개.

부디 부 부디. [전역]

부떠 조 부터. [전역]

부뜨다 동 [전역] → 부트다.

부러 부 부러. ① 짐짓. [전역] ② 실없는 거짓으로. [전역]

부러리 명 <지> 제주시 용담1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 버러지.

부러릿-개 명 <지> 제주시 용담1동 바닷가에 있는 한 포구. [용담]

부러-지다 동 부러-지다. [전역]

부레기 명 [노형] → 부루기.

부레기-베다 동 [김녕] → 부룩-베다.

부렝이 명 <동> [서홍 수산 김녕] → 부룽이.

부록-리(夫彔里・夫祿里・富錄里) 명 <지> [전역] → 부록-마을.

부록-마을 명 <지> 제주시 화북2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 부록-리(夫彔里・夫祿里・富錄里).

부루 명 <식> 상추. [전역]

부루기 명 수수, 벼 따위 식물의 이삭이 채 나오기 전에 껍질에 싸이어 불룩하게 된 것. [전역] = 부레기, 부룩.

부루-몰 명 <동> 적-부루마(赤--馬). [전역]

부룩 명 [조수] → 부루기.
부룩-베다 동 수수, 벼 따위의 이삭이 채 솟아 나오지 않고 껍질에 싸이어 불룩하게 되다.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부레기-베다.
부룸페기 명 <식> [전역] → 구룸비-낭.
부룹다 형 [노형 조수 인성] → 불룹다.
부룽이 명 <동> 부룩-소. [전역] = 부렝이. 고수쇼.
부룽이-통 명 공동목장 중에서 수소만을 가두어 기르는 통. [애월 고성]
부르다[1] 동 부르다(呼·唱). [전역] = 불르다[1]. 고브르다.
부르다[2] 형 부르다. 뱃속에 차서 가득하다. [전역] = 불다[3], 불르다[2].
부르-뜨다 동 [노형 조수] → 부릅-뜨다.
부름-씨 명 남의 부림(使役)을 받아서 하는 일. *니 아픈 부름씨랑 ᄒᆞ곡, 눈 아픈 부름씨랑 말라.(이 아픈 심부름은 하고, 눈 아픈 심부름이랑 하지 마라. 실리(實利)나 실속을 추구하라는 말.) [전역] = 부릅-씨.
부름씨-꾼 명 부림-꾼. [전역]
부릅-뜨다 동 부릅-뜨다. [조수 인성 김녕 서홍] = 버릅-뜨다, 부르-뜨다.
부릅-씨 명 [조수 어도] → 부름-씨.
부리 명 부리. ① 병 따위의 터진 부분. [전역] ② 새나 짐승의 주둥이. [전역] 고부우리.
부리나게 부 부리나케. [전역]
부리다 동 부리다. ① 일을 시키다. [전역] ② 실었던 짐을 내려놓다. [전역] ③ 사람을 쓰다. [전역] = 브리다. 고브리다.
부리-망 명 망울. [전역] = 망올.
부림-쉐 명 <동> 일-소. [옹포]
부림-패 명 밭을 갈 적에 오른편으로 쇠머리에 씌워진 긴 고삐. [전역] = 굴-배.
부림패-코 명 밭을 갈 적에 오른편으로 쇠머리에 씌우는 고삐의 뒤끝에 매어진 동그란 손잡이. [전역] = 부림패-코끼.
부림패-코끼 명 [조수] → 부림패-코.
부메니 명 <지> 제주시 애월읍 어음1리의 옛 이름. [전역] = 비메니.
부모(父母) 명 부모. [전역] = 부무.
부무 명 [어음 명월] → 부모.
부비다 동 물건을 서로 맞대어 문지르다. [전역] 고부븨다.
부비여-먹다 동 [김녕] → 버무려-먹다.
부빔-질 명 비게-질. [전역]
부사리 명 <동> 나이를 꽤 먹은 부룩소. [전역]
부상-걸다 동 바람이 웅성웅성하게 일어나다. [조수 김녕 노형]
부서-지다 동 부서-지다. [전역]
부섭 명 '상방'이라는 초가 마루 뒤편에 마룻장 밑으로 묻어 고정시키거나 부엌 바닥에 묻어 고정시켜 놓고 삭정이나 장작 또는 콩깍지 등으로 불을 때는 화로. [전역] = 봉덕[2].



부섭

부셋-주멩기 명 <도> [노형] → 부쉣-주멩기.
부소-오름 명 <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굼부리 북동쪽 방목지에 있는 오름. 표고 469.2미터. [전역] = 새물-미.
부수 명 [인성] → 부쉐.
부수다[1] 동 부수다. [전역]
부수다[2] 동 [전역] → 비우다[1].
부수-대기다 동 부스러-뜨리다. [전역] = 부스-대기다.
부수-치다 동 마구 부수어 버리다. [전역] = 부싀-치다.
부술 명 <도> 부삽(火鍤). [전역]
부숫-주멩기 명 <도> [인성] → 부쉣-주멩기.
부쉐 명 <도> 부시(火刀). [노형 조수 서홍 수산 가시] = 부수, 부쉬, 부시, 부시-쉐.
부쉣-주멩기 명 <도> 부시-쌈지.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가시] = 부셋-주멩기, 부숫-주멩기, 부쉣-줌치, 부쉿-주멩기, 부시-주멩이, 부싯-주멩기.
부쉣-줌치 명 <도> [수산 가시] → 부쉣-주멩기.
부쉬 명 <도> [서홍 김녕] → 부쉐.
부쉿-주멩기 명 <도> [서홍 김녕] → 부쉣-주멩기.
부스-대기다 동 [전역] → 부수-대기다.
부스락 부 부스럭. [전역] = 부슬락, 비실락.
부스럼 명 <병> [세화 조천 노형 조수] → 부스레미.
부스럼지 명 <병> [조수 인성 화순 하원 서홍] → 부스레미.
부스레기 명 부스러기. [전역]
부스레미 명 <병> 부스럼(腫患). [전역] = 부스럼, 부스럼지, 부으럼, 부으럼지, 부으레미.
부스스-ᄒᆞ다 형 물건이 서로 크고 작음이 없이 비등하다. [전역]
부슬락 부 [전역] → 부스락.
부싀-치다 동 [전역] → 부수-치다.
부시 명 <도> [사계] → 부쉐.
부시리 명 <동> 부시리. [서홍 수산 김녕 노형 조수]
부시-쉐 명 <도> [전역] → 부쉐.
부시-주멩이 명 <도> [사계] → 부쉣-주멩기
부싯-주멩기 명 <도> [인성 서홍] → 부쉣-주멩기.
부애[1] 명 [수산 태흥 조천] → 베[3].
부애[2] 감 어부바. [전역] = 어부애.
부억 명 <건> [전역] → 정지.
부엉-새 명 <민> 붕새(鵬鳥). [전역]
부에[1] 명 [전역] → 북부기.
부에[2] 명 부아. [전역]
부에-나다 동 화-나다. [전역]
부에-상ᄒᆞ다 동 마음 속에 성이 일어나 언짢게 되다. [전역]
부에-질르다 동 부아를 돋우다. [전역]
부엣-짐 명 부앗-김. [전역]
부영-ᄒᆞ다 형 부옇다. [전역] = 부희영-ᄒᆞ다, 부히영-ᄒᆞ다.
부으다 동 [수산 김녕 어도] → 비우다[1].
부으럼 명 <병> [수산 세화 어도] → 부스레미.
부으럼지 명 <병> [전역] → 부스레미.
부으레미 명 <병> [전역] → 부스레미.

부은-유마 명 <동> [조수 인성 화순 하원] → 부흰-유매.

부자리 명 거루나 돛단배 따위 배의 바닥에서 양옆으로 붙어 있는 반월형의 나무 널. ＊부자리는 베가 앞으로 가는디 추진력이 좋게시리 허는 거고.('부자리'는 배가 앞으로 가는데 추진력이 좋게끔 하는 것이고.) [이호]

부-자지 명 부-자지. 불알과 자지를 아울러 이르는 말. [전역]

부작 명 [전역] → 부족(不足).

부작-부작 부 풀 따위가 잘 들러붙는 모양. [전역] = 비작-비작.

부전 명 <민> 장구의 줄을 조이는 데 쓰이는 가죽 조각. ＊ᄋᆞ섯 부전.(여섯 '부전'.) [전역]

부제[1] 명 부자(富者). [전역]

부제[2] 명 <식> 부자(附子). 바꽃의 어린 뿌리. ＊옛날 부제덜 딸령 먹주게. 도새기 아강발 놩 그거 딸령. 질 보기엔 ᄒᆞᆫ 건 그거.(옛날 부자들 달여서 먹지. 돼지 족발을 넣어서 그거 달여서. 제일 보기(補氣)라고 한 것은 그것.) [이호]

부젯-칩 명 부잣-집. [전역]

부조(扶助) 명 [전역] → 부쥐.

부족(不足) 명 부족. [전역] = 부작.

부종(付種) 명 <농> 부종. [중문]

부종끗-자리 명 <동> 음력 6월 1일 안팎에 이루어지는 부종(付種) 끝 무렵에 산란한 자리돔. [사계]

부종-밧(付種-) 명 <농> 여름 농사를 지으려는 밭. [귀덕]

부주 명 [전역] → 부쥐.

부쥐 명 부조(扶助). [전역] = 부조, 부주.

부지땡이 명 <도> ＊(속) 부지땡인 데 어불기만 ᄒᆞ곡, 얻어먹진 못ᄒᆞᆫ다.(부지깽이는 불에 데어 버리기만 하고, 얻어먹지는 못한다.) [전역] → 부지뗑이.

부지뗑이 명 <도> 부지깽이(火杖). [전역] = 부지땡이, 불이뗑이.

부지런-ᄒᆞ다 형 부지런-하다. [전역]

부주 명 부자(父子). [전역]

부찌다[1] 동 ① (입에) 대다. ＊입 부찌기 실프다.(입에 대기 싫다). [전역] ② 붙이다. [전역]

부찌다[2] 동 <어> (오징어를) 낚다. ＊동해안에 가문 한치엔 ᄒᆞᆫ 것이 오징어 부찌당 보민 벌겅ᄒᆞᆫ 거 하나가 이만히 골체로 하나씩 ᄒᆞ여.(동해안에 가면 한치라고 하는 것이 오징어 낚다 보면 벌건 거 하나가 이만큼 삼태기로 하나씩 해.) [이호]

부찌-사돈 명 [전역] → 가지-사돈.

부찍 명 <도> 부싯-깃. 부싯돌로 불을 일으킬 때, 부싯돌에서 나오는 불티가 닿아 불이 일어날 수 있게 된 마른 풀. ＊부둘을 착 ᄒᆞ영 불 내언, 부찍에 부쪈.(부싯돌을 착 하여서 불을 내어 부싯깃에 붙여.) [어음] → 불-찍.

부채-꽝 명 어깨-뼈. [전역] = 푼체-꽝.

부체 명 부처(佛). [전역]

부출 명 <도> 들것, 덫 따위의 앞뒤로 길게 양옆에 대어진 나무. [전역]

부치럼-ᄐᆞ다 동 부끄럼-타다. [노형 조수 인성 어도 서홍 김녕] = 부끄

림-ᄐᆞ다, 부끄럼-ᄐᆞ다, 비끄림-ᄐᆞ다, 비치럼-ᄐᆞ다.

부치럽다 형 [전역] → 부끄럽다.

부트다 동 붙다. [전역] = 부뜨다. 고 븥다.

부푸레미 명 <병> 뾰족하게 생긴 작은 부스럼. [전역]

부풀다 동 부풀다. 살가죽이 부르터 오르다. [전역] 고부플다.

부풍-나게 부 불풍-나게. 매우 잦고도 바쁘게 드나드는 모양. [전역]

부피[1] 명 [북촌] → 비피.

부피[2] 명 부피. [전역]

부피다 동 붐비다. [전역]

부흐롱-ᄒᆞ다 형 빛이 진하지 않게 약간 부유스름하다. [전역]

부희영-ᄒᆞ다 형 [전역] → 부영-ᄒᆞ다.

부흰-유매 명 <동> 털빛이 진하지 않게 약간 부유스름한 말. [전역] = 부은-유매.

부히영-ᄒᆞ다 명 [전역] → 부영-ᄒᆞ다.

부-ᄒᆞ다 형 부-하다. 몸이 뚱뚱하여 살기가 많다. *옷 하영 입으난 부ᄒᆞ게 보염저.(옷을 많이 입으니까 부하게 보인다.) [전역]

북 명 <도> 북(鼓). [전역]

북가시-낭 명 <식> 북가시-나무. [전역] = 가시-낭[2].

북-개 명 <동> 북슬-개(--犬). 털이 북슬북슬하고 탐스럽게 생긴 개. [전역] = 북-수리.

북-낭 명 <식> 북-나무. [전역]

북-눈 명 한참 내릴 때의 눈. [도순]

북눈-사농 명 '북눈' 위에서 이루어지는 사냥. [도순]

북닥 명 북데기. 풀이나 짚 같은 것이 얼크러진 뭉텅이. *묵은 북닥 벗으라.(묵은 북데기 벗어라.) [전역] = 북데기.

북덕-방 명 <건> 짚, 검불 따위가 난잡하게 깔린 방. [전역]

북덕-제환지 명 <식> 조개-풀. [수산김녕] = 대롱-제완지, 북-제와니, 옷밤-절와니, 옷밤-절완지, 옷밤-제와니.

북데기 명 [전역] → 북닥.

북돌아진-오름 명 <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궤오름에 잇닿은 서쪽 오름. 암벽이 마치 북이 '돌아진'(달려 있는) 것처럼 보임. 표고 643미터. [봉성 한림 금악]

북-말 명 <민> 북의 양쪽 가죽을 서로 얽어맨 노끈과 북통 사이에 끼워서 가죽을 팽팽하게 하는 나뭇조각. [전역]

북-매 명 북 치듯이 때리는 매. [전역]

북매-맞다 동 북 치듯이 때리는 매를 맞다. [전역]

북무르다 동 [전역] → 북물다.

북물다 동 부르트다. [전역] = 북무르다, 붕물다.

북-받치다 동 북-받치다. [전역]

북방-ᄉᆞ주(白紡絲紬) 명 <민> 천의 한 종류. 흰 누에고치만으로 실을 켜서 짠 무명. [전역]

북베기 명 [전역] → 북부기.

북부기 명 허파(肺腑). [전역] = 부에[1], 북베기.

북북-긁다 동 손으로 벅벅 긁다. [전역]

북삭-ᄒᆞ다 형 무거운 물건이 움푹 들

어가도록 부드럽고 편안한 느낌이 있다. ＊북삭ᄒᆞᆫ 나무 껍데기 삭은 거 딱 부쪈 살펴보니.(북삭한 나무껍데기 삭은 것에 딱하게 불을 붙여서 살펴보니.) [전역] = 복삭-ᄒᆞ다[1].

북세미 명 <도> [가시] → 찝-동.

북-수리 명 <동> [김녕 가시 수산] → 북-개.

북시미 명 <도> [수산 서홍] → 찝-동.

북-솔 명 무-살. 단단하지 못하고 물렁물렁하게 찐 살. [전역]

북-오름[1] 명 <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상덕천 북서쪽에 있는 오름. 표고 305미터. [송당 덕천 선흘]

북-오름[2] 명 <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에 있는 거린오름의 주봉(主峰). 양쪽으로 갈라진 두 봉우리의 북쪽 봉우리임. 표고 314미터. [동광 서광] = 거린-오름[2].

북-제와니 명 <식> [노형] → 북덕-제환지.

북-조기 명 <동> 수-조기. [전역] = 북-주기.

북-주기 명 <동> ＊북주기가 옥돔보다는 고급이주.(수조기가 옥돔보다는 고급이지.) [조천 신흥] → 북-조기.

북-짐 명 <농> 소 길마로 짐을 운반할 때 부피가 비교적 큰 짐. [전역]

분부-사룀 명 <민> 무점(巫占)을 쳐서 신(神)의 뜻을 판단한 뒤 그 내용을 기원자(祈願者)에게 전하는 일. [전역]

분-상식 명 <민> 분-장식(粉粧飾). 분-화장. [전역]

분수(分數) 명 분수. [전역] = 분쉬.

분수박산 명 산산이 깨트려 부서짐. ＊이 글에 짝을 아이 채와 주민 해골을 막 분수박산 시기겟다.(이 글에 짝맞추어 주지 않으면 해골을 박살내어 버리겠다.) [구좌]

분수-엇다 형 분수-없다. [전역] = 분쉬-읏다, 분시-엇다.

분쉬 명 [전역] → 분수.

분쉬-읏다 형 [전역] → 분수-엇다.

분싓데가리-읏다 형 '분수-없다'의 낮은말. ＊경 분싓데가리읏이 ᄀᆞᆮ지 말라.(그렇게 분수없이 말하지 마라.) [전역]

분시-엇다 형 [전역] → 분수-엇다.

분-절 명 분-결(憤-). [전역]

분절-읏다 형 사물에 대해서 요량할 지혜가 없다. [어도]

분-제우다 동 분을 이기지 못하다. [전역]

분주-ᄒᆞ다 형 분주-하다. [전역] = 분쥐-ᄒᆞ다.

분쥐-ᄒᆞ다 형 [전역] → 분주-ᄒᆞ다.

분지-쿨 명 <식> 사위-질빵. [토평] = 쉐[2], 넌출[2].

분-짐 명 분-김(忿-). [전역]

분짓 명 분깃(分衿). 재산 따위를 자녀에게 나누어 준 것, 또는 나누어 준 몫. ＊ᄌᆞ기는 나쁜 걸로 이렇게 헤서 ᄂᆞ지냑ᄒᆞ게 헨 분짓을 ᄒᆞ니깐.(자기(自己)는 나쁜 것으로 이렇게 해서 나직하게 해서 분깃을 하니까.) [명월]

분-칡 명 3년쯤 자란 굵은 칡의 줄. ＊옛날엔 분칡으로 노리코를 만들아 낫주.(옛날엔 '분칡'으로 노루 올가미를 만들었었지.) [봉성]

분칡-코 명 <도> '분칡'으로 만든 노루의 코. [봉성]
분해-쟁이(分解--) 명 노루 사냥 때 자기 몫의 노루 고기를 받을 목적으로 산에 오르는 사람. [도순]
분-ᄒᆞ다(憤--) 형 분-하다. [전역]
불[1] 명 벌. 옷이나 그릇 따위의 여러가지가 한데 모여서 갖추어진 한 덩이. 또는 그렇게 된 물건을 세는 말. [전역]
불[2] 명 불(火). [전역] 고 블.
불[3] 명 번. 일의 횟수를 나타내는 말. *(속) 잰 놈 시 불 얻어먹나.(빠른 놈 세 번 얻어먹는다.) [전역] = 볼.
불 담다 구 성냥이 귀했을 적에 솥 아궁이에 늘 불씨를 지펴 두었는데, 그 불씨가 꺼졌을 경우 이웃집에서 불씨를 빌려서 담다. *불 담으레 온 인성은 이 ᄉᆡ상을 떠나 가네.(불씨를 담으러 온 인생은 이 세상을 떠나가네.) [전역]
불-갈레 명 <도> 나무로 만든 삽 비슷한 것으로, 솥아궁이로부터 불씨를 나르는 도구. [덕수] = 불-갈레죽.
불-갈레죽 명 <도> [용담] → 불-갈레.
불-게미 명 불-똥. [인성 화순 하원 표선 조천 노형 어도 조수] = 불-게예미, 불-똥, 불-테미, 불-퉤미.
불-게예미 명 [어도] → 불-게미.
불겡이 명 머리털 빛깔이 조금 노르스름한 사람. [노형 인성 조수 서홍 가시] = 불겡이.
불-궤수웨 명 [인성] → 불-쏘시게.
불그네 명 <도> 고무래. 아궁이의 재를 긁어내는 T자형의 연장. [인성 하원 서홍 수산] = 구그네, 군데[2], 굴른데, 굴흐네, 굴흔데, 근데[2], 불근데.
불근데 명 <도> [태흥] → 불그네.
불급시리 부 매우 다급하게. *이젠 그 놈을 불급시리 ᄒᆞ연, 지름 멧 통ᄒᆞ고 숫 멧 통을 ᄒᆞ여 들엿어.(이제는 그 놈을 다급하게 해서, 기름 몇 통하고 숯 몇 통을 하여 들였어.) [노형]
불-까다 동 불-까다. [전역] = 불-ᄭᅡ다, 불-치다.
불-껑 명 [전역] → 불-치.
불-꼿 명 불-꽃(火焰). [전역]
불끈 부 불끈. ① 주먹을 단단히 쥐는 모양. [전역] ② 성을 왈칵 내는 모양. [전역]
불끈-쥐다 동 불끈-쥐다. 무엇을 손안에 넣거나 또는 맨주먹을 부르쥐다. [전역]
불-끌럭지 명 [인성 서홍 화순 하원] → 불-끌레기.
불-끌레기 명 불-꾸러미. [전역] = 불-끌럭지.
불-ᄭᅡ다 동 [전역] → 불-까다.
불-나다 동 불-나다. 화재가 일어나다. [전역]
불-내다 동 불-내다. 화재가 일어나게 하다. [전역]
불다[1] 동 불다(吹). [전역]
불다[2] 동 -아/어/여 버리다. (동사 뒤에서 '아/어/여 불다'의 구성으로 쓰여) 앞말이 나타내는 행동이 이미 끝났음을 나타내거나 그 행동이 이루어진 결과, 말하는 이가 아쉬운 감정을 갖게 되었거나 또는 반대로 부담을 덜게 되

었음을 나타낼 때 쓴다. *이거 저레 치와 불라.(이거 저쪽으로 치워 버려라.) [전역] = 비다[2].

불다[3] 형 [전역] → 부르다[2].

불도 명 <민> 산신(山神). [전역]

불-도강이 명 <도> [인성] → 불밋-도간.

불도-맞이 명 <민> 산신(山神)을 맞아들여 아들 낳기를 기원하는 굿. [전역]

불-돌 명 <도> 넓미역 채취 도구인 갈퀴가 해저면(海底面)에 닿도록 무게를 주는, 낚시의 봉돌과 같은 기능을 하는 돌덩이. [우도]

불돗-제 명 <민> 산신인 불도할망을 청하여 기원하는 소규모 의례. [용담]

불-둑새기 명 [전역] → 붕-알.

불-둑세기 명 [전역] → 붕-알.

불-똥 명 [노형 어도 조수] → 불-게미.

불락-ᄒᆞ다 형 [전역] → 불룩-ᄒᆞ다.

불란지 명 <동> [전역] → 불한듸.

불래-산(佛來山) 명 <지> [전역] → 볼레-오름.

불량(不良) 명 불량. *(속) 불량을 풀다.(불량한 짓을 하며 돌아다니다.) [전역]

불러이-ᄒᆞ다 동 [수산] → 불러-ᄒᆞ다.

불러-ᄒᆞ다 동 부러워-하다.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불러이-ᄒᆞ다, 불워-ᄒᆞ다.

불룩-ᄒᆞ다 형 불룩-하다. [전역] = 불락-ᄒᆞ다.

불룹다 형 부럽다. [전역] = 부룹다, 붑다.

불르다[1] 동 [전역] → 부르다[1].

불르다[2] 형 [전역] → 부르다[2].

불리 명 [전역] → 불희.

불리-공 명 <민> 본-풀이. [전역] = 불휘-공, 불희-공.

불리다[1] 동 <농> 드리다. 곡식을 바람에 날려서 검불, 티, 쭉정이 따위를 날려 버리다. [전역]

불리다[2] 형 사람이 늙어 아랫도리가 허약하다. *우리 하르방 알 불려브난 걸음이 시원치 못ᄒᆞ여.(우리 할아버지 아래가 허약하니까 걸음이 시원하지 못해.) [신촌]

불림-질 명 <농> 타작이 끝난 곡식을 바람에 날려서 검불, 티, 쭉정이 따위를 날려 버리는 일. *콩 ᄒᆞᆫ 섬은 불림질을 헤영 거뜻이 들릅주.(콩 한 섬은 불림질해서 거뜬히 들지요.) [전역]

불림-친 명 <민> 갓의 뒤쪽으로 늘어뜨린 끈. [전역]

불-망골 명 [태흥 세화] → 불-망굴.

불-망굴 명 불붙고 있는 나무가 아주 타서 숯불과 같이 벌겋게 된 것. [인성 하원 태흥 표선 수산 세화 조천] = 불-망골.

불-망텡이 명 [수산 가시] → 불-차디.

불목-지다(不睦--) 형 사이가 나쁘다. [전역]

불미 명 풀무(冶). [전역]

불미-간 명 대장-간. [전역] = 불미-왕, 불미-칩.

불미-대장 명 [전역] → 불미-쟁이.

불미-마당 명 보습·솥·볏 등을 대량으로 주조(鑄造)하는 일터. [덕수]

불미-왕 명 [전역] → 불미-간.

불미-쟁이 명 풀무-장이(冶--). [전역] = 불미-대장.
불미-질 명 풀무-질(冶-). [전역]
불미-참봉 명 <민> 풀무 수호신(守護神). [덕수]
불미-칩 명 [전역] → 불미-간.
불미-ᄒᆞ다 동 대장간에서 쇠를 달구어 연장을 만드는 일을 하다. [전역]
불밋-궤 명 손풀무의 궤. [전역] = 청탁-궤.
불밋-대 명 [수산 서홍 가시 김녕 조수] → 청탁-이.
불밋-덕 명 대장간에 불을 피우는 장소의 양옆에 흙 따위로 쌓아 올린 곳. [전역]
불밋-도간 명 <도> 대장간의 불을 피운 곳에서 쇠를 녹이는 그릇 같은 물건. [전역] = 불-도강이, 불밋-도강이.
불밋-도강이 명 [인성] → 불밋-도간.
불-바르다 동 동물의 불알을 꺼내려고 겉을 쪼개다. [전역] = 불-ᄇᆞ르다, 불-ᄇᆞᆯ르다.
불-박전(-薄田) 명 띠도 잘 자라지 않을 만큼 거친 밭. [대포]
불-베다 동 ① 동물의 불알을 끊어서 자르다. [전역] ② 동물의 불알을 꺼내려고 겉을 쪼개다. [전역] = 불-베이다.
불베어븐-쉐 명 악대-소. 거세(去勢)한 소. [평대]
불-베이다 동 [전역] → 불-베다.
불-벳 명 불-볕(炎陽). [전역]
불-보제기 명 중산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해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얕잡아 일컫는 말. [한경]
불-부띠다 동 [전역] → 불-부티다.
불-부트다 동 불-붙다. [전역]
불-부티다 동 불-붙이다. [전역] = 불-부띠다.
불-ᄇᆞ르다 동 [전역] → 불-바르다.
불-ᄇᆞᆯ르다 동 [전역] → 불-바르다.
불-소슬게 명 [노형 가시] → 불-쏘시게.
불-소시게 명 [서홍 김녕 수산 가시] → 불-쏘시게.
불-솝다 동 불-때다. 솥 밑에 불을 넣어 때다. [전역]
불-싸다 동 불-켜다. [전역] = 불-ᄊᆞ다.
불-쌍놈 명 불-상놈. 아주 천한 사람을 낮잡아 부르는 말. [전역]
불쌍-ᄒᆞ다 형 불쌍-하다. [전역]
불썬-가위 명 <민> 불을 켠 가호(家戶). [전역]
불-쏘시게 명 <도> 불-쏘시개. [서홍 수산 김녕 가시] = 고소에, 궤수웨, 불-궤수웨, 불-소슬게, 불-소시게, 소시게.
불-ᄊᆞ다 동 [전역] → 불-싸다.
불-아데 명 [수산 가시] → 불-차디.
불어-나다 동 불어-나다. [전역]
불-염(-鹽) 명 불에 구워낸 소금. *불염으로 담은 것이우다.('불염'으로 담근 것같입니다.) [사계]
불워-ᄒᆞ다 동 [어도 김녕] → 불러-ᄒᆞ다.
불이뗑이 명 [수산] → 부지뗑이.
불이여 감 불이야. [전역]
불-잉걸이 명 [화순 하원 태흥 노형 표선 조천] → 불-잉경.

불-잉경 명 불-잉걸. [어도 조수 인성] = 불-잉걸이, 불-잉겡이.
불-잉겡이 명 [화순 서홍 어도] → 불-잉경.
불-자르다 동 동물의 불알을 끊어 내다. [전역] = 불-즈르다.
불-접게 명 <도> [노형] → 불-집게.
불-접시 명 <도> 기름을 넣어서 불을 켜는 접시. [전역]
불-제 명 <도> [조수] → 불-집게.
불-지르다 동 불-지르다. [전역] = 불-짇다, 불-질르다.
불-짇다 동 [전역] → 불-지르다.
불-질르다 동 [전역] → 불-지르다.
불-짐 명 불-김(火-). [전역]
불-집게 명 <도> 부-젓가락(火箸). [전역] = 불-접게, 불-제.


불집게

불-즈르다 동 [전역] → 불-자르다.
불-쪼다 동 [전역] → 불-초다.
불-찍 명 <도> 부싯-깃. *불찍 제일 좋은 것이 폭낭 썩은 거. 폭낭 끄차 그네 어디 일년만 묻엉 내불면은 그 놈이 불 받게 뒈주.(부싯깃 제일 좋은 것이 팽나무 썩은 것. 팽나무 끊어서 어디 일년만 묻어서 내버리면 그 놈이 불 받게 되지.) [전역] = 부찍.
불찍-굿 명 <민> 화재가 났을 때 그 후환(後患)을 없애기 위하여 치르는 굿. [전역]
불찍-대 명 <도> 부싯깃을 담아 두는 대통. [인성 서홍 노형 조수] = 불찍-통, 화찍-대, 활찍-대.
불찍-스제 명 <민> 화재의 재앙을 주는 사자(使者). [전역]
불찍-앗음 명 <민> 화재가 난 집에서 모의적으로 불을 끄는 행위를 연출하는 의례. [전역]
불찍-통 명 <도> [수산 가시 하원 조수] → 불찍-대.
불-차디 명 불알을 싸고 있는 살로 된 주머니.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 불-망텡이, 불-아데, 불-차지.
불-차지 명 [김녕 가시] → 불-차디.
불착-불착 부 불끈-불끈. 성을 왈칵 왈칵 내는 모양. [전역]
불처귀 명 [삼양] → 푸께[1].
불-천소웨 명 <민> 불사름. [전역] = 불-천수(-鑽燧).
불-천수(-鑽燧) 명 <민> [전역] → 불-천소웨.
불-초다 동 불-쬐다. 더운 불기운을 가까이 받다. [전역] = 불-쪼다, 불-추다.
불-총 명 화승-총. 화승의 불로 터지게 만든 구식총. [교래]
불-추다 동 [전역] → 불-초다.
불-쳬우다 동 불-쬐이다. 더운 불기운을 받도록 불에 가까이 대다. [전역]
불-치 명 불-티. 검부러기 따위를 태우는 데서 생긴 재. [전역] = 불-껑.
불-치다 동 [전역] → 불-까다.

불치락 부 걸핏하면 성을 왈칵 내는 모양. [전역]
불치-막 명 <건> 아주 보잘것없고 작은 집. 옛날에는 주로 검부러기 따위의 재를 보관하는 공간이었음. [애월]
불치-통 명 <건> 재거름을 보관하는 공간. [전역]
불-카다 동 불-타다. *불칸 동산.(불탄 동산). [전역]
불칸디-오름 명 <지> 제주시 아라동 한라산 국립공원의 물장오리 남서쪽에 있는 오름. 표고 996미터. [아라봉개 교래] = 화장올(火長兀).
불쿤-터 명 불탄 집터나 묏터. [전역]
불턱 명 <어> 해녀들이 무자맥질해서 작업하다가 언 몸을 따뜻이 하기 위하여 마련해 간 땔감으로 불을 지펴서 쬐는, 바닷가 바위 위 바람막이에 돌담을 둥그스름하게 에워싼 곳. 바닷가 바위의 자연적 됨됨이를 활용하여 꾸며지기도 하여, 해녀들의 탈의장으로도 이용됨. [전역] = 봉덕[1].
불-테미 명 [태흥 수산 세화] → 불-게미.
불-퉤미 명 [가시] → 불-게미.
불한-당(不汗黨) 명 불한-당. [전역]
불한듸 명 <동> 개똥-벌레. [어도] = 불란지, 불한지. 고반듸.
불한지 명 <동> [수산 김녕] → 불한듸.
불휘-공 명 <민> [전역] → 불리-공.
불휘-들다 동 <농> 밑-들다. 무, 감자 따위의 뿌리가 굵게 자라다. [전역]
불희 명 뿌리(根). [전역] = 불리, 뿌렝이, 뿔리, 뿔희.
불희-공 명 <민> [전역] → 불리-공.
붉-바리 명 <동> 붉-바리. 별-우럭. *(속) 붉바리 좃 잡듯 흔다.(붉바리 좆 잡듯 한다.) [전역]
붉은-개발시리 명 <식> 조의 일종. [영평]
붉은-게염지 명 <동> 불-개미. [노형 조수] = 노린-게여미, 노린-게염지. 고불가얌이.
붉은-성기 명 <동> 껍질의 뾰족한 부분의 색깔이 불그스레한 성게. [하도]
붉은-쒜돔 명 <동> 도화-돔. [사계]
붉은-알 명 노른-자위. [전역]
붉은-오름[1] 명 <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남쪽, 제주시의 어승생오름 남서쪽에 있는 오름. 1273년 여몽군(麗蒙軍)에 몰린 삼별초 김통정(金通精)의 마지막 항전지(抗戰地)로 전해짐. 표고 1061미터. [전역]
붉은-오름[2] 명 <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의 경계인 남조로변에 있는 오름. 표고 569미터. [전역]
붉은-오름[3] 명 <지> [봉개 아라] → 봉개-오름.
붉은-오름[4] 명 <지> 서귀포시 거린사슴의 주봉(主峰). 흙빛이 붉음. 표고 743미터. [회수]
붉은-오름[5] 명 <지> 한라산 국립공원 웃세오름의 세 산 가운데 제일 동쪽의, 백록담에 가까운 큰 오름. 남사면(南斜面)에 붉은 흙이 드러나 있음. 북서록에 등산자를 위한 대피소가 있고, 남동쪽에 백록샘이 있음. 표고 1740미터. [아라 광령 서홍]
붉은-오름[6] 명 <지> 서귀포시 성산읍

신풍리 남산 남동쪽에 있는 작은 오름. 표고 126미터. [신풍]

붉은-오름[7] 명 <지>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섭지코지'에 있는, 자그마하고 나지막한 오름. [성산]

붉은-우미 명 <식> 우뭇가사리의 일종. 말리면 색깔이 붉음. [하도]

붉은-웽이 명 <동> 황색의 혹도미. [전역] = 황-웽이(黃--).

붉은-자리 명 <동> 붉은 색을 띠는 자리돔. [사계]

붉은-풋 명 붉은-팥(赤豆). [전역]

붉은-헤돋이 명 [조수] → 해돋이-붉음.

붉은-헤지기 명 [조수] → 해지기-붉음.

붐 명 부음(訃音). [전역]

붑다 형 [서홍 수산 김녕 조수] → 불룹다.

붓 명 붓(筆). [전역]

붓-가수리 명 <민> 본굿에 붙여서 하는 가수리. [함덕]

붓깍-신 명 총을 따로 비벼 놓고 끼우지 않고 바닥을 겯는, 짚에서 비벼 총을 내어 만든 짚신. [건입]

붓다 동 붓다. 병으로 살가죽이 부풀어 오르다. [전역]

붓-대 명 붓-대(筆管). [전역]

붓-도갑 명 [서홍 수산 가시 김녕] → 붓-두껍.

붓-두껍 명 붓-두껍(筆--). [노형 조수 인성] = 붓-도갑, 붓-두께.

붓-두께 명 [조수 인성 가시 수산] → 붓-두껍.

붕당-거리다 동 응얼-거리다. [전역]

붕당-붕당 부 불평이나 불만을 자꾸 되뇌이는 모양. [전역]

붕뎅이-가시리 명 <식> 가사리의 일종. [법환]

붕물다 동 *발 다 붕물고 살지 못ᄒᆞ켜.(발이 모두 부르트고 살지 못하겠어.) [전역] → 북물다.

붕붕-거리다 동 불평이 있을 때 입속말로 중얼거리다. [전역]

붕-알 명 불-알. [전역] = 불-독새기, 불-독세기.

붕어 명 <동> 붕어. [전역] = 붕에.

붕에 명 <동> [전역] → 붕어.

붕에-바지 명 <의> 솜을 넣어 만든 바지. [전역]

붕-장의 명 <동> 붕-장어. [전역]

붕진-거리다 동 [전역] → 붕진-들다.

붕진-들다 동 불평이나 원망의 말을 연해 중중거리다. [전역] = 붕진-거리다.

붕진-붕진 부 불편이나 원망의 말을 연해 중중거리는 모양. [전역]

붙-들다 동 붙-들다. [전역]

브리다 동 [전역] → 부리다.

비[1] 명 비(雨). *(속) 비 오는 날 웨상제 울듯 흔다.(비 오는 날 외상주(外喪主) 울듯 한다.) [전역]

비[2] 명 비(箒). [전역]

비[3] 명 [노형 조수 서홍 가시 수산] → 꼬릿-박.

비게 명 <민> 안팎에 차린 '시왕당클'을 연결하여 매는 무명. [전역]

비게-살장 명 <민> 일흔 여덟 구멍이 뚫린 살창. [전역] = 비꿀-장.

비근다리 명 <동> [전역] → 비께[2].

비근더리 명 <동> 복-상어. [사계]

비께[1] 명 <동> 수염-상어. [사계]

비께[2] 명 <동> 두툽-상어. [전역] = 비근다리.
비께-물에 명 <어> 해녀들이 '비께'(수염상어)를 잡을 목적으로 잠수하는 일. *음력 칠, 팔월 나민 비께물에 들레 가낫우다.(음력 칠, 팔월 되면 수염상어 잡으러 물에 들어갔었지요.) [우도]
비껴-사다 동 비켜-서다. [전역] = 비껴-ᄉᆞ다.
비껴-ᄉᆞ다 동 [전역] → 비껴-사다.
비꿀-장 명 <민> [전역] = 비게-살장.
비끄러-지다 동 [전역] → 비크러-지다.
비끄럼-ᄐᆞ다 동 [서홍 수산] → 부치럼-타다.
비끄렝잇-질 명 [전역] → 빅데깃-질.
비끼다 동 비키다. [전역]
비낌 명 삐침. 한자(漢字)의 획 'ㅅ'의 이름. [전역] = 비킴.
비내기 명 <어> 해녀들이 '테왁' 없이 '중게호미'로만 해조류를 채취하는 일. 해녀들이 잠수하여 해조류를 베면, 해조류는 파도를 타고 해변으로 밀려오는데 이렇게 해서 수확한 해초류는 여러 해녀들이 나누어 가짐. [비양도]
비념 명 <민> ① 기원(祈願). [전역] ② 요령만을 흔들며 기원하는 규모가 작은 굿. [전역]
비놈 명 <식> [전역] → 비눔.
비눔 명 <식> 비름. [전역] = 비놈, 비늠.
비늘[1] 명 비늘(鱗). [전역]
비늘[2] 명 *소살 고기 쏴 들어가는 건 코젱이고 놀개 닮은 이건 비늘.(작살에서 고기 쏘아서 들어가는 것은 코이고 날개 같은 이것은 미늘.) [이호] → 미늘.
비늠 명 <식> [전역] → 비눔.
비다[1] 동 베다(割). *(속) 동세간에 산 쉐다리 빈다.(동서간에 산 소의 다리 벤다.) [전역] = 버이다, 베다[3].
비다[2] 동 *그거 다 먹어 비연.(그거 다 먹어 버렸어.) [전역] → 불다[2].
비다[3] 동 비다(虛). [전역]
비-닫이 명 북-바늘. [인성 서홍]
비돌기 명 <동> 비둘기(鳩). [전역]
비돔 명 [노형 어도 인성 서홍 가시] → 비둠.
비두웨 명 기원하는 소리 또는 그것과 비슷한 소리. *짚숙ᄒᆞᆫ 움탕ᄒᆞᆫ 골랭이에서 불이 베롱ᄒᆞ고 비두웨를 ᄒᆞ는디.(깊숙하고 움푹한 골짜기에서 불이 '베롱하고' '비두웨'를 하는데.) [전역] → 비두웻-소리.
비두웻-소리 명 *영 들으니, 어딜로 비두웻소리가 들릴듯 말듯ᄒᆞ여.(이렇게 들으니, 어디로 기원하는 소리가 들릴듯 말듯하여.) [노형] = 비두웨.
비둠 명 비듬. [전역] = 비돔, 비듬.
비듬 명 [수산 김녕 조수] → 비둠.
비등-ᄒᆞ다(比等--) 형 비등-하다. [전역]
비랑-장삼 명 <민> 비단-장삼. 비단으로 짠 장삼(長衫). [전역]
비렁-내 명 [노형 조수 인성] → 비린-내.
비렁-뱅이 명 비렁-뱅이. [서홍 어도]
비료(肥料) 명 비료. [전역]
비룽-비룽 부 구멍이 숭숭 나거나 틈

이 벌어져 있는 모양. [전역]

비리 명 <병> 옴(疥癬). [전역]

비리-나가다 동 장작 따위가 비뚜름하게 짜개지다. [수산 김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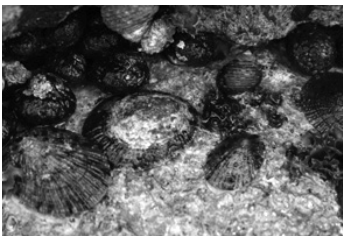
비리다 동 <민> 꺼림칙한 송장이나 마소 등 동물이 죽은 것을 보고 몸이 더러워지다. *사람이 죽어도 식게 때는 비리니 강 보진 말라.(사람이 죽어도 제사 때는 몸이 더러워지니 가서 보지는 마라.) [전역]

비리-쟁이 명 옴-쟁이. [전역]

비린-내 명 비린-내. [전역] = 비렁-내.

비-마갇이 명 [구억] → 물-마갇이.

비말 명 <동> 애기-삿갓조개. *둘밤이 먹돌에 횃불 쌍 가믄 밤의 막 나오는 게 비말이주.(달밤에 먹돌에 횃불 켜서 가면 막 나오는 게 애기삿갓조개지.) [하귀 이호] = 베말, 베망, 벨망, 젱베름.



비말

비메니 명 <지> [전역] → 부메니.

비명-체서 명 <민> 사람을 비명(非命)에 죽게 하여 저승으로 데려가는 차사(差使). [전역]

비바리 명 조금 성숙하나 아직 미혼인 여자를 상스럽게 일컫는 말. *(속) 비바리 늙어가민 ᄀᆞ레착 지영 산더레 오른다.(처녀가 늙어가면 맷돌짝을 지고 산으로 오른다. 노처녀의 비정상적인 행동거지를 빗대어 하는 말.) *(속) 비바리 오장은 지퍼사 좋곡, 총각 오장은 야퍄사 좋나.(처녀 오장(五臟)은 깊어야 좋고, 총각 오장은 얕아야 좋다.) *(속) 비바린 물 똥만 뀌어도 웃나.(처녀는 말이 방귀만 뀌어도 웃는다.) *(속) 얼음진 장남, 불 찬 비바리.(얼음 진 일꾼, 불 찬 처녀.) [전역]

비-받이 명 <도> [조수 어도] → 쓰레-박.

비방-ᄒᆞ다 형 물건 값이 싸지도 비싸지도 아니하여 적당하다. [전역]

비비다 동 비비다. [전역]

비비-둥당 부 <민> [전역] → 비비-둥둥.

비비-둥둥 부 <민> 악기 울리는 소리. [용담] = 비비-둥당.

비빔깍-신 명 총을 따로 비비어 붙여서 삼은 짚신의 한 가지. [전역]

비빗-멍에 명 <어> [김녕] → 이물-멍에.

비삭-ᄒᆞ다 형 물건의 부피가 앙상하여 옹골차지 못하다. [전역]

비소리-초막 명 <건> [김녕] → 비저리-초막.

비수리-초막 명 <건> [서홍 수산] → 비저리-초막.

비스러-지다 동 비스러-지다. [전역]

비스름-ᄒᆞ다 형 비스름-하다. [전역]

비슥-ᄒᆞ다 형 힘없이 한쪽으로 비스듬하다. [전역]

비슷-ᄒᆞ다 형 비슷-하다. 거의 같은 점이 많다. [전역]

비실락 부 [전역] → 부스락.
비싸다 형 비싸다. [전역] = 비ᄊᆞ다.
비쌔다 동 비쌔다. [전역] = 비쏠우다, 빗내다[2].
비ᄊᆞ다 형 [전역] → 비싸다.
비쏠우다 동 [전역] → 비쌔다.
비알 명 <도> 귀알(糊箒). [전역]
비애기 명 <동> [전역] → 빙애기.
비양-봉(飛揚峰) 명 <지>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의 가운데에 있는 오름. [전역] = 가재.
비에기 명 <동> [전역] → 빙애기.
비영게 명 [전역] → 비헹기.
비옝기 명 [전역] → 비헹기.
비오다 동 [전역] → 비우다[2].
비우다[1] 동 붓다(注). [전역] = 부수다[2], 부으다.
비-우다[2] 동 비-우다. 어떤 자리에 있던 것을 치워서 그 자리가 비게 하다. [전역] = 비오다.
비우-제 명 <민> [수산 김녕 서홍] → 기우-제.
비웃다 동 비웃다. [전역]
비웃-멍에 명 <어> [노형 조수] → 이물-멍에.
비위 명 비위. [전역]
비위-맞추다 동 비위-맞추다. [전역]
비위-상ᄒᆞ다 동 비위-상하다. [전역]
비위-좋다 형 비위-좋다. [전역]
비위-차다 형 [전역] → 비위-ᄎᆞ다.
비위-ᄎᆞ다 형 무슨 일에 덤벼드는 담기가 세다. [전역] = 비위-차다.
비위-틀어지다 동 비위-틀어지다. [전역]
비윗-멍에 명 <어> [인성] → 이물-멍에.
비작-비작 부 [전역] → 부작-부작.
비저리-초막 명 <건> 아주 형편이 안 되게 얽어서 지은 초막(草幕). [조수 인성 노형] = 비소리-초막, 비수리-초막.
비제기 명 비지. 두부를 짜낸 찌끼. [전역] = 둠빗-주시.
비제기-국 명 <음> 비짓-국. [전역]
비-좁다 형 비-좁다. [전역]
비주기-낭 명 <식> 비쭈기-나무. [전역] = 비죽-낭.
비죽-거리다 동 비죽-거리다. [전역]
비죽-낭 명 <식> [전역] → 비주기-낭.
비죽-새 명 <동> [수산 조천 노형 어도 조수] → 비죽-생이.
비죽-생이 명 <동> 종달-새(雲雀). [인성 화순 하원] = 비죽-새, 좁-생이, 종주리-새, 종지리-새, 주주-머리, 하늘-생이.
비지그랑이 부 소리를 내지 않고 방긋이 웃는 모양. *그렇게 생각을 가져서 비지그랑이 웃엇다.(그렇게 생각해서 '비지그랑이' 웃었다.) [노형] = 비지그랭이.
비지그랭이 부 [노형] → 비지그랑이.
비지-남 명 <식> [구좌] → 비ᄌᆞ-낭.
비지-낭 명 <식> [구좌] → 비ᄌᆞ-낭.
비-지다 동 ①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 오다. [전역] ② 비를 몰고 오다. [전역]
비지-오름 명 <지> [송당 평대] → 돗-오름.
비ᄌᆞ 명 비자(榧子). [전역]
비ᄌᆞ-남 명 <식> [전역] → 비ᄌᆞ-낭.
비ᄌᆞ-낭 명 <식> 비자-나무(榧子--).

[전역] = 비지-남, 비지-낭, 비즤-남.
비찌-미 명 <지> [성읍 송당 선흘] → 비치-미.
비-차락 명 '비'(箒)의 낮은말. [전역]
비추다 동 비추다. [전역]
비치락-낭 명 <식> [전역] → 쉽싸리.
비치럼-ᄐᆞ다 동 [수산] → 부치럼-타다.
비치-미 명 <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평화로변, 성불오름과 마주보는 오름. 표고 344미터. [성읍 송당 선흘] = 비찌-미, 비치-산(飛雉山).
비치-산(飛雉山) 명 <지> [성읍 송당 선흘] → 비치-미.
비크러-지다 동 비꾸러-지다. [전역] = 비끄러-지다.
비크레기 명 비탈. [전역] = 빅데기.
비크레깃-질 명 [노형] → 빅데깃-질.
비크렝잇-질 명 [가시 수산] → 빅데깃-질.
비킴 명 [수산] → 비낌.
비틀어-지다 동 비틀어-지다. [전역]
비파(枇杷) 명 비파.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피파.
비파-낭(枇杷-) 명 <식> 비파-나무. [전역] = 피파-낭.
비피 명 돼지 따위를 잡아서 베어 낸 볼기짝 부분. [전역] = 버레-등, 부피[1].
비행기 명 비행기(飛行機). [전역] = 비영게, 비영기.
빅데기 명 [전역] → 비크레기.
빅데깃-질 명 비탈-길. [전역] = 비끄렝잇-질, 비크레깃-질, 비크렝잇-질.
빈네 명 <도> 비녀. [전역] = 빈헤.
빈네-오름 명 <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하화전 동북쪽에 있는 오름. 표고 659미터. [봉성 광평]
빈데[1] 명 <동> 빈대. [전역] = 벡사리. ㉤빈대.
빈데[2] 명 <식> [서홍 수산 가시] → 빈데-쿨.
빈데-쿨 명 <식> 피막이-풀. [노형 조수 인성] = 벤데, 빈네, 빈데[2].
빈-뎅이 명 [표선 가시] → 피지-가죽.
빈독 명 ① 천선과나무의 열매. 천선과(天仙果). [전역] ② 좁은잎천선과나무의 열매. 천선과(天仙果). [전역] = 빈둑.
빈독-낭 명 <식> ① 천선과-나무. [전역] ② 좁은잎천선과-나무. [전역] = 빈둑-낭.
빈둑 명 [토평] → 빈독.
빈둑-낭 명 <식> [토평] → 빈독-낭.
빈-말 명 빈-말. [전역]
빈-몸 명 맨-몸. [전역]
빈-몸땡이 명 빈-몸뚱이. [전역] = 빈-몸떵어리.
빈-몸떵어리 명 [전역] → 빈-몸땡이.
빈-물 명 [전역] → 멘-물.
빈-밧 명 <농> 농작물의 수확을 끝낸 밭. 이런 밭을 방목지로 이용하였음. [상창]
빈복-다리 명 복-처리. 복을 타고나지 못하여 무슨 일이든지 잘 되지 않는 사람. [전역]
빈복-ᄒᆞ다(貧福--) 형 ① 가난-하다. [전역] ② 복이 없다. [전역]
빈-손[1] 명 빈-손. [전역]
빈-손[2] 명 [전역] → 멘-손.
빈정-거리다 동 빈정-거리다. [전역] = 빈정-걸다, 빔정-거리다.

빈정-걸다 동 [김녕 조수] → 빈정-거리다.
빈주룽이 베리다 구 못마땅한 뜻으로 빤히 쳐다보다. [전역]
빈-주먹 명 [전역] → 멘-주먹.
빈지 명 <건> 벽 아랫쪽 두 기둥 사이에 가로 질러 막은 널판지. [전역]
빈지-가죽 명 [하원] → 피지-가죽.
빈지-홈 명 <건> 빈지를 끼우기 위해 '하방'(장지방)과 '중방'(가풀목)에 판 홈. [전역]
빈찍 부 빛이 언뜻 나타나는 모양. [전역]
빈-차 명 [전역] → 빈-채.
빈-채 명 공-차(空車). [전역] = 빈-차.
빈헤 명 [전역] → 빈네.
빌[1] 명 [전역] → 벨.
빌[2] 명 [전역] → 필[1].
빌다[1] 동 빌다. 잘못의 용서를 청하다. *(속) 비는 놈안티 지어사 흔다.(비는 놈에게는 져야 한다.) [전역]
빌다[2] 동 빌다(祈). [전역]
빌다[3] 동 빌리다. ① 남의 물건을 돌려주기로 하고 얻어다가 쓰다. [전역] ② 남의 물건을 거저 달라고 청하다. [전역] ㉤빌다.
빌락-ᄒᆞ다 형 물건 따위에 물기가 많이 배어 있어 축축하고 곧 물크러질 듯하다. *큰 마퉁이 마 파난 디 간 보난 진 개똥만 빌락ᄒᆞᆫ 게 아무것도 엇고.(큰 마퉁이가 마를 캤던 곳에 가서 보니 진 개똥만 '빌락'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전역] = 빌학-ᄒᆞ다.
빌레 명 지면(地面) 또는 땅에 넓적하고 평평하게 묻혀진 돌. *그 디 보니까 큰 돌이 ᄒᆞ나 가운디 잇는디, 눌 모양으로 생긴 빌레엿어.(그 곳에 보니까 큰 돌이 하나 가운데 있는데, 노적가리 모양으로 생긴 '빌레'였어.) [전역] = 돌-빌레.
빌레-못[1]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신안동의 옛 이름이자 그 지역의 이름. [조천]
빌레-못[2] 명 <지>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에 있는 연못. [애월]
빌레못-굴 명 <지> 제주시 애월읍 어음2리 '빌레못' 가까이에 있는 굴. [애월] = 빌레못-동굴.
빌레못-동굴 명 <지> [애월] → 빌레못-굴.
빌레-왓 명 <지> 넓적하고 평평한 돌들이 지면(地面) 또는 땅에 많이 묻혀 있는 밭. [전역]
빌룽-빌룽 부 불빛이 언뜻언뜻 비치는 모양. [대정]
빌어-먹다 동 빌어-먹다. [전역]
빌은-똘 명 움-딸. 시집간 딸이 죽고 그 사위가 다시 장가든 아내를, 죽은 딸의 부모 쪽에서 일컫는 말. [전역]
빌착-ᄒᆞ다 형 물건에 물기가 있어 축축하다. [김녕 조수]
빌학-빌학 부 물기 많은 진흙을 아무렇게나 밟으며 걷는 모양 또는 그 소리. [전역]
빌학-ᄒᆞ다 형 [전역] → 빌락-ᄒᆞ다.
빌헙 명 어린애가 무엇을 달라고 거짓으로 노(怒)하여 흥흥거리는 짓. [전역] = 빌흐럭, 빌흐럼, 빌흐럽, 빌흐레비.
빌흐럭 명 [인성] → 빌헙.

빌흐럼 명 [전역] → 빌헙.
빌흐럽 명 [노형 어도] → 빌헙.
빌흐레비 명 [전역] → 빌헙.
빔정-거리다 동 [서홍] → 빈정-거리다.
빗[1] 명 칼로 베어 낸 시루떡의 낱개. 또는 그를 세는 말. *돌이 귀홀 때니깐 산담홀 땐 돌 흔 덩어리에 떡 흔 빗을 헷지.(돌이 귀할 때니까 산담할 때는 돌 한 덩어리에 떡 한 '빗'을 했지.) [전역]
빗[2] 명 빚. [전역]
빗[3] 명 바다에 내려치는 벼락. [건입]
빗[4] 명 <동> 전복(全鰒). [신양]
빗-광대 명 <민> 광대의 하나. '엇광대'에 운을 맞추기 위한 말. [전역]
빗-꾸레기 명 [노형 조수 김녕 서홍] → 빗-주시.
빗-꾸렝이 명 [인성 서홍] → 빗-주시.
빗나다 형 비싸다. [전역]
빗-내다[1] 동 빚-내다. [전역]
빗-내다[2] 동 [어도] → 비쌔다.
빗다 동 빗다(梳). 머리털을 빗 따위로 가지런히 고르다. [전역] 고 빗다.
빗-대 명 <도> 갓양태를 겯는 대오리의 한 가지. '줄을대'로 갓양태를 일차 겯고 난 다음에, 양태판이를 뒤집어 놓고 비스듬하게 결어 가는 대오리. [전역]
빗대-클 명 <도> 갓양태를 결을 때 쓰는 대오리를 가늘게 홅어서 다듬는 연장. 널빤지 위에 35센티미터쯤의 나뭇가지를 수직으로 세우고, 맨 위에 쇳조각을 V자 꼴로 끼움. [전역]
빗-발 명 빗-발(雨脚). [전역]
빗-방울 명 [전역] → 빗-방울.
빗-방울 명 빗-방울. [전역] = 빗-방울, 빗-살[2].
빗-살[1] 명 빗-줄기. [전역]
빗-살[2] 명 [전역] → 빗-방울.
빗-상웨 명 <음> 밀가루나 보릿가루를 기주에 부풀려 길쭉한 모양으로 만들어 쪄낸 떡. [성읍 가시] = 낭웨.



빗상웨

빗-자구 명 <동> 어린 전복. 새끼 전복. [우도 화북] = 빗자귀, 빗재기, 생피, 생피-새끼, 셍피.
빗-자귀 명 <동> [김녕] → 빗-자구.
빗재기 명 <동> [함덕 행원] → 빗-자구.
빗-쟁이 명 빚-쟁이. [전역]
빗-접 명 빗-접. [전역] = 빗-첩.
빗-주다 동 빚-주다. 변리를 받기로 하고 돈 따위를 꾸어 주다. [전역]
빗-주시 명 빚-꾸러기. [전역] = 빗-꾸레기, 빗-꾸렝이.
빗-주제 명 비가 잠깐 내림. [전역]
빗-지다 동 빚-지다. 빚돈을 꾸어 주다. [전역]
빗-좀녀 명 <어> 전복을 잘 잡는 해녀. [오조]
빗-창 명 <도> 해녀가 바닷속에 들어가서 전복을 캐는 데 쓰는 길쭉한

쇠붙이로 된 연장. 길이는 30센티미터쯤이며 동그랗게 말린 머리에는 손잡이끈이 달려 있음. [전역]



빗창

빗채 명 부채(負債). [전역]
빗-첩 명 [조수] → 빗-접.
빗-츠룩 명 <도> 빗-자루. [전역] = 빗-츠룩.
빗-츠룩 명 <도> [전역] → 빗-츠룩.
빙[1] 명 <음> *오늘은 빙 지졍 먹게.(오늘은 '빙'을 지져서 먹자.) [조천대정] → 빙-떡.
빙[2] 명 *(속) 벤 짐은 갈랑 져도 빙은 못 갈랑 진다.(무거운 짐은 갈라서 져도 병은 갈라서 지지 못한다.) [전역] → 벵[2].
빙-고완 명 [전역] → 벵-구완.
빙-구완 명 [전역] → 벵-구완.
빙그르르 부 빙그르르. [전역]
빙-나다 동 [전역] → 벵-나다.
빙-들다 동 [전역] → 벵-들다.
빙-떡 명 <음> 메밀 가루 따위로 반죽하여 번철에서 전을 넓적하게 지지고는 팥이나 무채 따위의 소를 넣고서 길쭉하게 둘둘 말아 만든 떡. [전역] = 빙[1], 전기[2], 전기-떡, 정기[2], 정기-떡.



빙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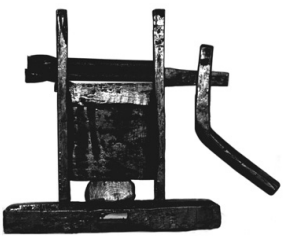
빙삭-빙삭 부 방긋방긋 웃는 모양. [전역] = 벵삭-벵삭, 빙섹-빙섹.
빙삭-이 부 빙시레. [전역] = 벵삭-이, 빙섹이.
빙섹-빙섹 부 [전역] → 빙삭-빙삭.
빙섹-이 부 [전역] → 빙삭-이.
빙신 명 [전역] → 벵신.
빙아리 명 <동> [전역] → 빙애기.
빙애기 명 <동> 병아리. *감장돌라 감장돌라 곤 빙애기 깨와 주마.(맴돌아라, 맴돌아라. 고운 병아리 낳게 해 주마.) [전역] = 비애기, 비에기, 빙아리. 고 비육.



빙애기

빙어 명 <동> [노형 조수] → 빙에.
빙에 명 <동> 빙어. [전역] = 빙어.
빙원 명 [전역] → 벵완.
빙자 명 [전역] → 벵자.
빙-주시 명 [전역] → 벵-주시.

빙철 명 <도> 번철. [전역]
ᄇᆞ글-ᄇᆞ글 부 적은 물이 야단스럽게 끓어오르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전역]
ᄇᆞ끈 부 ＊풀새각시 옷곰 ᄇᆞ끈.('풀새각시' 옷고름 바싹.) [전역] → 볼끈.
ᄇᆞ당-거리다 동 옹잘-거리다. [전역]
ᄇᆞ동-퀴다 동 바동-거리다. [전역]
ᄇᆞ드득-ᄇᆞ드득 부 이(齒) 따위를 연해 가는 자그마한 소리. [전역] = ᄇᆞ득-ᄇᆞ득.
ᄇᆞ드레기 명 <동> [인성] → 베드레기.
ᄇᆞ득-ᄇᆞ득 부 [전역] → ᄇᆞ드득-ᄇᆞ드득.
ᄇᆞ들라기 명 <동> [어도] → 베드레기.
ᄇᆞ들락 명 <동> [가시] → 베드레기.
ᄇᆞ들락-ᄇᆞ들락 부 바동-바동. ＊가운디는 그물이 막 메와졍 시난 톡 걸령 궤기가 ᄇᆞ들락ᄇᆞ들락ᄒᆞ믄 바깟듸 ᄁᆞ딱을 못ᄒᆞ여.(가운데는 그물이 막 모여 있으니까 톡 걸려서 고기가 바동바동하면 바깥에 까딱을 못해.) [이호] = ᄇᆞ들랑-ᄇᆞ들랑.
ᄇᆞ들랑-ᄇᆞ들랑 부 [전역] → ᄇᆞ들락-ᄇᆞ들락.
ᄇᆞ듯-이 부 바듯-이. [전역] = ᄇᆞ듯-ᄒᆞ게.
ᄇᆞ듯-ᄒᆞ게 부 [전역] → ᄇᆞ듯-이.
ᄇᆞ듯-ᄒᆞ다 형 바듯-하다. 어렵게 겨우 정도에 미칠 만하다. [전역]
ᄇᆞ디 명 바디(筬). [전역]
ᄇᆞ디다 형 정해 놓은 시기나 거리가 아주 가깝다. [전역]
ᄇᆞ디여-오다 동 정해 놓은 시기나 거리가 가까워지다. [전역]
ᄇᆞ디-저립 명 <동> 재방어의 일종. ＊ᄇᆞ디저립은 크진 아니ᄒᆞ여도 똥그랑.('ᄇᆞ디저립'은 크진 않아도 동그스름.) [사계]
ᄇᆞ디-집 명 바디-집(筬框-). [전역]
ᄇᆞ딘-듸 대 가까운 곳. [전역]
ᄇᆞ뜨다[1] 동 밭다. 액체 따위가 졸아서 말라붙다. [전역]
ᄇᆞ뜨다[2] 형 ① 잡아 묶은 노끈 따위가 느슨하지 않다. [전역] ② 길이가 짧다. ＊허리 ᄇᆞ딴 못 입으키여.(허리가 밭아서 못 입겠다.) [전역]
ᄇᆞ뜬-지침 명 <병> 밭은-기침. [전역]
ᄇᆞ랑-지다 형 나이에 비해 똑똑하고 바지런하다. [전역]
ᄇᆞ래다 동 보다. [노형]
ᄇᆞ레기-궂다 형 [노형 어도 조수] → 바레기-궂다.
ᄇᆞ레-보다 동 [어도] → 바레-보다.
ᄇᆞ려-지다 동 종이·헝겊 따위가 찢어지다. [전역]
ᄇᆞ르는-무르레 명 <도> [가시 수산 김녕] → ᄇᆞ르는-물레.
ᄇᆞ르는-물레 명 <도> 씨아(攪車).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무르레[2], 무르에[2], 무으레, 물레[2], ᄇᆞ르는-무르레, 씨앗이, 씨앗이-무르레.



ᄇᆞ르는물레

ᄇᆞ르다 동 바르다. ① 풀이나 물 같은

액체를 칠하다. [전역] ② 속알맹이를 집어 내려고 겉을 쪼개다. [전역] = 바르다, 발르다, ᄇᆞ르다. ㊟ᄇᆞᄅᆞ다.

ᄇᆞ른-구덕 명 <도> [전역] → 풀ᄇᆞ른-구덕.

ᄇᆞ른-바구리 명 <도> [전역] → 풀ᄇᆞ른-구덕.

ᄇᆞ름 명 바람(風). [전역] = ᄇᆞᄅᆞᆷ. ㊟ᄇᆞᄅᆞᆷ.

ᄇᆞ름-가메기 명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까마귀. [전역]

ᄇᆞ름-깍 명 바람이 불어 나아가는 쪽. [전역] = ᄇᆞ름-끗.

ᄇᆞ름-끗 명 [가시] → ᄇᆞ름-깍.

ᄇᆞ름-머리 명 바람이 불어오는 쪽. [전역] = ᄇᆞ름-우.

ᄇᆞ름-살 명 바람-살. [전역]

ᄇᆞ름-쒜우다 동 바람-쐬다. [전역]

ᄇᆞ름-우 명 [가시] → ᄇᆞ름-머리.

ᄇᆞ름-주제 명 잠깐 동안 부는 바람. [전역]

ᄇᆞ름-코지 명 바람-받이. 바람을 몹시 받는 곳. [전역] = ᄇᆞᄅᆞᆷ-받이, ᄇᆞᄅᆞᆷ-코지.

ᄇᆞ리다 동 버리다. ① 내-던지다. [전역] ② 쓰지 못하도록 만들다. [전역] ③ 잡아당기어 찢다. [전역] = 버리다.

ᄇᆞᄅᆞ못-도 명 <민> [서귀포] → ᄇᆞᄅᆞᆷ웃-도.

ᄇᆞᄅᆞᆷ 명 [김녕] → ᄇᆞ름.

ᄇᆞᄅᆞᆷ-받이 명 *ᄇᆞᄅᆞᆷ받이 쎈 물살이 젓다 남은 네로구나.(바람받이 센 물살이 젓다 남은 노로구나.) [전역] → ᄇᆞ름-코지.

ᄇᆞᄅᆞᆷ알-도 명 <민> 신명(神名). 바ᄅᆞᆷ(風)+알(下)+도(神). 부정한 음식을 먹어 바람 방향의 아래쪽으로 쫓겨나 좌정한 신격(神格). [상귀 하귀 신엄]

ᄇᆞᄅᆞᆷ웃-도 명 <민> 신명(神名). 바ᄅᆞᆷ(風)+웃(上)+도(神). 부정한 냄새를 피하기 위하여 바람 방향의 위쪽에 좌정한 신격(神格)으로 대개 남성신(男性神)이나 애월읍 지역에 더러 예외가 있음. [전역] = ᄇᆞᄅᆞ못-도.

ᄇᆞᄅᆞᆷ-코지 명 [전역] → ᄇᆞ름-코지.

ᄇᆞᄅᆞᆷ-통 명 바람이 잔뜩 담겨 있는 것으로 여기는 통(筒). *지름통 먹언 술쳐시냐, ᄇᆞᄅᆞᆷ통 먹언 술쳣는고.(기름통 먹고 살쪘느냐, 바람통 먹고 살쪘는가.) [전역]

ᄇᆞ사-지다 동 바서-지다. [전역]

ᄇᆞ스-대기다 동 바스러-뜨리다. [전역]

ᄇᆞ스라기 명 [전역] → ᄇᆞ스레기.

ᄇᆞ스락-ᄇᆞ스락 부 바스락-바스락. [전역]

ᄇᆞ스레기 명 바스라기. [전역] = ᄇᆞ스라기. ㊟ᄇᆞᄉᆞ라기.

ᄇᆞ스-치다 동 바수-지르다. [전역] = 바스-지르다.

ᄇᆞ슬-ᄇᆞ슬 부 바슬-바슬. [전역] = 바슬-바슬.

ᄇᆞ승-걸다 동 사람이 잠시라도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바삐 움직여 다니다. [전역]

ᄇᆞ시락 부 보스락. [전역] = ᄇᆞ실락.

ᄇᆞ실락 부 [전역] → ᄇᆞ시락.

ᄇᆞ실-ᄇᆞ실 부 바지런하게 움직여 다니는 모양. [전역]

ᄇᆞ재기 명 <어> [노형 조수 김녕 인성]

→ 보제기.

ᄇᆞ재기-질 명 <어> [어도 노형 김녕] → 보제기-질.

ᄇᆞ절 명 애들이 손장난하는 일. [전역]

ᄇᆞ제기 명 <어> *초정월(初正月) 우치민 ᄇᆞ제기가 운다.(초정월 비가 오면 어부가 운다.) [노형 조수 김녕] → 보제기.

ᄇᆞ제기-질 명 <어> [어도 노형 김녕] → 보제기-질.

ᄇᆞ젯-도 명 <민> 허물·옴 등 피부병의 신. [전역]

ᄇᆞ지란-ᄒᆞ다 형 [전역] → ᄇᆞ지런-ᄒᆞ다.

ᄇᆞ지런-ᄒᆞ다 형 바지런-하다. [전역] = ᄇᆞ지란-ᄒᆞ다.

ᄇᆞ짝 부 [전역] → 바짝.

ᄇᆞ짝-ᄒᆞ다 형 잡아 묶은 노끈 따위가 잔뜩 동여지거나 옷이 몸에 꼭 끼인 상태에 있다. [전역]

북기 부 [전역] → 북-ᄒᆞ게.

북북[1] 부 박박. 얼굴이 얽은 모양. [전역] = 박박[1].

북북[2] 부 [전역] → 박박[2].

북북-긁다 동 단단한 물건의 도드라진 바닥을 연하여 잦게 긁다. [전역]

북북-떨다 동 [전역] → 북북-털다.

북북-찢다 동 [전역] → 북북-칮다.

북북-칮다 동 단단한 종이 따위를 연하여 아주 작게 찢다. [전역] = 북북-찢다.

북북-털다 동 춥거나 두려워서 몸을 연해 떨다. [전역] = 북북-떨다.

북죽이 명 <동> 줄-도화돔. [사계]

북-ᄒᆞ게 부 무엇을 말끔하게 없애는 모양. [전역] = 북기.

분-날 명 화창(和暢)하고 바람이 잔잔한 날. [전역]

볼 명 번. *(속) 잰 놈 싀 볼 얻어먹나.(빠른 놈 세 번 얻어먹는다.) [전역] → 불[3].

볼갱이 명 <동> 벌레의 일종. *밧갈당 숫쉐라도 볼갱이안티 쒜우민 도망치당 잠데가 다 부쉐져불주.(밭 갈다가 수소라도 '볼갱이'한테 쏘이면 도망치다가 쟁기가 다 부서져 버리지.) [표선 세화]

볼겡이 명 [수산] → 불겡이.

볼고롱-ᄒᆞ다 형 발그레-하다. [전역]

볼곱스롱-ᄒᆞ다 형 [전역] → 볼그스롱-ᄒᆞ다.

볼그스롱-ᄒᆞ다 형 발그스름-하다. [전역] = 볼곱스롱-ᄒᆞ다.

볼끈 부 단단하게 힘을 주어 꽉 붙잡은 상태나 모양. [전역] = ᄇᆞ끈.

볼끈-쥐다 동 무엇을 손안에 넣거나 또는 맨주먹을 부르쥐다. [전역]

볼다 형 ① 날씨가 화창하고 바람이 잔잔하다. [전역] ② 물결 따위가 가라앉아 잔잔하다. *(속) 영등둘 초ᄒᆞ루 사을 볼민 종달릿년 남죽 들렁 춤춘다.(2월 초하루 삼일 날씨 좋으면 종달리 여인 죽젓개 들고 춤춘다.) [전역]

볼딱 부 발딱. [전역]

볼딱-이 명 성을 발칵 잘 내는 일 또는 그 사람. [노형 인성 서홍 조수]

볼딱이-꾼 명 발칵 성내기를 잘하는 사람. [전역]

볼라-내다 동 발라-내다. [전역]

볼락 명 <동> 볼락. [전역]

불락-줌녜 명 <어> [전역] → 하군(下軍).
불락-줌수 명 <어> [전역] → 하군(下軍).
불르다 동 [전역] → 붋다.
불리다 동 <농> 조(粟)를 파종한 밭을 밟다. [전역]
불불-떨다 동 [전역] → 불불-털다.
불불-지드리다 동 초조한 마음으로 끈기 있게 기다리다. [전역]
불불-털다 동 무서워서 몸이 연하여 조금씩 자주 떨다. [전역] = 불불-떨다.
불써 부 벌써. [전역] = 벌써. 고 불쎠.
불착-불착 부 불끈-불끈. [전역]
불초-와리 명 발끈발끈 성을 잘 내는 사람. [가시 어도 노형]
불치락 부 툭하면 성을 내는 모양. [전역]
붉다 형 밝다(明). [전역]
붉은-오름[1] 명 <지> 제주시 노형동 남서쪽 해안공원묘지 옆에 있는 오름. 표고 337미터. [해안]
붉은-오름[2] 명 <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이시돌목장 북동쪽에 있는 오름. 표고 380미터. [금악 봉성]
붉은-오름[3] 명 <지> 제주시 한림읍 명월리 남동쪽, 동명리의 문수동 가까이에 있는 오름. 표고 149미터. [명월 동명] = 명월-오름(明月--).
붉은-오름[4] 명 <지>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 느지리오름 남서쪽에 이웃한 오름. 표고 183미터. [상명]
붉은-오름[5] 명 <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거린오름 동쪽에 있는 오름. 표고 290미터. [동광]
붋다 동 밟다(踏·踐). [전역] = 불르다. 고 붋다.
붓뒷-적삼 명 <의> [김녕] → 봇뒤-창옷.
붓뒷-창옷 명 <의> [인성] → 봇뒤-창옷.
붓ᄇᆞ른-듸 명 급소. 사람의 몸에서 가장 위급한 곳으로, 거기를 때리면 기절(氣絶)하거나 죽기도 함. [전역]
붓-쟁이 명 보비리. 구두쇠. [전역] = 뿟-쟁이, 뻐뜨-기.
붕댕이 명 <동> 콩-바구미. [노형 서홍 가시] = 궁궹이, 둥디에기, 봉둥이, 웅생이.
붕붕이 명 된 일 안 된 일에 잔소리를 잘하는 사람. [조수 인성 김녕 수산]
붕앙이 명 <동> [인성 조수 서홍 수산 어도] → 붱앵이.
붕애기[1] 명 <도> 기름틀의 몸통 부분. [구좌]
붕애기[2] 명 <동> [김녕] → 붱앵이.
붕앵이 명 <동> 등에(蜚虻). [전역] = 붱앙이, 붱애기[2]. 고 등위.
붕으리 부 ① 잡아 묶은 노끈 따위가 느슨하지 않게. [전역] ② 어느 위치에 가깝게. [전역]
붕진-붕진 부 불평이나 원망의 말을 연해 종알거리는 모양. [전역]
빠다[1] 동 빼다. 어떤 물체 속에 들어 있는 것을 뽑아서 밖에 나오게 하다. [전역]
빠다[2] 동 [전역] → 짜다[1].
빠-지다 동 빠-지다(溺). [전역]
빠-치다 동 빠-뜨리다. [전역]

빨강-하다 형 빨갛다. [전역]
빨랑-빨랑 부 빨랑-빨랑.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모양. [전역]
빵-집 명 [전역] → 빵-칩.
빵-칩 명 빵-집. [전역] = 빵-집.
빽 명 비역. 사내끼리 성교(性交)하듯이 하는 짓. [전역]
빽-다귀 명 뼈-다귀(骨). [전역] = 뻭-다구리.
뻘겅-ᄒᆞ다 형 [전역] → 벌겅-ᄒᆞ다.
뻣뻣-ᄒᆞ다 형 뻣뻣-하다. [전역]
뼤 명 [전역] → 꽝[2].
뼤골 명 골수(骨髓). 뼛속에 든 골. [전역]
뼤여-앗다 동 빼-앗다. [전역]
뻭-다구리 명 [전역] → 빽-다귀.
뼁이 명 [서홍 표선] → 삥이.
뽀라지다 형 빨다. 끝이 차차 가늘어져 뾰족하다. [전역]
뽀짝 부 뾰족. ＊젱베름엔 ᄒᆞᆫ 거는 까망ᄒᆞᆫ 거라. 영 돌에 뽀짝 가이 물싸믄 부터 잇는 거 잇주게.('젱베름'이라고 한 거 까만 거야. 이렇게 돌에 뾰족 가에 물써면 붙어 있는 것 있지.) [하도]
뽄 명 본. [전역]
뽄-놎다 형 [전역] → 모냥-놎다.
뽄세 명 본새. [전역]
뽄-웃다 형 [전역] → 모냥-웃다.
뽐 명 뼘. [전역]
뽐다 동 뼘다. [전역]
뽓-쟁이 명 [전역] → 붓-쟁이.
뽕끄랑-ᄒᆞ다 형 음식이나 물건 따위가 가득하다. ＊베가 뽕끄랑ᄒᆞ게 먹엇저. (배가 아주 부르게 먹었다.) [전역]
뽕-낭 명 <식> 뽕-나무(桑). [전역]
뽕-돌 명 <도> 낚싯-봉. 봉돌. [전역]
뾰족-ᄒᆞ다 형 뾰족-하다. [전역]
뿌다귀 명 뿌다구니. [전역]
뿌-대기다 동 [수산 김녕] → 뿌리-치다.
뿌렝이 명 [김녕] → 불희.
뿌리-대기다 동 [조수] → 뿌리-치다.
뿌리-치다 동 뿌리-치다. [전역] = 뿌-대기다, 뿌리-대기다.
뿔 명 뿔(角). [전역] 고 쓸.
뿔다[1] 동 삐다. 괴었던 물이 빠져서 줄다. [전역] 고 썰다.
뿔다[2] 동 빨다. 입술과 혀에 힘을 주어 입속으로 당겨 들어오게 하다. [전역] 고 썰다.
뿔룩-뿔룩 부 불룩-불룩. [전역] = 삘룩-삘룩.
뿔리 명 [서홍 수산] → 불희.
뿔-새위 명 <동> [김녕 조수] → 가제.
뿔우다 동 잦-히다. 짓는 밥이 끓은 뒤 불을 물렸다가 다시 불을 때어서 물기가 없어지게 하다. [전역]
뿔희 명 [전역] → 불희.
뿜다 동 뿜다. [전역] = 품다[2].
뿡-개 명 <민> 한 발쯤 된 노끈을 접어 겹친 사이에 돌을 접히어 놓고 노끈 끝을 쥐어 돌리다가 돌을 날려 보내는 사냥 도구. [서귀포]
삐다 동 흩-뿌리다. 씨-뿌리다. [전역]
삐야망-데기 명 [전역] → 삐얌-다귀.
삐약-삐약 부 삐악-삐악. [전역]
삐얌 명 뺨. 얼굴의 양쪽 관자놀이에서 턱 위까지의 살이 많은 부분. [전역]
삐얌-다귀 명 뺨-따귀. [전역] = 삐야

망-데기, 삐얌-데기.

삐얌-데기 명 [전역] → 삐얌-다귀.

삐얌-떼리다 동 [전역] → 삐얌-뜨리다.

삐얌-뜨리다 동 빰-때리다. [전역] = 삐얌-떼리다.

삐어-지다 동 흩어-지다. [전역]

삐지다 동 빚다. 술을 담그다. [전역]

삘룩-삘룩 부 [전역] → 뿔룩-뿔룩.

삥-삥 부 삥-삥. 연해 도는 모양. [전역]

삥이 명 삘기. [전역] = 빵이.

삥이-마농 명 <식> [전역] → 패-마농.

뻐뜨-기 명 *경 ᄒᆞ여노니, 뻐뜨기를, 경 부자로 살아도 경 ᄒᆞ여노니 동녕 바치덜도 졸바로 안 주곡 ᄒᆞ영 ᄒᆞ니.(그렇게 하니 구두쇠를, 그렇게 부자로 살아도 그러하니 동냥아치들도 제대로 안 주고 하니.) [명월] → 붓쟁-이.

뻐뜨다 형 ① 재물에 대한 욕심이 많아서 체면이나 도리를 돌보지 않아 몹시 다랍다. [전역] ② 옷 따위가 작아서 꽉 끼다. [전역] ③ 줄 따위의 길이가 부족하다. [전역]

뻐레기 명 <동> 붕-장어. [애월 대포]

뻐르다 형 빠르다. [전역]

뻐스다 동 [전역] → 뻣다.

뻐짝-ᄒᆞ다 형 옷, 신발 등이 품이 작아서 몸에 꽉 끼다. [전역]

뻘다 동 빨다. 더러운 것을 물에 씻어 깨끗하게 하다. [전역]

뻘레 명 빨래. [전역]

뻘레-ᄒᆞ다 동 빨래-하다. [전역]

뻘리 부 빨리. [전역]

뻘아-먹다 동 빨아-먹다. [전역]

뻘-족 명 [김녕] → 물-부리.

뻘-치 명 [조수] → 물-부리.

뻠기 명 [노형 조수 조천] → 뻡기.

뻡기 명 여럿 가운데서 가리어 뽑아내어 이름을 적은 것. [전역] = 뻠기, 뻥기.

뻡다 동 뽑다(擇). [전역] 고 쏩다.

뻡는-무르레 명 <도> [노형] → 뻡는-물레.

뻡는-물레 명 <도> 고치에서 실을 잣물레. [노형 조수 김녕] = 뻡는-무르레.

뻣다 동 빻다. [전역] = 뻐스다.

뻣뻣-굶다 동 아주 아무것도 먹지 아니하다. [전역]

뻥기 명 [조천 조수 노형] → 뻡기.

ㅅ

ㅅ 조 의. [전역] → 의[2].
사가(査家) 명 사돈집. [전역]
사과(沙果) 명 사과. [전역]
사귀(邪鬼) 명 사귀. [전역]
사귀다 동 사귀다(交). [전역] 고 사괴다.
사그락-담 명 [태흥] → 사스락-담.
사그렝이 명 사그랑이. 다 삭아서 못쓰게 된 물건. [전역]
사그-마치 명 사금-파리. ＊아희 땐 사그마치 봉가당 흑밥 하영 헷주.(아이 적에는 사금파리 주워다가 소꿉장난을 많이 했지.) [전역] = 사그-망치, 사그-먹치, 사금-바치, 사금-파리, 사기-패.
사그-망치 명 [노형 김녕] → 사그-마치.
사그-먹치 명 [수산 가시] → 사그-마치.
사금-바치 동 [전역] → 사그-마치.
사금-파리 명 [노형 조수] → 사그-마치.
사기-그릇(沙器--) 명 사기-그릇. [전역]
사기다 동 [전역] → 새기다[1]. 고 사기다.
사기-대접(沙器--) 명 사기-대접. [전역]
사기-장시 명 사기그릇-장수(沙器商人). [전역]
사기-장ᄉᆞ 명 사기그릇-장사(沙器商). [전역]
사기-접시 명 사기-접시. [전역]
사기-패 명 [인성] → 사그-마치.
사기-펭 명 사기-병(沙器甁). [전역]
사-나을 명 [전역] → 사-나흘.
사-나흘 명 사-나흘(三四日). [전역] = 사-나을.
사남 명 <민> 혼(魂)을 위로하는 의례(儀禮). ＊집의 원통ᄒᆞ게 죽은 조상이 잇어네 경ᄒᆞ니, 사남을 헤사쿠다.(집에 원통하게 죽은 조상이 있어서 그러하니, '사남'을 해야겠습니다.) [대정] = 사남-굿.
사남-굿 명 <민> ＊죽은 할망이 잇젠ᄒᆞ니, 그 할망 나시 사남굿을 헤영.(죽은 할머니가 있다고 하니, 그 할머니의 몫으로 '사남굿'을 해서.) [대정] → 사남.
사납 명 <민> 날라리. ＊공문동산엔 ᄒᆞᆫ 디는 우린 말만 들엇는디 원님 들어올 적에 기생들이 주레, 사납을 불엉 환영ᄒᆞᆫ 디주.(공문동산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는 말만 들었는데 원님 들어올 때에 기생들이 피리, 날라리를 불어서 환영한 데지.) [북촌

성읍]

사납다 형 사납다. *사름은 사나왕 안 뒈주. 어진 게 최고라.(사람은 사나워서 안 되지. 어진 것이 최고야.) [전역]

사냥 명 사냥(狩獵). [전역] = 사녕, 사농. 고산영.

사냥-개 명 [전역] → 사농-개.

사냥-꾼 명 [전역] → 사농-꾼.

사냥-캐 명 [수산 가시] → 사농-개.

사념 명 [전역] → 살렴.

사념-살이 명 [전역] → 살렴-살이.

사녕 명 [하원 태흥] → 사냥.

사노롱-ᄒᆞ다 형 사느랗다. [전역]

사농 명 [어도 조수] → 사냥.

사농-개 명 사냥-개. [전역] = 사냥-개, 사냥-캐. 고산영개.

사농-꾼 명 사냥-꾼. [전역] = 사냥-꾼.

사농-놀이 명 <민> [전역] → 산신-놀이.

사농-바치 명 [조수 노형 가시] → 사농-쟁이.

사농-쟁이 명 사냥질을 잘하는 사람. [전역] = 사농-바치.

사다[1] 동 사다(買). [전역]

사다[2] 동 서다(立). [전역] = ᄉᆞ다.

사다기-낭 명 <식> [수산] → 사당-낭.

사-다리 명 [표선 수산 태흥 세화 노형] → 사드레.

사당-낭 명 <식> 생달-나무. [서홍] = 사다기-낭, 사데기, 사데기-낭[1], 서당-낭.

사당-대죽 명 <식> 사탕-수수. [노형 조수 인성 김녕 서홍] = 대죽[2], 사당-대축, 사탕-대죽, 사탕-대축, 새당-대죽.

사당-대축 명 <식> [수산 가시 김녕] → 사당-대죽.

사데 명 <요> 검질 매는 소리. [전역] = 사디.

사데기 명 <식> [전역] → 사당-낭.

사데기-낭[1] 명 <식> [전역] → 사당-낭.

사데기-낭[2] 명 <식> 흰새덕이-나무. [전역] = 신-사데기.

사돈(査頓) 명 사돈. [전역] = 사둔.

사돈-구덕 명 <도> 사돈집에 큰일이 났을 때 부조로 쌀이나 떡을 담아 가는 바구니. [도련]

사돈-칩 명 사돈-집(査頓-). [전역]

사둔 명 [전역] → 사돈.

사둔-열멩 명 사돈끼리 하는 인사. [전역]

사둘-에움 명 사둘의 둘레를 이루는 테. *사둘에움은 이제 노가리낭으로 ᄒᆞ는 거라예.(사둘 테두리는 이제 주목(朱木)으로 하는 거지요.) [이호]

사-드레 명 사닥-다리. [인성 하원 화순] = 사-다리, 사-ᄃᆞ리.

사들 명 <어> 사둘. 손잡이가 길고 모양이 국자처럼 생긴, 물고기를 잡는 그물. [전역]

사디 명 <요> [전역] → 사데.

사-ᄃᆞ리 명 [태흥 표선] → 사-드레. 고사ᄃᆞ리.

사라-대피소(--待避所) 명 <지> 한라산 국립공원 사라오름 북서록의 등산로변에 있는 등산 대피소. 표고 1217미터. [전역]

사라-마을 명 <지> 제주시 도평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사라-봉(紗羅峰) 명 <지> [전역] → 사라-오름[1].

사라-오름[1] 명 <지> 제주시 건입동 동쪽 바닷가에 있는 오름. 서쪽으로 제주항을 내려다보고 동쪽은 알오름~베리오름으로 산줄기가 이어짐. 정상 부근에 망양정(望洋亭)과 조선 때의 봉수터(제주도 기념물 제23호)가 있음. 사봉낙조(紗峰落照)는 영주십경(瀛洲十景)의 하나임. 표고 148.2미터. [전역] = 사라-봉(紗羅峰).

사라-오름[2]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경계에 걸쳐진 한라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오름. 표고 1325미터. [전역]

사락사락-ᄒᆞ다 형 물건의 겉이 미끄럽지 못하고 좀 거칠다. [전역]

사랑-척구 명 <민> 사랑의 원한이 있는 외로운 귀신. [전역]

사레 명 사레. [인성 서홍 태흥] = 살러레, 살레[2], 살헤, 슬레.

사려니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한남리 머체오름 서쪽에 있는 오름. 표고 523미터. [위미 한남] = 사련-악(四連岳), ᄉᆞ련이-오름.

사련-악(四連岳) 명 <지> [남원] → 사려니.

사록-밧 명 모래 기운이 감도는 흙으로 이루어진 밭. *사록밧은 밧을 갈 때 사락사락ᄒᆞ니 밧 갈기도 좋곡 농ᄉᆞ도 잘뒈곡 ᄒᆞ주.('사록밧'은 밭을 갈 때 '사락사락하니' 밭 갈기도 좋고 농사도 잘되고 하지.) [광령]

사롭 명 [조천] → 사릅.

사르다 동 사르다. 불을 불어 피우다. [전역] = 살르다. 고 술다.

사르르 부 사르르. [전역]

사름 명 사람(人). *(속) 제주산은 악산이난 악ᄒᆞᆫ 사름 잘 뒌다.(제주산은 악산(惡山)이니 악한 사람이 잘 된다.) *(속) 가난ᄒᆞᆫ 사름 못 ᄒᆞᆯ 일 읏나.(가난한 사람 못할 일 없다.) *(속) ᄀᆞ시락머리 ᄒᆞᆫ 사름은 베설 궂나.(곱슬머리 한 사람은 성깔이 궂다.) *(속) 곤 사름은 멕 써도 곱나.(고운 사람은 멱서리 써도 곱다.) *(속) 둥그린 독새긴 빙애기 뒈곡, 둥그린 사름은 쓸메 난다.(굴린 달걀은 병아리 되고, 굴린 사람은 쓸모가 있다.) *(속) 떡 진 사름 춤 추난 ᄆᆞᆯ똥 진 사름ᄁᆞ지 춘다.(떡을 진 사람이 춤을 추니 말똥 진 사람까지 춤을 춘다.) *(속) 막 떡은 막뒌 사름만 먹나.(마지막 떡은 막된 사람만 먹는다.) *(속) 모관(牧內) 사름 앚아난 디 풀도 안 돋나.(제주목 안 사람 앉았던 데는 풀도 안 돋는다.) *(속) 사름은 궤는 디로 간다.(사람은 아껴주는 곳으로 간다.) *(속) ᄌᆞ드는 사름은 산지물에 가도 궁근팡에 앚나.(걱정하는 사람은 산지물에 가도 흔들리는 돌에 앉는다.) [전역]

사름-답다 형 사람-답다. [전역]

사름-수질 명 사람-멀미. *뱃수질보다 사름수질이 더 힘들어.(뱃멀미 보다 사람 멀미가 더 힘들지.) [전역]

사릅 명 사릅. 소의 나이 세 살. [전역] = 사롭. 고 사릅.

사릅-노리 명 <동> 세 살짜리 노루. *수커 사릅노리는 뿔이 두 가달만

나오주.(수컷 '사릅노루'는 뿔이 두 가닥만 나오지.) [교래]

사릅-부룽이 명 <동> 나이가 세 살이 된 부룩 송아지. *저 집이 사릅부룽이 하나 싯주만.(저 집에 세 살 난 수소 하나 있지만.) [전역] = 사릅-송아지.

사릅-송아지 명 <동> [전역] → 사릅-부룽이.

사리[1] 명 사리. 윷놀이에서 '모'나 '윷'을 이르는 말. [전역]

사리[2] 명 사리. 새끼 따위를 사려서 감은 뭉치. [전역]

사리다 동 사리다. [전역] 고사리다.

사리착 명 빗-자루. [남원 대정]

사막 명 사마귀. 피부 위에 낟알만 하게 도도록하고 납작하게 돋은 군살. [전역]

사맹이 명 <지> 제주시 아라1동 산천단 위쪽, 세미양오름 아래쪽에 있었던 마을. [전역]

사발(沙鉢) 명 사발. [전역]

사발-꼿 명 <식> 수국(水菊). [전역]

사발-떡 명 <음> 놋그릇(鍮器)에 쪄 낸 떡. [전역]

사발-메(沙鉢-) 명 <민> 사발에 담아 신에게 제물로 올리는 밥. [전역]

사방 명 <건> [화순 하원 서홍 태흥 표선 수산] → 지동-고사리.

사방지동-고사리 명 <건> [가시] → 지동-고사리.

사분-사분 부 사분-사분. [전역]

사상-벌 명 <동> 말-벌(雀蜂). [노형 조수 인성 수산 서홍] = 새당-벌, 소왕-벌. 고물벌.

사상-어욱 명 줄기가 가느다란 억새. [성읍]

사수-동(沙水洞) 명 <지> [용담] → 몰레물②.

사스락-담 명 아주 자질구레한 돌로 쌓은 담. [태흥 표선 수산 세화] = 사그락-담, 사슬-담.

사스레기 명 구름의 일종. *밤 사스레긴 비 오곡, 낮 사스레긴 ᄇᆞ름 불곡.(밤 '사스레기'는 비 오고, 낮 '사스레기'는 바람 불고.) [마라도]

사스레-낭 명 <식> [전역] → 피풍-낭[1].

사슬 명 <농> 보리 낟알. [영평]

사슬-담 명 [서홍] → 사스락-담.

사슴 명 <동> 사슴. [전역] = 깍녹.

사-악(寺岳) 명 <지> [전역] → 절-오름.

사오기 명 <식> ① 벚-나무. [전역] ② 왕-벚나무. [전역] ③ 섬-개벚나무. [전역] ④ 사옥. [전역] = 먹-사오기.

사올-대 명 [노형 어도] → 사올-쪽.

사올-쪽 명 상앗-대. [서홍 태흥 가시 세화 조천 노형 어도] = 사올-대, 사을-대, 상올-쪽.

사위[1] 명 <동> [김녕 조수 수산] → 새위. 고사뷔.

사위[2] 명 사위(婿). *(속) 사위 잘 ᄒᆞ민 집안 망ᄒᆞᆫ다.(사위를 잘하면 집안 망한다.) [전역] 고사회.

사위-ᄒᆞ다 동 사위를 삼다. [전역]

사을 명 [전역] → 사흘.

사을-대 명 [인성 하원] → 사올-쪽.

사을-메 명 <민> [전역] → 사흘-메.

사장(射場) 명 사장. [전역]

사장-이(射場-) 명 <지> 제주시 내도동 북쪽에 있었던 마을. [전역]
사전-동(寺田洞) 명 <지> [남원] → 절왓-동네.
사제비-동산 명 <지> [광령 노형] → 새잽이-오름.
사줏공 명 사주(四柱)에 관한 셈. 사리 분별력, 판단력, 세상 살아가는 데의 영리함을 뜻함. *그 영감이 사줏공 잇는 영감이여.(그 영감은 사주셈이 있는 영감이야.) [구좌]
사지 명 <도> 갓모자를 겯고 난 다음 먹칠하는 연장. 말총을 묶어서 붓 모양으로 만듦. [전역]
사지-봉(--峰) 명 <지> [전역] → 독ᄌᆞ-오름.
사탕-ᄀᆞ르 명 [서홍 수산] → 사탕-ᄀᆞ를.
사탕-ᄀᆞ를 명 사탕-가루(砂糖--). [노형 조수 김녕] = ᄀᆞ를-사탕, 사탕-ᄀᆞ르.
사탕-대죽 명 [전역] → 사당-대죽.
사탕-대축 명 [전역] → 사당-대죽.
사퉁이 명 눈 한쪽이 깨진 말. [전역]
사훼[1] 명 [전역] → ᄉᆞ훼.
사훼[2] 명 사회(社會). [전역]
사흘 명 사흘(三日). [전역] = 사을. ㊟사ᄋᆞᆯ.
사흘-메 명 <민> 아기를 분만해서 사흘째 되는 날, 아기의 생육을 관장한다는 삼승할망에게 감사하고 기원하는 뜻으로, 방 구석이나 벽 위에 차려 놓은 할머니 상에 올리는 메. [전역] = 사을-메.
삭 명 [어도] → 쿰.
삭-갓 명 [전역] → 삿-갓.
삭-군 명 품삯을 주기로 하고 빌려 쓰는 일꾼. [행원]
삭-내다 동 세-놓다(貰--). [전역]
삭다[1] 동 삭다. [전역]
삭다[2] 동 사위다. [전역]
삭-다리 명 삭정-이. 말라 죽은 나뭇가지. [전역]
삭달-나무 명 [한림] → 삭달-남.
삭달-남 명 통째 말라 죽은, 어느 정도 큰 나무. [전역] = 삭달-나무.
삭망(朔望) 명 삭망. 상중에 있는 집에서 매달 초하룻날과 보름날 아침에 지내는 제사. [전역]
삭삭-ᄒᆞ다 형 시원-하다. 말이나 행동이 활발하고 서글서글하다. [전역]
삭-이다 동 삭-이다(消化). [전역] = 색-이다.
삭-일 명 [어도 가시] → 쿰-일.
삭제(朔祭) 명 삭제. 상중에 있는 집에서 매달 초하룻날 아침에 지내는 제사. [전역] = 색일.
삯-쉐 명 품삯을 주어 먹이는 소. [전역]
산[1] 명 뫼(墓). [전역]
산[2]**(山)** 명 산. [전역]
산-가늠 명 <어> 높은 산의 지형지물로 가늠해 어장을 찾는 일. [전역] = 웃-가늠.
산강 명 [노형 어도 인성 서홍 수산 가시] → 서리[2].
산강-ᄂᆞ리다 동 공중의 수증기가 땅의 물건 겉에 닿아서 엉겨 허옇게 되다. [노형 조수 어도 인성 하원 화순 서홍] = 산강-지다, 상강-ᄂᆞ리다.

산강-지다 동 [태흥 표선 수산 세화 조천 서홍] → 산강-ᄂᆞ리다.

산-고고리 명 산-꼭대기. *한락산 산고고리랑 어디 버여 뒁.(한라산 꼭대기는 어디 버려 두고.) [전역] = 산-꼭대기.

산-굼부리 명 <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하동 동쪽에 있는 거대한 굼부리(분화구)의 오름. 화산쇄설물(火山碎屑物)의 분출은 거의 없이 가스의 폭발로만 생긴 희귀한 마르(Maar)형 폭렬화구(爆裂火口)로서 완경사의 낮은 언덕으로 둘림. 내사면(內斜面)은 일조(日照) 방향에 따라 식생(植生)을 달리하여 겨울딸기·자생란 등 희귀 식물을 비롯한 420여 종의 난·온대성 식물이 자람. 화구의 크기는 바깥 둘레 약 2700미터, 밑 둘레 750미터, 깊이 132미터이며, 화구바닥이 산밑의 도로보다 100미터 더 지하가 됨. 천연기념물 제263호. 표고 437.4미터. [전역]

산기-벵 명 <병> 오줌-소태. [전역] = 산기-장, 오좀솔태-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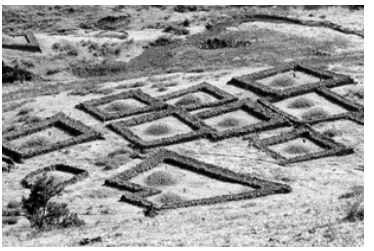
산기-장 명 <병> [서홍 태흥 어도] → 산기-벵.

산-꼭대기 명 [전역] → 산-고고리.

산-노리 명 한라산 정상(頂上) 가까운 곳에 서식하는 노루. [교래]

산-담 명 무덤 주위로 네모지거나 둥글게 둘러싼 돌담(墻).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산-잣.

산담-걷다 동 주로 벌초할 때, 묘소 주위를 에워 쌓은 담 위의 잡풀을 제거하다. [전역]



산[1]과 산담

산담-ᄒᆞ다 동 묘소(墓所) 주위에 담을 에워 쌓다. [전역]

산-데미 명 산-더미. [전역] = 산-뎅이.

산-뎅이 명 [전역] → 산-데미.

산도 명 <식> [전역] → 산뒤.

산도록-ᄒᆞ다 형 싸느랗다. 조금 차거나 선선한 느낌이 있다. [전역] = 산도롱-ᄒᆞ다.

산도롱-ᄒᆞ다 형 [전역] → 산도록-ᄒᆞ다.

산-돌 명 단단하게 박혀 살아 있는 돌. [전역]

산-두새 명 산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인성 화순 하원 수산] = 산-부새.

산-뒈야지 명 <동> [수산 서홍] → 산-톳.

산뒤 명 <식> 밭-벼. 한도(旱稻). [전역] = 산도, 산듸. 고 산도미.

산뒤-말축 명 <동> [수산 조천 노형] → 심방-만축.

산뒤-밧 명 [수산 김녕] → 산뒤-왓.

산뒤-붕뎅이 명 밭볏짚이 엉기어 북데기를 이룬 것. [행원]

산뒤-삼촌 명 <식> 방동사니. [노형 조수] = 산뒤-ᄉᆞ촌, 산뒤-제와니.

산뒤-ᄉᆞ촌 명 <식> [수산 가시] → 산뒤-삼촌.

산뒤-쌀 명 밭벼-쌀. [전역]
산뒤-왓 명 밭벼-밭. 밭벼를 심은 밭. [전역] = 산뒤-밧, 산듸-왓.
산뒤-제와니 명 <식> [김녕 노형] → 산뒤-삼촌.
산뒤-찍 명 [조수 인성 서홍] → 산뒤-찝.
산뒤-찝 명 밭벼-짚. [노형 수산 가시 김녕] = 산뒤-찍.
산뒤-체 명 밭벼-겨. [행원]
산득-산득 부 산득-산득. [전역]
산들이 명 이슬비보다 조금 굵게 내리는 비. [전역]
산-등성몰리 명 산-등성마루. [전역]
산-등어리 명 산-등성이. [전역]
산듸 명 <식> [전역] → 산뒤.
산듸-말축 명 <동> [태흥 수산 호근] → 심방-만축.
산듸-왓 명 [전역] → 산뒤-왓.
산-때 명 <민> 산대(算臺). 둥그런 잔대(盞臺) 모양의 놋쇠 그릇. 점구인 천문과 상잔을 담아 두는 그릇. [전역]



산때

산란-ᄒᆞ다(散亂--) 형 산란-하다. [전역]
산마 명 <식> [남원] → 살마.
산매-목ᄌᆞ 명 산마-목자(山馬牧子). 너른 들판의 목장에서 말떼를 먹이는 사람. *ᄌᆞ네 아덜 오는 걸 보난 털벌립에 대옥친 돌안 산매목ᄌᆞ 오는 간ᄒᆞ다.(자네 아들 오는 것을 보니 털벙거지에 대갓끈 달아서 산마목자 오는 듯하다.) [전역]
산-멀뤼 명 <식> 산-머루. 산에서 나는 머루.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가시] = 곶-멀뤼.
산-메자(山--) 명 <식> 산-매자. 산매자나무의 열매. [전역]
산메자-낭(山---) 명 <식> 산매자-나무. [전역]
산멕[1] 명 멀떠구니. 날짐승의 소화기. [전역] 고 산멱.
산멕[2] 명 산맥(山脈). [전역]
산-목솜 명 [전역] → 산-목숨.
산-목숨 명 산-목숨. [전역] = 산-목솜.
산-물[1] 명 [전역] → 셍수.
산-물[2] 명 용천수. [전역]
산물[3] 명 <식> 귤의 한가지. [전역]
산-ᄆᆞ로 명 [서홍 수산] → 산-ᄆᆞᆯ렝이.
산-ᄆᆞ르 명 [인성] → 산-ᄆᆞᆯ렝이.
산-ᄆᆞ르겡이 명 [수산] → 산-ᄆᆞ르테기.
산-ᄆᆞ르테기 명 산-마루터기. [어도 김녕] = 산-ᄆᆞ르겡이.
산-ᄆᆞᆯ 명 [노형 조수] → 산-ᄆᆞᆯ렝이.
산-ᄆᆞᆯ렝이 명 산-마루(山--). [전역] = 산-ᄆᆞ로, 산-ᄆᆞ르, 산-ᄆᆞᆯ, 산-ᄆᆞᆯ리. 고 뫼ᄆᆞᄅᆞ.
산-ᄆᆞᆯ리 명 [노형 조수] → 산-ᄆᆞᆯ렝이.
산-받음 명 <민> 점(占)을 쳐서 신(神)의 뜻을 알아보는 일. [전역]
산-발 명 산-기슭(山--). [전역]
산방-구절 명 산방-굴사(山房窟寺). 서

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산방산 허리에 있는 굴 속의 절. [전역]

산방-굴(山房窟) 명 <지> 서귀포시 안덕면 산방산에 있는 바위굴. 길이 10미터, 높이·폭이 각각 5미터 가량의 굴암(窟岩)은 고려 말기의 시승(詩僧) 혜일(慧日)이 창건한 것으로 전해지며, 영주십경(瀛洲十景)의 하나인 산방굴사(山房窟寺)로 이름남. 표고 150미터. [전역]

산방-산(山房山) 명 <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와 화순리 경계에 걸쳐진 오름. 분화구가 있는 종상화산(鐘狀火山)으로, 돌아가며 벼랑이 깎아지르고 암릉(岩稜)마다 풍화된 조면암 기둥이 중첩하여 장관을 이룸. 남쪽 중턱에 산방굴이 있고, 주변 암벽에는 지네발란·풍란·섬회양목 등 희귀 식물이 자라 천연기념물 제182-5호로서 보호됨. 표고 395미터. [전역] = 굴-산(窟山).

산벌른-내 명 <지> 한라산 국립공원의 방에오름 능선 서록을 끼고 흐르는 효돈천(孝敦川·靈川)의 최상류부. 특히 알방에오름 남서쪽부터는 상당 구간 산을 '벌르면서'(쪼개면서) 흘러내린 용암류(溶暗流)의 자국이 깊은 U자형 협곡(峽谷)을 형성함. [아라 호근 동홍]

산-봉데기 명 [전역] → 산-봉오리.

산-봉오리 명 산-봉우리(峰). [전역] = 산-봉데기, 산-봉오지.

산-봉오지 명 [전역] → 산-봉오리.

산-부새 명 [어도 조수] → 산-두새.

산-비돌기 명 <동> 산-비둘기. [전역] = 드릇-비돌기.

산세미-오름 명 <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와 금덕리와의 경계에 있는 오름. 표고 652미터. [전역] = 삼산-악(三山岳), 삼산이-오름, 산심-봉(山心峰), 활천-악(活泉岳).

산-송장 명 산-송장. [전역]

산-쉐 명 <동> 길들이지 아니한 야생소. [노형] = 워립.

산승 명 <식> 더덕.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가시]

산신-놀이 명 <민> 산신(山神)을 위하여 사냥하는 모양을 연극적으로 펼치는 의례. [전역] = 사농-놀이.

산심-봉(山心峰) 명 <지> [전역] → 산세미-오름.

산-쓰다 동 뫼(墓)를 쓰다. [전역]

산-역시 명 [전역] → 산-역수.

산-역수 명 뫼(墓)를 쓰는 데 있어서의 여러 가지 일들. [전역] = 산-역시.

산-일 명 [전역] → 순-일.

산-자리 명 묏-자리. [전역]

산-잣 명 [서홍 수산] → 산-담.

산-쟁이 명 [전역] → 산-젱이.

산저 명 <지> [건입] → 산젓개-마을.

산전-볼라기 명 <동> [태흥 서홍 세화] → 심방-만축.

산전-볼락 명 <동> [하원 노형] → 심방-만축.

산젓-개 명 <지> 제주시 건입동에 있었던 '건들개'의 또 다른 이름. [전역] = 산짓-개.

산젓개-마을 명 <지> 제주시 건입동 '산젓개'와 '산젓물' 일대에 형성되었던 자연마을. [전역] = 산저, 산좌-

전, 산지, 산짓개-마을.

산-젱이 명 ① 사냥-꾼. *산젱이 칩인 산신일월.(사냥꾼 집에는 산신 조상.) [한림] ② 산 속에 살면서 사냥하고 약초 캐는 일을 하는 사람. [전역] = 산-쟁이.

산좌-전(山座田) 명 묏(墓)자리가 있어서 소유권이 그 뫼에 딸린 밭. [전역]

산지 명 <지> [전역] → 산짓개-마을.

산-지기 명 산-지기. [전역]

산-지레 명 [전역] → 손-지레.

산지-항 명 <지> 제주시 건입동에 있는 항구. 제주항의 옛 이름. [전역]

산-질 명 <민> 산길(算-). 점친 결과의 방향. [전역]

산짓-개 명 <지> [전역] → 산짓-개.

산짓개-마을 명 <지> [전역] → 산짓개-마을.

산천 명 산천. 조상의 묏자리. 또는 그로 인해서 돌아오는 좋은 운. [전역]

산천-단(山川壇) 명 <지> 제주시 아라1동의 한 자연마을. 조선시대 때 한라산신에 제사를 지내는 사당에 있었던 데서 '산천단(山川壇)'이라 했음. [전역] = 산천-당(山川堂).

산천-당(山泉堂) 명 <지> [전역] → 산천-단(山川壇).

산천 쓰다 구 묏자리를 잘 쓴 덕분에 집안에 들어온 나쁜 사귀(邪鬼)를 물리치다. [전역]

산천-제(山川祭) 명 <민> 산천-제. 성주풀이에서 성줏대를 끊어 잡신을 제거하기 전에 지내는 제사. [함덕]

산천초목 명 <요> 예전의 도읍이나 관문에서 전해지는 유장하고 구성진 창민요. 한반도에서 유입, 전승되는 민요의 한 가지. [성읍 삼도 조천]

산-체 명 남의 밭에 뫼를 쓰고 그 대가로 치르는 돈. [전역]

산체-심다 동 사로-잡다. [전역]

산-탈 명 <식> 산-딸기. [전역]

산태[1] 명 <도> 긴 채 두 개 사이에 가운데만 가로장을 띄엄띄엄 박아 들것처럼 앞뒤로 들게 된 도구. [전역] = 삼태. 고 산태.



산태[1]

산태[2] 명 <동> [조수] → 장수-밥주리.

산태-걸이 명 죄인을 '산태'에 묶어 거꾸로 세워놓고 매를 치는 일. [구억]

산태-부출 명 '산태'의 채. [전역]

산태-뿔 명 위로 향하여 길게 나온 소의 뿔. [전역]

산태질 소리 명 <요> 물건을 나르게 된 '산태'로 돌 따위를 옮기면서 부르는 노동요. [상천]

산-터 명 묏-자리. [전역]

산테 명 <동> [전역] → 장수-밥주리.

산-톳(山-) 명 <동> 산-돼지. [전역] = 대-돗, 산-뒈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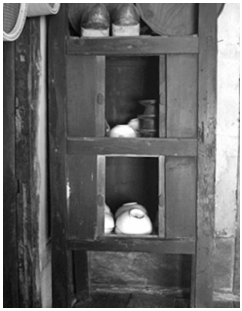
산-판 명 <민> 무점구인 천문, 상잔, 산대를 함께 일컬음. [전역]

산하-동(山下洞)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에 있는 자연마을. [남원]



산판

살[1] 명 [전역] → 쌀[1].
살[2] 명 [전역] → 쌀[2].
살강-살강 부 살강-살강. [전역]
살다 동 살다. [전역]
살라니-오름 명 <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간에 있는 오름 이름. 표고 791미터. [조천 남원] = 살하니-오름, 추다-악(皺多岳).
살락 부 쌓은 물건이 갑자기 사르르 쓰러지는 모양. [전역]
살랑-살랑 부 살랑-살랑. [전역]
살러레 명 [가시 수산] → 사레.
살러레-들다 동 [서홍 태흥 표선 수산] → 살레-들다.
살럼 명 [전역] → 살렴.
살레[1] 명 찬장 모양으로 간략히 짜서 부엌 안에 세워 놓고 식기 따위를 넣는 물건. *(속) 살레 아래서 족박을 봉그주.(살강 아래서 쪽박을 줍지.) [전역] = 정짓-궤.



살레[1]

살레[2] 명 [화순 어도] → 사레.
살레[3] 명 [조천] → 청에[1].
살레-대죽 명 <식>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느렁-대죽.
살레-대축 명 <식> [수산] → 느렁-대죽.
살레-들다 명 사레-들다. [화순 어도 김녕] = 살러레-들다, 살헤-들다, 술러레-들다.
살렴 명 살림. [전역] = 사념, 살럼, 살림.
살렴-갈리다 명 이혼-하다. [전역]
살렴-살이 명 살림-살이. [전역] = 사념-살이, 세간-살이. 고 사롬사리.
살루다 동 살-리다. *ᄒᆞᆫ 번, 두 번, 싀 번ᄭᅡ지는 살루와 주마.(한 번, 두 번, 세 번까지는 살려 주마.) *나를 불쌍ᄒᆞ게 네경 살리커건 쒜줄 ᄂᆞ리곡, 죽이커건 호박줄 ᄂᆞ리와 줍서.(나를 불쌍하게 여겨서 살리려거든 쇠줄 내리고, 죽이려거든 호박줄 내려 주십시오.) [전역] = 살-리다.
살르다 동 [전역] → 사르다.
살-리다 동 [전역] → 살루다.
살림 명 [전역] → 살렴.
살마 명 <식> 반하(半夏). 천남성과의



살마

여러해살이 풀. [봉성 애월 조수 고산] = 산마, 삼마.

살-문뎅이 명 [노형] → 피지-가죽.

살-보리 명 쌀-보리. [대포]

살-부트다 동 살(煞)이 붙다. ＊뒷집의 삼춘은 어디 강 살부텅 와신디사 시름시름 아팜덴 흡디다.(뒷집의 삼촌은 어디 가서 살이 붙어서 왔는지 시름시름 아프다고 하데요.) [전역]

살숙이 명 <도> 껑거리막대에 고정되어 있으면서 뱃대끈을 함께 묶어주는 끈. [어음] = 새뀌, 쌀-술기.

살시 명 방목 중인 소가 풀을 뜯는 일정한 곳. [송당]

살아-가다 동 살아-가다. ＊어떵 어떵 살아감시믄 살아진다.(어떻게 어떻게 살아가고 있으면 살 수 있게 된다.) [전역]

살아-셍전 명 살아-생전. [전역]

살아-지다 동 모든 면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게 되다. ＊건 살아지난 ᄒᆞ는 소리고.(그것은 '살아지니까' 하는 말이고.) [전역]

살예-대축 명 <식> [김녕] → 느렁-대죽.

살을-맛 명 살-맛. 세상을 살아갈 만한 보람. ＊어멍 펜에 설욱이 시나, 아방 펜에 설욱이 시나, ᄒᆞᆫ 설욱만 잇인 후제 설룬 나도 살을맛 난다.(어머니 편에 혈육이 있거나, 아버지 편에 혈육이 있거나, 한 혈육만 있으면야 서러운 나도 살맛 난다.) [전역]

살을-메 명 살아갈 만한 방도. ＊좁쌀만이 살을메 시민 놈의 역을 사름이 들랴.(좁쌀 만큼 살 도리 있으면 남의 품팔이를 사람이 들랴.)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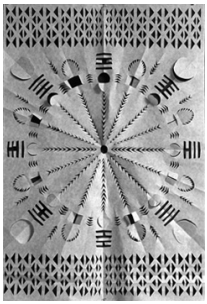
살을-일 명 살아가는 데 아주 긴요하고 값어치 있는 일. ＊무신 살을일 햄시니?(무슨 값어치 있는 일 하느냐?) [전역]

살작 명 살쩍(鬢毛). [전역] 고 살쟉.

살작-바랑 명 망건을 안 쓰고 살쩍을 올리지 아니한 차림새. [전역]

살작-올리다 동 살쩍을 망건 속으로 밀어 넣거나 위로 밀어 올리다. [전역]

살-장 명 살-창(-窓). 창호지를 오려 문처럼 제장에 붙이는 종이 장식. [전역]



살장

살-장귀 명 설-장구. [전역]

살-쟁이 명 사냥-꾼. 활을 잘 쏘는 사람. [대정] = 살-젱이.

살-젱이 명 [대정] → 살-쟁이.

살착-문 명 [김녕 가시] → 살체기-문.

살-창(-窓) 명 <건> 살-창. [전역]

살챗-보리 명 찧지 않은 보리. ＊살챗보릴 거죽차 먹은덜 씨왓이사 ᄒᆞᆫ집의 살랴.(안 찧은 보릴 껍질째 먹은들 시앗이야 한집에 살랴.) [전역]

살챗-살렴 명 더불어 살게 될 부부의 살림. ＊살챗살렴 못 살게 홈은 방상 ᄌᆞ녀 탓이로고나.(살게 될 살림 못

살게 함은 친척 자녀 탓이로구나.) [전역]

살체기 명 [전역] → 살체기-문.

살체기-문 명 사립-문. 굵은 나무 두 개로 기둥을 삼고 가로로 나뭇가지를 네댓 개 드문드문 박아 짜서 대문 대신 쓰는 문. [조수 어도] = 살착-문, 살체기. 고 살짝기.

살쳇-짐승 명 목숨이 붙어 있어 살게 되어 있는 짐승. [전역]

살추-ᄒᆞ다 동 고기 따위가 겉은 익었으나 속은 조금 덜 익은 듯하다. [전역]

살-쿼기 명 [전역] → 술-쿼기.

살-타귀 명 주름-살. [전역] = 술-타귀.

살패기 명 <동> 어린 전복. [하효]

살-풀이 명 [인성 서홍] → 쌀-풀이.

살-피 명 <식> 피의 일종. [영평]

살피영-ᄒᆞ다 형 추위를 타서 얼굴에 시린 꼴을 하다. [노형 어도 조수 화순 하원 서홍 태흥 표선]

살하니-오름 명 <지> [조천 남원] → 살라니-오름.

살헤 명 [노형 조천] → 사레.

살헤-들다 동 [노형 화순 조천] → 살레-들다.

삼 명 <식> 삼(麻). [전역]

삼가다 동 삼가다(愼). [노형 조수] = 삼가-ᄒᆞ다, 삼개다.

삼가-ᄒᆞ다 동 [전역] → 삼가다.

삼각-봉(三角峰) 명 <지> 제주시 아라동 한라산 국립공원의 장구목 북단에 있는 오름. 바위 벼랑이 삼각추형으로 솟음. 표고 1622미터. [전역] = 연두-봉(鳶頭峰).

삼갑-배 명 세 가닥으로 드린 참바. [전역]

삼갑-씰 명 삼겹-실(--絲). [전역] = 시갑-씰.

삼개다 동 [조수 서홍] → 삼가다.

삼곡-마량(三穀馬糧) 명 <민> 양푼에 담아 올린 세 종류의 곡식. [전역] = 삼곡-마령.



삼곡마량(三穀馬糧)

삼곡-마령 명 <민> [전역] → 삼곡-마량(三穀馬糧).

삼공(三公) 명 <민> 사람의 전생(前生)을 관장하고 있는 신(神). [전역]

삼공-맞이 명 <민> 삼공신을 맞아 기원하는 제차. [전역]

삼-낭 명 [노형 조수] → 열-낭.

삼-내 명 <지> 제주시 삼도동의 옛 이름. [삼도]

삼년-일체(三年一次) 명 <민> 3년에 한 번 제의를 행함. [구좌]

삼다 동 삼다. ① 무엇으로 무엇이 되게 하다. [전역] ② 짚신 따위를 만들다. [전역]

삼-대 명 <민> 큰굿을 할 때 세우는 큰 대. 좌독기, 우독기를 일컬음. [전역]

삼덕-조왕 명 <민> ① 부엌. [전역]

② 조왕-신(竈王神). [전역]

삼도롱-ᄒᆞ다 형 맛이 조금 삼삼한 듯하다. [전역]

삼도리-데전상 명 <민> [전역] → 데령-상.

삼도전-거리 명 세-거리. [전역]

삼동 명 상동. 상동나무의 열매.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상동.

삼동-낭 명 <식> 상동-나무.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상동-낭.

삼동-멕이 명 <민> 세 부분으로 분리할 수 있게 된 제주 전통 장구. [전역] = 삼동멕이-살장귀.

삼동멕이-살장귀 명 <민> [전역] → 삼동-멕이.

삼등-이 명 <동> 등뼈가 두 군데나 우묵하게 휘어든 말. [전역]

삼-록 명 동록(銅綠). 구리의 표면에 녹이 슬어 생기는 푸른 빛의 물질. [전역] = 녹.

삼록-오르다 동 [노형 조수 인성] → 녹-쓸다.

삼마 명 <식> [남원] → 살마.

삼매-봉(三梅峰) 명 <지> 서귀포시 천지동·대륜동·서홍동 바닷가에 걸쳐진 오름. 산 위에 조선 때 봉수대가 있었으며, 동북쪽에 천지연(天地淵) 폭포가 있음. 표고 153.6미터. [전역] = 삼매양-봉(三梅陽峰), 삼미-봉(三美峰).

삼매양-봉(三梅陽峰) 명 <지> [전역] → 삼매-봉.

삼메-떡 명 <음> 밀가루 따위에 더운물과 기주를 조금 넣어 되게 반죽하고서 만두 모양으로 만들고는 더운 방에 두어서 부풀어 오르게 하여 찐 떡. [어도 조수 인성 화순 하원] = 상왜-떡.

삼미-봉(三美峰) 명 <지> [전역] → 삼매-봉.

삼반-초 명 <식> 그 해 들어서 세 번째 캐는 우뭇가사리. [전역] = 삼번-초.

삼방 명 <건> [전역] → 상방.

삼방-마루 명 <건> 대청-마루 [전역]

삼번-초 명 [전역] → 삼반-초.

삼베-질삼 명 삼베-길쌈(麻布紡績). [전역]

삼봉 명 <어> [전역] → 삼봉-낚시.

삼봉-낚시 명 <어> 삼봉-낚시. *오징어 잡을 때는 삼봉낚시로 ᄒᆞ곡.(오징어 잡을 때는 삼봉낚시로 하고.) [이호] = 삼봉.

삼부새 명 동남-풍(東南風). [비양도]

삼산-악(三山岳) 명 <지> [전역] → 산세미-오름.

삼산이-오름 명 <지> [전역] → 산세미-오름.

삼살-방 명 <민> 삼살-방(三煞方). [전역]

삼삼-ᄒᆞ다 형 삼삼-하다. [전역]

삼색-물색 명 <민> 세 가지 색깔의 옷감. [전역]

삼-선양 명 <민> 삼-상향(三上香). 향(香)을 세 번 들어 바치는 의식. 굿에서는 향로를 들고 신위에 바치는 모양의 춤을 춤. [전역]

삼-성 명 <음> 굿을 할 때 올리는 떡의 한 종류. [전역]

삼성제 절 구 <어> 연거푸 세 번이나

꺾으며 몰려오는 물결. 흔히 가까운 바다에서 바닷가 바위 쪽으로 물결이 치는데 이들 두고 '삼형제(三兄弟) 물결'이라고 함. * 절이라라, 삼성제 절아. 절이라라, ᄉᆞ성제 절아. 일어 오민 ᄆᆞᄉᆞ와라.(물결이더라, 삼형제 물결아. 물결이더라, 사형제 물결아. 일어서 밀려오면 무서워라.) [전역]

삼솟-내 명 <지> [전역] → 삼수선-내.

삼수 명 말의 나이 세 살. [전역] = 삼쉬.

삼수-매 명 <동> [김녕 수산] → 삼쉬-매.

삼수선-내 명 <지> 제주시 봉개동에서 삼양동으로 흐르는 내(川). [전역] = 삼솟-내, 삼숫-내.

삼-수세 명 <식> [인성 노형 조수 서홍] → 삼-수세기.

삼-수세기 명 <식> 한삼-덩굴. [전역] = 삼-수세.

삼숫-내 명 <지> [전역] → 삼수선-내.

삼쉬 명 [전역] → 삼수.

삼쉬-매 명 <동> 나이가 세 살이 된 말(馬). [전역] = 삼수-매.

삼승-할망 명 <민> 삼신-할머니. ① 아이를 점지한다는 세 신령. [전역] = 삼싱-할망, 삼싱-할망, 아기-할망. ② 산신(産神)에 대하여 간단한 의례를 치르는 무당. [전역]

삼싱-할망 명 <민> [전역] → 삼승-할망①.

삼시왕-군문 명 <민> 산판점의 나쁜 괘. '가문공ᄉᆞ', '양도막음', '질산'을 제외한 모든 괘. [전역]

삼-신 명 삼-신(麻鞋). [전역]

삼-신질 명 <민> 세 번째로 신에게 역가(役價)를 바치는 당주맞이 신굿. 심방은 세 번 신길을 닦아야 큰심방으로 인정받는 상신충(上神充)이 됨. [전역]

삼싱-할망 명 <민> [전역] → 삼승-할망①.

삼의-악(三義岳) 명 <지> [전역] → 세미-오름[1].

삼의양-악(三義讓岳) 명 <지> [전역] → 세미-오름[1].

삼접-그물 명 세 겹으로 짠 그물. * 삼접그물 중간에 많이 나 가지고, 그걸로 궤기씨 막 ᄆᆞᆯ랏주.(세겹 그물 중간에 많이 나와서, 그것으로 고기씨 막 말랐지.) [이호]

삼천-발 명 <동> 수세미-불가사리. 삼천-발이. [수산] = 둑-발, 만-발.

삼천벵맷-대 명 <민> 당굿을 할 때 깃발을 달아 높이 세우는 대. [전역]

삼천벵맷대-세움 명 <민> 당굿에서 깃대를 세우는 의례. [전역]

삼천전제석-궁(三天天帝釋宮) 명 <민> [전역] → 전제석-궁.

삼촌(三寸) 명 삼촌. 부모의 형제. [전역] = 삼춘.

삼촌-버릇 명 삼촌-뻘(三寸-). [전역]

삼촌-ᄎᆞ례 명 삼촌 관계에 있는 사람. [전역]

삼춘 명 [전역] → 삼촌(三寸).

삼치 명 <동> 삼치. [전역]

삼태 명 <도> [노형] → 산태[1].

삼태-거리 명 들것에 사람을 묶어서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거꾸

로 하여 벌을 주는 일. [구좌]

삼태-성 명 [전역] → 삼테-성.

삼테-성 명 삼태-성(三台星). [전역] = 삼태-성.

삼형제-오름(三兄弟--) 명 <지> [전역] → 세-오름.

삽 명 <도> [전역] → 삽-가레.

삽-가레 명 <도> 삽. [전역] = 삽.

삿-갓 명 <의> 삿-갓(笠). [전역] = 삭-갓.

삿갓-오름 명 <지>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김녕중학교 남동쪽에 있는 오름. 조선시대 때 봉수대가 있었음. 표고 85미터. [전역] = 입산-봉(笠山峰).

삿갓-장시 명 삿갓-장수. [전역]

삿-대 명 [노형 조수] → 샛-대.

삿복 명 [수산] → 샛복.

삿-자리 명 삿-자리. [전역] 고 삳.

상[1](床) 명 상. [전역]

상[2] 명 향(香). [전역]

상[3](賞) 명 상. [전역]

상-가달 명 밥상을 사람 머리 위로 들어 넘기는 일. [전역]

상-가메 명 가마. 머리 꼭대기에 있는 소용돌이 모양으로 난 머리털. [전역] = 상-감.

상-가지[1] 명 가장 위쪽에 있는 나뭇가지. *설룬 어멍 날상엣 ᄆᆞ심 열두 가지에도 상가지라라.(설운 어머니 나에 대한 마음 열두 가지에도 윗가지더라.) [전역]

상-가지[2] 명 [전역] → 상-껍.

상-감 명 [전역] → 상-가메.

상강[1] 명 [김녕 조수] → 서리[2].

상강[2](霜降) 명 상강. *상강 넘으민 선 곡식이라도 눈ᄀᆞᆷ앙 비어불라.(상강 넘으면 설익은 곡식이라도 눈감아서 베어 버려라.) [전역]

상강-ᄂᆞ리다 동 [노형 어도 조수 인성 화순 하원 서홍] → 산강-ᄂᆞ리다.

상게 명 <민> 내기. *꼿 상게나 ᄒᆞ여 보게(꽃 내기나 하여 보자.). [전역]

상계 명 <민> [전역] → 초-상계.

상계량 명 품질이 뛰어난 갓양태의 한 가지. 날이 되는 쌀 수효가 430쯤에 이름. [전역]

상고지[1] 명 <식> 사초.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상고ᄌᆞ.

상고지[2] 명 [어도] → 황고지.

상고지[3] 명 밭이랑의 맨 위쪽. [전역]

상고지[4] 명 <의> 해녀들이 물질을 한 후에 '소중의'를 벗고 그 위에 걸치는 겉옷. [전역]

상고ᄌᆞ 명 <식> [가시] → 상고지[1].

상-관디(上冠帶) 명 <민> 웃-옷. [전역]

상교 명 향교(鄕校). [전역] = 향교(鄕校).

상군(上軍) 명 <어> 작업하는 기량이 뛰어난 해녀. [전역] = 상-ᄌᆞᆷ녜(上--), 상-ᄌᆞᆷ수(上--), 왕-ᄌᆞᆷ녜, 왕-ᄌᆞᆷ수, 큰-ᄌᆞᆷ녜, 큰-ᄌᆞᆷ수.

상군-불턱 명 <어> 작업 기량이 뛰어난 상군 해녀들만이 불을 쬐고 탈의장으로 쓰는 곳. [전역]

상-귓것 명 아주 어리석은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전역]

상그랑-ᄒᆞ다 형 쌍그렇다. [전역] = 생그랑-ᄒᆞ다, 셍그랑-ᄒᆞ다.

상-그르해 명 ① 작년(昨年). [전역]

② 재-작년(再昨年). [전역] = 장-그르해.

상기 명 [조수] → 상예.

상-깃(上-) 명 <건> 상-기둥. [전역] = 상-짓, 생-깃.

상깃-무뚱 명 <건> [전역] → 셍깃-무뚱.

상깃-밋 명 <건> 대청과 구들방 사이에 있는 으뜸이 되는 기둥의 아래쪽. [전역] = 상젯-밋, 상짓-밋, 생깃-밋.

상까지-낭 명 <식> [전역] → 상-낭.

상-껍 명 <민> 향불(香火)을 피우기 위하여 향나무를 잘게 쪼갠 것. [전역] = 상-가지[2].

상끗-ᄒᆞ다 형 뾰족-하다. [전역]

상-남 명 <식> [전역] → 상-낭.

상-낭 명 <식> 향-나무. [전역] = 상까지-낭, 상-남.

상-내 명 향-내(香-). [전역]

상-농 명 <도> 향로. [전역]

상-다리 명 상-다리. [전역] = 상-발.

상답(上畓) 명 <농> 상답. 토질이 썩 좋은 논. [전역]

상당-숙임 명 <민> 하위 제차에 앞서 상위 신을 돌려보내고 그 제상을 치우는 의례. [전역]

상대-잡이 명 <민> 북을 치는 심방. [북촌]

상-도전 명 <민> 나까시리 바깥쪽 둥그런 부분을 잘라내고 네모나게 남긴 가운데 부분. [전역]

상-돌 명 돌로 보시기만 하게 파서 만들어, 향로(香爐) 대신 쓰는 물건. [전역]

상동 명 [수산 가시 김녕] → 삼동.



상돌

상동-낭 명 <식> [김녕 수산 가시] → 삼동-낭.

상둥-말축 명 <동> [표선] → 심방-만축.

상뒤 명 향도(鄕徒). 마을(村)의 공의사(公議事)나 장사(葬事) 때에 모인 여러 사람들을 일컫는 말. [전역]

상뒤-꾼 명 [전역] → 상뒷-군.

상뒤-칩 명 마을 사람들이 회합(會合)하는 집. [전역]

상뒷-군 명 상두-꾼. [전역] = 상뒤-꾼.

상등(上等) 명 상등. [전역]

상-떡 명 <음> [어도] → 과질.

상량 소리 명 <요> 집을 지을 때에 마룻대를 올리면서 부르는 주술적인 민요. [덕수]

상립 명 <의> [수산] → 방립.

상-마트다 동 기리어 칭찬하는 뜻으로 주는 상을 받다. [전역]

상문-동(上文洞) 명 <지> 서귀포시 중문동 산간에 있었던 자연마을 이름. [서귀포 중문] = 웃중문-ᄆᆞ을.

상-물 명 마른 향나무의 가지를 넣어 끓인 물. 정성으로 손을 씻거나 몸을 씻을 때 사용함. [전역]

상-ᄆᆞ로 명 [서홍 수산 가시] → 상-

ᄆᆞ르.

상-ᄆᆞ르 명 용마루의 가장 높은 곳. [전역] = 상-ᄆᆞ로, 상-ᄆᆞ를.

상-ᄆᆞ를 명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상-ᄆᆞ르.

상-반(上盤) 명 <민> 웃어른에게 드리기 위해 특별히 잘 나누어 놓은 반기. [전역]

상-발 명 [전역] → 상-다리.

상-발가락 명 가운뎃-발가락. [전역]

상방 명 <건> 대청(大廳). [전역] = 삼방, 한-간[2].

상방-마리 명 <건> 대청-마루. [전역]

상방-문 명 [전역] → 마릿-문.

상-복[1] 명 마루-폭. [전역]

상복[2](喪服) 명 <의> 상복. [전역]

상-불 명 향-불(香-). [전역] = 향-불(香-).

상삐 명 행주. [전역]

상삐-질 명 행주-질. [전역]

상사 명 향사(鄕舍). [전역] = 향사(鄕舍).

상사디야요 명 <요> 밭매는 노래의 한 가지. [삼달 성읍]

상삭-ᄒᆞ다 형 이빨 따위가 선 모양이 고르지 못하고 엉성하다. ＊산도채빈 완전히 사름으로 베는디 늬빨이 영엉글어서 상삭ᄒᆞ다 ᄒᆞ여.(산도깨비는 완전히 사람으로 보이는데, 이빨이 이렇게 어그러져 '상삭하다'고 해.) [대정]

상산-노리 명 높은 산에 사는 노루. ＊상산노린 줄곡, 톨노린 홁곡.(상산의 노루는 잘고, 숲의 노루는 굵고.) [도순]

상산-버듸낭 명 <식> 떡-버들. [전역]

상서-끗 명 <민> 상사-끝(喪事-). 상사(喪事)를 치른 뒤에 따르는 일. [전역]

상-선흘(上善屹)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의 한 자연마을. [조천 선흘]

상-세경 명 <민> 농경신 가운데 하나. 문왕성 문도령. [전역]

상-손가락 명 가운뎃-손가락. [전역]

상수(上數) 명 상수. [전역] = 상쉬.

상수-동 명 <지> [애월] → 상수머를-동네.

상수머를-동네 명 <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한 자연마을. [애월] = 상수-동, 상수머름-동네, 상수ᄆᆞ를-동네, 상수-ᄆᆞ름.

상수머름-동네 명 <지> [애월] → 상수머를-동네.

상수ᄆᆞ를-동네 명 <지> [애월] → 상수머를-동네.

상수-ᄆᆞ름 명 <지> [애월] → 상수머를-동네.

상수ᄆᆞ름 부저리 구 <민>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지경인 '상수ᄆᆞ름'에 살았던 대부호. ＊상수ᄆᆞ름 부저리칩도 은방엣귀 ᄋᆞᆮ듭이라라.('상수ᄆᆞ름 부저리집'도 은절굿공이 여덟이더라.) [전역]

상쉬 명 [전역] → 상수.

상-신충(上神充) 명 <민> 심방(巫覡) 중 제일 윗계급. 가장 경력이 많고 능력이 뛰어난 심방. 심방은 능력과 경력에 따라 '상신충' '중신충' 하신충'으로 나뉨. [전역]

상 싱그다 구 제상(祭床)을 차리다. [전역]

상-ᄉᆞ록 명 <민> '삼공맞이'를 달리 이르는 말. [전역]
상-아덜 명 맏-아들. [전역]
상아리 명 '얼굴'의 낮은말. [전역] = 상우리, 상위, 쪼-아리.
상압 명 [인성 노형 조수 서홍 수산] → 상합.
상어 명 <동> [전역] → 상의.
상에 명 <동> [전역] → 상의.
상여 명 [조수 수산] → 상예.
상여-오름 명 <지> [전역] → 염통-메.
상예 명 상여(喪輿). [전역] = 상기, 상여, 생예, 생이[2]. 고 상예.
상올-쪽 명 [수산] → 사올-쪽.
상왜-떡 명 <음> [서홍 태흥 표선 수산 가시 세화] → 삼메-떡.
상우리 명 [전역] → 상아리.
상위 명 [전역] → 상아리.
상-유 명 [화순 인성] → 소-유.
상의 명 <동> 상어. [전역] = 상어, 상에.
상이 명 <동> [전역] → 생이[1].
상-자리 명 떼(筏)의 위에 살평상 같이 만들어진 대(臺). [전역]
상-잔 명 <민> 놋쇠를 재료로 만든 자그마한 술잔 모양의 무구. [전역] = 모욕-상잔.


상잔

상제 명 상제(喪制). *호충은 상제도 하관 때 못 본다.(호충(呼冲 : 방위가 꼭 마주침)은 상제도 하관(下官) 때 못 본다. 장례 때 호충에 해당하는 상제는 하관을 보지 못하도록 한 데서 나온 말.) [전역]
상제-옷 명 <의> 상복. [전역]
상제-질(喪制-) 명 상제 노릇. [전역]
상젯-밋 명 <건> [전역] → 상깃-밋.
상죽-대 명 [수산] → 방장-대.
상지[1] 명 <도> [성산] → 차롱.
상지[2] 명 상자(箱子). [전역] = 상ᄌᆞ.
상지[3] 명 탕건의 맨 윗부분. [전역]
상-짓 명 [조수 인성 서홍 노형] → 상-깃.
상짓-밋 명 [조수 인성 노형 서홍] → 상깃-밋.
상ᄌᆞ 명 [김녕 노형 조수 인성] → 상지[2].
상-좀녜(上--) 명 <어> [전역] → 상군(上軍).
상-좀수(上--) 명 <어> [전역] → 상군(上軍).
상-찔 명 상질(上秩). 여럿 중에서 가장 좋은 품질. [전역]
상착[1] 명 <도> [마라도] → 차롱.
상착[2] 명 노(櫓)의 상책. *요 네 상착 떨어진덜 가시낭이 엇인 말가.(요 노 상책 떨어진들 가시나무가 없을 말인가.) [전역]
상처[1](傷處) 명 상처. ① 피부가 상한 자리. [전역] ② 다친 자리. [전역]
상처[2](喪妻) 명 상처. 아내의 죽음을 당함. [전역]
상천 명 상전(上典). [전역]

상청-ᄃᆞ리 명 <민> 상청(上廳) 다리. 신이 하강하는 길이라 하여 굿할 때 깔아놓거나 걸어 놓은 무명. [전역]
상촉-권상 명 <민> 향촉-권상(香燭勸上). 신에게 향과 초를 올림. [전역] = 상촉지-권상.
상촉지-권상 명 <민> [전역] → 상촉-권상.
상-탕(上宕) 명 <의> [전역] → 즘진-탕건.
상통 명 상투. *노랑당 머리 뒤범벅 상통 개닛발 동곳이 제 맞앗저.(노랑머리 뒤범벅 상투 개잇발 동곳이 제 맞았네.) [전역]
상통-자리 명 [전역] → 베코.
상퉁-바랑 명 상툿-바람. [전역] = 상퉁이-바랑.
상퉁-웽이 명 머리가 비교적 큰 혹도미의 일종. [대포]
상퉁이 명 상투. [전역] = 상퉁이. 고 샹토.
상퉁이-바랑 명 [전역] → 상퉁-바랑.
상퉁이-차다 동 상투-짜다. 사내가 머리털을 위로 끌어 올려 틀어 짜다. [전역] = 상퉁이-ᄎᆞ다.
상퉁이-ᄎᆞ다 동 [전역] → 상퉁이-차다.
상퉁-자리 명 [전역] → 베코.
상퉁이 명 [전역] → 상퉁이.
상-판데기(相---) 명 [전역] → 상-판이.
상-판이(相--) 명 상-판대기. [전역] = 상-판데기.
상합 명 향합(香盒). [전역] = 상압.
샅-갱이 명 [수산] → 저곰-태기.
새[1] 명 <동> [전역] → 생이[1].
새[2] 명 <식> [전역] → 띄.
새[3] 명 <민> 사악(邪惡)함. [전역] 고 샤.
새[4] 명 때. 경우. *애기 한 샌 물 그렁 죽나.(아기 많은 땐 물 굶어 죽는다.) [전역]
새-가름 명 <지> 새로 형성된 동네. '가름'은 길이 갈리고 동네나 마을이 형성된 곳을 이르는 말. [전역]
새-각시 명 새-색시. [전역]
새-감 명 [전역] → 새-감저.
새-감저 명 땅에 묻은 씨고구마에서 새로이 생기는 고구마. [전역] = 새-감, 새-감ᄌᆞ.
새-감ᄌᆞ 명 [전역] → 새-감저.
새-과양 명 <지> 제주시 용담1동의 한 자연마을. [용담] = 새-ᄀᆞ양.
새-굴 명 <동> 깊은 바다에 나는 굴(石花). [대포]
새기다[1] 동 새기다(刻). [전역] = 사기다.
새기다[2] 동 새기다. 소나 양 따위의 반추 동물이 먹었던 것을 되내어서 다시 씹다. [전역]
새-ᄀᆞ양 명 <지> [용담] → 새-과양.
새-까망ᄒᆞ다 형 새-까맣다. [전역]
새껍-ᄌᆞ봄 명 <민> 신에게 올릴 제삿밥에 젓가락 대신 띠를 잘라 꽂아 놓는 것. [어음]
새-꼴 명 띠, 솔새 따위의 마소가 먹는 꼴. [전역] = 새-꿀.
새꾀 명 <도> [송당] → 살숙이.
새-꿀 명 [전역] → 새-꼴.
새끼 명 새끼(雛). *ᄒᆞᆫ 배엣 새끼도 아웅다웅ᄒᆞᆫ다.(한 배의 새끼도 아웅다웅한다.) [전역]
새끼-발가락 명 새끼-발가락. [전역]

새끼-손가락 명 새끼-손가락. [전역]
새끼-오름 명 <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있는 오름. 표고 301미터. [성읍 가시]
새끼-청산(--靑山) 명 <지>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남동쪽 바다 가까이에 딸린 큰 바위. 표고 23미터. [성산 신양 하도]
새끼-칼 명 <도> 가는 대오리로 겯는 바구니의 씨줄의 대오리를 만들 때 쓰는 두 개의 자그마한 칼. [도련]
새끼-테[1] 명 둔(屯)에 들어온 한 살짜리 송아지. [송당]
새끼-테[2] 명 여름에 방목(放牧)하는 동안 어미 소와 송아지만 모아 놓은 소떼. [송당]
새-날 명 새-날. *둑 울엉 새날이 안 오카?(닭 울어서 새날이 아니 올까?) [전역]
새냇-곳 명 <지> 제주시 일도2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새다 동 새다. 밤이 가고 날이 밝아오다. [전역]
새당-대죽 명 <식> [조수 인성 서홍] → 사당-대죽.
새당-벌 명 <동> [하원 조수] → 사상-벌.
새든-밧 명 <농> 오래 경작하지 않아서 띠가 자란 밭. *새든 밧디는 밧갈쉐로 밧을 갈아사 ᄒᆞ주 암쉐로는 못 갈아낫주.(띠가 난 밭은 황소로 밭을 갈아야 하지 암소로는 못 갈았었지.) [위미]
새-ᄃᆞ리다 동 <민> 잡귀(雜鬼) 따위를 쫓아 버리다. [전역]
새-ᄃᆞ림 명 <민> 군문이 열리고 난 다음 행해지는 제차(祭次)로, 모든 사악(邪惡)함을 내쫓아 깨끗하게 하는 의례. [전역]
새-돌 명 새-달(新月). [전역]
새맛-동네 명 <지>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의 한 자연마을. [한경]
새 맞다 구 방아 찧는 사람이 방아확에 절굿공이를 찧어 넣는 시간 사이가 알맞아 절굿공이가 서로 부딪치지 않다. *팔ᄌᆞ 궂인 이 전승 가난 다섯콜도 새 맞앗더라.(팔자(八字) 궂은 이 전생(前生) 가니 '다섯콜방아'도 새 맞았더라.) [전역]
새-물 명 <민> 나쁜 기운이 깃든 물건. [전역]
새물-동네 명 <지>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의 한 자연마을. [한경]
새물-찜 명 '꼴'이나 '띠'가 났던 밭에 지력을 회복하여 다시 '꼴'이나 '띠'를 경작하려고 개간(開墾)하는 일. *새왓이 ᄇᆞ따가민 새물찜 들여 나사 다시 '새'가 잘 뒈주.(띠밭이 밭아가면 '새물찜' 들인 후에야 다시 띠가 잘 되지.) [상가 한동]
새미 명 <음> [전역] → 새미-떡.
새미-떡 명 <음> 메밀가루나 쌀가루



새미떡

따위를 반죽해 반달 모양으로 만든 후에 안에 팥소 등을 넣어 접어서 솥에서 찌거나 삶아낸 떡. [노형 어도 조수 인성 화순 하원 서홍 태흥] = 새미, 세미[4], 세미-떡.

새물-미 명 <지> [교래 선흘] → 부소-오름.

새밸-메역 명 '새밸'이라는 바다에서 나는 미역. [강정]

새베[1] 명 찔레나무의 열매. [전역] = 새비[1].



새베[1]

새베[2] 명 새벽(晨). [전역] = 새벡. 고 새배.

새베-낭 명 <식> [노형 인성 서홍 수산 가시] → 새비-낭.

새베-참 명 새벽이 된 때. [전역]

새벡 명 [전역] → 새베[2].

새벡-녁 명 새벽-녘. [전역]

새벨-오름 명 <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평화로변의 시온목장 남서쪽에 있는 오름. 1274년 최영(崔瑩)이 목호(牧胡 : 목마장을 관리하는 몽골인)들의 반란을 평정할 때 진을 쳤던 곳임. 표고 519미터. [전역] = 새별-오름, 요성-악(曉星岳).

새벽-제 명 <민> 자정에 맞추어 지내는 칠성제 따위의 제의. [전역]

새별-오름 명 <지> [전역] → 새벨-오름.

새비[1] 명 [전역] → 새베[1].

새비[2] 명 <동> [하도] → 새위.

새비-낭 명 <식> 찔레-나무. [김녕 조수] = 도꼬리-낭, 독고리-낭, 똥꼬리-낭, 새베-낭, 세비-낭.

새-비리 명 <지> 제주시 노형동 월산마을 북쪽에 있는 자연마을. [전역]

새-빨갛다 형 새-빨갛다. [전역]

새-서방 명 [전역] → 새-스방.

새-송아기 명 [전역] → 새-송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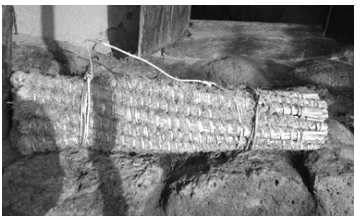
새-송아지 명 이제 막 길들인 송아지. [전역] = 새-송아기.

새-쉐 명 길들이지 않은 부룩소. [전역]

새-스방 명 새-서방. [전역] = 새-서방.

새신-오름 명 <지> 제주시 한경면 청수리 가메오름 남서쪽에 있는 낮은 오름. 표고 142미터. [청수 산양]

새심 명 화승. [전역] = 홰심.



새심

새-오름 명 <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닥물오름'의 딴 이름. [저지] → 닥물-오름.

새왈 명 [태흥 표선 세화 조천 어도 노형 조수] → 쳇-새왈.

새-왓 명 띠-밭. 지붕을 일 띠(茅)가

자라는 밭. [전역] = 뛰-왓.
새왓-검질 명 띠밭의 잡초. [한남 남원]
새왓-동네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1리에 있었던 자연마을. [남원] = 여전-동(畬田洞).
새용 명 새옹. [노형 인성 가시]
새우롱-ᄒᆞ다 형 맛이 조금 시다. [서홍 수산]
새움 명 샘(嫉妬). [전역]
새움-ᄒᆞ다 동 샘-하다. [전역]
새위 명 <동> 새우(鰕). [인성 서홍 수산 조수 가시 노형] = 사위[1], 새비[2].
새잽이-오름 명 <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한라산 국립공원의 어리목 남쪽에 있는 오름. 표고 1424미터. [광령 노형] = 사제비-동산.
새-정드르 명 <지> 제주시 용담3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 새-정드리, 신-정평동(新靜坪洞), 흥아-동, 흥운-마을(興運--).
새-정드리 명 <지> [제주] → 새-정드르.
새질 명 <민> 결혼 이야기가 있는 두 집 사이를 오가며 연락을 취하는 일. [전역]
새-좁수 명 처음 물질을 하는 해녀. [하도]
새-철 명 입춘(立春). 일년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 [전역]
새철 드는 날 구 입춘 날. [전역]
새-촐 명 띠가 뒤섞여 있는 꼴. [선흘]
새-치기 명 <도> 초가를 덮는 띠의 잡것을 훑어 내는 도구. [전역]
새침-ᄒᆞ다 형 새침-하다. [조수 김녕]
새 터우 띄우는 소리 명 <요> 떼(筏)를 새로 만들고 바다에 띄우면서 부르는 노동요. [보목]
새-풀이 명 <민> 사(邪)를 풀어내는 의례. [전역]
새-하늬 명 음력 8월 이후에 동북쪽으로 불어오는 바람. *새하늬 불어 가민 물이 묽주.(동북풍 불어 가면 물이 맑지.) [보목] = 새하니-ᄇᆞ름.
새하니-ᄇᆞ름 명 [전역] → 새-하늬.
새-해 명 새-해(新年). [전역]
새-허치 명 띠(茅) 베기를 허락함. [상예]
색달-천(塞達川) 명 <지> [서귀포 중문] → 베릿-내[3].
색-이다 동 [전역] → 삭-이다.
색일 명 [전역] → 삭제(朔祭).
샘 명 [하원 세화 조천 조수] → 세미[1].
샛- 두 '사이에 끼인' 또는 '사이에 있는'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 [전역]
샛골리 명 [인성] → 서미역.
샛-날 명 새-날. [전역]
샛-대 명 사침-대. [전역] = 삿-대.
샛발-묻음 명 띠를 경작하려고 띠의 뿌리를 묻는 일. [상가]
샛복 명 사폭(邪幅). [전역] = 삿복.
샛-ᄇᆞ름 명 동풍(東風). [전역]
샛-질 명 사잇-길. [전역]
생 명 모양. 어떤 모양이나 형편. *신성방이옌 ᄒᆞᆫ 사름이 구신으로 물방울 소리 내멍 제(祭) 보레 오는 생이주.(신성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귀신으로 말방울 소리를 내면서 제사 보러 오는 모양이지.) [전역]
생- 두 (몇몇 명사 앞에 붙어) '익지 아니한, 물기가 아직 마르지 않은,

가공하지 않은' 등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전역]

생-가죽 명 [전역] → 놀-가죽.

생-간 명 [전역] → 놀-간.

생-감저 명 [전역] → 놀-감저.

생-감ᄌᆞ 명 [전역] → 놀-감저.

생-고치 명 [전역] → 놀-고치.

생-곡석 명 [전역] → 놀-곡ᄉᆞᆨ.

생-곡식 명 [전역] → 놀-곡ᄉᆞᆨ.

생-곡ᄉᆞᆨ 명 [전역] → 놀-곡ᄉᆞᆨ.

생궹이 명 <동> 어린 소라. [온평 대포 강정] = 셍겡이, 조-쿠제기, 조-쿠젱이, 좁썰-구제기, 좁썰-구젱기, 좁쏠-셍겡이, 좃-구젱기.

생그랑-ᄒᆞ다 형 [전역] → 상그랑-ᄒᆞ다.

생기다 동 생기다. [전역]

생기-악(生氣岳) 명 <지> [신례 위미] → 생길이-오름.

생길-악(生吉岳) 명 <지> [신례 위미] → 생길이-오름.

생길이-오름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1리 북동쪽에 있는 오름. 표고 260미터. [신례 위미] = 생기-악(生氣岳), 생길-악(生吉岳).

생-깃 명 [김녕 노형 서홍 가시 수산] → 상-깃.

생깃-밋 명 [노형 서홍 가시 수산 김녕] → 상깃-밋.

생깃-지둥 명 <건> 마루 가운데 기둥. [전역]

생-ᄀᆞ를 명 날-가루. *생ᄀᆞ를 닷 뒈에 소금 닷 뒈 놓앙 떡을 ᄒᆞ라.(날가루 닷 되에 소금 닷 되 넣어서 떡을 만들어라.) [전역]

생-난리 명 생-난리. [전역]

생-낭 명 생-나무. [전역]

생미 명 성미(性味). [전역]

생-밧 명 <농> 한 번도 일구어 보지 않은 들판의 밭. *열두 장남이 따비로 해서 생밧을 일루는디, 정심을 먹으면서 지나가는 사름 봐지난.(열두 '장남'이 따비로 '생밭'을 일구는데, 점심을 먹으면서 지나가는 사람을 보니.) [한림] = 셍-밧.

생선[1] 명 <동> [조수 고산 하모 대포 남원] → 오-토미.

생선[2](生鮮) 명 생선. [전역]

생-쏠 명 생-쌀. [전역]

생-야단 명 *생야단을 ᄒᆞ다.(생야단을 치다.) [전역] → 셍-야단.

생예 명 [인성 화순 서홍 수산 김녕] → 상예.

생이[1] 명 <동> 새(鳥). *(속) 생이 ᄒᆞᆫ ᄆᆞ리로 일뤠 잔치ᄒᆞ단 남안, 사돈칩이 졍 들어가도 이문이 걸린다.(새 한 마리로 이레 잔치를 하다가 남아서, 사돈집에 지고 들어가도 대문에 걸린다.) *(속) 생이 ᄒᆞᆫ 머리로 일뤠 잔치ᄒᆞᆫ다.(새 한 마리로 이레 잔치한다.) [전역] = 상이, 새[1].

생이[2] 명 [서홍 어도] → 상예.

생이- 두 '크기가 작은'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접두사. [전역]

생이-가심 명 새-가슴. 겁이 많거나 도량이 좁은 사람의 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전역]

생이-모살시리 명 <식> 조(粟)의 일종. [덕수]

생이-방석[1] 명 ① 주저리를 만들 때, 마지막 우물 정(井)자형의 마감. [전

역] ② 우물 정(井)자의 틀. 멱다리 등을 엮을 때 시작하는 바탕꼴로 쓰임. [전역] ③ 갓의 모자를 결을 때 처음 시작하는 바탕꼴. [전역]

생이-방석[2] 명 <동> [상가] → 가마귀-방석.



생이방석[2]

생이-벨망 명 <동> 삿갓조개의 일종. [전역]

생이-봉덕 명 어린 잠수(潛嫂)들만 모이는, 불을 피워 쬐는 공간. [하도]

생이-오름[1] 명 <지> [연 노형] → 염통-메.

생이-오름[2] 명 <지> [저지 동광] → 닥물-오름.

생이-웨줄 명 <식> [수산 태흥 표선] → 가마귀-웨줄.

생이-족박 명 <식> 새박-덩굴. [전역]

생이-집 명 새-집(鳥巢). [전역]

생이-총 명 <도> 새-총. [전역]

생작지-왓 명 <지> [전역] → 선작지-왓.

생-태(生苔) 명 <식> 물 속에서 자라는 거름용 해조류(海藻類). [시흥]

생피 명 <동> [대포 색달 상모 마라 용수 협재] → 빗-자구.

생피-새끼 명 <동> [서귀포] → 빗-자구.

서 조 서. 에서. ① 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서, 사물이 움직이고 있는 곳을 나타내는 처소격 조사. [전역] ② 받침 없는 명사나 대명사에 붙어서 움직임의 출발점을 나타내는 유래격 조사. *경 ᄒᆞ난 큰 난이 나서 다덜 죽엇다고 ᄒᆞ여.(그러니 큰 난(亂)이 나서 다들 죽었다고 해.) [전역]

서걱서걱-ᄒᆞ다 동 연한 배, 사과, 무 따위를 한 입 베어 물어 자주 씹는 소리가 나다. [전역]

서건-도(鋤建島) 명 <지> [서귀포 중문] → 석은-섬.

서-검은이(西---) 명 <지> [송당 덕천] → 검은-오름[1].

서그레기 명 썩-정이. [전역]

서꺼-지다 동 ① 정신이 뒤섞이다. [전역] ② 섞이다. [전역] = 허꺼-지다.

서끄다[1] 동 섞다(混). [전역] = 서트다. 고 섞다.

서끄다[2] 형 서럽다. *놈의 종에 난 일도 서껀 일름이랑 불르도 말라.(남의 종에 난 일도 서러워 이름일랑 부르지도 마라.) [전역]

서난-ᄒᆞ다 형 가난하고 서럽다. 빈한(貧寒)한 살림살이를 강조하기 위하여 '가난ᄒᆞ곡 서난ᄒᆞ다'라고 통상적으로 쓰임. *가난ᄒᆞ곡 서난ᄒᆞᆫ 집의 빙은 드난 더 서난ᄒᆞ다.(가난하고 서러운 집에 병은 드니 더 서럽다.) [전역]

서남-풍 명 서남-풍(西南風). [전역] = 늦-ᄇᆞ름[2], 든마-ᄇᆞ름, 든마-ᄑᆞ름, 섯마-ᄇᆞ름, 섯마-ᄑᆞ름.

서낭[1] 명 <식> 상수리-나무. [건입]
서낭[2] 명 <민> 배(船)를 따라 다니며 어획(漁獲)을 도우는 신(神). [전역] = 선-왕(船王).
서낭-굿 명 <민> 선왕(船王)을 위한 굿. [전역] = 서앙-굿, 선왕-굿.
서낭-당 명 <민> 배를 보호하는 선왕(船王)을 모신 당. [전역]
서낭-풀이 명 <민> 선왕-풀이(船王--). 선왕인 도깨비를 풀어먹이는 의례. [전역]
서-내우다 동 들었던 잠이 깨어 다시는 좀처럼 잠을 이루지 못하다. [전역]
서녁-거리 명 한 울타리 아래 여러 채의 집 가운데 서쪽에 있는 집. [인성 조수 노형 김녕]
서녁-집 명 서쪽 울타리 밖에 있는 남의 집. [조수 노형 김녕 인성]
서노롱-ᄒᆞ다 형 서느렇다. [전역] = 써느룽-ᄒᆞ다.
서늉[1] 명 사람의 모습이나 형상. [전역] = 선융.
서늉[2] 명 시늉. [전역]
서늉-데가리 명 사람의 생김새나 모습을 속되게 이르는 말. [전역]
서느럽다 형 서느럽다. 덥지 않고 선선하다. [전역]
서늘-ᄒᆞ다 형 서늘-하다. [전역]
서답 명 세답(洗踏). [전역] = 세답, ᄉᆞ답. 고 셰답.
서답-구덕 명 빨랫감을 넣어 가지고 다니는 큰 바구니. [전역]
서답-마께 명 <도> 빨랫-방망이. [전역] = 물-마께, ᄉᆞ답-마께.
서답-바드렝이 명 바지랑-대. [노형 조수 인성 수산 김녕] = 서답-작데기.


서답마께

서답-배 명 빨래한 것을 걸쳐 너는 참바. [전역] 고 셰답줄.
서답-비누 명 빨랫-비누. [전역]
서답-작데기 명 [수산 서홍] → 서답-바드렝이.
서답-줄 명 빨랫-줄. [전역]
서답-팡 명 빨랫-돌. [전역]
서-당 명 <민> 산육(産育) 신을 모신 당. [전역]
서당 공중이 구 <민> 무당(巫). *(속) 집안 망ᄒᆞ젠 ᄒᆞ민, 서당 공중이 난다.(집안이 망하려고 하면, 무당이 태어난다.) [대정]
서당-낭 명 <식> [토평] → 사당-낭.
서대[1] 명 <동> 서대.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 서치, 섯.
서대[2] 명 세대. 가늘게 쪼갠 대오리. [전역] = 세대.
서대-구덕 명 <도> [김녕] → ᄀᆞ는대-구덕.
서대-삿갓 명 세대-삿갓. [전역] = 서-삿갓.
서-도노미(西-) 명 <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鳳城里)의 옛 이름. [제주]
서도-테기 명 용적이 식되로 쌀 석 되 정도의 밥을 할 수 있는 크기의 솥. [인성 조수] = 서뒈-테기.
서돌-미륵 명 [전역] → 서복신-미륵(西福神彌勒).

서두리 명 ① 제격으로 갖추어지지 못한 물건. [전역] ② 멍청-이. *낭 서두린 집이나 짓나, 돌 서두린 담이나 답나, 셈이 읏인 서두리 아들 셈이 싯경 말이나 ᄒᆞ라.(나무 멍청인 집이나 짓는다, 돌 멍청인 담이나 쌓는다, 셈이 없는 멍청이 아들 셈이 있거든 말이나 해라.) [전역]

서둘다 동 [전역] → 서둘르다.

서둘르다 동 서두르다. [전역] = 서둘다, 서들브다.

서뒈-테기 명 [서홍 가시] → 서도-테기.

서드럭-밧 명 [어도] → 설덕-밧.

서드레기-밧 명 [가시] → 설덕-밧.

서드레기-왓 명 [태흥 표선 수산 세화] → 설덕-밧.

서들브다 동 [수산 김녕] → 서둘르다.

서럽다 형 서럽다. [전역] = 서룹다, 설룹다.

서룹다 형 [전역] → 서럽다.

서뤄니-ᄒᆞ다 동 서러워-하다. 서럽게 여기다. *비 온 날에 웨상제 울듯 웨로 난 일 서뤄니ᄒᆞᆫ다.(비가 온 날에 외상제 울듯 외로이 난 일 서러워한다.) [전역]

서르다[1] 동 [전역] → 설르다[1].

서르다[2] 동 [전역] → 설르다[2].

서르다[3] 동 [전역] → 설르다[3].

서른 수 서른(三十). [전역] = 설흔.

서름-질 명 설거지. [전역]

서리[1] 명 <건> 서까래(椽). [전역]

서리[2] 명 서리(霜). [전역] = 산강, 상강[1].

서리-낭 명 <식> [전역] → 서으리-낭.

서리-맞다 동 서리-맞다(霜--). [전역]

서리-옛다 동 [수산 세화] → 서리-읒다.

서리-오름 명 <지> 서귀포시 신효동 '드라미' 남쪽에 있는 작은 오름. 표고 50미터. [신효] = 설-오름[2].

서리-읒다 동 공중의 수증기가 땅 표면에 닿아서 엉기어 허옇게 되다. [수산 조수 서홍 노형 세화 조천 어도] = 서리-옛다.

서릿-낭 명 서까래의 재료로 사용되는 나무. [전역]

서-먹다 동 같은 장소에서 좋지 아니한 일이 반복해서 생기다. [전역]

서-멍에 명 서쪽 밭머리. [대정]

서-모 명 <지>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와 북촌리의 경계 바닷가에 있는 오름. 표고 11.3미터. [전역] = 서-산(西山), 서우-봉(犀牛峰).

서-모시 명 세-모시(細苧). [전역] = 세-모시.

서-목쉬 명 도-편수. 우두머리 목수. [전역]

서-물[1] 명 [노형 어도 조수 인성 하원 화순] → 너-물[2].

서-물[2] 명 음력 열 하루와 스무 엿샛날의 조수(潮水). [서홍 태흥 노형 표선 수산 가시 세화 조천] = 두-물[3].

서미역 명 장차 진드기가 될 아주 작은 벌레. [전역] = 샛ᄀᆞᆯ리. 고 푸진듸.

서방 명 서방. 남편의 낮춤말. *(속) 서방 못 들령 울곡, 각시 못 들령 울곡.(서방 잘못 만나서 울고, 각시 잘못 만나서 울고.) [전역]

서방 시기다 구 남자와 잠을 자게 하다. *성 ᄃᆞᆯ아오노랜 ᄒᆞ연 날 서방

시견.(형 데려오노라고 해서 나를 남편으로 시켜서.) [노형]

서방-얻다 동 남편을 정하여 재가(再嫁)하다. [전역]

서복신-미륵(西福神彌勒) 명 제주시 용담동 395번지에 있는 돌로 된 미륵. 치성하면 아들을 얻게 되고 질병을 낫게 하는 효험이 있다고 전해짐. [전역] = 서돌-미륵, 서자복-미륵(西資福彌勒).

서북-풍(西北風) 명 서북-풍. [전역] = 놉-하니, 늪하니-ㅂ름, 섯-하늬, 섯하니-ㅂ름.

서불쌍-이다 형 *요 물 아렌 은광 금이 꼴려서도, 요 내 몸이 저울아지난, 은광 금도 서불쌍이여.(요 물 아랜 은과 금이 깔렸어도, 요 내 몸이 갸울어지니, 은과 금도 불쌍하구나.) [전역] → 서불쌍-ᄒᆞ다.

서불쌍-ᄒᆞ다 형 불쌍-하다. *이 내 몸이 서불쌍ᄒᆞ난 신들위도 귀ᄒᆞᆫ 새 웃다.(이 내 몸이 불쌍하니 참꽃나무도 귀한 바 없다.) [전역] = 서불쌍-이다.

서-산(西山) 명 <지> [전역] → 서-모.

서-샛갓 명 [전역] → 서대-샛갓.

서새질-ᄒᆞ다 동 문서 따위를 기록하는 일을 하다. [전역]

서속 명 <식> [전역] → 서숙.

서숙 명 <식> 서속(黍粟). [전역] = 서속.

서슬 명 <건> 지붕을 이기 위해 서까래 위에 가로로 걸치는 나뭇가지. [전역] = 서슬-목.

서슬-목 명 <건> [서홍] → 서슬.

서승 명 <식> 민-족두리풀.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서심.

서심 명 <식> [서홍 인성 수산 김녕 가시] → 서승.

서앙-굿 명 <민> [전역] → 서낭-굿.

서-앞개 명 <지> [남원] → 앞-개.

서-옷귀 명 <지> [남원] → 서옷귀-ᄆᆞ을.

서옷귀-ᄆᆞ을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2리에 있었던 옛 자연마을. [남원] = 서-옷귀, 서의-동.

서우 명 <동> 식인-상어. [우도 가파 마라]

서우라-ᄒᆞ다 형 서럽다. *하르방이 어디 가 보니 이제 막 서우라ᄒᆞ게 눈물지우는 여재가 신디.(할아버지가 어디 가 보니 이제 막 서럽게 눈물 짓는 여자가 있는데.) [명월]

서우-봉(犀牛峰) 명 <지> [전역] → 서-모.

서우제-소리 명 <민> 석살림할 때 한 집안 또는 씨족 수호신인 조상(祖上)을 즐겁게 놀릴 때 부르는 노래 이름. [전역]

서운당-동네 명 <지> 제주시 삼도1동의 한 동네. [전역]

서운-ᄒᆞ다 형 서운-하다. [전역]

서울 명 서울(京). [전역] = 서월.

서월 명 [노형 조수 인성] → 서울.

서으레 명 <도> 써레(耙). [노형 인성 서홍] = 서을레, 서흐레.

서으레-질 명 써레-질. [인성 화순 하원 수산]

서으리-낭 명 <식> 서어-나무. [전역] = 서리-낭, 서의-낭.



서으레

서을레 명 <도> [조수] → 서으레.

서의-낭 명 <식>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가시] → 서으리-낭.

서의-동(西衣洞) 명 <지> [남원] → 서옷귀-ᄆᆞ을.

서이다 동 탕건을 결어갈 때 각 날줄마다 말총 서너 가닥씩 지르면서 감치다. [전역]

서자복-미륵(西資福彌勒) 명 [전역] → 서복신-미륵.

서쭙다 형 서럽다. ＊설룬 아기 걸어난 질은 보난 서쭈와 벤다.(설운 아기 걸었던 길은 보니 서러워 뵌다.) [전역]

서채(書債) 명 서당의 학비. [전역]

서치 명 <동> [노형 인성 서홍] → 서대.

서-카름 명 마을의 서쪽에 있는 동네를 이름. [전역] = 섯-가름, 섯-골, 섯-동네.

서툰-바치 명 어떤 일에 경험이 없어 솜씨가 서툰 사람. ＊이 일은 서툰바치가 ᄒᆞᆫ 일이로고.(이 일은 생둥이가 한 일이로구나.) [전역]

서툴다 형 서투르다. [전역]

서트다 동 [전역] → 서끄다[1].

서-한데기 명 <지> 제주시 용담2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 서-한두기.

서-한두기 명 <지> [전역] → 서-한데기.

서해-와당 명 서해. ＊서해와당 지픈 딜로 들어글라.(서해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전역]

서-회천(西回泉) 명 <지> 제주시 회천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 ᄀᆞ는-세, ᄀᆞ는-세미.

서흐레 명 <도> [인성 서홍] → 서으레.

서흘-개 명 <지> [삼양] → 설-개.

석[1] 명 <민> 굿의 수효. 큰 굿은 12석, 작은 굿은 6석, 앉은 제(祭)는 3석이 됨. [전역]

석[2] 명 고삐. [전역]

석각씨왓-동네 명 <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한 자연마을. [애월]

석-간 명 [가시] → 젓-간.

석다 동 [전역] → 썩다. 고 석다.

석목 명 <식> 해조류의 이름. [신촌]

석벽 명 석벽(石壁). [전역]

석-보리 명 <농> 보릿고개를 넘기려고 일찍 수확한 보리. [하원]

석-살림 명 <민> 신(神)에게 음식을 대접한 뒤 신을 즐겁게 놀리고 기원하는 의례. [전역]

석상-동토 명 <민> 돌에 따른 동티. [전역]

석석 부 뜨거웠던 것이 서늘해진 모양. ＊나 가심도 지퍼 보라, 지퍼 보난 석석.(내 가슴도 짚어 봐라, 짚어 보니 서늘.) [전역]

석석-ᄒᆞ다 형 뜨거웠던 것이 서늘하다. ＊거 석석ᄒᆞ연 먹어지크라?(그것 '석석해서' 먹을 수 있겠어?) [전역]

석수 명 [전역] → 석쉬.

석수-질 명 [전역] → 석쉬-질.
석쉬 명 석수(石手). [전역] = 석수.
석쉬-쟁이 명 석수-장이(石手--). [전역]
석쉬-질 명 석수-질(石手-). [전역] = 석수-질.
석언-섬 명 <지> [서귀포 중문] → 석은-섬.
석유(石油) 명 [전역] → 석유-지름.
석유-지름 명 석유(石油). [전역] = 석유, 섹이-지름.
석읒-각지 명 석유를 담아 불을 켜는 등잔. [전역] = 섹읒-각지, 섹잇-각지.
석은-섬 명 <지> 서귀포시 강정동 바닷가에 있는 자그마한 섬. [서귀포 중문] = 서건-도(鋤建島), 석언-섬, 썩은-섬.
석-이다 동 썩-이다. [전역]
석-창포(石菖蒲) 명 <식> 석-창포. [김녕 조수 인성 서홍 가시]
석-케 명 큰 돌들이 많이 엉기정기 쌓인 곳. [하원 서홍 조수 어도 가시] = 설-케.
선 조 선. 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서,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더 세게 나타내는 처소격 조사. [전역]
선게 명 뱃-삯(船價). 배를 타거나 또는 배로 짐을 실어 옮긴 값. *족은 베에 짐 하영 시껀 선게 받을 셍각이 엇나.(작은 배에 짐 많이 실어서 뱃삯 받을 생각이 없다.) [전역]
선-그뭇 명 여성의 생식기. [전역]
선금 명 현금(現金). [전역] = 현금(現金).
선-내 명 날-내. [전역]
선내-대 명 <건> 세로로 세워지는 외(椳). [전역]
선-놀 명 죽제품의 세로의 대오리. [도련]
선달 감 [서홍 수산 가시] → 섬매.
선달-꼿 명 <식> [태흥] → 진달레-꼿.
선달레-꼿 명 <식> [표선 수산 조천] → 진달레-꼿.
선달-선달 감 섬마-섬마. [전역] = 선데-선데.
선당-ᄒᆞ다 동 대납-하다. 대신-하다. 먼저 대신해서 값을 치르다. [전역] = 당-ᄒᆞ다[3].
선대 감 [조수 서홍] → 섬매.
선데 감 [조수 서홍] → 섬매.
선데-선데 감 [전역] → 선달-선달.
선-돌 명 ① 서 있는 돌. [전역] ② 선돌. [전역] ③ <지> 한림읍 대림리의 옛 이름. [전역] = 선-둘.
선두-동(船頭洞) 명 <지> 제주시 삼도1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선두룩-ᄒᆞ다 형 매우 차가워 서늘한 느낌이 있다. [전역]
선-둘 명 <지> [전역] → 선-돌③.
선득-선득 부 선득-선득. [전역]
선-떡 명 선-떡. [전역]
선뜩-ᄒᆞ다 형 선뜩-하다. [전역] = 선뜻-ᄒᆞ다.
선뜻-ᄒᆞ다 형 [서홍 조수] → 선뜩-ᄒᆞ다.
선-똠 명 식은-땀. [전역] = 식은-똠.
선몽 명 현몽(現夢). [전역]
선물-세 명 현물-세(現物稅). [전역] = 현물-세(現物稅).
선반 명 선반(-盤). [전역]
선-밥 명 선-밥(-飯). 물기가 적고 쌀

알이 잘 익지 아니한 밥. [전역]

선베 명 선비(士). [전역] = 선부, 선비.

선-보롬(先--) 명 선-보름. [전역] = 선-보름.

선-보름 명 [전역] → 선-보롬.

선봉-기 명 <민> 굿을 할 때 세우는 큰 대 맨 위에 다는 깃발. [제주]

선부 명 *문필의 봉이 비치와시니 데데 선부가 날 것이요.(문필의 봉이 비추었으니 대대로 선비가 날 것이오.) [전역] → 선베.

선-부인 명 현-부인(賢夫人). [전역]

선비 명 [전역] → 선베.

선사(膳賜) 명 [전역] → 선세.

선상-쉐 명 [서광] → 머림-쉐.

선선-ᄒᆞ다[1] 형 하는 일이 정도에 지나쳐 놀랍다. [전역]

선선-ᄒᆞ다[2] 형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서 매우 서늘하다. [전역]

선세 명 선사(膳賜). [전역] = 선사.

선생 명 선생(先生). [전역] = 선승, 선싱, 성선.

선-소리 명 선-소리. 여러 사람이 모여 노래할 때 한 사람이 먼저 메기는 노래. [전역]

선소-악(善所岳) 명 <지> [금악 명월] → 선소-오름.

선소-오름 명 <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북쪽 갯거리오름에 잇닿은 오름. 표고 226미터. [금악 명월] = 선소-악(善所岳).

선수(選手) 명 선수. [전역] = 선쉬.

선쉬 명 [전역] → 선수.

선승 명 [전역] → 선생.

선싱 명 [전역] → 선생.

선신-방광 명 <민> 현신-방광(現身--). 신을 맞아들여 처음 뵈는 의미로 하는 방광. [전역]

선앙-물색 명 <민> 선왕신(船王神)을 위하여 바치는 물색. [전역]

선앙발보-제 명 <민> 작은 굿. 성황발고제(城隍發告祭)에서 비롯된 말. 성황발고제는 조선시대 주군에서 여제(厲祭) 등을 지내기에 앞서 먼저 성황(城隍)에게 제사하여 고사를 지냄을 고하는 의례. [전역]

선에 명 <동> 드렁-허리. [전역]

선-왕(船王) 명 <민> [전역] → 서낭[2].

선왕-굿 명 <민> [전역] → 서낭-굿.

선왕-본판 명 <민> 선왕(船王)의 본풀이를 서우제소리로 풀어내는 제차. [전역]

선왕-지 명 <민> 선왕(船王)에게 바치기 위하여 제물을 조금씩 백지에 놓아 싼 뭉치. [전역]

선-웨 명 <건> [가시] → 선-훼.

선융 명 [전역] → 서늉[1].

선을 명 <지> [조천] → 선흘.

선인-장(仙人掌) 명 <식> 선인-장. [전역] = 떡-꼿, 벡년-초.

선작지-궤 명 <지> '선작지왓'의 서녘에 있는 '궤'(바위굴). [전역] = 탑-궤.

선작지-왓 명 <지> 한라산 국립공원 웃세오름 남쪽의 드넓은 벌판. 화산분출물인 '작지'(자갈)가 곳곳에 널리고 군데군데 바위 무더기가 우뚝우뚝함. [전역] = 생작지-왓.

선장-쉐 명 <농> [영평] → 앞-쉐.

선-쟁이 명 [수산 김녕 가시] → 중-수리[2].

선제 명 선자(扇子). [전역]
선제-질 명 선자-질(扇子-). [전역]
선족이-오름 명 <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거슨세미오름 남쪽, 대천동 가까운 도로변에 있는 오름. 표고 307미터. [송당 선흘]
선-코[1] 명 오름의 위와 아래쪽으로 설치하는 노루의 올가미. [봉성]
선-코[2] 명 우장(雨裝)의 세로로 맺어 놓은 고. [송당]
선-하옴 명 [김녕] → 선-하위염.
선-하움 명 [김녕] → 선-하위염.
선-하위염 명 선-하품. [노형 조수 인성 수산 서홍 가시] = 선-하옴, 선-하움.
선-훼 명 <건> 설-외(-椳). 흙벽의 외엮기에서, 세로로 얽는 외.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선-웨, 선-휘, 슨-훼.
선-휘 명 <건> [수산 가시] → 선-훼.
선흘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의 옛 이름. [조천] = 선을.
선흘-고지 명 <지> [전역] → 선흘-곶.
선흘-곶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 있는 수풀. *서늘곶듸 도아낭 마깨 손에 궹이가 상덕이라라.('선흘곶'에 복숭아나무 방망이 손에 못이 상덕이더라.) [전역] = 선흘-고지.
선-ᄒᆞ다 형 선-하다. [인성 조수 노형]
섣-돌 명 섣-달(十二月). [전역]
설 명 살. 나이를 세는 단위. [전역] = 술[2].
설-개 명 <지> 제주시 삼양1동의 옛 이름. [삼양] = 서흘-개.
설기 명 혈기(血氣). [전역]
설다[1] 동 설다. 덜 익다. [전역]
설다[2] 동 손실(損失)을 물어주다. [전역]
설다[3] 동 애가 서다. *(속) 설 때 궂인 애기 날 때도 궂나.(설 때 궂은 아기 날 때도 궂다.) [전역]
설다[4] 형 서투르다. [전역]
설-덕 명 돌들이 엉기정기 쌓이고 잡초와 나무가 우거진 곳. [수산 어도] = 설-드럭.
설덕-밧 명 돌무더기와 잡초와 나무가 얼크러진 것이 여기저기 있는 밭. [전역] = 서드럭-밧, 서드레기-밧, 서드레기-왓.
설덕-질 명 돌들이 쌓이고 잡초와 나무가 우거진 곳으로 통한 길. [전역] = 설드럭-질.
설-드럭 명 [어도] → 설-덕.
설드럭-궤 명 위가 큰 바위나 절벽 따위로 가리워지고 땅 속으로 깊숙이 패이어 들어간 굴 따위. *글 읽으레 열뎃 설 난 다니단 보난 저 설드럭궤가 잇는디.(글 읽으러 열다섯 살 되어서 다니다가 보니 저 '설드럭궤'가 있는데.) [명월]
설드럭-질 명 [어도] → 설덕-질.
-설란 어미 -서는. 연결어미 '-서'에, 특수조사 '-ㄹ란'이 결합한 형태. *질 가운디 이 사름이 얼신거렴길레 아무라도 걸라고 헤설란 등 치쳐박안 몰안 왓습니다.(길 가운데서 이 사람이 얼씬거리고 있기에 아무라도 가자고 해서는 등을 밀어붙여 몰아서 왔습니다.) [전역]
설랍 명 [남원] → 설합.
설랑-설랑 부 팔을 가볍게 저으면서 걷는 모양. *밧 볼림이 늬네 구실이

여. 설랑설랑 불라 보라.(밭 밟기가 너희 구실이네. 설렁설렁 밟아 봐라.) [전역]

설러-주다 동 이것 저것 물건들을 거두어 남에게 건네주다. [전역]

설럽다 형 [전역] → 서럽다.

설레 명 아픔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더 보태어서 나타내는 짓. *이제 흔번은 아팟고랜 막 설렐 쳐.(이제 한번은 아팠다고 막 '설레'를 쳐.) [전역]

설레다 동 설레다. [전역]

설레-산적 명 <민> [토평] → 설레-적.

설레-적 명 <음> 소고기 적. 정의 지역의 굿에서 제물로 올림. [태흥 가시 표선] = 설레-산적.

설룬-애기 명 서럽고 불쌍한 아기. [전역]

설룬-어멍 명 서럽고 불쌍한 어머니. [전역]

설룹다 형 [전역] → 서럽다.

설르다[1] 동 끝내다. 마치다. 그만-두다. *일 그만 설렁 집에 갑주.(일 그만 마쳐서 집에 갑시다.) [전역] = 서르다[1].

설르다[2] 동 설거지-하다. [전역] = 서르다[2].

설르다[3] 동 벌여 놓은 것을 치우다. [전역] = 서르다[3].

설리-설리 부 몹시 서럽게. *설리설리 놀레나 불렁, 어멍상에 놀레나 불렁.(섧디섧게 노래나 불러서, 어머니에 대한 노래나 불러서.) [전역]

설메질 소리 명 <요> [월평 도순 강정 법환] → 써레질 놀레.

설문-광 명 복사-뼈. [사계]

설-배 명 운상할 때에 상여에 매어 앞으로 잡아당기게 된 참바. [전역]

설상-ᄒᆞ다(設床--) 동 제사나 명절 때에 제사상을 펴서 제물 따위를 진설하다. [전역]

설세 명 <병> 설사(泄瀉). [전역]

설-쒜 명 <민> 꽹과리. [전역] = 소-제김.



설쒜

설어-내다 동 배상-하다. [전역]

설-오름[1] 명 <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동상동 북쪽에 있는 오름. 표고 238미터. [가시 성읍 교래]

설-오름[2] 명 <지> [신효] → 서리-오름.

설-짓 명 [김녕] → 설-칫[1].

설-칫[1] 명 한-마루. [노형 조수 인성 수산 서홍 가시] = 설-짓.

설-칫[2] 명 [서홍] → 중-수리[2].

설칫-궁기 명 쟁기의 한마루 위쪽에 나무못을 박기 위하여 낸 구멍. [전역]

설칫-못 명 [수산 가시] → 설칫-세역.

설칫-세역 명 쟁기 성에에 꿰어진 한마루에 찌르는 나뭇조각. [노형 어도 인성 서홍 가시] = 가남-세역, 설칫-못.

설-케 명 [태흥 어도 조수 가시] → 석-케.

설텅-신 명 [태흥 표선 수산 세화] → 털-멩이.
설패기 명 <동> [한수 판포] → 빗-자구.
설피-낭 명 <식> 쥐똥-나무. *(속) 봄즘은 설피낭에 걸어져도 잔다.(봄잠은 쥐똥나무에 걸어져도 잔다.) [전역]
설피역 명 <동> [태흥] → 빗-자구.
설피영-ᄒᆞ다 형 추위를 타서 몹시 시린 꼴을 하다. [수산 어도]
설합(舌盒) 명 서랍. [전역] = 설랍.
설흔 수 [전역] → 서른.
섬[1] 명 섬(島). [전역] 고 셤.
섬[2] 명 섬. 곡식 따위의 분량을 계산하는 단위의 하나. [전역]
섬매 감 젖먹이에게 '서라'고 하면서 내는 소리.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선달, 선대, 선데.
섬기다 동 섬기다. [전역]
섬-놈 명 섬-놈. [전역]
섬뜩-ᄒᆞ다 형 섬뜩-하다. [어도]
섬메-섬메 감 섬마-섬마. [전역]
섬-바르 명 성산(城山) 자락에서 이루어지는 해녀 작업. *섬바르 가젠 ᄒᆞ민 일출봉 발앙 뎅겨 낫주.('섬바르' 가려고 하면 일출봉을 타고 다녔었지.) [성산] = 섬-바리.
섬-바리 명 [성산] → 섬-바르.
섬벌 명 [태흥 수산 세화] → 숨벌.
섬비 명 [조수] → 섬피.
섬윗-절 명 바닷가 가까이에서 이는 물결. *섬윗절이 울어도 근심.('섬윗절'이 울어도 근심.) [전역]
섬지그랑-ᄒᆞ다 형 섬뜩-하다. [전역] = 썹지그랑-ᄒᆞ다.
섬찌근-ᄒᆞ다 형 섬쩍지근-하다. [조수] = 섭찌근-ᄒᆞ다.
섬피 명 <농> 길쭉길쭉한 잎나무를 여러 개 함께 엮어 부채(扇子) 모양으로 만들고는 뿌린 씨를 묻고 밭이랑을 고르는 데 쓰는 농기구.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가시] = 끄서귀[2], 끄슬퀴, 끄슬피, 섬비.



섬피

섭[1] 명 잎(葉). [전역] = 썹, 입[2]. 고 섭.
섭[2] 명 섶(衽). [전역]
섭- 두 '볼이 조금 넓은'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접두사. [전역]
섭-간 명 [수산] → 젓-간.
섭-광이 명 <도> [전역] → 섭-괭이.
섭-괭이 명 <도> 볼이 조금 넓은 괭이의 한가지. [전역] = 섭-광이.
섭-골겡이 명 <도> 호미의 등 부분의 쇠가 넓적하게 된 호미. *섭골겡인 섭이 넓은 거. 이건 검질매지 안 ᄒᆞ영 땅 긁음만 ᄒᆞ는 거.('섭골겡이'는 잎이 넓은 거. 이것은 김매지 않고 땅 긁는 것만 하는 것.) [조수]
섭-ᄂᆞ물 명 주로 잎을 먹는 나물. [전역] = 입-ᄂᆞ물.
섭-담베 명 잎-담배. [전역] = 엽초,

입-담베.

섭-돌 명 형용이 둥글지 못하여 다각적으로 모지고 날카롭게 된 돌. [전역]

섭섭-ᄒᆞ다 형 섭섭-하다. [전역]

섭-수까락 명 바닥이 넓죽하고 조금 큰 숟가락. [전역]

섭-쒜 명 <도> 석-쇠. [전역]

섭-우미 명 <식> 우뭇가사리의 한 가지. 깊숙한 바다 속에서 자라는 질이 좋은 우뭇가사리. [전역]

섭의 명 협의(協議). [전역]

섭지-코지 명 <지>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바닷가로 뻗어나간 곶. [성산] = 방듸-코지.

섭찌근-ᄒᆞ다 형 [하원 서홍 태흥 표선 수산] → 섬찌근-ᄒᆞ다.

섯 명 <동> [수산 가시] → 서대[1].

섯-가름 명 [전역] → 서-카름.

섯가물개-마을 명 <지> 제주시 이호2동에 있었던 자연마을. 이호1동의 '가물개' 위쪽에 있었던 마을. [전역]

섯-갈 명 [노형 어도] → 갈-ᄇᆞ름.

섯갈-ᄇᆞ름 명 [하원 서홍 노형 어도] → 갈-ᄇᆞ름.

섯-개오리 명 <지> 제주시 봉개동 개오리오름과 족은개오리 사이에 있는 작은 오름. 표고 658미터. [봉개 아라 교래]

섯-골 명 [전역] → 서-카름.

섯-궤펜이 명 <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의 경계, 궤펜이오름에 나란히 잇닿은 세 오름 가운데 제일 서쪽 작은 오름. 표고 774미터. [교래 봉개]

섯-동네 명 [전역] → 서-카름.

섯마-ᄇᆞ름 명 [화순 하원 서홍 수산 노형 어도 조수] → 서남-풍.

섯마-ᄑᆞ름 명 [수산 노형] → 서남-풍.

섯-알오름 명 <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절울이' 북록에 있는 두 개의 작은 오름 가운데 서쪽 오름. 표고 41미터. [상모]

섯-하늬 명 뱃사람들이 서북풍을 일컫는 말. *섯하늬는 서북풍이주.('섯하늬'는 서북풍이지.) [이호] = 섯-하니ᄇᆞ름.

섯-하니ᄇᆞ름 명 [인성 화순 하원 서홍 태흥 표선 수산 노형 어도 조수] → 섯-하늬.

성[1] 명 [전역] → 썽.

성[2] 명 성(城). [전역]

성[3] 명 형(兄). *성 미칠 아시 엇곡, 아방 미칠 아돌 엇나.(형 따를 아우 없고, 아버지 따를 아들 없다.) [전역] = 형(兄).

성가시다 형 성가시다. [전역]

성게-호맹이 명 [함덕] → 성기-호멩이.

성기다 형 성기다(疎). [전역] 고 성긔다.

성기-호멩이 명 <도> 섬게를 캘 때 사용하는 호미. [전역] = 성게-호맹이, 퀴-호멩이.

성-깔 명 성-깔. [전역]

성깔-머리 명 성깔-머리. [전역]

성-내다 동 [전역] → 썽-내다.

성냥 명 [전역] → 곽.

성냥-곽 명 성냥-갑(--匣). [전역] = 곽-집.

성널-오름 명 <지> 한라산 국립공원의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경계에 걸쳐진 오름.

표고 1215.2미터. [전역] = 성-오름(成--), 성판-악(城板岳).

성네 명 성-내(城內). [전역] = 성-안.

성-ᄂᆞ리다 동 ① 성미나 성질이 차분해지다. [전역] ② 몸 따위가 줄다. [전역]

성-담 명 돌로 쌓은 성(城). [전역]

성당-우력 명 울력-성당(--成黨). 떼 지어 으르고 협박함. [전역]

성명 명 [전역] → 셍멩.

성문-꽝 명 [전역] → 정강-꽝.

성문이 명 [전역] → 정강이.

성문이-꽝 명 [전역] → 정강-꽝.

성미(性味) 명 성미. [전역] = 셍미.

성보람 명 <지> [성읍 송당] → 성불-오름.

성불-악(成佛岳) 명 <지> [전역] → 성불-오름.

성불-오름 명 <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대천동 남동쪽 번영로에 있는 오름. 옛적에 성불암(成佛庵)이 있었음. 표고 362미터. [전역] = 성보람, 성불-악(成佛岳).

성삭성삭-ᄒᆞ다 형 성깃성깃-하다. * 시아방은 구제기ᄀᆞ찌 늬만 성삭성삭ᄒᆞ고.(시아버지는 소라같이 이만 성깃성깃하고.) [전역]

성삭-ᄒᆞ다 형 성깃-하다. 사이가 조금씩 벌어지다. *아년 게 아니라 늬빨 성삭ᄒᆞᆫ 그 중이 오랏어.(아닌 게 아니라 잇바디가 성삭한 그 중이 왔어.) [노형]

성-산(城山) 명 <지>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리 바닷가에 돌출한 산. 깎아지른 암벽으로 둘린 것이 바다에서 솟아오른 성곽과 같음. 지방기념물 제36호로 지정된 관광명소로, 성산출일(城山出日)은 영주십경(瀛洲十景)의 제일경으로 꼽힘. 조선 때 봉수대가 있었음. 표고 179미터. [전역] = 성산-오름, 성산-일출봉(城山日出峰), 일출봉(日出峰), 청-산(靑山).



성산(城山)

성산-오름 명 <지> [성산] → 성-산(城山).

성산-일출봉(城山日出峰) 명 <지> [성산] → 성-산(城山).

성선 명 *너의 성선 누길런고 날보단 더 잘ᄒᆞ여라.(너의 선생 누구인고 나보다 더 잘하더라.) [전역] → 선셍.

성세 명 형세(形勢). [전역] = 형세(形勢).

성-싸다 동 성을 쌓다(築城). [전역]

성-안 명 [전역] → 성-네.

성안-장 명 제주 시내에 서는 오일장. [전역]

성에 명 성애. 물건의 흥정이 다 된 증거로 옆에 있는 사람을 대접하는 일. [전역] = 성의.

성-오르다 동 [전역] → 성-올르다②.

성-오름(城--) 명 <지> [상효 신례] → 성널-오름.

성-올르다 동 ① 흥분-하다. [전역] ② 몸 따위가 불다. [전역] = 성-오르다.

성의 명 [전역] → 성에.

성제 명 형제(兄弟). [전역] = 형제(兄弟).

성제-바우 명 <지> [서귀포 중문] → 성제-섬.

성제-바위 명 <지> [서귀포 중문] → 성제-섬.

성제-봉 명 <지> [봉개] → 형제-봉(兄弟峰).

성제-산 명 <지> [금덕] → 형제-산(兄弟山).

성제-섬 명 <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앞바다에 있는 섬. [서귀포 중문] = 관도, 굴에기-섬, 성제-바우, 성제-바위, 형제-도(兄弟島), 형제-섬(兄弟-), 형제-암(兄弟岩).

성주 명 <민> 집의 모든 일을 관장하는 신(神). [전역]

성주-꼿 명 <민> 성주신에게 올리는 둥그런 꽃. 종이로 만듦. [전역]



성주꼿

성주낙성-대풀이 명 <민> [전역] → 성주-풀이.

성주-대풀이 명 <민> [전역] → 성주-풀이.

성주 소리 명 <요> 집을 짓고 나서 성주풀이를 하며 복을 빌 때에 부르는 주술적인 민요. [전역]

성주-연맞이 명 <민> [전역] → 성주-풀이.

성주-풀이 명 <민> 집을 새로 지었을 때 하는 굿. [전역] = 성주낙성-대풀이, 성주-대풀이, 성주-연맞이.

성줏-기 명 <민> 성주풀이에서 종이 장식을 매달아 제상에 세우는 긴 대나무. [전역]

성줏-ᄃᆞ리 명 <민> 성주풀이에서 성주신이 타고 내리는 다리의 의미로 장식하는 천. [전역]

성줏-시리 명 <민> 성주풀이를 할 때 놀리는 시루떡. [함덕]

성진-땅 명 <민> 성편(姓便) 땅. 곧 부친 쪽의 출처. [전역]

성진이-오름 명 <지> 제주시 봉개동 개오리오름 남쪽, 한라산 횡단도로의 견월교(犬月橋) 옆에 있는 오름. 표고 701미터. [봉개 교래]

성진-조상 명 <민> 성친-조상(姓親祖上).부계(父系). 아버지 쪽 조상(祖上). [전역]

성질-머리 명 '성질'을 낮추어 이르는 말. [전역]

성창 명 선창(船艙). [전역] 고 션창.

성천-포(星川浦) 명 <지> [서귀포 중문] → 베릿내-개.

성친-국(姓親國) 명 <민> 아버지 쪽 출처. [전역]

성-탁 명 친-탁(親-). [전역]

성판-악(城板岳) 명 <지> [전역] →

성널-오름.

성-하르방 명 친-할아버지. [전역]

성-할망 명 친-할머니. [전역]

성화-마을(成和--) 명 <지> 제주시 용담3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성훼 명 성화(成火). [어도]

성-ᄒᆞ다 형 성-하다. 상한 데가 없이 본디대로 온전하다. *너무 몸이 아프니깐 항상 괴로우니깐 이 몸을 ᄒᆞ쏠 성허게 도와줍서.(너무 몸이 아프니까 항상 괴로우니까 이 몸을 조금 온전하게 도와주세요). [전역]

섶-돌 명 <도> 보리나 조 등을 탈곡할 때 쓰이는 한쪽 끝이 얄팍하게 생긴 돌멩이. [상가]

섶돌-메역 명 <식> '섶돌'에 나는 미역. [하귀]

세[1] 명 혀(舌). [전역]

세[2] 명 세(貰). [전역]

세[3] 명 [전역] → ᄉᆞ이[1].

세[4] 명 쐐기. *여기 빠지지 아녀게 ᄒᆞᆫ짝으로 세 물령. 세 박앙으네 영 빠지지 않게.(여기 빠지지 않게 한쪽으로 쐐기 물려서. 쐐기 박아서 이렇게 빠지지 않게.) [이호] = 세감, 세역, 소용[1].

세간 명 세간. 집안 살림에 쓰는 온갖 물건. [전역] 고 셰간.

세간-가르다 동 부부가 한 가정을 이루고 같이 살다가 살림살이를 가르고 남이 되다. [전역]

세간-살이 명 [전역] → 살렴-살이. 고 셰간사리.

세감 명 [인성 조수 서홍] → 세[4].

세경 명 <민> 농업을 관장하고 있는 신(神). [전역]

세경-넙은드르 명 사방으로 탁 트인 펑퍼짐한 들판. [전역]

세경-놀이 명 <민> 농신(農神)인 세경에 대한 의례. [전역]

세경-바레다 동 한눈-팔다. [전역] = 세경-ᄇᆞ리다, 허천-바레다, 헤천-바레다, 헤츰-바레다.

세경-ᄇᆞ리다 동 [전역] → 세경-바레다.

세경-자치 명 <민> 농경신을 위하여 바치는 무명. [전역]

세-글르다 형 두 사람 이상이 방아를 찧을 때 서로 찧는 운율이 잘 맞지 않다. [전역]

세금-지다 형 맛이 조금 새금하다. [전역]

세금-ᄒᆞ다 형 새금-하다. [전역]

세기-오름 명 <지> [전역] → 숫-오름[2].

세깍-신 명 앞쪽에 총을 셋만 돋힌 상제가 신는 짚신. [전역]

세-끗 명 혀-끝(舌端). [전역]

세-ᄭᅮ다 동 [서홍 수산] → 세-ᄎᆞ다.

세-나다 동 세-나다. 찾는 사람이 많아 잘 팔리다. [전역]

세다[1] 동 세다. 수효를 셈하다. *(속)돈은 세영 주곡 세영 받나.(돈은 헤아려서 주고 헤아려서 받는다.) [전역]

세다[2] 동 새다. 틈에서 흘러 나오다. [전역]

세다[3] 형 쇠다. 채소 따위가 억세게 굳다. [전역]

세-다데기 명 [김녕] → 세-다드레기.

세-다드레기 명 혀가 잘 돌아가지 아니하여 제대로 발음을 잘 못하는 사람. [전역] = 세-다데기.

세-다들다 동 말-더듬다. 혀가 잘 돌아가지 않아서 발음이 잘 되지 않고 떠듬거리다. [전역]
세답 명 [전역] → 서답.
세대 명 [전역] → 서대[2].
세-뜨다 형 새-뜨다(間--). [전역]
세-모시 명 [수산] → 서-모시.
세미[1] 명 샘(泉). 물이 땅에서 솟아 나오는 자리. [가시 수산 김녕] = 솜, 샘.
세미[2] 명 [어도 노형 조수] → 솜-통.
세미[3] 명 <지> 제주시 회천동(回泉洞)의 한 자연마을. [회천 삼양]
세미[4] 명 <음> [전역] → 새미-떡.
세미-떡 명 <음> [전역] → 새미-떡.
세미-소 명 <지> [금악] → 세미소-오름.
세미소-오름 명 <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이시돌회관 북쪽에 있는 오름. 표고 375미터. [금악] = 세미-소.
세미앗-동네 명 <지> [한경] → 세미왓-동네.
세미-오름[1] 명 <지>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 남동쪽, 산록도로 입구에 있는 오름. 표고 574미터. [아라 봉개] = 삼의-악(三義岳), 삼의양-악(三義讓岳).
세미-오름[2] 명 <지>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고평동 번영로변에 있는 오름. 표고 421미터. [전역]
세미왓-동네 명 <지>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의 한 자연마을. [한경] = 세미앗-동네.
세밋-귀 명 <음> 메밀가루 따위로 만든 반월형(半月形)의 '세미떡'의 귀. *식게칩의 세밋귀.(제사집의 '세밋귀'.) [전역]
세반지롱-ᄒᆞ다 형 [김녕 조수] → 세벤주롱-ᄒᆞ다.
세발-쒜 명 [서홍 수산 가시] → 시발-쒜.
세벤조롱-ᄒᆞ다 형 [조수] → 세벤주롱-ᄒᆞ다.
세벤주롱-ᄒᆞ다 형 조금도 어색하거나 딱하여 하는 기색이 없다. [수산 조수] = 세반지롱-ᄒᆞ다, 세벤조롱-ᄒᆞ다, 세벤지롱-ᄒᆞ다.
세벤지롱-ᄒᆞ다 형 [인성 서홍] → 세벤주롱-ᄒᆞ다.
세-벨 명 샛-별(曉星). [전역]
세-벳데기 명 <농> 한 두둑을 세 개의 거웃으로 만들어 나가는 밭갈이법. [전역]
세벳챗-새끼 명 [수산 서홍 김녕] → 시벳챗-새끼.
세비-낭 명 <식> [상가] → 새비-낭.
세상(世上) 명 세상. [전역] = 시상.
세상-엂어도 무 [전역] → 세상-읏어도.
세상-읏어도 무 세상-없어도. [전역] = 세상-엂어도, 시상-읏어도.
세수(洗手) 명 세수. [전역]
세숫-대양 명 <도> 세숫-대야. [전역] = ᄂᆞᆺ-ᄉᆞ레, 세숫-ᄉᆞ레, 시숫-ᄉᆞ레.
세숫-ᄉᆞ레 명 <도> [전역] → 세숫-대양.
세아리다 동 헤아리다. [전역]
세양 명 [전역] → ᄉᆞ양.
세양-쥐 명 <동> 새앙-쥐. [세화 조천]
세역 명 [전역] → 세[4].
세염 명 [전역] → 셈.
세염-나다 동 [수산 김녕] → 셈-나다.
세염-내돋다 동 [수산 김녕] → 셈-

나다.

세염-내돋다 동 [조수] → 셈-나다.

세염-졸다 형 [수산 김녕] → 셈-졸다.

세오다 동 *이 ᄆᆞ을에서 효ᄌᆞ문을 세왓고.(이 마을에서 효자문을 세웠네.) [전역] → 세우다.

세-오름 명 <지> 1100도로의 서귀포시와 제주시 애월읍 경계에 있는 큰오름·셋오름·말젯오름 등의 세 오름. [전역] = 삼형제-오름(三兄弟--), 시-오름[3].

세-왓 명 띠-밭. *밤원 간 세왓 멧 세왓치씩 그자 ᄋᆞ젼 간.(밤에는 가서 띠밭 몇 띠밭치씩 그저 가지고 가서.) [전역]

세우다 동 세우다. [전역] = 세오다.

세우리 명 <식> [노형 어도] → 쉐우리.

세우리-짐치 명 <음> 부추-김치. [전역]

세월 명 내(川)나 하천 따위 위에 돌담을 쌓아 만든 길이나 돌다리. [전역] = 세월이.

세월-나다 동 물건이 한때 잘 팔려 자꾸 나가다. [전역]

세월이 명 [전역] → 세월.

세-천(細川) 명 <지> [남원] → 곤-내.

세-ᄎᆞ다 동 혀-차다(舌--). [전역] = 세-ᄁᆞ다.

세-커리 명 [전역] → 세-커림.

세-커림 명 세-거리. 세 갈래로 나누어진 길. [전역] = 세-커리, 싀-커름, 싀-커림, 시-커리, 시-커림.

세커림-질 명 [전역] → 시커림-질.

세커릿-질 명 [전역] → 시커림-질.

세콜-방에 명 ① 세 사람이 둘러서서 서로 절굿공이가 부딪치지 않게 간격을 맞추어 방아를 찧는 일. [구좌] = 싀콜-방에.

세-한숨 명 한-숨. *좀 자당도 세한숨 난다.(잠을 자다가도 한숨이 난다.) [전역]

세-ᄒᆞ다 동 거간-하다(居間--). [전역] = 거간-ᄒᆞ다.

섹 명 정액(精液). [전역]

섹경 명 [전역] → 거울.

섹동-저고리 명 <의> 색동-저고리. [전역] = 섹박이-저고리.

섹박이-저고리 명 <의> [전역] → 섹동-저고리.

섹윳-각지 명 [전역] → 석윳-각지.

섹이-지름 명 [전역] → 석유-지름.

섹잇-각지 명 [전역] → 석윳-각지.

섹장 명 마을의 공공사(公共事) 또는 개인 집의 대사(大事) 때에 심부름을 하는 하인(下人). [전역]

센-부사리 명 <동> [수산 가시] → 쒜-부사리.

셀다 동 새다. 물 따위가 새다. [전역]

셈 명 셈. 사물(事物)을 분별하는 슬기. [전역] = 세염.

셈-나다 동 셈-나다. [노형 인성 서홍] = 세염-나다, 세염-내돋다, 세염-내ᄐᆞᆯ다, 셈-내돋다.

셈-내돋다 동 [노형 인성 김녕] → 셈-나다.

셈-졸다 형 사물(事物)을 분별하는 슬기가 매우 잘다. [노형 인성 서홍] = 세염-졸다.

셋 수 셋(三). [전역] = 싯.

셋- 두 '둘째'의 뜻으로 쓰이는 접두사. [전역]

셋-가시 명 혓-바늘(舌--). [전역]
셋-개오리 명 <지> 제주시 봉개동 개오리오름과 족은개오리 사이에 있는 작은 오름. 표고 658미터. [봉개 아라 교래]
셋-굽 명 혀-뿌리(舌根). [전역] = 셋-덩치, 셋-둥치.
셋-궤펜이 명 <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의 경계, 궤펜이오름과 섯궤펜이 사이에 있는 오름. 표고 757미터. [교래 봉개]
셋-년 명 [전역] → 셋-뚤.
셋-놈 명 [전역] → 셋-아들.
셋-덩치 명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 셋-굽.
셋-둥치 명 [김녕 조수 가시] → 셋-굽.
셋-뚤 명 둘째-딸. [전역] = 셋-년, 셋-지집아의.
셋-머슴 명 식용(食用)의 관점에서 돼지나 소의 혀(舌) 전체를 일컫는 말. [전역]
셋-무뚱 명 부엌과 마루 사이에 있는 문가. *그 홀어멍이 셋무뚱에 사둠서 이렇게 발을 궁그렴서.(그 홀어머니가 샛문가에 서 있으면서 이렇게 발을 흔들고 있어.) [전역]
셋-문 명 부엌과 마루 사이에 있는 문. [전역]
셋-문전(-門前) 명 <민> 마루에 면한 광의 출입문. 또는 그 신. [전역]
셋-바닥 명 혓-바닥(舌--). [전역]
셋-상제(-喪制) 명 둘째 상제. [전역]
셋-서방 명 샛-서방. [전역] = 군-서방, 굴룬-서방.
셋-소나의 명 [전역] → 셋-아들.
셋-아들 명 둘째 아들. [전역] = 셋-놈, 셋-소나의, 셋-치.
셋-아방 명 아버지의 둘째 형이나 아우. 중부(仲父). [전역]
셋-알오름[1] 명 <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바닷가 가까이에 있는 오름. [대정]
셋-알오름[2] 명 <지>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강터을'(江月洞)에 있는 나지막한 오름. [한경]
셋-어멍 명 아버지의 둘째 형이나 아우의 아내. 중모(仲母). [전역]
셋-오름[1] 명 <지> 서귀포시와 제주시 애월읍 경계에 걸쳐진 세 오름의 가운데, 곧 큰오름과 말젯오름 사이에 있는 오름. 표고 1113미터. [광령 회수]
셋-오름[2] 명 <지>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과오름의 세 봉우리 중 주봉(主峰)과 말젯오름 사이에 있는 봉우리. 표고 100미터. [곽지 귀덕]
셋-줄기 명 혓-줄기(舌--). [전역]
셋-줴 명 떼(筏)의 양 가(邊)에 붙여 있는 뗏목. [노형 조수 김녕 가시 서홍 수산] = 싯-낭, 싯-줴.
셋-지집아의 명 [전역] → 셋-뚤.
셋-질 명 샛-길. [전역]
셋-치 명 [노형] → 셋-아들.
셍 명 셈. *난 오늘 먹은 셍 허주.(나는 오늘 먹은 셈 하지.) [전역]
셍각 명 생각. [전역]
셍강 명 <식> 생강(生薑). [전역] 고 싱앙.
셍-것 명 생-것(生-). [전역]

셍게 명 <식> 승아. 수영. [전역] = 개-숟[1], 셍궤.
셍겡이 명 <동> [보목] → 생궹이.
셍곡 명 타작할 때 알이 채 떨어지지 않은 곡식. *요 동산은 셍곡이여, 모다들멍 두드리게.(요 동산은 '생곡'이네, 모여들어서 두드리자.) [전역]
셍-과닥 명 아이들이 장난으로 뛰노는 일. [전역]
셍궤 명 <식> [전역] → 셍게.
셍궤-낭 명 <식> [평대] → 얼루레비-낭.
셍그랑-ᄒᆞ다 형 [전역] → 상그랑-ᄒᆞ다.
셍-그짓말 명 생-거짓말. 터무니없는 거짓말. [전역]
셍기다 동 셍기다. 이 말 저 말 잇따라 주워대다. [전역]
셍기-무뚱 명 <건> [전역] → 셍깃-무뚱.
셍깃-무뚱 명 <건> 마루방과 큰방 구들 사이에 세운 기둥 바로 앞의 마당. [온평] = 상깃-무뚱, 셍기-무뚱.
셍-떼거지 명 생-떼거리. [전역]
셍-망치 명 <동> 망상어의 일종. [우도]
셍매 명 <동> 생마(生馬). [전역] = 셍메.
셍메 명 <동> [전역] → 셍매.
셍멩 명 성명(姓名). [전역] = 성명.
셍미 명 [전역] → 성미.
셍-밧 명 <농> [전역] → 생-밧.
셍복(生鰒) 명 <동> ① 전복. [전역] = 점복, 줌복. ② 익히지 않은 전복. [전역] 고 싱복.
셍-부렝이 명 <동> [수산 김녕] → 셍-부룽이.
셍-부룽이 명 <동> 부룩-송아지. [전역] = 셍-부렝이.
셍선 명 <동> [전역] → 오-토미. 고 싱션.
셍-설레 명 까닭 없이 아픔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더 보태어 나타내는 짓. [전역]
셍소-ᄒᆞ다 형 생소-하다(生疎--). [전역] = 셍수-ᄒᆞ다.
셍손-알리다 형 손에 부스럼 따위가 생겨 아리다. [전역]
셍-송아지 명 밭을 갈아 본 적이 없는 송아지. [전역]
셍수 명 생수(生水). [전역] = 나는-물, 산-물[1].
셍수-ᄒᆞ다 형 [전역] → 셍소-ᄒᆞ다.
셍-슝계 명 생-흉계(生凶計). [전역]
셍실 부 세상 없어도. 절대-로. [전역]
셍ᄉᆞ 명 생사(生死). [전역]
셍-야단 명 생-야단. ① 턱없이 음성을 높이어 마구 꾸짖음. [전역] ② 턱없이 마구 떠들고 법석거림. [전역] = 생-야단.
셍어거지-부리다 동 [전역] → 셍억지-부리다.
셍어거지-쓰다 동 [전역] → 셍억지-쓰다.
셍억지-부리다 동 생억지-부리다. [전역] = 셍어거지-부리다.
셍억지-쓰다 동 생억지-쓰다. [전역] = 셍어거지-쓰다.
셍-엄살 명 까닭 없이 부리는 엄살. [전역]
셍완 명 [전역] → 셍원.
셍원 명 생원(生員). [전역] = 셍완.

셍-으로 부 생-으로(生--). [전역]
셍이-독가리 명 <식> [전역] → 셍이-독구리.
셍이-독구리 명 <식> 국수-나무. [전역] = 셍이-독가리, 셍이-폭낭.
셍이-벨망 명 <동> 조간대(潮間帶) 상층(上層)에 서식하는 패류의 일종. [대포] = 셍이-보말.
셍이-보말 명 <동> *영 젠젠ᄒᆞᆫ 거는 여기선 셍이보말이옌도 ᄒᆞ주.(이렇게 자잘한 것은 여기서는 '셍이보말'이라고도 하지.) [대포] → 셍이-벨망.
셍이-폭낭 명 <식> [전역] → 셍이-독구리.
셍일-날 명 생일-날(生日). [전역] = 셍진-날.
셍-지왕 명 생-지황(生地黃). [전역] = 셍-지황.
셍-지황 명 [전역] → 셍-지왕.
셍진-날 명 [노형 인성 조수] → 셍일-날.
셍-차 부 [전역] → 셍-체.
셍-체 부 날것 그대로. [전역] = 셍-차.
셍-트집 명 생-트집. [전역]
셍피 명 <동> [보목] → 빗-자구.
셍-핑게 명 아무 이유도 없이 다른 일을 빙자하여 내세움. [전역]
소[1] 명 <동> [전역] → 쉐[1].
소[2] 명 소(沼). [전역]
소[3] 명 <동> 소. 바다에 정박한 목선에 살면서 나무를 깎아먹는 좀. *베는 여름나며는 기시려야 뒈. 검질 헤당 물량 테와야 뒈. 그걸 일년만 아녀민 다 떨어져부러. 버렝이 먹어부러. 소라고. 그놈은 코 닮은 거, 헤끌락ᄒᆞᆫ 거 잇는디, 데가리 까무룽ᄒᆞᆫ 거 잇는디.(배는 여름되면 그을려야 돼. 검불 해다가 말려서 태워야 돼. 그것 일년만 않으면 다 떨어져버려. 벌레 먹어버려. '소'라고. 그놈은 코 닮은 거, 자그마한 것 있는데 머리 꺼무스레한 것 있는데.) [이호]
소가지 명 소가지. [노형 인성 가시 서홍] = 쏘가지.
소갈 명 <공> [덕수] → 알[3].
소갈-머리 명 소갈-머리. [조수 인성]
소게 명 솜(綿). [전역] = 솜[2]. 고 소옴.
소게-바지 명 <의> 솜-바지(-袴). [전역]
소게-옷 명 <의> 솜-옷(綿衣). [전역]
소게-이불 명 솜-이불(綿衾). [전역]
소게-저고리 명 <의> 솜-저고리. [전역]
소게-클 명 <도> 솜-틀(打綿機). [전역] = 솜-클, 솜-틀.
소겟-장 명 솜-반(綿-). [전역]
소경 명 소경(盲人). [전역] = 쉐경.
소곡-소곡 부 거침없이 앞으로 다가가는 모양. 또는 불평 없이 순종하는 모양. *앞 멍에랑 소곡소곡.(앞 밭머리는 '소곡소곡'.) [전역]
소곡-ᄒᆞ다 형 소곳-하다. 귀엽게 고개를 조금 숙인 듯하다. [전역]
소곤-거리다 동 소곤-거리다. [전역] = 소곤닥-거리다, 소근-거리다.
소곤닥-거리다 동 [전역] → 소곤-거리다.
소곤-돌다 동 소곤-대다. [전역]
소곤-오름 명 <지> 서귀포시 성산읍 삼달리에 있는 오름. 표고 145.2미터. [성산] = 소군-오름.

소곰 명 소금(鹽). [전역]
소곰-덩어리 명 [전역] → 소곰-벙뎅이.
소곰-바치[1] 명 <동> 소금-쟁이. [전역]
소곰-바치[2] 명 [전역] → 소곰-장시.
소곰-밧 명 소금-밭(鹽田). 바닷가에서 조수(潮水)를 이용하여 소금을 만드는 곳. [전역]
소곰-벙뎅이 명 소금이 엉기어 붙은 덩어리. [전역] = 소곰-덩어리.
소곰-장시 명 소금-장수. [전역] = 소곰-바치[2].
소곰 절이다 구 생선, 채소 따위에 소금 기운이 배어들게 하다. [전역]
소곰-졸레기 명 [전역] → 소곰-줄레기.
소곰-줄레기 명 예전에 바닷가에서 소금을 만드는 사람을 일컫는 말. [전역] = 소곰-졸레기.
소곰-찡갱이 명 소금-버캐. [전역]
소곰-ᄒᆞ다 동 생선, 채소 따위를 소금에 절이다. [전역]
소곱 명 속(裏). [전역] = 속[2], 솝, 쏘곱, 쏙. 고 솝.
소곽 명 한 줄기씩 따로 널어 말린 미역. *소곽은 열 낭썩 무껑 풀곡 장곽은 무끄지 아녀곡 그냥 근으로 떵 풀아.('소곽'은 '열 낭씩' 묶어서 팔고 장곽은 묶지 않고 그냥 근으로 떠서 팔아.) [하귀]
소군-오름 명 <지> [성산] → 소곤-오름.
소근-거리다 동 [전역] → 소곤-거리다.
소금-모살 명 소금밭에 까는 모래. [귀덕]
소기(小朞) 명 소기. 소상(小祥). [전역]
소나의[1] 명 사나이(男子). [전역] = 소나이, ᄉᆞ나의, ᄉᆞ나이.
소나의[2] 명 [전역] → 남펜.
소나의-놈 명 사내-아이. [노형 서홍 조수 가시] = ᄉᆞ나의-놈.
소나의-사돈 명 [인성 서홍 조수 가시] → 밧-사돈.
소나의-상제 명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밧-상제.
소나이 명 [전역] → 소나의[1].
소-남 명 <식> [전역] → 소-낭.
소-낭 명 <식> 소-나무(松). [전역] = 소-남.
소낭-몽생이 명 [서홍 하원] → 솔-똥.
소낭-버렝이 명 <동> 송충-이(松蟲). [전역] = 소낭-베렝이, 솔충-이, 송충-버렝이, 송충-이.
소낭-버섯 명 <식> 송이(松茸). [전역]
소낭-베렝이 명 <동> [전역] → 소낭-버렝이.
소녜 명 [전역] → 효녀(孝女).
소노 명 <음> 굿 떡의 하나. [전역]
소-님 명 손-님(賓). [전역]
소님-치기 명 손겪-이(賓--). [전역]
소단 명 상제(喪制)가 외출 시에 입고 다니는 소매가 좁은 소창옷 비슷한 겉옷. [전역]
소도리 명 말-전주. 남이 한 얘기를 그 사람에게 전하여 말함. *(속) 소도릴 맞추민 코칭흔다.(말전주를 맞추면 비슷하다.) [전역]
소도리-맞춤 명 말을 전한 사람과 원래 이야기한 사람을 대면시켜서 그 말들을 서로 하고 안 했음을 대어 봄. [전역]
소도리-ᄒᆞ다 동 소문-내다. 남이 누구

의 이야기를 한 것을 그 사람에게 말하여 버리다. [전역]

소독 명 마늘이나 억새 따위의 꽃줄기. [행원]

소-두껭이 명 [전역] → 솟-두껑.

소두리-봉(小斗里峰) 명 <지> [오라 노형 광령] → 족은드레-오름.

소들다 동 시들다. [전역]

소들-소들 부 소들-소들. [전역]

소랑-소랑 부 가늘고 길쭉한 모양. [전역] = 수랑-수랑.

소랑-ᄒᆞ다 동 길쭉-하다. [전역]

소레기 명 <동> [인성 세화] → 똥-소로기.

소레기-촐리 명 <식> 바다풀의 한 가지. *바당 풀이름 ᄀᆞᆫ젠 ᄒᆞ믄 하주기. 소레기촐리, 주충. 주충은 톳에 ᄀᆞ찌 나는 거.(바다 풀이름 말하려고 하면 많지. '소레기촐리', 지충이. 지충이는 톳과 같이 나오는 것.) [하귀]

소렴 명 <지> 제주시 아라1동 산천단 일대에 있었던 옛 마을. [아라] = 소림.

소로기 명 <동> [화순 하원 태흥 노형 조수] → 똥-소로기.

소로기-동산 명 <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묵굴'(水洞)의 '일쳇동산' 바로 남쪽에 있는 동산. [한경]

소로기-촐리 명 <지>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에 있는 남소로기 북단의 작은 봉우리. 표고 275미터. [서광 저지]

소록-산(小鹿山) 명 <지> [전역] → 족은-사슴이.

소롬-ᄒᆞ다 형 갸름-하다. [전역]

소롯-질 명 [전역] → 소릿-질.

소르릉-소르릉 부 잘 드는 낫에 꼴 따위가 쉽게 베어지는 모양이나 소리. *소르릉소르릉 잘 누어 간다.('소르릉소르릉' 잘 뉘어 간다.) [전역]

소름 명 소름. [노형 조수]

소리 명 ① 소리. [전역] ② 노래. *소리나 ᄒᆞᆫ 곡지 ᄒᆞᆸ서.(노래나 한 곡 하십시오.) [전역] 고 소릭.

소리-가시낭 명 <식> [김녕 노형 수산] → 버레-낭.

소리-고동 명 <동> 뱃고동으로 쓰이는 고둥. [김녕]

소리-꾼 명 소리-꾼. [전역]

소리-낭[1] 명 <식> 졸-참나무. [전역]

소리-낭[2] 명 <식> 소리-나무. [전역]

소리낭-배 명 소리나무를 으깬 것으로 줄을 꼬아 세 가닥을 지어 굵다랗게 드린 참바. [전역]

소리-지르다 동 소리-지르다. [전역] = 소리-질르다.

소리-질르다 동 [전역] → 소리-지르다.

소리-치다 동 소리-치다. [전역]

소림 명 <지> [아라] → 소렴.

소릿-질 명 소로(小路). [전역] = 소롯-질.

소마 명 [전역] → 오좀.

소매 명 [김녕 조수] → 오좀.

소박-소박 부 [전역] → 소복-소복.

소병-악(小並岳) 명 <지> [상창 상천 상예] → 족은-오름[2].

소복-소복 부 소복-소복. [전역] = 소박-소박.

소복-ᄒᆞ다 형 소복-하다. [전역]

소본 명 [전역] → 소분.

소분(掃墳) 명 소분. 조상(祖上) 산소

(山所)의 잡풀을 베고 깨끗이 하는 일. *(속) 식게 아니흔 건 놈 모르곡, 소분 아니흔 건 놈이 안다.(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은 남 모르고, 소분 아니한 것은 남이 안다.) [전역] = 소본.

소분-깨 명 벌초한 풀. [전역]

소사(小使) 명 마을의 잡다한 심부름을 하거나 마을의 집집마다 대사가 있을 때 돼지를 잡는 등의 일을 해 준 값으로 살아가는 사람. [인성] = 소수.

소사-집 명 소사가 살 수 있게 마을에서 공동으로 마련하여 준 집. [인성]

소산-봉(宵山峰・小山峰) 명 <지> [전역] → 소산-오름.

소산-오름 명 <지> 제주시 아라동 산천단(山川壇) 남쪽에 있는 오름. 송(宋)나라 술사 호종단(胡宗旦)이 와서 제주도 명산의 혈(穴)을 모두 끊어 버리고 가던 날 밤 갑자기 솟았다는 전설이 있음. 북동쪽 기슭에 한라산신단비(漢拏山神壇碑)가 있어 해마다 산신제를 지냄. 소림천(小林泉)이라는 샘이 있음. 이 곳에 있는 곰솔 여덟 그루(천연기념물 제160호)는 높이 19~23미터, 둘레 3~6미터, 나이 500~600년으로 우리나라 곰솔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알려짐. 표고 413미터. [전역] = 소산-봉(宵山峰・小山峰).

소살 명 <도> 작살. [전역]

소살-헛물 명 <어> 해녀들이 작살로 고기를 잡는 물질. [고산]

소상(小祥) 명 소상. [전역]

소성-됨다 동 효성(孝誠)이 되다. *부모님끠 소성됨난, 어서 자라 곱앙 자라.(부모님께 효성되니, 어서 자라 숨어서 자라.) [전역]



소살

소소름 명 <지> [전역] → 쉐-오름.

소-수산봉(小水山峰) 명 <지> [성산] → 족은-물메.

소시게 명 [서홍 수산] → 불-쏘시게.

소심 명 [전역] → 효심(孝心).

소수 명 [전역] → 소사.

소수-ᄒᆞ다 형 소소-하다. [전역]

소엽 명 <식> 차조기. [전역] 고 ᄎᆞ소기.

소왁-낭 명 <식> [서홍 수산 가시 조수] → 수왁-낭.

소왁-소왁 부 송당-송당. 물건을 조금 굵고 거칠게 빨리 써는 모양. [전역]

소왕-내 명 <지> 제주시 애월읍 상귀리에서 하귀2리로 흘러가는 내. [전역]

소왕-벌 명 <동> [김녕] → 사상-벌.

소왕-산(小王山・小旺山) 명 <지> [성산 구좌] → 족은-왕메.

소왕이 명 <식> [전역] → 춤-소왕이.

소용[1] 명 [조수] → 세[4].

소용[2] 명 [조수] → 소용-이.

소용-가지 명 [서홍] → 소용-이.

소용-시리 명 <식> 쌀알이 검고 차진 조(粟)의 한 가지. [전역]

소용-이 명 궁글-막대. 소의 등에 얹는 안장에 앞가지와 뒷가지를 꿰뚫어 맞춘 나무. [전역] = 소용[2], 소용-가지.

소용치 명 <동> 줄-삼치. [사계]

소-월랑봉(小月朗峰) 명 <지> [세화 송당] → 아끈-드랑쉬.

소웽이 명 <식> 깊은 바다에서 자라는 바다풀의 한 가지. [하도]

소-유 명 <식> 산-들깨. [하원 서홍 세화 어도] = 개-유, 상-유.

소-유지 명 <식> 소-유자(小柚子). [전역] = 소-유ᄌᆞ.

소-유ᄌᆞ 명 <식> [전역] → 소-유지.

소이기 명 <동> 바닷물고기의 이름. ＊소이기옌 ᄒᆞᆫ 궤기는 몸뚱아리는 약삭빠르게 생기고 보기도 좋은디 독침이 딱 꽂아진 궤기. 지금은 못 보고. 다금바리 색깔 비슷ᄒᆞ주. 입도 크고.('소이기'라고 하는 고기는 몸뚱어리는 약삭빠르게 생기고 보기도 좋은데 독침이 딱 꽂아진 고기. 지금은 못 보고. 다금바리 색깔 비슷하지. 입도 크고.) [위미]

소제 명 [전역] → 효ᄌᆞ.

소-제김 명 <민> [전역] → 설쐐.

소주(燒酒) 명 [전역] → 소쥐.

소줏-돌 명 <도> 석제용구(石製用具)인 술 빚는 도구. [전역]

소-중기 명 <의> ① 속-옷. ＊비단 백 필만 허영 소중기 맨들아 주민 추ᄌᆞ도ᄁᆞ지 ᄃᆞ리 놔 주마.(비단 백 필만 해서 속옷 만들어 주면 추자도까지 다리 놓아 주마.) [전역] = 소-중의. ② 물질할 때 해녀들이 입는 무명으로 만든 물옷. [전역] = 소-중의, 속곳[2].



소중기②

소-중의 명 <의> [전역] → 소-중기.

소중의-바랑 명 여자가 고의(袴衣) 위에 치마 같은 것을 입지 않은 차림새. [김녕 노형 조수]

소쥐 명 소주(燒酒). [전역] = 소주.

소지(燒紙) 명 <민> 부정(不淨)을 없애고 신에게 소원을 빌기 위하여 흰 종이를 태워 공중으로 올리는 일. 또는 그런 행위. [전역]

소-컷 명 [전역] → 수-컷.

소털-벌립 명 <의> 소털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벙거지. [대정]

속[1] 명 <식> [전역] → 숙.

속[2] 명 [전역] → 소곱.

속- 두 '구멍이 솜솜하게 난'이라는 뜻의 접두사. [전역]

속-거풀 명 속-꺼풀. [전역]

속-겁질 명 속-껍질. [전역]

속고지-끌 명 <도> 바윗돌을 깰 때 쓰는 연장으로 부리가 납작한 모양의 끌. [함덕]

속곳[1] 명 맹낭. 소라의 몸뚱어리와 내장 사이에 주름치마처럼 붙어 있는 소화기관. 쓴맛이 남. ＊구젱이 먹당 보믄 쓴맛 나는 것ᄀᆞ라 속곳이옌 ᄒᆞ여.(소라 먹다 보면 쓴맛 나는 것 보

고 '속곳'이라고 해.) [이호]



속곳[1]

속곳[2] 명 ＊옛날이사 물질헐 때 고무옷 입어서? 저 속곳 입곡, 수건 씨고, 눈 쬐끄만 흔 거 썽근에 헷주. (옛날에야 물질할 때 고무옷 입었나? 저 속곳 입고, 수건 쓰고, 물안경 조그마한 것 써서 했지.) [이호] → 소중기②.

속-낭 명 <식> [전역] → 쉐귀-낭.

속-네 명 속-내. [전역]

속다[1] 동 속다. 거짓을 참으로 알다. [전역] = 쏙다[1].

속다[2] 동 욕-보다. 어려움이나 수고를 당하다. ＊아이고, 폭삭 속앗우다.(아이고, 무척 애쓰셨습니다.) [전역] = 쏙다[2].

속닥-거리다 동 속닥-거리다. [전역] = 속닥-이다, 속댁-이다.

속닥-속닥 부 송당-송당. 바느질을 조금 거칠게 하는 모양. [전역]

속닥-이다 동 [전역] → 속닥-거리다.

속대-왓 명 쑥대-밭(--田). [인성 노형 서홍 김녕] = 숙대-왓.

속댁-이다 동 [전역] → 속닥-거리다.

속-돌 명 딴딴하지 못하고 구멍이 송송하게 난 돌. [전역]

속-들이 부 속속-들이. [전역] = 속속-들이, 솝솝-들이.

속-떡 명 <음> 쑥-떡. [전역] = 숙-떡.

속-뜨다 동 속-뽑다. [전역]

속-ᄆᆞ슴 명 [전역] → 속-ᄆᆞ음.

속-ᄆᆞ음 명 속-마음(內心). [전역] = 속-ᄆᆞ슴. 고속ᄆᆞᄋᆞᆷ.

속-박 명 <도> [서홍 태흥] → 솔-박.

속-밧 명 <지> 한라산 국립공원의 북서쪽 일대에 펼쳐진 산 속의 벌판. 표고 1000~1100미터. [아라 봉개 교래]

속-벵 명 속-병(-病). [전역] = 속-빙, 쏙-벵.

속-불 명 초가 내부로부터 난 불. [어음]

속-빙 명 [전역] → 속-벵.

속-상ᄒᆞ다 동 속-상하다. [전역]

속-석다 동 [전역] → 속-썩다.

속-셈 명 속-셈. [전역]

속속-들이 부 [전역] → 속-들이.

속솜-ᄒᆞ다 동 아무 말도 아니하고 입을 다물다. [전역]

속-썩다 동 속-썩다. [전역] = 속-석다.

속여-앗다 동 남을 속여서 물건을 빼앗다. [전역] = 쉑여-앗다, 쒝여-앗다.

속엿-서방 명 [화순 세화] → 속잇-서방.

속-옷 명 <의> 속-옷(內衣). [전역]

속옷-바랑 명 속옷-바람. 속옷만 입은 차림새. [전역] = 쏙옷-바랑.

속-이다 동 속-이다. [전역] = 쉑-이다, 쒝-이다. 고소기다.

속임-수 명 속임-수. [전역] = 쉑임-수.

속임-질 명 [전역] → 쉑임-질.

속-입 명 속-잎(-葉). [전역] = 쏙-입.

속잇-서방 명 남편이 있는 여자가 남

편을 속여 가며 관계하는 사내. [수산 세화] = ᄀᆞ만-서방, ᄀᆞ멧-서방, 속엿-서방, 쉑엿-서방, 쉑일-서방, 쉑잇-서방.

속-전(粟田) 명 <농> 조가 잘 되는 밭. [중문]

속-주다 동 속-주다. [전역] = 쏙-주다.

속-치마 명 <의> 속-치마. [전역] = 속-치메.

속-치메 명 <의> [전역] → 속-치마.

속-타다 동 속-타다. [전역]

속-트다 동 갓양태를 겯는 대오리를 만들어 갈 때 대의 껍질과 속을 따로 떼어내다. [전역]

손 명 손(手). *(속) 손이 놀민 입이 논다.(손이 놀면 입이 논다.) [전역]

손-가락 명 손-가락. [전역] 고 솑가락.

손가락-질 명 손가락-질. [전역] = 손고락-질.

손-거림 명 손가락과 손가락이 갈라진 사이. 손가락을 벌린 사이. *손거림 두 갤 영 페와네 그 모냥을 멘들안.('손거림' 두 개를 이렇게 펴서 그 모양으로 만들었어.) [전역]

손-거슴 명 손-거스러미. [전역]

손-검다 형 손-거칠다. [전역]

손검은-짓 명 손거친-짓. [전역]

손-게와 명 아귀. 두루마기 따위에 옆을 터 놓은 구멍. [전역] = 손-게화.

손-게화 명 [전역] → 손-게와.

손고락-질 명 [전역] → 손가락-질.

손-곱다[1] 동 [전역] → 손-꼬부리다. 고 손곱다.

손-곱다[2] 형 손-곱다. 춥거나 얼어서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아니하다. [전역]

손-곱다[3] 형 ① 손이 아름답다. [전역] ② 도둑질하는 버릇이 없다. [전역]

손-궹이 명 무엇에 많이 스쳐서 딴딴하게 굳어진 손의 살가죽. [전역]

손-그믓 명 손-금(手紋). [전역] = 손-금. 고 솑금.

손-금 명 [노형 조수 김녕] → 손-그믓.

손-ᄀᆞ르치다 동 손가락으로 무엇을 가리키다. [전역] = 손-ᄀᆞ리치다.

손-ᄀᆞ리치다 동 [전역] → 손-ᄀᆞ르치다.

손-꼬부리다 동 손-꼽다. [전역] = 손-곱다[1], 손-꼽다.

손-꼽다 동 [전역] → 손-꼬부리다.

손-꼽데기 명 '손'의 낮춤말. [전역]

손-놀리다 동 손을 가만히 두지 않고 움직이다. [전역]

손다 형 <농> 따비갈이를 했던 밭을 1~2개월 동안 햇볕도 쪼이고 비도 맞혀 가며 땅을 보드랍게 하다. [송당]

손-대다 동 손-대다. [전역]

손-독 명 [전역] → 손-톡.

손-등 명 손-등. [전역]

손-등어리 명 손-등어리. [전역]

손디-줄 명 <도> [대정] → 솜비-줄.

손-떼다 동 손-떼다. [전역]

손-멕 명 손의 힘. 손을 쓰는 힘. [전역] = 손-심.

손-목 명 손-목. [전역] = 홀-목.

손-물체 명 <도> [수산 김녕 가시] → 무지게.

손-믄지금 명 [노형 조수] → 손-믄짐.

손-믄짐 명 어두운 데서 물건을 찾거나 일을 할 때에 손으로 어루만지는 짓. [전역] = 손-믄지금, 손-언짐.

손-바닥 명 손-바닥(掌). [전역] ㊟솕 바당.
손-박 명 <도> [노형 인성 조천 화순] → 솔-박.
손-버릇 명 손-버릇. [전역]
손-보리 명 [인성 서홍 김녕] → 손-부리.
손-봉오지 명 [수산 어도] → 손-부리.
손-부끄럽다 형 손-부끄럽다. [전역] = 손-부치럽다.
손-부리 명 손-부리. 손가락 끝의 뾰족한 부분. [전역] = 손-보리, 손-봉오지.
손-부찌다 동 [전역] → 손-부치다.
손-부치다 동 어떤 일에 나서다. 또는 어떤 일에 매달리다. [전역] = 손-부찌다.
손-부치럽다 형 [전역] → 손-부끄럽다.
손-불미 명 <공> 손의 힘으로 바람을 일으켜 쇠를 녹이거나 달구는 풀무. [덕수] = 똑딱-불미.
손뻑-치다 동 손뻑-치다. [전역]
손-서툴다 형 일이 서투르다. [전역]
손소 부 손수. [전역] = 손수.
손수 부 [전역] → 손소.
손-수건 명 손-수건(-手巾). [전역] = 손-수권.
손-수권 명 [전역] → 손-수건.
손-쉽다 형 손-쉽다. [전역]
손-심 명 [전역] → 손-멕.
손-싸다 형 [전역] → 손-쓰다.
손-쓰다 동 남의 수고에 대한 보답 또는 남을 대접하는 뜻에서 적은 물건을 주다. [전역]
손-쓰다 형 손을 놀리어 일하는 품이 재빠르다. [전역] = 손-싸다, 손-재다.
손-아귀 명 [전역] → 손-아우셍이.
손-아금 명 [수산] → 손-아우셍이.
손-아레 명 손-아래(手下). [전역] = 손-알.
손-아오셍이 명 [전역] → 손-아우셍이.
손-아우셍이 명 손-아귀(手--). [전역] = 손-아귀, 손-아금, 손-아오셍이, 손-어금.
손-알 명 [전역] → 손-아레.
손-어금 명 [조천] → 손-아우셍이.
손-언짐 명 [수산] → 손-믄짐.
손엣-물 명 손 안에 있는 물. *(속) 손엣물은 개안티도 아니 뿌린다. ('손엣물'은 개한테도 아니 뿌린다.) [전역]
손-우 명 손-위(手上). [전역]
손-웨성 명 <민> 굿떡의 하나. 쌀가루를 삶아 주먹만 한 크기로 빚어 가운데를 엄지로 눌러 모양을 낸 떡. [태흥 표선] = 좀메-떡.
손의-번(-煩) 명 손님을 접대하고 뒷바라지하는 번거로움. *손의번을 벌이엔 ᄒᆞᆫ다.('손의번'을 벌(罰)이라고 한다.) [전역]
손-익다 형 손-익다. [전역] = 손-익숙다.
손-익숙다 형 [전역] → 손-익다.
손-자귀 명 <도> 손-자귀. [전역]
손자-봉(孫子峰) 명 <지> [전역] → 손지-오름.
손-재다 형 [전역] → 손-쓰다.
손-제주 명 손-재주. [전역] = 손-제쥐.
손-제쥐 명 [전역] → 손-제주.
손지 명 손자(孫子). [전역] = 손ᄌᆞ.

손지-버릇 명 손자-뻘. [전역]
손지-오름 명 <지>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송당~수산간 도로변의 용눈이오름과 마주보는 오름. 한라산의 손자(孫子)라는 애칭이라고 함. 표고 256미터. [전역] = 손자-봉(孫子峰).
손-짐작 명 손-어림. [전역]
손짓-ᄒᆞ다 동 손짓-하다. [전역]
손ᄌᆞ 명 [전역] → 손지.
손찜-찌다 동 [노형 조수 인성] → 풀찜-찌다.
손청-거리 명 사랑-채. [표선 남원]
손-친 명 쇠꼬리채에 매어진 끈. [전역]
손-칼 명 <도> 죽세공에 쓰는 칼. [도련]
손-콥 명 손-톱(爪). [전역] = 손-톱.
손콥-그믓 명 [전역] → 손톱-그믓.
손-토시 명 [전역] → 토시.
손-톡 명 손-독(-毒). [전역] = 손-독.
손-톱 명 [전역] → 손-콥.
손톱-그믓 명 손톱으로 인해 생긴 자국. [전역] = 손콥-그믓.
솔[1] 명 솔(松). [전역]
솔[2] 명 <도> 솔. 먼지나 때를 떨거나 풀칠하는 데 쓰는 도구. [전역]
솔솔 부 살살. ① 눈·설탕 따위가 모르는 사이에 녹아 가는 모양. [전역] ② 바람이 보드랍게 조금씩 부는 모양. [전역] ③ 가만가만 가볍게 걷거나 피하거나 만지는 모양. [전역] = 솔솔. ④ 남을 살그머니 달래거나 고개를 숙이는 모양. [전역]
솔-가리다 동 외가닥으로 돋아난 곡식의 싹이 점차 자라나면서 두세 가닥으로 그 이파리가 벌어지다. *보린난에 솔가렷고나.(보리는 나서 잎 벌어졌구나.) [전역]
솔기 명 <민> 짐. *솔기 메여 들이자.(짐 메어 들이자.) [전역]
솔깍 명 [전역] → 솔칵.
솔나니 명 <동> [서귀포] → 오-토미.
솔-남 명 <식> 소-나무. [전역] = 솔-낭.
솔-낭 명 <식> [전역] → 솔-남.
솔내기 명 <동> [태흥] → 오-토미.
솔-네 명 관솔불이나 석유불이 탈 때 그을음이 섞여서 올라가는 연기. [전역]
솔도-동네 명 <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한 자연마을. [애월]
솔-도로기 명 [인성 조수] → 솔-똥.
솔-똥 명 솔-방울(松--). [전역] = 소낭-ᄆᆞᆼ생이, 솔-도로기.
솔라니 명 <동> [서귀포] → 오-토미.
솔락-솔락 부 솔래-솔래. 조금씩 조금씩 살짝 빠져나가는 모양. *젊은 놈 젓는 네랑 요레 저레 솔락솔락.(젊은 놈 젓는 노는 요리 조리 솔래솔래.) [전역]
솔락-ᄒᆞ다 동 구멍 따위를 쉽게 빠져나가다. [전역]
솔래기 명 <동> [신양] → 오-토미.
솔ᄆᆞ슴-ᄒᆞ다 동 [노형 어도] → 솔ᄆᆞ음-ᄒᆞ다.
솔ᄆᆞ음-ᄒᆞ다 동 두려운 생각에서 마음을 늘 황송(惶悚)히 가지다.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솔ᄆᆞ슴-ᄒᆞ다.
솔-박 명 <도> 나무를 둥그스름하고 납죽하게 파서 만든 작은 바가지 비슷한 그릇. [서홍 수산 세화 노형 인

성 화순 하원 태흥 표선] = 속-박, 손-박, 좀-팍, 좀-팍세기.



솔박

솔-밧 명 솔-밭(松田). [전역] = 솔-왓.
솔-벤 명 <음> 반월형(半月形)의 떡본으로 눌러서 만들어 낸 흰떡. [전역] = 솔-변, 솔-펜, 수랑-곤떡.



솔벤

솔벤-떡본 명 <도> 반월형(半月形)의 떡인 '솔벤'을 만드는 떡본. [전역]
솔-변 명 <음> [전역] → 솔-벤.
솔-썹 명 솔-잎(松葉). [전역] = 솔-입.
솔-왓 명 [전역] → 솔-밧.
솔-입 명 [전역] → 솔-썹.
솔충-이 명 <동> [전역] → 소낭-버렝이.
솔치 명 <동> 쑤기미. [전역]
솔치-집 명 <식> 해조류의 일종. [우도]
솔칵 명 [전역] → 술칵.
솔칵-불 명 [전역] → 술칵-불.
솔-펜 명 <음> [서홍 수산] → 솔-벤.
솔피-낭[1] 명 <식> 솔비-나무. [전역]
솔피-낭[2] 명 <식> 쇠물푸레-나무. [전역]
솔피낭-발 명 솔피나무의 뿌리. *솔피낭발로도 신 삼아낫주.(솔피나무 뿌리로도 신을 삼았었지.) [봉성]
솜[1] 명 <동> 말똥-성게. [전역]



솜[1]

솜[2] 명 [전역] → 소게.
솜-국 명 말똥성게의 알을 넣어 끓인 국. [북촌 동복]
솜비-줄 명 봇-줄.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손디-줄, 쉐-줄, 쉐-한줄.
솜비-치다 동 한탄할 일이 있거나 피곤할 때에 길게 소리 내며 숨을 내쉬다. [전역]
솜빡-ᄒᆞ다 형 물건이 가득하게 많이 담겨 있거나 쌓여 있다. [전역]
솜솜-ᄒᆞ다 형 [전역] → 송송-ᄒᆞ다.
솜-클 명 <도> [전역] → 소게-클.
솜-틀 명 <도> [전역] → 소게-클.
솝 명 *산 솝희도 사름이 산다, 물 솝희도 사름이 산다.(산 속에도 사람이 산다, 물 속에도 사람이 산다.) [전역] → 소곱.

솝솝-들이 부 [전역] → 속-들이.
솝헷 말 구 마음 속에 간직한 말. ＊솝헷 말랑 두지 말라.(속엣 말일랑 두지 마라.) [전역]
솟 명 솥(鼎). ＊(속) 정이 죽 쑤던 솟 모관 와도 죽 쑨다.(정의(旌義)에서 죽 쑤던 솥은 '모관'(牧內) 와도 죽을 쑨다.) [전역]
솟-강알 명 걸어 놓은 솥의 아래. [전역]
솟-거멩이 명 [수산 가시] → 솟-검뎅이.
솟-걸다 동 솥-걸다(鼎--). [전역] = 솟-안지다, 솟-안치다.
솟-검거미 명 [조수] → 솟-검뎅이.
솟-검게미 명 [조수] → 솟-검뎅이.
솟-검뎅이 명 솥 밑에 붙은 검댕.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어도 가시] = 솟-거멩이, 솟-검거미, 솟-검게미, 솟-검비영.
솟-검비영 명 [김녕] → 솟-검뎅이.
솟-고다 동 [전역] → 솟-구다.
솟-구다 동 솟-구다. 제 힘으로 몸을 위로 솟게 하다. [전역] = 솟-고다.
솟-덕 명 봇-돌. 솥에 불 때는 아궁이 양쪽에 세운 돌. [전역]



솟덕과 솟

솟-뎅이 명 <공> 솥을 주조(鑄造)할 때의 주형(鑄型). [덕수]
솟-두껑 명 소댕. [전역] = 소-두껭이, 솟-두께, 솟-두껭이, 솟-두엉.
솟-두께 명 [전역] → 솟-두껑.
솟-두껭이 명 [전역] → 솟-두껑.
솟-두엉 명 [노형 조수] → 솟-두껑.
솟-밋 명 솥(鼎)의 아래쪽. [전역]
솟-바위 명 솥의 운두 위쪽의 가장자리. [전역]
솟-수세 명 솥-솔. [전역]
솟-안지다 동 [전역] → 솟-걸다.
솟-안치다 동 [전역] → 솟-걸다.
솟임-빗 명 <동> [대평 마라] → 솟임-전복.
솟임-전복(--全鰒) 명 <동> 음력 8월 보름부터 음력 9월 초순 사이에 수온이 뚝 떨어졌을 때 햇볕을 쪼이려고 바위 위로 나앉은 전복. ＊ᄀᆞ실에 조코고리가 나와 가민 솟임전복이 돌 우터레 나와.(가을에 조이삭이 나와 가면 '솟임전복'이 돌 위로 나와.) [신촌] = 솟임-빗.
솟-전 명 [서홍 수산 가시 김녕] → 솟-천.
솟-창 명 솥-바닥. 솥 안의 밑바닥. ＊오메기떡 숢을 때 솟창에 떡 부트난 기냥 들이치믄 안 뒈여.('오메기떡' 삶을 때 솥바닥에 떡이 붙으니까 그냥 넣으면 안 돼.) [조수]
솟-천 명 솥-전(鼎-). [인성 조수 노형] = 솟-전.
송개-마농 명 [어도] → 콥-대사니.
송곳 명 송곳(錐). [전역]
송곳-늬 명 송곳-니. [인성 김녕 노형 조수]
송낙[1] 명 승낙. [전역]

송낙[2] 명 무당들이 굿을 할 때 머리에 쓰는 백지로 만든 고깔. [전역]
송낭이 명 <지> 제주시 애월읍 용흥리의 옛 이름. [애월 하귀] = 송냉이.
송냉이 명 <지> [애월 하귀] → 송낭이.
송동-바구리 명 아주 작은 대바구니. [전역] = 송동-바굼지.
송동-바굼지 명 [전역] → 송동-바구리.
송-동이 명 <동> 나물을 먹는 벌레. [용담]
송망 강셍이 구 <동> 볼품없이 키가 작으며 야위어 생기가 없는 강아지. *번들번들 좋은 인물 송망 강셍이 닮은 서방 만난.(번들번들 좋은 인물이 '송망 강셍이' 닮은 서방을 만났어.) [전역]
송-벡충 명 <동> 촌-백충(寸白蟲). [전역] = 촌-충.
송서 명 [전역] → 송ᄉᆞ.
송송-ᄒᆞ다 형 솜솜-하다. [전역] = 솜솜-ᄒᆞ다.
송ᄉᆞ 명 송사(訟事). [전역] = 송서.
송아-오름 명 <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수동 남서쪽에 있는 오름. 표고 104미터. [저지 조수]
송아지 명 <동> 송아지. [전역] = 송애기. 고 쇼아지.
송-악[1](松岳) 명 <지> [전역] → 절울이.
송악[2] 명 <식> 송악. [전역] = ᄀᆞ느락.
송악-산(松岳山) 명 <지> [전역] → 절울이.
송애기 명 <동> [전역] → 송아지.
송애기-장 명 송아지만 풀어놓아 먹이는 목장. [도순]
송-오름 명 <지> [대정] → 절울이.
송장 명 송장(屍體). [전역]
송진(松津) 명 송진. [전역] 고 숧진.
송충-버렝이 명 <동> [노형 조수 인성] → 소낭-버렝이.
송충-이 명 <동> [전역] → 소낭-버렝이.
송-편 명 <음> 송편(松餠). [노형 인성 수산 김녕 조수 가시]
송학-산(松鶴山) 명 <지> [전역] → 절울이.
쇗-배 명 <도> 마소에 짐을 실을 적에 동여매는 조금 굵직하고 기다란 참바. [전역] = 쉐앗-배, 쉐얏-배.
수[1] 명 수. 좋은 운수. [전역]
수[2] 명 [전역] → 수정.
수-감(水監) 명 여러 논의 물 관리를 하는 일꾼. [상예]
수건[1] 명 수건(手巾). [전역]
수건[2] 명 <의> [전역] → 물-수건.
수견 명 여자의 음부 부근을 가리기 위하여 입는 아주 작은 속옷.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씨견.
수고 명 [전역] → 수긔.
수고-ᄒᆞ다 동 수고-하다. [전역] = 수긔-ᄒᆞ다.
수구룩-ᄒᆞ다 형 아주 수굿하다. [전역]
수국-수국 부 수굿-수굿. 벼나 조 따위가 잘 자라고 알이 여물어 좀 숙인 듯한 모양. *곡석 나경 수국수국 검질이랑 짓지 말게.(곡식 나거든 수굿수굿 김이랑 짓지 말게.) [전역]
수국-ᄒᆞ다 형 수굿-하다. [전역]
수군-거리다 동 수군-거리다. [전역] = 수군-돌다.
수군-돌다 동 [전역] → 수군-거리다.

수그럭-지다 동 [노형 조수] → 주그럭-지다.
수근닥-공론 명 [수산 서홍 가시 노형] → 숙덕-공론.
수근덕-공론 명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숙덕-공론.
수긔 명 수고. [전역] = 수고.
수긔-ᄒᆞ다 동 [전역] → 수고-ᄒᆞ다.
수기-동(水基洞) 명 <지> [조천] → 물터진-굴.
수기여-지다 동 옷 같은 것에 구김살이 쭈글쭈글하게 잡히다. [김녕 어도]
수-까락 명 <도> 숟-가락(匙). [전역] = 수-깔, 수제②, 술[1]
수-깔 명 <도> [전역] → 수-까락.
수껏-오름 명 <지> [서홍 호근 서호] → 숫-오름[1].
수꾸리-낭 명 <식> [가시 수산] → 쐴거리-낭.
수난-ᄒᆞ다 동 일을 같이 할 적에 서로 번갈아서 하다. [전역]
수눅 명 수눅. 버선 등을 꿰맨 솔기. [대포]
수눈-깝 명 서로 돌아가며 일을 도와준 데 대해 치르는 품삯. [전역]
수눌-꾼 명 [수산] → 수눔-꾼.
수눌다 동 품앗이-하다. 힘든 일을 이웃간에 서로 거들어 가며 하다. *그 각시덜이 문딱 수눌엉덜 큰 밧디 앚안 검질을 매는디.(그 각시들이 모두 '수눌어서'들 큰 밭에 앉아서 김을 매는데.) [전역]
수눌-장시 명 [수산] → 수눔-장시.
수눔-꾼 명 농가에서 서로 하루씩 품을 주고받아 가며 일을 하는 사람. [전역] = 수눌-꾼.
수눔-ᄆᆞ쉬 명 여럿이 소나 말을 한데 모아 놓고 한 사람씩 교대하며 먹이는 소와 말. [하모]
수눔-장시 명 농가에서 서로 품을 주고받으며 늘 일하는 사람. [전역] = 수눌-장시.
수답(水畓) 명 무-논. [전역]
수대 명 물이나 기름 등을 빨아올리는 작은 펌프. [전역]
수덕 명 큰 돌들이 엉기정기 쌓이고 잡초와 잡목이 우거진 곳. [어도]
수덕-지기 명 <민> 수풀을 지키는 신. [전역]
수두락-ᄒᆞ다 형 [전역] → 수두룩-ᄒᆞ다.
수두룩-ᄒᆞ다 형 수두룩-하다. [전역] = 수두락-ᄒᆞ다.
수두리 명 <동> 두드럭-고둥. [전역]



수두리

수두리-맹꽁 명 <동> 고둥의 일종. [신촌]
수두에 명 [김녕] → 시두에.
수랑-곤떡 명 <음> [노형 조수] → 솔-벤.
수랑-수랑 부 [전역] → 소랑-소랑.
수랑-ᄒᆞ다 형 길이가 조금 기름하다. [전역]

수레멜망악심-꼿 명 <민> [전역] → 악심-꼿.
수령-산(水靈山) 명 <지> [전역] → 물-영아리.
수룡-동(水龍洞) 명 <지> [한경] → 수룽잇-동네.
수룽잇-동네 명 <지> [한경] → 수룽잇-동네.
수룩-들이다 동 잉태(孕胎)를 못하는 여인이 산천(山川)으로 가서 잉태하도록 빌다. [전역]
수룩-짓다 동 꿩(雉) 따위가 서로 벗을 거느려 떼를 이루다. [전역]
수룩-침 명 <민> 불도맞이의 한 제차(祭次) 이름. 자식을 점지해 주도록 불교적 색채가 있는 형식으로 기원하는 제차(祭次). [전역]
수룩-츠다 동 꿩(雉) 따위가 서로 벗을 거느리다. [전역]
수룸-수룸 부 기름-기름. 여럿이 다 조금 긴 듯한 모양. [전역]
수룸-ᄒᆞ다 형 기름-하다. [전역]
수룽잇-동네 명 <지> 제주시 한경면 산양리 '연화동' 북쪽, '가마오름' 서쪽에 형성된 동네. [한경] = 수룡-동(水龍洞), 수룡잇-동네.
수리[1] 명 수레(車). [노형 조수 서홍 김녕 가시]
수리[2] 명 <동> [노형 조수 인성] → 똥-소로기.
수리-대[1] 명 <식> [태흥 표선 수산 세화 조천 노형 인성 서홍] → 족-대.
수리-대[2] 명 <식> [평대] → 구리-대.
수리-동이 명 <민> [전역] → 주수리-남동이.
수물 수 스물(二十). [전역] = 스물, 쑤물.
수바끼 명 바리. 놋쇠로 만든 여자의 밥그릇. [전역]
수바끼-두께 명 [전역] → 개지.
수박 명 <식> 수박(西瓜). [전역] 고 슈박.
수박-수박 부 수북-수북. [전역] = 수북-수북.
수박-ᄒᆞ다 형 수북-하다. [전역] = 수북-ᄒᆞ다.
수북-수북 부 [전역] → 수박-수박.
수북-ᄒᆞ다 형 [전역] → 수박-ᄒᆞ다.
수산-봉(水山峰) 명 <지> [전역] → 물-메[2].
수상-ᄒᆞ다(殊常--) 형 수상-하다. [전역] = 숭상-ᄒᆞ다.
수세 명 [전역] → 수세미.
수세미 명 옷깃, 소매, 모자 끝 따위에 댄 물결무늬의 주름 장식. *히오리 모자 모가지꼬장 왕 수세미 둘렁 ᄒᆞ믄 이디도 더꺼지곡.('히오리' 모자 목까지 와서 '수세미' 달려서 하면 여기도 덮어지고.) [이호] → 수세.
수-소문 명 수-소문(搜所聞). [전역]
수수-꺼리다 동 [김녕] → 예숙-제끼다.
수수-ᄒᆞ다 형 수수-하다. 차림새나 태도가 무던하다. [전역]
수승-낭 명 <식> [서홍 태흥 표선 수산 조천] → 추숭-낭.
수시다 동 쑤시다. 가늘고 긴 꼬챙이 같은 것으로 다른 물체의 틈이나 구멍에 넣어 찌르다. [전역] = 쑤시다.
수-악(水岳) 명 <지> [전역] → 물-오름[2].

수악수악-ᄒᆞ다 동 서걱서걱-하다. [전역]

수양-뚤 명 수양-딸(收養女). [전역] = 쉬양-뚤.

수양-아돌 명 수양-아들(收養子). [전역] = 쉬양-아돌.

수양-아방 명 수양-아비(收養父). [전역] = 쉬양-아방.

수양-어멍 명 수양-어머니(收養母). [전역] = 쉬양-어멍, 시영-어멍.

수어 감 [전역] → 수워.

수에 명 <음> [조수 서홍] → 수웨[1].

수염 명 [전역] → 쉬염.

수왁-낭 명 <식> 산-유자나무. [노형 인성 서홍] = 소왁-낭.

수왕-수왕 부 서벅-서벅. 배나 무 따위를 베어 무는 소리. ＊이 놈삐 수왕수왕 잘도 썰어졈져.(이 무 서벅서벅 잘도 썰어지네.) [전역]

수워 감 쉬. 닭을 쫓는 소리. [전역] = 수어, 쉬[3], 주워, 후워.

수월 명 가시덩굴로 이루어진 숲. [성산 수산]

수월-봉(水月峰) 명 <지> [전역] → 노꼬물-오름.

수월-ᄒᆞ다 형 수월-하다. [전역]

수웨[1] 명 <음> 순대. 돼지의 창자에 메밀가루와 각종 양념 등을 이겨 담고 삶아서 먹는 음식. [전역] = 수에.

수웨[2] 명 <식> 씀바귀. [전역]

수웻-배 명 ＊수웻배라고 해서, 소에 짐 시끌 때 졸르는 배, 그것이 너 발 가웃씩 아옵 발 듭니다.(참바라고 해서, 소에 짐을 실을 때 묶어 매는 밧줄, 그것이 네 발 가웃씩 아홉 발 듭니다.) [구좌] → 쉣-배.



수웨[2]

수은-동(水隱洞) 명 <지> [남원] → 순물-동네.

수은-물 명 <지> [남원] → 순물[1].

수은물-동네 명 <지> [남원] → 순물-동네.

수읨 명 [서홍 가시] → 숨방귀.

수-자리 명 [서홍] → 낚시-아리.

수-장올(水長兀) 명 <지> [전역] → 물-장오리.

수-전부(首田夫) 명 농경지 공동관리 집단의 우두머리. [상예]

수정 명 수(數). [전역] = 수[2], 쉬정.

수정-끼 명 <병> 수전-증. [전역]

수정-체움 명 수-채움(數--). [전역] = 쉬정-체움.

수제 명 ① 수저(匙箸). [전역] = 술제. ② [전역] → 수까락.

수좁다 형 수줍다. [전역] = 수집다.

수-지끄다 형 몹시 깊다. ＊진도 바당 수지끈 물은 청룡 황룡 노는 듯흔다.(진도 바다 깊은 물은 청룡 황룡 노는 듯한다.) [전역] → 수-지프다.

수-지프다 형 ＊ᄒᆞᆫ 질 두 질 수지픈 물 속 허위적허위적 들어간다.(한 길 두 길 깊은 물 속 허위적허위적 들어간다.) [전역] = 수-지끄다.

수질(水疾) 명 수질. [전역]
수질-ᄒᆞ다 동 멀미-하다. [전역]
수집다 형 [전역] → 수좁다.
수-첨복 명 <동> 전복의 수컷. 색이 거무죽죽하고 살쪄서 뭉뚝한 꼴이며, 껍질이 움푹한 편임. [전역] = 수-츰복, 수-핏, 숫퉁이.
수-초(水草) 명 <식> [전역] → 물-우미.
수치 명 수치(羞恥). [전역]
수-치레 명 수-치레. [전역] = 쉬-치레.
수-치에 명 수-키와(-瓦). [전역]
수치-저끄다 동 [김녕] → 예숙-제끼다.
수-츰복 명 <동> [전역] → 수-첨복.
수-캐 명 <동> 수캐(牡犬). [전역] = 숭-캐. 고 수가히, 수개.
수-컷 명 수-컷(牡-). [전역] = 소-컷.
수-쿵(雄雉) 명 <동> [전역] → 장-꿩.
수-토새기 명 <동> ① 수-퇘지. [전역] ② 아주 자그마한 수퇘지. [전역]
수-토절귀 명 [서홍 수산 김녕] → 숫-돌철귀.
수-톳 명 <동> 수-퇘지(牡豚). [전역] = 수-퇘야지.
수톳-놓다 동 암퇘지에게 수퇘지를 넣어 교미를 시키다. [전역]
수톳-춧다 동 암퇘지가 발정이 나서 수퇘지를 찾다. [전역]
수-퇘야지 명 <동> [전역] → 수-톳.
수투룸-ᄒᆞ다 형 사람이 약지 못하고 어수룩하다. [전역]
수-툭 명 <동> 수탉(雄鷄). [전역] = 장-독.
수풀 명 수풀(林). [전역] = 숲.
수-핏 명 <동> [전역] → 수-첨복.
숙 명 <식> 쑥. [전역] = 속[1]. 고 뽁.
숙대기다 동 쑤시다. [전역] = 숙댁이다.
숙대-왓 명 [어도] → 속대-왓.
숙댁이다 동 [전역] → 숙대기다.
숙덕-공론 명 쑥덕-공론. [전역] = 수근닥-공론, 수근덕-공론.
숙데-낭 명 <식> 삼-나무. [전역]
숙-떡 명 <음> [김녕 조수] → 속-떡.
숙-밧 명 숙전(熟田). [저지]
숙-북(熟鰒) 명 <음> 숙복(熟鰒). [행원]
숙비-쟁이 명 무두-장이. [전역] = 숙피-쟁이.
숙성-ᄒᆞ다(夙成--) 형 숙성-하다. [전역]
숙-쉐(熟-) 명 <농> 밭갈이에 익숙한 소. [영평]
숙-지왕 명 [전역] → 숙-지황.
숙-지황(熟地黃) 명 숙-지황. [전역] = 숙-지왕.
숙피-쟁이(熟皮--) 명 [수산] → 숙비-쟁이.
순 명 순(荀). [전역]
순-다리 명 <음> [서홍 태흥 표선 어도] → 쉰-다리.
순돌-막 명 [조수] → 순-막.
순-막(巡幕) 명 방범(防犯)하기 위하여 동리(洞里) 사람들이 번갈아가며 밤에 순시하다가 들어앉아 쉬는 막. [전역] = 금돗-막, 금등-막, 순돌-막, 야순-막.
순-물[1]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2리 중산간에 있는 물 이름. [남원] = 물돗은-못, 수은-물.
순-물[2] 명 <지> [남원] → 순물-동네.
순물-동네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2리 순물 일대에 형성된 자연마

을. [남원] = 수은-동(水隱洞), 수은물-동네, 순-물[2].
순작 명 <동> 메추라기. [전역] = 메초레기, 쉰작, 준작.
순-ᄒᆞ다 형 순-하다(順--). [전역]
술[1] 명 [전역] → 수-까락.
술[2] 명 술(酒). *(속) 술 ᄒᆞᆫ잔 먹으민 웨조케 밧 사주켄 ᄒᆞᆫ다.(술 한잔 먹으면 외조카 밭 사주겠다고 한다.) [전역]
술[3] 명 술. 숟가락으로 헤아릴 만한 적은 분량. [전역]
술-광절다리 명 술-주정뱅이. 술을 마시면 미치광이처럼 사나워지는 사람. [노형 조수 수산]
술기 명 탕건의 맨 밑의 부분. [전역]
술-다끄다 동 소줏고리에 소주의 밑술을 담고 끓여서 김을 올리고 술을 고아 내다. [전역]
술락-튀다 동 껑충-뛰다. [전역]
술-랍 명 <음> 한 숟가락의 밥. *술랍을 도렌 ᄒᆞᆫ다.(술밥을 달라고 한다.) [전역]
술-망나니 명 술-망나니. [전역]
술-악(戌岳) 명 <지> [전역] → 믜-오름[1].
술-안주 명 [전역] → 술-안쥐.
술-안쥐 명 술-안주. [전역] = 술-안주.
술일-당(戌日堂) 명 <민> 제일(祭日)이 술일인 당. [한경 한림]
술-장시 명 술-장사. *(속) 미운 놈 보컨 술장시 ᄒᆞ라.(미운 놈 보려거든 술장사 해라.) [전역]
술제 명 [노형 서홍 수산 가시] → 수제.
술-주시 명 술-지게미(酒粕). [전역]
술-짐 명 술-김. [전역]
술-집 명 [전역] → 술-칩.
술-칩 명 술-집. [전역] = 술-집.
술-푸데 명 술-고래. [전역]
숨 명 숨(呼吸). [전역]
숨-굴 명 숫-구멍. [전역] = 숭-굴.
숨-기다 동 숨-기다. [전역] = 곱지다, 숭기다, 숭키다.
숨-기적 명 숨-기척. [전역]
숨-끈어지다 동 [전역] → 목숨-끈어지다.
숨다 동 숨다(隱). [전역] = 곱다[2].
숨-바랍다 형 [전역] → 숨-ᄇᆞ릅다.
숨-바쁘다 형 숨-차다. *점복 빗창 딱 물어 놓으민 해녀덜 숨바빵 죽을 때도 잇어.(전복이 빗창 딱 물어 놓으면 해녀들 숨차서 죽을 때도 있어.) [애월]
숨방귀 명 아이들이 깊은 물에서 미역 감을 때에 숨을 죽이고 물 속으로 들어가는 일. [어도 조수 인성] = 수읨, 숨비, 심방귀.
숨방귀-들다 동 깊은 물에서 미역 감을 때에 숨을 죽이고 물 속으로 들어가다. [조수 어도] = 숨비-들다.
숨벌 명 나무와 덩굴 따위가 엉클어진 곳. [서홍 표선 어도 조천] = 섬벌.
숨베기 명 <식> [서홍] → 숨부기-낭.
숨부기 명 <식> [전역] → 숨부기-낭.
숨부기-낭 명 <식> 순비기-나무. [전역] = 숨베기, 숨부기, 숨북-낭, 숨비기.
숨북-낭 명 <식> [성산] → 숨부기-낭.
숨비 명 [노형 인성 수산 김녕 가시] → 숨방귀.



숨부기낭

숨비기 명 <식> [전역] → 숨부기-낭.
숨비다 동 숨을 죽이고 물 속으로 들어가다. [인성 서홍 수산]
숨비-들다 동 [노형 조수] → 숨방귀-들다.
숨-ᄇᆞᄅᆞᆸ다 형 기다리기가 지루하다. [전역] = 숨-바랍다.
숨빡-ᄒᆞ다 형 물건이 아주 가득 담겨 있거나 쌓여 있다. [전역]
숨뿍 부 함빡. *옛날은 메역이 그렇게 많이 나나서. 강그네 망아리 크게 ᄒᆞ영 하나 숨뿍 ᄒᆞ영 그거 밀령 원담에 오랑 펑. ᄒᆞᆫ 번에 져 오지 못ᄒᆞ믄 두 번에 져 오주기.(옛날은 미역이 그렇게 많이 났었어. 가서 망사리 크게 해서 하나 함빡 해서 그것 밀려서 '원담'에 와서 퍼서. 한 번에 져 오지 못하면 두 번에 져 오지.) [이호]
숨-소리 명 숨-소리. [전역]
숨-쉬다 동 숨-쉬다. [전역]
숨-절 명 숨-결. [전역]
숨-죽이다 동 배추·무 따위를 소금에 절이다. *배춘 숨죽여사 맛 좋나.(배추는 소금에 절여야 맛이 좋다.) [전역]
숨-차다 형 숨-차다. [전역] = 숨-ᄎᆞ다.
숨-ᄎᆞ다 형 [전역] → 숨-차다.
숨-통 명 숨-통. [전역]
숨튼-밧 명 토심(土深)이 좋은 밭. *숨튼밧은 가뭄을 덜 타주.('숨튼밭'은 가뭄을 덜 타지.) [판포]
숨풀 명 수풀. *숨풀 속의 앚인 꿩은 불이나 들카 근심이여.(수풀 속에 앉은 꿩은 불이나 들까 근심이네.) [전역]
숫[1] 명 숯(炭). [전역]
숫[2] 명 숱. 물건의 부피나 분량. [전역]
숫[3] 명 ① 윷. [전역] ② 윷가락 네 개가 다 잦혀진 때의 이름. [전역]
숫[4] 명 <도> 쌍따비의 손잡이. [구좌 성산]
숫-검뎅이 명 숯-검정. [전역]
숫-구뎅이 명 숯-가마. [전역] = 숫-굿.
숫-굿 명 [선흘] → 숫-구뎅이.
숫-내 명 숯-내(炭-). [전역] = 숫-내우미, 숫-내우살, 숫-내움살.
숫-내우미 명 [김녕] → 숫-내.
숫-내우살 명 [서홍 인성 어도] → 숫-내.
숫-내움살 명 [노형 조수 인성 가시 김녕 수산] → 숫-내.
숫-넹바리 명 숯-냉과리(炭---). [전역]
숫-놈 명 수-놈. [전역]
숫-다리 명 [전역] → 숫-붕테.
숫-도절귀 명 [가시] → 숫-돌철귀.
숫-돌철귀 명 수-톨쩌귀. [인성 조수 노형 수산 서홍 김녕] = 숫-도절귀, 수-토절귀.
숫-두리왜 명 너무 숫되고 어리벙벙한 짓을 잘하는 사람. [전역]

숫-막 명 숯-막. 숯을 저장하는 작은 초막(草幕). *집도 그자 숫막만 ᄒᆞᆫ 비저리초막 ᄒᆞ연 살고.(집도 그저 숯막만한 매우 작은 초막(草幕)을 해서 살고.) [노형]

숫-붕이 명 *그 여ᄌᆞ는 숫붕이 남펜 만낫지만 부자가 뒈어서.(그 여자는 숫보기 남편을 만났지만 부자가 되었어). [전역] → 숫-붕테.

숫-붕제 명 [전역] → 숫-붕테.

숫-붕테 명 숫-보기. 숫한 놈. 분수를 모르는 놈. [전역] = 숫-다리, 숫-붕이, 숫-붕제.

숫쉐-멍에 명 <도> 수소에 씌우는 멍에. [덕수]

숫쉐-통 명 수소를 가두는 목장. [해안]

숫-오름[1] 명 <지> 서귀포시 서홍동 북서쪽, 대륜동의 고근산 북쪽에 있는 오름. 표고 758미터. [전역] = 수껏-오름, 시-오름[2], 웅-악[1](雄岳).

숫-오름[2]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 향사동 동쪽에 있는 오름. 표고 178미터. [전역] = 세기-오름, 쉐게-오름, 웅-악[2](雄岳).

숫-장시 명 숯-장수(炭商人). [전역]

숫-장ᄉᆞ 명 숯-장사(炭商). [전역]

숫-지다 형 숫-지다. 순박하고 인정이 두텁다.[전역]

숫-치애 명 [명월] → 숫-치에.

숫-치에 명 수-키와. [전역] = 숫-치애.

숫-코 명 노루를 잡기 위한 올가미의 한 종류. [구억]

숫퉁이 명 <동> [대평] → 수-첨복.

숫퉁이-겁넝 명 수컷 전복의 껍질. *숫퉁이겁넝이 움팍ᄒᆞ영 좋아.(수컷 전복 껍질이 우묵해서 좋아.) [마라도]

숫-하다 형 숱-하다. [전역]

숫-하르방 명 성품이 어질고 우직한 할아버지. *하르방이, 보라 오죽 숫하르방이가, 이녁 할망도 몰란.(할아버지가, 봐라 오죽 '숫하르방'인가, 자기 아내도 몰라서.) [용수]

숭[1] 명 흉(胸). 돼지를 잡아서 베어 낸 흉부(胸部) 아래쪽에서 복부(腹部)까지를 이르는 말. [전역]

숭[2] 명 흉내. [전역]

숭[3] 명 흉. 흠(欠). *(속) 숭이 읏이민 메누리 다리가 히영.(흉이 없으면 며느리 다리가 희다.) [전역] *(속) 준 숭은 싯곡, 안 준 숭은 읏나.(준 흉은 있고, 안 준 흉은 없다.) [전역] 고 흉.

숭[4] 명 둥. '-은/는/을 숭, 만/마는/말 숭'의 구성으로 쓰여 무슨 일을 하는 듯도 하고 하지 않는 듯도 함을 나타내는 말. *본 숭 만 숭.(본 둥 만 둥.) [전역]

숭검 명 순검(巡檢). [전역]

숭게-마농 명 <식> [조수] → 콥-대사니.

숭게비 명 <식> [인성 서홍] → 콥-대사니.

숭게빗-대 명 [인성 서홍] → 콥대사닛-대.

숭계 명 [전역] → 슝계.

숭구데기 명 남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옮겨서 하는 짓. [전역]

숭구데기-털다 동 남이 하는 말을 곧이곧대로 옮겨서 하다. [노형 어도]

숭-굴 명 [수산 가시 김녕] → 숨-굴.

숭-기다 동 [전역] → 숨-기다.
숭년 명 흉년(凶年). *(속) 숭년에 푸는체 몰른 곡식.(흉년에 키 모른 곡식. 키로 찌꺼기를 거르지 않아도 되는 감자나 고구마를 가리키는 말.) *(속) 갑인년 숭년에도 먹당 남은 건 물이여.(갑인년 흉년에도 먹다 남은 것은 물이야.) *(속) 숭년에 밧 풀젠 말앙 입 ᄒᆞ나 덜래라.(흉년에 밭 팔려 말고 입 하나 줄여라.) [전역] = 흉년(凶年).
숭눙 명 [전역] → 누렝이-물.
숭눙-물 명 [전역] → 누렝이-물.
숭물 명 흉물(凶物). [전역]
숭물-다리 명 ① 몸이 온전하지 못하거나 기형인 사람. [전역] ② 불구자(不具者)나 다름없는 사람. [전역]
숭-보다 동 흉-보다. [전역]
숭상-ᄒᆞ다 형 [전역] → 수상-ᄒᆞ다.
숭시 명 흉사(凶事). *(속) 집에 숭시 들젠 ᄒᆞ민, 튿은 독도 고기약 ᄒᆞ곡, 기시린 돗이 ᄃᆞᆯ음을 ᄃᆞᆫ곡, 베낀 개가 옹공공 ᄒᆞᆫ다.(집에 흉사 들려면 뜯은 닭이 꼬끼요 하고, 그슬린 돼지가 내닫고, 벗긴 개가 옹공공 짖는다.) [전역]
숭악-ᄒᆞ다 형 흉악-하다. [전역]
숭어 명 <동> [전역] → 숭에.
숭에 명 <동> 숭어. [전역] = 숭어. ㊟슈어.
숭-잡다 동 흉-잡다. [전역]
숭-캐 명 <동> [전역] → 수-캐.
숭키다 동 [전역] → 숨기다.
숭-털다 동 흉내-내다. [전역] = 숭-틀다.
숭-털락 명 [전역] → 숭-털레기.
숭-털레기 명 흉내-내기. 남이 하는 언동을 그대로 옮겨서 하는 일. [전역] = 숭-털락.
숭-틀다 동 *(속) 놈의 숭틀민 이녁 숭 뒌다.(남의 흉내내면 자기 흉 된다.) [전역] → 숭-털다.
숭-허물 명 흉-허물. [전역]
숲 명 [전역] → 수풀.
쉐[1] 명 소(牛). *(속) ᄃᆞᆯ을 쉔 눈을 보곡, 찌를 쉔 뿔을 보라.(달아날 소는 눈을 보고, 찌를 소는 뿔을 봐라.) *(속) 종달리 쉔 지때에 새끼도 못 난다.(종달리(終達里)의 소는 제때에 새끼도 못 낳는다.) *(속) 놈 곱진 건 쉐도 못 춪나.(남이 숨긴 것은 소도 못 찾는다.) *(속) 놈의 쉐 들럭퀴는 건 보기 좋다.(남의 소가 날뛰는 것은 보기가 좋다.) *(속) 늘근 쉐 콩 주엉 말댕 ᄒᆞ느냐.(늙은 소 콩 주면 싫다고 하느냐.) *(속) 뜬 쉐 울 넘나.(느린 소가 울타리를 넘는다.) *(속) 발 궂인 쉐.(발 궂은 소.) *(속) 잰 쉐 감시믄 뜬 쉐도 가주.(빠른 소가 가고 있으면 느린 소도 간다.) *(속) 큰 쉐 큰 쉐 ᄒᆞ멍 촐 아니 준다.(큰 소 큰 소 하면서 꼴 아니 준다.) *(속) 큰 쉐 으물 말댕 ᄒᆞ느냐.(큰 소가 여물 말다고 하느냐.) [전역] = 소[1].
쉐[2] 명 <식> [전역] → 분지-쿨.
쉐-가죽 명 쇠-가죽(牛皮). [전역]
쉐가죽-보선 명 <의> 쇠가죽으로 만든 신. [성산 수산]
쉐-것 명 쇠-먹이. [전역]

쉐것-통 명 소의 먹이를 담는 통. [도두]
쉐게-오름 명 <지> [수망] → 숫-오름[2].
쉐경 명 [전역] → 소경.
쉐-고기 명 쇠-고기. [전역] = 쉐-궤기.
쉐고기-적 명 쇠고기-적(牛肉炙). [전역] = 쉐궤기-적.
쉐골-배 명 [서홍 태흥] → 쉐-석.
쉐-구불 명 소 궁둥이의 위쪽. [전역] = 쉐-구불짝, 쉐-부피.
쉐-구불짝 명 [전역] → 쉐-구불.
쉐-군벗 명 <동> [대포] → 돌-군벗.
쉐-궁둥이 명 소(牛)의 궁둥이. [전역]
쉐-궤기 명 [전역] → 쉐-고기.
쉐궤기-적 명 [전역] → 쉐고기-적.
쉐귀-낭 명 <식> 소귀-나무. [전역] = 속-낭.
쉐-꼴랭이 명 [전역] → 쉐-꼴리.
쉐-꼴리 명 쇠-꼬리. [전역] = 쉐-꼴랭이, 쉐-촐랭이, 쉐-촐리, 쉐-총댕이, 쉐-총지.
쉐-녹대 명 [수산 가시] → 쉐-석.
쉐-늬치럼 명 소(牛)가 질질 흘리는 침. [전역]
쉐-닥낭 명 <식> [건입] → 다근죽-낭.
쉐-데추 명 [노형 인성] → 쉐-데취.
쉐-데취 명 소(牛)가 먹다가 남은 꼴의 찌꺼기. [전역] = 쉐-데추.
쉐-똥[1] 명 쇠-똥. *(속) 쉐똥에 업더지민, 개똥에 코 덴다.(쇠똥에 엎어지면, 개똥에 코 댄다.) *(속) 불라분 쉐똥.(밟아 버린 쇠똥.) [전역]
쉐-똥[2] 명 쇠-딱지. [전역]
쉐-마귀 명 [태흥 표선 노형] → 쉐-왕.
쉐-마타슬 명 <동> 조간대(潮間帶) 상층(上層)에서 서식하는 패류(貝類)의 일종. [대포]
쉐-막 명 [전역] → 쉐-왕.
쉐-막사리 명 <건> [어도 인성 하원] → 쉐-왕.
쉐머리-오름 명 <지> 제주시 우도면에 있는 오름. 표고 132.5미터. [전역] = 우두-악(牛頭岳).
쉐-멍에 명 <도> 소(牛)의 목에 얹는 조금 휘어진 나무 기구. [전역]
쉐-목쟁이 명 소 잡는 것을 업으로 삼는 사람. *가죽 창신 신구젱 ᄒᆞ경 쉐목쟁이신디 시집을 가라.(가죽 창신 신으려 하거든 백정(白丁)에게 시집을 가라.) [전역]
쉐못-개 명 <지> 제주시 한림읍 귀덕 2리의 한 포구. [전역]
쉐-발콥 명 [인성 서홍 수산 가시] → 쉐-발톱.
쉐-발톱 명 소의 발톱.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쉐-발콥.
쉐-방에 명 <도> [가파] → 물-방에[1].
쉐-부피 명 [전역] → 쉐-구불.
쉐-뿔 명 쇠-뿔(牛角). *(속) 쉐뿔도 각각, 가친도 목목.(소뿔도 각각, 가친(家親)도 몫몫.) [전역]
쉐뿔-감(--柿) 명 열매 모양이 알형(卵形)으로 생긴 감의 한 가지. [전역]
쉐-석 명 소(牛)의 대가리를 걸려 잡아매어 끄는 줄.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쉐골-배, 쉐-녹대.
쉐소-깍 명 <지> 서귀포시 하효동 효돈천 하류의 이름. [남원 효돈]
쉐스랑 명 <도> 쇠-스랑. [전역] = 쉐-시렁.



쉐스랑

쉐-시렁 명 <도> [수산 김녕] → 쉐-스랑. 고쇼시랑.

쉐시랑-통안 명 <지>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의 한 자연마을. [한경]

쉐-식게 명 <민> 백중(百中) 날 소의 번성(繁盛)을 위하여 올리는 제(祭). [송당 신양]

쉐앗-배 명 [하원 서홍 태흥 표선 수산 김녕 호근] → 쉣-배.

쉐앗-배 명 *쉐앗배덜이나 주민 무껑 짊엉 졍 갑주.(참바들이나 주면 묶어서 짊어지고 가지요.) *쉐앗배 멧 베치만 ᄋᆞ져옵서.(참바 몇 '베치'만 가져오십시오.) [전역] → 쉣-배.

쉐-엉치 명 소(牛)의 엉덩이. [전역] = 쉐-엉판.

쉐-엉판 명 [전역] → 쉐-엉치.

쉐-연장 명 <도> 소(牛)를 부릴 적에 쓰는 도구. [전역]

쉐-오랑 명 <도> 소(牛)에 얹은 길마에 딸린 뱃대끈. [노형 서홍 수산 가시 김녕] = 쉐-오량.

쉐-오량 명 [인성 조수] → 쉐-오랑.

쉐-오름 명 <지>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토산봉 북서쪽에 있는 작은 오름. 표고 162미터. [전역] = 소소름.

쉐왓-동산 명 <지> 제주시 외도동(外都洞) 우령마을의 옛 이름. [외도]

쉐-왕 명 외양-간. [전역] = 쉐-마귀, 쉐-막, 쉐-막사리.

쉐우리 명 <식> 부추. [전역] = 세우리.

쉐-접 명 소를 공동으로 기르려고 맺은 계. [종달]

쉐-정당 명 <식> [전역] → 쒜-정동.

쉐-줄 명 [수산 가시] → 솜비-줄.

쉐-질 명 <지> 제주시 애월읍 소길리의 옛 이름. [전역]

쉐-질메 명 소(牛)의 등에 얹는 길마. [전역]

쉐-촐 명 쇠먹이로 쓰이는 꼴. [전역]

쉐-촐랭이 명 [전역] → 쉐-꼴리.

쉐-촐리 명 [전역] → 쉐-꼴리.

쉐-총댕이 명 [전역] → 쉐-꼴리.

쉐-총지 명 [전역] → 쉐-꼴리.

쉐-콥 명 쇠-기름. [조수 인성 서홍] = 곱[2], 콥[2].

쉐-터럭[1] 명 <식> 김의-털. [노형 인성 서홍 조수 가시]

쉐-터럭[2] 명 *(속) 쉐터럭에 꼿 피엇다.(쇠털에 꽃 피었다. 야생 소의 털에 서리가 낀 모양을 두고 이르는 말.) [전역] → 쉐-털.

쉐-털 명 쇠-털. *(속) 쉐털이 하덴 해도, 날이 한다.(쇠털이 많다고 해도, 날이 더 많다.) [전역] = 쉐-터럭[2].

쉐-테 명 소(牛)의 떼. [전역]

쉐-테우리 명 소떼를 돌보거나 키우는 사람. *경 ᄒᆞ멍 쉐테우릴 막 열심히 ᄒᆞ여.(그렇게 하면서 '쉐테우리'를 아주 열심히 해.) [전역]

쉐-푸리 명 <동> 쇠-파리(牛蠅). [전역]

쉐-한줄 명 [김녕] → 솜비-줄.

쉐-헤치 명 소-띠. [전역]

쉑여-앗다 동 [전역] → 속여-앗다.
쉑엿-서방 명 [가시] → 속잇-서방.
쉑-이다 동 [전역] → 속-이다.
쉑일-서방 명 [노형] → 속잇-서방.
쉑임-수 명 [전역] → 속임-수.
쉑임-질 명 속임-질. 남을 꾀어 속이는 일. [전역] = 속임-질.
쉑잇-서방 명 [조천] → 속잇-서방.
쉘랏-개 명 <지> [남원] → 쉘롯-개.
쉘롯-개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1리에 있었던 자연 포구. [남원] = 쉘랏-개.
쉘사리 명 <식> [전역] → 쉽싸리.
쉣-배 명 소의 등에 짐을 실을 때 동여 묶는 조금 굵직하고 기다란 밧줄. *짐 실를 쉣배나 클릅서.(짐을 실을 '쉣배'나 푸십시오.) [전역] = 수쉣-배, 쉐앗-배, 쉐얏-배.
쉣ᄇᆞ름 명 휘파람. [전역]
쉣뻬뒌밧-동네 명 <지> [한경] → 뒌밧-동네.
쉬[1] 명 ① 소. 만두, 송편 따위의 속에 넣는 팥, 녹두 따위를 갈아서 만든 재료. [전역] ② 고물. 시루떡의 켜와 켜 사이나 인절미 따위의 겉에 묻히는 팥 따위를 갈아 만든 재료. [전역]
쉬[2] 명 서캐. 이의 알. *(속) 홀아방 삼년에 쉬가 서 말, 홀어멍 삼 년에 꿰가 서 말.(홀아비 삼 년에 서캐가 서 말, 홀어미 삼 년에 깨가 서 말.) [전역] 고석하.
쉬[3] 감 [전역] → 수워.
쉬는-팡 명 마을 안 나무 그늘 아래 쉴 수 있게 놓여 있는 넓적한 돌. *쉬는팡들이 마을마다 이서낫주게.('쉬는팡'이 마을마다 있었지.) [전역]
쉬다[1] 동 쉬다. 음식 맛이 시금하게 변하다. [전역]
쉬다[2] 동 쉬다(休). [전역]
쉬다[3] 동 쉬다. ① 목청에 탈이 나서 소리가 맑지 못하고 흐리게 나다. [전역] ② 숨을 들이마셨다 내보냈다 하다. [전역]
쉬돌림 명 <농> 밭의 지력(地力)을 높이기 위하여 일정 기간 휴경(休耕)하는 일. [영평] = 골매-올림.
쉬멍-쉬멍 부 쉬엄-쉬엄. [전역]
쉬-싸다 동 쉬-슬다. [전역] = 쒸-쓸다.
쉬양-똘 명 [전역] → 수양-똘.
쉬양-아돌 명 [전역] → 수양-아들.
쉬양-아방 명 [전역] → 수양-아방.
쉬양-어멍 명 [전역] → 수양-어멍.
쉬염 명 수염(鬚髯). [전역] = 수염.
쉬우다 동 쉬다. 피륙의 빛을 곱게 하기 위하여 뜨물에 담가 두다. [전역]
쉬-자리 명 <동> 음력 7~8월 사이에 잡히는 자잘한 자리돔. [전역]
쉬자리-젓 명 <음> 알을 깐 이후의 자잘한 자리돔으로 담근 젓. *구월엔 쉬자리로 쉬자리젓을 담지. 애기 자리로 담은 것이난 맛이 보드랍고 연ᄒᆞ지게.(구월에는 '쉬자리'로 '쉬자리젓'을 담그지. 아기 자리돔으로 담근 젓갈이니까 맛이 보드랍고 연하지.) [이호]
쉬정 명 [전역] → 수정.
쉬정-체움 명 [전역] → 수정-체움.
쉬-쳉빗 명 서캐를 잡는 데 쓰이는 살이 가는 참빗. [전역]

쉬-치레 명 [전역] → 수-치레.
쉬-프리 명 <동> 쉬-파리(-蠅). [전역] 고 쉬프리.
쉰 수 쉰(五十). [전역] 고 쉰.
쉰-내 명 쉰-내. ① 음식이 상한 냄새. [전역] ② 땀 냄새. [전역]
쉰-다리 명 <음> 쉰 듯한 밥에 누룩을 넣고 발효시켜 만든 음료(飮料). 여름철에 많이 해 먹음. [전역] = 순-다리.
쉰작 명 <동> [수산 조천 노형] → 순작.
쉽다 형 쉽다(易). [전역]
쉽사리 부 쉽-사리. [전역]
쉽싸리 명 <식> 비수리. [전역] = 물-너울, 비치락-낭, 쉘사리.
슝계 명 흉계(凶計). [전역] = 숭계.
스렁 명 [수산] → 벡장.
스르르 부 스르르. [전역]
스르릉-스르릉 부 쓱싹-쓱싹. [전역]
스믈-스믈 부 스멀-스멀. 살갗에 벌레가 기어가는 것처럼 근질근질한 느낌. [전역]
스승 명 스승(師傅). [전역]
스폰지-데왁 명 <어> [전역] → 나이롱-테왁.
슥 명 <동> [노형 인성] → 식.
슥- 두 '검은'이란 뜻으로 쓰이는 접두사. [전역]
슥-돗 명 <동> [노형 수산] → 숙-돗.
슥-뒈야지 명 <동> [수산 김녕 노형] → 숙-돗.
슥-쉐 명 <동> [수산 인성 가시] → 숙-쉐.
슥-어럭쉐 명 <동> [노형] → 식-어럭쉐.
슬강-슬강 부 설경-설경. ① 설익은 밤이나 콩이 씹히는 소리. [전역] ② 식칼 따위를 가는 소리. [전역]
슬게 명 [전역] → 실게.
슬긔-ᄒᆞ다 동 어린애가 무엇을 달라고 꾀를 부리며 졸라대다. [조수 어도] = 실게-ᄒᆞ다, 실기-ᄒᆞ다.
슬랑-슬랑[1] 부 설렁-설렁. [전역]
슬랑-슬랑[2] 부 절렁-절렁. [전역]
슬슬 부 슬슬. [전역]
슬짝-슬짝 부 슬쩍-슬쩍. [전역]
슬픈-깐 명 ① 무엇을 먹고 싶지 않은 심경(心境). [전역] ② 무슨 일을 하고 싶지 않은 심경. [전역] = 실픈-깐.
슬피 부 실컷. 마음에 하고 싶지 않을 때까지. [전역] = 실컷, 실큰, 실킛, 실피.
슬흔-쏠 명 쓿은-쌀(精米). [전역] = 실흔-쏠.
습관(習慣) 명 습관. [전역] = 십관.
습종(濕腫) 명 <병> 습종. [전역]
습ᄌᆞ 명 습자(習字). [전역]
승매-신 명 [태흥 노형 세화 조천 조수] → 미투리.
싀굽이진-사데 명 <요> 세 굽이로 꺾어서 느리게 부르는 밭매는 노래의 한 가지. [상가 어도 신촌]
싀물 수 [전역] → 수물.
싀상-번 명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번거롭고 요란스러운 일. 세상살이의 번요(煩擾). *싀상번이 애기네 번가.(세상번(世上煩)이 아기네 번(煩)인가.) [전역]
싀-커름 명 [노형] → 세-커림.
싀-커림 명 [대정] → 세-커림.

싀콜-방에 명 [애월] → 세콜-방에.
싁-돗 명 <동> [인성 서홍 김녕] → 삭-돗.
싁-뒈야지 명 <동> [노형 조수 인성] → 삭-돗.
싱매-신 명 [인성] → 미투리.
시-가령 명 시집의 식구들이 며느리를 상대로 얄밉게 피우는 거드름. *시누이야 시가령 말라.(시누이야 거드름을 피우지 마라.) [전역] = 씨-가령, 씨-거둥.
시갑-씰 명 [어도] → 삼갑-씰.
시-건방지다 형 [전역] → 시-검방지다.
시-검방지다 형 시-건방지다. [전역] = 시-건방지다.
시게-돌림 명 <병> 유행성 질병. [전역]
-시고테 어미 지난 일에 대한 원인이나 근거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이거 그땐 겨울인디, 아무 사름 와시고테 하르방 그 전의 경 골안 ᄒᆞ고 ᄒᆞ나네, 간 문지두리 싯엉 멕이렝 ᄒᆞ여 신고라.(이거 그때는 겨울인데 어떤 사람이 왔기에 할아버지가 그 전에 그렇게 말하고, 가서 문지도리 씻어서 먹이라고 하였던지.) [전역]
시구룽-ᄒᆞ다 부 맛이 조금 시듯하다. [전역]
시국 명 시국. 주로 제주4·3사건 때를 말함. *우리 아덜은 시국에 죽엇주.(우리 아들은 시국에 죽었어.) [전역]
시궁-굴 명 [수산 가시 김녕] → 시궁-창.
시궁-창 명 시궁-창. [노형 조수 인성] = 시궁-굴.
시금-지다 형 맛이 조금 시금하다. [전역]
시금초 명 <식> [노형 조수] → 시금치.
시금치 명 <식> 시금치. [인성 서홍 수산 가시 김녕] = 시금초.
시금치랑-ᄒᆞ다 형 시척지근-하다. [전역]
시금트랑-ᄒᆞ다 형 시금떨떨-하다. [전역]
시기다 동 시키다. [전역]
시-꺼멍ᄒᆞ다 형 시-꺼멓다. [전역]
시꾸다 동 [전역] → 시꾸우다.
시꾸우다 동 꿈에 나타나 보이다. *요즘 아버지가 자꾸 시꽘수다.(요즘 아버지가 자꾸 꿈에 나타나 보입니다.) [전역] = 시꾸다.
시끄다[1] 동 싣다(載). [전역] = 시르다, 실르다[2].
시끄다[2] 동 징그다. [전역]
시끄럽다 형 시끄럽다. [전역]
시녁-가다 동 시집-가다. [전역]
시녕오는-날 명 직-날. 학질의 증세가 발작하는 날. [전역]
시님 명 스님(師僧). [전역]
시다 형 시다. 초와 같은 맛이 있다. [전역]
시돌 명 밭-둑. [전역] = 시둑, 시둘.
시동-주다 동 <농> 농작물에 똥, 퇴비 따위를 주다. [노형 조수] = 시둥-주다.
시두에 명 어린애가 어른을 시달리게 하는 짓. [인성 서홍 조수 가시] = 수두에.
시둑 명 [상예] → 시돌.
시둘 명 [전역] → 시돌.
시둥-주다 동 [김녕 조수] → 시동-

주다.

시들다 동 시들다. ① 꽃이나 풀 따위가 말라 생기가 없어지다. [전역] ② 몸의 기력이나 기운이 빠져서 생기가 없다. [전역]

시들-시들 부 시들-시들. [전역]

시라미 명 <식> [조수] → 시러미.

시랑시랑-ᄒᆞ다 형 세력·권력이 있다. [전역] = 싱싱-ᄒᆞ다.

시러미 명 <식> ① 시로미. [전역] ② 시로미나무의 열매.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가시] = 시라미, 시럼비, 시로미, 시루미.

시럼비 명 [수산 김녕] → 시러미.

시렁 명 [서홍 가시] → 벽장.

시렁-귀틀 명 [수산 서홍 가시] → 벽장-귀클.

시렁-목 명 <의> 무명천의 하나. [전역]

시로미 명 <식> [전역] → 시러미.

시루미 명 <식> [전역] → 시러미.

시르다 동 [전역] → 시끄다[1].

시륵-시륵 부 찌릿-찌릿. 몸의 일부가 저리는 느낌. [전역]

시름 명 시름. [전역]

시름 독 구 시름이 그득 찼으리라 여겨지는 상상의 항아리. *시름 독아 벌러나지라, 시름조차 지낭 가불게.(시름 독아 깨어져라, 시름조차 지나서 가 버리게.) [전역]

시름-엇다 형 [전역] → 시름-읏다.

시름-읎다 형 [전역] → 시름-읏다.

시름-읏다 형 시름-없다. [전역] = 시름-엇다, 시름-읎다.

시름-초 명 [전역] → 시름-쵀.

시름-쵀 명 담배를 비유해서 부르는 말. 시름을 달래기 위하여 피우는 풀이라는 뜻임. *홀어멍은 시름쵀.(홀어머니는 담배.) [전역] = 시름-초.

시리 명 <도> 시루(甑). [전역] 고 시르.



시리

시리-떡 명 <음> 시루-떡(甑餠). [전역] = 친-떡, 침-떡.

시릿-마개 명 시룻-번.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고소릿-띠, 고소릿-마개.

시릿-방석 명 <도> 시룻-방석(甑--). [전역]

시만곡-대제 명 <민> 만곡-대제(萬穀大祭). 구, 시월에 벌이는 당굿. [전역]

시문 명 신문(神門). 무덤을 겹담으로 두른 산담에 문처럼 만든, 무덤 주인의 출입구. [전역] = 신문.



시문

시발-쒜 명 삼발-이. [전역] = 세발-쒜.

시백이다 동 일을 정해진 날짜에 맞추

어서 맞물리다. *ᄒᆞᆫ ᄃᆞᆯ 육장 시백인 맹긴장 또 장의 시백인 맹긴.(한 달 여섯장 때 정한 망건장 또 장에 때 정한 망건.) [전역]

시벳쳇-새끼 명 세 번째로 낳은 짐승의 새끼. [전역] = 세벳쳇-새끼.

시-뻘겅ᄒᆞ다 형 시-뻘겋다. [전역]

시상 명 [전역] → 세상(世上).

시상-읏어도 부 [전역] → 세상-읏어도.

시세-나다 동 ① 물건 가격이 정하여지다. [전역] ② 물건 값이 좋아지다. [전역]

시세-엇다 형 [전역] → 시세-읏다.

시세-읎다 형 [전역] → 시세-읏다.

시세-읏다 형 시세가 닿지 않다. [전역] = 시세-엇다, 시세-읎다.

시숫-ᄉᆞ레 명 [조수 인성] → 세숫-대양.

시시리-실피 부 아주 실컷. *임이 죽은 영신이거든 시시리실피 울고나 가라.(임이 죽은 영신이거든 실컷 울고나 가라.) [전역]

시안-상 명 <민> 서안-상(書案床). [전역]

시알 명 시샘. [전역]

시알-ᄒᆞ다 동 시샘-하다. [전역]

시영-어멍 명 [전역] → 수양-어멍.

시예 명 <민> 신에게 받아 올리는 제수(祭需). [전역]

시-오름[1] 명 <지> [전역] → 닥ᄆᆞᆯ-오름.

시-오름[2] 명 <지> [전역] → 숫-오름[1].

시-오름[3] 명 <지> [전역] → 세-오름.

시왕 명 <민> 저승과 인간의 생명을 관장하는 신(神). [전역]

시왕-대 명 <민> 시왕맞이 굿 때에 시왕(十王)의 신상(神像)인 '시왕멩감기'를 졸라맨 대. 심방이 이 대를 들고 굿을 함. [전역]

시왕-대번지 명 <민> 신칼(神刀)을 달리 일컫는 말. [전역]

시왕-ᄃᆞ리 명 <민> 제장의 천장으로부터 시왕의 제붕(祭棚)인 시왕당클까지 연결한 큰대에 매어진 무색천. [전역]

시왕-맞이 명 <민> 시왕(十王)을 맞아들여 기원하는 의례. [전역]

시왕-멩감기 명 <민> 시왕맞이 굿을 할 때 심방이 드는 '시왕대'에 묶은 시왕(十王)의 신상(神像). [전역]

시왕-청너울 명 <민> 신칼 끈. [전역]

시우롱-ᄒᆞ다 형 음식 맛이 조금 신 듯하다. [전역]

시원-ᄒᆞ다 형 시원-하다. [전역] = 씨원-ᄒᆞ다.

시장-기 명 시장-기(-氣). [전역]

시절(時節) 명 시절. [전역] = 시철.

시주그랑-ᄒᆞ다 형 일기가 조금 추울 정도로 서늘하다. [노형 수산 인성 서홍 수산]

시중 명 시중(侍從). [전역]

시철 명 [수산] → 시절.

시치렁-ᄒᆞ다 형 너무 선선하여 조금 추운 듯하다. [김녕 어도]

시침-ᄒᆞ다 동 시침-하다. [전역]

시-커리 명 [전역] → 세-커림.

시-커림 명 [전역] → 세-커림.

시커림-질 명 세거리-길(三岐路). [전역] = 세커림-질, 세커릿-질, 시커릿-질.

시커릿-질 명 [전역] → 시커림-질.

시-커멍ᄒᆞ다 형 시-커멓다. [전역]
시커줌-삭삭 부 오줌을 시원히 누는 소리. [전역]
시-퍼렁ᄒᆞ다 형 시-퍼렇다. [전역]
시험-추리다 동 시험-보다. 과거를 보다. [전역]
시호 명 <식> 오이-풀. [전역]
식 명 <동> 삵-괭이(狸). [전역] = 슥. ㊟삵, 삵.
식개 명 [전역] → 식게.
식게 명 기-제사. 조상(祖上)이 죽은 날에 제사(祭祀)를 지내고 제관(祭官)들이 제물을 음복하는 일. *대소상이 나고 식게도 서너 번 넘엇는디.(대소상(大小祥)이 넘고 '식게'도 서너 번 넘었는데). *(속) 동네칩 식게 넘어나민, 사을 불 안 숨나.(동넷집 제사를 지내고 나면, 사흘 동안 불을 안 땐다.) *(속) 이녁 집 식게 몰르멍, 놈이 집 식게 알카?(자기 집 제사 모르면서, 남의 집 제사 알까?) *(속) 식게칩 아이 몹씬다.(제삿집 아이 성미가 사납다.) *(속) 가난ᄒᆞᆫ 집 식게 돌아오듯 ᄒᆞᆫ다.(가난한 집 제삿날 돌아오듯 한다.) *(속) 가매기 모른 식게.(까마귀 모른 제사.) *(속) 새해 못ᄒᆞᆯ 식게 시랴.(새해 못 할 제사 있을까.) [전역] = 식개.
식게 고방 구 어린이들이 제사 치르는 시늉을 흙장난하며 노래하는 구절. *식게 곱앙 식게 곱앙.(제사 '곱앙' 제사 '곱앙'.) [전역]
식게 먹다 구 가까운 친척이 기제사를 치르는 집을 찾아가 참례하고 음복하다. [전역]
식게-퉤물 명 <음> 제사를 지낸 후 남은 음식. [전역]
식구(食口) 명 식구. [전역] = 식귀.
식귀 명 [전역] → 식구(食口).
식-낭 명 <식> 식-나무. [전역] = 심-낭.
식다[1] 동 식다(冷). [전역]
식다[2] 형 밭의 토질이 차지지 못하여 헤식다. [노형 김녕 인성 조수 서홍]
식다[3] 형 성깔이 헤식다. [전역]
식산-봉(食山峰) 명 <지> [성산] → 바우-오름.
식산-악(食山岳) 명 <지> [성산] → 바우-오름.
식솔(食率) 명 식솔. [전역] = 식술.
식술 명 [전역] → 식솔(食率).
식-쉐 명 <동> [서홍 김녕] → 숙-쉐.
식식 감 소, 돼지 따위를 모는 소리. [전역]
식-어럭쉐 명 <동> 털빛이 흑황백색(黑黃白色)으로 얼럭덜럭한 소. [화순 하원 서홍 태흥 표선 수산 세화 조천] = 슥어럭-쉐.
식은-땅 명 <농> 화산회토(火山灰土)로 푸석진 성질을 갖고 있는 땅. [중문]
식은-똠 명 [인성 하원 어도] → 선-똠.
식은-밥 명 <음> 찬-밥. [전역]
식은본-풂 명 <민> 백정 수호신을 위한 굿인 거무영청대전상굿에서 백정들이 하던 대로 돼지를 잡으며 그 과정을 사설로 풀어내는 의례. [전역]
식전-바랑(食前--) 명 식전-바람. [전역]
식전-참 명 식전-참(食前站). [전역]

식충-다리 명 식충-이. 밥만 먹고 하는 일 없이 지내는 사람을 비난조로 이르는 말. [전역] = 식충-이.
식충-이 명 [전역] → 식충-다리.
식-킹이 명 <동> 등어리에 검정과 갈색 무늬가 있는 게. *깅이도 식킹이, 춤깅이, 똥깅이.(게도 '식킹이', 참게, '똥깅이'.) [하귀 이호] = 싯-깅이.
신[1] 명 신. 버선발이나 맨발에 신는 물건. [전역] = 신발.
신[2] 명 신명. 흥겨운 신과 멋. *심방이사 신 물러가난 신멩뒤로 신 살아온다, 방에도사 신 물러가난 놀레로사 신 살아 온다.(무당이야 신 물러가니 신명도로 신 살아 온다, 방아도야 신 물러가니 노래로야 신 살아 온다.) [전역]
신-감개 명 [인성 노형] → 신-갱기.
신-감상 명 <민> [전역] → 감상-기.
신-강개 명 [서홍] → 신-갱기.
신-갱기 명 신-갱기(鞋--). [전역] = 신-감개, 신-강개.
신거미-연줄 명 <민> 제주도 남동부 지역의 심방 집 굿에서 무업(巫業)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원하는 연극적인 제차. [태흥 표선]
-신고라 어미 -였는지. [전역]
신-골 명 신-골(鞋-). [전역]
신-과세(神過歲) 명 <민> 매년 정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 신(神)에게 드리는 세배. [전역]
신광-마을(新光--) 명 <지> 제주시 연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신-깍 명 신-총. 짚신 따위의 앞쪽에 박힌 낱낱의 신울. [전역]
신깍-신 명 짚신의 운두 격인 총을 가장 성기게 만든 짚신. [건입]
신-놀 명 신-날(鞋-). [전역]
신다 동 신다. [전역]
신달레 명 <식> [전역] → 신돌위.
신달레-꼿 명 <식> [인성] → 진달레-꼿.
신달레-낭 명 <식> [전역] → 신돌위.
신더레 조 ①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키는 명사나 대명사에 붙어서, 그 명사나 대명사가 문장의 주어와 맞서는 자리에 서게 하는 상대격 조사. [전역] ② 사람이나 짐승을 가리키는 명사나 대명사에 붙어서, 그 명사나 대명사가 무엇을 받는 자리에 서도록 하는 여격 조사. [전역] = 신데레, 신드레.
신데레 조 [전역] → 신더레.
신-돌 명 [전역] → 씬-돌.
신-돌갱이 명 [하원 태흥 수산 세화 조천 노형 어도 조수] → 신-돌기.
신-돌기 명 당감잇-줄. 발에 맞게 짚신을 조절하는 끈. [인성 화순 태흥 수산 조수] = 신-돌갱이, 신-돌겡이, 신-돌기.
신돌-바대 명 숫돌을 세우는 나무틀. [아라] = 신돌-틀.
신돌-틀 명 [전역] → 신돌-바대.
신-뒤치기 명 신-뒤축(鞋--). [전역]
신드레 조 [전역] → 신더레.
신듸 조 ①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나 대명사에 붙어서, 그 명사나 대명사로 표시되는 사람이 어떤 물건의 소유주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②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나 대명사에 붙어서, 그 명사나 대명사가 어떤 행동의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이방 성방신듸 문세 ᄆᆞᆫ딱 매껴 두고.(이방(吏房) 형방(刑房)에게 문서를 모두 맡겨 두고.) [전역] ③ 명사나 대명사에 붙어서, 그 명사나 대명사가 문장의 주어와 맞서는 자리에 서게 하는 상대격 조사. [전역] ④ 명사나 대명사에 붙어서, 그 명사나 대명사가 무엇을 받는 자리에 서게 하는 여격 조사. ＊어멍이 ᄆᆞᆫ저 알아 가지고 아ᄃᆞᆯ신듸 전달을 ᄒᆞ여 불엇어.(어머니가 먼저 알아서 아들에게 전달하여 버렸어.) [전역] = 신디.

신듸랑 조 사람을 가리키는 명사나 대명사에 붙어서, 그 명사나 대명사가 어떤 행동이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신듸'에 '는'의 뜻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랑'이 결합된 격조사. [전역]

신디 조 [전역] → 신듸.

-신디 어미 -인지. 선어말어미 '-아-·-어-·-여-·-라-' 또는 '-암-·-엄-·-염-·-람-' 등에 연결되어서, 막연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또는 종결어미. [전역]

신-돌 명 <도> 들메-끈. [전역]

신-돌겡이 명 <도> ＊신이 족아 뵈면은 신ᄃᆞᆯ겡이를 늦추면 늘어날 거, 늦이민 ᄇᆞ뜰 거.(신이 작아 보이면은 '신ᄃᆞᆯ겡이'를 늦추면 늘어날 거, 느슨하면 밭을 거.) [송당] → 신-돌기.

신-돌기 명 [서홍 표선] → 신-돌기.

신돌-메다 동 [전역] → ᄃᆞᆯ-메다.

신돌위 명 <식> 참꽃-나무. [전역] = 신달레, 신달레-낭.

신랑(新郎) 명 신랑. [전역]

신머들-동네 명 <지> 제주시 건입동 '신머들(제주동초등학교 남쪽)' 일대에 형성되었던 동네. [전역]

신-메움 명 <민> 큰굿의 맞이굿에서 각 제차에 해당하는 신명을 나열하는 의례. [전역]

신멩두-치메 명 <민> 신칼 끈. [전역]

신목사 타령 명 <요> [성읍] → 관덕정 앞.

신문(神門) 명 [전역] → 시문.

신-물 명 신-물. 음식에 체하였을 때 트림과 함께 위에서 목으로 넘어오는 시척지근한 물. [전역]

신바람-군 명 심부름-꾼.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신부름-군, 신ᄇᆞ름-군.

신발 명 [전역] → 신[1].

신-볼 명 신-볼(鞋-). [전역]

신부(新婦) 명 신부. [전역]

신부름-군 명 [가시] → 신바람-군.

신ᄇᆞ름 명 심부름. [전역] = 신ᄇᆞᄅᆞᆷ, 심바람, 심부름.

신ᄇᆞ름-군 명 [수산] → 신바람-군.

신ᄇᆞᄅᆞᆷ 명 [노형 어도 조수] → 신ᄇᆞ름.

신-사데기 명 <식> [전역] → 사데기-낭[2].

신사라 명 <식> 신서란(新西蘭). 집 울타리 안에 심는 식물. 긴 잎을 두들겨 꼬아 밧줄 등을 만드는 데 사용함. [전역]

신산-동(新山洞) 명 <지> [전역] → 신산-ᄆᆞ르[2].

신산-ᄆᆞ르[1] 명 <지> ① 제주시 일도2



신사라

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② 제주시 일도2동의 한 지명. [전역]

신산-ᄆᆞ르[2] 명 <지> 제주시 도평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신산-봉(神山峰) 명 <지> [창천 감산 서광] → 신산-오름.

신산-오름(神山--) 명 <지> 서귀포시 안덕면 창천리 서쪽 일주도로변에 있는 오름. 표고 170미터. [창천 감산 서광] = 감-산(柑山), 신산-봉(神山峰).

신-새데기 명 흰-새더기. [전역]

신선-오름(神仙--) 명 <지> [아라 봉개 교래] → 돌-오름[1].

신-소미 명 <민> 신-소무(神小巫). 제석궁(옥황상제로부터 삼공까지의 신)의 제상(祭床)을 맡은 소무(小巫). [전역]

신-속 명 <식> [전역] → 신-숙.

신-숙 명 <식> 제비-쑥. [전역] = 신-속.

신-쉐 명 <동> 검은 색이 도는 누렁소. [전역]

신-쏘기 명 [수산] → 신-차세.

신-쒜기 명 [전역] → 신-차세.

신-쒜역 명 [가시] → 신-차세.

신안-동(新安洞)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의 한 자연마을. [조천]

신어럭-쉐 명 <동> 털의 빛은 검고 털끝은 회색(灰色)을 띠는 소. [전역]

신의-성방 명 <민> 신의-형방(神-刑房). [전역] → 심방①.

신-자리(神--) 명 <민> 굿을 할 때 제상(祭床) 앞에 깔아 놓는 돗자리. [전역] = 금마-벌석.

신-정평동(新靜坪洞) 명 <지> [용담] → 새-정드르.

신-조기 명 <동> 보구치. [전역] = 흰-조기.

신-질 명 <민> 신에게 역가(役價)를 바치는 당주맞이 신굿. 심방은 세 번 신길을 닦아야 큰심방으로 인정받는 상신충(上神充)이 됨. [전역]

신-차세 명 <도> 짚신을 삼을 때에 신날을 걸어서 발(足)로 번디디어 당기기도 하고 신뒤축 같은 데를 꾸부러지게 누르기도 하는 기구. [전역] = 신-쏘기, 신-쒜기, 신-쒜역.

신-착 명 신-짝. [전역]

신착-궤기 명 <동> 서대. [광령]

신첩-살렴 명 신접-살림.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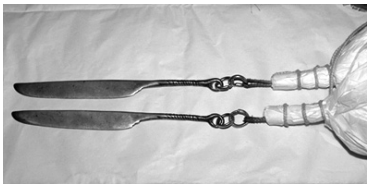
신청-궤 명 <민> 굿에서 신을 마중하여 청해 들이는 제차. [전역] = 오리-정, 오리정-신청궤.

신충(神充) 명 <민> 심방(巫覡). [전역]

신충-애기 명 아기가 자주 앓을 경우에 무사히 자라기를 바라는 뜻으로 몇 해 동안 '심방'(무당)의 자식으로 삼는 습속에서 그 아기를 가리키는 말. [전역]

신-칼 명 <민> 무당이 굿을 할 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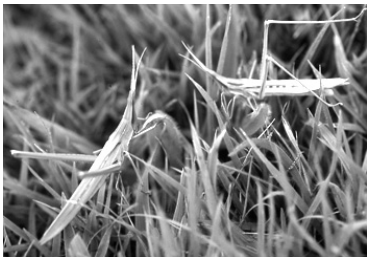
잡귀를 쫓아낼 때나 춤을 출 때 또는 점을 칠 때에 쓰는 칼. [전역] = 멩두-칼.



신칼

신칼-목 명 <민> 신칼의 손잡이. [온평]
신-클 명 신-틀. [전역]
실 명 [전역] → 씰.
실- 두 '가느다란'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접두사. [전역]
실강-실강 부 ① 설익은 콩이나 밤이 씹히는 소리. [전역] ② 식칼 따위를 가는 소리. [전역]
실개 명 [전역] → 실게.
실거리-낭 명 <식> [노형 어도] → 씰거리-낭.
실게 명 쓸개(膽). [전역] = 슬게, 실개, 씰게. 고 쁠게.
실게-ᄒᆞ다 동 [조수] → 슬긔-ᄒᆞ다.
실겡이 명 <식> 거름용 해초(海草)의 일종. [우도] = 실겡이-듬북.
실겡이-듬북 명 <식> [하도] → 실겡이.
실겨-보다 동 흘겨-보다. [전역] = 흘겨-보다.
실구다 동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흘기다.
실궁기-메우기 명 <민> [전역] → 올궁기-메우기.
실긋-실긋 부 흘깃-흘깃. [전역]
실기다 동 [전역] → 흘기다.
실기-ᄒᆞ다 동 [조수 어도] → 슬긔-ᄒᆞ다.
실려은-물 명 [전역] → 언-물.
실렵다 형 차가운 느낌이 있다. [전역]
실르다[1] 동 바수다. 쓿다. *나 말 종종 이르는 즈녀 산듸 사근 실러나지라.(내 말 야슬야슬 이르는 자녀선 데 서서는 바숴나 져라.) [전역]
실르다[2] 동 [전역] → 시끄다[1].
실리다 동 무너-지다. *영 이렇게 와쌍ᄒᆞ여서 실러져 분댄 말이우다.(이렇게 '와쌍하여서' 무너져 버린단 말입니다.) [구좌]
실멕 명 혈맥(血脈). [전역]
실명 명 <민> 백정들의 혼귀. [전역]
실명-풀이 명 <민> 백정 수호신을 위한 거무영청대전상굿에서 백정들의 내력을 풀이하는 의례. [전역]
실-웃다 형 실-없다. [전역]
실이다 동 [전역] → 실히다.
실짝-실짝 부 하고 싶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활기없이 하는 모양. [전역]
실컷 부 [전역] → 슬피.
실큰 부 [전역] → 슬피.
실쿳 부 [전역] → 슬피.
실턴-가심 명 슬프던 가슴. [전역]
실트락-실트락 부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참아 가며 느리게 하는 모양. [전역]
실프다 형 싫다. [전역]
실픈-깐 명 [전역] → 슬픈-깐②.
실피 부 *오늘 실피 놀앗저.(오늘 실컷 놀았다.) [전역] → 슬피.
실혼-쏠 명 [전역] → 슬혼-쏠.
실히다 동 시리다. [전역] = 실이다.

실-ᄒᆞ다 형 실-하다(實--). [전역]
심 명 힘(力). [전역] = 힘[2].
-심 어미 동사 어간에 붙어서 손아랫사람에게 그 행동하기를 친밀하게 권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주로 부녀자들 사이에서 씀. *이젠 그만 놀앙 일ᄒᆞ심.(이젠 그만 놀고 일하게.) [전역]
심-낭 명 <식> [전역] → 식-낭.
심다[1] 동 붙-잡다. 잡다. [전역]
심다[2] 동 심다(植). [전역] = 싱그다.
심드렁-펀펀 부 급한 일이 있거나 말을 하여도 응하지 않고 모른 척하는 모양. [전역]
심드렁-ᄒᆞ다 형 마음에 두지 않다. 무심-하다(無心--). [전역] = 심뜨렁-ᄒᆞ다.
심-들다 형 힘-들다. [전역] = 힘-들다.
심뜨렁-ᄒᆞ다 형 [노형] → 심드렁-ᄒᆞ다.
심바람 명 [전역] → 신ᄇᆞ름.
심방 명 <민> ① 무당. *(속) 갓쟁이 헌 갓 씨곡, 심방 놉 빌엉 굿ᄒᆞ곡.(갓장수 헌 갓 쓰고, 무당 놉 빌려 굿하고.) [전역] = 신의-성방. ② 크게 널리 나다니며 무당질을 하지 않고 소소(小小)히 하는 무당(巫堂). [전역] 고 심방.
심방-겡이 명 <동> 두점박이민꽃-게. [수산 가시 김녕] = 도롱-깅이, 심방-긍이, 심방-깅이.
심방귀 명 [어도] → 숨방귀.
심방-긍이 명 <동> [조수] → 심방-겡이.
심방-깅이 명 <동> [서홍] → 심방-겡이.
심방-나비 명 <동> 범-나비. [전역] 고 범나븨.
심방-만축 명 <동> 방아-깨비. [인성 화순 하원 어도 조수 가시] = 산뒤-말축, 산듸-말축, 산전-ᄇᆞᆯ라기, 산전-ᄇᆞᆯ락, 상둥-말축, 심방-말축.



심방만축

심방-말축 명 <동> [서홍 태흥 수산] → 심방-만축. 고 방하아비.
심벡-ᄒᆞ다 동 겨루다. *막 심벡ᄒᆞ멍 바다에 강 짠물 질어당 오줌 항아리에 비왕, 또 밧듸 져 가곡.(막 경쟁하면서 바다에 가서 짠물을 길어다가 오줌 항아리에 부어서, 또 밭에 지어서 가고.) [전역]
심부름 명 [수산] → 신ᄇᆞ름.
심사 명 심사. [전역]
심상-이 부 무심-히. 심상하게. [전역]
심상-ᄒᆞ다 형 무심-하다. 심상-하다. [전역]
심술(心術) 명 심술. [전역]
심술-궂다(心術--) 형 심술-궂다. [전역]
심술-꾸레기(心術----) 명 심술-꾸러기. [전역] = 심술-다리, 심술-쟁이.
심술-다리(心術--) 명 [전역] → 심술-꾸레기.

심술-머리(心術--) 명 심술-딱지. [전역]
심술-부리다(心術---) 동 심술-부리다. [전역]
심술-쟁이(心術--) 명 [전역] → 심술-꾸레기.
심술-풀이(心術--) 명 온당하지 못하게 남을 시기하여 심술을 부리는 일. [전역]
심숭-삼숭 부 싱숭-생숭. *잔에다 턱 비완 주니 심숭삼숭 아무것도 아니 주마는 쑥 들이키더니.(잔에다 턱 따라서 주니 싱숭생숭 아무것도 아니지만 쑥 마시더니.) [전역]
심숭-ᄒᆞ다 형 맛 따위가 심심하다. *안주는 미신 열맨디 먹어 봣자 심숭해여.(안주는 무슨 열매인지 먹어 봤자 심심해.) [표선]
심심-ᄒᆞ다 형 심심-하다. [전역]
심ᄉᆞ 명 심사(心思). [전역]
심-쓰다 동 힘-쓰다. [전역] = 힘-쓰다.
심어-가다 동 붙잡아-가다. 달아나지 못하게 붙들어 잡아서 가다. [전역]
심어-메다 동 붙잡아-매다. 달아나지 못하게 붙들어 잡아서 묶다. [전역]
심으젱이 명 심술(心術). [전역]
심정-머리 명 '심정'의 낮춤말. [전역]
심-줄 명 힘-줄. [전역] = 씸, 씸-줄.
심줄-거리 명 홀떼기. 짐승의 힘줄이나 근육 사이에 박힌 질긴 고기. [전역] = 심줄-궤기.
심줄-궤기 명 [전역] → 심줄-거리.
심-지다 동 붙-잡히다. 잡게 하다. [전역]
심토맥이 엇다 구 인정이 없다. 야박-하다.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 채우다. [전역]
십관 명 [전역] → 습관.
-십서 어미 -십시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행동의 주체자이고 상대자인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하십시오' 하는 뜻을 나타내는 존대 명령법 어미. *밤질이난 멩심ᄒᆞ연 가십서.(밤길이니 명심하여 가십시오.) [전역]
십수 명 말의 나이 열 살. [전역]
십일-월 명 십일-월(十一月). [전역]
싯 수 [전역] → 셋.
싯-깅이 명 [판포] → 식-킹이.
싯-낭 명 [인성] → 셋-줴.
싯다[1] 동 씻다(洗). [전역]
싯다[2] 동 [전역] → 잇다[2].
싯다[3] 형 [전역] → 잇다[3].
싯-줴 명 [노형 조수] → 셋-줴.
싱강 부 쇠붙이로 된 연장이 흔들리거나 부딪쳐서 나는 소리. [전역]
싱갱이 명 [전역] → 싱겡이.
싱겁다 형 싱겁다. [전역]
싱겡이 명 승강-이. 서로 자기의 주장을 고집하며 옥신각신하는 일. [전역] = 싱갱이.
싱그다 동 [전역] → 심다[2].
싱그리다 동 [노형 조수 서홍 수산 김녕] → 찡그리다.
싱글싱글-ᄒᆞ다 동 싱글싱글-하다. [전역]
싱삐-왓 명 <농> '빌레'로 이루어진 땅 위에 흙이 얕게 덮여 있어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가물면 땅이 쉬 말라 버려 농사 짓기가 까다로운 밭. [온평 신산] = 싱피-왓.

싱싱-ᄒᆞ다 명 *그 사름은 성제간이 싱싱ᄒᆞ다.(그 사람은 형제간이 세력이 있다.) [전역] → 시랑시랑-ᄒᆞ다.
싱크리다 동 [노형 조수] → 찡그리다.
싱피-왓 명 [온평] → 싱삐-왓.
ᄉᆞ가 명 사가(私家). [전역]
ᄉᆞ가-웨 명 <식> 수세미-외. [인성 노형 조수 서홍 수산 가시]



ᄉᆞ가웨

ᄉᆞ각 명 사각(四角). [전역]
ᄉᆞ건 명 사건(事件). [전역]
ᄉᆞ고 명 사고(事故). [전역]
ᄉᆞ-궤맞춤 명 <건> 사개-맞춤. 모서리에서 여러 갈래의 장부를 만들어 깍지 끼듯이 엇갈리게 한 맞춤. [전역]
ᄉᆞ꼬다 동 솎다. 빽빽이 서 있는 나무나 풀 따위를 군데군데 골라 뽑다. [전역] = ᄉᆞ끄다.
ᄉᆞ-꼰 명 [조수 노형 인성] → 네팔-꼬녀.
ᄉᆞ끄다 동 [전역] → ᄉᆞ꼬다. 고 속고다, 솟고다.
ᄉᆞ끼 명 새끼(繩). [전역] = 숫, 숫-ᄂᆞ끼, 숫-메끼, 쩝-ᄉᆞ끼.
ᄉᆞ나의 명 [노형 조수 인성 김녕 수산] → 소나의[1]. 고 ᄉᆞ나히.
ᄉᆞ나의-놈 명 [노형 조수 인성 수산 가시 김녕] → 소나의-놈.
ᄉᆞ나의-사돈 명 [노형 수산 김녕] → 밧-사돈.
ᄉᆞ나의-상제 명 [김녕 수산] → 밧-상제.
ᄉᆞ나이 명 [노형 조수 인성 김녕 수산] → 소나의[1].
ᄉᆞ다 동 [전역] → 사다[2].
ᄉᆞ답 명 [노형 조수 김녕] → 서답.
ᄉᆞ답-구덕 명 <도> 빨랫감을 담아 운반하는 바구니. [전역]
ᄉᆞ답-마께 명 <도> [인성 어도] → 서답-마께.
ᄉᆞ당 명 사당(祠堂). [전역]
ᄉᆞ-당클 명 <민> 큰굿을 할 때 마루의 네 벽에 선반처럼 달아매어 꾸미는 기본 당클. [전역]
ᄉᆞ당클-굿 명 <민> 큰굿을 할 때 마루의 벽에 달아매는 선반을 넷 갖춘 굿으로 가장 규모가 큰 굿. [전역]
ᄉᆞ-뒈 명 <도> 일정한 규격에 맞추지 않고 사사로이 만들어서 쓰는 되. [전역]
ᄉᆞ라기 명 싸라기. [인성 노형 조수] = ᄉᆞ레기. 고 ᄉᆞ라기.
ᄉᆞ라기-눈 명 [노형 서홍 어도] → ᄉᆞ레기-눈.
ᄉᆞ락-눈 명 [인성 조수 수산 김녕] → ᄉᆞ레기-눈.
ᄉᆞ락-ᄉᆞ락 부 싸라기눈 같은 것이 내리는 모양. 만지거나 스칠 때 부드럽고 상쾌한 느낌이 나는 모양. *ᄉᆞ락눈은 ᄉᆞ락ᄉᆞ락.(싸라기눈은 싸락싸락.) [전역]
ᄉᆞ람-ᄉᆞ람 부 조금 알맞게 긴 듯한 모양. [전역]

ᄉᆞ랑 명 사랑(愛). [전역]
ᄉᆞ랑-간 명 [전역] → ᄉᆞ랑-방.
ᄉᆞ랑-방 명 사랑-방(舍廊房). [전역] = ᄉᆞ랑-간.
ᄉᆞ랑-ᄉᆞ랑 부 노래를 듣기에 경쾌하게 부르는 모양. ＊선소리랑 궂일망정 훗소리랑 ᄉᆞ랑ᄉᆞ랑.(선소릴랑 궂을망정 훗소릴랑 설렁설렁.) [전역]
ᄉᆞ레기 명 [전역] → ᄉᆞ라기.
ᄉᆞ레기-눈 명 싸라기-눈(---雪). [전역] = ᄉᆞ라기-눈, ᄉᆞ락-눈.
ᄉᆞ련이-오름 명 <지> [남원] → 사려니.
ᄉᆞ렴-ᄉᆞ렴 부 곰곰-이. ＊ᄉᆞ렴ᄉᆞ렴 난 셍각ᄒᆞ민 눈물 진다.(곰곰이 난 생각하면 눈물 떨어진다.) [전역]
ᄉᆞ록 명 <민> 일을 안 되게 하는 사기(邪氣). [전역]
ᄉᆞ록-ᄉᆞ록 부 노래 따위를 거침없이 잘하는 모양. ＊ᄉᆞ략 초권을 읽어시냐? ᄉᆞ록ᄉᆞ록 잘ᄒᆞᆫ다.(사략 초권을 읽었느냐? 술술 잘한다.) [전역]
ᄉᆞ르르 부 아주 살그머니 저절로 풀어지는 모양. [전역]
ᄉᆞ리 명 [전역] → ᄉᆞ시.
ᄉᆞ리다 동 종이 따위를 날이 있는 연장으로 베다. [전역]
ᄉᆞ리-비 명 <도> [전역] → ᄊᆞ리-비차락.
ᄉᆞ만이 명 <민> 저승 차사. [전역]
ᄉᆞ만이-본풀이 명 <민> [전역] → 멩감-본풀이.
ᄉᆞ망[1] 명 사망. 장사에서 이익을 많이 얻는 재수. ＊그거 춤 ᄉᆞ망일엇저.(그것 참 사망이 일었다.) [전역] 고 ᄉᆞ망.
ᄉᆞ망[2] 명 사망(死亡). [전역]
ᄉᆞ망-일다 동 사망-일다. 재수가 좋은 일이 생기다. 운이 좋은 일이 생기다. [전역]
ᄉᆞ모 명 <의> 사모(紗帽). [전역]
ᄉᆞ모-관디 명 사모-관대(紗帽冠帶). [전역]
ᄉᆞ무 명 사무(事務). [전역]
ᄉᆞ문-절박 명 <민> 사문-결박(私門結縛). 본래 '백성을 잡아다가 사사로이 결박하는 일'의 뜻이나, 굿에서는 흔히 온몸을 결박함을 나타낼 때 씀. [전역]
ᄉᆞ뭇 부 사뭇. [전역] 고 ᄉᆞᄆᆞᆺ.
ᄉᆞ미 명 소매(袖). [전역] 고 ᄉᆞᄆᆡ.
ᄉᆞ-밀 명 쌀알이 잘고 가루도 그다지 희지 못한 재래종 밀. [전역]
ᄉᆞ방 명 사방(四方). [전역]
ᄉᆞ범 명 사범(師範). [전역]
ᄉᆞ베 명 사배(四拜). [전역]
ᄉᆞ벤 명 [전역] → ᄉᆞ변.
ᄉᆞ변 명 사변(事變). [전역] = ᄉᆞ벤.
ᄉᆞ상 명 사상(思想). [전역]
ᄉᆞ셍 명 사생(死生). [전역]
ᄉᆞ수 명 말(馬)의 나이 네 살. [전역] = ᄉᆞ쉬.
ᄉᆞ수-마 명 <동> [전역] → ᄉᆞ쉬-매.
ᄉᆞ쉬 명 [전역] → ᄉᆞ수.
ᄉᆞ쉬-매 명 <동> 나이가 네 살이 된 말. [전역] = ᄉᆞ수-마.
ᄉᆞ시 명 근처. 근방. [전역] = ᄉᆞ리.
ᄉᆞ신-요왕 명 <민> ① 바다를 관장하는 신. [전역] ② 바다. [전역]
ᄉᆞ실 명 사실(事實). [전역]
ᄉᆞᄉᆞ로-이 부 사사로-이. [전역]

ᄉᆞᄉᆞᆺ-집 명 사삿-집(私家). [전역]
ᄉᆞ양 명 사양(辭讓). [전역] = 세양.
ᄉᆞ용 명 사용(使用). [전역]
ᄉᆞ월 명 사월(四月). [전역]
ᄉᆞ월남대문-ᄀᆞ뭄 명 <민> 음력 4월의 가뭄을 이르는 말. *ᄉᆞ월남대문ᄀᆞ뭄에 소금 하영 멘들아나십주.(음력 사월 가뭄에 소금을 많이 만들었었지요.) [태흥]
ᄉᆞ월쒜 구 [전역] → ᄉᆞ월이.
ᄉᆞ월이 구 음력 사월에 아기를 낳았을 때에 이를 기념하는 뜻으로 어릴 때 붙이는 별명. [전역] = ᄉᆞ월쒜.
ᄉᆞ월-절 명 사월 절기. 24절기 중 입하 안팎. [상창]
ᄉᆞ유[1] 명 사유(事由). [전역]
ᄉᆞ유[2] 명 사유(私有). [전역]
ᄉᆞ이[1] 명 사이(間). ① 거리나 간격. [전역] ② 틈. [전역] ③ 동안. [전역] = 세[3]. 고ᄉᆞ이.
ᄉᆞ이[2] 명 사이. 사귀는 정분. [전역]
ᄉᆞ이-좋다 형 사이-좋다. 서로 뜻이 맞아서 친(親)하다. [전역]
ᄉᆞ장 명 사장(師丈). [전역]
ᄉᆞ정 명 사정(事情). [전역]
ᄉᆞ주-궂다 형 [전역] → ᄉᆞ쥐-궂다.
ᄉᆞ주-보다 동 [전역] → ᄉᆞ쥐-보다.
ᄉᆞ주-쎄다 형 [전역] → ᄉᆞ쥐-쎄다.
ᄉᆞ쥐-궂다 형 사주-사납다(四柱---). [전역] = ᄉᆞ주-궂다, ᄉᆞ쥐-놎다.
ᄉᆞ쥐-놎다 형 [전역] → ᄉᆞ쥐-궂다.
ᄉᆞ쥐-보다 동 사주-보다(四柱--). [전역] = ᄉᆞ주-보다.
ᄉᆞ쥐-쎄다 형 사주-세다. [전역] = ᄉᆞ주-쎄다.
ᄉᆞ투리 명 사투리. [전역]
ᄉᆞ퉤 명 사퇴(辭退). [전역]
ᄉᆞ환 명 사환(使喚). [전역]
ᄉᆞ훼 명 사회(司會). [전역] = 사훼[1].
ᄉᆞᆨ-돗 명 <동> 검고 누르스름한 털빛을 한 돼지. [노형 조수 인성] = ᄉᆞᆨ-돗, ᄉᆞᆨ-뒈야지, ᄉᆡᆨ-돗, ᄉᆡᆨ-뒈야지, ᄉᆞᆨ-뒈야지.
ᄉᆞᆨ-뒈야지 명 <동> [인성 서홍] → ᄉᆞᆨ-돗.
ᄉᆞᆨ-쉐 명 <동> 털빛이 흑황색(黑黃色)으로 얼럭덜럭한 소. [인성 조수 노형] = ᄉᆞᆨ-쉐, ᄉᆡᆨ-쉐.
ᄉᆞᆫ발-에 부 나서서 걸어다니던 그대로 이내. [전역]
ᄉᆞᆫ-일 명 선-일(立-). 서서 하는 일. [전역] = 산-일.
ᄉᆞᆫ자국-에 부 걸어다니다가 쉬어 보지 않고 곧 그대로. [전역]
ᄉᆞᆫ-지레 명 선-키(立-). [전역] = 산-지레.
ᄉᆞᆫ-훼 명 [김녕] → 선-훼.
ᄉᆞᆫ다 동 쏟다. [전역] 고ᄉᆞᆫ다.
ᄉᆞᆫ아-불다 동 쏟아-버리다. [전역]
ᄉᆞᆫ아-지다 동 쏟아-지다. [전역]
ᄉᆞᆯ[1] 명 ① 살가죽의 겉면. ② 사람이나 동물의 뼈를 싸서 몸을 이루는 부드러운 부분. [전역] 고ᄉᆞᆶ.
ᄉᆞᆯ[2] 명 [전역] → 설.
ᄉᆞᆯ-가죽 명 [전역] → ᄉᆞᆯ-카죽.
ᄉᆞᆯ궤 명 [수산] → ᄉᆞᆯ귀.
ᄉᆞᆯ귀 명 살구(杏). [전역] = ᄉᆞᆯ궤, ᄉᆞᆯ기. 고ᄉᆞᆯ고.
ᄉᆞᆯ그랭이 부 고스란히. *거기를 파 보니 그냥 풍질에 몰아단 ᄉᆞᆯ그랭이 그

자 뒤죽합죽 핸 놔 뒷어.(그곳을 파서 보니 그냥 풍질에 몰아다가 고스란히 그저 뒤죽박죽해서 놓아 두었어.) [노형]

솔근-돌다 동 ① 둘이 서로 귀엣말로 이야기하다. [전역] ② 물건이 서로 맞닿아서 가볍게 부딪다. [전역]

솔근-솔근 부 살근-살근. [전역]

솔기 명 [전역] → 술귀.

솔다 동 사르다(燒). [전역]

솔뒤 명 <민> 돼지 따위를 잡아서 베어 낸 목 부분. [전역]

솔러레-들다 동 [조수] → 살레-들다.

솔레 명 [조수] → 사레.

솔루다 동 말씀을 드리다. 아뢰다(白). *ᄒᆞ를은 아버지안티 솔룬단 말이여.(하루는 아버지께 말씀을 드린단 말이야.) [전역] 고 숣다.

솔리 명 서리. *새벡 솔리 츤ᄇᆞᄅᆞᆷ에 울곡 가는 저 지레기.(새벽 서리 찬 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기러기.) [전역]

솔-메 명 살-결(膚-). [전역]

솔므다 동 [전역] → 숣다.

솔-보리 명 <식> 쌀-보리(靑顆麥). [전역] = 술-오리.

솔-빠지다 동 살-빠지다. 병이나 괴로움에 시달려 몸이 아주 여위다. [전역]

솔-성 명 살-성(膚-). [전역]

솔-쉐 명 비육-우(肥肉牛). 비육을 목적으로 기르는 소. [전역]

솔솔 부 *솔솔 뜨려 줍서.(살살 때려 주세요.) [전역] → 솔솔③.

솔솔-기다 동 살살-기다. 짧은 다리로 엎드려 가만가만 나아가다. [전역]

솔-오르다 동 살-오르다(膚-). [전역]

솔-오름 명 <지> 서귀포시 동홍동과 영천동의 경계에 걸쳐진 오름. 표고 568미터. [전역] = 미악-산, 쏠-오름.

솔-오리 명 <식> [전역] → 술-보리.

솔-전지 명 <민> 제청을 장식하는 가늘고 길게 오려 낸 종이 장식. [전역]

솔-지다 동 살-찌다. [전역] = 술-치다.

솔진-쒜줄 명 굵다란 쇠줄. [전역]

솔진-씰 명 조금 굵직한 실. [전역]

솔짝 부 살짝. [전역] = 술째기.

솔짝-치기 명 ① 남의 물건을 몰래 훔쳐가는 사람. [전역] ② 남 몰래 여자와 관계하는 일. [전역]

솔째기 부 [전역] → 술짝.

솔-치다 동 *(속) 여즌 오뉴월에 술치곡, 남즌 구시월에 술친다.(여자는 오뉴월에 살찌고, 남자는 구시월에 살찐다.) [전역] → 술-지다.

솔-카죽 명 살-가죽. [전역] = 술-가죽.

솔칵 명 관솔. 송진(松津)이 많이 박힌 소나무의 옹이. 또는 어느 부분. *술칵을 ᄒᆞ여 오라야 저슬 들민 밤의 불을 쌀 수 있어.(관솔을 해 와야 겨울 들면 밤에 불을 켤 수 있어.) [전역] = 솔깍, 솔칵.

솔칵-불 명 솔-불. 관솔에 켠 불. *옛날이사 술칵불 쌍 이런디 걸엉 내부리민 들구 그슬주기.(옛날에야 솔불 켜서 이런 곳에 내버리면 계속 그을지.) [전역] = 솔칵-불.

솔-코기 명 [전역] → 술-쿼기.

솔-쿼기 명 살-코기. [전역] = 술-코기, 살-쿼기.

솔-타귀 명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 살-타귀.

솔-토막이 명 '살'(솔[1]②)의 낮춤말. [전역]
솔-팝 명 살갗의 두께. [전역]
솔펭-망(--望) 명 <지> [남원] → 즛베-오름.
솔평-망(--望) 명 <지> [남원] → 즛베-오름.
솔피다 동 살피다. [전역]
솖다 동 삶다. [전역] = 솔므다.
솜 명 인삼. [전역]
솜 명 [하원] → 세미[1].
솜다 동 (불을) 때다. [전역]
솜지다 동 삼키다. [노형 조수 인성 수산 서홍] = 솜키다. 고 솜찌다.
솜키다 동 [조수 어도] → 솜지다.
솜-통 명 땅을 깊게, 둘레가 조금 넓게 파서 음료수로 먹을 빗물이 괴게 한 곳. [수산 가시 서홍] = 세미[2].
숫 명 [김녕] → 숫끼.
숫-ᄂᆞ끼 명 [전역] → 숫끼.
숫-메끼 명 [서홍] → 숫끼.
숭키 명 푸성귀. 국도 끓이고 쌈도 싸 먹는 온갖 나물. [전역] = 푸성-거리, 푸-숭키, 풀-솜키.
숭키-구덕 명 <도> 들과 밭의 채소나 바다의 해조류(海藻類) 따위를 캔 것을 임시로 보관하거나 운반하는 용도의 바구니. [전역]
숭키-칼 명 식-칼(食刀). [전역] = 돔베-칼.
싸기-쌀성 명 <민> 사기-살성(邪氣煞性). [전역]
싸는무르에 소리 명 <요> 물레로 실을 자아내면서 부르는 민요. [납읍]
싸다[1] 동 싸다(包). [전역] = 쓰다[1]. 고 빳다.
싸다[2] 동 싸다. 똥·오줌 따위를 누다. [전역] = 쓰다[2].
싸다[3] 동 물레에서 솜이나 털로 실을 잣다. [전역] = 쓰다[3].
싸다[4] 동 슬다. 물고기나 벌레가 알을 깔기다. [전역] = 쓸다[2].
싸다[5] 동 켜다. ① 성냥이나 등불의 심지 따위에 불을 붙이다. [전역] ② 톱으로 나무를 켜다. [전역] = 쓰다[4]. 고 혀다
싸다[6] 동 써다. *(속) 싸는 물 시민드는 물 싯나.(써는 물이 있으면 미는 물이 있다.) [전역] 고 혀다.
싸다[7] 동 짚신을 삼아서 단단하고 오래 신을 수 있도록 짚신 바닥을 조이다. *그자 앚안 신 삼앙 두드령 싸곡.(그저 앉아서 신을 삼아서 두드려서 싸고.) [노형]
싸다[8] 형 싸다. ① 물건 값이 표준보다 적다. [전역] ② 지은 죄에 비추어 받는 벌이 마땅하거나 오히려 적다. [전역] = 쓰다[5].
싸다[9] 형 입이 재다. 입놀림이 가볍다. [전역] = 쓰다[6].
싸-메다 동 (머리를) 동여-매다. 둘러-매다. [전역]
싸무랍다 형 사납다. [전역]
쌀[1] 명 살(煞). [전역] = 살[1].
쌀[2] 명 살. 창문, 부채 따위의 뼈대가 되는 나무 외나 대오리. [전역] = 살[2].
쌀-구제기 명 <동> 껍질에 돌기가 돋은 성숙한 소라. [신창 고산 용당] = 쌀-구젱이.
쌀-구젱이 명 <동> [이호 하귀 하도]



쌀구제기

→ 쌀-구제기.

쌀-맞다 동 살-맞다. [전역]

쌀-멜 명 흩어져 다니는 멸치의 떼. [하도]

쌀-문(-門) 명 살-문. [전역]

쌀-물 명 [전역] → 살-물.

쌀손-오름 명 <지> [전역] → 쌀손-장오리.

쌀손-장오리 명 <지> 한라산 국립공원의 제주시 아라동과 봉개동 경계, 물장오리 서쪽에 있는 오름. 삼신인(三神人)이 '쌀'(화살)을 쏜, 곧 활사냥을 했다는 전설이 있음. 표고 913미터. [전역] = 쌀손-오름.

쌀-술기 명 <도> [덕수] → 살숙이.

쌀징 명 바윗돌에 저절로 난 틈새. [함덕]

쌀-풀이 명 살-풀이(煞--). [노형 서홍] = 살-풀이.

쌉다 동 싸우다. [전역] 고 사호다.

쌍-가메 명 쌍-가마(雙旋毛). [전역]

쌍-개 명 두 마리의 사냥개. [광령]

쌍-놈 명 상-놈. [전역]

쌍-동이 명 [전역] → 골레기[2].

쌍-둥이 명 [전역] → 골레기[2].

쌍-따비 명 <도> 두 개의 날이 하나로 어울려 꾸며진 따비. [전역]



쌍따비

쌍-말 명 상-말. [전역]

쌍-일 명 상-일. [전역]

쌩쌩-ᄒᆞ다 형 쌩쌩-하다. [전역]

써거령-ᄒᆞ다 형 전혀 근거도 없이 믿을 바가 못 되며, 하잘것없거나 소용이 없다. *이거 써거령ᄒᆞᆫ 짓이라. (이것은 '써거령한' 짓이야.) [어음]

써넝-ᄒᆞ다 형 차갑다. [전역]

써느롱-ᄒᆞ다 형 [전역] → 서노롱-ᄒᆞ다.

써레질 놀레 명 <요> 갈아 놓은 논의 바닥을 고를 때 써레질하면서 부르는 노동요. [월평 도순 강정 법환] = 설메질 소리, 써레질 소리.

써레질 소리 명 <요> [월평 도순 강정 법환] → 써레질 놀레.

써운-ᄒᆞ다 형 하는 짓이 뜻밖에도 지나쳐, 보통보다 훨씬 지나치거나 무서운 느낌이 있다. *원래 거 나이가 예순 넘어가난 하르방이 국청이 써운ᄒᆞᆫ 하르방이라.(원래 그 나이가 예순 넘어가니 할아버지가 국청이 '써운한' 할아버지야.) [전역]

썩 부 썩. [전역]

썩다 동 썩다(腐). [전역] = 석다.

썩은-섬 명 <지> [서귀포 중문] → 석은-섬.
썰다 동 썰다(切斷). [전역]
썹 명 [전역] → 섭[1].
썹지그랑-ᄒᆞ다 형 [전역] = 섬지그랑-ᄒᆞ다.
썽 명 성. 노엽거나 언짢게 여겨 일어나는 불쾌한 감정. [전역] = 성[1].
썽-내다 동 성-내다. [전역] = 성-내다.
쎄다[1] 형 세다. 힘이 많다. ＊ᄇᆞ름이 쎄영 바당에 못 가켜.(바람이 세어서 바다에 못 가겠다.) [전역] = 씨다.
쎄다[2] 형 물건이 보드랍지 않고 딴딴하다. [전역]
쎈-밧 명 '띠'(茅)의 기력이 떨어져 지력을 회복시킬 목적으로 농작을 하려는 '띠밭'. [상도] =저리-왓[1].
쏘가지 명 [수산 김녕] → 소가지.
쏘곱 명 [전역] → 소곱.
쏘나기 명 소나기. [수산 가시] = 쒜나기, 쒜네기.
쏘미다 동 [전역] → 쏠다.
쏘왁-쏘왁 부 따끔-따끔. 바늘로 찌르듯이 아픈 모양. [전역]
쏙 명 [전역] → 소곱.
쏙다[1] 동 [전역] → 속다[1].
쏙다[2] 동 [전역] → 속다[2].
쏙-벵 명 [전역] → 속-벵.
쏙옷-바랑 명 [인성 서홍 수산] → 속옷-바랑.
쏙-입 명 [전역] → 속-입.
쏙-주다 동 [전역] → 속-주다.
쏠다 동 쏠다. 쥐 따위가 물건을 잘게 물어뜯다. [전역] = 쏘미다, 쒜미다.
쏨-씨 명 솜-씨. [전역] 고 손씨.
쏭쏭쏭쏭 부 어린애가 깊이 자는 모양. 쌔근-쌔근. ＊우리 아긴 ᄌᆞ물캐로 쏭쏭쏭쏭 잘도 감져.(우리 아긴 꿈나라로 쌔근쌔근 잘도 간다.) [전역]
쏭쏭-ᄒᆞ다 동 못견디거나 배가 불러서 낑낑거리다. [전역]
쑤물 주 [전역] → 수물.
쑤시다 동 [어도] → 수시다.
쑥 부 쭉. ＊저레 쑥 가라.(저쪽으로 쭉 가라.) [전역]
쑥고리-낭 명 <식> [송당] → 씰거리-낭.
쒜[1] 명 쇠(鐵). [전역] 고 쇠.
쒜[2] 명 <민> 심방의 무구인 산판을 이름. [전역]
쒜- 두 '단단한'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 [전역]
쒜-골히 명 쇠-고리(鐵--). [전역]
쒜공이 구 아기가 허약할 경우에 쇳덩이처럼 튼튼하게 자라라는 뜻으로 어릴 때에 붙이는 별명. [전역]
쒜-공젱이 명 무엇을 걸기 위하여 벽(壁)이나 기둥 같은 데 박아 놓은 쇠못. [전역]
쒜-구덕 명 쇠(鐵)로 만든 아기 요람. [전역]
쒜-군벗 명 <동> [중문] → 돌-군벗.
쒜기 명 <식> [태흥 조천 노형] → 쒜와기.
쒜-ᄀᆞᆯ갱이 명 <도> ＊청동ᄀᆞ뜬 풀다시에 쒜ᄀᆞᆯ갱이 들어 잡곡.(청동같은 팔 때기에 호미 들어 잡고.) [전역] → ᄀᆞᆯ갱이.
쒜나기 명 [수산 조수] → 쏘나기.
쒜-낙마 명 여름에 계속하여 여러 날

쏟아져 내리는 비. [전역]

쒜네기 명 [전역] → 쏘나기.

쒜놀림-굿 명 <민> 굿에 참석한 수심방과 소무의 명두는 물론 본주 심방의 모든 명두를 양푼에 놓고 흔들어 놀리다가 신길이 바로 잡혔는가를 판단하는 의례. [전역]

쒜-눈 명 해녀가 물질할 때에 쓰는, 테두리가 쇠로 된 물안경. [하도]

쒜다 동 쐬다. [전역]

쒜돔벡이-오름 명 <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간에 있는 오름. '넙거리오름' 바로 옆에 있는 오름. 표고 729미터. [조천 남원]

쒜-동녕 명 <민> 명두를 만들기 위하여 단골들에게 쇠붙이를 동냥하는 일. [전역]

쒜-두메기 명 <동>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 쒜-두미에기.

쒜-두미에기 명 <동> 등껍질이 특별히 딴딴한 풍뎅이. [전역] = 쒜-두메기.

쒜-띄움 명 <민> 성주풀이 따위에서 천문을 물그릇에 떨어뜨려 점을 보는 의례. [전역]

쒜-마께 명 쇠-망치. [이호]

쒜-문 명 철문. [전역]

쒜미다 동 [전역] → 쏠다.

쒜-부사리 명 <동> 나이가 많은 부룩소. [노형 조수 인성] = 쉔-부사리.

쒜-보말 명 <동> [삼양] → 문다드리.

쒜-비놈 명 <식> [전역] → 쒜-비눔.

쒜-비눔 명 <식> 쇠-비름. [전역] = 쒜-비놈, 쒜-비늠. ㊟쇠비름.

쒜-비늠 명 <식> [전역] → 쒜-비눔.

쒜-빗발 명 쇠(鐵)처럼 묵직하고 세찬 빗발. ＊ᄀᆞ랑빗발 쒜빗발로 뜸 들이멍 숨 돌리멍.(가랑빗발 '쒜빗발'로 땀을 들이며 숨을 돌리며.) [전역]



쒜비눔

쒜-사오기 명 나무 살성이 아주 굳센 사오기. [노형 인성 수산 김녕 조수] = 떼-사오기.

쒜-손 명 흙-손(泥鏝). [전역]

쒜아기 명 <식> [서홍] → 쒜와기.

쒜와기 명 <식> 쐐기-풀. [조수 인성 화순 하원] = 쒜기, 쒜아기.

쒜-우다[1] 동 ① 쏘이다. [전역] ② 벌레 등이 알을 까게 하다. [전역] = 꿰-우다②.

쒜우다[2] 동 놋그릇이나 사기그릇을 다른 그릇과 맞부딪치어 소리를 내다. [전역]

쒜-우르다 동 목소리를 아주 높이 지르다. [노형 인성 조수]

쒜-정당 명 <식> ＊마의정당 쒜정당 줄에 발을 걸런 유울엄서라.(마의정당 '쒜정당' 줄기에 발을 걸려 이울고 있더라.) [전역] → 쒜-정동.

쒜-정동 명 <식> 잎이나 줄기가 조금 딴딴하고 질긴 댕댕이덩굴. [서홍 수산 김녕 조수] = 쉐-정당, 쒜-정당.

쒜-주멩기 명 <민> 쇠 주머니. 무점구

(巫占具)인 천문 상잔을 넣는 주머니. [전역]

쒜-줄 명 쇠-줄(鐵-). [전역]

쒜-처리 명 <민> 대장-장이. [전역]

쒜-푼 명 쇠-푼. 얼마 안 되는 돈. [전역]

쒝여-앗다 동 [전역] → 속여-앗다.

쒝-이다 동 [전역] → 속-이다.

쒬씨-전 명 <농> 보리를 파종함에 있어 특별히 거름을 하지 않아도 파종이 가능하리 만큼 비옥한 토양의 밭. [중문]

쒯-독(-毒) 명 쇳-독. [전역]

쒯-물 명 쇳-물(鐵-). [전역]

쒸시다 동 쑤시다. 신체의 일부분이 바늘로 찌르는 것 같이 아프다. [전역]

쒸-쓸다 동 [전역] → 쉬-싸다.

쓰다[1] 동 쓰다(書). [전역]

쓰다[2] 동 쓰다(用). [전역]

쓰다[3] 동 쓰다. 모자 따위를 머리 위에 얹다. [전역]

쓰다[4] 형 쓰다(苦). [전역]

쓰러-지다 동 쓰러-지다. [전역] = 씨러-지다.

쓰레-박 명 <도> 쓰레-받기. [인성 서홍 수산] = 구둠-받이, 비-받이.

쓰우룽-ᄒᆞ다 형 씁쓰레-하다. ＊고수리술 다까난 주시는 도새기 양석으로 사용ᄒᆞ메. 맛 보민 쓰우룽ᄒᆞ여. (‘고소리술’ 빚었던 찌꺼기는 돼지 먹이로 사용해. 맛을 보면 씁쓰레하지.) [조수]

쓸-것 명 쓰-개. 머리에 쓰는 물건. [전역]

쓸다[1] 동 쓸다(掃). [전역] = 씰다.

쓸다[2] 동 [전역] → 싸다[4].

쓸데기-읏이 부 쓸데-없이. [전역] = 쓸데-읏이.

쓸데-읏이 부 [전역] → 쓸데기-읏이.

쓸-돌 명 <도> [하원 수산 노형] → 씬-돌.

쓸듸-읏다 형 쓸데-없다. [전역]

씁스롱-ᄒᆞ다 형 씁쓰레-하다. [전역]

씨 명 씨(種子). [전역]

씨-가령 명 [전역] → 시-가령.

씨 감추다 구 <농> 따비갈이를 했던 밭을 일정 기간 동안 놔뒀다가 씨앗을 뿌린 후 괭이나 곰방매로 흙을 덮어 주다. [송당]

씨-거둥 명 ＊씨누이야 씨거둥 말라. 늬도 가민 씨녁일러라.(시누이야 거드름을 피우지 마라. 너도 가면 시집일러라.) [전역] → 시-가령.

씨견 명 [수산 가시] → 수견.

씨-권당 명 시-권당(媤眷黨). [전역]

씨 그르치다 구 좁씨 따위를 파종한 다음 곡식의 싹이 골고루 나지 않아서 그릇되다. ＊올희랑 씨 그르치지 말게 정신 들영 잘 불리라.(올해랑 씨 그르치지 말게 정신 들여서 잘 밟아라.) [전역]

씨녁-가다 동 시집-가다. [전역]

씨-누의 명 시-누이. [전역]

씨누의-성제 명 시뉘-올케.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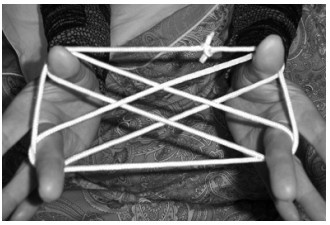
씨다 형 ＊ᄇᆞ름이 씨영 바당에 못 가켜.(바람이 세어서 바다에 못 가겠다). [전역] → 쎄다[1].

씨-동생 명 시-동생. [전역] = 씨-동셍, 씨-동싱.

씨-동셍 명 [전역] → 씨-동생.

씨-동싱 명 [전역] → 씨-동생.
씨-드림 명 <민> 영등굿이나 '즘수굿'에서 치러지는 제차(祭次) 이름. 바다에 씨앗을 뿌림으로써 풍년과 풍어를 기원함. [전역]
씨러-지다 동 [전역] → 쓰러-지다.
씨롬 명 씨름(相撲). [전역] = 씨름.
씨름 명 [전역] → 씨롬.
씨묻은-걸름 명 <농> 보리를 파종할 때 보리 씨앗과 뒤섞어 뿌리는 '돗걸름'을 두고 이르는 말. [상가]
씨-묻음 명 <농> 보리를 파종할 때 '돗걸름'과 보리 씨앗을 뒤섞어 놓는 것. [광령]
씨-벗다 동 가뭄이나 비 때문에 뿌린 씨앗이 싹이 안 나다. [전역]
씨-부모 명 시-부모(媤父母). [전역]
씨-부찌다 동 <농> 씨앗을 땅에 붙이다. 파종-하다. [전역]
씨-삐다 동 씨-뿌리다. [전역]
씨-사다 동 뿌린 씨가 싹이 잘 나다. [전역]
씨-삼춘 명 시-삼촌(媤三寸). [전역]
씨-섞음 명 보리를 파종하기에 앞서 돼지거름에 보리 씨앗을 뒤섞는 일. [저지]
씨-아방 명 시-아버지(舅). [전역]
씨아싯-귀 명 [김녕] → 물렛-귀.
씨-아주방 명 [전역] → 씨-아지방.
씨-아지방 명 시-아주비. [전역] = 씨-아주방.
씨앗 명 시앗. 남편의 첩. [전역] = 씨왓.
씨앗이 명 [노형 김녕] → ᄇᆞ르는-물레.
씨앗이-무르레 명 [가시] → ᄇᆞ르는-물레.
씨앙이-질 명 [조수] → 찡앙이-질.
씨-어멍 명 시-어머니. [전역]
씨왓 명 [전역] → 씨앗.
씨우룽-ᄒᆞ다 형 씁쓰레-하다. *ᄀᆞᆺ듸 난 메옹인 ᄒᆞ끔 씨우룽ᄒᆞ여.(가에 난 두드럭고둥은 조금 씁쓰레해.) [이호]
씨원-씨원 부 시원시원-히. *냉숫물을 먹어시냐, 씨원씨원 잘ᄒᆞᆫ다.(냉수를 먹었느냐, 시원시원 잘한다.) [전역]
씨원-ᄒᆞ다 형 [전역] → 시원-ᄒᆞ다.
씨-점 명 <민> 영등굿, '즘수굿' 등에서 좁씨를 뿌려 해산물의 풍흉을 점치는 의례. [전역]
씨집 명 시집(媤家). [전역]
씨집-가다 동 시집-가다(嫁). [전역]
씨집-살이 명 시집-살이. [전역]
씨-형제 명 시집의 형제. [전역]
씬-데기 명 <동> [고성] → 문다드리.
씬-돌 명 <도> 숫-돌. 칼이나 낫 따위의 연장을 갈아 날을 세우는 데 쓰는 돌. [김녕 조수 인성 조천 화순] = 신-돌, 쓸-돌, 씰-돌.
씬-부루 명 씁쓰레한 맛깔이 나는 토종 상추. [전역]
씰 명 실(絲). [전역] = 실.
씰-가레기 명 [서홍 표선] → 멘주기[2].
씰거리-낭 명 <식> 실거리-나무. [인성 서홍 조수] = 가풀-낭, 갑풀-낭, 범주리-가시, 범주리-낭, 수꾸리-낭, 실거리-낭, 쑥고리-낭.
씰게 명 [전역] → 실게.
씰금-나다 동 실금-가다. 그릇이 깨져서 실낱같이 가늘게 금이 나다. [어도]
씰-깔락 명 [가시] → 씰-뒈쓸락.
씰-꼬리 명 실-톳. [전역] = 꼬리[2].

씰다 동 [전역] → 쓸다[1].
씰-도로기 명 실-꾸리. [전역]
씰-돌 명 <도> [화순 하원 서홍 태흥 표선 세화] → 씬-돌.
씰-뒈쓸락 명 실-뜨기. [노형 인성 조수] = 씰-깔락, 씰-떼기.



씰뒈쓸락

씰-떼기 명 [서홍 김녕] → 씰-뒈쓸락.
씰-리다 동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마비되다. [전역]
씰-밥 명 실-밥. [전역] = 씰-팝.
씰-뽑다 동 실-켜다. [전역]
씰-어렝이 명 <동> 실-놀래기. [전역]
씰-팝 명 [가시 조수] → 씰-밥.
씰-패 명 <도> 실-패. 바느질할 때 쓰기 편하도록 실을 감아 두는 작은 기구. [전역]
씸 명 [노형] → 심-줄.
씸-줄 명 [전역] → 심-줄.
씸지 명 심지(心-). 마음의 본바탕. [전역]
씹 명 씹. 성숙한 여자의 보지. [전역]
씹-거울 명 [노형 조수] → 씹-터럭.
씹-거웃 명 [전역] → 씹-터럭.
씹-꺼럭 명 [전역] → 씹-터럭.
씹다 동 씹다. [전역]
씹-두더니 명 씹-두덩. [전역]
씹-터럭 명 씹-거웃. [전역] = 씹-거울, 씹-거웃, 씹-꺼럭, 씹-털.
씹-털 명 [전역] → 씹-터럭.
씻-구뎅이 명 땅을 깊고 조금 너르게 파서 씨앗을 묻고 흙을 두두룩하게 모아 올려 덮은 곳. [전역] = 씻-굿.
씻-굿 명 [전역] → 씻-구뎅이.
씻-독 명 씨-닭. [전역]
씻-부게 명 *씻부게는 씨 보관해 두는 망텡이라.('씻부게'는 씨를 보관해 두는 멱둥구미야.) [조수] → 부게.
씻-부게기 명 [조수] → 부게.
씽-씽 부 씨근-씨근. ① 숨을 가쁘게 씨근거리는 모양. [전역] ② 어린아이가 곤하게 자는 모양. [전역]
ᄊᆞ는-물레 명 [조수] → 물레[1].
ᄊᆞ다[1] 동 [전역] → 싸다[1].
ᄊᆞ다[2] 동 [전역] → 싸다[2].
ᄊᆞ다[3] 동 [전역] → 싸다[3].
ᄊᆞ다[4] 동 [전역] → 싸다[5].
ᄊᆞ다[5] 형 [전역] → 싸다[8].
ᄊᆞ다[6] 형 [전역] → 싸다[9].
ᄊᆞ리-비차락 명 싸리-비. 주로 마당을 쓸 때 사용함. [전역] = ᄉᆞ리-비.
쏠 명 쌀(米). [전역] 고 뿔.
쏠궤-꼿 명 [수산 김녕] → ᄆᆞᆯ싸움-고장.
쏠궤-풀 명 [가시] → ᄆᆞᆯ싸움-고장.
쏠-대죽 명 <식> 쌀-수수. 알이 조금 굵은 수수.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쏠-대축.
쏠-대축 명 <식> [가시] → 쏠-대죽.
쏠-두루웨 명 어수룩하면서도 제 실속을 다 챙기는 사람. [전역]
쏠-물 명 썰-물(退潮). [전역] = 쌀-물. 고 혈믈.

쏠물-팟 명 <어> 썰물 때에만 주로 형성되는 자리돔 어장. [전역]
쏠-바수다 동 보리쌀 따위를 쪼개다. [전역]
쏠-방올 명 [전역] → 쏠-방울.
쏠-방울 명 쌀-알(粒). [전역] = 쏠-방올.
쏠-뽓다 동 쌀-빻다. [전역]
쏠싯은-물 명 쌀을 씻은 물. [전역]
쏠-쏠 명 슬몃-슬몃. [전역]
쏠-오름 명 <지> [전역] → 솔-오름.
쏠-접 명 [전역] → 쏠-제.
쏠-제 명 동네 사람들끼리 혼례나 장사 같은 큰일이 있을 때에 서로 번갈아 가며 쌀을 거두어 쓰려고 꾸민 조직. [전역] = 쏠-접.
쏠-집 명 [전역] → 쏠-칩.
쏠-칩 명 쌀-집. [전역] = 쏠-집.
쏠-풀 명 쌀-풀. [전역]
쏠-항 명 쌀-독. [전역] = 쏠-황.
쏠-황 명 [어도] → 쏠-항.
쏨지 명 쌈지. [전역]

ㅇ

-ㅇ[1] 어미 -서. 어떤 둘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를 말할 때, 앞에 나오는 용언 어간에 붙은 '-아-·-어-·-여-·-라-'에 연결되어서, 장차 할 동작을 나타내는 것이 원의(原義)였으나 간혹 이미 지난 동작을 나타내는 데도 쓰이는 연결어미. 어간 말음이 '-아'인 경우에는 어간에 붙은 '-아'가 줄어듦. [전역]

-ㅇ[2] 어미 -고. 어말어미 '-다·-라·-자·-며·-게·-냐·-디·-고' 등의 변형된 어미 '-데·-레·-제·-예·-게·-네·-니·-디·-고' 등에 붙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생각ᄒᆞ다' 등에 이어지며, 주로 장차 할 일을 말하는 데 쓰이는 연결어미. [전역]

-ㅇ근에 어미 -어서·아서. 둘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를 말할 때, 앞에 나오는 용언 어간에 붙은 '-아·-어·-여·-라'에 연결되어서, 장차 할 그 동작을 나타냄. 어간 말음이 '-아'인 경우에는 어간에 붙은 '-아'가 줄어듦. [전역] = -그네.

-ㅇ근엥에 어미 -여서. *우리 어린 때는 궤기 나끄레 가멍도 그디 강 절허영근엥에 그 돈 봉가당 사탕도 사 먹곡.(우리 어렸을 적에는 고기 낚으러 가면서도 거기에 가서 절해서 그 돈 주워다가 사탕도 사 먹고.) [전역]

아 조 아. 받침 있는 명사나 일부 대명사에 붙어서, 손아랫사람을 부를 때에 쓰는 격조사. [전역]

-아- 선어말 -더-.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과 의문법 어미 '-냐·-니'의 사이 또는 평서법 어미 '-라' 바로 앞에 붙어서,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를 회상하여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어간 말음이 '-아'인 경우에 이 '-아'가 줄어듦. [전역]

-아[1] 어미 -아.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사실이나 상태를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아[2] 어미 -아.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행동하기를 명령하는 뜻을 나타내는 명령법 어미. [전역]

-아[3] 어미 -던가.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제삼자가 '그 행동을 하던가'라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아[4] 어미 -어. ① 동사 어간에 붙은

'-암시-·-엄시-·-염시-·-람시-' 등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하고 있는가'라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② 동사 어간에 붙은 '-아시-·-어시-·-여시-·-라시-' 등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끝내 있는가'라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아[5] 어미 -아. 양성모음으로 된 어간에 붙어서 부사형을 이루는 어미. [전역]

아가 감 아야. 갑자기 꼬집히거나 찔리거나 하여 몹시 아플 때 내는 소리. *아가!(아야!) [전역] = 아가-기여.

아가-기여 감 [전역] → 아가.

아가랑-작대기 명 사냥꾼이 눈 위에서 짚고 다니는 Y자 모양의 작대기. [봉성]

아가리 명 아가리. [전역] = 아구리, 아귀[2]. 고 아귀.

아가리-질 명 아가리-질. [전역] = 아구리-질.

아강-발[1] 명 족-발. *도새기 아강발 놩 그거 딸령 먹으민 보기가 뒈주. (돼지 족발 놓아서 그것 달여서 먹으면 보기(補氣)가 되지.) [전역]



아강발[1]

아강발[2] 명 집게-발. *깅이 아강발로 줍져부난 피 남신게.(게 집게발로 집으니 피가 나네.) [삼양]

아강-베포 명 <민> 중이 재미(齋米)를 얻으러 다닐 때 등에 지는 멜빵으로, 보자기 비슷한 물건. [전역]

-아고 어미 -데.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상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아고게 감 아이고나. [전역]

아구리 명 [전역] → 아가리.

아구리-질 명 [전역] → 아가리-질.

아구셍이 명 아가미. [전역]

아구-톡 명 [전역] → 아귀-톡.

아굴치 명 <동> 아귀. [전역]

아굴-턱 명 [전역] → 아귀-톡.

아굴-톡 명 [전역] → 아귀-톡.

아귀[1] 명 아귀. 물건의 갈라진 부분. [전역] = 아오셍이, 아우셍이[2].

아귀[2] 명 [전역] → 아가리.

아귀-것 명 어린 아기에게 먹이려고 쌀을 물에 담갔다가 입에 놓아 씹어 낸 쌀로 쑨 죽. [대평]

아귀-끌 명 <도> 바윗돌을 깰 때 쓰이는 연장으로 부리가 뾰족한 모양의 끌. [함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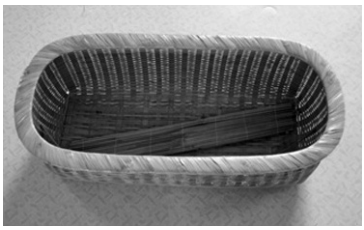
아귀-맞추다 동 일정한 기준에 들어맞게 하다. [전역]

아귀-싸움 명 아귀-다툼. [노형 조수인성 김녕]

아귀-차다 형 아귀-차다. 뜻이 굳세어 하는 일이 야무지다. [전역] = 아귀-츠다.

아귀-츠다 형 [전역] → 아귀-차다.

아귀-턱 명 '턱'(顎)의 낮춤말. [전역] = 아구-턱, 아굴-턱, 아굴-톡.
아그작-아그작 부 아기작-아기작. [전역] = 아긔작-아긔작.
-아근 어미 -고서. [전역] → -앙근.
-아근에 어미 -고서. *경 질그렝이 앚아근에 무신거 헴시니?(그렇게 '질그렝이' 앉아서 무엇을 하고 있니?) [전역] → -앙근에.
아끈-조기 명 음력 7일과 22일의 미세기. 그 다음 날은 '한줴기'가 됨. [전역]
아금지-손가락 명 [김녕 수산 서홍] → 안쥐왜기-손가락.
아긔작-아긔작 부 [전역] → 아그작-아그작.
아기 명 아기. *그 아기 춤 어질다. (그 아기 참 어질다.) [전역]
아기-구덕 명 <도> 대오리로 엮어 만든, 아기를 눕혀 재우는 장방형(長方形)의 바구니. 제주도 특유의 육아기구(育兒器具). *인자 아버지가 기실랴고 불 구어 가지고 뻘겅흔 쒜 곶고 오는 ᄉᆞ이에는 아기가 아기구덕 바깟듸 기여 나서 읎는 거라.(이제 아버지가 그을리려고 불을 구워서 뻘건 쇠 가지고 오는 사이에 아기가 아기구덕 바깥으로 기어 나가서 없는 거야.) [전역] = 애기-구덕, 아의-구덕.


아기구덕

아기-나청 명 <민> ① 토산 웃당의 아기 신. [토산] ② 저고리 치마에 긴 머리를 묶어 만든 아기 인형. [토산]
아기-놀림 명 <민> 토산당굿 혹은 토산본향을 모시는 집의 굿에서 모의적으로 아기를 어르며 노는 의례. [토산 남원 표선]
아기-돌다 동 어린애를 데리고 보살피며 놀게 하다. [전역] = 애기-돌다.
아기-베다 동 아이-배다. [전역] = 아의-베다.
아기뻬-맞추다 동 곧 출산할 징조를 보이다. [전역]
아기-설다 동 아이-서다. 아이가 배 속에 생기다. [전역] = 아의-설다, 애기-설다.
아기-야 감 아기-야. 아기를 귀엽게 부르는 말. [전역] = 애기-야.
아기억겟-대 명 [김녕] → 쥐총.
아기-업게 명 업저지. *겨니 확 들어오는 동안에 아기업게를 안 들여 놧어.(그러니 확 들어오는 동안에 업저지를 안 들여 놓았어.) [전역] = 애기-억궤, 애기-업게.
아기-지다 동 아이-지다. [전역] = 아의-지다.
아기-할망 명 [인성 화순 서홍 표선 수산 노형] → 삼승-할망①.
아깃-방석 명 [노형 조수 서홍 인성 가시] → 테[4].
아깃-봇 명 [전역] → 테[4].
아까 부 아까. [전역] 고 앳가.

아깝다 형 아깝다. [전역] ㊞아깝다.
아끈- 두 '작은'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접두사. [전역]
아끈-내 명 <지> 서귀포시 강정동을 거쳐서 바다로 흘러가는 내 중 하나. [서귀포 중문] = 악근-천(岳近川).
아끈-ᄃᆞ랑쉬 명 <지> 제주시 구좌읍 세화리 남서쪽 'ᄃᆞ랑쉬' 옆에 있는 작은 오름. 표고 198미터. [세화 송당] = 소-월랑봉(小月朗峰).
아끈-조기 명 [표선 노형] → 아끈-쒜기.
아끈-쒜기 명 음력 이레와 스무 이틀날의 조수(潮水). [서홍 태흥 표선 세화 조천 노형 수산] = 아끈-조기.
아끼다 동 아끼다. [전역] = 애끼다. ㊞앗기다, 아씨다.
-아냐 어미 -더냐.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아네 어미 -아서.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아녀다 동형 아니-하다. [전역]
-아녜 어미 -았네.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화자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회상하여 지정하되 연하의 상대자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짐작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아노니 어미 -았으니.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는 연결어미. *술 열 사발쯤 들이싸노니 온전ᄒᆞᆯ 거라?(술을 열 사발쯤 들이켰으니 온전하겠니?) [전역]
아늠 명 아름(抱). [전역] = 아름. ㊞아놈.
아늠-드리 명 아름-드리. [전역]
아늠-차다 형 아름-차다. ① 한 아름의 길이가 넉넉히 되다. [전역] ② 힘에 벅차거나 겹다. [전역] = 아름-차다.
아니[1] 부 아니. [전역] = 아이[2], 앙이.
아니[2] 감 아니. *아니, 이거 누게고?(아니, 이게 누구야?) [전역]
-아니 어미 -더냐.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대개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아니-꼽다 형 아니-꼽다. [전역] ㊞아닛곱다.
아닐커라 부 아닌게 아니라. *낭가질 딱ᄒᆞ게 꼬주니 아닐커라 땅의서 물이 솟아올라.(나뭇가지를 딱하게 꽂으니 아닌게 아니라 땅에서 물이 솟아올라.) [전역]
-아단 어미 -아다가. 어떤 두 동작을 말할 때, 앞에 나오는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끝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아당 어미 -아다가. 어떤 두 동작을 말할 때, 앞에 나오는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장차 할 일이나 아직 끝나지 않은 동작·상태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하오하오ᄒᆞ단 앗아당 메다부쪄부난 그자 ᄒᆞᆫ동안 일어나도 못ᄒᆞ게 그만 작산 육신을 그만 잡아 메다부쪄.(어찌어찌하다가 잡아다가 메어 던져버리니까 그저

한동안 일어나지도 못하게 그만 큰 육신을 붙잡아 그만 메어붙여.) [전역]

아당-ᄒᆞ다 동 남의 비위에 맞추려고 알랑거리다. [전역]

아덜 명 *(속) 아덜 못난 건 ᄒᆞᆫ 집 망ᄒᆞ곡, 뚤 못난 건 양 집 망ᄒᆞᆫ다.(아들 못난 것은 한 집이 망하고, 딸 못난 것은 양 집이 망한다.) [전역] → 아들.

아덜-풀다 동 [전역] → 아들-풀다.

-아도 어미 -아도. ① 용언의 양성모음 어간에 붙어서, '가정·양보·방임' 등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② 용언의 양성모음 어간에 붙어서, 그 행동이 그 다음 용언의 내용에 상응이 안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아도록-ᄒᆞ다 형 아늑-하다. *집이 춤 아도록ᄒᆞᆫ 게 펜안ᄒᆞ우다.(집이 참 아늑한 게 편안합니다.) [전역]

-아 두서 어미 -아 두어서·-아서. *앚아두서 이제 밤낫을 영 앚아두서 보니, ᄒᆞ를 처냑은 어떤 예쁜 여ᄌᆞ가 와.(앉아서 이제 밤낮을 이렇게 앉아서 보니, 하루 저녁은 어떤 이쁜 여자가 와.) *소리도 아이 나게 그 화살 지고 활 가지고 ᄒᆞ연 영 가까이 들어간 곱아두서 엿보니.(소리도 아니 나게 그 화살을 메고 활을 가지고 해서 이렇게 가까이 들어가서 숨어서 엿보니.) [전역] → -아 두어서.

-아 두어서 어미 -아 두어서. 타동사의 양성모음 어간에 붙어서, 그 동사가 뜻하는 동작을 행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지니어 감을 나타내는 어미. [전역]

-아 두언 어미 -아 두고.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행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상태 그대로를 지속하면서 다른 행동을 함을 뜻하는 연결어미. [전역]

-아 두엄서 어미 -아 두어서. [전역] → -아 둠서.

-아 둠서 어미 -아 두어서. 타동사의 양성모음 어간에 붙어서, 그 동사가 뜻하는 동작을 행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지니어 감을 나타내는 어미. *벋디듸여 사 둠서 오몽ᄒᆞᆯ 말이라?(버티어 서 있으면서 움직일 말이야?) *그 홀어멍이 그 셋무뚱에 사 둠서 발을 이렇게 궁그려, 정지 바닥 드레 발을 퉁퉁 궁그려 가니.(그 홀어머니가 그 문가에 서 있으면서 발을 이렇게 흔들어, 부엌 바닥으로 발을 퉁퉁 흔들면서 가니.) [전역]

아들 명 [전역] → 아들.

아돌 명 아들(子). [전역] = 아덜, 아들. 고 아들.

아돌-풀다 동 아들을 장가 보내다. [전역] = 아덜-풀다.

아따 감 아따. [전역] = 아따-가라.

아따-가라 감 [전역] → 아따.

아따불라 감 신체의 어느 부분이 뜨거운 물체에 접해서 또는 가까이 해서 갑자기 뜨거움을 느꼈을 적에 내는 소리. [전역]

아뜩 부 아뜩. [전역]

아뜩-ᄒᆞ다 형 아뜩-하다. *나이 들어 신고라 아뜩ᄒᆞ여겸서.(나이가 들었는지 아뜩해지네.) [전역]

-아라[1] 어미 -더라.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회상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그 치매 멀리서 보난 노리롱ᄒᆞᆫ 게 고와라.(그 치마 멀리서 보니까 노르무레한 게 곱더라.) [전역]

-아라[2] 어미 -아라. 명령법 어미. *감낭 아래 노는 아이 ᄒᆞᆫ저 재기 커아 자그네 갈정뱅일 입엉 나사라.(감나무 아래에서 노는 아이 빨리 커서 갈잠방이 입고 나서거라.) [전역]

-아라만 어미 -더라만.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화자가 경험한 과거의 그 동작·행동을 회상하며 제한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아라-외 명 <지> [아라] → 아라위-마을.

아라우-마을 명 <지> [전역] → 아라위-마을.

아라위-마을 명 <지> 제주시 아라1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 아라-외, 아라우-마을.

아랑-주 명 아랑-주(班紬). [인성 서홍 김녕 수산] = 아랑-쥐.

아랑-쥐 명 [조수] → 아랑-주.

아레 명 [전역] → 알[1].

아레-칭 명 [전역] → 알-칭.

아레-턱 명 [전역] → 알-턱.

아레-툭 명 [전역] → 알-턱.

아레-풀리다 형 아랫도리에 기운이 없다. [인성 조수 김녕 노형] = 알-풀리다.

아렛-도리 명 아랫-도리. [전역]

아렛멕-웃다 형 아랫도리(下體)에 힘이 조금도 없다. [전역]

아로-새기다 동 아로-새기다. [전역] 고 아르사기다.

아름 명 [인성 조수] → 아늠.

아름-차다 형 [전역] → 아늠-차다.

아리 명 <어> [노형 인성 화순 하원 서홍] → 낚시-아리.

아리랑-조개 명 <동> 이매패(二枚貝)인 조개의 일종. [시흥]

아리롱-다리롱 부 아롱-다롱. [전역]

아리리리리-동동 명 <요> 예전의 관문이었던 조천 등지에서 전해지는 구성진 창민요. [조천]

아립-동(鵝立洞) 명 <지> [조천] → 게우선-야개.

아릿-가름 명 [전역] → 알카름.

아마-넉들라 감 쒜쉐. 아기가 넘어졌을 때 어른이 아이 머리에 물을 적시면서 하는 말. [전역]

아마도 부 *아마도 이 일은 나가 홀 일이 아니우다.(아마도 이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전역] → 아메도.

아마-떵어리 감 너무 놀라운 일을 직접 보았을 적에 내는 소리. [전역] = 어마-떵어리.

아망-지망 명 비몽-사몽. [전역]

아매 부 아마. 아마도. [전역]

아메도 부 아마도. *아메도 오널사 올 테쥐.(아마도 오늘이야 올 테지.) [전역] = 아마도.

아멩 부 아무리. *아멩 엇어도 부모신딘 효도헤산다.(아무리 없어도 부모한테는 효도해야 한다.) [전역] = 아명.

아멩-헤도 부 [전역] → 아미영-헤도.

아며도 부 아무래도. *절 멧 번, 아며도 수무 번은 ᄒᆞ여실 거라.(절 몇 번, 아무래도 스무 번은 했을 거야.) [노형]
아명 부 *아명 어진 사름인덜 화내지, 아니 내여?(아무리 어진 사람인들 화내지, 안 내?) [전역] → 아멩.
아모 대 아무(某). [전역] = 아무. 고 아모.
아모-가이 대 아무-개(某). [전역] = 아모-개. 고아므가히.
아모-개 대 [전역] → 아모-가이.
아모-날 명 아무-날(某日). [전역] = 아무-날.
아모-듸 대 아무 데. 정하여지지 아니한 곳. *오널랑 아모듸도 나뎅기지 말라.(오늘이랑 아무 데도 나다니지 마라.) [전역]
아모-때 명 아무-때. [전역] = 아모-제, 아무-때, 아무-제.
아모리 부 아무리. [전역] = 아무리, 암만. 고아ᄆᆞ리.
아모마니 명 암만. 밝혀 말할 필요가 없는 수효나 분량을 대신하여 이르는 말. [전역]
아모-말 명 [전역] → 아무-말.
아모-사름 명 아무-사람. [전역] = 아무-사름.
아모-제 명 [전역] → 아모-때.
아무 대 [전역] → 아모.
아무-날 명 [전역] → 아모-날.
아무-때 명 [전역] → 아모-때.
아무리 부 [전역] → 아모리.
아무리-혜도 부 [전역] → 아미영-혜도.
아무-말 명 아무-말. [전역] = 아모-말.
아무-사름 명 [전역] → 아모-사름.
아무-상엇이 부 아무 일 없이. 이유 없이. [전역]
아무-제 명 [전역] → 아모-때.
아물다 동 아물다. [전역] = 아ᄆᆞᆯ다, 암ᄀᆞᆯ다, 앙글다.
아미영 부 아무리. *아미영 기영 ᄒᆞ주마는 나오라사 ᄒᆞ주.(아무리 그렇기야 하지마는 나와야 하지.) [전역]
아미영-혜도 부 아무리 하여도. [전역] = 아멩-혜도, 아무리-혜도.
아ᄆᆞᆯ다 동 [전역] → 아물다.
아바-님 명 아버-님. [전역] = 아벰.
아바지 명 [전역] → 아방.
아방 명 아버지(父). [전역] = 아바지.
아방-펜 명 내척. 아버지 편의 일가. [전역]
아벰 명 [전역] → 아바-님.
아보름 명 <지> [송당 성읍 선흘] → 앞-오름.
아부-악(亞父岳) 명 <지> [전역] → 앞-오름.
아부-오름 명 <지> [전역] → 앞-오름.
-아ㅅ- 선어말 -았-. [전역] → -아시-.
-아사 어미 -아야.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뒷말에 대한 어떤 조건이 꼭 필요함을 뜻하는 연결어미. '-아' 모음으로 끝난 어간에 연결될 때는 '-아사'의 '-아'가 줄어듦. *보말은 모큰 솖아사 똥ᄭᅡ지 나온다.(고둥은 푹 삶아야 똥까지 나온다.) [전역]
아사-오다 동 [수산 세화 조천 노형 어도 조수] → 가저-오다
-아샤 어미 -아 있냐.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

서 그 동작이 끝나 있느냐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아서[1] 어미 -았어·-았지.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동작이 끝나 있거나, 상태가 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어떵 원 반찬 그리완 궤기 사레 오라서.(어떻게 원 반찬이 그리워서 고기 사러 왔어.) *신 신노랜 ᄒᆞ난 동녁집 남편은 또 오라서.(신을 신노라고 하니 동녘집의 남편은 또 왔어.) [전역]

-아서[2] 어미 -았어.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하였는가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아서[3] 어미 -았어.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하고 있으라고 명령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아서[4] 어미 -아서. 연결어미. *책망 ᄒᆞ여부니 입은 딱 ᄌᆞ무라서, 꿈은 큰 꿈을 꿧는디 ᄒᆞᆯ 수 엇댄 말이어.(꾸짖으니 입은 딱 다물어서, 꿈은 큰 꿈을 꾸었는데 할 수 없다는 말이야.) [전역] → -안[1].

-아서고 어미 -았더군.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있거나 상태가 이루어져 있음을 회상하여 나타내는 평서법 어미. 주로 연소층 동년배 사이에서 쓰임. [전역]

-아서고나 어미 -았더구나.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있거나 상태가 이루어져 있음을 회상하면서 감탄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아서도 어미 -았어도.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행동이 그 다음 용언의 내용과는 서로 부응이 안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아서라 어미 -았더라.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있거나 또는 그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회상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아서렌 어미 -았더라고.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완료되거나 상태가 이루어져 있음을 회상하여 말하는 '-아서라'의 변형 '-아서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아선게 어미 -아 있던데.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제삼자의 동작이나 상태를 회상하여 상대방도 인정하게끔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아선고 어미 -아 있던고.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제삼자의 동작을 물을 때 쓰는 의문법 어미. 앞에 대개 의문사가 옴. [전역]

-아설란 어미 -아서는. 연결어미 '-아서'에, 특수조사 'ㄹ란'이 결합한 형태. *척 먼 우의 앉아설란, 할망은 어드레 가는 할망입네까고 질문ᄒᆞ니까.(척 먼 위에 앉아서는, 할머니는

어디로 가는 할머니냐고 질문하니까.) [전역] = -아설랑.

-아설랑 어미 [전역] → -아설란.

-아수가 어미 -았습니까. [전역] → -앗수가.

아스릅다 형 아깝다. [전역] = 아시롭다.

아시[1] 명 ① 아우(弟). [전역] ② 형수(兄嫂)가 제수(弟嫂)를 부르는 말. [전역] ③ 할머니들이 어린애를 귀여워하며 부르는 말. [전역] ㊟아ᄉᆞ.

아시[2] 명 <도> 바닷가에 떠밀려 온 해조류(海藻類)를 건져 올리는 갈퀴. [중문]

-아시- 선어말 -아 있-.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끝나 있음' 또는 그 '상태가 되어 있음'이란 뜻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전역] = -아ㅅ-.

아시-괭이 명 <도> 거름용 해조류를 베어 내거나 건져 올리는 기다란 낫. [신촌]

-아시난 어미 -았으니까.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라는 뜻으로 앞으로 하려는 말에 대하여 원인·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아시-날 명 전날(前-). 어제. [전역]

-아시냐 어미 -았느냐.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느냐'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아시녜 어미 -아 있네.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이루어진 사실을 화자가 지정하되 연하의 상대자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짐작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아시녠 어미 -았냐고.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느냐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아시냐'의 변형 '-아시녜'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아시녱 어미 -았냐고.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느냐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아시냐'의 변형 '-아시녜'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아시니 어미 -아 있니.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어떠난 이거 원 생각 읏인 사름이 들어와시니?(어째서 이것 원 생각 외의 사람이 들어왔느냐?) [전역] = -아시이.

-아시니까 어미 -았으니까. 용언 어간에 붙어서,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으니까'라는 뜻을 세게 표현하여, 앞으로 하려는 말에 대하여 원인·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아시니까니 어미 -았으니까.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으니까'라는 뜻을 더욱

세게 나타내며 앞으로 하려는 말에 대하여 원인·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아시라 어미 -아 있어라.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다 끝내 있어라'는 뜻을 나타내는 명령법 어미. [전역]

-아시랴 어미 -았으랴.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있음에 대한 화자 스스로의 물음이나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아시렌 어미 -아 있으라고.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끝내 있어라'는 뜻을 나타내는 '-아시라'의 변형 '-아시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아시렝 어미 -아 있으라고.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끝내 있어라'는 뜻을 나타내는 '-아시라'의 변형 '-아시레'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아시롭다 형 [전역] → 아스릅다.

-아시메[1] 어미 -아 있어.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제삼자의 동작이 끝나 있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주로 부녀자들 사이에 씀. [전역]

-아시메[2] 어미 -았으매·-았으니.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존속을 뒤에 오는 말의 원인·근거로 삼아서 전제적으로 나타내는 연결어미. *경ᄒᆞ고 졍ᄒᆞ고 저 우리집 ᄌᆞ끗디 오라시메 집의 강 술이나 ᄒᆞᆫ 잔 먹엉 가. (그러나 저러나 우리 집 가까이 왔으니 집에 가서 술이나 한 잔 마시고 가게.) [전역]

-아시민 어미 -았으면.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음을 가정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아덜도 살아시민 우리보단 조금 우나네 ᄒᆞᆫ 구십 뒈어실로구나.(아들도 살아 있었으면 우리보다 조금 나이가 많으니까 한 아흔 되었겠구나.) *제기 조차오라시민 오널 성안을 탁 당돌 ᄒᆞᆯ 건디.(빨리 쫓아왔었다면 오늘 성안(城內)에 턱 도착을 할 것인데.) [전역]

아시예 부 아예. [전역]

-아시이 어미 -아 있니. [전역] → -아시니.

-아시카 어미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에 대하여 화자가 추측하여 묻거나 또는 화자 스스로의 의심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아시쿠가 어미 -았겠습니까.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완료하여 있을 의도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전역]

-아시쿠다 어미 -았겠습니다. ①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화자 자신이 그 동작을

완료하여 있을 의도임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②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할 자리에서 제삼자가 그 동작을 완료하여 있을 것임을 화자가 추측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아시쿠데 어미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음을 결과로 말하려 할 때, 나중에 하는 동작이나 상태의 원인·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아시크라 어미 -아 있겠네.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할 자리에서 동작을 끝내 있거나 또는 그 상태가 되어 있겠다는 화자의 의도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아시크메 어미 -아 있겠어.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끝내 있거나 또는 화자의 의도·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주로 부녀자들 사이에서 씀. [전역]

-아시키여 어미 -아 있겠다.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다 끝내 있겠다'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아신가 어미 -았는가.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끝내 있는가 또는 그 상태가 되어 있는가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아신게 어미 -았네.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었거나 상태가 이루어져 있음을 상대방도 인정하게끔 나타내는 종결어미. *오늘은 내 떡을 받아 오라신게.(오늘은 내 떡을 받아 왔네.) [전역]

-아신고 어미 -았는가.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완료하여 있는가'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쌉는 소리 난게 무슨 때문 싸와신고?(싸우는 소리가 나던데 무엇 때문에 싸웠는가?) [전역]

-아신고라 어미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 나중에 하는 동작·상태의 원인·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아신디 어미 -았는지.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완료되거나 상태가 이루어져 있는지'란 어렴풋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견디 웨손(外孫)이 어디 가네 뭘 들러사 오라신디 어떵사 ᄒᆞ여신디, 까망ᄒᆞᆫ 가라ᄆᆞᆯ을 놈신디 풀아 먹엇어.(그런데 외손자가 어디 가서 뭘 들고 왔는지, 어떻게 했는지, 까만 가라말을 남한테 팔아 버렸어.) [전역]

-아실 거여 어미 -고 있을 것이다.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끝내서 있을 것이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아실댜 어미 -아 있겠냐.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완료하여 있을 의도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아십데가 어미 -았습니까.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했습니까?' 또는 그 '상태가 되어 있습니까?'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아십데다 어미 -았습니다.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했습니다' 또는 그 '상태가 되었었습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아십서 어미 -아 계십시오.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완료하여 계십시오'란 뜻으로 존대 명령을 나타내는 명령법 어미. [전역]

-아십주 어미 -아 있습지오.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오'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완료하여 있습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그자 밧 두어 개 갈아십주.(그저 밭 두어 개 갈았습니다.) [전역] -아십쥐.

-아십쥐 어미 -아 있습지오. [전역] → -아십주.

아쓱 부 조금. *출레 아쓱 놓앙 먹으라.(짠 반찬 조금 놓아서 먹어라.) [전역] = 아씩.

아씩 부 *아씩 비껴사난 살앗주 경 아녀시믄 죽을 거.(조금 비켜서니 살았지 그렇지 않았으면 죽을 뻔.) [전역] → 아쓱.

아아 감 아아. [전역]

아-악(Y됶) 명 <지> [전역] → 거린-오름[2].

아야 감 아야. [전역] = 아여.

아야-산 명 <민> 깊고 깊은 곳에 있는 상상의 산(山) 이름. '굴미굴산', '노조방산'과 함께 관용적으로 쓰이는 표현. [전역]

아여 감 [전역] → 아야.

아여-기여 감 몹시 아플 때 내는 소리. [전역]

아여리 명 <동> [서홍 호근] → 애이리.

아여-시상 감 남의 처참한 사정을 보고서 가엾게 여겨 내는 소리. [전역]

아영 감 어린 아이를 잠재우려고 내는 소리. *아영! 이젤랑 즘자게이.(아영! 이제는 잠 자자.) [전역]

아오셍이 명 [전역] → 아귀[1].

아올-아올 부 ①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양. *그 아기 이젠 다 옥앗저. 아올아올 밥 받앙먹는 거 보난.(그 아기 이제는 다 컸네. '아올아올' 밥을 받아먹는 거 보니까.) [전역] ② 저절로 틈이 벌어지는 모양. *봄 나난 아올아올 고장이 피엄고.(봄이 되니까 '아올아올' 꽃이 피고 있구나.) [전역] = 아울-아울.

아옴-내 명 암-내(腋臭). [전역] 고암ᄂᆡ.

아옵 주 [전역] → 아홉[1].

아웃-아웃 부 납죽-납죽. 새 따위가 무엇을 먹고 싶어서 입만 연이어 벌렸다 닫았다 하는 모양. *제비셍이 새끼 어멍 물어다 주는 먹이 아웃아웃 받아먹는 거 보라.(제비 새끼 어미 물어다 주는 먹이 '아웃아웃' 받아먹는 거 봐라.) [전역]

아옹 감 아옹. [전역] = 매옹.

아옹-고냉이 명 <동> 아옹-개비. [전역]

= 아옹-고넹이.

아옹-고넹이 명 <동> [전역] → 아옹-고냉이.

-아와 어미 -더라. *불을 '푸' 하고 부니 불치가 부영ᄒᆞ게 올라와.(불을 '푸' 하고 부니 재가 부옇게 올라오더라.) [전역]

아우셍이[1] 명 <도> 바닷가에서 미역을 채취하는 기다란 낫. *두어 발 ᄒᆞᆫ 낭에 호미 무껑 ᄀᆞ의서 메역 비는 거, 물질 못ᄒᆞ는 사름 바당 ᄀᆞ의서. 그것도 불미항에 강 무꺼사. 호밋ᄂᆞᆯ을 낭더레 박앙 쒜줄로 딱 무껑 멘들아. 잘 비는 사름은 해녀덜만이 비어. 아우셍이로 비곡, 끄서내곡.(두어 발 한 나무에 낫 묶어서 가에서 미역 베는 거, 물질 못하는 사람이 바닷가에서. 그것도 대장간에 가서 묶어야. 낫날을 나무에 박아서 쇠줄로 딱 묶어서 만들어. 잘 베는 사람은 해녀들만큼 베. '아우셍이'로 베고, 끌어내고.) [행원]

아우셍이[2] 명 [전역] → 아귀[1].

아울라 부 아울러. 마저. [전역] 고아오로.

아울-아울 부 [전역] → 아올-아올.

아웃-아웃 부 납죽-납죽. 어이없는 일을 당했을 때 할 말을 못하고 입만 움직이는 모양. *입만 아웃아웃.(입만 납죽납죽.) [전역]

아웨기 명 <요> 밭매는 노래의 한 가지. 성읍과 예전의 정의현(旌義縣)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됨. [성읍 삼달]

아웨-낭 명 <식> 아왜-나무. [전역]

아웨-읍다 동 고단(孤單)하여 의지할 곳이 없게 되다. [전역]

아으레 명 [전역] → 아흐레.

아은 주 [전역] → 아흔.

아의 명 아이(兒). *(속) 아의 버릇 잘 ᄀᆞ리치라.(아이의 버릇을 잘 가르쳐라.) [전역] = 아이[1]. 고아히.

아의-구덕 명 <도> [전역] → 아기-구덕.

아의-돌다 동 어린애를 데리고 보살피며 놀다. *옛날인 부제칩서 아이ᄃᆞ는 아이 데령 살앗주.(옛날은 부잣집에서 아이 보살피는 아이를 데리고 살았지.) [전역]

아의-베다 동 [전역] → 아기-베다.

아의-설다 동 [전역] → 아기-설다.

아의-어멍 명 ① 아기의 어머니. [전역] ② 자기 처(妻)를 가리켜 이르는 말. [전역]

아의-지다 동 [전역] → 아기-지다.

아이[1] 명 [전역] → 아의.

아이[2] 부 [전역] → 아니.

아이강-아이강 감 애들이 놀다가 한 애가 무엇을 잘못 했을 적에 딴 애가 큰일났다고 하며 내는 소리. [전역]

아이고 감 아이고. [전역]

아이고-게 감 아이고-나. *아이고게, 이거 어떵ᄒᆞᆫ 일이고?(아이고나, 이거 어찌된 일이니?) [전역] = 아이고-기여.

아이고-기여 부 [전역] → 아이고-게.

아이고-머니 감 아이고-머니. [전역] = 아이고-멍아.

아이고-멍아 감 [전역] → 아이고-머니.

아이머리-탈 명 <식> [상가] → 게염지-탈.

아이모른-눈 명 *새철 지낭 아이모른 눈 오민 시절 좋넨 ᄒᆞᆫ다.(입춘 지나서 도둑눈 오면 시절이 좋다고 한다.) [어음] → 아이몰른-눈.

아이몰른-눈 명 도둑-눈. [전역] = 아이모른-눈.

아이-체ᄉᆞ 명 <민> 아이 차사(差使). 어린아이를 잡아가는 차사. [전역]

아이카 부 아닌게 아니라. *간 보니까, 아이카 제ᄉᆞᄒᆞ여난. 막 먹어네, 또 데접을 받안 왓어.(가서 보니까 아닌게 아니라 제사했었어. 막 먹어서, 또 대접을 받고 왔어.) [노형]

아자-도라서 부 [서홍 수산] → 아자-두엄서.

-아자도라서 어미 -아서. *낭 우이 ᄃᆞᆯ아메영아자도라서 구경덜 ᄒᆞ렌 ᄒᆞ곡, 저거 무싱거 ᄒᆞ는 거우꽈?(나무 위에 달아매고서 구경들 하라고 하고, 저것 무엇하는 것입니까?) [전역]

아자-두어서 부 [조수 인성] → 아자-두엄서.

아자-두엄서 부 거동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서.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 아자-도라서, 아자-두어서, 아자-둠서.

아자-둠서 부 [김녕 조수] → 아자-두엄서.

아쟁이 명 [전역] → 아젱이.

아저-오다 동 [노형 어도 조수 태흥 표선 수산 세화 조천] → 가저-오다

아적 명 아침(朝). [전역] = 아척, 아칙, 아침. 고아춤.

아적-ᄀᆞ슴 명 [전역] → 조반-ᄀᆞ슴.

아젱이 명 앙금. [전역] = 아쟁이, 아지.

-아져냐 어미 -이(-히·-리·-기)더냐.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과거에 경험했던 동작이나 상태가 이루어진 것을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아져시니 어미 -았니.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되어 감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아져시민 어미 -았으면.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감을 가정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아졈수가 어미 -았습니까.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어 감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아졈수다 어미 -고 있습니다.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어 감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가당 보난 튼내영 ᄀᆞᆯ아졈수다.(가다가 보니 떠올라서 말하고 있습니다.) [전역]

-아졈시니 어미 -이(-히·-리·-기)니.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어 감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아졋수가 어미 -아 지고 있습니까.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감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아졋수다 어미 -았습니다. 양성모음

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감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아주 가다 구 제일 가다. 또는 빼어나다. *서로 아주 간다 ᄒᆞ는 목시덜이 ᄃᆞ투완 오란, 나도 ᄒᆞ켜 나도 ᄒᆞ켜 ᄒᆞ는디.(서로 제일 간다고 하는 목수들이 다투어 와서, 나도 하겠다 나도 하겠다 하는데.) [전역]

아주망 명 [전역] → 아지망.

아주방 명 [전역] → 아지방.

아중-아중 부 얌전하게 천천히 걸어가는 모습. 아장-아장. *아중아중 늬 집의 오건 늬 가속만 네기도 말라.(아장아장 네 집에 오거든 네 가속만큼 여기지도 마라.) [전역]

아지 명 [전역] → 아젱이.

-아지건 어미 -이(-히·-리·-기)건.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이루어지거든'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아지고말고 어미 -아지고말고. 용언 어간에 붙어서, 남의 물음에 대하여 그 동작이나 상태가 이루어짐을 긍정하는 뜻으로 강조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아지난 어미 -이(-히·-리·-기)니까·-니까.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이루어지니까'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아지느냐 어미 -이(-히·-리·-기)느냐.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이루어져 가느냐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아지느니 어미 -이(-히·-리·-기)느니.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이루어져 감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대개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아지다[1] 동 *(속) 그 날 액은 독 안에 아자도 깬다.(그 날 액(厄)은 독 안에 앉아도 깬다.) [전역] → 안지다.

아지다[2] 동 [서홍 표선 수산 세화 조천 어도 조수] → 가지다.

-아지다 어미 -이(-히·-리·-기)다. ①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이루어져 감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② 양성모음의 형용사 어간에 붙어서, 동사로 전성시키는 종결어미. [전역] ③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수동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아지마-님 명 ① 남자가 형수(兄嫂)를 부르는 말. [전역] ② 남자가 동기(同氣) 이외의 손위 여자를 높이어 부르는 말. [전역]

아지망 명 ① 남자가 제수(弟嫂)를 부르는 말. [전역] ② 남자가 동기(同氣) 이외의 손아래 여자를 부르는 말. [전역] *족아도 아지망.(작아도 아주머니.) [전역] = 아주망.

-아지메 어미 -이(-히·-리·-기)매. ①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수동의 뜻을 나타내는 '-아지-'에, 앞으로 하려는 말에 대하여 이유를 나타내는 '-메'가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②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가능의 뜻을 나타내는 '-아지-'에, 앞으로 하려는 말에 대하여

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메'가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아지민 어미 -이(-히·-리·-기)면.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이루어져 가기를 가정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아지바-님 명 ① 여자가 자기 언니의 남편을 부르는 말. [전역] ② 여자가 동기(同氣) 이외의 손위의 남자를 높이어 부르는 말. [전역] ③ 여자가 자기 남편의 형을 부르는 말. [전역]

아지방 명 아제. ① 여자가 자기 아우 남편을 부르는 말. [전역] ② 여자가 자기 남편의 아우를 부르는 말. [전역] = 아주방.

-아지어니 어미 -이(-히·-리·-기)더냐.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과거에 경험했던 동작을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대개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아지카 어미 ①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가능이나 수동·사동의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② 양성모음의 형용사 어간에 붙어서 동사로 전성시키는 의문법 어미. [전역]

-아지커냐 어미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아지커니 어미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대개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아지컨테 어미 -이(-히·-리·-기)기에.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수동이나 가능의 동작이 그 뒤에 하는 동작의 원인·이유·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아지키여 어미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가능을 추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아진-감낭 명 <식> 애기-땅빈대. [전역]

아진-궤기 명 <동> 광어, 우럭 등 정착성 물고기. [월정]

아진-널 명 앉을-깨. [전역]

아진-배기 명 앉은-뱅이. [전역]

아진배기-고장 명 <식> [서홍] → 물싸움-고장.

아진-소리 명 가만히 앉아 있어서 세상 물정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 [전역]

아진-오름 명 <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동동 북쪽에 있는 오름. 표고 192미터. [전역] = 안진-오름, 안친-오름, 좌치-악(坐置岳).

아진-일 명 앉은-일. [전역]

아진-장서 명 [전역] → 아진-장시.

아진-장시 명 앉은-장사. ① 일정한 곳에 앉아 있으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 [전역] ② 일정한 곳에 앉아 있으면서 장사를 하는 사람과 같이 별로 나다니지 못한 사람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 [전역] = 아진-장서, 아진-장수.

아진-장수 명 [전역] → 아진-장시.

아진-지레 명 앉은-키. [전역] = 앉은-지레.

아진-츠례 명 앉은-차례(--次例). [전역] = 앉은-츠례.

아질-널 명 앉을-깨. [전역]
-아질디 어미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이루어질지 막연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아질-자리 명 앉을-자리. [전역]
아차불쌍 감 아뿔싸. [전역]
아척 명 [전역] → 아적.
-아치 미 [전역] → -바치.
아칙 명 [전역] → 아적.
아침 명 [전역] → 아적.
아침-ᄀᆞ심 명 [조천 노형 조수] → 조반-ᄀᆞ슴.
아침-저침 부 머뭇거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모양. 주춤-주춤. *암꿩은 앞의 사곡 장꿩은 뒤에 사곡 아침저침 걸어가난.(암꿩은 앞에 서고 수꿩은 뒤에 서고 주춤주춤 걸어가니.) [전역]
아프다 형 아프다(痛). [전역] 고 알ᄑᆞ다.
아홉[1] 수 아홉(九). [전역] = 아옵. 고 아홉.
아홉[2] 명 소(牛)의 나이 아홉 살. [전역]
아홉-도막 명 <동> 아홉-동가리. [노형]
아홉-물[1] 명 [노형 조수 어도 인성 화순 하원] → 열-물[1].
아홉-물[2] 명 음력 이틀과 열이렛날의 조수(潮水). [서홍 태흥 표선 수산 세화 조천 노형] = ᄋᆞ듭-물[1].
아흐레 명 아흐레(九日). [전역] = 아으레. 고 아ᄒᆞ래.
아흔 수 아흔(九十). [전역] = 아은. 고 아ᄒᆞᆫ.
아흔아홉-골 명 <지> 제주시 어승생오름 북동쪽, 공원묘지 남쪽의 계곡 밀집지대. [전역]
아희 명 아이. *아희 말도 들을 땐 들어사주.(아이가 하는 말도 들을 때는 들어야지.) [전역]
악-궤 명 <음> [전역] → 약궤.
악귀 명 <민> 악기(樂器). [북촌]
악근-천(岳近川) 명 <지> [서귀포 중문] → 아끈-내.
악다구리 명 악다구니. [전역] = 악다귀.
악다귀 명 [전역] → 악다구리.
악담-부담 부 악착스레. *누게를 살류우젱 악담부담 애를 쓰나.(누구를 살리려고 악착스레 애를 쓰나.) [전역]
악-바리 명 악-바리. [전역]
악살 명 성내어서 소리를 지르며 야단함. [전역]
악살-ᄒᆞ다 동 성내어서 소리를 지르며 야단하다. *내가 아버진디 쥐 돌고 살앗다고 악살ᄒᆞ고 야단치니, 개가 꼬리치고 옳다고.(내가 아버지인데 쥐 데리고 살았다고 '악살하고' 야단치니, 개가 꼬리치고 옳다고.) [전역]
악심-꼿 명 <민> 악심(惡心)을 불러일으키는 꽃. [전역] = 수레멜망악심-꼿.
악심꼿-꺼끔 명 <민> 불도맞이에서 악심꽃을 꺾어 악심을 제거하는 의례. [전역]
악심-새 명 <민> 고통스러운 숨을 쉬게 하는 사기(邪氣). [전역]
악-쓰다 동 악-쓰다. *이 사름, 무사 경 악썸서? 줌줌ᄒᆞ여.(이 사람 왜 그리 악쓰나? 조용히 하게.) [전역]
-악 -악 어미 양성모음의 동일한 동사의 어간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데에 연결되어서, 같은 동작의 되풀이를

뜻하는 연결어미. *난 ᄇᆞ디게 가잰 이 골목 돌악, 저 골목 돌악 ᄒᆞ단 보난 질은 점점 멀어지고.(나는 가깝게 가려고 이 골목 돌아, 저 골목 돌아 하다가 보니 길은 점점 멀어지고.) [전역]

악작-악작 부 ① 음식을 입안에 넣고 짓씹어 먹는 모양. [전역] ② 다리를 마음대로 놀리지 못하면서도 억지로 놀리며 바라지게 걸어다니는 모양. [전역]

안[1] 명 <요> 마음. *울고 샌 밤 안이로고나.(울고 샌 밤 마음이로구나.) [전역]

안[2] 명 안(內). [전역]

안[3] 조 안. 호격 조사 '아'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연결되어서, 다음에 오는 '말ᄒᆞ다·생각ᄒᆞ다' 따위의 말에 이어지는 격조사. *너믜 아판 어멍안 말도 못ᄒᆞ여라.(너무 아파서 어머니야라는 말도 못하더라.) [전역]

-안[1] 어미 -아서. 두 동작이나 상태를 말할 때, 앞에 나오는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나중에 하는 동작·상태의 근거·이유·원인이나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앞뒤의 동작·상태가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임. *그 놈 쒜연 갓단 ᄀᆞ리 보단 돗데레 앗안 잡아 묶어 놧댄 말이여.(그 놈을 잡고 갔다가 기회를 보다가 돛에 가져다가 붙잡아 묶어 놨다는 말이야.) [전역] = -아서[4].

-안[2] 어미 -고서. ① 두 동작이나 상태를 말할 때, 앞에 나오는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뒤에 오는 동작에 앞서 하게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앞뒤의 동작·상태가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임. [전역] ②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행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상태 그대로를 지속하면서 다른 일을 함을 뜻하는 연결어미. 앞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임. [전역] ③ 두 가지의 동작이나 상태를 대등하게 말할 때, 앞의 양성어간 모음에 붙어서 쓰이는 연결어미. 앞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임. [전역]

-안[3] 어미 -았어.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나 또는 그 상태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안- 선어말 -았-. ①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전역] ②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과거에 경험한 동작이나 상태를 회상시키는 선어말어미. 다음에 의문법 어미 '-가'가 옴. [전역]

-안가[1] 어미 -았는가.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 또는 그 상태의 완료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안가[2] 어미 -던가.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상시켜 묻는 의문법 어미. [전역]

안-가름 명 한 마을 내에서 안쪽에 위치한 동네. [전역] = 안-카름.
안-감상 명 <민> 신굿을 할 때 당주에 따른 감상기. [전역]
안-강정 명 <지> 서귀포시 강정동 중심지 서남쪽에 있는 동네. [서귀포 중문]
안-개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1리의 포구. [남원]
안개 명 안개(霧). [전역] = 안게, 앙개, 우납, 으남, 으네.
안개-비 명 [전역] → 으남-비.
안개 유다 구 안개가 끼어 길을 잃다. *안개 유영 둘 진 밤 새라.(안개에 길을 잃어 달 진 밤 새어라.) [전역]
안-거리 명 안-채. [전역]
-안걸 어미 -던걸.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이미 지난 사실을 회상하여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안게 명 [전역] → 안개.
-안게 어미 -던데.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회상하여 그 상대방도 긍정하게끔 나타내는 종결어미. *어머님은 옹 저영 골안게 가근에 게건 들어방 와.(어머님은 이렇게 저렇게 말하던데 가서, 그러면 물어보고 와.) [전역] -안게.
-안게만 어미 -더니만. 앞에 나오는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화자가 경험한 과거의 동작·상태를 회상하여 제한하며 말하되, 나중에 하는 동작·상태의 원인·근거 또는 관련이 됨을 나타내는 어미. [전역]
-안고 어미 -던고.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제삼자의 동작이나 상태를 회상시켜 묻는 의문법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누게가 그런 말을 골안고?(누가 그런 말을 하던고?) [전역]
안-골 명 안-골. 한 마을에서 중심되는 안쪽에 위치해 있는 동네. [전역]
안-골목 명 큰길에서 갈리어 깊숙이 들어간 좁은 길. [전역]
안-공시 명 <민> 신굿을 할 때 본주의 멩두 조상. [전역]
안-공젱이 명 안-걸이. [전역]
안-구들 명 <건> 안-방(內房). [전역] = 정짓-구들, 족은-구들.
안-기다 동 붙잡-히다. *그 놈덜아피 안기민 큰일 난다이.(그 놈들한테 붙잡히면 큰일 난다.) [전역]
안-ᄀᆞ슴 명 안-감(內-). [전역] = 안-ᄀᆞ심, 안-ᄀᆞ음.
안-ᄀᆞ심 명 [전역] → 안-ᄀᆞ슴.
안-ᄀᆞ음 명 [전역] → 안-ᄀᆞ슴.
안네다 동 웃어른에게 물건을 드리다. [전역]
안다 동 안다(抱). [전역] 고 안다.
-안다 어미 -았느냐.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의문법 어미. *너 부인 잘 모셔 간다?(너 부인을 잘 모시어 갔느냐?) [전역]
-안덴 어미 -았느냐고.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안다'의 변형 '-안데'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묻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안-도그내 명 <지> 제주시 외도동에 속한 내도동의 옛 이름. [이호 외도]

안-돌오름 명 <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상동 밧돌오름 남서쪽에 이웃한 오름. 표고 368미터. [전역] = 내석-악(內石岳).

안동밧-골 명 <민> 서울의 옛 지명(地名). [전역]

안-뒤 명 안채가 앉은 자리에서 뒤쪽에 있는 뜰이나 작은 터알. [전역] = 안-튀.

-안디[1] 어미 -았니.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의문법 어미. 대개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안디[2] 어미 -았는지.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에 대하여 어렴풋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안디사 어미 -았는지.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에 대하여 어렴풋한 의문의 뜻을 특히 강조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안디야 어미 -았느냐.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안디옌 어미 -았느냐고.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언디야'의 변형 '-언디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안딘 어미 -았냐고.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안디'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안-뜰다 동 안-틀다. [전역]

안-막은다리 명 <지> 한라산 국립공원에 있는 장구목의 분수령을 이루는 곳. [아라 광령]

안반 명 안반. [전역] = 왠반.



안반

안-방 명 [노형 조수 인성 화순 하원] → 고팡.

안방-문 명 [노형 인성 조수] → 궤팡-문.

안벡 명 앙벽(仰壁). [전역] = 개벡.

안-부리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즈베오름'의 남서쪽 비탈에 있는 함지(陷地). [위미]

안-사돈 명 [전역] → 예펜-사돈.

안-성방 명 <민> 굿하는 집안의 여자 주인. '성방'은 '형방'(刑房)을 말함. [전역]

안-세미오름 명 <지>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 마을 뒤에 있는 오름. 기슭에 조리세미라는 샘이 있으며, 조선 때의 학자 김진용(金晋鎔)의 유허비가

있음. 표고 396미터. [전역] = 멩도-오름, 명도-악(明道岳), 조리세미-오름.

안-속 명 마음-속. *안속이사 어딜 가느니?(마음속이야 어딜 가겠니?) [전역]

안-시왕맞이 명 <민> 집안에서만 하는 시왕맞이. [동홍]

안시웅-ᄒᆞ다 형 얼굴이나 행동이 그런 대로 괜찮다. [전역]

안-애고리 명 [김녕] → 안-애오리.

안-애오리 명 안짱-다리. [전역] = 안-애고리.

-안에[1] 어미 -아서. 두 동작이나 상태를 말할 때, 앞에 나오는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나중에 하는 동작, 상태의 근거·이유·원인이나 시간적 선후 관계를 세게 나타내는 연결어미. 앞뒤의 동작·상태가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임. [전역]

-안에[2] 어미 -고서. ① 두 동작을 말할 때, 앞에 나오는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뒤에 오는 동작에 앞서게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앞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임. [전역] ②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행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상태 그대로를 지속하면서 다른 일을 함을 뜻하는 연결어미. 앞뒤의 일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임. [전역] ③ 두 가지 동작을 대등하게 말할 경우, 앞의 양성모음 어간에 붙어서 쓰이는 연결어미. 앞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임. [전역]

안-오름 명 <지>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 항파두리 토성 동쪽 모퉁이에 있는 작은 오름. 항파두리성은 고려 때 김통정(金通精)이 이끄는 삼별초(三別抄)가 제주도로 들어와 이곳에 토성을 쌓고 2년여에 걸쳐 저항하다 1273년 여몽(麗蒙)연합군에게 함락된 유적지로, 사적 제396호로 지정되었음. 표고 186미터. [고성]

안-우연 명 [수산 가시] → 안-위영.

안-위연 명 [수산 김녕] → 안-위영.

안-위영 명 안채가 앉은 자리에서 뒤쪽에 있는 터앝.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안-우연, 안-위연.

안-자리 명 아랫-목. [전역]

안-잠지 명 허벅다리 위의 안쪽. [전역]

안장 명 안장(鞍裝). [전역] = 물-안장. 고 안쟝, 안즈.

안장-도금 명 <도> 안장을 씌울 때 말 등이 상하지 않도록 등에 덮어주는 물건. [영평] = 도곰, 도금.

안-종정골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3리에 있었던 자연마을. [남원] = 안-종정굴.

안-종정굴 명 <지> [남원] → 안-종정골.

안좌-악(安坐岳) 명 <지> [전역] → 벵곳-오름.

안주 명 [전역] → 안쥐.

안중 명 속-마음. *안중 답답 애 답답ᄒᆞ난 안주나 먹으민 좋나.(속마음 답답 애 답답하니 안주나 먹으면 좋다.) [전역]

안쥐 명 안주(按酒). [전역] = 안주.

안쥐왜기-손가락 명 집게-손가락. [전

역] = 아금지-손가락.

안즈다 동 [전역] → 안지다.

안지다 동 앉다(坐). [전역] = 아지다[1], 안즈다, 앉다, 앚다[2].

안진-오름 명 <지> [전역] → 아진-오름.

안짐베기-고장 명 <식> [전역] → 진달레-꼿.

안짐베기고장-낭 명 <식> [전역] → 진달래-낭.

안-짓 명 옷깃의 왼쪽에 있는 자락. [전역]

안체포-소미 명 <민> 무악기 담당 소무. [전역]

안친-오름 명 <지> [전역] → 아진-오름.

안칩 명 [전역] → 네복.

안-카름 명 [어도 수산 노형] → 안-가름.

안터레 조 [전역] → 안트레.

안테 조 한테. [전역] → 안틔.

안테레 조 [전역] → 안트레.

안테서 조 [전역] → 안틔서.

안-튀 명 [노형 조수 서홍 가시 수산] → 안-뒤.

안트레 조 한테로. 체언에 붙어서 주어의 동작이 그 체언을 향해서 작용하는 자리에 서게 하는 향진격 조사. *기생년덜은 돈을 버슬멍 그 씨아방안트레 홀터 보내연 놔두니.(기생년들은 돈을 벌면서 그 시아버지한테 계속 보내어서 놓아 두니.) [전역] = 안터레, 안테레, 안틔레.

안틀-목 명 연자매에 맷돌 안쪽으로 중쇠에 꿰어진 나무. [전역]

안틔 조 한테. 체언에 붙어서, 그 체언이 무엇을 받는 자리에 서도록 하는 여격 조사. *선생안틔 간 얘기ᄒᆞ난, 선생이 늙언 ᄒᆞ뒈.(선생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선생이 늙어서 하되.) [전역] = 안테, 안티.

안틔레 조 [전역] → 안트레.

안틔서 조 한테서. 체언에 붙어서 어떤 행동의 출발점이나 비롯되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 안테서.

안티 조 *그 할망안티 그 대스가 갓어.(그 할머니한테 그 대사(大使)가 갔어.) [전역] → 안틔.

안티다 조 여격 조사 '안티'에, 한정을 뜻하는 '다'가 결합한 형태. *나 그 분네안티다 ᄒᆞᆫ 푼 물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오.(내가 그분네한테다 한 푼 값을 것도 없고 받을 것도 없소.) [전역]

안티라근에 조 여격 조사 '안티'와 특수조사 '라근에'가 결합한 형태. *잘 대접해 준 사름안티라근에 ᄃᆞᆫᄃᆞᆫ이 은혤 가프곡 ᄒᆞ라.(잘 대접해 준 사람한테랑은 단단히 은혜를 갚고 해라.) [전역]

안-팟 명 안-팎(表裏). *(속) ᄃᆞᆯ레떡이 안팟 싯느냐?(도래떡이 안팎이 있느냐?) [전역] 고 안팢.

안팟-거리 명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안채와 바깥채. [전역]

안팟-공시 명 <민> 안공시와 밧공시, 곧 굿하는 집의 주인 심방이 모시는 조상과 굿 맡은 심방이 모시는 조상. [전역]

안팟-연물 명 <민> 신굿에서 안팎에서

겹으로 울리는 무악기 편성. [전역]

안-팡 명 <건> [서홍 태흥 표선 조천] → 고팡.

앉다 동 [전역] → 안지다.

앉은-지레 명 [전역] → 아진-지레.

앉은-츠례 명 [전역] → 아진-츠례.

알[1] 명 아래(下). [전역] = 아레. 고아릐.

알[2] 명 알(卵). [전역]

알[3] 명 <공> 보습의 구멍을 내기 위해서 황톳물에 모래를 비벼 보습의 크기만큼 만든 것. [덕수] = 소갈, 알-모살.

알[4] 명 초가지붕을 일 때 비바람에 삭아 축 늘어진 처마 끝을 바로잡아 주려고 우겨 넣는 띠나 억새. [성읍]

알-가름 명 [전역] → 알-카름.

알가미-젓 명 <음> [노형 조수 인성] → 알개미-젓.

알가밋-배 명 [송당] → 알개맷-배.

알개맷-배 명 종려(棕櫚)나무 껍질로만꼬아 만든 줄. [색달] = 알가밋-배.

알개미-젓 명 <음> 아감-젓(-鹽). 생선의 아가미와 이리로 만든 젓. [전역] = 알가미-젓.

알-고영뒤 명 <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의 한 자연마을. 또는 그 지역의 고유 이름. [조천] = 알-궤영뒤.

알-관제 명 뜸 따위의 아래쪽을 가로로 묶은 줄. [전역]

알-궤영뒤 명 <지> [조천] → 알-고영뒤.

알-귀클 명 <건> 하-인방(下引枋). [인성 서홍 김녕 조수]

알기 명 <도> 돌 따위를 쪼갤 때에 구멍에 질러 박는 쇠 연장. [김녕 노형 조수 가시 행원]

알-내 명 덜 익은 보리쌀로 지은 밥에서 나는 냄새. [전역]

알녁-거리 명 여러 채로 이루어진 집에서 본채의 아래편에 위치한 집. [전역]

알녁-집 명 한 집의 아래쪽 울타리 밖에 있는 집. [전역] = 알녁-칩.

알녁-칩 명 [전역] → 알녁-집.

알-니 명 아랫-니(-齒). [전역]

알-대장 명 <공> 보습을 만드는 풀무마당의 기술적인 책임자로, 모든 작업을 지휘하는 사람. [덕수]

알-뎅이 명 <공> 보습을 주조(鑄造)할 때의 아래쪽 주형(鑄型). [덕수]

알-동네 명 아래쪽에 있는 동네. [전역]

알-드르 명 아래쪽에 있는 '드르'(들)라는 뜻에서, 해변 또는 해안가 가까이에 있는 지역을 일컫는 말. [전역]

알-드르셍이 명 <지> 제주시 봉개동 서회천의 옛 자연마을. [봉개 삼양 조천]

알드릇-것 명 아래쪽에 있는 '드르'(들)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주로 해변 또는 해안가 위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래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 일컫는 말. [전역] = 알드릇-놈.

알드릇-놈 명 [전역] → 알드릇-것.

알-드리 명 <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의 한 자연마을. [조천]

알락-춤웨 명 알락알락한 무늬가 배인 참외. * 설룬 어멍 무덤 앞읜 알락춤웨 올앗져마는, 에라 타근 맛이나 보난 설룬 어멍 젓맛이라라.(설운 어머

니 무덤 앞엔 '알락참외' 열렸네마는, 에라 따서 맛이나 보니 설운 어머니 젖맛이더라.) [전역]

알랑-거리다 동 얼쩐-거리다. *이놈의 아희 무사 영 알랑거렴신고?(이놈의 아이가 왜 이리 얼쩐거릴까?) [전역] = 알랑방귀-뀌다.

알랑-방귀 명 알랑-방귀. [전역]

알랑방귀-뀌다 동 *알랑방귀뀌는 걸 좋아ᄒᆞ는 사름 난 영 ᄆᆞ슴에 맞지 아녀.(얼쩐거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 나는 전혀 마음에 맞지 않아.) [전역] → 알랑-거리다.

알랑-복 명 <동> 복어의 일종. [수원]

알록-달록 부 알록-달록. *그 치메 알록달록 막 곱수다.(그 치마 알록달록 아주 곱습니다.) [전역]

알롱이 명 <동> 새끼 노루. [광령]

알롱-지다 형 아롱-지다. [전역]

알뤼다 동 아뢰다(告). [전역] = 알위다. 고 알외다.

알르다 동 앓다. [전역] 고 앓다.

알르레-보다 동 낫추-보다. [전역]

알리다[1] 동 알-리다. *잊어불지 말앙 동네 어른들안티 다 알립서.(잊어버리지 말고 동네 어른들한테 다 알리십시오.) [전역]

알리다[2] 형 아리다. 다친 살이 쏙쏙 찌르는 것 같이 아프다. [전역] 고 알히다.

알림-예 명 <민> 죽어서 저승에 가면 앞서 저승에 가 있는 친지나 친족들에게 저승에 왔음을 알리는 뜻에서 드리는 예물. [전역]

알-맞다 형 알-맞다. [전역]

알멩이 명 알맹이. [전역]

알-모살 명 <공> [덕수] → 알[3].

알-미 명 <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산간에 있는 자그마하고 나지막한 오름. 표고 88.5미터. [성산]

알-바매기 명 <지> [선흘 성읍] → 알밤-오름.

알-박다 동 [인성 서홍] → 알-팍다.

알-밤오름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남쪽에 있는 오름. 표고 393.6미터. [전역] = 알-바매기.

알-밧 명 <어> 조간대(潮間帶) 하층(下層). [대포]

알-방에오름 명 <지> 한라산 백록담 남쪽의 방에오름 아래쪽에 잇닿은 오름. 표고 1585미터. 준 알방에. [아라 광령 동홍]

알-배 명 <도> 보습 윗면의 평평한 부분. [덕수]

알-베리 명 <도> 그물의 아랫줄. [전역]

알-보리 명 <농> 보릿고개를 넘기기 위하여 덜익은 보리를 베어다가 장만한 햇보리 알. [어음]

알-선을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의 한 자연마을. [조천] = 알-선흘.

알-선흘 명 <지> [조천] → 알-선을.

알-쉐 명 <동> '알드르' 지경에서 먹이는 소. [신양]

알-식은이 명 <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상덕천 남동쪽에 있는 작은 오름. 표고 155미터. [송당 덕천 선흘]

알-씨 명 <농> 밭갈이 전에 뿌리는 씨앗. [하원] = 굽-씨, 밋-씨.

알-아구리 명 턱 아랫부분. *제비샌 알아구리 ᄀᆞ뜨고, 가마귀 젓놀개 ᄀᆞ

뜨고.(제비(鳶)는 '알아구리' 같고 까마귀는 '젓날개' 같고.) [전역]

알아-내다 동 알아-내다. [전역]

알아-듣다 동 알아-듣다. [전역]

알아-먹다 동 알아-먹다. [전역]

알아-출리다 동 알아-차리다. [전역]

알-여우내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1리의 옛 동네. [남원]

알-예춘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2리와 하례1리 일대에 형성되었던 조선시대의 마을. [남원]

알오름[1] 명 <지> 제주시 건입동과 화북동의 경계, 사라오름과 베리오름 사이에 낀 자그마한 오름. 표고 96미터. [전역] = 난-악[1](卵岳).

알-오름[2] 명 <지>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1리 토산봉과 가세오름 사이에 있는 작은 오름. 표고 142미터. [전역] = 난-악[2](卵岳).

알-오름[3] 명 <지> 제주시 애월읍 금덕리 제주경마장 동쪽에 있는 작은 오름. 표고 450미터. [금덕] = 난-악[3](卵岳).

알-오름[4] 명 <지>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당오름의 분화구 안에 새로 솟아난 작은 오름. 표고 83미터. [용수 고산]

알-오름[5] 명 <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 말미오름의 화구구(火口丘). 표고 117미터. [시흥 종달]

알-오름[6] 명 <지> 제주시 우도면 쉐머리오름의 화구구(火口丘). 표고 88미터. [우도 성산] = 쉐머리-오름.

알-오름[7] 명 <지> 서귀포시 표선면 하천리 달산 동쪽에 딸린 작은 오름. 표고 88미터. [하천]

알위다 동 [전역] → 알뤼다.

알은-종 명 무당, 곧 심방. *보리 방에 물 서꺼 두언 알은종을 춧이레 가난 보린 나근 솔가렵서라.(보리 방아 물 섞어 두고 무당을 찾으러 가니 보린 나서 잎 벌리고 있네.) [전역]

알은-체 명 알은-체. [전역]

알-입바위 명 아랫입술의 가장자리. [전역]

알-젓 명 <음> 알-젓(-醢). [전역]

알-제반 명 <민> 제를 지낸 뒤 제상 위의 각종 제물을 조금씩 걷어 모은 뒤에 다시 걷어 모은 것. [전역]

알-조 명 다른 조의 그늘에 가려 잘 자라지 못한 조. [덕수]

알-지방 명 아래쪽의 문지방. [전역]

알-짝 명 [전역] → 알-착.

알-착 명 아래-짝. [전역] = 알-짝.

알찬-자리 명 <동> 음력 5~6월 동안에 배 가득 알이 차 있는 자리돔. [사계]

알-채 명 <민> 아래 북채. 왼손에 잡아 북의 아래쪽을 침. [전역]

알-칭 명 아래-층(下層). [전역] = 아레-칭.

알-카름 명 마을의 아래쪽에 있는 동네. [전역] = 아랏-가름, 알-가름.

알-통 명 탕건의 턱이 진 데로부터 아래 부분. [전역]

알-툭 명 아래-턱(下顎). [전역] = 아레-턱, 아레-툭.

알-팍다 동 알-제기다. *눈에 알팍은 갈치국에.(눈에 알제긴 갈칫국에.) [전역] = 알-박다.

알-풀리다 형 [김녕] → 아레-풀리다.
알-호름새기 명 망사리 아래쪽에 위치한 줄. 망사리 안의 해산물을 꺼낼 때 사용함. [전역]
-암- 선어말 -고 있-.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전역]
-암거든 어미 -고 있거든.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암-'에, 가정을 조건으로 삼아 말할 때 쓰이는 '-거든'이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암거들란 어미 -고 있거든.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암-'에 '-거든'과 '-을랑'이 결합되어서 가정적 조건을 더 강조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암건 어미 -고 있건.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암-'에, 가정을 조건으로 삼아 말할 때 쓰이는 '-거든'의 축약형 '-건'이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암고 어미 -고 있니.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암고나 어미 -고 있구나.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암'에, '해라' 할 자리에서 혼자 스스로 감탄을 나타내는 '-고나'가 결합된 종결어미. [전역]
-암고라 어미 -고 있노라.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화자 자신의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고라'가 결합된 종결어미. [전역]
-암고렌 어미 -고 있노라고.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화자 자신의 동작의 계속을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암고다'의 변형 '-암고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암구나 어미 -고 있구나. *사돈, 원 그 물정도 몰람구나.(사돈, 원 그 물정도 모르는구나.) [전역] → -암고나.
암-굴 명 소중의에서 옆이 터진 쪽 부분. [전역]
암ᄀᆞᆯ다 동 [전역] → 아물다.
암-꿩 명 <동> 암-꿩(雌雉). [전역]
-암나 어미 -고 있나.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을 묻거나 화자 스스로의 의심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암-내 명 암-내. [전역]
-암네 어미 -고 있네.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직접 지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암-놈바시 명 <식> [수산] → 눈비애기-쿨.
-암니 어미 -고 있니.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가끔 의문사가 앞에 옴. [전역]
-암다[1] 어미 -고 있다. 양성모음의 용

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주로 연소층의 동년배 사이에서 쓰임. ＊저 성주가 수청 들레 오멍 반드시 스령방을 거쳥 오랜혜연 나 이레 들어오람다.(저 성주(星主)가 수청 들러 오면서 반드시 사령방(使令房)을 거쳐서 오라고 해서 나 이리로 들어오고 있다.) [전역]

-암다[2] 어미 -고 있냐.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혹교 갓단 왐다?(학교 갔다 오고 있느냐?) [전역]

암-도절귀 명 [가시] → 암-돌철귀.

암-돌철귀 명 암-톨쩌귀. [전역] = 암-도절귀, 암-토절귀, 암-톨철귀.

-암디[1] 어미 -고 있니.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대개 앞에 의문사가 옴. ＊무사 늬 경 믄저 감디?(왜 너 그렇게 먼저 가고 있니?) [전역]

-암디[2] 어미 -고 있는지.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에 대하여 어렴풋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암디사 어미 -고 있는지.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에 대하여 어렴풋한 의문의 뜻을 특히 강조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암디야 어미 -고 있냐.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암만 부 [전역] → 아모리.

암만-헤도 부 암만-해도. [전역]

암메-창 명 <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 있는 절울이 주봉(主峰)의 분화구. 둘레 약 600미터, 깊이 69미터. [전역] = 가메-창[2].

-암ㅅ- 선어말 -고 있-. [전역] → -암시-.

-암샤 어미 -고 있냐.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느냐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암서[1] 어미 -고 있어.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그 사름은 감산리 사름이니까 서러레 한질로 감서.(그 사람은 감산리 사람이니까 서쪽으로 한길로 가고 있어.) ＊그길 찾안 간 보니까 칼을 골암서.(거기를 찾아서 가서 보니까 칼을 갈고 있어.) [전역]

-암서[2] 어미 -고 있어.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하고 있는가'란 뜻을 나타내는 어미. ＊어디 갓당 이제사 오람서?(어디 갔다가 이제야 오고 있어?) [전역]

-암서고 어미 -고 있더군.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었음을 회상하여 나타내는 어미. 주로 연소층의 동년배 사이에서 쓰임. ＊가네들 춤웨밧디서 돌아댕기멍 놀암서고.(그 아이들 참외밭에서 돌아다니면서 놀고 있더라.)

[전역]

-암서고나 어미 -고 있더구나.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회상하면서 감탄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암서라 어미 -고 있더라.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회상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암서렌 어미 -고 있더라고.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었음을 회상하여 나타내는 '-암서라'의 변형 '-암서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암선 어미 -고 있어서.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하고 있어서'란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암선게 어미 -고 있던데.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던데'라는 뜻을 상대방도 인정하도록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암선고 어미 -고 있던고.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제삼자의 동작을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대개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암수가 어미 -고 있습니까·-고 계십니까.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무사 그레 감수가?(왜 그리로 가고 있습니까?) *똥은 언제부떠 쌈수가?(똥은 언제부터 누고 있습니까?) [전역] = -암수가, -암수광, -암수꽝.

-암수강 어미 -고 있습니까·-고 계십니까. *어떵 ᄒᆞ연 우리 부모넨 알암수강?(어떻게 해서 우리 부모들은 알고 있습니까?) [전역] → -암수가.

-암수게 어미 -고 있지요.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상대방도 인정하게끔 나타내는 종결어미. *기벨도 못ᄒᆞ곡 영 정 살암수게.(기별도 못하고 이렇게 저렇게 살고 있습니다.) [전역]

-암수겐 어미 -고 있습니까고·-십니까고·-고 계십니까고.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묻는 의문법 어미 '-암수가'의 변형 '-암수게'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암수과 어미 -고 있습니까·-고 계십니까. *거 무사 자꾸 ᄀᆞᆯ암수과?(그것을 왜 자꾸 말하십니까?) [전역] → -암수가.

-암수광 어미 -고 있습니까·-고 계십니까. [전역] → -암수가.

-암수꽈 어미 -고 있습니까·-고 계십니까. *그 손님 무슨 따문에 오란 감수꽈?(그 손님 무슨 이유로 왔다

가고 있습니까?). [전역] → -암수가.

-암수다 어미 -고 있습니다·-고 계십니까.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궤기를 먼 불에 쵀우렌 책망ᄒᆞ니 먼 불에 쵀왐수다.(고기를 먼 불에 쪼이라고 책망하니 먼 불에 쪼이고 있습니다.) *나 잡으레 곧 오람수다.(나 잡으러 곧 오고 있습니다.) [전역]

암-쉐 명 <동> 암-소. [전역] 고 암쇼.

암쉐-멍에 명 <도> 암소에 씌우는 멍에. [덕수]

암쉐-통 명 공동목장 중에서 암소만을 가두어 기르는 통. [애월 고성 해안]

-암시- 선어말 -고 있-.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는' 이란 뜻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전역] = -암ㅅ-.

-암시난 어미 -고 있으니깐.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암시-'에, 앞으로 하려는 말에 대하여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뜻을 나타내는 '-난'이 결합된 연결어미. *물 탄 감시난 그 아이가 조름에 조찬 왐서라.(말을 타고 가고 있으니깐 그 아이가 꽁무니에 쫓아서 오고 있더라.) [전역]

-암시냐 어미 -고 있느냐.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느냐'란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누게 봠시냐?(누구를 보고 있느냐?) [전역]

-암시녜 어미 -고 있네.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 중임을 화자가 지정하되 연하의 상대자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짐작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암시녠 어미 -고 있냐고.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느냐'는 뜻을 나타내는 '-암시냐'의 변형 '-암시네'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묻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암시녱 어미 -고 있냐고.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느냐'는 뜻을 나타내는 '-암시냐'의 변형 '-암시네'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묻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암시니 어미 -고 있니. ①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② 연결어미. *마을을 조꼼 넘어 감시니 동세를 만낫어.(마을을 조금 넘어가고 있으니 동서를 만났어.) [전역]

-암시니까 어미 -고 있으니까.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암시-'에, 위에 하는 말에 대하여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뜻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니까'가 결합된 연결어미. *나 잡으레

곧 쫓아오람시니까 나를 어떻게 곱져 줍서.(나를 잡으러 곧 쫓아오고 있으니까 나를 어떻게 숨겨 주십시오.) [전역]

-암시라 어미 -고 있어라.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어라'의 뜻을 나타내는 명령법 어미. *야, 정지 강 불 솜암시라.(야, 부엌에 가서 불을 때고 있어라.) [전역]

-암시렌 어미 -고 있으라고.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으라는 뜻을 나타내는 '-암시라'의 변형 '-암시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암시렝 어미 -고 있으라고.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으라는 뜻을 나타내는 '-암시라'의 변형 '-암시레'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암시마 어미 -고 있으마.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을 것을 평교 간에 약속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암시메[1] 어미 -고 있어.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제삼자 또는 화자의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주로 부녀자들 사이에서 쓰임. [전역]

-암시메[2] 어미 -고 있으매.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뒤에 오는 말의 원인·근거로 삼아서 전제적으로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암시민 어미 -고 있으면.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동작을 가정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암시이 어미 -고 있니. [전역] → -암시니.

-암시카 어미 -고 있을까.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을 화자가 추구하여 묻거나 또는 화자 스스로의 의심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고장 피어난 디 여름 열암시카?(꽃 피었던 데 열매 열리고 있을까?) [전역]

-암시케라 어미 -고 있겠네. [전역] → -암시크라.

-암시케메[1] 어미 -고 있겠어. [전역] → -암시크메[1]

-암시케메[2] 어미 -고 있겠으니. [전역] → -암시크메[2]

-암시쿠가 어미 -고 있겠습니까.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을 의도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암시쿠다 어미 -고 있겠습니다. ①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화자 자신이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을 의도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②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제삼자가 그 동작을 계속

하고 있을 것임을 화자가 추측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암시쿠테 어미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결과로 말하려 할 때, 나중에 하는 동작이나 상태의 원인·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어미. [전역]

-암시크라 어미 -고 있겠네.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겠다는 화자의 의도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암시크메[1] 어미 -고 있겠어.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겠다는 의도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주로 부녀자가 씀. [전역] = -암시케메[1].

-암시크메[2] 어미 -고 있겠으니.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겠으니'란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 -암시케메[2].

-암시키여 어미 -고 있겠다.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겠다'란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암신가 어미 -고 있는가.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는가'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암신게 어미 -고 있네.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긍정하도록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암신고 어미 -고 있느냐·--으냐.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는가'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지둥문 바깟듸 무슨 소리 남신고?(기둥문 바깥에서 무슨 소리 나고 있느냐?) *돗통읫 도새긴 것 도렌 보채어 대곡, 씨어멍 준다닌 무사 저영도 함신고?(돼지우리의 돼지는 먹이 달라고 보채어 대고, 시어머니 잔소리는 왜 저렇게도 많으냐?) [전역]

-암신고라 어미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막연하게 인정하면서, 나중하는 원인·이유·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 -암싱고.

-암신디 어미 -고 있는지.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는지'란 어렴풋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으슬락기 들어오란, 기자 기영 ᄒᆞ연 싸왐신디 뭣사 ᄒᆞ염신디, 예펜은 쌉는 건 봐도 그자 모른쳑 ᄒᆞ연 들어오란.(으슬렁 들어와서, 그저 그렇게 해서 싸우고 있는지, 무엇이야 하고 있는지, 부인은 싸우는 것은 보아도 그저 모른척하고 들어와서는.) [전역]

-암실 거여 어미 -고 있을 것이다.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다'란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암실댜 어미 -고 있겠냐.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을 의도

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암십데가 어미 -고 있습디까.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하고 있습디까?'란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암십데다 어미 -고 있습니다.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하고 있습디다'란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암십서 어미 -고 계십시오.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계십시오'란 뜻을 나타내는 명령법 어미. *성님, 잘 살암십서.(형님, 잘 살고 계십시오.) [전역]

-암십쥐 어미 -고 있습지오.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하오'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습지오'란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암싱고 어미 -고 있는가. *경 불랑 멧 점이나 맨드라 보젠 헴싱고?(그렇게 발라서 몇 점이나 만들어 보려고 하는가?) [전역] → 암신고.

-암저 어미 -고 있다.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ᄇᆞ름코지 빌레왓딜 빼빠지게 좃아그네 피도 갈곡 조도 갈앙 그영저영 살아오난 눈물 남저.(바람이 많이 불어오는 빌레밭을 아주 힘들게 쪼아서 피도 갈고 조도 갈아서 그럭저럭 살아오니 눈물이 나고 있다.) *촐각촐각 ᄀᆞ새소리 엿장시가 넘어감저.(찰각찰각 가위 소리 엿장수가 지나가고 있다.) [전역]

-암젠 어미 -고 있다고.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암저'의 변형 '-암제'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그걸 잘못ᄒᆞ염젠 홀 수도 없고 자꾸 쏙아마씀.(그것을 잘못하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자꾸 속아요.) [전역]

-암젱 어미 -고 있다고.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암저'의 변형 '-암제'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암주 어미 -고 있지. ①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하고 있지'란 단정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②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제삼자의 동작의 계속을 추측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 -암쥐.

-암주만 어미 -고 있지만. *그 사람이 시흥리 안 살아서 타리에 가 살암주만 그 자도 역시 잡혀가고.(그 사람이 시흥리에 아니 살아서 타리(他里)에 가서 살고 있지만 그 자(者)도 역시 잡혀가고.) [전역]

-암쥐 어미 -고 있지. [전역] → -암주.

암-창개 명 약혼한 다음 혼례를 치르기 전에 신랑의 아버지가 돌아가거나, 혼례 당일 신랑이 먼 곳으로 나갔다가 부득이 돌아오지 못했을 때에 예정된 날에 신랑집에서 상객들만 신부집으로 가서 신부를 데려오고 보통 혼례처럼 하객을 맞이하면서 치르는 혼례. *하르방이 예장 쓰고 하인들만 간 암창개로 모사 오랏어.(할아버지가 예장(禮狀)을 쓰고 하인들만 가서 '암창개'로 모셔 왔어.) [전역]

암-첨복 명 <동> 전복의 암컷. 색이 희멀건 편이며, 둥글고 넙데데한 모습임. [전역] = 암-츰복, 암-핏.

암-치애 명 [명월] → 암-치에.

암-치에 명 암-키와(-瓦). [전역] = 암-치애.

암-츰복 명 <동> [전역] → 암-첨복.

암-캐 명 <동> 암-캐. [전역] 교암가히.

암-커믜 명 <동> 암-커미. [전역]

암-컷 명 암-컷. [전역]

암-코 명 노루를 잡기 위한 올가미의 한 종류. [구억]

암-코냉이 명 <동> [전역] → 암-코넹이.

암-코넹이 명 <동> 암-코양이. [전역] = 암-코냉이.

암-토새기 명 <동> [전역] → 암-톳.

암-토야지 명 <동> [전역] → 암-톳.

암-토절귀 명 [서홍 수산 김녕] → 암-돌철귀.

암-톨철귀 명 [어도 인성 김녕] → 암-돌철귀. 교암돌져귀.

암-톳 명 <동> 암-퇘지. [전역] = 암-토새기, 암-토야지, 암-퇘야지. 고 암돝.

암-퇘야지 명 <동> [전역] → 암-톳.

암퉁이 명 <동> 전복의 암컷. [대평]

암-툭 명 <동> 암-탉. *(속) 암툭 울민 집안 망흔다.(암탉 울면 집안 망한다.) *(속) 암툭 울엉 날 샌 디 읏다.(암탉 울어서 날 샌 곳이 없다.) [전역] 고암톩.

암-팡 명 [수산] → 고팡.

암-패드레기 명 <동> 어린 전복의 암컷. [한수]

암푸릇-ᄒᆞ다 형 마음에 만족감을 느껴 흐뭇하다. [전역]

암-핏 명 <동> [전역] → 암-첨복.

-앗- 선어말 -았-.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끝남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전역]

-앗거든 어미 -았거든.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를 나타내는 '-앗-'에 가정을 조건으로 삼아 말할 때 쓰이는 '-거든'이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앗거들랑 어미 -았거들랑.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를 나타내는 '-앗-'에, '-거든'과 '-을랑'이 결합되어서 가정적 조건을 더 강조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앗건 어미 -았건.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를 나타내는 '-앗-'에, 가정적 조건을 뜻하는 '-거든'의 축약형 '-건'이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앗고 어미 -았니.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음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앗고나 어미 -았구나.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앗-'에, '해라' 할 자리에서 혼자 스스로의 감탄을 나타내는 '-고나'가 결합된 종결어미. [전역]

-앗고라 어미 -았노라.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화자 자신의 동작의 완료를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앗고렌 어미 -았노라고.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화자 자신의 동작의 완료를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앗고라'의 변형 '-앗고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앗고렝 어미 -았노라고.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화자 자신의 동작의 완료를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앗고라'의 변형 '-앗고레'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앗나[1] 어미 -았나.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를 묻는 뜻을 나타내거나 화자 스스로의 의심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앗나[2] 어미 -았나. '오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앗네 어미 -았네.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었음을 지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앗느냐 어미 -았느냐. *어째서 이쪽으로 아니 오랏느냐?(어째서 이쪽으로 아니 왔느냐?) [전역]

-앗니 어미 -았니.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었는가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앗다 동 앗다. ① 집어 가져 버리다. [전역] ② 빼앗다. [전역] 고앚다.

-앗다 어미 -았다.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주로 연소층의 동년배 사이에서 쓰임. [전역]

-앗덴 어미 -았다고.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를 나타내는 '-앗다'의 변형 '-앗데'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주로 연소층의 동년배 사이에서 쓰임. [전역]

앗뎅 어미 -았다고.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를 나타내는 '-앗다'의 변형 '-앗데'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

어지는 연결어미. 주로 연소층의 동년배 사이에서 쓰임. [전역]

-앗ㅅ- 선어말 -아 있-. [전역] → -아시-.

-앗수가 어미 -았습니까.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는가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잇날은 그렇게 부모에 대ᄒᆞᆫ 효도 사상이 상당이 경 심ᄒᆞ지 안헷수가?(옛날은 그렇게 부모에 대한 효도 사상이 상당히 그렇게 심하지 않았습니까?) [전역] = -아수가.

-앗수게 어미 -았지요.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음을 긍정하게끔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앗수겐 어미 -았습니까고.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음을 묻는 의문법 어미 '-앗수가'의 변형 '-앗수게'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앗수겡 어미 -았습니까고.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음을 묻는 의문법 어미 '-앗수가'의 변형 '-앗수게'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앗수과 어미 -고 있습니까. [전역] → -앗수가.

-앗수광 어미 -고 있습니까. [전역] → -앗수가.

-앗수다 어미 -았습니다.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있음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진동산이옌 ᄒᆞᆫ 밧도 갈고, 큰동산이옌 ᄒᆞᆫ 밧도 갈앗수다.(긴동산이라고 하는 밭도 갈고, 큰동산이라고 하는 밭도 갈았습니다.) [전역]

-앗수덴 어미 -았습니다고.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끝나 있음을 나타내는 '-앗수다'의 변형 '-앗수데'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앗수뎅 어미 -았습니다고.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끝나 있음을 나타내는 '-앗수다'의 변형 '-앗수데'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앗아-놓다 동 물건을 손에 집어 이 자리에서 저 자리로 옮겨 놓다. [전역]

앗아-불다 동 ① 집어 들어 딴 데로 옮겨 치워 버리다. [전역] ② 빼앗아 버리다. [전역]

-앗어 어미 -았어. [전역]

앗잇-대 명 긴 막대 끝에 낫 같은 것을 잡아매어 깊은 물 속의 것을 건져 내는 막대기. [전역]

-앗저 어미 -았다.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끝났음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술이나 흔 잔 먹으랜 ᄒᆞ잰 오랏저.(술이나 한 잔 먹으라고 하려고 왔다.) [전역]

-앗젠 어미 -았다고.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끝났음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앗저'의 변형 '-앗제'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앗젱 어미 -았다고.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끝났음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앗저'의 변형 '-앗제'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앗주 어미 -았지. ①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를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②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제삼자의 동작의 완료를 추측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 -앗쥐.

-앗주게 어미 -았지. *그 사름이 육지 나갓주게.(그 사람이 육지에 나갔지.) [전역]

-앗주기게 어미 -았지. *육지 얻어먹으레 갓주기게.(육지에 얻어먹으러 갔지.) [전역]

-앗쥐 어미 -았지. [전역] → -앗주.

-앙[1] 어미 -아서. 두 동작이나 상태를 말할 때, 앞에 나오는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나중의 동작·상태의 근거·원인이나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앞뒤의 동작·상태가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임. *오늘은 나가 가당 죽어지는 일이 잇다 해도 꼭 집의 가야 ᄒᆞ쿠다.(오늘은 내가 가다가 죽는 일이 있다 해도 꼭 집에 가야 하겠습니다.) [전역]

-앙[2] 어미 -고서. ① 두 동작이나 상태를 말할 때, 앞에 나오는 양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뒤에 오는 동작에 앞서 하게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앞뒤의 동작·상태가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임. *경 말앙 나 ᄀᆞᆫ는 냥 말 들어 볼땨?(그렇게 말고 내가 말 하는 대로 말 들어 보겠느냐?) [전역] ② 양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행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상태 그대로를 지속하면서 다른 일을 함을 뜻하는 연결어미. 앞뒤의 동작·상태가 미래 일인 경우에 쓰임. [전역]

앙개 명 [남원] → 안개.

-앙게 어미 -던데. [전역] → -안게.

-앙근 어미 -고서. 연결어미 '-앙[2]'의 뜻을 더 세게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 -아근.

-앙근에 어미 -고서·-아서. 연결어미 '-앙[2]'의 뜻을 좀 더 세게 나타내는 연결어미. *이레 오랑근에 거짓말혜영 사름이나 흔번 웃겨 뒁 가라.(이리로 와서 거짓말해서 사람이나 한번 웃겨 두고 가라.) [전역]

앙글다 동 [수산] → 아물다.

앙꼬 명 <동> 황-아귀. [사계]

앙삭-앙삭 부 입이나 다리를 연해 엉거벌리는 모양. [전역]

앙삭-ᄒᆞ다 동 엉거-벌리다. 입이나 다리를 연해 벌리다. [전역]

앙살룹다 형 매우 앙상스럽다. [전역]

앙상-ᄒᆞ다 형 앙상-하다. *어떵 뻬만 앙상ᄒᆞ여시니? 밥 잘 먹어사키어.(어떻게 뼈만 앙상했니? 밥을 잘 먹어야겠다.) [전역]

앙알-ᄒᆞ다 동 [호근] → 앙얼-ᄒᆞ다.

앙앙 부 꽁꽁. 강아지가 짖는 소리. [전역]

앙앙-작작 부 여럿이 모여서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전역]

앙얼-ᄒᆞ다 동 졸라-대다. *ᄀᆞᆺ 서른에 여든 난 영감을 만나난, 두 불 시 불 물엇단 밥도 씹어 달렌 앙얼ᄒᆞᆫ다.(갓 서른에 여든 난 영감을 만나니, 두 번 세 번 물었던 밥도 씹어서 달라고 졸라댄다.) [전역] = 앙알-ᄒᆞ다.

앙업 명 엄살. 앙탈. [전역]

-앙은 어미 -아서. 연결어미 '-앙[2]'의 뜻을 더 세게 나타내는 연결어미. *배를 족은 자리예 안졋당은 잘못ᄒᆞ며는 ᄂᆞ리우질 못헤그네 궤길 낚으레 못 가주게.(배를 작은 자리에 앉혔다가는 잘못하면 내리우지를 못해서 고기를 낚으러 못 가지.) [전역]

-앙은에 어미 -아서. 연결어미 '-앙[2]'의 뜻을 더욱 세게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앙이 부 [전역] → 아니.

앙작 명 어린애가 엄살하며 우는 짓. [전역]

앙작-치다 동 어린애가 엄살하며 울어대다. [전역]

앙작-ᄒᆞ다 동 어린애가 엄살하며 소리내어 울다. *그놈의 아기 앙작ᄒᆞ는 거 보난 보통은 넘으키여.(그 놈의 아기 울어대는 것 보니까 보통은 넘겠다.) *자원 무사 앙작헴시냐?(저 아인 왜 울어대고 있니?). [전역]

앙장-대(仰帳-) 명 앙장-대. [노형 조수 인성] = 어질연-대, 청장-대.

앙탈-ᄒᆞ다 동 무엇을 차지하려고 하거나 자기의 뜻을 세우려고 발악하며 떼쓰다. [전역]

앙토-쟁이(仰土--) 명 앙토-장이. [전역] = 미-쟁이.

앙팡 명 <건> [태흥 표선] → 고팡.

앙팡-문 명 <건> [서홍 수산 가시 태흥] → 궤팡-문.

앙-ᄒᆞ다 동 앙-하다. 개 따위가 덤비면서 소리를 내다. [전역]

앚다[1] 동 [전역] → 갖다.

앚다[2] 동 *(속) 뒌 땅에 물 앚나.(굳은 땅에 물 고인다.) *(속) 앚앙 준 빗상 못 받나.(앉아서 준 빚 서서 못 받는다.) [전역] → 안지다. 고앚다.

앚인-불도맞이 명 <민> 병풍 위에 널판을 놓아 다시 제물을 진설하는 식으로 해서 평소보다 규모를 크게 하

여 벌이는 칠성제 따위를 달리 일컫는 말. [전역] = 앚인-불도제.

앚인-불도제 명 <민> [전역] → 앚인-불도맞이.

앚-지다 동 앉-히다. *아기 이레 앚정 밥 멕이라.(아기를 이리 앉혀서 밥을 먹여라.) [전역]

앞 명 앞(前). [전역] 고앒.

앞-가슴 명 앙-가슴(-胸). [전역] = 앞-가심.

앞-가심 명 [전역] → 앞-가슴.

앞-가지 명 <도> 길마 앞쪽에 있는 'ㅅ'자 모양의 나뭇가지. [전역]

앞-개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1리와 위미2리에 있는 포구. [남원] = 동-앞개, 서-앞개.

앞개-동네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1리의 한 동네. [남원]

앞갯-내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1리 앞개(사앞개)로 흘러드는 내(川). [남원] = 동-앞개.

앞-광 명 앞-집. [김녕]

앞-길 명 [전역] → 앞-질.

앞-내 명 <지> 제주시 이도1동 앞내 일대에 형성된 자연 마을. [전역]

앞-니 명 앞-니(前齒). [전역]

앞-다리 명 ① 짐승의 앞쪽 다리. [전역] ② 잡은 돼지의 앞다리. [전역]

앞뒷-칩 명 앞뒷-집. [전역]

앞-멍에 명 앞쪽에 있는 밭머리. *앞멍에랑 들어나 오라.(앞 밭머릴랑 들어나 오라.) [전역]

앞-목 명 버선의 수눅에서부터 목까지 이어지는 선. [대포]

앞-못보다 동 앞-못보다. [전역]

앞-문전(-門前) 명 <민> 마당에 면한 마루의 출입문. 또는 그 신. [전역]

앞-바르 명 <어> 가까운 바다에서 하는 물질. [전역]

앞-밧 명 앞-밭. [전역]

앞-사 부 [전역] → 앞-서.

앞-사다 동 앞-서다. [전역] = 앞-서다.

앞-서 부 앞-서. [전역] = 앞-사, 앞-세.

앞-서다 동 [전역] → 앞-사다. 고앒서다.

앞-세 부 [전역] → 앞-서.

앞-세우다 동 앞-세우다. ① 앞에 서게 하다. [전역] ② 부모보다 자식이 먼저 죽다. [전역] = 앞장-세우다.

앞-쉐 명 <농> 겨리질을 할 때 앞에서 끄는 소. [전역] = 선장-쉐.

앞-쏠 명 <농> 보릿고개 때 식량을 마련하려고 덜 여문 햇보리를 일찍 베어다 만든 보리쌀. [행원]

앞-오름 명 <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당오름 남쪽에 있는 낮은 오름. 표고 301미터. [전역] = 아보름, 아부-악(亞父岳), 아부-오름.

앞-이멩이 명 [전역] → 앞-임뎅이.

앞-임뎅이 명 앞-이마(-額). [전역] = 앞-이멩이.

앞-자락 명 앞-자락. [전역]

앞장-세우다 동 [전역] → 앞-세우다.

앞-질 명 앞-길. [전역] = 앞-길.

앞-집 명 앞-집. [전역]

앞-차다 형 앞-차다. [전역] = 앞-츠다.

앞-청 명 앞 모양. *머리 예진 앞청도 좋다.(머리 얹은 앞 모양도 좋다.)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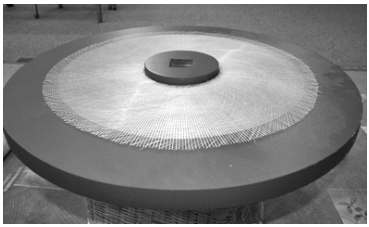
앞-츠다 형 [전역] → 앞-차다.

애 명 애. 근심에 싸인 초조한 마음 속. [전역]
애개 감 애걔. [전역]
애-그차지다 동 애-끊어지다. [전역]
애기 명 아기. *(속) 나는 날부터 제우는 건 애기여.(낳는 날부터 잠을 재우는 것은 아기야.) [전역]
애기-구덕 명 <도> [전역] → 아기-구덕.
애기 놀리는 소리 명 <요> 아기를 세우고 마주 보며 두 손을 잡아 앞뒤로 흔들어 주면서 어르는 동요. [전역]
애기-놀림 명 <민> 웃토산본향당의 본풀이에 근거하여 아기를 놀리는 의례. [전역]
애기-돌다 동 [전역] → 아기-들다.
애기-설다 동 [전역] → 아기-설다.
애기-야 감 [전역] → 아기-야.
애기-어멍 명 아기 어머니. *애기어멍 ᄇᆞ름 쒜우민 안 좋나.(아기 어머니는 바람을 쏘이면 안 좋다.) [전역]
애기-억궤 명 [수산] → 아기-업게.
애기-업게 명 *(속) 애기어멍 쿰은 닷 퉤, 애기업게 쿰은 흔 말.(아기 어머니 품삯은 닷 되, 업저지 품삯은 한 말.) *(속) 애기업게 말도 들을 말 싯나.(업저지의 말도 들을 말이 있다.) [전역] → 아기-업게.
애기-짐 명 등에 업은 아기. *(속) 메역짐광 애기짐은 베여도 안 내분다.(미역짐과 아기짐은 무거워도 내버리지 않는다.) [전역]
애기-좀녜 명 <어> [전역] → 애기-좀수.
애기-좀수 명 <어> 나이 어린 해녀. [전역] = 애기-좀녜.
애기-테왁 명 <어> 해녀 연장의 한 가지인 자그마한 테왁. 주로 해녀작업을 익히는 소녀 해녀들이 씀. [전역] = 족은-테왁.
애기 흥그는 소리 명 <요> 아기를 눕혀 흔들고 잠재우면서 부르는 민요. 장방형의 제주 특유의 대바구니인 '아기구덕'에 아기를 눕히고 좌우로 흔들어 재우면서 부르는 민요. [전역]
애끼다 동 *(속) 애끼는 거 똥더레 간다.(아끼는 것 똥으로 간다.) [전역] → 아끼다.
애돌다 동 ① 애닯게 여기다. ② 성이 나서 마음이 토라지다. [전역] ㊟애들다.
애돏다 형 애닯다. [김녕 조수] ㊟애돏다.
애-먹다 동 마음이나 힘의 수고로움을 당하다. [전역]
애무-ᄒᆞ다 형 공연-하다. 아무런 까닭이나 이유가 없다. [전역]
애-ᄆᆞ르다 동 물을 마시고 싶을 정도로 몹시 애가 타다. [전역]
애비 명 아비. [전역]
애비-아덜 명 *(속) 애비아덜이 ᄆᆞᆯ 탕 가민, 이녁 ᄆᆞᆯ 메여 뒁 아방 ᄆᆞᆯ 탄다.(아비와 아들이 말을 타고 가면, 자기의 말을 매어 두고 아버지의 말을 탄다.) [전역] → 에비-아들.
애-석다 동 근심에 겨워 속이 아주 상하다. [전역]
애-설룹다 형 애석하고 원통하다. [전역]
애손-다리 명 <민> 신칼로 점을 칠 때, 칼날이 마주한 형상. [전역]

애-쓰다 동 애-쓰다. [전역] 고애쓰다.
애옥 명 [서홍 수산 김녕] → 애욕.
애욕 명 큰 부스럼이 난 자리에 살이 곪아서 나는 부유스름한 즙(汁).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애옥.
애이리 명 <동> 매퉁이. [인성 수산 가시] = 아여리.
애-좇다 동 애가 타다. 속이 타다. [전역]
애초 명 애초. [전역]
애-타다 동 애-타다. [전역]
애통-그차지다 동 [전역] → 애통-끈어지다.
애통-끈어지다 동 애통-터지다. [전역] = 애통-그차지다.
애-툭 명 버선의 뒤꿈치 위에 턱이 진 곳. 버선에 이것이 있기에 신었을 때 쉬 벗겨지지 않게 됨. [대포]
액-막이(厄-) 명 <민> 액(厄)을 막아 행운이 오기를 기원하는 제차(祭次) 이름. [전역]
앨록-ᄒᆞ다 형 쩨쩨하고 더럽다. [전역]
앵두 명 [가시 서홍] → 어영뒤. 고잉도.
앵두-낭 명 <식> [전역] → 어영뒤-낭.
앵주-낭 명 <식> [수산 김녕] → 어영뒤-낭.
앵지 명 [서홍] → 어영뒤.
야[1] 감 [수산 노형 세화 조천] → 양[3].
야[2] 조 야. 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서, 주로 '해라' 할 자리에서 사람을 부를 때 쓰이는 호격 조사. [전역]
야가기 명 '목'(頸)의 양 옆과 뒤쪽. [전역] = 야가지, 야각지, 야개기, 야게.
야가지 명 [수산 김녕 가시] → 야가기.
야각지 명 [우도] → 야가기.
야개기 명 [전역] → 야가기.
야게 명 [전역] → 야가기.
야게-걸다 동 [전역] → 목-걸다.
야그라-지다 동 매우 야기죽거리다. [전역]
야그라진-놈 명 매우 야기죽거리는 사람. [전역]
야긔염-다리 명 음식물 같은 것을 얻어먹으려고 배도는 사람. [전역]
야긔염-쟁이 명 음식물 같은 것을 얻어먹으려고 자꾸 배돌기를 잘하는 사람. [전역]
야긔염-ᄒᆞ다 동 음식물 같은 것을 얻어먹으려고 배돌다. [전역]
야기-부리다 동 야기-부리다. [전역]
야-냑게 명 <음> 떡의 일종. [전역]
야냥게 명 양광. 분수에 넘치는 호강. [전역] = 양광.
야단(惹端) 명 야단. [전역]
야단-나다(惹端--) 동 야단-나다. [전역]
야단-방망이 명 '야단'을 속되게 이르는 말. [전역]
야드락-지다 형 물건이 표준 정도보다 훨씬 굵다. [전역]
야리다 형 야리다. [전역]
야물다 동 여물다. 과일이나 곡식 따위가 알이 들어 딴딴하게 잘 익다. [전역]
야반(夜半) 명 야반. [전역]
야-빈닥 명 요-변덕. [전역]
야생-동(野生洞) 명 <지> 제주시 봉개동 서회천의 옛 자연마을. [봉개 삼양 조천]
야속-ᄒᆞ다(野俗--) 형 야속-하다.

[전역]
야순-막 명 [인성 서홍] → 순-막.
야심(野心) 명 야심. [전역]
야-야 감 [전역] → 예-야.
야웅 부 아웅. 고양이 우는 소리. [전역]
야의 대 [전역] → 이-아이.
야의-야 감 [전역] → 예-야.
아이 대 [전역] → 이-아이.
야체 명 <민> 야차(夜叉). [전역] = 영감.
야칸 부 아무튼. 하여튼. [표선]
야트다 형 [전역] → 야프다.
야편 명 [전역] → 애펜.
야프다 형 얕다(淺). [전역] = 야트다, 예프다.
야학 명 야학(夜學). [전역]
약궤 명 <음> 좁쌀가루나 밀가루 따위로 네모지게 만들어서 구멍 다섯을 내고 기름에 지지거나 삶아낸 떡. [전역] = 악궤, 얍게.
약-단지 명 <도> [전역] → 약-탕관.
약도리 명 <도> 노끈 따위로 그물 같이 맺어 둘레에 고를 대고 긴 끈을 단 물건. [김녕 노형 조수 인성] = 약돌기.
약돌기 명 <도> [서홍 수산 가시] → 약도리.
약밥-약술 명 <민> 약밥과 약주. 신굿에서 심방이 되었음을 인정하고 신이 내리는 술과 음식. [전역]
약상-ᄒᆞ다 형 약-하다. [전역]
약-탕관(藥湯罐) 명 <도> 약-탕관. [전역] = 약-단지.
약-ᄒᆞ다(藥--) 동 약-하다. 병이나 상처를 고치기 위하여 약을 쓰다. [전역]
얄라니 명 [수산 가시] → 얄레.
얄레 명 소(牛)가 혀를 내고 소리지르며 하는 짓.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얄라니, 홍질레.
얄레-ᄒᆞ다 동 소(牛)가 혀를 내고 소리를 지르며 몸짓을 하다. [노형 조수 인성 김녕 수산]
얇룹다[1] 형 얇다. [전역]
얇룹다[2] 형 묽다. *오메기떡 쪙 물 서껑 놔뒷당 누룩 배합ᄒᆞ멍 술이 뒈냐 얄루냐 간을 맞추는 거라.('오메기떡' 반죽해서 물 섞어서 놔 두었다가 누룩을 배합하면서 술이 되냐 묽으냐 간을 맞추는 거야.) [성읍]
얄-밉다 형 얄-밉다. [전역] 고 얄밉다.
얄브랑-ᄒᆞ다 형 얄브스름-하다. [어도 인성] = 얄우랑-ᄒᆞ다.
얄우랑-ᄒᆞ다 형 [전역] → 얄브랑-ᄒᆞ다.
얇다 형 얇다. [전역]
얌전-ᄒᆞ다 형 얌전-하다. [전역]
압게 명 <음> [중문 색달] → 약궤.
얍지랑-ᄒᆞ다 형 얄찍-하다. [전역]
양[1]**(羊)** 명 양. [전역]
양[2]**(胖)** 명 양. 소의 위를 고기로 이르는 말. [전역]
양[3] 감 예. 존대할 자리에 재차 묻는 말. [전역] = 야[1].
양[4] 미 첨사. *우리 짐령 ᄀᆞ뜨민 당 양.(우리 김녕 같으면 당(堂) 말입니다.) [전역] = 예[3].
양-가달 명 두 다리. [전역]
양광 명 [전역] → 야냥게.
양궁-숙임 명 <민> 전제석궁과 시왕당클의 신들을 돌려보내고 당클을 치우는 의례. [전역]

양기-바르다 형 양지-바르다. [전역]
양-꼬땡이 명 [조수] → 양-끗갱이.
양-끗갱이 명 물건의 양쪽 맨 끝 부분.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가시] = 양-끄땡이.
양념 명 양념. [전역]
양념-똘 명 고명-딸. 음식의 양념처럼 집안의 분위기를 아기자기하게 만드는 딸. *고치 셍강 양념똘.(고추 생강 고명딸.) [전역]
양-달량 명 양-달령(洋大布). [전역]
양대 명 <의> 갓-양태. 갓의 밑둘레 밖으로 넓게 바닥이 된 부분. [전역] = 양태, 양테.



양대

양대-동(良大洞)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의 한 자연마을. [조천] = 양대-못, 양천-동(陽泉洞).
양대-못 명 <지> [조천] → 양대-동(良大洞).
양도새 명 바람 방향이 바뀔 때 양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전역]
양맥-전(兩麥田) 명 <농> 토질이 푸석지지도 탄탄하지도 않은, 그 중간 성질을 갖고 있어 보리나 조를 경작하는 것이 어느 정도 가능한 밭. [중문]
양물-팟 명 <어> 썰물 때는 물론 밀물 때에도 형성되는 자리돔 어장. [전역]
양반 명 양반(兩班). [전역]
양-배 명 두 거웃으로 하나의 두둑을 만들어내는 밭갈이. [대포]
양벳-떼기 명 <농> 두 개의 고랑으로 한 이랑을 이루는 밭갈이. [전역] = 두벳-떼기.
양-ᄇᆞ름 명 모슬포에서 하늬바람이 불 때 마라도에서 부는 샛바람. *팔월 ᄃᆞᆯ서부터 시월ᄃᆞᆯ까지 양ᄇᆞ름이 붑네다.(8월서부터 10월까지 '양ᄇᆞ름'이 붑니다.) [마라도]
양석 명 [전역] → 양식(糧食).
양-손 명 양-손(兩手). [전역]
양-숨 명 한쪽으로만 불지 않고 맞은쪽으로도 동시에 부는 바람. [전역]
양식(糧食) 명 양식. [전역] = 양석.
양씨아미-본풀이 명 <민> 제주시 조천읍 와산(臥山), 서귀포시 남원읍 예촌(禮村)에서 전승되는 조상신본풀이. [전역]
양안(洋鞍) 명 서양식 말 안장. [행원]
양애근-지시 명 <음> [수산] → 양에-지히.
양애-지 명 <음> [서홍 인성] → 양에-지히.
양애-지의 명 <음> [노형 조수] → 양에-지히.
양애-클 명 논밭에 나는 잡초. [대포]
양에 명 <식> 양하(蘘荷). [전역] = 양왜. 고 양하.
양에-지히 명 <음> 양하의 땅속줄기에서 나온 꽃이삭으로 담근 장아찌. [노형 조수] = 양애근-지시, 양애-지, 양애-지의, 양왜불-지시.
양엣-간 명 양하의 땅속줄기에서 솟아

나는, 죽순(竹筍) 비슷한 꽃이삭. [전역] = 양엣-근.



양에간

양엣-근 명 [전역] → 양에-간.
양왜 명 <식> [김녕] → 양에.
양왜불-지시 명 <음> [김녕] → 양에-지히.
양의-젓 명 양-젖(羊乳). [전역] = 양의-젯.
양의-젯 명 [전역] → 양의-젓.
양이목ᄉᆞ-본풀이 명 <민> 양이목사-본풀이. 탐라양씨(耽羅梁氏) 명월파(明月派)의 조상신(祖上神)에 대한 본풀이. [전역]
양제 명 양자(養子). [전역] = 양ᄌᆞ.
양제-가다 동 양자-가다(養子--). [전역]
양제-ᄃᆞ리다 동 [전역] → 양제-ᄃᆞᆯ다.
양제-ᄃᆞᆯ다 동 양자(養子)를 데리다. [전역] = 양제-ᄃᆞ리다, 양제-세우다.
양제-세우다 동 [전역] → 양제-ᄃᆞᆯ다.
양주-머리[1] 명 <도> 따비의 손잡이. [어음]
양주-머리[2] 명 양지-머리. 쟁기술의 우두머리 끝에 질러 박아진 가로나무. [전역] = 양주-ᄆᆞ르, 양중-머리.
양주-ᄆᆞ르 명 [서홍] → 양주-머리[2].
양-죽 명 3년에서부터 7년 사이의 대나무. [도련]
양중-머리 명 [수산 가시] → 양주-머리[2].
양지 명 [전역] → ᄂᆞᆺ. 고 양ᄌᆞ.
양지-발르다 형 양지-바르다. [전역]
양ᄌᆞ 명 [전역] → 양제.
양-짝(兩-) 명 [전역] → 양-착.
양-착(兩-) 명 양-짝. [전역] = 양-짝(兩-).
양채-젭이 명 <민> 무악을 울릴 때 북과 설쒜 둘을 한 심방이 동시에 침. [전역]
양천-동(陽泉洞) 명 <지> [조천] → 양대-동(良大洞).
양-철 명 서양-철(西洋鐵). [전역]
양첩-ᄒᆞ다(兩妾--) 동 축첩-하다(蓄妾--). 첩을 두다. ＊전처 구박 양첩ᄒᆞᆫ 놈아 대천 바당 가운디 들엉 안개 유영 ᄃᆞᆯ 진 밤 새라.(전처 구박 양첩한 놈아 대천 바다 가운데 들어 안개에 길 잃어 달 진 밤 새어라.) [전역]
양태 명 <의> [전역] → 양대.
양태-청 명 동네의 아낙네들이 모여 앉아 갓양태를 함께 겯는 집. [전역]
양태-판이 명 <도> 갓양태를 겯는 연장의 한 가지. 벚나무나 느티나무 널빤지로 얄팍하고 둥그런 모습으로



양태판이

만들고, 중앙에 네모난 구멍을 뚫음. [전역]

양테 명 <의> [전역] → 양대.

양테 놀레 명 <요> [삼양] → 양테 줃는 소리.

양테 몾는 소리 명 <요> [삼양] → 양테 줃는 소리.

양테 줃는 소리 명 <요> 갓양태를 결으면서 부르는 민요. [삼양] = 양테 놀레, 양테 몾는 소리.

양폔 명 [전역] → 양편.

양편(兩便) 명 양편. [전역] = 양폔.

양활-치다 동 활갯짓-하다. [전역]

얘-야 감 [전역] → 예-야.

얘폔 명 아편(阿片). [전역] = 야편.

-어[1] 어미 -어.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사실이나 상태를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경 ᄒᆞᆫ 후젠 마당에 나간 이제 지들렷어.(그렇게 한 후에는 마당에 나가서 이제 기다렸어). ＊요새 아이덜 주운 양말 신어?(요새 아이들 기운 양말 신어?) [전역]

-어[2] 어미 -어.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행동하기를 명령하는 뜻을 나타내는 평대 명령법 어미. [전역]

-어[3] 어미 -던가.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제삼자가 그 '행동을 하던가'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어[4] 어미 -어. ① 동사 어간에 붙은 '-암시-·-엄시-·-염시-·-람시-' 등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하고 있는가'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② 동사 어간에 붙은 '-아시-·-어시-·-여시-·-라시-' 등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끝내 있는가'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어[5] 어미 -어. 음성모음으로 된 용언 어간에 붙어서 부사형을 이루는 어미. [전역]

-어- 선어말 -더-.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과 의문법 어미 '-냐·-니'의 사이 또는 평서법 어미 '-라'의 바로 앞에 붙어서,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를 회상하여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어간 말음이 '-어'인 경우에는 이 '-어-'가 줄어듦. [전역]

어가라 부 [전역] → 어ᄀᆞ라.

어거지 명 억지. [전역] = 억지.

어거지-꾼 명 억지를 잘 쓰는 사람. [전역] = 억지-꾼.

어거지로 부 [전역] → 억지로.

어거지-부리다 동 [전역] → 억지-부리다.

어거지-쓰다 동 [전역] → 억지-쓰다.

-어고 어미 -데.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상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어귀 명 어귀. 드나드는 목의 첫머리. [전역]

어귀-돌 명 <건> 올레 어귀 양쪽 담에 쌓는 큰 돌. [전역]

어귀-지기 명 <민> [전역] → 어귀-지신.

어귀-지신 명 <민> 어귀를 지키는 신.

[전역] = 어귀-지기.
어귓-담 명 거릿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목의 양옆 담. [전역]
어귓-돌 명 <건> 이맛-돌. [노형 조수 인성 수산 가시] = 더껫-돌.
어그라 부 [인성 서홍] → 어ᄀᆞ라.
어그러-지다 동 어그러-지다. [전역]
-어근 어미 -고서. [전역] → -엉근.
어근버근-ᄒᆞ다 형 어근버근-하다. [전역]
어근-비근 부 이기고 지고 함이 없이 서로 비기는 모양. [전역]
-어근에 어미 -고서. *큰 방립 써근에 상 지ᄀᆞ영 어디 나댕기도 못허곡.(큰 방립 써서 상(喪)을 지키어서 어디 나다니지도 못하고.) *저 ᄆᆞᆯ총에 붉은 물 들여근에 ᄃᆞᆯ아맵니다.(저 말총에 붉은 물을 들여서 달아맵니다.) [전역] → -엉근에.
어글 명 [전역] → 무글.
어글락-다글락 부 울퉁-불퉁. [전역]
어금-니 명 어금-니. [전역]
어금-발가락 명 [전역] → 엄지-발가락.
어금-손가락 명 [전역] → 엄지-손가락.
어금-출리 명 [세화] → 엄-출기.
어긋-지다 형 사람이 억세어 좀처럼 굽히지 않는 성질이 있다. [전역]
어긔-차다 형 어기-차다. [전역] = 어긔-ᄎᆞ다.
어긔-ᄎᆞ다 형 [전역] → 어긔-차다.
어기다[1] 동 어기다. [전역] 고 어긔다.
어기다[2] 형 밭에 흙이 딴딴하여 갈기에 힘들다. [전역]
어기대기 명 [전역] → 무글.
어긴-밧 명 자갈이 많거나 흙이 딴딴하여 쟁기로 갈기가 힘겨운 밭. [봉성 북촌]
어ᄀᆞ라 부 미루지 않고 곧. [인성 조수 노형] = 어가라, 어그라, 워ᄀᆞ라.
어깨 명 <어> 후릿그물 중 '한불'과 '놀개' 사이의 그물. [조천 신흥]
어께 명 [전역] → 엇게.
어께-ᄉᆞ방 명 어깨의 언저리. [전역]
어꾸다 동 [수산 세화] → 어프다.
어나들-이다 동 [전역] → 골메들-이다.
-어냐 어미 -더냐.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어네 어미 -어서. 연결어미. *수건을 확 벗어네 흔 귀때길 이녁 발모가지에 툭ᄒᆞ게 무꺼네 발을 쓸쓸 이레 ᄃᆞᆼ기난.(수건을 확 벗어서 한 귀퉁이를 자기 발목에 탁하게 묶어서 발을 쓸쓸 이리로 당기니까.) [전역]
-어녜 어미 -었네.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화자가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회상하여 지정하되 연하의 상대자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짐작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어느-세 부 어느-새. [전역]
어느-제 부 언제. [전역] = 어는-제, 언제.
어느-하가의 부 어느 해가(奚暇)에. [전역]
어는-제 부 [전역] → 어느-제.
-어니 어미 -더니.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어단 어미 -어다가. 어떤 두 동작을 말할 때, 앞에 나오는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중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어당 어미 -어다가. 어떤 두 동작을 말할 때, 앞에 나오는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장차 할 일이나 아직 끝나지 않은 동작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어대-오름 명 <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의 상덕천으로 가는 도로변에 있는 오름. 표고 211미터. [덕천 송당] = 어두름.

어덕 명 <어> [우도] → 걸-바당.

어덕-궤기 명 <어> 주로 바다 속 암반이나 돌무더기에서 서식하는 물고기. [우도]

-어도 어미 -어도. 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가정·양보·방임' 등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②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행동이 그 다음 용언의 내용과는 상응이 안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어도-악(於道岳) 명 <지> [전역] → 어도-오름.

어도-오름 명 <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북서쪽에 있는 오름. 조선 때 봉수대가 있었음. 표고 143.2미터. [전역] = 도내-산(道內山), 도노-미[1], 어도-악(於道岳).

어두름 명 <지> [덕천 송당] → 어대-오름.

-어 두서 어미 -어 있으면서. [전역] → -어 두어서.

-어 두어서 어미 -어 있으면서. 타동사의 음성모음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행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지니어 감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 -어 두서, -어 두어서.

-어 두언 어미 -어 두고서. '쓰다'(書) 등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행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상태 그대로를 지속하면서 다른 행동을 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어 두엉서 어미 -어 있으면서. [전역] → -어 두어서.

어두엣-ᄇᆞᄅᆞᆷ 명 어스름 바람. 저녁이나 새벽의 어스레한 때 부는 바람. *어두엣ᄇᆞᄅᆞᆷ 옷을 벗언 세운 간 ᄒᆞᆫ다.(어스름 바람 옷을 벗어 세운 듯한다.) [전역]

어둑다 형 [전역] → 어둡다.

어둑칙칙-ᄒᆞ다 형 [수산 세화 성산] → 어둠침침-ᄒᆞ다.

어둑침침-ᄒᆞ다 형 [수산 세화] → 어둠침침-ᄒᆞ다.

어둑-ᄒᆞ다 형 어둑-하다. [전역]

-어 둠서 어미 -어 있으면서.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사가 뜻하는 동작을 행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지니어 감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우침직ᄒᆞ연 아방 어멍은 눈이 벌겅ᄒᆞ게 밧디로 ᄃᆞᆫ는디 걸러져둠서 일어나사 말이주.(비가 올 것 같아 아버지 어머니는 황급하게 밭으로 내닫는데 드러누워 있으면서 일어나야 말이지.) [전역]

어둠침침-ᄒᆞ다 형 어둠침침-하다. [어도 조수 인성 서홍 태흥 표선] = 어둑칙칙-ᄒᆞ다, 어둑침침-ᄒᆞ다.
어둡다 형 어둡다(暗). [전역] = 어둑다. 고어듭다.
어들어들-ᄒᆞ다 형 날이 저물면서 물건이 보일락말락할 정도로 조금 어둡다. [전역]
어듬-더듬 부 떠듬-떠듬. [전역]
어듸 대 어디. [전역] = 어디.
어디 대 [전역] → 어듸.
어따 감 어따. [전역] = 어따-가라.
어따-가라 감 [전역] → 어따.
어떠불라 감 갑자기 뜨거움을 느꼈을 적에 내는 소리. [노형 조수 인성 수산]
어떤 관 어떤. [전역]
어떵 부 어떻게. *어멍 아방 죽엉은에 어떵 살코?(어머니 아버지 죽어서 어떻게 살까?) [전역]
어떵-ᄒᆞ다 형 어떻다. *가의 집의 가난 어떵ᄒᆞ냐?(그 애 집에 가니 어떠냐?) [전역]
어뜩-ᄒᆞ다 형 어뜩-하다. [전역]
어뜩-ᄒᆞ민 부 [전역] → 어쓱-ᄒᆞ민.
어뜻-ᄒᆞ민 부 [전역] → 어쓱-ᄒᆞ민.
-어라 어미 -더라.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회상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어라만 어미 -더라만.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화자가 경험한 과거의 그 동작·행동을 회상하며 제한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어랑-어랑 부 몹시 야들야들하고 윤이 나는 모양. [전역] = 얼랑-얼랑.
어랑-지다 형 나뭇잎이나 상추 따위가 야들야들하고 윤이 나다. [전역]
어러러 감 말(馬)을 모는 소리. [전역] = 어려려.
어럭-돗 명 <동> 얼럭덜럭한 털빛을 한 돼지. [전역]
어럭-쉐 명 <동> 얼럭-소(--牛). [전역]
어레미 명 <도> [전역] → 얼멩이.
어레-빗 명 <도> [전역] → 얼레기. 고얼에빗.
어렝이 명 <동> 어렝-놀래기. [전역]
어려려 감 [서홍 수산] → 어러러.
어렵다 형 어렵다. [전역] 고어렵다.
어룩-어룩 부 어룩-어룩. [전역]
어룬 명 어른. [전역] 고얼운.
어르다 동 자리가 어지럽게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다. [노형 조수] = 얼르다[1].
어르-달레다 동 어릿어릿 남을 타이르다. [전역]
어르-머 감 [조수 인성] → 어리-머.
어르-문지다 동 어루-만지다(撫). [전역]
어름-쓸다 동 *개를 어름쓸멍 밥이나 주곡 ᄒᆞ저 붉기 전에 가랭 ᄒᆞ민 마당 ᄒᆞᆫ 바뀌 삥 돌앙 떠나가고.(개를 어루더듬으면서 밥이나 주고 하면 빨리 밝기 전에 가라고 하면 마당 한 바퀴 삥 돌아서 떠나가고.) [대정] → 어릅-쓸다.
어름-씰다 동 *점복은 돌에도 부트곡. ᄒᆞ는 사름은 막 돌 어름씰엉 ᄒᆞ메. 우린 옛날부터 어름씰엉 ᄒᆞ여 나지 안허난 그거 못ᄒᆞ곡.(전복은 돌에도 붙고. 하는 사람은 막 돌을 어루더듬

어서 해. 우리는 옛날부터 어루더듬으면서 해 본 적이 없어서 그거 못하고.) [하귀] → 어릅-쓸다.

어릅-쓸다 동 어루-더듬다. [전역] → 어름-쓸다, 어름-씰다.

어리다 형 어리다. ① 나이가 적어 철이 덜 들다. [전역] ② 생각이 모자라다. [전역] = 두리다.

어리둥절-ᄒᆞ다 형 어리둥절-하다. [전역]

어리-머 감 워리. 개를 부를 때 쓰는 말. [전역] = 어르-머.

어리-목 명 <지> 제주시 해안동 남쪽, 1100도로변의 어승생오름 남동록에 있는 길목. 표고 970미터. [전역]

어리-석다 형 어리-석다. [전역]

어리숭-ᄒᆞ다 형 보기에 어수룩하다. [전역]

어린-거리다 동 어른-거리다. [전역]

어린-것 명 어린-것. [전역]

어린-비 명 <지> [전역] → 어림-비.

어린-빌레 명 <지> [전역] → 어림-비.

어린-소견 명 어린-소견. [노형 조수인성 서홍] = 어린-쉐견.

어린-쉐견 명 [김녕 수산 가시] → 어린-소견.

어린-아기 명 어린 젖먹이 아이. [전역] = 두린-아기, 두린-애기, 어린-애기.

어린-애기 명 [전역] → 어린-아기.

어린-양 명 어리광. [전역]

어림-비 명 <지> 제주시 애월읍 어음 2리의 옛 이름. [전역] = 어린-비, 어린-빌레, 어림-빌레.

어림-빌레 명 <지> [전역] → 어림-비.

어림-웃다 형 어림-없다. [전역]

어림-잡다 동 어림-잡다. [전역]

어마-넉덜라 감 어린애가 떨어지거나 자빠지거나 다쳤을 때에 달래면서 내는 소리. [전역]

어마-떵어리 감 [전역] → 아마-떵어리.

어머니 명 [전역] → 어멍.

어머-님 명 어머-님. [전역] = 어멤.

어멀정-ᄒᆞ다 형 어벌쩡-하다. [전역] = 어벌쩡-ᄒᆞ다.

어멍 명 어머니. *(속) 유월 물이 그립덴 헤도 어멍보단 더 안 그립나.(유월 물이 그립다고 해도 어머니보다 더 안 그립다.) *(속) 어멍은 배 고팡 죽곡, 아읜 배 터졍 죽곡.(어머니는 배 고파서 죽고, 아이는 배 터져서 죽고.) [전역] = 어머니.

어멍-펜 명 외편(外便). 어머니 쪽의 일가. [전역]

어멤 명 [전역] → 어머-님.

어버시 명 어버이. [전역] = 어버이.

어버이 명 [전역] → 어버시.

어벌쩡-ᄒᆞ다 형 [수산] → 어멀정-ᄒᆞ다.

어부애 감 [전역] → 부애[2].

어불싸 감 어뿔싸. [전역] = 어불쌍, 어차불싸, 어차불쌍, 어풀싸, 어풀쌍.

어불쌍 감 [전역] → 어불싸.

-어ㅅ- 선어말 -었-. [전역] → -어시-.

-어사 어미 -어야.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뒷말에 대한 어떤 조건이 꼭 필요함을 뜻하는 연결어미. '-어' 모음으로 끝난 어간에 연결될 때는 '-어사'의 '-어'가 줄어듦. *보리 고고리 ᄒᆞ나라도 더 줏어사 헌다.(보리 이삭 하나라도 더 주워야 한다.) [전역]

어상-거리다 동 서성-거리다. [전역]
어상-바상 부 서로 낫고 못함이 없이 비슷한 모양. [전역] = 어장-바장.
어상바상-ᄒᆞ다 형 어상반-하다. [전역]
-어샤 어미 -어 있냐.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끝나 있느냐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어서 부 어서. [전역]
-어서[1] 어미 -었어.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끝나 있거나, 상태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눈알이 히여뜩ᄒᆞᆫ디 산일 아진일 ᄀᆞᆯ리게 뒈서?(눈알이 어지러운데 선일 앉은일 가리게 됐어?) [전역]
-어서[2] 어미 -었어.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하였는가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어서[3] 어미 -었어.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하고 있으라고 명령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어서[4] 어미 -어서. [전역] → -언[1].
-어서고 어미 -었더군.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거나 상태가 이루어져 있음을 나타내는 평서법 어미. 주로 연소층의 동년배 사이에서 씀. [전역]
-어서고나 어미 -었더구나.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있음을 회상하면서 감탄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어서도 어미 -어서도.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행동이 그 다음 용언의 내용과는 서로 부응이 안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어서라 어미 -었더라.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있거나 또는 그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회상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유채고장 노랑ᄒᆞ게 잘도 피어서라.(유채꽃이 노랗게 잘도 피었더라.) [전역]
-어서렌 어미 -었더라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완료되거나 상태가 이루어져 있음을 회상하여 말하는 '-어서라'의 변형 '-어서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어선게 어미 -어 있던데·-었던데.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제삼자의 동작이나 상태를 회상하여 상대방도 인정하게 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어선고 어미 -어 있던고·-었던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제삼자의 동작이나 상태를 회상하여 물을 때 쓰이는 의문법 어미. 앞에 대개 의문사가 옴. [전역]
-어설란 어미 -어서는. 연결어미 '-어서'에, 특수조사 'ㄹ란'이 결합한 형태. *역불 할망 울언 창고 하나 지

어설란 돈을 꽉 담아 잇이니.(일부러 할머니 위해서 창고 하나 지어서는 돈을 가득 담아 있으니.) [전역]

어설프다 형 어설프다. [전역] = 의설프다.

-어수가 어미 -었습니까. [전역] → -엇수가.

-어수꽈 어미 -었습니까. *어떵 일 잘 뒈수꽈?(어떻게 일 잘 되었습니까?) [전역] → -엇수가.

-어수다 어미 -었습니다. *코 존동이가 퍼렁ᄒᆞᆫ 게 페랍게만 생겨수다.(코 잔등이가 파란 게 괴퍅하게만 생겼습니다.) [전역]

어수룩-ᄒᆞ다 형 어수룩-하다. [전역] = 으스룩-ᄒᆞ다.

어수에 명 일없이 어정거림. *지드리는 덱이랑 두엉 어디 오란 어수에라니?(기다리는 부인일랑 두고 어디 와서 어정거리더냐?) [전역]

어숙-미숙 부 거리끼어 머뭇거리는 모양. [전역]

어스럼 명 [어도] → 어스름.

어스럼-새별 명 [전역] → 어스름-새벨.

어스름 명 어스름. [전역] = 어스럼, 어슬먹. 고 어스름.

어스름-새벨 명 저녁 어스레한 때에 특별히 밝게 번쩍이는 별. [전역] = 어스럼-새별.

어스름-오름 명 <지> [전역] → 어승생-오름.

어스승-오름 명 <지> [전역] → 어승생-오름.

어슥비슥-ᄒᆞ다 형 어슷비슷-하다. [전역] = 어슷비슷-ᄒᆞ다.

어슬랑-어슬랑 부 [전역] → 으슬랑-으슬랑.

어슬먹 명 [인성 노형 조수] → 어스름.

어슷비슷-ᄒᆞ다 형 [전역] → 어슥비슥-ᄒᆞ다.

어승생-악(御乘生岳) 명 <지> [전역] → 어승생-오름.

어승생-오름 명 <지> 제주시 노형동 남쪽 한밝저수지 뒤에 솟은 오름. 제주도 기생화산 중 가장 큰 오름으로 정조(正祖) 21년(1797) 오름 밑에서 용마(龍馬)가 태어나 이를 조정에 바치자 어승마(御乘馬)로서 노정(盧正)이라는 이름을 내리고 가자(加資)하였다고 함. 표고 1169미터. 준 어승생. [전역] = 어스름-오름, 어스승-오름, 어승생-악(御乘生岳), 어승생-이, 어시싱-오름, 얼시심-오름.

어승생-이 명 <지> [전역] → 어승생-오름.

-어시- 선어말 -어 있-·-었-.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끝나 있음' 또는 그 '상태가 되어져 있음'의 뜻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전역] = -어ㅅ-.

-어시난 어미 -었으니까.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라는 뜻으로 앞으로 하려는 말에 대하여 원인·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어시냐 어미 -었냐.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느냐'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어시네 어미 -었네.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이루어진 사실을 화자가 지정하되 연하의 상대자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짐작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어시녠 어미 -었냐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느냐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어시냐'의 변형 '-어시녜'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묻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어시녱 어미 -었냐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느냐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어시냐'의 변형 '-어시녜'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묻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어시-노리 명 <동> 노루의 암컷. [교래 광령 성읍]

-어시니 어미 -어 있니·-었니.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 -어시이.

-어시니까 어미 -었으니까.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으니까'라는 뜻을 세게 표현하여, 앞으로 하려는 말에 대하여 원인·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어시니까니 어미 -었으니까.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으니까'라는 뜻을 더욱 세게 표현하여, 앞으로 하려는 말에 대하여 원인·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어시-닮다 형 짐승의 새끼 따위가 그 어미와 생김새가 비슷하다. [전역]

-어시라 어미 -어 있어라.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다 끝내 있어라'는 뜻을 나타내는 명령법 어미. [전역]

-어시랴 어미 -었으랴.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있음에 대한 화자 스스로의 물음이나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어시렌 어미 -어 있으라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끝내 있어라'는 뜻을 나타내는 '-어시라'의 변형 '-어시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어시렝 어미 -어 있으라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끝내 있어라'는 뜻을 나타내는 '-어시라'의 변형 '-어시레'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어시메 어미 -어 있어.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제삼자의 동작이 끝나 있거나 또는 상태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주로 부녀자들 사이에서 씀. [전역]

-어시민 어미 -었으면.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존속을 가정적으로 나타내는 연결어미. *미릿 준비 아니ᄒᆞ였다고 호켱만 질르면서 쏠 흔 뒈라도 줭 보내여시민 홀 텐디 쏠도 아이 주고.(미리 준비하지 않았다고 야단만 치면서 쌀 한 되라도 주어 보내었으면 할 텐데 쌀도 아니 주고.) *이제 ᄒᆞ나을 더 잡아 부러시민 본국에서 어떻게 뒈엿는지 몰라 부릴 건디.(이제 하나를 더 잡아 버렸으면, 본국(本國)에서 어떻게 되었는지 몰라 버렸을 텐데.) [전역]

어시싱-오름 명 <지> [전역] → 어승생-오름.

-어시이 어미 -어 있니·-었니. [전역] → -어시니.

-어시카 어미 -었을까.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에 대하여 화자가 추측하여 묻거나 또는 화자 스스로의 의심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어시쿠가 어미 -었겠습니까.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완료하여 있을 의도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어시쿠데 어미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음을 결과로 말하려 할 때, 나중에 하는 동작이나 상태의 원인·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어시크라 어미 -어 있겠네.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끝내 있거나 그 상태가 되어 있겠다는 화자의 의도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어시크메 어미 -었겠어.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주로 부녀자들 사이에 그 동작을 끝내 있거나 또는 그 상태가 되어 있겠다는 화자의 의도·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어시키여 어미 -었겠다.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다 끝내 있겠다' 또는 그 '상태가 되어 있겠다'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어신가 어미 -어 있는가·-었는가.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거나 상태가 이루어져 있음을 확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자네, 이 집 큰아들이나 뒈어신가?(자네 이 집 큰아들이나 되는가?) [전역]

-어신게 어미 -었네.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거나 상태가 이루어져 있음을 확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어신고 어미 -어 있노·-었노.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완료하여 있는가'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대개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어신고라 어미 -었는지.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 나중하는 동작·상태의 원인·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이 집 저 집 세베 뎅기단 보나네 먹음도 경 하영 먹어저신고라 설세 제왕 못 살키여.(이 집 저 집 세배 다니다 보니 먹기도 그렇게 많이 먹었는지 설사 겨워 못살겠다.) [전역]

-어신디 어미 -었는지·-어 있는지.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완료되거나 상태가 이루어져 있는지'란 어렴풋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빠른 가락으로 궁궁 짝짝 ᄒᆞ멍 어디레사 둘아 부러신디, 촞일 수가 어서.(빠른 가락으로 궁궁 짝짝 하면서 어디로 달아나 버렸는지, 찾을 수가 없어.) [전역]

-어실 거여 어미 -고 있을 게다.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끝내 있을 것이다' 또는 그 '상태가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어실다 어미 -었겠냐. 음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완료하여 있을 의도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어십데가 어미 -었습디까.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했었습니까?' 또는 그 '상태가 되었습니까?'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어십데다 어미 -었습디다.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했습니다' 또는 그 '상태가 되었습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어십서 어미 -어 계십시오. 음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완료하여 계십시오'란 뜻으로 존대 명령을 나타내는 명령법 어미. [전역]

-어십주 어미 -었습지오.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오'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완료하여 있습니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그 전엔 거 빌렛질로 뎅겨십주.(그 전에는 거 '빌렛길'로 다녔었지요.) *번번ᄒᆞᆫ 임뎅이, 툭ᄒᆞ게 튀어난 눈, 보통 사름은 그냥 볼 수가 엇어십주.(번번한 이마, 툭하게 나온 눈, 보통 사람은 그냥 볼 수가 없었습지오.) [전역] = -어십쥐.

-어십쥐 어미 -었습지오. [전역] → -어십주.

어쓱-ᄒᆞ민 부 언뜻-하면. [전역] = 어뜩-ᄒᆞ민, 어뜻-ᄒᆞ민.

어안이 벙벙ᄒᆞ다 구 어안이 벙벙하다. 뜻밖에 놀랍거나 이상한 일을 당하여 어리둥절하다. [전역]

어염 명 [전역] → 에염.

어영[1] 명 <지> 제주시 용담3동 바닷가에 있는 땅 이름. [용담]

어영[2] 명 <지> 제주시 용담3동 바닷가에 있는 한 자연마을. [용담] = 어영-동(御營洞·魚領洞), 어영-마을.

어영-동(御營洞·魚領洞) 명 <지> [전역] → 어영[2].

어영뒤 명 앵두(櫻桃). [노형 조수 인성] = 앵두, 앵지, 에영뒤, 엥주, 우영뒤.
어영뒤-낭 명 <식> 앵두-나무(櫻桃--). [인성 조수 노형] = 앵두-낭, 앵주-낭, 에영뒤-낭, 엥도-낭, 엥주-낭, 엥쥐-낭, 우영뒤-낭.
어영-마을 명 <지> [전역] → 어영[2].
어예 명 [전역] → 어이.
어-오름 명 <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영아리오름 동쪽에 있는 오름. 표고 642미터. [상천 광평]
어욱 명 <식> 참-억새.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어워기, 어웍. 고 어웍새.
어욱-패기 명 억새 포기. * 한라산에서 어욱패기 틈에 누웠어.(한라산에서 억새 포기 사이에 누웠어.) [전역]
어울리다 동 어울리다. [전역] 고 어울다.
어울림-쉐 명 여럿이 어울려서 먹이는 소. [월정]
어움 명 멧돼지의 이빨. [청수] = 어음.
어워기 명 <식> [서홍 수산 가시] → 어욱.
어웍 명 <식> [서홍 수산 가시] → 어욱.
어음 명 [청수] → 어움.
어이 명 순식-간(瞬息間). [전역] = 어예.
어이-없다 형 어이-없다. [전역] = 어이-웃다.
어이-웃다 형 [전역] → 어이-없다.
어이침사가리-없다 형 [전역] → 어이침사가리-웃다.
어이침사가리-웃다 형 '어이없다'의 낮은말. [전역] = 어이침사가리-없다.
어인-타인(御印打印) 명 <민> ① (약속 혹은 인정하는 의미로) 도장을 찍음. 혹은 그러한 의미의 의례. [전역] ② 신굿에서 등에 점구 상잔과 천문을 올려놓고 심방이 되었음을 인정하는 의례. [전역]
어잉간-ᄒᆞ다 형 [노형 조수 인성] → 에잉간-ᄒᆞ다.
어장-바장 부 [전역] → 어상-바상.
어저괴 명 [전역] → 어제.
어점이-오름 명 <지> 서귀포시 대천동 용흥 북서쪽에 있는 오름. 표고 820미터. [용흥 하원]
어정쩡-ᄒᆞ다 형 어정쩡-하다. [전역]
어제 명 어제(昨日). [전역] = 어저괴. 고 어저싀.
어제기 명 [인성 화순 하원] → 보제기.
어제기-질 명 [인성 서홍] → 보제기-질.
어젯-밤 명 어젯-밤. [전역]
-어져시니 어미 -었지.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수동의 동작이 완료되어 감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어져시민 어미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수동의 동작이 완료되어 감'을 가정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어쩜수가 어미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피동의 동작이 계속되어 감'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어쩜수다 어미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피동의 동작이 계속되어 감'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어쩜시니 어미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피동의 동작이 계속되어 감'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앞에 대개 의문사가 옴. [전역]

-어쩠수가 어미 -었습니까. [전역]

-어쩠수다 어미 -었습니다.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가능의 동작이 완료되어 감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어주에 명 <식> 어저귀. [전역]

어중간-ᄒᆞ다 형 일이 어떻게 될지 의심스럽다. [전역]

어중-거리다 동 말이나 행동으로 어지럽게 하다. [노형 조수 인성] = 어정-거리다.

어중-치기 명 이렇지도 저렇지도 않은 물건이나 상태. [전역]

어지간-ᄒᆞ다 형 어지간-하다. [전역] = 지간-ᄒᆞ다.

-어지건 어미 -이(-히·-리·-기)건.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피동의 동작이 이루어져 가거든'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어지고말고 어미 -어지고말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남의 물음에 대하여 그 동작이나 상태가 이루어짐을 긍정하는 뜻으로 강조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어지난 어미 -(으)니까·-이(-히·-리·-기)니까.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이루어지니까'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어지느냐 어미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가능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어지느니 어미 -어지니.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가능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대개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어지다 어미 -어지다. 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가능함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② 음성모음의 형용사 어간에 붙어서, 동사로 전성시키는 어미. [전역]

어지리다 동 어지르다. [전역]

어지림-탕쉬 명 할 일 안 할 일에 덤비어서 어지럽게 함을 속되게 일컫는 말. [전역]

-어지메 어미 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상태의 가능을 나타내는 '-어지-'에, 앞으로 하려는 말에 대하여 이유를 나타내는 '-메'가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②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피동의 뜻을 나타내는 '-어지-'에, 앞으로 하려는 말에 대하여 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메'가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어지민 어미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가능을 가정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어지어냐 어미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과거에 경험했던 동작의 가능을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어지어니 어미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

에 붙어서, 과거에 경험했던 동작의 가능을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어지카 어미 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수동이나 자동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② 음성모음의 형용사 어간에 붙어서, 동사로 전성시키는 의문법 어미. [전역]

-어지커냐 어미 -어지겠냐.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어지컨데 어미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이루어진 일이, 그 뒤에 하는 동작이나 상태의 원인·이유·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어지키여 어미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하기가 가능함을 추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어진-이 명 아기가 어질게 자라라는 뜻으로 어릴 때 붙이는 별명. [전역]

어질다 형 어질다. [전역] 고 어딜다.

-어질디 어미 -어질지.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가능할지 막연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어질연-대 명 [김녕 조수] → 앙장-대.

어징-거리다 동 [전역] → 어중-거리다.

어찌 명 <동> 쥐-돔. [신양 표선]

어찌-구릿 명 <동> 벵에돔의 일종. [사계]

어차불싸 감 [전역] → 어불싸.

어차불쌍 감 [노형 조수] → 어불싸.

어-치냑 명 어제-저녁. [전역] = 어-츠낙, 어-츠냑, 언-치낙, 언-치냑, 얼-즈낙, 얼-치냑.

어-츠낙 명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어-치냑.

어-츠냑 명 [전역] → 어-치냑.

어풀싸 감 [전역] → 어불싸.

어풀쌍 감 [전역] → 어불싸.

어프다 동 엎다. 밑바닥이 위로 가도록 뒤집어 놓다. [전역] = 어꾸다.

어픈 부 언뜻. [동복]

어후름 명 <지> [전역] → 어후-오름.

어후-악(御後岳) 명 <지> [전역] → 어후-오름.

어후-오름 명 <지> 한라산 국립공원 성널오름 북쪽,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와 제주시 봉개동 경계에 있는 오름. 표고 1017미터. [전역] = 어후름, 어후-악(御後岳).

-억 어미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반복되어 나타나는 데에 연결되어서, 같은 동작의 되풀이를 뜻하는 연결어미. [전역]

억대-장군 명 굴때-장군. [전역]

억물-동네 명 <지>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의 한 자연마을. [조천] = 억수-동(億水洞).

억-배기 명 얼금-뱅이. [전역]

억수-동(億水洞) 명 <지> [조천] → 억물-동네.

억-저리다 동 [수산 김녕] → 윽-저리다.

억지 명 [전역] → 어거지.

억지-꾼 명 [전역] → 어거지-꾼.

억지-다리 명 억지를 잘 부리는 사람. [노형 조수 인성] = 억질-다리.

억지-둥이 명 억-보.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 억질-둥이.

억지로 부 억지로. [전역] = 어거지로, 억질로.

억지-부리다 동 억지-부리다. [전역] = 어거지-부리다. 고 억지내다.

억지-쓰다 동 억지-쓰다. [전역] = 어거지-쓰다, 억질-쓰다.

억지-치기 명 무슨 일을 억지로 하는 짓거리. [노형 조수]

억질-다리 명 [수산 가시 김녕] → 억지-다리.

억질-둥이 명 [조수 가시] → 억지-둥이.

억질로 부 [전역] → 억지로.

억질-쓰다 동 [수산 김녕] → 억지-쓰다.

-언- 선어말 -었-. 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다음에 대개 의문법 어미 '-다'가 옴. [전역] ②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과거에 경험한 동작을 회상시키는 선어말어미. 다음에 의문법 어미 '-가'가 옴. [전역]

-언[1] 어미 -어서. 두 동작이나 상태를 말할 때, 앞에 나오는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나중하는 동작·상태의 원인·이유·근거나 또는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앞뒤의 동작·상태가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임. *큰 밧디 산듸 ᄒᆞᆫ 줌도 안 냉견 ᄆᆞᆫ딱 거두와단 눌눌어 놔.(큰 밭에 밭벼 한 줌도 안 남기고 모두 거두어다가 낟가리를 가리어 놓아.) [전역] = -어서[4].

-언[2] 어미 -어서. ① 두 동작이나 상태를 말할 때, 앞에 나오는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뒤에 나오는 동작에 앞서 하게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앞뒤의 동작·상태가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임. *그 자리서, 그 엄숙ᄒᆞᆫ 자리에서 나산 추언 욕들어도 싸주.(그 자리에서, 그 엄숙한 자리에서 나대었으니 욕들어도 싸지.) [전역] ② 음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그 행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상태 그대로를 지속하면서 다른 일을 함을 뜻하는 연결어미. 앞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임. [전역] ③ 두 동작이나 상태를 대등하게 말할 경우에, 앞의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여 쓰이는 연결어미. 앞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임. [전역]

-언[3] 어미 -었어·-었니. 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어떵 산질로 가젠 ᄒᆞ난 고생이나 헤여젠?(어떻게 산길로 가려고 하니 고생이나 하였니?) [전역] ② 종결어미. *게난 검질꾼 ᄒᆞ나도 어시 ᄃᆞᆯ아나 부런.(그러니까 김매는 일꾼이 하나도 없이 달아나 버렸어.) *서펜 하늘이 어예 거멍혜 부런.(서편 하늘이 순식간에 거매 버렸어.) [전역]

-언가[1] 어미 -었는가.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제삼자의 동작의 완료 또는 상태의 존속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언가[2] 어미 -던가.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언감 명 귀신이 식사를 하는 일. *언감도 안ᄒᆞ여 돌아옵니다.('언감'도 않고 돌아옵니다.) [대정] = 응감, 잉감.

언강 명 애교(愛嬌). 아양. 말-주변. [전역]

-언걸 어미 -더군.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이미 지난 사실을 회상하여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언게 어미 -던데.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회상하여 그 상대방도 긍정하게끔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 -엉게.

-언게만 어미 -더니만. 앞에 나오는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화자가 경험한 과거의 동작·상태를 회상하며 제한하여 말하되, 나중에 하는 동작·상태의 원인·근거 또는 관련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언고 어미 -던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제삼자의 동작을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언-눈 명 표면이 얼어 있는 눈. [도순]

-언다 어미 -었느냐.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언덕 명 [전역] → 엉덕[2].

언듸다 동 흐를 정도로 물기 있는 물건이 단단하게 굳어지다. [조수 서홍인성]

-언디[1] 어미 -었니.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대개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언디[2] 어미 -었는지.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에 대하여 어렴풋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언디사 어미 -었는지.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에 대하여 어렴풋한 의문의 뜻을 특히 강조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언디야 어미 -었느냐.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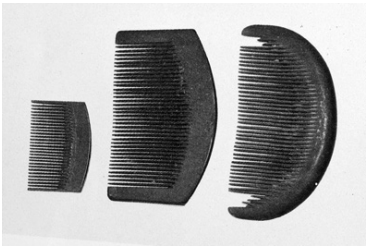
-언디엔 어미 -었냐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언디야'의 변형 '-언디에'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듣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언딘 어미 -어서.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언디'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듣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언마 명 [전역] → 얼매.

언매 명 [전역] → 얼매.

언-물 명 찬-물(冷水). [전역] = 실려은-물.
언-비 명 찬-비(-雨). [전역]
언-ᄇᆞ름 명 [인성 조수 서홍 수산 어도] → 츤-ᄇᆞ름.
-언에[1] 어미 -어서. 두 동작이나 상태를 말할 때, 앞에 나오는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나중에 하는 동작·상태의 원인·이유·근거나 시간적 선후 관계를 세게 나타내는 연결어미. 앞뒤의 동작·상태가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임. [전역]
-언에[2] 어미 -고서. ① 두 동작을 말할 때, 앞에 나오는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뒤에 오는 동작에 앞서게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앞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임. [전역] ②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행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상태 그대로를 지속하면서 다른 일을 함을 뜻하는 어미. 앞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임. [전역] ③ 두 가지 동작을 대등하게 말할 경우, 앞의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쓰이는 연결어미. 앞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임. [전역]
언제 부 [전역] → 어느-제.
언주다 동 흩어져 있는 것을 그러모으다. [전역]
언-치낙 명 [남원] → 어-치냑.
언-치냑 명 [노형 조수 인성] → 어-치냑.
얼건-ᄒᆞ다 형 얼근-하다. [전역]
얼-광대 명 언행을 미치광이처럼 함부로 하는 사람. [전역]
얼굴[1] 명 [전역] → ᄂᆞᆺ.
얼굴[2] 명 사냥한 꿩을 나눌 때 양쪽 날개, 양쪽 다리, 꿩의 앞가슴을 때어 낸 꿩의 머리에서부터 꼬리까지 꿩고기를 이르는 말. [성산 수산]
얼금-설금 부 굼뜨게 움직이는 모양. 엉긍-엉금. *얼금설금 들어가난 홍합 대합 비쭉비쭉.(엉금엉금 들어가니 홍합 대합 비쭉비쭉.) [전역]
얼금-얼금 부 얼금-얼금. [전역]
얼다[1] 동 얼다(凍). 물 따위가 찬 기운으로 굳어지다. [전역] = 얼위다.
얼다[2] 형 춥다. 기온이 낮거나 기타의 이유로 몸에 느끼는 기운이 차다. *아이고, 얼언 죽어지키여.(아이고, 추워서 죽겠네.) [전역] = 춥다.
얼-들다 동 격심한 노동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크게 괴로움을 입다. [전역]
얼라 명 어린 아기. *우리 얼라 잘도 잔다.(우리 아기 잘도 잔다.) [전역]
얼랍-지다 동 [전역] → 얼탑-지다.
얼랑-거리다 동 얼렁-거리다. [전역]
얼랑-쉬 명 얼렁-수. [전역]
얼랑쉬-ᄒᆞ다 형 얼렁-대다. [전역]
얼랑-얼랑 부 [전역] → 어랑-어랑.
얼러-뎅기다 동 여럿이 함께 어울려서 다니다. [전역]
얼럭지 명 <도> [전역] → 얼레기.
얼레 명 얼레. [전역] 고 어르.
얼레기 명 <도> 얼레-빗. [전역] = 어레-빗, 얼럭지.
얼루레비 명 덜꿩나무의 열매. [전역] = 올로레비, 올루레비, 올호레비.



얼레기

얼루레비-낭 명 <식> 덜꿩-나무. [전역] = 셍궤-낭, 올로레비-낭, 올루레비-낭, 올호레비-낭.

얼루레비-허튼끈 명 <민> 허울허울 흩어진 깃이란 뜻으로, 전립(戰笠) 꼭지에 달아맨 상모(象毛). [전역]

얼룩달룩-ᄒᆞ다 형 얼럭덜럭-하다. [전역]

얼룩-얼룩 부 얼럭-얼럭. [전역]

얼룩-지다 동 얼럭-지다. 본 바닥에 얼럭덜럭한 무늬가 생기다. [전역]

얼룽이 명 [사계] → 몰레-얼리.

얼르다[1] 동 [노형 조수] → 어르다.

얼르다[2] 동 눈에 어른거리거나 띄다. ＊그게 얼렷던 모냥이라.(그것이 눈에 띄었던 모양이야.) [전역]

얼른 부 얼른. [전역] = 거쓴, 거씬, 걸른, 얼풋.

얼마 명 [전역] → 얼매. 고 언마.

얼마니 명 [김녕 수산 어도] → 얼매.

얼마-썩 부 [전역] → 얼마-씩.

얼마-씩 부 얼마-씩. [전역] = 얼마-썩.

얼망-얼망 부 어른-어른. [전역]

얼매 명 얼마. [전역] = 언마, 언매, 얼마, 얼마니, 얼메, 은매, 을마, 을메.

얼-먹다 동 얼-먹다. ＊경ᄒᆞ난 그 부인이 춤 얼먹엇주.(그러니까 그 부인이 참 얼먹었지.) [전역]

얼메 명 [전역] → 얼매.

얼멩이 명 <도> 어레미. 제주도의 체들 중 그 바닥인 쳇불의 구멍이 가장 큰 것으로 쳇바퀴가 없이 대오리로 비스듬히 정사각형이 되게 둘레를 만듦. 메밀이나 콩 따위를 탈곡하고 난 후에 처음으로 그 뉘를 쳐내 버릴 때 쓰임. [전역] = 어레미.



얼멩이

얼미영-ᄒᆞ다 형 사이가 촘촘하지 못하여 듬성듬성하다. [전역]

얼-빠지다 동 얼-빠지다. [전역]

얼시심-오름 명 <지> [전역] → 어승생-오름.

얼우다 동 얼-리다(凍). [전역]

얼위다 동 [전역] → 얼다[1].

얼음 명 얼음(氷). [전역]

얼음-석 명 얼음-덩이. ＊저 산 고지 얼음석ᄀᆞ찌 소르릉이 나 녹아 가마.(저 산 수풀 얼음덩이같이 소르르 내 녹아 가마.) [전역]

얼음-장 명 얼음-장(氷-). [전역]

얼-ᄌᆞ낙 명 [조수] → 어-치냑.

얼쳉이 명 언청이. [전역] = 청-보.

얼-치냑 명 [전역] → 어-치냑.

얼-치다 동 격심한 노동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 크게 괴로움을 당하다. [전역]

얼케 명 울퉁불퉁 험하게 생긴 바위. ＊서낭님아 서낭님아 궤기 얼케로 다울려 줍서.(서낭님아 서낭님아 고기 '얼케'로 쫓아 주십시오.) [전역]

얼크락-달크락 부 길의 표면이 울룩불룩한 모양. [전역]

얼탑-지다 동 음식이나 무슨 일을 너무 탐내어 바삐 움직이다. [김녕 수산 서홍] = 얼랍-지다, 얼합-치다, 엉탁-ᄒᆞ다.

얼터귀 명 <동> 깃이 빠져 버린 늙은 장끼. ＊장꿩이 늙엉 꼴렝이 ᄃᆞᆫ 빠진 얼터귄 잘 놀지 못ᄒᆞ주.(장끼가 늙어서 꼬리털이 모두 빠진 '얼터귀'는 잘 날지 못하지.) [남원] = 얼털이.

얼털이 명 <동> [어음] → 얼터귀.

얼트락-달트락 부 물체의 거죽이 울룩불룩한 모양. [전역]

얼풋 부 [전역] → 얼른. 고 얼픗.

얼합-쉬 명 언행이 신중하지 못하고 엄벙덤벙한 사람.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얼합-치다 동 [노형 인성 조수] → 얼탑-지다.

얽다 동 얽다. 얼굴에 마맛자국이 생기다. [전역]

얽-베기 명 얽-보. [전역]

-엄- 선어말 -고 있-.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전역]

-엄거든 어미 -고 있거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엄-'에, 가정을 조건으로 삼아 말할 때 쓰이는 '-거든'이 결합된 어미. ＊아닌게 아니라 원 천아일색 미인광 더부살이ᄒᆞ멍 정ᄒᆞᆫ ᄌᆞ식이 ᄀᆞ찌 착ᄒᆞ연, 머 좋은 쏠밥에다가 태펭으로 지냄거든.(아닌게 아니라 천하일색(天下一色) 미인과 더부살이하면서 정한 자식이 함께 착하여서, 뭐 좋은 쌀밥에다가 태평(太平)으로 지내고 있거든.) [전역]

-엄거들랑 어미 -고 있거들랑.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엄-'에, '-거든'과 '-을랑'이 결합되어서 가정적 조건을 더 강조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엄건 어미 -고 있건.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엄-'에, 가정적 조건을 뜻하는 '-거든'의 축약형 '-건'이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엄고 어미 -고 있니.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엄고나 어미 -고 있구나.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엄-'에, '해라' 할 자리에서 혼자 스스로 감탄을 나타내는 '-고나'가 결합된 종결어미. ＊잘도나 ᄃᆞᆯ아댕겸고나.(잘도 돌아다니는구나.) ＊동네 아이덜 지슬을 파다그네 구엉덜 먹엄고나.(동네 아이들 감자를 파다가 구워 먹고 있구나.) [전역]

-엄고렌 어미 -고 있노라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화자 자신의 동작의 계속을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엄고라'의 변형 '-엄고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엄나 어미 -고 있나.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을 묻거나 화자 스스로의 의심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엄-낭 명 <식> 엄-나무. [전역] = 음-낭. 교 엄나모.

-엄네 어미 -고 있네.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엄니 어미 -고 있니.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가끔 의문사가 앞에 옴. [전역]

-엄다[1] 어미 -고 있다.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주로 연소층의 동년배 사이에서 쓰임. [전역]

-엄다[2] 어미 -고 있냐.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웨하르방 빙세가 ᄉᆞ뭇 위터ᄒᆞ여 가지고 이 시저 시 ᄒᆞ염다?(외할아버지 병세(病勢)가 사뭇 위태로워서 이 시(時) 저 시 하고 있니?) [전역]

-엄디[1] 어미 -고 있니.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대개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엄디[2] 어미 -고 있니.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에 대하여 어렴풋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엄디사 어미 -고 있는지.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에 대하여 어렴풋한 의문의 뜻을 특히 강조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엄디야 어미 -고 있냐.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엄-막 명 <건> 움-막(-幕). [전역] = 움-막.

엄매[1] 명 [전역] → 엄메.

엄매[2] 명 [어도 조수] → 음메.

엄메 명 엄마(母). [전역] = 엄매[1].

엄방-덤방 부 언행이 조금 침착하지 않은 모양. [수산 김녕 조수 노형]

엄벙-덤벙 부 엄벙-덤벙. [김녕 조수 노형 인성] = 음벙-덤벙.

엄부렁-ᄒᆞ다 형 엄범부렁-하다. 크고 많다. [전역]

엄-불리다 동 말을 분간하여 똑똑히 하지 못하다. [전역]

-엄ㅅ- 선어말 -고 있-. [전역] → -엄시-.

-엄사신디 어미 -고 있는지.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 추측을 나타내

는 종결어미. *시우룽ᄒᆞᆫ 거 촟는 거 보난 애기 설엄사신디.(시큼한 것 찾는 거 보니 애기가 서는지.) [전역]

엄살 명 엄살. [전역]

-엄샤 어미 -고 있느냐.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느냐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ᄒᆞᆯ불ᄒᆞ게 경 문드렴샤?(명심하지 않고 그렇게 떨어뜨리고 있니?) [전역]

-엄서[1] 어미 -고 있어.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오단 보난 낭 트멍에 누게가 사슴인가 노린가 잡아네 가죽 베껌서.(오다가 보니까 나무 틈에서 누군가 사슴인가 노룬가 잡아서 가죽 벗기고 있어.) *노랑 빙애기 둘인 ᄃᆞᆨ이 밧골창이서 ᄒᆞᆨ을 막 근엄서.(노란 병아리가 달린 닭이 밭고랑에서 흙을 마구 긁고 있어.) [전역]

-엄서[2] 어미 -고 있어. 음성모음의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하고 있는가'란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 *무싱거 돗줄레 모냥ᄒᆞ고 여사들엄서?(무엇을 율모기 모양하고 숨어서 엿듣고 있어?) *미녕옷을 입으렌 ᄒᆞ난 멀 입엉 뎅겸서?(무명옷을 입으라고 하니까 무얼 입고 다니고 있어?) [전역]

-엄서고 어미 -고 있더군.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었음을 회상하여 나타내는 어미. 주로 연소층의 동년배 사이에서 쓰임. [전역]

-엄서라 어미 -고 있더라.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회상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요 놈으 ᄌᆞ석 배짱부렴서라. ᄒᆞᆫ 번 무껑 가주.(요 놈의 자식 배짱을 부리고 있더라. 한 번 묶어서 가지.) [전역]

-엄서렌 어미 -고 있더라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회상하여 나타내는 '-엄서라'의 변형 '-엄서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먹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누게 보면은 애비아덜이 앚안 술 ᄒᆞᆫ디 먹엄서렌 ᄒᆞᆯ런지 모르주마는 보도 아니ᄒᆞ고 ᄒᆞ난 느도 ᄒᆞᆫ 잔 먹으라.(누가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앉아서 술을 같이 먹고 있더라고 할는지 모르지마는 보지도 아니하고 하니 너도 술 한 잔 먹어라.) [전역]

-엄선 어미 -고 있어서.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하고 있어서'란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엄선게 어미 -고 있던데.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하고 있던데'라는 뜻을 상대방도 인정하게끔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엄선고 어미 -고 있던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의 경험과 제삼자의 동작을 회상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

문법 어미. 대개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엄선고라 어미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막연하게 인정하면서, 나중하는 동작·상태의 원인·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엄수가 어미 -고 있습니까.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 -엄수강, -엄수과, -엄수광.

-엄수강 어미 -고 있습니까. [전역] → -엄수가.

-엄수겐 어미 -고 있습니까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묻는 의문법 어미 '-암수가'의 변형 '-암수게'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듣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엄수과 어미 -고 있습니까. [전역] → -엄수가.

-엄수광 어미 -고 있습니까. *어머니 어떵 살아졈수광. 감저범벅이나 먹엉 살아졈수광?(어머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고구마 범벅이나 먹어서 살고 있습니까?) [전역] → -엄수가.

-엄수께 어미 -고 있지요.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상대방도 긍정하게끔 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엄수다 어미 -고 있습니다.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응 저영 ᄒᆞ염시메 미녕 늬 필 아니 싀 필이민 뒌덴 ᄒᆞ염수다.(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으므로 무명 네 필, 아니 세 필이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전역]

-엄시- 선어말 -고 있-.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는'이란 뜻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강벨장은 검질을 잘 메엄시냐 안 메엄신가 감시를 ᄒᆞ고 잇주.(강별장은 김을 잘 매고 있느냐 안 매고 있는가 감시를 하고 있지.) [전역] = -엄ㅅ-.

-엄시난 어미 -고 있으니까.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엄시'에, 앞으로 하려는 말에 대하여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뜻을 나타내는 '-난'이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엄시냐 어미 -고 있느냐.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느냐 또는 되어가고 있느냐의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삼시 ᄒᆞᆫ 때 밥이나 춧앙 먹어졈시냐?(삼시(三時)에 한 끼 밥이나 찾아서 먹고 있느냐?) *요 놈 우스와 베도 일을 ᄒᆞ젠 헴시냐?(요 놈 우스워 보여도 일을 하려고 하느냐?) [전역]

-엄시넨 어미 -고 있냐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느냐는 뜻을 나타내는 '-엄시냐'의 변형 '-엄시녜'에, 뒤의 동작

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듣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엄시녜 어미 -고 있네.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 중임을 화자가 지정하되 연하의 상대자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짐작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엄시녱 어미 -고 있냐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느냐는 뜻을 나타내는 '-엄시냐'의 변형 '-엄시녜'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듣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엄시니 어미 -고 있니. 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② 연결어미. *바당에 강 물 질엄시니 벌경ᄒᆞᆫ 글 써진 낭토막이 허벅 신 디 오랑 다대겨.(바다에 가서 물을 긷고 있으니 붉은 글씨가 쓰인 나무토막이 물동이 있는 데로 와서 부딪혀.) *나오단 보니 종년이 이런 엣돌 앞의 젓엄시니 ᄉᆞ랑칸으로 불럿주.(나오다가 보니 계집종이 이런 섬돌 앞에서 어정거리고 있으니 사랑채로 불렀지.) [전역] = -엄시이.

-엄시니까 어미 -고 있으니까.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엄시-'로써 그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고, '-니까'로써 뒤에 하는 말에 대하여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뜻을 힘주어 나타내는 연결어미. *ᄋᆞᆼ 나사서 그 정ᄌᆞ낭 어염으로 뎅겸시니까, 이상ᄒᆞᆫ 소리가 나.(이렇게 나서서 그 정자(亭子)나무 옆으로 다니고 있으니까, 이상한 소리가 나.) [전역]

-엄시라 어미 -고 있어라.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어라'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엄시랴 어미 -고 있으랴.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에 대한 화자 스스로의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엄시렌 어미 -고 있으라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으라는 뜻을 나타내는 '-엄시라'의 변형 '-엄시레'에, 뒤의 동작의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엄시렝 어미 -고 있으라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으라는 뜻을 나타내는 '-엄시라'의 변형 '-엄시레'에, 뒤의 동작의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엄시마 어미 -고 있으마.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을 것을 약속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평교간에 쓰임. *느

랑 잇당 오라, 나 먼저 감시마.(너는 있다가 와라, 나 먼저 가고 있으마.) [전역]

-엄시메[1] 어미 -고 있어.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제삼자 또는 화자의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주로 부녀자들 사이에서 쓰임. [전역]

-엄시메[2] 어미 -고 있으매·-있으므로.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뒤에 오는 말의 원인·근거로 삼아서 전체적으로 나타내는 연결어미. *구경ᄒᆞ영 가켄 헴시메 어떵ᄒᆞ우까?(구경하여서 가겠다고 하고 있으니 어떻습니까?) [전역]

-엄시면은 어미 -고 있으면은. *거 즉은아돌도 응당 큰아돌이 ᄒᆞ염시면은 공부는 못 시켯주마는 ᄀᆞ찌 가서 놀다 오게끔 의관을 출려 줘라.(그것 작은아들도 응당 큰아들이 하고 있으면은, 공부는 못 시켰지만은, 같이 가서 놀다 오도록 의관(衣冠)을 차려 주어라.) [전역]

-엄시민 어미 -고 있으면.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가정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그 망하님덜 각시덜이 큰 밧디 앚안, 줌줌ᄒᆞ영 검질만 메염시민 ᄒᆞᆯ 건디.(그 망꾼들 각시들이 큰 밭에 앉아서, 입을 다물고 조용히 김만 매고 있으면 할 것인데.) *것도 ᄒᆞᆫ 번 두 번만 ᄒᆞ염시민 모를 건디.(그것도, 한 번 두 번만 하고 있으면 모를 것인데.) [전역]

-엄시이 어미 -고 있니. [전역] → -엄시니.

-엄시카 어미 -고 있을까.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화자가 추측하여, '해라' 할 자리에서 묻거나 또는 화자 스스로의 의심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엄시케라 어미 -고 있겠네. [전역] → -엄시크라.

-엄시케메[1] 어미 -고 있겠어. [전역] → -엄시크메[1].

-엄시케메[2] 어미 -고 있겠으니. [전역] → -엄시크메[2].

-엄시쿠가 어미 -고 있겠습니까.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을 의도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엄시쿠다 어미 -고 있겠습니다. 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화자 자신이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을 의도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②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제삼자가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을 것임을 화자가 추측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엄시쿠데 어미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결과로 말하려 할 때, 나중에 하는 동작이나 상태의 원인·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어미. [전역]

-엄시크라 어미 -고 있겠네.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거

나 또는 화자의 의도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 -엄시케라.

-엄시크메[1] 어미 -고 있겠어.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주로 부녀가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겠다는 의도 또는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 -엄시케메[1].

-엄시크메[2] 어미 -고 있겠으니.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겠으니'란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 -엄시케메[2].

-엄시키여 어미 -고 있겠다.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겠다'란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엄신가 어미 -고 있는가.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는가'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이 저실에 수박 츳는 걸로 보민 애기 설엄신가?(이 겨울에 수박 찾는 것으로 보면 애기가 서고 있는가?) ＊검질을 잘 메엄시냐 안 메엄신가 감시를 헤야주.(김을 잘 매고 있는지 안 매고 있는가 감시를 해야지.) [전역]

-엄신게 어미 -고 있네.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긍정하도록 나타내는 종결어미. ＊굽지 말랜 혼 따문에 지금 저디 불 부떰신게.(굽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저기 불 붙고 있네.) [전역]

-엄신고 어미 -고 있니.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는가'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저 못에 맹마구리 암컷이냐 수컷이냐 무사 저영 울엄신고?(저 못에 맹꽁이는 암컷일까 수컷일까 왜 저렇게 울고 있는가?) [전역]

-엄신디 어미 -고 있는지.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는지'란 어렴풋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이건 뭐 기냥 놀안사 뎅겸신디 모른단 말이여.(이것은 뭐 그냥 날아다니고 있는지 모른다는 말이야.) [전역]

-엄실 거여 어미 -고 있을 게다.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다'란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엄실다 어미 -고 있겠냐.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을 의도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엄십데가 어미 -고 있습디까.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하고 있습디까'란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엄십데다 어미 -고 있습디다.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하고 있습디다'란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불 멀리 궤기 들런 상 구엄십데다.(불 멀리 고기 들고 서서 굽고 있습디다.) [전역]

-엄십서 어미 -고 계십시오. 음성모음

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계십시오'란 뜻을 나타내는 명령법 어미. [전역]

-엄십쥐 어미 -고 있습지오.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오'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습지오'라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엄싱가 어미 -고 있는가. 음성모음의 어간에 붙어서, 화자의 추측이나 의문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바당 소곱에 숨비영 뎅겸싱가?(바다 속에 잠수해 다니고 있는가?) *출구덕 찬 저 비바린 ᄀᆞ매기나 하영 줏엄싱가?(바구니 찬 저 처녀는 고둥이나 많이 줍고 있는가?) [전역] → -엄신가.

엄ᄉᆞ-체ᄉᆞ 명 <민>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을 데리고 가는 차사. [전역]

엄쟁이 명 <지>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와 신엄리, 중엄리를 아울러 이르는 옛 이름. [전역] = 중-엄쟁이.

엄쟁잇-개 명 <지>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포구. [전역]

-엄저 어미 -고 있다.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늴 ᄒᆞᆫ 번 몬이겨 봔 하도 애썸저.(너를 한 번 못 이겨 보아서 무척 애쓰고 있다.) *이레 ᄃᆞ락 저레 ᄃᆞ락 아이덜만 지꺼점저.(이리 달리고 저리 달리고 아이들만 기뻐하고 있다.) [전역]

-엄젠 어미 -고 있다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엄저'의 변형 '-엄제'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말ᄒᆞ다·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오늘부텀 춤을 추엄젠 ᄒᆞ여라.(오늘부터 춤을 추고 있다고 하더라.) [전역]

-엄젱 어미 -고 있다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엄저'의 변형 '-엄제'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엄주 어미 -고 있지. 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하고 있지'란 단정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이제는 ᄃᆞ리를 놘 뎅겸주마는 옛날은 ᄃᆞ리 안 놘 아레 돌빌레로 뎅겻주게.(이제는 다리를 놓아서 다니고 있지만 옛날에는 다리를 안 놓아서 아래 '돌빌레'로 다녔지.) [전역] ②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하고 있지'란 단정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③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제삼자의 동작의 계속을 추측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 -엄쥐.

-엄쥐 어미 -고 있지. [전역] → -엄주.

엄지-발가락 명 엄지-발가락. [전역] = 어금-발가락. 고 어이밤가락.

엄지-손가락 명 엄지-손가락. [전역] = 어금-손가락.
엄창-크다 형 예상외로 지나치게 크다. [전역] = 엄청-크다.
엄청-크다 형 [전역] → 엄창-크다.
엄-추리 명 [인성 화순 조천] → 엄-출기.
엄-출기 명 짚신의 뒤축 쪽에 둘을 접하여 굵게 낸 총. [하원 서홍 태흥 표선 수산 조천 어도] = 어금-출리, 엄-추리.
엄피-놓다 동 거짓으로 협박하거나 위협하다. [전역]
업게-나청 명 <민> 토산 웃당의 아기 신. [토산]
업게-삼승 명 <민> 업저지 신. 업저지를 보호하는 신. [전역]
업다[1] 동 업다. 사람을 등에 붙어 있게 하다. *(속) 업은 애기 일뤠 춧나. (업은 아기 이레 찾는다.) [전역]
업다[2] 감 어따. [전역] = 업다-가라.
업다-가라 감 [전역] → 업다[2].
없다 형 [전역] → 읏다.
-엇- 선어말 -었-.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전역]
엇-갈리다 동 엇-갈리다. [전역]
-엇거든 어미 -었거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엇-'에, 가정을 조건 삼아 말할 때 쓰이는 '-거든'이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엇거들랑 어미 -었거들랑.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엇-'에, '-거든'과 '-을랑'이 결합되어서 가정적 조건을 더욱 세게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엇건 어미 -었건.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엇-'에, 가정적 조건을 나타내는 '-거든'의 축약형 '-건'이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엇-걸다 동 엇-걸다. [전역]
엇게 명 어깨(肩). [전역] = 어께. 고 엇게.
엇게몰-ᄐᆞ다 동 목말-타다. [노형 어도 수산] = 독지물-타다, 정애고개-ᄒᆞ다, 청고개-ᄒᆞ다.
-엇고 어미 -었니.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음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엇고나 어미 -었구나.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엇-'에, '해라' 할 자리에서 혼자 스스로의 감탄을 나타내는 '-고나' 가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엇고라 어미 -었노라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화자 자신의 동작의 완료를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엇고렌 어미 -었노라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화자 자신의 동작의 완료를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엇고라'의 변형 '-엇고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엇고렝 어미 -었노라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뒤에 오는 말의 원인·근거로 삼아서 전제적으로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엇-광대 명 <민> 광대의 하나. [전역]

엇구수-ᄒᆞ다 형 엇구수-하다. [전역]

-엇나 어미 -었나.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뜻을 나타내거나 화자 스스로의 의심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엇-나가다 동 엇-나가다. [전역]

-엇네 어미 -었네.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지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엇니 어미 -었니.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엇다 형 [전역] → 읏다.

-엇다 어미 -었다.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주로 연소층의 동년배 사이에서 쓰임. [전역]

-엇덴 어미 -었다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엇다'의 변형 '-엇데'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주로 연소층의 동년배 사이에서 쓰임. *그 때는 ᄒᆞᆫ 열 시ᄁᆞ지는 익어야 헐어졋덴 말입니다. (그 때는 한 열 시까지는 읽어야 해산했단 말입니다.) [전역]

-엇뎅 어미 -었다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나타내는 '-엇다'의 변형 '-엇데'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주로 연소층의 동년배 사이에서 쓰임. [전역]

엇-드듸다 동 빗-디디다. [전역]

엇-듣다 동 바로 듣지 못하고 잘못 듣다. [전역]

엇-메다 동 엇-메다. [전역]

엇비스-ᄒᆞ다 형 [조수 인성 서홍] → 엇비슷-ᄒᆞ다.

엇비슷-이 부 엇비슷-이. [전역]

엇비슷-ᄒᆞ다 형 엇비슷-하다. [전역] = 엇비스-ᄒᆞ다.

-엇ㅅ- 선어말 -어 있-. [전역] → -어시-.

-엇수가 어미 -었습니까.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있는가를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 -어수가, -어수꽈, -엇수과, -엇수광.

-엇수게 어미 -었습니다·-지 않았습니까.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있음을 긍정하게끔 나타내는 종결어미. *큰 비석덜 ᄒᆞ연 세우고 ᄒᆞᆫ 거 문딱 피총 뒈엿수게.(큰 비석들 해서 세우고 한 것이 모두 고총(古塚)이 되어 버렸습니다.) [전역]

-엇수겐 어미 -었습니까고. 음성모음

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있음을 묻는 의문법 어미 '-엇수가'의 변형 '-엇수게'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엇수겡 어미 -었습니까.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있음을 묻는 의문법 어미 '-엇수가'의 변형 '-엇수게'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묻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엇수과 어미 -었습니까. [전역] → -엇수가.

-엇수광 어미 -었습니까. [전역] → -엇수가.

-엇수다 어미 -었습니다.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있음을 인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엇수덴 어미 -었습니다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끝나 있음을 나타내는 '-엇수다'의 변형 '-엇수데'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듣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엇수뎅 어미 -었습니다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끝나 있음을 나타내는 '-엇수다'의 변형 '-엇수데'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듣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엇이-대기다 동 [전역] → 웃이-대기다.

엇이-대다 동 [전역] → 웃이-대기다.

-엇저 어미 -었다·었네.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이 끝났음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그 사름 얼굴광 말광 뒈양지게만 생겻저.(그 사람 얼굴하며 말하며 되알지게만 생겼네.) *기영 저영 오단에 그만 그 년덜 쏨씨에 들어네 기자 난잡ᄒᆞ게 놀아졋저.(그렁저렁 오다가, 그만 그 년들 솜씨에 들어서, 그저 난잡하게 놀아졌다.) [전역]

-엇젠 어미 -었다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단정하여 나타내는 '-엇저'의 변형 '-엇제'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엇젱 어미 -었다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단정하여 나타내는 '-엇저'의 변형 '-엇제'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엇주 어미 -었지. ①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를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②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제삼자의 동작의 완료를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그런 힘이 센 무ᄉᆞ 이섯주.(그런 힘이 센 무사가 있었지.) *지네 보린 누렁ᄒᆞ게 너미 익어부난 그만썩ᄒᆞᆫ ᄇᆞ름에도 누엇주.(자네 보리는 누렇게 너무 익어서 그만큼한 바람에도 누웠지.) [전역]

-엇쥐 어미 -었지. [전역] → -엇주.

엉 명 낭떠러지 비슷이 된 암석(岩石). [노형 어도 가시]

-엉[1] 어미 -어서. 두 동작을 말할 때, 앞에 나오는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나중의 동작의 근거·이유·원인이나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앞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임. *너 조곰 떨어졍 이시라.(너 조금 떨어져서 있어라.) [전역]

-엉[2] 어미 -고서. ① 두 동작을 말할 때, 앞에 나오는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서, 뒤에 오는 동작이 앞서게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앞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임. *상당이 부모를 딱 지켱 앚아그네, 살상도 경 못ᄒᆞ곡.(상당히 부모를 딱 지키어서 앉아, 살상(殺傷)도 그렇게 못하고.) *저 아픠 여꼬지 히엄쳥 가지크냐?(저 앞에 있는 여까지 헤엄쳐 갈 수 있겠니?) [전역] ② 음성모음의 용어 어간에 붙어서, 그 행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상태 그대로를 지속하면서 다른 일을 함을 뜻하는 연결어미. 앞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임. [전역] ③ 두 가지 동작을 대등하게 말할 경우에, 앞의 음성모음의 용언 어간에 붙어 쓰이는 연결어미. 앞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임. [전역]

엉갈-엉갈 부 고사리 따위가 물이 올라 보통보다 굵은 모양. [전역]

-엉게 어미 -던데. [전역] → -언게.

엉구다 동 엉구다. [전역]

-엉근 어미 -고서. 연결어미 '-엉[2]'의 뜻을 더 세게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 -어근.

-엉근에 어미 -고서. 연결어미 '-엉[2]'의 뜻을 더욱 세게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 -어근에.

엉근-탕건 명 <의> 품질이 좋지 않은 탕건의 한 가지. 결을 때의 줄 수효는 90임. [전역] = 하탕(下宕).

엉기다 형 틈이나 구멍이 배지 아니하다. [전역]

엉기정-질 명 [조수] → 엉장-질.

엉긴-구덕 명 <도> 조금 굵은 대오리로 성기게 엮어 만든 큰 바구니. [전역]

엉덕[1] 명 [전역] → 덕[1].

엉덕[2] 명 언덕. [전역] = 덕[2], 언덕. 고 언, 언덕.

엉덕-늬 명 언덕 모습으로 되어 버린 삭은 이. *생수박씨 ᄀᆞ뜬 늬가 엉덕늬가 무신 말고.(생수박씨 같은 이가 삭은 이가 무슨 말인고.) [전역]

엉덕-전복 명 <동> '엉덕'에 있는 전복. [가파도]

엉덕-지기 명 <민> 언덕-지기. 언덕을 지키는 신. [전역]

엉덩방아-짛다 동 엉덩방아-찧다. 엉덩이로 바닥을 쿵쿵 구르며 앉다.

[전역] = 엉덩방에-짛다, 오곰방에-짛다.

엉덩방에-짛다 동 [노형] → 엉덩방아-찧다.

엉둥-머리 명 엉덩-머리. 엉덩이를 속되게 이르는 말. [전역] = 엉둥-패기.

엉둥이 명 엉덩이. [전역] = 엉치. 고 엉덩이.

엉둥-패기 명 [전역] → 엉둥-머리.

엉-또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의 한 자연마을. [조천]

엉삭-엉삭 부 엉금-엉금. [전역]

엉삭-ᄒᆞ다 형 엉성-하다. [전역]

엉성-거리다 동 [전역] → 응상-거리다.

-엉은 어미 -어서. 연결어미 '-엉[2]'의 뜻을 더 세게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엉은에 어미 -어서. 연결어미 '-엉[2]'의 뜻을 더욱더 세게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엉장 명 ① 돌 무더기나 바위 따위가 서로 맞물리어 생긴 굴. [전역] ② *어디 엉장이나 궤나 이게 무섭소.(어디 절벽이나 '궤'나 이것이 무섭소.) [전역] → 절벡.

엉장-질 명 절벽 위로 통하는 길. [노형 조수] = 거정-질, 그정-질, 기정-질, 엉기정-질, 엉창-질.

엉-전복 명 <동> '엉'에 숨어 있는 전복. [행원]

엉창-질 명 [가시] → 엉장-질.

엉치 명 [전역] → 엉둥이.

엉탁-ᄒᆞ다 동 [전역] → 얼탑-지다.

엎더-지다 동 엎더-지다. [전역] 고 업더디다.

에 조 에. ① 고정된 공간적 처소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② 행동의 방향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③ 행동하는 데 필요한 간접적인 객체를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④ 어떤 행동의 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⑤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⑥ 여러 가지 것을 열거하는 데 쓰이는 격조사. [전역] ⑦ 어떤 행동을 이루어 나가는 데 거점이나 방편이 됨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⑧ 행동이나 상태가 적극적인 작용을 끼치는 대상이 됨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⑨ 행동이나 상태에 필요한 재료임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⑩ 어떤 행동이 이루어지는 환경이나 조건이 됨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에가 조 에. 체언에 붙어서 고정된 공간적 처소를 나타내는 '에'를 강조하여 쓰이는 격조사. [전역]

에게 조 에게. 명사나 대명사에 붙는 여격 조사. [전역]

에게다 조 처소격 조사 '에게'에, 한정을 뜻하는 특수조사 '다'가 결합한 형태. *함씨에게다 돈 백 냥을 지어 가라고 해서 내가 맨들아 오랏어.(함씨에게다 돈 백 냥을 지어 가라고 해서 내가 만들어 왔어.) [전역]

에글 명 [전역] → 무글.

에기다 동 에끼다. [김녕 인성 노형 수산]

에기데기 명 [전역] → 무글.

에끼 감 에끼. 마음에 못 마땅할 때 내는 소리. [전역]

에나 조 에나. 처소격 조사 '에'에, 여럿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 뜻으로 쓰이는 '나'가 결합된 격조사. [전역]

에노리 명 [전역] → 에누리.

에누리 명 에누리. [전역] = 에노리.

에는 조 에는. 체언에 붙는 '에'에, 지정하여 제시하는 뜻을 나타내는 '는'이 결합된 격조사. [전역] = 의는.

에다 조 처소격 '에'와 '다'가 결합한 형태. *가메에다 놓앙 들러 아졍 오라.(가마에다 놓아 들고서 가져와라.) [전역]

에다가 조 처소격 조사 '에'와 한정의 뜻을 나타내는 '다가'가 결합한 형태. *짐 지엉 손꼽대기에다가 흑 흔 방울 부쪄나지 아니혼 양반이여.(짐(負)을 져서 손톱에다 흙 한 방울 묻혀 보지 아니한 양반이야.) [전역]

에도 조 에도. 명사에 붙어서, '다른 곳(또는 사물)에는 물론 그곳(또는 사물)에 또한'의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 *가시남에도 목 매여져 죽곡.(가시나무에도 목 매어져 죽고.) [전역]

에-돌다 동 [서홍 수산 김녕] → 의-돌다.

에-똘 명 어미와 딸. 모녀(母女). *에똘이 춤 다정ᄒᆞ우다예.(모녀가 참 다정하네요.) [하원 서홍 태흥 표선 수산 세화 조천 어도] = 의-똘.

에라 감 에라. [전역]

에라근 조 엘랑은. 명사나 대명사에 붙어 쓰이는 '에는'의 뜻을 더욱더 강조하여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에란 조 엘랑. *낼 아척에란 일찍 붉기 전의 가서, 이 구둘 안에 이렇게 잇어.(내일 아침엘랑 일찍 밝기 전에 가서, 이 구들 안에 이렇게 있어.) [전역] → 에랑.

에랑 조 엘랑. 명사나 대명사에 붙어서, '에는'의 뜻을 특히 강조하여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 에란, 의라근.

에만 조 에만. 체언에 붙는 처소격 조사 '에'에, '단독'의 뜻을 나타내는 '만'이 결합된 격조사. [전역]

에면 조 에면. 고정된 공간적 처소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격조사 '에'에, 가정을 조건으로 삼아 말할 때 쓰이는 '면'이 결합된 격조사. [전역] = 의민.

에미-유리 명 젖먹이 때에 어미를 여읜 망아지나 송아지를 이르는 말. [전역]

에비-똘 명 아비와 딸. [전역]

에비-아돌 명 아비와 아들. [전역] = 애비-아덜.

에사 조 에야. ① 고정된 공간적 처소나 시간적 위치를 나타내는 '에'에, 강조하는 뜻의 '사'가 결합된 격조사. [전역] ② 행동의 방향을 나타내는 '에'에, 강조하는 뜻의 '사'가 결합된 격조사. [전역] ③ 어떤 행동의 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에'에, 강조하는 뜻의 '사'가 결합된 격조사. [전역] ④ 어떤 행동을 일으키는 대상임을 나타내는 '에'에, 강조하는 뜻의 '사'가 결합된 격조사. [전역] = 의사.

에-새끼 명 [조천 하원 서홍 조수] → 의-새끼.

에서 조 에서. ① 체언에 붙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나타내는 처소격 조사. [전역] ② 명사나 대명사에 붙어서 출발점을 나타내는 유래격 조사. [전역] ③ 체언에 붙어서, 그 말을 주격이 되게 하는 격조사. [전역] = 의서.

에서는 조 에서는. 체언에 붙는 처소격 '에서'에, 사물을 지정하여 제시하는 '는'이 결합된 처소격 조사. [전역]

에서도 조 에서도. 체언에 붙는 처소격 '에서'에, '도'가 결합되어서 그 처소도 포함시킴을 뜻하는 격조사. [전역]

에서랑 조 에설랑. 체언에 붙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나타내는 처소격 조사 '에서'에, '는'의 뜻을 특히 강조하여 나타내는 '랑'이 결합된 격조사. [전역]

에서만 조 체언에 붙어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나타내는 처소격 조사 '에서'에, 제한하는 뜻의 '만'이 결합된 격조사. [전역]

에선 조 에선. '에서는'의 준말. [전역]

에역-빗 명 시루떡에서 가(邊)로 베어 낸 것. [전역] = 옙-빗, 의역-빗, 읍-빗.

에염 명 옆. 가(邊). 근처. *그 옛날은 그 질 에염에 가시덤벌 많이 이시니까.(그 옛날은 그 길 옆에 가시덤불이 많이 있으니까.) [전역] = 어염, 엠, 염, 이엄.

에영 조 에며·에랑. 어떤 동작이나 상태의 원인이 되는 뜻을 나타내는 '에'에, 둘 이상의 사물을 열거하는 데 쓰이는 '영'이 결합된 격조사. *그 놈의 물이 츠츠 이슬에영 비예영 바라가니 허영ᄒᆞ여 가더라.(그 놈의 말이 차차 이슬에랑 비에랑 바래어 가니 하얗게 되어 가더라.) [전역]

에영뒤 명 [노형 수산 인성 서홍] → 어영뒤.

에영뒤-낭 명 <식> [노형 수산 인성 서홍] → 어영뒤-낭.

에우다 동 에우다. ① 둘레를 빙 둘러서 막다. [전역] ② 장부 따위에 있는 쓸데 없는 내용을 지우다. [전역] 고 에우다.

에우-싸다 동 에워-싸다. [전역]

에움-터 명 [종달] → 에움-통.

에움-통 명 낮에 소를 먹이다가 밤에만 소를 에워 두는 밭. [함덕] = 에움-터.

에이끼 감 에이끼. [전역] = 에잇.

에이다 동 칼 따위의 날로 조금 베다. [전역]

에잇 감 [전역] → 에이끼.

에잉간-ᄒᆞ다 형 어연간-하다. [전역] = 어잉간-ᄒᆞ다.

엑 명 액(厄). [전역] 고 익.

엑-궂다 형 애-꿎다. [전역]

엑-막이 명 액-막이(厄--). [전역] = 엑-맥이.

엑-맥이 명 [전역] → 엑-막이.

엑수 명 액수(額數). [전역]

엘 조 엘. 행동의 방향을 나타내는 격조사 '에'에, '를'이 줄어진 'ㄹ'이 결합된 향진격 조사. *큰아들만 글청 엘 보내여 가지고 제주 좋고 ᄒᆞ니까 멧 해를 드러 글을 시겨.(큰아들만 서당에를 보내어서 재주가 좋고 하니까 몇 해를 들이 글을 시켜.) [전역]

엠 명 [전역] → 에염.

엣 조 엣. 처소격 조사 '에'의 관형사적 용법. *접시엣 물에도 빠져 죽곡.(접시의 물에도 빠져 죽고.) [전역]

엥-그리다 동 글자, 그림 따위를 장난으로 아무데나 함부로 쓰다. *책에 엥그렷단 어멍안티 매 맞안.(책에 '엥그렸다가' 어머니한테 매 맞았어.) [전역] = 엥-기리다.

엥-기리다 동 [전역] → 엥-그리다.

엥도-낭 명 <식> [서홍] → 어영뒤-낭.

엥주 명 [수산 김녕] → 어영뒤.

엥주-낭 명 <식> [수산 김녕] → 어영뒤-낭.

엥쥐-낭 명 <식> [서홍 수산 가시] → 어영뒤-낭.

여[1] 명 바닷가 바닥이 얕거나 조수가 썰 때 나타나 보이는 돌 따위. [전역] = 여을, 여의[1], 여흘.

여[2] 조 며.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을 늘어놓아 말할 때, 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 쓰이는 열거격 조사. [전역]

-여- 선어말 -더-. 'ᄒᆞ다' 동사에서 의문법 어미 '-냐·-니'나 또는 평서법 어미 '-라'의 바로 앞에 붙어서, 과거의 동작이나 상태를 회상하여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전역]

-여[1] 어미 -여.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사실이나 상태를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여[2] 어미 -다. 받침 없는 체언이나 형용사 '아니다'의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사실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대감의 아덜이 독ᄌᆞ로 낫댄 말이여.(대감의 아들이 독자로 태어났다는 말이야.) [전역]

-여[3] 어미 -던가·-겠는가. ①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서 된 용언의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제삼자가 그 동작을 하던가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②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그 사름 쉐 읎는 사름을 갇히고, 그리ᄒᆞ고도 목ᄉᆞ질을 ᄒᆞ여?(그 사람 죄 없는 사람을 가두고, 그리하고도 목사(牧使)질을 하겠는가?) *동더레 각 서러레 각, 암만 불러본들 뒈여?(동쪽으로 갔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아무리 불러본들 되겠는가?) [전역]

-여[4] 어미 -여. ① 'ᄒᆞ다' 동사 또는 어간이 전설모음으로 된 동사의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행동을 하기를 명령하는 데 쓰이는 종결어미. [전역] ② 'ᄉᆡᆺ다'(有)의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행동 또는 상태로 존속하여 있기를 명령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여[5] 어미 -여·-어. ① 'ᄒᆞ다' 동사 또는 어간이 전설모음으로 된 동사의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행동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② 'ᄉᆡᆺ다'(有)의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사실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여[6] 어미 -여.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부사

형을 만드는 어미. [전역]

여간-내기 명 여간-내기. [전역]

-여고 어미 -데. 'ᄒᆞ다' 동사나 '형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상하며 나타내는 종결어미. 평교 간에 쓰임. [전역]

여관 명 [전역] → 예관.

-여근 어미 -고서. [전역] → -영근.

-여근에 어미 -고서. [전역] → -영근에.

여긔 대명 [전역] → 이듸.

여뀌못-동네 명 <지> 제주시 한경면 산양리 중심 동네. [한경] = 연화-동(蓮花洞).

여끄다 동 엮다. [전역] = 으끄다. 고 엮다.

여남은 주관 여남은(十餘). [전역] = 으남은.

-여냐 어미 -더냐. '형다' 동사와 '형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여녜 어미 -였지. '형다' 동사나 '형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상하여 지정하되 연하의 상대자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짐작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여니 어미 -던·-더니. '형다' 동사와 '형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여단 어미 -여다가. 어떤 두 동작을 말할 때, 앞에 나오는 '형다' 동사의 어간이나 '형다'가 붙어 된 형용사의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끝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여당 어미 -여다가. 어떤 두 동작을 말할 때, 앞에 나오는 '형다' 동사의 어간이나 '형다'가 붙어 된 형용사의 어간에 연결되어서, 장차 할 일이나 끝나지 않은 동작·상태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여도 어미 -여도. ① '형다' 동사나 '형다'가 붙어 된 형용사의 어간에 연결되어서, 가정·양보·방임 등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② '형다' 동사나 '형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행동이 그 다음 용언의 내용과는 어긋나게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여 두서 어미 -여 두고서. [전역] → -여 두어서.

-여 두어서 어미 -여 두고서. '형다' 동사나 '형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사가 뜻하는 동작을 행하고 그 결과를 그대로 지니어 감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 -여 두서, -여 둠서.

-여 두언 어미 -여 두고서. '형다' 동사나 '형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행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상태 그대로를 지속하면서 다른 행동을 함을 뜻하는 연결어미. [전역]

-여 둠서 어미 -여 두어서. [전역] → -여 두어서.

여드레 명 [전역] → ᄋᆞ드레.
여드렛-날 명 [김녕 조수] → ᄋᆞ드렛-날.
여든 수 [전역] → ᄋᆞ든.
여라[1] 감 예라. [전역] = 예라.
여라[2] 관 [전역] → ᄋᆞ라.
-여라 어미 -더라.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회상시켜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여라-가지 명 여러-가지. [전역] = ᄋᆞ라-가지.
여라-게 명 [전역] → ᄋᆞ라-개.
여라-날 명 여러-날. [서홍 김녕 조수] = 여러-날, ᄋᆞ라-날.
여라-돌 명 여러-달. [서홍 김녕 조수] = 여러-돌, ᄋᆞ라-돌.
-여라만 어미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이나 '뒈다·튀다' 등의 어휘에 연결되어서, 화자가 경험한 과거의 그 행동을 회상하며 제한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여라-분 대 [전역] → 여러-분.
여라-이 명 [전역] → ᄋᆞ라-이.
여라제-펀 명 <민> 여러 번. [하도] = ᄋᆞ라제-펀.
여러-날 명 [전역] → 여라-날.
여러-돌 명 [전역] → 여라-돌.
여러-분 대 여러-분. [전역] = 여라-분, ᄋᆞ라-분.
여러-헤 명 여러-해. [전역] = ᄋᆞ라-헤.
여름[1] 명 열매(實). [전역] = 열메, ᄋᆞ름[1], 올메. 고 녀름.
여름[2] 명 여름(夏). [전역] = ᄋᆞ름[2].
여름-내낭 부 여름-내(夏-). [전역] = ᄋᆞ름-내낭.
여름-듬북 명 <식> 음력 6월에 채취하는 거름용 해조류인 '고지기'. [성산]
여름-바령 명 <농> 소서에서부터 처서 사이에 이루어지는 '바령'. [덕천]
여름-밧 명 <농> 여름 동안의 계절풍에 따른 해수 피해로 여름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밭. [우도]
여름-사농 명 여름에 늙은 꿩이나 털갈이하고 있는 꿩을 잡으려고 여러 사람이 하는 꿩 사냥. [성산 수산]
여름-조 명 <농> 음력 6월 1일 이후에 파종하는 조. [삼양]
여름-타다 동 여름-타다(夏--). [전역]
여리다 형 여리다. [노형 김녕]
여물 명 여물. 콩, 팥 따위의 꼬투리 속의 물알. [전역] = ᄋᆞ물[2], ᄋᆞ믈. 고 여믈.
여-베 명 [인성 서홍 수산] → 왜-베.
여복 부 여북. [전역]
여부록-ᄉᆞ부록 부 자기에게 이롭게 하려고 기회를 자꾸 엿보는 모양. [전역] = ᄋᆞ보록-ᄉᆞ보록.
여-불다 동 잃어-버리다. [전역] = 일러-불다.
여붓-여붓 부 여짓-여짓. [전역] = ᄋᆞ붓-ᄋᆞ붓.
-여ㅅ- 선어말 -여 있-. [전역] → -여시-.
-여사 어미 -여야.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뒷말에 대한 어떤 조건이 꼭 필요함을 뜻하는 연결어미. [전역]
여산 명 계획. [전역]
여산-둥이 명 [전역] → 여산-쟁이.

여산-부인 명 <민> 조왕-신. 문전신의 어머니로 시앗인 '노일저데귀일이뚤'에게 죽임을 당하였다가 아들에 의하여 되살아남. [전역]

여산-쟁이 명 계산·셈·계획을 세우는 일에 밝은 사람. *여산쟁이 망흔다.(계획만 세우는 사람은 망한다.) [전역] = 여산-둥이, 예산-쟁이.

여산-ᄒᆞ다 동 ① 계산-하다. [전역] ② 계획을 세우다. [전역]

여상 명 예상. 보통 있는 일. [전역]

여상-ᄉᆞ 명 [전역] → 예상-ᄉᆞ.

-여샤 어미 -여야.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다 끝나 있느냐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여서[1] 어미 -었어. 'ᄒᆞ다' 동사 어간이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의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끝나 있거나, 상태가 되어 있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여서[2] 어미 -여 있어.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동사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하였는가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여서[3] 어미 -여서. [전역] → -연[1].

-여서고 어미 -였더군.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었음을 회상하여 나타내는 평서법 어미. 주로 연고층의 동년배 사이에서 쓰임. [전역]

-여서고나 어미 -였더구나.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동사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있거나 상태가 이루어져 있음을 회상하면서 감탄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여서구나 어미 -였더구나.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동사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 완료되었거나 상태가 이루어졌음을 회상하면서 스스로 감탄하여 나타내는 어미. [전역]

-여서도 어미 -여서도.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동사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행동이 그 다음 용언의 내용과는 서로 부응이 안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여서라 어미 -였더라.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동사 어간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있거나 또는 상태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회상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여서렌 어미 -였더라고.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형용사의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음을 회상하여 나타내는 '-여서라'의 변형 '-여서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여선게 어미 -였던데.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동사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제삼자의 동작이나 상태를 회상하여 상대방도 인정하게끔 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여선고 어미 -였던고.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동사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제삼자의 동작이나 상태를 회상시켜 물을 때 쓰이는 의문법 어미. 앞에 대개 의문사가 옴. [전역]

여섯 수 여섯(六). [전역] = ᄋᆞ슷, ᄋᆞ숫. 고 여슷.

여섯-째 수 [전역] → ᄋᆞ숫-채.

여섯-체 수 [전역] → ᄋᆞ숫-채.

-여수가 어미 -였습니까. [전역] → -엿수가.

-여수다 어미 -였습니다. ＊보리낭으로 불 ᄉᆞᆷ단 보난 양지가 불그룽ᄒᆞ여수다.(보리짚으로 불을 때다 보니 얼굴이 발그레하였습니다.) [전역]

여습 명 여습. 소(牛)의 나이 여섯 살. [전역] = ᄋᆞ습.

여슷-물 명 [서홍 태흥 수산] → ᄋᆞ숫-물[2].

여시 명 <동> 여우. [전역]

-여시- 선어말 -여 있-. 'ᄒᆞ다' 동사의 어간이나 'ᄒᆞ다' 가 붙어 된 동사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을 하여 있음' 또는 그 '상태가 되어 있음'이란 뜻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전역] = -여ㅅ-.

-여시난 어미 -였으니까.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라는 뜻으로, 앞으로 하려는 말에 대하여 원인·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여시냐 어미 -였냐. 'ᄒᆞ다' 동사의 어간이나 'ᄒᆞ다'가 붙어 된 형용사의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 끝나 있느냐 또는 상태가 되어 있느냐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어말어미. [전역]

-여시녜 어미 -여 있네.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동사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이루어진 사실을 화자가 지정하되 연하의 상대자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짐작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여시녠 어미 -였냐고.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동사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느냐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여시냐'의 변형 '-여시녜'에, 뒤에 오는 말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묻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여시녱 어미 -였냐고.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동사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느냐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여시냐'의 변형 '-여시녜'에, 뒤에 오는 말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묻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여시니 어미 -였니.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동사 어간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 -여시이.

-여시니까 어미 -였으니까. 'ᄒᆞ다' 동

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동사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으니까'라는 뜻을 세게 나타내며, 앞으로 하려는 말에 대하여 원인·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여시니까니 어미 -였으니까.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으니까'라는 뜻을 더욱 세게 나타내며, 앞으로 하려는 말에 대하여 원인·근거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여시라 어미 -여라. 'ᄒᆞ다' 동사의 어간이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어떤 동작을 끝내 있거나 또는 어떤 상태가 되어 있어라는 뜻을 나타내는 명령법 어미. [전역]

-여시랴 어미 -였으랴.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하게' 할 자리에서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음에 대한 화자 스스로의 물음이나 감탄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여시렌 어미 -여라고.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를 끝내 있어라'는 뜻을 나타내는 '-여시라'의 변형 '-여시레'에, 뒤에 오는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여시렝 어미 -여라고.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를 끝내 있어라'는 뜻을 나타내는 '-여시라'의 변형 '-여시레'에, 뒤에 오는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여시메 어미 -였으매. 'ᄒᆞ다' 동사 어간이나 'ᄒᆞ다'가 붙어 된 형용사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상태의 완료를, 뒤에 오는 말의 원인·근거로 삼아서 전제적으로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여시민 어미 -였으면.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음을 가정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배를 매지 안 헤시민 그냥 즘즘ᄒᆞ영이라도 도망가 불주마는.(배를 매지 않았으면 그냥 입을 다물어서라도 도망가 버리지마는.) *그만 나광 당신이 상대ᄒᆞ여시민, 이제 지금ᄀᆞ찌 동거ᄒᆞ지 못ᄒᆞᆫ다.(그만 나와 당신이 상대(相對)하였으면, 이제 지금처럼 동거(同居)하지 못한다.) [전역]

-여시이 어미 -였니. [전역] → -여시니.

여시-잠 명 여윈-잠. 수-잠. 충분하지 못한 잠. 깊이 들지 아니한 잠. [전역] = 예시-잠.

-여시카 어미 -였을까.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에 대하여 화자가 추측하여 묻거나, 또는 화자 스스로의

의심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여시쿠가 어미 -였겠습니까.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완료하여 있을 의도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여시쿠다 어미 -였겠습니다. ①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화자 자신이 그 동작을 완료하여 있을 의도임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② 'ᄒᆞ다' 동사가 붙어 된 동사의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제삼자가 그 동작을 완료하여 있을 것임을 화자가 추측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여시쿠데 어미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음을 결과로 말하려 할 때, 나중에 하는 동작이나 상태의 원인·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여시크라 어미 -였겠다. 'ᄒᆞ다' 동사의 어간이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끝나 있거나 그 상태가 되어 있겠다'는 화자의 의도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여시크메 어미 -였겠다. 'ᄒᆞ다' 동사의 어간이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을 끝내 있거나 또는 그 상태가 되어 있겠다는 화자의 의도·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주로 부녀자들 사이에서 쓰임. [전역]

-여시키여 어미 -였겠다·-겠다. 'ᄒᆞ다' 동사의 어간이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어떤 동작을 끝내 있겠다 또는 상태가 되어 있겠다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여신가 어미 -였는가. 'ᄒᆞ다' 동사의 어간이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끝내 있는가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여신게 어미 -였네.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있거나 상태가 이루어져 있음을 상대방도 인정하게끔 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여신고 어미 -였니.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있는가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여신고라 어미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음'을 인정하면서, 나중에 하는 동작·상태의 원인·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여신디 어미 -였는지.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 완료되거나 상태가 이루어져 있는지'란 어렴풋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여실 거여 어미 -였을 게다. 'ᄒᆞ다' 동사의 어간이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을 끝내 있을 것이다' 또는 그 '상태가 되어 있을 것이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여실댜 어미 -겠냐.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완료하여 있을 의도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여십데가 어미 -였습디까. 'ᄒᆞ다' 동사의 어간이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했었습디까' 또는 그 '상태가 되었습디까'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여십데다 어미 -였습디다.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했습디다' 또는 그 '상태가 되었습디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여십서 어미 -십시오.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완료하여 계십시오'란 뜻으로 존대 명령을 나타내는 명령법 어미. [전역]

-여십쥐 어미 -ㅂ지오.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오'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완료하여 있습시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여ᄉᆞ다 동 야수다. 틈이나 기회를 노리다. [전역] = ᄋᆞ시다.

여에다 동 갈아-내다. *젖인 자리 여에어 주곡.(젖은 자리 갈아내어 주고.) [전역]

여온-리(與溫里) 명 <지> [남원] → 여우-내.

여웃-내 명 <지> [남원] → 여우-내.

여우-내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의 옛 이름. [남원] = 여온-리(與溫里), 여웃-내, 여웃-내, 온천-동(溫川洞), 온천-리(溫川里).

여우상-ᄉᆞ 명 [전역] → 예상-ᄉᆞ.

여울다 동 [어음] → 유을다.

여웃-내 명 <지> [남원] → 여우-내.

여을 명 [전역] → 여[1].

여의[1] 명 [가시] → 여[1].

여의[2] 명 [전역] → 여히.

여읫-돌 명 [조천 조수] → 이힛-돌.

여이 명 [한림] → 여히.

여이다 형 *여이단 목 ᄌᆞ늘롸 주엉.(마르던 목 축이어 주어서.) [전역] → 목-ᄆᆞ르다.

여인 명 [전역] → 예인.

여자-보말 명 <동> [대평] → 춤-ᄀᆞ매기.

여전 명 [조수] → 예전이.

여전-동(畬田洞) 명 <지> [남원] → 새왓-동네.

여점 명 [전역] → 예점.

여제 명 [전역] → 여ᄌᆞ.

-여져시니 어미 -였니.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감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여져시민 어미 -였으면.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감을 가정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여졈수가 어미 -ㄹ수 있습니까·-ㅂ니까.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가능이 계속되어 감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여졈수다 어미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어 감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여졈시니 어미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어 감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여졋수가 어미 -였습니까·-ㄹ수 있었습니까.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감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여졋수다 어미 -였습니다·-ㄹ수 있었습니다.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감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여지건 어미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 이루어져 가거든'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여지고말고 어미 -여지고말고.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남의 물음에 대하여 그 동작이나 상태가 이루어짐을 긍정하는 뜻으로 강조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여지난 어미 -여지니까.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 이루어지니까'라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여지느냐 어미 -느냐·-ㄹ 수 있느냐.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 이루어져 가느냐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여지느니 어미 -니·-ㄹ 수 있니.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 이루어져 가느냐'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대개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여지다 어미 -ㄹ 수 있다.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 이루어져 감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여지메 어미 -ㄹ 수 있으니까.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 이루어져 감을 나타내는 '-여지-'에, 앞으로 하려는 말에 대하여 이유가 되는 뜻을 나타내는 '-메'가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여지민 어미 -면.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 이루어져 가기를 가정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여지어냐 어미 -ㄹ 수 있더냐.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과거에 경험했던 동작이 이루어진 것을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여지어니 어미 -ㄹ 수 있었니.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과거에 경험했던 동작이 이루어진 것을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대개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여지커냐 어미 -ㄹ 수 있겠냐.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여지커니 어미 -ㄹ 수 있겠니.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대개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여지컨데 어미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 이루어진 일이, 그 뒤에 하는 동작이나 상태의 원인·근거·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여지키여 어미 -ㄹ 수 있겠다.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을 하는 것이 가능함을 추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여진-머리 명 <지> [상창 동광] → 큰-오름[2].

-여질디 어미 -ㄹ 수 있을지.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 이루어질지 막연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여즈 명 여자(女子). *(속) 여즌 오뉴월에 술치곡, 남잔 구시월에 술친다.(여자는 오뉴월에 살찌고, 남자는 구, 시월에 살친다.) *(속) 여즈로 나느니 쉐로 나주.(여자로 태어날 바에는 소로 태어나지.) *(속) 여즌 동산드레 돌아아장 오줌 싸도 치메 깍 젖는 중 몰른다.(여자는 동산쪽으로 돌아앉아서 오줌을 누어도 치맛자락이 젖는 줄을 모른다.) [전역] = 여제.

여쩌리-오름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북서쪽에 있는 오름. 표고 210미터. [신흥 가시]

여쭈다 동 여쭈다. [전역] = 예쭈다.

여헤여-가다 동 앞으로 나아가다. *비 온 날에 웨상제 울듯 소리로나 여헤여간다.(비가 온 날에 외상주 울듯 소리로나 나아간다.) [전역]

여호 명 [전역] → 여히.

여흘 명 [수산 어도 조수] → 여[1].

여흘-나다 동 바닷가나 냇가에 물이 써서 돌 따위가 드러나다. [전역]

여히 명 <동> 여우(狐). [전역] = 여의[2], 여이, 여호. 고 여ᄉᆞ, 여ᄋᆞ, 여스.

역-가(役價) 명 <민> 신의 덕으로 벌

어먹게 된 보답으로 신에게 바치는 공물. 폐백, 명주, 무명 따위. [전역] = 역-개.

역-가슴 명 [수산] → 욬가슴.

역-갈리 명 [태흥 표선 수산 세화] → 욬-갈리.

역-개 명 [전역] → 역-가(役價).

역다 형 역다. [전역]

역들다 동 품팔이-하다. *ᄀᆞ레 ᄀᆞᆯ앙 역들어 먹엉 적삼 앞이 모질암서라. (맷돌 갈아서 품팔아 먹어 적삼 앞이 모지라지고 있더라.) [전역]

역부로 부 [전역] → 역불.

역불 부 일부러. *이젠 역불 침을 빠서 침을 흔 공길 노니 눈이 떳어.(이제는 일부러 침(針)을 빼서 침을 한 구멍을 놓으니 눈이 뜨였어.) [전역] = 역부로.

역-ᄇᆞ르다 형 역-빠르다. [전역]

역-ᄇᆞ리다 동 얼마 동안의 노동력을 허비하다. [전역] = 욬-ᄇᆞ리다, 욥-ᄇᆞ리다.

역-삭다 형 아주 꾀가 있고 약빠르다. [전역]

역수-산(逆水山) 명 <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오름. [성읍 송당 선흘] → 거슨세미-오름.

역-쉬 명 [서홍 가시] → 욬-둥이.

역시 명 [전역] → 역ᄉᆞ[1].

역시-꾼 명 [전역] → 역ᄉᆞ-꾼.

역ᄉᆞ[1] 명 역사. 토목, 건축 따위의 공사. [전역] = 역시.

역ᄉᆞ[2] 명 역사(歷史). [전역]

역ᄉᆞ-꾼 명 역군(役軍). [전역] = 역시-꾼.

-역 -역 어미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이 반복하여 나타나는 데에 연결되어서, 같은 동작이 되풀이됨을 뜻하는 연결어미. [전역]

역역-ᄒᆞ다 형 사람이 약아서 미련하지 아니하다. [전역]

역원-동(--洞)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1리에 있는 자연마을. [남원]

역은-꿰 명 약고도 슬기로운 꾀. [전역] = 욬은-꿰.

역은-슬게 명 자기에게 이롭게 하려고 하는 슬기. [전역] = 역은-슬기, 욬은-슬게.

역은-슬기 명 [서홍 수산 가시] → 역은-슬게.

역은-아이 명 영리하고 슬기가 있고 나이도 조금 먹은 아이. [전역] = 욬은-거, 욬은-아의.

역쥐-ᄀᆞ트다 형 사람의 행세가 아주 꾀가 많은 쥐와 같다. [전역] = 욬쥐-ᄀᆞ트다.

역쥐-다리 명 약은 꾀를 잘 부리는 사람. [서홍 수산 가시 김녕] = 욬쉬-다리, 욬쥐-다리.

연(蕙) 명 연. [전역]

-연- 선어말 -였-. ①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전역] ②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과거에 경험한 동작이나 상태를 회상시키는 데 쓰이는 선어말어미. 다음에 의문법 어미가 옴. [전역]

-연[1] 어미 -여서. 두 동작이나 상태를 말할 때, 앞에 나오는 'ᄒᆞ다' 동사의 어간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나중에 하는 동작·상태의 근거·이유·원인이나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앞뒤의 동작·상태가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임. [전역]

-연[2] 어미 -고서. ① 두 동작이나 상태를 말할 때, 앞에 나오는 'ᄒᆞ다' 동사의 어간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뒤에 오는 동작에 앞서 하게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앞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임. [전역] ②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행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상태 그대로를 지속하면서 다른 일을 함을 뜻하는 연결어미. 앞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임. [전역] ③ 두 동작을 대등하게 말할 경우에, 'ᄒᆞ다' 동사의 어간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쓰이는 연결어미. 앞뒤의 동작·상태가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임. [전역]

-연[3] 어미 -였어.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나 또는 그 상태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연가[1] 어미 -였는가.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제삼자의 동작의 완료나 또는 그 상태의 존속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연가[2] 어미 -던가.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연갑[1](年甲) 명 연갑. 연배(年輩). [전역]

연갑[2](硯匣) 명 연갑. 벼룻-집. [전역]

연-거레 명 [노형 어도 조수 가시] → 연-거리.

연-거리 명 서로 비등한 나이. [인성 화순 하원 서홍 조천] [조수] = 연-거레.

-연걸 어미 -더군.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이미 지난 사실을 회상하여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연-걸릴락 명 공중에서 연(鳶)을 다른 연과 얽히게 하여 걸어 잡아당기는 놀이. [노형 수산 인성]

-연게 어미 -던데.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상하며 상대자도 긍정하게끔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연게만 어미 -더니만. 앞에 나오는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이나 또는 '뒈다·퉈다' 등의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화자가 경험한 과거의 동작·상태를 회상하여 제한하여 말하되, 나중에 하는 동작·상태의 원인·근거 또는 관련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연고 어미 -던고.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제삼자의 동작이나 상태를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연다 어미 -였느냐.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연대-동(烟臺洞) 명 <지> [남원] → 연딧-굴.

연대-마을 명 <지> 제주시 외도2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연덴 어미 -였느냐고.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연다’의 변형 ‘-연데’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듣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연동-줄 명 [노형] → 인동-줄.

연두-봉(鳶頭峰) 명 <지> [아라] → 삼각-봉(三角峰).

연듸-병듸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3리의 자연 지명. [남원]

연딧-골 명 <지> [남원] → 연딧-굴.

연딧-굴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3리의 한 동네. [남원] = 연대-동(烟臺洞), 연딧-골, 연딧-동네.

연딧-동네 명 <지> [남원] → 연딧-굴.

연딧-동산 명 <지> 제주도 해안가 언덕 위에 연대(烟臺)를 설치했던 동산을 이르는 말. [전역]

-연디[1] 어미 -였니.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대개 앞에 의문사가 옴. * 무사 경ᄒᆞᆫ 짓을 ᄒᆞ연디?(왜 그러한 짓을 하였니?) [전역]

-연디[2] 어미 -였는지.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의 완료에 대하여 어렴풋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연디사 어미 -였는지.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의 완료에 대하여 어렴풋한 의문의 뜻을 특히 강조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연디야 어미 -였느냐.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연디엔 어미 -였느냐고.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연디야’의 변형 ‘-연디에’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연결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묻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연딘 어미 -였느냐고.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연디’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

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묻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연딧-돌 명 <지> 한라산 국립공원 왕관바위의 옛이름. 연대(烟臺)가 있었다고 전함. [아라]

연리왓-동네 명 <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한 자연마을. [애월] = 금천-동, 열리왓-동네.

연무정-동네 명 <지> 제주시 건입동에 있었던 '연무정'(제주동초등학교 일대)터 일대에 형성된 동네. [건입]

연-미 명 <지> 제주시 오라2동 연미(淵味)마을의 옛 이름. [오라]

연발 명 <도> 탕건을 결을 때 쓰는 연장의 한 가지. 탕건을 겯다가 잡아당기기 편하도록 탕건과 탕건골 사이에 넣은 것. [전역]

연방 부 연방. 잇따라 자꾸. 또는 연이어 금방. [전역]

연배(年輩) 명 연배. [전역] = 연베.

연베 명 [전역] → 연배(年輩).

연변-가 명 <요> 정의현(旌義縣)의 도읍지였던 성읍에서 전해지는 창민요. 한반도에서 유입된 민요의 한 가지. [성읍]

연-봉채 명 <민> 은-부채(銀扇). [전역]

연-슬 명 연-줄(鳶-). [전역] = 열-술.

연신-맞이 명 <민> 배를 새로 지어 선왕을 모셔 앉히는 굿. [전역]

-연에[1] 어미 -여서. 두 동작이나 상태를 말할 때, 앞에 나오는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나중하는 동작·상태의 근거·이유·원인이나 시간적 선후관계를 세게 나타내는 연결어미. 앞뒤의 동작·상태가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임. [전역]

-연에[2] 어미 -고서. 연결어미 '-연[2]'의 뜻을 더 세게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연에-연방 부 [전역] → 연혜-연방.

연장 명 연장. 물건을 만들거나 일을 할 때 쓰는 기구. [전역]

연주-단발 명 <민> 전조단발. 손톱을 깎고 머리를 자름. [전역]

연주청-오물떡 명 <음> 벌꿀을 바른 방울떡. [전역]



연주청오물떡

연철(鉛鐵) 명 <어> 해녀들이 고무옷을 입고 작업할 때 깊은 바다 속으로 쉽게 잠기도록 허리에 차는 연분과 철분이 섞여 있는 광석. [전역]



연철

연-타발 명 연-싸움(鳶--). [서홍 노

형 조수 수산 가시 인성] = 연-타불, 연-탐벌.

연-타불 명 [김녕] → 연-타발.

연-탐벌 명 [김녕] → 연-타발.

연필(鉛筆) 명 연필. [전역]

연헤-연방 부 연해-연방. [전역] = 연에-연방.

연화-동(蓮花洞) 명 <지> [한경] → 여뀌못-동네.

연-ᄒᆞ다(軟--) 형 연-하다. [전역]

열 수 열(十). [전역]

열-나다(熱--) 동 열-나다. [전역]

열-낭 명 겨릅-대. 껍질을 벗긴 삼대(麻-). [전역] = 삼-낭, 열-대.

열네-무색 명 <민> 열네 가지 물색 천. [김녕]

열다 동 [전역] → 올다.

열-대 명 [인성 서홍 표선] → 열-낭.

열두-물[1] 명 [노형 어도 조수 화순 하원 인성] → 막-물[1].

열두-물[2] 명 음력 닷새와 스무날의 조수(潮水). [서홍 태흥 표선 수산 세화 조천 노형] = 열흔-물[2].

열리다 동 <민> 울려서 들리다. *귀에 젱젱 열리어 온다.(귀에 쟁쟁 울려서 들려온다.) [전역]

열리왓-동네 명 <지> [애월] → 연리왓-동네.

열메 명 [전역] → 여름[1].

열무 명 열무. [전역]

열-물[1] 명 음력 사흘과 열여드렛 날의 조수(潮水). [서홍 노형 조천 세화 수산 표선 태흥] = 아홉-물[1].

열-물[2] 명 [노형 조수 어도 화순 하원 인성] → 열흔-물[1].

열-술 명 [전역] → 연-술.

열-쒜 명 열-쇠(鍵). [전역] = 게-철, 게철-쒜.

열안지-오름[1] 명 <지> 제주시 오라동 산록도로변 탐라교육원 서쪽에 있는 오름. 표고 583미터. 준 열안지. [전역]

열안지-오름[2] 명 <지>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 마을 북서쪽에 있는 오름. 마을의 개척자 고이지(高以智)의 묘가 있음. 표고 325미터. [봉개]

열-오르다(熱----) 동 몸에 열이 나서 체온이 높아지다. [전역]

열-좋다 형 씨름(相撲)에 재치가 있고 동작이 재빠르다. [전역]

열흘 명 열흘(十日). [전역]

열-ᄒᆞ로 명 [전역] → 열-ᄒᆞ를.

열-ᄒᆞ루 명 [전역] → 열-ᄒᆞ를.

열-ᄒᆞ르 명 [인성 수산 김녕] → 열-ᄒᆞ를.

열-ᄒᆞ를 명 열-하루(十一日).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열-ᄒᆞ로, 열-ᄒᆞ루, 열-ᄒᆞ르.

열흔-물[1] 명 음력 나흘과 열아흐렛날의 조수(潮水). [태흥 표선 수산 세화 조천] [노형 서홍] = 열-물[2].

열흔-물[2] 명 [노형 어도 조수 인성 화순 하원] → 열두-물[2].

염 명 *절간 염에 땅을 ᄒᆞ나 봐 주엇는디.(절 근처에 땅을 하나 봐 주었는데.) [전역] → 에염.

-염- 선어말 -고 있-.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전역]

-염거든 어미 -고 있거든.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염-'에, 가정을 조건으로 삼아 말할 때 쓰이는 '-거든'이 결합된 연결어미. *당신 이제 츰 심어 오랜 헴거든 잽혀 오라.(당신 이제 정말로 잡아 오라고 하고 있거든 잡혀 와라.) *산짓물로 오는디 어떤 처녀가 뿔래질을 ᄒᆞ염거든.(산짓물로 오는데 어떤 처녀가 빨래질을 하고 있거든.) [전역]

-염거들랑 어미 -고 있거들랑.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염-'에, '-거든'과 '-을랑'이 결합되어서 가정적 조건을 더 강조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염건 어미 -고 있건.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염-'에, 가정적 조건을 뜻하는 '-거든'의 축약형 '-건'이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염고 어미 -고 있니.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묻는 의문법 어미. [전역]

-염고나 어미 -고 있구나.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염-'에, '해라' 할 자리나 혼자 스스로 감탄을 나타내는 '-고나'가 결합된 종결어미. *상산에 올린 쉐도 ᄂᆞ려올 때가 뒈염고나.(높은 곳에 있는 목장에 올렸던 소도 내려올 때가 되고 있구나.) *우영팟디 퓟감 고장 허영ᄒᆞ게 피염고나.(텃밭에 '퓟감' 꽃이 하얗게 피고 있구나.) [전역]

-염고라 어미 -고 있노라.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화자 자신의 동작이 계속됨을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염고렌 어미 -고 있노라고.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화자 자신의 동작의 계속을 확정하여 나타내는 '-염고라'의 변형 '-염고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염나 어미 -고 있나.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을 묻거나 화자 스스로의 의심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염네 어미 -고 있네.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지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염니 어미 -고 있니.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가끔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염다 동 [전역] → 옮다[1].

-염다[1] 어미 -고 있다.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주로 연소층의 동년배 사이에서 쓰임. [전역]

-염다[2] 어미 -고 있냐.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염-돈 명 <지> [서귀포 중문] → 염-둔.

염-둔 명 <지>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었던 옛 자연마을. [서귀포 중문] = 고둔, 염-돈.

-염디[1] 어미 -고 있니.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대개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염디[2] 어미 -고 있는지.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의 계속에 대하여 어렴풋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염디게 어미 -고 있니. ‘-염디’에 ‘-게’가 연결되어, 의미를 더욱 세게 나타내는 종결어미. *거 무사 경 헴디게?(그것 왜 그렇게 하고 있니?) [전역]

-염디사 어미 -고 있는지.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의 계속에 대하여 어렴풋한 의문의 뜻을 특히 강조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염디야 어미 -고 있느냐.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염랫-대 명 <민> 염랏-대(閻羅竿). 큰-대. [전역]

염발 명 살쩍-밀이. 망건을 쓸 때에 귀밑머리를 망건 속으로 밀어 넣는 물건. [전역]

염불 소리 명 <요> 장사를 치르는 날 행상하면서 부르는 민요의 한 가지. [전역] = 꼿-염불.

-염ㅅ- 선어말 -고 있-. [전역] → -염시-.

-염샤 어미 -고 있냐.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느냐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염서[1] 어미 -고 있어. ‘ᄒᆞ다’ 동사의 어간이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염서[2] 어미 -고 있어.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하였는가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전역]

-염서고 어미 -고 있더군.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회상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주로 연소층의 동년배 사이에서 쓰임. [전역]

-염서고나 어미 -고 있더구나.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회상하면서 감탄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염서라 어미 -고 있더라.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회상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ᄎᆞᆷ웨밧디 가보난 이제사 노리스룽헴서라.(참외밭에 가보니 이제야 노르스름하게 되고 있더라.) [전역]

-염서렌 어미 -고 있더라고.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회상하여 나타내는 '-염서라'의 변형 '-염서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연결되어서, 'ᄒᆞ다·말ᄒᆞ다' 따위에 연결시켜 주는 연결어미. [전역]

-염선 어미 -고 있어서.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어서'란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염선게 어미 -고 있던데.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던데'라는 뜻을 상대자도 긍정하도록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염선고 어미 -고 있던고.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제삼자의 동작을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대개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염송애기 명 <동> *(속) 놀당 죽은 염송애기나, 기당 죽은 황밧갈쉐나. (놀다가 죽은 염소나, 일하다가 죽은 누런 부룩소나.) [전역] → 염쉐.

-염수가 어미 -고 있습니까.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는가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 -염수강, -염수과, -염수광[1].

-염수강 어미 -고 있습니까. [전역] → -염수가.

-염수게 어미 -고 있지요. 'ᄒᆞ다' 동사나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상대방도 긍정하게끔 하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염수겐 어미 -고 있습니까고.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묻는 의문법 어미 '-염수가'의 변형 '-염수게'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ᄒᆞ다·묻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염수겡 어미 -고 있습니까고.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묻는

의문법 어미 '-염수가'의 변형 '-염수게'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묻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 -염수광[2].

-염수과 어미 -고 있습니까. [전역] → -염수가.

-염수광[1] 어미 -고 있습니까. [전역] → -염수가.

-염수광[2] 어미 -고 있습니까고. [전역] → -염수겡.

-염수다 어미 -고 있습니다.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어멍 아방 날 보내여그네 온갖 고생 다 ᄒᆞ게 ᄒᆞ여도 원망을 아니ᄒᆞ염수다.(어머니 아버지 나를 보내어서 온갖 고생 다 하게 하여도 원망을 아니하고 있습니다.) [전역]

염쉐 명 <동> 염소. [전역] = 염송애기. 고염쇼.

염쉐-헤치 명 양-띠. [전역] = 염-헤치.

-염시- 선어말 -고 있-.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는'이란 뜻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전역] = -염ㅅ-.

-염시난 어미 -고 있으니깐.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염시-'에, 앞으로 하려는 말에 대하여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뜻을 나타내는 '-난'이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염시냐 어미 -고 있느냐.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느냐'란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염시녜 어미 -고 있네.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 계속 중임을 화자가 지정하되 연하의 상대자도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짐작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염시녠 어미 -고 있냐고.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느냐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염시냐'의 변형 '-염시녜'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듣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염시녱 어미 -고 있냐고.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느냐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염시냐'의 변형 '-염시녜'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듣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염시니 어미 -고 있니.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주로 앞에 의문사가 옴. *이제는 그 양반이 그냥 막 야단ᄒᆞ염시니 장남이 오라네 이문을 떼여내니.

(이제는 그 양반이 그냥 마구 야단하고 있으니 머슴이 와서 대문을 떼어내니.) [전역] = -염시이.

-염시니까 어미 -고 있으니까.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염시-'로써 그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고, '-니까'로써 뒤에 하는 말에 대하여 원인이나 근거가 되는 뜻을 힘주어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염시라 어미 -고 있어라.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을 하고 있어라'는 뜻을 나타내는 명령법 어미. [전역]

-염시랴 어미 -고 있으랴.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에 대한 화자 스스로의 물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염시렌 어미 -고 있으라고.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을 하고 있어라'란 뜻을 나타내는 '-염시라'의 변형 '-염시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염시렝 어미 -고 있으라고.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을 하고 있어라'란 뜻을 나타내는 '-염시라'의 변형 '-염시레'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염시마 어미 -고 있으마.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을 것을 평교 간에 약속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나 먼저 강 축구ᄒᆞ염시마.(나 먼저 가서 축구하고 있으마.) [전역]

-염시메[1] 어미 -고 있네.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제삼자 또는 화자의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주로 부녀자들 사이에서 쓰임. [전역]

-염시메[2] 어미 -고 있으매.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뒤에 오는 말의 원인·근거로 삼아서 전제적으로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염시민 어미 -고 있으면.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가정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염시이 어미 -고 있니. [전역] → -염시니.

-염시카 어미 -고 있을까.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화자가 추측하여, '해라' 할 자리에서 묻거나 또는 화자 스스로의 의심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염시케라 어미 -고 있겠네. [전역] → -염시크라.

-염시쿠가 어미 -고 있겠습니까. 'ᄒᆞ

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을 의도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염시쿠다 어미 -고 있겠습니다. ①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화자 자신이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을 의도임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②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제삼자가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을 것임을 화자가 추측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염시쿠데 어미 -고 있기에.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결과로 말하려 할 때 나중하는 동작의 원인·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어미. [전역]

-염시크라 어미 -고 있겠네.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겠다는 화자의 의도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가의넨 불써 곱을락 ᄒᆞ염시크라.(그 아이들은 벌써 숨박꼭질 하고 있겠네.) [전역] = -염시케라.

-염시크메[1] 어미 -고 있겠어.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겠다는 의도 또는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주로 부녀자가 씀. [전역] = -염시키메[1].

-염시크메[2] 어미 -고 있겠으니.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겠으니'란 의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 -염시키메[2].

-염시키메[1] 어미 -고 있겠어. [전역] → -염시크메[1].

-염시키메[2] 어미 -고 있겠으니. [전역] → -염시크메[2].

-염시키여 어미 -고 있겠다.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하고 있겠다'란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염신가 어미 -고 있는가.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는가'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쿠싱ᄒᆞᆫ 내움살이 건듯건듯 어디 걸름 냄신가?(구수한 냄새가 건듯건듯 어디 거름을 내고 있는가?) [전역]

-염신게 어미 -고 있네.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긍정하도록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염신고 어미 -고 있느냐.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는가고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염신고라 어미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을 막연하게 인정하면서 나중하는 동작의 원인·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염신디 어미 -고 있는지.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는지'란 어렴풋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염실 거여 어미 -고 있을 게다.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을 것이다'란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염실댜 어미 -고 있겠냐.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을 의도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염십데가 어미 -고 있습디까.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하고 있습디까'란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염십데다 어미 -고 있습니다.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하고 있습디다'란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염십서 어미 -고 계십시오.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여 계십시오'란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염십쥐 어미 -고 있습지오.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오'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계속하고 있습지오'란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염싱고 어미 -고 있는가. *우리 어멍 죽어그네 미싱걸 ᄒᆞ염싱고?(우리 어머니 죽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전역] → -염신고.

염-장시 명 소금-장수. [전역]

-염저 어미 -고 있다.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그 놈의 지슬고장은 눈쐭임도 잘도 ᄒᆞ염저.(그 놈의 감자꽃은 눈속임도 잘도 하고 있다.) *보리 각매기 불을 피우곡 ᄒᆞ루가 가곡 이틀이 가도 꺼지질 아념저.(보리 까끄라기 불을 피우고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도 꺼지질 않고 있다.) [전역]

-염젠 어미 -고 있다고.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염저'의 변형 '-염제'에, 그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염젱 어미 -고 있다고.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염저'의 변형

'-염제'에, 그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염주 어미 -고 있지. ①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하고 있지'라는 동작의 계속과 그에 대한 단정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그 당오름 아레 당이 이시난 당산봉이라 ᄒᆞ염주.(그 당오름 아래에 당이 있으니까 당산봉이라 하고 있지.) [전역] ②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제삼자의 동작의 계속을 추측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 -염쥐.

염줄-띠 명 <민> 심방이 목에 걸어 가슴 양쪽으로 늘어뜨리는 띠. [전역]

-염쥐 어미 -고 있지. [전역] → -염주.

염치(廉恥) 명 염치. [전역] = 옵치.

염치-웃다 형 [전역] → 옵치-웃다.

염통 명 [전역] → 옵통.

염통-메 명 <지> 제주시 연동 광이오름 남서쪽에 이웃한 작은 오름. 표고 245미터. [연 노형] = 상여-오름, 생이-오름[1].

염통-오름 명 <지>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리 월지동 동쪽에 있는 작은 오름. 표고 133미터. [토산]

염-헤치 명 [전역] → 염쉐-헤치.

엽문 명 협문(夾門). [전역]

엽전(葉錢) 명 엽전. [전역] = 옵전.

엽전-타령 명 <요> 예전의 관문이었던 조천 등지에서 전해지는 엽전을 노래하는 경쾌한 창민요. [조천]

엽초 명 [전역] → 섭-담베.

엿 명 엿(飴). [전역] = 강-엿, 갱-엿.

-엿- 선어말 -었-.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전역]

-엿거든 어미 -였거든.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를 나타내는 '-엿-'에, 가정을 조건 삼아 말할 때 쓰이는 '-거든'이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엿거들랑 어미 -였거들랑.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를 나타내는 '-엿-'에, '-거든'과 '-을랑'이 결합되어서, 가정적 조건을 더 강조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엿건 어미 -였건.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를 나타내는 '-엿-'에, 가정적 조건을 뜻하는 '-거든'의 축약형 '-건'이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엿고 어미 -였니.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었음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엿고나 어미 -였구나·-았구나.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를 나타내는 '-엿-'에,

'해라' 할 자리에서 화자 스스로의 감탄을 나타내는 '-고나'가 결합된 종결어미. *하이고, 이번도 내가 속아졋고나.(아이고, 이번에도 내가 속았구나.) [전역]

-엿고라 어미 -였노라.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화자 자신의 동작의 완료를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엿고렌 어미 -였노라고.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화자 자신의 동작의 완료를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엿고라'의 변형 '-엿고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엿구 명 <식> [인성 서홍] → 엿귀.

엿귀 명 <식> 여뀌. [전역] = 엿구.

-엿나 어미 -였나.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었음을 지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엿니 어미 -였니.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오기도 함. [전역]

-엿다 어미 -였다.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주로 연소층의 동년배 사이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엿덴 어미 -였다고.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를 나타내는 '-엿다'의 변형 '-엿데'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주로 연소층의 동년배 사이에서 쓰임. [전역]

엿뎅 어미 -였다고.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를 나타내는 '-엿다'의 변형 '-엿데'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주로 연소층의 동년배 사이에서 쓰임. [전역]

엿-등 명 바다 속의 바위인 여의 등어리. *엉덕은 이거 엿등이면은 요 아래 파진 디가 엉덕.(엉덕은 이것 여의 등어리이면 요 아래 움푹 패인 곳이 '엉덕'.) [하도]

엿-메역 명 '여(嶼)'에 나는 미역. [신엄]

엿-보다 동 엿-보다. [전역]

-엿ㅅ- 선어말 -여 있-. [전역] → -여시-.

-엿수가 어미 -였습니까.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 -여수가, -엿수과, -엿수광.

-엿수게 어미 -였지요.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었음을 긍정하게끔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엿수겐 어미 -였습니까고.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었음을 묻는 의문법 어미 '-엿수가'의 변형 '-엿수게'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ᄒᆞ다·듣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엿수겡 어미 -였습니까고.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었음을 묻는 의문법 어미 '-엿수가'의 변형 '-엿수게'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듣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엿수과 어미 -였습니까. [전역] → -엿수가.

-엿수광 어미 -였습니까. [전역] → -엿수가.

-엿수다 어미 -였습니다.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었음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당신이 좀 잔 것이 ᄒᆞᆫ 열 시간뱃긴 안 뒈엿수다.(당신이 잠을 잔 것이 한 열 시간밖에는 안 되었습니다.) [전역]

-엿수덴 어미 -였습니다고.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음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엿수다'의 변형 '-엿수데'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듣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엿수뎅 어미 -였습니다고.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되어 있음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엿수다'의 변형 '-엿수데'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듣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엿쉐 명 [전역] → 웃-쉐.

엿아- 두 '몰래'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전역]

엿아-듣다 동 엿-듣다. [전역] = 옛아-듣다, 웃아-듣다.

엿-장시 명 엿-장수. [전역]

-엿저 어미 -였다.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엿젠 어미 -였다고.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를 단정하여 나타내는 '-엿저'의 변형

'-엿제'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엿젱 어미 -였다고.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나 상태의 완료를 단정하여 나타내는 '-엿저'의 변형 '-엿제'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엿주 어미 -였지. ①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를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②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제삼자의 동작의 완료를 추측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탈 하영 타 먹어부난 손이영 입바위영 발고롱ᄒᆞ엿주.(산딸기 많이 따 먹어서 손과 입언저리가 발그레하였지.) [전역] = -엿쥐.

-엿쥐 어미 [전역] → -엿주.

영[1] 부 [전역] → 이영[1].

영[2] 부 전혀. *잇날 상제는 무신거 뜨려 죽이는 살상을 영 못헤십주게.(옛날 상제(喪制)는 무엇을 때려 죽이는 살상(殺傷)을 전혀 못했습니다.) [전역]

영[3] 조 하고.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을 늘어놓아 말할 때, 받침 없는 체언에 붙이어 쓰이는 열거격 조사. *우리 이제 이 디 쉐영 돗이영 잡아그네 잔치ᄒᆞ자.(우리 이제 이곳의 소와 돼지를 잡아서 잔치하자.) *그렇게 착실ᄒᆞᆫ 아이가 아방이영 성이영 아시영 노는 디 강 구경도 못ᄒᆞ커카?(그렇게 착실한 아이가 아버지랑 형이랑 아우랑 노는 데 가서 구경도 못하겠느냐?) [전역]

-영[1] 어미 -여서. 두 동작이나 상태를 말할 때, 앞에 나오는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나중에 하는 동작·상태의 근거·원인이나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앞·뒤의 동작·상태가 아직 지나지 않은 일인 경우에 쓰임. [전역]

-영[2] 어미 -고서. ① 두 동작이나 상태를 말할 때, 앞에 나오는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뒤에 오는 동작에 앞서 하게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앞뒤의 동작·상태가 아직 지나지 않은 일인 경우에 쓰임. [전역] ② 'ᄒᆞ다' 동사의 어간에 연결되어서, 어떤 행동의 결과로 이루어진 상태 그대로를 지속하면서 다른 일을 함을 뜻하는 연결어미. 앞뒤의 동작이 아직 지나지 않은 일인 경우에 쓰임. [전역] ③ 두 동작이나 상태를 대등하게 말할 경우에, 앞의 'ᄒᆞ다'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쓰이는 연결어미. 앞뒤의 동작이 아직 지나지 않은 일인 경우에 쓰임. [전역]

-영[3] 어미 주로 '하다(많다)·족다(적다)' 등의 형용사 어간에 붙어서, 그 형용사의 부사형을 만드는 어미. [전역]

영감(令監) 명 <민> 모든 도깨비를 높

이 이르는 말. [전역] = 야체, 참봉.

영감-놀이[1] 명 <민> 선왕(船王), 도깨비 등 다양한 성격을 지닌 영감신을 청하여 그들을 즐겁게 놀리는 연극적인 놀이굿. [전역]

영감-놀이[2] 명 <민> 영감신을 놀리어 환자의 병을 치유하는 의례. [전역]

영갓-기 명 <민> 백지를 신체 형상으로 오려 영혼을 상징하는 종이 깃발. [전역]

영게 명 <민> 영혼. [전역]

영게-도진 명 <민> 굿을 마치기에 앞서 영혼을 저승으로 돌려보내는 의례. [전역]

영게-돌려세움 명 <민> 굿에서 영혼을 돌려보내는 의례. [전역]

영게-ᄃᆞ리 명 <민> 영혼을 위한 의례인 질침을 할 때 영혼이 내리는 길에 길게 깔아놓는 무명천. [전역]

영게-울림 명 <민> 죽은 영혼의 이야기를 무당이 대신하는 분부사룀의 하나. [전역]



영게체섯기

영게-체섯기 명 <민> 백지를 신체 형상으로 오려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가는 차사를 상징하는 종이 깃발. [전역]

영겟-지 명 <민> 사령(死靈)에게 바치기 위하여 제물을 조금씩 백지에 놓아 싼 뭉치. [전역]

영계 명 <동> [전역] → 옝계.

영굿-내 명 <지> 제주시 오등동을 흐르는 '한내'의 한 줄기. [전역]

영귀 소리 명 <요> 장사를 치르는 날 행상해 가면서 부르는 민요의 한 가지. 옛 정의현(旌義縣) 지역에 전승되며, "어허어허어 어어으으" 등 외침소리로만 이어짐. [성읍 가시]

-영근 어미 -고서. 연결어미 '-영[2]'의 뜻을 더 세게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 -여근.

-영근에 어미 -고서. 연결어미 '-영[2]'의 뜻을 더욱더 세게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 -여근에.

영-기(令旗) 명 <민> 창호지를 오려 깃발 형태로 만든 무구(巫具). [전역]

영-ᄀᆞ루 명 <민> [전역] → 영-ᄀᆞ르.

영-ᄀᆞ르 명 <민> 굿에서 영혼의 흔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마련한 쌀가루. [전역] = 영-ᄀᆞ루.

영ᄀᆞ르-침 명 <민> 굿에서 영혼의 흔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시에 쌀가루를 놓고 그 위를 가리는 의례. [전역]

영등-굿 명 <민> 영등신을 맞이하여 치르는 당굿. [전역] = 영등-제.

영등-ᄃᆞᆯ 명 음력 이월(二月). [전역] = 이월.

영등-맞이 명 <민> 음력 2월 초하루에 벌이는 영등신을 맞이하는 굿. [전역] = 영등-손맞이.

영등-손맞이 명 <민> [전역] → 영등



영등굿

-맞이.

영등-송별제(--送別祭) 명 <민> 마을에 따라 음력 2월 7일부터 보름까지 벌이는 영등신을 돌려보내는 굿. [전역] = 영등-제(--祭).

영등-제(--祭) 명 <민> [전역] → 영등-굿.

영등-할망 명 <민> 영등-신(神). 음력 2월 1일에 입도(入島)하여 2월 15일에 나간다고 하는 신(神)의 이름. [전역]

영락-웃다 형 영락-없다. [전역]

영-ᄆᆞ루 명 <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 북쪽 변두리에 있는 오름. 표고 326.4미터. [성읍 송당] = 영주-산[1](瀛洲山).

영새 명 영사(靈砂). [전역]

영신-지 명 <민> 영신(靈神)에게 드리는 뜻으로 던지기 위하여 제의가 끝난 다음 제물의 윗부분을 조금씩 떠서 백지에 싼 것. [북촌]

영실(靈室) 명 <지> 서귀포시 하원동 북쪽 한라산 국립공원에 있는 골짜기 울창한 숲과 기암절벽으로 둘린 가운데 청렬한 계류(溪流)가 연중 그치지 않는 산중의 경승지. 우뚝우뚝한 암봉군(岩峰群)은 오백장군, 오백나한(五百羅漢), 또는 천불암(千佛岩)이라고 일컬어지고, 병풍바위라고 하는 우람한 암벽과 함께 장관을 이룸. 영실기암(靈室奇岩)은 영주십경(瀛洲十景)의 하나이며, 최고봉 표고는 1639미터임. [전역]

영-아리 명 <지> [전역] → 옵은-영아리.

영아리-오름 명 <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북쪽 광평리 동쪽에 있는 오름. 표고 693미터. [전역]

-영은 어미 -여서. 연결어미 '-영[2]'의 뜻을 더 세게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영은에 어미 -여서. 연결어미 '-영[1]'의 뜻을 더욱 세게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영이사 어미 -여서야. 'ᄒᆞ다' 동사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연결되어서, 아직 하지 않은 어떤 일을 하여서는 안 됨을 아주 강조하여 말할 경우에 쓰이는 연결어미. 그 다음에 대개 부정적인 말이 옴. [전역]

영-자(營者) 명 <민> 뱃머리에서 바다와 뱃전을 살피며 항해를 주장하는 이. [전역]

영장(永葬) 명 영장. 장사(葬事). [전역] 고 영장.

영장-나다 동 사람이 죽어서 장사 지낼 일이 생기다. [전역] = 장-나다.

영장 메어 가는 소리 명 <요> [전역] → 행상 놀레.

영장-밧 명 장지(葬地). [전역]

영-정 부 이럭-저럭. [전역] = 이럭-

저럭.

영주-산[1](瀛洲山) 명 <지> [전역] → 영-ᄆᆞ루.

영주-산[2](瀛洲山) 명 <지> 한라산의 별칭. 봉래산(蓬來山·금강산)·방장산(方丈山·지리산)과 더불어 삼신산(三神山)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이름. [전역]

영-집 명 <민> [전역] → 독집[2].

영천-악(靈泉岳) 명 <지> [전역] → 영천-오름.

영천-오름 명 <지> 서귀포시 영천동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 앞에 있는 오름. 표고 277미터. [전역] = 영천-악(靈泉岳), 영천이-오름.

영천이-오름 명 <지> [전역] → 영천-오름.

영청 부 <민> (날이) 새도록. *낮도 가곡 밤도 영청.(낮도 가고 밤도 새도록.) [전역]

영판-좋다 형 빈틈없이 아주 좋다. [전역]

영평-동(寧坪洞) 명 <지> 제주시 아라동의 한 법정마을. 영평상동과 영평하동으로 나뉘는데, 영평상동은 '가시나물'이라 하고, 영평하동은 '알무드내'라고 함. [전역]

엿인머리-오름 명 <지> [안덕] → 굴른-오름.

옆 명 [전역] → 욮.

옆-갈리 명 [인성 화순 하원 서홍 수산] → 욮-갈리.

옆갈리-꽝 명 [전역] → 욮갈리-꽝.

옆눈-질 명 [전역] → 젓눈-질.

옆-뎅이 명 [수산 가시] → 욮-뎅이.

예[1] 감 예. ① 존대할 자리에 대답하는 말. [전역] ② 존대할 자리에 재차 묻는 말. [전역]

예[2] 조 에. 체언 말음이 '-이·-에·-애' 음인 경우에 붙는 처소격 조사. *ᄒᆞᄭᅳᆫᄒᆞᆫ 지레예 입지니, 춤 이쁜 처녀가 뒈였단 말이여.(조그마한 키에 입히니, 참 예쁜 처녀가 되었다는 말이야.) *그 사름은 질레예 나오랑, 밤의 나오랑 어지려 낫다고 ᄒᆞ여.(그 사람은 길에 나와서, 밤에 나와서 어질러 놓았다고 하여.) [전역]

예[3] 미 [전역] → 양[4].

예-계 감 ① 존대할 자리에서 '예'란 대답을 세게 나타내는 말. [전역] ② 존대할 자리의 사람으로 하여금 이쪽 말에 응하게끔 내는 소리. [전역]

예관 명 여관(旅館). [전역] = 여관.

예-놈 명 [전역] → 왜-놈.

예는 조 에는. 체언 말음이 '-이·-에·-애'인 경우에 붙어서 쓰이는 '예'에, 지정하여 제시하는 뜻을 나타내는 '는'이 결합된 격조사. [전역]

예다 동 가다. *지장세미 산 세미 물은 줴여 먹엉 질이랑 옌다.(지장샘 산 샘물은 쥐어 먹어 길일랑 간다.) [전역]

예도(禮度) 명 예도. 예의와 법도를 아울러 이르는 말. [전역]

예라 감 [전역] → 여라.

예-못 명 [전역] → 왜-못.

예-베 명 [가시 조수 인성 서홍] → 왜-베.

예산-쟁이 명 [전역] → 여산-쟁이.

예상-ᄉᆞ 명 예상-사(例常事). 예삿-일.

[전역] = 여상-ᄉᆞ, 여우상-ᄉᆞ.

예-상제 명 [전역] → 예펜-상제.

예숙-제끼다 동 수수께끼-하다.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 수수-꺼리다, 수치-저끄다.

예숙-제낄락 명 수수께끼.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걸룰락.

예순 주 예순(六十). [전역] = 예쉰. 고 예순.

예-슬웨 명 [태흥 표선] → 예-슬웨.

예쉰 주 [전역] → 예순.

예-슬곱 주 예-닐곱(六,七). [전역] = 예-실곱.

예-슬웨 명 예-니레(六,七日). [전역] = 예-술웨, 예-싈웨.

예-싈웨 명 [전역] → 예-슬웨.

예시-좀 명 *좀도 자커건 예시좀 자라, 밤중 다ᄆᆞᆯ 간그멍 살라.(잠도 자겠거든 여윈잠 자라, 밤중 별을 살피며 살아라.) [전역] → 여시-좀.

예-실곱 주 [전역] → 예-슬곱.

예ᄉᆞ 명 예사(例事). [전역]

예-야 감 이-애야. 아이를 부르는 말. [전역] = 야-야, 야의-야, 얘야.

예인 명 여인(女人). [전역] = 여인.

예전이 명 한 밭 안에서 경작(耕作)하지 못하는 부분. [김녕 조수 가시] = 여전.

예점[1] 부 보통으로. [전역] = 여점.

예점[2] 부 임시로. 대충. [전역]

예점-말 명 예사롭게 주고 받는 말. *시어멍광 시누이년은 예점말에 나 그르댕 ᄒᆞ여라.(시어머니와 시누이년은 예삿말에 나 그르다고 하더라.) [전역]

예점-에 부 보통으로 그저 언제나. [전역]

예젱이 명 [전역] → 거적.

예젱이-문 명 [전역] → 거적-문.

예쭈다 동 [전역] → 여쭈다.

예청 명 [전역] → 예펜.

예청-네 명 [전역] → 예펜-네.

예-촌(禮村) 명 <지> [남원] → 예촌-리(禮村里).

예촌-리(禮村里)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와 하례리 일대에 형성되었던 조선 후기의 마을. [남원] = 예-촌(禮村), 예-춘.

예촌-망(禮村望)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바닷가에 있는 오름. 조선 때 봉수대가 있었음. 표고 68미터. [전역]

예-춘 명 <지> [남원] → 예촌-리(禮村里).

예펜 명 여편(女便). [전역] = 예청.

예펜-네 명 여편-네(女便-). [전역] = 예청-네.

예펜-사돈 명 안-사돈(-査頓). [전역] = 안-사돈.

예펜-상제 명 안-상제(-喪制). [전역] = 예-상제.

예프다 형 [인성 수산] → 야프다.

예피다 동 띠(茅)나 짚으로 이엉 따위를 엮다. *그딜 간 집도 안 짓고 ᄂᆞ람지 ᄒᆞ연 예펴서 주젱기 더꺼네 물 들지 못ᄒᆞ게 ᄒᆞ엿주.(그곳엘 가서 집도 안 짓고 이엉을 엮어서 주지를 덮어서 물이 들지 않게 하였지.) [전역]

옌 조 옌. '예는'의 준말. [전역]

-옌 어미 -라(-다)고. 체언이나 형용사

‘아니다’의 어간 또는 용언 어간에 붙은 선어말어미 ‘-ㅋ-’ 등에 연결되어서, 그 사실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어미 ‘-여’의 변형 ‘-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아닌게 아니라 큰 웨삼춘이옌 ᄒᆞᆫ 사름은 가다가, 기생덜안티 녹아 가지고 메틀 살앗지.(아닌게 아니라 큰 외삼촌이라고 하는 사람은 가다가, 기생들한테 녹아서 며칠 살았지.) [전역]

옐룬옐룬-ᄒᆞ다 형 얇디-얇다. ＊코ᄐᆞ데기 저 가망ᄒᆞ영 ᄋᆞ물 더꺼진 것이 기냥 옐룬옐룬ᄒᆞᆫ 거.(남방울타리고둥 저 까매서 여물 덮어진 것이 그냥 얇디얇은 것.) [이호]

옙-빗 명 [서홍] → 에역-빗.

옛-날 명 옛-날. [전역]

옛-말 명 옛-말. ＊(속) 옛말 그른 디 웃나.(옛말 그른 게 없다.) [전역]

옛아-듣다 동 [전역] → 엿아-듣다.

-옝 어미 -라(-다)고. 체언이나 형용사 ‘아니다’의 어간 또는 용언 어간에 붙은 선어말어미 ‘-ㅋ-’ 등에 연결되어서, 그 사실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어미 ‘-여’의 변형 ‘-예’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옝계 명 <동> 영계(-鷄). [전역] = 영계.

오 감 오. ① 옳지. [전역] ② 오냐. [전역] = ᄋᆞ.

오가리 명 <도> [전역] → 지동이.

오갈 명 <동> 조간대(潮間帶) 중간층(中間層)에 서식하는 패류의 일종. [대포]

오갈피-낭 명 <식> 섬-오갈피.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올갈피-낭.

오강쉬 명 <동> 큰구슬-우렁이. [행원]

오계-독 명 <동> [전역] → 웨계-독.

오고렝이-글ᄌᆞ 명 꼬부랑-글자. [노형 어도]

오고롬-ᄒᆞ다 형 안쪽으로 조금 굽은 듯하다. [전역]

오고불통-ᄒᆞ다 형 앞뒤가 꽉 막혀서 의견이 통하지 않다. [전역]

오고셍이 부 ① 물건이 상(傷)하거나 수가 줄어지거나 하지 않고 본디 그대로. [전역] ② 천연덕스럽게 천천히 몸을 일으키거나 또는 조심스럽게 동작해 나가는 모습. ＊겨난 장ᄌᆞᆫ 오그셍이 일어난 가 분 거라.(그러니까 큰아들(長子)은 ‘오고셍이’ 일어나서 가 버린 것이야.) [전역] = 우그생이.

오골레기 부 온전-히. [전역]

오골-오골 부 가볍게 일어나거나 솟아오르는 모양. [전역]

오곰 명 오금. [전역]

오곰방에-짛다 동 [조수] → 엉덩방아-짛다.

오곰-아프다 형 오금-아프다. [전역]

오곰-태기 명 ‘오곰’의 낮춤말.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오곰-패기. 고 오곰.

오곰-패기 명 [수산] → 오곰-태기.

오곳-오곳 부 흙덩이나 돌 같은 것 또

는 누웠던 동물이 제 모습 그대로 쉽게 일어나는 모양. *자단 애기 일어나듯 오곳오곳 일어나라.(자던 아기 일어나듯 쑥쑥 일어나더라.) [전역]

오곳이 부 물건이 상(傷)하지 않고 본디 모양 그대로. [전역]

오그랑-다그랑 부 [전역] → 오글랑-다글랑.

오그랑-오그랑 부 [전역] → 오글랑-오글랑.

오글랑-다글랑 부 이리 오그라지고 저리 오그라지고 한 모양. [전역] = 오그랑-다그랑.

오글랑-오글랑 부 안으로 아주 오그라지고 또 오그라진 모양. [전역] = 오그랑-오그랑.

오꼿 부 ① 가만히 있다가 선뜻 일어서는 모양. [전역] ② 여유를 주지 않고 일을 선뜻하게 해 버리는 모양. *그자 그 미녕 확ᄒᆞ게 감안 오꼿 오라 불엇주.(그저 그 무명 재빠르게 감아서 '오꼿' 와 버렸지.) [전역] ③ 전부·그만·완전히. *올 땐 풍파 만나난 오꼿 죽어 비연.(올 때는 풍파(風波)를 만나니까 그만 죽어 버렸어.) [전역]

오나릿-불휘 명 <식> [수산 가시 김녕 조수] → 오나릿-불희.

오나릿-불희 명 <식> 오이-풀. [노형 인성 서홍] = 오나릿-불휘.

오널 명 [전역] → 오늘.

오년-일체(五年一次) 명 <민> 5년에 한 번 제의를 행함. [구좌]

오-노의 명 오-누이(男妹). [전역] = 오-누의.

오-누의 명 [전역] → 오-노의.

오-뉴월 명 [전역] → 오-유월.

오늘 명 오늘. [전역] = 오널, 오놀. 고 오놀.

오놀 명 [전역] → 오늘.

오도독이 부 오도독. 작은 물건이 부러지는 소리. *오동낭의 상가지가 오도독이 꺼꺼지는 소리로구나.(오동나무의 큰 가지가 오도독 꺾어지는 소리로구나.) [전역]

오도롱 명 <지> [이호] → 오ᄃᆞ롱-마을.

오도롱-마을 명 <지> [이호] → 오ᄃᆞ롱-마을.

오돌또기 명 <요> 제주도의 대표적인 창민요. 오늘날에는 제주도에만 제대로 남겨졌지마는 신재효본(申在孝本) <흥부가>나 <가루지기타령>에 보면 그 첫머리 사설이 비슷한 삽입가요 '오돌또기'가 전하여지는 것으로 보아서, 예전에는 전국에 흩어졌던 민요였는데, 오늘날에는 제주도에만 본래의 모습과 가깝게 남겨진 것이라고 추정됨. [전역]

오동 명 [표선 수산 세화 조천] → 오동-개비.

오동-개비 명 오디. [노형 조수 인성 화순 어도] = 오동.

오동글랑-ᄒᆞ다 형 물건이 뛰어오를 듯 위에 매달려진 모양이 되다. [전역]

오동-낭 명 <식> 참오동-나무. [전역]

오동-대죽 명 <식> 이삭의 모양이 사람의 손주먹과 비슷한 수수의 한 가지. [노형 조수] = ᄃᆞᆼ글-대축, ᄃᆞᆼ들-대축, ᄃᆞᆼ듸-대죽, ᄃᆞᆼ지-대죽, ᄃᆞᆼ지-대축, 종지-대죽.

오동-오르다 동 ① 훌쩍 뛰어오르다. [전역] ② 재물이 탕진되어 다 없어지다. [전역]
오동통-ᄒᆞ다 형 오동통-하다. [전역]
오동-풋 명 <식> 팥의 일종. [하원]
오드싱 명 <지> 제주시 오등동(梧登洞)의 옛 이름. [오라 아라]
오드싱이-오름 명 <지> 제주시 아라동 농촌진흥청시험장 북동쪽에 있는 오름. 표고 206미터. [오라 아라] = 오등-봉(梧登峰), 오봉-산(梧鳳山).
오들랑-ᄒᆞ다[1] 동 깡충하게 뛰어 오르다. [전역]
오들랑-ᄒᆞ다[2] 형 물건이 위에 매달려진 모양이 되다. [전역]
오등-봉(梧登峰) 명 <지> [전역] → 오드싱이-오름.
오ᄃᆞ롱 명 <지> [이호] → 오ᄃᆞ롱-마을.
오ᄃᆞ롱-마을 명 <지> 제주시 이호2동에 있는 자연마을. [이호] = 오도롱, 오도롱-마을, 오ᄃᆞ롱.
오라-가다 동 다녀-가다. [전역]
오라바-님 명 오라버-님. [전역] = 오라-벰.
오라방 명 오라비. [전역]
오라-벰 명 [전역] → 오라바-님.
오라-외 명 <지> [오라] → 오라-위.
오라-위 명 <지> 제주시 오라1동의 옛 이름. [오라 이도] = 오라-외, 오라-호.
오라-호 명 <지> [오라 이도] → 오라-위.
오랍-동셍 명 <민> 오라비 동생. 남동생. [전역]
오랑 명 <도> 뱃대-끈. 말 등에 안장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말 앞가슴을 휘감아 안장 양 쪽에 묶은 줄. [전역] = 오량.
오래 부 오래(久). [전역] = 오레.
오래다 형 오래다(久). [전역] = 오레다.
오량 명 [조수 어도 인성 화순 하원] → 오랑.
오레 부 [전역] → 오래.
오레다 형 [전역] → 오래다.
오로 명 <동> [전역] → 지다리.
오로-굴 명 오소리 굴. [교래]
오론-도론 부 오순-도순. [전역]
오롬 명 [전역] → 오름.
오롯 명 치받-이. 올라가는 비탈진 곳. [전역] = 오릇.
오롯-지다 형 땅이 몹시 경사지다. [전역]
오롯-질 명 비탈진 곳을 올라가는 길. [전역] = 오릇-질.
오롱-마 명 <식> 쓴-마. [노형 서홍 수산 김녕] = 도롱-마.
오르다 동 오르다(登). [전역] = 올르다. 고 오ᄅᆞ다.
오른-손 명 [전역] → ᄂᆞ단-손.
오른-짝 명 [전역] → ᄂᆞ단-착.
오른-쪽 명 [전역] → ᄂᆞ단-쪽.
오른-착 명 [전역] → ᄂᆞ단-착.
오른-펜 명 [전역] → ᄂᆞ단-펜.
오름 명 한 번의 분화(噴火) 활동으로



오름

봉긋봉긋 솟아오른 화산. [전역] = 오롬.

오름-골 명 <지> 서귀포시 하원동의 옛 이름. [서귀포 중문]

오름-밧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봉소동'(鳳巢洞)의 옛 이름이자 그 지역의 고유 이름. [조천]

오름삿기-오름 명 <지> [성산] → 독ᄌᆞ-오름.

오름-촐 명 오름에 있는 꼴밭에서 마련한 꼴. [인성]

오릇 명 [전역] → 오롯.

오릇-질 명 [전역] → 오롯-질.

오리(五里) 명 [전역] → 흔-참[1].

오리-낭 명 <식> 오리-나무. [전역]

오리다 동 톱으로 통나무를 좁고 길게 켜다. [전역]

오리-목 명 봇줄 끝에 매어진 나무와 쟁기의 성에와의 사이에 잇대어 걸려 매는 줄. [전역]

오리목-매깨 명 <도> 오리목을 묶는 줄. [어음]

오리-정 명 <민> [전역] → 신청-궤.

오리정-신청궤 명 <민> [전역] → 신청-궤.

오망-귀 명 [서홍 가시] → 오망-부리[1].

오망-부리[1] 명 위 아랫니가 빠져서 두 입술이 안으로 오므라든 입.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오망-귀.

오망-부리[2] 명 합죽-할미. [노형 조수 김녕] = 오물-할망.

오망-오망 뿌 사람이나 물건이 졸망졸망하게 많이 모여 있는 모양. [전역]

오메기[1] 명 <음> 차좁쌀 가루에 더운 물을 넣어 되게 반죽해서 둥그렇게 만든 후 가운데 큰 구멍을 뚫어 만들거나 둥글납작하게 만들어서 삶아 낸 떡. 팥고물은 무치거나 소를 넣어 만들기도 함. 술감으로 쓰이기도 함. ＊대죽 오메기 ᄒᆞ곡 대죽 범벅을 허여 간 먹어서.(수수 '오메기' 하고 수수 범벅을 해 가서 먹었어.) [전역] = 오메기-떡.



오메기[1]

오메기[2] 명 바닷가 모래밭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곳. [삼양]

오메기-떡 명 <음> ＊오메기떡 만들젠 ᄒᆞ믄 아주 힘듭니다.('오메기떡'을 만들려고 하면 아주 힘듭니다.) [성읍] → 오메기[1].

오메기-술 명 차좁쌀 가루를 익반죽해 만든 오메기떡에 누룩을 섞어 반죽한 후 적당량의 물을 넣어 발효시킨, 제주 전통 민속주. [성읍]

오모끄다 동 다리 따위를 삐다. ＊아고, 어떵 ᄒᆞ리 나 여기 오모까 먹언.(아이고, 어떻게 하리, 나 여기 삐었어.) [명월]

오목-ᄒᆞ다 형 오목-하다. [전역]

오몰-거리다 동 오물-거리다. ① 벌레 따위 등 몸피가 작은 것이 여럿이 한군데 모여 자꾸 꼼지락거리다. [전

역] ② 무엇을 입안에 넣고 맛이 있는 듯이 이리저리 굴리면서 자꾸 씹다. [전역]

오몽-ᄒᆞ다 동 ① 몸을 움직이거나 꾸물꾸물 흔들다. ＊깨언 보니까 오몽ᄒᆞ지 못ᄒᆞ게 꽉 무껸 잇어.(깨어서 보니까 움직이지 못하게 꽉 묶이어 있어.) [전역] ② 몸을 일으켜 일을 하다. [전역]

오물-떡 명 <민> 가운데를 오목하게 눌러 만든 메밀떡. [전역]

오물-좃 명 자라-자지. [전역] = 옴-좃.

오물-할망 명 [조수] → 오망-부리[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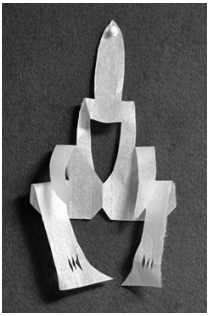
오므라-지다 동 오므라-지다. [전역]

오미-자 명 <식> [전역] → 오미-ᄌᆞ.

오미-저 명 <식> [전역] → 오미-ᄌᆞ.

오미-ᄌᆞ 명 <식> ① 오미자-나무. [전역] ② 오미자나무의 열매. [전역] = 오미-자, 오미-저, 웨미-ᄌᆞ.

오방각-기 명 <민> 제청의 문마다 문틀 위에 붙이는 작은 종이 장식. [전역]



오방각기

오방-기 명 <민> 제청의 오방(五方)에 붙이는 작은 종이 장식. [전역]

오방토신(五方土神) 명 <민> 방위(方位)와 집터를 관장하는 신(神). [전역]

오백-나한(五百羅漢) 명 <지> [전역] → 오백-장군(五百將軍).

오백-장군(五百將軍) 명 <지> 한라산 국립공원의 '영실'을 에워싼 산릉(山稜)의 암봉군(岩峰群). 최고봉 1639미터. [전역] = 오백-나한, 천불-봉, 천불-암.

오봉-산(梧鳳山) 명 <지> [오등] → 오드싱이-오름.

오분-자구 명 <동> [옹포] → 오분-재기.

오분-자귀 명 <동> [조천 노형 조수] → 오분-재기.

오분-자기 명 <동> [전역] → 오분-재기.

오분-작 명 <동> [수산 가시] → 오분-재기.

오분-재기 명 <동> 오분-자기. [김녕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고망-바르, 떡-조갱이, 바르[1], 오분-자구, 오분-자귀, 오분-작, 조개[1].



오분재기

오비다 동 오비다. [전역] = 오의다. 고 외다.

오비여-ᄑᆞ다 동 오비어-파다. [노형 조수 수산 김녕 인성] = 오의여-ᄑᆞ다.

오수 명 <동> [전역] → 오수-마.

오수-마 명 <동> 다섯 살이 된 말(馬). [전역] = 오수, 오쉬, 오쉬-매.
오쉬 명 <동> [전역] → 오수-마.
오쉬-매 명 <동> [전역] → 오수-마.
오시-장데 명 <공> 풀무공예에서 쇳물을 길어 나르는 그릇. [덕수]
오신-도신 부 오순-도순. 정답게 이야기하는 모양. *앚인배기 진달래가 오신도신 피는 소리로고나.(앉은뱅이 진달래가 오순도순 피는 소리로구나.) [전역]
오실-오실 부 오슬-오슬. [전역]
오양-ᄒᆞ다 동 보호하고 키우다. *밤나모를 아무 산에 벡 줴를 싱거서 지금 오양ᄒᆞ노라.(밤나무를 아무 산에 백 주(百本)를 심어서 지금 키우노라.) [노형]
오요요 감 오요요. 강아지를 부르는 소리. [전역]
오-유월 명 오-뉴월(五六月). [전역] = 오-뉴월.
오의다 동 [수산 조수] → 오비다.
오의여-ᄑᆞ다 동 [노형 조수 수산 김녕] → 오비여-ᄑᆞ다.
오일-망긴 명 <민> 외올-망건(--網巾). [북촌]
오입(誤入) 명 오입. 아내가 아닌 여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일. [전역] = 웨입.
오장(五臟) 명 오장.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장의 다섯 가지 내장을 통틀어 이르는 말. [전역]
오장삼 명 <민> 띠나 짚을 재료로 하여 가방 모양을 만들고 그 속에 고기 따위를 담아 가지고 다니게 만든 물건. [전역]



오장삼

오족 부 오죽. '어찌 예사 정도로만'의 뜻. [전역] = 오직[1].
오좀 명 오줌(尿). [전역] = 소마, 소매.
오좀-깨 명 오줌-통(膀胱). [노형 조수 인성] = 오좀-통, 오좀-푸께. 고 오좀깨.
오좀-누다 동 오줌-누다. [전역] = 오좀-눅다. 고 오좀누다.
오좀-눅다 동 [김녕 노형 조수] → 오좀-누다.
오좀-단지 명 사기-요강. 사기로 만든, 오줌을 받아 내는 그릇. [전역]
오좀솔태-벵 명 <병> [화순 서홍 수산 인성 하원] → 산기-벵.
오좀-싸기 명 [전역] → 오좀-쌔기.
오좀-싸다 동 오줌-싸다. [전역] = 오좀-씃다.
오좀-쌔기 명 오줌-싸개. [전역] = 오좀-싸기, 오좀-쎄기, 오줌-쌔기. 고 오좀싹기.
오좀-쎄기 명 [전역] → 오좀-쌔기.
오좀-씃다 동 [전역] → 오좀-싸다.
오좀-정갱이 명 오줌-버캐. [전역] = 오좀-징겡이.
오좀-징겡이 명 [조천 조수 인성 어도]

→ 오좀-정갱이.
오좀-통 명 [서홍 수산 가시] → 오좀-께.
오좀-푸께 명 [조수 인성] → 오좀-께.
오줌-쌔기 명 [전역] → 오좀-쌔기.
오줌-통개 명 [덕수] → 오줌-항.
오줌-항 명 거름으로 쓸 오줌을 담아 두는 항아리. [행원] = 오줌-통개.
오직[1] 부 [전역] → 오족.
오직[2] 부 오직(唯). [전역]
오진-조진 부 정답게 놀거나 이야기하는 모양. *조팝 ᄒᆞ곡 ᄀᆞ국 끌리곡 오진조진 오진조진.(조밥하고 박국 끓이고 오순도순 오순도순.) [전역]
오-토미 명 <동> 옥-돔. [전역] = 생선[1], 셍선, 솔나니, 솔내기, 솔라니, 솔래기, 오톰-셍성, 오-퉤미.



오토미

오톰-셍성 명 <동> [조수] → 오-토미.
오-퉤미 명 <동> [노형 인성] → 오-토미.
오합-주 명 청주, 달걀, 참기름, 꿀, 생강 등 다섯 가지를 혼합하여 발효시킨 제주의 전통 민속주. *옛날은 오합주가 질 보약이라나서.(옛날은 '오합주'가 제일 보약이었어.) [성읍]
옥-ᄀᆞᆯ다 동 옥-갈다. [전역] = 바위-ᄀᆞᆯ다.
옥다 형 옥다. [전역]
옥밤 명 <동> [어도] → 옷밤.
옥사(獄舍) 명 옥사. [전역]
옥살-지움 명 <민> 환자를 치유하는 두린굿에서, 환자에게 빙의한 귀신으로부터 물러나겠다는 다짐을 받은 뒤에 원하는 물건을 주어 귀신을 달래어 보내는 의례. [함덕]
옥ᄉᆞ[1] 명 옥사(獄死). [전역]
옥ᄉᆞ[2] 명 옥사(獄事). [전역]
옥-양목 명 옥-양목(玉洋木). [전역] = 옥-영목.
옥-영목 명 [어도 수산] → 옥-양목.
옥-자귀 명 <도> 옥-자귀. [전역] = 고분-자귀.
옥-쟁기 명 <도> 쟁깃술의 오그라짐이 심한 쟁기의 일종. [중문]
옥제기 명 <도> [노형 인성 서홍 상가] → 퉤약세기.
옥-훼계 명 옥-셈. [전역]
온고롱-ᄒᆞ다 형 조금 따스하다. [수산]
온-골 명 온-마을. [전역]
온골 부리다 구 온 동리 사람들을 시켜 역사(役事)를 하다. [노형 조수 인성 김녕]
온말 명 정말. [전역]
온-종일(-終日) 명 온-종일. [전역]
온-차 부 [전역] → 온-채.
온-채 부 짜개거나 가르거나 하지 않고 온통 그대로. [전역] = 온-차. 고 온재.
온천-동(溫川洞) 명 <지> [남원] → 여우-내.
온천-리(溫川里) 명 <지> [남원] → 여우-내.

온통 부 온통. [전역] = 웬통.
올 명 올. 실(絲)의 가닥. [전역]
올가미-치다 동 무엇을 치우거나 먹어 버리거나 하여 없이하다. [전역]
올갈피-낭 명 <식> [수산 가시] → 오갈피-낭.
올고-금년 명 <민> 금년(今年). [전역] = 올금-수년.
올궁기-메우기 명 <민> 시왕맞이 따위에서 차사나 영혼이 밟고 내리도록 깔아 놓은 무명천의 올 사이 구멍을 메우는 의례. [전역] = 실궁기-메우기.
올금-수년 명 <민> [전역] → 올고-금년.
올-내낭 부 [어도 조수 수산] → 올히-내낭.
올락-네력 부 [전역] → 올락-ᄂᆞ력.
올락-ᄂᆞ력 부 오르락-내리락. [전역] = 올락-네력.
올레 명 거릿길 쪽에서 대문까지의, 집으로 드나드는 아주 좁은 골목 비슷한 길. *하르방은 올레에 나오란 ᄇᆡ래단, 이상ᄒᆞ다고 생각ᄒᆞ여.(할아버지는 '올레'에 나와서 보다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전역] 고 오래.
올레-지기 명 <민> [전역] → 올레-지신.
올레-지신 명 <민> '올레'를 지키는 신. [전역] = 올레-지기.
올렛-문 명 <건> 거릿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길목 안 쪽에 세운 대문. [전역]
올렛-어귀 명 거릿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목의 첫머리. [전역]
올로레비 명 [전역] → 얼루레비.
올로레비-낭 명 <식> [전역] → 얼루레비-낭.
올루레비 명 [전역] → 얼루레비.
올루레비-낭 명 <식> [전역] → 얼루레비-낭.
올르다 동 [전역] → 오르다.
올리[1] 명 <민> 오리. [전역]
올-리[2] 명 [전역] → 올히.
올림-은어 명 <동> 음력 3월 초순부터 음력 6월까지 약 4개월 동안 산란을 위하여 바다에서 냇가로 올라오는 은어. [강정] = 올림이-은어.
올림이 명 <어> 바람에 해안으로 떠밀려 온 해조류(海藻類) 더미. *오널 마ᄇᆞ름 부난 메역 올람직ᄒᆞ다. 오널 올림이 ᄒᆞ레 가게.(오늘 마파람 부니 미역이 밀려올 듯하다. 오늘 '올림이' 하러 가자.) [중문]
올림이-은어 명 <동> [강정] → 올림-은어.
올-바로 부 올-바로. [전역] = 올-바르.
올-바르 부 [전역] → 올-바로.
올은-ᄃᆞ리 명 <민> 신칼로 점을 칠 때 칼날이 모두 오른쪽으로 향한 형상. [전역]
올-피 명 <식> 피의 일종. [송당 영평]
올호레비 명 [전역] → 얼루레비.
올호레비-낭 명 <식> [전역] → 얼루레비-낭.
올-히 명 올-해(今年). [전역] = 올-리[2]. 고 옳.
올히-내낭 부 올해 내내. [전역] = 올-내낭.
옳다[1] 형 옳다. [전역]
옳다[2] 감 옳다. [전역]

옴막-옴막[1] 부 음식물 따위를 입안에 연이어 넣어 먹는 모양. *그 애기 옴막옴막 잘도 먹엄저.(그 아기 '옴막옴막' 잘도 먹네.) [전역]
옴막-옴막[2] 부 옴폭-옴폭. [전역]
옴막-ᄒᆞ다[1] 동 음식물을 입안에 들여 넣어 입을 다물다. [전역] = 움막-ᄒᆞ다[1], 음막-ᄒᆞ다.
옴막-ᄒᆞ다[2] 형 가운데가 옴쏙하게 들어가다. [전역]
옴-좃 명 [가시 수산 김녕 조수] → 오물-좃.
옴찍-돌싹 부 옴쭉-달싹. [전역] = 옴찍-돌싹.
옴찍-옴찍 부 옴찍-옴찍. [전역]
옴탕-ᄒᆞ다 형 가운데가 둥글게 파여 깊숙히 오목하다. [전역]
옴틀락-ᄒᆞ다 형 오목하게 파여 들어간 것이 둥글고 미끈둥하다. [전역]
옴-파다 동 옴-파다. [전역] = 옴-푸다, 옴-ᄑᆞ다, 옹-파다, 옹-ᄑᆞ다, 홈-푸다.
옴팡-지다 형 움푹-지다. [전역]
옴-푸다 동 [전역] → 옴-파다.
옴-ᄑᆞ다 동 [전역] → 옴-파다.
-옵네까 어미 -ㅂ니까.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사실을 지시하여 직접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 -옵늬까.
-옵네다 어미 -ㅂ니다.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사실을 직접 지시,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 -옵늬다.
-옵늬까 어미 -ㅂ니까. [전역] → -옵네까.
-옵늬다 어미 -ㅂ니다. [전역] → -옵네다.
옷 명 옷(衣服). [전역]
옷-가기 명 <건> [김녕] → 옷-가리.
옷-가리 명 <건> 욋-가지(椳--). 외(椳)를 엮는 데 쓰는 나뭇가지. [조수 노형] = 옷-가기, 울-가리.
옷-거죽 명 옷-거죽. [전역]
옷-골름 명 [하원 조천 노형 조수 서홍] → 옷-곰.
옷-골홈 명 [인성 화순 어도] → 옷-곰.
옷-곰 명 옷-고름. [전역] = 옷-골름, 옷-골홈. 고옷고홈.
옷-공젱이 명 옷을 걸기 위하여 벽 따위에 박아 놓은 나무못 따위. [전역] = 옷-공젱이.
옷-공젱이 명 [전역] → 옷-공젱이.
옷귀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의 옛 이름. [남원] = 옷귀-ᄆᆞ을, 옷기.
옷귀-ᄆᆞ을 명 <지> [남원] → 옷귀.
옷기 명 <지> [남원] → 옷귀.
옷-ᄀᆞ슴 명 옷-감. [전역] = 옷-ᄀᆞ심, 옷-ᄀᆞ음. 고옷ᄀᆞ음.
옷-ᄀᆞ심 명 [전역] → 옷-ᄀᆞ슴.
옷-ᄀᆞ음 명 [전역] → 옷-ᄀᆞ슴.
옷바미 명 <동> [수산] → 옷밤.
옷바밋-동네 명 <지>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의 한 자연마을. [한경]
옷밤 명 <동> 올빼미. [전역] = 옥밤, 옷바미. 고옷밤이.
옷밤-절와니 명 <식> [인성] → 북덕-제환지.
옷밤-절완지 명 <식> [인성] → 북덕-제환지.

옷밤-제와니 명 <식> [서홍] → 북덕-제환지.
옷벗은-돌뱅이 명 <동> [가시 수산 김녕 노형] → 집웃은-돌뱅이. 고 겁질 업슨달팡.
옷-불 명 옷-벌. 몇 벌의 옷. [전역]
옷-섭 명 옷-섶. 두루마기나 저고리의 깃 아래에 달린 기다란 헝겊. [전역]
옷-안 명 옷-안. [전역]
옷-장의 명 <동> 갯-장어. [전역]
옷-짓 명 옷-깃(衿). [전역] 고 옷깆.
옹겨-놓다 동 옮겨-놓다. [전역] = 웽겨-놓다.
옹공공-ᄒᆞ다 동 개가 짖다. *베낀 개가 옹공공ᄒᆞ곡, 튿은 닥이 고꼬옥ᄒᆞ곡.(벗긴 개가 멍멍 짖고, 뜯은 닭이 꼬끼오하고.) [전역]
옹기-장시 명 옹기-장수(甕器商人). [전역]
옹기-장ᄉᆞ 명 옹기-장사(甕器商). [전역]
옹당-옹당 부 [전역] → 옹장-옹장.
옹뎅이 명 [노형 수산 인성 서홍] → 호강이.
옹생이 명 <동> [수산] → 볼댕이.
옹송-거리다 동 옹송-그리다. [전역]
옹장-옹장 부 잔소리를 자꾸 늘어놓는 모양. [전역] = 옹당-옹당.
옹-조리 명 옹달-솥(--鼎). [전역] = 옹졸-레기, 옹-지리.
옹졸-레기 명 [조수] → 옹-조리.
옹종-ᄒᆞ다 형 옹종-하다. 마음이 좁고 모양이 오종종하다. [김녕 수산 노형 조수 인성]
옹-지리 명 [인성] → 옹-조리.
옹크리다 동 옹크리다. [전역] = 옹키다.
옹키다 동 [전역] → 옹크리다.
옹통-ᄒᆞ다 형 성미가 옹졸하고 융통성이 없다. [전역]
옹-파다 동 [전역] → 옴-파다.
옹-ᄑᆞ다 동 [전역] → 옴-파다.
와 감 와. 말(馬)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기 위해 내는 소리. [전역]
와가 명 <건> [전역] → 와개.
와개 명 <건> 와가(瓦家). 기와-집. [전역] = 와가, 와개-칩.
와개-칩 명 <건> [전역] → 와개.
-와난 어미 -어난. *꿈에 시꾸와난 말 ᄒᆞ지 말라.(꿈에서 경험했던 말 하지 마라.) [전역]
와닥-거리다 동 큰일이나 난 것처럼 황급히 서두르다. *와닥거려 가멍 밖거리레 가 불어(와닥거려 가면서 바깥채로 가 버려.) [전역]
와드득-와드득 부 아드득-아드득. [전역]
와들랑-ᄒᆞ다 동 [전역] → 파들락-ᄒᆞ다①.
와라-치라 부 <민> 고관의 행차 때 길을 비키라고 외치는 소리. [전역] = 와락-차락.
와락-와락 부 와락-와락. [전역]
와락-차락 부 <민> [전역] → 와라-치라.
와랑-과랑 부 우렁-우렁. 위세가 당당한 모양. 우렁찬 모양. *어떤 년은 팔제가 좋앙 고대광실 노픈 집의 와랑과랑 살건마는.(어떤 년은 팔자가 좋아 고대광실 높은 집에 우렁우렁 살건마는.) [전역]
와랑-와랑 부 ① 불이 성하게 타오르는 모양. [전역] ② 사람이 힘차게

가거나 달리는 모양. [전역]

와렝이 명 <민> 징 선생으로 일컬어지는 이. [전역]

와리다 동 마음이 아주 조급하여 서두르다. [전역] = 왜다.

-와사 어미 -워야. 자동사 어간에 '-우-'가 붙어 타동사화된 어간에, 부사형 '-아'가 연결되면서 그 타동사의 어간 '-우-'는 '-오-'로 바뀌고, 거기에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첨사 '-사'가 연결된 어미. [전역]

와삭-바삭 부 사기 그릇 따위를 부수는 소리. [전역] = 바삭-바삭, 와삭-와삭, 와상-바상, 와상-와상.

와삭-와삭 부 *요 산중에 놀단 낭아 와삭와삭 깨여지라.(요 산중에 놀던 나무야 와삭와삭 쪼개어져라.) [전역] → 와삭-바삭.

와상-바상 부 [전역] → 와삭-바삭.

와상-와상 부 [전역] → 와삭-와삭.

와상-이 부 [전역] → 과상-이.

와상-ᄒᆞ다 형 사물이 부서질 정도로 바싹하게 말라 푸석푸석하다. [전역] = 왕상-ᄒᆞ다.

와싹 부 와싹. [전역]

와싹-와싹 부 와싹-와싹. [전역]

와싹-파싹 부 사기그릇 따위를 아주 세게 부수는 소리. [전역] = 와쌍-파쌍.

와쌍 부 물건이 부서지는 소리. *영와쌍 ᄒᆞ여서 실러져 분댄 말이우다.(이렇게 '와쌍' 하여서 무너져 버린단 말입니다.) [전역]

와쌍-파쌍 부 [전역] → 와싹-파싹.

와작착 부 ① 한꺼번에 일이 끝나는 모양. [전역] ② 찰싹. 손바닥으로 뺨을 때리는 소리. [전역]

와지직 부 뜨거운 것에 데었을 때 아프게 느껴지는 모양이나 그 소리. [전역]

-와치 미 [전역] → -바치.

왁-새 명 <동> [전역] → 곽-새.

왁왁 부 캄캄한 모양. [전역]

왁왁-어둑다 형 캄캄-하다. *돌연히 도가 왁왁어둑어서 이상스럽다고 ᄒᆞ여.(돌연히 '도'가 캄캄해서 이상스럽다고 해.) [세화 표선 수산 조천 노형] = 왁왁-어둡다.

왁왁-어둡다 형 [전역] → 왁왁-어둑다.

왁왁이 부 장마 때 비는 오지 않고 짙은 안개가 끼는 날씨가 이어지는 모양. *장마 땐 왁왁이 일뤠옌 ᄒᆞ주.(장마 때는 '왁왁이' 이레라고 하지.) [중문]

왁왁-ᄒᆞ다 형 조금도 보이지 않고 어둡기만 하다. [전역]

-완 어미 -와(워)서. 두 동작이나 상태를 말할 때, 앞에 나오는 '돕다·곱다·그립다·맵다' 등 'ㅂ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나중에 하는 동작·상태의 근거·원인·이유나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어미 '-와'에,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왈각-달각 부 여러 개의 단단한 물건이 서로 자꾸 부딪쳐 고르지 않게 세게 나는 소리. [전역] = 왈각-잘각, 왈그랑-달그랑.

왈각-잘각 부 [전역] → 왈각-달각.

왈그랑-달그랑 부 [전역] → 왈각-달각.

왈랑-왈랑 부 *물에 봉 왈랑왈랑 삶앙 우려불믄은 짠 게 쪼끔 나가믄 괜찮주게.(물에 놓아서 '왈랑왈랑' 삶아서 우리면 짠 것이 조금 나가면 괜찮아.) [전역] → 왈탕-왈탕.

왈케기 명 [전역] → 왈패.

왈탕-왈탕 부 물이 야단스럽게 끓어오르는 소리. [전역] = 왈랑-왈랑.

왈패 명 왈패. [전역] = 왈케기.

-왐- 선어말 -고 있-. '지우다·키우다·세우다' 등 타동·사동·피동에 있어서, '-우-' 어간 다음에 '-엄-'이 오지 않고 '-암-'이 와서 결합되어서는,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전역]

-왓- 선어말 -웠-. '지우다·키우다·세우다' 등 타동·사동·피동에 있어서, '-우-' 어간 다음에 '-엇-'이 오지 않고 '-앗-'이 와서 결합되어서는, 동작의 계속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전역]

왓닥-갓닥 부 오락-가락. *저승 질이 왓닥갓닥.(저승 길이 오락가락.) [전역]

왕 감 와. 소(牛)의 움직임을 멈추게 하는 소리. [노형 조수 인성] = 황[3].

왕- 두 '큰'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두사. [전역]

-왕 어미 -와(워)서. 두 동작이나 상태를 말할 때, 앞에 나오는 '돕다·맵다·그립다' 등 'ㅂ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나중에 하는 동작·상태의 근거·이유·원인이나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어미 '-와'에, 뒤에 오는 동작·상태가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왕가-봉(往可峰) 명 <지> 제주시 구좌읍 한동리 서쪽 일주도로변에 있는 작은 오름. 조선 때 봉수대가 있었음. 표고 37미터. [전역]

왕-걸 명 <어> 바닷속에 있는 산처럼 높은 바위. 또는 거친 용암바다. [대포]

왕-게미 명 <동> [수산] → 물-게염지.

왕-게여미 명 <동> [전역] → 물-게염지.

왕-게염지 명 <동> [전역] → 물-게염지.

왕-골 명 <식> 왕-골. [전역]

왕골-초석 명 왕골로 엮어 짠 초석. [전역]

왕관-릉(王冠稜) 명 <지> 제주시 아라동 남쪽 한라산 국립공원의 용진굴 동쪽을 두른 산릉(山稜). 북단에 왕관바위(王冠岩)가 있음. [전역]

왕관-바위(王冠--) 명 <지> 제주시 아라동 한라산 국립공원의 왕관릉(王冠稜) 북단에 있는 왕관 모양의 암벽(岩壁). 표고 1666미터. [전역]

왕-구제기 명 <동> 크기가 큰 소라. [대포]

왕-놈 명 <동> 잠자리. [용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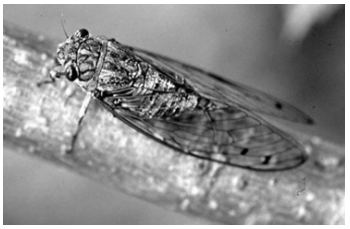
왕-대 명 왕-대(王-). [전역]

왕-돌 명 커다란 돌. [전역] = 왕-석.

왕-메(王-) 명 <지>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 수산초등학교 북서쪽에 있는 오름. 표고 157.6미터. [수산 시흥] = 대왕-산(大王山·大旺山), 왕이-미, 왕이-산, 웽-메, 웽-미, 웽이-메, 웽이-미.

왕-모살 명 [전역] → 홁은-몰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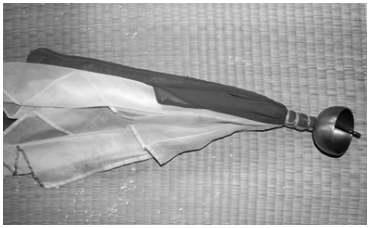
왕-몰레 명 [전역] → 홁은-몰레.
왕-밥주리 명 <동> 큰 잠자리. [상가]
왕-방올 명 [전역] → 왕-방울.
왕-방울 명 왕-방울(-鈴). [전역] = 왕-방올.
왕-벌 명 <동> 왕봉(王蜂). [전역]
왕상-ᄒᆞ다 형 [전역] → 와상-ᄒᆞ다.
왕-석 명 *젊은 아이덜은 점복ᄒᆞ젠 왕석 막 빠자쳔 손 드밀앙 ᄒᆞ주.(젊은 아이들은 전복을 캐려고 커다란 돌을 막 빼어서 손 디밀어서 하지.) [하귀 이호] → 왕-돌.
왕운 명 [전역] → 대운.
왕의-자랑 감 [전역] → 웡이-자랑.
왕이-메 명 <지>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 북서쪽, 호명목장 서쪽에 있는 둥글넓적한 오름. 베리창이라 불리며, 옛날 삼신왕이 이 곳에 들어가 사흘 동안 기도했다는 전설이 있음. 표고 612미터. [전역] = 웨양-미.
왕이-미 명 <지> [성산] → 왕-메.
왕이-산(王伊山) 명 <지> [성산] → 왕-메.
왕-자리 명 <동> [수산] → 왕-재열.
왕-잘 명 <동> [김녕] → 왕-재열.
왕-재 명 <동> [서홍 가시] → 왕-재열.



왕재열

왕-재열 명 <동> 말-매미. [인성 노형 조수] = 왕-자리, 왕-잘, 왕-재, 왕-잴.
왕-잴 명 <동> [김녕] → 왕-재열.
왕-좀녜 명 <어> [전역] → 상군(上軍).
왕-좀수 명 <어> [전역] → 상군(上軍).
왕-하르방 명 증-조부. [전역]
왕-할망 명 증-조모. [전역]
왜-놈(倭-) 명 왜-놈. [전역] = 예-놈, 이-놈.
왜다 동 [전역] → 와리다.
왜-멘네 명 <식> 개량종 면화(棉花). [전역]
왜-못 명 왜-못. [전역] = 예-못.
왜-밀 명 <식> 쌀알이 굵고 가루도 흰 개량종 밀. [전역]
왜-베 명 왜선(倭船).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김녕] = 여-베, 예-베, 이-베.
왜-솟 명 왜-솥(-鼎). [전역]
왜-수지 명 버리게 된 신문지 따위. [전역]
왜-우르다 동 소리를 높이 지르다. [수산 김녕]
왜자-ᄒᆞ다 형 왜자-하다. [전역]
왜재기다 동 왜자기다. [수산 김녕]
왜-지축 명 <식> 왜-지치. [노형 조수] = 왜-지츸, 웨-지축.
왜-지츸 명 <식> [인성] → 왜-지축.
왜-총 명 일본에서 생산되는 말총. 지난날 갓모자·탕건·망건 등을 겯기 위하여 일본산 말총을 수입해서 썼던 일이 있음. [전역]
왜치다 동 [서홍 수산 김녕] → 웨치다.
왜-ᄒᆞ다 형 싸-하다. [전역]
왠반 명 <도> [서홍] → 안반.

왱그랑-댕그랑 부 왱그랑-댕그랑. [전역]
요 명 요(褥). [전역]
요강 명 요강. [전역]
요기[1](療飢) 명 요기. 시장기를 겨우 면할 정도로 조금 먹음. [전역]
요기[2] 대 [전역] → 요듸.
요듸 대 요기. [전역] = 요기[2].
요랑 명 <민> [노형 인성 조수 김녕] → 요령.
요레 부 요 곳으로. 또는 요쪽으로. [전역]
요령(搖鈴) 명 <민> 무구(巫具)의 하나. [전역] = 요랑.



요령(搖鈴)

요리 명 따비의 날. [전역]
요망(妖忘) 명 요망. [전역]
요망-부리다(妖忘---) 동 요망-부리다. [전역]
요망-피우다(妖忘---) 동 아주 심하게 요망한 짓을 하다. [전역]
요벤닥-ᄒᆞ다 동 심하게 변덕을 부리다. [전역]
요성-악(曉星岳) 명 <지> [전역] → 새벨-오름.
요술(妖術) 명 요술. [전역]
요영 부 요렇게. [전역]
요왕(龍王) 명 <민> 바다의 신(神). [전역]
요왕-ᄃᆞ리 명 <민> 요왕맞이에서 용왕이 내리는 길에 길게 깔아 놓는 무명천. [전역]
요왕-맞이(龍王--) 명 <민> 바다의 신(神)인 요왕을 맞아들여 축원하는 굿. [전역] = 유왕-맞이, 유황-맞이.
요왕세경-본풀이 명 <민> 요왕맞이에서 구연하는 것으로 내용은 세경본풀이와 같음. [전역]
요왕-지 명 <민> 용왕(龍王)에게 바치기 위하여 제물을 조금씩 백지에 놓아 싼 뭉치. [전역]
요왕체서-본풀이 명 <민> 요왕맞이에서 구연하는 요왕차사의 내력으로, 내용은 차사본풀이와 같음. [전역]
요인-쟁이 명 뚜-쟁이. [전역]
요-잇 명 욧-잇(褥-). [인성 노형]
요자기 부 요사이의 어느 때에. *나 요자기 그 친구영 만낫우다.(내가 '요자기' 그 친구랑 만났어요.) [전역]
요조금 명 요즘. *쥐뮴 우리 아래도 막 하나신디 요조금은 엇어.('쥐뮴' 우리 아래도 아주 많았었는데 요즘은 없어.) [하도] = 요즘.
요즘 명 [전역] → 요조금.
요진-ᄒᆞ다 형 요긴-하다(要緊--). [전역]
요-팡석 명 속에 솜 또는 털 따위를 넣고 피륙으로 짜서 만든 방석. [전역]
욕-데기 명 욕-지기.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가시 어도] = 욕-도기, 욕-듸기. 고 욕쪽이.
욕데기-나다 동 욕지기-나다. [전역]
욕-도기 명 [노형 조수] → 욕-데기.
욕-듸기 명 [인성 서홍 수산] → 욕-데기.

욕-먹다(辱--) 동 욕-먹다. [전역]
욕-보다(辱--) 동 욕-보다. [전역]
욕심(慾心) 명 욕심. [전역]
욕심-꾸레기 명 욕심-꾸러기. [전역]
욕심-싸무랍다 형 욕심이 사납고 많다. [전역]
욕심-쎄다 형 욕심이 많다. [전역]
욕-질(辱-) 명 욕-질. [전역]
욕-ᄒᆞ다(辱--) 동 욕-하다. [전역]
용 명 용(龍). [전역] = 미리[1].
용강-동(龍崗洞) 명 <지> 제주시 봉개동의 한 법정마을. [전역]
용개-질 명 용두-질. [전역]
용겡기 명 <민> 쟁기. [전역]
용눈이-오름 명 <지>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남쪽, 송당~수산간 도로 중간에 손지오름과 마주보는 오름. 표고 248미터. [시흥 종달 송당]
용-다리 명 문둥-이(癩病者). [전역]
용다릿-벵 명 <병> 문둥-병(癩病). [전역]
용-담(龍潭) 명 <지> 제주시 용담동을 이르는 말. [전역]
용-동(龍洞) 명 <지> 제주시 조천읍 대흘2리의 한 자연마을. [조천]
용-두[1](龍頭) 명 <지> [전역] → 용-머리[1].
용-두[2](龍頭) 명 <지> [전역] → 용-머리[2].
용두-머리 명 용두-머리. 용의 머리 모양으로 새기어 상여 따위에 다는 꾸미개. [전역]
용두-암(龍頭巖) 명 <지> [전역] → 용-머리[1].
용마-마을(龍馬--) 명 <지> 제주시 용담3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용-머리[1] 명 <지> 제주시 용담2동 바닷가에 있는 바위를 이르는 말. [전역] = 용두[1](龍頭), 용두-암(龍頭巖).
용-머리[2] 명 <지>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바닷가에 있는 바위를 이르는 말. [안덕] = 용두[2](龍頭).
용-소 명 <지> 제주시 용담1동과 용담2동의 경계, 한내(大川) 하류에 있는 소(沼). [용담] = 용-수, 용-연(龍淵), 용-추(龍湫).
용-수 명 <지> [용담] → 용-소.
용시 명 *벤 애길 지드리멍 ᄒᆞᆫ 용실 지드리랴.(밴 아기를 기다리며 지은 농사를 기다리랴.) [전역] → 농ᄉᆞ.
용신-지 명 <민> 용신(龍神)에게 바치기 위하여 제물을 조금씩 백지에 놓아 싼 뭉치. [북촌]
용심-내다 동 몹시 언짢거나 못마땅하여 노여움을 나타내다. [전역]
용-연(龍淵) 명 <지> [용담 오라] → 용-소.
용연-동(龍淵洞) 명 <지> 제주시 용담2동에 있었던 한 자연마을. [용담 오라]
용운-동(龍雲洞) 명 <지> 제주시 용담2동의 한 자연마을. [용담]
용의-자리(龍---) 명 <지> 제주시 조천읍 대흘2리의 한 자연마을. 또는 그 지역의 고유 이름. [조천] = 용의-좌(龍-座).
용의-좌(龍-座) 명 <지> [조천] → 용의-자리(龍---).
용-인(傭人) 명 마을에서 잡다한 일을 부리려고 가려 뽑은 사람. [장전]

용진-각(龍鎭閣) 명 한라산 국립공원 용진굴에 있는, 등산객을 위한 집. 표고 1520미터. [전역]

용진-굴 명 <지> 제주시 아라동 남쪽 한라산 국립공원의 백록담 북벽(北壁) 아래 있는 골짜기의 최상류부. 개미목 등성이 너머로 사라진 용이 내려와 자리잡은 곳이라는 전설상의 지명으로 전해옴. [전역]

용진굴-물 명 <지> 한라산 국립공원 용진굴에 있는 샘. [전역] = 봉래-천.

용천검 명 <요> ① 정의현(旌義縣)의 도읍지였던 성읍에서 전해지는 창민요. 한반도에서 유입, 전승되는 노래. [성읍] ② 본래 창민요이면서도 옛 정의현 일부 지역에서 밭매는 노래로 전용하여 부르는 민요. [성읍 신흥]

용-추(龍湫) 명 <지> [용담] → 용-소.

용-ᄒᆞ다 형 용-하다. [전역]

우 명 위(上). [전역]

-우- 선어말 서술어로 쓰인 체언이나 형용사 어간 또는 동사의 명사형 어미 밑에 붙고, 종결어미 바로 앞에 위치해서, 상대자를 존대하는 뜻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전역]

우-가 명 [가시 조수] → 우-전.

-우가 어미 -ㅂ니까. [전역] → -우까.

-우강 어미 -ㅂ니까. [전역] → -우까.

우거지다 동 우거지다. [전역]

-우게 어미 '-우-'는 상대자를 존대하는 어미이고, '-게'는 어떤 사실이나 동작·상태에 대하여 상대방도 긍정하게끔 나타내는 어미인데, 체언이나 형용사 어간 또는 동사의 명사형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상태·사실에 대하여 긍정하게끔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우겐 어미 -ㅂ니까고.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동작의 존속을 나타내는 '-앗ㅅ-·-엇ㅅ-·-랏ㅅ-·-암ㅅ-·-엄ㅅ-·-람ㅅ-' 또는 용언의 어간에 붙은 '-ㅋ-'에 연결되어서, '-ㅂ니까'의 뜻으로 쓰이는 '-우가'의 변형 '-우게'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연결되어서, 다음에 오는 '말ᄒᆞ다·듣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우겡 어미 -ㅂ니까고.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동작의 존속을 나타내는 '-앗ㅅ-·-엇ㅅ-·-랏ㅅ-·-암ㅅ-·-엄ㅅ-·-람ㅅ-' 또는 용언의 어간에 붙은 '-ㅋ-'에 연결되어서, '-ㅂ니까'의 뜻으로 쓰이는 '-우가'의 변형 '-우게'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연결되어서, 다음에 오는 '말ᄒᆞ다·듣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우겨-대다 동 우겨-대다. [전역] = 위겨-대다.

-우과 어미 -ㅂ니까. [전역] → -우까.

우굼 명 [노형 조수 인성 화순 하원 서홍] → 밥-자.

우굼-상의 명 <동> [인성 서홍] → 갈레죽-상의.

우그생이 부 *쉐 뒈어서 우그생이 일어남서랜.(소가 되어서 우뚝이 일어나고 있더라고.) [어음] → 오고셍이.

우긋-우긋 부 우꾼-우꾼. [전역]

우끗 부 우꾼. [전역]

우기다[1] 동 억척스럽게 힘쓰다. *검질

짓곡 굴 너른 밧듸 사데로나 우경 메게.(김 깃고 넓은 밭에 '사데'로나 힘써 매자.) [전역]

우기다[2] 동 우기다. 억지를 부려 제 의견을 고집스럽게 내세우다. [전역]

우김-성 명 우김-성. [전역]

-우까 어미 -ㅂ니까. ① 체언이나 동사의 명사형 어미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이거 넬 젓언 오다 봐도 죽을 형편이 뒈지 안 ᄒᆞ엿우까?(이거 노를 저어서 오다 봐도 죽을 형편이 되지 않았습니까?) *고냉이광 슥은 뚠 종류우까?(고양이와 삵괭이는 다른 종류입니까?) [전역] ② 형용사의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이거 이 집의 꺼 아니우까?(이것 이 집의 것 아닙니까?) *그자 아바님ᄒᆞ곡 형님ᄒᆞ곡 아시ᄒᆞ곡 성공ᄒᆞ여져도 거 좋지 아니ᄒᆞ우까?(그저 아버님하고 형님하고 아우하고 성공하여도 그것 좋지 않습니까?) [전역] ③ 용언의 어간에 붙은 '-암ㅅ-·-엄ㅅ-·-염ㅅ-·-람ㅅ-' 또는 '-아ㅅ-·-어ㅅ-·-앗ㅅ-·-엇ㅅ-·-여ㅅ-·-라ㅅ-', 용언 어간에 붙은 '-ㅋ-'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 -우가, -우강, 우과, -우깡, -우꽈, -우꽝.

-우깡 어미 -ㅂ니까. [전역] → -우까.

-우껜 어미 -ㅂ니까고. 체언이나 형용사 '아니다'의 어간에 붙어서, '-ㅂ니까'의 변형 '-우께'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연결되어서, 다음에 오는 '말ᄒᆞ다·듣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우껭 어미 -ㅂ니까고. 체언이나 형용사 '아니다'의 어간에 붙어서, '-ㅂ니까'의 변형 '-우께'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연결되어서, 다음에 오는 '말ᄒᆞ다·듣다·묻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우꽈 어미 [전역] → -우까.

-우꽝 어미 -ㅂ니까. [전역] → -우까.

우납 명 [김녕] → 안개.

우녁-거리 명 여러 채로 이루어진 집에서 본채의 위쪽에 위치한 집. [전역] = 웃녁-거리.

우녁-집 명 한 집의 위쪽 울타리 밖에 있는 집. [전역] = 웃녁-집, 웃녁-칩.

우널다 동 울며 다니다. *본디 전싱 궂어랭 ᄒᆞ민 우널지도 말아근 살저.(본디 전생 궂다고 하면 우닐지도 말고 살지.) [전역]

우념-꼿 명 울음-꽃. 울음을 자아낸다는 상상적인 꽃. *어멍, 무사 나 잡은 잔은 우념꼿이 피여남서?(어머니, 어째 내가 잡은 잔은 울음꽃이 피어나오?) [전역]

우념-새 명 울음을 잘 우는 새. *그 새 저 새 날 닮은 새야, 날 닮아근 우념새라라.(그 새 저 새 날 닮은 새야, 날 닮아서는 울음새더라.) [전역]

우념-ᄒᆞ다 동 근심-하다. *집안 거념ᄒᆞ고 우념ᄒᆞ젠 ᄒᆞ난.(집안 돌보고 근심하려 하니.) [함덕]

우-눅이다 동 빗물이 땅 속에 스며들어 밭이 겨우 겉으로만 눅이다. [전역]

-우다 어미 -ㅂ니다. ① 받침 없는 체언이나 형용사 '아니다'의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ㅂ니다'의 뜻으로 쓰이는 종결어미. *ᄒᆞᆫ 번 몬 눅져 봔 억울ᄒᆞ우다.(한 번 못 눕혀 보아서 억울합니다.) *그것과 그것은 뚠 종류우다.(그것과 그것은 다른 종류입니다.) [전역] ②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동작상을 표현하는 '-앗ㅅ-·-엇ㅅ-·-랏ㅅ-·-암ㅅ-·-엄ㅅ-·-람ㅅ-' 또는 용언 어간에 붙은 '-ㅋ-'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ㅂ니다'의 뜻으로 쓰이는 종결어미. *하르방이 오랏수다.(할아버지가 왔습니다.) [전역] ③ 동사 어간에 붙어서 '-ㅂ니다'의 뜻으로 쓰이는 종결어미. [전역]

우두-머리 명 우두-머리. [노형 조수어도]

우두-악(牛頭岳) 명 <지> [전역] → 쉐머리-오름.

우듯-기 명 <민> 큰굿을 할 때 큰 대의 오른쪽에 세우는 깃발. [전역]

우둥툥툥 부 몹시 살찐 모양. *우둥툥툥 술친 줌북 어물어물 기염시민.(우둥툥툥 살찐 전복 어물어물 기고 있으면.) [전역]

우득-우득 부 서 있는 물건의 윗머리가 솟은 모양. [전역]

우뚝-ᄒᆞ다 형 우뚝-하다. [전역]

우뜩-우뜩 부 우뚝-우뚝. [전역]

우락-우락 부 우럭-우럭. [전역]

우랑-우랑 부 ① 활활. 불이 아주 세차게 타오르는 모양. [전역] ② 후끈-후끈. [전역]

우럭 명 <동> 우럭-볼락. [전역]

우렁-비 명 [행원] → 박-비.

우레 명 [전역] → 천둥. 고울에.

우레-ᄒᆞ다 동 말이 교미하다. [건입]

우렝이 명 <지> 제주시 외도동(外都洞) '우령마을'의 옛 이름. [외도 이호]

우롱 명 <의> 상반신(上半身)에 입는 옷. [전역] = 우치, 우퉁.

우룩-맞추다 동 날짐승 자웅(雌雄)이 서로 소리 질러 부르며 응하며 하다. [전역]

우르다 동 *저런 거 우렁 곤밥이영 머영 대접ᄒᆞᆯ 거라?(저런 것 우러러서 쌀밥이랑 뭣이랑 대접할 것이야?) [전역] → 울다[2].

우리 나라 안 구 우리나라 왕후(王后). *그 주멩기 줍는 애기 우리나라 안으로 들라.(그 주머니 접는 아기 우리나라 왕후로 들어라.) [전역]

우리다 동 우리다. 물건을 물에 담가서 맛을 뽑다. [전역]

우리-통 명 밭과 밭 사이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하여 돌담 대신 박은 말뚝 또는 잡목. *ᄃᆞ릿 아기 피 방에 짐은 각단 밧듸 우리통 박듯.(교래 아기 피 방아 찧기는 '각단' 밭에 말뚝 박듯.) [전역] = 울-창.

우머니 명 ① 도포(道袍)의 소매 속에 간단한 물건이나 비망록 등을 담아 둘 수 있게 만들어진 속주머니. *부인이 도복을 탁탁 개어 놓단, 우머니에 무시거 투글락ᄒᆞᆫ 게 잇엇지.(부인이 도포를 탁탁 개어 놓다가, 속주머

니에 무슨 것 둔탁한 것이 있었지.) [어음] ② 장삼이나 상복 따위의 소맷자락이 주머니처럼 길게 만들어진 부분. [전역]

우물 명 우물(井). [전역] = 우믈.

우물락-ᄒᆞ다 형 ① 가운데가 움쑥하게 들어가 있다. [전역] ② 물속으로 가라앉는 모양이 가볍다. *그냥 베가 우물락ᄒᆞ게 들어가불건디.(그냥 배가 '우물락하게' 들어가 버릴 건데.) [이호]

우믈 명 [전역] → 우물.

우의 명 <식> [전역] → 우미.

우미 명 <식> 우뭇-가사리. [전역] = 우의, 천초.

우미-묵 명 <음> 우뭇가사리로 만든 묵. [대포]

우미-바당 명 <어> 우뭇가사리 바다. 우뭇가사리가 잘 자라서 해녀들이 즐겨 캐는 어장. [전역]

우미-번난지 명 <식> 파도에 떠밀려 온 우뭇가사리. [우도]

우미-포(又尾浦 · 又美浦) 명 <지> [남원] → 뭬밋-개.

우박(雨雹) 명 우박. [전역]

우방지 명 <식> 우엉. [전역] = 우방즈. 고우웡.

우방즈 명 <식> [노형 수산 가시 조수] → 우방지.

우보름 명 <지> [전역] → 우보-오름.

우보-악(牛步岳) 명 <지> [전역] → 우보-오름.

우보-오름 명 <지> 서귀포시 예래동과 색달동 북서쪽에 있는 오름. 표고 301.4미터. 준 우보름. [전역] = 우보름, 우보-악(牛步岳), 우부-악(牛俯岳).

우봉지-주잔 명 <민> [전역] → 음복지-주잔(飮福之酒盞).

우부-악(牛俯岳) 명 <지> [전역] → 우보-오름.

우비(雨備) 명 <의> 우비. [전역]

우비다 동 우비다. [전역]

우산(雨傘) 명 우산. [전역]

우상-ᄒᆞ다 형 [전역] → 이상-ᄒᆞ다.

우석목 명 <민> 제주목의 성문 앞에 세워졌던 돌하르방으로 알려진 석상. [전역]

우세 명 우세. 남이 비웃을 만한 부끄러운 짓. [전역]

우세-당ᄒᆞ다 동 창피한 꼴이나 수치를 당하다. [전역]

우수리 명 우수리. [전역]

우숩다 형 우습다. [전역]

우시 명 위요(圍繞). 결혼할 때 신랑이나 신부를 보살피며 같이 사가(査家)에 상객(上客)으로 가는 사람. [전역]

우시-가다 동 혼인 때 사가(査家)에 상객(上客)으로 가다. [전역]

우시게 명 우스개. [전역]

우-알 명 위-아래(上下). [전역]

우알에-부트다 동 손윗사람, 손아랫사람과 한가지로 사귀다. [전역]

우연 명 [태흥 표선 수산 가시] → 우영.

우연-팟 명 [전역] → 우영.

우염 명 위세(威勢). [전역]

우염-당 명 위세가 당당한 집안. 세가(勢家). *우염 좋댄 우염당 가난 나 우염은 무르엣 소리여.(위세 좋다고 세가(勢家)에 가니 내 위세는 씨아 소리네.) [전역]

우영 명 울타리 안에 있는 터밭. 채소 따위를 갈아 먹는 공지(空地). 텃밭. ＊그래, 가만히 군수가 구기를 해 보니, 뒷 우영에 멧 백년 묵은 폭낭이 잇는디.(그래서 가만히 군수(郡守)가 속으로 궁리를 해 보니, 뒤쪽 텃밭에 몇 백년 묵은 팽나무가 있는데.) [조천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세화 명월] = 우연, 우연-팟, 우영-팟, 위연. 고 위않.

우영뒤 명 [화순] → 어영뒤.

우영뒤-낭 명 <식> [화순] → 어영뒤-낭.

우영-팟 명 ＊그 영장은 이녁 우영팟이라도 강 톡ᄒᆞ게 묻엉 놔 두라.(그 영장(永葬)은 이녁 텃밭에라도 가서 톡하게 묻어서 놓아 두라.) [어도 조수] → 우영.

-우와 어미 -워·-어. ＊맨날 가름 돌암댄 아방신디 솔우와 불키여.(만날 마을을 돌아다닌다고 아버님께 여쭈어 버리겠어.) [전역]

우잣 명 한 집안의 울타리의 안쪽. ＊나록 막 무껀 오꼿 져다네 우잣더레 ᄋᆞ져단 탁 들이쳐 뒁.(벼를 마구 묶어서 후딱 져다가 '우잣'에 갖다가 탁 놓아 두고서.) [전역]

우장 명 <의> [서홍 태흥 표선 가시 수산 김녕 세화 조천] [어도 조수] → ᄎᆞ궹이.

우장-끈(雨裝-) 명 <의> 우장(雨裝)의 윗부분인 양쪽 끝에 달린 끈. [송당]

우-전 명 웃-돈(上價). [전역] = 넹기, 우-가, 운-가.

우전-제비 명 <지> [전역] → 우진-제비.

우지시 명 <음> [표선] → 우찍.

우진-제비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동부산업도로 북쪽 우진동에 있는 산. 표고 411미터. [전역] = 우전-제비.

우찍 명 <음> 웃기-떡. [전역] = 우지시.



우찍

우-착 명 위-짝(上-). [전역]

우치 명 <의> [조수 노형] → 우롱.

우치다 동 일기가 흐리고 비 따위가 내리다. ＊거 날이 우치젠 헴시냐?(그것 날이 비가 오려고 하는가?) ＊(속) 초정월 우치민 보제기가 운다.(초정월에 비 오면 어부가 운다.) [전역]

우친 명 위친(爲親). 어버이를 극진히 받들어 모심. ＊부모 양친 신 사름덜아 살아 신 때 우친을 ᄒᆞ라.(부모 양친 있는 사람들아 살았을 때 잘 받들어 모셔라.) [전역]

우친-날 명 일기가 흐리고 비 따위가 오고 하는 날. [전역]

우터-ᄒᆞ다 형 ① 위태-롭다. 위독-하다. ＊어떵계, 아바님 빙세 우터ᄒᆞ엿젠 ᄒᆞ연게.(어떻게, 아버님 병세(病勢)가 위독하다고 하던데.) [전역]

② 사람의 성질이 독하다. [노형]

우투 명 <의> 외투(外套). [전역] = 웨투.

우퉁 명 <의> [전역] → 우롱.

우황(牛黃) 명 우황. [전역] = 황[1].

운-가 명 [가시] → 우-전.

운동(運動) 명 운동. [전역]

운디 명 운두. [전역] = 윤디[2].

운-돌다(韻--) 동 운-달다. 글을 짓는 데 운(韻)을 달다. [전역]

운멩 명 운명(運命). [전역]

운상-꾼 명 [전역] → 헹상-꾼.

운수(運數) 명 운수. [전역]

운수-궂다 형 수-사납다. [전역] = 운수-놎다, 운쉬-궂다.

운수-놎다 형 [전역] → 운수-궂다.

운쉬-궂다 형 [전역] → 운수-궂다.

운주름 명 <지> [남원 의귀] → 운지-오름.

운지-오름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 수은동 북서쪽에 있는 낮은 오름. 표고 103미터. [전역] = 운주름.

울 명 우리. 짐승을 가두어 기르는 곳. [전역]

울-가리 명 <건> [가시] → 옷-가리.

울곡-산 명 일부러 꾸며낸 산 이름. '울고 가는 산'이란 뜻. *이 산 저 산 양 산 중에 울곡 가는 건 울곡산이여.(이 산 저 산 양 산 중에 울고 가는 건 '울곡산'이네.) [전역]

울굼 명 [조수 색달] → 밥-자.

울다[1] 동 울다(鳴). [전역]

울다[2] 동 어떤 대상을 위하다. *우리 아시 울언 그 집의 간 일ᄒᆞ여 줫주. (우리 동생을 위해서 그 집에 가서 일하여 주었지.) [전역] = 우르다.

울-담 명 집터의 주위에 둘러 쌓은 담. [전역]

울담-두르다 동 집터의 주위를 담으로 둘러 에워싸다. [전역]

울따리 명 [전역] → 울타리.

울딱-울딱 부 벌떡-벌떡. 힘이 솟는 모양. 성기(性氣)가 급하여 울뚝성을 잘 내는 모양. [구좌]

울뚱-불뚱 부 [서홍] → 울퉁-불퉁.

울러려-보다 동 우러러-보다. [전역]

울러엇이 부 우두커니. *울러엇이 몽둥이영 양손으로 지펑은 산 이서라. (우두커니 몽둥이 이렇게 양손으로 짚고 서 있더라.) [노형] = 울럿이.

울럿이 부 [노형] → 울러엇이.

울레-ᄆᆞ르 명 <지>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1리와 시흥리 경계에 있는 마루. [성산]

울령도-ᄌᆞ금상 명 <민> 울릉도-자금향(鬱陵島紫金香). [전역]

울르다 동 외치다. 큰소리-치다. [전역]

울른-감 명 [서홍 수산 김녕] → 짐칫-감.

울름창-ᄒᆞ다 동 자신이 한 일을 밖으로 드러내 놓고 자랑하다. [전역]

울림장-내다 동 집안이나 사람의 명성을 들추어 크게 소문을 내다. [노형 조수 어도 인성 서홍]

울멍-시르멍 부 울며-불며. [전역]

울-북 명 <민> 큰-북. [전역] = 울-뿍.

울-뿍 명 <민> [전역] → 울-북.

울성-장안 명 <민> 울타리. [전역]

울-쒜 명 <민> 옛 무구(巫具). 놋으로 만든 둥그런 판 여럿을 끈으로 꿴

것으로 위 아래로 흔들어 소리를 냄. [전역] = 천아-울쒜.



울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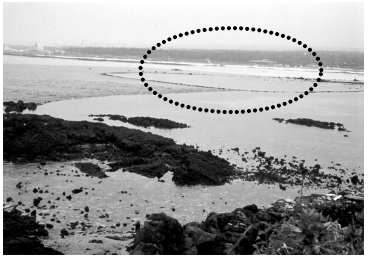
울-쩡 명 <민> 징(鉦). [전역]
울-창 명 [전역] → 우리-통.
울칵-울칵 부 울컥-울컥. [전역]
울타리 명 울타리. [전역] = 울따리.
울퉁-불퉁 부 울퉁-불퉁. [전역] = 울뚱-불뚱.
움 명 움(萌芽). 풀이나 나무에 새로 돋아 나오는 싹. [전역]
움-돋다 동 움-돋다. [전역]
움-막 명 [전역] → 엄-막. 고 움.
움막-ᄒᆞ다[1] 동 [전역] → 옴막-ᄒᆞ다[1].
움막-ᄒᆞ다[2] 형 가운데가 움쑥하게 들어가 있다. [전역] = 움탕-ᄒᆞ다. 고 옴쇽ᄒᆞ다.
움-부리 명 [전역] → 굼-부리.
움상-움상 부 조금 어수선하게 움직이는 모양. *무슨 베지근ᄒᆞᆫ 것덜 내마치니 ᄉᆞ방 개덜이 와가지고 움상움상 뎅길 판이라.(무슨 '베지근한' 것들 냄새 맡게 하니 사방(四方) 개들이 와서 어수선하게 다닐 판이라.) [전역]
움싹-움싹 부 땅이 질어 밟으면 움쑥움쑥 들어가는 모양. [전역]
움쑥 부 움쑥. [전역]
움-지르다 동 움이 돋기 시작하다. [전역]
움직-거리다 동 움직-거리다. [노형 조수 인성 화순 하원]
움직-이다 동 움직-이다. [전역] = 움질-기다.
움질-기다 동 [전역] → 움직-이다.
움탕-ᄒᆞ다 형 *짚숙ᄒᆞᆫ 움탕ᄒᆞᆫ 골랭이에서 불이 베롱ᄒᆞ고 비두웨를 ᄒᆞ는디.(깊숙하고 움푹한 골짜기에서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비두웨'를 하는데.) [전역 노형] → 움막-ᄒᆞ다[2].
움텅-밧 명 <지> 한라산 국립공원의 백록담 남벽(南壁) 아래 푹 내려앉은 평지. [아라 동홍]
웃-가늠 명 <어> [전역] → 산-가늠.
웃-가름 명 한 마을에서 위쪽에 위치한 동네. [전역]
웃-고영뒤 명 <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의 한 자연마을. 또는 그 지역의 고유 이름. [조천]
웃날-개다 동 비나 눈이 오다가 멎고 날이 맑아지다. [전역]
웃날-들다 동 웃날-들다. [전역] = 웃날-들르다.
웃날-들르다 동 [전역] → 웃날-들다.
웃녁-거리 명 [전역] → 우녁-거리.
웃녁-집 명 [전역] → 우녁-집.
웃녁-칩 명 [전역] → 우녁-집.
웃-늬 명 윗-니. [전역]
웃다 동 웃다(笑). [전역]
웃-대방 명 <건> 문 위에 가로로 대는 인방. [전역]
웃-더럭 명 <지> 애월읍 상가리. [전역]

웃-뎅이 명 <공> 보습을 주조(鑄造)할 때의 위쪽 주형(鑄型). [덕수]
웃-동네 명 위쪽에 있는 동네. [전역]
웃-둑지 명 어깻-죽지. [전역]
웃-드르 명 한라산이 있는 쪽 벽지(僻地) 근처의 들, 또는 그런 곳에서 이루어진 마을. *소득도 웃드르가 형펜 엇어낫주기.(소득(所得)도 '웃드르'가 형편 없었지.) [전역]
웃-드르셍이 명 <지> 제주시 봉개동 서회천의 옛 자연마을. [봉개 삼양 조천]
웃드릇-것 명 [전역] → 웃드릇-놈.
웃드릇-놈 명 한라산이 있는 쪽의 중산간(中山間) 또는 산간(山間) 지역에 사는 사람. [전역] = 웃드릇-것.
웃-ᄃᆞ리 명 <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의 한 자연마을. 또는 그 지역의 고유 이름. [전역]
웃-뛔미 명 <지> [남원] → 웃뛔미-ᄆᆞ을.
웃뛔미-ᄆᆞ을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1리 중산간에 있는 자연마을. [남원] = 웃-뛔미.
웃-막은다리 명 <지> 한라산 백록담 서북벽(西北壁) 아래에 있는 등성이의 안부(鞍部). [아라]
웃막은다리-골째기 명 <지> 웃막은다리에서 발원, 웃세대피소 앞을 거치는 골짜기. [아라 광령]
웃-무드내 명 <지> 제주시 용강동(龍崗洞)의 옛 이름. [삼양 화북]
웃-바매기 명 <지> [선흘 조천 대흘] → 웃-밤오름.
웃-밤오름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알밤오름 위쪽에 있는 오름. 표고 417미터. [선흘 조천 대흘] = 웃-바매기.
웃-밧 명 <어> 조간대(潮間帶)의 상층(上層). [대포]
웃-방에 명 <지> [아라 광령 동홍] → 웃-방에오름.
웃-방에오름 명 <지> 서귀포시 동홍동 한라산 국립공원의 방에오름 위쪽에 있는 오름. 표고 1748미터. [아라 광령 동홍] = 웃-방에.
웃-베리 명 그물의 윗줄. [전역]
웃-불 명 초가 지붕 위로 발생한 불. [어음]
웃-선을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의 한 자연마을. [조천] = 웃-선흘.
웃-선흘 명 <지> [조천] → 웃-선을.
웃-세오름 명 <지> 한라산 주봉(主峰)의 서쪽 어깨마루에 나란히 잇닿은 세 오름. 곧 붉은오름[5]·눈오름·족은오름[1]을 통틀어 일컬음. [전역]
웃-쉐 명 <동> '웃드르' 지경에서 먹이는 소. [신양]
웃-식은이 명 <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상덕천 남쪽에 있는 오름. 표고 286미터. [전역]
웃-씨 명 <농> 밭갈이 이후에 뿌리는 씨앗. [하원] = 놀-씨.
웃-예츈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1리와 하례2리 일대에 형성되었던 조선시대의 마을. [남원]
웃-웃 명 ① 웃-옷. [전역] ② 윗-옷. [전역]
웃음-거리 명 웃음-거리. [전역] = 웃음-건지. 고 우음바탕.

웃음-건지 명 [전역] → 웃음-거리.
웃음-발탁 명 여러 사람이 모여서 큰 소리로 웃는 짓. [전역]
웃음-차자기 명 '웃음'의 낮은말.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가시] = 웃음-차제기, 웃음-타다기, 웃음-타자기.
웃음-차제기 명 [노형 조수 인성] → 웃음-차자기.
웃음-타다기 명 [노형] → 웃음-차자기.
웃음-타자기 명 [수산] → 웃음-차자기.
웃-입바위 명 윗입술의 둘레. [전역]
웃-제반 명 <민> 제를 지낸 뒤 제상 위의 각종 제물을 조금씩 처음 걷어 모은 것. [전역]
웃중문-ᄆᆞ을 명 <지> [서귀포 중문] → 상문-동(上文洞).
웃-쥐도리 명 <건> [가시] → 웃-지도리.
웃-지다[1] 동 위에 얹다. 배필로 맞게 해 주다. *할망 웃젼 ᄌᆞ손 난 디가 잇어.(할머니를 배필로 맞게 해서 자손을 난 곳이 있어.) [어음]
웃-지다[2] 동 웃-기다. [전역]
웃-지도리 명 <건> 조자리. 대문 위의 장부. [인성 서홍 수산 김녕 어도] = 웃-쥐도리, 웃-지두리.
웃-지두리 명 <건>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김녕] → 웃-지도리.
웃-징 명 <음> [표선 수산] → 징부찐-떡.
웃-채 명 <민> 오른손에 잡아 북의 위쪽을 치는 채. [용담]
웃-카름 명 마을의 위쪽에 있는 동네를 이르는 말. [전역]
웃통 명 탕건의 턱이 진 데로부터 위의 부분. [전역]
웃-하늘 명 입-천장. [전역] = 입-천장. 고 입하놀.
웃-한질 명 위쪽 한길이란 뜻으로 산간도로를 이르는 말. [전역]
웅매 명 <동> 웅마(雄馬). 말의 수컷. [전역]
웅상-거리다 동 웅성-거리다. [노형 어도]
웅숭-그리다 동 웅숭-그리다. [전역]
웅-악[1](雄岳) 명 <지> [전역] → 숫-오름[1].
웅-악[2](雄岳) 명 <지> [전역] → 숫-오름[2].
웅-장(雄獐) 명 <동> 수컷의 노루. [봉성 도순]
웅크리다 동 웅크리다. [전역] = 웅키다.
웅키다 동 [전역] → 웅크리다.
워ᄀᆞ라 부 [수산 김녕] → 어ᄀᆞ라.
워낙 부 워낙. [전역] = 워년, 원간, 원체.
워년 부 [어음] → 워낙.
워레 명 먹을 양식이 모자라서 잠깐 이웃집에서 쌀을 꾸어 먹었을 때의 변리. *빗져 먹은 장례도 읏다. 빗져 먹은 워레도 읏다.(빚져 먹은 장리도 없다. 빚져 먹은 변리도 없다.) [전역]
워령 명 방화(放火)를 놓거나 공동목장의 돌담을 에두르는 일. 또는 마을 길을 포장할 때 공동으로 일할 인력을 동원하는 일. [청수 한경 용당 조수]
워립 명 *인부를 멧 개 빌어대여 가지고, 그냥 산에 간 워립 종, 산쉐를 질 거친 걸로 심으렌 ᄒᆞ연.(인부(人

夫)를 몇 사람 빌려서, 그냥 산에 가서 '워립' 종, 산쉐를 제일 거친 것으로 잡으라고 해서.) [노형] → 산-쉐.

원[1](垣) 명 <어> 해변 조간대(潮間帶)에 만(灣)을 이루는 듯한 곳에 돌담을 축조해 놓고 밀물을 따라 몰려든 고기떼를 썰물이 나면 그 안에 가둬 놓아 쉬 잡을 수 있게 장치해 둔 곳. [한림 중문] = 갯-담, 원-담.



원[1]

원[2] 부 전혀. *바당에 사름이 원 엇다. (바다에 사람이 전혀 없다.) [전역]

원[3] 감 원. 뜻밖의 일에나 놀라울 때, 언짢을 때 따위에 느껴워 하는 말. *나 원 츰, 어이가 엇네.(나 원 참, 어이가 없네.) [전역]

-원 어미 두 동작이나 상태를 말할 때, 앞에 나오는 '덥다·춥다·굽다' 등 'ㅂ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나중에 하는 동작·상태의 근거·이유·원인이나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어미 '-워'에, 뒤의 동작·상태·사실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원간 부 [전역] → 워낙.

원강-아미 명 <민> '이공본풀이'의 여성 주인공. 할락궁이의 어머니. [전역]

원고양-신풀이 명 <민> [함덕] → 귀양-풀이.

원-노형(元老衡) 명 <지> [전역] → 노형-마을.

원달귀 소리 명 <요> [예례] → 달구-소리[2].

원-담(垣-) 명 <어> [한림 중문] → 원[1].

원당-봉(元堂峰) 명 <지> [전역] → 원당-오름.

원당-오름 명 <지> 제주시 삼양동 바닷가, 제주시 조천읍 신촌리와의 경계에 걸쳐진 오름. 고려 때 원(元)에 의해 세워졌다는 원당사(元堂寺)의 터에 오층석탑(五層石塔)이 남아 있어 보물 제1187호로 지정 보호됨. 조선 때 봉수대가 있었음. 표고 170.7미터. [전역] = 원당-봉(元堂峰).

원-대장 명 풀무 조직체의 자본주. 풀무 일에 필요한 모든 물자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일꾼들에게 품삯도 주는 사람. [덕수]

원-동(院洞)[1]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와산리에 있었던 자연마을. [조천]

원-동(院洞)[2] 명 <지> 제주시 애월읍 상가리 산간에 있었던 자연마을. [애월]

원두-막 명 <건> [김녕 수산] → 웻-막.

원두-한이 명 원두-한이(圓頭干-). [전역]

원뒤-막 명 <건> [노형 인성] → 웻-막.

원물-오름 명 <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육거리 북동쪽에 있는 오름. 표고 459미터. [전역] = 원수-악(院水岳).

원미 명 흰-원미(-元味). [전역]
원불-수룩(願佛水陸) 명 <민> 기자-불공(祈子佛供). [전역]
원-산(圓山) 명 <지> 한라산(漢拏山)의 옛 이름 중 하나. [전역]
원-산듸 명 <식> 밭벼의 일종. [영평]
원-성군(元星君) 명 <민> 북두원성거문성군(北斗元聖巨門星君). 수복(壽福)의 신(神)인 북두칠원성군(北斗七元星君) 가운데 하나. [전역]
원셍이 명 <동> 원숭이. [전역] = 즌나비, 즛나비, 즛내비.
원수(怨讐) 명 원수. [전역] = 원쉬, 웬수.
원수-악(院水岳) 명 <지> [전역] → 원물-오름.
원쉬 명 *(속) 공은 원쉬로 가픈다.(공(功)은 원수로 갚는다.) [전역] → 원수(怨讐).
원앙-소굴(鴛鴦--) 명 말을 부리기 위해 말의 고삐에 걸쳐 얽어매는 끈. *거 좋은 ᄆᆞᆯ에 원앙소굴 헤서 조금 한량 사치를 헤낫는디.(그것 좋은 말(馬)에 '원앙소굴'을 해서 조금 한량(閑良) 사치(奢侈)를 했었는데.) [명월]
원-오름(院--) 명 <지> [대흘] → 궤꼬리-오름.
원장-개 명 <지> 제주시 도두1동에 있는 포구. [도두]
원장-내 명 <지> 제주시 노형동과 도평동을 지나 내도동으로 흘러가는 내(川). [노형 외도]
원-채 명 <민> 북을 칠 때 원래 쳐야 되는 부분. [용담]
원-천강(袁天綱) 명 <민> ① 당(唐)의 점술가(占術家). [전역] ② 원천강의 점치는 재주. [전역] ③ 점술서(占術書). [전역] ④ 팔자(八字). [전역]
원체 부 [전역] → 워낙.
원혼-척구 명 <민> 원한이 있는 척귀(隻鬼). [전역]
월대-마을 명 <지> 제주시 외도2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월덕-기 명 <민> 큰대의 가장 위쪽에 천을 길게 하여 달아매는 기. 본래는 대통기를 달았는데 1970년대 이후 월덕기로 바뀌었음. [전역]
월두-왓 명 <지> [아라] → 월두왓-마을.
월두왓-마을 명 <지> 제주시 아라2동의 한 자연마을. [아라] = 월두-왓.
월등-ᄒᆞ다 동 소가 해거리하며 새끼를 낳다. *그 집의 쉔 월등ᄒᆞ멍 새끼 난덴 ᄒᆞ여.(그 집의 소는 해거리하며 새끼를 낳는다고 해.) [전역]
월라-ᄆᆞᆯ 명 <동> [서홍 태흥 수산 표선 세화 조천 노형] → 월레-ᄆᆞᆯ.
월라-봉(月羅峰) 명 <지> [전역] → ᄃᆞ레-오름[1].
월라-산(月羅山) 명 <지> [전역] → ᄃᆞ라-미[2].
월랑-봉(月朗峰) 명 <지> [전역] → ᄃᆞ랑-쉬.
월랑이물-동네 명 <지> 제주시 한경면 산양리에 있었던 한 자연마을. [한경]
월레-ᄆᆞᆯ 명 <동> 얼룩-말. [조수 인성 화순 하원] = 월라-ᄆᆞᆯ.
월식(月蝕) 명 월식. [전역]
월식-ᄒᆞ다(月蝕--) 동 월식-하다. [전역] = ᄃᆞᆯ-개들러먹다, ᄃᆞᆯ-개먹다.

월입-쉐 명 <동> 숲에 풀어놓아 먹이는 소. [대흘]

월지-봉(月旨峰) 명 <지> [토산 세화] → 달-ᄆᆞ루.

월평-동(月坪洞) 명 <지> 서귀포시 대천동의 한 법정마을. [서귀포 중문]

월평-봉(月坪峰) 명 <지> [월평 봉개] → 들레-오름.

월하-악(月下岳) 명 <지> [월평 봉개] → 들레-오름.

-웡 어미 -워서. 두 동작이나 상태를 말할 때, 앞에 나오는 '덥다·춥다·굽다' 등 'ㅂ변칙'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나중에 하는 동작·상태의 근거·이유·원인이나 시간적 선후 관계를 나타내는 어미 '-워'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웡의-자랑 감 [전역] → 웡이-자랑.

웡이-자랑 감 아기를 재우기 위하여 '애기구덕'을 흔들면서 민요를 부를 때에 그 사설의 앞과 뒤, 혹은 사설과 사설 사이에 끼워 넣고 어서 자라는 뜻을 드러내는 말. *웡이자랑 웡이자랑 우리 아기 착ᄒᆞᆫ 아기 오뉴월 진 장마에 물웨 크듯 키와 줍서. (웡이자랑 웡이자랑 우리 아기 착한 아기 오뉴월 긴 장마에 물외 크듯 키워 주오.) [전역] = 왕의-자랑, 웡의-자랑.

웨[1] 명 외(瓜). [전역]

웨[2] 명 까닭. 이치. 리. *가시밧긔 걸릴 웨 시랴.(가시밖에 걸릴 리가 있으랴.) [전역]

웨[3] 부 [전역] → 무사.

웨가 명 외가(外家). [전역] = 웨가-칩.

웨가-칩 명 [전역] → 웨가.

웨-갈리 명 소, 돼지의 등골뼈가 붙지 않게 짜개어 낸 식용(食用)의 갈비. [전역]

웨-거리 명 단 한 채의 집. [전역]

웨계-독 명 <동> 오계(烏鷄). 오골-계(烏骨鷄). [전역] = 오계-독.

웨곳-쏠 명 보리나 조를 섞지 않은 순수한 흰쌀(白米). *웨곳쏠을 놓앙 밥을 ᄒᆞ곡.(흰쌀을 놓고서 밥을 하고.) [노형]

웨곳-염치(--廉恥) 명 어떤 경우에 처하여도 단 한 가지밖에 헤아릴 줄을 모르는 염치. [전역]

웨-끌 명 나무 손잡이가 달린 끌. 일본제 끌을 말함. [이호]

웨눈-박이 명 애꾸-눈이. [전역] = 웨눈-벵이.

웨눈-벵이 명 [인성] → 웨눈-박이.

웨다[1] 동 소리를 높이 지르다. [인성 노형 조수 서홍]

웨다[2] 형 그르다. 옳지 못하다. *예점말에 나 웨댄 ᄒᆞ여라.(예삿말에 나 그르다 하더라.) [전역]

웨-담 명 돌멩이를 한 겹으로만 에둘러 놓은 밭담. *바령팟디 웨담은 안 뒈주.('바령밭'에 외담은 안 되지.) [성읍]

웨-도리 명 가장 바깥쪽 기둥에 얹혀진 도리. [전역]

웨-돌처귀 명 하나만 달려 있는 돌쩌귀. [용수]

웨-따비 명 <도> 날이 하나만 달린 따비. [한림 애월]

웨-뚜로 부 외-따로. [전역]
웨뚠-집 명 외딴-집(--家). [전역] = 웨튼-집.
웨-똘 명 외-딸. [전역] = 단-똘.
웨로 부 외로이. *웨낭기랑 웨돔박 올 듯 웨로 난 일 서뤄니 흔다.(외나무는 외동백 열 듯 외로이 난 일 서러워 한다.) [전역]
웨롭다 형 외롭다. [전역]
웨말-띄기 명 <도> 한 말 드는 크기의 솥. [전역] = 말-치, 웨말-치.
웨말-치 명 <도> *고소리ᄒᆞ고 떡시린 웨말치 아니믄 맞지 아니ᄒᆞ여.('고소리'하고 떡시루는 '웨말치' 아니면 맞지 않아.) [전역] → 웨말-띄기.
웨말치-고소리 명 <도> 한 말들이 솥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규모의 소줏고리. [감산]
웨-망치 명 <동> 망상어의 일종. [우도]
웨-목청 명 <민> 고저의 변화 없이 단조로운 목청. [전역]
웨미-즈 명 [노형 수산 김녕] → 오미-즈.
웨-밀ᄀᆞ루 명 일제강점기 때 들어온 밀가루. [행원]
웨-바농 명 외-바늘. 하나밖에 없는 바늘. *(속) 웨바농코 ᄐᆞ다지기 쉽다.(외바늘귀는 타지기 쉽다.) [전역]
웨방 명 외방(外方). [전역] = 웬방.
웨-불 명 [조수] → 단-불[1].
웨-사촌 명 외-사촌(外四寸). [전역] = 웨-ᄉᆞ촌.
웨살 명 사리 때의 물살. [전역]
웨-삼촌 명 외-삼촌(外三寸). *(속) 의지 읏인 웨삼춘 삼월 보롬 물찌에 죽언 깅이 보말도 못 잡아 먹게 흔다.(의지 없는 외삼촌 삼월 보름 무수기에 죽어서 게와 고둥도 못 잡아 먹게 한다.) [전역]
웨상[1] 명 외상. 값은 나중에 치르기로 하고 물건을 사거나 파는 일. [전역]
웨-상[2] 명 외-상(-床). 혼자 먹게 차린 음식상. [전역]
웨상잔-막음(-床盞--) 명 <민> 산판 점에서 제일 좋은 괘. 상잔 하나가 엎어지고 나머지 상잔 하나와 천문 둘이 자빠진 괘. 보통 '가문공ᄉᆞ'라고 함. [전역]
웨석-악 명 <지> [전역] → 밧-돌오름.
웨성 명 <음> 굿 떡의 하나. [김녕]
웨손 명 외손(外孫). [전역]
웨-솟 명 <도> 다른 지방에서 만든 솥. [행원]
웨-ᄉᆞ촌 명 [전역] → 웨-사촌.
웨-아돌 명 외-아들. [전역] = 단-아들.
웨양-미 명 <지> [성산] → 왕이-메(王--).
웨우 명 왼편. 왼쪽. *정든 님 이별은 하늘에 웨우 일곱 번 칭칭 돌곡, 부모님 이별은 눈물만 삼시 방울 뚝 떨어진다.(정든 님 이별은 하늘에 왼편으로 일곱 번 뱅뱅 돌고, 부모님 이별은 눈물만 세 방울 뚝 떨어진다.) [전역]
웨우다 동 외다(誦). [전역]
웨-우르다 동 소리를 크게 하여 높이 지르다. [노형 인성 조수 서홍]
웨-울룸 명 외침. [노형]
웨입 명 [전역] → 오입.
웨잔 명 [전역] → 단잔.

웨-장시 명 외-장수(瓜商人). [전역]
웨-장ᄉᆞ 명 외-장사(瓜商). [전역]
웨접-그물 명 <어> 한 겹으로 된 그물. [이호]
웨-제기다 동 ① 큰 소리로 왁자하게 떠들다. [전역] ② 소리를 높이 하여 마구 외치다. [노형 조수 서홍 인성]
웨-지 명 <음> [인성 서홍] → 웨-지의.
웨-지다 형 외따로 떨어지다. [전역]
웨-지시 명 <음> [수산 김녕] → 웨-지의.
웨-지의 명 <음> 오이-지(瓜醎漬). [전역] = 웨-지, 웨-지시.
웨-지축 명 <식> [수산] → 왜-지축.
웨진-국 명 <민> 외친(外親) 국. 외가(外家) 쪽 출처. 어머니. [전역]
웨진-땅 명 <민> 외친(外親) 땅. 외편(外便) 땅, 곧 외가(外家) 쪽 출처. [전역]
웨진-조상 명 <민> 외친-조상(外親祖上). 어머니 쪽의 혈연 관계에 있는 조상. [전역]
웨치다 동 외치다. [노형 인성 서홍 조수 수산] = 왜치다. 고웨다.
웨칸-집 명 <건> [전역] → 단칸-집.
웨탁 명 외탁(外-). [전역]
웨탁-ᄒᆞ다 형 자손의 생김새가 외가의 모습을 닮다. [전역]
웨통-수 명 외통-수. [전역]
웨투 명 <의> [전역] → 우투.
웨퉁-쟁이 명 외눈-퉁이. [표선 수산 세화 조천]
웨툰-집 명 [전역] → 웨뚠-집.
웨-하르방 명 외-할아버지. [전역]
웨-할망 명 외-할머니. [전역]
웨-ᄒᆞ다 형 싸-하다. [하도]
웬-갱이 명 [어도 인성] → 웬-광이.
웬-광이 명 왼손-잡이. [노형 조수 김녕] = 웬-갱이, 웬-괭이, 웬-자치, 웬-쟁이.
웬-괭이 명 [노형 수산 김녕 조수 가시] → 웬-광이.
웬방 명 외방(外方). *이디 웬방 사름 뎅깁니다.(이곳에 외방 사람이 다닙니다.) [노형] → 웨방.
웬-보말 명 <동> 대롱-고둥. [전역]
웬-손 명 왼-손. [전역]
웬수 명 [전역] → 원수(怨讐).
웬-ᄉᆞ께 명 왼-새끼. [전역] = 웬-ᄉᆞᆺ.
웬-ᄉᆞᆺ 명 [노형 서홍 수산 김녕 인성] → 웬-ᄉᆞ께.
웬-자치 명 [인성 서홍] → 웬-광이.
웬-쟁이 명 [서홍] → 웬-광이.
웬-짝 명 [전역] → 웬-착.
웬-쪽 명 [전역] → 웬-착.
웬-착 명 왼-짝(左-). [전역] = 웬-짝, 웬-쪽.
웬통 부 [서홍 노형 인성] → 온통.
웬-편 명 왼-편(左-). [전역]
웻-국 명 <음> 물외를 송송 채 썰어 양념한 날된장을 푼 물에 섞어서 만든 냉국. [전역]
웻-굿 명 오이씨를 묻고 두두룩하게 모아 올린 흙. [전역]
웻-동제기 명 [서홍] → 웻-동지.
웻-동지 명 오이꽃이 떨어진 뒤 바로 맺는 열매. [서홍 수산 김녕 조수 가시] = 웻-동제기.
웻-막 명 원두-막. [전역] = 원두-막, 원뒤-막.

웽겨-놓다 동 [전역] → 옹겨-놓다.
웽-기다 동 옮-기다. [전역]
웽대-ᄒᆞ다 형 거창-하다. 굉장-하다. ＊어떤 양반이 웽대ᄒᆞ게 평양엘 오라 가지고 기생덜ᄒᆞ고 메틀 놀아서 가도 아니ᄒᆞᆫ다 ᄒᆞ니.(어떤 양반이 거창하게 평양에를 와서, 기생들하고 며칠 놀아서 가지도 아니한다 하니.) [노형]
웽-메 명 <지> [성산 구좌] → 왕-메.
웽-미 명 <지> [성산 구좌] → 왕-메.
웽이-메 명 <지> [성산 구좌] → 왕-메.
웽이-미 명 <지> [성산 구좌] → 왕-메.
위겨-대다 동 [전역] → 우겨-대다.
위미-포(爲美浦) 명 <지> [남원] → 뭬밋-개.
위연 명 [태흥] → 우영.
위염 명 위험(危險). [전역]
위-왇다 동 손윗사람이나 손아랫사람을 특별히 모시어 받들다. [전역]
위터-ᄒᆞ다 형 위태-하다(危殆--). [전역]
위-ᄒᆞ다(爲--) 동 위-하다. [전역]
유 명 <식> ① 들-깨. [전역] ② 들깨의 씨. [전역]
유건에-오름 명 <지> 서귀포시 성산읍 난산리의 서북쪽에 있는 오름. 표고 190미터. [난산 성읍] = 유건이-오름.
유건이-오름 명 <지> [난산 성읍] → 유건에-오름.
유기-동(油機洞) 명 <지> [애월] → 지름끼-동네.
유럼 명 [수산] → 존곙이.
유름 명 [인성 서홍 조천] → 존곙이.
유름-터 명 으름-터. 전복 따위가 많은 곳. ＊(속) 유름터엔 다음 물찌에도 싯나.(유름터에는 다음 무수기에도 있다.) [전역]
유리[1](有利) 명 유리. [전역]
유리[2](琉璃) 명 유리. [전역]
유리-잔 명 유리로 만든 물안경. ＊유리잔을 눈에다 부치곡.(유리 안경을 눈에다 붙이고.) [전역] = 눈[2].
유마 명 <동> 유마(騮馬). [전역] = 유매, 유매-물.
유매 명 <동> [전역] → 유마.
유매-물 명 <동> [어도 조수] → 유마.
유ᄉᆞ 명 유사(有事). [전역]
유-썹 명 깻-잎. [전역]
유에 명 까닭에. ＊신 것이랑 신 유에 먹곡 웃인 제랑 도렝을 말라.(있는 것일랑 있기에 먹고 없는 땔랑 달라고를 마라.) [전역]
유왕-맞이 명 <민> [전역] → 요왕-맞이(龍王--).
유울다 동 [전역] → 유을다.
유월-절 명 24절기 중 소서 안팎. [상창]
유으름 명 [하원 서홍 태흥 표선 세화 조천 노형 수산] → 존곙이.
유으름-줄 명 [전역] → 존곙잇-줄.
유을다 동 이울다. ① 병으로 오래 앓아 몸이 몹시 야위다. [전역] ② 꽃이나 잎이 시들다. [전역] = 여울다, 유울다, 율다, 이울다. 고이볼다.
유-죽 명 들깨-죽(--粥). [전역]
유지 명 유자(柚子). [전역] = 유ᄌᆞ.
유지-낭 명 <식> 유자-나무(柚子--). [전역] = 유ᄌᆞ-낭.
유-지름 명 들깨-기름. [전역]
유ᄌᆞ 명 [전역] → 유지.
유ᄌᆞ-낭 명 <식>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유지-낭.

유학-형제(幼學兄弟) 명 <민> 어릴 때부터 굿판에서 함께 배우면서 자란 동료 심방. [전역]

유황-맞이 명 <민> [전역] → 요왕-맞이(龍王--).

육간-제비 명 <민> 작은 엽전 모양의 점구인 간제비 여섯 개를 꿰어서 만든 무구. 한쪽은 엽전 모양이고 반대쪽은 거울 모양으로 되어 있음. 엽전 모양의 것 여섯 개로 이루어져서 육간제비라고 함. [전역]

육-고비 명 <민> 길쭉하게 오려 위아래를 쪼개어 접은 백지 셋을 댓가지에 나란히 끼워 당주 안쪽에 세우는 종이 장식. [전역]



육고비

육-대 명 <민> 죽대(竹-). 대-나무. [전역]

육수[1] 명 말(馬)의 나이 여섯 살. [전역] = 육쉬.

육수[2](肉水) 명 육수. 고기를 삶아낸 물. [전역]

육수-마 명 <동> [전역] → 육수-매.

육수-매 명 <동> 나이 여섯 살이 된 말. [전역] = 육수-마.

육쉬 명 [전역] → 육수.

육절-포 명 [서홍 수산 가시 김녕 조수] → 육철-포.

육지(陸地) 명 육지. 제주도에서 한반도 지역을 일컫는 말. [전역]

육지-물질 명 <어> 제주 해녀들이 한반도의 각 연안과 숱한 섬에 돈벌이로 우뭇가사리·전복·소라 등 해산물을 캐기 위하여 해마다 약 반년씩 무리지어 나가 살면서 작업하는 일. [전역]

육철-포 명 육혈-포(六穴砲). [전역] = 육절-포.

윤-낭 명 <식> [전역] → 윤누리-낭.

윤누리-낭 명 <식> 윤노리-나무. [노형 조수 수산 인성 서홍 가시] = 윤-낭, 윤유리-낭, 임노리-낭.

윤동-고장 명 [가시 김녕 조수 어도] → 인동-고장.

윤동-줄 명 <식> [서홍] → 인동-줄.

윤드리-오름 명 <지> [전역] → 은돌-오름.

윤디[1] 명 <도> 인두. 옷 따위의 구김살을 펴는 도구. [전역]



윤디[1]

윤디[2] 명 [노형 김녕] → 운디.

윤디-판(--板) 명 인두-판. [전역]

윤-돌 명 윤-달(閏月). [전역]

윤유리-낭 명 <식> [전역] → 윤누리-낭.

윤-지다 형 동·식물 따위가 보통보다 윤기가 있다. [전역]

윤-ᄒᆞ다(潤--) 형 물건이 강하지 않고

부드럽다. [전역]

율다 동 ＊ᄒᆞᆫ 삼사 년을 벵을 고찌지 못ᄒᆞ난 율언.(한 삼사 년을 병을 고치지 못하니까 야위었어.) [전역] → 유을다.

윳[1] 명 윷. [전역]

윳[2] 명 [전역] → 이웃.

윳-가락 명 윷-가락. [전역]

윳-놀다 동 윷-놀다. [전역]

윳-집 명 [노형 조수 인성] → 이웃-집.

으까 감 아기의 손을 잡고 일어나게 할 때 쓰는 말. [전역]

-으나 어미 -으나. ①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뒷말의 내용이 앞말의 내용에 따르지 않음을 나타내는 어미. [전역] ② 어떤 동작·상태를 특히 가리어 말할 때, 어간에 붙어서 쓰이는 연결어미. [전역] ③ '…으나…은'으로 쓰이어 형용사에서 되풀이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전역]

-으난 어미 -으니까. ①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앞으로 하려는 말에 대하여 원인이 되는 사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②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있기에 앞서 끝난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으난에 어미 -으니까는.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앞으로 하려는 말에 대하여 원인이 되는 사유를 나타내는 '-으난'에,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에'가 결합된 연결어미. [전역]

으남 명 ＊(속) 아척 으남에 중 대가리 벌러진다.(아침 안개에 중 머리 깨어진다.) [전역] → 안개.

으남-비 명 는개. 안개보다 조금 굵게 오는 비. [전역] = 안개-비, 줌방-비, 줌벙-비, 줌벙-이, 줌벵-이, 짐벵-이.

으남-지다 동 안개가 자욱하게 끼다. ＊ᄆᆞᆯ꽁지에 빗츠록 싀 갤 ᄃᆞᆯ아매영 재를 그레 확ᄒᆞ게 감추아 노앙 항파두리 토성을 쏵 ᄒᆞᆫ 번 돌민, 온 제주도가 으남지어 불어.(말꼬리에 빗자루 세 개를 달아매어서 재를 그 곳에 재빠르게 감추어 놓아서 항파두리 토성을 쏵 한 번 돌면, 온 제주도가 안개 낀듯 자욱해.) [전역]

으네 명 [인성 화순 하원] → 안개.

으드득-으드득 부 으드득-으드득. [전역]

으라근 조 을랑은. 받침 있는 체언에 붙는 격조사 '은'의 뜻을 더 세게 강조하여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 이라근.

으랑 조 을랑.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은'의 뜻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 이랑[2]

-으레 어미 -으러. 받침 있는 동사 어간에 붙어서, 동작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으례-읏이 부 틀림-없이. 말할 것도 없이. ＊ᄌᆞ기 남편은 글 ᄒᆞᆫ 게 읏으니까니 으례읏이 씨아지바님 구경이라도 가 줘야겟다고 ᄒᆞ여서.(자기 남편은 글 배운 것이 없으니까 틀림없이 시아주버님 구경이라도 가야겠다고 해서.) [노형]

으로 조 으로. ① 'ㄹ'받침 이외의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수단·방법

·이유·자격·기구 등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② 'ㄹ'받침 이외의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방향·경로 등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으로나 조 으로나. 'ㄹ'받침 이외의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방향·경로의 뜻을 나타내는 '으로'에, 선택의 뜻을 나타내는 '-나'가 결합된 격조사. [전역]

으로는 조 으로는. 'ㄹ'받침 이외의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수단·방법·이유 또는 자격·기구 등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으로라도 조 으로라도. 'ㄹ'받침 이외의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연장·재료 또는 어떤 수단 등을 구별하여 가리지 않음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으로란 조 으로랑. [전역] → 으로랑.

으로랑 조 으로랑. 'ㄹ'받침 이외의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방향·경로 또는 연장·재료 등을 나타내는 격조사 '으로'에, 지정하여 지시하는 뜻의 '-랑'이 결합된 격조사. [전역] = 으로란.

으로만 조 으로만. 'ㄹ'받침 이외의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수단·방법·이유 또는 자격·기구 등을 제한하는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으론 조 으론. '으로는'의 준말. [전역]

으름-장 명 으름-장.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으마 어미 -으마. 받침 있는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자기가 하겠다는 약속의 뜻을 나타낼 때 쓰이는 종결어미. [전역]

-으멍 어미 -으면서.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두 가지 이상의 동작이나 상태를 겸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으멍은 어미 -으면서는. 받침 있는 동사 어간에 붙는 '-으면서'의 뜻을 더 강조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으면 어미 -으면. [전역] → -으민.

-으민 어미 -으면.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가정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 -으면.

으상-으상 부 느릿느릿 걷는 모양. *큰아들이 기자 으상으상 오란 보니, 아방이 가죽보선착을 썬 앉앗거든. (큰아들이 그저 '으상으상' 와서 보니, 아버지가 가죽버선짝을 써서 앉았거든.) [전역]

으셍이 부 오긋-이. [전역]

으스룩-ᄒᆞ다 형 [전역] → 어수룩-ᄒᆞ다.

으스름-돌밤 명 으스름-달밤. [전역]

으슥-ᄒᆞ다 형 으슥-하다. [전역]

으슬랑-으슬랑 부 어슬렁-어슬렁. [전역] = 어슬랑-어슬랑.

으슬-으슬 부 용기 없이 천천히 걷는 모양. [전역]

으싹-ᄒᆞ다 형 태연자약-하다. *테우리 이놈이 잇단 으싹ᄒᆞ게 말ᄒᆞ엿어. (목자(牧者) 이놈이 있다가 태연자약하게 말했어.) [전역]

으쓱-거리다 동 으쓱-거리다. [전역]

으지-ᄒᆞ다 동 기대다. 의지-하다. [전역]

-으커건 어미 -겠거든.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가정을 조건 삼아

말할 때 쓰이는 연결어미. [전역] = -으케건.

-으컨데 어미 -기에.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이유나 원인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 -으콘테.

-으컬 어미 -을걸. 받침 있는 동사 어간에 붙어서, 이미 끝난 동작에 대하여 뉘우치는 뜻으로 쓰이는 종결어미. [전역]

-으케건 어미 -겠거든. [전역] → -으커건.

-으크라 어미 -겠다·-겠네. *ᄀᆞᆺ사 닮은 이상ᄒᆞᆫ 말은 아이 ᄀᆞᆫ고, ᄒᆞᆫ쏠긴 말 ᄀᆞᆯ으크라.(방금과 같은, 이상한 말은 아니하고, 약간 긴 말을 하겠어.) [전역]

-으크라라 어미 -겠더라.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막연하게 '-겠더라'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으콘테 어미 -기에. [전역] → -으컨테.

윽-먹다 동 남에게 원한을 품고서 한번 화풀이하겠다는 마음을 먹다. [전역]

윽-서르다 동 남이 두려워하게 말로 으르다. [전역] = 윽-설르다.

윽-설르다 동 [전역] → 윽-서르다.

윽-저리다 동 남을 위협하다. [전역] = 억-저리다.

은 조 은.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사물을 지정하여 제시하는 데 쓰이는 특수조사. [전역]

-은 어미 은.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이미 행해진 사실을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 [전역]

은기-덩기 부 <민> 덩실-덩실. *과양셍이 지집년 은기덩기 춤을 춘다.('과양셍이' 계집년 덩실덩실 춤을 춘다.). [온평]

은동-고장 명 <식> [노형 서홍] → 인동-고장.

은동-줄 명 [수산 어도] → 인동-줄.

은돌-오름 명 <지>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용눈이오름 동북쪽에 있는 오름. 표고 180미터. [전역] = 는돌-오름, 윤드리-오름, 은월-봉.

은매 명 [전역] → 얼매.

은-방에 명 <도> 은으로 만든 절구. [명월]

은-상어 명 <동> 은-상어. *은상어는 여기 펄바당에 가끔 봐저. 맛 좋아.(은상어는 여기 펄바다에서 가끔 보여. 맛이 좋아.) [사계] = 은-상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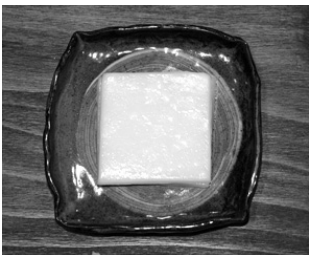
은-상의 명 <동> [전역] → 은-상어.

은어(銀魚) 명 <동> [전역] → 은에.

은에 명 <동> 은어(銀魚). [전역] = 은어.

은월-봉(隱月峰) 명 <지> [전역] → 은돌-오름.

은절미 명 <음> 메밀이나 쌀가루 따위로 네모지고 넓적하게 만든 후 삶거나 쪄낸 떡. [전역] = 인절미.



은절미

은-점복 명 <동> 전복이 은처럼 귀하다는 뜻에서 붙여진 말. *금조개 은점복 다 따당 놓곡 임 오신 데 드려 놓자.(금조개 은전복 다 따다 놓고 임 오신 데 들여놓자.) [전역]
은질-은질 부 매우 단작스러운 일을 생각하거나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할 때에 마음이 안정할 수 없이 근질근질하게 느껴지는 모양. [전역]
은하-수 명 [전역] → 미리-내.
은행-남 명 <식> [전역] → 은행-낭.
은행-낭 명 <식> 은행-나무. [전역] = 은행-남.
을 조 을.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그 말을 목적어가 되게 하는 격조사. *그 땅을 저를 주어 줍서.(그 땅을 저를 주십시오.) [전역]
-을걸 어미 -을걸.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을근-돌다 동 불평을 품고서 투덜거리며 으르대다. [전역]
을근-을근 부 불평을 품고서 투덜거리며 으르대는 모양. [전역]
-을디 어미 -을지.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의심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을디사 어미 -을지.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의심의 뜻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을락-을락 어미 -을락-을락.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거의 되려다가 말고 되려다가 말고 함을 나타내는 어미. [전역]
-을로고나 어미 -겠구나.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나 또는 혼자 스스로 새삼스러운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을마 명 [전역] → 얼매.
을메 명 [전역] → 얼매.
-을수록 어미 -을수록. [전역]
을큰-ᄒᆞ다 형 억울-하다. 섭섭-하다. 서운-하다. [전역]
을프다 동 읊다(詠). [전역]
을허-들다 동 여럿이 한꺼번에 모여들다. [전역]
음-낭 명 <식> [조수] → 엄-낭.
음막-ᄒᆞ다 형 *독거미 헤다 주난 음막ᄒᆞ게 들러먹어.(독거미를 잡아다 주니 '음막하게' 먹어 버려.) [전역] → 옴막-ᄒᆞ다[1].
음메 명 물을 가리키는 어린이의 말. [전역] = 엄매[2].
음벙-덤벙 부 [서홍] → 엄벙-덤벙.
음복(飮福) 명 제사를 마치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일. [전역]
음복지-주잔(飮福之酒盞) 명 <민> 본향신 뒤를 따르는 군졸들을 위하여 바치는 뜻으로 흰 천으로 봉하여 바깥으로 내던지는 술병. [전역] = 우봉지-주잔.
음양-곽 명 음양-곽(淫羊藿). 말린 삼지구엽초의 잎과 줄기. [전역]
-읍서 어미 -ㅂ시오. 받침 있는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행동하기를 명령하는 대자존대의 명령법 어미. *이제 그만 일ᄒᆞ영 밥덜 먹읍서.(이제 그만 일하고 밥들 드세요.) [전역]
-읍센 어미 -으십사고. 받침 있는 동

사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행동하기를 명령하는 대자존대의 명령법 어미 '-읍서'의 변형 '-읍세'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읍셍 어미 -으십사고. 받침 있는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행동하기를 명령하는 대자존대의 명령법 어미 '-읍서'의 변형 '-읍세'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읍슬-ᄒᆞ다 형 매를 맞아서 매우 아픈 느낌이 있다. [전역] = 읍실-ᄒᆞ다.

읍실-ᄒᆞ다 형 [전역] → 읍슬-ᄒᆞ다.

-읍주 어미 -습니다. 받침 있는 용언의 어간 등에 연결되어, '합쇼' 할 자리에서 현재 계속되는 동작이나 상태를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종결어미. *히영ᄒᆞ게 눈 더픈 할락산은 어디서 보아도 좋읍주.(하얗게 눈 덮인 한라산은 어디서 보아도 좋습니다.) [전역]

읎다 형 [전역] → 웃다.

읎-에다 동 없-애다. [전역] = 읎이-ᄒᆞ다, 읏이-ᄒᆞ다.

읎이-대기다 동 [전역] → 웃이-대기다.

읎이-대다 동 [전역] → 웃이-대기다.

읎이-ᄒᆞ다 동 [전역] → 읎에다.

웃다 형 없다. [전역] = 없다, 엇다, 읎다.

웃이-대기다 동 물건을 다 없이해 버리다. [전역] = 엇이-대기다, 엇이-대다, 읎이-대기다, 읎이-대다, 읏이-대다.

웃이-대다 동 [전역] → 웃이-대기다.

웃이-ᄒᆞ다 동 [전역] → 읎-에다.

응 감 응. 평교간이나 손아랫사람에게 대답하거나 대답을 구하는 소리. [전역]

응감 명 [전역] → 언감.

응상-거리다 동 남을 위협하는 듯한 언행을 하며 거드럭거리다. [전역] = 엉성-거리다.

응상조압-ᄒᆞ다 동 여럿이 남을 위협하는 듯한 언행을 하다. [전역]

응암-산(鷹岩山) 명 <지> [전역] → 매-오름.

응은-응은 부 응얼-응얼. [전역]

응을 털다 구 중얼-거리다. *저 놈으 새끼, 무사 응을 털멍 오람시니?(저 놈, 왜 중얼거리면서 오고 있는가?) [노형]

응응[1] 감 응가. 어린아이에게 똥을 누일 때에 하는 소리. [전역] = ᄋᆞᆼᄋᆞᆼ.

응-응[2] 감 응-응. ① 연해 '응' 소리로 대답하는 모양. [전역] ② 가볍게 끙끙거리는 소리. [전역]

의[1] 조 에. '집·바당·앞·옆·밤·낮' 등의 명사에 붙는 처소격 조사. *이 할망이 그자 그영 불르멍 오막살이 집의 살주게.(이 할머니가 그저 그렇게 부르면서 오막살이 집에 살지.) *전의 그런 일이 잇엇주.(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전역]

의[2] 조 의. 체언에 붙는 속격 조사. [전역] = ㅅ.

의게 조 에게. *그 박씨의게 주어난 술이거든.(그 박씨(朴氏)에게 주었던 술이거든.) [전역]

의귀-리(衣貴里)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의귀리. [전역]

의나 조 에나. 처소격 '에'에, 선택하는 뜻으로 쓰이는 '나'가 결합된 격조사 '에나'의 변이형태로, '집·바당' 등의 말에 연결되어 쓰이는 격조사. [전역]

의는 조 에는. 처소격 '에'에, 지정하여 제시하는 뜻인 '는'이 결합된 격조사 '에는'의 변이형태로, '집·바당·낮·밤' 등의 말에 연결되어 쓰이는 격조사. *그 앞의는 큰 밧이 잇어.(그 앞에는 큰 밭이 있어.) [전역] → 에는.

의다 조 에다. 처소격 '에'에 한정의 뜻을 나타내는 '다'가 결합한 형태. *내가 그자 온 것이 아니고 집의다 뚤님애기 메누리로 구혼을 왓노라.(내가 그저 온 것이 아니고 집에다 따님을 며느리로 구혼(求婚)을 왔노라.) [전역]

의도 조 에도. 처소격 '에'에, '다른 곳에는 물론 그 곳에 또한'의 뜻인 '도'가 결합된 격조사 '에도'의 변이형태로, '집·바당·낮' 등 명사에 연결되어 쓰이는 격조사. *밤의 경 해도 낮의도 시끄릅다.(밤에 그렇게 해도 낮에도 시끄럽다.) [전역]

의-돌다 동 탐탁스럽게 덤비지 않고 따로 떨어지려고 하다. [전역] = 에-돌다.

의-똘 명 [삼양 노형 이호 하귀 조수] → 에-똘.

의라근 조 엘랑. 체언에 붙어서, '에는'의 뜻을 강조하는 '-에랑'의 변이형태로서, '집·바당·밤' 등의 명사에 연결되어서 그 뜻을 더 세게 나타낼 때 쓰이는 격조사. [전역] → 에랑.

의랑 조 엘랑. 체언에 붙어서 '에는'의 뜻을 강조하는 '-에랑'의 변이형태로, '집·바당·밤·낮' 등의 명사에 연결되어 쓰이는 격조사. [전역] → 에랑.

의로 조 로. 처소격 '에'와 방향격 '로'가 결합된 형태로, '우'(上) 등의 명사에 연결되어 쓰이는 격조사. [전역]

의리-동셍(義理--) 명 의리-동생. 의리로 맺은 동생. [전역] = 의리-동승, 의리-동싱.

의리-동승 명 [전역] → 의리-동셍.

의리-동싱 명 [전역] → 의리-동셍.

의리-성제 명 의-형제(義兄弟). [전역] = 의리-형제, 의-형제.

의리성제-뭇다 동 의형제-맺다. [전역] = 의리성제-뭇다.

의리성제-뭇다 동 [노형 조수 인성] → 의리성제-뭇다.

의리-형제 명 [전역] → 의리-성제.

의만 조 에만. 처소격 조사 '에'에, 단독의 뜻을 나타내는 '만'이 결합된 '에만'의 변이형태로, '집·바당' 등 명사에 연결되어 쓰이는 격조사. *영 우의만 더꺼져서 창은 엇어.(이렇게 위에만 덮어져서 바닥은 없어.) [전역] → 에만.

의몸 명 <의> 저고리·두루마기 따위의 소매, 깃들을 빼고서 나머지 부분 전체를 이르는 말. [전역] = 이몸.

의민 조 에면. 처소격 '에'에, 가정을 조건으로 삼아 말하는 '면'이 결합된 격조사 '에면'의 변이형태로, '집·바당·밧' 등 명사에 연결되어 쓰이는 격조사. [전역] → 에면.

의사 조 에야. 처소격 '에'에, 강조하는 뜻의 '사'가 결합된 격조사 '에사'의 변이형태로, '집·바당·낮·밤' 등 명사에 연결되어 쓰이는 격조사. [전역] → 에사.

의-새끼 명 어머니와 자식. [전역] = 에-새끼.

의서 조 에서. 처소격 '에'에, 존재를 나타내는 격조사 '서'가 결합된 '에서'의 변이형태로, '집·바당·낮·밤' 등 명사에 연결되어 쓰이는 격조사. *여ᄌᆞ가 ᄆᆞᆯ 타 보도 아이ᄒᆞ고 겨다가 그 도중의서 ᄆᆞᆯ 우의서 털어졍 죽엇다 ᄒᆞ는 소문도 나민 이거 수치라.(여자가 말을 타 보지도 않고 그러다가 그 도중에서 말 위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하는 소문도 나면 이것은 수치야.) [전역] → 에서.

의서는 조 에서는. 처소격 '에서'에, 사물을 제시하여 지정하는 '는'이 결합된 격조사 '에서는'의 변이형태로, '집·바당·낮·밤' 등 명사에 연결되어 쓰이는 격조사. [전역]

의서도 조 에서도. 처소격 '에서'에, 그곳도 포함시킴을 뜻하는 '도'가 결합된 격조사 '에서도'의 변이형태로, '집·바당·앞' 따위의 명사에 연결되어 쓰이는 격조사. [전역]

의서랑 조 에설랑. 처소격 '에서'에, '는'의 뜻으로 강조하여 나타내는 '랑'이 결합된 '에서랑'의 변이형태로, '집·바당·앞' 따위의 명사에 연결되어 쓰이는 격조사. [전역]

의서만 조 에서만. 처소격 '에서'에, 제한하는 뜻의 '만'이 결합된 '에서만'의 변이형태로 '집·바당·앞' 따위 명사에 연결되어 쓰이는 격조사. [전역]

의선 조 에선. '의서는'의 준말. *동녁집의선 두룽싸움이 남서.(동쪽 집에서는 '두룽싸움'이 나고 있어.) [전역]

의설프다 형 [인성 어도] → 어설프다.

의역-빗 명 [노형 조수 인성] → 에역-빗.

의염-의염 부 구석-구석. 이 구석 저 구석. *오년 묵은 저실 밧듸 의염의염 돌단 보난 콩 ᄒᆞᆫ 방울 줏어 먹곡.(오년 묵은 겨울 밭에 구석구석 돌다 보니 콩 한 알 주워 먹고.) [전역]

의웨 명 의외(意外). [전역] = 이웨.

의젓-ᄒᆞ다 형 의젓-하다. [전역]

의-좋다 형 의-좋다. 서로 정분(情分)이 두텁다. [전역]

의-형제 명 [전역] → 의리-성제.

읜 조 엔. '의는'의 준말. *인간 백성덜이 낮읜 줓아 죽곡, 밤읜 곳아 죽곡.(인간 백성들이 낮엔 뜨거워서 죽고 밤엔 얼어서 죽고.) *우리 집읜 운이 다 뒈엿다.(우리 집엔 운(運)이 다 되었다.) [전역]

읠 조 엘. 향진격 '엘'의 변이형태로, '집·바당·앞' 등에 연결되어서 쓰이는 격조사. *이 부인을 ᄃᆞ리고 처가집읠 갓어.(이 부인을 데리고 처갓집엘 갔어.) [전역]

읫 조 옛. 처소격 '에'의 관형사적 용법의 '옛'의 변이형태로, '집·바당·앞' 등에 연결되어서 쓰이는 격조사. [전역]

이[1] 명 이(理). [전역]

이[2] 명 이(里). 지방 행정의 말단 구역. [전역]

이[3] 감 손아랫사람이 하는 말에 의심스러운 말이 있거나 잘 듣지 못하였을 때에 그것을 다시 물을 적에 내는 소리. [전역]

이[4] 조 이. ① 받침 있는 체언에 붙는 주격 조사. [전역] ②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 무엇이 변하여 무엇으로 됨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③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 그것이 아님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④ 받침 없는 체언에 붙어서, 그 말을 주격이 되게 하는 격조사. [전역]

-이- 어미 -이-. ① 형용사, 자동사의 어간에 붙어서 그것을 타동화하는 선어말어미. [전역] ② 타동사의 어간에 붙어서, 그것을 피동·사동화하는 선어말어미. [전역]

이간-주당 명 <민> 이 집안. 이 가내(家內) 주당(住堂). [전역]

이갑-씰 명 [전역] → 두갑-씰.

-이거든 어미 -이거든. [전역] → -이건.

-이건 어미 -이거든.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가정을 조건 삼아 말할 때 쓰이는 연결어미. [전역] = -이거든.

이게-오름 명 <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닥물오름' 서남쪽에 있는 오름. 표고 168미터. [한경]

이공(二公) 명 <민> 서천(西天) 꽃밭에서 주술(呪術)의 꽃을 관장하는 신(神). [전역]

이공-맞이 명 <민> 이공신을 모셔 들여 기원하는 제차. [전역]

이기다[1] 동 이기다(勝). [전역]

이기다[2] 동 이기다. 가루나 흙 따위에 물을 부어 반죽하다. [전역]

이기다[3] 동 일구다. 땅을 파 일구어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다. [전역]

이껍 명 [노형 어도 김녕] → 늬껍.

이껍-새위 명 <동> [노형]→ 늬껍-새위.

이끄다 동 [전역] → 이끌다.

이끌다 동 이끌다. [전역] = 이끄다.

이나 조 이나. ①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여러 사물 가운데서 선택하는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②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수량이 크거나 많음, 혹은 정도가 높음을 강조할 때 쓰이는 격조사. [전역] ③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지정하는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이나따나 조 이나마. [전역] → 이나마.

이나마 조 이나마.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마음에 흡족하지 못하나 아쉬운 대로'의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 이나따나.

-이난 어미 -이니까.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 원인·이유의 뜻인 '-이니'를 강조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이-내 명 <지> 제주시 이도동(二徒洞)의 옛 이름. [이도 오라 삼양]

-이냐 어미 -이냐. ①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② 동사의 전성어미 명사형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이녁 대 이녁. *낼랑 이녁네 밧디 강 일ᄒᆞ주.(내일은 이녁네 밭에 가서 일하지.) [전역] 고인역.

이-놈 명 [전역] → 왜-놈.

이는 조 는. 은. 주격 '이'와 특수조사 '는'이 결합한 형태. *그 사름 강증산이는 도를 통헷어.(그 사람 강증산(姜甑山)은 도(道)를 통했어.) [전역]

-이니 어미 -이니.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원인·이유를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이닌 어미 -이냐고.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이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듣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이달-봉(二達峰) 명 <지> [전역] → 이달이-오름.

이달이-오름 명 <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새별오름 서쪽에 있는 오름. 쌍봉으로 이루어진 표고 489미터. 준 이달이. [애월] = 이달-봉(二達峰).

이달이-촛대봉 명 <지> 이달이오름의 쌍봉 중 북쪽 봉우리. 표고 456미터. [봉성 금악]

이돈이 명 <지> [광평 상천] → 이돈이-오름.

이돈이-오름 명 <지>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 동북쪽, 영아리오름 북쪽에 있는 오름. 표고 663미터. [광평 상천] = 이돈이.

이든지 조 이든지.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무엇이나 가리지 않고 그것들을 열거하는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이듭 명 이듭. [봉성]

이등(二等) 명 이등. [전역]

이듸 대부 여기. ① 이곳. [전역] ② 이곳에. [전역] = 여긔.

이-둘 명 이-달(今月). [전역]

이따가 부 [전역] → 이땅.

이따그네 부 [전역] → 이땅.

이땅 부 이따가. [전역] = 이따가, 이따그네.

이뜸 명 <민> 으뜸. 향장(鄕長) 따위의 단체의 최고 책임자. [북촌]

-이라[1] 어미 -이다.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사실에 대하여 나타내는 어미. [전역]

-이라[2] 어미 -인가. ① 동사의 전성어미 명사형 '-음'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의 행동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②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사실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이라[3] 어미 -이어서. 앞에 나오는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나중에 하는 동작의 까닭이 되게 하는 연결어미. [전역]

이라근 조 을랑은. [전역] → 으라근.

-이라냐 어미 -이더냐.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이라니 어미 -이더니.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바를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이라도 조 이라도. ①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어떤 사물을 구별하여 가리지 아니함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②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앞의 말을 뒤집는 뜻으로 쓰이는 격조사. [전역]

-이라서 어미 -이어서.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아랫말의 전제적 사실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이라서도 어미 -이었어도.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사실이 되어 있어서도'의 뜻을 나타내는 어미. 아래에는 불가능이나 어긋나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 옴. [전역]

-이라시민 어미 -이었으면.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그 '사실이 되어 있었으면'이란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이란[1] 조 은, 에는.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그 체언이 표시하는 내용을 가리켜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이란[2] 조 '이라고 하는 것은'의 준말로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어떤 대상을 특별히 지적하여 강조하는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이란 어미 -이어서. 앞에 나오는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나중하는 동작의 까닭이 되게 하는 연결어미. [전역] = -이랑.

이란마란 조 은커녕. [전역] → 이랑마랑.

-이랏수가 어미 -이었습니까.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과거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회상시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 -이랏수과, -이랏수광.

-이랏수과 어미 [전역] → -이랏수가.

-이랏수광 어미 [전역] → -이랏수가.

-이랏수다 어미 -이었습니다.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회상시켜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이랑[1] 조 이란. *하늘을 먼저 보고, 버금은 땅을 보고, 그 버금이랑 아무거나 보라.(하늘을 먼저 보고, 다음은 땅을 보고, 그 다음에는 아무거나 보라.) [전역]

이랑[2] 조 을랑. [전역] → 으랑.

이랑[3] 조 일랑.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은'의 뜻을 강조하여 나타내는 어미. [전역]

이랑근에 조 을랑.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은'의 뜻을 보다 더 강조하여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이랑마랑 조 은커녕. ①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은커녕' 또는 '~라고 한 것이나 아니라고 한 것이나'의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② 동사의 명사형 '-음'에 붙어서, '~은 고사하고 ~조차 아니하다'란 뜻으로 쓰이는 격조사. *겨난 밥 줌이랑마랑 난 나 먹을 밥도 엇어그네.(그러니까 밥을 주기는커녕 나는 나 먹을 밥도 없어서.) [전역]

이러 감 이러. 말(馬)을 몰거나 끌어당기는 소리. [전역]

이러리-저고리 명 <의> 색동-저고리. *뒷개 엿개 영리방 뚤은 신만 신어도 은 닷 돈 짜리, 치메만 입어도 연반물치메, 저고리만 입어도 이러리 저고리.(북촌 신흥 영리방 딸은 신만 신어도 은 닷 돈 짜리, 치마만 입어도 엷은 반물치마, 저고리만 입어도 색동저고리.) [전역]

이럭-저럭 부 [전역] → 영-정.

이렁 명 밭의 흙을 두 볏 마주 갈아 올려서 두두룩하게 된 곳. [전역]

이렁-좌수 명 <민> 유향좌수(留鄕座首). [전역]

이레 부 이리. 이곳으로. [전역] = 이리.

-이레 어미 -으러. 받침이 'ㅅ·ㅈ·ㅊ'인 동사 어간에 붙어서, 동작의 목적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이레착-저레착 부 마음이나 행동을 하나로 정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움직이는 상태. [전역]

이레 화륵 저레 화륵 구 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니는 모습. [전역]

-이로고나 어미 -이로구나.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나 또는 자기 스스로 새삼스러운 감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 -이로구나.

-이로구나 어미 -이로구나. [전역] → -이로고나.

이-롭다 형 이-롭다(利--). [전역]

이른-나록 명 <농> 올-벼. [전역]

이른-콩 명 <농> 올-콩. [전역]

이리 부 [전역] → 이레.

이마-빡 명 [노형 조수 인성] → 이멍-셍이.

이만-때 명 이맘-때. [전역]

이만-저만 부 이만-저만. [전역]

이망-거리 명 여자가 딴머리할 때 이마에서 뒤로 넘겨다가 묶는 끈. [전역] = 이멍-거리[1], 임댕-거리.

이망-새기 명 [조수 가시] → 이멍-셍이.

이멍[1] 명 이마. [전역]

이멍[2] 조 이며.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을 늘어놓을 때에 쓰이는 격조사. [전역] = 이며.

이멍-거리[1] 명 [전역] → 이망-거리.

이멍-거리[2] 명 <민> 여자 심방이 굿을 할 때 머리에 두르는 붉은 머리띠. [전역]

이멍-세기 명 [조수 가시] → 이멍-셍이.

이멍-셍이 명 이마-빼기(額). [전역] = 이마-빡, 이망-새기, 이멍-세기, 이멍-팍, 이멍-패기, 임성-배기, 임수-와기.

이멍-팍 명 [김녕 조수] → 이멍-셍이.

이멍-패기 명 [조수 가시] → 이멍-셍이. 고 니맛박.

이멩이 명 이마(額). [전역] = 임뎅이. 고 니마.

이며 조 이며. [전역] → 이멍[2].

-이면 어미 -이면. [전역] → -이민.

이몸 명 <의> [대포] → 의몸.

이몽-지몽 부 비몽-사몽. [노형 서홍 수산]

이문 명 <건> 대문. 집앞 마당으로 들어가는 곳에 세워진 정문. [전역]

이문-간 명 <건> 집의 입구에 대문(大門) 곁에 있는 집채. 문간-채. [전역] = 이문-깐.

이문-깐 명 <건> [노형] → 이문-간.

이물 명 이물(船頭). [전역] = 니물.
이물-대 명 배의 이물 쪽에 있는 돛대. [사계]
이물-멍에 명 떼(筏)의 앞쪽에 가로 박은 나무. [인성 서홍 수산 가시 김녕] = 니물-장세, 비빗-멍에, 비웃-멍에, 비윗-멍에, 이물-셋낭, 이물-장시.
이물-방장 명 [어도 조수] → 이물-칸.
이물-사공 명 이물을 담당하는 사공. [전역]
이물-셋낭 명 [조수] → 이물-멍에.
이물-장방 명 뱃머리인 이물에 방처럼 꾸며 놓은 공간. [이호]
이물-장시 명 [김녕] → 이물-멍에.
이물-칸 명 거루 따위의 배 안에 맨 앞 쪽 칸(間). [표선 수산 세화 조천 노형] = 니물-장, 이물-방장, 이물-칸방.
이물-칸방 명 [가시] → 이물-칸.
-이민 어미 -이면.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가정적 사실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그때 쓰므 냥이민 지금 아마 쉐 두 머릴 거라.(그때 스무 냥이면 지금 아마 소 두 마릴 것이야.) [전역]
이바지 명 혼례 날짜가 가까워 올 때에 신랑 쪽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잔치를 치르는 데 필요한 돼지·술·쌀·두부·닭·달걀 등의 음식. [전역] = 이버지.
이바지-차롱 명 <도> 혼례 따위의 큰 일을 치르고 난 후 사돈집 등에 음복용 음식을 담아 운반하는 채롱. [구좌] = 상지[1], 이바지-채롱.
이바지-채롱 명 <도> [도련] → 이바지-차롱.
이반-초 명 <식> 그 해 들어서 두 번째 캐는 우뭇가사리. [전역] = 이번-초.
이버지 명 [전역] → 이바지.
이번-초 명 <식> [전역] → 이반-초.
이-베 명 [노형] → 왜-베.
이불 명 이불(衾). [전역]
이불-거죽 명 이불-거죽(衾--). 이불의 윗거죽. [전역] = 이불-거치, 이불-걱죽.
이불-거치 명 [수산 김녕 조수] → 이불-거죽.
이불-걱죽 명 [가시] → 이불-거죽.
이불-깃 명 이불-깃. 이불(衾) 겉으로 머리에 오는 쪽에 따로이 붙인 큰 헝겊. [전역]
이불-요 명 이불-요. 이불(衾)과 요(褥). [전역]
이불-자리 명 이부-자리. [전역]
이불-포 명 이불-보(衾-). [전역]
이빨검은-조기 명 <동> 조기의 일종. [대포]
이사 조 이야.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그에만 한정되거나 또는 강조하는 뜻을 나타낼 때 쓰이는 격조사. [전역]
이상[1](理想) 명 이상. [전역]
이상[2](異常) 명 이상. [전역]
이상-ᄒᆞ다(異常--) 형 이상-하다. [전역] = 우상-ᄒᆞ다.
이서-꼿 명 <민> 이사 뒤에 생기는 나쁜 일. [전역]
이석-이석 부 [전역] → 이슴-이슴.
이석-줏다 동 고구마나 보리 따위를

거둔 밭에서 그 지스러기를 줍다. [노형 조수 어도 태흥]

이수 명 이듭. 말(馬)의 나이 두 살. [전역] = 이쉬.

이수-마 명 <동> [전역] → 이수-매.

이수-매 명 <동> 나이가 두 살이 된 말. [전역] = 이수-마, 이쉬-매.

이수-ᄒᆞ다 동 남에게 무엇을 틀림없이 가져다 전하다. [전역]

-이순 어미 -이에요. -이오.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합쇼' 또는 '하오' 할 자리에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전역]

이쉬 명 [전역] → 이수.

이쉬-매 명 <동> [전역] → 이수-매.

이스렁 명 <지> [전역] → 이스렁-오름.

이스렁-오름 명 <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한라산 국립공원, 1100고지 동북쪽에 있는 오름. 표고 1353미터. [전역] = 이스렁.

이슥-이 부 이슥-히. ① 밤이 깊도록. [전역] ② 한동안 있다가. [전역] = 이식-이, 이슴-이, 이심-이.

이슥이-오름 명 <지> [신례 한남] → 이승이-오름.

이슥-ᄒᆞ다 형 이슥-하다. ① 밤이 매우 깊다. [전역] ② 거리(距離)가 조금 멀다. [전역] = 이식-ᄒᆞ다.

이슬 명 이슬(露). [전역]

이슬-방울 명 이슬-방울(露--). [전역] = 이슬-방울.

이슬-방울 명 [전역] → 이슬-방울.

이슬-지다 동 이슬-지다. 이슬이 맺히다. [전역]

이슴-이 부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이슥-이.

이슴-이슴 부 이엄-이엄. [전역] = 이석-이석.

이승 명 이승(此生). [전역] 교 이싱.

이승이-오름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 생길이오름 북서쪽에 있는 오름. 표고 539미터. [전역] = 이슥이-오름.

이승풀 명 <민> 이순풍(李淳風). 진(秦)의 도가(道家). [전역]

이싱-굴 명 <지> [전역] → 이싱이[1].

이싱이[1] 명 <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2리의 옛 이름. [애월] = 이싱이-굴, 이신-굴, 이신이-굴, 이싱이[1].

이싱이[2] 명 <지> [노형] → 이싱이[2].

이싱이-굴 명 <지> [전역] → 이싱이[1].

이시껭이 부 한참 동안. *수목 어염에 가가지고 이제는 담배를 흔 대 피울랴고, 이시껭이 이시니.(수목(樹木) 곁에 가서 이제는 담배를 한 대 피우려고, 한참 동안 있으니.) [구좌]

이시다 동 [전역] → 잇다[2].

이식 감 소(牛)를 모는 소리. [전역] = 이식-게.

이식-게 감 [전역] → 이식.

이식-이 부 [전역] → 이슥-이.

이식-ᄒᆞ다 형 [전역] → 이슥-ᄒᆞ다.

이신계-오름 명 <지> 서귀포시 토평동에 있는 오름. 표고 233미터. [토평 상효]

이신-굴 명 <지> [전역] → 이싱이[1].

이신-산(伊信山) 명 <지> [토평 하례] → 인정-오름.

이신이-굴 명 <지> [전역] → 이싱이[1].

이-신질 명 <민> 두 번째로 신에게 역

가(役價)를 바치는 당주맞이 신굿. 심방은 세 번 신길을 닦아야 큰심방으로 인정받는 상신충(上神充)이 됨. [전역]

이심-이 부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이슥-이.

이싱이[1] 명 <지> [전역] → 이싱이[1].

이싱이[2] 명 <지> 제주시 해안동(海安洞)의 옛 이름. [노형] = 이싱이[2].

이-아의 대 [전역] → 이-아이.

이-아이 대 이-아이. [전역] = 이-아의, 야의, 야이, 일미.

이야홍 명 <요> 제주도 고유의 경쾌하고 흥겨운 창민요. 여러 사람이 함께 즐길 때 흔히 부르는데, 가끔 망건겯기 등 갓일을 치르면서도 부름. [전역]

이약 명 이야기. [한림]

이엄 명 [전역] → 에염.

이여 조 하고. [전역] → 이영.

-이여 어미 -이다. 받침 있는 체언이나 동사의 명령형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사실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이여싸 감 [전역] → 이여차.

이여차 감 이여차. [전역] = 이여싸.

이열 명 <민> 가슴이 답답한 증세. [전역]

이열-새(-熱-) 명 <민> 열이 나 가슴이 답답하게 하는 사기(邪氣). [전역]

이영[1] 부 이렇게. [전역] = 영[1], 옹.

이영[2] 조 하고. ① 두 가지 이상의 사물을 늘어놓아 말할 때,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 쓰이는 격조사. [전역] *물을 일러 부러서 종이영 장남덜이영 내여 놩 막 춪아보뒈, 뭐 물이 셔야지.(말을 잃어 버려서, 종(奴)이랑 머슴들이랑 풀어 놓아 마구 찾아보았으되, 뭐 말이 있어야지.) [전역] ② 상대가 되는 어떤 객체를 나타내는 데 쓰이는 격조사. [전역]

이영-저영 부 이럭-저럭. [전역]

-이옌[1] 어미 받침 있는 체언이나 동사의 명사형에 붙어서, '하게' 또는 '해라' 할 자리에서 상대방이 말한 바를 반문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이옌[2] 어미 -이라고.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사실에 대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이여'의 변형 '-이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듣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이옝 어미 -이라고.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사실에 대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이여'의 변형 '-이예'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듣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이왕(已往) 명 이왕. 지금보다 이전. [전역]

-이우가 어미 -입니까. 받침 있는 체언이나 동사의 명사형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사실 또는 동작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어디서 온 어른이우가?(어디서 온 어른입니까?) [전역] =

-이우강, -이우광, -이우까, -이우깡.
-이우강 어미 -입니까. [전역] → -이우가.
-이우광 어미 -입니까. [전역] → -이우가.
-이우까 어미 -입니까. [전역] → -이우가.
-이우깡 어미 -입니까. [전역] → -이우가.
-이우다 어미 -입니다. ①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입니다'의 뜻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② 동사의 명사형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에 대하여 '-입니다'고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이울다 동 *이제는 신 뭣이 하르방은 병으로 막 이울어 노니까.(이제는 신 아무개 할아버지는 병으로 몹시 야위어 놓으니까.) [전역] → 유을다.
이웃 명 이웃(隣). [전역] = 읒[2].
이웃-집 명 이웃-집. [전역] = 읒-집.
이원-ᄉᆞ제 명 <민> 저승의 사자(使者) 이름. 저승길을 관리하는 사자. [전역]
이월 명 [전역] → 영등-돌.
이웨 명 [전역] → 의웨.
이으다 동 잃다. *보리 방엔 물 서꺼 놓안 이은 종도 춪이레 간다.(보리 방아는 물 섞어 놓아서 잃은 종(奴)도 찾으러 간다.) [전역]
이으음이 부 조금 오래. *인제 이으음이 시니 오좀 눅는 냥도 읏고.(이제 조금 오래 있으니 오줌 누는 양도 없고.) [노형]
이읫-돌 명 <건> [어도 조수] → 이힛-돌.
이-자 명 이-자(-者). [전역] = 이-재.
이장-통 명 <어> 이장(里長) 물통. 이장의 수고에 대한 사례로 그에게 배정해서 해산물을 캐게 하는 잠수 어장. [가파도]
이-재 명 [전역] → 이-자.
이전 명 이전(以前). [전역]
이접-그물 명 <어> 두 겹으로 짠 그물. *삼접그물은 안 뒈. 지금 이접그물까지 ᄒᆞ곡. 웨접구물 가정 ᄒᆞ곡.(세 겹으로 짠 그물은 안 돼. 지금은 두 겹으로 짠 그물까지 하고, 한 겹으로 짠 그물을 가지고 하고.) [이호]
이제 명 이제(今). [전역]
이중(二重) 명 이중. [전역]
이지다 동 잊다(忘). [전역] = 이치다.
이질(痢疾) 명 <병> 이질. [전역] = 뒤-틀움, 이질-벵, 쉐움.
이질-벵 명 <병> [전역] → 이질.
이ᄌᆞ 명 이자(利子). [전역] = 잇ᄌᆞ.
이치(理致) 명 이치. [전역]
이치다 동 [전역] → 이지다.
이틀-날 명 이튿-날. [전역]
이-파리 명 [전역] → 입-생기.
이힛-돌 명 <건> 디딤-돌. [인성 조수 서홍 김녕] = 여읫-돌, 이읫-돌, 잇-돌.
익다[1] 동 익다(熟). [전역]
익다[2] 동 읽다(讀). [전역]
익모-초 명 <식> 익모-초(益母草). [전역]
익숙-ᄒᆞ다 형 익숙-하다. [전역]
익은-녘 명 <농> 밭매기 성원들 중 그

기량이 가장 뛰어난 쪽의 사람. [하원]

-인가 어미 -인가. 받침 있는 체언이나 형용사의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사실이나 상태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인간체서-본풀이 명 <민> 차사영맞이에서 구연하는 인간 차사의 내력. 내용은 차사본풀이와 같음. [전역]

인-갈르다 동 타작한 곡식에서 곡식알과 지푸라기 따위를 서로 분리하다. [전역]

인-갈름 명 <농> 메밀짚과 메밀을 도리깨로 타작하여 분리하는 일. [덕수]

인다라 명 <지> 제주시 아라1동 인다마을의 옛 이름. [아라]

-인덜 어미 -인들. [전역] → -ㄴ들.

-인데 어미 -인데. [전역] → -인디.

인동-고장 명 인동초에 피는 꽃. [노형 어도 조수 인성 서홍] = 윤동-고장, 은동-고장, 인동-꼿.

인동-꼿 명 [수산] → 인동-고장.

인동-줄 명 <식> 인동-덩굴. [전역] = 연동-줄, 윤동-줄, 은동-줄, 인동-출.

인동-출 명 <식> [가시] → 인동-줄.

인들 조 인들. 받침 있는 명사·대명사에 붙어서 양보나 반문의 뜻을 나타내는 데 쓰이는 격조사. [전역]

-인디 어미 -인데.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그 말과 상관될 만한 어떤 말을 끌어내기 위하여 쓰이는 연결어미. [전역] = -인데.

인독의 소리 구 사람이 닭의 울음소리를 흉내내는 소리. *독이 운뎅 질헹을 마소. 독의 소리 인독의 소리.(닭이 운다고 나들이를 마오. 닭의 소린 '인독의 소리'.) [전역]

인심(人心) 명 인심. [전역]

인숨 명 인삼(人蔘). [전역]

인숫-성 명 인사-성(人事性). [전역]

인절미 명 <음> [노형 어도] → 은절미.

인정[1](人情) 명 인정. ①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심정. [전역] ② 남을 동정하는 따뜻한 마음. [전역]

인정[2](人情) 명 <민> 신(神)에게 바치는 모든 재화(財貨)의 총칭. [전역]

인정-걸다(人情--) 동 <민> 신(神)에게 재물을 바치다. [전역]

인정-고름 명 <민> 영혼을 위하여 길을 치워 닦는 의례인 질침을 할 때 신칼로 점을 보아 가족들이 걸어놓은 인정을 고르게 함. [전역]

인정-오름 명 <지> 서귀포시 영천동 토평 북서쪽에 있는 낮은 오름. 표고 233미터. [전역] = 이신-산(伊信山).

인주(印朱) 명 [전역] → 도장-밥.

-인지 어미 -인지.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막연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또는 연결어미. [전역]

인주-스럽다 형 인자-스럽다(仁慈---). [전역]

인측 부 일찍. [전역] = 인칙.

인칙 부 [전역] → 인측.

일가 명 일가(一家). ① 한 집안. [전역] ② 동성동본의 겨레붙이. [전역]

-일걸 어미 -일걸. 받침 있는 체언에 붙어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일고-여덟 수 일고-여덟(七, 八). [전역]

= 일고-ᄋᆞᆮ돕.
일고-ᄋᆞᆮ돕 주 [전역] → 일고-여돕.
일곱[1] 명 소(牛)의 나이 일곱 살. [전역]
일곱[2] 주 일곱(七). [전역]
일곱-물[1] 명 [노형 어도 조수 인성 화순 하원] → ᄋᆞᆮ돕-물[2].
일곱-물[2] 명 음력 보름과 그믐날의 조수(潮水). [서홍 태흥 표선 수산 가시 세화 조천] [노형] = ᄋᆞᆺ-물[1].
일곱애기단ᄆᆞ실-청 명 <민> 일뤳당신과 함께 좌정한 아기 신. [전역] = 일곱애기단ᄆᆞ을-청.
일곱애기단ᄆᆞ을-청 명 <민> [전역] → 일곱애기단ᄆᆞ실-청.
일과-악(日果岳 · 日課岳) 명 <지> [전역] → 가시낭-오름.
일-꾼 명 일-꾼. [전역]
일-내 명 <지> 제주시 일도동(一徒洞)의 옛 이름. [일도 오라 건입]
일년-감(一年-) 명 <식> 일년-감. 토마토. [전역]
일년-내냥(一年--) 부 일년 내내. [전역]
일-놉 명 품삯을 주고서 일을 시킨 사람. [전역]
일다[1] 동 일다. ① 처음으로 생기다. [전역] ② 왕성(旺盛)하여지다. [전역]
일다[2] 동 이다. 지붕 위를 띠로 덮다. [전역]
일다[3] 동 곡식이나 사금 따위를 그릇에 담아 물을 붓고 이리저리 흔들어서 쓸 것과 못쓸 것을 가려내다. [전역]
일-대(一代) 명 [전역] → 혼-데.
일러-불다 동 [전역] → 여-불다.
일롬 명 [전역] → 일홈.
일루다[1] 동 난(亂) 등을 일으키다. * 백성들이 굶어 죽게 뒈니 강성방이 난을 일롯어.(백성들이 굶어 죽게 되니, 강형방(姜刑房)이 난(亂)을 일으켰어.) [전역]
일루다[2] 동 이루다(成). [전역]
일룬 명 돼지를 잡아서 베어 낸 갈비와 후각(後脚) 사이의 부분. [전역] = 무러-짱.
일뤠 명 이레(七日). [전역] 고 닐웨.
일뤠-중저 명 <민> 이렛당의 신. [전역] = 일뤠-할망, 일뤳-도.
일뤠-할망 명 <민> [전역] → 일뤠-중저.
일뤳-당 명 <민> 이렛-당. 매달 7 · 17 · 27일에 다니는 신당. 이 당에 모신 여성신 일뤠할망은 어린아이의 치병과 산육을 담당함. [전역]
일뤳-도 명 <민> [전역] → 일뤠-중저.
일뤳-메 명 <민> 아기를 분만한 후 이레째 되는 날 아기의 생육을 관장한다는 삼승할망에게 감사하고 잘 자라기를 기원하는 뜻으로, 방 구석이나 벽 위에 차려 놓은 할망상에 올리는 메. [전역]
일르다 동 *(속) 벨 걸음ᄒᆞ당 본 걸음 일른다.(별난 걸음하다가 본디 걸음 잃는다.) [전역] → 일흐다.
일른-송애기 명 음력 섣달에서 정월 사이에 이른 시기에 낳은 송아지. [상도 성산 수산]
일름 명 [전역] → 일홈.
일-리다 동 일으키다. [전역]
일-문전(一門前) 명 <민> 삼방(上房), 즉 마루방의 앞쪽 문 또는 그 문의 신(神). [전역]

일미 대 [세화 수산 조천] → 이-아의.
일반-초 명 그해 들어서 처음으로 캐는 우뭇가사리. [전역] = 일번-초.
일번-초 명 [전역] → 일반-초.
일본-고치낭 명 <식> 구기자-나무. [전역]
일본-물질 명 <어> 제주 해녀들이 일본의 각 연안과 섬에 돈벌이로 우뭇가사리·전복·소라 등 해산물을 캐기 위하여 해마다 약 반년씩 무리지어 나가 살면서 작업하는 일. [전역]
일부-혼잔 명 <민> 굿에서 위계대로 신명을 열거하며 잔을 올리는 제차. [전역] = 잔-잡힘.
일-성 명 일하는 솜씨. 일-손. *일성으로 못ᄒᆞ나망정 소리로나 권력이다.(일솜씨로 못할망정 소리로나 권력이다.) [전역]
일식(日蝕) 명 일식. [전역]
일어-나다 동 일어-나다(起). [전역]
일어-사다 동 일어-서다(起立). [전역] = 일어-ᄉᆞ다.
일어-ᄉᆞ다 동 [전역] → 일어-사다.
일-없다 형 일-없다. [전역] = 일-엇다, 일-읎다, 일-읏다.
일-엇다 형 [전역] → 일-없다.
일월(日月) 명 <민> [전역] → 군웅.
일월-맞이(日月--) 명 <민> 한 집안의 수호신을 맞이하는 제차. [전역]
일월-제석(日月--) 명 <민> [전역] → 군웅.
일은 수 [전역] → 일흔.
일-읎다 형 [전역] → 일-없다.
일-읏다 형 [전역] → 일-없다.
일전(日前) 명 일전. [전역]
일찌감치 부 일찌감치. [전역]
일찌거니 부 일찌거니. [전역] = 일찌겡이.
일찌겡이 부 [전역] → 일찌거니.
일찍[1] 부 [전역] → 일찍이.
일찍[2] 부 얼마 전(前)에. [전역]
일찍이 부 일찍이. [전역] = 일찍[1].
일천-동산 명 <지> [한경] → 일쳇-동산.
일쳇-동산 명 <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묵굴'(水洞)의 '뒷동산' 바로 남동쪽에 있는 동산. [한경] = 일천-동산.
일출-봉(日出峰) 명 <지> [전역] → 성-산(城山).
일컫다 동 일컫다(稱). [전역] = 일ᄀᆞᆯ다.
일-쿰 명 [노형 수산 인성] → 품-삭.
일ᄀᆞᆯ다 동 [전역] → 일컫다.
일포-제(日晡祭) 명 일포-제. [전역]
일-품 명 [서홍 수산 김녕 가시] → 품삭.
일홈 명 이름(名). [전역] = 일롬, 일름.
일흐다 동 잃다(失). [전역] = 일르다. 고잃다.
일흔 수 일흔(七十). [전역] = 일은.
임노리-낭 명 <식> [김녕] → 윤누리-낭.
임댕-거리 명 [전역] → 이망-거리.
임뎅이 명 [전역] → 이멩이.
임성배기 명 [전역] → 이멍-셍이.
임수와기 명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이멍-셍이.
임-신 명 <민> 신을 일컫는 말. 주로 선신(善神)을 뜻함. [전역]
임제[1] 명 임자. 동물을 기르거나 물건을 차지하고 있는 주인. [전역]

임제[2] 명 임자. ① 친한 사람끼리 서로 부르는 말. [전역] ② 아내가 남편을 부르는 말. [전역]

임춘-춘경 명 <민> 입춘춘경(立春春耕)의 와음(訛音). 입춘-굿. 입춘날 전도의 심방이 동헌 앞에서 관원과 더불어 신년 농사의 풍등을 기원하던 굿. [전역]

입[1] 명 입(口). *(속) 입으로만 꿩이여 매여.(입으로만 꿩이다 매다.) *사름 입으로 못홀 말 시랴.(사람의 입으로 못할 말 있으랴.) *족은 입으로 굴은 말 너븐 치메깍으로 못 막나.(작은 입으로 한 말 넓은 치맛자락으로 못 막는다.) [전역]

입[2] 명 [전역] → 섭[1].

입-가물다 동 입-다물다. [인성 노형 조수 서홍] = 입-ᄀᆞ물다, 입-다물다.

입-가야미 명 [노형 조수] → 입-게야미.

입-개미 명 [조수 수산 가시] → 입-게야미.

입-게야미 명 두 입술이 위, 아래로 째진 양쪽 구석. [인성 서홍 김녕] = 입-가야미, 입-개미.

입구-상냥 명 <민> '입주상량'(立柱上樑)의 와음(訛音). [전역] = 잇고-상량.

입-ᄀᆞ물다 동 [김녕 노형 조수 인성] → 입-가물다.

입-노프다 형 입이 되다. 맛있는 음식만 먹으려는 버릇이 있다. [전역]

입-놀리다 동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하느라고 입을 여닫으며 움직이다. [전역]

입-ᄂᆞ물 명 [전역] → 섭-ᄂᆞ물.

입다 동 입다(被). [전역]

입-다물다 동 [전역] → 입-가물다.

입-다시다 동 입맛 다시다. 음식이 먹고 싶어 입술을 열었다 닫았다 하다. [전역]

입다심-ᄒᆞ다 동 시장기를 면할 정도로 음식을 간단히 먹다. [전역]

입-담 명 입-담. 말하는 힘과 솜씨. [전역]

입-담베 명 [전역] → 섭-담베.

입동-례(入洞禮) 명 새로 마을에 이주해 온 사람에게 받는 금전. [사계]

입-맛 명 입-맛(口味). [전역]

입맛-쓰다 형 무엇을 먹고 나서 입에 쓴 맛이 있다. [전역]

입메-걸다 형 [전역] → 입메-좋다.

입메-좋다 형 먹성이 좋다. [전역] = 입메-걸다.

입메-졸르다 형 먹성이 까다롭다. [전역]

입-바위 명 '입술'의 가장자리. [전역]

입-벌리다 동 입-벌리다. [전역]

입-부리 명 '입'의 낮은말. [전역]

입-사우레기 명 [조수] → 입-수와리.

입산-낭 명 잎이 살아 있는 나무. 싱싱하게 살아 있는 나무. *입산낭도 무에레 간다.(잎이 살아 있는 나무도 매러 간다.) [전역]

입산-봉(笠山峰) 명 <지> [전역] → 삿갓-오름.

입-상귀 명 [전역] → 입-생기.

입-생기 명 잎-사귀. [전역] = 이-파리, 입-상귀, 입-생이.

입-생이 명 [전역] → 입-생기.

입성 명 입성. '옷'을 속되게 이르는 말. [전역]

입-세 명 입-매. 음식을 약간 먹고 시

장기를 면하는 일. [전역]
입세-ᄒᆞ다 동 입매-하다. 음식을 간단하게 먹어 시장기를 면하다. [전역]
입-솔기 명 [전역] → 입-술기.
입-수와리 명 '입술'의 낮은말. [노형 조수] = 입-사우레기.
입수-헤수 명 <민> 부정을 씻는 뜻으로 술을 머금었다 내뿜음. [전역]
입-술기 명 입술(脣). [전역] = 입-솔기. 고 입시울.
입-아귀 명 입-아귀. [전역] = 입-어귀.
입-아위다 동 위아래 입술을 크게 열어 벌리다. [전역] = 입-어위다.
입-어귀 명 [전역] → 입-아귀.
입-어위다 동 [전역] → 입-아위다.
입-여께 명 남의 이야깃거리. [전역]
입쟁이 명 <건> 간가름도리와 장지틀 사이에 세우는 세로 부재. [전역]
입제 명 [전역] → 입ᄌᆞ.
입-주뎅이 명 [수산] → 입-주둥이.
입-주둥이 명 입-주둥이. [전역] = 입-주뎅이.
입-지다 동 입-히다. [전역]
입ᄌᆞ 명 입자(笠子). 갓. [전역] = 입제.
입-쫄름 명 <민> 말-싸움. *놈ᄒᆞ고 입쫄름ᄒᆞ고 싸움ᄒᆞ곡 홀 때옌, 형님 생각나집데다.(남하고 말싸움하고 싸움하고 할 때에는 형님이 생각납디다.) [전역]
입-천장 명 [노형 조수] → 웃-하늘.
입-ᄐᆞ레기 명 [전역] → 입-ᄐᆞ리왜기.
입-ᄐᆞ리왜기 명 입-비뚤이. [전역] = 입-ᄐᆞ레기.
잇고-상량 명 <민> [전역] → 입구-상냥.
잇-골 명 <지> 제주시 연동(蓮洞)의 옛 이름. [연 오라 노형]
잇다[1] 동 잇다(繼). [전역] 고 닞다.
잇다[2] 동 사람이나 동물이 어느 곳에서 떠나거나 벗어나지 아니하고 머물다. [전역] = 이시다, 싯다[2].
잇다[3] 형 있다. [전역] = 싯다[3].
잇-돌 명 <건> [전역] → 이힛-돌.
잇-속 명 잇-속(利-). [전역]
잇ᄌᆞ 명 [전역] → 이ᄌᆞ.
잉감 명 [하도] → 언감.
잉겅-불 명 잉걸-불. [전역]
잉금 명 임금. *요 멍에랑 메여근에 우리 잉금 바쪄 가멍.(요 밭머릴랑 매어서는 우리 임금께 바쳐 가며.) [전역]
잉어 명 <동> 잉어(鯉魚). [전역]
잉어메어-살림 명 <민> 맞이굿에서 청한 신을 제상으로 모셔 들이는 제차. [전역]
잉에 명 잉아(綜絲). 베틀의 날실을 한 칸씩 걸러서 끌어올리도록 맨 굵은 실. [전역]
잉으다 동 이다(戴). [전역]
잉잉 부 잉잉. 어린아이가 밉살스럽게 우는 소리. [전역] = 힝힝.
ᄋᆞ 감 [전역] → 오.
ᄋᆞ멩 명 아명(兒名). [전역] = ᄋᆞ명.
ᄋᆞ명 명 [전역] → ᄋᆞ멩.
ᄋᆞ-사귀 명 <민> 아이가 죽어서 된 귀신. [전역]
ᄋᆞ상-ᄋᆞ상 부 슬몃슬몃 걷는 모양. [전역]
ᄋᆞ슬랑-ᄋᆞ슬랑 부 아슬랑-아슬랑. [전역]
ᄋᆞ시록-ᄒᆞ다 형 되바라지지도 번화롭

지도 않아서 구석지고 매우 고요하다. [전역]

ᄋᆞᆼ-준다니 명 원망하는 뜻으로 듣기 싫게 종알거리는 잔소리. [전역]

ᄋᆞ저-오다 동 [어도 조수 인성 화순 하원] → 가저-오다.

ᄋᆞ지다 동 [어도 조수 인성 화순 하원] → 가지다.

ᄋᆞ총 명 아총(兒塚). 어린아이의 무덤. [전역]

ᄋᆞᆫ질-ᄋᆞᆫ질 부 매우 단작스러운 일을 생각하거나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할 때에 마음이 안정되지 아니하여 간질간질하게 느껴지는 모양. [전역]

올리 명 <식> 밭에 나는 잡초의 일종. [대포]

옵찍-돌싹 부 [수산] → 옴찍-돌싹.

ᄋᆞᆼ알-ᄋᆞᆼ알 부 응얼-응얼. [전역]

ᄋᆞᆼᄋᆞᆼ 감 [전역] → 응응[1].

ᄋᆞᆼ진-ᄋᆞᆼ진 부 불평을 품고서 혼자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는 모양. [전역]

옺다 동 [어도 인성 조수 화순 하원] → 갖다.

ᄋᆞ끄다 동 [전역] → 여끄다.

ᄋᆞ남은 주관 *부젯집이난 종늠덜 ᄒᆞᆫ ᄋᆞ남은 ᄃᆞᆯ앙 살곡.(부잣집이니까 종놈들을 한 여남은 데려서 살고.) [노형 조수 인성 화순 하원 서홍 어도 조천] → 여남은.

ᄋᆞ답 주 [인성 화순] → ᄋᆞᆮ답[2].

ᄋᆞ드레 명 여드레(八日). [전역] = 여드레. 고여ᄃᆞ래.

ᄋᆞ드렛-날 명 여드렛-날. [전역] = 여드렛-날.

ᄋᆞ드렛-당 명 <민> 여드렛-당. 제일이 매달 8·18·28일인 당. 주로 서귀포시 동부 지역에 집중 분포함. 표선면 토산리 일대의 신당은 뱀신을 모심. [전역]

ᄋᆞ드렛-도 명 <민> 제일이 매달 8·18·28일인 여드렛당의 신. [전역]

ᄋᆞ든 주 여든(八十). [전역] = 여든. 고여ᄃᆞᆫ.

ᄋᆞ든이 명 아기가 여든 살이 되도록 오래오래 살라는 뜻으로 어렸을 때 붙이는 별명. [전역]

ᄋᆞ돌 주 [전역] → ᄋᆞᆮ답[2].

ᄋᆞ돌-돌 명 [수산] → ᄋᆞᆮ답-돌.

ᄋᆞᆮ답[1] 명 소(牛)의 나이 여덟 살. [전역]

ᄋᆞᆮ답[2] 주 여덟(八). [전역] = ᄋᆞ답, ᄋᆞᆯ. 고여ᄃᆞᆲ.

ᄋᆞᆮ답-돌 명 여덟-달(八個月). [전역] = ᄋᆞᆯ-돌.

ᄋᆞᆮ답-물[1] 명 [노형 어도 조수 인성 화순 하원] → 아홉-물[2].

ᄋᆞᆮ답-물[2] 명 음력 초하루와 열엿샛날의 조수(潮水). [서홍 수산 표선 태흥 세화 조천 노형] = 입곱-물[1].

ᄋᆞ라 관 여러. [전역] = 여라.

ᄋᆞ라-가지 명 [전역] → 여라-가지.

ᄋᆞ라-개 명 여러-개. [전역] = 여라-게, ᄋᆞ라-게.

ᄋᆞ라-게 명 [전역] → ᄋᆞ라-개.

ᄋᆞ라-날 명 [노형 조수 수산 김녕] → 여라-날.

ᄋᆞ라-ᄃᆞᆯ 명 [노형 조수 인성 김녕 가시] → 여라-ᄃᆞᆯ.

ᄋᆞ라-말 명 여러 말(雜談). 잡다한 말. *ᄋᆞ라말 말아 줍서.(여러 말 하지 말아 주십시오.) [전역]

ᄋᆞ라-분 대 [전역] → 여러-분.
ᄋᆞ라-이 명 여럿-이. 많은 사람. [전역] = 여라-이.
ᄋᆞ라-혜 명 [노형 조수 인성 가시 김녕 수산] → 여러-혜.
ᄋᆞ름[1] 명 *(속) 눈 낭에 ᄋᆞ름 안 온다.(누워 있는 나무에 열매가 맺지 않는다.) [노형 조수 인성 김녕 수산] → 여름[1].
ᄋᆞ름[2] 명 [전역] → 여름[2].
ᄋᆞ름-내낭 명 [전역] → 여름-내낭.
ᄋᆞ망-지다 형 미련하지 아니하고 영리하고 똑똑하다. *거 춤 아무래도 경 ᄋᆞ망진 놈은 불량을 ᄒᆞ지.(거 참 아무래도 그렇게 뛰어난 놈은 불량(不良)을 하지.) [전역]
ᄋᆞ무-차다 형 야무-지다. *정의고을 돌하르방은 ᄋᆞ무차덴 평론을 경 헤부럿는디.(정의고을 돌하르방은 야무지다고 평론을 그렇게 해버렸는데.) [성읍]
ᄋᆞ물[1] 명 알맹이. *점복은 암커가 맛이 잇넨 ᄒᆞ여. 따시 수컨 ᄋᆞ물이 하곡.(전복은 암컷이 맛이 있다고 해. 또 수컷은 알맹이가 많고.) [이호]
ᄋᆞ물[2] 명 *(속) 늙은 쉐 ᄋᆞ물 말렝 ᄒᆞ랴.(늙은 소가 여물 마다고 할까.) [전역] → 여물.
ᄋᆞ몰 명 [조수] → 여물.
ᄋᆞ보록-ᄉᆞ보록 부 [김녕 조수 인성 노형] → 여부록-ᄉᆞ부록.
ᄋᆞ붓-ᄋᆞ붓 부 [전역] → 여붓-여붓.
ᄋᆞ습 명 [전역] → 여습.
ᄋᆞ슷 수 [인성 표선 수산] → 여섯.
ᄋᆞ시다 동 [조수] → 여ᄉᆞ다.
ᄋᆞ숫 수 [전역] → 여섯.
ᄋᆞ숫-물[1] 명 [노형 어도 조수 인성 화순 하원] → 일곱-물[2].
ᄋᆞ숫-물[2] 명 음력 열나흘날과 스무아흐렛날의 조수(潮水). [표선 수산 세화 조천 노형] = 여슷-물, 다슷-물[1].
ᄋᆞ숫-째 수 [전역] → ᄋᆞ숫-채.
ᄋᆞ숫-채 수 여섯-째. [전역] = 여섯-째, 여섯-체, ᄋᆞ숫-째
ᄋᆞᆨ-갈리 명 [김녕 인성 수산] → 옵-갈리.
ᄋᆞᆨ-구레 명 [수산 김녕 김녕] → 옵-갈리.
ᄋᆞᆨ다[1] 동 말귀를 알아듣고 혼자 판단할 만큼 성장하다. [전역]
ᄋᆞᆨ다[2] 형 약다. [노형 어도 조수 인성 화순 세화]
ᄋᆞᆨ-동이 명 [어도] → ᄋᆞᆨ-둥이.
ᄋᆞᆨ-둥이 명 약-둥이. [노형 조수 인성] = 역-쉬, ᄋᆞᆨ-동이, ᄋᆞᆨ-쉬, ᄋᆞᆨ-쥐.
ᄋᆞᆨ-ᄇᆞ리다 동 [어도] → 역-ᄇᆞ리다.
ᄋᆞᆨ삭다 형 꾀가 있고 약빠르다. [노형 조수 인성 김녕]
ᄋᆞᆨ-쉬 명 [조수 노형 인성 서홍] → ᄋᆞᆨ-둥이.
ᄋᆞᆨ쉬-다리 명 [김녕 조수] → 역쥐-다리.
ᄋᆞᆨ은-거 명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역은-아이.
ᄋᆞᆨ은-꿰 명 *ᄋᆞᆨ은꿰 ᄒᆞ당 큰코 닥친다.(약은 잔꾀를 피우다가 큰코 다친다.) [조수 김녕] → 역은-꿰.
ᄋᆞᆨ은-슬게 명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역은-슬게.
ᄋᆞᆨ은-아의 명 [노형 인성 김녕 조수] → 역은-아이.

욕욕-ᄒᆞ다 형 사람이 약고, 미련하지 아니하다. [노형 조수]
욕-쥐 명 [김녕] → 욬-둥이.
욕쥐-ᄀᆞ트다 형 [어도 조수] → 역쥐-ᄀᆞ트다.
욕쥐-다리 명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역쥐-다리.
욜다 동 열다. ① 열매가 맺히다. [전역] ② 닫히거나 잠긴 것을 트거나 벗기다. [전역] = 열다.
욜메 명 [전역] → 여름[1].
욤다[1] 동 여물다. 곡식 알이 올차고 단단하여지다. [전역] = 염다.
욤다[2] 형 언행이 옹골차고 야무지다. [전역]
욤은-영아리 명 <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남조로변에 있는 오름. 표고 514미터. [전역] = 영아리.
욤치 명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염치.
욤치-읏다 형 염치-없다. [전역] = 염치-읏다.
욤통 명 염통(心臟). [전역] = 염통. 고 념통.
욥-빗 명 [김녕] → 에역-빗.
욥-ᄇᆞ리다 형 [김녕 조수] = 역-ᄇᆞ리다.
욥전 명 [전역] → 엽전.
욧-새 명 피륙의 날이 여섯 새를 가리킴. 한 새는 날실 여든 올을 말함. [전역] = 욧-세.
욧새-미녕 명 [전역] → 욧세-미녕.
욧-세 명 [전역] → 욧-새.
욧세-미녕 명 여섯 새로 짠 무명. 곧 백스무 올로 짠 무명. [전역] = 욧새-미녕, 욧쉐-미녕.
욧-쉐 명 엿새(六日). [전역] = 엿쉐. 고 여쐐.
욧쉐-미녕 명 [태흥 표선 조천 어도] → 욧세-미녕.
욧아-듣다 동 [전역] → 엿아-듣다.
용 부 [노형 조수 인성] → 이영[1].
용용-ᄒᆞ다 동 이러이러-하다. [전역]
욮 명 옆. 근처. [전역] = 옆.
욮-가슴 명 앞가슴의 양쪽 옆. [전역] = 역-가슴.
욮-갈리 명 옆-구리. [조천 노형 어도 조수 인성 서홍] = 역-갈리, 옆-갈리, 욕-갈리, 욕-구레, 욮-구레. 고 녑.
욮갈리-꽝 명 옆-갈비. 몸의 양쪽 옆구리에 있는 갈비뼈. [전역] = 옆갈리-꽝.
욮-구레 명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욮-갈리.
욮눈-질 명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젓눈-질.
욮-뎅이 명 옆-댕이. [인성 조수 노형 서홍 김녕] = 옆-뎅이.
욮의-들다 동 시집-가다. 부부 관계를 맺다. [전역]

ㅈ

자[1] 명 자(尺). [전역]
자[2] 감 자. 행동을 재촉할 때에 내는 소리. [전역]
-자[1] 어미 -자. 동사의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행동을 하기를 청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나ᄒᆞ고 ᄀᆞ찌 벗ᄒᆞ자.(나하고 같이 벗하자.) [전역]
-자[2] 어미 -게. 동사의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행동을 하기를 명령하는 뜻을 나타내는 명령법 어미. *말곧건 듣자.(말하거든 듣게.) [전역]
자갈[1] 명 [전역] → 작지.
자갈[2] 명 재갈. [전역]
자갈-밧 명 [전역] → 작지-왓.
자갈-코 명 <도> [전역] → 마음-석.
자게 부 *허천바레지 말앙 자게 걸으라.(다른 곳을 보지 말고 빨리 걸어라.) [전역] → 재기.
자골 명 <식> 자귀-풀. [전역] = 자굴.
자골-낭 명 <식> [신엄] → 자귀-낭.
자골-촐 명 자귀풀의 씨앗을 뿌려 마련한 꼴. [선흘]
자구나-므르 명 <지> 제주시 아라1동의 한 자연마을. [아라]
자구-낭 명 <식> [전역] → 자귀-낭.
자국-떼다 동 걸음발 타다. 어린애가 처음으로 걸음발을 하기 시작하다. *그 애기 자국떼는 것 보난 곧 걸으컨게.(그 아기 걸음발 타는 것을 보니 곧 걷겠네.) [전역] = 자국-버리다, 자국-벌리다.
자국-버리다 동 [전역] → 자국-떼다.
자국-벌리다 동 [전역] → 자국-떼다.
자국-종그다 동 발자국의 자취를 뒤따르다. [전역]
자굴 명 <식> [김녕 노형 조수] → 자골.
자굴-그루 명 자귀풀을 베어낸 그루. *저 검은오름 앞의 보리 스물 다섯 말지기 자굴그루가 이신디 그걸 이겨사 금년 산될 ᄒᆞ여 볼 건디 걸 이기지 못ᄒᆞ연.(저 검은오름 앞에 보리 스물 다섯 마지기 '자굴그루'가 있는데, 그것을 개간해야 금년 밭벼를 해 볼 것인데, 개간하지 못해서.) [대정]
자굴-낭 명 <식> [전역] → 자귀-낭.
자굴-촐 명 <식> 자귀풀의 열매가 맺기 전에 소먹이용으로 베는 풀. [전역]
자귀 명 <도> 자귀. 나무를 깎는 연장. [전역]
자귀-낭 명 <식> 자귀-나무. [전역] = 자골-낭, 자구-낭, 자굴-낭.
자그락-자그락 부 자그락-자그락. [전역]



자귀

자근-자근 부 자근-자근. 몹시 괴롭게 조르는 모양. [전역]

자글-자글 부 남이 듣기에 딱하도록 말만 늘어놓는 모양. [전역] = 자긋-자긋.

자긋-자긋 부 [전역] → 자글-자글.

자꼬 부 [전역] → 자꾸.

자꾸 부 자꾸. ＊요샌 자꾸 죽어분 어멍 생각 남수다.(요즘은 자꾸 돌아가신 어머니 생각이 납니다.) [전역] = 자꼬.

자나-깨나 부 자나-깨나. [전역]

자-낙게 명 <음> 떡의 일종. [전역]

자네[1] 대 [전역] → 자의.

자네[2] 대 자네. [전역]

자다 동 자다. ① 잠이 들다. [전역] ② 출렁이던 파도가 잔잔해지다. [전역] ③ 불던 바람이 그치다. [전역]

자단-입 명 잔-입. 자고 일어나서 아직 아무것도 먹지 아니한 입. [전역]

자-돔 명 <동> [노형 조수 조천] → 자리[2].

자두룸-ᄒᆞ다 형 [조수] → 자주룸-ᄒᆞ다.

자락 부 ① 갑자기 힘있게 미는 모양. ＊경 자락 밀리민 뒈느냐.(그렇게 힘껏 밀면 되느냐.) ＊저레 자락 거밀려 불라.(저쪽으로 자락 밀어 버려라.) ＊어떤 사름이 뒤에서 자락 밀려부난 푸더졋수다.(어떤 사람이 뒤에서 '자락' 밀치니까 넘어졌지요.) [전역] = 가락, 자락-이, 잘락[1]. ② 과일 따위가 많이 달리거나 김 따위가 무성하게 난 모양. [전역] = 바락[1], 지락, 지락-이.

자락-이 부 [전역] → 자락①.

자락-자락[1] 부 주렁-주렁. ＊밧듸 강 보난 감이 자락자락 올아서라.(밭에 가 보니까 감이 주렁주렁 열었더라.) [전역]

자락-자락[2] 부 물기가 덜하여 좀 거칠듯한 상태나 모양. [전역] = 자락자락-이.

자락자락-이 부 [전역] → 자락-자락[2].

자락-ᄒᆞ다 형 나무 열매 따위가 많이 매달려 가지가 밑으로 휘늘어지다. ＊멀리가 자락ᄒᆞ게 올려신게.(머루가 '자락하게' 많이 열렸네.) [전역]

자랑 명 자랑. ＊서방 자랑 새끼 자랑ᄒᆞ는 게 아녀.(남편 자랑, 자식 자랑은 하는 것이 아니다.) [전역]

자랑-자랑 부 자장-자장. [전역]

자레 명 <동> 자라. [전역]

자려 무끄다 구 손발을 움직이지 못하게 동여 묶다. ＊어떻게야 자려 무껏는지 움직일 수가 읏어.(어떻게야 자려 묶었는지 움직일 수가 없어.) [노형]

자록-동 명 <지> [한경] → ᄌᆞ록물-동네.

자룡-동(雌龍洞) 명 <지> [한경] → ᄌᆞ록물-동네.

자르르 부 자르르. 자질구레한 물건을 한꺼번에 부어 떨어뜨릴 적에 나는

소리. [전역]

자륵탁 부 덜러덩. 미끄러지는 모양. [전역] = 지륵탁.

자리[1] 명 자리(席). [전역]

자리[2] 명 <동> 자리. [전역] = 자-돔.

자리[3] 명 돼지, 개, 닭 따위의 두 마리를 한 단위로 하여 세는 말. [전역]

자리[4] 명 <동> [표선 수산] → 재열.

자리[5] 명 장. 기(基). 무덤의 수를 헤아리는 단위. *해가 가믄 갈수록 자리 수는 늘어날 거주 뭐.(해가 가면 갈수록 장 수는 늘어날 거지 뭐.) [전역]

자리다[1] 동 굽-싸다. [전역]

자리다[2] 형 자리다. [전역] 고 자리다.

자리-물회 명 <음> 자리돔을 물에 넣어서 간을 치어 끓이지 않고 국처럼 먹는 음식. [전역]

자리-밧 명 <어> 자리돔이 서식하는 어장. [전역]

자리-비 명 <민> 의례용 선반인 당반 선생으로 일컬어지는 이. [전역]

자리왓-동네 명 <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한 자연마을. [애월] = 자이-동(者伊洞), 재리왓-동네.

자리-젓 명 <음> 자리돔으로 담근 젓. [전역]

자리-회 명 <음> 자리돔을 머리와 지느러미를 잘라 잘게 썰어 초고추장, 된장, 간장 등을 찍어 먹는 음식. [전역]

자릿-도새기 명 <동> 어미 젖을 떼었어도 아직 두 마리를 우리에 함께 넣고 기르는 돼지. [전역]

자릿-봇 명 [수산] → 재열-봇.

자박-자박 부 자박-자박. 건더기나 절이는 물건 따위가 겨우 잠길 정도로 물이 차 있는 모양. [전역]

자배-봉(資盃峰 · 子盃峰 · 資輩峰 · 雌輩峰) 명 <지> [전역] → 즈베-오름.

자부레기 명 그릇, 물건 따위가 쭈그러져 못 쓰게 된 것. [전역] = 자우레기.

자부세 명 모양이나 시늉을 낮추어 가리키는 말. 형용(形容)의 생김새. *이 천리 자부세가 이 모냥츠록 어디 갈 수 잇느냐?(이 천리 '자부세'가 이 모양처럼 어디 갈 수 있느냐?) [전역] = 다보새, 자부셍이, 자ᄇᆞ세, 짜보새.

자부셍이 명 [전역] → 자부세.

자ᄇᆞ세 명 *방안네 들어왕 보니 본 지 없는 사름이 의복 입은 자ᄇᆞ세쪼광 오란 으셍이 앚앗거든.(방안에 들어오고 보니,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의복(衣服) 입은 모양새하고 와서 오긋이 앉았거든.) [표선] → 자부세.

자빠-지다 동 자빠-지다. [전역]

자뿌라-지다 동 '자빠지다'의 낮은말. [수산 김녕]

자스름 명 <지> 서귀포시 상예동에 있는 나지막한 오름. 표고 110미터. [서귀포 중문]

자시-거리 명 <민> 먹을거리의 공대말. [전역]

자오 명 자랑. 거드름. *신 사름이랑 신 자오 말라. 읏인 날랑 주노랭 마라.(있는 사람일랑 있는 자랑 마라. 없는 날랑 주노라 마라.) [전역]

자오락 명 <식> 천일-사초. [전역] = 자우락.

자왈 명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

클어져서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 덤불. *업언 가다네 막 어멍이 죽어져 가는디, 자왈 트멍에 가니 어멍이 물 도랜.(업고 가다가 곧 어머니가 죽어가는데, 덤불 틈에 가니 어머니가 물 달라고 해서.) *(속) 봄 줌은 자왈에 걸어져도 잔다.(봄잠은 덤불에 걸려도 잔다.) [전역] = 자월.

자우라-지다 동 실그러-지다. [전역]

자우락 명 <식> [전역] → 자오락.

자우레기 명 [전역] → 자부레기.

자우름-ᄒᆞ다 형 갸우듬-하다. [전역]

자울다 동 기울다. [전역]

자울락-자울락 부 다리를 아주 절뚝거리며 걷는 모양. [전역] = 자울-자울[2].

자울아-지다 동 갸울어-지다. *바로 앚이라. 무사 경 자울아지게 앚암시니?(바로 앉아라. 왜 그리 갸울어지게 앉고 있니?) [전역]

자울여-보다 동 갸울어-보다. [전역]

자울이다 동 갸울-이다. 기울-이다. [전역]

자울-자울[1] 부 조는 모양. [전역]

자울-자울[2] 부 [전역] → 자울락-자울락.

자웃-거리다 동 갸웃-거리다. [전역]

자웃-자웃 부 갸웃-갸웃. [전역]

자웃-ᄒᆞ다 동 갸웃-하다. [전역]

자월 명 [인성] → 자왈.

자의 대 '저 아이'의 준말. [전역] = 자네[1], 자이, 절미.

자이 대 [전역] → 자의.

자이-동(者伊洞) 명 <지> [애월] → 자리왓-동네.

자자귀 명 [전역] → 자자기.

자자기 명 가납사니. *저 자자긴 누겐지 모르키여.(저 가납사닌 누군지 모르겠다.) [전역] = 자자귀, 자제기.

자작-거리다[1] 동 재깔-거리다. [전역]

자작-거리다[2] 동 잘난 체하다. [전역]

자작-이다 동 재깔-이다. [전역]

자작-자작 부 재잘-재잘. [전역]

자-장(雌獐) 명 노루의 암컷. [봉성 도순]

자제기 명 [전역] → 자자기.

자조 부 자주. *늘처록 자조 오민 아이 뒌다.(너처럼 자주 오면 아니 된다.) [전역]

자주룸-ᄒᆞ다 형 뒤로 조금 잦혀진 듯하다. [노형 조수 인성] = 자두룸-ᄒᆞ다, 자지룸-ᄒᆞ다.

자주-와기 명 말을 마구 재잘거리기를 잘 하는 사람. [전역] = 자주-와리, 자추-와기.

자주-와리 명 [김녕 어도] → 자주-와기.

자지 명 자지(腎). [전역]

자지룸-ᄒᆞ다 형 [서홍 수산 김녕] → 자주룸-ᄒᆞ다.

자지멩왕-아기씨 명 <민> 신의 이름. 초공본풀이의 여성신으로 삼멩두의 어머니. [전역]

자청-비 명 <민> [전역] → ᄌᆞ청-비.

자-채 명 <동> 자-벌레(蛀蠖). [전역]

자추-와기 명 [전역] → 자주-와기.

자치[1](雌雉) 명 <동> 암-꿩. [봉성]

자치[2] 명 자투리. [전역]

자-치기 명 자-치기. *두린 때는 자치기 하영 ᄒᆞ멍 놀앗주.(어린 때는 자치기 많이 하면서 놀았지.) [전역]

자파리 명 어떤 것을 가지고 하는 놀이 또는 장난. ＊어린 때 자파리가 심해서 말을 안 들엇는디.(어렸을 때 장난이 심해서 말을 안 들었는데.) [전역] = 잡파리.

자포-악(紫蒲岳) 명 <지> [남원] → 즈베-오름.

작다 형 [전역] → 족다[1].

작데기 명 작대기. ＊지게로 걸름 날를 때 작데기 지펑 일어사민 쉽게 일어사지메.(지게로 거름을 나를 때 작대기 붙잡아 일어서면 쉽사리 일어서진다.) [전역] = 거린-작데기, 거릿-댕이, 작쉬.

작데기-구름 명 작대기처럼 기다란 모양의 구름. ＊작데기구름이 걷어사 장마가 끝난덴 ᄒᆞ주.('작데기구름'이 걷혀야 장마가 끝난다고 하지.) [동명]

작도 명 <도> 작두(斫刀). [전역] = 작뒤.

작뒤 명 <도> [김녕] → 작도.

작멜 명 [전역] → 작지.

작멜-왓 명 [전역] → 작지-왓.

작박[1] 명 <농> 조를 파종하고 나서 4~5일 후 조의 '침'에서 하나의 곁잎이 난 모양을 두고 이르는 말. [상가]



작박[2]

작-박[2] 명 <도> 솥의 물을 퍼내는 바가지. 쪽-박. ＊옛날은 물이 하도 귀ᄒᆞ니까 비 와 나민 내창에 강 작박으로 물 뜰롸당 먹어낫주.(옛날은 물이 매우 귀하니까 비가 오고 나면 냇가에 가서 쪽박으로 물을 떠다 먹었었지.) [송당 행원]

작박도리-쉐 명 <동> 뿔이 뒤로 향한 수소. [전역]

작박-아구리 명 [수산 가시 김녕] → 작박-입.

작박-입 명 주걱처럼 생긴 입. [전역] = 작박-아구리.

작-반 명 아주 작고 기름하게 만든 널빤지. [어도]

작-벡 명 [전역] → 잣-벡.

작산- 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성숙한'의 뜻을 가진 접두사. [전역]

작산-것 명 ＊작산것이 울엄시냐?(다 큰 것이 울고 있느냐?) [전역] → 작산-아이.

작산-놈 명 [전역] → 작산-아이.

작산-아의 명 [전역] → 작산-아이.

작산-아이 명 많이 자란 아이가 나이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할 때 나무라서 하는 말. [전역] = 작산-것, 작산-놈, 작산-아의.

작산-어른 명 어른이 어른답지 않은 행동을 할 때, 그를 나무라서 하는 말. ＊작산어른이 ᄒᆞ는 짓이 그거 뭐우꽈?(작산어른이 하는 짓이 그게 뭡니까?) [전역]

작살[1] 명 소, 돼지 따위의 고기를 써는 데서 생겨난 아주 자질구레한 고깃점. [노형 조수 인성 김녕 수산] =

닥살, 작스레기, 작시레기.

작살[2] 명 <도> 작살. 물고기를 찔러 잡는 기구. [전역]

작-새 명 [김녕 어도] → 작은-태.

작쉬 명 [화순 하원 조수 어도] → 작데기.

작스레기 명 [노형] → 작살[1].

작시레기 명 [전역] → 작살[1].

작-연 명 [노형 조수] → 쟁-연.

작은-태 명 작-다리. 키가 작은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수산 태흥] = 작-새, 족-새.

작인 명 작자. 물건을 살 사람. [전역] = 작자, 작제, 잭인.

작자 명 [전역] → 작인.

작작 부 작작. ① 줄이나 획을 함부로 긋는 소리. 또는 그 모양. *글 씰 땐 곱닥ᄒᆞ게 써사지, 경 작작 씨민 안 뒌다.(글씨를 쓸 때는 곱게 써야지. 함부로 '작작' 쓰면 안 된다.) [전역] ② 종이나 천 따위를 마구 찢는 소리. 또는 그 모양. *그 험벅 냉중에 다 써질 건디 무사 경 다 ᄇᆞ려부럼신고?(그 헝겊 나중에 다 써질 텐데. 왜 다 찢어버릴까?) [전역] ③ 신발 따위를 가볍게 끌며 걷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신 작작 끄시멍 걷지 말라.(신 '작작' 끌면서 걷지 마라.) [전역]

작작-ᄒᆞ다 동 여러 사람이 큰소리를 서로 지르다. 잔소리를 많이 하다. [전역]

작제 명 *도 막은 밧 작제 읏나.(입구가 막혀 있는 밭은 작인이 없다.) [전역] → 작인.

작지 명 자갈(砂礫). [전역] = 자갈[1], 작멜, 잭멜.

작지-왓 명 자갈-밭. [전역] = 자갈-밧, 작멜-왓.

작짓-동네 명 <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 있는 동네. [한경] = 장-골.

잔-골 명 <지> 서귀포시 월평동에 있었던 한 자연마을. [서귀포 중문]

잔데 명 잔대(盞臺). [전역]

잔뒤역 명 [전역] → 테역.

잔뜩 부 잔뜩. *그 사름 솔썹 걷엉 잔뜩 경 왐십데다.(그 사람 솔잎을 걷어서 잔뜩 지어서 오고 있었습니다.) [전역]

잔잔-ᄒᆞ다 형 잔잔-하다. *오널은 ᄇᆞ름이 잔잔ᄒᆞ연 바당에 가지쿠다.(오늘은 바람이 잔잔하여 바다에 갈 수 있겠네요.) [전역]

잔-잡힘 명 <민> [전역] → 일부-ᄒᆞᆫ잔.

잔줄르다 동 ① 들뜬 마음을 진정시키다. *술 ᄒᆞᆫ 잔썩 헤영 잔줄루곡.(술 한 잔씩 해서 마음을 진정시키고.) [전역] ② 부풀은 물건을 나부죽하게 누르다. [전역] = 잔질루다.

잔질루다 동 [전역] → 잔줄르다.

잔철 명 무쇠솥 중에서 가장 자그마한 솥. [감산]

잔치 명 잔치. [전역]

잔치-고냥 명 <공> 용광로의 쇳물 구멍. [덕수]

잔치 먹다 구 친척이나 동네 사람들이 혼례를 치르는 집을 찾아가 축하하고 음식을 먹다. [전역]

잔치-퉤물 명 <음> 결혼식이 끝난 후 남은 음식. [전역]

잔칫-집 명 잔칫-집. [전역]
잘 명 <동> 말-매미. [서귀포]
잘강-잘강[1] 부 잘강-잘강. [전역]
잘강-잘강[2] 부 빨래 따위를 물에 넣고서 주무르며 헹구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전역]
잘난-체ᄒᆞ다 동 훌륭하게 낳은 듯이 행세하다. [전역]
잘도 부 매우. *옛날은 바당에 궤기가 잘도 하나서.(옛날에는 바다에 고기가 매우 많았었어.) [전역]
잘락[1] 부 [전역] → 자락①.
잘락[2] 부 오줌 따위가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나오는 모양. [전역]
잘락-잘락 부 잔물결이 치는 모양. 또는 물을 끼얹는 모양. [전역]
잘락-ᄒᆞ다 형 등에 진 물건 따위가 아래쪽으로 축 늘어지다. [전역]
잘랑-잘랑 부 잘랑-잘랑. [전역]
잘록-잘록 부 잘록-잘록. [전역]
잘리 명 [전역] → 찰리.
잘쑥-잘쑥 부 잘쏙-잘쏙. 잘쏙거리는 모양. [전역]
잘잘[1] 부 줄줄. *허벅이 금간 모냥이여. 물이 잘잘 세염시네.(허벅이 금이 간 모양이네. 물이 줄줄 새고 있네.) [전역]
잘잘[2] 부 질질. 몸에 지닌 것을 잘 빠뜨리거나 흘리는 모양. *무사 경 하간 거 잘잘 흘쳥 뎅겸시니?(왜 그리 이런 저런 물건을 질질 흘리고 다니니?) [전역]
잘콴-다리 명감 잘코사니. [전역] = 잘콴이. 준잘코셔니.
잘콴이 명감 [전역] → 잘콴-다리.
잠녀(潛女) 명 잠녀. [전역]
잠대 명 <농> 쟁기(犁). [전역] = 잠데, 쟁기.



잠대

잠데 명 <농> [전역] → 잠대.
잠방-밤방 부 잠방-잠방. 잇대어 물속에 잠기었다 떴다 할 적에 나는 소리. [전역]
잠뱅이질-ᄒᆞ다 동 [수산] → 잠베질-ᄒᆞ다.
잠베질-ᄒᆞ다 동 재잘거리는 짓을 하다. [조수 노형 인성] = 잠뱅이질-ᄒᆞ다.
잠-불리다 동 말을 자꾸 재잘거리다. [노형 조수 인성 수산]
잠수 놀레(潛嫂--) 명 <요> [전역] → 해녀 놀레.
잠수-질 명 [전역] → 줌수-질.
잠지 명 볼기. 허벅다리 위쪽 넓적한 부분. [전역] = 볼기.
잠지-떼리다 동 [전역] → 잠지-뚜리다.
잠지-뚜리다 동 볼기-치다. [전역] = 볼기-떼리다, 잠지-떼리다.
잠지-치다 동 기쁜 일이 있을 때 제 손으로 제 볼기를 두드려 소리를 내다. [전역]
잠지-패기 명 '볼기'의 낮은말. [전역] = 잠지-페기.
잠지-페기 명 [전역] → 잠지-패기.

잠짓-가달 명 [전역] → 허벅-다리.
잡귀(雜鬼) 명 잡귀. ① 잡스러운 모든 귀신. [전역] ② 무속에서 말하는, 저승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간에서 헤매어 다니는 사령. [전역]
잡귀-풀이(雜鬼--) 명 <민> 넋들임 따위에서 범접한 잡귀를 쫓아내는 제차. [전역]
잡-골 명 소의 겨울나기용으로 마련한 고구마 줄기, 콩깍지, 조짚 따위의 목초(牧草). [도두]
잡다 동 잡다. [전역]
잡아-가다 동 잡아-가다. [전역]
잡아-드리다 동 [전역] → 잡아-둥기다.
잡아-둥기다 동 잡아-당기다. [전역] = 잡아-드리다.
잡아-매다 동 잡아-매다. [전역]
잡아-먹다 동 잡아-먹다. [전역]
잡아-틀루다 동 잡아서 비틀다. [전역]
잡아-후리다 동 후려-갈기다. [전역]
잡파리 명 [전역] → 자파리.
잡힐-거리 명 <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한 자연마을. [애월] = 잽힐-거리.
잣[1] 명 <동> 나무-굼벵이. [조수 인성 서홍] = 즈, 즛[2]. 고즈치.
잣[2] 명 성(城). 널따랗게 돌들로 쌓아 올린 기다란 담. [전역]
잣다 동 옷 같은 것의 헐떨어진 데를 딴 헝겊을 대고 깁다. [전역]
잣-담 명 [노형 조수 어도] → 잣-벡.
잣-벡 명 자갈을 쌓아 올린 담벼락이나 돌무지. * 해벤도 이거 잣벡에 난 게 잇는디, 유름옝 ᄒᆞ주.(해변도 이것 잣벽에 난 것이 있는데, 으름이라고 하지.) [한림] = 왓-담, 작-벡, 잣-담, 잣벡-담.



잣벡

잣벡-담 명 [노형 조수 인성 화순 하원 서홍] → 잣-담.
장(醬) 명 장. [전역] 고장.
장게-가다 동 장가-가다. [전역]
장-골 명 <지> [서귀포 중문] → 잔-골.
장구-목 명 <지> 한라산 주봉 북서쪽에 뻗은 산릉의 안부(鞍部). 옆으로 본 지형이 장구처럼 생김. 중앙 안부의 표고 1680미터. [전역]
장구목-오름 명 <지> 한라산 국립공원 장구목의 남단을 이루는 오름. 표고 1810.4미터. [아라 광령 서홍]
장군-내 명 <지> 제주시 도평동을 흐르는 내(川). [전역]
장굴레비 명 <동> [인성 화순 하원] → 장쿨레비[2].
장귀[1] 명 [김녕] → 장기(將棋).
장-귀[2] 명 수-쇠. [수산 가시 김녕 노형] = 중-수리[1]
장귀[3] 명 장구(長鼓). [전역]
장귀-뻬 명 [조수] → 구마리-꽝.
장-귀클(長--) 명 장-귀틀. [전역] = 장-귀틀.
장-귀틀(長--) 명 [수산 서홍 가시]

→ 장-귀를.

장귓-도로기 명 장기-짝. [서홍 김녕 가시 조수]

장-그르해 명 [전역] → 상-그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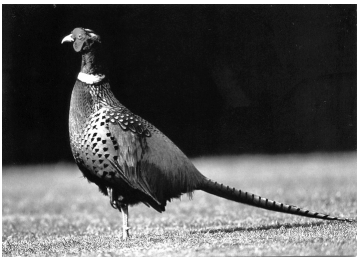
장-금세(場--) 명 장-금. [전역] = 장-금지.

장-금지(場--) 명 [전역] → 장-금세.

장기(將棋) 명 장기. [전역] = 장귀[1].

장기-ᄒᆞ다 동 장계-하다(狀啓--). ＊서울레레 장기ᄒᆞ곡 ᄆᆞ을레레 통문ᄒᆞ곡.(서울로 장계하고 마을로 통문하고.) [전역]

장-꿩 명 <동> 장끼(雄雉). [전역] = 수꿩.



장꿩

장-나다 동 [전역] → 영장-나다.

장난-ᄀᆞ음 명 [전역] → 방뒤.

장난-꾸레기 명 장난-꾸러기. [전역]

장난-집 명 초상-집. [전역]

장남[1](長男) 명 장남. [전역]

장남[2] 명 ① 건강한 일꾼. ＊장남 빌레 댕기단 빌지 못ᄒᆞ연.(건강한 일꾼을 빌러 다니다가 빌지 못해서.) [전역] ② 머슴. [전역]

장남-ᄃᆞ리다 동 머슴-데리다. [전역] = 장남-ᄃᆞᆯ다.

장남-ᄃᆞᆯ다 동 [전역] → 장남-ᄃᆞ리다.

장-낫 명 <도> ① 서서 꼴 따위를 베는 자루가 긴 연장. [전역] ② 배 위에서 바다 속 해초를 캐는 자루가 긴 연장. [전역]



장낫

장내기[1] 명 <의> 품질이 좋지 않은 갓모자의 한 가지. 겯기 시작할 때의 날 수효는 36 내지 40임. [전역]

장-내기[2] 명 아무렇게나 손쉽게 대강대강 만들어 낸 물건. [전역]

장대[1] 명 <동> 양태. 양탯과의 바닷물고기. [인성 수산 서홍 김녕] = 방돌-배기, 장태[1].

장-대[2](長-) 명 장-대. 대나 나무를 다듬어 만든 긴 막대기. [전역]

장도리 명 <도> 장도리. [전역]

장도-칼(粧刀-) 명 [노형 인성 서홍 수산 조수] → 장두-칼.

장돌림-쟁이 명 [수산 가시] → 장돌-뱅이.

장돌-뱅이 명 장돌-뱅이.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장돌림-쟁이.

장두-칼 명 장도-칼(粧刀-). [전역] = 장도-칼, 장뒤-칼, 장디-칼.

장뒤-칼 명 [김녕] → 장두-칼.

장디-칼 명 [전역] → 장두-칼.

장-ᄃᆞᆨ 명 <동> [전역] → 수-ᄐᆞᆨ.

장례 명 장리(長利). 가난한 농가에서 식량이 모자란 고비에 곡식을 꾸었

다가 갚을 때에 따르는 변리. 대체로 봄에 꾸어 주었다가 가을에 받을 때에 셈함. 흔히 조나 보리를 꾸었다가 같은 분량을 밭벼나 메밀 등으로 갚거나 같은 종류의 곡식이면 관행에 따른 변리를 덧붙여 갚음. *낭은 지난 골골이 썩어도, 장렌 지난 썩은 듸 읏다.(나무는 쓰러지니 골골로 썩어도, 장리는 지니 썩은 데 없다.) [전역]

장마 명 장마(霖雨). [전역] = 마[1].

장-마리(長--) 명 <건> 장-마루. [전역]

장마-지다 동 장마-지다(霖雨--). [전역] = 마-지다, 마-치다[1].

장만-ᄒᆞ다 동 장만-하다. ① 만들어 놓다. [전역] ② 곡식의 이삭을 떨어서 그 알을 거두다. [전역]

장멸 명 <도> [전역] → ᄀᆞ레-체경.

장멸-왓 명 <농> 자갈이 많은 밭. [영평]

장모(丈母) 명 장모. [전역]

장-목 명 [전역] → 풀-목.

장목-악(樟木岳) 명 <지> [전역] → 녹남-오름.

장-물 명 <음> 간장. [전역]

장물-국자 명 <도> 간장을 뜨는 데 쓰는 자그마한 국자. [전역]

장-몸 명 <식> 모자반의 일종. 밭에 거름으로 썼음. [하귀 대포]

장-밧[1] 명 장사(葬事)를 지내는 곳. [전역]

장-밧[2] 명 문을 단 벽장의 안. [전역]

장-밧[3] 명 <지> 제주시 애월읍 장전리(長田里)의 옛 이름. [전역]

장-부삼 명 거루 따위 배의 옆 위쪽에 붙여 있는 나무 널. [전역]

장삼 명 여러 겹으로 이루어진 곡식의 껍질을 세는 단위. *아홉 장삼 열 장삼 입은 피도 짛엉 쏠 내영 먹나.(아홉 껍질 열 껍질 입은 피도 찧어서 쌀 내어 먹는다.) [전역]

장삼-거여미 명 <동> [서홍] → 장삼-게염지.

장삼-거염지 명 <동> [인성] → 장삼-게염지.

장삼-게여미 명 <동> [수산] → 장삼-게염지.

장삼-게염지 명 <동> 날개가 돋은 개미. [전역] = 장삼-거여미, 장삼-거염지, 장삼-게여미.

장상-에(長常-) 부 항상. 장상. *울지 좋댕 장상에 우난 다시 셍각 읏어라 ᄒᆞᆫ다.(울기 좋다고 항상 우니 다시 생각 없더라 한다.) [전역]

장석 명 궤(櫃)에 꾸밈새로 붙인 쇠붙이. [전역]

장석-ᄒᆞ다 동 몸이 편안하지 못하거나 무거운 것을 들 적에 끙끙 소리를 내다. *새로 세 시쯤 뒈니 시간은 뒈니 응응 장석ᄒᆞ멍 ᄒᆞ여 가난.(새로 세 시쯤 되니 시간은 되니 응응 '장석하면서' 하여 가니.) [전역]

장세 명 떼의 앞뒤로 가로 질러 박은 나무. [이호]

장수[1](長壽) 명 장수. [전역]

장수[2](將帥) 명 [전역] → 장쉬.

장수-물자리 명 <동> [가시] → 장수-밥주리.

장수-밥주리 명 <동> 장수-잠자리. [노형] = 산태[2], 산테, 장수-물자리.

장쉬 명 장수(將帥). [전역] = 장수[2].
장시 명 [전역] → 장ᄉᆞ.
장시-꾼 명 [전역] → 장ᄉᆞ-꾼.
장-시세(場時勢) 명 장-시세. 장-금. [전역]
장ᄉᆞ 명 장시(商). [전역] = 장시.
장ᄉᆞ-꾼 명 장사-꾼(商人). [전역] = 장시-꾼.
장ᄉᆞ-지내다 동 장사-지내다(葬事---). [전역] = 장ᄉᆞ-지네다.
장ᄉᆞ-지네다 동 [전역] → 장ᄉᆞ-지내다.
장앗굿-동네 명 <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중동 서쪽, '닥ᄆᆞᆯ오름' 동쪽 밑에 있는 자연마을. [한경]
장어(長魚) 명 <동> [전역] → 장의.
장역-ᄒᆞ다 동 장약-하다(裝藥--). 장전-하다. [전역] = 쟁역-ᄒᆞ다.
장예 명 장여(長欐). [노형 조수 서홍 인성] = 장혜.
장예-수 명 한정(限定) 없이 많이 내리는 비. [수산 김녕 가시 조수]
장-옷 명 <의> 장-옷(長-). [전역]
장원(壯元) 명 장원. [전역]
장의 명 <동> 장어(長魚). [전역] = 장어.
장인(丈人) 명 장인. [전역]
장자-오름 명 <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모지오름 남동쪽에 있는 오름. 표고 215.9미터. [가시 성읍 송당]
장작 명 장작(長斫). [전역]
장저-맞이 명 <민> 굿의 마지막 대목에서 서낭신에게 돼지고기를 바쳐 기원하는 제차. [전역]
장제(長子) 명 큰 부자. *ᄆᆞᆯ 한 것은 장제로고나.(말(馬) 많은 것은 '장제'로구나.) [전역]
장-조금 명 무수기의 후기에 드는 조금. 열무날, 열한무날, 열두무날 때의 막물과 아츠조금, 한조금 때의 무수기를 말함. [하도]
장-조림(醬--) 명 <음> 장-조림. [전역]
장지-방 명 <건> 기둥 하부를 돌아가는 하방의 일종. 한반도의 하방은 마루 높이로 들어가지만 제주도에서는 거의 지면에 맞닿을 정도로 아주 낮고 튼튼하게 돌려짐. [전역] = 장지-벙.
장지-벙 명 <건> [전역] → 장지-방.
장-지세 부 세로로 기다랗게.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장-질세.
장-질세 명 [수산 김녕] → 장-지세.
장ᄌᆞ 명 장자(長子). [전역]
장-ᄌᆞ를지다 형 상당한 기간 동안 잇따라 바쁘다. *이 내 몸은 장ᄌᆞ를지난 앚앙 놀을 ᄌᆞ를이 읏다.(이 내 몸은 늘 바쁘니 앉아서 놀 겨를이 없다.) [전역]
장-차다(長--) 형 장-차다. [전역] = 걸-ᄎᆞ다, 장-ᄎᆞ다.
장찬-밧 명 [전역] → 장천-밧.
장천-밧 명 꼿꼿하고도 긴 밭. *남산 아레 장천밧은 어느 누게 갈아 주멍.(남산 아래 너른 밭은 어느 누가 갈아 주며.) [전역] = 장찬-밧.
장-체 명 <도> 조리. 된장을 거를 때 사용함. [행원]
장-ᄎᆞ다 형 [전역] → 장-차다.
장칼레비[1] 명 <동> [태흥 수산 세화 조천] → 독다귀.
장칼레비[2] 명 <동> [서홍] → 장쿨레비[2].
장-쿡 명 <음> 된장-국. [전역]

장쿨레기 명 <동> [남원] → 독다귀.
장쿨레비[1] 명 <동> [서홍 표선] → 독다귀.
장쿨레비[2] 명 <동> 장구-벌레. [노형 조수 인성] = 겡베리[1], 고노리, 장굴레비, 장칼레비[2].
장콜래비 명 <동> [서홍 수산] → 독다귀.
장태[1] 명 <동> [노형 인성] → 장대[1].
장태[2] 명 [전역] → 장테.
장탱이 명 장태. *오메기떡 반죽홀 때 장탱이에 ᄒᆞ여사 든든헤 가지고 좋읍니께.(오메기떡 반죽할 때 장태에 해야 든든해서 좋지요.) [성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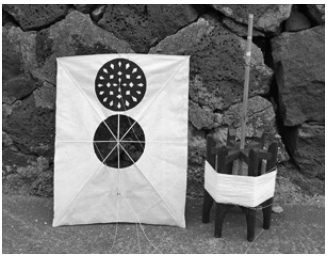


장탱이

장-터(場-) 명 장-터. [전역]
장테 명 양푼 모양으로 하되 그보다 크게 만든 질그릇. *그 ᄇᆞ른다리 우펜의 웃한질 우녁밧, 장테 닮은 밧이 싯수다.(그 바른다리 위쪽의 윗한길 위쪽 밭, '장테' 닮은 밭이 있습니다.) [전역] = 장태[2].
장통[1] 명 목장 안에 마소를 밧줄로 걸리거나 낙인(烙印)을 하려고 마소를 몰아 담아두는 통. [평대]
장통[2]**(醬桶)** 명 <도> 장통. 간장을 담는, 나무로 만든 통. [전역]
장통-밧 명 움푹 패어 들어가서 비가 내리면 물이 잘 고이는 밭. *비야 비야 오지 말라, 장통밧듸 물 ᄀᆞᆯ람져.(비야 비야 오지 마라, 구렁밭에 물 괸다.) [전역]
장팡-굽 명 [인성 서홍 조수] → 장항-굽.
장팡-뒤 명 [인성 조수 서홍] → 장항-뒤.
장-포(長-) 명 장-보. [전역]
장항 명 장독(醬甕). [전역] = 장황.
장항-굽 명 장독-대(醬-臺). [전역] = 장팡-굽.
장항-두껑 명 [전역] → 장항-두께.
장항-두께 명 장독-소래기(醬----). [전역] = 장항-두껑, 장항-두에.
장항-두에 명 [인성] → 장항-두께.
장항-뒤 명 장독을 넣어두는 자리의 뒤쪽. [전역] = 장팡-뒤, 장황-뒤.
장혜 명 [수산 가시 김녕] → 장예.
장-호미 명 <도> 낫. 나무를 자르는 데 사용하는 낫의 일종. [오라 용담]
장황 명 *(속) 장황과 어린아인 실려야 좋나.(장독과 어린아이는 시려야 좋다. 어린아이의 과잉보호를 경계하는 말.) [수산 조수] → 장항.
장황-뒤 명 [전역] → 장항-뒤.
장-흐레로 부 줄곧. 계속해서. [전역]
장희 명 큰-비. *비랑 오컬랑 장희로 오라.(빌랑 오려면 큰비로 와라.) [전역]
잦박-도리 명 [수산 노형 세화 조천] → 잦박-뿔.
잦박-뿔 명 쇠대가리에 뒤쪽으로 잦혀지게 나온 뿔. [세화 조천 노형 조수] = 잦박-도리, 젖박-뿔.
잦아-들다 동 잦아-들다. [전역]

잦초롬-ᄒᆞ다 형 잦바듬-하다. 자빠질 듯이 뒤로 비스듬하다. [전역] = 잦추룸-ᄒᆞ다.
잦추룸-ᄒᆞ다 형 [전역] → 잦초롬-ᄒᆞ다.
잦히다 동 잦-히다. 몸의 윗부분을 뒤로 잦게 하다. [전역]
재 명 <동> [태흥 세화 가시] → 재열.
재게 부 [전역] → 재기.
재골 명 탕건을 겯고 나서 먹칠하고 마무리하는 일. 대체로 탕건을 사들인 다음에 상인이 치름. [전역]
재기 부 빨리. ＊재기 오라. 무시거 헴시니?(빨리 와라. 무얼 하고 있니?) [전역] = 자게, 재게.
재다[1] 동 재다. ① 물건의 장단(長短)을 자로 헤아려 보다. [전역] ② 물건을 포개어 놓다. [전역]
재다[2] 형 재다. 동작이 굼뜨지 아니하다. [전역]
재리왓-동네 명 <지> [애월] → 자리왓-동네.
재민네기 명 <식> 거름용 해조류의 일종. [김녕]
재-봇 명 [가시] → 재열-봇.
재열 명 <동> 매미(蟬). [노형 어도 조수 인성 화순 하원 서홍] = 자리[4], 재, 잴. 고 믹얌이.
재열-봇 명 매미가 성충(成蟲)에서 성장하여 나올 적에 벗어버린 껍질.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자릿-봇, 재-봇, 잴-봇.
재우다 동 재우다. ① 잠을 자게 하다. [전역] ② 움직이던 물건의 움직임을 그치게 하다. [전역]
재-재 부 매암-매암. [전역] = 잭-잭.
재짝-부리 명 <동> 뿔이 뒷쪽으로 휘어진 소. ＊(속) 재짝부리 지 가늠 몰르멍 찔레질 ᄒᆞᆫ다.('재짝부리' 자기의 가늠도 못하면서 뿔 싸움질 한다.) ＊(속) 느 집 재짝부리 아니민, 나 집 축담 무너지카?(네 집 '재짝부리' 아니면 내 집 담장이 무너질까?) [전역]
잭멜 명 [전역] → 작지.
잭인 명 [전역] → 작인.
잭-잭 부 [전역] → 재-재.
잰-놈 명 행동이 재빠른 사람. [전역]
잰잰-ᄒᆞ다 형 낱낱이 다 자디잘다. [전역]
잴 명 <동> [조천] → 재열.
잴-봇 명 [조천] → 재열-봇.
잽-싸다 형 잽-싸다.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잽-쎄다.
잽-쎄다 형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잽-싸다.
잽힐-거리 명 <지> [애월] → 잡힐-거리.
쟁기 명 <농> [전역] → 잠대.
쟁기리다 동 표적(標的)을 똑바로 겨누려고 한쪽 눈을 기울여 보다. [전역]
쟁깃-몽클 명 [수산 서홍 가시 김녕] → 몽클.
쟁깃-무클 명 [노형 조수 인성] → 몽클. 고 잠기술.
쟁역-ᄒᆞ다 동 ＊그 영감이 생각이 나서 총을 화약 담아가지고 쟁역ᄒᆞ니. (그 영감이 생각이 나서 화약을 담고서 조준하니.) [구좌] → 장역-ᄒᆞ다.
쟁-연 명 거의 정방형(正方形)의 백지(白紙)를 가운데로 둥그렇게 끊어서

먹칠을 하고 그 구멍 위편에 붙이고는 대오리를 가로 세로 붙여 번이줄을 맨 연. [김녕 조수 노형] = 돌-연, 작-연, 정-연.



쟁연과 얼레

저 감 저. 생각이 갑자기 나지 않을 때 나는 소리. [전역]

-저[1] 어미 -겠다.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하게' 또는 '해라' 할 자리에서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검질 매멍 심심헤영 웃음이나 실피 웃저.(김을 매면서 심심한데 웃음이나 실컷 웃겠다.) *내 말 ᄒᆞ나 ᄀᆞᆫ저.(내가 말을 한 마디 하지.) [전역] = -져.

-저[2] 어미 -다. ① 용언 어간에 붙은 '-암-·-엄-·-염-·-람-' 또는 '-앗-·-엇-·-엿-·-랏-' 등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 또는 '완료'에 대하여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② 용언의 어간이나 체언에 붙은 '-앗-·-엇-·-랏-' 따위에 붙어서, 과거 경험한 사실을 회상시켜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③ 형용사 '싯다'의 어간에 붙어서, 사물의 존재를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저가흘-동네 명 <지>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의 한 자연마을. [한경] = 저갈-동네, 저갈-빌레.

저갈-동네 명 <지> [한경] → 저가흘-동네.

저갈-빌레 명 <지> [한경] → 저가흘-동네.

저고리 명 <의> 저고리(襦). [전역]

저곰-태기 명 자개미. 다리가 몸에 붙은 불두덩 양쪽의 오목한 자리. [인성 서홍] = 삳-갱이, 저기-예기, 저기-예미, ᄌᆞ곰-태기, ᄌᆞ기-예기, ᄌᆞ기-예미.

저금 명 [서홍 태흥 표선 수산] → ᄌᆞ곰.

저금-ᄐᆞ다 동 [인성 서홍 수산] → ᄌᆞ곰-ᄐᆞ다.

저급다 형 [전역] → ᄌᆞ곱다.

저긔 대 [전역] → 저듸.

저기-예기 명 [노형] → 저곰-태기.

저기-예미 명 [가시] → 저곰-태기.

저껏 명 [수산 가시] → ᄌᆞᄁᆞᆺ.

저깽이 명 [전역] → ᄌᆞ깡이.

저꼇 명 [조수] → ᄌᆞᄁᆞᆺ.

저끄다 동 *그런 거는 우리가 다 저끈 일이니까.(그런 것은 우리가 다 겪은 일이니까.) [애월 한림 중문 남원] → 겨끄다.

저끔-ᄐᆞ다 동 [김녕] → ᄌᆞ곰-ᄐᆞ다.

저끗 명 [김녕 수산 노형 인성] → ᄌᆞᄁᆞᆺ.

저낙 명 [전역] → 저냑.

저낙-때 명 [전역] → 저냑-때.

저냑 명 저녁(夕). [전역] = 저낙, 저녁, 저뭇, ᄌᆞ낙, ᄌᆞ뭇.

저냑-때 명 저녁-때. [전역] = 저낙-때, 저녁-때, ᄌᆞ낙-때.

저녁 명 [전역] → 저냑.
저녁-ᄀᆞ슴 명 저녁-거리. [전역] = 저녁-ᄀᆞ심, ᄌᆞ냑-ᄀᆞ슴, ᄌᆞ냑-ᄀᆞ심.
저녁-ᄀᆞ심 명 [전역] → 저녁-ᄀᆞ슴.
저녁-날 명 그-글피. [전역] = 정-날, 제녁-날, 제역-날, ᄌᆞ낙-날, ᄌᆞ냑-날, ᄌᆞ녁-날.
저녁-때 명 [전역] → 저냑-때.
저드랑이 명 [전역] → ᄌᆞ깡이.
저드랭이 명 [전역] → ᄌᆞ깡이.
저들다 동 [전역] → ᄌᆞ들다.
저듸 대부 저기(彼處). ① 저곳. [전역] = 저긔. ② 저곳에. [전역]
저럭-저럭 부 재빨리 뒤로 물러서는 모양. 재빨리 놓여진 위치에서 벗어나는 모양. *뒷멍에랑 저럭저럭.(뒷밭머릴랑 저럭저럭.) [전역]
저레 부 저리(彼處). 저 곳으로. [전역] = 저리.
저르 명 [전역] → 저를.
저를 명 겨를. *(속) 눈썹에 불 부터도 끌 저를 읏다.(눈썹에 불 붙어도 끌 겨를 없다.) [전역] = 저르, ᄌᆞ르, ᄌᆞ를. 고 겨를.
저를-지다 형 쉴 사이가 없이 바쁘다. [전역] = ᄌᆞ를-지다.
저리 부 [전역] → 저레.
저리다 형 저리다. [전역]
저리-메우다 동 겨리에 소(牛) 두 마리를 매다. [전역]
저리벼리-오름 명 <지> [전역] → 저별이-오름.
저리-왓[1] 명 [신천] → 쒠-밧.
저리-왓[2] 명 소(牛) 두 마리가 끄는 쟁기로 가는 밭. [전역] = 저릿-밧.
저리-잠데 명 <도> [봉성] → 저릿-잠대.
저립 명 <동> 재-방어. [표선 인성] = 제립.
저릿-밧 명 [전역] → 저리-왓[2].
저릿-쉐 명 겨릿-소. [전역]
저릿-잠대 명 겨리. 소 두 마리가 끄는 쟁기. [전역] = 저리-잠데, 저릿-쟁기.
저릿-쟁기 명 [전역] → 저릿-잠대.
-저마는 어미 -다마는. 용언의 어간이나 또는 용언에 붙은 '-암-·-엄-·-염-·-람-' 또는 '-앗-·-엇-·-엿-·-랏-' 등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의 계속' 또는 '완료'를 시인하면서 다음에 오는 말에서 의문이나 불가능 또는 어긋나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저물다 동 [전역] → ᄌᆞ물다[2]. 고 저믈다.
저밤 명 [수산 서홍] → ᄌᆞ밤.
저밤-낭 명 <식> [전역] → ᄌᆞ베-낭.
저베기 명 <음> [남원] → ᄌᆞ바기.
저별이-오름 명 <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송오름(松岳) 가까이에 있는 오름. [대정] = 저리벼리-오름.
저-봄 명 [전역] → 제-까락.
저세-꾼 명 <농> 도리깨로 탈곡할 때에 있어 탈곡하는 일을 옆에서 거드는 사람. [전역]
저수게 명 <도> [수산 세화] → 남-죽.
저수에-질 명 [노형 조수 인성] → 남죽-질.
저수웨-질 명 [수산 가시 김녕] → 남죽-질.
저수의-질 명 [서홍] → 남죽-질.

저슨-살이 명 <식> [노형] → 저슬-살이[2].
저슬 명 [전역] → 저을.
저슬-내낭 부 [전역] → 저을-내낭.
저슬-살이[1] 명 <식> 겨우-살이. [전역]
저슬-살이[2] 명 <식> 참-으아리. [전역] = 저슨-살이.
저슬-탈 명 <식> 겨울-딸기. [전역]
저승 명 저승(彼生). [전역] 고뎌싱.
저승-걸레 명 <민> 구삼싱(神)에게 바치는 아기를 업는 멜빵. [전역]
저승-할망 명 <민> [전역] → 구-삼싱.
저싱-돈 명 <민> 영혼들이 저승에서 쓸 돈. 지전(紙錢). [전역]
저어-ᄒᆞ다 동 두려워-하다(畏). [전역] = 두려워-ᄒᆞ다.
저영 부 저렇게. [전역]
저울 명 <도> 저울(秤). [전역]
저울-눈 명 저울-눈(秤-). [전역]
저울-도리 명 <동> 별-상어. [전역] = 벨-상의, 저읠-도리.
저울-취 명 저울-추(秤錘). [조수 인성 서홍 수산] = 저울-치.
저울-치 명 [김녕 조수 노형] → 저울-취.
저뭇 명 [전역] → 저냑.
저읠-도리 명 <동> [노형] → 저울-도리.
저으다 형 두렵다. *헌 자리에 헌 베게 베난 원도 신도 저은 새 읏다.(헌 자리에 헌 베개 베니 원(員)도 신(臣)도 두려운 바 없다.) [전역]
저을 명 겨울(冬). [전역] = 겨을, 저슬. 고겨슬.
저을-내낭 부 겨우-내. [전역] = 겨을-내낭, 저슬-내낭.
저지르다 동 저지르다. [전역]
저지-악(楮旨岳) 명 <지> [전역] → 닥물-오름.
저프다 형 보통에서 아주 뛰어나 놀랄 만하다. *자원 워넌 저픈 놈이라. (저 아이는 워낙 '저픈' 놈이라.) [전역]
적[1] 명 바닷가 돌 위에 붙어 있는 날카로운 굴 껍데기 따위. 흰색과 붉은색을 띰. [전역]
적[2] 명 [전역] → 직.
적[3] 명 [노형 어도 인성 조수 화순 하원] → 머금.
적[4] 명 [인성 서홍] → ᄌᆞᆺ
적[5](炙) 명 적. 생선이나 고기 따위를 대꼬챙이에 꿰어 불에 굽거나 지진 음식. [전역] 고젹.
적[6] 명 닭발(鷄足) 같은 데 더덕더덕하게 돋은 군껍질. [전역]
적-갈(炙-) 명 적(炙) 따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 [전역]
적-고지(炙--) 명 적-꼬치. [전역]
적관-ᄒᆞ다 동 어떤 일을 겪어 보다. [전역]
적괘 명 [수산 김녕] → 줍게.
적괘-친 명 [수산] → 줍게-친.
적-궤 명 <도> [전역] → 줍게.
적-궤친 명 <도> [전역] → 줍게-친.
적다 동 [하원 서홍 태흥 표선 수산] → 찍다[1].
적다-물 명 <동> [태흥 표선 수산 세화 조천 노형] → 적대-물.
적대-물 명 <동> 적다-마(赤多馬). [조수 인성 서홍 하원 화순] = 적다-물. 고졀다물.

적-돋다 동 닭발에 군가죽 껍질이 더덕더덕 생기다. [전역]

적베지 명 <민> 명왕(冥王)의 명(命)을 기록한 문서. 적패지(赤牌旨). [전역]



적베지

적베지-탐 명 <민> 시왕맞이에서 심방이 차사를 대신하여 저승 문서를 받아드는 제차. [전역]

적삼 명 <의> 적삼. [전역]

적-성게(赤--) 명 <동> 붉은-성게. [신촌]

적송-비야기 명 <민> [전역] → 기동철리적숭-베우기.

적시 명 [인성 하원 화순 조수] → 직시[1].

적-쇄 명 적-쇠(炙-). [전역]

적지다 동 적시다. [전역]

적-차롱 명 <도> 제의(祭儀) 때 적(炙)을 담아 두는 채롱. [도련]

전(煎) 명 전. 생선이나 고기, 채소 따위를 얇게 썰거나 다져 양념을 한 뒤, 밀가루를 묻혀 기름에 지진 음식을 통틀어 일컫는 말. [전역]

전각 명 <식> [노형 서홍] → 정각.

전기[1] 명 <음> [서홍 태흥 표선 수산 김녕 가시] → 전지[2].

전기[2] 명 <음> [서홍 호근] → 빙-떡.

전기-가오리 명 <동> 목탁-수구리. [사계]

전기-떡 명 <음> [서홍 수산 가시] → 빙-떡.

전대 명 전대(纏帶). [전역]

전디다 동 견디다. [전역] = 준디다.

전물-제(牷物祭) 명 <민> 돼지나 닭 등을 통째로 바쳐 벌이는 제의. [전역]

전방 명 전방(廛房). [전역]

전방-집 명 [전역] → 전방-칩.

전방-칩 명 전방-집(廛房-). [전역] = 전방-집.

전베 독선 구 한 배에 그득 물건을 실음. *전베 독선 ᄒᆞ실 농ᄉᆞ.('전베 독선' 하실 농사.) [전역]

전복 명 <동> [전역] → 점복. 고 젼복.

전봇-대 명 전봇-대(電報-). [전역]

전봇대-낭 명 <식> [전역] → 벡영봉-낭.

전봇-줄 명 전봇-줄(電報-). [전역]

전분-주시 명 고구마에서 주정(酒精)이나 전분(澱粉)을 뽑아버린 나머지 찌꺼기. [전역]

전상 명 <민> 비정상적인 행위나 마음으로, 본래 타고난 모습. 전생(前生). [전역]

전상-풀림 명 <민> 삼공맞이에서 집안 구석구석 비질하며 사기(邪氣)를 쓸어 내는 제차. [전역]

전에 명 <동> 전어(錢魚). [전역]

전이-미 명 <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에 있는 표고 151.5미터의 오름. [성산] = 전이미-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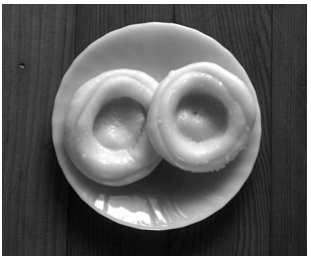
전이미-오름 명 <지> [성산] → 전-이미.

전자리 명 <동> [서홍 수산 가시] → 정철이.
전제석-궁(天帝釋宮) 명 <민> ① 옥황상제에서부터 삼공까지의 신. [전역] = 삼천전제석-궁(三天天帝釋宮). ② '전제석궁 당클(祭棚)'의 준말(略語). [전역]
전주다[1] 동 전주르다. [노형 조수 인성]
전주다[2] 동 견주다. [전역]
전지[1] 명 사냥한 꿩을 몫으로 나눌 때 갈라놓은 꿩의 양쪽 날개. [성산 수산]
전지[2] 명 <음> 메밀가루를 반죽하여 번철에서 동그랗고 자그맣게 지진 전(煎). [노형 조수 어도] = 전기[1].
전체-굿 명 *돈의 전체굿 아니민 내가 요디 무사 오리.(돈의 까닭 아니면 내가 여기 어째 오리.) [전역] → 전치.
전치 명 까닭. 전차(詮次). *느 오래비 전치 아니민 느 집 올렐 어딘 중 알리.(네 오라비 까닭 아니면 네 집 올레를 어딘 줄 알까.) [전역] = 전체-굿.
전-태 명 절뚝거리며 걸음을 걷는 사람. [전역]
절[1] 명 물결(波). [전역] = 물결.
절[2] 명 절(拜). [전역]
절[3] 명 절(寺). [전역]
절[4] 명 절(節). [전역]
절[5] 명 결. 곡식을 찧기 전의 거친 모습. *느 씨아방 영리방 살경 절귀대로 절 꺼꺼 주마.(네 시아버지 영리방 살거든 절굿공이로 결 꺾어 주마.) [전역]
절간 명 절간(寺). [전역]
절-고개 명 물결 고개. 고개를 이루는 바다의 큰 물결. *저 바당을 한질 삼고 저 절고개 지방 삼아.(저 바다를 한길 삼고 저 물결 고개로 문지방을 삼아.) [전역]
절국 명 [전역] → 결국.
절다[1] 동 곁다. 물건에 기름기가 많이 묻어 흠씬 배다. [전역]
절다[2] 동 절다. 걸음을 절뚝거리며 걷다. [전역]
절단 명 [전역] → 결단.
절딴-나다 동 결딴-나다. [전역]
절량-처ᄉᆞ 명 <민> 결항차사(結項差使). 목을 매달아 죽은 사람을 잡아가는 차사. [전역]
절레 명 [인성 화순 서홍 수산 태흥 노형] → 줄레[2].
절-로 부 저쪽으로. [전역]
절롸니 명 <식> [인성] → 제와니.
절롼지 명 <식> [인성] → 제와니.
절룩-거리다 동 절룩-거리다. [전역]
절룩발-이 명 절름발-이. [화순 표선 세화 조천 노형 조수]
절룩-절룩 부 절룩-절룩. [전역]
절물-마을 명 <지> 제주시 외도1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절물-오름 명 <지>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 남동쪽, 개오리오름 동쪽에 이웃한 오름. 북서록에 절이 있었고, 약수터가 있어 절물이라고 부름. 휴양림이 들어서 있음. 표고 697미터. [전역] = 대나-오름.
절미 대 [수산 세화 조천] → 자의.
절박 명 [전역] → 결박.
절박-머리 명 <민> 결이 좋은 머리. [전역]

절방귀 명 <동> 제주-개오지. [가파도]

절벽 명 절벽(絶壁). [전역] → 거정, 그정, 기정, 엉장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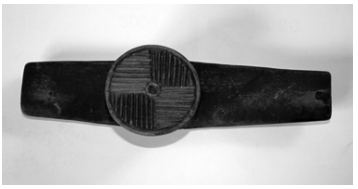
절벤 명 <음> 절편(切餠). 둥근 꽃판으로 눌러 만든 흰떡. [전역] = 동고랑-곤떡, 절변.



절벤

절벤-꽝 명 [전역] → 독ᄆᆞ릅-꽝.

절벤-본 명 <도> 원형(圓形)의 떡인 '절벤'을 만드는 떡본. [전역]



절벤본

절변 명 <음> [전역] → 절벤.

절심-먹다 동 [전역] → 결심-먹다

절쑥-거리다 동 절쑥-거리다. [전역]

절-오름 명 <지> 서귀포시 보목동 동쪽 바닷가에 있는 오름. 표고 95미터. [전역] = 사-악(寺岳), 제지기-오름.

절왓-동네 명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1리의 옛 동네. [남원] = 사전-동(寺田洞).

절울이 명 <지>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산이수동 남쪽 바닷가에 있는 오름. 절벽에 부딪쳐 우는 절(물결) 소리가 온 산에 울린다는 뜻의 이름. 표고 104미터. [상모 사계 아라] = 송-악[1](松岳), 송악-산(松岳山), 송-오름, 송학-산(松鶴山).

절잔-개 명 물결이 일지 않는 잔잔한 포구. * 강남 둑은 소리도 좋안 제비 강남 소앙게 앚안 절잔개로 지울려 가난 팔만 국도 지울리더라.(강남 닭은 소리도 좋아 제비 강남 소나무에 앉아 '절잔개'로 울리어 가니 팔만 국도 울리더라.) [전역]

절-지다 형 [노형 조수 인성 화순 하원 서홍 수산] → 철-지다.

절-지치다 동 파도-치다. [전역]

절총-박다 동 토지 소작에 있어서 흉·풍작(凶豊作)에 상관없이 일정한 수량을 지주(地主)에게 주기로 계약하다. [노형 조수 인성] = 총-박다.

절축발-이 명 [서홍 태흥] → 절툭발-이.

절툭발-이 명 절뚝발-이. [전역] = 절축발-이.

절혼 명 결혼(結婚). [전역] = 겔혼, 결혼.

젊다 형 젊다. [전역]

점뱅이 명 <의> [노형 인성 서홍 김녕] → 점벵이.

점베기-볼낙 명 <동> 볼락의 일종. [사계]

점벵이 명 <의> 잠방이. [노형 인성 서홍 김녕] = 점뱅이, 정벵이, 줌방이, 줌벵이.

점복 명 <동> 전복(全鰒). [전역] =

생복(生鰒)①, 전복, 즘복.



점복

점심(點心) 명 점심. [전역] = 정심, 증심, 징심.
점-쟁이 명 점-쟁이. [전역]
점-치다 동 점-치다(占--). [전역]
점칠-대 명 점-대(占-). [전역]
접[1] 명 건조된 미역 120개를 하나가 되게 묶은 묶음을 세는 단위. [전역]
접[2] 명 건조한 담배 열 잎을 세는 단위. [한동]
접[3] 명 주걱-뼈. [전역]
접[4] 명 계(契). [전역] = 계[1], 제[4].
접게 명 [전역] → 줍게.
접게-친 명 [서홍 조수 인성 노형] → 줍게-친.
접괘-친 명 [가시] → 줍게-친.
접다[1] 동 [인성 서홍 화순 하원 태흥 표선 수산] → 줍다.
접다[2] 동 접다. [전역]
접-담 명 겹-담(-墻). 맞대어서 이중으로 쌓아 올린 담. * 바령팟은 접담이라사 ᄒᆞ주.('바령팟'은 겹담이어야 하지.) [전역] = 줍-담.
접대 명 접대(接待). [전역]
접-두루막 명 <의> [김녕 조수 노형] → 접-후리메.
접-바지 명 <의> 겹-바지. 거죽에 안을 맞붙여서 겹으로 지은 바지. [전역] = 줍-바지.
접-상 명 겸상(兼床).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먹게 차린 상. [전역] = 맞-상(-床).
접-상통 명 <민> 겹으로 된 상투. [북촌]
접-새왓 명 개인적으로 '새왓'을 갖추고 있지 않은 사람들끼리 여럿이 힘을 모아 하나의 '새왓'을 마련하고 해마다 공동으로 '새'를 수확하여 나누어 갖는 '새왓'. [하도]
접시 명 [전역] → 줍시.
접-옷 명 <의> 겹-옷. [전역] = 줍-옷.
접-원 명 계원(契員). * 멜 후릴 때 접원 수가 그물막 하나에 이십 명쯤 뒈주.(멸치 후릴 때 계원 수가 그물 하나에 20명쯤 되지.) [이호]
접-이불 명 겹-이불. [전역] → 줍-이불.
접작-뻬 명 [전역] → 줍작-뻬.
접-저고리 명 <의> [수산 가시 대포] → 줍-저고리.
접-제기 명 [수산 가시] → 줍-제기[1], 줍-제기[2].
접주-와기 명 [서홍] → 줍-제기[1], 줍-제기[2].
접-지다[1] 동 접-질리다. [전역]
접지다[2] 동 [수산 조수] → 줍지다.
접진-쉐 명 <동> 다리를 접질리거나 비틀려서 뼈마디가 어긋난 소. [전역] = 줍진-쉐.
접착-뻬 명 <민> [안덕] → 줍작-뻬.
접-탕건 명 <의> 탕건의 한 가지. [전역]

접-후리메 명 <의> 겹-두루마기. 거죽에 안을 붙여서 겹으로 지은 두루마기. [전역] = 접-두루막, 즙-두루막, 즙-후리메.

접-ᄒᆞ다 동 소를 목장에 풀어 놓으려고 한데 모으다. [성산 수산]

젓[1] 명 젓(醢). [전역]

젓[2] 명 [전역] → 젯.

젓-가르다 동 짐승의 새끼가 어미의 젖 먹기를 그치고 따로 갈라져 나오다. [전역] = 젯-가르다.

젓-가슴 명 젖-가슴(-胸). [전역] = 젓-가심, 젯-가슴, 줏-가슴.

젓-가심 명 [전역] → 젓-가슴.

젓-가지 명 곁-가지(-枝). [전역] = 젯-가지.

젓-간 명 <건> 곁-간(-間).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석-간, 섭-간, 줏-간[2].

젓-갈리 명 곁-가리. [노형 조수] = 줏-갈리.

젓걸이-노 명 <도> 거룻배 양옆에서 젓는 노. [행원] = 젓-눼.

젓-고고리 명 젖-꼭지(乳頭). [전역] = 젯-고고리, 줏-고고리. 고 젓곡지.

젓-고름 명 [노형 인성] → 젓-곰.

젓-골롬 명 [서홍 어도] → 젓-곰.

젓-곰 명 안-고름. [전역] = 젓-고름, 젓-골롬, 줏-곰.

젓-국물 명 <음> 담가 두었던 젓을 넣고서 끓인 국물. [전역]

젓-내[1] 명 젖-내(乳臭). [전역] = 젓-내움살[1].

젓-내[2] 명 젓-내(醢臭). [전역] = 젓-내움살[2].

젓-내움살[1] 명 [전역] → 젓-내[1].

젓-내움살[2] 명 [전역] → 젓-내[2].

젓-눈 명 곁-눈. [전역]

젓눈-질 명 곁눈-질. [전역] = 옆눈-질, 욒눈-질.

젓-눼 명 <도> [사계] → 젓걸이-노.

젓다 동 젓다. ① 휘둘러 섞다. [전역] ② 말 대신 손을 이리저리 둘러 어떤 뜻을 표하다. [전역]

젓-덩어리 명 [전역] → 젯-통[2].

젓-도감 명 젖-도감. 도감의 도우미. [전역] = 짝-도감.

젓-도새기 명 <동> [김녕 조수 수산] → 줏-도새기.

젓-도전 명 <민> 굿에서 나까시리 시루떡을 놀리고 난 뒤에 옆 부분을 잘라내고 네모나게 남긴 가운데 부분. [오라 건입]

젓-먹이 명 [전역] → 줏-먹이.

젓-멍얼 명 젖-멍울(乳--). [전역]

젓-멕이 명 [전역] → 줏-먹이.

젓-바데 명 곁-바대. [전역] = 줏-바데.

젓-방 명 곁-방. [전역] = 줏-방.

젓방-살이 명 곁방-살이. [전역]

젓-순 명 곁-순(-筍). [전역]

젓어-뎅기다 동 휘저어-다니다. [전역]

젓-어멍 명 젖-어미. 결혼식날 신랑, 신부의 밥을 짓거나 뜨는 사람. *젓어멍이라고 그런 사름이 새각시 밥도 거리고.(젖어미라고 그런 사람이 신부 밥도 뜨고). [전역]

젓-자리 명 <동> 젓을 담그는 자리돔. *젓 담는 젓자리는 졸고 알 베영 통통ᄒᆞ주게.(젓 담는 젓자리돔은 잘고 알을 배어서 통통하지.) [이호]

젓주기다 동 서로 미루고 할 일을 아

니하다.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젓추기다, 첫주기다.

젓-줄 명 수소(牡牛)가 일정한 곳에서만 풀을 뜯을 수 있게 묶어 둔 줄. [광평]

젓줄-쉐 명 '젓줄'에 매어 둔 수소(牡牛). [광평]

젓추기다 동 [김녕] → 젓주기다.

정[1] 명 <도> [가시] → 징[1].

정[2] 명 [노형 인성 조수 서홍] → 멘넷-정.

정[3] 명 [수산 김녕] → 청[2].

정[4] 명 [전역] → 정-낭.

정[5] 명 경(經). [전역] = 경[1].

정가웨-고장 명 정금나무-꽃. [전역] = 정가위-꼿, 정갈뤼-꼿, 정갈리-꼿.

정가웨-낭 명 <식> 정금-나무. [전역] = 정갈뤠-낭, 정갈뤼-낭, 정갈리-낭.

정가위-꼿 명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정가웨-고장.

정각 명 <식> 청각-채(靑角菜). *정각 하영 나민 그 해에 태풍 분다.(청각채가 많이 나면 그 해에 태풍 분다.) [김녕 조수 수산 가시 하도] = 전각, 청각.

정갈뤠-낭 명 <식> [조수] → 정가웨-낭.

정갈뤼-꼿 명 [가시] → 정가웨-고장.

정갈뤼-낭 명 <식> [전역] → 정가웨-낭.

정갈리-꼿 명 [김녕] → 정가웨-고장.

정갈리-낭 명 <식> [수산 서홍] → 정가웨-낭.

정갈피 명 칡껍질에서 섬유질만을 뽑아낸 실. [건입]

정갈피-신 명 <도> 칡껍질에서 섬유질만을 뽑아내어 만든 짚신. [영평 건입]

정강-꽝 명 정강이-뼈. [전역] = 성문-꽝, 성문이-꽝, 정강-뻬. 고 정강쎄.

정강-다님 명 [수산 가시 김녕] → 독-다림.

정강-머리 명 정강-마루. [전역] = 정강-몰리. 고 허튀ᄆᆞᄅᆞ.

정강-몰리 명 [전역] → 정강-머리.

정강-뻬 명 [전역] → 정강-꽝.

정강이 명 정강이. [전역] = 성문이, 정갱이[1], 정겡이.

정개 명 [태흥 표선 수산 노형 세화] → 청에[1].

정개-고개 명 [노형] → 청에[1].

정개-좃다 동 [태흥 표선 수산 세화 노형] → 청에-좃다.

정갱이[1] 명 [전역] → 정강이.

정갱이[2] 명 버캐. [서홍 김녕] = 뗑강이, 징겡이, 찌겡이[2].

정게-좃다 동 [표선] → 청에-좃다.

정겡이 명 [전역] → 정강이.

정광-ᄒᆞ다 형 나이 많은 노인이 아주 원기도 있고 기억력도 좋다. [전역]

정글다 동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김녕] → ᄌᆞ물다[2].

정기[1] 명 경기(驚氣). [인성 조수 화순 표선 세화] = 경기, 경새, 정세.

정기[2] 명 <음> [남원] → 빙-떡.

정기-떡 명 <음> [남원] → 빙-떡.

정-ᄀᆞ래 명 <도> [전역] → 정-ᄀᆞ레.

정-ᄀᆞ레 명 <도> 조금 얄팍하고 가벼운 돌로 만든 맷돌. [전역] = 정-ᄀᆞ래, 젱-ᄀᆞ래, 젱-ᄀᆞ레.

정-나미 명 [전역] → 정-내미.

정-날 명 [남원] → 저녁-날.

정-남 명 [태흥 가시 수산 세화] → 정-낭.

정-낭 명 거릿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대문(大門) 대신 가로 걸쳐 놓는 길고 굵직한 나무. *굴묵엣 거 조차내난 이젠 잇엉 정주막엔 정낭 놓주게.('굴묵'엣 것을 쫓아내니 이제는 이어서 '정주막'에는 '정낭'을 놓지.) [전역] = 정[4], 정-남, 정-살, 정살-낭, 정술-낭.



정낭과 정주목

정-내미 명 정-나미. [전역] = 정-나미, 정내미-정.

정내미-정 동 [김녕] → 정-내미.

정녕간에 부 정녕-코. *낭글 데영 초적이나 불라. 정녕간에 임 온 중 알게.(나무를 대어 초적이나 불어라. 정녕코 임 온 줄 알게.) [전역]

정-다슬다 동 정-다시다. 어떤 일에 크게 혼이 나서 다시는 하지 아니할 만큼 정신을 차리게 되다. [전역]

정당 명 <식> [전역] → 정동[1].

정당-구덕 명 댕댕이덩굴로 결은 바구니. [하도]

정당-벌립 명 댕댕이덩굴로 엮어 만든 벙거지. [화순 표선 수산 김녕 노형 조수] = 정당-벙것, 정당-벙긋, 정동-벌립.



정당벌립

정당-벙것 명 [태흥 수산 노형] → 정당-벌립.

정당-벙긋 명 [하원 서홍 표선] → 정당-벌립.

정당-줄 명 <식> [전역] → 정동[1].

정-데우 명 <민> 신청궤에서 청해 모신 신들을 위계에 따라 자리에 앉히는 제차. [전역]

정-돌다 동 [수산 김녕] → 청-돌다.

정동[1] 명 <식> 댕댕이-덩굴. [전역] = 고넹이-정당, 정당, 정동-껍, 정동-줄.

정동[2] 명 청동(靑銅). [전역] = 청동.

정동-껍 명 <식> [오라] → 정동[1].

정동-벌립 명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정당-벌립.

정동-줄 명 <식> [전역] → 정동[1].

정동-화리 명 청동-화로(靑銅火爐). [전역] = 놋-화리, 청동-화리.



정동화리

정-드르 명 <지> ① 제주시 용담동에 있었던 들판. [용담 이호] ② 제주시 용담동에 있었던 한 자연마을. [용담 이호]
정-들다 동 정-들다. [전역]
정-떨어지다 동 정-떨어지다. [전역]
정력 명 경력. [전역] = 경력.
정-말 명 정-말(正-). [전역]
정명녹-이 명 <민> 무구(巫具)를 관리하는 신. [전역]
정물-알오름 명 <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정물오름의 말굽형 분화구 앞에 딸린 작은 오름. 표고 356미터. [금악 동광]
정물-오름 명 <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 이시돌회관 남동쪽에 있는 오름. 표고 466미터. [금악 동광] = 정수-악(井水岳).
정벵이 명 <의> [서홍 수산 김녕 가시] → 점벵이.
정-살 명 [세화 조천 노형 어도 조수] → 정-낭.
정살-낭 명 [서홍 태흥 표선 수산 세화] → 정-낭.
정살-지기 명 <민> 정낭을 지키는 신. [전역]
정삽-ᄒᆞ다 형 행동이 조금 경쾌하다. [전역]
정세 명 [화순 화원 서홍 태흥 어도 조수] → 정기[1].
정수남이 명 <민> 마소(馬牛)의 수호신. [전역]
정수-악(井水岳) 명 <지> [금악 동광] → 정물-오름.
정술[1] 명 <도> 탕건을 가로 결어갈 때 줄을 바루는 연장. 낚싯줄 두어 가닥을 20센티미터쯤의 길이로 자르고, 끄트머리에 노끈 두어 가닥을 매단 술. [전역]
정술[2] 명 [전역] → 낙싯-줄.
정술-낭 명 [세화 인성 남원] → 정-낭.
정시 명 지관(地官). [전역] = 지관(地官).
정시-ᄒᆞ다 동 지관(地官)이 묏자리 따위를 보다. [전역]
정신-출리다 동 정신-차리다. [전역]
정실-마을 명 <지> 제주시 오라2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정심 명 [전역] → 점심.
정심-망텡이 명 <도> 점심(點心)을 넣어 들고 다니는 망태기. [전역] = 증심-멩텡이, 징심-멩텡이.
정애 명 [서홍] → 청에[1].
정애고개-ᄒᆞ다 동 [수산 김녕] → 엇게물-ᄐᆞ다.
정에 명 성에. 겨울에 수증기가 허옇게 얼어붙은 것. [전역]
정-연 명 [전역] → 쟁-연.
정우 명 경우. [전역] = 경우.
정월(正月) 명 정월. [전역]
정월-빙애기 명 음력 6월 스무날에 먹으려고 정월에 미리 마련하는 병아리. [덕수]
정월-쒜 명 [전역] → 정월-이.
정월-이 명 아기가 음력 정월에 났을 때에 이를 기념하는 뜻으로 어렸을 무렵에 붙이는 별명. [전역] = 정월-쒜.
정월이-오름 명 <지> 제주시 한림읍 금릉리 남동쪽에 있는 오름. 표고

106미터. ㊟ 정월이. [한림]

정이-본향 명 <민> 정의에서 가지고 온 당신(堂神). 곧 토산의 뱀신을 모시는 당. [전역] = 동이-본향.

정존-마을 명 <지> [노형] → 정존이.

정존이 명 <지> 제주시 노형동의 한 자연마을. [노형] = 정존-마을, 정준이.

정-주막 명 [대정] → 정-주목.

정-주먹 명 [서홍 호근] → 정-주목.

정-주목(-柱木) 명 거릿길에서 집으로 들어오는 길목에 대문(大門) 대신 가로 막아 놓는 긴 나무(정낭)가 걸쳐 의지하게 된 양쪽 돌기둥. *굴묵엣 거 조차내난 이젠 잇거 정주목엔 정낭 놓주게.(굴묵엣 것을 쫓아내니 이제는 이어서 정주목에는 정낭을 놓지.) [전역] = 정-주막, 정-주먹, 정-주목낭.



정주목

정-주목낭 명 [노형 어도 조수] → 정-주목.

정준이 명 <지> [노형] → 정존이.

정지 명 부엌. [전역] = 부억.

정짓-구들 명 <건> [전역] → 안-구들.

정짓-궤 명 [하가] → 살레[1].

정짓-되 명 식-되. 늘 '정지'(부엌)에 놓아 두는 것이어서 '정짓되'라고 함. [전역]

정짓-문 명 부엌-문. [전역]

정철이 명 <동> 전자리-상어. [서홍 노형 인성 조수] = 전자리.

정체(正體) 명 정체. [전역]

정체-빠지다(正體---) 동 사람의 행세가 떳떳하거나 일정하지 못하여 안 갈 데에 자주 가거나 안 할 일에 잘 참견하다. [전역]

정체-읏다(正體--) 형 사람의 행세가 떳떳하거나 일정하지 못하다. [전역]

정-치다 동 경-치다. [전역]

정-토새기 명 큰 산돼지. *내가 이디저디 가서 정토새기 흔 ᄆᆞ리 쏘앗는디 이리저리 홀목을 심언 언약ᄒᆞ엿는디.(내가 이곳저곳에 가서 큰 산돼지 한 마리 쏘았는데, 이리저리 손목을 잡고서 언약(言約)하였는데.) [대정]

정판 명 돛단배 앞 부분으로 이물장방 윗 갑판. [이호]

정-하님 명 <민> [전역] → 종-하님.

정ᄒᆞᆫ 말 구 막-말. *손아 손아, 정ᄒᆞᆫ 말 ᄒᆞ라, 천리 뒤에 놈 뒈영 가게.(손아 손아, 막말을 하라, 천리 뒤에 남 되어 가게.) [전역]

젖다 형 젖다(濕). [전역]

젖박-뿔 명 [서홍] → 잦박-뿔.

젖-줄 명 여름에 목장에서 수소를 매어 묶는 줄. 그 길이는 여섯 발 정도임. [애월]

제[1] 명 재(灰). [전역] ㊟ 지.

제[2] 명 저(箸). [전역]

제[3] 명 [전역] → 제ᄉᆞ.

제[4] 명 [전역] → 접[4].
제[5] 대 제. '나, 자기'의 낮춤말인 '저'가 변한 말. [전역] = 지[3].
제-각기(-各其) 부 제-각기. [전역]
제간 명 재간(才幹). [전역]
제금-만씩 부 [김녕] → 제-만씩.
제기다[1] 동 갓양태를 겯는 대오리를 만들어 가는 마지막 과정에 실올과 같이 쪼개기 위하여 댓개비의 한 쪽 끄트머리를 일정한 간격으로 칼금을 내다. [전역]
제기다[2] 동 재산 따위를 태어날 때부터 지니다. *어떤 ᄌᆞ년 밥 제경 낳곡 어떤 ᄌᆞ년 옷 제경 낳곡, 밥도 옷도 안 제긴 몸은 눈물만 제견 나 나 아싱가.(어떤 자녀는 밥 지녀 낳고, 어떤 자녀는 옷 지녀 낳고, 밥도 옷도 안 지닌 몸은 눈물만 지녀 내 났는가.) [전역]
제기다[3] 동 쌓다. 축적-하다. [전역]
제-까락 명 젓-가락. [전역] = 저-봄, ᄌᆞ-봄.
제꼇 명 [노형 인성 서홍 조수 가시] → ᄌᆞ끗.
제끼다[1] 동 접어-두다. 제외-하다. 젖-히다. *자원 제껴 뒁 가게.(저 아인 젖혀 두고 가자.) [전역]
제끼다[2] 동 말대꾸로 다투다. [전역]
제-낭 명 <식> ① 노린재-나무. [전역] ② 섬-노린재나무. [전역]
제-냥으로 부 스스로. [전역] = 지-냥으로.
제네-만씩 부 [전역] → 제-만씩.
제녁-날 명 [전역] → 저녁-날.
제노린-쉐 명 <동> 털이 담황색(淡黃色)의 빛깔을 한 소. [노형 조수 김녕]
제노린어럭-쉐 명 <동> 털빛이 담황색(淡黃色)으로 얼럭덜럭한 소. [전역]
제-당자 명 당(當)할 사람 제 자신. [전역] = 제-당제.
제-당제 명 [전역] → 제-당자.
제-딸이 명 재-떨이. [전역] = 제-떨이.
제-떨이 명 [전역] → 제-딸이.
제라-ᄒᆞ다 형 온전-하다. 맞다. 정확-하다. [전역]
제량 명 품질이 좋지 않은 갓양태의 한 가지. 날이 되는 쌀 수효가 300 쯤 됨. [전역]
제레 명 재래(在來). [전역]
제립 명 <동> [인성] → 저립.
제-만씩 부 제-만큼. 자기(自己)-만큼. [전역] = 제금-만씩, 제네-만씩, 제-만콤, 지네-만씩, 지네-만큼, 지-만썩, 지-만씩.
제-만콤 부 [전역] → 제-만씩.
제메 명 <동> 사람을 편안히 태우고서 재치있게 닫는 말. [어도]
제물(祭物) 명 제물. [전역] = 지물.
제물-떡(祭物-) 명 <민> 제사나 굿 따위의 의례에 올리는 떡. [전역] = 지물-떡.
제미 명 [전역] → ᄌᆞ미.
제-반(諸飯) 명 <민> 제사나 명절 때 제상에 있는 음식을 조금씩 골고루 뜯어서 모은 잡신용 의례 음식. [전역] = 걸명.
제발 부 제발. [전역]
제발덕분-에 부 제발덕분-에. 간절히 덕분을 바라건대.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제밤-낭 명 <식> [애월] → 즈베-낭.

제법 부 제법. 무던한 정도를 얕잡아 이르는 말. [전역] = 제벱.

제베 명 재배(再拜). [전역]

제벱 부 [김녕 조수] → 제법.

제복(祭服) 명 제복. 제사 의식 때 입는 예복. [전역]

제봉 명 재봉(裁縫). [전역]

제봉-틀 명 재봉-틀(裁縫-). [전역]

제비[1] 명 <동> [전역] → 제비-새.

제비[2] 명 <민> 쌀을 집어던져서 손에 잡힌 쌀알의 수효로 점을 치는 일. [전역]

제비[3] 명 <민> 재비. 제의(祭儀)는 집행하지 못하고 심부름만 하는 무격(巫覡). [전역]

제비-빠다 동 [전역] → 제비-뽑다.

제비-뽑다 동 제비-뽑다. [전역] = 제비-빠다, 제비-뺍다.

제비-뺍다 동 [조수 김녕] → 제비-뽑다.

제비-새 명 <동> 제비(燕). [전역] = 제비[1], 제비-생이. 고 져비.

제비-생이 명 <동> [전역] → 제비-새.

제비-쏠 명 <민> 제비할 때 쓰는 쌀. [전역]

제사닛-개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1리 포구의 옛 이름. [남원] = 제산잇-개.

제산 명 재산(財産). [전역]

제산잇-개 명 <지> [남원] → 제사닛-개.

제 섬 구 여러 지방. *어떤 낭은 팔제 궂엉 질긋 집의 듸딜팡 놓앙 제섬 유네 발에서 논다.(어떤 나무는 팔자 궂어 길가 집에 부출을 놓아 온 섬 유녀 발에서 논다.) [전역]

제섬 거 구 여러 지방의 사람. 여러 지방의 물건. [전역]

제수 명 재수(財數). 재물이 생기거나 좋은 일이 있을 운수. [전역]

제수-치레 명 재물(財物)에 관한 좋은 운수를 몸에 지님. [전역] = 제쉬-치레.

제숙 명 <음> 제상(祭床)에 올리는 생선류. [전역] = 지숙.

제-쉐 명 <동> 털이 담황색(淡黃色) 빛깔을 한 소. [전역]

제쉬-치레 명 [전역] → 제수-치레.

제스 명 제사(祭祀). [전역] = 제[3], 지스.

제싯-날 명 제삿-날(祭祀日). [전역]

제에기[1] 명 [김녕 조수] → 제여기.

제에기[2] 명 <민> 밥 선생으로 일컬어지는 이. [전역]

제여기 명 보무라지. [전역] = 제에기[1].

제역-날 명 [서홍 가시] → 저녁-날.

제엽 명 아이들이 하는 장난.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제오-상계 명 <민> 규모 있는 굿에서 '젯상계'에 이어 거듭 떨어진 신을 청해 들이는 제차. [전역] = 제오-젯상계.

제오-젯상계 명 <민> [전역] → 제오-상계.

제와니 명 <식> 바랭이. [노형 조수 서홍] = 절롸니, 절롼지, 제완지, 제환지.

제완지 명 <식> [조수 김녕 서홍 노형] → 제와니.

제왕-칠성(帝王七星) 명 <민> 부(富)를 이루게 해 준다고 하는 사신(蛇神). '칠성'(七星), '부군칠성'(富君七星)이라고도 함. [전역]
제우 부 겨우. [전역] = 겨우, 제위.
제우다 형 겹다. 힘에 부치다. *사름 제완 못 살켜.(사람 겨워 못 살겠다.) [전역] 고 계오다.
제-우제 명 재-우제(再虞祭). [전역]
제월-밧 명 [표선] → 제월-전.
제월-전 명 제위-전(祭位田). 돌아가신 조상의 제사를 지낼 몫으로 대대로 내려와 물림하며 경작(耕作)하게 되는 밭. [인성 화순 하원 서홍 태흥 표선 수산] = 제월-밧, 제월-제, 제월-조, 제월-지, 젯-조.
제월-제 명 [조천 조수 어도] → 제월-전.
제월-조 명 [인성 화순 하원 서홍 노형 어도 조수] → 제월-전.
제월-지 명 [어도] → 제월-전.
제위 부 [전역] → 제우.
제육(祭肉) 명 제육. 제사에 적(炙)을 만들어 올릴 고기. [전역] = 제찬.
제일(第一) 관부 제일. [전역] = 질[5].
제주[1] 명 재주(才操). [전역] = 제쥐[1].
제주[2](祭酒) 명 제주. [전역] = 제쥐[2], 지주.
제쥐[1] 명 [전역] → 제주[1].
제쥐[2] 명 [전역] → 제주[2].
제지 명 기름을 짜는 나물(菜)의 씨.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제지기-오름 명 <지> [전역] → 절-오름.
제-지다 동 물건 자체에 어떤 흠집이 있어서 값이 나가지 않다. [전역]
제집 명 계집(女). [전역] = 기집, 지집.
제집-아의 명 [수산 김녕] → 지집-아의.
제조 명 제자(弟子). [전역]
제찬 명 [전역] → 제육(祭肉).
제청-신도업 명 <민> 제청에 모시는 모든 신들이 창업(創業)한 내력을 이야기하는 순서. [전역]
제-촐앗 명 여럿이 계(契)를 맺어 같이 마련한 꼴밭. [광령]
제추 명 재차(再次). [전역]
제펜 명 <음> 쌀가루에 팥소 따위로 켜를 앉혀 찐 시루떡. [전역] = 지펜.
제환지 명 <식> [수산 조수 가시] → 제와니.
제한 명 제한(制限). [전역]
제한-에 부 제 스스로의 한도 또는 기한에. [전역]
-젠[1] 어미 -려고.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저'의 변형 '-제'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연결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게난 소도리 맞추젠.(그러니까 소문을 맞추려고.) [전역]
-젠[2] 어미 -다고. 용언 어간에 붙은 '-암-·-엄-·-염-·-람-' 또는 '-앗-·-엇-·-엿-·-랏-' 등에 연결되는 평서법 어미 '-저'의 변형 '-제'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젠[3] 어미 -겠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묻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전역]

-젠만 어미 -려고만.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는 '-저'의 변형 '-제'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연결되고, 또 제한하는 뜻을 나타내는 '-만'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젭시 명 [전역] → 좁시.

젭주-와기 명 [노형 인성] → 좁-제기[1], 좁-제기[2].

젭지다 동 [어도] → 좁지다.

젭히다 동 [노형 조수] → 좁지다.

젯 명 젖(乳). [전역] = 줏[1], 젓[2]. 고 졋.

젯-가르다 동 [전역] → 젓-가르다.

젯-가슴 명 [전역] → 젓-가슴.

젯-가지 명 [전역] → 젓-가지.

젯거리 명 풍선(風船) 따위의 노 젓는 배에서 배 양쪽에서 젓는 노. [이호]

젯-고고리 명 [전역] → 젓-고고리.

젯구룸 명 [조천] → 중석.

젯-대장 명 <공> 보습을 만드는 불미 마당에 가득 즐비하게 늘어놓은 여러 주물(鑄物)에 둑에서 녹인 쇳물을 뽑아다가 부어 넣는 사람. [덕수]

젯-돈 명 곗-돈(契-). [전역]

젯-ᄃᆞ리 명 <민> 굿을 진행하는 절차. '제'는 제사, 'ᄃᆞ리'는 다리(橋), 차례의 뜻. [전역]

젯부기-삼성제 명 <민> [전역] → 젯부기-삼형제.

젯부기-삼형제 명 <민> 무조(巫祖) 삼형제. 본명두, 신명두, 살아살축 삼명두. [전역] = 젯부기-삼성제.

젯상 명 제상(祭床). [전역]

젯-상계 명 <민> 규모 있는 굿에서 초상계에 이어 거듭 신을 청해 들이는 제차. [전역]

젯-새왓 명 계원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마련한 '새왓'(茅田). [도련]

젯-어멍 명 젖-어머니. 유모(乳母). [전역]

젯-자리 명 제석(祭席). [전역]

젯-조 명 [화순 하원 태흥] → 제월-전.

젯-통[1] 명 굵은 대통(竹筒)을 끊거나 또는 가는 대오리로 엮어 만든 좁고 길쭉한 수저를 넣는 물건. [전역]

젯-통[2] 명 젖-통이(乳--). [전역] = 젓-덩어리, 젯-퉁, 줏-통. 고 졋통.

젯통-마개 명 <의> 가슴을 감싸는 여성용 속옷. *이젠 신식 거 나난 ᄒᆞ주마는, 옛날은 미녕으로 젯통마개 멘들앙 밋친 두 개 양 밧듸 둘앙그네 딱 제왕그네 입엉 뎅겨낫주.(이젠 신식 거 나니까 하지마는, 옛날에는 '젯통마개'를 무명으로 만들어서 멜빵 두 개 양 군데 달아서 딱 조여서 입고 다녔었지.) [이호]

젯-퉁 명 [전역] → 젯-통[2].

젱 명 쟁(錚). [전역]

-젱[1] 어미 -려고.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는 '-저'의 변형 '-제'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젱[2] 어미 -다고. 용언 어간에 붙은 '-

암-・-엄-・-염-・-람-'이나 '-앗-・-엇-・-였-・-랏-' 등에 연결되는 평서법 어미 '-저'의 변형 '-제'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젱기-고장 명 <식> 산-철쭉. [전역]

젱-ᄀᆞ래 명 <도> [전역] → 정-ᄀᆞ레.

젱-ᄀᆞ레 명 <도> [전역] → 정-ᄀᆞ레.

-젱만 어미 -려고만.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고자 하는 뜻을 나타내는 '-저'의 변형 '-제'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연결되고, 또 제한하는 뜻을 나타내는 '-만'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경 먹젱만 ᄒᆞ영사 뒈느냐? (그렇게 먹으려고만 해서야 되겠니?) [전역]

젱멩 명 [전역] → 징멩.

젱반 명 쟁반(錚盤). [전역]

젱베름 명 ① <동> [하도 동복] → 비말. ② <동> 애기-두드럭배말. [행원] = 허물-젱베름.

젱베리 명 <동> [김녕] → 춤-베말.

젱-첩 명 울이 아주 얕고 굽이 달린 작은 놋그릇. [전역]

-져 어미 [전역] → -저[1].

-져 말져 어미 어떤 동작에 대한 망설임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뿔래질을 가서 ᄒᆞᆫ창 ᄒᆞ다가, 다 헤 가지고 집더레 돌아오져 말져 이렇게 ᄒᆞ는디. (빨래질을 가서 한창 하다가, 다 해서 집으로 돌아올까 말까, 이렇게 하는데.) [전역]

조 명 <식> 조(粟). [전역]

조개[1] 명 <동> [온평 강정] → 오분-재기.

조개[2] 명 <동> 조개(蛤). [전역] = 조갱이[1].

조개기 명 [인성 서홍] → 조갱이[2].

조개-솔벤 명 <음> [색달 중문] → 조개-송편.

조개-솔편 명 <음> [수산 서홍] → 조개-송편.

조개-송편 명 <음> 모시조개 모양으로 만들어진 송편(松餠). [노형 조수 인성 김녕 가시] = 조개-솔벤, 조개-솔편.



조개송편

조개-풀 명 <식> 거름용 해조류의 일종. [표선]

조갱이[1] 명 <동> [어도] → 조개[2].

조갱이[2] 명 전복이나 떡조개의 껍데기. 부추를 자를 때 호미나 칼을 이용하면 쇳가루가 묻어서 뿌리가 죽기 때문에 과거에는 조갱이를 사용했음. [전역] = 조개기.

조갱이[3] 명 <동> 새끼 전복. *점복 새끼ᄀᆞ라 조갱이엔 ᄒᆞ주기.(전복 새끼를 두고 '조갱이'라고 하지.) [하귀]

조갱이-검질 명 자그마한 전복껍질인 '조갱이'로 긁는 밭매기. *서우봉밧딘 조갱이검질을 매어사 ᄒᆞ주.(서우봉(犀牛峰) 밭은 조개껍질로 김을 매어야 하지.) [행원 북촌]

조고만-ᄒᆞ다 형 조그마-하다. [전역]

조곰 부 조금. 정도나 분량이 적게. [전역]

조곽-우미(부藿--) 명 <식> 이른 우뭇가사리. [우도]

조금 명 [인성 화순 하원 서홍 노형] → 쥐기.

조기[1] 명 <동> 참-조기. [전역]

조기[2] 명 [인성 화순 하원 표선 수산] → 쥐기.

조꼼 부 조금. [전역]

조꼼-만 부 조금-만. [전역]

조끄다 동 좇다. *저 백 강셍이 조름 조깡 가라.(저 흰 강아지의 꽁무니를 좇아서 가라.) [표선]

조끼다 동 [노형 조수 인성 수산 김녕] → 쥐끼다.

조-낭 명 조-짚. [저지]

조녀 명 <민> 존위(尊位). 마을의 일반 서무에 관한 사무를 맡은 소임(所任). [북촌]

조동-머리 명 [인성] → 조종-머리.

조동-패기 명 [인성] → 조종-머리.

조락 명 *조락은 이제사 난 거라. 조락을 우미 홀 때는 테왁에 둘아매영 쓰주.('조락'은 이제야 난 것이야. 우뭇가사리 채취할 때는 '조락'들을 '테왁'에 달아매어서 쓰지.) [서홍 세화] → 조레기.

조락-바구리 명 [서홍 수산 김녕] → 조레기.

조랍다 동 졸리다. 자고 싶어 졸음이 오다. [전역]

조랑-개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1리에 있는 자연 포구. [남원]

조랑-내 명 아주 작은 개울로 졸졸 소리내며 흐르는 내(川). [전역] = 조롱-내.

조랑-조랑 부 조랑-조랑. [전역]

조레기 명 종-다래끼. 그물 따위로 잘게 엮어 만든 작은 주머니. 주로 해녀들이 물질할 때 테왁에 매달아 오분제기나 긁기가 작은 해산물 따위를 넣는 주머니. [인성 서홍 김녕 수산] = 조락, 조락-바구리.



조레기

조레기-낭 명 <식> [전역] → 조록이.

조로륵 부 조르륵. [전역]

조록 부 조록. 가는 물줄기가 좁은 구멍으로 빨리 흐르다가 그치는 소리.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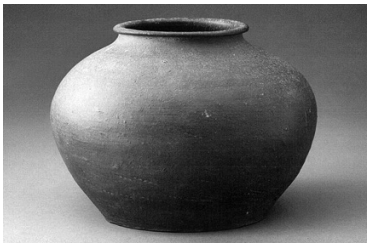
조록이 명 <식> 조록-나무. [전역] = 조레기-낭.

조롬 명 꽁무니. 뒤. [전역] = 조름.

조롬-꽝 명 [전역] → 똥고망-꽝.

조롱-낭 명 <식> 조롱-나무. [전역]

조롱-내 명 [김녕] → 조랑-내.
조르다 동 조르다. ① 무엇을 요구하다. [전역] ② 재촉하다. [전역]
조름 명 [전역] → 조롬.
조리 명 집게-뻠. [전역]
조리세미-오름 명 <지> [봉개 아라] → 안-세미오름.
조리-조리 부 박박 얽은 모양. *조리조리 얽은 놈아 밥상 받앙 타령 말라.(박박 얽은 놈아 밥상을 받고 타령 마라.) [전역]
조막-구덕 명 자그마한 구덕. 보통 바늘상자로 쓰임. [도련]
조막-단지 명 손주먹만큼 자그마한 단지. [전역]



조막단지

조막손-이[1] 명 조막손-이. [전역]
조막손-이[2] 명 <민> 북 선생으로 일컬어지는 이. [전역]
조매-조매 명 죄암-죄암. [전역] = 좀매-좀매.
조매-질 명 죄암-질. [서홍 인성 김녕 가시] = 좀매-질.
조문(弔問) 명 [전역] → 고렴.
조문-ᄒᆞ다(弔問--) 동 조문-하다. [전역] = 고견-ᄒᆞ다, 고렴-ᄒᆞ다.
조-몽생이 명 자그만 망아지. [전역]
조반-ᄀᆞ슴 명 아침-거리. [전역] = 아적-ᄀᆞ슴, 아침-ᄀᆞ심, 조반-ᄀᆞ심, 조반-ᄀᆞ음.
조반-ᄀᆞ심 명 [전역] → 조반-ᄀᆞ슴.
조반-ᄀᆞ음 명 [전역] → 조반-ᄀᆞ슴.
조반-상제 명 발인하는 날 아침 음식을 담당하는 상주. [전역]
조상[1](祖上) 명 조상. [전역]
조상[2](祖上) 명 <민> 조상-신(祖上神). 일가(一家) 내지 일족(一族)을 수호하는 신. [전역] = 조상-신, 초상.
조상-신 명 [전역] → 조상[2].
조상-전(祖上田) 명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재산. [전역]
조상-ᄒᆞ다(弔喪--) 동 조상-하다. [조수 어도]
조세-ᄒᆞ다 동 재롱-부리다. *메눌아기 방애 지라, 뚤아기 조세ᄒᆞ라.(며늘아기 방아 찧어라, 딸아기 재롱부려라.) [전역]
조심(操心) 명 조심. [전역]
조심-드리 명 <민> 신칼의 손잡이에서 칼날로 이어지는 부분. [전역]
조심-띠 명 <민> 심방이 무복인 관복을 입고 가슴에 두르는 띠. [전역]
조왕(竈王) 명 <민> [전역] → 조왕-할망.
조왕-구물 명 좽이. 물고기를 잡는 그물의 하나. [전역]
조왕-굿 명 <민> 조왕(竈王)을 모시는 의례. [전역] = 조왕-제.
조왕-기 명 <민> 조왕할망을 상징하는 종이 깃발. [전역]
조왕-비념 명 <민> 굿의 막바지에 부엌에서 조왕신에 대하여 기원하는

의례. [전역]
조왕-제 명 <민> [전역] → 조왕-굿.
조왕-할망 명 <민> 부엌을 맡은 여신(女神). [전역] = 조왕.
조용-ᄒᆞ다 형 조용-하다. [전역]
조이 명 [온평] → 종이.
조이-전 명 지전(紙廛). 종이 가게. [온평]
조작-새 명 <민> 무게 없이 자꾸 조작거리게 하는 사기(邪氣). [전역]
조작지-왓 명 <어> 자잘한 돌멩이가 깔려 있는 바다. [대포]
조쟁이 명 사내아이의 자지. [전역]
조-졸레 명 [전역] → 조-촐레.
조종-머리 명 '상투'의 낮춤말. [전역] = 조동-머리, 조동-패기, 조종-패기.
조종-패기 명 [전역] → 조종-머리.
조지 명 모춤.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좀[1], 주지[3].
조-지다 동 쪽-찌다. [전역]
조지락-ᄒᆞ다 형 평평한 바닥에서 사물이 툭하게 튀어나다. [전역]
조지렉-이 부 갑자기 튀어나오거나 끼어드는 상태를 이르는 말. [전역]
조진-거리다 동 종잘-거리다. [전역] = 조진-돌다.
조진-돌다 동 [전역] → 조진-거리다.
조진-조진 부 차근-차근. [전역]
조-집 명 [전역] → 조-찝.
조-찍 명 [인성 서홍] → 조-찝.
조찔-것 명 조치-개. 밥에 딸려서 먹는 반찬 따위. [전역] = 조칠-것.
조-찝 명 조-짚(粟-). [전역] = 조-집, 조-찍, 조-칩.
조-청각 명 <식> 청각채의 한 종류. [하귀 대포]
조-체 명 조(粟)에서 벗기어 낸 겉껍질. [전역]
조-촐레 명 조(粟)의 쭉정이. [전역] = 조-졸레.
조촘-앉다 동 엉덩이를 들고 두 다리를 구부려 세워서 발로 디디어 앉다. [전역] = 조침-안지다.
조치다[1] 동 끼니를 먹을 때 밥과 함께 조치개로 반찬을 먹다. *고린 장 흔 사발 주십서. 식은 밥에 조창 먹엇당 개똥밧듸 검질 메여 주쿠다.(고린 장 한 사발 주십시오. 식은 밥에 조치개로 먹었다가 개똥밭에 김 매어 드리겠습니다.) [전역]
조치다[2] 동 좇다. [전역]
조-친떡 명 <음> [수산 김녕] → 조-침떡.
조칠-것 명 [남원] → 조찔-것.
조-침떡 명 <음> 좁쌀 가루에 팥소 따위로 켜를 앉혀서 찐 시루떡. [인성 서홍 조수 노형] = 조-친떡.
조침-안지다 동 [전역] → 조촘-앉다.
조-칩 명 [수산 가시 조수] → 조-찝.
조-칵메기 명 조 이삭에서 열매를 떨어 버리고 남은 줄기. [전역] = 조-콕메기.
조캐 명 [전역] → 조케.
조케 명 조카(姪). [전역] = 조캐. 고 아츤아돌.
조켓-버릇 명 조카-뻘(姪-). [전역] = 조켓-츠레.
조켓-츠레 명 [전역] → 조켓-버릇.
조-코고리 명 조-이삭(粟蒂). [전역]
조-콕메기 명 [가시] → 조-칵메기.



조코고리

조-쿠제기 명 <동> [귀덕 판포 용당 신창] → 생궹이.



조쿠제기

조-쿠젱이 명 <동> [하귀 이호 애월] → 생궹이.

조-크르 명 조(粟)를 베어 버리고 난 밑동. [전역]

조-팝 명 <음> 조-밥(粟飯). *(속) 강정 아이덜은 조팝 주켄 ᄒᆞ민 안 울곡, 곤밥 주켄 ᄒᆞ민 운다.(강정(江汀) 아이들은 조밥 주겠다고 하면 안 울고, 쌀밥 주겠다고 하면 운다.) [전역]

조-팟 명 조-밭(粟田). [전역]

조-풍뎅이 명 조(粟)에서 벗기어 낸 겉껍질 따위. [전역]

조피-낭 명 <식> [전역] → 쉬피-낭.

조합-짓다 동 여러 가지 쌀을 섞어서 밥을 짓다. *조합짓인 밥이여마는 먹어나 보라.(섞어 지은 밥이네마는 먹어 보아라.) [전역]

족[1] 명 <동> [전역] → 족제비.

족[2] 명 [수산 세화] → 촉[2].

족[3] 명 [전역] → 죽[1].

족-낭 명 <식> 때죽-나무. [전역]

족다[1] 형 작다(小). [전역] = 작다.

족다[2] 형 적다. 수효나 분량이 모자라다. [전역]

족-대 명 <식> 이-대(-竹). [인성 화순 하원 조수 서홍 세화 어도 호근] = 수리-대[1].

족도리 명 족두리. [전역]

족-바리 명 <민> 돼지. [전역]

족바지-몰 명 <동> [화순 노형 조수] → 족벡이-몰.

족-박 명 쪽-박. 작은 바가지. *(속) 사름광 족박은 시민 신 대로 쓴다.(사람과 쪽박은 있으면 있는 대로 쓴다.) [전역]

족발-이 명 <동> 걸음을 걸을 적에 발회목 위가 내리 디디어지는 말. [전역]

족벡이-몰(足白馬) 명 <동> 발의 털빛이 흰 말. [전역] = 족바지-몰. 고 ᄉᆞ죡빅.

족-새 명 [인성] → 작은-태.

족-수까락 명 자루가 붙은 숟가락. [전역]

족은-지그리 명 <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큰지그리 북쪽에 이웃한 작은 오름. 표고 504미터. [교래 봉개]

족은-가지 명 맏이 이외 가문의 자손들. [전역]

족은-각시 명 작은-마누라(小室). [전역] = 족은-마누라[1].

족은-갈롯 명 <민> 썰어 낸 돼지고기의 양을 조금 적게 하여 대나무 꼬챙이에 꽂은 것. [신흥]

족은-개오리 명 <지> 제주시 봉개동 개오리오름 북쪽에 잇닿은 작은 오름. 표고 664미터. [교래 봉개 아라]

족은-구들 명 <건> [전역] → 안-구들.

족은-굿 명 <민> 작은 굿. 당클을 매지 않고, 무악기도 모두 동원되지 않으며, 소미도 따로 없이 한두 심방만이 참여를 하고, 하루 혹은 1박 2일 정도로 끝내는 굿. [전역]

족은-년 명 [전역] → 족은-뚤.

족은-노로 명 <지> [노형 금덕] → 족은-노로오름.

족은-노로오름 명 <지> 제주시 애월읍 금덕리 남동쪽 노로오름에 잇닿은 작은 오름. 표고 1019미터. [노형 금덕] = 족은-노로.

족은-놈 명 [전역] → 족은-아들.

족은-누의 명 막냇-누이. [전역]

족은-눈 명 해녀가 물질할 때에 쓰는, 작은 알이 둘인 물안경. [하도] = 종짓-눈.



족은눈

족은-대나 명 <지> 제주시 봉개동 절물오름(일명 대나오름) 남동쪽에 잇닿은 작은 오름. 표고 657미터. [교래 봉개]

족은대비-오름 명 <지>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 산록도로변에 있는 오름. 표고 541미터. [전역]

족은-도리미 명 <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도리미 북쪽에 있는 작은 오름. 표고 274미터. [송당]

족은드레-오름 명 <지> 한라산 국립공원 족은드레왓에 있는 오름. 표고 1339미터. [오라 노형 광령] = 금-봉(金峰), 소두리-봉(小斗里峰).

족은-드레왓 명 <지> 제주시 아흔아홉골 남쪽 한라산 국립공원의 삼림대(森林帶) 위쪽에 벌어진 들판. [오라 노형 광령]

족은-뚤 명 작은-딸. [전역] = 족은-년, 족은-지집아의.

족은-마누라[1] 명 [전역] → 족은-각시.

족은-마누라[2] 명 <병> 작은-마마. 수두(水痘). [전역] = 뜰-항긋, 족은-한집.

족은말잣-놈 명 [전역] → 족은말잣-아들.

족은말잣-아들 명 다섯 형제 중 넷째 아들. [전역] = 족은말잣-놈, 족은말젯-아들.

족은말젯-아들 명 [전역] → 족은말잣-아들.

족은-망텡이 명 <도> [전역] → 족은-멩텡이.

족은-멩텡이 명 <도> 아주 작은 멱둥구미. [전역] = 족은-망텡이.

족은-물메 명 <지> 서귀포시 성산읍 신양리 서쪽에 있는 작은 오름. 북녘 비탈에 조선 때의 이름난 효자 홍달

한(洪達漢)의 묘가 있음. 표고 53미터. [전역] = 소-수산봉(小水山峰), 족은-물미.

족은-물미 명 <지> [전역] → 족은-물메.

족은-바리메 명 <지> 제주시 애월읍 어음리의 바리메 동쪽에 이웃한 오름. 표고 726미터. [광령 어음 금악]

족은-베설 명 작은-창자. [성읍]

족은-사슴이 명 <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제동목장 동쪽에 있는 오름. 표고 442미터. [전역] = 소록-산(小鹿山).

족은-삼방 명 <건> [조수 어도] → 천방.

족은-상제(--喪制) 명 작은-상제. [전역]

족은-샛복 명 작은-사폭(--邪幅). [전역]

족은-성 명 작은-형(--兄). [전역]

족은-소나의 명 [전역] → 족은-아돌.

족은-시왕맞이 명 <민> 큰굿에서 초감제에 떨어진 신을 재차 청하는 의례인 초신맞이의 별칭. [함덕]

족은-아덜 명 [전역] → 족은-아돌.

족은-아돌 명 작은-아들. [전역] = 족은-놈, 족은-소나의, 족은-아덜, 족은-치.

족은-아방 명 작은-아버지. 아버지의 맨끝 아우. [전역]

족은-안창 명 <지> [비양도] → 족은-암메창.

족은-알오름 명 <지>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강터을'(江月洞)에 있는 나지막한 오름. [한경]

족은-암메창 명 <지>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비양봉에 있는 쌍분화구의 작은 쪽 분화구. 둘레 약 500미터, 정상으로부터의 깊이 76미터. [비양도] = 족은-안창.

족은-어멍 명 ① 작은-어머니. [전역] ② 아버지의 맨끝 아우의 아내. [전역]

족은-염통 명 <지> [토산 세화] → 족은-염통오름.

족은-염통오름 명 <지>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1리 염통오름의 길 건너에 있는 작은 오름. 표고 114미터. [토산 세화] = 족은-염통.

족은-오름[1] 명 <지> 한라산 국립공원 웃세오름의 제일 서쪽 작은 오름. 표고 1699미터. [오라 광령 하원]

족은-오름[2] 명 <지>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골른오름의 작은 쪽 오름. 표고 473미터. [상창 상천 상예] = 소병-악(小並岳).

족은-오름[3] 명 <지> [전역] → 노꼬메-족은오름.

족은-왕메 명 <지> 서귀포시 성산읍 시흥리와 수산리 경계, 왕메 북동쪽에 있는 작은 오름. 표고 103미터. [전역] = 소왕-산(小王山・小旺山), 족은-왕이미.

족은-왕이미 명 [성산] → 족은-왕메.

족은-작박 명 <지> [상명] → 족은작박-암메창.

족은작박-암메창 명 <지>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에 있는 느지리오름 쌍분화구의 작은 쪽 분화구. [상명] = 족은-작박.

족은-지집아의 명 [전역] → 족은-뚤.

족은-집[1] 명 작은-집. ① 작은 아버지

의 집. [전역] ② 따로 사는 아우의 집. [전역]

족은-집[2] 명 작은-집. 첩(妾)을 이르는 말. [전역]

족은-줌녜 명 <어> [전역] → 하군.

족은-줌수 명 <어> [전역] → 하군.

족은-착 명 말(馬)이 '돗가래'를 담아 길마로 지어 나를 수 있는 크기의 멱서리. [하천]

족은-창맥 명 한 섬들이의 멱서리. [대포]

족은-처남(--妻男) 명 작은-처남. [전역]

족은-치 명 [노형] → 족은-아들.

족은-테왁 명 <어> [전역] → 애기-테왁.

족은-한집 명 <병> [전역] → 족은-마누라[2].

족은-항 명 <도> 작은-독. [전역]

족-재열 명 <동> [인성 조수]→ 풋-재열.

족제비 명 <동> 족제비(鼬鼠). [전역] = 족[1]. 고 죽접이.

족족 부 작작. 적은 정도로. [전역]

족지-펭풍 명 <민> 쪽을 내어 칸을 가른 병풍(屛風). [전역]

족집게 명 [조수] → 족줍게.

족줍게 명 족집게. [노형 인성 서홍 조수] = 족-집게, 족-줍괘.

족줍괘 명 [수산 가시] → 족-줍게.

족-ᄒᆞ다 형 아깝다. 안타깝다. * ᄒᆞ마 떼민 족ᄒᆞᆫ 사름 죽일 뻔헷다.(하마터면 아까운 사람 죽일 뻔했다.) [전역]

존경이 명 <식> 으름. [태흥 표선 수산 세화 조천] = 유럼, 유름, 유으름, 졸겡이, 종겡이.



존경이

존경잇-줄 명 <식> 으름-덩굴. [노형 서홍 수산 김녕 조수] = 너덩, 유으름-줄, 졸겡잇-줄.

졸겡이 명 <식> [전역] → 존경이.

졸겡잇-줄 명 [인성 호근 어도] → 존경잇-줄.

졸깃졸깃-ᄒᆞ다 형 졸깃졸깃-하다. [전역]

졸다 동 졸다(眠). [전역] 고 ᄌᆞ올다.

졸-들다 동 마음이 활달하지 못하고 옹졸하여지다. [인성 화순 하원 서홍 태흥 표선 세화 조천]

졸라-대다 동 졸라-대다. [전역]

졸라-먹다 동 남이 가진 것을 달라고 보채어 조금 나눠 먹다. [전역]

졸라-앗다 동 남이 가진 것을 달라고 보채어서 조금 나눠 가지다. [전역]

졸락 부 오줌 따위가 자기도 모르게 갑자기 나오는 모양. [전역]

졸락-졸락 부 졸딱-졸딱. [전역]

졸레 명 [전역] → 죽젱이.

졸레-석 명 <도> [서홍 수산 가시 김녕] → 무제미.

졸로다 동 조리다. 국물이 없어지게 바짝 끓이다. [전역] = 졸르다[2].

졸르다[1] 동 조르다. [전역]

졸르다[2] 동 [전역] → 졸로다.
졸리-돌다 동 집 밖을 나돌아 다니다. [전역]
졸망-졸망 부 졸망-졸망. 자질구레한 물건이 많아 보기 좋은 모양. [전역]
졸망-ᄒᆞ다(拙妄--) 형 졸망-하다. [전역]
졸-바로 부 비뚤어지지 않고 똑바르게. ＊의복이나 졸바로 입엉 가야 ᄒᆞ겟는디.(의복(衣服)이나 바르게 입어서 가야 하겠는데.) [전역] = 졸-바르.
졸-바르 부 [전역] → 졸-바로.
졸-바르다 형 틀리거나 비뚤어지지 아니하여 반듯하다. [전역]
졸-복 명 <동> 졸-복. [전역]
졸아-들다 동 졸아-들다. [전역]
졸졸 부 졸졸. [전역]
좀[1] 명 [수산] → 조지.
좀[2] 명 나무-좀. [전역] 고 좀.
좀[3] 명 줌. 주먹으로 쥘 만한 분량. [전역]
좀-꿰다리 명 [전역] → 준-꿰다리.
좀-들다 동 좀벌레가 생기다. [전역]
좀매-좀매 명 [전역] → 조매-조매.
좀매-질 명 [노형 조수 수산] → 조매-질.
좀-먹다 동 좀-먹다. [전역]
좀메-떡 명 <민> [태흥 표선] → 손-웨성.
좀-삼태 명 <도> 작은 삼태기. 돌멩이 따위를 나르는 기구. [전역]
좀안에-들다 동 [전역] → 좀안혜-들다.
좀안혜-들다 동 물건이 작아서 손아귀 안에 들다. [전역] = 좀안에-들다.
좀-작지 명 <민> 작은 돌멩이. [전역]
좀좀이 부 줌줌-이. ＊물엣 바농 좀좀이 줏언.(물엣 바늘 줌줌이 주웠어.) [전역]
좀-처럼 부 [전역] → 좀-ᄎᆞ로.
좀-체로 부 [전역] → 좀-ᄎᆞ로.
좀-치다 동 옷, 종이 따위에 반대좀이 생기어 쏠아버리다. [전역]
좀-ᄎᆞ로 부 좀-처럼. [전역] = 좀-처럼, 좀-체로.
좀-톱 명 <도> 아주 작은 톱. [전역]
좀-통 명 <도> 노의 손잡이. [사계]
좀-팍 명 <도> [노형 인성 조수 서홍 화순 하원 어도] → 솔-박.
좀-팍세기 명 <도> ＊요영 ᄒᆞ영이네 대읏 방울 쥐곡쥐곡 ᄒᆞ영 다섯 번 쳄을 ᄒᆞ민 좀팍세기로 하나토 못ᄒᆞ주기.(요렇게 해서 대엿 방울 쥐고쥐고 해서 다섯 번을 쥐면 '좀팍세기'로 하나도 못하지.) [명월] → 솔-박.
좁다 형 좁다(狹). [전역]
좁-생이 명 <동> [조천] → 비죽-생이.
좁썰-구제기 명 <동> [전역] → 생궹이.
좁썰-구젱기 명 <동> [전역] → 생궹이.
좁-씨 명 파종용 좁쌀. [전역]
좁-쏠 명 좁-쌀. ＊(속) 좁쏠만이 애꼇당 담돌만이 해롭다.(좁쌀만큼 아꼈다가 돌덩이만큼 해롭다.) [전역] 고 조쌀.
좁쏠-셍겡이 명 <동> [하도] → 생궹이.
좁아-지다 동 오므라-지다. ＊벌러진 디 부떠그네 물들며는 버우싸지고 물싸면은 영 좁아진 거 잇어.(벌어진 데 붙어서 물밀면 벌어지고 물써면 영 오그라지는 것 있어.) [하도]
좁짝-ᄒᆞ다 형 (간격이) 좁다. 비-좁다.

[전역]
좃 명 좆(腎). [전역]
좃-거울 명 [어도 조수] → 좃-터럭.
좃-거웃 명 [전역] → 좃-터럭.
좃-구젱기 명 <동> [전역] → 생궹이.
좃-꺼럭 명 [어도 조수] → 좃-터럭.
좃다 동 쪼다. 뾰족한 끝으로 쳐서 찍다. [전역]
좃-두더니 명 불-두덩. [전역]
좃-벨레기 명 <동> 말뚝-망둥이. [노형 조수 가시]
좃-봉오지 명 귀두. 남자 생식기의 끝 부분. [전역]
좃아-먹다 동 쪼아-먹다. [전역]
좃-터럭 명 자지에 난 거웃. [전역] = 좃-거울, 좃-거웃, 좃-꺼럭. 고 불씨웃.
종[1] 명 밭에 마소의 방목을 금하는 표시로 땅에 박은 대나무 가지. [전역]
종[2] 명 종(奴). [전역]
종가-가다 동 발자국을 뒤따라 가다. [전역]
종겡이 명 <식> [노형 조수 인성 화순 하원 호근] → 존곙이.
종경-내 명 소, 돼지의 불알을 잘라낸 것에서 나는 냄새.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종그다 동 쫓아-가다. *그 놈을 영 종그멍 기자 어떵 어떵 그 비두웻소릴 종가간 그 폭낭굴을 들어갓지.(그 놈을 쫓아가며 그저 어떻게 어떻게 그 기원하는 소리를 쫓아가서 그 '폭낭굴'을 들어갔지.) [노형]
종기(腫氣) 명 종기. [전역]
종남-골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1리 중산간에 있었던 자연마을. [남원] = 종낭-굴.
종남-내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1리 '종남골'을 지나는 내(川). [남원]
종낭 명 <식> 때죽-나무. [조수]
종낭-굴 명 <지> [남원] → 종남-골.
종-년 명 종-년(婢). [전역]
종-노릇 명 종-노릇. [전역] = 종-노릇.
종-노릇 명 [전역] → 종-노롯.
종-놈 명 종-놈(奴). [전역]
종부(種付) 명 마소의 씨를 받는 일. [덕천]
종시-동(種時洞) 명 <지> [조천] → 동수-동(東水洞).
종애[1] 명 종아리(下腿). *이젠 종애 아판 걷지가 어려완.(이제는 종아리 아파서 걷기가 어려워.) [전역] = 종에. 고 죵아리.
종애[2] 명 [김녕] → 청에[1].
종에 명 [전역] → 종애[1].
종-없다 형 [전역] → 종-웃다.
종-웃다 형 종작-없다. 대강으로 헤아려 잡은 짐작이 없다. [전역] = 종-없다.
종이 명 종이(紙). [전역] = 조이.
종이-돈 명 [전역] → 지전[1](紙錢).
종이-텁 명 [전역] → 종이-톱.
종이-톱 명 국지(-紙). [전역] = 종이-텁.
종장(種-) 명 부사리. [봉성]
종재기 명 [전역] → 종지.
종적-없다 형 [전역] → 종적-웃다.
종적-웃다 형 종적-없다(蹤迹--). [전역] = 종적-없다.
종정-골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3리에 있는 자연마을. [남원] =

종정-굴.

종정-굴 명 <지> [남원] → 종정-골.

종제기 명 [전역] → 종지.

종종[1] 부 야슬-야슬. 야스락거리면서. 입담이 있게 계속하여 말을 늘어놓는 모습. *나 말 종종 허대는 사름 입에 삼낭 불이나 나라.(내 말 종종 늘어놓는 사람 입에 삼나무 불이나 나라.) [전역]

종종[2] 부 자질구레한 물건을 많이 벌여 놓은 모양. [전역]

종종[3]**(種種)** 부 종종. 가끔. [전역]

종종-걸음 명 종종-걸음. [전역]

종주리-새 명 <동> [조수] → 비죽-생이.

종지 명 종지. 간장·고추장 따위를 담아서 상에 놓는 작은 사기그릇. [전역] = 종재기, 종제기.

종지-대죽 명 <식> [김녕] → 오동-대죽.

종지리-새 명 <동> [노형] → 비죽-생이.

종지-읏 명 <민> 종지-윳. [전역]

종지-정각 명 <식> 해조류인 청각채의 일종. [북촌]

종-질 명 종-질(奴-). [전역]

종짓-눈 명 *엿날에 물질홀 땐 소중의 입곡, 물적삼 입곡, 물수건 쓰곡, 종짓눈 쓰곡 헤나서.(옛날에 물질할 때엔 '소중의' 입고, '물적삼' 입고, '물수건' 쓰고, '종짓눈' 쓰고 했었지.) [이호] → 족은-눈.

종ᄌᆞ 명 곡식이나 과일 등의 싹이 나서 좀 자란 것. 모종. *구룸ᄀᆞ찌 종ᄌᆞ랑 세왕.(구름같이 모종일랑 세워.) [전역]

종포 명 <건> 들보 위에 다시 한 번 걸쳐져서 대공을 받치는 보. [전역]

종-하님 명 <민> 노복(婢僕). [전역] = 정-하님.

좇다 동 쫓다. [전역]

좋아-ᄒᆞ다 동 좋아-하다. [전역]

좌듯-기 명 <민> 큰굿을 할 때 큰대의 왼쪽에 세우는 깃발. [전역]

좌보-미 명 <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백약이오름 동쪽, 영ᄆᆞ루(영주산) 북쪽에 있는 오름. 표고 342미터. [전역] = 좌보-산(左輔山).

좌보미-알오름 명 <지>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에 있는, 좌보미 북쪽에 딸린 작은 오름. 서귀포시 성산읍 수산리와의 경계에 접함. 표고 260미터. [성읍 수산]

좌보-산(左輔山) 명 <지> [전역] → 좌보-미.

좌우(左右) 명 좌우. [전역]

좌치-악(坐置岳) 명 <지> [전역] → 아진-오름.

좌칙 명 좌측(左側). [전역]

좍-좍 부 빨리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모양. 동작이 여러 번 거침없이 나아가는 모양. 죽-죽. 좍-좍. *좍좍 올라가라.(죽죽 올라가라.) [전역]

좔좔 부 좔좔. [전역]

-주[1] 어미 -겠어·-지. ①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경이나 ᄒᆞ민 안 갈주.(그렇게나 하면 말을 안 하지.) *이제 잔치홀 거난 도새기 잡아사주.(이제 잔치할 것이

니 돼지 잡아야지.) [전역] ②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똥만 쓰그네 일어상 허리띠 메잰 헐 때라그네 뒤으로 강 꼭 누르뜨민 제가 항복ᄒᆞ주.(똥만 싸고 일어서서 허리띠를 매려고 할 때에 뒤로 가서 꼭 누르면 그가 항복하겠지.) *살레 아래서 쪽박을 봉그주.(찬장 아래서 쪽박을 줍지.) [전역] = -쥐[1].

-주[2] 어미 -세. 동사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함께 행동하기를 청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우리 일 ᄒᆞ주.(우리 일을 하지.) [전역] = -쥐[2].

-주[3] 어미 -지. 동사의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하기를 허락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경 ᄒᆞ주.(그렇게 하지.) [전역] = -쥐[3].

-주[4] 어미 -지. ① 용언 어간에 붙은 '-암-·-엄-·-염-·-람-' 등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을 추측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아마 지금쯤 비케왓디로 감주.(아마 지금쯤 '비케밭'으로 가고 있겠지.) [전역] ② 용언 어간에 붙은 '-앗-·-엇-·-엿-·-랏-' 등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를 추측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그건 저 거시기가 여호 만나 가지고 천지를 다 깨달아 분 사람이 싯주.(그건 저 거시기가 여우를 만나서 천지를 깨달아 버린 사람이 있지.) [전역] ③ 용언 어간이나 체언에 붙은 '-앗-·-엇-·-엿-·-랏-' 등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경험한 사실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기영 ᄒᆞ여서, 나 이승굴서 그 말을 들엇주.(그렇게 해서, 내가 이승굴에서 그 말을 들었지.) [전역] ④ 용언 어간이나 체언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사실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주거미 명 [서홍 수산 김녕 조수] → 주게미.

-주게 어미 -지. ①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에 대하여 상대방도 긍정하도록 나타내는 종결어미. *게 그 섬이 탁 앚이난 물이 부끄난 메기주게.(그래서 그 섬에 딱 앉았다가 물이 넘치니까 그만이지.) [전역] ② 체언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사실을 긍정하도록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③ 용언 어간이나 체언에 붙은 '-앗-·-엇-·-엿-·-랏-' 등에 연결되어서, 과거에 경험한 사실을 '하게' 할 자리에서 긍정하도록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④ 용언 어간에 붙은 '-암-·-엄-·-염-·-람-' 등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의 계속을 '하게' 할 자리에서 긍정하도록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⑤ 용언 어간에 붙은 '-앗-·-엇-·-엿-·-랏-' 등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하게' 할 자리에서 긍정하도록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주게미 명 주검(尸). [전역] = 주거미.

주겨-놓다 동 물건 위에 물건을 올려 놓거나 들어앉혀 놓다.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포주겨-놓다.
주겨-입다 동 껴-입다. [전역] = 끼와-입다, 포-입다.
주그럭-지다 동 살이 빠져서 쭈글쭈글하여지다. [전역] = 수그럭-지다.
주그레기 명 쭈그렁-이. [전역] = 주글레기.
주글레기 명 [전역] → 주그레기.
주글-지다 형 물체가 쭈글쭈글한 상태로 있다. [전역]
-주기 어미 -지. ①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에 대하여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종결어미. *경 누엉 즘 자난 정신 엇주기.(그렇게 누워서 잠을 자니 정신 없지.) [전역] ② 용언 어간이나 체언에 붙은 '-앗-·-엇-·-엿-·-랏-' 등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의 완료를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③ 용언 어간에 붙은 '-암-·-엄-·-염-·-람-' 등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을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④ 용언 어간에 붙은 '-앗-·-엇-·-엿-·-랏-' 등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를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⑤ 체언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사실을 확정적으로 나타내는 종결어미. *게난 그게 의미가 있는 말입주기.(그러니까 그것이 의미가 있는 말이지요.) [전역] ⑥ 동사의 어간이나 또는 동사 어간에 붙은 '-암-·-엄-·-염-·-람-' 등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을 하기를 허락하거나 또는 명령하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전역]
주끄다 동 짖다(吠). [전역] = 주치다, 지꾸다.
주낫 명 <어> 주낙. [전역]
주낫-배 명 주낙-배(--舟). [전역]
주낫-질 명 <어> 주낙-질. 주낙으로 고기를 낚는 일. [전역]
주내 명 [북촌] → 주레.
주네 명 [인성 김녕] → 주레.
주네-가시리 명 <식> 가사리의 일종. [법환]
주넹이 명 <동> [수산 김녕 명월] → 지넹이.
주넹이-보리 명 <식> 맥주-보리(麥酒--). [하도]
주노리-콩 명 <식> 콩의 일종. [하원]
주다 동 주다(授). [전역]
주대 명 <도> 소의 멍에줄. [전역]
주도리 명 <건> [수산 조수] → 문-지도리.
주두리-고망 명 [조수 가시] → 지도리-고망.
주둥-머리 명 [전역] → 주둥이.
주둥이 명 주둥아리. [전역] = 주둥-머리.
주둥이 ᄂᆞ슬다 구 걸핏하면 다른 사람에 대하여 말하기를 잘하다. [전역]
주둥이 ᄊᆞᆫ다 구 진중하지 아니하여 잘 떠벌리다. [전역]
주랑 명 지팡이. *노인덜 지펑 뎅기는 지펭이가 주랑이라.(노인들 짚어서

다니는 지팡이가 '주랑'이야.) [전역]

주랑발 명 여름에 해가 질 무렵에 잘 나타나는 구름 모양. *여름에 주랑발 사민 ᄇᆞ름 불곡, 저실에 주랑발 사민 날이 ᄇᆞᆯ곡.(여름에 '주랑발' 서면 바람 불고, 겨울에 '주랑발' 서면 날이 잔풍하고.) [마라도]

주랑-주랑 부 주렁-주렁. [전역]

주럭 명 ① 헐떨어져서 찢어진 헝겊 조각 따위. [전역] ② 닳아서 헐떨어진 옷 따위를 낮추어 이르는 말. *저 머리 허붕치고 양지에 숫검댕이 칠ᄒᆞ고 어디 간 헌헌ᄒᆞᆫ 도복 주럭, 시커멍ᄒᆞ게 그슨 거 입고 ᄒᆞ연 가니 모르더라.(저 머리가 헝클어지고 숯검댕이 칠하고 어디 가서 헌 도포 '주럭', 시커멓게 그을은 것 입고 해서 가니 모르더라.) [전역]

주레 명 피리. 취주용(吹奏用) 악기의 한 가지. [노형 서홍 수산 가시] = 주내, 주네.

주레-베똥 명 앞으로 뭉뚝 솟아난 큼직한 배꼽. *주레베똥 하늘 베우멍.(큰 배꼽 하늘 보이며.) [전역]

주름 명 주름. [전역] ① 늙어서 살갗 따위에 진 잔 줄. [전역] ② 옷 따위의 폭 같은 것을 줄여 접은 금. [노형 조수 인성 가시]

주름-안지다 동 [전역] → 주름-안치다.

주름-안치다 동 주름-잡다. [전역] = 주름-안지다.

-주마는 어미 -지마는. 체언이나 용언 어간 또는 용언에 붙은 '-암-·-엄-·-염-·-람-'이나 '-앗-·-엇-·-엿-·-랏-' 등에 연결되어서, 그 말을 시인하면서 다음 말에서 의문이나 불가능 또는 어긋나는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주막주막-ᄒᆞ다 동 마음에 위태로운 느낌이 일어나 연이어 놀라다. [전역]

주머니 명 [노형 조수] → 주멩기.

주먹 명 주먹(拳). [전역]

주먹-곡시 명 '주먹'의 힘줌말.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 주먹-곡지.

주먹-곡지 명 [김녕 가시] → 주먹-곡시.

주먹-구기 명 주먹-구구. [전역]

주먼 명 *물엣 바농 좀좀이 줏언 금선 비단 주먼에 놓안.(물엣 바늘 좀좀이 주워 금선 비단 주머니에 넣어.) [전역] → 주멩기.

주멩기 명 주머니(囊). *(속) 세아린 일 주멩기에 다 안 든나.(헤아린 일 주머니에 다 안 든다.) [전역] = 주머니, 주먼, 줌치, 중치.

주목-신 명 <민> [전역] → 주목-지기.

주목-지기 명 <민> 정주목을 지키는 신. [전역] = 주목-신.

주문(注文) 명 주문. [전역]

주물락-ᄒᆞ다 동 깜짝 놀라다. *어두우난 주물락ᄒᆞ여져라.(어두워서 깜짝 놀라지더라.) [전역] = 추물락-ᄒᆞ다.

주물르다 동 주무르다. [전역]

주-몸 명 <식> 모자반의 일종. *주몸엔 ᄒᆞᆫ 건 이파리고 뿌글레기도 좀지 롱ᄒᆞᆫ 거라.('주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파리와 공기주머니가 가늘고 자잘한 것이야.) [이호 하귀] = 쥐-몸.

주사[1] 명 [전역] → 주새.

주사[2](注射) 명 주사. [전역] = 주세[2].

주사-약몽 명 <민> 주사야몽(晝思夜夢). 밤낮 생각함. [전역]
주새 명 주사(朱砂). [전역] = 주사[1], 주세[1].
주석-상동이 명 <민> 주석(朱錫)으로 만든 좋은 동이. [전역]
주석-통쉐 명 <민> 주석(朱錫) 통쇠. [전역]
주세[1] 명 [전역] → 주새.
주세[2] 명 [전역] → 주사[2].
주셍이 명 찌꺼기(滓). [전역] = 주시, 찌겡이[1]. 고즛의.
주수리-남동이 명 <민> 나무로 만든 동이의 일종. [전역] = 수리-동이.
주승-낭 명 <식> [전역] → 추숭-낭.
주시 명 [전역] → 주셍이.
주-솔 명 [수산 김녕] → 쥐-솔.
주얼 명 <동> 마소의 피를 빨아먹는 조금 큰 등에의 한 가지. [인성 서홍 조수 노형]
주엇-주엇 부 [전역] → 주왁-주왁①.
주왁-주왁 부 ① 기웃-기웃. [전역] = 주엇-주엇. ② 주먹을 연해서 내미는 모양. [전역]
주왈-주왈 부 술술. 말이 막힘이 없이 잘 나오는 모양. *아무 셍각 엇이 주왈주왈 골아졋저.(아무 생각 없이 말을 술술 해졌다.) [전역]
주우릇-ᄒᆞ다 동 무엇을 얻고자 하여 몸이나 마음을 기우듬하게 가지다. *섭보리왓디 들어난 쉐광 지집년 방에 들어난 놈은 ᄒᆞᆫ 번 가나민 주우릇ᄒᆞᆫ다.(풋보리밭에 들었던 소와 계집방에 들었던 놈은 한 번 가고 나면 솔깃한다.) [전역] = 주으릇-ᄒᆞ다.
주울-이다 동 기울-이다. [전역] = 기울-이다, 중울-이다, 지울-이다.
주웅-아반 명 <민> 향로. [전역]
주워 감 [전역] → 수워.
주육-안주 명 <민> [전역] → 지육-안주.
주육-질 명 <민> 지옥길(地獄路). [전역]
주으릇-ᄒᆞ다 동 [전역] → 주우릇-ᄒᆞ다.
주웃-걸다 동 [전역] → 지웃-거리다.
주웃-ᄒᆞ다 동 [전역] → 지웃-ᄒᆞ다.
주인 멋다 구 남의 집에 유숙(留宿)하다. *이젠 날이 저물아 가지고 불싸진 집의 들어간, 거긔 주인을 멋언 보니.(이제는 날이 어두워서 불 켜진 집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고 보니.) [노형]
주인 빌리다 구 손님을 머물게 하다. *넘어가는 나그네 주인 ᄒᆞ로 처냑 빌립서.(넘어가는 나그네 주인 하루 저녁만 빌리십시오.) [구좌]
주인-ᄒᆞ다 동 아는 집에 머물거나 유숙(留宿)하다. *그 아방네가 성내 가민 주인ᄒᆞ영 밤 자는 디가 잇어던 모양이라.(그 아버지네가 성내(城內)에 가면 주인해서 밤 자는 데가 있던 모양이라.) [노형]
주작-주작 부 뾰족-뾰족. [전역]
주작-ᄒᆞ다 형 물건의 윗머리가 높이 솟아 위로 뚜렷이 나와 있다. [전역]
주잔-권잔(酒盞勸盞) 명 <민> 신에게 술잔을 권함. [전역]
주잔-넘김 명 <민> [전역] → 주잔-넹김.

주잔-넹김 명 <민> 각 제차의 끝마다 하위 신들에게 남은 술잔을 권하여 먹이는 의례. [전역] = 주잔-넘김.
주저귀 명 [서홍] → 주저기.
주저기 명 지저-깨비(木札). [노형 인성 서홍 수산 가시] = 주저귀, 주적, 주제기, 주죽.
주적 명 [서홍 수산 가시] → 주저기.
주전지 명 주전자(酒煎子). [전역]
주제[1] 명 주제. 변변하지 못하게 생긴 몰골. [전역]
주제[2] 명 비나 바람 따위가 한 번 몰아 지나감을 세는 단위. *ᄒᆞᆫ디 마ᄇᆞ름 주제가 쳐 가지고 멜이 ᄃᆞᆷ뿍 쌔엿젠.(한데 마파람 주제가 불어서 멸치가 담뿍 쌓였다고.) [전역]
주제기 명 [인성 조수] → 주저기.
주제기-비 명 한바탕 내리쏟는 비. [조천]
주제-넘다 형 주제-넘다. [전역]
주제미제-ᄒᆞ다 동 주저주저-하다. [전역]
주젱이 명 주저리. 띠나 짚으로 둥글게 엮어 가리 꼭지 따위에 덧덮는 물건. *그딜 간 집도 안 짓고 ᄂᆞ람지 헤연 예펴서 주젱이 더꺼네 물 들지 못ᄒᆞ게 헤연.(그곳을 가서 집도 안 짓고 'ᄂᆞ람지'를 엮어서 주젱이를 덮어서 물이 들지 않게 해서.) *(속) 눌이 커도 주젱이가 으뜸.(가리가 커도 '주젱이'가 으뜸.) [전역] = 주지[1], 지지.
주주룩-ᄒᆞ다 형 물건의 윗머리가 조금 위로 솟아 있다. [전역]
주주-머리 명 <동> [표선 세화] → 비죽-생이.
주죽 명 [인성 조수] → 주저기.
주승-낭 명 <식> [표선 세화 노형] → 추숭-낭.
주지[1] 명 [전역] → 주젱이.
주-지[2] 명 [김녕] → 주-짇.
주지[3] 명 [세화] → 조지.
주진-거리다 동 중절-거리다. [전역] = 주진-ᄃᆞᆯ다.
주진-ᄃᆞᆯ다 동 [전역] → 주진-거리다.
주-짇 명 떼(筏)의 위에 살평상같이 된 대(臺)의 받침 나무. [노형 수산 조수 서홍] = 주-지[2].
주짝 부 물건의 윗머리가 높이 솟아 뛰어난 모양. [전역]
주짝-ᄒᆞ다 형 우뚝-하다. *물속에 강근에 돌 줏어낼락 ᄒᆞ여. 돌멩이 강 봉가와야 물질 베와지는 거다 ᄒᆞ영. 꺼꿀로 확 강근에 확확확 줏엉 주짝ᄒᆞ게 나오주게.(물속에 가서 돌 주워 나오기를 해. 돌멩이를 가서 주워와야 물질 배워지는 것이다 해서. 거꾸로 가서 빨리 줍고 우뚝하게 나오지.) [이호]
주체-오름 명 <지> 제주시 구좌읍 덕천리 상덕천 북동쪽에 있는 낮은 오름. 표고 216미터. [송당 덕천 선흘] = 주토-악(朱土岳).
주총 명 [인성 노형] → 쥐총.
주춤-거리다 동 주춤-거리다. [서홍 수산 김녕 노형] = 주충-거리다, 주침-거리다.
주춤-주춤 부 주춤-주춤. [전역] = 주침-주침.
주충 명 <식> *주충은 톳에 ᄀᆞ찌 나

는 바당풀이라.(지충이는 톳에 함께 나는 바다풀이야.) [하귀 이호] → 지충.

주충-거리다 동 [노형 조수 김녕 인성] → 주춤-거리다.

주치게 명 <동> 쥐-돔. *주치게는 지름 천지라.(쥐돔은 기름 천지야.) [사계]

주치다 동 [전역] → 주끄다.

주치려-앉다 동 엉덩이는 바닥에 대고 두 다리는 구부려 세워서 앉다. [노형 조수 김녕]

주침-거리다 동 [조수] → 주춤-거리다.

주침-주침 부 [전역] → 주춤-주춤.

주칫-돌 명 [조천 노형 어도 조수] → 주툿-돌.

주토-악(朱土岳) 명 <지> [송당 덕천 선흘] → 주체-오름.

주툿-돌 명 주춧-돌(柱礎-). [인성 화순 하원 서홍 가시] = 주칫-돌, 지줏-돌, 지툿-돌.

죽[1] 명 죽. 그릇 따위의 열 벌을 한 단위로 세는 말. [전역] = 족[3].

죽[2] 명 <음> 죽(粥). [전역] 고 쥭.

죽[3] 명 <동> 상어의 일종. [우도]

죽[4] 부 죽. 차례로 늘어선 모양. [전역]

죽굼-살굼 부 무슨 일에 있는 힘을 다하여서 죽을둥살둥하며 나가는 모양. [전역]

죽다 동 죽다. [전역]

죽력(竹瀝) 명 [조수] → 죽렴.

죽렴 명 죽력(竹瀝). [전역] = 죽력(竹瀝).

죽-바미 명 들에서 죽은 마소 따위. [노형 조수 인성]

죽-사니 명 사귀(邪鬼)가 되어 인간계에 떠돌아다닌다는 죽은 사람의 영혼. [전역]

죽사니-들리다 동 죽은 사람의 영혼인 사귀(邪鬼)가 덮치어 붙다. [전역]

죽-상의 명 <동> 까치-상어. [전역]

죽-성(竹城) 명 <지> 제주시 오등동(梧登洞)의 한 마을. [오라 아라]

죽어밍엣-것 명 절로 죽어갈 듯이 잔약하여 보이는 사람이나 짐승 따위를 업신여겨 이르는 말. [전역]

죽은-물 명 생수(生水)에 대하여, 비가 내려서 고인 물을 이르는 말. [전역]

죽을락-살락 부 죽을둥-살둥. [전역]

죽장 부 줄곧. [전역]

죽젱-이 명 쭉정-이. [전역] = 졸레.

죽창(竹槍) 명 [전역] → 대-창[1](-槍).

준작 명 <동> [인성 화순 하원] → 순작.

준준-ᄒᆞ다 형 홀쭉-하다. [전역] = 쭌쭌-ᄒᆞ다.

준지 명 진주(眞珠). *준지 닷 말 우전을 걸엉.(진주 닷 말 웃돈을 걸어서.) [전역]

준지-그르 명 [수산] → 항긋-그르.

준치 명 <동> 준치.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줄[1] 명 줄. ① 노·새끼 따위를 통틀어 일컫는 말. [전역] ② 가로나 세로로 걸린 선(線). [전역]

줄[2] 명 <도> 줄(鑢). [전역]

줄-고사리 명 <식> 실-고사리. [노형 인성 서홍 김녕]

줄-긋다 동 줄-긋다. [전역]

줄다[1] 동 줄다. 차차 적어지다. [전역] = 굴다[2].

줄다[2] 동 살이 빠지어 여위다. [전역]

줄돌음-질 명 줄달음-질. [전역]

줄-둥길락 명 줄-다리기. [전역]
줄락 부 갑자기 나오는 모양. [전역]
줄락-줄락 부 그릇에 담긴 물이 흔들리어 넘치는 모양. [전역]
줄레[1] 명 <동> 조금 큰 꺼병이. *(속) 으름 콩 늦이 갈민 줄레 뽑나.(여름 콩 늦게 파종하면 꺼병이가 뽑는다. 제 시기를 놓치고 파종한 콩 농사는 꺼병이들에 의해 싹이 뽑힌다는 말.) [전역]
줄레[2] 명 [노형] → 굴메[1].
줄-방석 명 집줄로 둥그렇게 만든 방석. [전역]



줄방석

줄-보리 명 <농> 줄처럼 줄줄이 파종한 보리. 곧 조파(條播)한 보리를 두고 이르는 말. [전역]
줄사발-꼿 명 <식> 등-수국(藤水菊). [전역] = 남-송악[2].
줄살린-탕건 명 <의> 품질이 아주 뛰어난 탕건의 한 가지. 결을 때의 '도리' 수효는 120쯤임. [전역] = 막줄-탕건.
줄-상낭 명 <식> [애월] → 츰-상낭.
줄-쉐 명 긴 고삐를 말뚝에 연결하여 풀을 먹이는 소. [전역]
줄-아시 명 <도> 거름용 해초(海草)를 베는 기다란 칼. [우도 행원]
줄어-들다 동 줄어-들다. [전역]
줄줄 부 줄줄. [전역]
줄창 부 줄곧. [전역]
줄-치다 동 줄-치다. [전역]
줌막-줌막 부 연이어 몹시 놀라는 모양. [전역]
줌막-ᄒᆞ다 동 뜻밖의 일에 깜짝 놀라다. [전역]
줌방-비 명 [어도 조수 인성] → 으남-비.
줌벙-비 명 [조수 인성] → 으남-비.
줌벙-이 명 [조수] → 으남-비.
줌벵-이 명 [인성 하원 화순 서홍 어도 조수 가시] → 으남-비.
줌치 명 <민> *누게 줄 줌치라니. 김천총 뚤 줄 줌치라라.(누구 줄 주머니더냐. 김천총 딸 줄 주머니더라.) [전역] → 주멩기. 고줌치.
줍다 동 깁다(縫). [전역]
줏다 동 줍다(拾). [전역] 고줏다.
줏어-담다 동 주워-담다. [전역]
줏어-먹다 동 주워-먹다. [전역]
중 명 중(僧). [전역]
중간-바당 명 <어> 뭍 가까이 있는 바다와 먼바다 중간에 있는 바다. *상군덜은 막 먼바당에 지픈 디 나강 ᄒᆞ곡, 중줌수는 중간치기 중간바당에서 ᄒᆞ곡, 막 못ᄒᆞ는 사름은 ᄀᆞᆺ바당에서 ᄒᆞ곡.('상군'들은 먼바다에 깊은 데 나가서 하고, '중줌수'는 중간따기 중간바다에서 하고, 아주 못하는 사람은 갯가에서 하고.) [하도]
중간-밧 명 <어> 조간대(潮間帶) 중간층(中間層). [대포]

중간-사데 명 <요> 가락이 짧지도 느리지도 않은, 밭매는 노래의 한 가지. [장전 고성 청수 예래 강정]

중간-치기 명 중간-따기. 자기 차례나 몫이 아닌데도 남보다 앞질러 중간에서 차지하는 일. [전역]

중-거리 명 <도> 중-거리(中鋸-). 길이가 큰 톱과 작은 톱의 중간쯤 되는 톱. [전역]

중-게 명 <음> 좁쌀 가루나 메밀 가루로 기름하게 만들어 기름에 튀긴 떡. [인성 화순 하원] = 중-괘, 중-궤.

중계량 명 <의> 품질이 보통인 갓모자의 한 가지. 곁기 시작할 때의 날 수효는 72올쯤임. [전역]

중-괘 명 [노형 조천] → 중-게.

중군(中軍) 명 <어> 작업하는 기량이 보통 수준인 해녀. [전역] = 중-즘녜(中--), 중-즘수(中--).

중-궤 명 [하원 서홍 태흥 표선 조수 세화 수산] → 중-게.

중-노리 명 <동> 걸음마를 시작한 노루. [성읍]

중당클-굿 명 <민> '삼방'(마루방) 세 벽에 당클(祭棚)을 매고 하는 큰굿. [전역]

중대-잡이 명 <민> 징 치는 심방. [북촌]

중댕이-굴 명 <지> 제주시 오라3동의 한 자연마을. [오라]

중-도막 명 중간으로 자른 두 도막. *중도막으로 동을 내여 부려라.('중도막'으로 도막을 내어 버려라.) [노형]

중듸-떡 명 <음> 밀가루의 거친 감으로 나부죽하되 네모지거나 둥글게 만든 떡. [김녕 노형 조수 인성]

중메 명 중매(仲媒). [전역] = 중진.

중메-쟁이 명 중매-쟁이(仲媒--). [전역]

중문-천(中文川) 명 <지> [서귀포 중문] → 베릿-내[3].

중-ᄆᆞ로 명 <건> [태흥 표선 수산 서홍] → 중-ᄆᆞ르.

중-ᄆᆞ르 명 <건> 지붕의 용마루와 처마와의 중간 높은 곳. [전역] = 중-ᄆᆞ로, 중-ᄆᆞ를.

중-ᄆᆞ를 명 <건> [노형 조수] → 중-ᄆᆞ르.

중-바레기 명 [인성 화순 어도 하원 서홍 조수 노형] → 중-ᄇᆞ레기.

중방-비 명 이슬-비. [금성 대정 서광] = 중벙-비, 중벵.

중벙-비 명 [애월] → 중방-비.

중벵[1] 명 [애월] → 중방-비.

중벵[2] 명 중병(重病). [전역] = 중병.

중병(重病) 명 [전역] → 중벵.

중-ᄇᆞ레기 명 중-대가리. [인성 서홍 노형 조수] = 중-바레기, 중-볼레기.

중-볼레기 명 [노형 조수 수산 김녕 가시] → 중-ᄇᆞ레기.

중산 명 비교적 거리가 먼 산과 들에서 마련한 짐을 두 번에 나누어 운반하는 일. [하도]

중산(衆散) 명 <민> 다른 당에서 가지를 갈라 옴. [전역]

중성기 명 <동> 악대-소(--牛). [전역]

중석 명 곁-두리. 끼니 외로 중간에 먹는 음식. [전역] = 젯구룸.

중성귀 명 거세(去勢). 수소의 정소(精巢)를 제거하는 일. [어음]

중-세경 명 <민> 농경신(農耕神) 가운데 하나. 세경본풀이에서 농경신은 '상세경', '중세경', '하세경'이 있음. [전역]
중셍 명 중생(衆生). [전역]
중-수리[1] 명 [노형 조수 인성] → 장-귀[2].
중-수리[2] 명 연자매 밑바닥 복판에 세워진 굵고 긴 쇠나 나무.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선-쟁이, 설-칫[2].
중수리-고망 명 맷돌의 암쇠. [애월] = ᄀᆞ레-쒑.
중-시리 명 <민> 중-시루(中甑). [전역]
중-신충(中神充) 명 <민> 심방(巫覡) 중 중간 계급. 심방은 능력과 경력에 따라 '상신충', '중신충', 하신충'으로 나뉨. [전역]
중-엄쟁이 명 <지> [전역] → 엄쟁이.
중엣-할망 명 초로(初老)는 넘었으나 아주 늙지 않은 할머니. *중엣할망 미녕 싸는 소리.(중늙은이 할멈 무명 실 잣는 소리.) [전역]
중울-이다 동 [전역] → 주울-이다.
중은중은-ᄒᆞ다 동 중얼중얼-하다. [전역]
중의(中衣) 명 <의> 중의. 남자의 여름 홑바지. [전역]
중의-적삼(中衣--) 명 <의> 중의와 적삼. [전역]
중의-도 명 <민>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杏源里) 남당, 한동리(漢東里) 개당의 신명(神名). [행원 한동]
중이 명 <동> [어음] → 쥐이.
중정-엇다 형 마음에 중심이 없다. [전역]
중중 부 서로 나지막한 소리로 말을 나누는 소리. *영 앚아네 중중 ᄒᆞ는 말을 들어 보니까.(이렇게 앉아서 중중 하는 말을 들어 보니까.) [전역]
중중-거리다 동 중중-거리다. [전역]
중진 명 [표선 수산 세화] → 중메. 교 듕신.
중진-애비 명 중신-아비. 남자 중매인. [전역]
중-좀네(中--) 명 <어> [전역] → 중군(中軍).
중-좀수(中--) 명 <어> [전역] → 중군(中軍).
중-체 명 <도> 가루(粉)를 치는, 눈이 그다지 굵지도 잘지도 아니한 체. [전역]
중추-멕히다 동 [표선] → 중치-멕히다.
중치 명 <민> [전역] → 주멩기.
중치-멕히다 동 몹시 혼이 난 일을 당하여 속셈을 잃어 버리다. [전역] = 중추-멕히다.
중-타령 명 <요> 중(僧)과의 사랑을 소재로 한 창민요. 정의현(旌義縣)의 도읍지였던 성읍에서 전해지는데, 한반도에서 유입된 민요의 한 가지. [성읍]
중-탕(中宕) 명 <의> [전역] → 중-탕건.
중-탕건 명 <의> 품질이 보통인 탕건의 한 가지. 결을 때의 줄 수효는 100 내지 110임. [전역] = 중-탕.
중-트다 동 [전역] → 버꿀레기-트다.
중-판 명 <민> 보통 빠르기로 울리는 연물 장단. [전역]
중화-동(中和洞) 명 <지> [애월] → 관전-동네.

줴 명 죄(罪). ＊(속) 도둑놈은 흔 줴, 일흔 놈은 열 줴.(도둑놈은 한 죄, 잃은 놈은 열 죄.) [전역]

줴기 명 조금(潮-). 음력 초여드레와 스무 사흘 날의 조수(潮水)가 제일 낮은 때. [전역] = 조금, 조기[2], 한-조금, 한-조기, 한-줴기.

줴기-떡 명 <음> [전역] → 줴역-삼메.

줴기-통 명 조금 때 물이 잘 괴는 바닷가 언덕 위에 패어 들어간 곳. ＊비야 비야, 오지 말라. 줴기통에 물 골람져.(비야 비야, 오지 마라. '줴기통'에 물이 괴고 있다.) [전역]

줴께 명 <의> 조끼. [전역] = 쭸께, 쪼께.

줴끼다 동 매우 어려운 입장을 당하다. [전역] = 조끼다.

줴다[1] 동 쥐다. [전역] 고 쥐다.

줴다[2] 부 죄다. 각각 다. [전역]

줴목-줴상 명 <민> 죄목-죄상(罪目罪狀). 보세감상에서 굿을 준비하는 데 따른 여러 가지 죄목을 누가 범했는지 따지는 제차. [전역]

줴-박다 동 [전역] → 줴여-박다.

줴여-박다 동 쥐어-박다. [전역] = 줴-박다.

줴여-지르다 동 쥐어-지르다. [전역] = 줴-지르다, 줴여-질르다, 줴-질르다.

줴여-질르다 동 [전역] → 줴여-지르다.

줴역-삼메 명 <음> 밀기울 따위로 주먹같이 둥글게 만든 떡. ＊ᄒᆞ를밤의 밀 닷 말 가난 줴역삼메가 다섯 개 난.(하룻밤에 밀 닷 말 가니 그 삯으로 '줴역삼메'가 다섯 개니.) [전역] = 줴기-떡.

줴왁-페왁 부 [전역] → 페왁-줴왁.

줴우다 동 죄다. 느슨하거나 헐거운 것이 단단하거나 팽팽하게 되도록 하다. [전역]

줴움 명 <병> [전역] → 이질(痢疾).

줴움-친 명 턱 아래로 해서 조이는 갓끈. [전역]

줴줴-로 부 나무 그루 여럿으로. ＊줴줴로 싱거 둬도 어느 줴가 세설통 알코?(여러 그루 심어 둬도 어느 그루가 애달픔 알꼬?) [전역]

줴-지르다 동 [전역] → 줴여-지르다.

줴-질르다 동 [전역] → 줴여-지르다.

줴-짓다 동 죄-짓다(罪--). [전역]

줴피-낭 명 <식> 초피-나무. [전역] = 조피-낭.

줼-쏨 명 쥘-쌈지. [전역]

줼질다 동 빨래를 물에 헹구고 나서 물기를 짜려고 양쪽을 쥐고 비틀다. [전역] = 줍질다.

줭이 명 <동> [서귀포 남원 표선] → 쥥이.

쥐 명 <동> [전역] → 쥥이.

-쥐[1] 어미 -겠어. [전역] → -주[1].

-쥐[2] 어미 -세. [전역] → -주[2].

-쥐[3] 어미 -지. ＊거 조심ᄒᆞᆯ 일이쥐.(그것 조심할 일이지.) [전역] → -주[3].

쥐눈이-콩 명 쥐눈이-콩(檻豆). [전역]

쥐도리 명 <건> [가시 김녕] → 문-지도리.

쥐-듬북 명 <식> 바다 식물인 '듬북'의 한 가지. [하도]

-쥐마는 어미 -지마는. 용언 어간이나 명사에 붙어서, 그 말을 시인하면서 그 아래에 반대되거나 조건을 붙이

어 말할 때, 두 말의 사이를 잇는 말. [전역]

쥐-묨 명 <식> [북촌] → 주-묨.

쥐-솔 명 장딴지. [전역] = 주-솔.

쥐솔-튀여나다 동 종아리 뒤의 장딴지가 비어지다. [전역]

쥐총 명 쇠꼬리-채(鞦頭). [전역] = 깍놀일-대, 깍-대, 아기억겟-대, 주총.

쥐-헤치 명 [전역] → 줭이-헤치.

줭이 명 <동> 쥐(鼠). [전역] = 중이, 쥉이, 쥐. 고쥐, 쥐며ᄂᆞ리.

줭이-고냥 명 [어도] → 줭이-고망.

줭이-고망 명 쥐-구멍. [전역] = 줭이-고냥, 줭이-구녁, 줭이-구녕.

줭이-구녁 명 [전역] → 줭이-고망.

줭이-구녕 명 [전역] → 줭이-고망.

줭이-헤치 명 쥐-띠. [전역] = 쥐-헤치.

즉시 부 [전역] → 직시[2].

증 명 징(鉦). 놋쇠로 대야같이 만든 악기의 한 가지. [전역] = 대양.



증

증심 명 [전역] → 점심.

증심-멩텡이 명 <도> [전역] → 정심-망텡이.

증펜 명 <음> 증편(蒸餠). [어도] = 징펜.

지[1] 명 해녀들이 용왕에게 해상의 안전과 해산물의 풍성함을 기원하기 위해 바다에 던져 넣을 밥과 계란 등의 제물을 백지에 싼 물건. [전역]

지[2] 명 자기(自己). ＊이젠 진 핵신(覈身)을 못하고, 진 죽엿젠만 ᄒᆞ니.(이젠 자기는 무고함을 밝히지 못하고, 자기는 죽였다고만 하니.) ＊(속) 지가 낸 법률에 지가 매 맞인다.(자기가 낸 법률(法律)에 자기가 매 맞는다.) [전역] = 이녁, 즈기.

지[3] 대 [전역] → 제[5].

-지[1] 어미 -지. ①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말의 뜻을 세게 나타내는 종결어미. ＊딱 집의서 삭망 지내고 아칙의, 즈냑의 상식 올리곡 헤그네 곡ᄒᆞ지.(종일 집에서 삭망(朔望)을 지내고 아침에, 저녁에 상식(上食)을 올리고 하여서 곡을 하지.) [전역] ② 용언 어간에 붙은 '-암-·-엄-·-염-·-람-'이나 '-앗-·-엇-·-엿-·-랏-' 등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상태의 계속 또는 완료를 세게 나타내는 종결어미. ＊이제는 머 말ᄒᆞᆯ 것 엂이 이렇게 사는디, 그게 오래 살아가니 세속 사름이 알앗지.(이제는 뭐 말할 것이 없이 사는데, 그게 오래 살아가니 세속 사람이 알았지.) [전역] ③ 체언에 붙어서 그 사실을 세게 나타내는 어미. [전역]

-지[2] 어미 -지.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그 용언의 뜻을 부정하는 데 쓰이는 어미. [전역]

-지[3] 어미 -기. [전역] → -기.

지간-ᄒᆞ다 형 [전역] → 어지간-ᄒᆞ다.

지갑(紙匣) 명 지갑. 가죽이나 헝겊으로 자그마하게 만들어서 돈이나 물건을 넣는 물건. [전역] = 보곰지.
지게[1] 명 사냥한 꿩을 몫으로 나누기 위해 갈라 놓은 꿩고기의 앞가슴. [성산 수산]
지게[2] 명 <도> 지게. 짐을 얹어 사람의 등에 지는 운반 기구. [전역]
지게-문 명 <건> 지게-문(--門).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구들-셋문.
지관(地官) 명 [전역] → 정시.
지그락-지그락 부 지그럭-지그럭. [전역]
지그시 부 [전역] → 질그시.
지근-거리다 동 지근-거리다. [전역] = 지근-둘다.
지근-둘다 동 [전역] → 지근-거리다.
지근-지근 부 지근-지근. [전역]
지금(只今) 명 지금. [전역]
지깍 부 ① 일정한 공간에 물건이 가득 박혀 있어서 빽빽한 모양. [전역] ② 깊게 박혀 있어서 꼼짝달싹 않는 모양. [전역] = 디깍, 직깍.
지깍-ᄒᆞ다 형 ① 일정한 공간에 물건이 가득 들어박혀 빽빽하다. [전역] ② 깊게 박혀 있어서 꼼짝달싹 않다. [전역] = 디깍-ᄒᆞ다, 직깍-ᄒᆞ다.
지꺼-지다 동 기꺼-하다. *소곱으론 지꺼졋어. 그자 몰명흔 ᄆᆞ생이 버슬 어졋거든.(속으로는 기꺼웠어. 그저 '몰명한' 망아지를 얻었거든.) [전역]
지꺼-ᄒᆞ다 동 기꺼워-하다. [전역]
지껄-이다 동 지껄-이다. [전역]
지껍다 형 기껍다. [전역]
지껑-지껑 명 <민> [전역] → 니깡-나깡.
지꾸다 동 [수산] → 주끄다.
지꾸-땅 명 짓고-땡. 화투 노름의 하나. [전역]
지끄다 형 *지끈 물은 가다나 온다. (깊은 물은 가다가 온다.) [전역] → 지프다[2].
지끈 부 지끈. [전역]
지나-가다 동 지나-가다. [전역]
지나다 동 지나다(過). [전역]
지난-겨을 명 [전역] → 지난-저슬.
지난-돌 명 [전역] → 넘은-둘.
지난-밤 명 [전역] → 간-밤.
지난-여름 명 [전역] → 넘은-여름.
지난-이 명 [전역] → 넘은-혜.
지난-일 명 [전역] → 넘은-일.
지난-저슬 명 지난-겨울. [전역] = 넘은-겨을, 넘은-저슬, 넘은-저을, 지난-겨을, 지난-저을.
지난-저을 명 [전역] → 지난-저슬.
지난-해 명 [전역] → 넘은-혜.
지남석-ᄀᆞ레 명 <도> 갈기에 무거운 맷돌. 지남석(指南石), 곧 자석처럼 위, 아래 짝이 딱 붙어서 잘 돌릴 수 없을 만큼 무겁게 여겨지는 맷돌. *ᄀᆞ렌 보난 지남석 ᄀᆞ레여.(맷돌은 보니 지남석 맷돌이네.) [전역]
지낭이 명 <동> [노형] → 지넹이.
지냉이 명 <동> [노형 조수] → 지넹이.
지-냥으로 부 [전역] → 제-냥으로.
지넘다 동 넘다. 이쪽에서 저쪽으로, 공중이나 물건의 위를 지나다. *나 놀레랑 산 넘엉 가라. 나 놀레랑 물 넘엉 가라. 물도 산도 지넘지 말앙 이듸서 도놀당 가라.(내 노래랑 산

넘어 가라 내 노래랑 물 넘어 가라. 물도 산도 넘지를 말고 여기서 도놀다 가라.) [전역]

지네-만씩 부 [전역] → 제-만식.

지네-만큼 부 [전역] → 제-만식.

지넹이 명 <동> 지네(蜈蚣). [노형 조수 인성 서홍 남원] = 주넹이, 지낭이, 지냉이.



지넹이

지념 명 <동> 물고기의 일종으로 검은 빛이 나는 우럭. [행원]

지다[1] 동 지다(負). ① 물건을 등에 짊어 메다. [전역] ② 빚을 가지게 되다. [전역] ③ 책임을 맡다. [전역]

지다[2] 동 지다. ① 장마 따위가 계속되다. [전역] ② 묻었던 점이나 흠이 사라져 없어지다. [전역]

지다[3] 동 지다(落). [전역]

지다리 명 <동> 오소리. [전역] = 오로.

지달-싸다 동 마소의 발 한 짝을 자유로이 움직이지 못하게 몸에 동여 묶다. [전역] 교 지달쌋다.

지달-피 명 오소리-가죽. [전역]

-지도 어미 -지도.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그 용언의 뜻을 세게 부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지도리 명 <건>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문-지도리.

지도리-고망 명 문-동개. [전역] = 주두리-고망, 지두리-고망, 지두리-굼기.

지동 명 기둥(柱). [전역]

지동-고사리 명 <건> 사개-통. 기둥머리를 십자(十字)형으로 파낸 자리. [조수 인성 화순 하원 서홍 태흥 표선 수산 세화 조천 노형] = 사방, 사방지동-고사리, 지동-고샥.

지동-고샥 명 <건> [노형] → 지동-고사리.

지동-굽 명 기둥-뿌리. [전역]

지동-낭 명 기둥-목. [전역]

지동이 명 <도> 항아리. [행원] = 오가리.

지동-토인 명 <민> 기동통인(妓童通引). 관아의 심부름꾼. [전역]

지두리 명 *문지방에 지두리 거 시청 멕여만 줄으니.(문지방에 지도리를 거 씻어서 먹이라고만 말하니.) [인성 서홍 김녕 어음] → 문-지도리.

지두리-고망 명 [노형] → 지도리-고망.

지두리-굼기 명 [인성 서홍 수산 김녕] → 지도리-고망.

지둥-쉐 명 집안이나 마을 주변 공지(空地)에서 고삐를 채우고 말뚝을 박아 청초를 베어다 먹이며 가꾸는 소. [월평]

지드리다 동 기다리다. *(속) 벤 애기 지드리멍, 홀 용시 지드리랴.(밴 아기를 기다리며, 할 농사를 기다릴까.) [전역]

지-드림(紙--) 명 <민> [전역] → 지-아룀.

지득-어멍 명 낳아 준 어머니가 아닌 어떤 관계나 의리로 맺은 어머니.

[노형 조수]

지든-단궐 명 <민> 정성을 들인 단골. 오랫동안 정성을 들여 온 신앙민(信仰民). [전역]

지들-거 명 [전역] → 짇을-커.

지들-것 명 [전역] → 짇을-커.

지들-낭 명 사람이 변을 볼 때 양발을 디디도록 되어 있는 재래식 변소의 발판 나무. *이제 노일적댄 죽언ᄒᆞ난 데강인 돗도고리, 양각(兩脚)은 지들낭 ᄒᆞ난.(이제 노일적대는 죽으니 대가리는 돼지먹이통, 두 다리는 '지들낭'을 하니.) [용수]

지들낭-가지 명 장작-개비. [전역]

지들루다 동 지지르다. [전역]

지들와-지다 동 무거운 물건이 위로 눌러지어 지지르게 되다. [전역]

지들-커 명 [전역] → 짇을-커.

지락 부 [전역] → 자락②.

지락-지락 부 [전역] → 지랑-지랑①.

지락-이 부 [전역] → 자락②.

지랄-ᄒᆞ다 동 지랄-하다. [전역]

지랑 명 <음> 짐승의 고기 따위를 양념을 넣고 볶아 단지 같은 작은 그릇에 담아 두고서 먹는 반찬 같은 음식의 일종. [전역]

지랑-지랑 부 ① 주렁-주렁. [전역] = 지락-지락. ② 치렁-치렁. [전역]

지랑-ᄒᆞ다 형 치렁-하다. [전역]

지러기 명 [전역] → 지럭시.

지러기-로 부 세로. 위에서 아래로.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지스로, 질로, 질스로.

지럭시 명 길-이(長). [전역] = 지러기.

지렁-내 명 지린-내. [태흥 수산 표선 세화 조천 노형] = 지른-내, 지린-내, 찌렁-내.

지레[1] 명 키(身長). [전역]

지레[2] 명 지라(脾臟). [전역]

지레-그차지다 동 우스운 일을 당하여 너무 웃은 나머지 지라가 끊어질 정도로 되다. [전역] = 지레-끈어지다.

지레-끈어지다 동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 지레-그차지다.

지렝이 명 <동> 지렁이(蚯蚓). [전역] = 게우리, 지롱이, 지룡이.

지롱이 명 <동> [인성] → 지렝이.

지룡이 명 <동> [서홍] → 지렝이.

지르다 동 지르다. ① 목청을 높여 큰 소리를 내다. [전역] ② 식물의 순을 자르다. [전역] ③ 분한 마음을 일어나게 하다. [전역] ④ 속으로 들이밀다. [전역]

지르-신다 동 지르-신다. [전역]

지륵탁 부 [전역] → 자륵탁.

지른-내 명 [서홍 어도] → 지렁-내.

-지를 어미 -지를. '-지'에 '-를'을 합쳐서 뜻을 세게 하는 어미. 다음에 '못ᄒᆞ다·말라' 등이 붙음. [전역]

지름 명 기름(油). [전역] = 기름.

지름-겡이 명 <동> 조간대(潮間帶) 상층(上層)에 서식하는 게의 일종. [대포] = 지름-깅이.

지름-깅이 명 <동> [판포] → 지름-겡이.

지름끼-동네 명 <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한 자연마을. [애월] = 유기-동(油機洞), 지릉끼-동네.

지름 들다 구 지름길로 들다. [전역]

지름-떡 명 <음> 기름-떡. *식게 땐

지름떡도 헤사 ᄒᆞᆫ다.(제사 때는 기름떡도 만들어야 한다.) [전역]

지름-뚬 명 [김녕] → 진-뚬.

지름-몰망 명 <식> 거름용 해조류의 일종. [서귀포]

지름-보말 명 <동> [하귀] → 춤-ᄀᆞ매기.

지름-상의 명 <동> [전역] → 콥-상의.

지름-소세 명 <식> 가마귀지장의 한 종류. [도두]

지름영 명 운상(運喪)하여 갈 적에 도중(途中)에서 쉬면서 먹는 음식 따위. [가시 수산 서홍] = 질-수영, 질-수용, 질-수용, 질-수헹, 질-쉬염.

지름-장멸 명 자잘한 자갈돌. [영평]

지름-질 명 지름-길(捷徑). [전역]

지름질-ᄒᆞ다 동 가깝게 통한 길로 질러 다니다. [전역]

지름칠-ᄒᆞ다 동 기름칠-하다. [전역]

지름-클 명 기름-틀(--機). [전역]



지름클

지름-펭 명 기름-병(--甁). [전역] = 기름-펭.

지릉끼-동네 명 <지> [애월] → 지름끼-동네.

지리 부 계속. 오래-도록. ＊ᄒᆞᆼ시 눈도 아이 뜨고 지리 곰앙 댕기니까.(항시 눈도 아니 뜨고 계속 감고 다니니까.) [명월]

지리-넘넘 부 <민> 그릇이 철철 넘치는 모양. [전역]

지린-내 명 [어도 조수 인성 서홍] → 지렁-내.

지-막히다 형 기-막히다. 너무 놀랍거나 지나쳐 어이없다. [전역]

지-만썩 명 [전역] → 제-만씩.

지-만씩 부 [전역] → 제-만씩.

지물 명 [전역] → 제물.

지물-떡 명 [전역] → 제물-떡.

지믜-지다 동 조대(粟-)가 희읍스름하게 시들어 마르다. [전역]

지미 명 기미(痣). [전역]

지미-봉(地尾峰) 명 <지>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북쪽 바닷가에 있는 오름. 조선 때 봉수대가 있었음. 서쪽 기슭은 철새 도래지(到來地)임. 표고 165.3미터. [전역]

지방[1] 명 지방(紙榜). [전역]

지방[2] 명 <건> [전역] → 문-지방.

지방-턱 명 문-턱(門-). [전역] = 지팡-턱.

지팡 명 <건> [전역] → 문-지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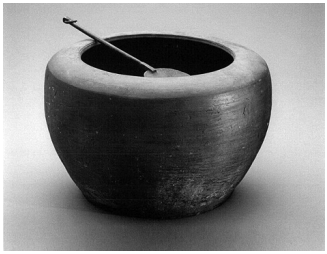
지팡-턱 명 [수산] → 지방-턱.

지부새 명 <동> 제비-새. ＊강남 갓단 지부새도 알을 치레 오건마는.(강남 갔던 제비도 알을 치러 오건마는.) [전역]

지-부찜 명 <민> 성주풀이에서 종이를 물에 개어 천장에 던져 붙이는 제차. [전역]

지부찜-녜 명 <민> 성주풀이에서 지뿌찜을 할 때에 올리는 예물. [전역]

지붕 명 <건> 지붕. [전역]
지붕-ᄆᆞ로 명 <건> [서홍 수산] → 지붕-ᄆᆞ를.
지붕-ᄆᆞ르 명 <건> [수산 어도 노형 인성] → 지붕-ᄆᆞ를.
지붕-ᄆᆞ를 명 <건> 용-마루. [전역] = 지붕-ᄆᆞ로, 지붕-ᄆᆞ르, 지붕-ᄆᆞᆯ리.
지붕-ᄆᆞᆯ리 명 <건> [인성 노형 조수] → 지붕-ᄆᆞ를.
지비기-원 명 한 마을에서 바다의 모든 일을 관장(管掌)하는 사람. [행원]
지뻐-ᄒᆞ다 동 기뻐-하다. [전역] = 기뻐-ᄒᆞ다.
지쁘다 형 기쁘다(喜). [전역]
지-사비다 동 <민> 달래다. 사귀다. [전역]
지서멍 명 지어미. 집안의 가정사를 착실히 다스리는 아내. [전역] = 지세-어멍.
지서방 명 지아비. 착실한 남편. 집안을 잘 다스리는 마누라를 '지서멍'(지세어멍)이라 하는데, 이 말에 대비하여 일부러 꾸민 말. ＊지서멍은 지서방 우데.(지어미는 지아비 우대(優待).) [전역]
지석-치메 명 [전역] → 지성-치메.
지성귀 명 기저귀. 어린아이의 대소변을 받아 내는 헝겊. [전역] = 지성기, 지셍이.
지성기 명 [세화] → 지성귀.
지성-치메 명 처네. [전역] = 지석-치메.
지세 명 [전역] → 지에.
지세-그릇 명 질-그릇. [전역] = 질-그릇.
지세-어멍 명 [전역] → 지서멍.
지세-집 명 [전역] → 지에-집.
지세-항 명 <도> 기와를 만드는 흙으로 만든 독. [전역]
지세-허벅 명 <도> 기와를 만드는 흙으로 만든 물동이. [전역]
지세-화리 명 <도> 진흙으로 구워 만든 화로. [전역]



지세화리

지셍이 명 [조천] → 지성귀.
지숙 명 [전역] → 제숙.
지스렁-몰 명 <동> [서홍] → 지스렝이-몰.
지스렝이 명 <동> 둘-치. [인성 노형 어도 화순] = 지시렝이, 지지렝이.
지스렝이-개 명 <동> 둘-암캐.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캐. [인성 노형 조수] = 지시렝이-개, 지지렁-암캐, 지지렝이-개.
지스렝이-돗 명 <동> 둘-암퇘지.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퇘지. [노형 조수 인성] = 지시렁-암톳, 지시렝이-암톳.
지스렝이-몰 명 <동> 둘-암말.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말.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지스렁-몰, 지시렝이-몰.
지스렝이-쉐 명 <동> 둘-암소. 새끼를 낳지 못하는 암소. [노형 조수 인성

화순 어도] = 지시렝이-쉐.

지스로 부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지러기-로.

지슬 명 <식> 감자(馬鈴薯). [전역] = 지실.

지슴 명 [전역] → 검질.

지슴-톨 명 깊은 숲. *아무 지슴톨이나 들어강 술칵 된 걸 팡으네, 졍 왕 불 쌋주.(아무 깊은 숲이나 들어가서 관솔 된 것을 파서, 지고 와서 불을 켰지.) [노형]

지숫-물 명 낙숫-물. [전역] = 지실-물, 지싯-물.

지시 명 <음> 마늘-장아찌. [전역]

지시-단지 명 마늘장아찌를 담아 두는 단지. [전역]

지시렁-암톳 명 <동> [수산 서홍] → 지스렝이-돗.

지시렝이 명 <동> [조수 인성] → 지스렝이.

지시렝이-개 명 <동> [김녕 조수] → 지스렝이-개.

지시렝이-몰 명 <동> [수산 가시] → 지스렝이-물.

지시렝이-쉐 명 <동> [하원 서홍 태흥 표선 수산 세화 조천 노형] → 지스렝이-쉐.

지시렝이-암톳 명 <동> [가시 김녕] → 지스렝이-돗.

지실 명 <식> [전역] → 지슬

지실-물 명 [김녕] → 지숫-물.

지심 명 [전역] → 검질.

지싯-거리다 동 싸우다. 다투다. [명월]

지싯거리-질 명 [명월] → 지싯-큼.

지싯-물 명 [전역] → 지숫-물.

지싯-큼 명 싸움. 다툼. *저 사름네 성제간의 지싯큼을 ᄒᆞ지 안헤신가?(저 사람들 형제간에 다툼을 하지 않았는가?) [명월] = 지싯거리-질.

지스 명 [전역] → 제스.

지썩 부 저마다 따로따로. [노형 조수]

지-아 명 <민> 지하(地下). [전역] = 지-알, 지-애[1].

지-아룀(紙--) 명 <민> 영등굿 등에서 요왕이나 바다에서 죽은 영혼을 대접하기 위하여 백지(白紙)에 제물을 싸서 바다에 던지는 일. [전역] = 지-드림(紙--).

지아비 명 지아비. [전역]

지-알 명 <민> [전역] → 지아.

지-애[1] 명 <민> [전역] → 지아.

지애[2] 명 [명월] → 지에.

지애-집 명 <건> [명월] → 지에-집.

지에 명 기와(瓦). [전역] = 지세, 지애[2].

지에-집 명 <건> 기와-집(瓦家). [전역] = 지세-집, 지애-집.

지엣-굴 명 기왓-가마. [전역]

지엣-장 명 기왓-장(--張). [전역]

지역-지역 부 주렁-주렁. 열매가 많이 매달려 있는 모양. *지역지역 멜뤼도 올아, ᄃᆞ렌 무사 웨 홀로 올리.(주렁주렁 머루도 열어, 다랜 어째 외로이 홀로 열리.) [전역]

지우다[1] 동 지우다. ① 남을 이기다. [전역] ② 선 것을 눕게 하다. [전역]

지우다[2] 동 지우다. ① 묻은 것을 닦아서 흔적을 없게 하다. [전역] ② 물건을 등에 지게 하다. [전역] ③ 책임을 맡게 하다. [전역]

지우다[3] 동 서럽게 울다. *하르방이

가 보니 이제 막 서우라ᄒᆞ게 지우는 여재가 신디.(할아버지가 가 보니 이제 막 서럽게 우는 여자가 있는데.) [명월]

지울리다 동 울리다. ＊서월 ᄃᆞᆨ은 소리도 좋다. 즤주 강남 소낭긔 앚앙 조선국을 지울렴고나.(서울 닭은 소리도 좋다. 제주 강남 소나무에 앉아 조선국을 울리는구나.) [전역]

지울-이다 동 [전역] → 주울-이다.

지웃-거리다 동 기웃-거리다. [전역] = 주읏-걸다.

지웃-ᄒᆞ다 동 기웃-하다. [전역] = 기웃-ᄒᆞ다, 주읏-ᄒᆞ다.

지육-안주 명 <민> 돼지고기 안주(猪肉按酒). [전역] = 주육-안주.

지이-ᄒᆞ다 동 아주 어렵게 겨우 하다. [전역]

지장 명 기장(黍). [전역]

지장-본풀이 명 <민> 시왕맞이 따위에서 불리는 지장신의 내력담. 지장아기씨는 조실부모하고 기구한 삶을 산 뒤에 불당(佛堂)에 정성스레 불공을 하고 새(鳥) 몸이 되어 태어남. [전역]

지적 부 거적. [전역] = 예정이, 지즉.

지전[1](紙錢) 명 지전. [전역] = 종이-돈.

지전[2](紙錢) 명 <민> 백지나 창호지를 오려 엽전 모양으로 만들어 신의 노자로 바치는 돈. [전역]

지주 명 [노형 조수 인성] → 제주[2].

지줏-돌 명 [세화] → 주툿-돌.

지지 명 [보목] → 주젱이.

지지다 동 지지다. [전역]

지지렁-암캐 명 <동> [서홍] → 지스렝이-개.

지지렝이 명 <동> [하원 서홍 수산 김녕] → 지스렝이.

지지렝이-개 명 <동> [서홍 수산 가시] → 지스렝이-개.

지직-문 명 [수산] → 거적-문.

지질 명 <병> 치질(痔疾). [전역] = 치질.

지질-밀망 명 깔밋하지 못하여 싫증이 나서 민망(憫惘)함. [전역]

지질징-나다 동 깔밋하지 못하고 지루하여 싫증이 나다. [전역]

지질-ᄒᆞ다 형 지질-하다. [전역]

지집 명 [전역] → 제집. 고 겨집.

지집-아의 명 계집-아이. [전역] = 기집-아의, 제집-아의.

지축 명 <식> 지치. [세화 조천 노형 어도 조수] = 지츠.

지충 명 <식> 지충-이. 갈조식물 모자반과의 바닷말. [전역] = 주충.

지츠 명 <동> [인성 서홍] → 지축.

지치다 동 끼-얹다. [전역]

지치다[1] 동 지치다. 병이나 괴로움에 시달려 기운이 다 빠지다. [전역]

지치다[2] 동 여위다. [전역]

지친 장시 구 피곤한 장사. 물건을 살 사람이 없어 할 수 없이 이익을 못 보고 파는 장사. [노형]

지침 명 기침(咳). [전역] = 기침.

-지키여 어미 -지겠다. 용언 어간에 붙은 '-아-·-어-'나 'ᄒᆞ다' 동사의 어간 또는 'ᄒᆞ다'가 붙어 된 용언 어간에 붙은 '-여'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 되어지거나 또는 사물이 어떻게 되어 갈 것이 가능하겠다는 뜻

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지킴-이 명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마련한 '케왓'을 지키는 이. [이호]

지텡-ᄒᆞ다 동 지탱-하다. [전역]

지툿-돌 명 [태흥 표선 수산] → 주툿-돌.

지팡 명 [수산 서홍 가시] → 문-지방.

지폐 명 지폐(紙幣). [전역]

지펜 명 <음> [조수 노형 어도] → 제펜.

지펭이 명 지팡이. [전역]

지프다[1] 동 짚다. [전역]

지프다[2] 형 깊다(深). [전역] = 지끄다.

직 명 모금, 숟갈 등을 가리키는 단위. *밥 ᄒᆞᆫ 직만 더 먹읍서.(밥 한 숟갈만 더 드세요.) *물 ᄒᆞᆫ 직만 줍서.(물 한 모금만 주세요.) [전역] = 적[2].

직궤 명 <도> [김녕 수산] → 줍게.

직깍 부 [전역] → 지깍.

직깍-ᄒᆞ다 형 아주 빽빽하다. [전역] = 찍깍-ᄒᆞ다.

직담 명 <어> 냇가에서 은어를 잡기 위하여 가로질러 축조해 놓은 담. [중문]

직부일월-상세경 명 <민> 농신(農神). 굿을 할 때 세경신을 지칭하는 말. [전역]

직산-ᄒᆞ다 동 앉거나 섰을 적에 윗몸을 기대다. [전역]

직성 명 강건한 마음. 강한 의지. *그 사름은 직성이 세다.(그 사람은 의지가 강하다.) [전역]

직세-동네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2리에 있는 자연마을. [남원]

직시[1] 명 깃. 나누는 물건의 한 몫. *아무 밧 아무 밧은 아시 직시고, 아무건 나 직시로 영 헷수다.(아무 밭 아무 밭은 아우의 몫이고, 아무 것은 내 몫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속) 나간 놈 직신 셔도 자는 놈 직신 읏나.(나간 놈 몫은 있어도 자는 놈 몫은 없다.) [세화 조수 조천 노형 어도] = 나시[1], 적시, 찍[2], 찍세, 찍시.

직시[2] 부 즉시(卽時). [전역] = 즉시.

직ᄉᆞ-ᄒᆞ다 동 즉사-하다(卽死--). [전역]

직-ᄒᆞ다 동 지키다. [전역]

진 명 진(津). 풀, 나무 따위에서 분비(分泌)되는 끈끈한 물. [전역]

진가라-몰 명 <동> [노형 수산] → 먹가레-몰.

진가랑-포 명 <민> 재미(齋米)를 얻으러 다니는 중이 등에 지는 보자기 비슷한 것. [전역]

진계량 명 <의> 품질이 뛰어난 갓모자의 한 가지. 곁기 시작할 때의 날 수효는 80임. [전역]

진달래-낭 명 <식> 진달래. [노형 인성 서홍 수산] = 안짐베기고장-낭, 진돌위-낭, 진달레-낭, 진달뤼, 진돌위.

진달레-꼿 명 <식> 진달래-꽃. [전역] = 선달-꼿, 선달레-꼿, 신달레-꼿, 안짐베기-고장.

진달레-낭 명 <식> [김녕] → 진달래-낭.

진달레-밧 명 <지> 한라산 성널오름 코스 등산로에 있는 진달래가 많이 피는 지역. 표고 1493미터. [전역]

진달뤼 명 <식> [노형 조수 어도] → 진달래-낭.

진대-듬북 명 기다란 대(竹)로 건져 올

리는 '듬북'. [북촌]
진독 명 <동> 진드기. [전역] = 진둑. ㉤진되.
진독-내 명 옥돔에서 나는 독한 냄새. [대포]
진둑 명 <동> [전역] → 진독.
진득진득-ᄒᆞ다 형 진득진득-하다. [전역]
진득-ᄒᆞ다 형 진득-하다. [전역]
진돌위 명 <식> [조수] → 진달래-낭.
진돌위-낭 명 <식> [노형 조수] → 진달래-낭.
진-똠 명 진-땀(津-). [인성 조수 노형 서홍 수산 가시] = 지름-똠.
진목-악(眞木岳) 명 <지> [노형 광령] → ᄎᆞ낭-오름[1].
진-밧 명 <지> [전역] → 장-밧[3].
진-부출 명 <건> 문울거미의 가로 재(材). [전역]
진-사데 명 <요> 가락이 느린, 밭매는 노래의 한 가지. [전역]
진상(進上) 명 진상. [전역]
진성-군 명 <민> 수복(壽福)의 신(神)인 북두칠원성군(北斗七元星君) 가운데 하나. 북두직성녹존성군(北斗直聖祿存星君)의 '직성군'(直星君)이 와전된 것. [전역]
진-쉬 명 <동> 진딧-물. [전역]
진쉬-지다 동 진딧물-내리다. [전역]
진역 명 징역(懲役). [전역] = 징역.
진-오름 명 <지> 제주시 애월읍에 있는 고내오름의 남쪽으로 뻗은 긴 산등성이. [고내 상가]
진-웨가 명 진-외가(陳外家). [전역] = 진-웨가칩.
진-웨가칩 명 [전역] → 진-웨가.
진작 부 진작. [전역] = 진직.
진저리-나다 동 진저리-나다. [전역]
진-조금 명 <어> 간만(干滿)의 차가 가장 느슨한 무수기. [대포]
진-줄 명 초가지붕을 일 때 쓰는 기다란 줄. [전역] = 건-줄.
진직 부 [수산 김녕] → 진작.
진질-동네 명 <지>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에 있는 자연마을. [전역]
진ᄍᆞ 명 진짜(眞-). [전역]
진ᄍᆞᆷ 명 진짬(眞-). 잡것이 섞이지 아니한 순수한 물건. [전역]
진치-아녀다 형 긴-찮다. [전역]
진-쿨 명 <식> [인성 서홍] → 진-풀.
진토 명 장사를 치르는 날 봉분을 둥그스름하게 만드는 데 쓰일 흙. [전역]
진토-굿 명 장사를 치르는 날 봉분을 둥그스름하게 만드는 데 쓰일 흙을 파내는 구덩이. [전역]
진토굿 파는 소리 명 <요> 장사를 치르는 날 봉분을 둥그스름하게 만드는 데 쓰일 흙을 파내면서 부르는 민요. [전역]
진-펄 명 아주 질퍽질퍽하게 된 흙. [전역] = 질-흑.
진-풀 명 <식> 별-꽃. [노형 조수 인성 수산 가시 김녕] = 진-쿨.
짇다[1] 동 긷다(汲). [전역]
짇다[2] 동 때다. 방에 불을 놓다. [전역] ㉤딛다.
짇을-낭 명 땔-나무. [전역]
짇을-커 명 장작, 검불 따위의 불을 때는 데 쓰는 재료. [전역] = 지들-거, 지들-것, 지들-커.

질[1] 명 길(路). *(속) 미운 놈 보컨 질 나는 밧버실라.(미운 놈 보려거든 길 나는 밭을 경작하라.) *(속) 질이 읏이난 흔 질을 걷곡, 물이 읏이난 흔 물을 먹나.(길이 없으니 한 길을 걷고, 물이 없으니 한 물을 먹는다.) *(속) 질엣돌도 연분이 잇어사 찬다.(길에 있는 돌도 연분(緣分)이 있어야 찬다.) [전역] = 길[1], 질레.

질[2] 명 길. ① 짐승이나 물건이 부리거나 쓰기 좋게 된 성질. [전역] ② 익숙하여진 솜씨. [전역]

질[3] 명 길. ① 길이의 한 단위. [전역] ② 물건의 품질의 등급(等級). [전역] = 길[2].

질[4] 명 기지개.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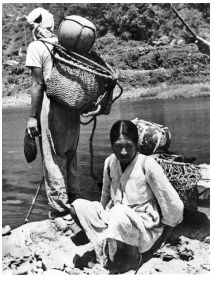
질[5] 관부 [전역] → 제일(第一).

-질 어미 -질. '-지'에 '-를'의 축약형 '-ㄹ'이 합쳐서 뜻을 세게 하는 어미. 다음에 '못ᄒᆞ다·말라' 등이 붙음. [전역]

질강-질강 부 질경-질경. [전역]

질겁다 형 즐겁다. [전역]

질-구덕 명 대바구니의 한 가지. 물건을 넣고 등에 져 나르는 데 쓰이는 좀 큰 대바구니. 해녀들이 작업하러 바다를 드나들 때 해녀 연장과 해산물을 넣고 다님. [전역]


질구덕

질군-악 명 <요> 정의현(旌義縣)의 도읍지였던 성읍에서 전해지는 경쾌한 창민요로서, 한반도에서 유입된 민요의 한 가지. [성읍]

질그렝-이 부 *자원 질그렝이 앚아둠서 먹엄저.(저 아인 지그시 앉아 있으면서 먹는다.) [전역] → 질그시.

질-그릇 명 [노형 인성 김녕] → 지세-그릇.

질그시 부 지그시. [전역] = 지그시, 질그렝-이.

질기다 형 질기다. [전역]

질-ᄀᆞ 명 길-가(路邊). [전역] = 길-ᄀᆞ.

질끈 부 질끈. [전역]

질다[1] 형 길다(長). [전역] = 걸다[3], 길다.

질다[2] 형 질다. 반죽한 것에 물기가 남다. [전역]

질담-ᄒᆞ다 형 기-다랗다. *진빌레는 질담ᄒᆞ게시리 요 아래로 내려가니까 질댄ᄒᆞ연 진빌레렌 ᄒᆞ주.('진빌레'는 기다랗게 요 아래로 내려가니까 길다고 해서 '진빌레'라고 하지.) [하도]

질-대 명 <민> 시왕맞이에서 영혼을 위한 길을 치워 닦는 의례인 질침을 할 때 양쪽 끝을 바닥에 꽂아 둥그렇게 만드는 댓가지. [전역] = 문-대.

질-대장 명 <민> 제청 밖의 군졸을 통솔하는 하위 신(神). [전역]

질-둥이 명 임신부가 밭이나 바다에 일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미처 집에 도착하기 전에 길에서 분만했을 때 그 애에게 붙여지는 별명. [전역] = 길-둥이.

질-뒤 명 노루의 뒷다리. [광령]

질-들다 동 길-들다. [전역] = 길-들다.
질들-이다 동 길들-이다. [전역] = 길들-이다.
질뚜림 소리 명 <요> 질그릇을 구워서 만들려고 진흙을 때려 이기면서 부르는 민요. [전역]
질라-지 명 <민> 기원자(祈願者)의 신장 길이로 그 연령만큼 잰 길이의 피륙. [전역]
질레 명 [전역] → 질[1].
질레-늙다 형 [인성 조수] → 질허-늙다.
질로 부 [서홍 수산] → 지러기-로.
질로-지썩 부 여럿이 다 저마다 따로 따로. [조수 어도]
질루다 동 기르다(養). [전역]
질르다 동 찌르다. 틈이나 사이에 무엇을 꽂아 넣다. *전복 테레 갈 때 속곳 입으믄 등따리 줄에 빗창이영 본을 똑 질르주게.(전복 캐러 갈 때 속곳 입으면 등의 줄에 빗창이랑 '본'을 꼭 꽂아 넣지.) [이호]
질먹 명 <공> 주물(鑄物)에 쇳물을 부어 넣었을 때 쇳물이 파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그 표면에 발라 주는 목탄(木炭) 가루. [덕수]
질먹-대장 명 <공> 주물(鑄物) 표면에 쇳물이 파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목탄가루를 물에 타서 칠하는 일을 전담하는 일꾼. [덕수]
질메 명 길마(鞍). [전역] 고 기ᄅᆞ마.
질메-고냥 명 <도> 길마의 앞가지와 뒷가지 밑에 각기 하나씩 난 구멍. [감산 어음]
질메-지우다 동 길마-짓다. [전역]
질멧-가지 명 길맛-가지. [전역]


질메

질-목[1] 명 길-목. [전역] = 길-목.
질-목[2] 명 <의> 길목-버선(--襪). [전역]
질목-고드랭이 명 발바닥 부분이 다 떨어져 나간 버선. [노형]
질목-다리 명 [세화] → 모감지.
질-밧 명 [김녕 수산] → 질-왓.
질-배 명 [노형 조수 어도 서홍] → 짐-패.
질빵 명 질빵. 실(絲)로 엮어 땋아서 만든 짐을 짊어지는 줄. *질빵을 ᄀᆞᆺ다다가 환자를 무꺼서 거꾸로 ᄃᆞᆯ라. (질빵을 가져다가 환자를 묶어서 거꾸로 달아매어라.) [전역]
질-수영 명 [김녕 조수] → 지름영.
질-수옹 명 [수산] → 지름영.
질-수용 명 [노형 조수] → 지름영.
질-수헹 명 [인성] → 지름영.
질-쉬염 명 [김녕] → 지름영.
질스로 부 [수산 김녕] → 지러기-로.
질-ᄉᆞ미 명 적삼의 '이몸'에 이어 붙인 소매. [대포]
질쌈 명 길쌈(紡績). [전역]
질-어귀 명 길-어귀. 길의 드나드는 목쟁이의 첫머리. [전역]
질-에염 명 길-섶. [전역]
질-왓 명 돌멩이가 없고 맨흙이 깔려 있는 밭. *그 몰래왓디 ᄒᆞᆫ 번 댕기멍 보난 아닌게 아니라 질왓덜 잇더

고.(그 모래밭을 한 번 다니면서 보니 아닌게 아니라 '질왓'들이 있더라.) [전역] = 질-밧.

질-우리 명 까끄라기가 길고 쌀알도 조금 기름한 보리. [전역]

질-유다 동 길을 잃다. 걸어 다니다가 도중에서 길을 잃어 헤매다. *질 유영 둘 진 밤 새라.(길 잃어 달 진 밤 새어라.) [전역] = 질-유흐다, 질-윱다.

질-유흐다 동 [어도 인성 화순] → 질-유다.

질-윱다 동 [전역] → 질-유다.

질진-밧 명 이랑의 길이가 긴 밭. [전역]

질질 부 질질. ① 땅에 늘어져 끌리는 모양. [전역] ② 몸에 지닌 것을 잘 빠뜨리거나 흘리는 모양. [전역]

질-짐승 명 길-짐승(走獸). [전역] = 길-짐승.

질쪽-질쪽 부 길쭉-길쭉. [전역]

질-차다 형 길-차다. [전역]

질-치다 동 <민> 푸닥거리를 하여 잡귀가 제 길로 잘 나가게끔 하다. [전역]

질-침 명 <민> 신(神)이 내려오는 길이나 죽은 영혼을 저승으로 보내는 길을 깨끗하게 치워 닦는 의례. [전역]

질-캄관 명 <민> 길 감관(監官). 이승과 저승 사이의 길을 감독, 관리하고 안내하는 이. [전역]

질-토루 명 <민> [온평] → 질-ᄐᆞ레비.

질-트다 동 기지개-켜다. [전역]

질-ᄐᆞ레비 명 <민> 길을 보수하는 사람. 이승과 저승 사이의 길을 보수하는 이. [전역] = 질-토루.

질-패 명 [수산 서홍 가시] → 짐-패.

질학-질학 부 질척-질척. [전역]

질허-늙다 동 늙을 나이가 아닌데 어떤 일로 말미암아 늙게 되다. [전역] = 질레-늙다, 질헤-늙다.

질허-쓰다 동 쓸 일이 없는데 재물을 헛되게 일부러 쓰다. [전역]

질허-죽다 동 죽을 나이가 아닌데 어떤 일로 하여금 일부러 생명을 잃게 되다. [전역] = 질헤-죽다.

질헤-늙다 형 [전역] → 질허-늙다.

질헤-죽다 동 [조수] → 질허-죽다.

질헹-나다 동 집 바깥으로 나들이하다. *정칠월의 한더윗 날에 아바님이 질헹난디 이 내 몸이 번구룸이멘 간 듸마다 실ᄇᆞ름 뒈컬.(정칠월의 한더윗 날에 아버님이 출행했는데 이 내 몸이 뭉게구름이면 간 데마다 실바람 될 걸.) [전역]

질-흑 명 [노형 인성 김녕 조수] → 진-펄.

짊다[1] 동 초가지붕을 일 때 '집줄'을 묶고 나서 지붕의 마루를 덮다. *ᄆᆞ루 잘 짊으라.(마루 잘 덮어라.) [성읍]

짊다[2] 동 짊다. [전역]

짊어-지다 동 짊어-지다. [전역]

짐[1] 명 김. ① 물 따위가 끓어 기체로 변하는 기운. [전역] ② 숨 쉴 때의 코, 입으로 나오는 더운 기운. [전역]

짐[2] 명 짐. 지거나 실어서 나르는 물건. [전역]

짐[3] 명 <식> 김(靑苔). [전역]

짐뀌 명 <음> [김녕] → 짐치[2].

짐끼 명 <음> [수산 어도 인성 서홍

조수] → 짐치[2].

짐-나다 동 물 따위가 끓어서 기체로 변한 기운이 솟아 오르다. [전역]

짐-바리 명 짐-바리(卜駄). [전역]

짐벵이 명 [조수 남원] → 으남-비.

짐-새 명 김(海苔)를 붙이려고 마련한 '새'(茅). [상창 인성 송당]

짐셍 명 [전역] → 짐승.

짐숙-ᄒᆞ다 형 [노형] → 짚숙-ᄒᆞ다.

짐승 명 짐승(獸). [전역] = 짐셍.

짐작-ᄒᆞ다 동 짐작-하다. [전역]

짐재기 명 <도> [가시] → 뒈약세기.

짐-중을다 동 마소에 실은 짐 따위가 한쪽으로 기울다. [전역]

짐짓 부 짐짓. [전역]

짐-철복ᄒᆞ다 동 짐-꾸리다. 짐 따위를 싸서 동여 묶다. [전역]

짐추염나-태산왕 명 <민> 김치염라태산왕(金綴閻羅泰山王). [전역]

짐치[1] 명 김장. [전역] = 김장.

짐치[2] 명 <음> 김치. [전역] = 짐뀌, 짐끼.

짐치-돔다 동 김장을 담그다. [전역] = 김장-돔다.

짐칫-감 명 침-감(-柿). 뜨거운 물에 담가서 떫은 맛을 없앤 감. [전역] = 울른-감.

짐-출리다 동 짐을 꾸려 짊어질 준비를 하다. [전역]

짐-패 명 짐을 지는 데 쓰는 줄.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질-배, 질-패.

집[1] 명 집(家). *(속) 집 치레 말고, 밧 치레ᄒᆞ라.(집 치레하지 말고 밭 치레해라. 양식을 주는 밭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 *(속) 내 집 가운 ᄂᆞᆷ의 집 처녀에 멘다.(내 집 가운(家運)은 남의 집 처녀에 달렸다.) [전역]

집[2] 명 국이나 반찬에 들어가는 가루를 물에 탄 것. *집 허껑 호박국더레 노라.('집'을 섞어 호박국에 넣어라.) [납읍]

집-가슬 명 지붕 이는 일을 한 해 거름. [하천]

집-가제 명 <건> 처마. [전역] = 집-가지.

집-가지 명 <건> [전역] → 집-가제.

집게 명 <도>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줍게.

집궤 명 <도> [가시] → 줍게.

집다 동 [전역] → 줍다.

집-두임 명 [김녕 수산 가시 조수] → 집-두힘.

집-두힘 명 집-뒤짐. [전역] = 집-두임, 집-뒤임.

집-뒤임 명 [노형 김녕 조수] → 집-두힘.

집-메 명 지붕의 맵시. [전역]

집-문세 명 집-문서. [전역]

집수(執收) 명 죄를 저지른 사람의 물건을 빼앗아 물증(物證)으로 삼음. *호미 차시민 호밀 집수ᄒᆞ나, 밀랑 페렝이 써시민 밀랑체렝일 벳겨 아지나 ᄒᆞ영 감관안티 바칩주. 감관이 ᄆᆞ실 거리에 사름덜 ᄋᆞ라이 앉인 디 불러다 놔그네 그 사름 수속을 받읍주.(낫을 찼으면 낫을 집수하거나, 밀짚모자를 썼으면 밀짚모자를 벗겨 갖던가 해서 감관에게 바치지요. 감관이 마을 거리에 사람들 여럿이 앉은 데 불러다 놓고서는 그 사람 수

속을 받지요.) [하원]

집-안 명 집-안. ① 가까운 살붙이. [전역] ② 집의 내부(屋內). *(속) 집안에 든 꿩 놔뒁, 밧딧 꿩 잡젠 ᄒᆞᆫ다.(집안에 든 꿩을 놔 두고, 밭엣 꿩 잡으려 한다.) *(속) 큰일 쳐난 집 ᄌᆞ냑ᄀᆞ심 싯곡, 큰굿 헤난 집안 ᄌᆞ냑ᄀᆞ심 웃나.(큰일 치렀던 집 저녁거리 있고, 큰굿 치렀던 집안 저녁거리 없다.) [전역]

집안-비 명 <도> 집안(屋內)에서 쓰는 비(箒). [전역] = 방-비.

집어신-돌뱅이 명 <동> [남원] → 집으신-돌뱅이.

집웃은-돌뱅이 명 <동> 우렁이 딱지 같은 껍데기를 벗어 버리고서 아주 없이 사는 달팽이.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옷벗은-돌뱅이, 집어신-돌뱅이.

집윗-사름 명 집-사람. 남 앞에서 자기의 아내를 일컫는 말. [전역]

집윗-어룬 명 남 앞에서 자기의 남편을 일컫는 말. [전역]

집-임제 명 집-임자. [전역]

집-주인 명 [전역] → 집-쥐인.

집-줄 명 초가지붕을 이은 다음 바둑판처럼 얽어매는 줄. [전역]



집줄

집줄 놓는 소리 명 <요> 거센 바람 때문에 제주도에서는 초가 지붕을 이은 다음 띠로 꼰 집줄로써 바둑판처럼 얽어매는데, 골목이나 길가에서 집줄을 꼬면서 부르는 민요. 오직 안덕면 덕수리에서만 확인되는 유다른 민요임. [덕수]

집-쥐인 명 집-주인(-主人). [전역] = 집-주인.

집-지슬 명 <건> 처맛-기슭. [전역] 고 집기슭.

집-칼 명 끼울 수 있도록 집이 딸려 있는 칼. [전역]

집-터 명 집-터(垈地). [전역]

짓[1] 명 깃. 새 날개의 털. [전역]

짓[2] 명 깃. 외양간, 돼지우리 같은 데 깔아 주는 짚이나 마른 풀 따위. [전역]

짓[3] 명 짓. 몸을 놀리는 일. [전역]

짓[4] 명 우장(雨裝)의 윗부분. [송당]

짓-가르다 동 돼지새끼, 병아리 따위가 어미 밑에서 갈리다. [전역]

짓-갓 명 <민> 깃-갓. 깃(羽)을 꽂은 갓. [전역]

짓-거리 명 짓-거리. [전역]

짓-고대 명 깃-고대. [전역] = 짓-고데.

짓-고데 명 [전역] → 짓-고대.

짓-꺼멍ᄒᆞ다 형 더할 수 없이 아주 짙게 꺼멓다. [전역]

짓-끈 명 우장(雨裝)의 윗부분인 '짓'의 양쪽 끝에 달린 끈. [송당]

짓다[1] 동 짓다(作). [전역]

짓다[2] 동 깃다. 밭에 잡풀이 많이 나다. [전역]

짓-먹다 동 짓-먹다. 지나치게 많이

먹다. [전역]

짓-바데 명 [전역] → 등-바데.

짓-비 명 닭, 꿩의 깃으로 매어서 귀얄 대신 쓰는 풀비. [전역]

짓-볿다 동 짓-밟다. [전역]

짓-뻘겅ᄒᆞ다 형 빛깔이 더할 수 없이 아주 짙게 뻘겋다. [전역]

짓-주다 동 깃-주다. [전역]

짓찻-미녕 명 [전역] → 짓쳇-미녕.

짓찻-옷 명 <의> [표선 어도 서홍 수산 노형] → 짓쳇-옷.

짓쳇-미녕 명 짜낸 후로 한 번도 빨아 보지 아니한 무명. [전역] = 짓찻-미녕.

짓쳇-옷 명 <의> 한 번도 빨아 다듬지 아니한 감으로 지은 옷. [전역] = 짓찻-옷.

징[1] 명 <도> 정. 돌(石)을 다듬는 데 쓰는 쇠 연장. [전역] = 정[1].

징[2] 명 <도> [어도] → 떡-징[1].

징게 명 <민> 층계(層階). [전역]

징겡이 명 [가시 조수] → 정갱이[2].

징경 명 [전역] → 등경(燈檠).

징그리다 동 [인성 서홍 수산] → 찡그리다.

징돌은-떡 명 <음> [세화] → 징부찐-떡.

징멩 명 증명(證明). [전역] = 젱멩.

징-부찌 명 <음> [어도 조수] → 징부찐-떡.

징부찐-떡 명 <음> 좁쌀가루에 팥소 따위로 켜를 짓되 그 사이에 쌀가루를 넣어 켜를 안친 시루떡. [어도 조수] = 고달논-떡, 고달-떡, 고달부찐-떡, 고달여진-떡, 등입진-떡, 웃-징, 징돌은-떡, 징-부찌.

징심 명 [전역] → 점심.

징심-멩텡이 명 [전역] → 정심-망텡이.

징어리 명 <동> 정어리. [전역] = 징어리-멜.

징어리-멜 명 <동> [수산 김녕 가시 조수] → 징어리.

징역 명 [조수 어도] → 진역.

징이다 동 탐-내다. *얼굴 존 거 징이지 말라.(얼굴 예쁜 것 탐내지 마라.) [전역]

징징-ᄒᆞ다 형 보기에 불쾌할 정도로 흉(凶)하고 더럽다. [전역]

징펜 명 <음> [어도] → 증펜.

짚숙-ᄒᆞ다 형 깊숙-하다. [전역] = 짐숙-ᄒᆞ다.

짛다 동 찧다. 곡식 따위를 절구에 담고 공이로 내리치다. [전역]

ᄌᆞ 명 [노형 조수 하원 서홍] → 잣[1].

ᄌᆞ골오다 동 간질-이다. [전역]

ᄌᆞ곰 명 간지럼. 간지러운 느낌. [세화 노형 어도 조수] = 저금, ᄌᆞ금[1], ᄌᆞ기염, ᄌᆞ금.

ᄌᆞ곰-태기 명 [인성 어도] → 저곰-태기.

ᄌᆞ곰-ᄐᆞ다 동 간지럼-타다. [전역] = 저금-ᄐᆞ다, 저끔-ᄐᆞ다, ᄌᆞ금-타다, ᄌᆞ금-ᄐᆞ다, ᄌᆞ끔-ᄐᆞ다.

ᄌᆞ곱다 형 간지럽다. [전역] = 저급다, ᄌᆞ급다.

ᄌᆞ그극-ᄒᆞ다 형 오므라들고 찌무룩하다. *시어멍은 점복ᄀᆞ찌 ᄌᆞ그극ᄒᆞ연 미워만 베고.(시어머니는 전복같이 찌무룩하여 미워만 뵈고.) [전역]

ᄌᆞ그물다 동 다물다. [전역] = ᄌᆞᄌᆞ물다.

ᄌᆞ그뭇-지 부 [전역] → ᄌᆞ그뭇-ᄒᆞ게.
ᄌᆞ그뭇-ᄒᆞ게 부 입을 다물고 위아래 이를 마주 대는 모양. [전역] = ᄌᆞ그뭇-지.
ᄌᆞ근-ᄌᆞ근 부 자근-자근. ① 가볍게 연해 씹는 모양. [전역] ② 자세하고도 차례가 있게 일하는 모양. [전역]
ᄌᆞ금[1] 명 [조수] → ᄌᆞ곰
ᄌᆞ금[2] 명 자금(資金). [전역]
ᄌᆞ금-타다 동 [전역] → ᄌᆞ곰-ᄐᆞ다.
ᄌᆞ금-ᄐᆞ다 동 [전역] → ᄌᆞ곰-ᄐᆞ다.
ᄌᆞ급다 형 [전역] → ᄌᆞ곱다.
ᄌᆞ기 명 자기(自己). [전역]
ᄌᆞ기염 명 [조천] → ᄌᆞ곰.
ᄌᆞ기-예기 명 [노형] → 저곰-태기.
ᄌᆞ기-예미 명 [조수] → 저곰-태기.
ᄌᆞᆷ 명 [노형] → ᄌᆞ곰.
ᄌᆞᄀᆞᆺ 명 [어음] → ᄌᆞᄀᆞᆺ.
ᄌᆞ깡이 명 겨드랑-이. [전역] = 저껭이, 저드랑이, 저드랭이, ᄌᆞ깽이, ᄌᆞ껭이, ᄌᆞ드랭이, ᄌᆞᆺ갱이. 고 겨ᄃᆞ랑.
ᄌᆞ깽이 명 [전역] → ᄌᆞ깡이.
ᄌᆞ껭이 명 [전역] → ᄌᆞ깡이.
ᄌᆞ끔-ᄐᆞ다 동 [조수] → ᄌᆞ곰-ᄐᆞ다.
ᄌᆞᄀᆞᆺ 명 곁(側). [노형 조수 인성 김녕 수산] = 저껏, 저껒, 저끗, 적[4], 제껏, ᄌᆞᄀᆞᆺ, 즉.
ᄌᆞ낙 명 [노형 조수 수산 김녕] → 저냑.
ᄌᆞ낙-날 명 [조수 어도] → 저녁-날.
ᄌᆞ낙-때 명 [조수 김녕 노형] → 저냑-때.
ᄌᆞ낙-ᄀᆞ슴 명 [전역] → 저녁-ᄀᆞ슴.
ᄌᆞ낙-ᄀᆞ심 명 *(속) 큰일 처난 집 ᄌᆞ냑ᄀᆞ심 싯곡, 큰굿 헤난 집 ᄌᆞ냑ᄀᆞ심 읏나.(큰일을 치렀던 집은 저녁거리가 있고, 큰굿을 했던 집은 저녁거리가 없다.) [전역] → 저녁-ᄀᆞ슴.
ᄌᆞ냑-날 명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저녁-날.
ᄌᆞ냥 명 식량이나 물건을 아껴서 비축함. [전역]
ᄌᆞ냥-ᄒᆞ다 동 식량이나 물건을 아껴서 비축하다. [전역]
ᄌᆞ녁-날 명 [김녕 조수] → 저녁-날.
ᄌᆞ는-펜 명 <음> 김으로 찐 도래떡. [용담]
ᄌᆞ늘다 형 땅 속에 빗물이 스며들어서 흙이 딴딴하지 않고 갈기(耕)에 알맞을 정도로 무르다. [전역]
ᄌᆞ덴-상 명 <민> 자단-향(紫檀香). [전역]
ᄌᆞ드랭이 명 [김녕] → ᄌᆞ깡이.
ᄌᆞ들다 동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매우 근심하다. * ᄒᆞᆫ번은 가보니 가시어멍이 막 ᄌᆞ들암서.(한번은 가보니 장모가 막 근심하고 있어.) [노형 인성 조수 김녕] = 저들다.
ᄌᆞ들-리다 동 걱정하게 하다. 귀찮게 하다. * 남편이 너무 ᄌᆞ들리니까 도망감으로 가 분 거주.(남편이 너무 귀찮게 하니까 도망감으로 가 버린 거지.) [전역]
ᄌᆞ들-메 명 걱정거리가 될 만한 일. * 본디 전싱 궂어랜 몸은 산 넘어도 ᄌᆞ들메 난다. 물 넘어도 ᄌᆞ들메 난다. 산도 물도 넘지나 말라.(본디 전생 궂다는 몸은 산 넘어도 걱정거리 난다. 물 넘어도 걱정거리 난다. 산도 물도 넘지나 마라.) [전역]
ᄌᆞ래다 형 [노형] → ᄌᆞ레다.

ᄌᆞ레다 형 자라다. ① 모자람이 없다. 넉넉-하다. 훌륭-하다. ＊그 사름 연구가 막 ᄌᆞ레더라.(그 사람 연구(硏究)가 아주 훌륭하더라.) [전역] ② 수효나 분량에 차다. [전역] = ᄌᆞ래다.

ᄌᆞ력 명 자력(自力). [전역]

ᄌᆞ록 명 자루(柄). [전역] = ᄌᆞᄅᆞᆨ, 줄리. 고 ᄌᆞᄅᆞ.

ᄌᆞ록물-동네 명 <지> 제주시 한경면 산양리 동쪽 'ᄌᆞ록물' 가까이에 형성되었던 동네. [한경] = 자록-동, 자룡-동(雌龍洞).

ᄌᆞ류-마 명 <동> [전역] → ᄌᆞ류-매.

ᄌᆞ류-매 명 <동> 자류-마(紫騮馬). [전역] = ᄌᆞ류-마. 고 ᄌᆞ류ᄆᆞᆯ.

ᄌᆞ르 명 [전역] → 저를.

ᄌᆞ르다[1] 동 자르다. ① 끊어 내다. [전역] ② 단단히 동여매다. [전역]

ᄌᆞ르다[2] 형 길지 못하다. [전역] = 줄르다.

ᄌᆞ르륵-ᄒᆞ다 형 피륙의 짜임이 곱고 올이 고르며 성기지 아니하다. [전역]

ᄌᆞ른-부출 명 <건> 문울거미의 세로재(材). [전역]

ᄌᆞ른-통대 명 짧은 담뱃설대. [전역]

ᄌᆞ를 명 [전역] → 저를.

ᄌᆞ를-지다 형 [인성 조수 노형] → 저를-지다.

ᄌᆞ름칙-ᄒᆞ다 형 짜름-하다. [전역]

ᄌᆞ룩 명 [김녕] → ᄌᆞ록.

ᄌᆞ매 명 <동> 암-말(雌馬). [전역]

ᄌᆞ목-ᄌᆞ목 부 어린애가 깊이 자는 모양. ＊우리 애기 잘도 잔다, ᄌᆞ목ᄌᆞ목 잘도 잔다.(우리 아기 잘도 잔다. 소록소록 잘도 잔다.) [전역]

ᄌᆞ못 부 자못(頗). [전역]

ᄌᆞ-무치다 동 정신이 혼미하여 의식을 잃어버리다. [전역] = 줌-무치다.

ᄌᆞ묵-ᄌᆞ묵 부 물 속 깊숙이 잠기는 모양. ＊두 과탈 양 새에 드난 칠성판만 ᄌᆞ물암서라. ᄌᆞ묵ᄌᆞ묵 ᄌᆞ물암서라.(두 과탈 양 새에 드니 칠성판만 잠기고 있더라. 깊숙하게 잠기고 있더라.) [전역]

ᄌᆞ물다[1] 동 캐다. 채취-하다. 주로 해산물을 채취하다. ＊이젠 메역 하영 ᄌᆞ물지 못헴저.(이젠 미역을 많이 채취하지 못한다.) [전역]

ᄌᆞ물다[2] 동 저물다(暮). [전역] = 저물다, 정글다. 고 져믈다.

ᄌᆞ물-캐[1] 명 <지> ①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 포구의 옛 이름. [전역] ②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를 이르는 옛 이름. [전역]

ᄌᆞ물-캐[2] 명 꿈-나라. ＊우리 아긴 ᄌᆞ물캐로 술짝술짝 넘어간다.(우리 아긴 꿈나라로 살짝살짝 넘어간다.) [전역]

ᄌᆞ뭇 명 [노형 조수 인성] → 저냑.

ᄌᆞ미 명 재미. 아기자기하게 즐거운 기분이나 느낌. [전역] = 제미.

ᄌᆞ바기 명 <음> 수제비. [전역] = 저베기, ᄌᆞ배기, ᄌᆞ베기. 고 슈져비.

ᄌᆞ밤 명 구실잣밤나무의 열매. [전역] = 저밤.

ᄌᆞ밤-낭 명 <식> [전역] → ᄌᆞ베-낭.

ᄌᆞ배기 명 <음> [전역] → ᄌᆞ바기.

ᄌᆞ베기 명 <음> [전역] → ᄌᆞ바기.

ᄌᆞ베-남 명 <식> [전역] → ᄌᆞ베-낭.

ᄌᆞ베-낭 명 <식> 구슬-잣밤나무. [전

역] = 저밤-낭, 제밤-낭, ᄌᆞ밤-낭, ᄌᆞ베-남.

ᄌᆞ베-오름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리 대성동 북쪽에 있는 오름. 남서 사면(斜面)에 ᄌᆞ베낭(구실잣밤나무) 군락지가 있음. 조선 때 봉수대가 있었음. 표고 211.3미터. [전역] = 망-오름[1](望--), 솔펭-망(--望), 솔평-망(--望), 자배-봉(資盃峰・子盃峰・資輩峰・雌輩峰), 자포-악(紫蒲岳).

ᄌᆞ본 명 자본(資本). [전역]

ᄌᆞ-봄 명 [전역] → 제-까락.

ᄌᆞ봄-클 명 [노형 조수 인성 가시] → ᄌᆞ봄-틀.

ᄌᆞ봄-틀 명 재봉-틀. [전역] = ᄌᆞ봄-클, ᄌᆞ봉-침.

ᄌᆞ봉-침 명 [전역] → ᄌᆞ봄-틀.

ᄌᆞ부-연ᄃᆞ리 명 <민> 신칼을 던져 점을 칠 때 칼날이 모두 오른쪽으로 눕는, 길(吉)한 점괘. [전역]

ᄌᆞ부-일월 명 <민> 일반 농가의 농신(農神). [전역]

ᄌᆞ석 명 [남원] → ᄌᆞ식.

ᄌᆞ세-이 부 [전역] → ᄌᆞ세-히.

ᄌᆞ세-히 부 자세-히. [전역] = ᄌᆞ세-이, ᄌᆞ심-히, ᄍᆞᆺ-이.

ᄌᆞ세 명 [조수] → ᄒᆞᆼ애.

ᄌᆞ세-ᄒᆞ다 형 자세-하다. [전역]

ᄌᆞ-소지 명 <식> 자-소주(紫燒酒). [전역]

ᄌᆞ숙 명 자취(自炊). [전역] = ᄌᆞ취.

ᄌᆞ식 명 자식(子息). *(속) ᄌᆞ식 질룰 때 ᄌᆞ미.(자식 키울 때 재미.) [전역] = ᄌᆞ석, ᄌᆞ숙.

ᄌᆞ심-히 부 [어도] → ᄌᆞ세-히.

ᄌᆞ숙 명 [전역] → ᄌᆞ식.

ᄌᆞ솔-웽이 명 <동> [수산 김녕] → 마께-웽이.

ᄌᆞ영-개 명 자전-거(自轉車). [전역] = ᄌᆞ영-거, ᄌᆞ전-채.

ᄌᆞ영-거 명 [조수 가시] → ᄌᆞ영-개.

ᄌᆞ운-사위 명 여자 쪽에서 먼저 원해서 구한 사위. [전역]

ᄌᆞ작-멩두 명 <민> 자작-명도(自作明刀). 물려받지 않고 스스로 만든 멩두. [전역]

ᄌᆞ작-벳 명 땡-볕. [전역]

ᄌᆞ전-채 명 [전역] → ᄌᆞ영-개.

ᄌᆞ족 명 <식> 오죽(烏竹). [전역]

ᄌᆞ종이 명 <지> [애월] → ᄌᆞ준이.

ᄌᆞ주 부 자주(頻). [전역]

ᄌᆞ죽-ᄌᆞ죽 부 눈물이 그득하여 넘칠 듯한 모양. *나 일롬을 불러나 보난 ᄌᆞ죽ᄌᆞ죽 눈물이라라.(내 이름을 불러나 보니 글썽글썽 눈물이더라.) [전역]

ᄌᆞ준이 명 <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3리의 한 자연마을. [애월] = ᄌᆞ종이.

ᄌᆞ지-반반 부 <민> 고요한 밤에 들리는 닭 따위의 울음소리. [전역]

ᄌᆞ지-어남 명 짙은 안개. [전역]

ᄌᆞ직-ᄌᆞ직 부 같은 일을 연달아 잦게 치르는 모습. *검질 사데 느직느직. 검질 손이랑 ᄌᆞ직ᄌᆞ직.(기음 '사데' 느직느직. 김매는 손일랑 자주자주.) [전역]

ᄌᆞ직-ᄒᆞ다 형 농작물 따위가 심어진 간격이 매우 촘촘하다. [전역]

ᄌᆞ진ᄃᆞᆨ-울다 동 자처-울다. 새벽에 닭이 재촉하여 울다. [전역]

ᄌᆞ진-ᄃᆞᆯ다 동 가만히 있지 못하고 무엇을 해 보고자 바삐 서두르다. [전역]
ᄌᆞ진-ᄌᆞ진 부 계속해서 말대꾸하는 모양. [전역]
ᄌᆞᄌᆞ물다 동 [김녕] → ᄌᆞ그물다.
ᄌᆞ청-비 명 <민> 농경을 관장하는 신의 이름. 세경본풀이의 여주인공. [전역] = 자청-비.
ᄌᆞ취 명 [전역] → ᄌᆞ숙.
ᄌᆞᆨ 명 [인성 노형 서홍 어도] → ᄌᆞᆨᄀᆞᆺ.
ᄌᆞᆨ괘 명 [김녕] → 좁게.
ᄌᆞᆨ괘-친 명 [김녕] → 좁게-친.
ᄌᆞᆨ다 동 [세화 조천 노형 어도 조수 인성 화순] → 찍다[1].
존-가시 명 잔-가시. [전역]
존-가지 명 잔-가지. [전역]
존-걱정 명 잔-걱정. [전역]
존-고기 명 [전역] → 존-궤기.
존-고망 명 잔-구멍. [전역] = 존-구녁.
존-구녁 명 [전역] → 존-고망.
존-궤기 명 잔-고기. 조그마한 물고기. [전역] = 존-고기.
존-꿰 명 잔-꾀. [전역]
존-꿰다리 명 잔꾀가 많은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전역] = 좀-꿰다리.
존나비 명 [전역] → 원숭이.
존나비-띠 명 원숭이-띠. *우리 아방은 존나비띠우다.(우리 아버지는 원숭이띠입니다.) [전역]
존-다니 명 듣기 싫게 종알거리는 잔소리. *아주 존다니가 심ᄒᆞ다.(아주 잔소리가 심하다.) [전역] = 갱칠이, 존-당이.
존-당이 명 [김녕] → 존-다니.
존-돈 명 잔-돈(-錢). [전역]
존-돌 명 잔-돌(-石). [전역]
존동-머리 명 잔등-머리. [전역]
존동이 명 잔등-이. [전역] = 존둥.
존둥 명 *치맨 입엇단 확 존둥에 감고 헤서 갓지.(치마는 입었다가 확 허리에 감고서 갔지.) [표선] → 존동이.
존디다 동 [전역] → 전디다.
존-베설 명 돼지 따위의 소장(小腸). [전역] = 존-베솔.
존-베솔 명 [조수] → 존-베설.
존-벵 명 잔-병(-病). [전역] = 존-빙.
존-불리 명 [전역] → 존-불희.
존-불희 명 잔-뿌리. [전역] = 존-불리.
존-빙 명 [전역] → 존-벵.
존-솀 명 자잘한 정. [전역]
존-소리 명 잔-소리. [전역]
존-일 명 잔-일. [전역]
존-줄 명 잔-줄. 잘게 그은 줄. [전역]
존-지침 명 잔-기침. [전역]
존질루다 동 <민> ① (목 따위를) 축이다. 적시다. [전역] ② (마음을) 가라앉히다. [전역]
존존-ᄒᆞ다 형 자잘-하다. *정각도 몰청각, 조청각. 조청각은 존존ᄒᆞᆫ 거라.(청각채도 '몰청각', '조청각'. '조청각'은 자잘한 것이야.) [전역] = 줄줄-ᄒᆞ다.
존는-총 명 갓모자를 겯는 가느다란 말총이나 쇠꼬리털. [전역]
졸-갱이 명 <동> 어린 전복. [우도]
졸끈 부 잘끈. [전역]
졸끈-줴다 동 잘끈-쥐다. [전역]
졸다[1] 동 겯다. 대 따위를 어긋매끼어 엮어 짜다. *요즘은 구덕도 잇주마

는 멩텡이 줄아 가지고서 동냥을 ᄒᆞ면서 빌어먹는디.(요즘은 구덕도 있지만 망테기를 결어 가지고서 동냥을 하면서 빌어먹는데.) [전역]

줄다[2] 형 잘다. [전역]

줄라-메다[1] 동 잘라-매다. 잘록할 정도로 끈으로 단단히 동여매다. [전역]

줄라-메다[2] 동 묶은 끈 따위가 풀리지 않도록 매듭을 짓다. [전역]

줄레[1] 명 장작 따위의 묶음. [도련]

줄레[2] 명 바늘-겨레. [전역] = 바농-줄레, 절레.

줄르다 동 [전역] → ᄌᆞ르다[2].

줄리 명 [인성 조수 서홍 김녕] → ᄌᆞ록.

줄마롱-ᄒᆞ다 형 ① 자잘-하다. [전역] ② 자질구레-하다. [전역]

줄을-대 명 갓양태를 겯는 대오리의 한 가지. [전역]

줄이다 동 농작물 따위가 너무 빽빽이 나서 제대로 자라지 못하다. [전역]

줄정-주 명 <식> 술의 종류. [전역]

줄줄-ᄒᆞ다 형 [전역] → 준준-ᄒᆞ다.

줌 명 잠(睡眠). [전역] ㊟ 즘.

줌기다 동 잠기다(沉). [노형 어도] = 즘키다.

줌-꾸레기 명 잠-꾸러기. [화순 어도 노형] = 즘-충이, 즘-푸테.

줌녀 명 [전역] → 줌녜.

줌녜 명 잠녀(潛女). 해녀(海女). *(속) 줌녜 애긴 사을만에 아기 것 멕인다.(잠녀의 아기는 사흘만에 아기의 밥(또는 미음)을 먹인다. 해녀는 아기를 낳은 뒤 사흘 만에 젖을 떼고 아기의 밥을 먹이고 일하러 간다는 말.) *(속) 줌넨 애기 나 뒁 사을이민 물에 든다.(잠녀는 아기를 낳아 두고 사흘이면 물에 들어간다. 해녀의 강인성과 근면성을 나타내는 말.) [전역] = 줌녀.



줌녜

줌녜-질 명 해녀(海女)들이 바다에서 하는 작업. [전역] = 해녀-질.

줌다 동 말다. 밥 따위를 국이나 물에 넣어서 풀다. [전역]

줌-들다 동 잠-들다. [전역]

줌-무쳉이 명 [서홍] → 즘-무충이.

줌-무충이 명 잠이 많아서 얼른 깨지 못하는 사람. [하원 표선 세화 조천 노형 어도 조수] = 즘-무쳉이, 즘-묵충이, 즘-뭉충이.

줌-무치다 동 *내 ᄒᆞ를쯤 즘무천. 병으로 영 ᄒᆞ여난, 오래여 부난.(내 하루쯤 의식을 잃었어. 병으로 이리 해서, 오래 되어 버리니까.) [전역] → ᄌᆞ-무치다.

줌-묵충이 명 [태흥] → 즘-무충이.

줌-뭉충이 명 [수산] → 즘-무충이.

줌-미치다 형 잠에 취하다. 아주 깊은 잠에 빠지다. [전역]

줌방이 명 <의> [조수] → 점벵이.

줌벵이 명 <의> [조수] → 점벵이.

줌복 명 <동> [전역] → 점복.

줌-부치다 동 잠깐 잠을 자다. [전역]

좀-상게 명 <민> 잠자기 내기. [전역]
좀상-ᄒᆞ다 형 사리를 헤아림이 꼼꼼하고 자세하다. [전역]
존-셈 명 잔-셈. [전역] = 준-세염.
좀수(潛嫂) 명 해녀(海女). *그자 좀수로 바릇 칸 봉가 온 물건이주.(그저 해녀로 바다에 갔다가 주워 온 물건이지.) [대정]
좀수-굿 명 <민> 해녀들을 중심으로 해서 물질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굿. [전역]
좀수-질 명 잠수-질(潛嫂-). [전역] = 잠수-질.
좀-쏠 명 잘게 간(磨) 보리쌀 따위. [전역]
좀쏠-밥 명 <음> 잘게 간(磨) 보리쌀로 지은 밥. [전역]
좀쏠-죽 명 <음> 잘게 간(磨) 보리쌀로 쑨 죽. [전역]
좀아-먹다 동 [전역] → 몰아-먹다[1].
좀은-밥 명 <음> 맨물 또는 국물에 말아 놓은 밥. [전역]
좀-자다[1] 동 잠-자다(睡眠--). [전역]
좀-자다[2] 동 부풀어 오른 물건이 편평하게 꺼지다. [전역]
좀-자리 명 잠-자리(寢所). [전역]
좀-재우다 동 잠-재우다. [전역]
좀-절 명 잠-결. [전역]
좀지롱-이 부 아주 잘게. 여러 개가 다 잘게. *옛날은 망아리 ᄒᆞ나 ᄒᆞ믄 좀지롱이 ᄋᆞ깡 고기 쏘아도 그것에 놔낫주.(옛날은 망사리 하나 하면 자디잘게 엮어서 고기 쏴도 그것에 놓았었지.) [이호]
좀지롱-ᄒᆞ다 형 모두가 고루고루 자잘하다. *주몸엔 ᄒᆞᆫ 건 이파리고 뿌글레기고 좀지롱ᄒᆞᆫ 거.('주몸'이라고 한 것은 이파리고 공기주머니고 자잘한 것.) [이호]
좀진-대체 명 <도> 쳇불의 구멍이 3밀리미터 정도의 대오리로 결은 체. [감산]
좀진-쌀 명 [전역] → ᄀᆞ는-쌀.
좀진-체 명 <도> 체의 한 종류. 가루나 액체를 거를 때 사용하며, 구멍이 아주 작음. [전역]
좀진-클 명 <도> 밭벼나 벼의 탈곡용 기계. [상가]
좀진-탕건 명 <의> 품질이 뛰어난 탕건의 한 가지. 결을 때의 줄 수효는 150쯤임. [전역] = 상-탕.
좀질다 형 물건이 잘고 가늘다. [전역]
좀질좀질-ᄒᆞ다 형 자잘-하다. *해르빗군벗이엔 ᄒᆞᆫ 건 껍데기 영 ᄒᆞ믄 닥살이 좀질좀질ᄒᆞ게 쪽ᄒᆞ게 박아지주게.(털군부라고 하는 것은 껍데기 이렇게 하면 껍질이 자잘하게 쭉하게 박아지지.) [이호]
좀좀-ᄒᆞ다[1] 동 말을 하지 않고 입을 닫다. [전역]
좀좀-ᄒᆞ다[2] 형 잠잠-하다. 가만히 있어서 말이 없다. [전역]
좀-충이 명 [인성 노형 조수] → 좀-꾸레기.
좀키다 동 [인성] → 좀기다.
좀-푸데 명 [세화 인성 조수] → 좀-꾸레기.
좁개 명 [인성 조수 노형] → 좁게.
좁개-친 명 [노형 조수 인성] → 좁게-친.

좁-것 명 겹-것. [전역]
좁게 명 멍에 양편에 각각 꿰어서 목아래로 휘어다가 매게 된 나무가지. [노형 조수 인성] = 적괘, 적궤, 접게, 직궤, 집게, 집궤, 즉괘, 즙개, 즙궤, 즙작게.
좁게-친 명 멍에 양편에 꿰어 목아래로 휘어진 나무가지를 집어매는 끈. [노형 조수 인성] = 적괘-친, 적궤-친, 접게-친, 접괘-친, 즉괘-친, 즙개-친, 즙궤-친.
좁-궤 명 [전역] → 즙게.
좁궤-친 명 <도> [전역] → 즙게-친.
좁다 동 집다. [전역] = 접다[1], 집다.
좁-담 명 [노형 조수 서홍] → 접-담.
좁-두루막 명 <의> [노형 조수 김녕] → 접-후리메.
좁-바지 명 <의>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접-바지.
좁새기 명 <의> 띠(茅)로 엮어 만든 우비의 한 가지. [조수 인성 어도 화순] = 즙세기.
좁세기 명 <의> [조수 인성 어도 화순] → 좁새기.
좁시 명 접시. [전역] = 접시, 젭시.
좁아-놓다 동 집어-넣다. [전역]
좁아-들다 동 [전역] → 좁아-틀다.
좁아-틀다 동 꼬집다. [전역] = 좁아-들다, 좁아-틀루다.
좁아-틀루다 동 [전역] → 좁아-틀다.
좁-옷 명 <의> [전역] → 접-옷.
좁-이불 명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접-이불.
좁작게 명 [인성] → 즙게.
좁작-뻬 명 돼지 따위를 잡아서 베어 낸 어깨 부분. 갈비뼈를 떼어낸 자리에 있는 뼈. [전역] = 접작-뻬, 접착-뻬.
좁-저고리 명 <의> 겹-저고리. 거죽과 안을 맞붙여서 지은 저고리. [서홍 김녕 노형 조수 인성] = 접-저고리.
좁-제기[1] 명 <동> 집게-벌레. [전역] = 접-재기, 접-제기, 접주-와기, 젭주-와기, 즙주-와기.
좁-제기[2] 명 손가락이나 손톱으로 살껍질을 집어 뜯거나 비틂을 잘 하는 사람. [전역] = 접-제기, 접주-와기, 젭주-와기, 즙주-와기.
좁주-와기 명 [인성 김녕] → 좁-제기.
좁지근-ᄒᆞ다 형 모두가 자디잘다. [전역]
좁지다 동 ① 사이에 끼어들다. [전역] ② 접음을 당하다. [전역] = 접지다[2], 젭지다, 젭히다.
좁진-쉐 명 [노형 어도] → 접진-쉐.
좁질다 동 [전역] → 젭질다.
좁-후리메 명 <의> [인성 조수 김녕] → 접-후리메.
줏[1] 명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젯. ㊟졋.
줏[2] 명 [태흥 표선 수산 세화 조천] → 잣[1].
줏-가슴 명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젓-가슴.
줏-간[1] 명 겯-간(-肝). [전역]
줏-간[2] 명 [노형 조수 서홍 수산] → 젓-간.
줏-갈리 명 [조수 어도 조천] → 젓-갈리.
줏갱이 명 [한림] → 즛깡이.
줏-고고리 명 [인성 노형 조수] → 젓-고고리.

젓-곰 명 [김녕 조수] → 젓-곰.
젓귀 명 쳇-발. [전역]
젓-까망ᄒᆞ다 형 빛깔이 더할 수 없이 아주 짙게 까맣다. [전역]
젓나비 명 <동> [전역] → 원셍이. 고 짓납.
젓내비 명 <동> [전역] → 원셍이.
젓는-무르레 명 <도> [수산 김녕] → 물레[1].
젓는-물레 명 <도> [서홍 어도 인성 노형] → 물레[1].
젓다 동 잣다. 물레를 돌려 부드러운 섬유로 실을 만들다. [전역] 고 짓다.
젓-도새기 명 <동> 아직 어미 젖(乳)을 먹는 어린 돼지. [김녕 노형 조수 인성] = 젓-도새기.
젓-먹이 명 젖-먹이. [전역] = 젓-멕이, 젓-먹이.
젓-바데 명 [노형 조수 인성 김녕 서홍] → 젓-바데.
젓-방 명 [노형 조수] → 젓-방.
젓-빨강ᄒᆞ다 형 빛깔이 더할 수 없이 아주 짙게 빨갛다. [전역]
젓싸기 명 <어> 썰물이 극에 달한 때 바다가 잠시 잔잔한 순간. [사계]
젓젓-이 부 자세-히. [전역]
젓-통 명 [노형 인성 조수 김녕] → 젯-통[2].
정가-지다 동 떠나지 못하고 일정한 곳에 들어박혀 있게 되다. [전역]
정게-호미 명 <도> 해녀들이 물 속에서 미역·톳 등의 해초를 베어 내는 낫. [하도 행원]
정그다 동 잠그다. 자물쇠 따위를 채우다. [전역]
젖고다 동 [노형 인성] → 젖추다.
젖구다 동 [김녕] → 젖고다.
젖다[1] 동 몹시 애가 타다. *큰아덜로 젖앙 못살키여.(큰아들로 애타서 못 살겠어.) [전역]
젖다[2] 형 잦다(頻). [전역] 고 젖다.
젖아-죽다 동 뜨거움이나 더위, 추위 등에 못 견디어 죽다. *인간 백성덜이 낮원 젖아죽곡 밤원 곳아 죽곡.(인간 백성들이 낮에는 뜨거워서 죽고 밤에는 얼려서 죽고.) [전역]
젖인-서우제 명 <민> 빠른 무악 장단으로 부르는 서우제소리. [전역]
젖인-석 명 <민> 빠른 무악 장단. [전역]
젖아-지다 동 잦아-지다. [전역]
젖추다 동 액체 따위를 졸아들게 하다. [전역] = 젖고다, 젖구다.
짜다[1] 동 짜다(搾). [전역] = 빠다[2].
짜다[2] 동 짜다. 남이 모르게 몇 사람끼리만 내통하다. [전역]
짜다[3] 형 [전역] → 차다[4].
짜보새 명 [전역] → 자부세.
짜부라-지다 동 짜부라-지다. [전역]
짜-ᄒᆞ다 형 짜-하다. 퍼진 소문이 왁자하다. [전역]
짝[1] 명 [전역] → 착[1].
짝[2] 명 [전역] → 착[2].
짝-그르다 형 [전역] → 착-그르다.
짝-글레기 명 [전역] → 착-글레기.
짝-도감 명 도감을 도와주는 사람. [전역] = 젓-도감.
짝-체우다 동 [전역] → 착-체우다.
쩨다 동 [전역] → 체다.
쩨여-지다 동 [전역] → 체여-지다.
쪼 명 꼴(形). [전역]

쪼께 명 <의> [전역] → 쥐께.
쪼끌락-ᄒᆞ다 형 [전역] → ᄒᆞ끌락-ᄒᆞ다.
쪼다 동 조르다. [하도]
쪼락지다 형 *이 감 너미 쪼락젼 못 먹키여.(이 감 너무 떫어 못 먹겠네.) [남원] → 초랍다.
쪼랍다 형 [조천 노형] → 초랍다.
쪼-아리 명 [전역] → 상아리.
쪼짝-ᄒᆞ다 형 [전역] → 쭈짝-ᄒᆞ다.
쪽 감 [수산] → 똑[2].
쭈그러-지다 동 쭈그러-지다. [전역]
쭈짝-ᄒᆞ다 형 물건의 윗부분이 뾰족이 솟아 있다. *눈오름에 보민 쭈짝ᄒᆞᆫ 노픈 봉아리가 있는디.(눈오름에 보면 뾰족한 높은 봉우리가 있는데.) [전역] = 쪼짝-ᄒᆞ다.
쭌쭌-ᄒᆞ다 형 아주 가늘다. 홀쭉-하다. [전역] = 준준-ᄒᆞ다.
쭐람-ᄒᆞ다 형 물건이 조금 기다랗다. [전역]
쮀께 명 <의> [전역] → 쥐께.
-쯤 미 -쯤. '정도'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전역]
찌겡이[1] 명 [노형 조수 인성 수산 김녕] → 주셍이.
찌겡이[2] 명 [인성 수산] → 정갱이[2].
찌그리다 동 찌그리다. [전역]
찌다[1] 동 끼다. 연기, 수증기가 엉키어 흩어지지 않다. [전역] = 끼다[1].
찌다[2] 동 띠다. 띠를 둘러매다. [전역] = 띠다. 고 쯰다.
찌렁-내 명 [전역] → 지렁-내.
찌레 명 서로 함께 한 부류. *ᄀᆞ튼 찌레에서 일 엇인 사람들이 ᄀᆞ치들 헹 먹고 놀고.(같은 '찌레'에서 일 없는 사람들이 같이 해서 먹고 놀고.) [전역]
찌르다 동 [전역] → 찔르다.
찌저-지다 동 [전역] → 치저-지다.
찌지다 동 찢다(裂). [전역] = 치지다.
찍[1] 명 [인성 서홍 조수] → 찝.
찍[2] 명 [인성 화순 하원 수산 어도 조수] → 직시[1].
찍-겁 명 지푸라기. [전역]
찍깍-ᄒᆞ다 형 [전역] → 직깍-ᄒᆞ다.
찍-눌 명 [인성 서홍 조수] → 찝-눌.
찍다[1] 동 찍다. 무슨 물건의 끝에 액체를 묻혀 내다. [표선 수산 세화] = 적다, 즉다.
찍다[2] 동 찍다. ① 무엇에 점을 써 넣다. [전역] ② 날이 있는 연장으로 쳐서 베다. [전역] ③ 인(印)을 눌러서 인반이 나타나게 하다. [전역]
찍-다불 명 [전역] → 찝-다불.
찍-단 명 [서홍] → 찝-뭇.
찍-머흘 명 바닷속 모래밭에 자잘하게 드러나는 바윗돌. *찍머흘에 몸 하영 들아지주.('찍머흘'에 모자반 많이 매달리지.) [신촌]
찍머흘-보말담 명 '보말'처럼 자잘한 돌멩이로 쌓은 돌담. [행원]
찍-뭇 명 [인성 조수] → 찝-뭇.
찍-방석 명 [서홍 조수] → 찝-방석.
찍-부근데 명 [전역] → 찝-북데기.
찍-북데기 명 [전역] → 찝-북데기.
찍-새 명 '새왓'(茅田)이 없는 사람들끼리 하나의 '새왓'의 '새'(茅) 채취권을 구입하여 여럿이 나누는 '새'(茅). [함덕]
찍세 명 [하원 서홍 태흥 표선 수산

세화 가시] → 직시[1].

찍시 명 [서홍 태흥] → 직시[1].

찍-신 명 [서홍 조수 수산] → 찝-신.

찔레 명 소끼리 뿔로 받으며 싸우는 일. [전역]

찔르다 동 찌르다. ① 날카로운 끝을 들이밀다. [전역] ② 냄새가 후각을 자극하다. [전역] = 찌르다.

찝 두드리는 소리 명 <요> 신을 삼거나 멍석·멱서리 따위의 연장을 만들기 위하여 '덩드렁'이라는 미끄닥하고 둥그런 돌판 위에서 짚을 두드리며 부르는 민요. [전역]

찝 명 짚. [노형 조수 수산 김녕 가시] = 찍[1].

찝-눌 명 짚-가리. [노형 조수 수산 가시 김녕] = 찍-눌.

찝-다불 명 자그마하게 묶어 놓은 짚뭇. [조수] = 찍-다불.

찝-단 명 [수산 가시] → 찝-뭇.

찝-동 명 <도> 상제(喪制) 앞에 늘 놓아 두는 상장(喪杖)의 길이만큼 길고 아주 굵직하게 짚을 묶어서 만든 물건. [노형 조수 인성] = 북세미, 북시미, 찝-동이.

찝-동이 명 <도> [김녕] → 찝-동.

찝-멕 명 짚으로 만든 멱서리. *찝멕을 들러 네끼난.(멱서리를 들어 던지니.) [전역]

찝-뭇 명 짚-뭇. [인성 조수 노형] = 찍-단, 찍-뭇, 찝-단.

찝-방석 명 짚-방석. 볏짚으로 엮어서 만든 방석. [전역] = 찍-방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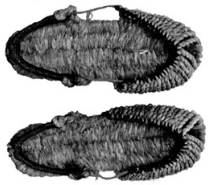
찝-부근데 명 [전역] → 찝-북데기.

찝-북데기 명 짚-북더기. [전역] = 찍-부근데, 찍-북데기, 찝-부근데, 찝-북데미.

찝-북데미 명 [노형 조수] → 찝-북데기.

찝-세기 명 [전역] → 찝-신.

찝-신 명 짚-신. [전역] = 찍-신, 찝-세기, 초-신.



찝신

찝-ᄉᆞ끼 명 [서홍 인성 수산] → ᄉᆞ끼.

찝지근-ᄒᆞ다 형 감칠맛은 없고 꽤 짠 듯하다. [인성 조수]

찡그리다 동 찡그리다. [노형 조수 서홍 김녕 수산] = 싱그리다, 싱크리다, 징그리다.

찡앙이-질 명 씨양이-질. [전역] = 씨앙이-질.

ᄍᆞ다 형 [전역] → 차다[4].

ᄍᆞ르다 형 짧다(短). [전역] = 쫄르다.

ᄍᆞ른-사데 명 <요> 가락이 짧은 밭매는 노래의 한 가지. [전역]

ᄍᆞ른-줄 명 초가지붕을 일 때 쓰는 짧은 줄. [전역]

ᄍᆞᄍᆞ-이 부 [어도] → ᄌᆞ세-히.

ᄍᆞᆫ-물 명 [전역] → 츤-물.

쫄르다 형 [전역] → ᄍᆞ르다.

쫄막-ᄒᆞ다 형 짤막-하다. [전역]

쫍지롱-ᄒᆞ다 형 짭짜래-하다. *마농지가 쫍지롱ᄒᆞᆫ 게 맛 좋수다.(마늘장아찌가 짭짜래한 것이 맛 좋습니다.) [전역]

ㅊ

차[1] 명 넓미역 채취용인 '갈퀴'의 몸통 부분. [우도]
차[2](車) 명 [전역] → 채[3].
차-가다 동 차-가다. [전역]
차겁다 형 차갑다. [전역]
차경[1] 명 <도> ① 연자매의 틀목에 끼워 마소에 줄을 매거나, 사람의 손으로 끌거나 밀도록 댄 나무 자루. [전역] ② 맷돌을 여럿이 돌릴 때 맷손에 끼워 돌리는 나무 자루. [전역] = 채경[1].
차경[2] 명 <도> 채. 수레의 앞쪽으로 양 옆에 댄 긴 나무. [전역] = 채경[2].
차귀-악(遮歸岳) 명 <지> [전역] → 당-오름[1](堂--).
차낭-열매 명 [전역] → 츠낭-으름.
차다[1] 동 차다. 발끝으로 질러서 치뜨리거나 내밀다. [전역]
차다[2] 동 [전역] → 츠다[2].
차다[3] 동 차다. 혀끝을 입천장에 올리어 숨을 빨아들이며 소리를 내다. [전역] = 츠다[1].
차다[4] 형 짜다(鹹). [전역] = 짜다[3], 쯔다, 츠다[4]. 고 츠다.
차다[5] 형 [전역] → 츠다[3].
차-들다 동 함께 데리고 들어오다. [전역]
차-롱 명 <도> 채-롱(-籠). 대나 싸리를 쪼개어 네모나게 결어 속이 깊숙하고 뚜껑이 있게 만들어 음식 따위를 넣는 그릇. [전역] = 상지[1], 상착[1], 채-롱.
차롱-착 명 <도> 채롱의 한 짝. *밥도 싸가지고 가는 것도 큰 차롱착에 드끈 싸 줫어.(밥도 싸서 가지고 가는 것도 큰 채롱짝에 가득 싸 줬어.) [전역]
차박-차박 부 자박-자박. 건더기나 절이는 물건 따위가 겨우 잠길 정도로 물이 차 있는 모양. *짐치홀 베치 물이 차박차박ᄒᆞ게 소금에 절입서.(김치할 배추 물이 자박자박하게 소금에 절이세요.) [전역]
차반지 명 <도> [전역] → 체반지.
차벨 명 차별(差別). [전역] = 차별(差別).
차별(差別) 명 [전역] → 차벨.
차사(差使) 명 <민> 차사. [전역] = 처서[2], 체시, 체ᄉᆞ, 츠ᄉᆞ.
차사-기(差使旗) 명 <민> 차사(差使)를 상징하는 기메. 창호지를 오려 사람 모양으로 만들고 위쪽에 댓가지를 덧댐. [전역]
차사-본풀이 명 <민> 차사(差使) 강림

(姜林)의 내력담. [전역] = 체서-본풀이.

차-앚다 동 곁에 두고 앉다. *그 하르방 주멩기 안이 뭣사 들어신디 ᄒᆞᆼ시 차앚앙 셔.(그 할아버지 주머니 안에 무엇이 들어 있는지 항상 '차앚아' 있어.) [전역]

차용(借用) 명 차용. [전역] = 채용.

차작-차작[1] 부 짝-짝. 신 따위를 가볍게 끌며 걷는 소리. *발 들렁 걸으라. 차작차작 신 끗지 말라.(발을 들어서 걸어라. 짝짝 신발을 끌며 걷지 마라.) [전역]

차작-차작[2] 부 빨랫방망이로 빨래를 가볍게 두드려서 내는 소리. [전역]

차지-ᄒᆞ다 동 [전역] → ᄎᆞ지-ᄒᆞ다.

차차 부 [전역] → ᄎᆞᄎᆞ.

차추-와리 명 말을 조금 더듬는 듯하면서 재깔이는 짓을 잘하는 사람.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착[1] 명 쪽. 방향을 가리키는 말. *밥 먹을 땐 왼착손으로 먹지 말앙 ᄂᆞ단 손으로 먹으라.(밥을 먹을 때는 왼손으로 먹지 말고 오른손으로 먹어라.) [전역] = 짝[1].

착[2] 명 짝. 쌍으로 한 벌이 된 물건의 낱개. [전역] = 짝[2].

착-그르다 형 신발 같은 것이 짝짝이로 되다. [전역] = 짝-그르다.

착-글레기 명 짝짝-이. [전역] = 짝-글레기.

착부지 명 <도> [용수 용당 조사 대포] → 돗-걸름착.

착실-ᄒᆞ다 형 착실-하다. [전역]

착-쏠 명 <민> 쪼개진 쌀알. [전역]

착착 부 짝짝. ① 몹시 끈끈하여 바닥에 들어붙은 모양. [전역] ② 입맛을 몹시 다시는 소리. [전역]

착-체우다 동 짝-채우다. 모자라는 짝을 얻어 넣다. [전역] = 짝-체우다.

착-콩 명 짜개. 콩 알맹이를 둘로 쪼갠 하나. [전역]

착-ᄒᆞ게 부 지체됨이 없이 곧바로. [전역]

착-ᄒᆞ다 형 착-하다. *경ᄒᆞ여도 전읜 착ᄒᆞᆫ 사름이라낫저.(그래도 전에는 착한 사람이었지.) [전역]

찬-장 명 [노형 가시 어도] → 찻-장.

찰-나록 명 <식> [전역] → ᄎᆞ-나록.

찰락-찰락 부 찰락-찰락. [전역]

찰랑-거리다 동 찰랑-거리다. [전역]

찰랑-이다 동 찰랑-이다. 넓고 얕은 곳에 고인 물이 흔들려 움직이다. [전역]

찰리 명 자루. 헝겊 따위로 기다랗게 만든 큰 주머니. [전역] = 잘리. 고 쟈ᄅᆞ.

찰찰[1] 부 땀을 많이 흘리어 몸이 끈적끈적한 모양. [전역]

찰찰[2] 부 찰찰. 액체 따위가 넘치는 모양. [전역]

참 명 거리를 재는 단위. 한 참은 약 5리. *두어 참 뒌 디를 그 영감이 걸어오란.(두어 참 된 곳을 그 영감이 걸어왔어.) [전역]

참박-참박 부 철버덕-철버덕. [전역]

참방 부 찰방. 깊은 물에 돌멩이 따위가 떨어져서 울리어 나는 소리. [전역]

참봉(參奉) 명 <민> [전역] → 영감.

찹찹-ᄒᆞ다 형 찹찹-하다. 포개어 쌓은

물건이 엉성하지 아니하고 차곡차곡 가지런하게 가라앉아 있다. [전역]

찻-장 명 찬-장(饌欌). [전역] = 찬-장.

창[1] 명 창. 물건의 맨 아래 바닥. [전역] 고 챵.

창[2] 명 창. 신발이나 구두의 바닥이 되는 가죽. [전역]

창[3](槍) 명 창. [전역]

창[4](窓) 명 [전역] → 창-문(窓門).

창-고망 명 창-구멍. 창을 설치하기 위하여 낸 구멍. [전역]

창-곰 명 밝게 하려고 바람벽에 뚫어 낸 구멍. [전역] = 창-굼, 창-꼼. 고 창귬.

창-굼 명 [전역] → 창-곰.

창-꼼 명 [구좌] → 창-곰.

창-도름 명 주로 돼지나 소 따위의 막 창자. [전역]

창-멕 명 <도> 두 섬들이 멱둥구미. [대포 금성 행원]

창-문(窓門) 명 창-문. [전역] = 창[4](窓).

창-받다 동 창-받다. [전역]

창-살(窓-) 명 창-살. [전역] 고 창살.

창-신 명 가죽-신. 밑창 겉바닥에 징을 박고 운두는 얕고 코는 뾰족 내밀게 만든 신. [전역]

창아리 명 배알. [전역]

창-오렝이 명 <지> 제주시 도평동의 한 자연마을. [도평 이호] = 창-우렝이.

창오-지 명 창호-지(窓戶紙). [전역] = 창호-지.

창-옷 명 창-옷. 소창-옷(小氅-). [전역] 고 창옷.

창-우렝이 명 <지> [도평 이호] → 창-오렝이.

창-줄 명 <식> 삽주. [인성 서홍 김녕 조수] = 창-출.

창지 명 창자. [전역] = 베설, 베슬. 고 챵ᄌᆞ.

창창-ᄒᆞ다 형 창창-하다. 나무나 숲이 짙푸르게 무성하다. [전역]

창-출 명 <식> [수산 가시] → 창-줄.

창-터지다 동 창-뚫어지다. 신발이나 버선 따위의 바닥에 구멍이 뚫어지다. [전역]

창터진-물 명 <지> 제주시 봉개동 한라산 국립공원에 있는 물장오리의 화구호(火口湖). 밑바닥이 뚫어진 못이라는 뜻으로, 거신(巨神) 설문대할망이 빠져 들어간 채 다시는 나오지 않았다는 전설의 못임. 분화구의 바깥 둘레 약 1500미터, 못 둘레 400미터, 정상으로부터 못가까지의 깊이 57미터. [전역]

창풀 명 <식> 창포. [전역]

창피 명 [전역] → 챙피.

창피-스럽다 형 [전역] → 챙피-스럽다.

창-호지 명 [전역] → 창-오지.

찾다 동 [전역] → 춪다.

채[1] 명 [전역] → 거리[1].

채[2] 명 [전역] → 채찍.

채[3] 명 차(車). [전역] = 차[2](車).

채[4] 명 채. 어떤 상태로 그대로 있다는 뜻을 나타내는 의존명사. [전역] = 체[5].

채[5] 부 채. 아직 덜 되어서. [전역] = ᄎᆞ로.

채경[1] 명 [전역] → 차경[1].

채경[2] 명 [어도] → 차경[2].

채-끈 명 챗-열(鞭-). 채찍 따위의 끝에 달리어 늘어진 끈. [노형 조수 인성 수산 가시]
채-누넹이 명 돼지 먹이인 겨를 넣어 둔 항아리 따위의 밑바닥에 눌어붙은 겨 찌꺼기. [용수]
채-롱 명 <도> [서홍 태흥 수산 김녕] → 차-롱.
채-반지 명 <도> [전역] → 체-반지.
채양 명 <건> [전역] → 풍체. 고 쟈실.
채용 명 [전역] → 차용.
채족-ᄒᆞ다 동 채-치다. 재촉하여 일을 다그치다. [전역]
채찍 명 채찍. [전역] = 채[2].
책-궤 명 책을 보관해 두는 궤. [전역]
책미-시리 명 <식> 조의 일종. [영평]
챗-대 명 [서홍 수산 가시] → 대팻-목.
챗-방 명 <건> [노형 인성 서홍 김녕] → 천방.
챙피 명 창피. [전역] = 창피.
챙피-스럽다 형 창피-스럽다. [전역] = 창피-스럽다.
처가(妻家) 명 처가. [전역] = 처가-칩.
처가-칩 명 [전역] → 처가.
처나름 명 <지> [상대] → ᄎᆞ낭-오름[2].
처나반 명 <건> [전역] → 천아반.
처남-오름 명 <지> [상대] → ᄎᆞ낭-오름[2].
처낭-가름 명 <지> [봉개] → ᄎᆞ낭-가름.
처-담다 동 [전역] → 처-먹다.
처대 명 체대(體大). ① 몸이 큼. [전역] ② 몸의 크기. [화순 수산 표선 노형] = 처데, 체대.
처데 명 [화순 수산 표선 노형] → 처대.
처럼 조 처럼. [전역] → 처름.
처례 명 줄. 어떤 방법, 셈속 따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어디 간 처례 알고?(어디에 간 줄 알고?) [전역] = 처리.
처록 조 *시방 말로 멧 시 멧 분처록 정확ᄒᆞ지 아니ᄒᆞ거든.(지금 말로 몇 시 몇 분처럼 정확하지 아니하거든.) [전역] → 처름.
처름 조 처럼. 체언에 붙어서 '~과 같이, ~모양으로' 등의 비슷함을 대비하는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 처럼, 처록, 추룩, ᄎᆞ록[2].
처리[1] 명 [전역] → 처례.
처리[2] 명 일의 횟수를 세는 '번'의 뜻을 나타내는 말. [전역]
처-먹다 동 처-먹다. [전역] = 처-담다.
처-메다 동 처-매다. [전역] = 체-메다.
처모(妻母) 명 [전역] → 가시-어멍.
처부(妻父) 명 [전역] → 가시-아방.
처서[1](處暑) 명 처서. [전역] *(속) 처서 넘으민 검질 씨도 울멍 돌아간다.(처서 넘으면 잡초 씨도 울면서 돌아간다.) [전역]
처서[2] 명 <민> [전역] → 차사(差使).
처서-영맞이 명 <민> 차사(差使)를 맞이하여 조상의 영혼을 극락까지 잘 모셔 달라고 비는 제차. [전역]
처-아지마님 명 '처아지망'의 높임말. [전역] = 처형(妻兄).
처-아지망 명 처형(妻兄)과 처제(妻弟). [전역]
처엄 명부 [전역] → 처음.
처음 명부 처음(初). [전역] = 처엄, 체얌, 초담. 고 처섬.

처제(妻弟) 명 처제. [전역]
처-조모(妻祖母) 명 처-조모. [전역] = 가시-할망, 처-할망.
처-조부(妻祖父) 명 처-조부. [전역] = 가시-하르방, 처-하르방.
처지 명 <민> [전역] → 쳑지[1].
처-지다 동 처-지다. [전역]
처-하르방 명 [전역] → 처-조부(妻祖父).
처-할망 명 [전역] → 처-조모(妻祖母).
처형(妻兄) 명 [전역] → 처-아지마님.
척 명 [조수] → 체[3].
척척 부 척척. [전역]
척-ᄒᆞ다(隻--) 동 품은 원한을 풀이하다. [전역]
천[1] 명 [전역] → 방에-천.
천[2] 명 천. 옷감, 이불감 따위의 피륙. [전역]
천[3] 수 천(千). [전역]
천구-아구 명 <민> [전역] → 천구아구-대맹이.
천구아구-대맹이 명 <민> 천구아구대망(天口--大蟒). 큰 뱀. [전역] = 천구-아구.
천나반 명 <건> [전역] → 천아반.
천-남상 명 <식> 천-남성(天南星).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ᄎᆞ-남상. 고 쳔남성.
천녀-폭포(天女瀑布) 명 <지> 제주시 노형동 한라산 국립공원의 어승생오름 북동록, 울창한 산숲 속의 계곡에 걸쳐진 폭포. 천녀가 내려와 목욕하던 곳이라고 전해지는 맑은 용소(龍沼)가 있음. 표고 약 790미터. [전역]
천데 명 천대(賤待). [전역]
천동(天動) 명 [전역] → 천둥.
천-두레기 명 <식> [전역] → 하늘-레기.
천둥 명 천둥. [전역] = 우레, 천동(天動).
천리 명 묏자리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는 일. 천이(遷移). *그 집이 어떻게 못 준뎌서 이좌술 천리ᄒᆞ게 ᄒᆞ연 헤쓰고 보니까.(그 집이 어떻게 못 견디어서 이좌수를 이장(移葬)하게 해서 묘를 헤치고 보니까.) [전역]
천리-터 명 본래 무덤이 있던 자리. [전역]
천망-악(川望岳) 명 <지> [전역] → 쳇망-오름[1].
천멩 명 천명(天命). [전역] = 천명(天命).
천명(天命) 명 [전역] → 천멩.
천문 명 <민> 직경 4~5미터 내외의 엽전 모양으로 된 놋쇠판에 천지문(天地門) 또는 천지일월(天地日月) 등의 글자를 음각한 점구. [전역]



천문

천문동(天門冬) 명 <식> 천문동. [전역]
천박 명 갓모자의 윗면의 둥그런 부분. [전역]
천방 명 <건> 찻-방. 마루와 부엌 사이에 있는 작은 마루. [조수] = 족

은-삼방, 챗-방, 청방.

천-보답 명 <민> 피륙. [전역]

천불-봉(千佛峰) 명 <지> [전역] → 오백-장군(五百將軍).

천불-암(千佛岩) 명 <지> [전역] → 오백-장군(五百將軍).

천상(天常) 부 그저 늘, 변함없-이. [전역]

천상-바레기 명 먼산-바라기.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해-바레기[2].

천상-쿨 명 <식> 망초.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천상-풀.



천상쿨

천상-풀 명 <식> [수산 가시 김녕] → 천상-쿨.

천성(天性) 명 천성. [전역]

천성-동(川成洞)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의 한 자연마을. [조천]

천ᄉᆞ 명 천사(天使). [전역]

천아반 명 <건> ① 천장. ② 방이나 마루의 반자를 꾸미지 않은 그대로의 천장. [전역] = 처나반, 천나반, 천장(天障), 청장.

천아반-귀클 명 <건>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천아반-틀.

천아반-귀틀 명 <건> [서홍 수산 가시] → 천아반-틀.

천아반-틀 명 <건> 반자-틀. [노형 조수 인성] = 천아반-귀클, 천아반-귀틀.

천아-악[1](天娥岳) 명 <지> [전역] → ᄎᆞ낭-오름[1].

천아-악[2](天娥岳) 명 <지> [전역] → ᄎᆞ낭-오름[2].

천아-오름[1] 명 <지> [전역] → ᄎᆞ낭-오름[1].

천아-오름[2] 명 <지> [전역] → ᄎᆞ낭-오름[2].

천아-울쒜 명 <민> [전역] → 울쒜.

천앙낙화-금정옥술발 명 <민> [전역] → 천앙낙훼-금정옥술발.

천앙낙훼-금정옥술발 명 <민> 요령(搖鈴). 무악기인 요령을 달리 일컫는 말. [전역] = 금정-옥술발, 천앙낙화-금정옥술발.

천외-사(川外祠) 명 <지> [전역] → 내왓-당.

천장(天障) 명 <건> [전역] → 천아반.

천장-만장 부 멀리-멀리. *욕 들어지카부덴 천장만장 돌아낫주.(욕을 듣게 될까 봐 멀리멀리 달아났지.) [전역]

천제 명 천재(天才). [전역]

천지-왕(天地王) 명 <민> 옥황상제(玉皇上帝)에 해당하는 신격(神格). [전역]

천지왕-골목(天地王--) 명 <민> 깊숙한 골목. [전역]

천지왕-본풀이 명 <민> 천지개벽과 인간세상의 질서가 이루어진 내력을 담은 신화. [전역]

천징 명 <병> 천식(喘息). [전역]

천ᄌᆞ-국(天子國) 명 <민> 중국(中國). [전역]

천ᄌᆞ-군웅(天子軍雄) 명 <민> 일월-조

상. [전역]

천줏-도 명 <민> 제주시 용담동 내왓당과 구좌읍 세화리 세화본향당의 당신. [용담 세화]

천초 명 <식> [전역] → 우미.

천추-ᄒᆞ다(遷推--) 동 천추-하다. [전역]

천포-답(天布-) 명 <민> 천막(天幕). 차일(遮日). [전역]

천필-봉 명 철필-촉(鐵筆鏃). [전역] = 철필-봉.

천하 귀정 구 매우 높은 낭떠러지. ∗어디 ᄉᆞ뭇 천하 귀정 닮은 내 엉장에 간 산.(어디 사뭇 '천하 귀정' 같은 내 엉장에 가서 섰어.) [노형]

천하-금공서 명 <민> [전역] → 추물-공연.

철 명 철. 사리를 헤아릴 줄 아는 힘. [전역]

-철 미 -뻘. ∗나가 느 오라방철 뒈는 사름이여.(내가 너의 오빠뻘 되는 사람이야.) [전역]

철-갈이 명 <민> 새해나 춘하추하(春夏秋夏) 절기가 바뀔 때 진경(進慶)을 비는 제의(祭儀). [전역]

철데가리-몰르다 동 [전역] → 철데강이-몰르다.

철데가리-웃다 형 [전역] → 철데강이-웃다.

철데강이-몰르다 동 '철-모르다'의 낮은말. [전역] = 철데가리-몰르다.

철데강이-웃다 형 '철-없다'의 낮은말. [전역] = 철데가리-웃다.

철-들다 동 철-들다. [전역]

철딱사니 명 철-딱서니. [전역]

철리다 동 붙잡았던 짐승 따위를 그만 놓치다. [전역] = 털리다.

철메 명 물-몽둥이. [전역]

철-몰르다 동 철-모르다. [전역]

철무지-개 명 <지> 제주시 애월읍 구엄리 포구 일대의 개(浦). [구엄]

철-엂다 형 [전역] → 철-웃다.

철-웃다 형 철-없다. [전역] = 철-엂다.

철-쟁이 명 대장-장이. [전역]

철-지다 형 철-겹다. 제철에 뒤져 맞지 아니하다. [전역] = 절-지다.

철ᄌᆞ 명 철자(綴字). [전역]

철철 부 철철. [전역]

철총-박다 동 흉작이든 풍작이든 관계없이 일정한 양을 지주에게 주기로 계약하다. [전역]

철필-봉 명 [전역] → 천필-봉.

첨잔-ᄒᆞ다(添盞--) 동 첨잔-하다. [전역]

첩-각시 명 본처 이외에 아내처럼 데리고 사는 계집. [전역]

첫 명 [전역] → 방에-천.

첫-날 명 [전역] → 쳇-날.

첫-눈[1] 명 [전역] → 쳇-눈[1].

첫-눈[2] 명 [전역] → 쳇-눈[2].

첫-더위 명 [전역] → 쳇-더위.

첫-말 명 [전역] → 쳇-말.

첫-새끼 명 [전역] → 쳇-새끼.

첫주기다 동 [어도] → 젓주기다.

첫-추위 명 [전역] → 쳇-추위.

첫-해 명 [전역] → 쳇-해.

청[1] 명 꿀. [전역] = 꿀[2].

청[2] 명 청. 어떤 물건의 얇은 막으로 된 부분.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정[3].

청-가개비 명 <동> [서홍 수산 김녕 가시] → 청-ᄀᆞᆯ개비.
청각 명 <식> [전역] → 정각. 고 청각.
청갈피-신 명 칡껍질로 삼은 신. [전역]
청-개개비 명 <동> [조수] → 청-ᄀᆞᆯ개비.
청-걸리 명 <민> [전역] → 청-ᄀᆞᆯ리.
청고개-ᄒᆞ다 동 [인성] → 엇게ᄆᆞᆯ-ᄐᆞ다.
청-ᄀᆞᆯ개비 명 <동> 청-개구리. [노형 조수] = 청-가개비, 청-개개비, 풀-가개비, 풀-ᄀᆞᆯ개비.
청-ᄀᆞᆯ리 명 <민> 청(靑) 가루. 안질명(眼疾名). [전역] = 청-걸리.
청년-과소 명 청춘-과수(靑春寡守). * ᄉᆞ랑 뒤에 싱거랜 담베 청년과소 시름초라라.(사랑 뒤에 심은 담배 청춘과수 '시름초'더라.) [전역]
청달레-가오리 명 <동> 청달래-가오리. [전역] = 청-덜레.
청-덜레 명 <동> [전역] → 청달레-가오리.
청-돌다 동 청-떨어지다. 참외 따위가 아주 농익어서 속의 청이 도려 빠지다. [인성 조수 서홍 노형] = 정-돌다.
청돌-롸리 명 <식> 쌀알이 검푸르고 차진 조(粟)의 한 가지. [노형 조수 인성 수산 가시]
청동 명 [어도 조수] → 정동[2].
청동-화리 명 [조수 어도] → 정동-화리.
청-두미에기 명 <동> 청-풍뎅이. [전역]
청록-고냥 명 <공> 용광로에서 잡다한 찌꺼기를 빼내기 위하여 낸 구멍. [덕수]
청룡-돌이 명 <민> 청룡(靑龍) 돼지. 큰 돼지. [전역]
청멩 명 청명(淸明). [전역]
청방 명 <건> * 청방이 간 안 먹어난 술ᄒᆞ연에 ᄒᆞᆫ 잔 비완 안네난 쫙ᄒᆞ게 소리 나게 먹어.('청방'에 가서 먹어 보지 않은 술을 해서 한 잔 부어 드리니 쫙하게 소리 나게 먹어.) [대정] → 천방.
청-벌 명 <동> 꿀-벌. [전역] = 꿀-벌.
청-보 명 [전역] → 얼쳉이.
청-산(靑山) 명 <지> 성산포에 있는 오름인 성산(城山)의 별칭. [고성 종달 오조 하도] = 성-산(城山).
청-앚다 동 음식을 할 때 그릇 밑으로 가루 따위가 가라앉거나 눌러 붙다. * 떡 숢을 때 너미 하영 놓으민 청앚아부렁 안 뒈주.(떡 삶을 때 너무 많이 넣으면 가루가 눌러 붙어버려 안 되지.) [조수]
청어 명 <동> [전역] → 청에[2].
청에[1] 명 앙감-질. [인성 노형 조수 화순 하원 어도] = 살레[3], 정개, 정개-고개, 정애, 종애[2].
청에[2] 명 <동> 청어(靑魚). [전역] = 청어.
청에-좃다 동 앙감질-하다. [노형 어도 조수 인성] = 정개-좃다, 정게-좃다.
청-우미 명 <식> 푸른빛이 감도는 우뭇가사리. [신흥 하도 행원] = 개-우미.
청장 명 <건> [수산 가시 김녕] → 천아반.
청장-대 명 [서홍 수산 가시] → 앙장-대(仰帳-).

청-조기 명 <동> 조기의 일종. [대포]
청-촐 명 아직 새파란 기운이 살아 있는 꼴. [전역]
청총-마(靑驄馬) 명 <동> [전역] → 청총-이.
청총-매(靑驄-) 명 <동> [전역] → 청총-이.
청총-이(靑驄-) 명 <동> 청총-마(靑驄馬). [전역] = 청총-마, 청총-매. 고 총이물.
청탁-궤 명 [인성 서홍] → 불밋-궤.
청탁-불미 명 <공> 땅바닥에 장방형(長方形)의 골을 파고 중간에 굴대를 가로 박은 후에 그 위에다 골에 맞는 널빤지를 걸쳐 놓아 한 쪽에 세 사람씩 서서 널빤지의 두 끝을 널뛰기하듯 디디면서 바람을 일으키는 풀무. [덕수] = 디딤-불미, 발판-불미.
청탁불미 놀레 명 <요> [덕수 덕천] → 토불미 놀레.
청탁-이 명 풀무의 궷속에 뺐다 찔렀다 하여 바람을 일으키는 물건. [전역] = 불밋-대.
청태-콩 명 청-대두(靑大豆). 열매의 껍질과 속살이 모두 푸르스름한 콩. [전역]
청-통 명 꿀-곽. [전역] = 꿀-통.
체[1] 명 [전역] → 거리[1].
체[2] 명 <도> 체. 가루를 쳐내거나 액체를 받아내는 데 쓰는 제구. [전역]
체[3] 명 근사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 [전역] = 척, 쳑[1], 츠록[1].
체[4] 명 겉-겨. *(속) 체 불리는 부재 웃나.(겨 날려 버리는 부자는 없다.) [전역]
체[5] 명 [전역] → 채[4].
체-가름 명 <농> 탈곡하는 과정에서 키로 쳐서 껍질과 쌀알을 구분하는 일. [하원]
체다[1] 동 째다. 물건을 찢거나 베어 가르다. [전역] = 쩨다.
체다[2] 동 멍석 끝을 들어 그 안에 있는 곡식 따위를 걷어 모으다. [전역]
체대 명 [하원 조수 태흥] → 처대.
체-메다 동 [전역] → 처-메다.
체반지 명 <도> 대오리로 결은 뚜껑 있는 그릇. 주로 밥을 담을 때 사용함. [전역] = 차반지, 채반지.
체사-거신기 명 <민> 굿당을 장식하는 종이 깃발로 차사(差使)를 상징. [전역]
체서-본풀이 명 <민> [전역] → 차사-본풀이.
체섯-드리 명 <민> 차사(差使) 다리. 영혼을 위한 의례인 질침을 할 때 차사가 내리는 길에 길게 깔아 놓는 무명천. [전역]
체소 명 채소(菜蔬). [전역]
체시 명 <민> [전역] → 차사(差使).
체ᄉᆞ 명 <민> [전역] → 차사(差使).
체얌 명부 [가시 어도] → 처음.
체여-지다 동 째어-지다. [전역] = 쩨여-지다.
체-오름 명 <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에 있는 오름. 표고 382미터. [전역] = 기-악(箕岳), 긜체-오름[2].
체우다[1] 동 채우다. ① 모자라는 수효를 채우다. [전역] ② 흡족하도록 만들다. [전역] 고치오다.
체우다[2] 동 ① 자물쇠로 잠가서 열지

못하게 하다. [전역] ② 몸에 물건을 달아서 차도록 하다. [전역]

체우-대기다 동 우격다짐-하다. [전역]

체우-치다[1] 동 상대방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자기 할 말만 하며 기선을 제압하다. [전역]

체우-치다[2] 동 멍석 끝을 들어 그 안에 있는 곡식 따위를 걷어 모으다. [전역]

체족 명 재촉. [전역]

체족-ᄒᆞ다 동 재촉-하다. [전역]

체-죽 명 겨-죽. [전역]

체직-체직 부 느릿-느릿. *어머님 전 체직체직 들어간다.(어머님 앞으로 느릿느릿 들어간다.). [온평]

체-질 명 체-질. [전역]

체집 명 채집(採集). [전역]

체-ᄒᆞ다(滯--) 동 체-하다. 먹은 것이 잘 삭아 내리지 않고 밥통 속에 걸리다. [전역]

첵[1] 명 [노형 어도] → 체[3].

첵[2] 명 책(冊). [전역]

첵갑 명 책갑(冊匣). [전역]

첵-계 명 자녀들에게 공부시키기 위하여 돈을 모아 책을 사서 보관해 두었다가 돌려가며 이용하게 만든 계. [전역]

첵-두께 명 책-뚜껑. [전역]

첵-메다 동 책-매다. [전역]

첵보는-이 명 택일기, 작명법, 풍수지리 등에 관한 서적들을 보며 남의 의뢰를 받고서 날짜를 지정하여 주거나 이름을 지어 주거나 매장할 곳을 점쳐 주거나 하는 사람. [전역]

첵불-일월(冊-日月) 명 <민> 지관(地官) 노릇 또는 택일(擇日)을 하던 조상. [전역]

첵상 명 책상(冊床). [전역]

첵실(冊實) 명 <민> 책 심부름꾼. 수행비서. [전역] = 첵지[2].

첵지[1] 명 <민> 첩지(牒紙). 사령장(辭令狀). [전역] = 처지.

첵지[2] 명 <민> [전역] → 첵실.

첵포 명 책보(冊褓). 책-보자기. [전역]

쳇-날 명 첫-날(初日). [전역] = 첫-날.

쳇-눈[1] 명 첫-눈. 첫 번으로 뜨이는 느낌. [전역] = 첫-눈[1].

쳇-눈[2] 명 첫-눈(初雪). [전역] = 첫-눈[2].

쳇대기 명 <도> 탕건을 겯는 연장의 한 가지. 탕건을 결을 때 탕건골을 받치는 데 쓰임. '쳇망'(쳇바퀴) 셋을 나란히 올려 앉히고 댓개비로 고정시킴. [전역]

쳇-더위 명 첫-더위(-署). [전역] = 첫-더위.

쳇-덕석 명 [표선 수산] → ᄀᆞ렛-방석.

쳇-말 명 첫-말. [전역] = 첫-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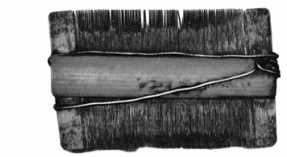
쳇-망 명 쳇-바퀴. [전역]

쳇망-오름[1] 명 <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옵은영아리' 북쪽 남조로변에 있는 낮은 오름. 표고 445미터. [전역] = 천망-악(川望岳).

쳇망-오름[2] 명 <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한라산 국립공원의 새잽이오름 서쪽에 있는 오름. 등마루가 '쳇망'(쳇바퀴) 모양으로 분화구를 둘렀음. 표고 1355미터. [전역]

쳇망-질 명 <농> '쳇망'(쳇바퀴)으로 탈곡하는 일. [상가]

첫-새끼 명 첫-새끼. 애벌에 낳은 짐승의 새끼. [전역] = 첫-새끼.
첫-새왈 명 첫-다리. [화순 하원 서홍] = 새왈.
첫-술 명 첫-술. *첫술에 베부름니까?(첫술에 배부르나요?) [전역]
첫-추위 명 첫-추위. [전역] = 첫-추위, 첫-치위.
첫-치위 명 [전역] → 첫-추위.
첫-해 명 첫-해. [전역] = 첫-해.
쳉-빗 명 <도> 참-빗(篦). [전역] 고 춤빗.



쳉빗

쳐다-보다 동 쳐다-보다. [전역]
초[1] 명 초. 불빛을 내는 데 쓰이는 물건의 하나. [전역] = 쵀[3].
초[2] 명 초(醋). [전역] = 쵀[2].
초가(草家) 명 <건> [전역] → 초-집(草-).
초가-집(草家-) 명 <건> [전역] → 초-집(草-).
초가-칩 명 <건> [전역] → 초-집(草-).
초감-제(--祭) 명 <민> 모든 무속의 례에서 첫머리에 행해지는 제차(祭次) 이름. [전역] = 초감제-연ᄃᆞ리.
초감제-연ᄃᆞ리 명 <민> [전역] → 초감-제(--祭).
초곱-메김 명 <민> 칠성새남굿에서 칠성을 달래기 위하여 '허멩이'에 대하여 대신 태형을 가하는 의례. [전역]
초공(初公) 명 <민> 무조신(巫祖神). [전역]
초공-맞이(初公--) 명 <민> 초공신을 모셔 기원하는 제차. [전역]
초기[1] 명 검-버섯. [전역]
초기[2] 명 <식> [전역] → 버섯.
초기낭 깨는 소리 명 <요> 표고버섯 재배를 위하여 나무를 쪼개면서 부르는 노동요. [용수]
초-ᄀᆞ슬 명 초-가을. [전역] = 초-ᄀᆞ을.
초-ᄀᆞ을 명 [전역] → 초-ᄀᆞ슬.
초-나게 부 남달리 두드러지게. [전역] = 초-나게스리, 초-나게시리, 초명-나게.
초-나게스리 부 [전역] → 초-나게.
초-나게시리 부 [조수] → 초-나게.
초-나다 동 표-나다. [전역]
초다 동 쬐다. [전역] = 추다[1].
초담 명부 *초담부터 잘ᄒᆞ는 사름 경 엇나.(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그렇게 없다.) [전역] → 처음.
초-닷세(初--) 명 [전역] → 초-닷쉐.
초-닷셋날 명 초-닷샛날(初五日). [전역]
초-닷쉐(初--) 명 초-닷새. [전역] = 초-닷세.
초-들물 명 <어> 초반의 밀물. [사계]
초라니 명 가볍고 방정맞은 행세를 하는 사람. *(속) 양반칩 못 뒈젱 ᄒᆞ민 초라니 새끼 난다.(양반집 못 되자 하면 '초라니' 새끼 낳는다.) [전역]
초라대기 명 잽싸고 요망스런 사람. *제비생이 초라대기.(제비새는 초라니.) [전역]
초란-광대 명 <민> 초라니 짓을 하는 광대. [전역]

초랍다 형 뚧다. [전역] = 쪼락지다, 쪼랍다. 고뚧다.
초롱(-籠) 명 초롱. 등롱. [전역]
초-메장 명 <민> 요왕맞이에서 바다에서 죽은 영혼의 넋을 불러 짚으로 만든 신체를 염습하는 의례. [전역]
초명-나게 부 [수산 김녕] → 초-나게.
초-물 명 과실, 채소 따위가 처음 한 목 나오는 차례. [전역]
초미연단-상 명 <민> 향(香). [전역]
초-방광 명 <민> 처음 하는 방광. [전역]
초-불 명 애-벌. [전역]
초불-갈이 명 애벌-갈이. [전역]
초불-검질 명 <농> 애벌-매기. [전역] = 방골름-검질.
초불-뿔레 명 [인성 서홍 김녕 조수] → 초불-서답.
초불-서답 명 애벌-빨래. [전역] = 초불-뿔레.
초불-지름 명 애잇-기름. 애벌 짠 기름. [전역]
초불-치다 동 애벌-찌다. [전역]
초상 명 <민> [전역] → 조상[2].
초-상계 명 <민> 규모 있는 굿에서 초감제와 초신맞이에 이어 거듭 신을 청해 들이는 제차. [전역] = 드리-안상계, 상계.
초석[1](草席) 명 초석. [전역] = 뒤-자리, 뛰-자리, 뛰-초석.
초석[2] 명 돚. *초석이렌 ᄒᆞ믄 저 돗자리가 아니고 광목으로 만드는디 돗이엔도 ᄒᆞ곡.('초석'이라고 하면 저 돗자리가 아니고, 광목으로 만드는데 '돗'이라고도 하고.) [이호]
초석돈-베 명 돚단-배. *게난 이 돚이엔 ᄒᆞᆫ 것은 초석돈베렌 ᄒᆞ여.(그러니까 이 돚이라고 한 것은 '초석돈베'라고 해.) [이호]
초석-새 명 초석(草席)의 재료로 삼는 띠 [인성 상창]
초승(初生) 명 초승. [전역] = 초싱.
초승-돌 명 초승-달(初生-). [전역] = 초싱-돌. 고초싱돌.
초싱 명 [전역] → 초승.
초싱-돌 명 [전역] → 초승-돌.
초-신(草-) 명 *(속) 초신 아옵 베 끄치멍 돌아온 메누리 개가죽 ᄒᆞᆫ 장이 안 싸다.(짚신 아홉 켤레 소비하면서 데려온 며느리 개가죽 한 장 가치도 없다.) [전역] → 찝-신.
초신-맞이(初神--) 명 <민> 초감제 다음에 초감제 때 떨어진 신을 청(請)해 들이기 위해 하는 제차(祭次). [전역] = 초신-연맞이(初神---).
초신-연맞이(初神---) 명 <민> [전역] → 초신-맞이(初神--).
초-신질 명 <민> 첫 번째로 신에게 역가(役價)를 바치는 당주맞이 신굿. 심방은 세 번 신길을 닦아야 큰심방으로 인정받는 상신충(上神充)이 됨. [전역]
초-신청궤 명 <민> 여러 거리로 이루어진 굿에서 처음 하는 신청궤. 곧 초감제의 신청궤. [전역] = 초신청궤-맞이.
초신청궤-맞이 명 <민> [전역] → 초-신청궤.
초-쏠물 명 <어> 초반의 썰물. [사계]
초-여드렛날 명 초-여드렛날(初八日).

[전역] = 초-ᄋᆞ드렛날.

초용 명 <어> 제주 해녀가 처음으로 섬 바깥으로 나가서 물질 작업하면서 지내는 일. *난 초용으로 울산물질 강완.(나는 첫 바깥 해녀작업으로 울산물질을 갔다왔어.) [전역]

초이공-맞이 명 <민> 초공맞이와 이공맞이를 겸한 제차. [전역]

초-ᄋᆞ드렛날 명 [전역] → 초-여드렛날.

초-잡다 명 초-잡다. [전역]

초-장(草場) 명 마소가 풀을 뜯을 수 있는 장소. *우리 ᄆᆞ실은 초장이 좋으난 숙전 가는 쉐는 암쉐가 하낫 주.(우리 마을은 '초장'이 좋으니까 '숙전'을 가는 소는 암소가 많았었지.) [색달]

초-장올(草長兀) 명 <지> [전역] → 테역-장오리.

초적다-몰 명 <동> [태흥 표선 수산 세화 조천] → 초적대-ᄆᆞᆯ.

초적대-몰 명 <동> 털빛이 진하지 아니하게 불그스름한 말. [조수 인성 화순 하원 서홍] = 초적다-ᄆᆞᆯ.

초-제비 명 <민> 첫 제비점. [전역]

초제-상제(初祭喪主) 명 초상 때의 상주. 주로 큰딸을 가리킴. [전역]

초제-제물(初祭祭物) 명 초상 때 마련하는 의례음식. [전역]

초-조금 명 <어> 무수기의 초기에 드는 조금. 한무날, 두무날, 서무날 때를 말함. *막물은 장조금엔 ᄒᆞ여가고, 초조금 초에 조금이고이, 장조금은 막 뒈여가는 조금.('막물'은 장조금이라고 하고, '초조금'은 초에 조금이고, 장조금은 막 되어가는 조금.) [하도]

초-집(草-) 명 <건> 초가(草家). [전역] = 초가, 초가-집, 초가-칩.



초집과 눌

초-ᄌᆞ냑 명 초-저녁. [전역]

초초-ᄒᆞ다 형 단정하고 깨끗하다. [노형 조수]

초-파일 명 [전역] → 초-팔일.

초-팔일 명 ① 초-팔일(初八日). [전역] ② 초-파일. [전역] = 초-파일.

초-풀(初-) 명 청명(淸明) 이후에 처음으로 돋아난 풀. [덕천]

초풀-바령 명 청명에서 소서(小暑) 사이에 이루어지는 '바령'. [덕천]

초학 명 <병> 초학(初瘧). [전역] = 초-학질.

초-학질 명 <병> [서홍 수산] → 초학.

초-해ᄉᆞᆷ 명 음력 10월경에 채취하는 해삼. [평대]

초-ᄒᆞ로 명 [서홍] → 초-ᄒᆞ를.

초-ᄒᆞ루 명 [전역] → 초-ᄒᆞ를.

초ᄒᆞ루-보름 명 삭망(朔望). [하귀]

초-ᄒᆞ르 명 [수산 가시] → 초-ᄒᆞ를.

초-ᄒᆞ를 명 초-하루(初一日). [전역] = 초-ᄒᆞ로, 초-ᄒᆞ루, 초-ᄒᆞ르. ㊟초ᄒᆞᄅᆞ.

초-ᄒᆞ를날 명 초-하룻날. [전역] = 초

-ᄒᆞ릇날.

초-ᄒᆞ릇날 명 [수산 조수 가시] → 초-ᄒᆞ를날.

촉[1] 명 갓양태를 겯는 대오리를 만들 때 쪼갠 댓개비의 단위. 마디 단위로 동강친 대를 대칼로써 1.5센티미터 쯤의 나비로 쪼갠 댓개비. [전역]

촉[2]**(鏃)** 명 촉. [하원 화순 서홍 태흥 조천 노형 가시] = 족[2].

촉-ᄇᆞ리다 동 사람이 의식을 잃어 거의 죽음 지경에 이르다. [어도]

촉서-에 부 조금하면 그저 늘. [전역] = 촉서-의.

촉서-의 부 [전역] → 촉서-에.

촉촉 부 음식을 연이어 조금씩 먹는 모양. 또는 그 소리. [전역]

촉촉-허다 형 촉촉-하다. [전역]

촌-놈(村-) 명 촌-놈. [전역]

촌-떼기(村--) 명 촌-뜨기. [전역]

촌수(寸數) 명 촌수. [전역] = 촌쉬.

촌쉬 명 [전역] → 촌수(寸數).

촌-충 명 <동> [전역] → 송-벡충.

촐 명 꼴. 마소에게 먹이는 풀 따위. [전역]

촐끗-사농 명 꼴을 베어 들인 음력 8월 15일 이후에 꿩을 잡으려고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사냥. [성산 수산]

촐-놉 명 꼴-꾼. 품삯을 받고서 마소에게 먹일 꼴을 베는 사람. [전역]

촐-눌 명 마소에게 줄 꼴을 둥그렇게 쌓은 가리. [전역]

촐락-촐락[1] 부 촐랑-촐랑. 가볍고 경망스럽게 까부는 모양. [전역]

촐락-촐락[2] 부 깡총-깡총. [전역]

촐람-생이 명 촐랑거리기를 잘하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전역]

촐랑-거리다 동 [전역] → 촐싹-거리다.

촐랑-이다 동 깊고 좁은 곳에 담긴 물이 소리나도록 연해 흔들리다. [전역]

촐리 명 [전역] → 꼴리.

촐-뭇 명 꼴-단. [전역]

촐-밧 명 [전역] → 촐-왓.

촐 비는 소리 명 <요> [전역] → 촐 비는 홍애기.

촐 비는 홍애기 명 <요> 늦가을에 한 해 동안 마소에게 먹일 꼴을 산간에 있는 꼴밭에서 베면서 부르는 노동요. [전역] = 촐 비는 소리.

촐-새김 명 소, 염소 따위가 삼켰던 꼴을 되새기는 일. [전역]

촐싹-거리다 동 촐랑-거리다. 채신없이 자주 까불며 방정맞게 행동하다. [전역] = 촐랑-거리다.

촐싹-촐싹 부 채신없이 자주 까불며 방정맞게 행동하는 모습. [전역]

촐-왓 명 마소의 사료인 꼴을 가꾸는 밭. *이 놈은 놉도 빌지도 안 ᄒᆞ고 촐왓디 오란 히뜩 자빠젼 뉜 잠더니.(이놈은 놉도 빌리지도 않고 꼴밭에 와서 히뜩 자빠져서 누워 자고 있더니.) [전역] = 촐-밧.

촐촐 부 가는 물줄기가 끊이지 않고 세게 흐르는 소리. [전역]

촛-대 명 [전역] → 쵓-대.

총 명 총. 말(馬) 꼬리의 털. [전역]

총각 명 <어> 해녀들이 예전에 무자맥질하면서 작업하기에 편리하도록 머리털을 비녀 없이 머리 위에 쪽지고 '이멍거리'라는 끈으로 이마에서 뒷

머리로 넘겨 묶는 머리 모습의 하나. *총각 차라 물에 들게, 양석 싸라 섬의 가게.(총각 쪽져라 물에 들자, 양식 싸라 섬에 가자.) [전역]

총각-차다 동 나이 많은 사내나 계집아이가 머리를 땋아서 등 아래로 늘어뜨리다. [조수 어도] = 총각-츠다.

총각-츠다 동 [조수 어도] → 총각-차다.

총-거름체 명 <도> 말의 갈기나 마소(牛馬)의 꼬리털로 조금 굵게 쳇불을 짜서 메운 체. [전역]

총기(聰氣) 명 총기. [전역]

총데기 명 <동> 종다리. [전역]

총-도리 명 <동> 꼬리의 털빛만 흰 소(牛). [표선 수산 세화 조천 노형]

총-바치 명 사냥-꾼. [전역]

총-박다 동 [화순 서홍 수산 노형 세화] → 절총-박다.

총-배 명 <도> 말(馬)의 갈기나 마소의 꼬리털로 드린 참바. *총배라고 말총으로 맨든 배로다가 야가지를 걸어가지고설랑 죽여 부렀어.(총배라고 말총으로 만든 참바로 모가지를 걸어서는 죽여 버렸어.) [전역]

총-뽀롱이 명 총-알(銃彈). [전역] = 총-뿌렝이, 총-알.

총-뿌렝이 명 [조수] → 총-뽀롱이.

총-알 명 [전역] → 총-뽀롱이.

총-어럭쉐 명 <동> 꼬리의 털빛이 얼럭덜럭한 소. [노형 인성 화순 세화] = 총-어레기.

총-어레기 명 <동> [서홍 태흥 조수] → 총-어럭쉐.

총지 명 [전역] → 꼴리

총-체 명 말의 갈기나 마소의 꼬리털로 쳇불을 짜서 메운 체. [전역]

촬촬 부 굵은 물줄기가 끊이지 않고 세게 흐르는 소리. [전역]

추 명 갯벌로 이루어진 바다 속에 있는 모래톱. [태흥]

추가라-몰 명 <동> [조수 인성 화순 하원] → 추가레-몰.

추가레-몰 명 <동> 털빛이 다갈색에 검은 빛깔을 띤 말. [노형 인성 화순 하원 서홍] = 추가라-몰.

추구리다 동 추기다. [전역]

추근드롱-ᄒᆞ다 형 물기가 있는 듯 축축한 느낌이 있다. [전역]

추근추근-ᄒᆞ다 형 추근추근-하다. [전역]

추근-ᄒᆞ다 형 물기가 있어 조금 축축하다. [전역]

추기다 동 추키다. 등에 진 짐 따위를 추켜올리다. [전역]

추끼다 동 [수산 조수] → 추치다.

추년 명 <건> 추녀(衝椽). [전역] = 추년-서리, 춘-서리.

추년-ᄆᆞ르 명 <건> 추녀-마루(衝椽--). 용마루에서 처마 네 귀로 내려오면서 등성이가 진 곳. [인성 수산 가시 조수] = 추년-ᄆᆞ를, 추년-몰리.

추년-ᄆᆞ를 명 [노형 인성 김녕 어도] → 추년-ᄆᆞ르.

추년-몰리 명 [조수] → 추년-ᄆᆞ르.

추년-서리 명 <건> [전역] → 추년.

추니 명 술 따위를 담는 준(罇). 기다랗게 둥그스름하며 위 아래는 끝이 차차 가늘어진 모양이며, 밑은 앉혀지게 되고 위의 아가리는 아주 좁은 모양임. [전역] = 춘.

추다[1] 명 *불턱에 불 추레 가게.(불턱

에 불을 쬐러 가자.) [전역] → 초다.

추다[2] 동 추다. ① 남을 일부러 칭찬하다. [전역] ② 춤 동작을 보이다. [전역]

추다-악(皺多岳) 명 <지> [조천 남원] → 살라니-오름.

추대기다 동 등에 진 짐 따위를 추켜올리다. [조수 노형 인성]

추렴-ᄒᆞ다 동 추렴-하다(出斂--). 돈을 얼마씩 모아 돼지를 사서 잡아먹다. [전역] 고 출렴ᄒᆞ다.

추룩 조 [전역] → 처름.

추리다[1] 동 누구만을 특별히 칭찬해 올리다. [전역]

추리다[2] 동 추리다(擇). [전역]

추리다[3] 동 치르다. [전역]

추막-추막 부 위태롭고 두려워 몹시 놀라는 모양. [전역]

추못-빌레 명 <지> [한경] → 추뭇-빌레.

추물 명 출물(出物). 굿이나 제사(祭祀)를 하기 위해 차린 제물 일체. *그 하르방 제사를 ᄒᆞ젠 추물 하영 출렷주.(그 할아버지 제사를 지내려고 '추물' 많이 차렸지.) [전역]

추물-공연(出物公演) 명 <민> 신(神)을 청하여 좌정시킨 뒤에 음식을 권하고 기원(祈願) 사항을 비는 과정. [전역] = 권메장, 천하-금공서, 하정.

추물락-ᄒᆞ다 동 갑자기 놀라 흠칫하다. [전역]

추뭇-빌레 명 <지>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의 한 자연마을. [한경] = 추못-빌레.

추미 명 취미(趣味). [전역]

추분-ᄒᆞ다 동 건지다. 보충하다. 손해본 것이나 투자한 밑천 따위를 도로 찾다. [전역]

추숭-낭 명 <식> 율무. [조수 화순 하원 서홍 어도] = 수승-낭, 주승-낭.

추어-주다 동 추어-주다. [전역]

추위 명 추위. [전역]

추위-ᄐᆞ다 동 추위-타다. [전역]

추저분-ᄒᆞ다 형 추저분-하다. [전역]

추접-스럽다 형 추접-스럽다. [전역]

추접-ᄒᆞ다 형 추접-하다. 더럽고 너더분하다. [전역]

추지다 형 추지다. 물기가 배어 눅눅하다. [전역]

추천(鞦韆) 명 추천. 그네.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취천.

추치다 동 추기다. [전역] = 추끼다.

추침-사데 명 <요> 밭매는 노래의 한 가지. 제주시 구좌읍과 조천읍 어촌 등지에서는 '진사데'와 '쯔른사데'의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전해지는 밭매는 노래를 뜻함. [전역]

축 명 [전역] → 축-ᄇᆞ름.

축관 명 [전역] → 대축[1](大祝).

축-나다(縮--) 동 축-나다. [전역]

축-담(築-) 명 집채 둘레에 돌로 쌓은 담. [전역]

축-ᄇᆞ르다 동 집을 둘러 막은 바람벽에 흙을 바르다. [전역]

축-ᄇᆞ름[1] 명 벽. [전역]

축-ᄇᆞ름[2] 명 ① 돌과 흙 따위로 둘러 막은 집의 둘레. [전역] ② 흙 따위를 겉으로 발라 막은 방의 칸막이. [전역] = 축.

축-엇이 부 꼭 들어맞게. 영락없-이.

＊그 아덜 아방ᄒᆞ곡 축엇이 닮아신게.(그 아들 아버지하고 영락없이 닮았네.) [조수] = 축-읏이.

축엇이-닮다 동 빼-닮다. [전역]

축-읏이 부 ＊이 동산의서 보면 축읏이 둑고달 형치라.(이 동산에서 보면 틀림없이 닭볏 형세야.) [전역] → 축-엇이.

축일-당(丑日堂) 명 <민> 제일이 축일인 당. [한경 한림]

축일-한집 명 <민> 축일(丑日)을 제일(祭日)로 삼는 신당의 신명. [명월 금능 금성]

축-지다(縮--) 동 축-지다. [전역]

축축-ᄒᆞ다 형 축축-하다. ＊무사 영 방이 축축ᄒᆞ니?(왜 이렇게 방이 축축하니?) [전역]

축-ᄎᆞ다 동 몇 사람이 한 동아리를 짓다. [전역]

축항-둥이 명 임신부가 바다에 해녀작업하러 나갔다가 돌아오는 사이에 미처 집에 도착하기 전에 항구에서 분만했을 때에 그 아이에게 붙여지는 별명. [오조]

춘 명 [세화 조천] → 추니.

춘-서리 명 <건> [세화 조천 가시] → 추년.

춘여리 명 <도> 항아리의 일종. [대정]

출고 명 <민> 출구(出柩). 출상하기 위하여 관을 집 밖으로 내가는 것. [전역]

출락 부 조금 깊은 그릇에 담긴 물이 흔들리어 물결이 일면서 나는 소리. [전역]

출락-출락 부 출렁-출렁. [전역]

출랑-거리다 동 출렁-거리다. [전역]

출랑-이다 동 출렁-이다. 깊고 큰 그릇에 담긴 물이 자꾸 흔들려 소리가 나다. [전역]

출물-상 명 출물-상. 굿을 할 때 무당이 원하는 갖가지 귀신에게 바치는 제물상의 하나. [전역]

출삭-거리다 동 출썩-거리다. 뽐-내다. 우쭐-대다. [전역] = 걸충-거리다, 출싹-거리다.

출세-내다 동 [전역] → 출세-ᄒᆞ다[1].

출세-ᄒᆞ다[1] 동 세-주다(貰-). [전역] = 출세-내다.

출세-ᄒᆞ다[2](出世--) 동 출세-하다. 높은 자리에 올라 잘 되다. [전역]

출싹-거리다 동 [전역] → 출삭-거리다.

춤[1] 명 침(唾). [전역] = 꿈[1].

춤[2] 명 춤. [전역]

춤막춤막-ᄒᆞ다 동 위태롭고 두려워 몹시 세게 놀라다. [전역]

춤-붓 명 [상가] → 물-붓.

춤-추다 동 춤-추다. [전역]

춥다 형 [전역] → 얼다[2].

충[1] 명 소의 정자(精子). [송당]

충[2] 명 줄. 어떤 방법, 셈속 따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야읜 떡 먹을 충 몰람저.(이 아인 떡 먹을 줄 모르네.) [전역]

충댕-이다 동 동이에 물을 이고서 걸음을 걸을 적에 흔들리어 소리가 나다. [전역]

췌[1] 명 고무신 따위의 문수. [전역]

췌[2] 명 ＊(속) 시렌 ᄒᆞᆫ 췌는 안 시곡, 마게가 더 몬저 신다.(시라고 한 초(酸)는 아니 시고, 마개가 더 먼저 신다.) [전역] → 초[2].

췌[3] 명 [전역] → 초[1].
췌대 명 최대(最大). [전역]
췌서 명 초서(草書). [전역]
췟-대 명 촛-대(-臺). [전역] = 촛-대.
취미(趣味) 명 취미. [전역]
취병-담(翠屛潭) 명 제주시 용담1동과 용담2동 경계, 한내 하류 바닷가에 있는 소(沼). 근래에는 용연(龍淵)이라고 함. [용담]
취천 명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추천(鞦韆).
취-ᄒᆞ다(醉--) 동 취-하다. [전역]
치[1] 명 키(舵). 배의 방향을 조종하는 장치. [전역] ㊎티.
치[2] 명 치(寸). 한 자의 십분의 일. [전역]
치-궁기 명 꽂을 수 있게 '키통문' 가운데에 뚫은 구멍. *치 꼽는 게 치궁기.(키 꽂는 것이 키의 구멍.) [이호]
치다[1] 동 치다. 소리를 내려고 두드리다. [전역]
치다[2] 동 치다. ① 동물이 새끼를 낳아 퍼뜨리다. [전역] ② 벼락이 떨어지다. [전역]
치다[3] 동 치다. ① 손님을 대접하다. [전역] ② 전보를 놓다. [전역]
치다[4] 동 치다. ① 대님을 두르다. [전역] ② 점이나 줄을 긋다. [전역]
치다[5] 동 치다. ① 그물 같은 것을 펴서 벌여 놓다. [전역] ② 병풍 같은 것을 둘러 세우다. [전역]
치다[6] 동 지다. 그늘(陰)이 생기다. [전역]
치다[7] 동 찌다. 뜨거운 김을 올려 익히다. *감저 치엉 먹엇우다.(고구마 쪄서 먹었습니다.) [전역] ㊎띠다.
치닥 명 치레. *허리 치닥 베 치닥 말앙 굽엉 일을 우겨 보게.(허리 치레 배 치레 말고 굽어서 일을 힘써 보자. 허리나 배를 아끼지 말고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 힘써 일해 보자.) [전역]
치닥-치닥 부 매우 끈적거리는 모양이나 상태. [전역]
치닥치닥-ᄒᆞ다 형 ① 방바닥이나 몸이 끈적끈적하다. [전역] ② 바닥이 눅눅하다. [전역]
치-대기다 동 ① 벽에 무엇을 칠하다. 여기저기 흩뿌리다. [전역] ② 끼얹다. [전역]
치-돋다 동 치-닫다. [전역]
치레-ᄒᆞ다 동 치레-하다. ① 분에 넘친 물건을 마련하다. [전역] ② 매만져서 모양을 내다. [전역]
치메 명 <의> 치마(裙). [전역] ㊎아래옷.
치메-깍 명 치맛-자락. *저레 가는 저 처네야 치메깍을 걷고 가쥐.(저리 가는 저 처녀야 치맛자락을 걷고 가오.) [전역]
치-밀다 동 치-밀다. 아래로부터 위로 밀어 올리다. [전역]
치-받다[1] 동 치-받다. [전역] ㊎티받다.
치-받다[2] 동 연(鳶)을 띄우기 위하여 공중으로 올리기 시작하다. [전역]
치샛-메 명 <민> 아기를 분만한 다음 아기의 생육(生育)을 관장한다는 삼승할망에게 감사(致謝)하고 기원하는 뜻으로 방 구석이나 벽 위에 두어 두는 할망상에 올리는 메. 보통 생후

3일, 7일에 올리는 메. [전역] = 치셋-메.

치셋-메 명 <민> [전역] → 치샛-메.

치-ᄉᆞ랑 명 치-사랑. 자식이 그 부모를 잘 모시고 따뜻하게 섬김. 또는 그런 사랑. [전역]

치우다 동 치우다. [전역]

치자-낭 명 <식> [전역] → 치ᄌᆞ-낭.

치저-낭 명 <식> [전역] → 치ᄌᆞ-낭.

치저-지다 동 찢어-지다. [전역] = 찌저-지다.

치지-낭 명 <식> [노형 조수] → 치ᄌᆞ-낭.

치지다 동 [전역] → 찌지다.

치질(痔疾) 명 <병> [어도 노형] → 지질.

치짓-물 명 치자를 짠 물. [전역]

치ᄌᆞ-낭 명 <식> 치자-나무. [전역] = 치자-낭, 치저-낭, 치지-낭.

치-창낭 명 키의 좌우를 조절해 주는 나무. *키에 고냥 뚤라 가지고 창낭 이렇게 찔러 가지고 영 돌리는 것이 치창낭이라.(키에 구멍 뚫어서 창나무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돌리는 것이 '치창낭'이야.) [이호]

치-치다 동 치-뜨리다. [전역]

치통-문 명 돛단배 따위 배의 뒤쪽에 키를 꽂게 만들어진 긴 통나무. [이호]

칙 명 <식> 칡(葛). [전역] = 끅.

칙간 명 <건> 측간(厠間). [전역]

칙간-동티 명 <민> 뒷간(厠間) 역사(役事)에서 지신(地神)의 성냄으로 하여 재앙을 받음. [전역]

칙도-부인(厠道夫人) 명 <민> 뒷간의 신명(神名). [전역]

칙-배 명 <도> 칡덩굴로 줄을 꼬아 세 가닥을 지어 굵다랗게 드린 참바. [건입]

칙살-롭다 형 칙살-스럽다. [전역]

칙-오름[1] 명 <지> 서귀포시 상효동 영천오름 남쪽에 이웃한 오름. 표고 201미터. [전역]

칙-오름[2] 명 <지>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거슨세미오름과 민오름 사이에 있는 작은 오름. 표고 304미터. [전역]

칙-오름[3] 명 <지>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 마을 북동쪽에 있는 오름. 표고 336.6미터. [전역] = 칠-오름.

칙-줄 명 칡-덩굴(葛--). [서홍] = 끅-꿀, 끅-줄.

친 명 끈. 보자기 따위에 달려 그 자체를 잡아매는 데 쓰이는 가느다랗고 긴 물건. [전역]

친구(親舊) 명 친구. [전역] = 친귀.

친귀 명 [전역] → 친구.

친-떡 명 <음> [김녕] → 시리-떡.

친-똘 명 [전역] → 당-똘.

친밧 명 화전(火田). [하원]

친-부모 명 [전역] → 당-부모.

친-손지 명 [전역] → 당-손지.

친심-ᄒᆞ다 동 아내 혹은 남편 될 사람의 용모와 행동을 살펴보다. [전역]

친-아돌 명 [전역] → 당-아돌.

친-아방 명 [전역] → 당-아방.

친-아시 명 [전역] → 당-아시.

친-어멍 명 [전역] → 당-어멍.

친척(親戚) 명 [전역] → 권당. 고아숨.

친-하르방 명 [전역] → 당-하르방.

친-할망 명 [전역] → 당-할망.

친-ᄒᆞ다(親--) 형 친-하다. [전역]

칠-낭 명 <식> 옻-나무. [전역]
칠머릿-당 명 <민> 제주시 건입동의 본향당. 제주시 조천읍 북촌리와 애월읍 고내리에도 같은 이름의 당이 있었음. [전역]
칠-산(七山) 명 <지> → 칙-오름[3].
칠성(七星) 명 <민> 부(富)를 관장하는 신(神)으로, 뱀을 말함. '안칠성'과 '밧칠성'이 있음. [전역]
칠성-나까방석 명 <민> 칠성신에게 바치는 시루떡. [전역]
칠성-눌 명 <민> 집안의 부귀와 평화를 가져다준다는 칠성을 모시는 주저리. *간혹 이 칠성눌인가 무신 거 잇지이. 그디 잘 모시믄 곡식 잘 뒌덴. 우마 잘 뒈고. 일년에 ᄒᆞᆫ 번씩 주지 집 골곡. 그 아랜 기왓장 ᄒᆞ나 잇젠.(간혹 이 '칠성눌'인가 무엇 있지. 거기 잘 모시면 곡식 잘 된다고. 우마 잘 되고. 일년에 한 번씩 주저리 집 갈고. 그 아래는 기왓장 하나 있다고.) [성읍]
칠성-ᄃᆞ리 명 <민> 칠성신이 내려오는 길에 까는 무명천. [전역]
칠성-새남 명 <민> 뱀을 죽이거나 불경스럽게 대한 탓으로 앓는 환자의 병을 치유하는 굿. [전역]
칠성-제(七星祭) 명 <민> 새해를 맞이하여 북두칠원성군(北斗七元星君)에게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의례. [함덕 조천]
칠성-판(七星板) 명 칠성-판. [전역]
칠수 명 이롭. 말(馬) 나이의 일곱 살. [전역] = 칠쉬.
칠수-마 명 <동> [전역] → 칠수-매.
칠수-매 명 <동> 나이가 일곱 살이 된 말. [전역] = 칠수-마, 칠쉬-매.
칠순이 명 일곱째 딸에게 어렸을 때에 붙이는 별명. [전역]
칠쉬 명 [전역] → 칠수.
칠쉬-매 명 <동> [전역] → 칠수-매.
칠-오르다 동 옻-오르다. [전역]
칠-오름 명 <지> [전역] → 칙-오름[3].
칠-ᄒᆞ다(漆--) 동 칠-하다. 칠을 바르다. [전역] = 메기다[2].
침[1] 명 <농> 조를 파종하고 나서 3일쯤 후에 싹이 솟아난 모양을 두고 이르는 말. *침 솟앗다.('침' 솟았다.) [상가]
침[2](鍼) 명 <도> 침. [전역]
침-떡 명 <음>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가시] → 시리-떡.
침-바치(鍼--) 명 침-장이. 침을 주는 의원을 속되게 이르는 말. [전역]
침-악(針岳) 명 <지> [전역] → 바농-오름.
침ᄌᆞ-질 명 [전역] → 바느-질.
침침-ᄒᆞ다 형 침침-하다. 무엇이 보일락 말락 할 정도로 빛이 어둡다. [전역]
-칩 미 시집 간 여자에게 그 출생지나 시집 간 곳의 지명 아래에 붙여 부르는 말. [전역]
칫-사공 명 <어> 키를 잡아 조종하는 사공. [전역] = 고물-사공.
칫-장남 명 <어> 배의 뒷부분(고물)에서 키를 관리하는 뱃사람. [전역]
칭계 명 [전역] → 칭계.
칭계 명 층계(層階). [전역] = 칭게.
칭원-ᄒᆞ다(稱寃--) 동 칭원-하다. 원통함을 들어 말하다. [전역]

ᄎᆞ- 두 차-. '끈기가 있어 차진'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전역]

ᄎᆞ각-메역 명 <어> 조곽(早藿) 미역. 제철이 되기 전에 따서 말린 미역. [전역]

ᄎᆞ게 명 <의> [조수] → ᄎᆞ궹이.

ᄎᆞ겡이 명 <의> [조수] → ᄎᆞ궹이.

ᄎᆞ광이 명 <의> [어도] → ᄎᆞ궹이.

ᄎᆞ괭이 명 <의> [화순 어도] → ᄎᆞ궹이.

ᄎᆞ궤 명 <의> [인성] → ᄎᆞ궹이.

ᄎᆞ궹이 명 <의> 도롱이. [인성 서홍 조수 어도] = 우장, ᄎᆞ게, ᄎᆞ겡이, ᄎᆞ광이, ᄎᆞ괭이, ᄎᆞ궤.



ᄎᆞ궹이

ᄎᆞ근-ᄎᆞ근 부 차근-차근. [전역]

ᄎᆞ-나록 명 <식> 찰-벼(糯稻). [전역] = 찰-나록, 출-나록.

ᄎᆞ-남[1] 명 <식> [전역] → ᄎᆞ-낭.

ᄎᆞ남[2] 명 차남(次男). [전역]

ᄎᆞ남밧-동네 명 <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중동(큰동네) 위쪽에 형성된 동네. 1960년대부터 '성전동'(成田洞)으로 이름이 바뀜. [한경]

ᄎᆞ-남상 명 <식> [서홍 수산 김녕 가시] → 천-남상.

ᄎᆞ-낭 명 <식> ① 참-나무. ② 떡갈-나무. [전역] = ᄎᆞ-남[1], 춤-낭.

ᄎᆞ낭-가름 명 <지> 제주시 봉개동의 한 마을. [봉개] = 처낭-가름.

ᄎᆞ낭여름-청 명 도토리를 갈아 물에 담가 떫은 기운을 제거한 전분(澱粉) 덩어리. [선흘]

ᄎᆞ낭-오름[1] 명 <지> 제주시 애월읍 광령리 남쪽, 어승생오름 서쪽에 있는 오름. 표고 797미터. [애월] = 진목-악(眞木岳), 천아-악[1](天娥岳), 천아-오름[1], 춤남-오름.

ᄎᆞ낭-오름[2] 명 <지> 제주시 한림읍 상대리 마을 남동쪽에 있는 낮은 오름. 표고 134미터. [한림] = 처나름, 처남-오름, 천아-악[2](天娥岳), 천아-오름[2].

ᄎᆞ낭-읏름 명 도토리. [전역] = 동고리[1], 차낭-열매.

ᄎᆞ다[1] 동 [전역] → 차다[3].

ᄎᆞ다[2] 동 차다(佩). *(속) 좃 낸 놈이 칼 츤다.(좆 낸 놈이 칼 찬다.) [전역] = 차다[2].

ᄎᆞ다[3] 형 차다(滿). [전역] = 차다[3].

ᄎᆞ다[4] 형 [전역] → 차다[4].

ᄎᆞ-대접 명 <민> 옛 사기대접. [전역]

ᄎᆞ라리 부 차라리. [전역] = 출하리.

ᄎᆞ례 명 차례(次例). [전역] 교ᄎᆞ례.

ᄎᆞ로 부 [전역] → 채[5].

ᄎᆞ록[1] 명 [노형 조수 어도] → 체[3].

ᄎᆞ록[2] 조 처럼. [전역] → 처름.

ᄎᆞ마[1] 감 남이 하여서는 안 될 일을 하였을 적에 못마땅하게 여겨서 내는 소리. [전역] = ᄎᆞ마-가라, ᄎᆞ마도-가라.

ᄎᆞ마[2] 부 차마. [전역] 교ᄎᆞ마.

ᄎᆞ마-가라 감 [전역] → ᄎᆞ마[1].
ᄎᆞ마귀 명 <식> 뿌리가 들기 전의 무. [전역]
ᄎᆞ마도-가라 감 [전역] → ᄎᆞ마[1].
ᄎᆞᄉᆞ 명 <민> [전역] → 차사(差使).
ᄎᆞ일-피일 부 차일-피일(此日彼日). [전역]
ᄎᆞ지다 형 차지다. 쩍쩍 붙도록 끈기가 있다. [전역]
ᄎᆞ지-ᄒᆞ다 동 차지-하다. *부믜 재산 차지ᄒᆞ젠 성제끼리 쌈질ᄒᆞ는 거 보라.(부모 재산 차지하려고 형제끼리 싸움하는 거 봐라.) [전역] = 차지-ᄒᆞ다.
ᄎᆞ진-것 명 찰-것.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ᄎᆞᆯ진-것.
ᄎᆞ츰-ᄎᆞ츰 부 차츰-차츰. [전역] = ᄎᆞ츰-ᄎᆞ츰.
ᄎᆞᄎᆞ 부 차차(次次). [전역] = 차차.
ᄎᆞ츰-ᄎᆞ츰 부 [전역] → ᄎᆞ츰-ᄎᆞ츰.
ᄎᆞ-ᄒᆞ다 형 차-하다. [전역]
ᄎᆞᆫ- 두 찰-. [전역]
ᄎᆞᆫ-마당 명 <농> [하원] → ᄎᆞᆫ-마당질.
ᄎᆞᆫ-마당질 명 <농> 한 쪽에 세 사람씩 여섯 사람 정도가 도리깨로 타작하는 일. [대포] = ᄎᆞᆫ-마당.
ᄎᆞᆫ-말 명 뒷일을 헤아리지 않고 뱃심 있게 하는 말. 참-말. *(속) 열두 메에 묵찌 전에 ᄎᆞᆫ말 못ᄒᆞᆫ다.(열두 마디에 묶기 전에는 참말 못한다.) [전역]
ᄎᆞᆫ-물 명 짠-물(鹹水). [전역] = ᄍᆞᆫ-물.
ᄎᆞᆫ물-내기 명 <농> 짠물이 끼쳐 농사를 그르치는 밭. [평대 신양 표선]
ᄎᆞᆫ-밧 명 <농> 하루 동안에 쟁기로 갈 수 있는 넓이의 밭. [대흘]
ᄎᆞᆫ-버짐 명 <병> [인성 김녕] → 먹는-버짐.
ᄎᆞᆫ-ᄇᆞ름 명 찬-바람(寒風). [전역] = 언-ᄇᆞ름.
ᄎᆞᆫ-살렴 명 주거와 경제적인 독립을 이룩한 새 부부의 살림. [전역]
ᄎᆞᆫ-역 명 [세화] → ᄎᆞᆫ-흑.
ᄎᆞᆫ-이슬 명 찬-이슬(-露). [전역]
ᄎᆞᆫ-지침 명 헛-기침. 자기의 형세를 보이려고 기침이 안 나오는데 일부러 꾸며 하는 기침. [전역]
ᄎᆞᆫ-짐 명 <농> 소 길마로 짐을 운반할 때보다 부피가 작으면서도 무거운 짐. [전역]
ᄎᆞᆫᄎᆞᆫ-이 부 찬찬-히. [전역]
ᄎᆞᆫ-흑 명 찰-흙. 빛깔이 붉은 차진 흙. [전역] = ᄎᆞᆫ-역, ᄎᆞᆫ-흑.
ᄎᆞᆫ-흑 명 [서홍 태흥 노형] → ᄎᆞᆫ-흑.
ᄎᆞᆯ- 두 찰-. [전역]
ᄎᆞᆯ-구덕 명 <도> 나물이나 해산물 등을 채취할 때 허리에 차고 사용하는 대오리로 엮은 바구니. [전역]
ᄎᆞᆯ-나록 명 <식> [태흥] → ᄎᆞ-나록.
ᄎᆞᆯ-떡 명 <음> 찰-떡. [전역]
ᄎᆞᆯ레 명 밥과 곁들여 먹는 장, 젓 따위의 반찬. [전역]
ᄎᆞᆯ리다 동 차리다. ① 기운이나 정신 따위를 가다듬어 되찾다. [전역] ② 물건이나 음식 따위를 준비하다. [전역]
ᄎᆞᆯ-산듸 명 <식> 찰기가 있는 밭벼. [영평]
ᄎᆞᆯ진-것 명 [수산 가시] → ᄎᆞ진-것.
ᄎᆞᆯ하리 부 [전역] → ᄎᆞ라리.

참[1] 명 새를 머리 땋듯이 땋아 나무에 거꾸로 매달아 이슬 따위를 받아 그 밑에 둔 항아리에 들어가게 하는 물건. [전역]



참과 참항

참[2] 부 참. [전역]

참- 두 참-. [전역]

참-가시낭 명 <식> ① 가시-나무. [전역] ② 참-가시나무. [전역]

참-겡이 명 <동> [가시 김녕] → 참-깅이.

참-긍이 명 <동> [조수] → 참-깅이.

참-깅이 명 <동> 참-게(-蟹). [노형 인성 서홍 판포] = 참-겡이, 참-긍이.

참-ᄀᆞ매기 명 <동> 남방울타리-고둥. [대포 서귀포] = 여자-보말, 지름-보말, 코-ᄐᆞ데기.

참-남 명 <식> [전역] → 츠-낭.

참남-오름 명 <지> [노형 광령] → 츠낭-오름[1].

참-낭 명 <식> [전역] → 츠-낭.

참다 동 참다. [전역] 고 춤다.

참-대 명 <도> 낚싯-대. [전역] = 낚싯-대.

참-뒈다 형 참-되다. [전역]

참-드리 명 <어> 밀물 최고조(最高潮) 때의 잔잔한 순간. [사계]

참-말 명 참-말(眞談). [전역]

참-매 명 <동> 참-매(-鷹). [전역]

참-몸 명 <식> 모자반의 일종. '주몸'보다 잎과 줄기가 굵음. 데쳐서 무쳐 먹거나 자반으로 만들어 먹음. *참몸엔 흔 건 뿌글레기도 훍고 이파리도 너불너불흔 거.('참몸'이라고 한 것은 공기주머니도 굵고 이파리도 넓적넓적한 것.) [이호 우도 강정]

참-베말 명 <동> 애기삿갓-조개. [인성 조수 서홍] = 쩽베리, 참-비말.

참-복 명 <동> 자주-복. [전역]

참-비말 명 <동> [노형] → 참-베말.

참-상낭 명 <식> 눈-향나무. [전역] = 넌출-상낭, 줄-상낭.

참-새 명 <동> 참-새. [인성 서홍 태흥 수산 화순 하원 노형 조수] = 밥주리[2], 밥주리-생이, 참-생이. 고 춤새.

참-생이 명 <동> [조수 어도 인성] → 참-새.

참-소왕이 명 <식> 엉겅퀴. [전역] = 소왕이, 참-소웽이.

참-소웽이 명 <식> [전역] → 참-소왕이.

참-솔 명 참-살. 군살 없이 통통하게 찐 살. [전역]

참예-ᄒᆞ다 동 참여-하다(參與--). [전역]

참-웨 명 <식> 참-외(眞瓜). [전역] 고 춤메.

참-정각 명 <식> 해조류인 청각채의 일종. 식용함. [표선 북촌]

참-지름 명 <음> 참-기름. [전역] = 꽤-지름.

참-질왓 명 <농> 곰방메로 흙덩이를

바수어야 할 만큼 차진 질흙밭. [상가]
촘-칙 명 <식> 칡의 일종. [교래]
촘-풋 명 <식> 팥의 일종. [하원]
촘-항 명 '촘'을 타고 내려온 이슬 따위를 담는 항아리. [전역]
촙-쌀 명 찹-쌀. [전역] 교 출쌀.
촙지근-ᄒᆞ다 형 맛이 조금 짜다. [전역]
촙지랑-ᄒᆞ다 형 맛이 알맞을 정도보다 조금 짜다. [전역] = 촙지롱-ᄒᆞ다
촙지롱-ᄒᆞ다 형 [전역] → 촙지랑-ᄒᆞ다.
춧다 동 찾다. [전역] = 찾다. 교 춧다.
춧아-오다 동 찾아-오다. ① 잃거나 맡기거나 빌려 주었던 것을 돌려받아 가지고 오다. [전역] ② 볼일을 보거나 특정한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 그와 관련된 곳에 오다. [전역]

ㅋ

-ㅋ- 선어말 -겠-. ①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전역] ②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화자의 추측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전역] ③ 용언의 어간에 붙어서, '가능'을 나타내는 선어말어미. [전역]

-카[1] 어미 -ㄹ까. 체언에 붙어서 화자 스스로의 의심을 표시하면서 결국 부정의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카[2] 어미 -ㄹ까. ①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미래의 일에 대한 추측·의문·상대방의 의도·화자 스스로의 의심 등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입이 혜싹ᄒᆞᆫ 게 경도 코삿ᄒᆞ카?(입이 헤 벌어진 게 그렇게도 마음이 흡족할까?) *몸뗑이 뚜로 ᄆᆞ슴 뚜로 허우작거리멍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카?(몸 따로 마음 따로 허우적거리면서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닐까?) *게건 어머님ᄀᆞ라 강 ᄀᆞᆯ아 보카?(그러면 어머님께 가서 말해 볼까?) [전역] ② 용언 어간에 붙은 '-암시-·-엄시-·-염시-·-람시-' 등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에 대한 추측·의문 또는 화자 스스로의 의심 등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③ 용언의 어간에 붙은 '-아시-·-어시-·-여시-·-라시' 등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완료되어 있음에 대한 추측·의문 또는 화자 스스로의 의심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④ 받침 있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의도를 나타내는 종결어미. *게민 중 옛말이나 ᄀᆞᆯ으카?(그러면 중(僧)에 대한 옛말이나 할까?) [전역]

카다[1] 동 타다. *커피 캇저. 왕 먹으라.(커피를 탔다. 와서 먹어라). [전역]

카다[2] 동 타다. ① 불씨나 높은 열로 불이 붙어 번지거나 불꽃이 일어나다. [전역] ② 뜨거워 빛이 까맣게 되다. [전역] = 타다[1], ᄏᆞ다. 고 ᄐᆞ다.

-카마씀 어미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그 의도·추측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어미. [전역]

-카부다 어미 [전역] → -카푸다.

-카부덴 어미 [전역] → -카푸덴.

-카부우께 어미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과거

에 한 일을 놓고 '이러이러하게 할 거 아닙니까'란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전역]

-카부우꽈 어미 -ㄹ까 봅니까. 받침 없는 체언이나 어간에 붙어서, '어찌 그러할 리가 있을까 봅니까'란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카푸다 어미 -ㄹ까 보다.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미래의 일을 추측하되 의심스러움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전역] = -카부다.

-카푸덴 어미 -ㄹ까 보다고·-ㄹ까 싶어서.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미래의 일이나 과거의 일을 추측하되 의심스러움을 나타내는 '-카푸다'의 변형 '-카푸데'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겨난 아니 골아도 돌아나카푸덴 양펜이 간 오독오독 앚안 이서라.(그러니까 아니 말해도 달아날까 보아 양편으로 가서 오독오독 앉아 있더라.) *그 사름은 이젠 그대로 그자 산방산엘 갓어. 그 부인을 만나서 살아지카푸덴. 춧아 봐도 어디 셔?(그 사람은 이제는 그대로 그저 산방산엘 갔어. 그 부인을 만나서 살 수 있을까 하고. 찾아 보아도 어디 있어?) [전역] = -카부덴.

-카푸뎅 어미 -ㄹ까 보다고.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미래의 일이나 과거의 일을 추측하되 의심스러움을 나타내는 '-카푸다'의 변형 '-카푸데'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칸-내 명 탄-내(-臭). ① 불에 타서 나는 냄새. [전역] ② 화기(火氣)가 뜨거워 까맣게 되어 나는 냄새. [어도 인성 화순 하원 서홍 태흥 표선] = ᄐᆞᆫ-내.

칸-막이 명 칸-막이. [전역] = 간-막이(間--).

칼 명 칼(刀). [전역]

칼-국 명 <음> 칼-싹두기. 메밀가루나 밀가루 반죽 따위를 방망이로 밀어서 굵직굵직하고 조각지게 썰어서 끓인 음식.[전역]

칼-놀 명 칼-날. [전역] 고 갈놇.

칼쏜-ᄃᆞ리 명 <민> 신칼로 점을 칠 때 칼날이 위로 향한 형상. [전역]

칼-ᄌᆞ록 명 칼-자루(-柄). [전역] = 칼-줄리. 고 갈ᄌᆞᄅᆞ.

칼-줄리 명 [인성 노형 서홍 수산] → 칼-ᄌᆞ록.

칼치 명 [전역] → ᄀᆞ세-뿌리.

칼칼-쓰다 형 자극하는 맛이 몹시 쓰디쓰다. [전역]

칼칼-ᄒᆞ다 형 칼칼-하다. [전역]

캄캄-ᄒᆞ다 형 [전역] → ᄀᆞᆷᄀᆞᆷ-ᄒᆞ다.

캉캄-ᄒᆞ다 형 [전역] → ᄀᆞᆷᄀᆞᆷ-ᄒᆞ다.

캐 명 개. 윷가락이 두 짝 잦혀진 때의 이름. [전역]

-커건 어미 -겠거든.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사실에 대한 화자·상대자 또는 제삼자의 의도를 가정적으로 조건 삼아 말할 때 쓰이는 연결어미. [전역] = -케건, -크건.

-커까 어미 -겠냐. ①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사실에 대한 추측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느, 이 일 헤질커까?(너, 이 일을 할 수 있겠냐?) *그렇게 착실흔 아이가 아방이영 성이영 아시영 가그네 노는 디강 구경도 못ᄒᆞ커까?(그렇게 착실한 아이가 아버지랑 형이랑 아우랑 가서 노는 데 가서 구경도 못하겠느냐?) [전역] ② 용언 어간에 붙는 '-암시-·-엄시-·-염시-·-람시-' 등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에 대한 추측·의심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③ 용언 어간에 붙는 '-아시-·-어시-·-여시·-라시-' 등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 끝나 있음에 대한 추측·의심에 대해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 -컷가, -크까.

-커냐 어미 [전역] → -크냐.

-커라[1] 어미 [전역] → -크라[1].

-커라[2] 어미 [전역] → -크라[2].

-커라라 어미 [전역] → -크라라.

커리 명 [노형 조수 어도] → 베[5].

-커메 어미 [전역] → -크메.

커싱-커싱 부 신경질적으로 자꾸 화를 내는 모양. [전역]

커질락-커질락 부 [전역] → 코질락-코질락.

-컨 어미 -겠거든. *그 도고리옛 거 ᄃᆞᆼ겨 놓아그네 먹어지컨 ᄆᆞᆫ 먹으라.(그 함지박에 있는 것을 당기어 놓아서 먹을 수 있으면 전부 먹어라.) [전역]

-컨가 어미 [전역] → -큰가.

-컨데 어미 -기에. ①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그 사실을 결과로 말하려 할 때, 이유나 원인이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② 용언 어간에 붙은 '-암시-·-엄시-·-염시-·-람시-·-아시-·-어시-·-여시-·-라시-' 또는 '-아지-·-어지-·-여지-·-라지-' 등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의 계속·완료 또는 피동을 결과적으로 말하려 할 때, 그 원인이나 이유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전역] = -ᄀᆞᆫ테.

-컬 어미 -ㄹ걸. 받침 없는 동사 어간에 붙어서 이미 지난 사실에 대하여 뉘우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심어 앚정이라도 먹엉 가렌 ᄒᆞ컬.(잡아 앉혀서라도 먹고 가라고 할 걸.) [전역]

-컷가 어미 [전역] → -커까.

케[1] 명 지경(地境). [전역]

케[2] 명 지역의 공동 농경지로 마을의 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땅. [도순 중문]

-케건 어미 [전역] → -커건.

케다[1] 동 캐다. ① 땅에 묻힌 물건을 파서 들어 내다. [전역] ② 모르는 일을 자꾸 찾아 밝혀내다. [전역] 고 키다.

케다[2] 동 패다. 곡식의 이삭이 나오다. [조수 노형 인성 서홍] = 페다[1].

케매기 명 <농> 담장이 없는 밭이 많은 일대에서 농경지를 공동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직. [중문]

케매기-동산 명 <농> 담장 없는 밭이 많은 농경지 일대 중 농경지 공동관

리에 관한 일을 의논하는 동산. [중문]

-케메 어미 [전역] → -크메.

케뿌리다 동 [수산 김녕] → 케우리다[1].

케왓-동네 명 <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한 자연마을. [애월]

케우다 동 태우다. ① 불이 붙게 하다. [전역] ② 몹시 뜨거운 열을 받아 검어지게 하다. [전역] = 테우다[3].

케우리다[1] 동 <민> 고수레-하다. 남의 집에서 가져온 음식물을 귀신에게 대접하느라고 조금 뜯어서 던지다. [노형 인성 조수 서홍 김녕] = 케뿌리다.

케우리다[2] 동 뭉치거나 모아 있는 물체를 헤집어 이리저리 흩어지게 하다. *가매기 똥 케우리듯 ᄒᆞᆫ다.(가마귀 똥 헤집듯 한다.) [전역]

케-지기 명 공동 농경지를 관리하는 사람. [도순 중문]

케-초관 명 일정한 값을 받고 띠밭과 꼴밭을 지켜 주는 사람. [용수]

케-추리다 동 소를 방목할 목적으로 경계를 돌담으로 에워 두르다. [선흘]

케-파장 명 방목지인 지경에서 풀어놓아 먹이는 소를 관리하는 사람. [강정]

-켄 어미 -겠다고.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화자의 의도를 단정하여 나타내는 '-키여'의 축약형 '-케'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점심 먹으렌 ᄒᆞ난 먹다근에 남으민 가저오켄 ᄒᆞ멍, 일도 아니ᄒᆞ고 그자 누어십데다.(점심을 먹으라고 하니까 먹다가 남으면 가져오겠다고 하면서, 일도 아니하고 그저 누워 있었습니다.) *서이 ᄒᆞᆫ디 튀켄 ᄒᆞ멍, 소더레 튀젠 ᄒᆞ난 제우 ᄉᆞ정ᄒᆞ연 살안 오라수다.(셋이 같이 뛰어들겠다고 하면서, 소(沼)로 뛰어들려고 하니 겨우 사정해서 살아서 왔습니다.) [전역]

-켄가 어미 [전역] → -큰가.

켓-담 명 어떤 지경의 돌담. [선흘]

켓밧-벙에 명 <농> 개간한 밭의 흙덩이. [하원]

켓-보리 명 <농> '케지기'가 '케'를 본값으로 밭 임자들로부터 받는 보리. [도순]

켓-쉐 명 <동> 일정한 방목지에서 먹이는 소. [선흘]

켓-주부 명 <농> [중문] → 켓-집.

켓-집 명 <농> 농경지를 관리하는 사람. [하원] = 켓-주부.

-켜 어미 종결어미 '-키여'의 준말. *나 아멩헤도 ᄆᆞ수왕 살지 못ᄒᆞ켜.(나는 아무래도 무서워서 살지 못하겠다.) [전역] → -키여.

코[1] 명 코(鼻). *(속) 죽은 애기 코 곱나.(죽은 아기 코 곱다.) *(속) 코 큰 놈 추그리듯.(코 큰 놈 부추기듯.) *(속) ᄒᆞ룻굿 보젠 코 까끈다.(하룻굿 보자고 코 깎는다.) [전역] ㊟고.

코[2] 명 코. ① 그물의 몸을 이룬 낱낱의 고(罟). [전역] ② 버선 따위의 앞쪽 위로 내민 부분. [전역]

코[3] 명 [전역] → 코-거리.

코[4] 명 [전역] → 코-골래기.

-코 어미 -ㄹ꼬.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앞으로의 일에

대한 추측·의문·상대방의 의도·화자 스스로의 의문이나 의심 등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앞에 의문사가 옴. [전역]

코-각시 명 <병> [노형 조수 인성 가시] → 코-아덜.

코-간저니 명 <동> 이마에서 코에 이르면서 흰 줄이 있는 말. [전역] = 피-말이.

코-값 명 개사냥으로 노루를 잡았을 때 올가미를 설치한 사람에게 노루 고기로 대신하여 주는 값. *늬네 코에 노리 걸려시매 뒷다리 ᄒᆞ나 가졍 가라.(너희 올가미에 노루 걸렸으니 뒷다리 하나 가져가라.) [봉성]

코-거리 명 올가미. [전역] = 코[3]. 고 올감이.

코-고냥 명 [전역] → 콧-고냥.

코-고망 명 [전역] → 콧-고냥.

코-골래기 명 ① 밧줄을 둥글게 둘러서 고를 만든 것. [전역] ② 옷고름 매듭이 풀리지 않게 한 가닥을 잡아빼어 고리처럼 되게 한 것. *ᄀᆞ만서 보니 천장 우트로 코골래기를 내리와 가지고 개를 걸릴랴고 헤.(가만히 보니 천장 위로 '코골래기'를 내려서 개를 걸리려고 해.) [전역] = 코[4], 코-글래기, 코-글레기.

코-구녁 명 [전역] → 콧-고냥.

코-글래기 명 [전역] → 코-골래기.

코-글레기 명 [전역] → 코-골래기.

코-끗 명 코-끝. [전역]

코끼 명 짐을 마소에 실을 적에 참바로 고를 길게 내어 길맛가지에 걸고 짐을 동이는 물건. [서홍 수산 가시] = 걸-코.

코끼리 명 <동> 코끼리(象). [전역] = 퀘끼리.

코-놓다 동 참바나 새끼 따위로 옭아서 고를 내어 짐승을 잡는 장치를 하다. [전역]

코-돌 명 <도> 소의 밭갈이 훈련 때 쟁기 대신 묶는 돌. [영락]

코동이 명 <도> 액체를 따를 수 있게 위쪽에 부리가 달린 동이. *코동이는 코사발 식으로 멘든 거. 술도 질을 때 쓰고 지름도 질을 때 쓰고.(귀때동이는 귀때그릇 식으로 만든 거. 술도 길을 때 쓰고 기름도 길을 때 쓰고.) [조수]

코-딱지 명 [노형 조수] → 코-페렝이.

코로롱-코로롱 부 어린애가 잠 잘 적에 콧숨을 길게 빼며 연해 고는 소리. [전역]

코롱-코롱 부 콜콜. 어린애가 곤하게 잠잘 때 코를 연해 고는 소리. [전역]

코-막사니 명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코-막젱이.

코-막셍이 명 [김녕] → 코-막젱이.

코-막쉬 명 [김녕 어도] → 코-막젱이.

코-막은젱이 명 [수산 가시] → 코-막젱이.

코-막젱이 명 코-맹맹이. 코가 막혀서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상태. 또는 그런 사람. [전역] = 코-막사니, 코-막셍이, 코-막쉬, 코-막은젱이.

코-머리 명 [전역] → 고부랑-건지.

코-멜싸기 명 콧등 아래편이 나부죽한 사람을 일컫는 말. [전역] = 코-멜쎄기.

코-멜쎄기 명 [전역] → 코-멜싸기.
코-사발 명 액체 따위를 쉽게 따를 수 있게 귀때가 달린 사발. *코사발은 술 질을 때영 지름 질을 때영 하간거 질을 때 쓰는 거.('코사발'은 술도 길을 때랑 기름 길을 때랑 여러 가지 것들 길을 때 쓰는 것.) [조수]
코삿-ᄒᆞ다 형 무슨 일이 마음에 맞아 흡족하다. [전역]
코셍이 명 <동> 용치-놀레기. [전역] = 고멩이, 고셍이, 골멩이, 궤멩이.
코소롱-ᄒᆞ다 형 맛이나 냄새가 비위에 맞아 고소하다. [전역]
코시 명 [전역] → 코ᄉᆞ.
코ᄉᆞ 명 고사(告祀). [전역] = 고ᄉᆞ, 코시.
코-쓸다 동 코에서 나오는 진득진득한 액체를 깨끗이 닦다. [전역]
코-아덜 명 <병> 콧구멍에 난 작은 부스럼. [전역] = 코-각시.
코-쟁이 명 [전역] → 코-젱이.
코-젱이 명 코. 끝이 뾰족한 것. 작살의 맨 끝부분. *소살 고기 쏴 들어가는 건 코젱이고 놀개 닮은 건 비늘.(작살에서 고기 쏘아서 들어가는 것은 코이고 날개 닮은 것은 미늘.) [이호] = 코-쟁이.
코질락-코질락 부 성이 나서 화를 내는 모양. [전역] = 커질락-커질락.
코질락-ᄒᆞ다 형 성격이 모나다. [전역]
코칭-ᄒᆞ다 동 [전역] → ᄏᆞ찡-ᄒᆞ다.
코-ᄐᆞ대기 명 <동> [대포] → 춤-ᄀᆞ매기.
코-톤아지다 동 그릇의 테두리가 조금씩 깨져서 떨어지다. [전역] = 귀-톤아지다.
코-페렝이 명 코-딱지. [서홍 수산 김녕 가시] = 코-딱지, 코-피렝이, 코-핀재기.
코-풀다 동 코-풀다. [전역]
코-풀레기 명 코-흘리개. 콧물이 늘 흘러나와 자꾸 훌쩍거리는 사람. [전역] = 코-흘레기, 코-흘채기.
코-피렝이 명 [가시] → 코-페렝이.
코-핀재기 명 [인성] → 코-페렝이.
코-흘레기 명 [전역] → 코-풀레기.
코-흘채기 명 [전역] → 코-풀레기.
콜 명 <민> 커다란 통나무로 만든 제주 고유의 절구인 '남방에'를 찧을 때 절굿공이를 들고 함께 찧는 사람 수효의 단위. 두 사람이 '남방에' 둘레에 서서 찧으면 '두 콜'이고, 세 사람이 찧으면 '싀 콜'임. [전역]
콜롱-콜롱 부 콜록-콜록. [전역]
콤-생이 명 [전역] → 꼼-생이.
콤콤-ᄒᆞ다 형 [전역] → 콩콤-ᄒᆞ다.
콥[1] 명 *(속) 콥이여 발이여 빈다.(손톱이여 발이여 빈다.) [전역] → 톱[1].
콥[2] 명 [조수 인성 서홍 노형] → 쉐-콥.
콥-내 명 쇠기름-내(---臭).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곱-내.
콥-대사니 명 <식> 마늘(蒜). [전역] = 대사니, 송개-마농, 숭게-마농, 숭게비.
콥대사닛-대 명 마늘-종. [전역] = 대산잇-대, 숭게빗-대.
콥-상의 명 <동> 곱-상어. [전역] = 지름-상의.
콥재기 명 [전역] → 눈-곱제기.
콥제기 명 [전역] → 눈-곱제기.

콥-제우다 형 [전역] → 곱-제우다.
콥-젭다 형 [전역] → 곱-제우다.
콧-고냥 명 콧-구멍. *콧고냥이 둘임에 숨을 쉬주.(콧구멍이 둘이기에 숨을 쉬지.) [전역] = 코-고냥, 코-고망, 코-구녁. 고 곳구무.
콧-대 명 콧-대. [전역]
콧-돌레 명 코-뚜레, 쇠-코뚜레. [노형 조수 인성 화순 하원 서홍] = 콧-돌레.
콧-돌레 명 [수산 김녕] → 콧-돌레.
콧-물 명 콧-물. [전역] 고 곳믈.
콧-ᄆᆞ르 명 [전역] → 콧-ᄆᆞᆯ리.
콧-ᄆᆞᆯ렝이 명 [전역] → 콧-ᄆᆞᆯ리.
콧-ᄆᆞᆯ리 명 콧-마루. [전역] = 콧-ᄆᆞ르, 콧-ᄆᆞᆯ렝이.
콧-베기 명 코-쭝배기. [전역]
콧-벵 명 <병> 콧-병. [전역] = 콧-빙.
콧-빙 명 <병> [전역] → 콧-벵.
콧소리-ᄒᆞ다 동 코-골다. [전역]
콧-질 명 노루를 잡기 위하여 올가미를 설치하는 길목. [봉성]
콧-짐 명 콧-김. [전역]
콧-준동이 명 콧-잔등이. [전역]
콩 명 <식> 콩(大豆). [전역]
콩-각물 명 콩-꼬투리. [전역]
콩-각지 명 [전역] → 콩-깍지.
콩-고질 명 [전역] → 콩-깍지.
콩-깍지 명 콩-깍지. 콩을 털어내고 남은 껍질. [전역] = 콩-각지, 콩-고질, 콩-꼬질. 고 콩깍지.
콩-꼬질 명 [도순] → 콩-깍지.
콩-ᄂᆞ물 명 [노형 조수] → 콩-주름.
콩-ᄂᆞᆯ 명 [노형 조수] → 콩-주름.
콩-생이 명 <동> 콩-새. [전역]
콩-썹 명 [전역] → 콩-입.
콩-입 명 콩-잎(-葉). [전역] = 콩-썹.
콩-주름 명 콩-나물. [전역] = 콩-ᄂᆞ물, 콩-ᄂᆞᆯ, 콩-지름, 콩-질름. 고 콩기름.
콩주름-발 명 콩나물의 밑동에 아주 잘게 많이 난 뿌리. [세화 조천 노형 수산 조수] = 콩지름-발, 콩질름-발.
콩-죽 명 <음> 콩-죽(-鬻). [전역]
콩-지 명 <음> [가시 인성 서홍] → 콩-지의.
콩-지름 명 [인성 서홍 표선 태흥] → 콩-주름.
콩지름-발 명 [태흥 표선] → 콩주름-발.
콩-지시 명 <음> [수산 김녕] → 콩-지의.
콩-지의 명 <음> 콩-자반. 콩을 볶아서 간장에 담가 두었다가 먹는 반찬. [전역] = 콩-지, 콩-지시, 콩-지히.
콩-지히 명 <음> [노형] → 콩-지의.
콩-질름 명 [화순 하원 서홍] → 콩-주름.
콩질름-발 명 [서홍] → 콩주름-발.
콩콤-ᄒᆞ다 형 [전역] → 콤콤-ᄒᆞ다.
콩-탈 명 <식> ① 맥도-딸기. ② 멍석-딸기. [전역]
콰들락-ᄒᆞ다 동 [전역] → 파들락-ᄒᆞ다.
콰작-콰작 부 ① 물건이 똑바로 곧게 솟아오른 모양. [전역] ② 매우 성깔을 내는 모양. [전역]
콱향 명 <식> [서홍 수산 김녕] → 곽향.
쾅 조 [전역] → 광[2].
쾌지 명 <의> 쾌자(快子). [전역] = 쾌ᄌ.
쾌ᄌ 명 <의> [조수] → 쾌지.

-쿠 어미 -ㄹ까. *백록담의 저 눈은 어느제쯤이나 녹으쿠?(백록담의 저 눈은 언제쯤이나 녹을까?) [전역]

-쿠가 어미 -겠습니까. ①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상대방의 의도 또는 추측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풍헌이엔 흔 거 알아지쿠과?(풍헌(風憲)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전역] ② 용언 어간에 붙은 '-암시-·-엄시-·-염시-·-람시-' 등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상대방의 의도 또는 추측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 -쿠강, -쿠과.

-쿠강 어미 [전역] → -쿠가.

-쿠게 어미 -겠습죠.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화자가 추측하는 사실을 상대방도 인정하게끔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쿠겐 어미 -겠습니까고. 용언 어간이나 용언 어간에 붙은 '-암시-·-엄시-·-염시-·-람시-·-아시-·-어시-·-라시-·-여시-' 등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상대방의 의도 또는 추측을 묻는 '-쿠가'의 변형 '-쿠게'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묻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쿠겡 어미 -겠습니까고. 용언 어간이나 용언 어간에 붙은 '-암시-·-엄시-·-염시-·-람시-·-아시-·-어시-·-라시-·-여시-' 등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상대방의 의도 또는 추측을 묻는 '-쿠가'의 변형 '-쿠게'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묻다' 따위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쿠과 어미 *굿ᄒᆞ는 디 강 어떵 얻어먹쿠과?(굿하는 데 가서 어떻게 얻어먹겠습니까?) [전역] → -쿠가.

-쿠다 어미 -겠습니다. 용언 어간이나 또는 어간에 붙는 '-암시-·-아시-·-라시-·-여시-' 등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화자의 의도·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이거 ᄒᆞ나 삼춘신디 안네쿠다.(이것 하나를 삼촌한테 드리겠습니다.) *나 원 골아그네 욕이라도 들엉 설러불주. 자꾸 경 부탁해 가난 원 성가션 못 전디쿠다.(내가 참 말해서 욕이라도 듣고 치워 버려야지. 자꾸 그렇게 부탁하니 참 성가시어 못 견디겠습니다.) [전역]

-쿠다게 어미 -겠습니다. 용언 어간이나 또는 어간에 붙는 '-암시-·-아시-·-라시-·-여시-' 등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화자의 의도·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천 명 들어도 못ᄒᆞ쿠다게.(천 명이 나서도 못하겠습니다.) [전역]

-쿠덴 어미 -겠습니까고. 용언 어간이나 용언 어간에 붙는 '-암시-·-아시-·-라시-·-여시-' 등에 연결되어서, '합쇼' 할 자리에서 화자의 의도·추측을 나타내는 '-쿠다'의 변형 '-쿠데'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빌쿠덴 ᄒᆞ연 어디 난드르 가그네 빌엇는디.(빌겠습니다고 하여서 어디 '난드르'에 가서 빌었는데.) [전역]

-쿠뎅 어미 -겠습니다고. 용언 어간이나 용언 어간에 붙는 '-암시-·-아시-·-라시-·-여시-' 등에 연결되어서, '합쇼'할 자리에서 화자의 의도·추측을 나타내는 '-쿠다'의 변형 '-쿠데'에, 뒤의 동작이 장차 할 일인 경우에 쓰이는 '-ㅇ'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소 잡으쿠뎅 ᄒᆞ라.(소(牛) 잡겠습니다고 해라.) [전역]

쿠루릉-쿠루릉 부 곤하여 잠잘 때 콧숨을 길게 빼며 연이어 고는 소리. [전역]

쿠룽-쿠룽 부 쿨쿨. 곤하게 잠잘 때 연이어 코를 세게 고는 소리. [전역]

쿠승-ᄒᆞ다 형 구수-하다. [전역] = 쿠싱-ᄒᆞ다.

쿠시룽-ᄒᆞ다 형 맛이나 냄새가 비위에 맞아 조금 구수하다. [전역]

쿠싱-ᄒᆞ다 형 [전역] → 쿠승-ᄒᆞ다.

쿠쿠 부 어린애가 다쳐서 아파할 때 다친 부위에 입김을 불어 넣어 주는 소리. [전역]

쿨 명 종자(種子). *궤운 쿨 궤우젠 ᄒᆞ민 미운 쿨도 궤와진다.(좋은 종자 아끼려면 나쁜 종자도 아끼게 된다.) [전역]

쿰 명 삯(賃). 품-삯. *(속) 애기 어멍 쿰은 닷 뒈, 애기 업게 쿰은 ᄒᆞᆫ 말.(아기 어머니 품삯은 닷 되(升), 아기를 돌보는 사람의 품삯은 한 말(斗).) [전역] = 삭, 품[1].

쿰-깝 명 [조수] → 품삭.

쿰다 동 [전역] → 품다[1].

쿰-일 명 삯-일. [서홍 하원 화순 인성 노형 조수 어도] = 삭-일.

쿳가시-낭 명 <식> [전역] → 쿳-낭.

쿳-간절귀 명 꾸지뽕나무의 열매.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간절귀[2], 간절미, 쿳낭-열매, 쿳낭-ᄋᆞ름.



쿳간절귀

쿳-낭 명 <식> 꾸지뽕-나무. [전역] = 굿가시-낭, 귀-낭, 귓가시-낭, 쿳가시-낭, 퀏가시-낭, 퀏-낭.

쿳낭-열매 명 [김녕] → 쿳-간절귀.

쿳낭-ᄋᆞ름 명 [조수 노형] → 쿳-간절귀.

쿵쿵 부 큰 개가 짖는 소리. [전역]

퀘끼리 명 <동> [노형 조수 인성 김녕 가시] → 코끼리.

퀘눈이 명 [태흥 표선] → 퀴눈이.

퀴-눈 명 어린 장끼의 다리에만 있는 반점. [가시]

퀴눈이 명 티눈. [전역] = 퀘눈이. 고 틔눈.

퀴다[1] 동 [노형 서홍 인성 수산 김녕] → 튀다[1].

퀴다[2] 동 [어도] → 튀다[2].

퀴-호멩이 명 <도> [전역] → 성기-호멩이.

퀏가시-낭 명 <식> [서홍 노형 김녕 수산] → 쿳-낭.

퀏-낭 명 <식> [노형 김녕 수산 서홍] → 쿳-낭.

퀏낭발-배 명 꾸지뽕나무의 뿌리를 재료로 하여 만든 밧줄. 쟁기에 딸린 '부림패'나 '가린석'을 주로 만듦. [건입]

-크- 선어말 -겠-. 용언 어간과 평서법 어미 '-라' 또는 의문법 어미 '-냐' 사이에 연결되어서, 화자의 의도·추측·가능 등을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 [전역]

-크건 어미 [전역] → -커건.

-크까 어미 [전역] → -커까.

-크냐 어미 -겠냐. ① 받침 없는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에 대한 추측·의심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멧 날 메칠 조작벳디 조침앚안 짓은 검질메젠 헤 봅서, 살아지크냐?(몇 날 며칠 땡볕에 구부리고 앉아 깃은 김매자고 해 보십시오, 살 수 있겠나?) [전역] ② 용언 어간에 붙은 '-암시-·-엄시-·-염시-·-람시-' 등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에 대한 추측·의심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③ 용언 어간에 붙은 '-아시-·-어시-·-여시-·-라시-' 등에 연결되어서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 -커냐.

-크니[1] 어미 -겠니. ①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추측·의심 등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② 용언의 어간에 붙는 '-암시-·-아시-' 등에 연결되어서, 그 동작이 끝나 있음에 대한 추측·의심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크니[2] 어미 -겠네. 종결어미. *저 사름 본금지 아졍 오민 돌롸 주크니.(저 사람 본금새를 가져오면 되돌려 주겠네.) [전역]

크다[1] 동 무엇을 물 속에 담가 두다. [전역]

크다[2] 형 크다(大). *(속) 쉐눈이 크댄 헤도 이논이 크주.(소의 눈이 크다고 해도 의논(議論)이 크지.) [전역]

크드레기 명 해변에 사는 사람들이 중산간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얕잡아 일컫는 말. [한경]

-크라[1] 어미 -겠어. ①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사실에 대한 화자의 의도·추측이나 가능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고치 색깔만 보아도 맵지롱흔 게 밥찍이나 엇어지크라.(고추 색깔만 봐도 매옴한 게 밥술이나 없어지겠네.) [전역] ② 용언 어간에 붙은 '-암시-·-엄시-·-람시-·-염시-' 등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에 대한 추측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③ 용언 어간에 붙은 '-아시-' 등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에 대한

추측·가능 등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 -커라[1].

-크라[2] 어미 -겠어··-겠네. ①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사실에 대한 화자의 의도·추측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미녕 싀 필만 사크라?(무명 세 필만 사겠는가?) [전역] ② 용언 어간에 붙은 '-암시-··-엄시-··-람시-··-염시-' 등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에 대한 추측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③ 용언 어간에 붙은 '-아시-··-어시-··-여시-··-라시-' 등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완료에 대한 추측·가능 등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 -커라[2].

-크라[3] 어미 -겠어. 의문법 어미. *혜뜩혯당 비 오곡 혜뜩혯당 비 오곡 어디 검질메지크라?(맑았다가 비가 오고 맑았다가 비가 오고 어디 김맬 수 있겠어?) [전역]

-크라고나 어미 -겠더구나.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음을 화자가 과거에 경험한 데서 회상하며 감탄적으로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크라라 어미 -겠더라.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나 상태가 실현될 가능성이 있음을 화자가 과거에 경험한 데서 회상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 -커라라.

크르다 동 [전역] → 끌르다[2].

-크메 어미 -겠으니. 용언 어간에 붙어서 화자의 추측·의도를 나타내는 '-크-'에, 앞으로 하려는 말에 대하여 이유를 나타내는 '-메'가 결합된 연결어미. *그때랑 오라그네 ᄒᆞ썰 어지리는 체 ᄒᆞ여그네 거 치와불주.(그때는 와서 좀 어정거리는 체 해서 그것 치워 버리지.) [전역] = -커메, -케메.

크찡-ᄒᆞ다 형 [명월] → ᄏᆞ찡-ᄒᆞ다.

-큰가 어미 -겠는가. ①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상대방의 의도·추측·가능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② 용언 어간에 붙은 '-암시-··-엄시-··-람시-··-염시' 등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계속되고 있음에 대한 의도·추측 등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③ 용언 어간에 붙은 '-아시-··-어시-··-여시-··-라시-' 등에 연결되어서, '하게'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이 끝났음에 대한 의도·추측을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전역] = -컨가, -켄가.

큰-가지 명 맏이 가문의 자손들. [전역]

큰-각시 명 큰-마누라(正室). [전역]

큰-갈롯 명 <민> 썰어낸 돼지고기의 양을 조금 많게 하여 대나무 꼬챙이에 꽂은 것. [신흥]

큰-개 명 <지> 서귀포시 대포동의 포구. [서귀포 중문]

큰남-지기 명 <민> 큰 나무를 지키는 신. [전역]

큰-냥 명 큰 체. 높은 체. [전역]
큰냥-ᄒᆞ다 동 [전역] → 큰체-ᄒᆞ다.
큰-년 명 [전역] → 큰-뚤.
큰-놈 명 [전역] → 큰-아들.
큰-눈 명 <도> 해녀들이 물질할 때 쓰는 물안경. 알이 하나로 되어 있음. *옛날엔 종짓눈 썽 물질헷주마는 고무옷 난 후제는 큰눈 썽 ᄒᆞ메.(옛날에는 '종짓눈'을 쓰고 물질했지만 고무옷이 나온 후에는 '큰눈' 쓰고 해.) [하귀]
큰담밧-마을 명 <지> 제주시 아라1동의 한 자연마을. [아라]
큰대-메어들임 명 <민> 신굿의 막바지에 마당에 세웠던 큰대를 지워 달았던 월덕기 등을 안으로 들여놓는 의례. [전역]
큰돌-지기 명 <민> 큰 돌을 지키는 신. [전역]
큰드레-오름 명 <지> 제주시 오라동 한라산 국립공원 큰드레왓의 머리를 이루는 오름. 표고 1628미터. [오라 노형 광령] = 대두리-봉(大斗里峰).
큰드레-왓 명 <지> 제주시 오라동 남쪽 한라산 국립공원의 삼림대(森林帶)를 벗어난 위쪽에 벌어진 들판. [오라 노형 광령]
큰-뚤 명 큰-딸(長女). [전역] = 큰-년, 큰-지집아의.
큰-마누라 명 [조천 노형 어도 조수] → 마누라[1].
큰말잣-놈 명 [전역] → 큰말잣-아들.
큰말잣-아돌 명 다섯 형제 중 셋째 아들. [전역] = 큰말잣-놈, 큰말젯-아돌.
큰말젯-아돌 명 [전역] → 큰말잣-아돌.
큰물-도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 2리의 한 자연마을. [조천]
큰-물메 명 <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남서쪽, 수산리와의 사이에 있는 오름. 조선 때 봉수대가 있었음. 산자락에 펼쳐지는 수산평(水山坪) 일대는 고려 때(1276년) 제주섬을 지배하기에 이른 원(元)이 몽골말 160필을 가지고 들어와 방목하기 시작한 곳으로, 이것이 원의 목마장(牧馬場) 시초이며, 이후 섬 전역에 걸쳐 규모를 갖춘 목마장이 설치됨. '물메'(또는 물미)는 수산리의 옛 이름이기도 하며, 한길 건너에 있는 작은 산은 '족은물메'라고 부름. 표고 137.3미터. [전역] = 대수산-봉(大水山峰), 큰-물미.
큰-물미 명 <지> [전역] → 큰-물메.
큰-ᄆᆞ슴 명 큰-마음(-心). [전역] = 큰-ᄆᆞ음.
큰-ᄆᆞ음 명 [전역] → 큰-ᄆᆞ슴.
큰-베설 명 돼지 따위의 대장(大腸). [전역] = 큰-베술. 고 큰챵ᄌᆞ.
큰-베술 명 [조수] → 큰-베설.
큰-사슴이 명 <지>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에 있는 오름. 사슴이 살았다고 하며, 서쪽에 '족은사슴이'가 이웃함. 표고 474.5미터. [전역] = 대록-산(大鹿山).
큰-삿복 명 [수산] → 큰-샛복.
큰-상제 명 큰-상제(-喪制). [전역]
큰-샛복 명 큰-사폭. 남자 한복 바지에서 마루폭과 마루폭 사이에 댄 큰 폭. 왼쪽 마루폭에 댐. [전역] = 큰-삿복.

큰-소나의 명 [전역] → 큰-아돌.
큰-손지 명 큰-손자(-孫子). [전역] = 큰-손ᄌᆞ.
큰-손ᄌᆞ 명 [전역] → 큰-손지.
큰-솟 명 큰-솥(-鼎). [전역]
큰쉐-돌음 명 세 살짜리 이상의 소를 돌아가며 돌보는 일. [신양]
큰-심방 명 <민> ① 굿의 모든 것을 알고 능숙하게 진행할 줄 아는, 기량과 경력이 뛰어난 무당. [전역] ② 소무들을 이끌며 굿을 책임져 진행하는 심방. [전역]
큰-쏠 명 볍-쌀. [표선]
큰-아돌 명 큰-아들(長子). [전역] = 큰-놈, 큰-소나의, 큰-치.
큰-아바지 명 [전역] → 큰-아방.
큰-아방 명 큰-아버지(伯父). [전역] = 큰-아바지.
큰-아의 명 큰-아이. ① 큰아들이나 큰딸을 정답게 일컫는 말. [전역] ② 크게 자란 아이. [전역]
큰-안창 명 <지> [비양도] → 큰-암메창.
큰-알오름 명 <지> 제주시 한경면 낙천리 '강터을'(江月洞)에 있는 나지막한 오름. [한경]
큰-암메창 명 <지> 제주시 한림읍 비양도 비양봉에 있는 쌍분화구의 큰 분화구. [비양] = 큰-안창.
큰-어머니 명 [전역] → 큰-어멍.
큰-어멍 명 큰-어머니(伯母). [전역] = 큰-어머니.
큰-오름[1] 명 <지> 1100도로변 서귀포시와 제주시 애월읍의 경계에 걸쳐진 세 오름 중 제일 동쪽 오름. 나란히 있는 세 오름 가운데 가장 큼. 동록에 산악인 고상돈(高相敦) 기념비, 탐라각 휴게소가 있음. 표고 1143미터. [광령 금덕 회수]
큰-오름[2] 명 <지> 서귀포시 안덕면 상창리 '골른오름'의 큰 쪽 오름. 표고 491.9미터. [전역] = 대병-악(大並岳), 여진-머리.
큰-오름[3] 명 <지> [전역] → 노꼬메-큰오름.
큰-일 명 큰-일. ① 큰 예식을 치르는 일. [전역] ② 중대한 일. [전역]
큰일-나다 동 큰일-나다. [전역]
큰-작박 명 <지> [상명] → 큰작박-암메창.
큰작박-암메창 명 <지> 제주시 한림읍 상명리에 있는 느지리오름 쌍분화구의 큰 쪽 분화구. [상명] = 큰-작박.
큰-조캐 명 [전역] → 큰-조케.
큰-조케 명 큰-조카(長姪). [전역] = 큰-조캐.
큰-지그리 명 <지>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하동 북서쪽에 봉개동과의 경계에 접한 오름. 북쪽에 족은지그리가 이웃함. 표고 598미터. [교래 봉개]
큰-지집아의 명 [전역] → 큰-뚤.
큰-집 명 큰-집. ① 아우나 그 자손이 맏형이나 그 자손의 집을 일컫는 말. [전역] ② 작은집이나 그 자손이 큰마누라나 그 자손의 집을 일컫는 말. [전역] ③ 딴살림 나간 집에서 그 원집을 일컫는 말. [전역]
큰-좁녜 명 <어> [전역] → 상군.
큰-좀수 명 <어> [전역] → 상군.
큰-착 명 수소가 돼지거름을 담아 길

마로 지어 나를 수 있는 크기의 멱둥구미. [하천]

큰체-ᄒᆞ다 동 거만한 행세를 하다. [전역] = 큰냥-ᄒᆞ다.

큰-치 명 [노형] → 큰-아ᄃᆞᆯ.

큰코 다치다 구 큰코 다치다. [전역]

큰큰-ᄒᆞ다 형 크디-크다. ＊치통문 뜬 낭, 이런 막 두꺼운 큰큰ᄒᆞᆫ 낭, ᄒᆞ영 봇당 들럿당 ᄒᆞ는 치 꼽는 거.('치통문' 다른 나무, 이런 막 두꺼운 커다란 나무 해서 놓았다 들었다가 하는 키 꼿는 것.) [이호]

큰-한집 명 [인성 화순 수산 하원 서홍 표선 세화] → 마누라[1].

큰-항 명 <도> 큰-독. [전역]

클 명 틀(機械). [전역]

클러-주다 동 풀어-주다. [전역]

클르다 동 [전역] → 끌르다[2].

클-방 명 솜틀(打綿機) 같은 기계를 넣어 두는 집. [전역]

클-방에 명 <도> 정미기(精米機), 제분기(製粉機) 따위. [전역] = 클-방이, 클-뱅이.

클-방이 명 <도> [전역] → 클-방에.

클-뱅이 명 <도> [전역] → 클-방에.

큼직-ᄒᆞ다 형 큼직-하다. [전역]

-키여 어미 -겠다·-겠어. ① 용언 어간에 붙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사실에 대한 화자의 의도·추측을 단정하여 나타내는 종결어미. ＊이 사름은 저들루지 못ᄒᆞ키여.(이 사람은 괴롭히지 못하겠다.) ＊이디 강으네 소 구경ᄒᆞ곡 담배나 ᄒᆞᆫ 대 피왕 가키여.(여기에 가서 소(沼)를 구경하고 담배나 한 대 피워서 가겠다.) ＊그 바릇궤긴 궥궥찬 게 저을나사 먹어지키여.(그 바닷고기는 짜디짠 게 겨울이 되어야 먹을 수 있겠어.) [전역] ② 용언 어간에 붙은 '-암시-·-엄시-·-람시-·-염시-' 또는 '-아시-·-어시-·-여시-·-라시-' 등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그 동작의 계속 또는 완료에 대한 화자의 의도·추측을 나타내는 '-키여'의 변형 '-키예'에, 뒤의 동작이 이미 지난 일인 경우에 쓰이는 '-ㄴ'이 결합되어서, 다음에 오는 'ᄒᆞ다·말ᄒᆞ다' 등에 이어지는 연결어미. [전역] = -켜.

키우다 동 키우다. [전역]

ᄏᆞ다 동 [서홍 태흥 표선 어도] → 카다[2].

ᄏᆞ뚱-이 부 [전역] → ᄏᆞ찡-이.

ᄏᆞ뚱-ᄒᆞ다 형 [전역] → ᄏᆞ찡-ᄒᆞ다.

ᄏᆞ라 조 더러. [전역] → ᄀᆞ라.

ᄏᆞ찡-이 부 가지런-히. [전역] = ᄏᆞ뚱-이.

ᄏᆞ찡-ᄒᆞ다 형 길이나 크기 따위가 가지런하고 고르다. [전역] = 크찡-ᄒᆞ다, ᄏᆞ뚱-ᄒᆞ다, ᄏᆞ칭-ᄒᆞ다.

ᄏᆞ컬 부 [전역] → ᄏᆞᄀᆞᆯ①.

ᄏᆞᄀᆞᆯ 부 ① 모두. 다. ＊그자 오는냥 먹으멍 ᄏᆞᄀᆞᆯ 앚이난.(그저 오는 대로 먹으면서 모두 다 앉으니까.) [전역] = ᄏᆞ컬. ②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이. [전역] = ᄏᆞᄀᆞᆯ-이.

ᄏᆞᄀᆞᆯ-이 부 [전역] → ᄏᆞᄀᆞᆯ②.

ᄏᆞᄀᆞᆯ-ᄒᆞ다 형 지저분하지 않고 깨끗하다. [전역] = ᄀᆞᆯ청-ᄒᆞ다, ᄀᆞᆯᄀᆞᆯ-ᄒᆞ다.

ᄏᆞ 명 <식> 박. 박과에 속하는 한해살

이 덩굴식물. 바가지나 테왁을 만듦. [전역] = ᄀᆞᆯ락, ᄀᆞᆯ왁.



ᄏᆞ

ᄏᆞ-꿀 명 [서홍 수산] → ᄏᆞ-줄.

ᄏᆞ-메 명 박-모종(匏--). 옮겨 심기 위하여 기른 박의 싹.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ᄏᆞ-모종, ᄀᆞᆯ락-메, ᄀᆞᆯ왁-메.

ᄏᆞ메기 명 [세화 가시] → 각메기.

ᄏᆞ-모종 명 [수산 김녕] → ᄏᆞ-메.

ᄏᆞ-박 명 <도> 박을 쪼개어 씨를 파내고 만든 바가지. [전역] = ᄏᆞ-박세기, ᄀᆞᆯ락-박세기.



ᄏᆞ박

ᄏᆞ-박세기 명 <도> [수산 세화 조수] → ᄏᆞ-박.

ᄏᆞ-족박 명 <도> [노형 어도] → ᄏᆞ-직박.

ᄏᆞ-줄 명 박-덩굴(匏--). [전역] = ᄏᆞ-꿀, ᄀᆞᆯ락-줄, ᄀᆞᆯ왁-줄.

ᄏᆞ-직박 명 <도> 박을 쪼개어 씨를 파내고 만든 작은 바가지. [태흥 표선 수산 세화 조천 노형] = ᄏᆞ-족박, ᄀᆞᆯ왁-작박.

ᄏᆞ-테왁 명 <어> 해녀작업할 때 부력을 이용하여 그 위에 가슴을 얹고 헤엄치는 데 쓰는 박으로 만든 도구. [전역] = ᄀᆞᆯ락-테왁.

ᄏᆞᆫ-내 명 [표선 수산 조천 노형 어도 조수] → 칸-내.

ᄏᆞᆫᄏᆞᆫ-ᄒᆞ다 형 무엇에 물건이 가득히 담겨 있다. [노형 조수 인성]

-ᄏᆞᆫ테 어미 [전역] → -컨데.

ᄀᆞᆯ락 명 <식> [인성 조수] → ᄏᆞ.

ᄀᆞᆯ락-메 명 [서홍 노형 조수 인성] → ᄏᆞ-메.

ᄀᆞᆯ락-박세기 명 <도> [인성 화순 하원 서홍 태흥 조수] → ᄏᆞ-박.

ᄀᆞᆯ락-줄 명 [인성 서홍 조수] → ᄏᆞ-줄.

ᄀᆞᆯ락-테왁 명 [전역] → ᄏᆞ-테왁.

ᄀᆞᆯ왁 명 <식> [조수] → ᄏᆞ.

ᄀᆞᆯ왁-메 명 [조수] → ᄏᆞ-메.

ᄀᆞᆯ왁-작박 명 <도> [인성 화순 하원 어도 서홍 조수] → ᄏᆞ-직박.

ᄀᆞᆯ왁-줄 명 [조수] → ᄏᆞ-줄.

ᄀᆞᆯ왕-ᄒᆞ다 형 물건의 길이가 서로 길고 짧음이 없이 가지런하다. [전역]

ᄀᆞᆯ청-ᄒᆞ다 형 *너미 ᄀᆞᆯ청ᄒᆞᆫ 첵ᄒᆞ지 말라.(너무 깨끗한 척하지 마라.) [표선] → ᄏᆞᆯ-ᄒᆞ다.

ᄀᆞᆯᄀᆞᆯ-ᄒᆞ다 형 [수산] → ᄏᆞᆯᄏᆞᆯ-ᄒᆞ다.

ᄀᆞᆷᄀᆞᆷ-ᄒᆞ다 형 캄캄-하다. [전역] = 캄캄-ᄒᆞ다, 캉캄-ᄒᆞ다.

ㅌ

-타 어미 -냐. 동사 어간에 붙은 '-ㄹ'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상대방의 장차 할 행동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 *느네 날 심엉 갈타?(너희들 나를 붙잡아 가겠느냐?) [전역]

타글락-타글락 부 터덜-터덜. [전역]

타다[1] 동 [전역] → 카다. 고 ᄐᆞ다.

타다[2] 동 타다. ① 애가 타서 가슴 속에 불이 붙는 듯하다. [전역] ② 기후의 영향을 쉬 받아서 몸이 파리해지다. [전역]

타다[3] 동 타다. 때나 틈을 살피어 얻다. [전역]

타다[4] 동 타다. 부끄러움이나 가려움을 곧잘 느끼다. [전역]

타다[5] 동 타다(乘). [전역] = ᄐᆞ다[1].

타다[6] 동 갈라서 나눠 주는 것을 받다. [전역] = ᄐᆞ다[2].

타다[7] 동 따다(摘). *감 ᄒᆞ나만 타 줍서.(감 하나만 따 주세요.) [전역] = ᄐᆞ다[3], 따다, ᄯᅡ다.

타량 명 타령(打令). [노형 조수 인성] = 타령.

타령 명 [서홍 수산 김녕 가시] → 타량.

타리-거성 명 <민> 타리-거생(他離居生). 부모와 떨어진 다른 곳에서의 삶. [전역]

타박-타박 부 타박-타박. 힘이 없이 걸어가는 모양. [전역]

타박-ᄒᆞ다 형 나무, 풀 따위가 무성하여 위가 소복하다. [전역]

타발-ᄒᆞ다 동 연(鳶)을 공중에서 다른 연과 얼리게 하다. [노형 조수 수산 서홍] = 타벌-ᄒᆞ다.

타벌-ᄒᆞ다 동 [김녕] → 타발-ᄒᆞ다.

타복-타복 부 풀, 작은 나무 따위가 여기저기 다보록하게 있는 모양. [전역]

타실-메역 명 <식> 미역의 일종. [시흥]

타지다 동 사기그릇 따위의 가장자리가 약간 떨어지다. [전역]

탁-바기 명 [전역] → 탁-배기.

탁-배기 명 걸러 내지 않은 그대로의 된 술. [전역] = 탁-바기.

탄약 명 탕약(湯藥). [전역] = 탕약.

탈 명 <식> 딸기(苺). [전역] 고 빨기.

탈-나다 동 탈-나다. [전역]

탈-ᄆᆞ루 명 <지> [토산 세화] → 달-ᄆᆞ루.

탈시-ᄒᆞ다 동 [수산 김녕] → 탓-ᄒᆞ다.

탈-잡다 동 탈-잡다. [전역]

탐-내다(貪--) 동 탐-내다. [전역]

탐라-계곡(耽羅溪谷) 명 <지> [전역]

→ 흑궤-골째기.

탐방 명 탐방. 좀 목직한 물건이 깊은 물에 떨어질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전역] = 탐불랑.

탐불랑 명 [전역] → 탐방.

탑 명 아기가 허약할 경우에 탑처럼 탄탄하게 자라라는 뜻으로 어릴 무렵에 붙이는 별명. [전역]

탑-궤 명 <지> 한라산 국립공원 '선작지궤'의 별칭. 탑을 쌓은 것처럼 바윗돌들이 포개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 [전역] = 선작지-궤.

탓-ᄒᆞ다 동 탓-하다. 잘못을 원망하다. [전역] = 탈시-ᄒᆞ다.

탕건-골 명 <도> 탕건을 결을 때 쓰는 연장의 한 가지. 탕건 모양의 테두리를 잡는, 나무로 만들어진 틀. 위 아래 부분으로 나누어졌음. [전역]

탕건-바농 명 <도> 탕건을 겯는 바늘. 바늘귀가 동그란 모양이며 바느질하는 바늘만큼의 길이임. [전역]

탕근 명 탕건(宕巾). [전역]

탕근 놀레 명 <요> [조천 신흥] → 탕근 줃는 소리.

탕근 몾는 소리 명 <요> [조천 신흥] → 탕근 줃는 소리.

탕근 줃는 소리 명 <요> 탕건을 결으면서 부르는 민요. [조천 신흥] = 탕근 놀레, 탕근 몾는 소리.

탕근-청 명 동네의 아낙네들이 모여 앉아 탕건을 함께 겯는 집. [전역]

탕기(湯器) 명 <도> 탕기. [전역]

탕수 명 <음> [태흥 표선 수산] → 탕쉬.

탕쉬 명 <음> 고사리, 콩나물 따위를 삶아 참깨 등의 양념을 넣고 버무려 제사(祭祀)에 쓰는 나물. [전역] = 탕수.

탕약(湯藥) 명 [전역] → 탄약.

태경-주다 동 퇴김-주다. [노형] = 테견-주다.

태-독 명 <민> 대독(大瀆). 큰-항아리. [전역]

태두 명 콩팥(腎臟). [전역] = 두태, 태뒤.

태뒤 명 [전역] → 태두.

태상-백이 명 <동> 대성-마(戴星馬). [전역] = 태성-벡이. 교 쇼ᄐᆡ셩물.

태성-벡이 명 <동> [전역] → 태상-백이.

태양 명 차양(遮陽). 햇볕을 가리기 위해, 모자 따위의 앞에 댄 조각. [어도 조수]

태왈 명 <도> 설피. [영평]

태작 명 타작(打作). [전역]

태작-ᄒᆞ다 동 마구 쳐 두드리다. *입이 여우 입 모냥으로 생긴 사름 시니 그걸 여우라고 심어놘 복작 태작ᄒᆞ연.(입이 여우 입 모양으로 생긴 사람 있으니 그것을 여우라고 붙잡아 놓고서 마구 쳐 두드렸어.) [전역]

택일-기(擇日記) 명 <민> 큰일 하는 날짜를 받아 적어 놓은 종이. [전역]

터-놓다 동 터-놓다. [전역]

터-뎅기다 동 [수산 김녕] → 떠-ᄃᆞ니다.

터-ᄃᆞ니다 동 [수산 김녕] → 떠-ᄃᆞ니다.

터럭 명 털(毛). [전역] = 꺼럭, 껄[1], 털. 교 터럭.

터럭-겡이 명 <동> [김녕] → 터럭-

깅이.

터럭-긍이 명 <동> [조수] → 터럭-깅이.

터럭-깅이 명 <동> 털-게(-蟹).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터럭-겡이, 터럭-긍이, 털-깅이.

터레 조 향진격 '더레'의 변이형태로, '뒤'(後) 따위 명사에 붙는 격조사. *어떵 경 뒤터레만 베렴시니?(어찌 그렇게 뒤쪽으로만 보고 있니?) [전역]

터박-터박 부 더펄-더펄. 머리털 같은 것이 날려서 흔들리는 모양. *서방 머린 터박터박.(서방 머리는 더펄더펄.) [전역]

터-베 명 [수산 세화] → 테[2].

터신-지기 명 <민> 터신. [전역]

터웃-개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3리에 있는 포구. [남원] = 테웃-개, 테윗-개.

터-위 명 [어도 세화 조천] → 테[2].

터위 젓는 소리 명 <요> 떼(筏)를 타고 어로작업할 때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민요. 해녀나 어부들이 노를 젓는 동작과는 달리 좌우로 반원을 그리며 저으므로 '해녀노래'나 '네 젓는 소리'에 비하여 가락이 느리고 유장함. [온평 중문 보목] = 테베 젓는 소리, 테위 젓는 소리.

터윗-낭 명 [세화 조천 노형] → 테윗-낭.

터전 돋다 구 온 힘을 내어서 달아나다. 터져서 달아나다. [전역]

터주다[1] 동 구멍이 나게 하다. [전역]

터주다[2] 동 [전역] → 까주다[2].

터지다 동 터지다. ① 구멍이 나다. [전역] ② 무슨 일이 갑자기 벌어지다. [전역]

터투-아리 명 [전역] → 터투-와리.

터투-와리 명 말이 잘 나오지 않아 더듬거리는 사람. [전역] = 터투-아리.

털 명 [전역] → 터럭.

털-깅이 명 <동> [인성 조수] → 터럭-깅이.

털다[1] 동 [전역] → 떨다[1].

털다[2] 동 털다. ① 붙어 있는 것이 떨어지도록 하다. [전역] ② 있는 재물을 모조리 내다. [전역] = 떨다[2].

털다[3] 동 죽은 마소의 고기나 가죽을 베어 내다. [인성 노형 조수 어도]

털러귀 명 <병> [가시] → 학질.

털리다 동 [전역] → 철리다.

털-망 명 <도> 탕건을 결을 때 탕건골을 고정시키는 연장의 한 가지. 흔히 제주 고유의 모자인 털벙것 일부를 잘라내어서 활용함. [전역]

털-멩이 명 털-메기. [전역] = 설텅-신.

털-벙거지 명 털-벌립. [전역] = 털-벙것.

털-벙것 명 [전역] → 털-벙거지.

털-부리 명 텁석-부리. [전역]

털-북새기 명 털-북숭이. 털이 많이 난 사람. [전역]

털-뿔 명 털이 돋은 노루의 뿔. [봉성]

털-세(-勢) 명 텃-세. 먼저 자리잡은 사람이 뒤에 들어온 사람을 업신여겨 교만을 부리는 짓. [전역] = 텃-세[1].

털싹-거리다 동 털썩-거리다. [전역]

털-씰 명 털-실(毛絲). [전역]

털어-지다 동 떨어-지다(落). [전역] = 떨어-지다[2]. 고 떠러디다.

털털-ᄒᆞ다 형 털털-하다. 사람의 성격이 허술한 듯하고 소탈하다. [전역]

텀방 부 텀벙. 크고 무거운 물건이 깊은 물 속에 떨어져 들어갈 적에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전역] = 텀불랑.

텀불랑 부 [전역] → 텀방.

텁석 부 텁석.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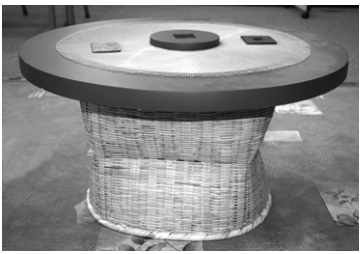
텃-삭 명 [어도 조수] → 텃-세[2].

텃-세[1] 명 [전역] → 털-세.

텃-세[2] 명 텃-세(-貰). 터를 빌린 데 대한 세. [전역] = 텃-삭.

텅 부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모양. [전역]

텅에[1] 명 <도> 갓양태를 겯는 연장의 한 가지. 대로써 결은 양태판이를 받치는 바구니. 위아래는 둥그렇게 바라지고 허리는 움푹 팬 모습으로 꾸며짐. [전역] = 텅에-구덕.



텅에구덕(아래)과 양태판이

텅에[2] 명 [전역] → 독-텅에.

텅에[3] 명 오소리 굴에 있는 오소리의 잠자리. [교래]

텅에-구덕 명 <도> [전역] → 텅에[1].

테[1] 명 테. 그릇의 조각이 어그러지지 못하게 둘러맨 줄. [어도 노형 조수]

테[2] 명 떼(筏). [조수 인성 하원 태흥] = 터-베, 터-위, 테-베, 테-우, 테-위. 고 뗴.



테[2]

테[3] 명 떼(群). [전역] 고 뗴.

테[4] 명 태(胎). *(속) 테 슨 땅 못 내린다.(태 사른 땅은 못 버린다.) [전역] = 봇, 아깃-방석, 아깃-봇. 고 틔.

테[5] 명 때(垢). [전역] = 떼. 고 띠.

테[6] 명 테. 서려 놓은 실 묶음을 세는 말. [전역]

테[7] 명 [전역] → 테역.

테견-주다 동 [김녕] → 태경-주다.

테기 명 <건> 외(椳). 흙벽을 바르기 위하여 벽 속에 엮은 나뭇가지. [전역]

테다 동 [전역] → 떼다[2].

테레 조 으로. 향진격 '더레'의 변이형태로, '안(內)·우(上)·서(西)·내(川)' 따위 명사에 붙는 격조사. [전역]

테-묻다 동 [전역] → 떼-묻다.

테물 명 [전역] → 퉤물.

테-밧 명 [전역] → 테역-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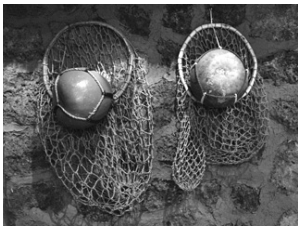
테-베 명 [표선 조천 어도] → 테[2].

테베 젓는 소리 명 <요> [표선 조천] → 터위 젓는 소리.

테역 명 ① 떼. 뿌리째 떠낸 잔디. [전역] = 테[7]. ② 잔디. [전역] = 잔뒤역.

테역-단풍 명 금-잔디. [전역]

테역-밧 명 잔디-밭. [전역] = 테-밧.
테역-벙뎅이 명 [전역] → 텟-벙에.
테-역시 명 잔디를 밭의 거름으로 주는 일. [남원]
테역-장오리 명 <지> 제주시 봉개동 남쪽 한라산 국립공원의 물장오리 북서쪽에 이웃한 오름. 표고 846미터. [전역] = 초-장올(草長兀).
테-왁 명 <어> 박의 씨통을 파내고 구멍을 막아서 해녀들이 작업할 때 바다에 갖고 가서 타는 물건. [전역] = 두룽-박.



테왁과 망사리

테-우 명 [조수] → 테[2].
테우다[1] 동 태우다. 재물(財物) 따위를 나눠 주다. [전역] 고 틔오다.
테우다[2] 동 태우다. 제사(祭祀) 끝에 재물을 나눠 주다. [전역] = 페우다[1].
테우다[3] 동 [전역] → 케우다. 고 틔오다.
테우다[4] 동 태우다. ① 애가 타서 가슴 속에 불이 붙는 듯하게 하다. [전역] ② 수레나 말 위에 몸을 얹게 하다. [전역] 고 틔오다.
테우다[5] 동 어떤 특별한 복(福)이나 기능 또는 재주를 타고 나다. *저 삼춘은 돈이 테운 사름이라.(저 삼촌은 돈 벌 복을 타고난 사람이야.) [전역]
테우다[6] 동 타다. 솜을 활줄로 튀기거나 또는 솜틀에서 부풀려 퍼지게 하다. [전역]
테-우리 명 주로 말과 소를 들에 놓아 먹이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또는 목동(牧童). [전역]
테우리-채롱 명 <도> '테우리'들이 산야로 마소를 보러 갈 때 밥을 담아 가는 채롱. [도련]
테웃-개 명 <지> [남원] → 터웃-개.
테-위 명 [인성 서홍 화순 하원 태흥 표선 수산 어도 조수] → 테[2].
테위 젓는 소리 명 <요> [화순 태흥] → 터위 젓는 소리.
테윗-개 명 <지> [남원] → 터웃-개.
테윗-낭 명 뗏-목(筏-). [노형 조수 인성 하원 화순 서홍 태흥 표선 수산] = 터윗-낭, 텟-낭.
텍-웃다 형 턱-없다. [전역]
텟-낭 명 [어도] → 테윗-낭.
텟-도독 명 떼-도둑(-賊). [전역] = 뗏-도독, 팻-도독.
텟-벙뎅이 명 [전역] → 텟-벙에.
텟-벙에 명 뗏-장. 뿌리째 떠낸 잔디의 덩어리. [전역] = 테역-벙뎅이, 텟-벙뎅이.
텡기 명 [호근] → 개-탕주.
텡기-낭 명 <식> [호근] → 텡즈-낭.
텡지 명 [서홍] → 개-탕주.
텡지-으름 명 [서홍] → 개-탕주.
텡즈-낭 명 <식> 탱자-나무. [인성 서홍 조수] = 개탕쥐-낭, 텡기-낭, 통지-낭, 퉁쥐-낭, 퉁지-낭.
토[1] 명 도. 윷가락이 한 짝만 잦혀진 때의 이름. [전역]
토[2] 조 도. 다른 것에 포함시킴을 뜻하

는 조사 '도'의 변이형태로, 'ᄒᆞ나(一)·안(內)·우(上)' 등 명사에 붙여 쓰이는 격조사. *아이고, ᄒᆞ나토 몰르쿠다.(아이고, 하나도 모르겠어요.) [전역]

토강지 명 [표선] → ᄃᆞ로-갱이.

토갱이 명 [표선 수산 노형] → ᄃᆞ로-갱이.

토기 명 <건> [서홍 수산 조수] → 퉤기.

토기-ᄇᆞ르다 동 [전역] → 퉤기-ᄇᆞ르다.

토꼐 명 <동> [전역] → 퉤끼.

토낏-징 명 <병> 욕지기. 자꾸 토할 듯 메스꺼운 느낌이 있는 증세. [전역]

토락-지다 형 단단-하다. 야무-지다. [전역]

토란(土卵) 명 <식> 토란. [전역]

토란-국(土卵-) 명 <음> 토란 뿌리에 메밀가루 또는 밀가루를 섞어 끓인 국. [성읍]

토란-대(土卵-) 명 곤대. 토란잎의 밑동. [전역]

토랑-토랑 부 토실-토실. [전역]

토롱(土壟) 명 토롱. [전역]

토리 명 숯의 수량 단위. [선흘] = ᄐᆞ리.

토막 명 토막. 크고 덩어리가 된 도막. [전역]

토막-낭 명 토막-나무. [전역]

토-불미 명 <공> [덕수] → 손-불미.

토불미 놀레 명 <요> 손풀무로 바람을 일으키며 부르는 민요. [덕수 덕천] = 청탁불미 놀레.

토산-봉(兎山峰) 명 <지> 서귀포시 표선면 토산1리 남동쪽에 있는 오름. 조선 때에 봉수대가 있었음. 표고 175.4미터. [전역] = 망-오름.

토산-한집 명 <민> 여드렛당의 신. [전역]

토수 명 [조수] → 토시.

토시 명 토시(套袖). [전역] = 토수, 손-토시.

토역-질 명 토악-질. [전역]

토적(土積) 명 좋은 땅에 남이 먼저 장사를 지내지 못하도록 흙을 봉분처럼 쌓아 만든 헛 봉분. [전역]

토적-악(土赤岳) 명 <지> [전역] → 흑붉은-오름.

토-천(土川) 명 <지> [남원] → 흘-내[2].

톨 명 <식> [서홍 수산 김녕 가시] → 톳.

톨-바당 명 <어> [전역] → 톳-바당.

톨-밧 명 <어> 톳이 많이 나는 바다. [하도]

톱[1] 명 톱(爪). 손가락, 발가락 끝의 윗면에 붙어서 늘 자라나는 얇은 조각. [전역] = 콥[1].

톱[2] 명 <도> 톱(鋸). [전역]

톱-ᄀᆞ로 명 [서홍] → 톱-밥.

톱-ᄀᆞ르 명 [수산 가시] → 톱-밥.

톱-ᄀᆞ를 명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톱-밥.

톱-ᄀᆞᆯ리 명 [수산 가시] → 톱-밥.

톱-늬 명 톱-니(鋸齒). [전역]

톱-밥 명 톱-밥(鋸屑). [전역] = 톱-ᄀᆞ로, 톱-ᄀᆞ르, 톱-ᄀᆞ를, 톱-ᄀᆞᆯ리.

톱-상의 명 <동> 톱-상어. [전역]

톱질-소리 명 <요> [전역] → 낭 싸는 소리.

톱톱-ᄒᆞ다 형 툽툽-하다. [전역]

톳 명 <식> 톳. 녹미-채(鹿尾菜). 갈조류 모자반과의 해조. [노형 조수 인성]

= 톨.

톳-바당 명 <어> 톳이 잘 자라는 바다. [전역] = 톨-바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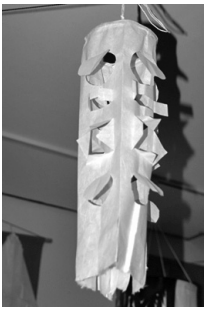
톳-헤치 명 토끼-띠. [전역]

통(桶) 명 통. ① 무엇을 담기 위하여 나무나 쇠, 플라스틱 따위로 깊게 만든 그릇. [전역] ② 통에 담긴 물건을 세는 단위. [전역]

통개 명 <도> 항아리의 일종. [대정]

통-고지 명 <도> 담배통 속을 오비어 내는 제구. [전역]

통-기 명 <민> 통 모양의 깃발. [이도 건입]



통기

통-꼬지 명 <도> 담배통에 담긴 담배에 불길을 내는 뽀족한 쇠못. [사계]

통-노리 명 분육(分肉)하지 않은 노루. [광령 교래]

통-대 명 담배-설대. [어도 조수]

통-두건[1] 명 <민> 두건의 윗부분을 꿰매지 않은 채 쓰는 두건. 성복(成服) 전에 씀. [전역]

통-두건[2] 명 <동> 달-고기. [대포]

통-머리 명 담배통의 꼬부라진 바깥 부분. [전역]

통-모개 명 담배통의 꼬부라진 안 부분. [인성 서홍 수산] = 통-모개기.

통-모개기 명 [어도 김녕] → 통-모개.

통-보리 명 통-보리. [전역] = 통보리-쌀.

통보리-밥 명 <음> 갈지(磨) 아니한 온 보리쌀로 지은 밥. [전역]

통보리-쌀 명 [전역] → 통-보리.

통-부체 명 움직이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사람을 비유하여 일컫는 말. * 먹지도 안 ᄒᆞ고 통부체 모냥으로 ᄒᆞ민 보기 싫어ᄒᆞ주.(먹지도 않고 '통부처' 모양으로 하면 보기 싫어하지.) [전역]

통-사발 명 통이 깊숙한 사발. [전역]

통-살 명 흐르는 냇물에 쓸려 은어가 떨어지면서 가두어지게 만든 시설. [강정]

통-삼 명 뱃몸(船體) 바깥 옆으로 띠처럼 둘러 붙인 나무. [인성 태흥 표선 수산 세화 조천 노형 어도 조수]

통시 명 <건> *(속) 사둔칩광 통신 멀어사 좋나.(사돈집과 변소는 멀어야 좋다.) [전역] → 돗-통시. 고 통싀.

통-쒜 명 <도> 자물-쇠. [전역]

통-악(桶岳) 명 [성산] <지> → 통-오름.

통-오름 명 <지> 서귀포시 성산읍 신산리 독자봉 북쪽, 난산리와의 경계에 있는 오름. 표고 143미터. [성산] = 통-악(桶岳).

통-잔 명 담배-통. 담배를 담는 부분. [어도]

통지[1] 명 <건> [어도] → 돗-통시.

통지[2] 명 [남원] → 개-탕주.

통지-낭 명 <식> [남원] → 텡ᄌᆞ-낭.

통-진 명 댓-진. 담뱃대 구멍에 낀 까

맣고 끈끈한 진. [전역]

통-치마 명 <의> [전역] → 통-치메.

통-치메 명 <의> 통-치마. [전역] = 통-치마.

통통-ᄒᆞ다 형 통통-하다. 붓거나 살찌거나 해서 몸피가 굵다. [전역]

툴-ᄒᆞ다 형 세련되지 못하고 거칠거나 잘 다듬어지지 않아 투박하다. [전역]

퉁소 명 퉁소(洞簫). [전역] = 퉁수.

퉁수 명 [전역] → 퉁소.

퉤 명 토(吐). 한문으로 된 글을 읽을 때 구절 끝에 붙여 읽는 우리말 부분. [전역]

퉤기 명 <건> 설외(-椳), 눌외들을 메워서 새끼 따위로 얽어 놓은 것. [전역] = 토기.

퉤기-ᄇᆞ르다 동 윗가지로 엮어 놓은 외(椳)에 이긴 진흙을 붙이다. [전역] = 토기-ᄇᆞ르다.

퉤꼐 명 <동> [전역] → 퉤끼.

퉤끼 명 <동> 토끼(兎). [전역] = 토꼐, 퉤꼐. 고 톳기.

퉤물 명 잔치나 제사를 지낸 후에 남은 음식 따위. *정심 때 우리집의 왕 식게 퉤물 먹으라.(점심 때 우리 집에 와서 제사 음식 먹어라.) [전역] = 테물.

퉤색 명 퇴색(褪色). [전역]

퉤송-ᄒᆞ다 동 <민> 푸닥거리를 하여 잡귀를 쫓아 버리다. [전역]

퉤침 명 퇴침(退枕). [전역]

퉤-ᄒᆞ다[1] 동 퇴-하다(退--). [전역]

퉤-ᄒᆞ다[2] 동 [전역] → 튀-ᄒᆞ다.

퉷-도리 명 <건> 툇-도리. [전역]

퉷-마리 명 <건> 툇-마루. [인성 서홍 수산]

퉷-지동 명 <건> [전역] → 개윗-지동.

퉷-지둥 명 <건> [전역] → 개윗-지동.

퉷-짓 명 <건> [전역] → 개윗-지동.

튀다[1] 동 음식물이나 어떤 물건에 몹시 탐을 내다. *자원 돗궤기만 보민 튀어.(저 애는 돼지고기만 보면 '튀어'.) [전역] = 퀴다[1].

튀다[2] 동 뛰다(躍). [전역] = 뛰다, 퀴다[2]. 고 뛰다.

튀여-들다 동 [전역] → 뛰여-들다.

튀여-오다 동 [전역] → 뛰여-오다.

튀우다 동 튀기다. 끓는 기름에 넣어 부풀어 나게 하다. [전역]

틔우다 동 [전역] → 띄우다.

튀-ᄒᆞ다 동 튀-하다. [인성 서홍 수산] = 퉤-ᄒᆞ다[2].

트다[1] 동 트다. 새벽에 동쪽이 훤해지다. [전역]

트다[2] 동 트다. 막힌 것을 통하게 하다. [전역]

트다[3] 동 뜨다. 물기 있는 물체가 제 훈김으로 썩기 시작하다. [전역] 고 쁘다.

트덤-트덤 부 뜨덤-뜨덤. [전역] = 트듬-트듬.

트듬-트듬 부 [전역] → 트덤-트덤.

트레 조 으로. 향진격 '더레'의 변이형태로, '안(內)·우(上)·서(西)·내(川)' 따위 명사에 붙는 격조사. *그 우트레 올라가지 말라.(그 위로 올라가지 마라.) [전역]

트로 조 으로. 향진격 '더레'의 변이형태로, '안(內)·바꼇(外)·우(上)' 등의 명사에 연결되어 쓰이는 격조사.

[전역]

트멍 명 [전역] → 틈.

트멍-나다 동 [전역] → 틈-나다.

트집 명 트집. [전역]

트집-잡다 동 트집-잡다. [전역]

튼-나다 동 잊어버렸던 것을 생각해 내다. *아 이년이 무신 재간을 ᄒᆞ엿고나 ᄒᆞᆫ 걸 그제사 튼난.(아 이년이 무슨 재간(才幹)을 하였구나 한 것이 그제야 생각났어.) [전역] = 튼-내다.

튼-내다 동 *암만 생각헤도 가단 보민 똑 튼내영 골아점직만 ᄒᆞ우다.(아무리 생각해도 가다가 보면 꼭 떠올려서 말해질 듯 합니다.) [전역] → 튼-나다.

튼-봉ᄉᆞ 명 눈뜬-장님. ① 글을 모르는 사람. [전역] ② 무엇을 보고도 알지 못하는 사람. *나 시집완 튼봉ᄉᆞ처록 산 지 막 오래다.(나 시집와서 눈뜬장님처럼 산 지는 아주 오래다.) [전역] = 튼-쉐경.

튼-석 명 썰물로 포구 안으로 배가 들어오지 못할 동안에 배를 매어 두는 곳. [전역]

튼-쉐경 명 [전역] → 튼-봉ᄉᆞ.

튼튼-ᄒᆞ다[1] 형 튼튼-하다. [전역]

튼튼-ᄒᆞ다[2] 형 몸이 부어올라 감각이 별로 없다. [전역]

튿다[1] 동 싸우다. *부뜨민 씨왓이여, 씨왓은 튿은다, 튿으민 장ᄃᆞᆨ이여.(붙으면 시앗이다, 시앗은 싸운다, 싸우면 수탉이다.) [전역]

튿다[2] 동 뜯다. [전역]

틀 명 산딸나무의 열매. *(속) 틀 타먹은 하르방 허대듯 ᄒᆞᆫ다.(틀 따먹은 할아버지 수다떨듯 한다.) [전역]



틀

틀-낭 명 <식> 산-딸나무. 박달-나무. [전역]

틀다 동 틀다. 반대 쪽으로 돌리다. [전역] = 데우다[2].

틀리다 동 틀리다. ① 맞지 아니하다. [전역] ② 꾀하는 일이 어긋나다. [전역] = 뜰리다.

틀림-엇다 형 [전역] → 틀림-웃다.

틀림-읎다 형 [전역] → 틀림-웃다.

틀림-웃다 형 틀림-없다. [전역] = 틀림-엇다, 틀림-읎다.

틀어-지다 동 틀어-지다. [전역]

틈 명 틈. ① 겨를. [전역] ② 벌어져 사이가 난 곳. [전역] = 트멍.

틈-나다 동 틈-나다. ① 겨를이 생기다. [전역] ② 사이가 벌어지다. [전역] = 트멍-나다.

틈-자다 동 뜸-들다. *보리밥은 틈자닥지 맛이 좋아.(보리밥은 뜸이 들수록 맛이 좋아.) [전역]

틈-타다 동 틈-타다. 겨를을 이용하다. [전역] = 틈-ᄐᆞ다.

틈틈-이 부 틈틈-이. ① 겨를이 있는 때마다. [전역] ② 틈이 난 구멍마다. [전역]

틈-ᄐᆞ다 동 [전역] → 틈-타다.

틉틉-ᄒᆞ다 형 톱톱-하다. ＊오합주는 보양식으로 여자덜도 먹읍니께. 먹기가 틉틉ᄒᆞ고 막 맛 좋수다.(오합주는 보양식으로 여자들도 먹습니다. 먹기가 톱톱하고 아주 맛 좋습니다.) [성읍]

틔 조 에. 처소격 '에'의 변이형태로, '우(上)·밋(下)' 따위 명사에 연결되어서 쓰이는 격조사. ＊탈낭 겁죽은 물장오리 밋틔 아이 가민 읎어요.(딸기나무 껍질은 물장오리(水長兀) 밑에 아니 가면 없어요.) [전역]

틔는 조 엘랑. 체언에 붙은 '에'에, 지정하여 제시하는 뜻의 '는'이 결합된 격조사 '에는'의 변이형태로, '안(內)·우(上)' 따위 명사에 연결되어 쓰이는 격조사. [전역]

틔랑 조 엘랑. 체언에 붙어서, '에는'의 뜻을 강조하는 '에랑'의 변이형태로, '우(上)' 따위 명사에 연결되어 쓰이는 처소격 조사. [전역]

틔레 조 으로. 향진격 '더레'의 변이형태로, '안(內)·우(上)' 따위 명사에 연결되어서 쓰이는 격조사. [전역]

틔서 조 에서. 처소격 '에서'의 변이형태로, '안(內)·우(上)' 따위 명사에 연결되어 쓰이는 격조사. [전역]

틘 조 엘랑. '틔는'이 줄어든 말. [전역]

티[1] 명 티. ① 먼지처럼 아주 잔 부스러기. [전역] ② 조그마한 흠. [전역]

티[2] 명 파리가 장독에 슬어 놓은 알에서 까진 구더기. [전역]

티[3] 명 데. 'ㄹ'받침 밑에 쓰임. ＊ᄉᆡ상 사름 날 본 말 말라. 갈 티 읏언 앚아라 ᄒᆞᆫ다.(세상 사람 날 본 말 마라. 갈 데 없어 앉더라 한다.) [전역]

-티[1] 어미 -니. 동사 어간에 붙은 '-ㄹ'에 연결되어서, '해라' 할 자리에서 상대방의 장차 할 행동에 대하여 묻는 뜻을 나타내는 의문법 어미인데, 앞에 의문사가 옴. ＊이걸 가졍 강 무시거 홀티?(이것을 가지고 가서 무엇을 하겠느냐?) [전역]

-티[2] 어미 -는지. 용언의 어간에 붙은 '-ㄹ'에 연결되어서 장차의 행동이나 상태에 대하여 막연한 의문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전역]

티끌 명 [전역] → 몬독.

티-일다 동 파리가 장독 같은 데 슬어 놓은 알이 구더기로 변하다. [전역]

팃-물 명 뜨물(米泔). [전역]

ᄐᆞ가리 명 턱-살. '아래턱(下顎)'의 낮춤말. [전역] = ᄐᆞ고마지, ᄐᆞᆨ사리.

ᄐᆞ고마지 명 [어도 하원 조수] → ᄐᆞ가리.

ᄐᆞ나다 형 다르다(異). ＊어떵 ᄒᆞ믄 정성제가 ᄐᆞ나코?(어떻게 하면 저리 형제가 다를까?) [전역] = 다르다, 달르다, ᄯᅳ나다, ᄯᅳ다[2], ᄯᅥ나다, ᄐᆞ다[4], ᄐᆞᆫ나다.

ᄐᆞ는 놈 구 날(飛)고 뛰는 사람 위에 타(乘) 앉는 사람. 곧 잘난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이 있음을 가정적으로 비유하여 이르는 말. [전역]

ᄐᆞ는-몰 명 행차(行次)할 적에 타고 다니는 말. [전역]

ᄐᆞ다[1] 동 [전역] → 타다[5].

ᄐᆞ다[2] 동 [노형 조수 수산] → 타다[6].

ᄐᆞ다[3] 동 [전역] → 타다[7].

ᄐᆞ다[4] 형 [서홍 수산 김녕] → ᄐᆞ나다.

ᄐᆞ다-지다 형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여 사소한 일에도 따지고 다툼을 잘하는 성행(性行)이 있다. ＊저 사름 너미 ᄐᆞ다젼 ᄀᆞ찌 못 놀크라.(저 사람 너무 ‘ᄐᆞ다져서’ 같이 못 놀겠어.) [전역]

ᄐᆞ돌-ᄐᆞ돌 부 도톨-도톨. [전역]

ᄐᆞ라-지다 동 올바르지 않고 비뚤어지다. ＊줄 ᄐᆞ라졋저. ᄒᆞ썰 똑바로 사라.(줄 비뚤어졌다. 좀 똑바로 서라.) [인성 노형 조수 서홍]

ᄐᆞ래기 명 바르지 못한 물건. [전역]

ᄐᆞ로 부 [전역] → ᄯᆞ로.

ᄐᆞ리 명 [선흘] → 토리.

ᄐᆞ리롯-ᄒᆞ다 형 조금 비스듬하게 기울어지다. ＊두건을 토리롯ᄒᆞ게 쓰지 말라.(두건을 비스듬히 쓰지 마라.) [전역]

ᄐᆞ리우다 동 반듯하지 않고 기울어지게 하다. [전역]

턱[1] 명 턱(顎). [전역] 고 턱.

턱[2] 명 턱. ① 까닭이나 이치. [전역] ② 그만한 정도나 처지. [전역]

턱[3] 명 평평한 곳의 어느 한 부분이 갑자기 조금 높이 된 자리. [전역]

턱[4] 명 턱. 남에게 베푸는 음식 대접. [전역]

턱-바데 명 [서홍 수산] → 턱-받이.

턱-받이 명 턱-받이. [전역] = 턱-바데.

턱사리 명 [노형] → ᄐᆞ가리.

턱-싯은것 명 턱-찌꺼기. [전역]

턱-없이 부 [전역] → 턱-읏이.

턱-엇이 부 [전역] → 턱-읏이.

턱-읎이 부 [전역] → 턱-읏이.

턱-읏이 부 턱-없이. 이유(理由)에 닿지 않게. ＊거 암만 생각ᄒᆞ여도 턱읏이 받은 거 닮다.(거 아무리 생각해도 턱없이 받은 것 같다.) [전역] = 턱-없이, 턱-엇이, 턱-읎이.

턱-지다 동 턱-지다. [전역]

톤깍-신 명 총을 따로 비벼 놓고 결은 짚신. [건입]

톤나다 형 [전역] → ᄐᆞ나다.

톤-머리 명 딴-머리. [전역] = 건지[1].

톤-ᄆᆞ슬 명 [전역] → 똔-ᄆᆞ을.

톤-ᄆᆞ슴 명 [전역] → 똔-ᄆᆞ슴.

톤-ᄆᆞ을 명 [전역] → 똔-ᄆᆞ을.

톤-ᄆᆞ음 명 [전역] → 똔-ᄆᆞ슴.

톤-사념 명 [전역] → 똔-살렴.

톤-살렴 명 [전역] → 똔-살렴.

톤-살림 명 [전역] → 똔-살렴.

톤톤-ᄒᆞ다 형 탄탄-하다. [전역]

톧다 동 뜯다. ＊청명이 뒈민 ᄆᆞᆯ은 ᄒᆞ루에 ᄒᆞᆫ 말 촐을 톧곡, 쉐는 ᄒᆞ루에 닷 뒈 촐을 톧나.(청명이 되면 말은 하루에 한 말 꼴을 뜯고, 소는 하루에 다섯 되의 꼴을 뜯는다.) [전역] 고 뜯다.

톧아-지다 동 서로 붙었던 것이 각각으로 갈라지다. 떨어-지다. 뜯어-지다. ＊(속) 웨바농 코 톧아지기 쉽다.(외바늘 귀 떨어지기 쉽다.) [전역]

톨 명 깊은 산속이 아닌 산 변두리의 수풀. [전역]

톨고지 명 딸꾹-질.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톨곡지.

톨곡지 명 [김녕] → 톨고지.

톨-노리 명 숲에 사는 노루. [도순]

톨-동산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2리에 있는 자연 지명. [남원]

틀레 명 <공> 풀무 공예에서 쇳물을 길어 나르는 그릇인 '오시장태'를 운반하기 위하여 얽어 만든 끈. [덕수]
퉁쥐 명 [김녕] → 개-탕주.
퉁쥐-낭 명 <식> [김녕] → 텡즈-낭.
퉁지 명 [수산 가시 성읍] → 개-탕주.
퉁지-낭 명 <식> [서홍 가시] → 텡즈-낭.
퉁지-목걸이 명 탱자로 만든 목걸이. * 개에 개ᄑᆞ리 일어가민 '퉁지목걸이'를 걸어주어사 ᄒᆞ주.(개에 파리가 끓어 가면 탱자목걸이를 걸어 주어야 하지.) [성읍]

ㅍ

파군-봉(破軍峰) 명 <지> [전역] → 바굼지-오름[2].
파궤 명 파괴(破壞). [전역] = 파긔.
파긔 명 [인성 서홍 수산] → 파궤.
파니[1] 명 뙈기. 일정하게 경계를 지은 논밭의 구획을 세는 단위. [노형 조수 인성 화순 하원 서홍]
파니[2] 명 [서홍 태흥 표선 덕수] → 고지[3].
파니[3] 명 이엉을 세는 단위. [덕수]
파다 동 파다(掘). [전역] = ᄑᆞ다.
파닥-거리다 동 [전역] → ᄑᆞ닥-거리다.
파닥-이다 동 파닥-이다. 파닥거리는 짓을 하다. [전역] = 파댁-이다.
파닥-파닥 부 파닥-파닥. [전역] = ᄑᆞ닥-ᄑᆞ닥.
파댁-이다 동 [전역] → 파닥-이다.
파들락-ᄒᆞ다 동 ① 사람이나 동물이 정지된 상태에서 갑자기 움직이거나 일어나다. [전역] ② 상대방의 언행에 갑자기 화를 내다. [전역] = 와들랑-ᄒᆞ다, 콰들락-ᄒᆞ다.
파락 명 거루 따위 배의 양옆 위쪽에 바깥으로 둘러 붙인 나무. [전역]
파랑당돌-영기 명 <민> [전역] → 파랑당돌-영서멩기.
파랑당돌-영서멩기 명 <민> 고관 행차 때 드는 기(旗)들. '파랑당돌'은 기의 색채를 표현한 것이고 '영서멩기'는 '영사명기'(令司命旗)임. [전역] = 파랑당돌-영기, 파랑당돗-기.
파랑당돗-기 명 <민> [전역] → 파랑당돌-영서멩기.
파리롱-ᄒᆞ다 형 파르스름-하다. [전역] = ᄑᆞ리롱-ᄒᆞ다.
파삭-파삭 부 파삭-파삭. 부피가 앙상한 물건이 메말라 쉽게 부스러지는 모양. [전역]
파쉬 명 <도> [인성 서홍] → 파쒜.
파싹[1] 부 단단한 물건을 깨뜨릴 때 나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전역]
파싹[2] 부 더할 나위 없이. [전역]
파쒜 명 <도> 바소(破鍬). 곪은 데를 째는 침.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파쉬, 판수, 판쉬, 판쒜.
파장-치다(罷場--) 동 ① 시장 따위가 파하여 끝나다. [전역] ② 하던 일을 없이 하여 그 판을 끝내다. [전역]
파짝 부 가볍고 빠르게 덤비거나 날아 붙는 모양. [전역]
파-하다(罷--) 동 ① 어떤 일을 그만두거나 마치거나 그치다. [전역] ② 죽다. [전역]
판-나다 동 판-나다.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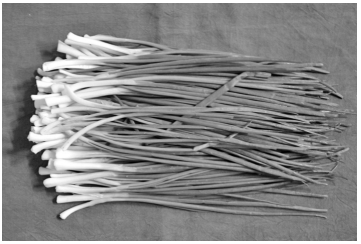
판-내다 동 그르치게 하다. [전역]
판수 명 <도> [수산] → 파쒜.
판쉬 명 <도> [김녕 가시] → 파쒜.
판쒜 명 <도> [김녕] → 파쒜.
판찍 부 씻은 듯이 아무것도 없는 모양. 전혀. [전역] = 퍼찍.
판포-악(板浦岳) 명 <지> [전역] → 널개-오름.
팔 명 <병> 삼. 병으로 눈동자에 생긴 흰 점이나 붉은 점. [전역]
팔각-낭 명 <식> 붓순-나무. [전역]
팔딱 부 [전역] → 폴딱.
팔딱-거리다 동 [전역] → 폴딱-거리다.
팔락 부 [전역] → 폴락.
팔락-거리다 동 [전역] → 폴락-거리다.
팔만금세-질 명 <민> 팔문금사진(八門金蛇陣). 팔문(八門)을 이용한 진법(陣法). [전역] = 금새-진.
팔수 명 말(馬)의 나이 여덟 살. [전역] = 팔쉬.
팔수-마 명 <동> [전역] → 팔수-매.
팔수-매 명 <동> 나이가 여덟 살이 된 말(馬). [전역] = 팔수-마, 팔쉬-매.
팔순이 명 여덟째 딸에게 어렸을 때에 붙이는 별명. [전역]
팔쉬 명 [전역] → 팔수.
팔쉬-매 명 <동> [화순 하원 조수] → 팔수-매.
팔ᄌᆞ 명 팔자(八字). [전역] 고 팔ᄌᆞ.
팔ᄌᆞ-궂다 형 팔자(八字)가 좋지 못하다. [전역] = 팔ᄌᆞ-놎다.
팔ᄌᆞ-놎다 형 [전역] → 팔ᄌᆞ-궂다.
팔풍-이 명 [수산 조수] → 건풍-다리.
팟-재 명 <동> [가시] → 풋-재열.
팡 명 말(馬)을 타고 내리거나 짐을 지고 부리거나 할 적에 대(臺)가 되게 끔 놓인 넓적한 큰 돌 따위. *퍼찍게 아무 것도 읏어노난, 놈의 팡보단 낫을 거여.(전혀 아무 것도 없으니까, 남의 '팡'보다는 나을 것이다.) *(속) 짐 진 놈이 팡을 춪나.(짐을 진 놈이 '팡'을 찾는다.) [전역]
팡팡 부 펑펑. 세차게 쏟아지거나 내리거나 솟는 모양. *눈이 팡팡 왐수다.(눈이 펑펑 오고 있어요.) [전역]
패[1] 명 패. 몇 사람이 어울린 동아리나 무리. [전역]
패[2] 명 <식> 패. 흑갈색 해조류. *우리 못 살 때에 패덜 하영 먹어낫주. 물릇에 ᄀᆞ찌 솖앙.(우리 못 살 때에 패들 많이 먹었었지. 무릇에 같이 삶아서.) [이호]



패[2]

패[3] 명 바. 'ㄹ'받침의 다른 말 아래에 왔을 경우 이따금 쓰임. *가시 웨에 걸릴 패 읏다.(가시 외에 걸릴 바 없다.) [전역]
패까착 부 대가 꺾일 때 나는 소리. [명월]
패-듬북 명 <식> 바다 식물인 듬북의 한 종류. [하도 동복]
패랍다 형 [전역] → 페랍다.
패-마농 명 <식> 파(葱). [전역] = 마

농[2], 뻥이-마농.



패마농

패-밥 명 <음> 보리쌀에 패를 섞어서 지은 밥. 구황음식의 한 가지. ＊옛날 숭년에 패들 ᄒᆞ여당 물릇에 솖안 패밥 멘들안 먹엇주.(옛날 흉년에 '패'들 채취해다 무릇에 삶아 '패밥'을 지어서 먹었지.) [하귀]

패-장(-長) 명 ① <어> '모자반통'에서 '모자반'을 채취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구성원 중의 우두머리. [사계] ② <어> 미역을 감시하는 사람. [고산] ③ 집단 꿩 사냥 때의 우두머리. [성산 수산]

패-짓다 동 패-짓다. 몇 사람이 어울리어 한 무리를 이루다. [전역]

패-ᄒᆞ다(敗--) 동 패-하다. 싸움에 지다. [전역]

팩 부 퐥. 줄이나 새끼 따위가 힘 없이 끊어지는 모양. [전역] = 퐥.

팻-도독 명 [전역] → 텟-도독.

팻-새왓 명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마련한 띠밭. [수원]

팻-쉐 명 [광령] → 번-쉐.

퍼기 명 [서홍 수산 가시] → 페기.

퍼-내다 동 퍼-내다. [전역]

퍼닥-퍼닥 부 퍼덕-퍼덕. [전역]

퍼달-퍼달 부 새가 날 때 날개를 퍼덕이는 모양. ＊어디 잇단 가마귀놈 퍼달퍼달 놀아오란.(어디 있다가 까마귀놈이 퍼덕퍼덕 날아와서.) [전역]

퍼데기-ᄂᆞᆯ 명 속이 없는 배추. ＊퍼데기ᄂᆞᆯ로 뒌장국 끌리민 맛 좋나.(속 없는 배추로 된장국을 끓이면 맛 좋다.) [전역]

퍼때기 명 보자기. [어음]

퍼뜰-퍼뜰[1] 부 솔개 따위가 멀리서 날개를 퍼덕거리며 한가롭게 나는 모양. [전역]

퍼뜰-퍼뜰[2] 부 [전역] → ᄑᆞ뜰-ᄑᆞ뜰.

퍼렁-ᄒᆞ다 형 퍼렇다. [전역]

퍼-먹다 동 퍼-먹다. [전역]

퍼-부수다 동 ＊가근에 퍼부수왕근에 오라방광 싸와도 놈 ᄇᆞ래는 디서 사름 죽이지도 못ᄒᆞᆯ 게고.(가서 퍼부어서 오빠와 싸워도 남 보는 데서 사람 죽이지도 못할 것이고.) [노형] → 퍼-붓다[2].

퍼-붓다[1] 동 퍼-붓다. 비, 눈 따위가 억세게 마구 쏟아지다. [전역]

퍼-붓다[2] 동 저주, 욕설, 비난 따위를 마구 하다. 퍼-붓다. [전역] = 퍼-부수다.

퍼지다 동 퍼지다. ① 끝이 넓적하여지다. [전역] ② 어떤 물질이나 현상 따위가 넓은 범위에 미치다. [전역] ㊟퍼디다.

퍼찍 부 ＊퍼찍게 아무 것도 웃어 노난, 놈의 팡보다 낫을 거여.(전혀 아무 것도 없으니까, 남의 '팡'보다 나을 거야.) [전역] → 판찍.

펀개 명 번개(雷). [전역] = 번게, 펀게.

펀게 명 [전역] → 펀개.

펀두룸-이 부 [전역] → 펀두룽-이.
펀두룽-이 부 아무런 변화도 없이 그대로 있는 상태. 물끄러미 앉아 있는 모양. [전역] = 펀두룸-이, 펜지룽.
펀두룽-ᄒᆞ다 형 물끄러미 앉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다. *얼굴만 둔둔이 ᄇᆞ렘만 ᄒᆞ고, 그자 펀두룽ᄒᆞ엿어.(얼굴만 단단히 바라보기만 하고 그저 '펀두룽'하였어.) [전역] = 펜드룽-ᄒᆞ다, 펜지룽-ᄒᆞ다.
펀직-ᄒᆞ다 형 [구좌] → 펀찍-ᄒᆞ다.
펀찍-ᄒᆞ다 형 아무 일도 없이 가만히 있다. *아이덜은 펀찍ᄒᆞ여 잇어. 또꼬냥엔 나팔이 꼽아젼 잇어부난.(아이들은 가만히 있어. 똥구멍에는 나팔이 꽂혀져 있어서.) [전역] = 펀직-ᄒᆞ다.
펀질-펀질 부 장작 따위가 쩍쩍 쪼개지는 모양. *펀질펀질 벌러지라.('펀질펀질' 뻐개져라.) [전역]
펀찍 부 ① 씻은 듯이 아무것도 없는 모양. [전역] ② 조금도 의심할 것 없이 말갛게. [전역] ③ 빛이 잠깐 비치는 모양. [전역]
펄 명 아주 물기가 많은 질척질척한 진흙. [전역]
펄-개 명 <지> [남원] → 풀-개.
펄-겡이 명 <동> 주로 개펄에 사는 게(蟹). [수산 가시 김녕] = 펄-긍이.
펄-긍이 명 <동> [조수] → 펄-겡이.
펄곰 명 '걸바다'와 '펄바다'의 경계선. [신양]
펄딱 부 펄떡. [전역]
펄랑 부 펄렁. [전역]
펄럭 부 펄럭. [전역]
펄-바당 명 바닥이 펄로 깔려 있는 바다. *펄바당에 나는 전라도 깅인 금방 헤영근에 젓 담아도 맛이 좋는 거라라.('펄바당'에 나는 전라도 게는 금방 채취하여 젓을 담가도 맛이 좋은 것이더라.) [전역]
펄싹 부 펄썩. 갑자기 주저앉는 모양. [전역]
펄-주낫 명 <어> 갯벌로 이루어진 바다에 놓는 주낙. [태흥] = 걸-주낫.
펄-튀다 동 물기가 많아 질척질척한 진흙이 무엇이 부딪칠 적에 뛰어오르다. [전역]
펄-해솜 명 <동> 검푸른빛이 감도는 해삼. 제주도에는 붉은빛이 감도는 해삼이 대부분이지만, 검푸른빛이 감도는 해삼도 있었음. [북촌]
페 명 [전역] → 표(標).
페기 명 포기. [전역] = 퍼기, 포기, 푸기, 폴기. 고퍼기.
페-까랍다 형 [성읍] → 페랍다.
페다[1] 동 [서홍 수산 김녕] → 케다[2].
페다[2] 동 패다. 마구 때리다. [어도 노형]
페랍다 형 성질이 신경질적이고 사납기 때문에 다루기가 힘들다. *그 사름 어린 때에는 아주 성질이 페라왓어.(그 사람 어렸을 때에는 아주 성질이 '페라웠어'.) [전역] = 페랍다, 페-까랍다. 고페롭다.
페랑이 명 [전역] → 페렝이.
페렝이 명 패랭이. 보리짚이나 댓개비로 엮어 만든 농립(農笠). [전역] = 페랑이.
페리 명 상제(喪制)가 쓰는, 댓개비로 결어 만든 갓(笠). [전역]

페-싸다 동 [전역] → 베르-싸다①.
페-쓰다 동 [전역] → 베르-싸다①.
페왁-줴왁 부 쥐락-펴락. [전역] = 줴왁-페왁.
페우다[1] 동 [인성 노형] → 테우다[2].
페우다[2] 동 펴다. [전역]
페적 명 [전역] → 표적(表迹).
페주-박 명 <민> 표주-박. [전역]
페지 명 [전역] → 표지.
펙 부 [전역] → 팩.
펙-ᄒᆞ다 동 퍅-하다(愎). [전역]
펜-가르다 동 [전역] → 펜-갈르다.
펜-갈르다 동 편-가르다. [전역] = 펜-가르다.
펜-데 명 <도> 편-틀. 떡을 괴어 올릴 때 쓰는 굽이 높은 그릇. [노형 조수 인성] = 펜-틀.
펜드룽-ᄒᆞ다 형 [전역] → 펀두룽-ᄒᆞ다.
펜-들다 동 편-들다. [전역]
펜벡-ᄒᆞ다 동 편벽-하다. 한쪽 편을 들다. [전역]
펜-씨롬 명 [전역] → 펜-씨름.
펜-씨름 명 씨름꾼을 두 패로 갈라서 하는 씨름. [전역] = 펜-씨롬.
펜안 명 편안(便安). *(속) 흔 자리가 펜안ᄒᆞ민 벡 자리가 펜안ᄒᆞ다.(한 자리가 편안하면 백 자리가 편안하다.) [전역]
펜안이 가난 구 편안이 가난. [전역]
펜지 명 편지(片紙). [전역]
펜지룽 부 *망치로 맞아 보난 펜지룽.(망치로 무수어 보니 '펜지룽'.) [전역] → 펀드룽-이.
펜지룽-ᄒᆞ다 형 [전역] → 펀두룽-ᄒᆞ다.
펜-짜다 동 [전역] → 펜-쯔다.
펜-쯔다 동 편-짜다. [전역] = 펜-짜다, 펜-츠다.
펜-츠다 동 [노형 인성 서홍] → 펜-짜다.
펜-틀 명 <도> [인성 서홍 가시 수산] → 펜-데.
펜펜-ᄒᆞ다 형 편편-하다. [전역]
펜-ᄒᆞ다 형 편-하다. 괴로움이 없다. [전역]
펠롱-펠롱[1] 부 빛이 잠깐잠깐 연하여 비치는 모양. [전역]
펠롱-펠롱[2] 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눈을 깜박이며 태연한 모양. [전역]
펭 명 병(甁). [전역] = 벵[1].
펭겟-낭 명 <식> 탕개-목. [인성 화순 하원 수산 조천 노형 어도 조수]
펭고-데 명 <건> [조수] → 펭고-듸.
펭고듸 명 <건> 평고-대(平高臺). [전역] = 거왕, 펭고-대, 펭고-데, 평고-대.
펭-귤 명 <식> [수산] → 벵-귤.
펭-도로기 명 [조수] → 펭이.
펭돌-이 명 <민> 세경놀이에 등장하는 인물. 세경놀이에서 병(甁)을 치마 속에 감추었다가 꺼내 놓음으로써 이 인물의 탄생을 연기(演技)하는 데서 비롯된 명칭. [전역]
펭반 명 평반(平盤). [전역]
펭상 명 평상(平床). [전역]
펭상-동 명 <지> [애월] → 펭상이ᄃᆞ르-동네.
펭상이ᄃᆞ르-동네 명 <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한 자연마을. [애월] = 펭상-동, 평상-동.
펭셍 명 [전역] → 펭승.
펭승 명 평생(平生). [전역] = 펭셍.

펭이 명 팽이. [노형 어도 인성 서홍 김녕] = 도래기, 방돌래기, 펭-도로기.
펭-장 명 평토-장(平土葬). [전역]
펭풍 명 [전역] → 벵풍. 고 편풍.
평고-대 명 <건> [전역] → 펭고-듸.
평상-동 명 <지> [애월] → 펭상이ᄃᆞ르-동네.
평토 짓는 노래 명 <요> 달구-노래. [노형]
포[1] 명 보(褓). [전역] = 포대기.
포[2] 명 <건> 보(樑). [전역]
포[3] 명 [서홍 수산 세화 조천] = 너울[2].
포[4] 명 노루 가죽. [봉성]
포[5] 명 [전역] → 포제기.
포-가다 동 <농> 파종할 때 씨앗을 골고루 뿌리지 않고 포개어지게 뿌리다. [영평]
포개다 동 포개다. 여러 겹으로 겹치다. [수산 조수 김녕] 고 포가히다.
포근포근-ᄒᆞ다 형 포근포근-하다. 두꺼운 물건이 탄력성이 있고 보드라워 따뜻하고 편안한 느낌이 있다. [전역]
포근-ᄒᆞ다 형 포근-하다. ① 겨울 날씨가 춥지 않고 따스하다. [전역] ② 감정이나 분위기, 또는 자리 따위가 보드랍고 편안한 느낌이 있다. [전역]
포기 명 [전역] → 페기.
포-끄땡이 명 보따리의 끄트머리. * 그 처녀가 포끄땡이 끌런 두께 율아봐서.(그 처녀가 보따리의 끝을 풀어서 뚜껑을 열어 보았어.) [대정]
포-놓다 동 포개다. 물건 위에 물건을 올려 놓다. [전역]
포대기 명 [전역] → 포[1].
포대깃-짐 명 [전역] → 폿-짐.
포따리 명 [전역] → 포제기.
포로롱 부 [전역] → 포르롱.
포르롱 부 포르르. 작은 새가 갑자기 자리를 뜨며 날아가는 소리나 모양. [전역] = 포로롱.
포마시 명 남에게 때려 맞거나 원한이 있을 때 그를 때려 주거나 원한 갚음을 하는 짓. [전역] = 포시, 포신, 푸마시.
포만-ᄒᆞ다(飽滿--) 형 포만-하다. [전역]
포-부뜨다 동 맞-붙다. 두 개가 서로 붙다. * 느네 무사 경 포부떵 싸왐시니?(너희들 왜 그렇게 맞붙어서 싸우고 있니?) [전역]
포-부찌다 동 겹치다. * 메역 ᄆᆞᆯ릴 땐 포부찌멍 널어.(미역을 말릴 땐 겹치면서 널지.) [하도]
포-새끼 명 암소가 해를 거르지 않고 낳는 송아지. [전역]
포수(砲手) 명 포수. [전역]
포승(捕繩) 명 포승. [전역]
포시 명 [하원] → 포마시.
포신 명 [하원 서홍 태흥 표선 수산] → 포마시.
포알-귀클 명 <건> [김녕] → 폿-지방.
포알-귀틀 명 <건> [수산] → 폿-지방.
포-입다 동 [전역] → 주겨-입다.
포-제(酺祭) 명 <민> 마을을 지킨다는 신에게 온 마을이 정성을 다하여 소원을 비는 의식. [전역]
포제기 명 보자기(褓子). [전역] = 포[5], 포따리.
포주겨-놓다 동 [전역] → 주겨-놓다.
포테 명 포태(胞胎).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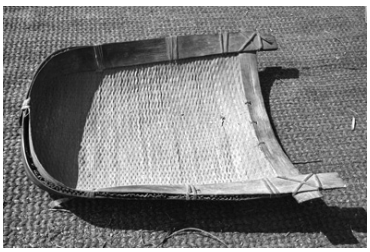
폭 명 팽. 팽나무의 열매. [전역]
폭-남 명 <식> [전역] → 폭-낭.
폭-낭 명 <식> 팽-나무. [전역] = 폭-남.
폭낭-오름 명 <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화전동 북서쪽에 있는 오름. 표고 646미터. [봉성 광평]
폭삭-지다 형 가루 성분으로 된 물건이 조금도 끈기가 없고 아주 부슬부슬하게 메지다. [전역]
폭-ᄒᆞ다 형 바람이 없고 매우 따스하다. [전역]
폿-지동 명 <건> 들보를 받쳐서 세워진 기둥(柱). [전역] = 폿-지둥, 폿-짇, 폿-짓.
폿-지둥 명 <건> [전역] → 폿-지동.
폿-지방 명 <건> 들보와 맞대해서 밑에 가로지른 하인방(下引枋). [노형 조수] = 포알-귀클, 포알-귀틀.
폿-짇 명 <건>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가시] → 폿-지동.
폿-짐 명 봇-짐(褓-). [전역] = 포대-짓-짐.
폿짐-장시 명 봇짐-장수(褓負商人). [전역]
폿짐-장ᄉᆞ 명 봇짐-장사(褓負商). [전역]
폿-짓 명 <건> [전역] → 폿-지둥.
표(標) 명 표. [전역] = 페.
표-나다(表--) 동 표-나다. [전역]
표-범(豹-) 명 <동> 표-범. [전역]
표적(表迹) 명 표적. [전역] = 페적.
표지(標紙) 명 표지. [전역] = 페지.
푸근푸근-ᄒᆞ다 형 푸근푸근-하다. [전역]
푸근-ᄒᆞ다 형 푸근-하다. [전역]
푸기 명 [전역] → 페기.

푸께[1] 명 <식> 꽈리. [화순 하원 태흥 표선 수산 세화 조천 어도] = 불처귀, 푸께기[1], 푼철귀.



푸께[1]

푸께[2] 명 텡-쇠. 겉으로는 튼튼하게 보이지만 속은 허약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전역] = 푸께기[2].
푸께기[1] 명 <식> [하원 조수 서홍] → 푸께[1].
푸께기[2] 명 [인성 화순 하원 태흥 어도 조수] → 푸께[2].
푸끄다 동 부채 따위를 흔들어 바람을 일으키다. [전역]
푸는-체 명 <도> 키(箕). [전역]



푸는체

푸는체-질 명 키-질(箕-). [전역] = 품-질.
푸다[1] 동 푸다. ① 물을 떠내다. [전역] ② 실은 짐을 내리다. [전역]

푸다[2] 동 까부르다. [전역]
푸다시 명 <민> 잡귀(雜鬼)가 몸에 범접하여 일어난 병(病)을 고치는 굿. [전역]
푸다싯-북 명 <민> 푸닥거리 북장단. 푸닥거리에 해당하는 푸다시 제차에서 쓰이는 북장단. [전역]
푸달푸달-ᄒᆞ다 형 걸쭉-하다. 가루 따위를 넣고 끓일 때 국물이 묽지 않고 꽤 걸다. [전역]
푸답 명 푸새. 옷에 풀을 먹이고 다듬이질하는 일. [전역]
푸더-지다 동 [전역] → ᄂᆞ려-지다.
푸데[1] 명 포대(布袋). [전역]
푸데[2] 명 술 따위를 지나치게 많이 먹는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 [전역]
푸데-쑴 명 <민> 사람을 큰 자루 속에 담아 때리거나 벌주는 일. [전역]
푸돋잇-마 명 [수산] → 풀돋잇-마.
푸드등 부 푸두둥. 꿩 따위의 새가 갑자기 날 때 나는 소리. [전역]
푸레-죽 명 풀떼기. [서홍 가시 수산 조천 김녕]
푸리룽-ᄒᆞ다 형 푸르무레-하다. [전역]
푸리수룽-ᄒᆞ다 형 푸르스름-하다. [전역]
푸린-콩 명 <식> 콩의 일종. [하원 남원]
푸립시구룽-ᄒᆞ다 형 빛깔이 조금 칙칙하게 푸르스름하다. [전역]
푸릿-푸릿 부 푸릇-푸릇. [전역]
푸마시 명 *네 원수 푸마시를 ᄒᆞ면 또 망해운다.(네가 원수 갚음을 하면 또 망하게 된다.) [조천 어도] → 포마시.
푸삭-푸삭 부 푸석-푸석. [전역]
푸새 명 풀잎. 풀. *(속) 동지 넘으민 푸새는 새 ᄆᆞ음 ᄒᆞᆫ다.(동지 넘으면 풀은 새 마음 한다.) [전역]
푸성-거리 명 [조천 노형] → ᄉᆞᆼ키.
푸솜 명 [전역] → 푸숨.
푸솜-일다 동 [전역] → 푸숨-일다.
푸수-완이 명 푸주-한(庖廚漢). 소, 돼지 따위를 잡아서 파는 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 [전역] = 푸주-완이.
푸숨 명 부풀. [전역] = 푸솜.
푸숨-일다 동 부풀다. 종이나 피륙의 거죽에 부푸러기가 일어나다. [전역] = 푸솜-일다.
푸스진-마 명 *이, 삼월 남을 ᄒᆞ민 푸스진마라고 마쳐 가민 보린 뒷날 다르곡.(이, 삼월 나기만 하면 '푸스진마'라고 장마져 가면 보린 뒷날 다르고). [하원] → 풀돋잇-마.
푸슨-줄 명 <식> 남-오미자(南五味子). [전역]
푸-ᄉᆞᆼ키 명 [노형 세화] → ᄉᆞᆼ키. 고 프성귀.
푸작-푸작 부 풀 따위가 아주 끈기 있게 들러붙는 모양. [전역]
푸접-읎다 형 [전역] → 푸접-읏다.
푸접-읏다 형 푸접-없다. [전역] = 푸접-읎다.
푸주-완이 명 [전역] → 푸수-완이.
푸지근-ᄒᆞ다 형 마음이 아주 흡족하다. [전역]
푸지다 형 푸지다. [전역]
푸-초막(-草幕) 명 <민> 토롱(土壟)하여 쳐 놓은 초막. [전역]
푹 부 푹. ① 아주 깊고 느긋하게. [전역] ② 빈틈없이 잘 덮거나 싸는 모양. [전역] ③ 힘 있게 깊이 찌르는

모양. [전역]

푹삭-ᄒᆞ다 형 두꺼운 물건이 탄력성이 있고 부드러워 편안한 느낌이 있다. [전역]

푼더분-ᄒᆞ다 형 푼더분-하다. [김녕 노형]

푼-돈 명 푼-돈(分錢). [전역]

푼두룽-ᄒᆞ다 형 마음에 만족하여 흐뭇하다. [노형 조수 인성] = 푼드랑-ᄒᆞ다.

푼드랑-ᄒᆞ다 형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푼두룽-ᄒᆞ다.

푼처 명 <민> → 푼체[2].

푼철귀 명 <식> [인성 노형 어도] → 푸께[1].

푼체[1] 명 부채(扇子). [전역]

푼체[2] 명 <민> 부처(佛陀). [전역] = 푼처.

푼체-꽝 명 견갑-골(肩胛骨). [전역] = 부채-꽝.

푼체-정각 명 <식> 해조류인 청각채의 일종. [표선]

푼체-질 명 부채-질(扇子-). [전역]

푼챗-살 명 부챗-살(扇子-). [전역]

푼푼-ᄒᆞ다 형 푼푼-하다.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다. [전역]

풀[1] 명 풀(草). [전역] 고 플.

풀[2] 명 풀(糊). [전역] 고 플.

풀[3] 명 <식> 앵초(櫻草). [고산]

풀- 두 풋-. '처음 나온', 또는 '덜 익은'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 [전역]

풀-가개비 명 <동> [가시 조수] → 청-골개비.

풀-감 명 풋-감(-柿). 빛이 퍼렇고 아직 덜 익은 감. [전역]

풀-고치 명 풋-고추. 덜 익어서 빛깔이 푸른 고추. [전역]

풀-ᄀᆞ래 명 <도> [전역] → 풀-ᄀᆞ레.

풀-ᄀᆞ레 명 <도> 풀-매. 쌀, 보리가 여물지 않은 상태로 가는 맷돌. [전역] = 풀-ᄀᆞ래.

풀-골개비 명 <동> [어도 인성 화순] → 청-골개비.

풀다 동 풀다. ① 맨 것, 묶은 것, 얽힌 것, 감긴 것을 끌러 풀어지게 하다. [전역] ② 깊은 이치나 문제 따위를 밝히다. [전역] ③ 금하였던 일을 터놓다. [전역] ④ 콧물을 내뿜어 씻다. [전역] 고 플다.

풀돋잇-마 명 봄-장마. 봄철 풀이 돋을 때 지는 장마. [전역] = 푸돋잇-마, 푸스진-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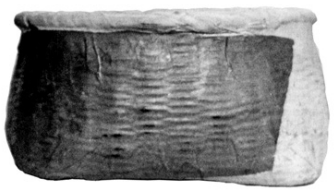
풀락-풀락 부 풀럭-풀럭. [전역]

풀-몰똥 명 젖은 말똥. [가시]

풀-밧 명 풀-밭(草田). [전역] = 풀-왓.

풀-비 명 풀-비(-箒). [전역]

풀ᄇᆞ른-구덕 명 <도> 대오리를 결은 바구니가 헐어서 종이나 헝겊 따위에 풀을 발라 붙인 바구니. [전역] = ᄇᆞ른-구덕, ᄇᆞ른-바구리, 풀ᄇᆞ른-바구리.



풀ᄇᆞ른구덕

풀ᄇᆞ른-바구리 명 <도> [전역] → 풀ᄇᆞ른-구덕.

풀-새각시 명 <민> 풀-각시. 여자아이들이 놀이를 위하여 풀로 만든 색시 인형. [전역]
풀새각시-놀이 명 <민> 풀각시-놀이. 여자아이들이 풀로 색시 모양을 만들어 노는 놀이. [전역]
풀-쉐똥 명 젖은 쇠똥. [가시]
풀-솔 명 마소들이 새봄에 돋아난 풀을 먹어 오른 살. [금덕]
풀-쑤다 동 풀-쑤다. 밀가루 따위를 물에 개어서 불에 익혀 풀이 되게 하다. [전역]
풀-왓 명 [전역] → 풀-밧.
풀-죽다 형 풀-죽다. [전역]
풀-치다 동 밭을 갈아 일으켜진 잡초를 덮어 버리다. [전역]
풀-칠 명 풀-칠. 붙이려고 풀을 바르는 일. [전역]
풀-ᄒᆞ다 동 풀-하다. 피륙이나 옷에 풀물이 배어들게 하다. [전역]
품[1] 명 [서홍 태흥 표선 수산 세화 조천 가시] → 쿰.
품[2] 명 품. 웃옷의 겨드랑이 밑의 넓이. [전역]
품-가름 명 <민> 심방들이 굿을 마칠 때 정해진 기준에 따라 품을 나누는 일. [전역]
품-깝 명 [인성 조수 김녕] → 품-삭.
품다[1] 동 품다. 가슴에 안다. [전역] = 쿰다.
품다[2] 동 [전역] → 뿜다.
품-삭 명 품-삯(勞賃). [전역] = 일-쿰, 일-품, 쿰-깝, 품-깝.
풀-솜키 명 [온평] → 숭키.
품-질 명 [전역] → 푸는체-질.
품-풀다 동 품-팔다. [전역] = 놈의일-ᄒᆞ다.
풍 명 [전역] → 건풍.
풍당 부 풍덩. [전역]
풍뎅이[1] 명 <의> [이호] → 끼부리.
풍뎅이[2] 명 <의> 풍뎅이. 머리에 쓰는 방한구의 한 가지. [전역] 고 풍덩이.
풍뎅이[3] 명 <동> 풍뎅이. [전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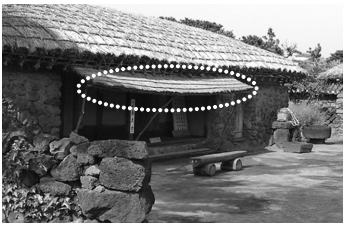


풍뎅이[3]

풍둥이 명 <의> [전역] → 풍뎅이[1].
풍례 명 풍류(風流). *불르걸랑 풍례옝 말라, 불르걸랑 놀레옝 말라.(부르걸랑 풍류라고 하지 마라, 부르걸랑 노래라고 하지 마라.) [전역]
풍류-와치(風流--) 명 <민> 풍류를 잘 즐기는 사람. [북촌]
풍문-조훼 명 <민> 풍운-조화(風雲造化). [전역]
풍언[1] 명 풍헌(風憲). [전역]
풍언[2] 명 바보. [남원]
풍중 명 <어> 미역 따위를 지어 나르는 일 또는 사람. [귀덕 가파도 마라도] = 마중.
풍중-꾼 명 [귀덕 가파도 마라도] → 마중-꾼.
풍질 명 시체를 묻어 두면 그 시체가 땅 속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게 된 지형. *거기를 파 보니 그냥 풍

질에 몰아단 솔그랭이 그자 뒤죽합죽 헨 놔뒷어.(그곳을 파서 보니 그냥 '풍질'에 몰아다가 살그랭이 그저 뒤죽박죽 해서 놓아두었어.) [노형]

풍체 명 <건> 차양(遮陽). 나무 둘로 기둥을 삼고 가로 나뭇가지를 드물게 질러 붙여 겉으로 띠를 덮고 세워서 눈, 비가 들이치는 것을 막는 물건. *그곳 가운데 풍체를 쳐 놓고 불을 솜아서 밥도 헤 먹고.(그 곳 가운데 차양을 쳐 놓고 불을 지펴서 밥도 해서 먹고.) [전역] = 채양.



풍체

풍체-눈 명 [조천] → 더께-눈.

풍체-바지 명 풍차-바지. [전역]

풍쳇-부출 명 <건> [어도 가시] → 풍쳇-틀.

풍쳇-작데기 명 <건> 차양(遮陽)을 벌이는 아주 기다란 작대기. [전역] = 풍쳇-작쉬.

풍쳇-작쉬 명 <건> [전역] → 풍쳇-작데기.

풍쳇-틀 명 <건> 차양(遮陽)의 뼈대가 되는 굵은 나무. [전역] = 풍쳇-부출.

풍-치다 동 ① 풀어-헤치다. 흩-뜨리다. 잘 모아 놓은 물건을 어지럽게 흩어놓다. [전역] ② 다른 사람의 말을 작은 일도 크게 보태서 과장되게 전달하다. [전역] ③ 배가 천천히 이동하게 하려고 풍을 낙하산처럼 만들어서 바닷물 속에 집어넣다. [전역]

풍패-치다 동 있는 물건을 다 써서 없애다. [전역]

피[1] 명 피(血). [전역]

피[2] 명 <식> 피(稷). [전역]

피-고리 명 <도> 피를 말리는 커다란 바구니 모양의 고리. [교래]

피다[1] 동 피다. ① 꽃봉오리 따위가 벌어지다. [전역] ② 불이 점점 일다. [전역] ③ 사람이 한껏 보기 좋게 살이 올라 예뻐지다. [전역] 교 퓌다.

피다[2] 동 먹물, 잉크 따위가 종이에 묻어서 이면으로 스미어 보이다. 또는 지면에 넓게 퍼져 나가다. [전역]

피-똠 명 피-땀(血汗). [전역]

피렁-ᄒᆞ다 형 ① 사람의 얼굴이 조금 파리하다. [전역] ② 빛이 푸르무레하다. [전역]

피막-ᄒᆞ다 동 위장-하다. 회피-하다. [전역]

피만주 명 <식> [수산 김녕] → 피만지.

피만쥐 명 <식> [서홍 노형 인성] → 피만지.

피만지 명 <식> 아주까리. [인성 서홍 가시 조수] = 피만주, 피만쥐, 피만



피만지

ᄌᆞ. ㊏아ᄌᆞᆺ가리.
피만ᄌᆞ 명 <식> [조수] → 피만지.
피-말이 명 <동> [김녕 조수] → 코-간저니.
피매 명 피마(-馬). [전역]
피-방에 명 <도> 피를 빨는 데 사용하는 방아. [교래]
피실락 부 부스럭. [전역]
피여-나다 동 피어-나다. [전역]
피왓-골갱이 명 <도> 피밭에서 김을 맬 때 쓰는 호미. *제완지 페기가 워낙 컷기 따문에 그땐 피왓골갱일 썻주.(바랭이 포기가 워낙 컸기 때문에 그때는 피밭 호미를 썼지.) [남원 신흥]
피우다[1] 동 피-우다. [전역]
피우다[2] 동 바수다. 으깨다. *그놈을 벙에 피와사 홀 건디, 벙엘 피와사 그놈을 두 불 가나 뭐 홀 건디.(그놈을 흙덩이를 바숴야 할 것인데, 흙덩이를 바숴야 그놈을 두 번 갈든지 뭐 할 것인데.) [대정]
피-젱이 명 백정. 짐승을 죽여 잡는 일을 업으로 하는 사람. [전역]
피지-가죽 명 사람 피부의 표면(表面)에 입혀진 얇은 겉껍질. [서홍 태흥 세화 조천 가시] = 빈-뎅이, 빈지-가죽, 살-문뎅이, 피치-가죽, 핀지-가죽, 홀-문뎅이.
피짝-ᄒᆞ다 동 삐치다. [전역]
피총 명 [노형] → 골총.
피치-가죽 명 [표선] → 피지-가죽.
피-친떡 명 <음> 핍쌀가루를 시루에 넣어서 쪄낸 떡. *친떡도 으라 가지주. 조친떡도 ᄒᆞ고 피친떡도 ᄒᆞ곡. (시루떡도 여러 가지지. 좁쌀시루떡도 하고 핍쌀시루떡도 하고.) [성읍]
피ᄎᆞ 명 피차(彼此). [전역]
피파 명 [수산 가시 서홍] → 비파.
피파-낭 명 <식> [전역] → 비파-낭.
피풍-낭[1] 명 <식> 사스래-나무. [전역] = 두풍-낭, 사스레-낭.
피풍-낭[2] 명 <식> 좀고체목. [전역]
픽픽 부 픽픽. ① 콩꼬투리 따위가 익어서 연해 벌어지는 소리. [전역] ② 새끼나 줄 따위가 연하여 힘없이 끊어지는 소리. [전역]
핀지-가죽 명 [조수] → 피지-가죽.
핀찍 부 빛이 잠깐 비치는 모양. [전역]
필[1]**(疋)** 명 필. [전역] = 빌[2].
필[2]**(匹)** 명 필. [전역]
필부-막잔 명 <민> 위계대로 신명을 열거하며 마지막 잔을 올리는 제차. [전역] = 필붓-잔.
필붓-잔 명 <민> [전역] → 필부-막잔.
핏독-오르다 동 피멍이 들다. [전역]
핏발-사다 동 핏발-서다. [전역]
핏발-삭다 동 핏발-삭다. [전역]
핏-배 명 해산하고 나서 3일 동안 피가 고여 있는 산부(産婦)의 배. [표선]
핑게 명 핑계. [전역] = 민게.
핑-핑 부 핑-핑. [전역]
ᄑᆞ다 동 [전역] → 파다.
ᄑᆞ닥-거리다 동 [전역] → 파닥-거리다.
ᄑᆞ닥-ᄑᆞ닥 부 [전역] → 파닥-파닥.
ᄑᆞ뜰-ᄑᆞ뜰 부 함박눈이나 종이 조각 같은 것이 천천히 나부끼면서 떨어지는 모양. *험벅눈은 ᄑᆞ뜰ᄑᆞ뜰.(함박눈은 펄펄.) [전역] = 퍼뜰-퍼뜰[2].
ᄑᆞ래 명 <식> [전역] → ᄑᆞ레.

ᄑᆞ레 명 <식> 파래(石蓴). [전역] = ᄑᆞ래.
ᄑᆞ레-밥 명 <음> 쌀에 파래를 섞어 지은 밥. 춘궁기 때 많이 해 먹음. [행원]
ᄑᆞ롱-ᄑᆞ롱 부 작은 새가 갑자기 날아오르는 소리. [전역]
ᄑᆞ르스롱-ᄒᆞ다 형 파르스름-하다. [전역]
ᄑᆞ리 명 <동> 파리(蠅). *(속) 더운 죽에 ᄑᆞ리 놀아들 듯.(더운 죽에 파리 날아들 듯.) [전역] 고 ᄑᆞ리.
ᄑᆞ리-도독 명 <동> 깡충-거미. 승호(蠅虎). [인성 김녕 어도] = ᄑᆞ리-목젱이.
ᄑᆞ리-똥[1] 명 [노형 인성 서홍 수산 김녕] → ᄑᆞ리-침.
ᄑᆞ리-똥[2] 명 파리-똥. 파리의 잘고 까만 똥. [전역]
ᄑᆞ리롱-ᄒᆞ다 형 [전역] → 파리롱-ᄒᆞ다.
ᄑᆞ리-목젱이 명 <동> [조수] → ᄑᆞ리-도독.
ᄑᆞ리-찜 명 [인성 서홍] → ᄑᆞ리-침.
ᄑᆞ리-채 명 <도> 파리-채. 파리를 잡는 채. [전역]
ᄑᆞ리-춤 명 [노형 조수 수산 가시] → ᄑᆞ리-침.
ᄑᆞ리-침 명 주근-깨. [어도 김녕] = ᄑᆞ리-똥[1], ᄑᆞ리-찜, ᄑᆞ리-춤. 고 주근깨.
ᄑᆞ릿-ᄑᆞ릿 부 파릇-파릇. [전역]
ᄑᆞ실-ᄑᆞ실 부 포슬-포슬. 물기가 적어 바스러지기 쉽거나 마른 모양. [전역]
폴 명 팔(臂). *(속) 잔 잡은 폴은 안터레 휜다.(잔 잡은 팔은 안으로 휜다.) [전역] 고 볼.
폴-개 명 <지> ①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1리와 태흥2리의 옛 이름. [남원] ② 서귀포시 남원읍 태흥2리의 포구. [남원] = 펄-개.
폴-고비 명 팔-꿈치. [전역] = 폴-곱지, 폴-굽지.
폴-곱지 명 [전역] → 폴-고비.
폴-굽지 명 [조수 어도] → 폴-고비.
폴기 명 [인성] → 페기.
폴다[1] 동 팔다(賣). [전역] 고 폴다.
폴다[2] 동 결혼을 시키다. 시집-보내다. 장가-보내다. *아들들은 전부 이제 혼례를 시켜 둬야 뚤을 폴게 뒈엿는디.(아들들은 전부 이제 혼례(婚禮)를 시켜 두어야 딸을 시집보내게 되었는데.) [전역]
폴-닷 명 팔-때기. *청동 ᄀᆞ뜬 폴닷을 배영 누움으로 즘이 오멍 앚임으로 즘이 오랴?(청동 같은 팔때기를 베어서 누운들 잠이 오며 앉은들 잠이 오랴?) [전역] = 폴-따시.
폴-따시 명 [전역] → 폴-닷.
폴딱 부 팔딱. [전역] = 팔딱.
폴딱-거리다 동 팔딱-거리다. [전역] = 팔딱-거리다.
폴-똑 명 팔-뚝(膊). [전역]
폴똑-찌다 동 [서홍 수산] → 폴찜-찌다.
폴똥-찌다 동 [김녕] → 폴찜-찌다.
폴락 부 팔락. [전역] = 팔락.
폴락-거리다 동 팔락-거리다. [전역] = 팔락-거리다.
폴-목 명 팔-목. 팔과 손이 잇닿은 곳. [전역] = 장-목, 홀-목[2].
폴-심 명 팔-심. [전역]
폴-씨롬 명 [전역] → 폴-씨름.

풀-씨름 명 팔-씨름. [전역] = 풀-씨롬.
풀쩡-찌다 동 [서홍] → 풀찜-찌다.
풀쭘-찌다 동 [수산] → 풀찜-찌다.
풀찌-거리 명 <민> 본향신(本鄕神) 등을 굿판으로 청해 들일 때 심방의 왼쪽 팔에 감아 묶는 명주 따위 천. [전역] = 본향-풀찌, 풀-치. 풀치-거리.



풀찌거리

풀찜-찌다 동 팔짱 지르다. [전역] = 손찜-찌다, 풀똑-찌다, 풀똥-찌다, 풀쩡-찌다, 풀쭘-찌다.
풀-쫄레기 명 곰배팔-이. [전역]
풀-치 명 [전역] → 풀찌-거리.
풀치-거리 명 [전역] → 풀찌-거리.
풋 명 <식> 팥(小豆). [전역] 고 풋.
풋- 두 '아주 작은'이라는 뜻으로 쓰이는 말. [전역]
풋-감 명 <식> 아주 작은 감(柿)의 한 가지. [전역]
풋-겡이 명 <동> [가시 김녕] → 풋-깅이.
풋그루-뭉생이 명 <동> 팥을 거두어들인 늦은 시기에 태어난 망아지. * (속) 풋그루뭉생이 낫댄 ᄒᆞ민 그 믈테 망ᄒᆞᆫ다.(팥그루에서 망아지 낳았다고 하면 그 말떼 망한다.) [송당]
풋-긍이 명 <동> [조수] → 풋-깅이.
풋-깅이 명 <동> 아주 작은 게(蟹). [전역 인성 서홍 노형 조수] = 풋-겡이, 풋-긍이.
풋-밥 명 <음> 팥-밥(赤豆飯). [전역]
풋-버렝이 명 <동> 꼬리 쪽에 위로 곧게 침이 돋은 푸른 빛의 벌레. 다 자란 누에 정도의 크기. [전역] = 풋-베렝이.
풋-베렝이 명 <동> [전역] → 풋-버렝이.
풋-볼레 명 팥(小豆)알만큼 작은 보리수나무의 열매.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풋-블레.
풋-볼레 명 [수산 김녕 가시] → 풋-볼레.
풋-소미 명 <민> 보자기 소무(小巫). 무구를 담아 싸는 보자기를 책임진 소무. [전역] = 안체포-소미.
풋-쉬 명 ① 팥-소. 떡 속에 넣는 팥으로 만든 소. [전역] ② 팥-고물. 시루떡의 켜로 넣을 팥을 삶아 으깬 것. [전역]
풋-입 명 팥-잎(小豆葉). [전역]
풋-자리 명 <동> [수산] → 풋-재열.
풋-재 명 <동> [남원] → 풋-재열.
풋-재열 명 <동> 아주 작은 매미(蟬)의 한 가지. [조수 서홍] = 족-재열, 팟-재, 풋-자리, 풋-재, 풋-재일, 풋-잴.
풋-재일 명 <동> [서홍] → 풋-재열.
풋-잴 명 <동> [김녕] → 풋-재열.
풋-죽 명 <음> 팥-죽. [전역]
풋터는-벵 명 <병> [전역] → 학질.

ㅎ

하 부 하. '많이·크게·아주·퍽' 따위의 뜻으로 쓰는 말. [전역]

하가수-ᄒᆞ다 형 조금도 저어할 것이 없다. [전역]

하가-에(何暇-) 부 [전역] → 하가-의.

하가-의(何暇-) 부 어느 겨를에. [전역] = 하가-에.

하간 관 여러 가지. 모든. *이건 뭐 하간 기생이니 뭐 하간 주막이니, 무스것도 아니ᄒᆞ고, 그자 그 성질을 알아 맞추와 가지고.(이것은 뭐 여러 기생(妓生)이니 뭐 여러 주막이니, 무엇도 아니하고, 그저 그 성질을 알아 맞추어서.) [전역] = 하근.

하간-것 대 이것저것 여러 가지 물건. [전역] = 하근-것.

하간-듸 대 부 ① 여기저기 여러 곳. [전역] ② 여기저기 여러 곳에. [전역] = 하근-듸.

하계량 명 품질이 좋지 않은 갓양태의 한 가지. 날이 되는 쌀 수효가 300개쯤임. [전역]

하고-만ᄒᆞ다 형 하고-많다. [전역]

하고-초 명 <식> 꿀-풀. [인성 서홍 수산 가시 조수]

하군(下軍) 명 <어> 작업하는 기량이 서투른 해녀. [전역] = 깍-줌녜, 깍-줌수, 돌-파리, 돌-ᄑᆞ레, 똥-군, 볼락-줌녜, 볼락-줌수, 족은-줌녜, 족은-줌수, 하-줌녜(下--), 하-줌수(下--), 핫-바리.

하군-불턱 명 <어> 작업 기량이 서투른 하군 해녀들만이 불을 쬐고 탈의장으로 쓰는 곳. [전역]

하근 관 *오라방은 그렇게 하근 걸 안다 ᄒᆞ는디.(오라버니는 그렇게 모든 것을 안다고 하는데.) [전역] → 하간.

하근-것 대 [전역] → 하간-것.

하근-듸 대부 [전역] → 하간-듸.

하기-새 명 <동> 두루미(鶴). [전역]

하나 주 [전역] → ᄒᆞ나.

하-남(下男) 명 <민> 막내-아들. [전역]

하노 명 <도> 배 뒤쪽 가장자리에서 젓는 노. *하노 잡은 사름이 배를 좌우로 운전ᄒᆞ는 거라, 차 운전ᄒᆞ듯이.('하노' 잡은 사람이 배를 좌우로 운전하는 거야, 차 운전하듯이.) [행원] = 도문-뇌.

하-논 명 <지> 서귀포시 삼매봉의 화구원(火口原). [호근 서홍]

하논-거제 명 <지> 서귀포시 삼매봉의 화구원인 '하논'을 에운 낮은 산등성이. [호근 서홍]

하놋-골 명 <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에 있었던 한 자연마을. [한경] = 하늿-골.

하느-님 명 [전역] → 하늘-님.

하늘 명 하늘(天). *(속) 하늘 울엉 날 존 날 시멍, ᄇᆞ름 불엉 절 잘 날 시카?(하늘이 울어서 날씨 좋은 날이 있으며, 바람 불어서 물결이 잔잔할 날이 있으랴?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는 좋은 일이 없다는 말.) [전역] ㊒하놀.

하늘-강셍이 명 <동> 땅-강아지(螻蛄). [전역] = 땅-강셍이.

하늘-님 명 하느-님. [전역] = 하느-님.

하늘-레기 명 <식> 하눌-타리. [노형 조수 김녕] = 간질-레기, 천-두레기, 하늘-왜기, 하늘-웨기. ㊒하늟ᄃᆞ래.



하늘레기

하늘레기-청 명 <음> 하눌타리 뿌리를 갈아 만든 전분(澱粉). 구황음식(救荒飮食) 재료의 하나. [하원]

하늘-생이 명 <동> [태흥 서홍] → 비죽-생이.

하늘-쉐 명 <동> [태흥 표선 수산 김녕] → 떠렁-쉐. ㊒하느쇼.

하늘-웨기 명 <식> [인성 서홍 수산 도순] → 하늘-레기.

하늬-복이 명 <지> 서귀포시 안덕면 상천리 영아리오름 서쪽에 있는 작은 원추형 오름. 표고 592미터. [광평 상천 회수]

하늿-골 명 <지> [한경] → 하놋-골.

하니-ᄇᆞ름 명 북풍(北風). [전역]

하님 명 하님. 여자 종을 대접하여 부르거나 여자 종들이 서로 높여 부르던 말. [전역]

하다[1] 형 많다(多). *(속) 쉐털이 하덴 헤도 날이 한다.(소털이 많다고 해도 날이 많다.) [전역] = 만ᄒᆞ다. ㊒하다.

하다[2] 부 부디. *어머니, 하다 걱정 맙서. 우리가 시난.(어머니, 부디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으니.) [이호]

하-단골(下丹骨) 명 <민> 본향당의 주요 신앙민 가운데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 [전역]

하대-잡이 명 <민> 꽹과리 치는 심방. [북촌]

하도 부 하도. ① 너무나 많이. [전역] ② 너무도 크게. [전역] ③ 아주, 매우, 대단히. *웨하르방은 기여도 하도 영리ᄒᆞ여.(외할아버지는 그래도 매우 영리해.) [전역]

하등(下等) 명 하등. 정도나 수준이 낮거나 뒤떨어지는 것. [전역]

하라바-님 명 [전역] → 하르바-님.

하로산-또 명 <민> 산신(山神). [전역]

하르다 동 [전역] → 할르다.

하르바-님 명 할아버-님. [전역] = 하라바-님.

하르바지 명 [전역] → 하르방.

하르방 명 할아버지. [전역] = 하르바지.

하르방-버릇 명 할아버지-뻘. [전역]

하르비 명 할아비. [전역] = 하리비.

하르비-고장 명 <식> 할미-꽃. [노형 조수 인성 화순 하원 서홍 수산] = 할미-꼿.



하르비고장

하리비 명 [전역] → 하르비.

하막 명 <동> 무당-개구리. [전역] = 베붉은-가개비, 베붉은-개개비, 베붉은-굴개비.



하막

하메-주잔 명 <민> 하마-주잔(下馬酒盞). 신청궤 제차에서 신들을 차례로 청하면서 바치는 술잔. [전역]

하물-개 명 <지> 제주시 한림읍 수원리의 한 포구. [전역]

하반 명 거루 따위 배의 맨 뒤 편에 칸(間)막이하는 것. [전역]

하-선흘(下善屹)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의 한 자연마을. [조천]

하-세경(下世紅) 명 <민> 농경신 가운데 하나. 세경본풀이에서는 '정수남이'가 하세경으로 좌정함. [전역]

하-신충(下神充) 명 <민> 첫 신굿을 하여 초신 길을 밟고, 초역례를 바친 심방. 가장 경력이 낮고 능력이 뒤떨어지는 심방으로 심방(巫覡) 중 제일 아래 계급. 심방은 능력과 경력에 따라 '상신충' '중신충' '하신충'으로 나눔. [전역]

하-ᄉᆞ록 명 <민> 삼공맞이에서 '정데우'까지의 맞이를 생략하고 전상만 푸는 것. [전역]

하양-ᄒᆞ다 형 [전역] → 헤양-ᄒᆞ다.

하영 부 많이(多). *밥 하영 먹으라. (밥 많이 먹어라.) [전역] = 만히.

하우염 명 [서홍] → 하위염.

하우작-하우작 부 물에 빠진 때에 나오려고 손과 발을 내두르는 모양. [전역]

하움 명 [김녕] → 하위염.

하원-동(河源洞) 명 <지> 서귀포시 중문동의 한 법정마을. [서귀포 중문]

하위염 명 하품.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수산 가시] = 하우염, 하움, 하위욤. 고 하외욤.

하위욤 명 [김녕] → 하위염.

하인[1](下人) 명 하인. [전역]

하인[2](下人) 명 마을의 잡스러운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 [도두]

하정 명 <민> [전역] → 추물-공연.

하직-방광 명 <민> 신을 돌려보낼 때 마지막으로 하는 방광. [전역]

하-줌녜(下--) 명 <어> [전역] → 하군(下軍).

하-줌수(下--) 명 <어> [전역] → 하군(下軍).
하탕(下宕) 명 <의> [전역] → 엉근-탕건.
하흑 명 하학(下學). [전역]
학교(學校) 명 [전역] → 흑교.
학답 명 확답(確答). [전역]
학비(學費) 명 [전역] → 흑비.
학사니-뻬 명 [인성] → 독ᄆᆞ릅-꽝.
학산-꽝 명 [조수] → 독ᄆᆞ릅-꽝.
학설-뻬 명 [노형] → 독ᄆᆞ릅-꽝.
학수-암(鶴首岩) 명 <지> [호근 서호서홍] → 각시바우-오름.
학슬-뻬 명 [노형 조수] → 독ᄆᆞ릅-꽝.
학실 명 확실(確實). [전역]
학자-금(學資金) 명 [전역] → 흑ᄌᆞ-금.
학질(瘧疾) 명 <병> 학질. [전역] = 털러귀, 풋터는-벵.
한-가운듸 명 한-가운데. [전역]
한-간[1] 명 거루 따위 배의 맨 한 가운데의 칸(間). [서홍 태흥 조수] = 한-장, 허리-칸.
한-간[2] 명 <건> [전역] → 상방.
한간-서리 명 <건> 들-연. 오량(五梁) 이상으로 지은 집의 맨 끝에 걸리는 서까래. [전역]
한갑 명 [전역] → 환갑(還甲).
한강-바당 명 한강처럼 아주 넓고 큰 바다. 한강에서 온 말로서 큰 바다를 통칭함. *한강바당 베 띄와 놓곡 간장 타는 내로구나.(넓은 바다에 배를 띄워 놓고 간장 타는 나로구나.) [전역]
한-개[1]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1리 바닷가의 개(浦). [남원] = 황-개[1].
한-개[2] 명 <지> 제주시 이호1동과 내도동 사이 바닷가에 있는 개(浦). [전역]
한-개[3] 명 <지> [전역] → 군랭잇-개.
한-거리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와흘1리 본동의 옛 이름. [조천] = 항-거리.
한거-ᄒᆞ다 형 한거-하다. [전역] = 한걸-ᄒᆞ다, 항걸-ᄒᆞ다, 항글-ᄒᆞ다. 고 한가ᄒᆞ다.
한걸-ᄒᆞ다 형 [전역] → 한거-ᄒᆞ다.
한-고비 명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흔-고비.
한기(旱氣) 명 가뭄. [전역]
한남-리(漢南里)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의 한 마을. [남원]
한-내[大川] 명 <지> 제주시 오라동을 지나 용담동 용소(龍湫·龍淵) 또는 취병담(翠屛潭)으로 흘러드는 내(川). [용담] = 대-천(大川), 한-천(漢川).
한내-밧 명 <지> 제주시 용담1동의 옛 이름. [용담]
한대-악(漢岱岳) 명 <지> [전역] → 한데-오름.
한-더위 명 한-더위(盛署). [전역]
한데-오름 명 <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의 '드레오름' 동쪽 어음리와의 경계에 있는 오름. 표고 921미터. [전역] = 한대-악(漢岱岳).
한-도지 명 <민> 큰 매듭. 심방이 무명천으로 자기 양쪽 팔을 묶는 데 사용하는 매듭. [전역]
한-두기 명 <지> ① 제주시 용담1동과 용담2동 경계 바닷가의 옛 이름. [용담] ② 제주시 용담1동과 용담2

동 경계 바닷가 일대에 있었던 옛 자연마을. [용담]

한-ᄃᆞ리 명 <지> 제주시 한림읍 신흥리의 한 자연마을. [전역]

한라-산(漢拏山) 명 <지> 제주도 복판에 솟은 남한 최고봉. 꼭대기에 화구호(火口湖) 백록담이 있음. 예로부터 영산(靈山)으로 신성시하며, 섬을 지키는 진산(鎭山)으로서 해마다 산정에서 산신제를 지내왔음. 북쪽 모퉁이에 있는 방대(方臺 또는 方岩)라는 판판한 바위가 그 제단이었다고 함. 삼신산의 하나로 영주산(瀛洲山)이라 일컬어지며, 이밖에 부악(釜岳)·부라악(浮羅岳)·두무악(頭無岳)·원산(圓山)·원교산(圓嶠山) 등의 옛 별칭이 있음. 특산 식물과 고산성 식물을 포함한 1800여 종의 식물이 특징적인 수직분포(垂直分布)를 이룸. 1970년 국립공원으로 지정, 주봉(主峰)을 중심으로 한 외곽의 보호구역까지 총면적 약 152평방킬로미터로서, 북~동쪽은 제주시·조천읍·남원읍의 대략 해발 600~650미터 이상, 남~서쪽은 서귀포시·애월읍의 해발 950~1000미터 이상이 이에 포함됨. 표고는 1950.1미터임. [전역]



한라산

= 두독-악, 두모-악, 두무-악, 두믜-오름, 한락-산, 한로-산, 한로-영산, 할락-산, 할로-산, 할로-영산.

한락-산 명 <지> [전역] → 한라-산(漢拏山).

한량(閑良) 명 한량. [전역]

한로-산 명 <지> [전역] → 한라-산(漢拏山).

한로-영산 명 <지> [전역] → 한라-산(漢拏山).

한림-탕건 명 <의> 탕건의 한 가지. [전역]

한-바당 명 한-바다. [전역]

한-반치 명 [전역] → 한-복판.

한-밤중 명 한-밤중. [전역]

한-방통 명 무슨 일이 바로 꼭대기에 이른 판. [전역] = 한-통.

한-복판 명 한-복판. [전역] = 한-반치.

한-부종 명 <농> 좁씨를 뿌린 다음에 밭을 밟는, 곧 부종(付種)하는 한 고비. [전역]

한불 명 <어> 한가운데 쪽의 후릿그물. [조천 신흥]

한-소치 명 <동> 청-새치. [노형 조수인성 서홍] = 한-솔치, 황-솔치.

한-솔치 명 <동> [수산 가시] → 한-소치.

한수 명 <농> 띠밭을 쟁기로 이길 때 이렁의 한 가운데 있으면서 가늠자 구실을 하려고 갈아 두지 않은 땅. [도순]

한숨-짓다 동 한숨-짓다. [전역] ㊟한숨딯다.

한-여름 명 한-여름(盛夏). [노형 조수인성 서홍] = 한-으름.

한-ᄋᆞ름 명 [노형 조수 인성 서홍 어도] → 한-여름.
한-장 명 [인성 화순 수산 하원 노형] → 한-간[1].
한장-멍에 명 [인성 서홍 가시 수산 김녕] → 대섯-멍에.
한제 명 한재(旱災). 가뭄으로 인하여 생기는 재앙. [전역]
한-조금 명 [태흥 세화 조천 조수] → 줴기.
한-조기 명 [표선 어도 화순 수산 노형] → 줴기.
한-주 명 <음> 제주의 토속 소주. [전역]
한-줴기 명 [화순 태흥 표선 수산 세화 어도 인성 서홍] → 줴기.
한-지 명 한-데(露天). [전역]
한-질 명 한-길. 사람이나 차가 많이 다니는 넓은 길. [전역]
한질-골 명 <지> [전역] → 한짓-골.
한-집[1] 명 상전-댁(上典宅). 주인-집. *겨나 한집의 멩령이니 아이 종홀 수도 엇고.(그러나 주인집의 명령이니 아니 좇을 수도 없고.) [구좌]
한-집[2] 명 [전역] → 마누라[1].
한-집[3] 명 주로 종(奴)이 그가 사는 집의 여주인을 일컫는 말. [전역]
한집-그르 명 [인성 서홍 김녕 가시] → 항긋-그르.
한짓-골 명 <지> 제주시 일도1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 대로-동, 한질-골.
한짓-그르 명 [수산] → 항긋-그르.
한ᄌᆞ 명 한자(漢字). [전역]
한-참 명 [전역] → 혼-참[2].
한창 부 한창. [전역] 고 ᄒᆞᆫ챵.
한-천(漢川) 명 <지> [용담] → 한-내.
한-탈 명 <식> 산딸기나무의 열매. [전역]
한탈-낭 명 <식> 산딸기-나무. [전역]
한-통 명 [전역] → 한-방통.
한한-ᄒᆞ다 형 아주 많다. [전역]
할강-거리다 동 숨이 가빠서 할딱거리며 가르랑거리다. [전역]
할강-할강 부 숨이 가빠서 할딱거리며 가르랑거리는 소리. [전역]
할그랑-할그랑 부 가르랑-가르랑. [전역]
할근-거리다 동 할근-거리다. [전역] = 할근-돌다.
할근-돌다 동 [전역] → 할근-거리다.
할근-할근 부 할근-할근. [전역]
할딱-이다 동 할딱-이다. [전역]
할라-먹다 동 핥아-먹다. [전역]
할락-산 명 <지> [전역] → 한라-산(漢拏山).
할로-산 명 <지> [전역] → 한라-산(漢拏山).
할로-영산(--靈山) 명 <지> [전역] → 한라-산(漢拏山).
할르다 동 핥다. [전역] = 하르다, 할트다. 고 핥다.
할마니 명 할머니. [전역] = 할머니.
할마-님[1] 명 <민> 고사(告祀) 지낼 적에 무당이 일러 바치고 섬기는 여신(女神). [전역]
할마-님[2] 명 [전역] → 할머-님.
할망 명 할머니. *(속) 선술 할망 베 분다.(선술집 할머니 배가 분다.) [전역]
할망-듸 명 <민> 마을을 맡아 지킨다

는 여신(女神)을 모신 곳. [전역]

할망-바당 명 '할머니바다'라는 뜻으로, 나이 든 늙은 해녀를 위하여 구역을 설정해 놓은 바다. [가파도]

할망-상 명 <민> 아기를 분만한 다음 아기의 생육(生育)을 관장한다는 삼승할망에게 감사하고 기원하는 뜻으로 메와 실·돈 따위를 놓고 방 구석이나 벽 위에 두는 상. [전역]



할망상

할머니 명 [전역] → 할마니.

할머-님 명 할머-님. [전역] = 할마-님[2].

할미 명 할미. [전역]

할미-꼿 명 <식> [수산 조천 어도] → 하르비-고장.

할이 명 할인(割引). [전역]

할쭉-거리다 동 할쭉-거리다. [전역] = 할축-거리다.

할쭉-할쭉 부 할쭉-할쭉. [전역] = 할축-할축.

할축-거리다 동 [전역] → 할쭉-거리다.

할축-할축 부 [전역] → 할쭉-할쭉.

할트다 동 [전역] → 할르다.

함바기-굴 명 <지> 제주시 노형동의 한 자연마을. [노형] = 함베기-굴.

함-박 명 <도> 함-박. 함지-박. [인성 조수]

함박-걸이 명 <민> '걸명'하기 위하여 함지박에 가득 제물을 모은 것. [전역]

함박-꼿 명 <식> [조수] → 함박-쿨.

함박-눈 명 함박-눈. [전역] = 험벅-눈.

함박-쿨 명 <식> 병-풀. [인성 노형 서홍] = 함박-꼿, 함박-풀, 함벡이, 함벡이-꼿.

함박-풀 명 <식> [수산 가시 김녕] → 함박-쿨.

함베기-굴 명 <지> [노형 월랑] → 함바기-굴.

함벡이 명 <식> [중문] → 함박-쿨.

함벡이-꼿 명 <식> [중문] → 함박-쿨.

함불레기 명 [서홍] → 부글레기.

함불레기-트다 동 [수산 서홍] → 버꿀레기-트다.

함석 명 함석. [전역]

합덕-독게 명 <동> 닭새우의 일종. * 합덕독게옌 ᄒᆞᆫ 건 생김새가 거미ᄀᆞ찌 생긴 거라마씸.('합덕독게'라는 것은 생김새가 거미처럼 생긴 겁니다.) [위미]

합삭-합삭 부 잇따라 나부죽하게 거동하는 모양. * 합순을 먹으믄 합삭합삭.('합순' 먹으면 합삭합삭.) [전역]

합삭-ᄒᆞ다 형 물건의 형상이 둥굴거나 높지 않고 나부죽하다. [전역]

합-순 명 합다리나무의 어린 잎. * 봄에 합순 ᄐᆞ아당 국 끓영 먹엇주.(봄에 '합순' 뜯어다가 국 끓여 먹었지.) [성읍]

합순-낭 명 <식> 합다리-나무. [전역]

합장 명 [인성 서홍 가시] → 합장-거리.

합장-거리 명 궤(櫃)의 장식 중에서 궷

문짝을 달아 붙이고 하는 장식. [노형 김녕] = 합장, 합장-장석.

합장-장석 명 [인성] → 합장-거리.

합저 명 <동> [하도] → 합ᄌᆞ.

합ᄌᆞ 명 <동> 홍합(紅蛤). [우도] = 합저, 홍압, 홍합.

합-체 명 <도> 가루를 쳐내거나 액체를 밭아내는 마소의 총으로, 눈이 조금 잘게 짠 제구. 보통 쳇불의 구멍이 0.6밀리미터 정도로 이루어진 체. [전역]

핫강이 명 [조천] → 헛갱이.

핫갱이 명 [서홍 태흥 표선 수산 세화] → 헛갱이.

핫-바리 명 *나이 든 사름들은 먼 디 갈 수도 엇고 숨이 차그네 못ᄒᆞ민 ᄀᆞ듸 신 사름은 하줌수엔 ᄒᆞ곡, 핫바리엔도 ᄒᆞ곡, 돌ᄑᆞ레엔도 ᄒᆞ곡.(나이 든 사람들은 먼 데 갈 수도 없고 숨이 차서 못하면 가에 있는 사람은 '하줌수'라고 하고, '핫바리'라고도 하고, '돌ᄑᆞ레'라고도 하고.) [하도] → 하군.

핫-아방 명 핫-아비. [전역]

핫-어멍 명 핫-어미. [전역]

핫-이불 명 솜-이불. [전역]

핫-질 명 핫-길(下秩). [전역]

항 명 독(瓮). 중간 부분이 부른 큰 독(瓮). [전역] = 황[2]. 고 항.

항-개 명 <지> [전역] → 군랭잇-개.

항-거리 명 <지> [조천] → 한-거리.

항걸-ᄒᆞ다 형 [전역] → 한거-ᄒᆞ다.

항-것 명 [조수 어도] → 마누라[1].

항고지 명 [가시 수산 어도] → 황고지.

항곱-사다 동 곤두-서다.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건두왁-사다, 건주왁-사다, 곤주왁-사다, 곤지-사다.

항글-ᄒᆞ다 형 [전역] → 한거-ᄒᆞ다.

항-긋 명 [조수 노형 인성 서홍 김녕] → 마누라[1].

항긋-그르 명 마맛-자국. [노형 조수 김녕 인성 서홍] = 준지-그르, 한집-그르, 한짓-그르.

항-두께 명 독-뚜껑.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황-두께.

항바두리 명 <지> 제주시 애월읍 고성리의 옛 이름. [전역] = 항파두리.

항에-무색 명 <민> 항라무색(亢羅--). [전역]

항-장시 명 독-장수(瓮商人). [전역]

항-장ᄉᆞ 명 독-장사(瓮商). [전역]

항정[1] 명 <식> 죽대. [전역] = 황정.

항정[2] 명 항정. 소나 말의 목 부분. [전역] = 목그래.

항파두리 명 <지> [전역] → 항바두리.

해[1] 명 해(太陽). [전역] 고 히.

해[2] 부 많이, 거의. [전역] 고 해.

해-갓 명 햇-무리(日暈). [전역] = 햇-머리, 햇-모리, 헷-머리, 헷-모리. 고 힛귀엣골.

해갓-쓰다 동 해 둘레에 둥글게 테두리가 나타나다. [전역] = 햇머리-ᄒᆞ다, 헷머리-ᄒᆞ다.

해경(解警) 명 <어> 해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채취를 금하였다가 합의된 날짜에 그 금지를 풀고 해산물을 캐기 시작하는 일. *엿날은 해경 그런 거 아녕 바당을 그냥 내불어낫주게.(옛날은 '해경' 같은 거 안 하고서 바다를 그냥 내버렸었지.)

[이호 상모]

해남석 명 양지 바른 곳. *ᄒᆞᆫ 멧 둘 후에는 그 여청이 아길 안아그네 해남석에 앚안 잇어렌.(한 몇 달 후에는 그 여자가 아기를 안아서 '해남석'에 앉아 있더래.) [구좌]

해낮 명 [전역] → 낮.

해녀(海女) 명 해녀. [전역]

해녀 네젓는 소리 명 <요> [전역] → 해녀 놀레.

해녀 놀레 명 <요> 해녀들이 물질 작업하러 배를 타서 다닐 때 노를 저으면서 부르는 제주 특유의 민요. 가끔 헤엄쳐서 어장을 드나들 때도 불림. 노를 젓는 동작과 밀착되어서 가락이 역동적이며, 그 사설은 매우 풍부해서 해녀작업의 실상이나 출가생활(出嫁生活)을 노래하는 한편 일상적인 생각도 폭넓게 담고 있음. [전역] = 잠수 놀레, 해녀 네젓는 소리, 해녀 뱃놀레, 해녀 뱃소리, 해녀질-소리.

해녀 뱃놀레 명 <요> [전역] → 해녀 놀레.

해녀 뱃소리 명 <요> [전역] → 해녀 놀레.

해녀-질 명 [전역] → 줌녜-질.

해녀질-소리 명 <요> [전역] → 해녀 놀레.

해-돋이 명 해-돋이. [전역] 고 히도디.

해돋이-붉음 명 아침-놀. [인성 서홍 수산] = 붉은-헤돋이, 헤돋이-붉음.

해-뜨다 동 해-뜨다. [전역] = 해-트다, 헤-트다.

해-롭다(害--) 형 해-롭다. [전역]

해르비-군벗 명 <동> [이호] → 해르비-굼벗.

해르비-굼벗 명 <동> 털-군부. *굼벗도 돌군벗도 잇곡, 해르비굼벗도 잇곡.(군부도 '돌군벗'도 있고 털군부도 있고.) [하도] = 해르비-군벗.



해르비굼벗

해-바라기 명 <식> [전역] → 해-바레기[1].

해-바레기[1] 명 <식> 해-바라기. [전역] = 해-바라기.

해-바레기[2] 명 [노형 어도 조수] → 천상-바라기.

해방(解放) 명 해방. [전역]

해벤 명 해변(海邊). [전역]

해벤-놈 명 바다 근처의 마을에 사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전역]

해송(海松) 명 해송. [전역]

해숨 명 <동> 해삼(海蔘). *(속) 미안은 해숨 창지.(미안은 해삼 창자.) [전역] = 미[3]. 고 해숨.

해왕-낮 명 [전역] → 방-낮.

해웨 명 해외(海外). [전역]

해-전 명 [노형 어도] → 해-ᄒᆞᆫ.

해지기-붉음 명 저녁-놀(夕霞). [인성 수산 서홍] = 붉은-해지기, 헤지기-붉음.

해-지다 동 해-지다(日沒). [전역]
해진-밧 명 <민> 해가 떨어진 밭이라는 뜻으로 매우 넓은 밭. [온평]
해질-ᄀᆞ리 명 해질-녘. [전역]
해짓-골 명 <지> 제주시 일도1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해천 영업 구 바다에서 나는 해산물을 캐는 일을 생업으로 삼는 일. *헤천 영업 내온 놈아 천년 만년 원수여.(해양 영업 내놓은 놈아 천년만년 원수네.) [전역]
해치 명 [전역] → 헤치.
해-ᄎᆞ로 부 해가 저물도록. 저물 때까지. [노형 조수 어도] = 해-ᄎᆞ르.
해-ᄎᆞ르 부 [수산 세화] → 해-ᄎᆞ로.
해-촌 명 [표선 수산] → 해-흔.
해-트다 동 [전역] → 해-뜨다.
해-폴다 동 그날 하루를 보내다. [전역]
해-흔 명 해-전. 종일. [전역] = 해-전, 해-촌, 혜-흔.
햇-머리 명 [전역] → 해-갓.
햇머리-ᄒᆞ다 동 [전역] → 해갓-쓰다.
햇-모리 명 [가시 세화] → 해-갓.
햇-발 명 햇-발(日脚). [전역]
햇-빗 명 햇-빛(日光). [전역]
햇-살 명 햇-살. [전역]
행기 명 [전역] → 놋-그릇.
행기-물 명 놋그릇에 담긴 물. *고구랑나무 행기물 아래 나를 숨쳐 달라.(고구랑나무 '행기물' 아래 나를 숨겨 달라.) [전역] = 행기-수.
행기-수 명 <민> [전역] → 행기-물.
행기-치메 명 <의> 행주-치마. [용담]
행깃-ᄆᆞ르 명 <지> [조천] → 황계-ᄆᆞ르.
행상 놀레 명 <요> 장사를 치르는 날 상여를 장지까지 메어 가면서 부르는 민요. [전역] = 영장 메어 가는 소리.
향교(鄕校) 명 [전역] → 상교.
향-불(香-) 명 [전역] → 상-불.
향사(鄕舍) 명 [전역] → 상사.
허궁-체[1] 명 오래 쓴 맷돌의 매끄러운 것을 껄끄럽게 만들기 위해서 보습 따위로 맷돌을 쪼아낸 후 돌가루 냄새를 없애기 위해서 맷돌을 헛돌릴 때 사용하는 겨. [전역]
허궁-체[2] 명 조-겨. 주로 돼지 사료로 사용함. [행원]
허깃-징 명 허기-증. [전역]
허깨 명 [전역] → 허께.
허깽이 명 *허깽이 ᄒᆞ는 거 보난 감기 걸리켜.(재채기 하는 것을 보니까 감기에 걸리겠다). [전역] → 헛갱이.
허꺼-지다 형 [전역] → 서꺼-지다.
허께 명 허깨비. [전역] = 허깨.
허끄다 동 섞다. [전역] → 서끄다[1].
허끈-ᄒᆞ다 형 무거운 짐을 지었다가 내려놓은 것 같이 몸이 거뜬하다. [전역]
허대겨-지다 동 한 곳에 모였던 것이 각각 흐트러지다. [전역] = 헤대겨-지다.
허대-이다 동 ① 된 말, 아니 된 말을 많이 늘어놓다. [전역] ② 힘에 겹도록 애쓰며 활동하다. [전역]
허댁-이다 동 허적-이다. [전역] = 허덕-이다, 허덱-이다.
허덕-이다 동 *뛰어가고 보난 ᄆᆞᆫ딱 허덕연 이서라.(뛰어가서 보니까 전

부 흐트러뜨려서 있더라.) [명월] → 허댁-이다.

허덱-이다 동 [전역] → 허댁-이다.

허둥-지둥 부 허둥-지둥. [전역]

허령-나다 동 정신에 조금 이상이 생기다. [전역] = 허왜-나다.

허리 명 허리(腰). [전역]

허리-띠 명 허리-띠(腰帶). [전역]

허리-안개 명 부티. 베를 짤 때, 베틀의 말코 두 끝에 끈을 매어 허리에 두르는 넓은 띠. [전역]

허리앗-동네 명 <지> [한경] → 허리왓-동네.

허리왓-동네 명 <지> 제주시 한경면 저지리 '닥물오름' 서북쪽 밑에 형성되었던 자연마을. [한경] = 허리앗-동네.

허리-칸 명 [표선 세화] → 한-간[1].

허릿-대 명 배의 허릿간에 세운 돛대. *이물에는 이 사공아, 고물에는 고사공아, 허릿대 밋듸 굽은 사공.(이물에는 이사공아, 고물에는 고사공아, '허릿대' 밑에 굽은 사공.) [전역]

허막-ᄒᆞ다 형 험-하다. [전역]

허맹이-문세 명 [전역] → 헤멩이-문세.

허멩이[1] 명 [전역] → 허재비.

허멩이[2] 명 <민> 칠성새남굿에서 환자의 죄를 대신하는 작은 허수아비. [전역]



허멩이[2]

허멩이-문세 명 [전역] → 헤멩이-문세.

허물 명 헌데. 몸에 난 조금 큰 부스럼. [전역] 고허믈.

허물-그르 명 몸에 큰 부스럼이 났던 흔적. [전역]

허물-나다 동 몸에 부스럼이 생기다. [전역]

허물-젱베름 명 <동> 애기-두드럭배말. [행원] → 젱베름②.

허배기 명 <도> [중문] → 허벅.

허벅 명 <도> 모양이 둥글며 배가 불룩하고 위의 아가리는 아주 좁은, 물을 길어 나르는 동이. *아주 부잰디, 동녕바치 옴을 ᄒᆞ민 허벅에 쏠 담앙 내놔가지고 무뚱에 놔가지고. (아주 부자인데, 동냥아치가 오면 허벅에 쌀을 담아서 내놓고 문바깥에 놓아서.) *(속) 허벅 진 이 호이 ᄒᆞ난, 펭 진 이도 호이 흔다.(허벅을 진 사람 호이 하니, 병(甁) 진 사람도 호이 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이 잘난 체하는 가식된 소행을 나타내는 말.) [전역] = 허배기, 허베기, 헙데기.



허벅

허벅-다리 명 허벅-다리. [전역] = 잠

짓-가달.

허벅-장단 명 물동이인 '허벅'을 이용하여 손바닥 따위로 치는 장단.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허베기-장단.

허베기 명 <도> [수산 서홍 태흥 표선] → 허벅.

허베기-장단 명 [수산 가시 김녕] → 허벅-장단.

허부작-ᄒᆞ다 형 펑퍼짐-하다. 넓적-하다. [전역]

허붕치다 동 풀어져 이리저리 뒤얽히다. [전역]

허수-ᄒᆞ다 형 무엇을 맡기기에 미덥지 못하다. [전역]

허싯것 부 마소로 밭을 갈 때 마소를 재촉하는 소리. [한림]

허-쒀 명 개치네-쒜. 재채기를 한 뒤에 내는 소리. [전역]

허어뭉치-허어뭉치 부 기운이 없이 맥 풀린 동작이나 소리. *늙은 할망 미녕 싸는 소린 허어뭉치허어뭉치.(늙은 할머니 무명실 잣는 소린 '허어뭉치허어뭉치'.) [전역]

허영-ᄒᆞ다 형 허옇다. [전역]

허왜-나다 동 [노형 조수 수산 김녕] → 허령-나다.

허우데기 명 허우대. *새침떼긴 비곡 꼴곡, 허우데긴 그렁 죽나.(새침떼기는 베고 깔고, 허우대는 그려서 죽는다.) [전역]

허우작-거리다 동 허위적-거리다. [전역]

허운데기 명 '머리털'의 낮은말. [전역]

허웃-허웃 부 무슨 일을 재빠르게 처리하여 가는 모양. [전역]

허위다 동 허비다. [전역] 고 허위다.

허위여-가다 동 ① 허덕거리며 바삐 걸어가다. [전역] ② 물건을 욕심부려 훔쳐 가다. [전역]

허위여-들다 동 허덕거리며 바삐 들어오다. [전역]

허재비 명 허수-아비. [전역] = 허멩이.



허재비

허주 명 [전역] → 허쥐.

허주-나다 동 좋지 않은 소문이 나다. [전역] = 허쥐-나다.

허주-내우다 동 좋지 않은 소문이 나게 하다. [전역]

허쥐 명 사람의 자그마한 허물이나 근거 없는 소문. [전역] = 허주.

허쥐-나다 동 [전역] → 허주-나다.

허채 명 <어> [전역] → 대-ᄌᆞ문.

허천-바레다 동 *허천바레당 푸더진다.(다른 곳을 보다가 넘어진다.) [서홍 수산] → 세경-바레다.

허터-지다 동 흩어-지다. [전역] = 흐터-지다.

허트다 동 흩다. [전역]

허폐-머리 명 <민> 쑥대-머리. [전역]

허풍-다리 명 [전역] → 건풍-다리.

허풍-쉬 명 [조수 인성] → 건풍-다리.

허풍-쟁이 명 <동> 바닷물고기인 '달고기'의 다른 명칭. [대포]

허피 명 [전역] → 헤피.
헉숙펀펀-ᄒᆞ다 형 기대하였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없어 허전하다. [전역]
헉숙-ᄒᆞ다 형 기대하였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마음에 서운하다. [전역]
헉-쉬 명 <동> 용치-놀래기. [사계]
헉-제 명 <지> [아라 광령 교래 봉개] → 흑-궤.
헌-물체 명 [수산 가시] → 헌툴-마기.
헌툴-마기 명 헌털-뱅이. '헌것'을 속되게 이르는 말. [전역] = 헌-물체.
헌헌-ᄒᆞ다 형 매우 헐다. *낭 우의, 저 머리 허붕치고 양지에 숫검댕이 칠ᄒᆞ고 어디 간 헌헌ᄒᆞᆫ 도복 주럭거멍, 시커멍ᄒᆞ게 그슨 거 입고 ᄒᆞ연가니 모르더라 ᄒᆞ여마씀.(나무 위에, 저 머리가 헝클어지고 얼굴에 숯검정 칠하고 어디 가서 매우 헌 도포 '주럭'이 검정, 시커멓게 그을은 것 해서 가니 모르더랍니다.) [전역]
헏다 동 그릇에 담긴 것이 밖으로 나오다. [전역]
헐-깝 명 헐-값. [전역] = 헐-깞.
헐-깞 명 [전역] → 헐-깝.
헐다[1] 동 상(傷)한 자리가 있다. [전역] ㉤헐다.
헐다[2] 동 헐다. ① 남의 나쁜 점을 들어쳐서 말하다. [전역] ② 참소-하다. [전역] ③ 쌓은 물건을 무너뜨리다. [전역]
헐리 명 헌-데. [전역]
헐-벗다 동 [수산] → 흘-벗다.
헐-파리[1] 명 남루한 복장의 차림새. [전역]
헐-파리[2] 부 허술하게. *당신은 어째서 헐파리 출려서 밧을 가느냐?(당신은 어째서 허술하게 차려서 밭을 갈고 있느냐?) [전역]
헐-ᄒᆞ다 형 헐-하다(歇--). [전역]
험벅 명 헝겊. [전역] ㉤헌것.
험벅-눈 명 [전역] → 함박-눈.
험벅-새기 명 헝겊 쪼가리. [전역]
헙눈이 명 <식> 바다에서 나는 잡풀의 한 가지. *바당에 궂인 잡풀 나는 것ᄀᆞ라 헙눈이렌 ᄒᆞ여.(바다에 궂은 잡풀 나는 것 보고 '헙눈이'라고 해.) [하도]
헙데기 명 <도> [서홍 수산 김녕 가시] → 허벅.
헙-짐 명 [조수] → 헙헙-징.
헙헙-징 명 헛헛-증(--症). [인성 화순 하원 서홍 수산] = 헙-짐, 헛-짐.
헛-간(-間) 명 헛-간. *(속) 헛간에 가도 홀 말은 ᄒᆞ여야 ᄒᆞᆫ다.(헛간에 가도 할 말은 해야 한다.) [전역] ㉤허간, 헛집.
헛-걸름 명 <농> 보리를 파종할 때 보리 씨앗과 따로 뿌리는 돼지거름. [상가 광령]
헛-것 명 귀신. 도깨비. [전역]
헛겅이 명 [조수] → 헛겡이.
헛겡이 명 재채기. [노형 화순 하원 인성 어도 조수] = 핫강이, 핫갱이, 허깽이, 헛경이.
헛-녁 명 헛-일. *가라쿳물광 산짓물이 ᄒᆞᆫ디 놀젱 ᄒᆞ민 헛녁이여.('가라쿳물'과 '산짓물'이 함께 놀려고 하면 헛일이네.) [전역]
헛-노릇 명 헛-노릇. [전역]

헛-드듸다 동 헛-디디다. [전역]
헛-말 명 잠-꼬대. [전역]
헛-물 명 <어> 해녀들이 막연히 소라·전복 등을 캐는 작업. 우뭇가사리라든가 톳 따위의 특정 해조류를 일정 기간에 때맞추어 캐는 경우와는 달리 그 소득이 보장되지 않고 헛될 수도 있으므로 '헛물'이라 함. [전역]
헛-불 명 도깨비-불. [시흥]
헛-숨[1] 명 <어> 해녀들이 해산물을 채취할 목적으로 바닷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다 속의 지형을 살필 목적으로 바닷물 속에 들어가는 일. [신촌]
헛-숨[2] 명 헛-숨. [전역]
헛-일 명 헛-일. [전역]
헛-입쟁이 명 <건> 문을 달지 않는 입쟁이. [전역] → 입쟁이.
헛-짐 명 [조천 노형 어도] → 헙헙-짐.
헤 조 에. 처소격 '에'의 변이형태로, '드르(野)·질(路)' 등의 명사에 붙어 쓰이는 격조사. [전역]
헤긋다 동 헤-뜨리다. [전역]
헤끄만-ᄒᆞ다 형 작다. *옛날엔 소중기 입곡 물적삼 입곡 물수건 쓰곡 헤끄만ᄒᆞᆫ 종짓눈 썽 물질헤나서.(옛날엔 '소중기' 입고 '물적삼' 입고 물수건 쓰고 조그만 '종짓눈'을 쓰고 물질하였어.) [하귀]
헤대겨-지다 동 [전역] → 허대겨-지다.
헤돋이-붉음 명 [인성 서홍 수산] → 해돋이-붉음.
헤동-목 명 <식> 돈-나무. [전역]
헤뚜룩-ᄒᆞ다 형 해읍스름-하다. [전역]
헤뜩-갈라지다 동 갑자기 뒤로 등대어 눕다. [김녕 수산]
헤뜩-자빠지다 동 갑자기 나아가 자빠지다. [전역] = 히뜩-자빠지다.
헤뜩-헤뜩 부 희뜩-희뜩. [전역]
헤뜩-ᄒᆞ다 형 빛이 잠깐 비치어 어뜩 밝다. [전역]
헤말렴 명 <민> 부부살림 따위의 일을 분산시킴. [전역] = 헤말림.
헤말림 명 [전역] → 헤말렴.
헤멩이-문세 명 아무 증거도 안 되고 소용도 없는 문서(文書). *헤멩이문세ᄀᆞ뜬 허무맹랑ᄒᆞᆫ 놈이 이 얘기를 ᄒᆞᆫ다.(허망한 문서 같은 허무맹랑한 놈이 이 얘기를 한다.) [전역] = 허맹이-문세, 허멩이-문세.
헤삭-헤삭 부 [전역] → 게실-게실.
헤삭-이 부 ① 물건을 단단하게 묶어 동이지 않은 모양. [전역] ② 해죽이 웃는 모양. [전역]
헤서 조 에서. 처소격 '에서'의 변이형태로, '드르(野)·질(路)' 따위의 명사에 결합되어 쓰이는 격조사. [전역]
헤식다 형 [노형 조수 인성 수산] → 게식다.
헤심-곡 명 <민> 시왕맞이나 귀양풀이 따위에서 영혼의 길을 칠 때 차사가 인간 세상에 내려와 영혼을 저승으로 데려가기까지의 과정을 풀이하는 대목. [전역]
헤싸-지다 동 헤벌어-지다. [전역]
헤쓰다 동 헤치다. 속에 있는 물건이 겉으로 드러나게 흐트러뜨리다. [전역] 고 헤티다.
헤아리다 동 [전역] → 세아리다.
헤양-ᄒᆞ다 형 하얗다. [전역] = 하양-

ᄒᆞ다, 허영-ᄒᆞ다, 혜영-ᄒᆞ다.

혜여-나다 동 헤어-나다. [전역] = 히여-나다.

혜염 명 [노형 어도] → 히엄, 힘[1].

혜영-ᄒᆞ다 형 [전역] → 헤양-ᄒᆞ다.

혜왕-낮 명 [노형 서홍 수산 김녕] → 방-낮.

헤우다 동 헹구다. [전역]

헤젓이-ᄌᆞ록 명 물레를 돌릴 때 손에 잡는 자루. [전역] = 헤젓이-줄리.

헤젓이-줄리 명 [인성] → 헤젓이-ᄌᆞ록.

헤지근-ᄒᆞ다 형 빛이 해읍스름하게 밝다. [전역]

헤지기-붉음 명 [인성 서홍 수산] → 해지기-붉음.

헤집다 동 헤집다. [전역]

헤천-바레다 동 [인성 조수] → 세경-바레다.

헤츰-바레다 동 [노형] → 세경-바레다.

헤치 명 띠. 출생한 해를 간지로 구별하는 것. [전역] = 해치.

헤-ᄒᆞᆫ 명 [전역] → 해-ᄒᆞᆫ.

헤틀랑 부 벌러덩. [전역]

헤피 부 헤피. [전역] = 허피, 흐피, 희피.

헬랑-헬랑 부 물건이 딴딴하지 못하고 너무 부드럽고 약해 잘 휘어지는 모양. [전역]

헬쑥-ᄒᆞ다 형 핼쑥-하다. 얼굴이 파리하고 핏기가 없다. [전역]

헷-송아기 명 [전역] → 헷-송아지.

헷-송아지 명 아직 나이가 어리어 부리기에 적당하지 못한 송아지. [전역] = 헷-송아기.

헷-아이 명 나이가 어리어 일을 감당하여 나갈 수 없는 아이. [전역]

헹경 명 행전(行纏). [전역]

헹경-낭 명 [어도] → 메-낭.

헹상-꾼 명 행상-꾼(行喪-). [전역] = 담상-꾼, 운상-꾼.

헹실 명 행실(行實). [전역]

헹실-머리 명 '행실'의 낮은말. [전역]

혀뜩-ᄒᆞ다 형 [대정] → 히여뜩-ᄒᆞ다.

현금(現金) 명 [전역] → 선금.

현물-세(現物稅) 명 [전역] → 선물-세.

혈망-봉(穴望峰) 명 <지> 한라산에 있는 바위 봉우리. 구멍이 뚫려 있어 마치 조망대에 설치된 망원경으로 천양지간(天壤之間)을 내다보는 듯함. [전역]

형(兄) 명 [전역] → 성[3].

형세(形勢) 명 [전역] → 성세.

형제(兄弟) 명 [전역] → 성제.

형제-도(兄弟島) 명 <지> [서귀포 중문] → 성제-섬.

형제-봉(兄弟峰) 명 <지> 제주시 봉개동 명도암에 나란히 이웃한 안세미오름·밧세미오름을 아우르는 이름. [봉개] = 성제-봉.

형제-산(兄弟山) 명 <지> 제주시 애월읍 금덕리에 형제처럼 서 있는 노꼬메큰오름과 족은오름을 아울러 일컫는 이름. [금덕] = 성제-산.

형제-섬(兄弟-) 명 <지> [서귀포 중문] → 성제-섬.

형제-암(兄弟岩·兄弟巖) 명 <지> [서귀포 중문] → 성제-섬.

혯ᄇᆞ름-소리 명 이른 봄 꿩들이 짝짓기가 이루어지는 시기에 사냥꾼들이 혀(舌)를 구부려 바람을 일으켜 암꿩

이 수꿩을 유혹하며 부르는 소리를 흉내내는 소리. '헷ᄇᆞ름소리'를 들은 수꿩은 암꿩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인 줄 알고 고개를 쳐들거나 사냥꾼에게로 달려오는 수가 많은데, 이때 사냥꾼이 자기 앞으로 달려오는 수꿩을 총으로 쏘아 잡음. [성읍]

호각(號角) 명 호각. [전역]

호강이 명 옹당이. [전역] = 옹뎅이.

호근-떡 명 제사 때 제물로 소용되는 떡을 다 갖춰 올리는 떡. * 제사ᄒᆞ민 떡헹 올리주. 떡은 호근 거. 호근떡이엔 헹은에 올리주.(제사하면 떡해서 올리지. 떡은 다 갖춘 거. 갖춘 떡이라고 해서 올리지.) [성읍]

호근-산(好近山) 명 <지> [전역] → 고근-산.

호다 동 호다(縫). [전역]

호달-매 명 <동> 아주 크고 걸싼 말(馬). [전역]

호도-낭 명 <식> 호두-나무. [전역] = 호두-낭.

호도천불-나게 부 아주 호되게. [전역]

호두-낭 명 <식> [전역] → 호도-낭.

호랑이 명 <동> 호랑이(虎). [전역] = 호렝이.

호량 명 [노형 어도 조수 인성 화순 하원] → 호령(號令).

호렝이 명 <동> [전역] → 호랑이.

호령(號令) 명 호령. [서홍 수산 김녕] = 호량.

호령-못 명 쟁기의 성에가 함부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 마루 위쪽에 구멍을 내어 박은 나무못. [전역]

호령-창 명 <건> 마루방인 '상방'의 큰 대문 옆에 시설한 조그만 창. 판문으로 만들어짐. [표선 서귀포 중문]

호로록 부 호로록. [전역]

호로의-ᄌᆞ식 명 호래-아들. 호래-자식(--子息). [전역]

호록 부 묽은 죽 따위를 요란스럽게 재빨리 들이마시는 소리 또는 그 모양. [전역]

호롱이 명 <도> 줄, 참바 따위를 뒤트는 제구. [노형 어도 인성 수산 서홍 가시] = 훼롱, 훼롱이.



호롱이

호맹이 명 <도> [성산 종달] → 골갱이.

호멩이 명 <도> [전역] → 골갱이.

호미 명 <도> 낫(鎌). [전역]

호미-걸이 명 [조수] → 호미-공젱이.

호미-공젱이 명 씨름할 때 다리를 맞은편의 다리 바깥쪽 아래로 걸어 당기는 기술. [노형 어도 가시] = 낚시-공젱이, 호미-걸이, 호미열-공젱이.

호미열-공젱이 명 [수산] → 호미-공젱이.

호박 명 <식> ① 박과의 한해살이 덩굴풀. [전역] ② 호박(南瓜). [전역]

호박-꿀 명 [서홍 수산 가시] → 호박-줄.

호박-굿 명 <농> 호박씨를 묻고 두두

룩하게 모아 올린 흙. [전역]

호박-데가리 명 [노형 조수 인성 서홍] → 민둥-데가리.

호박-메 명 호박 모(苗). [전역]

호박-시리 명 <식> 조의 일종. [영평]

호박-줄 명 호박-덩굴.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호박-꿀, 호박-출.

호박-출 명 [수산 가시] → 호박-줄.

호상-똘 명 장차 수의(壽衣)를 마련해 줄 요긴한 딸. *멩지 석 자 호상똘.(명주 석 자 '호상딸'.) [전역]

호상-옷 명 <의> 수의(壽衣). [전역]

호시 명 호사(豪奢). [전역] = 호ᄉᆞ.

호식-재열 명 <동> 매미의 한 종류. 이 매미는 처서 무렵에 우는데, '호식호식' 하며 운다는 뜻에서 붙은 이름. [상가]

호ᄉᆞ 명 [전역] → 호시.

호ᄉᆞ-와치 명 호사-바치(豪奢--). 몸치장을 호화롭고 사치스럽게 하는 사람. [전역] = 호ᄉᆞ-쟁이.

호ᄉᆞ-쟁이 명 [전역] → 호ᄉᆞ-와치.

호양-연 명 <민> 화냥-년. [온평]

호장-근(虎杖根) 명 <식> 호장-근. [전역]

호적-궤 명 호적단자(戶籍單子)를 보관하던 궤(櫃). *요 검질광 날 아니 난덜 호적궤에 곪영 가랴.(요 김과 날 아니 낳은들 호적궤에 곪여서 가랴.) [전역]

호-촌(狐村) 명 <지> [남원] → 호촌-리(狐村里).

호촌-리(狐村里)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와 하례리 일대에 형성되었던 조선시대의 마을. 조선 후기에는 예촌리(禮村里)로 바꾸었음. [남원] = 호-촌.

호촌-망(狐村望)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1리 예촌망(禮村望)의 옛 이름. [남원] = 호촌-봉(狐村烽).

호촌-봉(狐村烽) 명 <지> [남원] → 호촌-망(狐村望).

호켱 명 호성(呼聲). 부르는 소리. [용담]

호통 명 [전역] → 호통이.

호통이 명 호통. [전역] = 호통.

혹[1] 명 혹(瘤). [전역]

혹[2] 명 확(臼). [전역]

혹제기 명 <도> 한 홉 정도를 담을 수 있는 크기의 바가지. [전역]

혼(魂) 명 혼. [전역]

혼-나다(魂--) 동 혼-나다. [전역] 고 혼써러지다.

혼벡-상 명 죽은 사람의 위패(位牌)를 그 안에 넣어서 모시는 상. [전역]

혼벡-상지 명 혼백-상자(魂魄箱子). [전역]

혼ᄉᆞ 명 혼사(婚事). [전역]

혼-쉠 명 <민> 영혼을 위하여 길을 치워 닦는 의례인 질침을 할 때 문 바깥에서 영혼에게 바칠 저승옷을 들고 영혼을 불러 청함. [전역]

혼연-입장 명 <민> 혼인입장(婚姻入丈). 혼인함과 장가듦. [전역]

혼자 부 혼자. [전역] = 혼차, 혼체. 고 ᄒᆞᆫᄌᆞ사.

혼정 명 혼령(魂靈). [전역]

혼차 부 [전역] → 혼자.

혼체 부 [전역] → 혼자.

홑단-치메 명 <의> 홑-치마. [전역]

홑-두루막 명 <의> 홑-두루마기. [전역]

혼-옷 명 홑-옷. [전역]
혼-이불 명 홑-이불. [전역]
홀고로미 부 무슨 일을 고대(苦待)하면서 우두커니 앉아 있는 모양. [노형 조수]
홀끗 부 마음-껏. ＊오ᄂᆞᆯ ᄒᆞ를은 홀끗 놀라고 허여 가지고 풍악을 시작ᄒᆞ엿지.(오늘 하루는 마음껏 놀라고 하여서 풍악(風樂)을 시작하였지.) [노형]
홀리다 동 호리다. [전역]
홀-목 명 [전역] → 손-목.
홀-아방 명 홀-아버지(鰥父). ＊(속) 홀아방은 웨문에 웨돌처귀, 홀어멍은 청동화리가 아옵.(홀아버지는 외문에 외돌쩌귀, 홀어머니는 청동화로가 아홉.) [전역]
홀-아비 명 홀-아비(鰥父). [전역] = 홀-애비. 고 ᄒᆞ올아비.
홀-애비 명 [전역] → 홀-아비.
홀-어멍 명 홀-어머니(寡婦). ＊(속) 홀어멍 훈다니 말라, 씨로 안 난다.(홀어머니 야단치지 마라, 씨앗으로 안 낳는다.) [전역]
홀-에미 명 홀-어미(寡婦). [전역] 고 ᄒᆞ올어미.
홀연-광찡 명 <민> 홀연광증(忽然狂症). 갑자기 미치광이가 됨. [전역]
홀태 명 <도> 훑이. [전역]
홀트다 동 [전역] → 훌트다.
훌틈-질 명 [전역] → 훌틈-질.
홈-마리 명 <건> 귀틀에 홈을 파고서 널을 끼워 넣은 마루. [전역]
홈-미리 명 <도> 개탕-대패. [전역]
홈-자갈 명 [서홍 김녕 조수 가시 수산] → 홈-챙이.
홈-지방 명 <건> 홈이 파인 문지방. [전역]
홈-질 명 홈-질(縫-). [전역]
홈-챙이 명 좁고 기다랗게 패어져 물이 괴게 된 곳. [전역] = 홈-자갈.
홈-파다 동 홈-파다. [전역] = 홈-ᄑᆞ다, 홍-ᄑᆞ다.
홈-푸다 동 옴-파다. [전역] = 옴-파다.
홈-ᄑᆞ다 동 [전역] → 홈-파다.
홉[1] 명 움큼. [전역] 고 우훔.
홉[2] 명 홉. 한 되의 십분의 일. [전역]
홉-지기 명 <민> 창고의 곡식을 홉(合)으로 지키는 신. [전역]
홍-걸레 명 <민> 말-방울. [전역] = 홍-마음.
홍굴-저데 명 <민> 요령(搖鈴) 선생으로 일컬어지는 이. [전역]
홍뎅이 명 자그마하게 움푹하게 패어져 들어간 곳. [수산 가시 조수] = 홍탱이.
홍-마음 명 <민> [전역] → 홍-걸레.
홍부-일월(紅牌日月) 명 <민> 벼슬살이한 내력이 있는 집안에서 모시는 조상. [전역]
홍사-줄 명 <민> 홍사-줄(紅絲繩). 죄인을 묶는 줄. [전역] = 홍ᄉᆞ-줄.
홍세-미녕 명 혼례를 치르는 날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지고 가는 혼서함 속에 넣는 무명. [전역]
홍세-함 명 혼례를 치르는 날 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지고 가는 납폐함(納幣函). 함 속에는 예장과 무명을 넣음. [전역]
홍-시리 명 <민> 홍두깨. [용담]
홍ᄉᆞ-줄 명 <민> [전역] → 홍사-줄.

홍아기 명 <요> 농촌에서 혼자 또는 여러 사람이 노동하면서 부르는 소리. [전역] = 홍애기[2].
홍악-홍악 부 [전역] → 흥악-흥악.
홍압 명 <동> [전역] → 합ᄌᆞ.
홍애기[1] 명 <요> 밭매는 노래의 한 가지. 성읍과 예전의 정의현(旌義縣) 지역을 중심으로 분포됨. [성읍 삼달] = 검질매는 홍애기.
홍애기[2] 명 <요> [전역] → 홍아기.
홍애-물에 명 <어> 해녀들이 '홍애'(鰁魚)를 잡기 위하여 하는 물질. [고산]
홍어 명 <동> [전역] → 홍에.
홍에 명 <동> 홍어(鰁魚). [전역] = 홍어.
홍예(虹蜺) 명 [전역] → 황고지.
홍예-쒜 명 안장 앞쪽에 홍예처럼 박힌 쇠. [김녕 조수 인성 서홍] = 굼벙-쒜.
홍질-대 명 <도> [가시 수산] → 홍짓-대.
홍질레 명 [인성] → 얄레.
홍짓-대 명 <도> 홍두깨. [전역] = 바깃-대, 방깃-대, 뱅깃-대, 홍질-대.
홍탱이 명 [김녕] → 홍뎅이.
홍포-관디 명 <민> 홍포관대(紅袍冠帶). 큰심방의 정장. [전역]
홍-ᄑᆞ다 동 [전역] → 홈-파다.
홍합(紅蛤) 명 <동> [전역] → 합ᄌᆞ.
홍-허물 명 <민> 끝이 벌겋게 부어오르는 부스럼. [전역]
화 명 [전역] → 홰[4].
화-곽(火-) 명 [전역] → 곽.
화기-들다(火氣--) 동 불기운이 올라탈 정도가 되다. [전역]
화끈 부 화끈. [전역]
화-내다 동 [전역] → 홰-내다.
화다닥 부 화다닥. [전역]
화단 명 <도> 상여(喪輿)에 지붕 모양으로 꾸며 둘러치는 제구. [전역]
화덕 명 <건> 부뚜막. [전역]
화-등이 명 [전역] → 활-등이.
화랑-마을(花郞--) 명 <지> 제주시 해안동의 한 자연마을. 1960년대부터 화랑목장(花郞牧場) 일대에 형성된 마을이라는 데서 붙여진 이름. [전역] = 화랑-목장(花郞牧場).
화랑-목장(花郞牧場) 명 <지> [전역] → 화랑-마을(花郞--).
화르륵-화르륵 부 [전역] → 화륵-화륵.
화륵-화륵 부 당황하여 이리저리 바삐 헤매는 모양. 부리나케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모양. [전역] = 화르륵-화르륵, 화륵탁-화륵탁.
화륵탁-화륵탁 부 [전역] → 화륵-화륵.
화륵-ᄒᆞ다 형 급-하다. 바쁘다. [전역]
화리 명 화로(火爐). [전역] 고 화로.
화목(和睦) 명 화목. *나서 화목은 남자가 ᄒᆞ곡, 들어 화목은 여자가 ᄒᆞᆫ다.(나가서 화목은 남자가 하고, 들어서 화목은 여자가 한다.) [전역]
화발-악(花發岳) 명 <지> [조천 남원] → 궤페니-오름.
화-방석 명 <민> 꽃-방석(花方席). [전역]
화북-봉(禾北峰) 명 <지> [전역] → 베리-오름.
화-장(火匠) 명 <민> 불을 관리하는 뱃사람. [전역]
화장올(火長兀) 명 <지> [아라 봉개

교래] → 불칸디-오름.
화전(火田) 명 화전. [전역]
화전-백성 명 화전-백성(火田百姓). [전역]
화찍-대 명 [노형] → 불찍-대.
확 부 확. ① 바람이 한바탕 부는 모양. [전역] ② 잠자코 있다가 날래게 덤비는 모양. [전역]
환갑(還甲) 명 환갑. [전역] = 한갑.
환두-상의 명 <동> 환도-상어(環刀--). [노형 수산]
환상-비체 명 환상 부채(還上負債). *놈의 아기 자는 소린 환상비체 제운 소리.(남의 아기 자는 소린 '환상부채' 겨운 소리.) [전역]
환셍-꼿(還生花) 명 <민>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꽃. 서천 서역국에서 기른다는 주술의 꽃 가운데 하나. [전역]
환자 명 [전역] → 환재.
환재 명 환자(患者). [전역] = 환자, 환제.
환제 명 [전역] → 환재.
환칠-ᄒᆞ다 형 막힌 것이 없어 환하게 너르다. [전역]
환-ᄒᆞ다 형 환-하다. [전역]
활[1] 명 활(弓). [전역]
활[2] 명 활개. [전역]
활-등이 명 <동> 등뼈가 우묵하게 활(弓)같이 휘어든 말. [전역] = 화-등이. 고 식오등.
활딱 부 활딱. [전역]
활배로 가다 구 활개치며 가다. *저 산 뒤에 활배로 가도 가시 웨에 걸릴 패 읏다.(저 산 뒤에 활개치며 가도 가시 외에 걸릴 바 없다.) [전역]
활씬 부 훨씬. [전역] → 훨씬.
활-오름 명 <지> 서귀포시 강정동에 있는 오름. 표고 188미터. [서귀포 중문] = 궁-산(弓山).
활오름-동네 명 <지> 서귀포시 강정동 활오름 뒤쪽에 형성되었던 옛 자연마을. [서귀포 중문]
활용-동(活龍洞) 명 <지> 제주시 용담 3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활-젓다 동 활개-젓다. [전역]
활-지거리 명 [전역] → 활-질.
활-질 명 활갯-짓. [전역] = 활-지거리.
활짝 부 활짝. [전역]
활찍-대 명 <도> [김녕 가시 태흥 서홍 조천] → 불찍-대.
활천-악(活泉岳) 명 <지> [광령 금덕] → 산세미-오름.
활-치다 동 활개-치다. [전역]
활-칩 명 <건> 통나무로 엮어 임시로 만든 집. *물 밋듸 활칩을 짓고 사냥ᄒᆞ다서 ᄌᆞ연히 설촌헷주기.(물 밑에 활집을 짓고 사냥하면서 자연히 설촌(設村) 하였지.) [한림]
홧벵 명 <병> [전역] → 홧빙.
홧빙 명 <병> 화병(火病). 울화-병. [전역] = 홧벵.
홧-짐 명 홧-김(火-). [전역] = 홧-짐.
황[1] 명 [전역] → 우황.
황[2] 명 [인성 조수 서홍] → 항.
황[3] 감 [서홍 수산 김녕] → 왕.
황-가오리(黃---) 명 <동> 노랑-가오리. [전역] = 황-개오리(黃---).
황-개[1] 명 <지> [남원] → 한-개[1].
황-개[2]**(黃-)** 명 <동> 노란 털빛의 큰 수캐. [전역]

황-개오리(黃---) 명 <동> [전역] → 황-가오리(黃---).

황계-머리 명 <지> [조천] → 황계-ᄆᆞ르.

황계-ᄆᆞ르 명 <지>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옛 자연마을. [조천] = 행깃-ᄆᆞ르, 황계-머리, 황계-지, 황긴-ᄆᆞ르.

황계-지(黃鷄旨) 명 <지> [조천] → 황계-ᄆᆞ르.

황고지 명 무지개(虹霓, 虹蜺). [인성 하원 화순 세화 조천 노형 조수] = 상고지[2], 항고지, 홍예(虹蜺), 황구지.



황고지와 오름

황구지 명 [서홍 태흥 표선] → 황고지.

황-귀(黃-) 명 <동> 붉은 성게. [대평]

황긴-ᄆᆞ르 명 <지> [조천] → 황계-ᄆᆞ르.

황노 명 항라(亢羅). [전역]

황당-ᄒᆞ다 형 황당-하다. [전역] ㊟황당ᄒᆞ다.

황-돔(黃-) 명 <동> 황-도미. [전역]

황-두께 명 [수산 가시 어도] → 항-두께.

황벡비-낭 명 <식> 황벽-나무(黃蘗--). [노형 서홍 김녕 조수] = 황벡피-낭.

황벡피-낭 명 <식> [인성 수산 가시] → 황벡비-낭.

황-볼낙(黃--) 명 <동> 붉은 빛깔을 띠는 볼락. [사계]

황사-평(黃沙坪) 명 <지> [전역] → 황새왓-마을.

황새왓-마을 명 <지> 제주시 화북2동의 한 자연마을. [전역] = 황사-평, 황수-동, 황수왓-마을.

황-소(黃-) 명 <동> [전역] → 황-쉐(黃-).

황-솔(黃-) 명 <식> [전역] → 황-송(黃松).

황-솔치(黃--) 명 <동> [김녕] → 한-소치.

황-송(黃松) 명 <식> 황송. [전역] = 황-솔.

황수 명 <민> 행수(行首). 일제강점기까지 존재하던 무격(巫覡) 조직 신방청(神房廳)의 각 지역 우두머리. [전역]

황수-동 명 <지> [전역] → 황새왓-마을.

황수왓-마을 명 <지> [전역] → 황새왓-마을.

황-쉐(黃-) 명 <동> 황-소(黃牛). [전역] = 황-소(黃-).

황-애이리(黃---) 명 <동> 황-매퉁이. [수산 가시]

황-웽이(黃--) 명 <동> [수산 가시 김녕 대포] → 붉은-웽이.

황-자리(黃--) 명 <동> 붉은색을 띠는 자리돔. [사계]

황정 명 <식> [김녕] → 항정[1].

황-조 명 <농> 제 모양을 잃어버려 비정상이 되어 버린 조. [덕수]

황-조기(黃--) 명 <동> 조기의 일종. ＊황조긴 벌경ᄒᆞ주. 가끔 ᄒᆞ나씩 무

는디 훍어. 눈도 우럭보단 크곡.(황조기는 벌겋지. 가끔 하나씩 무는데 굵어. 눈도 우럭볼락보다는 크고.) [대포]

황-주넹이(黃---) 명 <동> [인성 수산 조수] → 황-지넹이.

황-줄 명 <민> 새끼-줄. [전역]

황-지냉이(黃---) 명 <동> [김녕] → 황-지넹이.

황-지넹이(黃---) 명 <동> 황-지네. [노형 서홍 김녕 조수 가시] = 황-지냉이, 황-주넹이.

황-칠낭(黃--) 명 <식> 산-거망옻나무. [전역]

황-태오리(黃---) 명 <식> 보리의 일종. [대포]

황토-ᄃᆞ리(黃土--) 명 <민> [전역] → 황톳-ᄃᆞ리.

황톳-ᄃᆞ리 명 <민> 굿할 때 부정을 막기 위하여 집안으로 드나드는 길에 깔아 놓은 황토(黃土). [전역] = 황토-ᄃᆞ리.

홍화 명 <식> 잇-꽃. [전역]

홰[1] 명 <도> 횃-대(衣桁). 옷을 걸 수 있게 만든 막대.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간지, 횃-대.

홰[2] 명 횃-불(炬火). [전역] = 횃-불.

홰[3] 명 <음> [전역] → 훼[1].

홰[4] 명 화(火). 몹시 언짢거나 못마땅해서 나는 성. [전역] = 화.

홰걸음-치다 동 매우 바쁜 걸음을 하다. [전역]

홰-내다 동 화-내다. [전역] = 화-내다.

홰-동그랑ᄒᆞ다 형 [노형 조수 인성] → 훼-동그랑ᄒᆞ다.

홰홰-울다 동 닭이 연달아 울어대다. [전역]

횃-대 명 <도>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 홰[1].

횃대-똥 명 [인성] → 횃-똥.

횃대-쉬 명 [인성 조수] → 걱대-쉬.

횃-똥 명 활개-똥. 몹시 힘차게 내깔기는 물똥. [전역] = 횃대-똥.

횃-불 명 [전역] → 홰[2].

횃-짐 명 [전역] → 홧-짐.

횃-집 명 [전역] → 휏-집.

회 명 <음> [전역] → 훼[1].

회수-동(廻水洞) 명 <지> 서귀포시 중문동 위쪽 마을. [중문] = 도래-물.

회천-동(回泉洞) 명 <지> 제주시 봉개동의 한 마을. 동회천과 서회천으로 나뉨. [전역]

휏-집 명 [전역] → 휏-집.

효녀(孝女) 명 효녀. [전역] = 소녜.

효사수 명 명찰. 명부. [구좌]

효심(孝心) 명 효심. [전역] = 소심.

효ᄌᆞ 명 효자(孝子). [전역] = 소제.

후곡-악(後曲岳) 명 <지> [성산] → 뒤굽은이-오름[2].

후려-ᄀᆞᆯ기다 동 후려-갈기다. 채찍 따위로 몹시 때리다. [전역]

후려-들다 동 몹시 바삐 들어오다. [전역]

후련-ᄒᆞ다 형 손님을 대접하지 못하여 섭섭하고 미안하다. [전역]

후레-아돌 명 후레-아들. [화순 태흥 수산 조천 어도] = 후리-아돌.

후리다[1] 동 ① 채찍 따위로 갈기다. [전역] ② 모난 부분을 깎아버리다. [전역]

후리다[2] 동 후리다. 휘둘러서 때리거나 잡거나 하다. ＊옛날은 멜 하영 후렷주.(옛날에는 멸치를 많이 후렸지.) [전역]
후리메 명 <의> [전역] → 두루-마기.
후리-아돌 명 [하원 서홍 표선 세화] → 후레-아들.
후리-질 명 <어> [인성 서홍] → 후림-질.
후리후리-ᄒᆞ다 형 후리후리-하다. [전역]
후림-대 명 후림. 남을 꾀어 후리는 수단. [전역]
후림-질 명 <어> 후리-질. [김녕 수산 노형 조수 가시] = 후리-질.
후릿-구물 명 <도> 후릿-그물. [전역]
후맛이-대잔치 명 <민> [전역] → 마누라-베송.
후박-낭 명 <식> [노형 조수 수산 김녕 가시] → 반두어리.
후-보롬 명 후-보름. [전역] = 후-보름.
후-보름 명 [전역] → 후-보롬.
후-새남 명 <민> 사람이 죽은 뒤에 영혼이 저승으로 잘 가도록 비는 굿. [전역]
후ᄉᆞ 명 후사(後事). [전역]
후워 감 [전역] → 수워.
후-제 명 후-제. [전역] 규후제.
훈다니 명 [전역] → 흔다니.
훈다니-ᄒᆞ다 동 야단-치다. [전역]
훈들르다 동 휘-두르다. [전역]
훈터 부 ＊뒌 벗이고 아이 뒌 벗이고, 훈터 짜다 놔서 그자 세월 보내염시민.(된 벗이고 아니 된 벗이고, 계속하여 짜다 놓고서 그저 세월만 보내고 있으면.) [노형] → 홀터.
훌씬 부 [전역] → 훨씬.
훌질레 명 [서홍 수산 가시] → 얄레.
훌쭉-ᄒᆞ다 형 훌쭉-하다. [전역]
훌터 부 계속. [전역] = 훈터.
훌트다 동 훑다. [전역] = 홀트다.
훌틈-질 명 홀태-질. [전역] = 홀틈-질.
훍다 형 굵다. [전역] = 굵다.
훍은-모살 명 [전역] → 훍은-몰레.
훍은-몰레 명 왕-모래(-砂). [전역] = 왕-모살, 왕-몰레, 훍은-모살.
훍지근-ᄒᆞ다 형 [전역] → 훍직-ᄒᆞ다.
훍지랑-ᄒᆞ다 형 굵-다랗다. [노형 조수 인성 서홍 김녕]
훍직-ᄒᆞ다 형 굵직-하다. [전역] = 훍지근-ᄒᆞ다.
훗-공론(後公論) 명 뒷-공론. 일이 끝난 후에 이러니 저러니 하여 쓸데없이 하는 의논. [전역]
훗-날 명 훗-날(後日). [전역]
훗-돌 명 훗-달(後月). [전역]
훗-맛 명 뒷-맛(後味). [전역] = 훗-입맛.
훗-입맛 명 [전역] → 훗-맛.
훙이다 동 ① 큰소리로 야단치다. [전역] ② 닭·새 따위를 소리질러 쫓다. [전역]
훤-ᄒᆞ다 형 훤-하다. [전역]
훨씬 부 훨씬. [전역] = 활씬, 훌씬.
훼[1] 명 <음> 회(膾). [전역] = 홰, 회.
훼[2] 명 훼. 울이 깊어 신으면 발목까지 들어가고 하는 버선 모양으로 된 가죽신의 한 가지. [전역]
훼게 명 회개(悔改). [전역]
훼답 명 회답(回答). [전역]
훼-동그랗ᄒᆞ다 형 휘-둥그렇다. [수산

김녕] = 홰-동그랑ᄒᆞ다, 휘-동그랑ᄒᆞ다.
훼롱 명 <도> [김녕] → 호롱이.
훼롱이 명 <도> [인성 조수 김녕] → 호롱이.
훼초리 명 [전역] → 훼추리.
훼추리 명 회초리. [전역] = 훼초리.
휏-국 명 <음> 해산물과 채소 등을 식초를 넣은 양념장에 버무려서 만든 냉국. *군벗으로 휏국 하영 ᄒᆞ영 먹어. 젯도 헹 먹고.(군부로 횟국 많이 해서 먹어. 젓갈도 해서 먹고.) [이호]
휏-집 명 횟-집. [전역] = 횃-집, 횟-집.
휑경 명 [노형] → 메-낭.
휘-갈아뎅기다 동 싸-돌아다니다. [전역]
휘-감다 동 휘-감다. [전역]
휘다 동 휘다. 꼿꼿하던 물체가 구부러지다. [전역]
휘-동그랑ᄒᆞ다 형 [서홍] → 훼-동그랑ᄒᆞ다.
휘양 명 <의> 휘양. 추울 때 머리에 쓰던 모자의 하나. [전역]
휘-젓다 동 휘-젓다. [전역]
휘-조치다 동 뒤에서 급하게 휘몰아 쫓아버리다. [전역]
휘지근-ᄒᆞ다 형 휘주근-하다. 몹시 고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할 만큼 기력이 없다. [어도 조수 노형]
휘틀랑 부 휘우뚱. 사람이나 물체가 중심을 잃고 한쪽으로 기울어지거나 쓰러질 듯한 모양. [전역]
휙 부 휙. [전역]
흉년(凶年) 명 [전역] → 숭년.
흐랑-ᄒᆞ다 형 끈기 있는 물건이 휠 정도로 아주 부드럽다. [전역]
흐렁 명 수렁(水濘). [전역]
흐렁-논[1] 명 <농> [중문] → 흐렝이.
흐렁-논[2] 명 <농> [조수 수산 가시 김녕] → 흐렁-답(--畓).
흐렁-답(--畓) 명 <농> 수렁-논. [전역] = 흐렁-논[2].
흐렝이 명 <농> 골-답(-畓). [중문] = 흐렁-논[1].
흐로 조 으로. 방향·경로를 나타내는 '으로'의 변이형태로, '드르(野)·질(路)' 따위의 명사에 연결되어서 쓰이는 격조사. [전역]
흐르다 동 흐르다(流). [전역] = 흘르다. 고흐르다.
흐리다 형 흐리다(濁). [전역]
흐리-물 명 <지> [전역] → 흐리물-바위.
흐리물-바위 명 <지>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의 한 자연마을. [전역] = 흐리-물.
흐린-돌와리 명 <식> 조의 일종. [하원]
흐린-조 명 <식> 차-조(糯粟). [전역]
흐린조-떡 명 <음> 차조-떡(糯粟-). [전역]
흐린조-팝 명 <음> 차조-밥(糯粟飯). [전역]
흐린-좁쌀 명 차-좁쌀(糯粟-). [전역]
흐멩이 명 [서홍] → 홍젱이.
흐터-지다 동 [전역] → 허터-지다. 고흐터지다.
흐피 부 [전역] → 헤피.
흑 명 흙(土). [전역] = 헉.
흑-걸리 명 <병> 눈-병. [전역]
흑굿 붋는 소리 명 <요> 초가집을 지을 때 개벽질할 흙을 마련하기 위하

여 소에 쟁기를 메워 마당을 갈아엎고 보릿짚과 물을 섞어서 밟아 이기면서 부르는 민요. [상천]

흑-궤 명 <지> 제주시 아라동 한라산 국립공원의 개미목밧 남동쪽 냇가 언덕에 있는 굴. [아라 광령 교래 봉개] = 헉-제.

흑궤-골째기 명 <지> 한라산 국립공원 흑궤 밑에 있는 골짜기. [아라 광령 교래 봉개] = 탐라-계곡(耽羅溪谷).

흑궤-물 명 <지> 한라산 국립공원 용진굴 북동쪽의 흑궤 밑 냇바닥에서 솟는 샘. [아라 광령 교래]

흑-꾸제기다 동 가루같이 된 흙에 물을 넣어서 뒤적이고 발로 밟고 하면서 아주 질퍽질퍽하게 이기다. [전역]

흑-덩이 명 [전역] → 흑-뎅이.

흑-뎅이 명 흙-덩이(土塊). [전역] = 흑-덩이, 흑-벙에.

흑밥-장난 명 소꿉-장난. 아이들이 흙을 반죽하여 음식을 차리는 흉내를 내며 노는 일. [전역]

흑밥-ᄒᆞ다 동 소꿉질-하다. 아이들이 흙으로 밥을 짓고 살림살이를 하는 흉내를 내며 놀다. [전역]

흑-벙뎅이 명 흙-덩어리. [전역]

흑-벙에 명 [전역] → 흑-뎅이.

흑벙에 두드리는 소리 명 <요> [전역] → 곰베질 소리.

흑붉은-오름 명 <지> 한라산 국립공원의 제주시 아라동과 조천읍 교래리의 경계, 백록담 북동쪽 3킬로미터에 있는 오름. 표고 1381미터. [전역] = 토적-악(土赤岳).

흑-소왕이 명 <식> 조방-가새. [김녕 조수 인성] = 헉-소왕이.

흑송(黑松) 명 <식> 흑송. [전역]

흑-악(黑岳) 명 <지> [전역] → 검은-오름[4].

흑-일 명 흙-일(土役). [전역] = 헉-일.

흑-질 명 흙-질. [전역] = 헉-질.

흑질ᄒᆞ는 소리 명 <요> 초가집을 지을 때 흙으로 개벽질을 하며 부르는 민요. [남원 신흥]

흑-칠 명 흙-칠. [전역]

흔 조 은. 받침 있는 사물을 지정하여 제시하는 특수조사 '은'의 변이형태로, '드르(野)·질(路)·조(粟)' 따위의 명사에 연결되어 쓰이는 격조사. [전역]

흔다니 명 남이 하는 일에 대하여 잘하니 못하니 하고 말질을 함. [노형 조수 인성 수산 가시] = 훈다니, 흔단.

흔다니-ᄒᆞ다 동 잔소리-하다. [전역] = 훈다니-ᄒᆞ다.

흔단 명 [서홍 수산 김녕 가시] → 흔다니.

흔들다 동 흔들다. [전역] = 흥글다. 고 후늘다.

흔들-흔들 부 흔들-흔들. [전역]

흔전-ᄒᆞ다 형 흔전-하다. [전역]

흔-ᄒᆞ다 형 흔-하다. [전역]

흘강-흘강 부 숨이 가빠서 헐떡거리며 가르랑거리는 소리. [전역]

흘게-늦다 형 흘게-늦다. 하는 짓이 야무지지 못하고 느슨하다. [전역]

흘겨-보다 동 [전역] → 실겨-보다.

흘그랑-흘그랑 부 그르렁-그르렁. [전역]

흘그-새 명 <민> 흘깃흘깃하는 새(邪). [전역]

흘근-둘다 동 숨이 가빠서 기운 없이 헐떡거리다. [전역]
흘기다 동 흘기다. [전역] = 실구다, 실기다.
흘끗 부 흘끗. [전역]
흘끗-흘끗 부 흘끗-흘끗. [전역]
흘-내[1] 명 <지> 제주시 외도2동 신사수동으로 흘러드는 내(川). [외도]
흘-내[2] 명 <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1리를 지나 흐르는 내(川). [남원] = 토-천(土川), 흘-천(屹川).
흘락-지다 형 낄 물건보다 그 낄 자리가 커서 헐렁하다. [전역]
흘락-흘락 부 헐렁-헐렁. [전역]
흘락-ᄒᆞ다 형 헐렁-하다. [전역]
흘랑-ᄒᆞ다 동 늘어-지다. 물체의 끝이 아래로 처지다. [이호]
흘레 명 흘레. [전역] ㉣흐레.
흘레-부치다 동 흘레-붙이다. [전역] ㉣흘우다.
흘레찬-쉐 명 <동> 성욕이 왕성한 암소. [노형]
흘르다 동 [전역] → 흐르다.
흘리다 동 흘리다. [전역] = 흘치다.
흘-문뎅이 명 [세화 조천] → 피지-가죽.
흘-벗다 동 허물-벗다. 매미, 뱀 따위가 허물을 벗다. [전역] = 헐-벗다.
흘불-ᄒᆞ다 동 무슨 일에 정신을 가다듬어 명심하지 아니하다. [노형 조수 인성] = 흴불-ᄒᆞ다.
흘싹 부 ① 동여맨 노·끈 따위가 느슨한 모양. [전역] ② 낄 물건보다 낄 자리가 널러 헐거운 모양. [전역]
흘-앉다 동 암탉이 땅바닥에 대고 비비적거리거나 흙을 긁어 파앉다. [전역]
흘착-거리다 동 훌쩍-거리다. 연해 콧물을 들이마시면서 흐느끼어 울다. [노형 조수 인성 김녕]
흘착-이다 동 훌쩍-이다. 콧물을 들이마시면서 흐느끼어 울다. [전역]
흘착-ᄒᆞ다 형 [전역] → 흘탁-ᄒᆞ다.
흘-천(屹川) 명 <지> [남원] → 흘-내[2].
흘치다 동 [전역] → 흘리다.
흘-캐[1] 명 <지> 제주시 도두2동에 있는 포구. [전역]
흘-캐[2] 명 <지> 제주시 외도2동 신사수동에 있는 자연 포구. [전역]
흘탁-흘탁 부 헐렁-헐렁. *쒤 대 쏘곱에 박으난에 이거 두루 무끄믄 기냥 흘탁흘탁 빠져부러.(쇠를 대 속에 박으니까 이거 덜 묶으면 그냥 헐렁헐렁 빠져버려.) [이호]
흘탁-ᄒᆞ다 형 ① 사물이 물렁물렁해서 단단하지 못하다. [전역] ② 반죽이 묽다. [전역] ③ 품이 크거나 물건이 축 늘어지다. [전역] = 흘착-ᄒᆞ다.
흘트다 동 액체 따위가 흘러 떨어지다. [전역]
흡족-ᄒᆞ다(洽足--) 형 흡족-하다. [전역]
흥강-ᄒᆞ다 형 흥건-하다. [전역]
흥그랑-ᄒᆞ다 형 묽은 것에 건더기는 얼마 없고 물이 많다. [전역]
흥글다 동 [전역] → 흔들다.
흥성(興成) 명 [전역] → 흥정.
흥성-ᄒᆞ다(興成--) 동 [전역] → 흥정-ᄒᆞ다.
흥셍이 명 [수산 가시 서홍] → 흥젱이.
흥아-동(興亞洞) 명 <지> [전역] →

새-정드르.

흥운-마을(興運--) 명 <지> [전역] → 새-정드르.

흥으리다 동 흥(興)을 내고서 목소리를 높고 낮음의 변화를 주어 가며 빼다. [인성 노형 조수]

흥정 명 흥정. [전역] = 흥성(興成).

흥정-ᄒᆞ다 동 흥정-하다. [전역] = 흥성-ᄒᆞ다. 고 흥졍ᄒᆞ다.

흥졩이 명 어린애가 무엇을 달라고 보채는 짓. [어도 조수 노형 조천] = 흐멩이, 흥셍이.

흥창-거리다 동 흥청-거리다. [전역]

흥창-망창 부 흥청-망청. [전역]

흥흥-ᄒᆞ다[1] 동 흥흥-거리다. 어린애가 무엇을 달라고 보채며 울다. [전역]

흥흥-ᄒᆞ다[2] 동 흥흥-하다. [전역]

희 조 에. 처소격 '에'의 변이형태로, '우(上)·솝(裡)' 등에 연결되어서 쓰이는 격조사. [전역]

희다 형 희다(白). [전역] 고 히다.

희도 조 에도. 처소격 '에'에, '다른 곳에는 물론 그곳에 또한'의 뜻인 '도'가 결합된 '에도'의 변이형태로, '솝'(裡) 따위의 명사에 연결되어 쓰이는 격조사. [전역]

희뚜룩-ᄒᆞ다 형 희읍스름-하다. [전역]

희피 부 [노형 조수 인성] → 헤피.

흰-개발시리 명 <식> 조의 일종. [영평]

흰-공ᄌᆞ 명 [어도] → 흰-알.

흰덕-시리 명 <식> 조의 일종. [영평]

흰-도야지 명 <동> [전역] → 흰-돗.

흰-돗 명 <동> 흰 털빛을 한 돼지. [전역] = 흰-도야지.

흰-머리창 명 안상제(女喪制)가 상중(喪中)에 머리에 땋는 길게 오린 흰 헝겊. [전역]



흰머리창

흰-새더기 명 [노형] → 신-새데기.

흰-쏠 명 [전역] → 곤-쏠. 고 흰뿔.

흰-알 명 흰-자위. [전역] = 흰-공ᄌᆞ.

흰-잉어 명 <동> 은-잉어. [표선]

흰-조기 명 <동> [인성, 서홍, 가시, 수산, 김녕, 대포] → 신-조기.

흰-죽 명 <음> [전역] → 곤-죽.

흰-콩 명 콩의 일종. *흰콩은 콩ᄂᆞ물 놓는 콩. 엇이민 흰콩으로도 장도 담는디 푸린콩보단 맛이 엇낸 ᄒᆞ여.(흰콩은 콩나물 놓는 콩. 없으면 흰콩으로도 장도 담그는데 푸르대콩보다 맛이 없다고 해.) [하원]

흰-풋 명 흰-팥. [전역]

흴 조 엘. 향진격 '엘'의 변이형태로, '우(上)·녘' 따위의 명사에 연결되어 쓰이는 격조사. [전역]

흴불-ᄒᆞ다 동 [서홍 수산 김녕 어도] → 흘불-ᄒᆞ다.

히 조 가. 주격 '가'의 변이형태로, '질(路)·솝(裡)·ᄒᆞ나(一)' 따위의 명사에 연결되어서 쓰이는 격조사. [전역]

-히- 선어말 -히-. 흔히 'ㄱ·ㄷ·ㅂ …' 등의 받침 없는 어간에 붙어서,

동사를 피동·사동화하는 선어말어미. ＊그 사름 줴 읎는 사름을 갇히고, 그리ᄒᆞ고도 목ᄉᆞ질을 ᄒᆞ여?(그 사람 죄 없는 사람을 가두고, 그렇게 하고도 목사(牧使)질을 하겠는가?) [전역]

히다 동 헤다. 물속에 몸을 뜨게 하고 팔다리를 놀려 물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다. ＊이레 히영 오라.(이리로 헤엄쳐서 와라.) [전역]

히더분-ᄒᆞ다 형 ① 잡살뱅이들이 난잡스럽게 흩어져 있다. [전역] ② 쓸데없는 말을 많이 늘어놓거나 왁자지껄하게 떠드는 바람에 정신이 어지럽다. [김녕 수산 인성 조수 노형]

히뜩-자빠지다 동 [전역] → 헤뜩-자빠지다.

히밀-히밀 부 일을 게으르거나 성의없이 처리하는 모양. [전역] = 히밀-헤밀.

히밀-헤밀 부 [전역] → 히밀-히밀.

히엄 명 헤엄. [전역] = 헤염, 힘[1]. 고 헤욤.

히엄-치다 동 헤엄-치다. [전역]

히여-나다 동 [전역] → 헤여-나다.

히여뜩-ᄒᆞ다 형 ①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아이고, 머리가 히여뜩ᄒᆞ연 못 살키여.(아이고, 머리가 어질어질하여서 못 살겠네.) [전역] ② 허무맹랑하거나 거치적거리는 존재로 여겨지다. ＊이 사름은 히여뜩ᄒᆞᆫ 놈은 아무나 들여놓질 안 ᄒᆞ주기게.(이 사람은 '히여뜩한' 놈은 아무나 들여놓지를 안 하지.) [전역] = 혀뜩-ᄒᆞ다, 히엿득-ᄒᆞ다.

히엿득-ᄒᆞ다 형 [노형] → 히여뜩-ᄒᆞ다.

힘[1] 명 [전역] → 히엄.

힘[2] 명 [전역] → 심.

힘-들다 동 [전역] → 심-들다.

힘-쓰다 동 [전역] → 심-쓰다.

힝힝 부 [전역] → 잉잉.

힝힝-ᄒᆞ다 동 킹킹-하다. 어린애가 울음 섞인 소리를 내면서 조르다. [전역]

ᄒᆞ고 조 하고. ① 격조사 '와' 또는 '과'와 같은 뜻으로 둘 이상의 체언을 나열할 때 쓰이는 격조사. [전역] ② 상대가 되는 어떤 객체를 나타내는 격조사. [전역]

ᄒᆞᄀᆞᆫ 부 무슨 일을 하게 되거든. [전역]

ᄒᆞ꼼 부 아주 자그만큼. [전역] = ᄒᆞ쏠

ᄒᆞ꼼-만 부 아주 조금만. [전역] = ᄒᆞ쏠-만.

ᄒᆞ꼼-식 부 아주 조금씩. [전역] = ᄒᆞ꼼-썩, ᄒᆞ쏠-썩, ᄒᆞ쏠-씩.

ᄒᆞ꼼-썩 부 [전역] → ᄒᆞ꼼-식.

ᄒᆞ꼼-ᄒᆞ민 부 ① 그저 약간하면. [전역] ② 무슨 일이 조금만 있으면. [전역] = ᄒᆞ쏠-ᄒᆞ민.

ᄒᆞ끌락-ᄒᆞ다 형 아주 작다. ＊가윈 지럭시가 ᄒᆞ끌락ᄒᆞ난 신경질만 냄저.(그 아인 길이(키)가 작아서 신경질만 낸다). [전역] = 쪼끌락-ᄒᆞ다.

ᄒᆞ나 수 하나(一). [전역] = 하나. 고 ᄒᆞ낳.

ᄒᆞ다 동 하다(爲). [전역] 고 ᄒᆞ다.

ᄒᆞ다-못헤영 부 하다-못해. [전역]

ᄒᆞ루 명 [전역] → ᄒᆞ를.

ᄒᆞ르 명 [전역] → ᄒᆞ를.

ᄒᆞ를 명 하루. [전역] = ᄒᆞ루, ᄒᆞ르. 고 ᄒᆞᄅᆞ.

ᄒᆞ를-날 명 하룻-날(--日). [전역] 고 ᄒᆞ릇날.
ᄒᆞ를-밤 명 하룻-밤(--夜). [전역] = ᄒᆞ룻-밤. 고 ᄒᆞ릇밤.
ᄒᆞ를-저녁 명 하룻-저녁. [전역] = ᄒᆞ룻-저녁, ᄒᆞ룻-ᄌᆞ낙.
ᄒᆞ룻-밤 명 [전역] → ᄒᆞ를-밤.
ᄒᆞ룻-저녁 명 [전역] → ᄒᆞ를-저녁.
ᄒᆞ룻-ᄌᆞ낙 명 [조수 어도] → ᄒᆞ를-저녁.
ᄒᆞ마-떼민 부 [전역] → ᄒᆞ마-트민.
ᄒᆞ마-테민 부 [전역] → ᄒᆞ마-트민.
ᄒᆞ마-트민 부 하마-터면. [전역] = ᄒᆞ마-떼민, ᄒᆞ마-테민, ᄒᆞᆷ마-떼민. 고 ᄒᆞ마면.
ᄒᆞ마-ᄒᆞ마 부 하마-하마. [전역]
ᄒᆞ믈며 부 하물며. [전역] 고 ᄒᆞᄆᆞᆯ며.
ᄒᆞ미 명 [서홍 수산 표선 인성 화순 태흥 세화] → ᄒᆞᆼ애.
ᄒᆞ쏠 부 [전역] → ᄒᆞ꼼.
ᄒᆞ쏠-썩 부 [전역] → ᄒᆞ꼼-식.
ᄒᆞ쏠-씩 부 [전역] → ᄒᆞ꼼-식.
ᄒᆞ쏠-ᄒᆞ민 부 [전역] → ᄒᆞ꼼-ᄒᆞ민.
ᄒᆞᆨ 명 [전역] → 흑. 고 ᄒᆞᆰ.
ᄒᆞᆨ교 명 학교(學校). [전역] = 학교(學校).
ᄒᆞᆨ교-바당 명 <어> 학교 바다. 마을에 있는 학교 시설이나 마을의 경영을 돕기 위한 경비를 공동으로 마련하느라 일부러 획정한 해녀 어장. [전역]
ᄒᆞᆨ비 명 학비(學費). [전역] = 학비(學費).
ᄒᆞᆨ-소왕이 명 <식> [노형] → 흑-소왕이.
ᄒᆞᆨ-일 명 [전역] → 흑-일.
ᄒᆞᆨ-질 명 [전역] → 흑-질.
ᄒᆞᆨᄌᆞ-금 명 학자-금(學資金). [전역] = 학자-금(學資金).
ᄒᆞᆫ 명 때. 시기. *우리가 올 ᄒᆞᆫ 뒈민 데리레 오켜.(우리가 올 때가 되면 데리러 오겠다.) [전역]
ᄒᆞᆫ간은-ᄒᆞ다 형 [전역] → ᄒᆞᆫ간-ᄒᆞ다.
ᄒᆞᆫ간-ᄒᆞ다 형 무슨 일을 하지는 않았어도 한 것과 같은 느낌이 있다. [노형 조수 인성 김녕] = ᄒᆞᆫ간은-ᄒᆞ다.
ᄒᆞᆫ-고비 명 한-고비. 가장 긴요한 때. [전역] = 한-고비.
ᄒᆞᆫ-곡지 명 ① 말(言) 등의 한마디. *말 ᄒᆞᆫ곡지에 나라의 운명이 돌아온 거라.(말 한마디에 나라의 운명이 돌아온 것이라.) [전역] ② 나무 등의 한 가지. *가졍 가는 거 ᄒᆞᆫ곡지만 도라.(가지고 가는 것 한 가지만 달라.) [전역]
ᄒᆞᆫ그뚜르 부 [노형] → ᄒᆞᆫ끗드로.
ᄒᆞᆫ긋드로 부 [전역] → ᄒᆞᆫ끗드로.
ᄒᆞᆫ긋디로 부 [전역] → ᄒᆞᆫ끗드로.
ᄒᆞᆫ-ᄀᆞ리 명 가장 긴요한 한 때. [전역]
ᄒᆞᆫ꺼번-에 부 한꺼번-에. [전역]
ᄒᆞᆫ끗드로 부 이것저것 구분 없이. 모조리. *기자 ᄒᆞᆫ끗드로 잡아 두드려 노니.(그저 구분 없이 붙잡아 두들겨 놓으니.) [전역] = ᄒᆞᆫ그뚜르, ᄒᆞᆫ긋드로, ᄒᆞᆫ긋디로.
ᄒᆞᆫ끗-지다 형 위치(位置)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전역]
ᄒᆞᆫ-날 명 한-날. *4·3스건 때사 ᄒᆞᆫ날에 죽은 사름이 핫주.(4·3사건 때야 한날에 죽은 사람이 많았지.) [전역]
ᄒᆞᆫ-냥 명 이십전(二十錢)을 예스럽게 이르는 말. [전역]
ᄒᆞᆫ너덩-나다 동 넓은 지역에 걸쳐 한

모양으로 막힘없이 트이다. [서홍 수산 김녕] = 흔너동-나다, 흔헤동-나다.

흔너동-나다 동 [수산 서홍] → 한너덩-나다.

흔-녁 명 여러 방향이 있는 데서 어느 한쪽. *흔녁으로 셍각ᄒᆞ민 분흔 일이주.(한쪽으로 생각하면 분한 일이지.) [전역]

흔놈의-역 명 한 사람의 하루 동안의 품. [전역]

흔다-흔 관 한다-하는. [전역]

흔-데 명 일대(一代). [전역] = 일-대.

흔-동안 명 한-동안. [전역]

흔들로-ᄒᆞ다 동 한곳에서 함께 하다. [노형 수산 서홍 인성 김녕 세화]

흔들-흔들 부 한들-한들. [전역]

흔듸 부 함께. [전역] = ᄀᆞ찌[1], ᄀᆞ치[1]. 고 흔듸.

흔돌 육장(--六場) 구 한 달에 여섯 번 서는 시장. *흔돌 육장 시백인 맹긴.(한 달 여섯 장 때 정한 망건. 한 달에 여섯 번 서는 장날마다 내다 팔 만큼 날짜에 맞추어서 결어야 되는 망건이라는 뜻.) [전역]

흔-때 명 한-때. 한동안. 얼마간의 시기. [전역]

흔-멍에 명 <도> 좌우에 소를 세우고 겨리로 밭을 갈 때 좌우의 소를 메우는 하나의 멍에. [영평]

흔-목 명 한-목. [전역]

흔-물[1] 명 [노형 어도 조수 인성 화순 하원] → 두-물[2].

흔-물[2] 명 음력 아흐레와 스무나흘 날의 조수(潮水). [태흥 표선 수산 가시 세화 조천 노형 서홍]

흔물-거리 명 <어> 해녀들이 어장으로 나가서 몇 차례 무자맥질해서 해산물을 채취하고 바닷가 불턱이나 탈의장 또는 배 위로 나오는 한 차례의 작업. [전역]

흔-미래로 부 사이 띄우지 않고 차례차례로. [전역]

흔-발 명 외-발. *그 놈 참 기특ᄒᆞ다. 흔발로도 잘 버텀신게.(그 녀석 참 기특하네. 외발로도 잘 견디네.) [전역]

흔-번 명 한-번(-番). [전역]

흔-베 명 한-배. 어미의 한 태(胎)에서 남. 또는 그런 새끼. *애길 흔베에서 셋 성제 나난 소문이 안 나쿠강?(아기를 한배에 세 형제를 낳으니 소문이 안 나겠습니까?) [전역]

흔벳-좀수 명 한 배를 타고 동아리 지어서 물질 가는 해녀. *육지에서는 자기 동네 물건이 족으민 물건 많은 동네로 난바르 갈 수 잇어. 흔벳좀수 열두 명이나 열다섯 명이나 경 ᄒᆞ영 베에서 밥헹 먹으멍.(육지에서는 자기 동네 물건이 적으면 물건 많은 동네로 '난바르' 갈 수 있어. '흔벳좀수' 열두 명이나 열다섯 명이나 그렇게 해서 배에서 밥해서 먹으면서.) [하도]

흔-복 명 한-폭(-幅). [전역] = 흔-폭.

흔-불 명 한 벌. 한 차례. [전역]

흔불-검질 명 <농> 애벌-매기. *ᄆᆞ멀은 흔불검질만 매도 해 먹어지지.(메밀은 애벌매기만 해도 수확이 가능하지.) [전역] = 초불-검질.

흔-속 명 한-속. [전역] = 흔-쓱.

ᄒᆞᆫ-손 명 [전역] → ᄒᆞᆫ착-손.
ᄒᆞᆫ-숨 명 한-숨. ① 한 번의 호흡. [전역] ② 잠깐 동안의 휴식이나 잠. [전역]
ᄒᆞᆫ숨-밧 명 한참-갈이. ＊그 ᄃᆞ르겡인 ᄒᆞᆫ어의에 갈아지는 ᄒᆞᆫ숨밧이우다.(그 작은 밭은 잠깐 동안에 갈 수 있는 한참갈이입니다.) [전역]
ᄒᆞᆫ숨-에 부 한숨-에. ＊ᄒᆞᆫ숨에 ᄃᆞᆯ려왓수다.(한숨에 달려왔습니다.) [전역]
ᄒᆞᆫ-쉐역 명 소(牛) 한 마리로 하루 동안 논밭을 가는(耕) 일. [전역]
ᄒᆞᆫ-스럽다 형 한-스럽다(恨---). ＊분시 모르게 살아온 게 너미 ᄒᆞᆫ스로와.(철없이 살아온 것이 너무 한스러워.) [전역] = ᄒᆞᆫ-싀럽다.
ᄒᆞᆫ-싀럽다 형 [전역] → ᄒᆞᆫ-스럽다.
ᄒᆞᆫ시(-時) 명 한시. 잠깐 동안. ＊요샌 너미 바빵 ᄒᆞᆫ시도 쉴 트멍이 엇수다.(요즘은 너무 바빠서 한시도 쉴 틈이 없습니다.) [전역]
ᄒᆞᆫ시-반시(-時半時) 부 조금(이라도). 잠시(라도). ＊이 애긴 ᄒᆞᆫ시반시도 ᄀᆞ만 앚지 못헴저.(이 아긴 잠시도 가만히 앉지 못하네.) [전역]
ᄒᆞᆫ살-뒈다 동 한살-되다. ① 사귀는 정분이 아주 두터워 한몸같이 되다. [전역] ② 두 물건이 한데 어울려서 하나로 되다. [전역]
ᄒᆞᆫ-쓱 명 [전역] → ᄒᆞᆫ-속.
ᄒᆞᆫ-어의 명 잠깐 사이. ＊조반 먹기 전의 ᄒᆞᆫ어의에 뎅겨옵서.(아침밥 먹기 전에 잠깐 사이에 다녀오십시오.) [전역]
ᄒᆞᆫ-엇다 형 [전역] → ᄒᆞᆫ-읏다.
ᄒᆞᆫ-엇이 부 별로. ＊ᄒᆞ여 가는 일이 도저히 안 뒈고, 형도 나를 ᄒᆞᆫ엇이 좋아 안 ᄒᆞ니.(하여 가는 일이 도저히 안 되고, 형도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니.) [전역]
ᄒᆞᆫ-여름 명 ① 한-여름. [전역] ② 여름 한 철. [전역]
ᄒᆞᆫ-읎다 형 [전역] → ᄒᆞᆫ-읏다.
ᄒᆞᆫ-읏다 형 한-없다(限--). [전역] = ᄒᆞᆫ-엇다, ᄒᆞᆫ-읎다.
ᄒᆞᆫ읏은-놈 명 한없는 놈. 대단한 놈. ＊요놈덜이 ᄒᆞᆫ읏은놈덜이 아닐 것이라.(요놈들이 대단한 놈들이 아닐 것이라.) [전역]
ᄒᆞᆫ-잔(-盞) 명 [전역] → 단잔.
ᄒᆞᆫ장 명 한정(限定). [전역] = ᄒᆞᆫ정.
ᄒᆞᆫ저 부 어서 빨리. ＊ᄒᆞᆫ저 먹으라.(어서 먹어라.) ＊ᄒᆞᆫ저 옵서.(어서 오십시오.) [전역]
ᄒᆞᆫ-적 명 어느 시기(時期) 한 때. [전역]
ᄒᆞᆫ정 명 [전역] → ᄒᆞᆫ장.
ᄒᆞᆫ진네 부 쉬지 않고 줄곧. [전역]
ᄒᆞᆫ-집안 명 한-집안. [전역]
ᄒᆞᆫ-줌 명 한-잠. ＊ᄒᆞᆫ줌 잔 일어나난 이제사 살아지키여.(한잠 자고 일어나니 이제야 살 수 있겠네.) [전역]
ᄒᆞᆫ쪼-내다 동 [전역] → ᄒᆞᆫ툭-내다.
ᄒᆞᆫ착-발 명 외-발. ＊ᄇᆞᆯ리 가렌 ᄒᆞ연 놔두난 ᄒᆞᆫ착발로 툴락툴락 튀멍 감서.(빨리 가라고 해 두니까 외발로 깡충깡충 뛰면서 가고 있어.) [전역]
ᄒᆞᆫ착-손 명 외-손(-手). [전역] = ᄒᆞᆫ-손.
ᄒᆞᆫ착-풀 명 외-팔. ＊게난 ᄒᆞᆫ착풀로 ᄃᆞᆼ겨 올리는 사름이난 심도 씬 사름이주.(그러니까 외팔로 당겨 올리는

사람이니까 힘도 센 사람이지.) [전역]

흔-참[1] 명 오-리(五里). [전역] = 오리.

흔-참[2] 명 한-참. ① 일을 하거나 쉬는 동안의 한 차례. [전역] ② 한동안. [전역] = 한-참.

흔창-때 명 한창-때. * 흔창때 열심히 살아사주.(한창때 열심히 살아야지.) [전역]

흔-철 명 한-철. [수산 김녕 조수 가시]

흔칸-방 명 [전역] → 단칸-방.

흔칸-집 명 [전역] → 단칸-집.

흔칸-톱 명 <도> 톱날의 길이가 여섯 자인 톱. [감산]

흔탄 명 한탄(恨歎). [전역]

흔툭-내다 동 한턱-내다. [전역] = 흔쪼-내다.

흔-판 명 [전역] → 단-판.

흔-펜 명 한-편(-便). [전역]

흔-폭 명 [전역] → 흔-복.

흔헤동-나다 동 [노형 조수 인성] → 흔너덩-나다.

헐강-거리다 동 숨이 가빠서 아주 기운 없이 할딱거리며 가르랑거리다. [어도 인성]

헐강-헐강 부 숨이 가빠서 아주 기운 없이 할딱거리며 가르랑거리는 소리. [전역]

헐그랑-헐그랑 부 목구멍에 가래가 걸려서 숨쉬는 대로 기운 없이 가르랑거리며 내는 소리. [전역]

헐근-거리다 동 숨이 가빠서 기운 없이 숨소리로 할딱거리다. [김녕 어도]

헐긋-이 부 무슨 일이 이루어질까 오래 기다리고 있는 모양. [인성 서홍 수산 어도]

헐긋-헐긋 부 이제나저제나 하고 무척이나 기다리는 모양. * 헐긋헐긋 ᄒᆞ는 모냥이 누게 기다렴신게.('헐긋헐긋' 하는 모양이 누구를 기다리는 모양이네.) [전역]

헐랑-헐랑 부 물건이 단단하지 못하고 아주 유하여 잘 휘어지는 모양. [전역]

헐망-ᄒᆞ다 형 사람이 정신이 흐리어 잊어버림을 잘하고 똑똑하지 못하다. [전역]

험끠 부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 험끠 헐 생각을 말아사지.(아예 할 생각을 말아야지.) [전역]

험끼 부 [전역] → 험치.

험마 부 하마터면. * 험마 나 죽을 뻔. 가단 두 다리가 버짝헤부런.(하마터면 나 죽을 뻔. 가다가 두 다리가 굳어 버렸어.) [이호]

험마-떼민 부 [전역] → ᄒᆞ마-트민.

험부로 부 함부로. [전역] = 험불로. 고 흔보로.

험불로 부 [전역] → 험부로.

험새 명 [김녕] → 흉애.

험세 명 [세화 조천 태흥 표선 수산] → 흉애.

험세-다리 명 무엇을 달라고 보채며 어리광 부리기를 늘 버릇처럼 잘하는 아이. * 아인 험세다리로 키우민 안 뒈여.(아이는 '험세다리'로 키우면 안 돼.) [전역] = 험세-둥이.

험세-둥이 명 [전역] → 험세-다리.

험치 부 ① 한꺼번에 같이. * 험치 모다들엉 싸왓젠.(한꺼번에 같이 모여들어서 싸웠대.) [전역] ② 아예 생각할 것도 없이. * 험치 안 뒈여.(아

예 할 수가 없어.) [전역] = 흠끼. ㊞ᄒᆞᆫ삐.

ᄒᆞᆼ글-망글 부 걸음을 걸을 적에 허리를 이리저리 흔드는 모양. ＊저 여자 ᄒᆞᆼ글망글 걷는 거 보라.(저 여자 'ᄒᆞᆼ글망글' 걷는 걸 보아라.) [전역] = ᄒᆞᆼ글-ᄒᆞᆼ글. ㊞ᄒᆞᆼ글항글.

ᄒᆞᆼ글-ᄒᆞᆼ글 부 [전역] → ᄒᆞᆼ글-망글.

ᄒᆞᆼ상 부 항상(恒常). [전역] ㊞ᄒᆞᆼ샹.

ᄒᆞᆼ심 명 항심(恒心). [전역]

ᄒᆞᆼ심-엇다 형 [전역] → ᄒᆞᆼ심-읏다.

ᄒᆞᆼ심-읏다 형 떳떳한 마음이 조금도 없다. [전역] = ᄒᆞᆼ심-엇다.

ᄒᆞᆼ악-ᄒᆞᆼ악 부 응애-응애. [전역] = 홍악-홍악, ᄒᆞᆼ액-ᄒᆞᆼ액, ᄒᆞᆼ의약-ᄒᆞᆼ의약.

ᄒᆞᆼ애 명 어린애가 무엇을 달라고 보채며 어리광을 부리는 짓. [노형 조수 인성 세화] = ᄌᆞ세, ᄒᆞ미, 흠새, 흠세.

ᄒᆞᆼ액-ᄒᆞᆼ액 부 [전역] → ᄒᆞᆼ악-ᄒᆞᆼ악.

ᄒᆞᆼ의약-ᄒᆞᆼ의약 부 [전역] → ᄒᆞᆼ악-ᄒᆞᆼ악.

<부 록>

제주어표기법

<부 록>

제 주 어 표 기 법

제1장 총 칙

제1항 제주어 표기법은 "한글 맞춤법"에 따라 제주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 제주어에서 한 가지 의미의 말이 둘 이상의 형태로 나타날 경우에는 그 모두를 표기 대상으로 삼는다.

제2장 자 모

제3항 제주어 표기에 쓰일 글자는 한글 스물 넉자 외에 'ㆍ'와 'ㅸ' 두 자를 추가하되, 'ㅣ(이)' 다음에 배열하고, 이름은 'ᄋᆞ', 'ᄇᆞ'로 정한다.

제3장 소리에 관한 것

제1절 구개음화

제4항 'ㄷ, ㅌ' 받침 뒤에 종속적 관계를 가진 '-이(-)'나 '-히-'가 올 적에 그 'ㄷ, ㅌ'이 'ㅈ, ㅊ'으로 소리나더라도 'ㄷ, ㅌ'으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곧이	고지	걷히다	거치다
똠받이	똠바지	굳히다	구치다
미닫이	미다지	닫히다	다치다
몯이	모지	묻히다	무치다
헤돋이	헤도지	받히다	바치다

다만, 다음 말들은 소리나는 대로 적는다.

ᄀᆞ치·ᄀᆞ찌 부치다·부찌다 술부치 쒜부치 일가부치 피부치

제5항 'ㄱ'이 'ㅣ'나 'ㅑ, ㅕ'와 결합될 적에 'ㅈ'으로, 'ㅎ'이 'ㅣ'나 'ㅑ, ㅕ, ㅛ, ㅠ'와 결합될 적에 'ㅅ'으로 소리나는 것은 각각 'ㄱ'과 함께 'ㅈ', 'ㅎ'과 함께 'ㅅ'으로도 적는다.

겨를·즈를·저를	겨우·제우	겨울·저울·저슬
결단·절단	결박·절박	겹바지·접바지
기동·지동	기름·지름	기와·지에
기침·지침	길·질	길마·질메
향교·상교	향낭·상낭	혀·세
현금·선금	혈기·설기	형·성
효즈·소즈	흉년·숭년	힘·심
갸울이다·자울이다	견디다·존디다·전디다	

제2절 모 음

제6항 'ㆍ'는 'ㅓ'나 'ㅗ' 비슷하게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ㆍ'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ᄃᆞ리(橋)	도리·더리	경ᄒᆞᆫ디	경흔디·경헌디
ᄃᆞᆯ(月)	돌·덜	ᄀᆞ지다	고지다·거지다
ᄆᆞᅀᆞᆯ(里)	모슬·머슬	ᄂᆞᆯ다	놀다·널다
ᄆᆞᆯ(馬)	몰·멀	일ᄒᆞ다	일호다·일허다
ᄇᆞᄅᆞᆷ(風)	보름·버름	ᄒᆞᄁᆞᆷ	호꼼·허꼼
ᄉᆞᆯ(膚)	솔·설	ᄒᆞᆫ저	혼저·헌저
ᄑᆞᆺ(小豆)	폿·팟	ᄒᆞᆷ치	홈치·험치

제7항 'ㅱ'는 'ㅛ'나 'ㅑ·ㅕ' 비슷하게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ㅱ'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ᄋᆞᆷ든	요든·야든	ᄋᆞᆷ망지다	요망지다·야망지다
ᄋᆞᆷ덥	요덥·야덥	ᄋᆞᆨ다	욕다·역다
ᄋᆞᆷᄉᆞᆺ	요ᄉᆞᆺ·야ᄉᆞᆺ	ᄋᆞᆨ삭다	욕삭다·역삭다
ᄋᆞᆺ세	욧세·얏세	ᄋᆞᆨᄒᆞ다	욕욕ᄒᆞ다·역역ᄒᆞ다
ᄋᆞᅘ가슴	욮가슴·얖가슴	ᄋᆞᆷ다	욤다·얌다

제8항 'ㅐ'는 'ㅔ' 비슷하게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ㅐ'로 적는다.

개(犬)	개ᄀᆞ(浦邊)	내(吾)	내(川)
내움살(臭)	너댓(四五)	대(竹)	대낮(-晝)
대ᄋᆞᆺ(五六)	대초(椒)	때(時)	매(鷹)
매(鞭)	물매(-鞭)	새(茅)	새돌(一月)
새벽(晨)	새스방(新郎)	첫새끼(-雛)	해(多)
개다(晴)	내밀다(突出)	내돋다(疾走)	새기다(刻)
새다(曙)	새움ᄒᆞ다(嫉妬)	애쓰다(勞心)	재우다(就寢)
포개다(重疊)	해롭다(害-)	화내다(火-)	
개별(個別)	개판(蓋板)	대강(大綱)	채권(債權)

제9항 '에'음은 'ㅔ'소리로 변해졌으므로 'ㅔ'로 적는다.

네(烟)	베(腹·梨·船)	세(間)	셍각(思)
제(灰)	헤(太陽)		
게량(改良)	게훼(開會)	네일(來日)	데데(代代)
메일(每日)	엑수(額數)	제간(才幹)	제물(財物)
체소(菜蔬)	쵁(冊)	테(胎)	테만(怠慢)
헤동(海東)	헹설(行實)		
께돋다(覺)	데ᄒᆞ다(對-)	베다(姙)	베우다(學)
세다(漏)	케다(採)	페다(마구 때림)	

제10항 '며, 벼, 펴'의 'ㅕ'는 'ㅔ' 또는 'ㅣ'로도 소리나므로 'ㅕ'와 함께 'ㅔ, ㅣ'로 적는다.

면장·멘장·민장(面長)	면도·멘도·민도(面刀)
명·멩·밍(命)	병·벵·빙(病)
병·벵·빙(甁)	병·벵·빙(餠)
편지·펜지·핀지(便紙)	

제11항 'ㅚ'는 이중모음 'ㅞ'로 소리나서 단모음으로는 발음되지 않으므로 'ㅞ'로 적는다.

궤기(魚·肉)	궤한(怪漢)	네웨(內外)	눼물(賂物)
눼염(腦炎)	뒈(升)	쒜(牛)	쒜(鐵)
웨가(外家)	줴(罪)	췌소(最小)	퉤직(退職)
훼의(會議)	뒈다(爲)		

제12항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ㅢ'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늬(齒)	니	고희(古稀)	고히
늬(蝨)	니	논의(論議)	논이
늴리리	닐리리	본의(本義)	본이
듸다	디다	예의(禮儀)	예이
띄어쓰기	띠어쓰기	의심(疑心)	이심
무늬(紋)	무니	주의(注意)	주이
씌어	씨어	중의(中衣)	중이
틔어	티어	한의(漢醫)	한이
희끗희끗	히끗히끗	희롱(戱弄)	히롱
희다(白)	히다	희망(希望)	히망

제4장 형태에 관한 것

제1절 체언과 조사

제13항 체언은 조사와 구별하여 적는다.

독(鷄) :	독이	독을	독에	독으로	독만	독더레
흑(土) :	흑이	흑을	흑에	흑으로	흑만	흑더레
신(鞋) :	신이	신을	신에	신으로	신만	신더레
손(手) :	손이	손을	손에	손으로	손만	손더레
ᄀᆞ를(粉) :	ᄀᆞ를	ᄀᆞ를을	ᄀᆞ를에	ᄀᆞ를로	ᄀᆞ를만	ᄀᆞ를러레
돌(月) :	돌이	돌을	돌에	돌로	돌만	돌러레
질(道路) :	질이	질을	질헤	질흐로	질만	질러레
		질흘	질에	질로		
몰(馬) :	몰이	몰을	몰에	몰로	몰만	몰러레
ᄀᆞ슴(材料):	ᄀᆞ슴이	ᄀᆞ슴을	ᄀᆞ슴에	ᄀᆞ슴으로	ᄀᆞ슴만	ᄀᆞ슴더레
남(木) :	남이	남을	남에	남으로	남만	남더레
ᄆᆞ음(心) :	ᄆᆞ음이	ᄆᆞ음을	ᄆᆞ음에	ᄆᆞ음으로	ᄆᆞ음만	
	ᄆᆞ슴이	ᄆᆞ슴을	ᄆᆞ슴에	ᄆᆞ슴으로	ᄆᆞ슴만	
ᄋᆞᄃᆞᆸ(八) :	ᄋᆞᄃᆞᆸ	ᄋᆞᄃᆞᆸ을	ᄋᆞᄃᆞᆸ에	ᄋᆞᄃᆞᆸ으로	ᄋᆞᄃᆞᆸ만	ᄋᆞᄃᆞᆸ더레
입(口) :	입이	입을	입에	입으로	입만	입더레

풋(小豆) :	풋	풋을	풋에	풋으로	풋만	풋더레
눗(顔) :	눗이	눗을	눗에	눗으로	눗만	눗더레
벗(友) :	벗이	벗을	벗에	벗으로	벗만	벗신더레
꼿(花) :	꼿이	꼿을	꼿에	꼿으로	꼿만	꼿더레
고장(花) :	고장	고장을	고장에	고장으로	고장만	고장더레
낭(木) :	낭이	낭을	낭에	낭으로	낭만	낭더레
삶(生活) :	삶이	삶을	삶에	삶으로	삶만	
값(價) :	값이	값을	값에	값으로	값만	

새벡(晨) :	새벡이	새벡을	새벡의	새벡원	새벡의도	새벡만
박(外) :			박긔	박권	박긔도	박긔만	박긔레
집안(家內):	집안이	집안을	집안의	집안원	집안의도	집안만
절간(寺刹):	절간이	절간을	절간의	절간원	절간의도	절간만	절간더레
산(山) :	산이	산을	산의	산원	산의도	산만	산더레
봄(春) :	봄이	봄을	봄의	봄원	봄의도	봄의만
밤(夜) :	밤이	밤을	밤의	밤원	밤의도	밤만
집(家) :	집이	집을	집의	집원	집의도	집만	집더레
밧(外) :			밧긔	밧권	밧긔도	밧긔만	밧긔레

마당(場) :	마당이	마당을	마당의	마당원	마당의도	마당만	마당더레
바당(海) :	바당이	바당을	바당의	바당원	바당의도	바당만	바당더레
방(房) :	방이	방을	방의	방원	방의도	방의만	방더레
밤중(夜中):	밤중이	밤중을	밤중의	밤중원	밤중의도	밤중만
초승(初-):	초승이	초승을	초승의	초승원	초승의도	초승만
낮(晝) :	낮이	낮을	낮의	낮원	낮의도	낮의만
곶(藪) :			곶의	곶원	곶의도	곶의만	곶더레
앞(前) :	앞이	앞을	앞의	앞원	앞의도	앞의만	앞더레
조꼿(側) :	조꼿이	조꼿을	조꼿듸	조꼿된	조꼿듸도	조꼿듸만	조꼿더레
	저졋이	저졋을	저졋듸	저졋된	저졋듸도	저졋듸만	저졋더레
	저꾯이	저꾯을	저꾯듸	저꾯된	저꾯듸도	저꾯듸만	저꾯더레
꾯(末) :	꾯이	꾯을	꾯듸	꾯된	꾯듸도	꾯듸만	꾯더레
			꾯틔			
못(池) :	못이	못을	못듸	못된	못듸도	못듸만	못더레
밋(底) :	밋이	밋을	밋틔	밋틘	밋틔도	밋틔만	밋터레
바졋(外):	바졋이	바졋을	바졋듸	바졋된	바졋듸도	바졋듸만	바졋더레
밧(田) :	밧이	밧을	밧듸	밧된	밧듸도	밧듸만	밧더레
벳(太陽):	벳이	벳을	벳듸	벳된	벳듸도	벳듸만	벳더레

솥(鼎) : 솥이 솥을 솥듸 솥둰 솥듸도 솥듸만 솥더레
안(內) : 안이 안을 안틔 안틔만 안터레
안흘 안희
ᄀᆞᆺ(邊) : ᄀᆞᆺ이 ᄀᆞᆺ을 ᄀᆞᆺ듸 ᄀᆞᆺ둰 ᄀᆞᆺ듸도 ᄀᆞᆺ더레
머리맛 : 머리맛이 머리맛듸 머리맛듸도 머리맛더레

제2절 어간과 어미

제14항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

녹다(消) :	녹고	녹지	녹안	녹으민	녹암저	녹앗수다
먹다(食) :	먹고	먹지	먹언	먹으민	먹엄저	먹엇수다
신다(履) :	신고	신지	신언	신으민	신엄저	신엇수다
안다(抱) :	안고	안지	안안	안으민	안암저	안앗수다
걷다(捲) :	걷고	걷지	걷언	걷으민	검엄저	걷엇수다
받다(受) :	받고	받지	받안	받으민	받암저	받앗수다
갈다(耕) :	갈고	갈지	갈안	갈민	갈암저	갈앗수다
몰다(驅) :	몰고	몰지	몰안	몰민	몰암저	몰앗수다
검다(黑) :	검고	검지	검언	검으민	검엄저	검엇수다
숨다(隱) :	숨고	숨지	숨언	숨으민	숨엄저	숨엇수다
곱다(隱) :	곱고	곱지	곱안	곱으민	곱암저	곱앗수다
입다(被) :	입고	입지	입언	입으민	입엄저	입엇수다
낫다(癒) :	낫고	낫지	낫안	낫으민	낫암저	낫앗수다
벗다(脫) :	벗고	벗지	벗언	벗으민	벗엄저	벗엇수다
젖다(濕) :	젖고	젖지	젖언	젖으민	젖엄저	젖엇수다
잊다(忘) :	잊고	잊지	잊언	잊으민	잊엄저	잊엇수다
낳다(産) :	낳고	낳지	낳안	낳으민	낳암저	낳앗수다
좋다(好) :	좋고	좋지	좋안	좋으민	좋암저	좋앗수다
앉다(坐) :	앉고	앉지	앉안	앉으민	앉암저	앉앗수다
	아지고	아지지	아잔	아지민	아잠저	아잣수다
	안지고	안지지	안잔	안지민	안잠저	안잣수다
	앚고	앚지	앚안	앚이민	앚암저	앚앗수다
긁다(搔) :	긁고	긁지	긁언	긁으민	긁엄저	긁엇수다
굶다(饑餓) :	굶고	굶지	굶언	굶으민	굶엄저	굶엇수다
넓다(廣) :	넓고	넓지	넓언	넓으민	넓엄저	넓엇수다

	넙고	넙지	넙언	넙으민	넙엄저	넙엇수다
곯다(未滿) :	곯고	곯지	곯안	곯으민	곯암저	곯앗수다
없다(無) :	없고	없지	없언	없으민		없엇수다
	옶고	옶지	옶언	옶으민		옶엇수다
	웃고	웃지	웃언	웃으민		웃엇수다
	엇고	엇지	엇언	엇으민		엇엇수다
잇다(有) :	잇고	잇지	잇언	잇으민		잇엇수다
	싯고	싯지	시언	시민		시엇수다
			이선	이시민		이섯수다

제15항 다음과 같은 용언들은 어미가 바뀔 경우, 그 어간이나 어미가 원칙에 벗어나면 벗어나는 대로 적는다.

1. 어간의 끝 'ㄹ'이 줄어질 적.

걸다(掛) :	절고	걸지	걸민	거니	건	겁네다
놀다(遊) :	놀고	놀지	놀민	노니	논	놉네다
놀다(飛) :	놀고	놀지	놀민	노니	논	놉네다
돌다(懸) :	돌고	돌지	돌민	도니	돈	돕네다
멩글다(造):	멩글고	멩글지	멩글민	멩그니	멩근	멩급네다
물다(咬) :	물고	물지	물민	무니	문	뭅네다
밀다(推) :	밀고	밀지	밀민	미니	민	밉네다
불다(吹) :	불고	불지	불민	부니	분	붑네다
쓸다(掃) :	쓸고	쓸지	쓸민	쓰니	쓴	씁네다
어질다(賢):	어질고	어질지	어질민	어지니	어진	어집네다
얼다(凍) :	얼고	얼지	얼민	어니	언	업네다
엶다(開) :	엶고	엶지	엶민	으니	엶	엶네다
졸다(小) :	졸고	졸지	졸민	주니	존	좁네다
풀다(賣) :	풀고	풀지	풀민	푸니	푼	풉네다

2. 어간의 끝 'ㄷ'이 'ㄹ'로 바뀔 적.

걷다(步) :	걷고	걷지	걸으민	걸으난	걸언	걸읍네다
굳다(曰) :	굳고	굳지	굴으민	굴으난	굴안	굴읍네다
돋다(走) :	돋고	돋지	돌으민	돌으난	돌안	돌읍네다
듣다(聞) :	듣고	듣지	들으민	들으난	들언	들읍네다
묻다(問) :	묻고	묻지	물으민	물으난	물언	물읍네다
일콛다(稱) :	일콛고	일콛지	일콜으민	일콜으난	일콜안	일콜읍네다

3. 어간의 끝 'ㅂ'이 'ㅗ·ㅜ'로 바뀔 적.

곱다(艶) :	곱고	곱지	고완	고우난	고우민	고왓수다
굽다(燔) :	굽고	굽지	구원	구우난	구우민	구웟수다
궤롭다(苦) :	궤롭고	궤롭지	궤로완	궤로우난	궤로우민	궤로왓수다
눕다(臥) :	(눅고)	(눅지)	누원	누우난	누우민	누웟수다
무섭다(恐) :	무섭고	무섭지	무서완	무서우난	무서우민	무서왓수다
ᄆᆞᅀᆞᆸ다(恐) :	ᄆᆞᅀᆞᆸ고	ᄆᆞᅀᆞᆸ지	ᄆᆞᅀᆞ완	ᄆᆞᅀᆞ우난	ᄆᆞᅀᆞ우민	ᄆᆞᅀᆞ왓수다
밉다(憎) :	밉고	밉지	미원	미우난	미우민	미웟수다

4. 어간의 끝음절 '르'의 'ㅡ'가 줄고, 그 뒤에 오는 어미 '-아/-어'가 '-라/-러'로 바뀔 적.

가르다(分) :	가르고	가르지	갈란	갈람저	갈랏수다	가릅서
	갈르고	갈르지	갈란	갈람저	갈랏수다	갈릅서
고르다(調) :	고르고	고르지	골란	골람저	골랏수다	고릅서
	골르고	골르지	골란	골람저	골랏수다	골릅서
나르다(運搬) :	나르고	나르지	날란	날람저	날랏수다	나릅서
	날르고	날르지	날란	날람저	날랏수다	날릅서
다르다(異) :	다르고	다르지	달란	달람저	달랏수다	
	달르고	달르지	달란	달람저	달랏수다	
도르다(返品) :	도르고	도르지	돌란	돌람저	돌랏수다	도릅서
	돌르고	돌르지	돌란	돌람저	돌랏수다	돌릅서
ᄆᆞ르다(乾) :	ᄆᆞ르고	ᄆᆞ르지	몰란	몰람저	몰랏수다	
	몰르고	몰르지	몰란	몰람저	몰랏수다	
바르다(正) :	바르고	바르지	발란	발람저	발랏수다	
	발르고	발르지	발란	발람저	발랏수다	
ᄇᆞ르다(塗) :	ᄇᆞ르고	ᄇᆞ르지	볼란	볼람저	볼랏수다	볼릅서
	볼르고	볼르지	볼란	볼람저	볼랏수다	볼릅서
부르다(唱) :	부르고	부르지	불런	불럼저	불럿수다	부릅서
	불르고	불르지	불런	불럼저	불럿수다	불릅서
사르다(燒) :	사르고	사르지	살란	살람저	살랏수다	사릅서
	살르고	살르지	살란	살람저	살랏수다	살릅서
시르다(載) :	시르고	시르지	실런	실럼저	실럿수다	시릅서
	실르고	실르지	실런	실럼저	실럿수다	실릅서
ᄍᆞ르다(短) :	ᄍᆞ르고	ᄍᆞ르지	졸란	졸람저	졸랏수다	
	졸르고	졸르지	졸란	졸람저	졸랏수다	
할르다(舐) :	할르고	할르지	할란	할람저	할랏수다	할릅서

제16항 어간의 끝음절과 어미 '-ㅏ/-ㅓ'가 결합되면서 어간 끝음절 모음 'ㅡ'가 줄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가끄다(削) :	가끄고	가끄지	가깐	가깜저	가깜수다	가끄키여
고프다 :	고프고	고프지	고판	고팜저	고팜수다	고프키여
가프다(報) :	가프고	가프지	가판	가팜저	가팜수다	가프키여
거끄다(折) :	거끄고	거끄지	거껀	거껌저	거껌수다	거끄키여
ᄀᆞ트다(如) :	ᄀᆞ트고	ᄀᆞ트지	ᄀᆞ탄	ᄀᆞ탐저	ᄀᆞ탐수다	ᄀᆞ트키여
	ᄀᆞ뜨고	ᄀᆞ뜨지	ᄀᆞ딴	ᄀᆞ땀저	ᄀᆞ땀수다	ᄀᆞ뜨키여
나끄다(釣) :	나끄고	나끄지	나깐	나깜저	나깜수다	나끄키여
노프다(高) :	노프고	노프지	노판	노팜저	노팜수다	노프키여
다끄다(修) :	다끄고	다끄지	다깐	다깜저	다깜수다	다끄키여
더프다(蓋) :	더끄고	더끄지	더껀	더껌저	더껌수다	더끄키여
	더프고	더프지	더펀	더펌저	더펌수다	더프키여
둥그다(沈漬):	둥그고	둥그지	둥간	둥감저	둥감수다	둥그키여
마트다(任) :	마트고	마트지	마탄	마탐저	마탐수다	마트키여
무끄다(束) :	무끄고	무끄지	무껀	무껌저	무껌수다	무끄키여
바트다(吐) :	바트고	바트지	바탄	바탐저	바탐수다	바트키여
	바끄고	바끄지	바깐	바깜저	바깜수다	바끄키여
보끄다(炒) :	보끄고	보끄지	보깐	보깜저	보깜수다	보끄키여
부트다(附) :	부트고	부트지	부턴	부텀저	부텀수다	부트키여
	부뜨고	부뜨지	부떤	부떰저	부떰수다	부뜨키여
서끄다(混) :	서끄고	서끄지	서껀	서껌저	서껌수다	서끄키여
	서트고	서트지	서턴	서텀저	서텀수다	서트키여
시끄다(載) :	시끄고	시끄지	시껀	시껌저	시껌수다	시끄키여
실프다(厭) :	실프고	실프지	실펀	실펌저	실펌수다	실프키여
싱그다(植) :	싱그고	싱그지	싱건	싱검저	싱검수다	싱그키여
아프다(痛) :	아프고	아프지	아판	아팜저	아팜수다	아프키여
야트다(淺) :	야트고	야트지	야탄	야탐저	야탐수다	야트키여
	야프고	야프지	야판	야팜저	야팜수다	야프키여
어프다(覆) :	어프고	어프지	어펀	어펌저	어펌수다	어프키여
여끄다(編) :	여끄고	여끄지	여껀	여껌저	여껌수다	여끄키여
	ᄋᆞ끄고	ᄋᆞ끄지	ᄋᆞ깐	ᄋᆞ깜저	ᄋᆞ깜수다	ᄋᆞ끄키여
을프다(詠) :	을프고	을프지	을펀	을펌저	을펌수다	을프키여
주끄다(吠) :	주끄고	주끄지	주껀	주껌저	주껌수다	주끄키여
지프다(深) :	지프고	지프지	지펀	지펌저	지펌수다	지프키여

지프다 : 지프고 지프지 지펀 지펌저 지펌수다 지프키여
푸끄다(扇) : 푸끄고 푸끄지 푸껀 푸껌저 푸껌수다 푸끄키여
할트다(舐) : 할트고 할트지 할탄 할탐저 할탐수다 할트키여

제17항 용언 어간의 끝 'ㅅ'은 줄어지지 않으므로 그 어간의 원형 대로 적는다.

긋다(劃) : 긋고 긋지 긋언 긋으민 긋엄수다 긋으키여
낫다(癒) : 낫고 낫지 낫안 낫으민 낫암수다 낫으키여
붓다(浮症) : 붓고 붓지 붓언 붓으민 붓엄수다 붓으키여
잇다(繼) : 잇고 잇지 잇언 잇으민 잇엄수다 잇으키여
좃다(紡) : 좃고 좃지 좃안 좃으민 좃암수다 좃으키여
줏다(拾) : 줏고 줏지 줏언 줏으민 줏엄수다 줏으키여
짓다(造) : 짓고 짓지 짓언 짓으민 짓엄수다 짓으키여

제18항 용언의 어간 'ㅎ'는 줄어지지 않으므로 그 어간의 원형 대로 적는다.

거멓ㅎ다 : 거멓ㅎ고 거멓ㅎ지 거멓ㅎ연 거멓ㅎ염수다
기영ㅎ다 : 기영ㅎ고 기영ㅎ지 기영ㅎ연 기영ㅎ염수다
노랗ㅎ다 : 노랗ㅎ고 노랗ㅎ지 노랗ㅎ연 노랗ㅎ염수다
동그랗ㅎ다 : 동그랗ㅎ고 동그랗ㅎ지 동그랗ㅎ연 동그랗ㅎ염수다
만ㅎ다 : 만ㅎ고 만ㅎ지 만ㅎ연 만ㅎ염수다
수랗ㅎ다 : 수랗ㅎ고 수랗ㅎ지 수랗ㅎ연 수랗ㅎ염수다
퍼렇ㅎ다 : 퍼렇ㅎ고 퍼렇ㅎ지 퍼렇ㅎ연 퍼렇ㅎ염수다

제19항 선어말어미 '-았-/-었-'에 해당되는 형태는 '-앗-/-엇-'으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보앗수다	보았수다	갓주기	갔주기
먹엇고나	먹었고나	쉬엇다	쉬었다
ㅎ엿고나	ㅎ였고나	ㅎ엿저	ㅎ였저

제20항 연결어미 '-면'은 소리나는 대로 '-면·-믄·-민'으로 적는다.

가면·가믄·가민 갈면·갈믄·갈민
놀면·놀믄·놀민 돌으면·돌으믄·돌으민
먹으면·먹으믄·먹으민

제21항 종결어미 '-저'와 '-주(-쥐)'는 '-쩌'와 '-쭈(-쮜)'로 소리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저','-주(-쥐)'로 적는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먹엄저	먹엄쩌	먹엇저	먹엇쩌
놀암저	놀암쩌	놀앗저	놀앗쩌
돚암저	돚암쩌	돚앗저	돚앗쩌

제22항 서술어 뒤에 덧붙어 존대를 표시하는 '마씀'은 소리나는 대로 '마씀·마슴·마씸·마심·마씨·마시'로 적는다.

가의 오라서마씀?	가의 가서마슴?
뿔리 ᄒᆞ여마씸?	이제 가크라마심?
이건 우리 몰마씨.	이건 우리 쉐마시.

제3절 접미사가 붙어서 된 말

제23항 어간에 '-이'나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1. '-이'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살렴살이　　헤묵이　　버을이　　돌맞이　　다듬이

2. '-음/-ㅁ'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

수눌음　　무끔　　보끔　　여끔

3.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실웃이　　굳이　　얄궂이

제24항 어간의 끝음절과 명사나 부사를 만드는 접미사 '-ㅣ'가 결합되면서 어간 끝음절 모음 'ㅡ'가 줄 적에는 주는 대로 적는다.

1. '-ㅣ'가 붙어서 명사로 된 것.

노피　　지피　　베아피　　떡보끼

2. '-ㅣ'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

노피　　지피　　야피　　실피

제4절　합성어와 접두사가 붙은 말

제25항 둘 이상의 단어가 어울리거나 접두사가 붙어서 된 말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는다.

꼿잎	끗장	밋천	부엌일	알옷
옷안	웃옷	젓몸살	첫아돌	칼놀
풋알	헛소리	홀아방	흑내움살	
굶주리다	맞먹다	빗나가다	빗나다	헛뒈다
새파랑ᄒᆞ다	싯꺼멍ᄒᆞ다	엿듣다	짓노랑ᄒᆞ다	짓누렁ᄒᆞ다

다만,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말은 그 원형을 밝히어 적지 아니한다(ㄱ을 취하고, ㄴ을 버림.).

ㄱ	ㄴ	ㄱ	ㄴ
하르방	할으방·하루방	오라방	올아방
하기새	학의새	메칠·메틀	몇일
이틀	읻흘	업시네기다	없이여기다
부리나게	불이나게		

제26항 '늬(齒·蝨)'는 합성어나 이에 준하는 말에서도 '늬'로 소리나므로 '늬'로 적는다.

곤늬	덧늬	송곳늬	ᄉᆞ랑늬	알늬	앞늬	어금늬
웃늬	젓늬	톱늬	틀늬	ᄀᆞ랑늬	머릿늬	

[붙임] 이 표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글 맞춤법'에 따른다.

(제주방언연구회)

개정증보 제주어사전
濟州語辭典

2009년 11월 15일 인쇄
2009년 12월 1일 발행

발행 : 제주특별자치도
편집 : 제주문화예술재단
인쇄 : 일신옵셋인쇄사
제주시 이도2동 1927번지
전화 064) 758-1500

ISBN 978-89-962572-5-7 01710
<비매품>

※ 이 『제주어사전』의 모든 내용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